

제주 유배 문화 자원 조사

제주 유배 문화 사료집 (I)

- 제주 유배사 -

차 례

TABLE OF CONTENTS

발간사	4
제1장 제주목	7
제2장 정의현	311
제3장 대정현	511

발 간 사

제주 유배문화는 고난과 시련을 넘어, 역경 속에서도 학문과 문학이 꽃피고 지역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귀중한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러한 성취와 교류의 흔적은 제주의 역사적 자산으로서 재조명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 유배 문화 자원 조사 보고서』는 제주 전역에 남아 있는 유배 관련 유적과 문헌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한 결과물로, 약 700명에 달하는 유배인들의 삶과 그들이 제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목·대정현·정의현별로 유배되었던 인물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지역별·시기별 유배인 목록을 정리하여 이들의 유배 사료를 총망라했습니다. 또한 유배인들 가운데 시·문집을 남긴 인물들의 기록 원문을 한데 모아 두 권의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유배문화와 사료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연구자와 일반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한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본 보고서와 자료집이 제주 유배문화의 역사적 실체와 잠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유배문화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가 가진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유배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깊이를 더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조사와 자료집 제작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조사와 집필에 참여한 홍기표·김새미오·김진철·강동호·김재형·손기범 연구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의 방향을 잡아주신 김익수·강문규·양진건·김동전·문종태 자문위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조사 책임을 맡아 성실히 임해 준 임승희 연구원과 김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고서와 자료집이 학계와 지역사회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기초자료가 되어, 제주 유배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제1장 제주목

1-2.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 신분: 외척(원경왕후 제)
- 유배 연월: 1409년(태종 9) 10월 14일.
- 사망 연월: 1410년(태종 10) 3월 17일.
- 사유: 정치변동(외척 배제)
- 관련 사료

1) 『태종실록』(권 18) 1409년(태종 9) 10월 14일.

○ 遣巡禁司司直沈龜麟于瓮津, 副司直禹導于三陟, 押無咎, 無疾置濟州. 政府上言: “巡禁司官至全羅道而還, 觀察使定差使員, 押送濟州.” 上許之. 聽無咎等率其家內奴婢以行.

2) 『태종실록』(권 19) 1410년(태종 10) 3월 17일.

○ 賜閔無咎·無疾自盡. 成石璘, 金漢老, 俛眉壽等至行在, 與隨駕臣僚, 皆詣敬德宮, 班立方進疏, 上問: “何爲來也?” 石璘等對曰: “臣僚聞車駕久留于此, 以賊黨不可久存, 故來請耳.” 上不覽疏曰: “宰相此請非一日, 疏中之意, 予已知之矣. 寡人此行, 若一年半, 則卿等之來宜矣. 明日行祭, 卽當還歸, 何汲汲也?” 石璘等對曰: “臣等豈不聞近日問事

之由乎? 如趙珙之言, 可謂寒心, 故今者臣僚之憤, 倍於舊日. 若不賜俞音, 雖徹夜不敢退. 願斷以大義.” 上對又如初. 石璘等啓曰: “無咎, 無疾等罪, 不容於覆載之間, 雖一日不可生於世, 而得至於四年之久, 誰不腐心切齒! 臣等之請, 固非一日. 昔者至有攀馬帶而諫者. 殿下雖幸千里之道, 固當從而請之. 況今庶僚聞趙珙之言, 怨憤以謂, 賊黨蔓延至此, 爾爲首相, 何不能舉法固請! 下僚之責, 既如此, 老臣若不得請, 將何顏而退! 若以臣言爲不是, 臣亦當乞身而退矣.” 上曰: “此不是小事, 豈可遽從?” 石璘對曰: “國非一人之私有, 臣僚之言, 豈可拒而不受乎?” 漢老啓曰: “此非唯臣等之失望, 雖近日伏刑之徒, 若或有靈, 則亦以謂, 恕首賊而獨誅吾等, 是何意也? 必懷怏怏之心於九泉之下矣. 願斷以大義.” 上曰: “明日行祭後, 吾當更思.” 石璘曰: “自古及今, 所以維持國家者, 以忠與孝耳. 若無忠孝, 安有君父乎? 無咎等, 罪在不議, 更何思焉?” 英茂曰: “人臣苟懷不忠之心, 則雖一日尙不可延喘息. 殿下所以優游不斷者, 但以私恩耳. 以一時之私恩, 比萬世之宗社, 必有輕重矣.” 上曰: “寡人於此輩, 有何私恩! 明日覽疏, 當有處置.” 漢老啓曰: “臺諫之請, 四年于茲. 今日始聞俞音, 正當固請, 必俟判付而後退. 在庭之臣, 孰敢有先退者乎?” 石璘從而啓曰: “所司之言, 既如此, 臣等若退, 則所司必從而劾之.” 英茂啓曰: “無咎等厚蒙上恩, 當殿下發瘡, 與李茂等會議私第, 欲何爲也? 噤所司員構上位所無過失, 使之封章, 又何意也? 上猶且寬假, 不肯安分, 欲害兩王子, 此臣等所以日夜怨憤而欲誅者也.” 上曰: “大臣與所司, 咸來于此. 明日行祭之後, 更請何晚!” 石璘, 漢老等更啓曰: “今日上教所重在祭, 若他事則固然, 此輩欲害王子, 祖宗之靈, 亦欲誅之. 如斷此事而行祭, 則先后必右享之矣.” 上曰: “予所以不能斷此事, 兒女之小情, 恐傷舅家之心耳, 今則可以斷矣.” 時夜已二鼓, 石璘等或坐或立以俟. 上召諸代言謂曰: “李茂子若使竝誅, 則刑不亦濫乎?” 乃取議政府百官臺諫疏, 親自立草, 判曰: “依申. 其李茂子, 籍沒爲奴.” 命政府曰: “予於前日李茂之事, 深有慊焉. 昔文帝誅薄昭使自盡. 卿等亦當依此法施行.” **乃遣巡禁司護軍李繩直, 刑曹正郎金自西如濟州, 賜無咎, 無疾自盡.**

3. 모지리(毛知里)

- 신분: 노비(관노)
- 유배 연월: 1441년(세종 23) 8월 1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간통, 폭행)
- 관련 사료

1) 『세종실록』(권 93) 1441년(세종 23) 8월 10일.

○ 咸吉道都節制使啓: “鏡城府官奴毛知里奸女妓, 因妬恚, 投射軍官會處, 推劾抵罪, 決杖一百, 贖徒三年. 此人罪重罰輕, 懲艾無門, 請置極刑.” 命安置濟州.

4. 신이중(辛以中)

- 신분: 호군(護軍)¹⁾
- 유배 연월: 1456년(세조 2) 6월 27일.
- 이배 연월: 1459년(세조 5) 6월 28일(목천≡천안).
- 사유: 역모 연루(단종 복위)
- 관련 사료

1) 『세조실록』(권 4) 1456년(세조 2) 6월 27일.

○ 傳旨義禁府曰: “成燾, 成照, 成然, 權景行收告身, 安置遠方, 李貞元, 趙哲山亦收告身, 配遠方, 辛以中 濟州, 朴搆謙 巨濟屬官奴, 成九淵, 洪澤, 曹柱, 李元孝, 崔終末, 朴長守永屬邊邑奴.”

2) 『세조실록』(권 16) 1459년(세조 5) 6월 28일.

○ 傳旨義禁府曰: “官奴永屬人濟州 辛以中, 巨濟 朴搆謙, 南海 成九淵, 昆陽 洪澤, 寶城 曹柱, 慈城 楊子濡等, 自願外方移, 永屬安置人金海 成燾 · 成照 · 成然等, 自願外方移安置.”

3) 『세조실록』(권 26) 1461년(세조 7) 12월 24일.

○ 傳旨義禁府曰: “延日安置鄭錫禮, 陰城安置鄭錫禧, 木川永屬辛以中, 寧邊永屬姜從山, 富寧永屬崔仁等 竝皆放遣.”

1) 호군(護軍): 조선 전기 오위(五衛) 소속의 정4품 관직. 상호군, 대호군과 함께 대궐 내에 설치된 호군청(護軍廳)에서 직숙(直宿)하며, 궁성 4대문 밖의 직숙과 광화문의 수호책임 및 도성 내외의 순관(巡官)이 되었다.

5. 김처례(金處禮)

- 신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 유배 연월: 1465년(세조 11) 4월 19일.
- 이배 연월: 1474년(성종 5) 12월 3일.
- 사유: 역모 연루(형 김처의<金處義> 역모)
- 관련 사료

1) 『세조실록』(권 35) 1465년(세조 11) 4월 19일.

○ 上召左承旨金壽寧, 草誅(奉石枉)[奉石柱]等教書, 仍謂壽寧曰: “吾今日殺三功臣, 於心安乎?” 壽寧對曰: “彼非功臣, 乃賊臣也. 以上不遺微勞, 得與勳列, 當思報効, 乃悖逆如此, 必誅之賊也.” 上曰: “爾欲安慰我耶?” 壽寧曰: “王法應爾, 臣何容心?” 上曰: “處禮不與兄謀, 當免.” 壽寧曰: “處禮拜職不謝, 已爲不敬, 況才智遠過其兄, 與之較獵, 低徊不朝, 其情可誅.” 上曰: “爾言雖然, 予必原之.” 遂下教曰: “戴天履地, 無上無法. 往古來今, 不忠不赦, 所以無將之誅, 謹於春秋, 不道之刑, 明於漢法者也. 奉石柱兇賊險狠, 頑頓無恥. 饕餮掊克, 惡聲流聞, 累見擯黜, 怏怏懷憤, 久蓄怨上之志, 金處義, 崔閏又數被予詬責, 心銜已久, 三人締交怨, 接遇不比於諸勳, 朝廷無齒者, 肆憤逞毒, 竝作妖孽, 潛謀不軌, 自癸未至今三年於茲, 惡盈禍稔, 殄滅自天, 石柱計窮勢迫, 揣知事覺, 告以處義·崔閏反狀, 而其自爲謀, 悉隱不首, 詭辭廋語, 反覆狙詐. 予惟三賊者, 皆嘗有犬馬之勞, 與同帶礪者也, 辜負我恩, 紀圖危宗社, 不道之極, 所不忍言. 宜加肆市之誅, 以暴滔天之惡, 故將石柱, 處義, 閏凌遲處死. 凶渠已殪, 脅從何治? 其或有嘗與此賊, 或共漁獵, 或同射飲者, 亦皆脅從之類, 一無相干, 各自安心, 體予至懷. 於戲! 天人默相, 醜類必殲, 宗社萬世無疆, 惟休布告中外, 咸使聞知.” 時處禮械出都門外當斬, 上急遣宣傳官慶禎, 馳往止之, 處禮臨刑乃免. 處禮與處義素不相好, 不與其謀故赦之. 遂傳于義禁府: “以處禮屬濟州官奴, 閏兄宦者濕, 石柱子盲人繼同勿竝緣坐.” 處義, 石柱, 閏皆武人, 與於靖亂, 俱封功臣, 處禮出身文科, 頗曉書史, 好作詩, 且善射.

2) 『성종실록』(권 50) 1474년(성종 5) 12월 3일.

○ 傳旨義禁府: “量移亂臣金處義緣坐濟州定屬金處禮.”

6. 부황(夫黃)

- 신분: 노비
- 유배 연월: 1465년(세조 11) 12월 1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살인, 조진경〈曹晉卿〉 하수인)
- 관련 사료

1) 『세조실록』(권 37) 1465년(세조 11) 11월 23일.

○ 卒參判曹孝門妾子晉卿, 殺婢子于東大門外. 晉卿母欣非, 卒敦寧李絞妾女也, 爲孝門妾, 生晉卿. 有婢甫老未, 其子病死, 請暇不得, 有怨言. 欣非怒謂其子曰, “必殺此人.” 晉卿率奴僕數人, 歸東大門外巖穴間, 立其子於側, 謂曰, “看我殺汝母.” 兒子啼呼, 不忍視. 令奴夫黃以砧杵擊其首, 不死, 親自射之, 又不死, 抽矢復射殺之. 有人奔告政院, 上太怒, 發軍掩捕. 御丕顯閣, 親鞫, 晉卿及其母俱伏. 卽下義禁府, 傳曰: “生殺予奪, 獨出一人, 晉卿擅殺其婢, 殘暴莫甚.” 卽令大臣議之. 咸曰: “宜致極刑.” 盧思愼獨曰: “主擅殺奴婢, 於律無死條. 若殺此人, 奴婢背主者, 皆籍口.” 上憐甫老未子, 賜衣服.

2) 『세조실록』(권 37) 1465년(세조 11) 12월 1일.

○ 傳旨義禁府曰: “曹晉卿母子殺人於都城底, 無少隱覆, 露棄凶器, 至於證子殺母, 古今大惡, 無以加此. 晉卿凌遲處死, 其母欣非處斬, 竝籍沒家產. 參謀不禁, 爲先下手奴夫黃 決杖一百, 流三千里, 收贖後永屬濟州官奴. 隨從不禁下手奴今音進, 吉生決杖一百, 流三千里, 收贖後各屬所居邑奴.”

7. 민수(閔粹)

- 신분: 봉상첨정(奉常僉正)
- 유배 연월: 1469년(예종 1) 4월 27일.
- 해배 연월: 1477년(성종 8) 추정
- 사유: 근무 불성실(사초〈史草〉 삭제)
- 관련 사료

1) 『예종실록』(권 5) 1469년(예종 1) 4월 27일.

○ 命領議政韓明澮, 寧城君 崔恒, 都承旨權域等, 鞠康致誠, 致誠對曰: “臣在春秋館, 同僚崔命孫謂臣曰: ‘閔粹欲見史草, 而求見汝矣.’ 吾覓粹史草出外, 謂粹曰: ‘何爲而欲見乎?’ 粹云: ‘欲改書梁誠之大司憲時事.’ 臣卽授粹史草, 久之粹持史草而來, 臣受之, 授書吏李貴林, 令印改書處.” 又問命孫, 命孫對曰: “但傳粹求見之意於致誠而已.” 又問貴林, 貴林云: “但聽致誠之言, 印其改處而已, 未知其由.” 又問粹, 粹云: “臣到春秋館, 見命孫言: ‘欲見康致誠, 覽吾史草.’ 命孫云: ‘史草更覽難矣.’ 卽傳語致誠, 致誠給臣史草而已, 改削之由, 則命孫不與知焉.” 自粹事覺, 命春秋館, 搜考諸史草改削處, 編修官金季昌告曰: “初見元叔康史草, 書權攀卒下, 有上好佛, 及攀治第之語, 今削其語, 但書其卒.” 且曰: “編修官成倬, 亦見此事.” 卽呼倬問之, 與季昌言同. … 又問粹, 對曰: “前草語有圭角, 故臣改書微婉其辭, 而不沒其實.” 上曰: “汝昔爲書筵官, 故予知汝矣. 然汝何怨大臣之過而不書乎? 汝以儒士, 豈不知增減國史之罪?” 粹曰: “臣非不知, 但臣庸劣, 慮不及此. 畏宰相之怨, 改書而其辭則微婉, 其實則不沒.” 明澮啓曰: “粹自初恒言此意.” 上頗直粹言. 又問致誠曰: “粹請出史草時, 汝與何人議而出與乎? 汝與粹交契久, 則必共謀矣.” 對曰: “臣以新進之士, 未諳朝章, 誤與史草.” 言頗不直, 命杖五度, 猶不言. 命杖以圓杖, 至三度, 猶曰: “無議於人, 且無共謀, 但粹爲臣同榜生員壯元, 故與之而已.” 上曰: “汝出與史草, 豈無共議者而固諱歟?” 對曰: “粹改書後, 但與成倬言之, 倬嘆曰: ‘粹爲若此耶?’” 卽問倬, 對曰: “臣不聞之. 臣若聞知, 則於上前安敢諱歟?” 命與致誠面質, 倬言頗直, 命放倬. 上曰: “致誠不直言, 是欺君也, 其罪與叔康同.” 遂傳旨義禁府曰: “閔粹決杖一百, 永屬濟州官奴”; 崔命孫, 李仁錫, 決杖一百, 本鄉充軍; 元叔康, 康致誠處斬, 叔康,

致誠之子安置。”初，上在東宮，粹爲書筵官。粹臨問泣對曰：“臣無狀罪犯至重，於法當誅，但臣以獨子，父母俱存，願上垂憐。”上曰：“知汝雖久，當國家大事，不得私也。”然上見粹涕泣汎瀾測然，竟貸死。

2)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권 1) 예종조(睿宗朝), 민수(閔粹).

○驪興人. 執義冲源子, 參判審言孫. 世祖己卯文科, 丙子, 生員壯元, 爲檢閱. 睿宗元年己丑四月, 始修《世祖實錄》, 以乙亥後職帶春秋者令納史草, 閔粹納之. 旣而聞史草皆書本官姓名, 粹懼大臣見其直書而銜之, 陰囑奉教李仁錫, 僉正崔命孫請還出稿本, 仁錫, 命孫皆不與焉. 乃要于博士康致誠, 袖其草出與之. 粹倉卒竄改, 不暇淨寫而還呈. 檢閱楊守泗, 崔哲寬見其塗擦洗補, 言于參議李永垠. 永垠徧告于諸堂上, 僉曰: “非細事也.” 仍上聞. 時正言元叔康啓曰: “史草書姓名非古也. 恐無直筆者. 請勿書姓名.” 上不允. 於是副提學金季昌告: “叔康史筆, 亦多塗改.” 遂俱繫獄. 上竝親鞫, 粹曰: “臣所書, 皆大臣事, 其人皆在實錄廳堂上, 慮爲中傷, 故謀改也.” 仍大哭曰: “臣獨子, 願贖軀命.” 上惻然曰: “直哉! 予在東宮書筵時, 知粹之爲人.” 特命減死, 杖流濟州爲奴. 致誠初不以實對, 拷掠乃服. 且妄引舍人成倣知情, 遂與叔康竝處斬. 仁錫, 命孫知而不告, 杖一百, 本貫充軍. 咸曰: “致誠等誠有罪矣, 朝廷之法似不然. 如是而變古書名, 以開愾忸之路, 又從以諸人告訴, 直繩重法, 初非重史筆之意, 而反開後日士禍之漸.”【《昭代紀年》.】後放還復官. 歷吏曹正郎. 官至正.【《國朝榜目》.】

8. 윤후(尹逅)

- 신분: 외척(폐비 윤씨 오빠)
- 유배 연월: 1482년(성종 13) 8월 17일.
- 해배 연월: 1495년(연산군 1) 9월 20일.
- 사유: 정치 변동(폐비 윤씨 사사 연루)
- 관련 사료

1) 『성종실록』(권 144) 1482년(성종 13) 8월 17일.

○ 義禁府啓: “配尹氏母申氏及尹邁於長興, 尹遇於巨濟, 尹逅於珍島.” 命改逅 濟州. 仍傳曰: “申氏待尹氏斂葬後下送.”

2) 『연산군일기』(권 9) 1495년(연산군 1) 9월 20일.

○ 院相及承旨等啓曰: “命議亂臣安置人疎放若因國家慶事可也, 今無緣議放未可. 但尹邁等罪犯, 非亂臣緣坐之比, 放之何如?” 傳曰: “可.” 傳旨于義禁府曰: “全羅道 長興安置尹邁, 其母申氏, 濟州安置尹逅, 巨濟安置尹遇放還.”

9. 김순손(金舜孫)

- 신분: 중관(中官, 내시)
- 대정현 유배 연월: 1495년(연산군 1) 6월 29일~1497년(연산군 3) 2월 13일(제주 이배).
- 제주목(1차) 유배 연월: 1497년(연산군 3) 2월 13일~1497년(연산군 3) 7월 1일(해배).
- 제주목(2차) 유배 연월: 1504년(연산군 10) 3월 12일~1504년(연산군 10) 3월 30일(처참).
- 사유: 건의 불발(간쟁, 왕의 부도〈不道〉 제지)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6) 1495년(연산군 1) 6월 29일.

○ 傳曰: “中官金舜孫, 下義禁府, 決杖一百, 外方充軍, 使苦役, 母休息.” 以拒傳旨也.

2) 『연산군일기』(권 14) 1496년(연산군 2) 윤3월 28일.

○ 馳書于濟州點馬別監鄭灝曰: 犯罪內官金舜孫於濟州殘邑, 定軍役. 常時母得完恤, 使之困苦事已諭. 其定役困苦與否, 備細摘奸以啓.

3) 『연산군일기』(권 14) 1496년(연산군 2) 윤3월 28일.

○ 傳曰: “歷觀前代之史, 皆言宦寺干政之非. 金舜孫陵蔑君上, 罪在罔赦, 今雖流配濟州, 然不可使之生也.” 承政院啓: “前教云: ‘妄自尊大, 傲慢君上.’ 罪當極刑, 然當拿致于京, 明正其罪而後, 處刑可也.” 傳曰: “驛路有弊, 奸邪之人何必拿致? 其卽下諭濟州牧使處刑.” 承政院更啓: “若以此下諭, 則必當取招行刑, 然方國恤, 何以處之? 且自祖宗朝, 未有不詳覆而刑之.” 傳曰: “然則令所在官, 取招囚禁, 待三年後處刑.” 王在初喪, 取雌雄馬于內庭, 觀其交接, 且所爲多不道. 舜孫諫止之, 故王怒, 必欲置之死.

4) 『연산군일기』(권 15) 1496년(연산군 2) 5월 13일.

○ 傳旨義禁府曰: “大靜縣充軍內官金舜孫前日侍衛時, 妄自尊大, 傲慢君上, 罪不可赦. 令濟州牧使遲晚取招, 依法囚禁, 詳覆啓聞.”

5) 『연산군일기』(권 21) 1497년(연산군 3) 2월 13일.

○ 傳曰: “移置金舜孫于濟州, 永爲編民定役.”

6) 『연산군일기』(권 25) 1497년(연산군 3) 7월 1일.

○ 命放濟州定役內官金順孫, 崔有淵.

7) 『연산군일기』(권 52) 1504년(연산군 10) 3월 12일.

○ 傳曰: “內官金舜孫即全家徙濟州, 毋令稽留于途.” 王嘗被酒, 欲烝先朝後宮, 舜孫諫, 王怒欲殺之, 有內救, 外廷亦請聞其罪, 只竄外, 至是徙濟州.

8) 『연산군일기』(권 52) 1504년(연산군 10) 3월 30일.

○ 傳旨議政府曰: “陵上之風革去未殄. 李世佐其在先朝, 當大事不力爭, 至於今日, 年位俱高, 驕縱日恣, 親賜之酒傾注不飲; 金舜孫宦侍之微者, 妄自尊大, 傲慢君上. 二人之罪, 不可不正, 故廣收群議, 世佐則賜死, 舜孫則處斬, 以爲驕傲君上者之戒.”

9) 『연산군일기』(권 52) 1504년(연산군 10) 4월 13일.

○ 義禁府都事申涵斬金舜孫, 持其首, 還置于丹鳳門外, 王令宦者輩出視, 使之知戒後, 藏于內侍府. 有一宦者不及見, 更令取來視之, 又有一宦掩面不見, 命下當直廳罪之.

10) 『중종실록』(권 11) 1510년(중종 5) 7월 28일.

○ 命旌內官金舜孫之門, 號曰: “直臣.” 舜孫, 在廢朝時, 以諷諫見殺, 上深嘉之, 令禮曹舉褒獎之典. 禮曹請追贈二品職, 旌門復戶, 故有是命. 仍追贈尙膳.

10. 최유연(崔有淵)

- 신분: 내관(內官, 내시)
- 유배 연월: 미상
- 해배 연월: 1497년(연산군 3) 7월 1일.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25) 1497년(연산군 3) 7월 1일.

○ 命放濟州定役內官金順孫, 崔有淵.

11. 박간(朴幹)

- 신분: 내관(內官, 내시)
- 유배 연월: 1503년(연산군 9) 2월 20일.
- 이배 연월: 1506년(연산군 12) 8월 9일(온성).
- 사유: 건의 불발(간쟁)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48) 1503년(연산군 9) 2월 20일.

○ 傳曰: “人臣之罪, 莫大於挾詐. 內官朴幹, 因事下問之際, 屢挾詐以對, 其下禁府, 決杖一百, 濟州充軍.”

2) 『연산군일기』(권 61) 1506년(연산군 12) 1월 23일.

○ 傳曰: “內官徐溫委去事, 令觀察使, 代以差使員. 溫則留待採紅駿使河謹文, 偕往濟州, 其分配罪人朴仁孫, 朴幹, 崔忱等, 母令相見, 仍移朴幹, 崔沈于海外極邊.”

3) 『연산군일기』(권 63) 1506년(연산군 12) 8월 9일.

○ 傳曰: “濟州充軍內官朴幹, 穩城爲奴, 金淸 巨濟分配, 崔忱(各)杖一百, 珍島分配, 薛忠 巨濟分配, 朴恕 濟州分配, 朴仁孫杖八十, 令其道觀察使監杖.”

12. 송산(松山)

- 신분: 역졸(驛卒)
- 유배 연월: 1503년(연산군 9) 11월 2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폭행, 사신 하인 구타)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51) 1503년(연산군 9) 11월 8일.

○ 下迎曙驛子松山, 金守連等罪議得單子曰: “此輩强暴, 不可不懲. 前者閔壽福爲問禮官時, 此輩既肆其暴, 今又毆任士洪從人, 此辱君命也. 全家徙邊似輕, 欲置重典, 其更問之.” 尹弼商, 成俊, 李克均, 柳洵議: “迎曙驛子等, 再辱君令, 死有餘辜. 但今松山等照律, 以逃匿爲重, 而其情不過畏罪. 論以棄毀制書律, 置之重典, 似爲未安. 全家徙邊, 雖不至於死, 足以懲惡.” 留中不下.

2) 『연산군일기』(권 51) 1503년(연산군 9) 11월 20일.

○ 下迎曙驛子松山等罪案, 命義禁府堂上, 監杖一百, 全家徙濟州.

13. 류현(柳軒)

- 신분: 대사간
- 유배 연월: 1504년(연산군 10) 6월 25일.
- 해배 연월: 1506년(중종 1) 10월 13일(사망).
- 사유: 정치 변동(갑자사화)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54) 1504년(연산군 10) 6월 25일.

○ 下御書: 柳軒杖一百, 濟州爲奴. 金良輔杖一百, 巨濟爲奴, 竝定苦役, 永不復敘. 內官金淸杖一百, 穩城爲奴, 定苦役. 仍傳曰: “金良輔 濟州三邑中, 極邊爲奴.”

2) 『중종실록』(권 1) 1506년(중종 1) 10월 13일.

○ 受常參, 御朝講. 領事柳順汀曰: “觀全羅道觀察使啓本, 則前大司諫柳軒等五人, 同乘一舟, 自濟州出來, 爲水賊所害云.水賊與倭奴, 未可卞認, 臣意近來, 邊境虛疎, 必倭賊所爲也. 請令濟州牧使, 推報觀察使, 且令護喪.” 【大司諫柳軒, 弘文館正字金良輔等五人, 廢朝時, 被謫濟州, 至是蒙宥出來, 遇此變.】 上曰: “可.”

14. 한충인(韓忠人)

- 신분: 외척
- 유배 연월: 1504년(연산군 10) 10월 7일.
- 해배 연월: 이미 사망.
- 사유: 사망 후 가죄(加罪)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56) 1504년(연산군 10) 10월 7일.

○ 下御書于承政院曰: “韓忠仁 昭惠王后之族, 特決杖一百, 濟州爲奴.” 又曰: “韓致亨, 韓忠仁俱是昭惠王后之族, 然彼則已死, 無復加論, 故罪之殊科耳.”

15. 이각답(李喙查)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505년(연산군 11) 5월 6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이공신〈李公信〉 아들)〈이공신: 연산군 비행 직간 김처선(金處善) 양자〉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57) 1505년(연산군 11) 4월 1일.

○ 傳曰: “內官金處善厭酒叱君, 籍沒家產, 瀦其家, 革其本貫全義.”

2) 『연산군일기』(권 57) 1505년(연산군 11) 4월 1일.

○ 殺宦官金處善于禁中, 并殺其養子李公信.

3) 『연산군일기』(권 58) 1505년(연산군 11) 5월 6일.

○ 下御書曰: “李公信子喙查, 決杖一百, 濟州爲奴, 金慶善繼後子, 卽於軍器寺前, 行刑.”

16. 박인손(朴仁孫)

- 신분: 내관(內官, 내시)
- 유배 연월: 1506년(연산군 12) 3월 24일.
- 해배 연월: 1507년(중종 2) 9월 1일 이전.
- 사유: 근무 불성실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58) 1505년(연산군 11) 7월 7일.

○ 傳曰: “內官朴仁孫, 無謹愿之心, 有輕浮之行, 愛惜其身, 怠於侍衛, 移配巨濟.”

2) 『연산군일기』(권 61) 1506년(연산군 12) 3월 24일.

○ 傳曰: “內官朴恕, 薛忠竝養子, 極邊殘邑移配, 崔忱極域移配, 朴仁孫 濟州移配.”

3) 『연산군일기』(권 63) 1506년(연산군 12) 8월 9일.

○ 傳曰: “濟州充軍內官朴幹, 穩城爲奴, 金清 巨濟分配, 崔忱(各)杖一百, 珍島分配, 薛忠 巨濟分配, 朴恕 濟州分配, 朴仁孫杖八十, 令其道觀察使監杖.”

4) 『중종실록』(권 4) 1507년(중종 2) 9월 1일.

○ 傳于政丞等曰: “國議與予心既同, 其論功可也. 功臣稱號及等第, 卽議啓.” 政丞等啓曰: “上教如此, 臣等不敢强請也.” 以盧永孫, 柳洵, 朴元宗, 柳順汀, 閔孝曾, 李季男, 尹湯老, 洪景舟, 李惟清, 申永洪, 金良彦, 姜洪, 權希孟等十三人書啓曰: “其等第唯在上裁.” 傳曰: “內官朴仁孫聞永孫之說, 而上變, 薛孟孫既有功於成宗朝, 而於今亦有功, 竝於三等論功何如? …” 政丞等啓曰: “朴仁孫則果有功矣, 可爲二等. …” 傳曰: “所啓是矣.”

17. 홍상(洪常)

- 신분: 종실(덕종 부마, 성종 누이=명숙 공주의 남편)
- 유배 연월: 1506년(연산군 12) 4월 10일.
- 해배 연월: 1506년(중종 1) 9월 17일 직후.
- 사유: 정치 변동(갑자사화)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62) 1506년(연산군 12) 4월 10일.

○ 傳曰: “洪常移配海外遠地.”

2) 『중종실록』(권 1) 1506년(중종 1) 9월 17일.

○ 傳曰: “刑曹參判尹湯老舉義時, 雖在外未得參謀, 然自在潛邸時, 素有陪從之勞, 錄功何如? 齊安大君 瑁, 唐陽尉 洪常竝錄何如? 其問于政丞及三大將.” 三公及柳子光, 申浚, 具壽永, 金勘, 鄭眉壽, 柳順汀, 成希顔回啓曰: “舉事時, 湯老適在外, 故雖未及來, 其推戴之心, 必倍於他. 況主上潛邸時, 有陪從之功, 錄功何妨? 至於瑁, 則素無計較, 洪常今在濟州, 無絲毫之功, 不可錄.” 傳曰: “湯老錄於靖國三等.” 【湯老, 卽上之外舅也.】

3) 『중종실록』(권 18) 1513년(중종 8) 4월 9일.

○ 唐陽尉 洪常卒. 【史臣曰: “常乃德宗駙馬, 嘗爲司僕寺提調. 當成廟在殯, 燕山令納善馬于後苑, 自馳射試劍. 又多納雌雄馬, 觀其交淫, 日以爲事, 播聞于外, 臺諫有言其非者. 至甲子春, 燕山以爲常等所播, 杖流濟州, 上初卽位, 命復其職. 至是卒. 常左議政應之子. 雖生長富貴, 未嘗有驕傲之氣.”】

18. 박서(朴恕)

- 신분: 내관(內官, 내시)
- 유배 연월: 1506년(연산군 12) 8월 9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왕명 불응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61) 1506년(연산군 12) 1월 28일.

○ 下御書于權鈞曰: “朴恕不從王命, 自謂賢直, 妄矯同僚罪, 決杖八十不饒. 明考杖痕, 若輕歇, 則其責誰在? 卽縛置後苑, 鎖匠到淡烟門外拿去.”

2) 『연산군일기』(권 63) 1506년(연산군 12) 8월 9일.

○ 傳曰: “濟州充軍內官朴幹, 穩城爲奴, 金淸 巨濟分配, 崔忱(各)杖一百, 珍島分配, 薛忠 巨濟分配, 朴恕 濟州分配, 朴仁孫杖八十, 令其道觀察使監杖.”

19. 김정(金淨)

- 신분: 형조판서
- 유배 연월: 1520년(중종 15) 6월 17일.
- 사망 연월: 1521년(중종 16) 10월 17일.
- 사유: 기묘사화
- 관련 사료

1) 『중종실록』(권 37) 1519년(중종 14) 11월 15일.

○ 未幾雲還出, 以小紙出示曰: “此等人, 皆下義禁府.” 其所錄, 則承政院直宿承旨, 尹自任·孔瑞麟, 注書安珽, 翰林李構及弘文館直宿應教奇遵, 副修撰沈達源也. 自任等皆就獄. 又命禁府, 拿囚右參贊李耆, 刑曹判書金淨, 大司憲趙光祖, 副提學金綵, 大司成金湜, 都承旨柳仁淑, 左副承旨朴世熹, 右副承旨洪彥弼, 同副承旨朴薰. 【此後史官不與焉.】

2) 『중종실록』(권 39) 1520년(중종 15) 6월 17일.

○ 上曰: “其時淨與光祖, 罪則無間, 然依律則罪者甚多, 故只以光祖爲謀首而賜死. 元罪雖異, 亡命之罪, 則不可差等也. 胤宗滅死, 以年少儒生, 不知法章故也.” 僉曰: “殿下特垂好生之恩, 故淨等皆得保首領, 以至今日. 若以罪罪之, 不施寬典, 則其時免誅, 未可必也. 然其亡命之罪, 不可差等也.” 上顧謂徐祉曰: “既與大臣論定, 未可改也.” 傳曰: 金淨, 奇遵, 只杖一百, 還發配所. 近日被罪之人甚多, 而猶無懲戒之意, 其圍籬安置.”

3) 『중종실록』(권 43) 1521년(중종 16) 10월 17일.

○ 上又以臺諫再啓, 下于大臣等曰: “今者, 詩山正及處謙之亡命, 實遵, 淨所啓也. 以亡命之律定罪, 然後亦可以杜後日亡命之漸也, 其置正律可也.” 金詮, 南袞啓曰: “臣等之意, 無踰前啓也, 然又啓, 惶恐惶恐也.” 傳曰: “其遣都事, 處絞事捧承傳. 且問事堂上, 郎官, 一應官員及使令等, 竝皆書啓.”

20. 김세한(金世翰)〈金世瀚/金世澣〉

- 신분: 훈련원 첨정
- 유배 연월: 1534년(중종 29) 1월 28일.
- 해배 연월: 1538년(중종 33) 1월 29일.
- 사유: 건의 불발(권신 김안로〈金安老〉 비판)
- 관련 사료

1) 『중종실록』(권 76) 1534년(중종 29) 1월 28일.

○ 憲府啓朴基事, 且曰: “一自權奸得罪, 諂附之輩, 自恃徒類衆多, 從己者締交, 不從者恐怵, 欲人心携貳, 蹊逕多端, 使士林鉗口, 結舌, 自爲得路之計. 又有得罪之人, 往來相訪, 怨朝廷, 陷士林之言, 出入州郡, 公然大倡. 如此之徒, 若現出, 則所當痛治. 姑以所聞啓之, 訓練院僉正金世澣, 諂事權奸, 失其窟穴, 常懷憤毒, 至指士林曰: ‘我有弓劍, 彼有厚毛堅膚者歟?’ 如此兇悖之言, 口不忍道. 在家則以其弟目爲盜賊, 告官戕害, 其兇毒無狀可知. 禁火司別坐蔡無逸, 性本險狡, 又多口才, 鼓動邪喙, 眩亂群聽, 陰附權執, 所在有同鬼蜮, 巧計慘矣. 在家不孝, 不友之事, 亦難枚舉. 此兩人, 皆亂政之人, 請進諸絕島, 鎮定人心. 此雖微官之事, 所關甚重, 請決斷.” 諫院啓曹禧事. 傳曰: “權奸得罪後, 陷附之輩, 有欲謀害士林之言, 前於經筵聞之, 而未知其人也. 今臺官論啓, 如此之輩, 上下所同憎疾也. 臺諫豈偶然計, 而來啓乎? 此兩人皆朝官也. 他事則推考後, 論罪可也, 此事所關重大, 卽如啓盡奪告身, 進諸絕島, 懲一警百可也. 但此兩人, 若驍健, 則不無逃亡之弊, 卽招當直郎官, 捉來拘囚, 奉傳旨可也. 朴基, 曹禧, 如啓遞之.”

2) 『중종실록』(권 86) 1538년(중종 33) 1월 21일.

○ 金世瀚習射於訓練院, 其矢誤落於金安老之家, 安老使人止之, 且欲移訓練院. 世瀚憤曰: “若厭其矢, 當自移家而避之. 訓練院, 自祖宗朝習射之處, 捨此何之, 而又安可移置乎?” 以此與蔡無逸, 同得重罪, 而至今未得見放, 亦爲未便矣.” 上曰: “金世瀚圍籬安置則過重, 卽令收斂, 亦未知何如也.” 克成曰: “金世瀚事, 臣其時在外. 不能詳也, 還朝聞之, 則如是云, 已與僚中同議事, 故啓之矣.”

3) 『중종실록』(권 86) 1538년(중종 33) 1월 29일.

○ 領議政尹殷輔, 左議政洪彥弼, 右議政金克成, 右贊成蘇世讓啓曰: “得罪人及收職牒人, 自下啓請收斂, 似乎未安, 物情憤鬱, 臣等不可不啓. 金安老之家, 在訓練院大廳俯臨之地. 金世瀚爲訓練院僉正, 見射廳地基, 多入於安老之墻內, 於稠中, 唱說其冒占之事, 故安老以是, 構成世瀚兇毒之言, 加以重罪. 嚴昕當安老放還之時, 爲正言, 以爲安老不可放, 以是見忤於安老, 沈思順致賄之事, 非昕之所獨行也, 吏曹郎官之所共爲也. 朴壕有養子, 而昕以孫壻, 守喪在外, 返魂之時, 雖云: ‘返之於不當返之地’, 非昕之罪也, 以是還奪告身. 世翰, 嚴昕之事, 皆物情所憤, 敢啓.” 傳曰: “金世瀚, 嚴昕事, 物情憤鬱云. 世瀚則放送, 嚴昕則敘用.”

21. 유희춘(柳希春)

- 신분: 정언(正言)
- 유배 연월: 1547년(명종 2) 9월 19일.
- 이배 연월: 1547년(명종 2) 윤9월 4일(종성).
- 사유: 정치 변동(양재역 벽서사건)
- 관련 사료

1) 『명종실록』(권 6) 1547년(명종 2) 9월 19일.

○ 敎中外大小臣僚, 耆老, 軍民人等: 王若曰. 帝王之仁, 雖貴於宥奸兇之脅從. 《春秋》之義, 實嚴於討亂賊之黨援. 法所當然, 事非得已. 顧予冲質, 受此丕基. 方憂多亂之未堪, 頃罹群慝之交構. 悍梟稔攫母之惡, 瘐狗畜吠主之謀. 於人不容, 固難擢髮而數其罪; 在法無赦, 皆欲寢皮而快於心. 芟夷合務其除根, 殄滅毋俾其易種. 第以不忍之政, 乃體罔治之規. 庶使邪念之潛消, 用期兇黨之自戢. 歲月既久, 誑誘益深. 尙未革其鴟音, 敢自掉其蠶尾. 直斥勳舊, 謂錄籍之無其功. 陰右逆類, 指伏誅之非其實. 簧鼓邪喙, 扇動禍機. 是由王法之失嚴, 以致人心之不靖. 宜舉常典, 顯示明威. 猶慮玉石之焚, 尙寬市朝之肆. 竝從末減, 姑置下刑. 茲將宋麟壽, 李若冰賜死, 李彥迪, 鄭磁, 極邊安置, 盧守愼, 丁熿, 柳希春, 金鸞祥絕島安置, 權應挺, 權應昌, 鄭惟沈, 李天啓, 權勿, 李湛, 林亨秀, 韓澍, 安景祐遠方付處, 權機, 宋希奎, 白仁傑, 李彥忱, 閔起文, 黃博, 李震, 李洪男, 金振宗, 尹剛元, 趙璞, 安世亨, 尹忠元, 安韶付處. 於戲! 臣無作慝作奸, 孽自己不可追也. 邦有義刑義殺, 法在我其敢廢乎? 故茲敎示, 想宜知悉.

2) 『명종실록』(권 6) 1547년(명종 2) 윤9월 4일.

○ 兩司啓岢事, 不允. 又啓曰: “柳希春詳聞尹任等事, 而合司之日, 佯爲不知, 不從長官之議, 幾失事機, 故絕島安置矣. 但濟州去家鄉不遠, 至爲未便. 請移于極邊. 權機其罪不止於移配近地, 請遠竄. 權應昌以逆臣柳灌族人, 爲其所推譽, 相與交厚, 不可只竄於家鄉近地, 請移配遠地. 星州牧使李潤慶, 其子中悅, 身犯大逆, 不爲緣坐亦幸矣, 而在勳籍, 物情皆以爲未便. 請削勳罷黜.” 答曰: “柳希春, 權機, 權應昌等事, 已定久矣, 不須改之.

李潤慶削勳過重，故不允。” 柳希春，權櫟，權應昌事，再啓，依允，李潤慶事，不允.

3) 『명종실록』(권 31) 1565년(명종 20) 12월 2일.

○ 以罪人書啓單子，還人于內. 有頃，以單子付標，還下于賓廳. 珍島安置盧守愼【心地高明，學問有源，處身行事，率履俱正. 丁未被謫之後，靜居一室，操守益固.】南海安置金鸞祥【有孝友之行.】鍾城安置柳希春【資稟溫雅，博通經史.】以上中道量移.… 史臣曰：“諸公在嶺海二十年，一朝量移命下之日，愚夫愚婦，莫不快之. 蓋天理之自然，人心寧可誣哉？”

22. 손홍적(孫弘績)

- 신분: 예문관 대교(待敎)
- 유배 연월: 1548년(명종 3) 2월.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정치 변동(안명세(安名世) 옥사)
- 관련 사료

1) 『명종실록』(권 7) 1548년(명종 3) 2월 13일.

○ 竄配孫弘績于定州.

2) 『명종실록』(권 7) 1548년(명종 3) 2월 18일.

○ 推官啓曰: “孫弘績, 以臣子, 書君上不實之事, 其罪非輕, 而自上特減似過. 【十四日以斬照律, 命杖九十徒二年半于定州.】 與趙璞, 同律定罪何如?” 傳于承旨鄭彦慤曰: “孫弘績, 必已發配所, 勿更拿來加杖, 只改配所可也. 改流于渭原.”

3) 『연려실기술』(권 10) 명종조 고사본말, 무신년(1548, 명종 3) 안명세(安名世) 옥사.

○ 正郎韓智源, 與乙巳史官某有私嫌, 聞其有直筆意爲其人而洩之, 及其禍作名世爲首罪, 趙璞杖流道死, 孫弘績流濟州, 而皆非智源所欲搆者. <寄齋雜記>

23. 이희손(李希孫)

- 신분: 광주목사
- 유배 연월: 1555년(명종 10) 9월 5일.
- 해배(이배) 연월: 1556년(명종 11)
- 사유: 을묘왜변 방어 패배(도망)
- 관련 사료

1) 『명종실록』(권 18) 1555년(명종 10) 5월 28일.

○ 倭奴入康津縣. 初觀察使金澍, 以光州牧使李希孫爲假將, 使與康津縣監洪彥誠, 羅州判官金錡及前府使朴敏齊, 馬梁僉使洪守讓, 共守康津縣. 五月二十六日, 希孫等皆棄城遁. 賊遂入城, 盡取兵營軍糧. 備邊司請以李希孫, 洪彥誠, 金錡, 竝令從軍, 立功自效, 上從之. 後金錡亡命.

2) 『명종실록』(권 19) 1555년(명종 10) 9월 5일.

○ 前全羅道節度使趙安國, 及第崔潁 · 李希孫 · 洪彥誠 · 柳泗各決杖一百, 流三千里.

3) 『인물고』(권 80) 을사이후 이화인(罹禍人)

○ 李希孫

字公望, 完山人. 讓寧大君玄孫. 弘治丁巳生. 辛卯生員, 癸巳登第. 歷翰林, 注書, 臺諫. 辛亥, 陞通政, 慶源府使. 癸丑, 陞嘉善, 爲言者所攻而寢. 甲寅, 牧光州, 配濟州. 丙辰, 賜環. 丙寅卒.

甲寅, 出牧光州. 乙卯夏, 倭奴屠邊城, 公分禦康津縣, 南兵素怯, 不能遏其焚蕩. 公因此被譴, 配濟州. 丙辰, 倭犯濟州, 公從軍效奇, 參軍功一等, 賜環北歸.

公性孝謹, 當父母喪, 過於毀臧, 只啜菜粥, 躬具祭需, 至於滌器之微, 不委僮僕. 篤於友愛, 一妹早寡, 將各自分異, 婢僕之可使者, 田宅之可資者, 悉以與妹. 肅於家政, 內外整整, 晚年料理後事, 至於墓表, 翁仲之類, 無不備具, 其處事周盡如此. 〈洪暹撰墓碣.〉

24. 보우(普雨)

- 신분: 승려
- 유배 연월: 1565년(명종 20) 6월 25일.
- 사망 연월: 1565년(명종 20) 10월.
- 사유: 종교(유학 쇠퇴, 불교 부흥)
- 관련 사료

1) 『명종실록』(권 31) 1565년(명종 20) 6월 25일.

○ 流普雨于濟州. 【禁府以杖一百流三千里犯，流全家律啓之. 命杖贖全家律改付標.】

2) 김석익, 『탐라기년』, 1565년(명종 20) 10월.

○ 牧使邊協 杖殺妖僧普雨 初普雨諂事文定王后 因之得勢 大張佛事 設兩宗禪科 自稱得道 居處大內 及文定薨 臺諫與太學生[金忠甲等] 連章請誅 禮郎李珥又上疏論之 命流于此 邊協 因事杖殺之 士林快之.

3) 『명종실록』(권 32) 1566년(명종 21) 4월 20일.

○ 傳曰: “兩宗, 禪科, 俯從公論, 革罷矣. 【初僧普雨欺罔文定, 設兩宗禪科. 文定賓天之後, 朝廷及儒生, 連疏請罪, 流于濟州, 爲牧使邊協所誅. 兩宗禪科, 尙未革罷, 至是兩司啓請罷之. 內需司, 本不設提調而用印. 及用印之後, 宦者憑公濟私, 擅作威福, 至是以兩司之啓, 去其印. 凡革二弊, 中外大悅. ○時權奸旣除, 弊政漸釐, 朝野想望治平而公論得行, 蠹國害政之大者, 一朝竝去. 上之末年, 銳意更化之心, 亦可見矣. ○先是玉堂上筭, 以爲數十年來新立科條, 汗牛充棟, 中外莫知所從, 請令大臣, 刪定兩司署出云. 弊法之中, 復兩宗禪科及內需司用印信, 爲害治之大者, 而文定賓天之後, 次第革去, 中外聳悅.】 陵寢寺及有名巨刹, 則依舊掛榜, 痛禁閑雜之人. 且近年以來, 無賴之徒, 假稱儒生, 雜亂橫行, 汙毀儒道, 風俗不美. 言于禮曹, 其令成均館及各官, 察而嚴治.”

25. 신장령(申長嶺)

- 신분: 중인(역관)
- 유배 연월: 미상~1578년(선조 11) 2월 10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중종실록』(권 103) 1544년(중종 39) 5월 23일.

○ 政院以義州牧使【金伯醇】書狀【“謝恩使沈光彥, 黃恬行次, **先來通事申長齡等**, 本月十九日到州言: ‘獐子等五千餘騎, 比山, 下營等處, 約以今明日作耗, 近道總兵官等, 皆屯兵以待’, 又有唐人來避於赤島, 言之曰: ‘獐子等前年間, 欲知虛實, 潛入鎌場堡, 守堡誘致三千餘人, 勸之酒極醉, 盡勦殺, 因此獐子懷憤, 七千餘騎作屯, 謀欲報讐, 至今聲息不絕.’ 云, 方整齊軍馬待變事.”】入啓.

2) 임제, 『남명소승』, 1578년(선조 11) 2월 10일.

○ 二月初十日, 陰. 長對仙山 鬱鬱不樂 忽山尺來報曰 山南雪消幾盡 人馬可以通行 於是入告父親 乃與**謫客申長嶺**, 琴伴柳廷傑 各戴土着草冠 從西門 出行十餘里 少憩于都近川上流 甲士金禮英 護行來到 呈秋露一壺.

26. 송상인(宋象仁)

- 신분: 좌랑
- 유배 연월: 1612년(광해군 4) 4월 19일.
- 해배 연월: 1623년(인조 1) 3월 14일(인조반정).
- 사유: 정치 변동(김직재〈金直哉〉 옥사 연루)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52) 1612년(광해군 4) 4월 19일.

○ 傳曰: “宋象仁是逆魁切親, 崔奉守, 宋從植兇賊一家之人, 特寬鞫問之典. 象仁絕島定配, 奉守, 從植遠方流竄. 柳恒亦出於賊招, 難以全免, 削奪官爵, 門外黜送. 申說再出賊口, 似當訊問得情. 此意問于大臣.”

2)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3월 14일.

○ 命放釋戊申以後罪廢之人.

3) 『인조실록』(권 3) 1623년(인조 1) 윤10월 1일.

○ 以宋象仁爲司憲府持平. 象仁, 象賢之弟也. 性本剛直, 廉潔絕人, 布衣時, 倡同志上疏, 訟先賢成渾之冤, 士論多之. 光海時, 壬子之獄, 被逮配濟州, 反正後, 卽被召用.

27. 신희업(辛喜業)

- 신분: 문신(?)
- 유배 연월: 1612년(광해군 4) 4월 29일.
- 해배 연월: 1623년(인조 1) 3월 14일(추정).
- 사유: 정치 변동(김직재〈金直哉〉옥사 연루)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52) 1612년(광해군 4) 4월 25일.

○ 推鞠廳啓曰: “伏承更爲議啓之命, 臣等不勝感激. 受刑諸囚, 除田闢, 金景哲, 有親鞫時議處之教者外, 辛喜業情犯, 與黃奭無異; 李香福京時仕, 顯有公文; 閔河瑞臨刑納招, 雖極無理, 初非出於賊招, 謀逆端緒, 覈得無據. … “ 答曰: “自古逆變時, 未免有橫罹之人, 故今此逆獄連累人等, 與卿等詳議, 前後疏放者極多. 但時方受刑罪人中, 辛喜業乃黃賊之壻, 非但凶謀必詳知之, 箇中辭語, 極凶且慘. 然姑除加刑, 絕島圍籬安置.”

2) 『광해군일기』(권 52) 1612년(광해군 4) 4월 29일.

○ 傳曰: “辛喜業 濟州 改定配.”

3)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3월 14일.

○ 命放釋戊申以後罪廢之人.

4) 『승정원일기』(책 2) 1623년(인조 1) 9월 27일.

○ 有政.吏批, … 辛熙(?)業兼桃源察訪.

28. 이태경(李泰慶)

- 신분: 종실(진릉군(晉陵君))
- 유배 연월: 1612년(광해군 4) 10월 7일.
- 사망 연월: 1612년(광해군 4) 11월 1일.
- 사유: 정치 변동(김직재(金直哉) 옥사 연루)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16) 1609년(광해군 1) 5월 25일.

○ 以洪履祥爲大司成, 柳慶宗爲司諫, 韓纘男爲獻納, 蘇光震爲文學, 吳煥爲司書, 宗室泰慶爲晉陵君. 【泰慶, 益成君之子而後於順和君(者也. 壬子申慄誣告之獄起, 杖配濟州, 追殺之海南.)】

2) 『광해군일기』(권 58) 1612년(광해군 4) 10월 7일.

○ 義禁府啓曰: “據前傳教, 祖宗朝用律非一道, 泰慶事更議大臣, 則領議政 李德馨議: ‘臣之所懷, 曾於榻前, 屢次啓達, 今無別議. 既有律文, 又有前規, 參酌情法處, 唯在自上裁斷.’ 左議政 李恒福議: ‘臣於親鞫時, 親承下問, 參酌情法, 略加商量, 剖折 析以對, 前後一意, 不敢別議. 伏惟上裁.’ 領中樞府事 奇自獻議: ‘臣方病苦, 不省人事, 實錄所載, 全不得聞知. 其中必有可據處置之事, 亦有律文, 參酌處置, 唯在上裁.’ 行判中樞府事 沈喜壽議: ‘自古處置近屬之逆獄, 亦非一概, 故前日伏承下問, 謹以此爲啓. 今不敢別議. 參商情法, 得其輕重之宜, 唯在聖裁.’ 右議政 鄭仁弘以爲: ‘今日始爲肅拜, 未能詳知首末, 不得獻議’ 云. 完平府院君 李元翼病不收議. 大臣之議如此, 上裁施行何如?” 傳曰: “知道.” 仍傳曰: “泰慶依前定配發送, 此意言于兩司.”

3) 『광해군일기』(권 59) 1612년(광해군 4) 11월 1일.

○ 義禁府啓曰: “泰慶議處事, 議于大臣, 則領議政李德馨, 左議政李恒福, 領中樞府事奇自獻, 判中樞府事沈喜壽議: ‘泰慶事, 曾於榻前及在外獻議時, 已盡陳達. 請法之外, 更無可議, 伏惟上裁.’ 完平府院君 李元翼, 右議政鄭仁弘, 病不收議. 大臣之議如此, 上裁施行何如?” 傳曰: “斷以常刑, 有所不忍者, 群議如此, 賜死於配所.”

29. 노씨부인(盧氏夫人)

- 신분: 외척(여)
- 유배 연월: 1618년(광해군 10) 10월 15일.
- 해배 연월: 1623년(인조 1) 3월 14일.
- 사유: 연흥부원군(김제남) 무옥 연좌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133) 1618년(광해군 10) 10월 15일.

○ 配金悌男妻盧氏于濟州. 傳曰: “悌男妻配所下去時, 多定軍士, 堅守押送.” 【時, 盧氏在本家, 定將圍守, 已六年矣. 每於昏夜, 行人多以食物, 投擲牆內, 得以不死. 至是, 王慮交通外人, 定配絕島.】

2) 『광해군일기』(권 133) 1618년(광해군 10) 10월 21일.

○ 傳曰: “悌男妻濟州安置, 擇定都事武臣, 兼宣傳官押送, 所經各官, 多定武士, 交替嚴守.”

3) 『광해군일기』(권 134) 1618년(광해군 10) 11월 13일.

○ 傳曰: “金悌男妻配所押去時, 夜間各別堅守, 俾無虛疎之患.”

4) 『광해군일기』(권 187) 1623년(광해군 15) 3월 14일.

○ 遣承旨鄭垚, 禮曹參議睦長欽, 迎盧氏於濟州. 【盧氏, 大妃母也. 大妃始自癸丑錮宮之後, 內外隔絕, 至於延興追刑, 盧氏安置, 皆於反正後, 始聞之. 盧氏老病, 恐不能渡海, 特遣近臣禮官, 看護以來. 大妃在錮宮中, 宮人連以交通外間, 受誣被刑, 極慘酷. 光海更遣侍女代之, 兼行譏察, 侍女既入錮宮, 皆親附于大妃, 誠心奉事焉. 宮中元有衣服器用, 雖久不乏, 自外例供魚肉鹽米不廢. 大妃自經禍亂, 服縞食素, 侍女亦皆食素, 故魚肉則還擲牆外, 烏鳶恒集啄食, 腐臭達于內. 宮人於宮內, 自種蔬果, 以供朝, 夕又乏新木綿, 一宮人於草褥中, 探得木綿遺核數顆, 年年種稔. 作襦衣以進, 外人不知宮內事狀, 或傳言

而已不諱，至是始知之.】

5)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3월 14일.

○ 命迎延興府院君夫人【慈殿之母也.】于濟州. 夫人在配，牧使梁濩希賊臣之意，侵辱備至，嘗賣酒爲生. 至是，遣承旨鄭垚等，往迎之，慈殿別遣內官宮女. 且令差送京官，申飭沿路護行諸事. 有宋文奎者，以凶徒當死，欲免其罪，自請以往. 文奎又使氣，作弊於沿道，及其還渡，卽命誅之.

6)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3월 14일.

○ 遣承旨鄭垚等，迎延興府院君夫人于濟州. 慈殿，別遣內官·宮女，且令差送京官，申飭沿路護行諸事.

7)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4월 25일.

○ 左承旨鄭垚書曰，延興府院君夫人一行，本月二十四日，振威宿所，當日發向龍仁，明日入京事.

30. 최흥선(崔興善)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3월 14일 이후(추정).
- 해배 연월: 1628년(인조 6) 2월 19일.
- 사유: 정권 변동(광해군에 아첨)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18) 1628년(인조 6) 2월 19일.

○ 禁府與大臣，兩司長官議啓曰：“尹以震，逆賊尹仁發之三寸姪，權餘慶，昏朝淑儀之父，皆非親切於爾瞻等之人，且已放還，依聖教置之宜當。其餘鄭湛等十五人，則附會賊黨，出入臺侍，竝難輕議。崔興善則縱與昏朝，作弊貽害，定配濟州，蒙宥放還，而不念天恩，做出訛言，搖動民心，不可不遠竄，仍前定配宜當。”上從之。

2) 『승정원일기』(책 20) 1628년(인조 6) 2월 20일.

○ 傳曰，罪人崔興善，南海定配事，言于禁府。〈禁府臚錄〉。

31. 이종영(李宗英)

- 신분: 유생(선산<善山>)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4월 2일.
- 해배 연월: 1635년(인조 13) 4월 11일.
- 사유: 정권 변동(이이첨 심복)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168) 1621년(광해군 13) 8월 14일.

○ 金是樞等再疏曰: “... 如李宗英, 本道善山人也, 以偷竊學宮之布, 見黜於本校. 不容於鄉黨, 遂至京師, 出入逆筠之門, 與之交密. 故被削於士林, 不容於一道, 而又得幸爾瞻, 齒列衣冠. 則其爲爾瞻地者, 何所不至? 受爾以譽自身之功德, 一以攻異己之忠良, 一國工匠, 雲集其門; 四方財用, 山積其庭, 新宮經始之役, 垂十年而未就; 五家僭制之構, 彌一洞而連雲, 此非負國而何哉? 臣等竊伏思之, 爾瞻所恃而自多者, 只是戊申宣力一事而已. 當先王臨御之日, 儲養春宮, 凡幾年矣? 先王封之, 天命之, 民歸之, 雖無一爾瞻, 謳歌獄訟, 豈不歸於聖主? 人之一衣一食, 皆有數存焉, 則堂堂大統歷數在天, 豈容人力於其間哉? 爾瞻雖有侂冑自恃之功, 而無君不道之罪則反有甚於侂冑者矣. 罪大功小, 難掩其罪, 伏願殿下爲宗社快決焉.” 答曰: “省疏具悉. 但草野, 朝廷, 事體自別, 爾等之言, 過於率易. 況大臣, 國家柱石, 人主股肱, 尤不宜輕侵. 退而思之, 勿復煩論.” (【是樞等之疏, 誠可取也. 但不能論列於兇焰方張之日, 而乘瀟, 活之餘論, 欲因其將敗而傾之, 似非草野之正論. 且文辭庸拙, 不足以動聽, 嶺南, 其衰矣夫!】)

2)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4월 2일.

○ 上復御明光殿, 引見領議政李元翼, 左議政鄭昌衍, 判義禁尹昉, 同知義禁李景涵, 大司憲吳允謙, 大司諫朴東善, 大將兵曹判書金瑬·吏曹參判李貴, 議獻獄囚, 分等誅竄... 鄭諶, 孫佑, 李宗英, 皆爾瞻腹心; 諶, 佑則且主張嶺儒, 張弓挾矢之論, 鄭道同參兇論, 罪犯頗重; 鄭世芳, 世馨, 以昭媛切親, 藉勢作弊; 李承吉, 以夢弼同壻, 縱吏作弊; 李景茂, 以廢妃之族, 作弊閭閻; 徐兢, 以鄉生投疏, 請廢母后, 竝安置.

3) 이건(李健), 『규창집』(권 5), 「잡저」(제양일록〈濟襄日錄〉) 1628년(인조 6) 6월 29일.

○ 本島流配人, 有前僉正柳希顔, 前縣監成宏烈, 及第李宗英, 盲人金禹鼎在焉. 皆使人致款, 如見骨肉之來, 此皆素昧平生之人, 而人情有自然矣. 柳希顔力農資生, 李宗英教授諸生, 賴以糊口.

4) 『인조실록』(권 31) 1635년(인조 13) 4월 11일.

○ 諫院啓曰: “國有大慶, 加恩八方, 勿論罪犯之輕重, 悉加疏釋, 其在滌瑕蕩垢之德, 可謂至矣. 然其關係國家, 罪在罔赦, 則決不可混施恩澤. 佶, 億, 健, 以逆珙之子, 幸蒙全貸. 當屏諸四裔, 不與同國, 而今乃有放還之命. 澳, 洛附托賊适, 身負逆名, 鄭之問疏中, 有不忍道之語; 康文翼, 李<岑>, 李慕, 崔應虛, 任器之, 鄭碩儒, 黃中允, 鄭良胤, 洪景艇, 尹聖任, 郭天成, 郭天豪, 李儼等, 以逆魁徒黨, 或盤據三司, 助成兇逆, 或連章累牘, 主張廢論. 得保首領, 亦云失刑, 宥旨之下, 莫不驚駭. 請還收放送, 量移, 給牒, 敘用之命.” 憲府亦以此論啓, 又論: “申<忭>, 沈之清, 李元輿, 尹晷, 蔡有濟, 林健, 崔濩, 申瑞廷, 辛敬業, 李宗英, 朴乾甲, 鄭伋, 任瑗, 全礪, 李之皓, 劉敬甲, 朴弘猷, 李明, 陳好善, 朴規, 李清, 洪德民, 安佺等, 當廢母之論, 或主張, 或傳會, 與之問, 文翼等無異, 竝請勿量移, 給牒, 敘用.” 累月論啓, 只命之問, 元輿勿放, 餘皆不從.

32. 옥환(玉還)

- 신분: 나인(內人)〈여〉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4월 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정권 변동(광해군 때 인목왕후 모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4월 5일.

○ 義禁府啓曰, 粘連啓下是白有亦. 潘錫命等上疏中別紙, 河仁俊·鄭淇·蔡有濟·羅萬紀·鄭績·鄭漢通文, 凶辭悖語, 有不忍見. 仁俊則逆筠之亂, 既以伏誅, 鄭淇則已有拿命, 其於四賊, 朝廷初不知罪惡之至於此極, 尙未處置, 人情之憤鬱, 固其宜也. 竝發遣府郎廳, 拿來, 何如? 依允. 已上出延興府院君家日記所謄朝報 義禁府郎廳, 以大臣意啓曰, 臣等伏奉慈殿備忘記, 內人生伊·可復·難香·銀德·甲伊·業麟·仲還·慶春·難伊·奎香·玉還·業難·玉介·女玉·天福·巫女秀蘭介, 此人等, 挾其兇主, 助異奸邪, 咀呪百般呪出, 反以魘魅之事, 歸之於怨婦, 惡名, 負之於予躬, 宮女三十餘人, 奸邪之事, 誣飾此人之所爲, 論以大逆, 盡爲誅戮. 其後十餘年間, 在於外處, 百端作孽, 使予欲死, 而且於癸丑年十一二月間, 兩宮行路處, 仲還·慶春等, 潛通指喉, 寢室溫垓下, 魘魅之物, 無數埋置, 邪毒浹於骨髓, 一身浮腫, 幾不免黃壤之客, 幸賴天德, 邪物發覺, 復甦於萬死之中. 厥後甲寅之秋, 巨賊夫妻, 及此內人等, 以百惡凶術, 誘說天福於座前, 一自天福入門之後, 日日趨及於御前, 或以驚上, 或以恐喝, 殿上四面或屋上, 許多咀呪之物理置, 而每每現出, 至於放火, 使予欲爲焚死, 雖使予欲死, 非大口, 至於先王陵寢, 種種奸邪埋置, 且御容畫體, 或射或辱, 魂不容, 不勝怨痛. 宮中內人洶動, 使不得安接此人, 罪惡貫盈者, 非止此而難以毛舉, 略陳其概, 非但爲父兄赤子, 怨痛於幽獄中, 以如此種種邪變艱苦, 經至□年于茲. 幸賴卿等忠烈之貫日, 宿蘊之痛, 雪恥於今日, 卿等, 雖磨頂放踵, 實難報德. 唯望卿等, 依律極處, 此外被囚內人, 從速元情以入, 且如此罪辜, 久留獄中, 無乃有乖於新政之初乎? 斯速處置, 明正其罪. 且巨賊暴瑋處置事, 昨日已下, 而寂然不知, 喬桐送之乎事, 傳教矣. 此係禁府舉行之事, 罪人處置, 促令禁府, 依下教速爲查覈, 明正其罪矣. 至於廢主各處圍籬事, 命下, 禁府

當爲磨鍊，而今承喬桐送之之教，何以爲之？敢稟。傳曰，依慈殿下教。

2)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4월 5일.

○ 義禁府內人定配單子.傳曰, 玉還·玉介·永難, 竝濟州定配.

33. 옥개(玉介)

- 신분: 나인(內人)〈여〉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4월 5일.
- 해배 연월: 1625년(인조 3) 2월 18일.
- 사유: 정권 변동(광해군 때 인목왕후 모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4월 5일.

○ 義禁府啓曰, 粘連啓下是白有亦. 潘錫命等上疏中別紙, 河仁俊·鄭淇·蔡有濟·羅萬紀·鄭績·鄭漢通文, 凶辭悖語, 有不忍見. 仁俊則逆筠之亂, 既以伏誅, 鄭淇則已有拿命, 其於四賊, 朝廷初不知罪惡之至於此極, 尙未處置, 人情之憤鬱, 固其宜也. 竝發遣府郎廳, 拿來, 何如? 依允. 已上出延興府院君家日記所謄朝報 義禁府郎廳, 以大臣意啓曰, 臣等伏奉慈殿備忘記, 內人生伊·可復·難香·銀德·甲伊·業麟·仲還·慶春·難伊·奎香·玉還·業難·玉介·女玉·天福·巫女秀蘭介, 此人等, 挾其兇主, 助異奸邪, 咀呪百般呪出, 反以魘魅之事, 歸之於怨婦, 惡名, 負之於予躬, 宮女三十餘人, 奸邪之事, 誣飾此人之所爲, 論以大逆, 盡爲誅戮. 其後十餘年間, 在於外處, 百端作孽, 使予欲死, 而且於癸丑年十一二月間, 兩宮行路處, 仲還·慶春等, 潛通指喉, 寢室溫垓下, 魘魅之物, 無數埋置, 邪毒浹於骨髓, 一身浮腫, 幾不免黃壤之客, 幸賴天德, 邪物發覺, 復甦於萬死之中. 厥後甲寅之秋, 巨賊夫妻, 及此內人等, 以百惡凶術, 誘說天福於座前, 一自天福入門之後, 日日趨及於御前, 或以驚上, 或以恐喝, 殿上四面或屋上, 許多咀呪之物埋置, 而每每現出, 至於放火, 使予欲爲焚死, 雖使予欲死, 非大口, 至於先王陵寢, 種種奸邪埋置, 且御容畫體, 或射或辱, 魂不容, 不勝怨痛. 宮中內人洶動, 使不得安接此人, 罪惡貫盈者, 非止此而難以毛舉, 略陳其概, 非但爲父兄赤子, 怨痛於幽獄中, 以如此種種邪變艱苦, 經至□年于茲. 幸賴卿等忠烈之貫日, 宿蘊之痛, 雪恥於今日, 卿等, 雖磨頂放踵, 實難報德. 唯望卿等, 依律極處, 此外被囚內人, 從速元情以入, 且如此罪辜, 久留獄中, 無乃有乖於新政之初乎? 斯速處置, 明正其罪. 且巨賊暴瑋處置事, 昨日已下, 而寂然不知, 喬桐送之乎事, 傳教矣. 此係禁府舉行之事, 罪人處置, 促令禁府, 依下教速爲查覈, 明正其罪矣. 至於廢主各處圍籬事, 命下, 禁府

當爲磨鍊，而今承喬桐送之之教，何以爲之？敢稟。傳曰，依慈殿下教。

2)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4월 5일.

○ 義禁府內人定配單子。傳曰，玉還·玉介·永難，竝濟州定配。

3) 『승정원일기』(책 4) 1625년(인조 3) 2월 18일.

○ 李彦英啓曰，義禁府量移單子入啓，再下之際，玉介忠州移配，莫香放事，付標啓下，而臣以刑房兼兵房，事務煩擾，未及致察，承傳內不得付標入啓，不勝惶恐。傳曰，勿爲惶恐。

34. 영난(永難)

- 신분: 나인(內人)〈여〉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4월 5일.
- 해배 연월: 1632년(인조 10) 6월 25일.
- 사유: 정권 변동(광해군 때 인목왕후 모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4월 5일.

○ 義禁府啓曰, 粘連啓下是白有亦. 潘錫命等上疏中別紙, 河仁俊·鄭淇·蔡有濟·羅萬紀·鄭績·鄭漢通文, 凶辭悖語, 有不忍見. 仁俊則逆筠之亂, 既以伏誅, 鄭淇則已有拿命, 其於四賊, 朝廷初不知罪惡之至於此極, 尙未處置, 人情之憤鬱, 固其宜也. 竝發遣府郎廳, 拿來, 何如? 依允. 已上出延興府院君家日記所謄朝報 義禁府郎廳, 以大臣意啓曰, 臣等伏奉慈殿備忘記, 內人生伊·可復·難香·銀德·甲伊·業麟·仲還·慶春·難伊·奎香·玉還·業難·玉介·女玉·天福·巫女秀蘭介, 此人等, 挾其兇主, 助異奸邪, 咀呪百般呪出, 反以魘魅之事, 歸之於怨婦, 惡名, 負之於予躬, 宮女三十餘人, 奸邪之事, 誣飾此人之所爲, 論以大逆, 盡爲誅戮. 其後十餘年間, 在於外處, 百端作孽, 使予欲死, 而且於癸丑年十一二月間, 兩宮行路處, 仲還·慶春等, 潛通指喉, 寢室溫垓下, 魘魅之物, 無數埋置, 邪毒浹於骨髓, 一身浮腫, 幾不免黃壤之客, 幸賴天德, 邪物發覺, 復甦於萬死之中. 厥後甲寅之秋, 巨賊夫妻, 及此內人等, 以百惡凶術, 誘說天福於座前, 一自天福入門之後, 日日趨及於御前, 或以驚上, 或以恐喝, 殿上四面或屋上, 許多咀呪之物理置, 而每每現出, 至於放火, 使予欲爲焚死, 雖使予欲死, 非大口, 至於先王陵寢, 種種奸邪埋置, 且御容畫體, 或射或辱, 魂不容, 不勝怨痛. 宮中內人洶動, 使不得安接此人, 罪惡貫盈者, 非止此而難以毛舉, 略陳其概, 非但爲父兄赤子, 怨痛於幽獄中, 以如此種種邪變艱苦, 經至□年于茲. 幸賴卿等忠烈之貫日, 宿蘊之痛, 雪恥於今日, 卿等, 雖磨頂放踵, 實難報德. 唯望卿等, 依律極處, 此外被囚內人, 從速元情以入, 且如此罪辜, 久留獄中, 無乃有乖於新政之初乎? 斯速處置, 明正其罪. 且巨賊暴瑋處置事, 昨日已下, 而寂然不知, 喬桐送之乎事, 傳教矣. 此係禁府舉行之事, 罪人處置, 促令禁府, 依下教速爲查覈, 明正其罪矣. 至於廢主各處圍籬事, 命下, 禁府

當爲磨鍊，而今承喬桐送之之教，何以爲之？敢稟。傳曰，依慈殿下教。

2)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4월 5일.

○ 義禁府內人定配單子.傳曰, 玉還·玉介·永難, 竝濟州定配.

3) 『승정원일기』(책 37) 1632년(인조 10) 6월 25일.

○ 金南重, 以義禁府言啓曰, 癸亥年內人奎香等放釋事, 慈殿下教, 令該府依慈教學行事, 傳教矣. 府上定配案相考, 則癸亥定配內人, 濟州只有英難·夫田, 而英難本名奎香, 竝放釋之意, 敢啓. 傳曰, 依啓.

35. 허정식(許廷式)

- 신분: 관리(전 부사<府使>)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7월 1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지방관 탐학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2) 1623년(인조 1) 7월 6일.

○ 憲府啓曰: “前府使許廷式, 行賂權奸, 圖拜關西重鎮, 剝割貪縱, 殺戮人命, 請絕島安置. 前判官梁應深, 附托權奸, 得占舟師從事, 偷竊米布, 私作五六隻之舡, 請拿鞠定罪, 徵其舡隻, 以補軍需.” 上不允. 許廷式, 黃謹中事, 屢啓, 乃從之.

2) 『승정원일기』(책 2) 1623년(인조 1) 7월 8일.

○ 府啓, 玉堂應入推調之官罷推事. 尹知敬罷職事. 洪霧罷推事. 黃謹中·趙有恒削黜事. 許廷式定配事. 梁應深拿鞠事. 答曰, 不允. 許廷式依啓.

3) 『승정원일기』(책 2) 1623년(인조 1) 7월 12일.

○ 禁府, 宋鐸拿囚, 許廷式濟州定配. 啓.

36. 성굉렬(成宏烈)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624년(인조 2) 2월 17일(추정).
- 이배 연월: 1631년(인조 9) 1월 23일(옥구).
- 사유: 연좌(아들 성탁<成琢> 이괄의 난 연루)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4) 1624년(인조 2) 2월 17일.

○ 适軍官朴廷澍, 吳永吉等, 逃竄被捕, 梟示軍門. 适女婿吳世隆定配絕島, 而未及押送.
逆賊成琢之父宏烈, 未及處絞, 至是皆來現. 命世隆押送配所, 宏烈免其緣坐.

2) 이건(李健), 『규창집』(권 5), 「잡저」(제양일록<濟襄日錄>) 1628년(인조 6) 6월 29일.

○ 本島流配人, 有前僉正柳希顔, 前縣監成宏烈, 及第李宗英, 盲人金禹鼎在焉. 皆使人致款, 如見骨肉之來, 此皆素昧平生之人, 而人情有自然矣. 柳希顔力農資生, 李宗英教授諸生, 賴以糊口.

3) 『승정원일기』(책 32) 1631년(인조 9) 1월 23일.

○ 禁府啓曰, 外方定配罪人與大臣同議定奪, 其中十四人別單書啓, 伏候睿裁. 且臣等取考本府所上罪人名案, 則圍籬者四十一, 處遠竄者一百八十七, 中途付處二十二, 以其名下懸錄緣罪名觀之, 則皆極痛駭, 無一可恕之人, 而第念反正以後, 被罪遠竄者, 若此之多, 雖緣渠等自作之孽, 風霜嶺海之外, 其日夜呼怨愁嘆之情, 爲如何哉? 大抵苦則怨, 怨則傷和, 傷和則致災, 必然之理也. 天道十年一變, 人情窮則反本, 罪人之中, 豈無悔恨前非, 革心而自新者乎? 當此慈殿違豫之日, 自上若特施例外寬典, 係干逆獄外, 其餘參商情犯, 或爲量移, 或爲分疏, 以示曠蕩好生之德, 則凡在瞻聆, 莫不歡欣感祝. 其於消災求福之道, 或不無萬一之助矣. 臣等職在王府, 區區所懷, 惶恐敢啓. 傳曰, 知道. 其中可放之類, 標而下, 依付標施行. 禁府別單子十四人內, 罪人成宏烈, 撤去圍籬量移, 允金·羅萬甲

放送, 金埴分揀.

4) 『승정원일기』(책 32) 1631년(인조 9) 1월 24일.

○ 禁府梁桓, 罪人成宏烈沃溝移配事, 濟州地出去.

37. 김우정(金禹鼎)

- 신분: 미상(맹인)
- 유배 연월: 1628년(인조 6) 6월 29일 이전.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이건(李健), 『규창집』(권 5), 「잡저」(제양일록〈濟襄日錄〉) 1628년(인조 6) 6월 29일.

○ 本島流配人, 有前僉正柳希顔, 前縣監成宏烈, 及第李宗英, 盲人金禹鼎在焉. 皆使人致款, 如見骨肉之來, 此皆素昧平生之人, 而人情有自然矣. 柳希顔力農資生, 李宗英教授諸生, 賴以糊口.

38. 민탁립(閔卓立)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628년(인조 6) 1월 17일.
- 이배 연월: 1628년(인조 6) 5월 27일(진도).
- 사유: 연좌(유효립 옥사<인성군 옹립>, 역적 민대<閔澍>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0) 1628년(인조 6) 1월 17일.

○ 罪人朴英達·龍伊拿囚, 李廷·韓惟吉·仁玉物故, 閔卓立承服後, 年未滿, 濟州定配.

2) 『승정원일기』(책 20) 1628년(인조 6) 1월 24일.

○ 義禁府啓曰, 閔賊無子息, 問啓事, 傳教矣.閔賊無嫡子, 以漂賊之子卓立, 爲子云, 故已爲拿來, 以年未滿入啓定配矣.妻子息有無, 則查覈狀啓入來, 然後方可知也, 敢啓.

3) 『승정원일기』(책 21) 1628년(인조 6) 5월 27일.

○ 禁府, 濟州定配罪人柳正立·朴自凝·柳性善·閔卓立移配珍島, 丁焞康津, 朴啓章海南, 柳時立巨濟移配.

39. 유희안(柳希顔)〈柳希安〉

- 신분: 관리(사복시 첨정)
- 유배 연월: 1628년(인조 6) 1월 23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역모 연루(유효립 옥사〈인성군 옹립〉)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131) 1618년(광해군 10) 8월 5일.

○ 柳希安 (爲)司僕僉正.

2)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4월 3일.

○ 上曰: “希亮, 希顔[安], 則似有間隔, 絶島圍籬安置. 其諸子則北邊遠竄可矣.”

3) 『승정원일기』(책 20) 1628년(인조 6) 1월 22일.

○ 以禁府珍島罪人移配單子. 傳曰, 朴葵則絶島定配, 柳希安則清州定配.

4) 『승정원일기』(책 20) 1628년(인조 6) 1월 23일.

○ 又啓曰, 孝立三寸叔柳希安, 當用流三千里安置緣坐之律, 而既已移配濟州, 使不議律之意, 敢啓. 傳曰, 知道.

5) 이건(李健), 『규창집』(권 5), 「잡저」(제양일록〈濟襄日錄〉) 1628년(인조 6) 6월 29일.

○ 本島流配人, 有前僉正柳希顔, 前縣監成宏烈, 及第李宗英, 盲人金禹鼎在焉. 皆使人致款, 如見骨肉之來, 此皆素昧平生之人, 而人情有自然矣. 柳希顔力農資生, 李宗英教授諸生, 賴以糊口.

40. 박자응(朴自凝)

- 신분: 관리(영광군수)
- 유배 연월: 1628년(인조 6) 2월 16일.
- 이배 연월: 1628년(인조 6) 5월 27일(진도).
- 사유: 역모 연루(유효립 옥사<인성군 옹립>, 박승종<朴承宗>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0) 1628년(인조 6) 2월 16일.

○ 禁府, 圍籬罪人, 濟州柳正立·朴自凝, 大靜柳時立, 旌義柳英立, 巨濟柳命立, 南海曲浦柳厚立, 平山浦柳中立, 巨濟知世浦柳顯立, 熊川朴自全, 南海柳鼎立, 彌助項朴自天, 唐浦朴自昱, 尙州浦朴全度, 加里浦李元輿, 興陽鄭碩儁, 巨濟鄭達, 助羅浦朴永澤, 西水羅閔貴達, 會寧權誼, 鍾城任興後, 穩城任就正·崔應虛, 慶源任器之·李傳芳, 慶興柳活, 三水趙國弼, 富寧金時輔, 定配.

2) 『승정원일기』(책 21) 1628년(인조 6) 5월 27일.

○ 禁府, 濟州定配罪人柳正立·朴自凝·柳性善·閔卓立·移配珍島, 丁焞康津, 朴啓章海南, 柳時立巨濟移配.

41. 유정립(柳正立)

- 신분: 관리(전 예조좌랑)
- 유배 연월: 1628년(인조 6) 2월 16일.
- 이배 연월: 1628년(인조 6) 5월 27일(진도).
- 사유: 역모 연루(유효립 옥사<인성군 옹립>, 유희분<柳希奮>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0) 1628년(인조 6) 2월 16일.

○ 禁府, 圍籬罪人, 濟州柳正立·朴自凝, 大靜柳時立, 旌義柳英立, 巨濟柳命立, 南海曲浦柳厚立, 平山浦柳中立, 巨濟知世浦柳顯立, 熊川朴自全, 南海柳鼎立, 彌助項朴自天, 唐浦朴自昱, 尙州浦朴全度, 加里浦李元輿, 興陽鄭碩儁, 巨濟鄭達, 助羅浦朴永澤, 西水羅閔貴達, 會寧權誼, 鍾城任興後, 穩城任就正·崔應虛, 慶源任器之·李傳芳, 慶興柳活, 三水趙國弼, 富寧金時輔, 定配.

2) 『승정원일기』(책 21) 1628년(인조 6) 5월 27일.

○ 禁府, 濟州定配罪人柳正立·朴自凝·柳性善·閔卓立·移配珍島, 丁焞康津, 朴啓章海南, 柳時立巨濟移配.

42. 박계장(朴啓章)

- 신분: 관리(전 밀양부사)
- 유배 연월: 미상
- 이배 연월: 1628년(인조 6) 5월 27일(해남).
- 사유: 미상(인성군〈仁城君〉가족 제주 유배로 인한 이배)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4월 11일.

○ 朴啓章密陽府使.

2) 『승정원일기』(책 21) 1628년(인조 6) 5월 27일.

○ 禁府, 濟州定配罪人柳正立·朴自凝·柳性善·閔卓立移配珍島, 丁焞康津, 朴啓章海南, 柳時立巨濟移配.

3) 『인조실록』(권 19) 1628년(인조 6) 9월 5일.

○ 移罪人朴自凝, 柳正立安置于珍島, 柳時立安置于巨濟, 朴啓章定配于南海.

43. 정돈(丁惇)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
- 이배 연월: 1628년(인조 6) 5월 27일(강진).
- 사유: 미상(인성군〈仁城君〉가족 제주 유배로 인한 이배)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1) 1628년(인조 6) 5월 27일.

○ 禁府, 濟州定配罪人柳正立·朴自凝·柳性善·閔卓立移配珍島, 丁惇康津, 朴啓章海南, 柳時立巨濟移配.

44. 김승인(金承仁)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29년(인조 7) 3월 18일.
- 해배 연월: 1633년(인조 11) 5월 8일.
- 사유: 역모 고변(평강〈平康〉 사람)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5) 1629년(인조 7) 3월 1일.

○ 都事尹雱, 平康罪人金承仁等五名, 拿來.

2) 『인조실록』(권 20) 1629년(인조 7) 3월 18일.

○ 上朝講《書傳》于資政殿. 領經筵李廷龜曰: “禁府請金承仁正刑, 而自上有放釋之命. 好生之德則至矣, 而承仁本非告者, 當初以牛盜被捉. 見各人供辭, 則做作凶書, 殺牛祭天, 皆此人之所主張. 凶悖之甚, 未有如此者, 當明正典刑矣.”

3) 『승정원일기』(책 25) 1629년(인조 7) 3월 18일.

○ 李廷龜進曰, 金承仁, 義禁府入啓正刑, 而有分揀放送之教, 好生之德, 雖曰至矣, 而渠非告者, 乃當初以牛盜二字缺見各人招辭, 則做作兇書, 殺牛祭天, 皆此人主張數字缺也. 設或使渠先告逆謀, 而當功過相進, 數字缺 當初渠只稱大儻, 而數行缺其大儻之狀, 而不言逆謀數字缺全放也. 其如後弊, 何哉? … 金承仁則不可不〈數字缺〉送濟州等絕遠處, 可也. 廷龜曰, 承仁則〈數字缺〉 上曰, 大臣之意如此, 則使之定配.

4) 『인조실록』(권 28) 1633년(인조 11) 5월 8일.

○ 命成夏衍, 吳汝樞, 李元輿等竝撤圍籬, 姜翼文, 朴大辰, 金承仁, 黃汝彭, 李應澤, 鄭忠立, 任獻之, 趙淦, 閔潔, 柳健, 鄭晟, 黃中允, 任器之, 任徵之, 金弘遠, 洪迎, 金慶先, 趙有道, 趙有恒, 姜信立等竝放釋. 金尙窩, 朴東亮放歸田里.

5) 『승정원일기』(책 39) 1633년(인조 11) 5월 12일.

○ 禁府議大臣公事, 判付內, 罪人康文翼·朴大辰·金承仁·黃汝彭·李應澤·鄭忠立·任獻之·趙浣·閔潔·柳健·鄭晟·任徵之·黃中允·金弘遠·洪迎·金慶元·趙有恒·姜信立·任器之·李莘·尹熙善·申弘駟·魚大振·羅宜素·朴春陽·梁貴生·朴悌儉·鄭尙古·郭希震·朴宗一·鄭國彬·安應雲·鄭忠直, 放送·丁好恕·康輔臣·金搢·朴惟健, 量移·金尙窩·朴東亮·金時讓·鄭忠信, 放歸田里·追崇朝報

45. 박후검(朴後儉)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31년(인조 9) 2월 12일.
- 사망 연월: 1631년(인조 9) 3월 6일.
- 사유: 역모 연루(옥천 사람 조흥빈〈趙興賓〉 고변)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24) 1631년(인조 9) 2월 3일.

○ 沃川人趙興賓, 詣政院告變, 上下其書于賓廳, 遣禁府都事, 拿權大進, 權繼, 權絡, 權純, 鄭潭, 楊天植·廷植, 李贊希, 鄭厚淹, 朴先儉·後儉等十六人以來, 設鞠廳鞠之.

2) 『승정원일기』(책 32) 1631년(인조 9) 2월 12일.

○ 權大進父子·曹二男, 加刑不服. 朴後儉施爲次承服, 以得聞逆謀, 與參謀爲異, 斷以知而不告, 減死照律事, 議啓.

3) 『승정원일기』(책 32) 1631년(인조 9) 3월 5일.

○ 義禁府啓曰, 權純·朴後儉等, 因諫院所啓, 鞠廳議啓, 判下內, 知情不告之罪, 有只誅其身之律, 依此施行, 可也事, 傳教矣. 權純則方爲仍囚, 卽當行刑, 朴後儉則濟州定配, 已爲發送, 似當發遣都事, 拿來行刑, 而議于鞠廳, 則大臣之意以爲, 不須拿來, 都事追往其所到處, 行刑爲當云. 何以爲之? 敢稟, 答曰, 依啓.

4) 『승정원일기』(책 32) 1631년(인조 9) 3월 6일.

○ 假都事金自晦, 罪人朴後儉行刑事, 濟州地出去.

46. 남신록(南信祿)

- 신분: 출신(무과)
- 유배 연월: 1631년(인조 9) 2월 16일.
- 나래 연월: 1631년(인조 9) 4월 26일.
- 사유: 역모 연루(옥천 사람 조흥빈〈趙興賓〉 고변)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24) 1631년(인조 9) 2월 3일.

○ 沃川人趙興賓, 詣政院告變, … 權純供稱: “大進雖是叔父, 而不能頻數相見. 且不文, 不武, 有何預知之事乎? 云.” 大進奴永伊供稱: “還俗人楊姓者, 來見大進曰: ‘深沈可爲將帥者, 莫如權千摠.’ 云. 厥後聞, 南原盜起, 千摠喜曰: ‘國家已有事, 吾當領軍, 與南原兵, 會于中路, 直向京城’ 云. 沃川居庶孽壬生, 出身朴男, 周名世, 南信祿, 新選全今世, 皆預其謀云.”

2) 『승정원일기』(책 32) 1631년(인조 9) 2월 16일.

○ 假都事一人, 以南信祿, 拿來事, 濟州地出去.

3) 『승정원일기』(책 32) 1631년(인조 9) 4월 26일.

○ 濟州罪人南信祿, 拿來.

47. 마인현(馬仁賢)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32년(인조 10) 1월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35) 1632년(인조 10) 3월 8일.

○ 李景奭, 以兵曹言啓曰, 濟州全家定配罪人馬仁賢, 當身, 則正月分, 自咸興, 直送配所. 家口則自京中, 推刷入送事, 臣曹已爲入啓矣. 家口, 推刷事, 漢城府移文, 則同府回答內, 同馬仁賢, 狂妄未娶, 妻子女奴婢財産本無云云, 更令查考戶籍, 期於現出, 則只舉四祖及其兄弟之名, 家口則無一名, 刷出再三, 回答如此, 不得推刷入送之意, 濟州牧使處, 移文, 何如? 傳曰, 知道.

48. 광해군(光海君)

- 신분: 군주(임금)
- 유배 연월: 1637년(인조 15) 4월 24일.
- 사망 연월: 1641년(인조 19) 7월 10일.
- 사유: 정권 변동(인조반정)/ 강화도 교동에서 제주로 이배.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3월 13일.

○ 上舉義兵, 奉王大妃復位, 以大妃命, 卽位于慶運宮, 廢光海君, 放于江華, 誅李爾瞻等, 大赦國中.

2) 『인조실록』(권 15) 1627년(인조 5) 1월 20일.

○ 上下教曰: “光海當移置喬桐, 令廟堂量處.” 備局回啓曰: “適變時則令洪振道率去湖西, 而今則自江都往喬桐, 未滿一日程, 令副察使, 商確善處.” 政院啓曰: “今此移置, 舉措莫重, 而不爲速處, 必欲受決於奉命一大臣, 未曉其意. 依前率去之例, 令有司舉行.” 義禁府覆啓, 發遣都事, 押送喬桐, 後因崔鳴吉之議, 移置井浦.

3) 『인조실록』(권 29) 1634년(인조 12) 1월 12일.

○ 兩司合啓曰: “江都以保障重地, 密邇京輦, 光海本不宜久在其處, 而今者雜物潛入之變, 出於意外, 奸細相通之迹, 昭著無疑. 慮患之計, 不容少忽; 保全之道, 亦所當盡. 今後決不可仍處本府, 亟宜移他便地, 以絕日後之虞.” 答曰: “光海得罪倫紀, 積失人心, 雖使任意行止, 少無可虞, 然所論如此, 依啓.” 領議政尹昉等以爲: “移置處所, 遠之則濟州, 近之則喬桐, 似或便當.” 答曰: “濟州險遠, 移於便近處, 似可矣.” 禁府啓稟以移置喬桐之意, 答曰: “此時築墻爲難, 待解冰移置.”

4) 『인조실록』(권 34) 1637년(인조 15) 4월 17일.

○ 謝恩使李聖求曰: “近聞欲移光海於濟州云. 恐或傷於霧露, 亦恐人心之不洽然也.” 上

曰：“國家十年之內，三遭變亂，以光海身計言之，移於濟州，亦似安便矣。”蔡裕後進曰：朝廷大處置，不敢有所冒達，而左相之言，甚是也。”上不答。

5) 『승정원일기』(책 57) 1637년(인조 15) 4월 24일.

○ 以義禁府言啓曰，以備邊司啓辭光海移置濟州之事，依啓辭爲之事，命下矣。府郎廳，依前例發遣，而別將及守直軍士所騎船隻等項事，令各該曹舉行，何如？傳曰，依啓.郎廳，舟楫整齊後發遣.

6) 『승정원일기』(책 58) 1637년(인조 15) 윤4월 15일.

○ 禁府草記.光海移送濟州事 .傳曰，知道.早氣如此，未付種處必多，發送之期，更爲參酌退定.

7) 『인조실록』(권 36) 1638년(인조 16) 4월 2일.

○ 上命送夏節衣服之資于濟州 光海圍籬處.

8) 『인조실록』(권 38) 1639년(인조 17) 6월 10일.

○ 上以臘藥，苧布，履，扇等物，送于光海圍籬.

9) 『인조실록』(권 42) 1641년(인조 19) 7월 10일.

○ 光海君以是月初一日乙亥，卒于濟州園內，年六十七. 訃聞，上輟朝三日. 時，李時昉爲濟州牧使，卽陪鎖開門，斂殯以禮，朝議皆以爲非，而識者是之. 光海之自喬桐遷濟州也，有詩曰：風吹飛雨過城頭，瘴氣薰陰百尺樓. 滄海怒濤來薄暮，碧山愁色帶清秋. 歸心厭見王孫草，客夢頻驚帝子洲. 故國存亡消息斷，烟波江上臥孤舟. 聞者悲之. 至是，禮曹【判書李顯英，參判沈詒.】啓曰：“光海積失人心，天命歸于殿下，而殿下之篤念光海，恩禮備至. 遜位垂二十年，克終天年，殿下之聖德，無愧於古昔. 傳之天下後世，豈不美哉？第念，義重宗社，迫於臣民之請，雖有放廢之舉，其於喪禮，則視它內宗，似爲有間. 自上或於內庭，一次舉臨，百官亦於各衙門，變服會哭而止，則其於情禮，似無所憾.” 請議大臣. 左議政申景禎議曰：“旣云自絕于天，而臣民之所共棄，則衣衾，棺槨之具，亦足以盡

聖上骨肉之私恩. 至於大內舉臨, 百官變服會哭之節, 該曹所啓, 未可知也.” 右議政姜碩期以爲: “光海之喪, 視它內宗, 似爲有間云者, 或不無所見. 但念光海得罪倫紀, 自絕于天, 宗社臣民之所共棄, 而殿下篤念親親之義, 備盡恩禮, 竟使得終天年. 及聞其喪之後, 特遣禮官, 中使護喪, 聖上之待光海, 終始無憾矣. 殿下若非違豫之時, 則以骨肉之情, 自內一次舉臨, 容或一道, 至於百官變服等節目, 大義所在, 恐難輕議. 燕山之喪, 已有前規, 宜令禮官, 參商舉行.” 上是景禎議. 禮曹又啓曰: “濟州之喪, 與江華有異. 【文城夫人在江華時先逝故云.】初喪棺斂等事, 想已舉行, 而第念, 海外之事, 凡具草草, 其於必誠必慎之道, 恐或欠缺. 如不得已改棺易斂, 必待發引上來之後, 多官會同, 廣議爲之. 初喪所用, 姑勿下送, 發引諸具, 令該曹爲先下送. 且斂殯之後, 不可仍在圍籬之中, 出殯於官舍淨潔處, 凡干奠獻之物, 令本官精備, 依禮設行, 本道監司進到海上, 凡事檢飭宜當.” 上從之. 以蔡裕後爲禮曹參議, 與中官偕往濟州, 護其喪. 上欲行素膳七日, 藥房及政院諸臣相繼陳啓以爲: “禮官之請以停朝, 已涉非禮, 況當違豫之日, 不宜行法外之禮. 請於過停朝後, 卽復常膳.” 上從之. 禮曹又啓曰: “燕山之喪, 葬以王子. 今亦依此, 一等禮葬何如?” 答曰: “依啓. 山所監役官, 亦令擇送, 光海三年喪後, 光海及文城夫人家廟, 墓祭, 依燕山祭例, 使其女子主之.” 【燕山以其外孫主祀.】

10) 『승정원일기』(책 79) 1641년(인조 19) 7월 10일.

○ 濟州牧使·圍籬別將等書目, 七月初二日成貼, 昨日亥時量, 光海氣絕已久乙仍于, 圍內女人等, 私自斂襲事.

11) 『승정원일기』(책 79) 1641년(인조 19) 7월 10일.

○ 政院啓曰, 光海氣絕已久, 仍爲斂襲事, 濟州牧使·圍籬別將狀啓來到, 而以國忌, 不得入啓, 何以爲之? 敢稟. 傳曰, 禮官及中官, 下去護喪, 似當, 令該曹速爲議處.

12) 『승정원일기』(책 79) 1641년(인조 19) 7월 11일.

○ 傳曰, 光海喪柩, 上來時, 令各道監司, 陪行, 祭奠等事, 亦令各別檢飭.

13) 『승정원일기』(책 79) 1641년(인조 19) 9월 3일.

○ 禮曹參議書曰, 八月十八日, 光海喪柩, 自濟州發船. 二十二日, 靈巖地到泊事.

14) 이형상(李衡祥), 『남환박물(南宦博物)』〈지고(誌古)〉, 광해안치소(光海安置所).

○ 在濟州望京樓之西城內. 老吏所記曰, 丁丑六月初六日, 以廢朝安置事, 中使別將內官都事大殿別監內人書吏羅將, 押來於等浦入泊. 明日入州圍籬, 內人二並入. 杜門封鑰後, 都事等五員還京. 束伍留陣軍中三十名, 輪廻守直. 庚辰六月三十日午後, 內人言內光海卽得重病. 七月初一日氣絕, 內人慟哭, 使其內官問于內人, 則氣絕已久, 假作小斂云. 牧使卽傳三邑守令, 聚會十分完議, 初三日, 拔開封門改小斂. 執事則使出身校生等, 庶人例. 初四日, 入棺卽刻, 還爲杜門. 自得病日, 連三日封啓, 輕快舡出送. 同月 二十七日, 以護喪事, 禮曹參議正郎中使別監書吏, 入來于別刀浦. 翌日 直來安置所撤圍籬, 銘旌則正郎書之, 俛衾覆棺, 移殯于觀德亭, 大祭則三邑輪廻, 時祭則牧官獨當, 支供則一邑一員. 喪輦所入, 分定三邑, 差使員旌義縣差定造作. 八月初五日, 下浦. 十六日 放舡還泊. 十八日 出去.

49. 이대남(李大男)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34년(인조 12) 3월 21일(추정).
- 해배 연월: 1640년(인조 18) 윤1월 24일.
- 사유: 부정(가자<加資> 인신<印信> 위조).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42) 1634년(인조 12) 3월 21일.

○ 李敏求, 以兵曹言啓曰, 長湍居李貴春·李大男·金大奉·李允山·張德龍·金(金)伊同·金善海·安俊等, 稱以從軍功勞, 圖出司果, 而爲自中未缺者所訴, 呈狀五六字缺移文本府, 收聚各人等三行缺, 本曹移文捕盜廳, 使之盤問本犯罪狀, 竝印信所在處, 則應吉, 不下一杖, 供稱曰, 不記, 京居郭蒙·金以·李貴春等三人, 收合各人木棉, 圖出加資, 印信, 以木片親自僞刻, 堂上·郎廳署押, 竝自僞着, 而被捉之後, 其母燒火云.此賊二字缺甚重.令該曹依律處斷,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책 73) 1640년(인조 18) 윤1월 24일.

○ 判中樞府事沈悅筍曰, 伏以, 臣於上年, 奉使瀋陽, 其時鄭·金兩譯, 跟隨勅使出來, 只有李芑叱石·河大男等, 而臣出入衙門時, 芑叱石引臣前導而行, 凡事極致誠款, 以此顏情稔熟矣.臣回還之日, 芑叱石懇訴于臣曰, 小的之子大男, 定配于濟州, 願蒙天恩放釋云云. 臣歸告僚相, 欲入啓處置, 先考見禁府放未放文書, 則所謂大男者, 蒙放已久, 臣多般訪問, 知其所在處矣.去冬芑叱石, 隨滿將出來也.緣臣指示, 父子相見, 芑叱石稱謝不已, 仍以護恤其子之意, 再三懇請.且曰, 開春後爲送原籍, 以便聞問云云.以此言語於備局矣, 厥後大男, 來訴于臣曰, 備局因其父所言, 嚴囚許接主人, 如此嚴冬, 定日督刷, 極爲悶迫, 願待開春入去云云.臣言於有司堂上曰, 大男刷送之舉, 缺四字之情, 當此沍寒, 缺次知督送, 豈是其父之本意, 缺二行來時, 芑叱石, 寄書於其子, 使之待春入來, 缺半行如此曲折, 只因當初所言, 有此督刷之請也.大抵, 初因芑叱石之請, 跟尋大男者臣也.又因大男之訴, 退定刷限者亦臣也.數字缺 故當該堂上, 至於被推, 臣極爲惶恐未安, 伏地待罪.答曰, 省筍具悉.卿其安心, 勿爲待罪.

50. 이진영(李晉英)

- 신분: 관리(전 공조정랑)
- 유배 연월: 1642년(인조 20) 12월 7일.
- 사망 연월: 1643년(인조 21) 2월 24일.
- 사유: 연좌(역적 이계<李桂>의 부친)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36) 1638년(인조 16) 4월 8일.

○ 以李聖求爲領敦寧府事, 姜碩期爲知經筵, 徐祥履爲司諫, 李桂爲掌令, 成以性爲獻納, 金振爲持平, 李時萬爲正言, 李尙馨爲修撰. 桂, 陰毒巧邪, 傷人害物, 乃其本性. 甲子之變, 與其祖悞, 父晉英皆逃走, 時人謂之三世負國. 至是附托柄臣, 仍躋顯列, 有構陷士林之計, 人皆側目.

2) 『인조실록』(권 43) 1642년(인조 20) 11월 12일.

○ 遣宣傳官朴之壩, 禁府都事鄭錫文, 使梟示賊桂於灣上. 龍骨大在鳳城, 條奏諸臣辨詰之言於清國, 清國遣盧施, 博氏傳命曰: “李桂雖一一直告, 而賣國偷生, 其罪重矣. 令國王依法處斷.” 於是, 密教曰: “李桂不可拘於常規, 宜加赤族之誅, 以洩蒼生之憤.” 命逮捕桂父晉英及其叔晉翼, 晉賢, 四寸煥等, 俱下獄. 又下教曰: “李桂事, 恐彼或有異論, 勿復啓稟, 趁卽處斷爲當. 以此急急下諭于宣傳官.”

3) 『인조실록』(권 43) 1642년(인조 20) 12월 7일.

○ 命李晉英減死, 杖一百, 流濟州. 晉英, 賊桂之父也.

4) 『승정원일기』(책 83) 1642년(인조 20) 12월 7일.

○ 禁府, 李晉英, 濟州牧流三千里定配, 啓.

5) 『인조실록』(권 44) 1643년(인조 21) 1월 25일.

○ 命絞賊姪父晉英於配所, 始從兩司之論也.

6) 『승정원일기』(책 84) 1643년(인조 21) 2월 24일.

○ 禁府都事書曰, 濟州定配罪人李晉英, 處絞事, 以二月十二日發船事.

7) 『승정원일기』(책 84) 1643년(인조 21) 4월 5일.

○ 禁府都事李睟, 罪人晉英處絞後, 入來.

51. 신득연(申得淵)

- 신분: 관리(도승지)
- 유배 연월: 1643년(인조 21) 8월 8일.
- 이배 연월: 1647년(인조 25) 5월 13일(진도).
- 사유: 연좌(역적 이계<李桂>의 삼촌)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44) 1643년(인조 21) 4월 29일.

○ 憲府啓曰: “及第申得淵, 曾於灣上之行, 背棄君命, 中道逃歸. 及其被執再往, 橫生姦計, 自圖保全, 誣陷朝臣, 如恐不及. 其在灣上, 與其姪娃, 同做陰謀, 及娃被執, 沿襲其迹, 而竟至滔天, 惡逆則啓之者實得淵也. 其忘君負國之罪, 國人之齊憤久矣, 請速按法處斷.” 諫院亦同辭請罪, 上竝答曰: “已經大赦, 置之宜矣.” 兩司爭之不已, 其後乃命安置于濟州.

2) 『승정원일기』(책 85) 1643년(인조 21) 8월 8일.

○ 申得淵, 濟州牧圍籬安置, 都事金克謨, 押去.

3) 『인조실록』(권 48)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配昭顯世子三子石鐵, 石麟, 石堅于濟州. 初, 禁府請以石鐵配濟州, 石麟配旌義, 石堅配大靜. 石鐵時年十二, 石麟八歲, 石堅四歲. 上下教曰: “一處定配, 使之相依以生. 內官, 別將等輪定以送, 勿使外人交通, 三邑定配士大夫, 竝令移配他島.” 於是, 洪茂績移配南海縣, 申得淵移配玆島郡.

4) 『승정원일기』(책 97)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義禁府啓曰, 濟州等官定配罪人, 申得淵·洪茂績, 移配他島事, 傳教矣. 申得淵則圍籬罪人, 故郎廳一員, 當爲押去, 洪茂績則書吏一人, 當爲押去, 而一路夫馬, 多有貽弊之事, 今以石鐵等押去郎廳, 及南胤先移配書吏, 仍令押送于各岐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52. 강문성(姜文星)

- 신분: 외척
- 유배 연월: 1645년(인조 23) 8월 26일.
- 나래 연월: 1646년(인조 24) 2월 5일.
- 사유: 정권 변동(소현세자빈 강씨 오빠)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46) 1645년(인조 23) 8월 26일.

○ 上特命姜文星等四人, 定配遠邑. 諸姜兄弟文星, 文明, 文斗, 文璧, 皆碩期之子也. 碩期清慎恭儉, 見重士流, 竟以令名終焉. 唯文星, 文明愚妄使氣, 及昭顯世子卒, 文明妄言葬日不吉, 往喝地官崔, 上聞之大怒, 然猶未罪也. 至是乃下教曰: “姜文星等爲人無識, 處事泛濫, 限數年定配于遠邑, 以爲內外保全之地.” 禁府以兩南爲配, 上更命文星, 文明絕島定配, 文斗, 文璧 江原道僻邑定配, 乃改以濟州, 玕島, 歙谷, 平海, 分配四人.

2) 『인조실록』(권 47) 1646년(인조 24) 2월 5일.

○ 上下教于政院曰: “罪人姜文星, 文明等, 上年世子之喪, 渠敢干預指揮都監. 其時予已知其有無君之心, 而不欲明言, 姑以微過定配矣. 今則厥妹身犯大罪, 渠等雖在遠地, 豈有不知之理哉? 令該府, 急速拿來, 前後罪犯, 嚴鞫處置.”

3) 『인조실록』(권 47) 1646년(인조 24) 2월 29일.

○ 姜文星, 文明, 死於杖下. 文明, 碩期之第二子也. 爲人驕妄, 使氣凌人, 其兄文星又甚焉. 皆云: “姜氏之禍, 必由此輩.” 及其死, 人猶以死非其罪, 冤之.

4) 『승정원일기』(책 93) 1646년(인조 24) 3월 3일.

○ 義禁府郎廳, 以大臣意來言, 濟州罪人姜文星入來, 而判義禁未差, 今日推鞫不得爲之之意, 敢啓. 傳曰, 知道. 禁府臚錄

53. 이석철(李石鐵)〈소현세자 장자〉

- 신분: 종실
- 유배 연월: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사망 연월: 1648년(인조 26) 3월 4일.
- 사유: 정치 변동(소현세자빈 강씨 장남)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48)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配昭顯世子三子石鐵, 石麟, 石堅于濟州. 初, 禁府請以石鐵配濟州, 石麟配旌義, 石堅配大靜. 石鐵時年十二, 石麟八歲, 石堅四歲. 上下教曰: “一處定配, 使之相依以生. 內官, 別將等輪定以送, 勿使外人交通, 三邑定配士大夫, 竝令移配他島.” 於是, 洪茂績移配南海縣, 申得淵移配玕島郡.

2) 『승정원일기』(책 97)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以石鐵等定配單子, 傳曰, 三兒一處定配, 使之相倚以生, 內官別將, 輪回定送, 勿使外人交通, 三邑定配罪人中, 士大夫, 移配他島.

3) 『승정원일기』(책 101) 1648년(인조 26) 4월 3일.

○ 備邊司啓曰, 濟州所置逆姜長兒, 自入海島之後, 重得驚癘, 經冬至春, 病勢轉劇, 三月初四日, 仍致不救, 而海路絕遠, 候風往來, 故牧使所報, 今始入來, 使臣到北京, 以此言及之意, 行會于謝恩使, 何如? 答曰, 依啓. 備局臚錄

4) 『인조실록』(권 49) 1648년(인조 26) 9월 18일.

○ 昭顯世子長子石鐵, 卒于濟州. 上下教曰: “石鐵之事, 予甚驚惻. 其下送中官, 護其柩, 歸葬其父墓側.” 先是, 龍骨大之來也, 以取養石鐵爲言, 人皆謂其必不保全, 至是卒. 【史臣曰: “石鐵雖逆姜之子, 而獨非上之孫乎? 以祖孫至親, 而投藐爾幼穉於瘴海中, 竟致之死, 雖歸骨於父墓之側, 亦何益哉? 可哀也已.”】

5) 『승정원일기』(책 102) 1648년(인조 26) 9월 18일.

○ 以備忘記, 傳于金霽曰, 石鐵之事, 予甚驚惻. 其喪柩, 中官下送率來, 令該曹, 葬于厥父墓側.

54. 이석린(李石麟)〈소현세자 차자〉

- 신분: 종실
- 유배 연월: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사망 연월: 1648년(인조 26) 11월 26일.
- 사유: 정치 변동(소현세자빈 강씨 차남)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48)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配昭顯世子三子石鐵, 石麟, 石堅于濟州. 初, 禁府請以石鐵配濟州, 石麟配旌義, 石堅配大靜. 石鐵時年十二, 石麟八歲, 石堅四歲. 上下教曰: “一處定配, 使之相依以生. 內官, 別將等輪定以送, 勿使外人交通, 三邑定配士大夫, 竝令移配他島.” 於是, 洪茂績移配南海縣, 申得淵移配玕島郡.

2) 『승정원일기』(책 97)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以石鐵等定配單子, 傳曰, 三兒一處定配, 使之相倚以生, 內官別將, 輪回定送, 勿使外人交通, 三邑定配罪人中, 士大夫, 移配他島.

3) 『인조실록』(권 49) 1648년(인조 26) 12월 23일.

○ 十一月二十六日, 昭顯世子第二兒石麟, 病卒于濟州配所. 牧使以聞, 上下教曰: “濟州兒相繼死亡, 其間情狀, 殊極兇慘. 配所內人等, 令禁府拿來嚴鞫.” 仍遣內官, 護喪以來. 又遣內人與下人, 使之護養第三兒. 及拿致內人玉眞, 愛英, 異生等, 玉眞供招以爲: “兩兒之死, 由於土疾, 非由於保養之不謹.” 刑訊累次而斃. 愛英, 異生, 旣受刑, 上以其罪輕於玉眞, 命釋之.

4) 『승정원일기』(책 103) 1648년(인조 26) 12월 24일.

○ 傳曰, 濟州所在之兒, 相繼死亡, 其間情狀極爲凶慘, 第二兒養育上下內人, 令禁府拿來嚴鞫.

○ 傳曰, 喪柩率來事, 內官下去, 依前下諭. 且第三兒養育侍女下人各一下送, 此意亦入于下諭中. 記草

5) 『승정원일기』(책 104) 1649년(인조 27) 3월 5일.

○ 禁府啓曰, 近日被拿罪囚, 多至十五人, 濟州罪人玉眞等三名, 今又入來, 所當卽爲開坐捧招, 而本府堂上知義禁吳竣, 以文科試官, 尹履之, 以武科試官, 皆入試所, 同義禁許啓, 奉使未還. 只有臣斗杓矣. 一員不得開坐, 自有舊例, 待其試官罷出, 開坐之意, 敢啓. 傳曰, 玉眞等罪犯甚重, 三省推鞠, 可也.

6) 『승정원일기』(책 105) 1649년(인조 27) 3월 16일.

○ 三省推鞠廳啓曰, 異生等加刑當否議啓事, 下教矣. 臣等相與商議, 則皆以爲概觀其狀, 且見其招辭, 三人中玉眞, 似是爲首, 異生·愛英, 俱是年少迷劣之人, 若無彰露之迹, 則今又加刑, 似非堯·舜治罪疑之典, 而獄體甚重, 自下不敢輕議, 伏候睿裁. 傳曰, 知道.

7) 『승정원일기』(책 105) 1649년(인조 27) 3월 22일.

○ 三省罪人玉眞, 物故. 啓.

55. 이석견(李石堅)〈소현세자 삼남〉

- 신분: 종실
- 유배 연월: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이배 연월: 1649년(인조 27) 3월 18일(남해).
- 사유: 정치 변동(소현세자빈 강씨 3남)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48)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配昭顯世子三子石鐵, 石麟, 石堅于濟州. 初, 禁府請以石鐵配濟州, 石麟配旌義, 石堅配大靜. 石鐵時年十二, 石麟八歲, 石堅四歲. 上下教曰: “一處定配, 使之相依以生. 內官, 別將等輪定以送, 勿使外人交通, 三邑定配士大夫, 竝令移配他島.” 於是, 洪茂績移配南海縣, 申得淵移配玕島郡.

2) 『승정원일기』(책 97)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以石鐵等定配單子, 傳曰, 三兒一處定配, 使之相倚以生, 內官別將, 輪回定送, 勿使外人交通, 三邑定配罪人中, 士大夫, 移配他島.

3) 『승정원일기』(책 103) 1648년(인조 26) 12월 24일.

○ 傳曰, 濟州所在之兒, 相繼死亡, 其間情狀極爲凶慘, 第二兒養育上下內人, 令禁府拿來嚴鞠.

○ 傳曰, 喪柩率來事, 內官下去, 依前下諭. 且第三兒養育侍女下人各一下送, 此意亦入于下諭中. 記草

4) 『승정원일기』(책 105) 1649년(인조 27) 3월 17일.

○ 傳于朴長遠曰, 濟州定配第三兒, 移置於近陸海島, 俾免殤夭.

5) 『승정원일기』(책 105) 1649년(인조 27) 3월 18일.

○ 義禁府啓曰, 以第三兒移置事草記, 傳曰, 嶺南海島移置事, 傳教矣.嶺南只有南海·巨濟兩島, 移置於巨濟, 何如? 傳曰, 南海移置.以上禁府謄錄

56. 박사명(朴士明) 처<여>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649년(인조 27) 4월 8일.
- 이배 연월: 1651년(효종 2) 3월 13일(북도<北道>).
- 사유: 연좌(남편 박사명 유언비어 선동 호시)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50) 1649년(인조 27) 3월 7일.

○ 伴送使李時昉, 平安監司鄭致和馳啓曰: “清城僉使朴士明, 憑藉清國之勢, 凌蔑土主, 仍爲誣陷之計, 潛囑清使, 將致生梗, 李馨長知幾救解, 不得售其凶計. 士明又語于清人曰: ‘京中狹其闊袖, 兵使點閱軍兵.’ 云. 若不依律科斷, 則日後之患, 有不可測, 請梟示境上.” 上從之.

2) 『승정원일기』(책 105) 1649년(인조 27) 3월 19일.

○ 備邊司啓曰, 義州罪人朴士明, 當初狀啓中, 請罪措語, 似欠明白, 故姑以拿來覆啓, 待李時昉還朝, 備悉其所犯, 更欲相議, 稟處矣. 今則李時昉請對, 已盡陳達. 且聞本道大小民情, 則非特皆曰可殺, 簸弄扇動, 傳播諸人, 以爲挑禍之計, 極凶且慘, 若不梟示境上, 則今日西路人心, 無以懲懼, 押還平安監司處, 卽令梟示, 其妻子等, 竝令捉送, 定配於南方絕島, 何如? 傳曰, 事未妥當, 依法捧招處置. 以上禁府謄錄

3) 『승정원일기』(책 105) 1649년(인조 27) 4월 8일.

○ 柳景緝, 以義禁府言啓曰, 朴士明, 則梟示境上, 其妻子等, 則竝令定配於南方絕島事, 以大臣收議, 依議施行事, 判付矣. 押去都事卽當發送, 而其妻子, 則令本道, 家口推刷, 令一路, 次次交付定配于濟州牧, 枚擧啓聞之意, 行移, 何如? 傳曰, 依啓.

4) 『승정원일기』(책 118) 1651년(효종 2) 3월 9일.

○ 迎接都監啓曰, 大通官金三達, 出送差備譯官, 稱以白話, 傳言于臣等處曰, 濟州定配

人朴士明之妻, 乃小人之四寸妹也, 其夫士明, 罪犯輕重, 雖未可知, 非老妻·弱子之所可干預也. 若蒙天恩, 移配於清北某邑, 則生前往來時, 可得相見, 至舉其兄金汝亮之言, 反覆懇乞矣. 臣等取考士明罪案, 扇動浮言, 傳播衆人, 以爲挑禍之計云, 則其罪, 果爲不輕, 而三達懇乞, 縷縷不已, 敢此仰稟. 傳曰, 此非如除拜邊將, 徒年輕罪之類, 有難輕許開路, 都監措辭開諭, 可也.

5) 『승정원일기』(책 118) 1651년(효종 2) 3월 13일.

○ 義禁府啓曰, 以迎接都監啓辭, 金三達所請, 士明妻子移配事, 傳曰, 議大臣處之事, 傳教矣. 議于大臣, 則領議政金堉, 左議政李時白, 右議政韓興一議以爲, 朴士明非若他人之罪, 居於境上, 做出不測之言, 構禍兩國, 以服刑章, 妻子之配於絕島者, 固非常赦之所宥. 然勅使·通官等, 縷縷言之, 不得遂意, 則必有含憾之心, 或可量移他處, 以示恩典, 而配於關西, 則其漏通國事, 以泄其怨, 而必倍於士明, 無已則投之有北, 一以解彼等之心, 一以明國法之嚴, 似爲合宜. 伏惟上裁. 大臣之意如此, 上裁, 何如? 傳曰, 此是重罪, 非常赦之所宥, 而特令懇請之意, 移配北道事, 使都監措辭開諭, 可也. 以上迎接謄錄

57. 최향남(崔香男)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52년(효종 3) 3월 17일/1652년(효종 3) 9월 3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부정(횡령)〈추정〉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23) 1652년(효종 3) 3월 16일.

○ 禁府·戶曹啓曰, 前因開城府留守元斗杓狀啓, 李馨長奴子李乙天等, 押來本曹坐起, 推問物貨去處後, 令刑曹科處之意, 覆啓蒙允, 而崔香男, 則來囚王獄, 故不得竝爲學論矣. 今見禁府啓辭, 崔香男有移送該掌之教, 本曹坐起時, 與乙天等, 一體押來鉤問, 推其物貨去處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승정원일기』(책 123) 1652년(효종 3) 3월 17일.

○ 又啓曰, 前日以崔香男押送配所事草記, 傳曰, 凡係罪人財產, 一一推出後, 定配, 可也事, 命下. 故自本府拿來囚禁, 令該曹, 推出財產後, 仍爲發送配所之意, 更稟蒙允, 拿囚今已累日, 而自本府, 推問財產, 有損王獄體面, 莫重罪人, 移送該掌, 亦涉未妥, 何以爲之? 敢稟. 傳曰, 姑爲移送, 可也.

3) 『승정원일기』(책 124) 1652년(효종 3) 9월 3일.

○ 義禁府啓曰, 卽接刑曹移文, 則罪人崔香男處, 常平廳及戶曹應徵之物, 旣已區處, 配所發送云, 故配所定處別單書入, 而今若循例以羅將押送, 則當此湖南失稔之時, 一路夫馬, 非但貽弊可慮, 金吾之卒, 一入濟州, 則種種弊端, 不一而足. 今此香男, 依刑曹罪人例, 次次押送, 似爲便當, 敢啓. 傳曰, 知道.

58. 윤정창(尹廷昌)

- 신분: 관리(검군관)
- 유배 연월: 1656년(효종 7) 6월 11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왕명 불응(제주 검군관 미부임)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40) 1656년(효종 7) 6월 11일.

○ 司譯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院各學〈二行缺〉之次尹廷昌, 依法例差定濟州兼軍宜, 〈四字缺〉越海之任, 累次呈狀, 今過半年, 無意赴任, 如此之流, 若不重治, 無以懲其頑悍之習. 尹廷昌, 兼軍官改差, 定配濟州, 何如? 傳曰, 允.

59. 무신(武申)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
- 해배 연월: 1666년(현종 7) 9월 11일.
- 사유: 범죄(간통죄)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97) 1666년(현종 7) 9월 11일.

○ 武申以妻娼之妻, 潛奸率逃罪, 濟州定配. 上曰, 何年定配耶? 〈缺〉放之矣.

60. 임금(壬金)

- 신분: 노비
- 유배 연월: 미상
- 해배 연월: 1666년(현종 7) 9월 11일.
- 사유: 범죄(도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97) 1666년(현종 7) 9월 11일.

○ 奴壬金, 官庫穿墻偷米罪, 濟州定配. 上曰, 穿墻雖惡, 〈缺〉久, 放之.

61. 망립(亡立)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68년(현종 9) 4월 이전.
- 사망 연월: 1668년(현종 9) 4월.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21) 1670년(현종 11) 10월 18일.

○ 李枝茂, 以刑曹言啓曰, 濟州三邑定配罪人移配及蒙放之類, 依付標啓下, 分秩別單, 而今此移配, 事異常規, 不可自本曹定送, 故各其名下, 懸錄其移配處所, 粘連付標, 單子以入, 以備睿覽, 而其中亡立妻子至介等, 則更考亡立定配處, 一處移配事, 傳教矣. 相考文書, 則亡立同配濟州, 戊申四月, 物故之意, 敢啓. 傳曰, 知道.

62. 지개(至介)

- 신분: 미상(망립<亡立> 처<여>)
- 유배 연월: 1668년(현종 9) 4월 이전.
- 사망 연월: 1668년(현종 9) 4월.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21) 1670년(현종 11) 10월 18일.

○ 李枝茂, 以刑曹言啓曰, 濟州三邑定配罪人移配及蒙放之類, 依付標啓下, 分秩別單, 而今此移配, 事異常規, 不可自本曹定送, 故各其名下, 懸錄其移配處所, 粘連付標, 單子以入, 以備睿覽, 而其中亡立妻子至介等, 則更考亡立定配處, 一處移配事, 傳教矣. 相考文書, 則亡立同配濟州, 戊申四月, 物故之意, 敢啓. 傳曰, 知道.

63~64. 이훈(李焜)〈임창군(臨昌君)〉/이엽(李焜)〈임성군(臨城君)〉

- 신분: 종실
- 유배 연월: 1679년(숙종 5) 3월 19일.
- 이배 연월: 1682년(숙종 8) 6월 1일(해남).
- 사유: 무고(왕 추대 연좌)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8) 1679년(숙종 5) 3월 19일.

○ 義禁府以濟州, 旌義兩處, 分定焜, 焜配所. 上敎曰: “兩人安置, 實爲宗社大計, 不得不勉從, 而各處兄弟, 尤有所不忍者. 問于大臣, 改付標以入.” 遂皆以濟州改配. 上仍下敎全羅監司曰: “予非不知焜, 焜等無與知之事, 而推戴之說, 旣出凶人之書, 大臣以宗社大計爲言, 故不得不勉從, 而予甚矜惻. 其令濟州牧, 厚賜料食及衣資, 使喚婢二名亦爲定給.” 【史臣曰: “此人等如有一毫與知之事, 則固不可容息於覆載間, 而只以凶書中推戴之說, 大臣力請, 至有此命, 啓人主猜疑骨肉之心, 識者痛之.”】

2) 『승정원일기』(책 269) 1679년(숙종 5) 3월 19일.

○ 禁府, 焜·焜等, 濟州牧安置. 啓.

3) 『숙종실록』(권 8) 1679년(숙종 5) 3월 21일.

○ 上命焜, 焜母與妻, 隨往配所時, 所經邑夫馬供饋等事, 各別舉行.

4) 『숙종실록』(권 8) 1679년(숙종 5) 5월 25일.

○ 引見大臣, 備局堂上. 上曰: “焜, 焜兄弟, 安置絕島, 雖出不得已, 而予則有所不忍者矣. 聞濟州牧使接置狹窄之處, 高其墻垣, 而出入之際, 必使守卒隨之, 有若防禁者然, 此非予本意. 今後使之自便, 與同平民.”

5) 『숙종실록』(권 9) 1680년(숙종 6) 5월 2일.

○ 敎曰: “濟州安置罪人焜, 焜等以幼稚之年, 少無與知之跡, 置諸絕島, 有所不忍. 而既出於凶賊之推戴, 故爲宗社大計, 不得已勉從矣. 兄弟竝與其母, 久處海霧之中, 屢經重病云, 予甚惻然. 今若不爲變通, 如有後悔, 則豈非有乖於保全之本意乎? 特爲移置喬桐, 以示予意.” 政院覆逆, 不從.

6) 『승정원일기』(책 276) 1680년(숙종 6) 5월 2일.

○ 備忘記, 濟州安置罪人焜·焜等, 以幼穉之年, 少無豫知之迹, 置諸絕島, 心有所不忍, 而既出於凶賊之推戴者, 故爲宗社大計, 不得不勉從矣. 非但今已兩年, 焜等兄弟, 本以幼弱之資, 竝與其母, 久處海霧之中, 累經重病云, 予深惻然. 當初處置, 實出於保全之道, 而今若不爲變通, 如有後悔, 則豈非有乖於保全之本意乎? 特爲移置喬桐, 以示予意.

7) 『숙종실록』(권 9) 1680년(숙종 6) 5월 4일.

○ 兵曹判書金錫胄上筭, 論焜, 焜等移配曰: 當初二人遠置海外者, 蓋亦出於保全之聖意. 今當炎月, 猝移內地, 行路撼頓, 反易損傷, 近京地面, 亦多曉訛, 終不若仍留本所, 而屏已耳目, 絕人言語之爲幸也. 早晚國家有輝輪之慶, 伊時恩赦, 將無物不霑. 待此全宥, 復廁宗班, 誰得以禁之乎? 答曰: “筭辭得宜, 當依施.”

8) 『승정원일기』(책 276) 1680년(숙종 6) 5월 4일.

○ 兵曹判書金錫胄筭曰, 伏以, 臣昨伏見備忘記, 有焜·焜等移配喬桐之命, 此實天地好生之至仁, 其在瞻聆, 孰不感祝? 第臣伏念當初二人, 名掛凶書, 因大臣諸臣之會議, 遠置海外者, 蓋亦出於保全之聖意, 而彼既携兄挈弟, 俱獲安停, 在國則恩已行矣, 在渠則身且便. 優遊海外, 未必非樂土, 而今當炎月, 猝移內地, 行路撼頓, 反易傷損, 近京地面, 或多曉訛, 終不若仍留本所, 屏已耳目, 絕人言語之爲幸也. 且臣於前日榻前, 下詢流放當否之時, 亦嘗有所陳達矣. 早晚國家, 當有輝輪之慶, 伊時恩赦, 將無物而不霑, 則待此全宥, 復廁宗班, 又誰得以禁之乎? 臣之此言, 實存遠慮. 伏願聖明, 復賜垂察, 亟寢焜·焜移配之命. 且命召還金吾郎之昨已辭朝者, 以省中路廚傳, 往來紛擾之弊, 不勝幸甚. 取進止. 答曰, 省筭具悉卿懇. 今茲焜·焜輩移配之命, 意非偶然矣. 卿之前語, 誠甚得宜, 當依筭辭施行焉.

9) 『숙종실록』(권 13) 1682년(숙종 8) 5월 28일.

○ 閔鼎重曰: “焜, 焜當初編配, 非以爲實有罪狀. 罪人之冤鬱可矜者, 無過於此, 似當酌處.” 上問諸大臣, 金錫胄曰: “向日, 黨人倡爲宗統, 嫡統之說, 欲害異己, 及有瀆獄起, 執此而爲嫁禍之資. 若置近地, 難保無意外之慮, 故臣亦以是陳筭者, 蓋欲保全之也. 今則與凶徒造言, 時勢危疑之時有異, 參酌處之, 似無不可.” 金壽恒亦言其可移, 獨金壽興以仍置爲便. 上命移配海邊邑, 禁府遂移定珍島.

10) 『숙종실록』(권 13) 1682년(숙종 8) 6월 1일.

○ 御晝講. 知經筵李敏叙以焜, 焜配所珍島, 水土甚惡爲言, 上問于大臣, 移配海南.

11) 『승정원일기』(책 291) 1680년(숙종 6) 6월 1일.

○ 今日晝講時, 同知事李敏叙所啓, 近以亢旱之太甚, 自上畏天弭災之誠, 靡不用極, 焜·焜兩人, 亦命移配, 此甚盛德事也. 第念珍島, 水土雖不如巨濟·南海之極惡, 風土不佳, 人多得病, 反不如巨濟, 若或感傷於霧露, 則恐非終始保全之意. 今若更擇窮僻清涼之處, 移其配所, 則其在聖德, 尤爲有光矣. 上曰, 珍島水土, 比他處稍佳云, 故以此爲其配所矣, 所陳之言如此, 問于大臣, 議定處斷, 可也.

12) 『승정원일기』(책 292) 1682년(숙종 8) 8월 14일.

○ 傳于李玄錫曰, 焜·焜等, 既已移配南海[海南]矣, 供饋·救療等事, 一依濟州例舉行, 憐恤之意事, 下諭.

65~71. 서승부(徐承夫), 강설종(姜雪宗), 한승길(韓承吉), 박충(朴忠),
전이생(全二生), 이성량(李星良), 이여택(李汝澤)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
- 해배 연월: 1679년(숙종 5) 7월 13일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71) 1679년(숙종 5) 7월 13일.

○ (左承旨)李德周讀濟州罪人秩, 金正吉·莫今·徐元一·李之先·難同·李義正, 上曰, 竝仍.
金山建, 上曰, 仍. 徐承夫·姜雪宗, 上曰, 放. 金日閑·成男碩·文宗·春卜·愛元·吾莫徵·斗
星·林丁元, 上曰, 仍. 韓承吉, 上曰, 放. 山立·天一·義先, 上曰, 減等. 德周讀減死定配秩,
金骨大等, 上曰, 仍. 朴忠·全二生·李星良·李汝澤, 放.

72~81. 김산건(金山建), 김일한(金日閑), 성남석(成男碩), 문종(文宗),
 춘복(春卜), 애원(愛元), 오막징(吾莫徵), 두성(斗星),
 임정원(林丁元), 김골대(金骨大)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79년(숙종 5) 7월 13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71) 1679년(숙종 5) 7월 13일.

○ (左承旨)李德周讀濟州罪人秩, 金正吉·莫今·徐元一·李之先·難同·李義正, 上曰, 竝仍.
金山建, 上曰, 仍.徐承夫·姜雪宗, 上曰, 放.金日閑·成男碩·文宗·春卜·愛元·吾莫徵·斗星·
林丁元, 上曰, 仍.韓承吉, 上曰, 放.山立·天一·義先, 上曰, 減等.德周讀減死定配秩, 金
骨大等, 上曰, 仍.朴忠·全二生·李星良·李汝澤, 放.

82~84. 산립(山立), 천일(天一), 의선(義先)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79년(숙종 5) 7월 13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71) 1679년(숙종 5) 7월 13일.

○ (左承旨)李德周讀濟州罪人秩, 金正吉·莫今·徐元一·李之先·難同·李義正, 上曰, 竝仍. 金山建, 上曰, 仍. 徐承夫·姜雪宗, 上曰, 放. 金日閑·成男碩·文宗·春卜·愛元·吾莫徵·斗星·林丁元, 上曰, 仍. 韓承吉, 上曰, 放. 山立·天一·義先, 上曰, 減等. 德周讀減死定配秩, 金骨大等, 上曰, 仍. 朴忠·全二生·李星良·李汝澤, 放.

85. 이지선(李之先)/이지선(李之善)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79년(숙종 5) 7월 13일(유배 중).
- 이배 연월: 1681년(숙종 7) 4월 10일.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71) 1679년(숙종 5) 7월 13일.

○ (左承旨)李德周讀濟州罪人秩, 金正吉·莫今·徐元一·李之先·難同·李義正, 上曰, 竝仍. 金山建, 上曰, 仍. 徐承夫·姜雪宗, 上曰, 放. 金日閑·成男碩·文宗·春卜·愛元·吾莫徵·斗星·林丁元, 上曰, 仍. 韓承吉, 上曰, 放. 山立·天一·義先, 上曰, 減等. 德周讀減死定配秩, 金骨大等, 上曰, 仍. 朴忠·全二生·李星良·李汝澤, 放.

2) 『승정원일기』(책 282) 1681년(숙종 7) 4월 10일.

○ (刑曹判書)李正英, 又讀濟州三邑定配秩, 全家罪人金正吉, 仍. 減死罪人婢莫今, 仍. 徒年罪人徐一元, 放. 全家罪人李之善, 移配. 減死罪人奴亂同·朴義廷, 竝仍. 疏決姑畢後, 正英等退伏.

86. 서원일(徐元一)/서일원(徐一元)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79년(숙종 5) 7월 13일(유배 중).
- 해배 연월: 1681년(숙종 7) 4월 10일.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71) 1679년(숙종 5) 7월 13일.

○ (左承旨)李德周讀濟州罪人秩, 金正吉·莫今·徐元一·李之先·難同·李義正, 上曰, 竝仍. 金山建, 上曰, 仍. 徐承夫·姜雪宗, 上曰, 放. 金日閑·成男碩·文宗·春卜·愛元·吾莫徵·斗星·林丁元, 上曰, 仍. 韓承吉, 上曰, 放. 山立·天一·義先, 上曰, 減等. 德周讀減死定配秩, 金骨大等, 上曰, 仍. 朴忠·全二生·李星良·李汝澤, 放.

2) 『승정원일기』(책 282) 1681년(숙종 7) 4월 10일.

○ (刑曹判書)李正英, 又讀濟州三邑定配秩, 全家罪人金正吉, 仍. 減死罪人婢莫今, 仍. 徒年罪人徐一元, 放. 全家罪人李之善, 移配. 減死罪人奴亂同·朴義廷, 竝仍. 疏決姑畢後, 正英等退伏.

87~90. 김정길(金正吉), 막금(莫今), 난동(難同)/난동(亂同),
이의정(李義正)/박의정(朴義廷)

- 신분: 미상(김정길/이의정), 막금(노비)〈여〉, 난동(노비)
- 유배 연월: 1679년(숙종 5) 7월 13일(유배 중)/1681년(숙종 7) 4월 10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71) 1679년(숙종 5) 7월 13일.

○ (左承旨)李德周讀濟州罪人秩, 金正吉·莫今·徐元一·李之先·難同·李義正, 上曰, 竝仍. 金山建, 上曰, 仍. 徐承夫·姜雪宗, 上曰, 放. 金日閑·成男碩·文宗·春卜·愛元·吾莫徵·斗星·林丁元, 上曰, 仍. 韓承吉, 上曰, 放. 山立·天一·義先, 上曰, 減等. 德周讀減死定配秩, 金骨大等, 上曰, 仍. 朴忠·全二生·李星良·李汝澤, 放.

2) 『승정원일기』(책 282) 1681년(숙종 7) 4월 10일.

○ (刑曹判書)李正英, 又讀濟州三邑定配秩, 全家罪人金正吉, 仍. 減死罪人婢莫今, 仍. 徒年罪人徐一元, 放. 全家罪人李之善, 移配. 減死罪人奴亂同·朴義廷, 竝仍. 疏決姑畢後, 正英等退伏.

91. 김삼달(金三達)

- 신분: 내관
- 유배 연월: 1685년(숙종 11) 8월 20일.
- 해배(이배) 연월: 미상
- 사유: 근무 불성실(기밀 누설)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16) 1685년(숙종 11) 8월 20일.

○ 備忘記: “內官金三達賦性危險, 倫理滅絕, 窮兇極惡之事, 不一而足. 至以悖慢罔測之說, 公然發口如此之類, 不可一日置在輦轂之下. 濟州牧全家定配, 當日內押送.”

2) 『승정원일기』(책 310) 1685년(숙종 11) 8월 20일.

○ 備忘記, 生徒內官金三達, 賦性危險, 倫紀滅絕, 常時窮凶極惡之事, 不一而足, 一自得罪見黜之後, 猶不徵艾, 益肆怨毒, 至以悖慢罔測之說, 公然發口, 略無忌憚, 事之痛惋, 莫此爲甚, 如此之類, 不可一日置在輦轂之下, 以貽無窮之害. 金三達, 濟州全家定配, 當日內押送.

92. 송시열(宋時烈)

- 신분: 관리(좌의정)
- 유배 연월: 1689년(숙종 15) 2월 4일.
- 나래 연월: 1689년(숙종 15) 4월 23일.
- 사유: 봉당(기사환국)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20) 1689년(숙종 15) 2월 4일.

○ 掌令李允修, 持平李濟民論: “宋時烈以昏朝孽臣之子, 托名山林, 平生罪惡, 難以毛舉. 己亥長庶之論, 罪干宗社, 得保首領, 已是失刑, 今日國有大慶, 而乃引宋朝不幸之事, 疑亂人心, 動撓國本, 請極邊圍籬安置. 護軍尹堦, 李思永, 李仁夏, 尹時達, 兵曹參判李秀彥等, 締交益勳, 諂附時烈慘激之論, 聞者疾首, 詭祕之行, 道路以目, 國有大慶, 名號已定, 而反懷疑懼之心, 肆爲妖惡之言, 動止非常, 情節叵測, 不可置輦轂之下, 請竝極邊遠竄.” 上答曰: “不允. 昔在乙酉定儲嗣也, 李敬輿有人心波蕩之說. 仁廟震怒, 特命安置. 況時烈於國本已建, 分義大定之後, 顯示不悅服之意, 其所引宋朝故事? 非人臣所忍發口. 蓋哲宗初封燕安郡王. 及神宗有疾, 顧命冊立者也. 渠安敢比擬於今日, 欲爲動撓國本之計乎? 濟州牧安置, 嚴加梏棘. 尹堦等事亦從之.”

2) 『승정원일기』(책 333) 1689년(숙종 15) 2월 4일.

○ 掌令李允修, 持平李濟民啓曰, 請還收吳順彥等減死定配之命. 啓辭同前. 門黜罪人宋時烈, 本以昏朝孽臣之子, 托以山林之名, 濟以陰沴之性, 其平生罪惡, 難徧以毛舉, 當己亥大喪之初, 倡爲長庶之論, 以售貶薄之計, 用意絕悖, 罪關宗社, 當時之得保首領, 已是失刑之甚者, 及今日國有大慶, 名號已定, 分義斯正, 而將心尙存, 舊惡未悛, 經營揣摩, 肆然投疏, 乃引宋朝不幸之事, 敢爲臣子所不忍言之言, 疑亂人心, 動搖國本, 其心所在, 灼然可知, 不可不亟施荐棘之典, 少洩神人之憤, 請門黜罪人宋寺烈[宋時烈], 極邊圍籬安置. 行副護軍尹堦·李思永·李仁夏·尹時達, 兵曹參判李秀彥等, 俱以狐鼠之輩, 挾其蛇蝎之性, 締交於益勳, 諂附於時烈, 盤據形勢, 表裏相應, 而慘激之論, 聞者疾首, 詭祕之

行, 道路以目, 及至國有大慶, 名號已定之後, 含生之類, 莫不歡抃, 而反懷疑懼之心, 肆爲妖惡之言, 遠近傳播, 人心凜凜, 而日夜馳逐, 雄唱雌和, 動止非常, 情節叵測, 當此邪說橫流, 人心波蕩之日, 決不可一日置之輦轂之下, 請竝極邊遠竄. 新除授行大司憲閔黯, 時在京畿交河地, 掌令金龜萬, 時在咸鏡道高山驛任所,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昔在乙酉年議定儲嗣之日, 李敬輿, 以人心波蕩等語, 有所陳達, 仁廟震怒, 特命安置, 況此時烈, 則敢以國本已建, 分義大定之後, 肆然投疏, 顯示不悅服之意, 其心所在, 已極叵測, 而敢引宋朝古事, 尤爲絕悖, 有非人臣所忍發口者, 何以言之? 哲宗初封燕安郡王, 及其神宗有疾, 引命冊立者也. 今日人心世道, 雖云凶悖, 渠安敢以不幸之事, 比擬於今日, 欲爲動撓國本之計乎? 思之至此, 萬萬痛惋, 如此無將之徒, 不可不夫施懲惡之典, 濟州圍籬安置, 嚴加棊棘. 尹堦等事及下諭事, 依啓.

3) 『송자대전(宋子大全)』(권 151), 「제주굴림서원고사선생문(濟州橘林書院告四先生文)」

○ 濟州橘林書院告四先生文 <己巳三月十五日> <1689년(숙종 15) 3월 15일>
 嗚呼 己乙之禍 尙忍言哉 至今士林 氣短腸摧 於惟冲老 此焉譴謫 寶唾清芬 遍播海岳 絕命之詞 讀者傷魂 一脈泓泉 遺蹟尙存 惟我圭翁 曾佩茲紱 惠政雖乍 仁風未沫 竟遭奇禍 夙志未伸 先祠閣閣 聞者悲辛 恭惟石室 清修篤行 銜綸此來 敬宣王命 南槎一錄 長見寶重 卒樹大節 夷夏竦動 亦粵桐溪 遭時罔極 一疏明倫 剗瀝肝血 十年棊棘 素履無愆 後來成就 尤有大節 唯茲四賢 竝歷此邦 所遭雖異 其揆則同 一心同照 秋月寒江 同堂賸享 荔丹蕉黃 杖履攸暨 草樹含香 萬古遺風 山高水長 今茲小子 罹此大何 負犯極重 情實無他 聖哲仁恕 誅殛罔加 顧惟愚衷 只爲聖朝 要去諛淫 以熄昏妖 一身顛沛 未遑計較 怨仇日增 厲階潛售 然且不懲 苦口抵死 唯是蠢愚 罔敢自信 仰質明神 敬承程準 伏惟尊靈 默垂誘掖 苟使斯文 賴不閉塞 藐茲孤生 九死靡悔 不昧者存 鑑我肝肺.

4) 『승정원일기』(책 335) 1689년(숙종 15) 4월 23일.

○ 禁府啓曰, 濟州圍籬安置罪人宋時烈, 拿鞠嚴問, 以正邦刑事, 傳旨啓下矣. 依例發遣府都事, 拿來, 何如? 傳曰, 允.

5) 『숙종실록』(권 21) 1689년(숙종 15) 6월 3일.

○ 閔黯曰: “宋時烈窮凶極惡, 不待鞫問而可知之. 我祖宗立國仁厚, 未嘗鞫大臣, 宜問于大臣處之.” 上問大臣. 大運曰: “時烈罷犯兇逆而年過八十, 不必鞫問, 自上酌處可也.” 來善, 德遠言亦然. 右參贊柳命天曰: “人心註誤, 爭投疏救時烈, 今聞候于道者不絕, 氣象可畏也.” 右尹睦昌明曰: “臣在臺閣, 固請鞫問, 而議者皆非之, 直賜處分, 乃得宜耳.” 上曰: “大臣言如此, 斟酌賜死, 禁府都事之去, 隨所遇舉行.” 時宋時烈自濟州被拿還渡海, 聞中宮既廢. 吳斗寅, 朴泰輔諫死, 遂不食, 至井邑縣, 受賜死之旨, 乃草遺疏二本, 付其孫疇錫, 以待他日進之. 又書訓戒之辭, 以遺諸子孫. 子基泰曰: “國家用刑, 忌弦日, 宜遵之.” 時烈不聽曰: “吾病甚, 恐不能須臾, 受命不可緩也.” 遂從容就盡. 時年八十三.

6) 『승정원일기』(책 336) 1689년(숙종 15) 6월 4일.

○ 禁府都事朴履實, 罪人宋時烈賜死事, 出去.

7) 『숙종실록』(권 28) 1695년(숙종 21) 2월 11일.

○ 濟州幼學金聖雨等上疏, 請以先正臣宋時烈, 合享於橘林之祠, 上命該曹稟處. 橘林祠, 金淨, 宋麟壽, 金尙憲, 鄭蘊妥靈之所也.

93. 김진구(金鎭龜)

- 신분: 관리(행부호군)
- 유배 연월: 1689년(숙종 15) 6월 21일.
- 해배 연월: 1694년(숙종 20) 4월 1일.
- 사유: 봉당(인현왕후 폐출 반대)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21) 1689년(숙종 15) 6월 21일.

○ 大司憲柳命賢, 掌令韓湊啓曰: “行副護軍金鎭龜, 驚賊陰兇, 曾與師命, 同爲錫胄爪牙, 變服夜行, 伴宿密室. 錫胄狼心, 得鎭龜而輒激. 師命奸謀, 藉鎭龜而益巧, 戕害士類, 煽起誣獄, 莫非此人父子之所主. 益勳, 光漢輩, 不過爲一時指使耳. 錫胄死, 師命之所倚重, 只在鎭龜叔侄兄弟. 頤命爲萬重嬌客, 龜鎭與師命爲姻婭, 內而締結閹豎, 窺覘太上, 外而嘯聚諸賊, 醞釀陰圖, 人人畏此兩家, 有同梟獍蛇蝎. 向年大臣之加卜也, 罔極之言, 私相唱和, 與師命通謀, 使萬重陳達, 上誣聖躬, 下惑人聽. 吳始壽之死, 天下之至痛. 而乃於恩貸之後, 驅率萬容輩, 攘臂請對, 構殺乃已. 其弟鎭圭, 以戕人害物爲能事, 言議慘刻, 鎔錐爲鈍. 凡所以黨私舞奸者, 與其兄無間. 今當諸賊伏法, 公議已伸, 則此輩縱恣依舊, 危險之言, 或播於輿誦, 聚會之迹, 難掩於衆目, 有如遺毒藏孽, 終必爲他日之厲階. 請竝絕島安置.” 從之.

2) 『승정원일기』(책 336) 1689년(숙종 15) 6월 21일.

○ 大司憲柳命賢, 掌令韓湊啓曰, 請還收樞·煥·燦放釋之命. 請還收韓錫祚還發配所之命, 仍前究問. 見上 目今國勢掎拮, 時事危疑, 懲惡之典, 不可不嚴, 慮患之道, 不可不深, 而惡草尙不去根, 巨魚猶且漏網, 識者之憂, 固已切矣. 行副護軍金鎭龜, 賦性驚賊, 行已陰兇, 曾與師命, 同爲錫胄之爪牙, 變服夜行, 蹤迹詭祕, 伴宿密室, 情志綢繆, 錫胄狼心, 得鎭龜而輒激, 師命奸計, 得鎭龜而益巧, 戕害士類, 煽起誣獄, 莫非此人父子而所宗主, 而益勳·光漢輩, 不過爲一時之指使而已. 錫胄死後, 師命所倚重, 只在鎭龜叔侄兄弟, 頤命爲萬重之嬌客, 鎭龜, 與師命爲姻婭, 打成一片, 肝臆相透, 師命之一動靜一言計, 鎭龜兄

弟，靡不與知，內而締結閹豎，窺覷太上，外而嘯聚諸賊，醞釀陰圖，人之畏此兩家，有同梟獍蛇蝎，向歲大臣之加卜也。方在縲絏之中，而罔極之言，私相唱和，與頤命通謀，使萬重陳達，上誣聖躬，下惑人聽，至於故相臣吳始壽之冤死，實是天下之至痛，而乃於恩貸之後，驅率萬容之輩，攘臂請對，構殺乃已，其窮兇極惡之狀，有如是夫。其弟鎮圭，生髮纔燥，傳承家法，戕人害物，以爲能事，言議慘劇，鎔錙爲心，所撞者破，所觸者碎，凡所以黨私舞權之罪，與其兄無間，及今諸凶伏法，公議已伸，則此輩罪惡，萬無獨免之理，而天討尙稽，未免爲失刑，苟有一分人心，宜其悔罪革心之不暇，而怨毒之意轉甚，縱恣之習依舊，危險之語，或播於輿誦，聚會之迹，難掩於衆目，有如遺毒藏孽，終必爲他日之屬階，決不可一日置諸輦轂之下，以長奸崩[奸萌]而惑衆心，請行副護軍金鎮龜，前持平金鎮圭絕島安置。答曰，不允。末端事，依啓。

3) 『숙종실록』(권 21) 1689년(숙종 15) 9월 21일.

○ 執義金聲久，持平趙湜，論：“禁府都事尹揄，爲拿李立身至濟州，私見金鎮龜，以奉命之人，何敢如是？請拿問定罪。”從之。

4) 『승정원일기』(책 337) 1689년(숙종 15) 9월 21일.

○ 府啓，申範華事。見上 推鞠罪人拿來，事體極爲嚴祕，使不得與外人交通，奉命都事，亦不敢私覲於人，而禁府都事尹揄，乃於罪人立身拿來時，往見濟州定配罪人金鎮龜，朝廷若有紀綱，奉命之人，何敢私相尋訪他罪人，若是其無忌憚乎？蔑法縱恣，至於此極，則罪人拿來之際，不能嚴祕，必多疎漏之弊，亦可知矣，事之寒心，莫此爲甚。請禁府都事尹揄，拿問定罪。答曰，不允。末端事，依啓。

5) 『숙종실록』(권 26) 1694년(숙종 20) 4월 1일.

○ 特除金斗明·李東郁爲承旨，申汝哲爲訓鍊大將，又下教遞兵曹判書睦昌明，以江陵府使徐文重代之。遞吏曹判書李玄逸，敘前判書柳尙運而代之。又下教曰：“強臣兇孽，敢有動撓國本者，及爲廢人【指中宮】洪致祥，李師命等伸救者，當以逆律論。爲李翔伸救者，當斷以重律。以此意明白布告中外。”又下教曰：“兇人趙嗣基誣辱先后之罪，不可不快正邦刑，卽爲鞠問。”又下教曰：“因人陰告罪囚之多至此，不可不速處決。韓重燦，李時棹，

康晚泰, 崔格等供辭中, 雖有提起廢人之辭, 此與違禁陳疏者有間, 竝減死邊遠定配. 其餘李時檜, 李譚, 俞泰基, 李彥純, 韓楷, 洪箕疇, 黃釗, 俞復基, 李震明, 韓碩佐, 金春澤, 李突, 李後成, 金道明, 李東蕃, 李起貞, 邊震英, 洪萬翼, 卞鶴齡, 金魯得, 元次山竝放送. 此外未及拿來者, 竝姑置之. 咸以完之希功密告, 猝起大獄之狀, 萬萬痛惋. 令禁府嚴刑五次後, 減死絕島定配.” 又下教曰: “金寅等及所告人等, 竝妨仍囚.” 又下教曰: “國家不可一日無相, 遣史官諭領議政, 使乘驛速至.” 又下教曰: “具鎰, 朴泰尙, 李埜, 柳尙載, 金時傑, 金夢臣, 李三碩, 沈廷輔, 沈廷協, 金洪福, 李奎齡敍用.” 又下教曰: “竄配人可放者, 倉卒未記之矣, 仍命釋金鎮龜, 金鎮瑞, 金萬採, 李彥綱.” 已而, 復許敍用. 前大司憲尹拯亦在敍中. 又命以金夢臣爲應教, 尹德駿爲校理, 李寅燁爲修撰, 俞集一爲掌令, 金時傑爲持平, 李寅炳, 柳尙載爲正言.

6) 『승정원일기』(책 356) 1694년(숙종 20) 4월 2일.

○ 備忘記, 竄配中可放之人, 倉卒未能記得, 而其中金鎮龜·金鎮圭·金鎮瑞·金萬採·李彥綱, 竝爲先放釋.

94. 신언화(申彦華)

- 신분: 관리(하동 현감)
- 유배 연월: 1689년(숙종 15) 8월 20일.
- 해배 연월: 미상(1700년(숙종 26) 5월 5일 이전).
- 사유: 부정(아약충정〈兒弱充定〉=황구침정 폐단)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327) 1688년(숙종 14) 2월 18일.

○ 兵曹啓目, 粘連觀此公洪兵使韓根, 慶尙右兵使李倬, 全羅兵使閔暹, 慶尙左水使申翰周等, 各其道內列邑兒弱充定查覈啓本, 則各邑兒弱充定, 自十名至一名, 沃川郡守李宣岳, 黃澗縣監崔寓, 丹城縣監鄭重昌, 金山郡守李汝岳, 咸安郡守徐宗謙, 宜寧縣監李台長, 義興縣監徐文徵, 河陽縣監金時亮等段, 時在任所, 令各其道兵水使, 杖八十決罪後, 啓聞爲白乎旆, 前晉州牧使元振澤, 時在甲山府任所, 前晉州牧使金兌一, 時在寧海府任所, 前宜寧縣監柳長培, 時在溫陽郡任所, 前長鬐縣監朴世寶, 時在咸從縣任所, 竝令該道兵使, 杖八十決罪後, 啓聞爲白乎旆, 前陰城縣監尹以徵, 前洪州牧使朴致道, 前德山縣監宋炳夏, 前報恩縣監沈思沈, 前尙州牧使尹■■■, 前高靈縣監柳檜齊, 前漆原縣監金永宗, 前巨濟縣監孔尙濂, 前晉州牧使韓構, 前河東縣監申彦華, 前三嘉縣監李行政, 前山陰縣監任望, 前安陰縣監張世南, 前羅州牧使黃欽, 前羅州牧使柳以升, 前靈光郡守李壽徵, 前仁同府使柳晉昌, 前山陰縣監宋殷錫等段, 遞歸京中. 前木川縣監趙性乾, 前彥陽縣監朴東冑, 前固城縣監朴世華, 前順天府使韓潁, 前光陽縣監閔聖濬, 前延日縣監宋之軾, 前長鬐縣監姜海逢, 前軍威縣監金晉明, 前興海郡守李後望, 前固城縣監李必茂, 遞任後時在外方, 依前定奪, 竝令義禁府, 拿問後, 杖八十決罪爲白乎矣, 時任守令, 則兵使查覈時, 旣已自首, 更無可問之事爲白在果, 至於遞歸守令, 則色吏及軍兵等, 不無用奸欺詐之弊, 若有稱冤之端, 則其在法例, 不可直爲論罪, 自禁府拿問後, 其遲晚者, 則決杖放送爲白遣, 所供時, 如有稱冤之人, 則查問於各其道, 得其實狀後, 更爲稟處爲白乎旆, 前丹城縣監趙爾重, 前咸陽郡守李光翼等段, 旣已身死, 依例勿論爲白乎旆, 前高靈縣監李萬徵, 前咸安郡守邊是泰等段, 兒弱充定, 皆過十名之數, 自禁府拿問後, 依事目徒配爲白乎旆,

前興陽縣監牟世蕃，方爲被拿，依例決杖爲白乎旆，靈巖郡守李台龍，務安縣監金日省等段，稱以本邑元無兒弱充定之事，是必閑丁別爲聚待爲白乎旆，咸平縣段，闕點，至於一百五名是如爲白臥乎所，俱極可駭，該邑守令，竝以從重推考爲白乎旆，巡歷時更爲查覈啓聞之意，本道良中，分付爲白乎旆，當初此事啓稟時，查點年條，旣以甲子定奪，則甲子以前，當入於勿論之中是白去乙，全羅兵使閔暹，查啓良中，癸亥時守令，亦未免混同抄啓，此則與定奪本意，有異，置之宜當爲白乎旆，各道監色等物故人外，自本道亦依事目科罪爲白乎旆，今此兒弱報頃之類，今年當爲十一歲者乙良，仍存軍案，其餘年未滿者乙良，依定奪趁卽代定啓問之意，竝以回移，何如？啓依允.以上朝報

2) 『승정원일기』(책 337) 1689년(숙종 15) 8월 20일.

○ 禁府，劉自崑光陽縣，李世憲昆陽郡，丁大祿河東縣，極邊定配.李敏哲珍島郡，李時中旌義縣，申彦華濟州牧，柳滌巨濟縣，吳定邦南海縣，絕島定配.啓.以上朝報

3) 『승정원일기』(책 391) 1700년(숙종 26) 5월 5일.

○ 兵批，鄭祥斗爲慶尙右兵使，南聚星爲忠清兵使，申■爲蔚山監牧官，李弘璧爲咸興監牧官，申彦華爲海州監牧官.

95. 가을헌(加乙憲)/갈헌(訖憲)/갈강(訖剛)

- 신분: 궁녀(宮女)/나인(內人)〈여〉
- 유배 연월: 1688년(숙종 14) 8월 25일(1689년〈숙종 15〉 윤3월 6일 유배 중).
- 나래 연월: 1689년(숙종 15) 4월 21일.
- 사유: 근무 불성실(궁궐 기밀 누설)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19) 1688년(숙종 14) 8월 25일.

○ 上以宮人加乙憲, 前宮人貴禮, 結爲私黨 表裏和應, 冒犯禁令, 罔畏國法, 締交宮家, 指無謂有, 行身處事, 極其陰慘, 而貴禮則以此編配, 至於三度, 而不悛悖惡之心, 益肆縱恣之習, 竝減死定配, 卽日押送.

2) 『승정원일기』(책 334) 1689년(숙종 15) 윤3월 6일.

○ 權煥啓曰, 卽者濟州牧使李喜龍, 罪人放未放啓本, 來到本院, 而其中內人訖憲, 罪名極重, 所不敢輕議, 而肆然置之於放秩, 已極無據, 且清商未卽出送狀啓中, 只書年月, 而不書日子, 其矇不致察之狀, 亦甚可駭. 濟州牧使李喜龍, 從重推考, 訖憲放秩, 則勿施, 何如? 傳曰, 訖憲, 負犯極重, 當初減死, 亦云幸矣. 其未幾何, 偃然置諸放秩, 其縱恣無嚴之狀, 極爲痛駭, 李喜龍, 先罷後推.

3) 『숙종실록』(권 20) 1689년(숙종 15) 4월 21일.

○ 大司憲睦昌明, 應教李湜, 持平鄭善鳴·裴正徽, 獻納李萬元, 校理姜銑·李允修, 副校理權珪, 正言成瓘·趙湜, 修撰沈季良·沈機請對: “論宋時烈之罪, 請拿鞠嚴問, 亟正邦刑.” 上曰: “不但時烈事爲然, 宮闈之間, 亦有變怪, 當待臺論, 畢陳後言之.” … 昌明曰: “母事之地, 臣等有死而已. 固不敢言其他, 則誠有如此之事, 豈無處變之道? 但不可輕易爲之.” 上曰: “下教旣詳, 猶曰輕易耶?” 仍命該曹考例稟處. 遂下傳旨曰: “貴人金氏, 與壽恒內外交通, 伺上動靜, 宮闈之事, 無不宣洩, 且締結主家, 飛語造謗, 無所不至, 不可無處置之道.” 上又從. 昌明等之啓, 命加乙憲正刑.

4) 『승정원일기』(책 335) 1689년(숙종 15) 4월 21일.

○ 大司憲睦昌明, 持平裴正徽·鄭善鳴所啓, … 又所啓, 請濟州定配罪人芻剛亟正邦刑. 見上 上曰, 依啓.

5) 『숙종실록』(권 21) 1689년(숙종 15) 6월 7일.

○ 斬宮女加乙憲. 上許臺閣請誅之論, 已久, 而從謫所拿至, 故今始行刑.

96. 한석조(韓錫祚)

- 신분: 중인(역관)
- 유배 연월: 1687년(숙종 13) 11월 12일.
- 이배 연월: 1690년(숙종 16) 2월 13일.
- 사유: 근무불성실(거짓 보고)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18) 1687년(숙종 13) 7월 15일.

○ 政院請收譯官韓有相加資之命. 上允之. 拿治譯官韓錫祚, 鄭忠源等. 初, 有相隨冬至使行, 有微勞. 上命賜馬. 會勅使來, 有相之子錫祚, 與忠源見差迎勅譯官, 往金石山回, 言于李端夏曰: “通官問昨年方物譯官加資與否?” 答: “以已蒙加資之典.” 端夏以此白于上, 有是命. 錫祚等又言于端夏曰: “加資與否, 彼既有問, 不可不詳言.” 端夏許之. 及政院爭之, 上悟其藉言於彼, 陰要賞典, 卽令寢其命, 仍下教曰: “凡國家之事, 不待啓稟, 任意指揮, 誠駭異也. 譯官加資, 是何關係之事, 而汲汲言及乎? 此路一開, 後弊無窮, 當該譯官拿問.” 命下, 端夏不安, 上筭引咎. 承旨又請改上教中礙逼大臣之措語. 上從之.

2) 『숙종실록』(권 18) 1687년(숙종 13) 11월 12일.

○ 譯官韓錫祚, 減死配絕島. 鄭忠源劄職錫祚以金石山事被囚, 累受刑訊, 終未就服, 故有是命. 臺諫請還收, 更爲嚴鞫處斷, 累啓不聽.

3) 『승정원일기』(책 339) 1690년(숙종 16) 2월 13일.

○ 判義禁李觀微啓曰, 頃因右議政金德遠陳達, 以濟州年凶, 定配罪人中, 罪名稍輕者, 移配陸地事, 命下矣. 濟州定配罪人中, 本府罪人八人, 而譯官韓錫祚, 容有可議, 豈爲此一人, 而有所變通乎? 置之, 何如? 德遠曰, 前日自有移配之命, 而其後發配時, 無處分之事, 未知聖上, 或出於有意耶? 閔黯曰, 臣待罪金吾時, 左右相, 以韓錫祚事有所陳達, 自上令移配, 則相臣, 以錫祚, 方以他罪, 在囚, 其事結末後, 處分爲宜之意, 陳達矣. 其後錫祚發配之日, 無移配之命, 而不敢復有所煩稟矣. 上曰, 其時偶然忘却, 移配陸地, 可也. 擧

行條件.

4) 『승정원일기』(책 354) 1693년(숙종 19) 11월 1일.

○ 禁府, 蒙有時囚罪人金夏瑞, 門黜罪人蔡彭胤, 徒年罪人李惠疇·韓舜錫·許時望·方錄·李奎章·金蘊·蔡廷麟·柳白三·鄭東美·崔日熙·朴世華·郭壽龜·趙儀漢·兪樸·李觀漢·尹弘离·朴履寅·尹以復·嚴太雄·洪時九·鄭智·洪九齡·朴玉潤·梁麗澄·韓■·柳百乘·林翼喬·趙脩·洪夏明·朴炫·洪以夏·鄭敏·柳德三·李台龍·孫汝義·李太古·吳命義·宋光淵·金時兌·尹楨·禹瑞圭·具鼎來·金履泰·權聖大, 定配罪人李震相·申廷業·韓萬周·柳星漢·徐琳·宋殷繼·崔斗齡·韓興周·李後晟·朴貴建·尹以莘·許瑨·金鎰信·韓錫祚·白世興·宋尙周·李栽·金洪福·玄德恒·柳泐·李相頊等, 竝放送. 時囚罪人李泳, 遠道定配. 閔純·曹挺世等, 徒配. 炳, 罷職放送. 李萬榮, 杖放. 李敦五, 削職放送. 金孝尙, 從重決杖放送. 定配罪人宋揆·鄭重萬等, 減等.

5) 『숙종실록』(권 31) 1697년(숙종 23) 윤3월 3일.

○ 引見大臣, 備局諸臣. 判義禁李世白, 以譯官等勘律事稟裁, 上命首譯卞爾遇定配, 其餘或徒配或削職. 右議政崔錫鼎仍陳: “今番使行, 多有周旋之事. 卞爾遇資高解事, 宜復爲帶去. 古有立功自效之事矣.” 上命勿爲定配, 率去. 錫鼎又請敘用, 允之. 錫鼎又請率去韓錫祚, 上亦命敘用率去. 錫祚丁卯年間, 僞稱虜使之言, 事露, 被配纔放者也. 司諫呂必容力陳爾遇, 纔債使事, 被罪, 決不可帶去, 上從之. 爾遇之一邊論罪, 一邊請敘, 事體已極顛倒, 而至於錫祚賣國奸細之徒, 必欲帶去者, 其意謂何? 錫鼎處事之率爾, 多此類, 小事如此, 況大事乎?

97. 이진상(李震尙)/이진상(李震相)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90년(숙종 16) 12월 21일.
- 해배 연월: 1693년(숙종 19) 11월 1일.
- 사유: 무고죄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22) 1690년(숙종 16) 12월 21일.

○ 流誣告罪人李震尙于濟州. 初震尙, 稱以上變, 闖入闕門. 兵曹啓達. 上令承旨, 密問以啓. 承旨招問其上變事, 所言皆失性之言. 而以爲渠之妻同產, 張英等五人, 欲爲逆賊云. 承旨啓其狂易之狀. 上, 下教曰: “觀此所言, 明是狂易失性之人, 又無現納文書, 則其爲虛妄, 亦甚明白. 移送刑曹, 考律定罪.” 備局啓曰: “震尙既以上變爲言. 而援引諸人, 不爲究問, 移送刑曹, 直爲勘罪, 事甚疎漏. 宜令該府, 推覈後處置.” 上允之. 禁府推問震尙及被告各人, 果皆虛妄. 該府請依律處斷. 上以其出於狂易失性, 特命減死, 絕島定配. 被告五人, 竝放送.

2) 『승정원일기』(책 343) 1690년(숙종 16) 12월 23일.

○ 義禁府啓曰, 濟州減死定配罪人李震相, 依律處斷事, 臺諫方爲論啓, 不得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見義禁府謄錄

3) 『승정원일기』(책 344) 1691년(숙종 17) 1월 9일.

○ 府前啓, 誣告罪人李震相, 依律處斷事, 及右議政金德遠遞差還收事, 停啓. 以上春坊朝報.

4) 『승정원일기』(책 354) 1693년(숙종 19) 11월 1일.

○ 禁府, 蒙有時囚罪人金夏瑞, 門黜罪人蔡彭胤, 徒年罪人李惠疇·韓舜錫·許時望·方鍊·李奎章·金蘊·蔡廷麟·柳自三·鄭東美·崔日熙·朴世華·郭壽龜·趙儀漢·俞樸·李觀漢·尹弘离·

朴履寅·尹以復·嚴太雄·洪時九·鄭智·洪九齡·朴玉潤·梁麗澄·韓■·柳百乘·林翼喬·趙脩·洪夏明·朴炫·洪以夏·鄭敏·柳德三·李台龍·孫汝義·李太古·吳命羲·宋光淵·金時兌·尹槓·禹瑞圭·具鼎來·金履泰·權聖大, 定配罪人李震相·申廷業·韓萬周·柳星漢·徐琳·宋殷繼·崔斗齡·韓興周·李後晟·朴貴建·尹以莘·許階·金鎰信·韓錫祚·白世興·宋尙周·李栽·金洪福·玄德恒·柳泫·李相頊等, 竝放送.時囚罪人李泳, 遠道定配.閔純·曹挺世等, 徒配.炳, 罷職放送.李萬榮, 杖放.李敦五, 削職放送.金孝尙, 從重決杖放送.定配罪人宋揆·鄭重萬等, 減等.

98. 김덕원(金德遠)

- 신분: 관리(영중추〈領中樞〉)
- 유배 연월: 1694년(숙종 20) 6월 8일.
- 이배 연월: 1697년(숙종 23) 4월 26일(해남현).
- 사유: 봉당(갑술환국)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26) 1694년(숙종 20) 윤5월 18일.

○ 執義俞得一, 掌令沈極, 金演, 獻納尹誠教, 正言李廷謙, 應教金夢臣, 校理金宇杭, 修撰李徵明請對, 諸臣共言張希載, 不可不鞫問正法. 上曰: “希載諺書, 予既親覽, 此非黯昧難知. 三司公議, 予不爲非而今若一斷於法, 或至事端輾轉, 則君臣父子之間, 恐有不安之節矣. 蓋造言者, 黯之父子, 而傳說者希載, 則與黯似有間也.” 得一曰: “中臺遭罔極之變, 而其謀害者希載也. 世子止孝之心, 必欲以大義滅親, 人情天理, 豈有不安哉? 殿下今若以法處之, 則亂臣賊子, 必有自戢之心, 此乃一國共公之論也. 若不賜允, 則臣等亦何以束帶隨行, 抗顏出入乎?” 諸臣迭相進請. … 得一等合兩司論: “己巳群奸, 乃以庚申逆節, 歸於伸白之域, 欲救逆豎則謂之慫慂釀成, 欲翻獄事則謂之網打鍛鍊, 鋼聰塗明, 舞凶逞憾, 屠戮勳臣, 籍家焚卷, 庇護逆孽, 收坐復爵, 或曰: ‘堅, 柟雖無反逆之實狀, 各有希凱之將心.’ 或曰: ‘敵血之說, 非堅所供而勒加之.’ 或曰: ‘當初起獄, 全出於誣告, 以售熒惑之計, 以肆戕殺之志. 而若堅若柟, 猶不敢全然伸理, 至於挺昌, 則同聲一辭, 極力辨雪.’ 或稱士類, 或稱至冤, 其所以救挺昌者, 似與請雪堅·柟有間, 則亦當有斟量平反之道. 請金德遠, 李玄紀, 權椿絕島安置. 李壽徵極邊安置. 申潯, 權愈遠竄.” 上從之.

2) 『승정원일기』(책 358) 1694년(숙종 20) 윤5월 18일.

○ 執義俞得一, 掌令沈極·金演, 獻納尹誠教, 正言李廷謙所啓, 春秋討逆之義, 昭如日星, 嚴於鈇鉞, 嬖儒皆知, 亂賊亦懼, 則雖其甘心黨逆者, 固不敢生意於交護, 而頃在己巳群奸秉國之日, 乃以庚申逆節, 欲歸於伸雪白脫之域, 投疏登對, 敢欺天聽, 換面閃舌, 肆行凶計, 謂之誣獄, 指以妖逆, 終至於翻案而後已, 其忘君護逆之罪, 可勝痛哉? 庚申逆謀

之狼藉，獄事之明白，聖明在上，洞燭處斷，則此不但文案之昭載難掩而已。雖在凶黨，宜無異辭，而奸壬之徒，急於修怨，鬼蜮之輩，切於死黨，聚首無休，謀議於晝宵，恣意幻弄，嘗試於君父，欲救逆豎，則乃以爲愆愆[愆愆]釀成，欲翻獄事，則反以爲網打鍛鍊，錮聰塗明，略無畏忌，舞凶呈憾，靡所不至，屠戮勳臣，籍家焚券，庇護逆孽，收坐復爵，肆其胸臆，露其手脚，不念護逆亦逆之義，相率同歸於黨惡之科，是可忍也，孰不可忍也？噫，黨人之奸腥毒螫，有難盡狀，而姑撮其章奏，筵說中無嚴者而論之，或曰，堅·柎，雖無叛逆之實狀，各有希覬之將心，或曰敵血之說，非堅所供，添入勒加，或曰當初起獄，全出於誣告，或曰，庚申之獄，皆是羅織，或曰，伸雪之典，宜先其根本，凡其指逆爲誣，右賊曲護，一以售熒惑之計，一以肆戕殺之志者，無所不用其極，而若堅若柎，猶不敢全然伸理，至於挺昌，則同聲一辭，極力辯雪，或稱土類，或稱至冤，至謂謀逆，則決知其不爲。噫嘻，反逆者，天地之所不容，人臣之所共誅，如使此類，少有嚴憚之心，則爲殿下之臣者，何敢以此等語言，萌於心而發於口耶？壞亂王章，污衊清化，已至六年于茲矣。何幸天道循環，聖心悔悟，慝情凶肝，照燭無餘，妖腰亂領，還伏其罪，既復帶礪之盟，且伸丹書之冤，明命赫然，萬目咸覩，則其時護逆之徒，論以王法，宜加懲討，而黨人所謂護逆翻案，非止一二，則其在聖朝好生之德，實有不可勝誅之義，且念其所以伸救挺昌者，亦與請雪堅·柎不無有間，則瘴惡討罪之曲，亦當有斟量平反之道，請已已翻案人金德遠·李玄紀·權愷，絕島圍籬安置，李壽徵極邊安置，申濬·權愈遠竄，明示王章之嚴，以快國人之憤。上曰，依啓。

3) 『승정원일기』(책 359) 1694년(숙종 20) 6월 8일.

○ 黃欽，以義禁府言啓曰，以司諫院啓辭，定配罪人疊配於一縣者，移配他所事，允下矣。全羅道珍島郡，圍籬安置罪人金德遠，移配濟州牧，康津縣安置罪人柳命天，移配慶尙道延日縣，慶尙道巨濟縣定配罪人張炫，移配全羅道扶安縣蝟島，南海縣圍籬安置罪人李玄紀，移配全羅道康津縣古今島，南海縣定配罪人張燦，移配黃海道長湍府白翎鎮，咸鏡道富寧府定配罪人柳緯漢，移配茂山府，平安道江界府遠竄罪人金澍，移配理山郡，而依例發遣府都事·書吏，押付移配所，何如？傳曰，允。

4) 『숙종실록』(권 31) 1697년(숙종 23) 4월 24일.

○ 引見大臣，禁府·刑曹堂上，疏釋竄配，門黜罪人金德遠，睦來善，上欲量減其罪，大臣

南九萬等, 皆承上意, 判義禁李世白力持之, 上不聽, 竝特撤圍籬, 安置陸地. 鄭維岳放歸田里, 徐文重, 李東郁, 金弘楨, 吳始復, 尹以濟, 俞夏益, 李瑞雨, 申厚載, 丁思慎, 李顯命等十六人, 竝放釋, 刑曹罪人七十餘名放送. 入侍臺諫呂必容, 李益壽, 當重犯輕減之時, 終無一言爭執, 柳尙運, 尹趾善力辨吳道一之不飲酒, 上殊不採聽. 【史臣曰: “赦者, 小人之幸, 雜犯重罪, 尙不可輕釋. 如來善干犯名義, 罪通天地者, 梟棘絕島, 已失邦刑. 況因早徑宥, 移處善地, 則亂臣賊子, 將何所懲畏哉? 桑弘羊之罪, 不過陪克斂怨, 而卜式猶有烹弘羊, 天乃雨之言. 來善之尙全首領, 久拂科天之意, 施以輕典, 欲以求雨, 其視卜式之言, 不亦左乎? 甲戌以後, 討罪不嚴, 皆由於南九萬怵禍徼福, 知非誤斷, 將一段名義, 彘倫, 推與別人, 痛哉! 噫! 堂堂禮義之國, 一朝淪爲夷狄禽獸, 而未流之弊, 至於大運死於隔下, 玄逸安臥故土, 來善, 德遠偃息圻圻, 推原本始, 誰執厥咎? 嗚呼! 老奸容惡誤事之罪, 雖肆諸市朝, 猶無以謝國人, 可勝痛哉?”】

5) 『승정원일기』(책 371) 1697년(숙종 23) 4월 25일.

○ 義禁府啓曰, 濟州圍籬安置罪人金德遠, 康津新智島圍籬安置罪人睦來善, 竝撤圍籬, 陸地安置事, 承傳啓下矣. 依例發遣府都事二員,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以上禁府臚錄

6) 『승정원일기』(책 371) 1697년(숙종 23) 4월 26일.

○ 禁府啓曰, 吳道一元情云云. 承服不冬, 刑推得情, 何如? 啓觀此所供, 至舉終日同坐之人爲證, 則雖不可必謂爲酒所困, 而莫重親禱之日, 有此顛倒不謹之失, 則宜有糾警之道是置, 罷職放送. 又啓曰, 平安都事李世奭元情云云, 泛稱遲晚, 刑推得情, 何如? 啓除刑推, 議處. 同府, 金德遠海南縣陸地安置, 睦來善康津縣陸地安置. 啓.

7) 『승정원일기』(책 383) 1699년(숙종 25) 2월 4일.

○ 疏決時, 安置罪人睦來善·金德遠·柳命天·柳命賢·李玄紀. 移配罪人李雲徵·韓構·李玄逸. 定配罪人鄭濟先, 量移罪人沈季良, 竝放歸田里. 定配罪人李濟·金光守·業同·尹夏濟·閔彥良·李翊華·申鍾華·蔣永祐·金元燮·崔嶷·李夔·李頤命·文道器, 門黜罪人朴行義·丁時潤, 放歸田里罪人權大運·鄭維岳·樸煥·燦·燦, 竝放送. 定配罪人張萬春·宋相周·宋道成, 減等, 椅, 移配陸地.

99. 이현명(李顯命)

- 신분: 유생(경상도)
- 유배 연월: 1696년(숙종 22) 9월 14일.
- 해배 연월: 1697년(숙종 23) 4월 24일.
- 사유: 건의 불발(상소, 시사극론죄)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0) 1696년(숙종 22) 9월 15일.

○ 幼學李顯命上疏, 極論時事以爲: 按事之臣, 肆其私意大慝, 未盡伏法. 當初業同之徑釋, 秦檜, 林甫之所不爲. 曲護其主之不足, 又欲曲護其奴, 不覺爲護逆之歸, 而蝨附諂媚之輩, 又從而迎合之. 左, 右揆同入前席, 共濟其奸, 及今罪人伏法, 王誅大行, 前日大臣迷國誤朝護逆敦倫之罪, 尤爲彰著, 而全沒廉恥, 抗顏復入, 以至冥陞匪據, 臣竊痛惋. 仍論新卜之不協人望, 李萬雄減賞之非, 弘渤宜準確, 台瑞例, 豬家沒產, 五章, 宗緒輩, 當自鞠廳訊問, 而大臣請移禁府, 臺諫緘口結舌云. 疏入, 上命禁府坐起勿罷, 仍引見入直承旨崔錫恒, 俞集一等. 上問顯命何狀人, 錫恒等曰: “聞是文官李益華之子, 地卑非士夫也.” 上曰: “奸邪之輩, 假托儒名, 必欲空朝廷, 誠極痛惋. 予欲親問顯命.” 錫恒等曰: “禁府亦可問之, 何必乃爾?” 上不聽, 使史官招入顯命. 上厲聲問顯命曰: “朝家委任之大臣, 勒加護逆之罪, 必欲空國而後已, 其心將欲何爲, 大慝指何人?” 對曰: “大慝指姜五章也. 自鞠廳可問之賊, 移送禁府, 故有此云云. 所謂護逆者, 業同之事. 托以深慮, 無端放送, 非護逆而何?” 上益怒曰: “么麼腐儒, 干預朝政, 逐大臣如反掌. 少有嚴畏君父之心, 何敢乃爾? 如是而國安得不亡? 各別嚴刑按律處斷, 且鉤問指喉人.” 錫恒等曰: “屏諸四裔足矣, 不必按律.” 上不聽.

2) 『승정원일기』(책 367) 1696년(숙종 22) 9월 14일.

○ 禁府, 李顯命·成揆憲定配單子. 傳曰, 絕島定配. 同禁李顯命濟州牧, 成揆憲珍島郡, 定配. 啓.

3) 『숙종실록』(권 30) 1696년(숙종 22) 9월 15일.

○ 李顯命配濟州, 成揆憲配珍島. 【初配陸地, 特配絕島.】

4) 『숙종실록』(권 31) 1697년(숙종 23) 4월 24일.

○ 引見大臣, 禁府·刑曹堂上. 疏釋竄配, 門黜罪人金德遠, 睦來善, 上欲量減其罪, 大臣南九萬等, 皆承上意, 判義禁李世白力持之, 上不聽, 竝特撤圍籬, 安置陸地. 鄭維岳放歸田里, 徐文重, 李東郁, 金弘楨, 吳始復, 尹以濟, 俞夏益, 李瑞雨, 申厚載, 丁思慎, 李顯命等十六人, 竝放釋, 刑曹罪人七十餘名放送. 入侍臺諫呂必容, 李益壽, 當重犯輕減之時, 終無一言爭執, 柳尙運, 尹趾善力辨吳道一之不飲酒, 上殊不採聽.

5) 『승정원일기』(책 371) 1697년(숙종 23) 4월 25일.

○ 禁府蒙宥, 金德遠·睦來善, 撤去圍籬, 陸地安置, 鄭維岳放歸田里, 吳始復·尹以濟·俞夏益·申厚載·李瑞雨·徐文重·李東郁·金弘楨·李顯命·卞廷郁·安璜·朴光後·丁思慎·金夏兼·卞爾遇·吳相良, 竝放送.

100. 송성(宋晟)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개배 연월: 1703년(숙종 29) 11월 16일(대정현).
- 사유: 과거 부정(과옥죄인<科獄罪人>)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8)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司諫金相稷, 獻納尹憲柱, 停科獄還收啓, 禁府遂決遣諸囚. 宋晟 濟州, 李聖輝 羅州智島, 鄭順億 黑山島, 李秀哲 康津 古今島, 李道徵 興陽 鹿島, 朴泰晦 珍島, 朴弼渭 金甲島, 金麟至 順天 防踏, 吳碩夏 大靜, 洪受禹 巨濟, 閔時俊旌義, 竝爲奴定配. 識者歎曰: “科賊生出獄門, 國無刑矣.”

2) 『승정원일기』(책 414) 1703년(숙종 29) 10월 14일.

○ 禁府, 宋晟濟州牧, 李聖輝羅州牧智島, 吳碩夏大靜縣, 洪受禹巨濟縣, 金麟至順天府防踏鎮, 李秀哲康津縣古今島, 李道徵興陽縣鹿島, 朴泰晦珍島郡, 鄭順億羅州牧黑山島, 閔時俊旌義縣, 朴弼渭珍島郡金甲島, 爲奴定配.啓.

3) 『승정원일기』(책 415)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禁府, 宋晟·李道徵大靜縣, 李聖輝·李秀哲·朴泰晦濟州牧, 吳碩夏·洪受禹·鄭順億·閔時俊黑山島, 金麟至·朴弼渭旌義縣, 爲奴改配, 洪時紀巨濟縣, 愼之逸南海縣, 趙衛漢興陽縣, 減死定配, 柳渭光陽縣, 邊遠定配.啓.

101. 이성휘(李聖輝)

- 신분: 종실(세종 10세손)
- 유배 연월: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해배 연월: 미상(1713년<숙종 39> 8월 24일<모친상 후 환배>).
- 사유: 과거 부정(과옥죄인<科獄罪人>)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8)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司諫金相稷, 獻納尹憲柱, 停科獄還收啓, 禁府遂決遣諸囚. 宋晟 濟州, 李聖輝 羅州智島, 鄭順億 黑山島, 李秀哲 康津 古今島, 李道徵 興陽 鹿島, 朴泰晦 珍島, 朴弼渭 金甲島, 金麟至 順天 防踏, 吳碩夏 大靜, 洪受禹 巨濟, 閔時俊旌義, 竝爲奴定配. 識者歎曰: “科賊生出獄門, 國無刑矣.”

2) 『승정원일기』(책 414) 1703년(숙종 29) 10월 14일.

○ 禁府, 宋晟濟州牧, 李聖輝羅州牧智島, 吳碩夏大靜縣, 洪受禹巨濟縣, 金麟至順天府防踏鎮, 李秀哲康津縣古今島, 李道徵興陽縣鹿島, 朴泰晦珍島郡, 鄭順億羅州牧黑山島, 閔時俊旌義縣, 朴弼渭珍島郡金甲島, 爲奴定配.啓.

3) 『승정원일기』(책 415)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禁府, 宋晟·李道徵大靜縣, 李聖輝·李秀哲·朴泰晦濟州牧, 吳碩夏·洪受禹·鄭順億·閔時俊黑山島, 金麟至·朴弼渭旌義縣, 爲奴改配, 洪時紀巨濟縣, 愼之逸南海縣, 趙衛漢興陽縣, 減死定配, 柳渭光陽縣, 邊遠定配.啓.

4) 『숙종실록』(권 53) 1713년(숙종 39) 4월 16일.

○ 濟州爲奴罪人李聖輝奴季男擊錚, 下刑曹, 納供以爲: “聖輝爲世宗十世孫, 且靖社功臣李厚源之曾孫, 宜被其蔭.” 仍援李秀哲例, 請除爲奴之名, 又乞給暇歸覲其偏母. 刑曹移禁府, 【以當初爲奴是禁府事故也.】禁府覆奏以爲: “除奴一款, 不可輕議, 而歸覲事則

稟睿裁.” 上以爲: “罪名非常, 決不可給暇.” 命置之. 時議皆言: “聖輝之憑藉祈恩, 縱肆無嚴, 而該府之論奏稟裁, 又極失當.” 上教豈非嚴堤防之至意哉?

5) 『승정원일기』(책 480) 1713년(숙종 39) 8월 24일.

○ 義禁府啓曰, 濟州牧爲奴罪人李聖輝, 頃遭母喪於恩津地, 故依定式啓稟, 許令歸葬矣.
卽接忠淸監司牒報內, 罪人李聖輝母葬, 今月十四日定行云, 還發配所事, 分付該道, 何如? 傳曰, 知道. 出義禁府謄錄

102. 이수철(李秀哲)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이배 연월: 1726년(영조 2) 2월 2일(강진현).
- 사유: 과거 부정(과옥죄인<科獄罪人>)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8)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司諫金相稷, 獻納尹憲柱, 停科獄還收啓, 禁府遂決遣諸囚. 宋晟 濟州, 李聖輝 羅州智島, 鄭順億 黑山島, 李秀哲 康津 古今島, 李道徵 興陽 鹿島, 朴泰晦 珍島, 朴弼渭 金甲島, 金麟至 順天 防踏, 吳碩夏 大靜, 洪受禹 巨濟, 閔時俊旌義, 竝爲奴定配. 識者歎曰: “科賊生出獄門, 國無刑矣.”

2) 『승정원일기』(책 414) 1703년(숙종 29) 10월 14일.

○ 禁府, 宋晟濟州牧, 李聖輝羅州牧智島, 吳碩夏大靜縣, 洪受禹巨濟縣, 金麟至順天府防踏鎮, 李秀哲康津縣古今島, 李道徵興陽縣鹿島, 朴泰晦珍島郡, 鄭順億羅州牧黑山島, 閔時俊旌義縣, 朴弼渭珍島郡金甲島, 爲奴定配.啓.

3) 『승정원일기』(책 415)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禁府, 宋晟·李道徵大靜縣, 李聖輝·李秀哲·朴泰晦濟州牧, 吳碩夏·洪受禹·鄭順億·閔時俊黑山島, 金麟至·朴弼渭旌義縣, 爲奴改配, 洪時紀巨濟縣, 愼之逸南海縣, 趙衛漢興陽縣, 減死定配, 柳渭光陽縣, 邊遠定配.啓.

4) 『숙종실록』(권 42) 1705년(숙종 31) 9월 28일.

○ 賊科罪人李秀哲, 爲奴濟州者有年, 其妻錦平尉 朴弼成女上言以爲: “自以罪人之妻, 入籍濟州, 而不得不書墳外祖御諱四字. 乞援宗室子枝免賤之例, 除其夫爲奴.” 禁府回啓防塞, 命特除爲奴. 政院爭之, 不從.

5) 『승정원일기』(책 610) 1726년(영조 2) 2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因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罪人李秀哲子思胤上言, 刑曹回啓判付內, 所犯既重, 不可輕釋, 觀此上言, 宜有參酌量移事, 允下矣. 量移一款, 令該府舉行事, 自刑曹, 又爲覆奏啓下, 罪人李秀哲, 量移于全羅道康津縣, 而依前罪目, 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103. 박태회(朴泰晦)

- 신분: 유생(박세채<朴世采> 아들)
- 유배 연월: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이배 연월: 1733년(영조 9) 9월 14일(강진현).
- 사유: 과거 부정(과옥죄인<科獄罪人>)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8)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司諫金相稷, 獻納尹憲柱, 停科獄還收啓, 禁府遂決遣諸囚. 宋晟 濟州, 李聖輝 羅州智島, 鄭順億 黑山島, 李秀哲 康津 古今島, 李道徵 興陽 鹿島, 朴泰晦 珍島, 朴弼渭 金甲島, 金麟至 順天 防踏, 吳碩夏 大靜, 洪受禹 巨濟, 閔時俊旌義, 竝爲奴定配. 識者歎曰: “科賊生出獄門, 國無刑矣.”

2) 『승정원일기』(책 414) 1703년(숙종 29) 10월 14일.

○ 禁府, 宋晟濟州牧, 李聖輝羅州牧智島, 吳碩夏大靜縣, 洪受禹巨濟縣, 金麟至順天府防踏鎮, 李秀哲康津縣古今島, 李道徵興陽縣鹿島, 朴泰晦珍島郡, 鄭順億羅州牧黑山島, 閔時俊旌義縣, 朴弼渭珍島郡金甲島, 爲奴定配.啓.

3) 『승정원일기』(책 415)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禁府, 宋晟·李道徵大靜縣, 李聖輝·李秀哲·朴泰晦濟州牧, 吳碩夏·洪受禹·鄭順億·閔時俊黑山島, 金麟至·朴弼渭旌義縣, 爲奴改配, 洪時紀巨濟縣, 愼之逸南海縣, 趙衛漢興陽縣, 減死定配, 柳渭光陽縣, 邊遠定配.啓.

4) 『영조실록』(권 32) 1732년(영조 8) 8월 20일.

○ 命放逆賊觀孝, 元普遠族之竄配者. 先是戊申, 觀孝等既伏法, 而閔哥諸族, 皆散配. 至是以其法外, 下詢諸臣, 遂限七寸親以下皆放. 又命移濟州爲奴罪人朴泰晦出陸爲奴. 泰晦先正臣世采之子, 而干犯科獄者也.

5) 『승정원일기』(책 748) 1732년(영조 8) 8월 2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朴泰晦, 特爲出陸爲奴事, 承傳啓下矣. 朴泰晦康津縣移配,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6) 『승정원일기』(책 765) 1733년(영조 9) 9월 1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爲奴定配罪人朴泰晦, 去壬子八月二十六日出陸事, 承傳啓
下, 故朴泰晦, 以全羅道康津縣定配所, 未及出陸之際, 臺諫以還收論啓, 不得移配矣. 今
已停啓, 仍前罪目, 依前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康津縣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104. 김춘택(金春澤)

- 신분: 외척 후손(조부 김만기<金萬基>=숙종 장인, 인경왕후)
- 유배 연월: 1706년(숙종 32) 8월 22일.
- 이배 연월: 1710년(숙종 36) 6월 14일(임피현 소안역).
- 사유: 봉당(소론 탄핵, 세자 모해)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44) 1706년(숙종 32) 8월 22일.

○ (左議政) 徐宗泰曰: “春澤以法家子弟, 若有一分謹慎之事, 何可每以惡逆之罪, 被指告乎? 衆惡所歸, 其人之無狀可知. 移配絕遠處似當.” 上曰: “春澤無狀, 故前後獄事, 輒被指告, 非止一二. 臺臣之言如此, 金吾堂上, 各陳所見.” 塾曰: “雖更鞫問, 必無取服之理, 參酌絕島定配似好.” 宗泰曰: “此言善矣.” 演曰: “既難覈得其實狀, 則加罪絕島定配可矣.” 師尙曰: “趙泰一之疏, 有朝士, 鄉生誘脅驅使之語. 此指春澤叔姪, 而敵, 奎瑞, 亦其中一也.” 彙登曰: “若未易究覈, 則加罪定配似當. 至於還發配所, 則決不可矣.” 上曰: “以濟州地定配可也.”【溥配黑山島.】

2) 『승정원일기』(책 431) 1706년(숙종 32) 8월 22일.

○ 鞫廳大臣以下請對入侍時, 罪人林溥絕島定配事及金春澤濟州定配事, 榻前下教.

3) 『승정원일기』(책 431) 1706년(숙종 32) 8월 27일.

○ 禁府, 罪人林溥羅州黑山島減死定配, 金春澤濟州定配. 啓.

4) 『숙종실록』(권 48) 1710년(숙종 36) 6월 12일.

○ 藥房入診. 提調閔鎮厚, 以醫官丁時悌等勘律事, 稟旨, 上命削職放送. 鎮厚又言: “濟州牧使崔啓翁, 因赦令, 置金春澤於放秩, 置吳始復於稟秩. 春澤初無顯著之罪, 只以持身不謹遠竄, 辭連溥獄, 又爲拿致. 事皆歸虛, 則當還發配所, 而鞫廳請移配濟州, 人皆以爲無名, 其時參鞫大臣, 亦自以爲太過. 然其律名甚重, 牧使之直請全釋, 殊涉率爾. 若自禁

府，循例覆奏依施，則事體未安，故敢稟。” 上命出陸減等。

5) 『승정원일기』(책 454) 1710년(숙종 36) 6월 12일.

○ 又所啓，濟州牧使崔啓翁，因赦令放未放區別啓本中，金春澤置之放秩矣。金春澤，初無顯著之罪，只以持身不謹，特爲遠竄，及溥獄辭連之後，非緊出，而必爲拿致，事皆歸虛，則當還發配所，而鞫廳，徒以移配濟州人，皆以無名爲言，其時參鞫大臣，亦自以爲太過，今此啓翁之置之放秩，似由於此，而然而其律名甚重，以牧使而直請全釋，殊涉率爾，若自禁府，循例覆奏，依啓本施行，則事體亦恐未安，故敢此仰稟，仍爲放送乎？抑或減等乎？自下不敢擅斷，上裁，何如？ 上曰，出陸減等，可也。燼餘

6) 『승정원일기』(책 454) 1710년(숙종 36) 6월 14일.

○ 禁府，金翊漢，延曙驛，徒二年半定配，金春澤，臨陂縣蘇安驛，減等徒三年移配。啓。

105. 김 아무개(金 某)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22년(경조 2) 이후.
- 사망 연월: 1750년(영조 26) 8월 23일 이전.
- 사유: 봉당(신임사화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72) 1750년(영조 26) 8월 23일.

○ 上召見惠廳堂上. 右參贊元景夏啓曰: “臣以改量使, 奉命湖南, 往來沿邊有所聞, 故敢達矣. 見罹辛壬誣獄者, 幸以生出, 島配濟州, 仍死島中, 未得返葬, 埋于海邊, 濟州之人, 指點嗟傷云, 聞甚矜憐. 濟州之民, 或死於京中, 則自上特命返葬, 島民莫不感頌聖德云. 濟州之人, 歸葬故土, 誣獄謫死者, 終作海島羈魂, 豈不愍憐乎? 令本道顧恤, 使之返葬似好矣.” 上曰: “兩班乎?” 景夏曰: “非兩班而姓金, 人名則不記矣.” 上曰: “傷惻矣, 其令返葬.”

2) 『승정원일기』(책 1059) 1750년(영조 26) 8월 23일.

○ (惠廳堂上) 元景夏曰, 臣以改量使, 奉命湖南, 往來沿海邊有所聞, 故敢達矣. 見罹辛壬誣獄, 幸而生出, 島配濟州, 仍死島中, 未得返葬, 埋于海邊, 濟州之人, 指點嗟傷云, 臣聞甚矜憐矣. 臣於今春, 待罪惠局, 而濟州之民, 死於京中, 自上特命返葬, 聞島民莫不感誦聖德云. 濟州人, 歸葬故土, 誣獄謫死於濟州者, 終作海島羈魂, 豈不愍憐乎? 令本道顧恤, 使之返葬, 似好矣. 上曰, 兩班乎, 常人乎? 姓名云何? 景夏曰, 非兩班, 姓金之人, 而其名, 臣未詳記矣. 上曰, 傷惻矣, 其令返葬, 可也. 出學條

106. 김수천(金壽天)

- 신분: 중인(역관)
- 유배 연월: 1722년(경종 2) 5월 4일.
- 해배 연월: 1725년(영조 1) 3월 25일.
- 사유: 봉당(임인무옥)
- 관련 사료

1) 『경종수정실록』(권 3) 1722년(경종 2) 3월 27일.

○ 入其獄者, 鄭麟重, 卽故忠臣撥之孫, 金龍澤, 卽萬重之孫, 李頤命之女壻. 李天紀, 卽思永之子, 金春澤之妻弟, 沈尙吉, 卽樞之姪, 李喜之, 卽師命之子. 洪義人, 卽彥度之子, 李器之, 卽頤命之子. 徐德修, 卽宗悌之孫, 金省行, 卽昌集之孫. 李晚成, 洪啓迪, 金雲澤, 金民澤, 趙聖復, 金濟謙, 洪錫輔, 文臣之通顯者, 李弘述, 尹慤, 李宇恒, 李尙謙, 白時耆, 柳就章, 沈樞, 李瀍, 金時泰, 武臣之官高者, 柳星樞, 梁益標, 李明佐, 趙洽, 柳厚章, 皆武家人. 李正植, 晚成之門庶, 與李健命爲內外兄弟. 金昌道, 卽昌集之庶從, 趙松, 卽榮福之庶叔, 金盛節, 卽盛迪之庶弟, 李世福, 卽趙松之甥. 李尙建, 金壽天, 李三錫, 金克復, 禹洪采, 錢仁佐, 玄德明, 金震錫, 邢儀賓, 洪舜澤, 卽象譯也.

2) 『경종실록』(권 8) 1722년(경종 2) 5월 2일.

○ 大臣, 禁府堂上, 玉堂, 兩司諸臣等, 請對, 力陳鞠獄, 異於他罪囚, 不可以憫旱徑釋之意, 仍請就其中情犯差輕者而酌處. 洪哲人減死定配, 李尙建定配, 白望奴鶴孫及爲白望往復書札之宮人, 竝絕島定配, 玄德明, 金壽天減死絕島定配, 李三錫放送, 趙聖復絕島圍籬安置.

3) 『승정원일기』(책 540) 1722년(경종 2) 5월 2일.

○ (右議政) 崔錫恒曰, 罪人玄德明·金壽天, 累次嚴刑, 終不承款, 事極痛惋, 而雖或自服, 罪不至死, 玄德明絕島定配, 金壽天減死, 絕島定配, 何如? (同義禁) 金一鏡曰, 此亦絕島可矣. (領議政) 趙泰耆曰, 爲白望書札相通之人, 不可置之宮掖間, 絕島定配, 何如?

上曰, 唯.出學條.

4) 『경종실록』(권 8) 1722년(경종 2) 5월 4일.

○ 安置趙聖復於旌義, 加圍籬尹廷舟於固城, 配玄德明於羅州, 洪哲人於渭原, 金壽天於濟州, 鶴孫於大靜, 李尙建於三水.

5) 『영조실록』(권 4) 1725년(영조 1) 3월 25일.

○ 判義禁洪致中讀疏決秩: “朴熙晉, 朴長潤, 李濟, 梁聖揆, 尹筵, 李廣道, 李景說, 金始燁, 趙翼命, 趙鎮禧, 李顯章, 權益淳, 呂善長, 尹游, 李承源, 李師尙, 申潤廷, 河潤遠, 朴弼夢, 李眞儒, 李明誼, 鄭楷, 尹聖時, 徐宗厦, 尹就商, 李重述, 申慶濟, 李公胤, 李巨源, 李眞淳, 權益寬竝仍, 金壽天, 鶴孫, 朴厚應, 皇甫謙, 李志達, 黃尙鼎, 李命龍, 徐允興, 洪聖疇, 文德麟, 洪彦度, 金時鼎, 李垞, 吳命峻, 李鳳鳴并放.”

6) 『승정원일기』(책 589) 1725년(영조 1) 3월 25일.

○ 禁府疏決秩, 洪致中讀李根名. 上曰, 此輕罪也, 放送, 可也. 朴熙晉仍, 朴長潤仍, 李濟·梁聖揆·尹筵, 竝仍, 李廣道·李景說·金始燁·趙翼命·趙鎮禧·李顯章·權益淳·呂善長·尹游·李承源, 竝仍, 金壽天放. 鶴孫, 上曰, 飜案後, 非所可論, 放.

107. 김덕재(金德材)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3년(경종 3) 1월 10일.
- 해배 연월: 1725년(영조 1) 2월 21일.
- 사유: 봉당(소론의 노론 탄압<김춘택 일가친척>)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11) 1723년(경종 3) 1월 10일.

○ 分配金春澤諸弟, 子, 姪於全羅道諸島. 春澤情狀, 國人所指, 宜乎不病自斃, 若其無知幼稚, 有何嫉惡? 逆獄緣坐, 尙許容貸, 而今乃一併流配於絕島, 母子分離, 呼哭干和. 此豈王政之所宜有? 倘此論者, 其亦不仁也哉!

2) 『경종수정실록』(권 4) 1723년(경종 3) 1월 10일.

○ 流金祖澤 南海縣, 金福澤 巨濟府, 金廷澤 珍島郡, 金延澤 智島, 金德材 濟州牧, 金善材 旌義縣, 金俊材 黑山島, 金厚材 金甲島, 金偉材 薪智島, 金養材 扶安縣, 金聖材 珍島郡, 金用材 扶安縣, 金騏孫 楸子島, 金海得 古今島, 皆金春澤之諸弟, 子, 姪. 從李眞儒之請也. 逆獄緣坐, 二三歲兒, 有勿爲定配之受教, 今乃一併流配於絕島, 母子分離, 呼哭干和, 非王政之所宜有. 其時史官, 亦以此刺評者, 猶有一段未泯之公議, 而凶黨用法之慘, 亦可見矣.

3) 『승정원일기』(책 554) 1723년(경종 3) 5월 14일.

○ (刑曹判書) 吳命峻讀金德材·金善材罪. 命峻曰, 春澤子姪, 與金後材等同矣. 上曰, 仍. 已上全羅道

4) 『승정원일기』(책 587) 1725년(영조 1) 2월 21일.

○ 兵曹正郎金祖澤上疏, 伏以皇天降割, 我先王奄棄臣民, 仙馭已邈, 歲律又更. 伏惟我殿下孔懷之痛, 尤何以自抑? 而八域含生之類, 孰不號泣追慕, 各自悲聖澤之未獲終被也?

伏況臣家，偏蒙先大王聖恩，視他朝臣，不啻差殊，至今闔家男女老幼，得有子遺者，莫非先大王庇覆之餘，未効結草之報，遽纏遺弓之慟，天乎天乎，尙何爲哉？臣萬死餘生，首蒙特放，伏讀伊時聖教，不特追念先祖一時之勞，蓋將仰慰聖母在天之靈，則臣之自處，宜不敢自同於他人。由是頓忘罪名之未洗，筋力之將盡，固欲必趁因山，少伸情禮，而關文遲到，期日已迫，蒼黃奔馳，終莫之及，僅得一參于三虞外班，旋即退伏于廣州松楸。自此以往，父子兄弟，一室團聚，相依爲命，涵泳聖澤，以畢餘生，是臣闔家老幼之所共祝者也。不意聖朝，過於滌瑕，示以不棄，遂假以卽僚之銜，使齒於搢紳之列，臣於是仰認聖意矣。嗚呼，大寒之後，有此陽春，草木昆蟲，莫不欣欣自得於一氣嫗煦之中。惟時大聖人體天行道，順時布仁，舊臣次第登用，群枉庶幾畢伸，如臣之以不卽死爲恨者。今而後乃自幸須與不死，以獲見今日窮天幽冤之情，今而不言，更待何時？臣請冒萬死一陳，惟殿下，哀矜而垂察焉。… 臣宗姪德材，以其父之故，受怨最深，得遠惡地如濟州者，永違寡母，獨囚窮海，風濤瘴癘，攻其外，疾病憂畏，鑠其內，終作萬里不歸之人，天之何爲，曲從彼凶欲殺之心，若是耶？臣祖，以肺腑之親，亦嘗有大勳勞于邦家，而令其神主飄零無所止泊，宗事剝落，無所依託。嗚呼，寧不悲哉？寧不悲哉？… 答曰，省疏具悉。噫，向日之事，尙忍言哉？若非大行朝盛德至明，則聖后五服之親，免鋒刃者幾人耶？今茲特放之命，仰體聖意也。相臣上來後，予亦欲問議而量處矣。

108. 윤각(尹戣)

- 신분: 관리(총융사)
- 유배 연월: 1723년(경종 3) 9월 6일.
- 나래(사망) 연월: 미상(1724년<경종 4> 1월 10일).
- 사유: 정치 변동(임인무옥 연루)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13) 1723년(경종 3) 9월 6일.

○ 右議政李光佐, 初登筵對, 首陳良役之弊, 請令備局有司堂上二員, 專管其事, 晝夜講確變通, 上從之. 又言: “尹戣, 柳星樞獄事之難參, 與崔錫恒無異.” 仍請酌處, 上命減死絕島圍籬安置. 獻納宋眞明等爭之不得.

2) 『승정원일기』(책 558) 1723년(경종 3) 9월 6일.

○ 左議政崔錫恒曰, 此事, 臣於前日, 累陳意見, 今無更達之事矣. 大凡鞠獄按問, 自有格例, 雖名出逆招之類, 一推再推, 至於面質, 必待詞證明白, 情窮理屈而後, 方爲限死加刑, 乃所以詳刑慎法之意也. 今此兩罪人中, 尹戣累出逆招, 情雖可疑, 詞證俱斃, 階梯路絕, 限死加刑, 恐有乖於按問之常例, 前後筵奏, 蓋出於此, 而臺論隨發, 以至於今. 至於星樞所出財貨, 既無傳授之跡, 慈城銀貨, 星樞爲黃兵時, 雖得備局許題, 初不輸來. 因平兵營裨之言, 許其取用, 此雖可駭, 至於符同, 元無現發之迹, 一向嚴刑, 有乖法意, 議啓時, 以停刑仍囚, 以待結末之意, 問議於參鞠諸臣, 則竝皆歸一, 至於兩司, 亦無異辭, 故筵中陳白, 減死絕島定配矣. 入侍臺官, 遽發還收之啓, 其後臺官, 詳聞委折, 頗有追悔之意, 獄事顛末, 大略如此, 而臣方在惶蹙俟譴中, 不敢更爲陳請, 惟在自上處分矣. 光佐曰, 戣附麗凶黨, 又累出賊招, 臣之憤嫉之心, 豈下於人? 使在三司, 亦必爲爭執之論, 而按獄之道則不然矣. 一從獄案爲之, 更不容他見, 證左階梯既絕, 則限死加刑, 有乖獄體, 明知其如此, 何可違心而行之乎? 左相如彼, 臣又如此, 延拖不決, 實非國體, 故敢以酌處爲請矣. 上曰, 依爲之. 錫恒曰, 酌處, 既已蒙允, 似當依右相所達, 竝減死遠惡絕島定配, 嚴加梏棘矣. 上曰, 依爲之.

3) 『경종실록』(권 14) 1724년(경종 4) 1월 10일.

○ 鞠廳, 連日刑訊尹愨, 柳星樞. 愨至十五次而斃. 星樞至九次, 病重停刑. 初, 愨以將家子, 歷試外閫, 有才望, 星樞居官廉約, 不肥己, 而愨與李頤命, 健命爲近戚, 被汲引, 樞亦附健命, 及金昌集卒, 以是取禍. 然其出銀謀逆之事, 詞證旣斃, 無可憑詰, 則大臣之初請酌處, 不害爲慎獄之道, 而及臺諫爭執寢命, 則大臣復當鞠事, 至於杖斃而後已. 人以是病大臣之不能固守己見也.

4) 『승정원일기』(책 562) 1724년(경종 4) 1월 10일.

○ 金始慶啓曰, 罪人尹愨, 脈息垂絕, 不得加刑. 推鞠姑罷之意, 敢啓. 傳曰, 知道.

5) 『영조실록』(권 13) 1727년(영조 3) 10월 6일.

○ 命入虎龍壬寅誣告之案, 一反乙巳處分. … 至尹愨, 上曰: “何如?” 光佐曰: “尹愨事, 前後曲折多矣. 當初出於鞠招, 而階梯不分明, 故卽爲酌處, 減死濟州定配矣. 厥後, 又出金昌道招中, 而昌道已死, 憑問路絕. 又欲酌處, 其後又出於金盛節招中, 有曰貸得尹愨之銀云. 三出鞠招, 事甚可疑. 臺啓又發, 故刑推累次, 終不吐款, 不得已與委官崔錫恒, 相議酌處矣. 厥後臺啓, 請鞠蒙允, 經年相持, 實爲難處, 而輿情皆憤, 以愨爲無疑, 而以臣之終不肯當, 爲不是, 故末後更爲設鞠, 仍斃於杖下. 柳星樞則所謂上送之銀錢, 布, 元無與受之階梯. 似涉虛疎, 故更以酌處定奪, 編配濟州, 乙巳放還矣.” 泰億曰: “柳星樞, 乙巳以後, 終不仕宦, 人或疑其有冤矣.” 上曰: “尹愨事, 文案無分明處, 而至於杖斃, 則到今不必更議. 只收贈職何如? 諸臣各陳所見可也.”

6) 『승정원일기』(책 647) 1727년(영조 3) 10월 6일.

○ 至尹愨, 上曰, 何如? 光佐曰, 尹愨事, 前後曲折多矣. 當初出於鞠招, 而階梯不分明, 故卽爲酌處, 減死濟州定配矣. 厥後又出金昌道招中, 而昌道已死, 憑問路絕, 又欲酌處矣. 其後又出於金盛節招中, 有曰, 貸得尹愨之銀云云. 皆以銀事, 三出鞠招, 言又分明, 事甚可疑, 臺啓又發, 故刑推累次, 終不吐款, 不得已與委官崔錫恒, 相議酌處矣. 厥後臺啓, 請鞠蒙允, 而崔錫恒則以情勢難安, 不得開坐, 小臣拜相後, 入侍春塘臺建白, 以尹愨三出賊招, 頗似丁寧, 而刑訊已久, 尙未得情, 柳星樞比尹愨, 又差輕, 竝以酌處定奪矣. 崔錫恒則

後因嚴旨，往在美沙里，臣獨在朝，經年相持，實爲難處，而輿情皆憤，以愨爲無疑，而臣之終不肯當，爲不是。臣反復思量，以爲愨既已三出賊招，而階梯加詳，終始固執，不爲按問，亦近於私意，故末後更爲設鞫，仍斃於杖下。柳星樞則所謂上送之銀錢布，元無與受之階梯，似涉虛疎，故更以酌處定奪，編配濟州，乙巳放還矣。泰億曰，柳星樞，乙巳以後，終不仕宦，人或疑其有冤，而亦多稱道者矣。光佐曰，尹愨事，若心知其冤，則何可更鞫？只是三出賊招，階梯加詳，輿論多咎，臣之不當，故臣終出而當之矣。上曰，尹愨事，文案無分明處，而至於杖斃，則到今不必更議，只收贈職，何如？諸臣，各陳所見，可也。

109. 유성추(柳星樞)

- 신분: 관리(황해병사)
- 유배 연월: 1723년(경종 3) 9월 6일.
- 해배 연월: 1725년(영조 1) 3월 2일.
- 사유: 정치 변동(임인무옥 연루)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13) 1723년(경종 3) 9월 6일.

○ 右議政李光佐, 初登筵對, 首陳良役之弊, 請令備局有司堂上二員, 專管其事, 晝夜講確變通, 上從之. 又言: “尹慤, 柳星樞獄事之難參, 與崔錫恒無異.” 仍請酌處, 上命減死絕島圍籬安置. 獻納宋眞明等爭之不得.

2) 『승정원일기』(책 558) 1723년(경종 3) 9월 6일.

○ 左議政崔錫恒曰, 此事, 臣於前日, 累陳意見, 今無更達之事矣. 大凡鞠獄按問, 自有格例, 雖名出逆招之類, 一推再推, 至於面質, 必待詞證明白, 情窮理屈而後, 方爲限死加刑, 乃所以詳刑慎法之意也. 今此兩罪人中, 尹慤累出逆招, 情雖可疑, 詞證俱斃, 階梯路絕, 限死加刑, 恐有乖於按問之常例, 前後筵奏, 蓋出於此, 而臺論隨發, 以至於今. 至於星樞所出財貨, 既無傳授之跡, 慈城銀貨, 星樞爲黃兵時, 雖得備局許題, 初不輸來. 因平兵營裨之言, 許其取用, 此雖可駭, 至於符同, 元無現發之迹, 一向嚴刑, 有乖法意, 議啓時, 以停刑仍囚, 以待結末之意, 問議於參鞠諸臣, 則竝皆歸一, 至於兩司, 亦無異辭, 故筵中陳白, 減死絕島定配矣. 入侍臺官, 遽發還收之啓, 其後臺官, 詳聞委折, 頗有追悔之意, 獄事顛末, 大略如此, 而臣方在惶蹙俟譴中, 不敢更爲陳請, 惟在自上處分矣. 光佐曰, 慤附麗凶黨, 又累出賊招, 臣之憤嫉之心, 豈下於人? 使在三司, 亦必爲爭執之論, 而按獄之道則不然矣. 一從獄案爲之, 更不容他見, 證左階梯既絕, 則限死加刑, 有乖獄體, 明知其如此, 何可違心而行之乎? 左相如彼, 臣又如此, 延拖不決, 實非國體, 故敢以酌處爲請矣. 上曰, 依爲之. 錫恒曰, 酌處, 既已蒙允, 似當依右相所達, 竝減死遠惡絕島定配, 嚴加梏棘矣. 上曰, 依爲之.

3) 『경종실록』(권 14) 1724년(경종 4) 1월 10일.

○ 鞫廳, 連日刑訊尹愨, 柳星樞. 愨至十五次而斃, 星樞至九次, 病重停刑. 初, 愨以將家子, 歷試外閫, 有才望, 星樞居官廉約, 不肥己, 而愨與李頤命, 健命爲近戚, 被汲引, 樞亦附健命, 及金昌集卒, 以是取禍. 然其出銀謀逆之事, 詞證旣斃, 無可憑詰, 則大臣之初請酌處, 不害爲慎獄之道, 而及臺諫爭執寢命, 則大臣復當鞫事, 至於杖斃而後已. 人以是病大臣之不能固守己見也.

4) 『영조실록』(권 4) 1725년(영조 1) 3월 2일.

○ 上曰: “尹愨, 柳星樞, 其時鞫獄, 亦以次律勘斷, 而愨因臺啓, 終至於死, 可知其冤也. 愨復官, 星樞放送.”

5) 『승정원일기』(책 588) 1725년(영조 1) 3월 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減死絶島定配罪人柳星樞, 咸鏡道甲山府極邊圍籬安置罪人尹陽來, 慶尙道東萊府極邊圍籬安置罪人俞拓基, 竝放送事, 承傳啓下矣. 右罪人等放送事, 分付各道之意, 敢啓. 傳曰, 知道.

6) 『영조실록』(권 13) 1727년(영조 3) 10월 6일.

○ 命入虎龍壬寅誣告之案, 一反乙巳處分. … 至尹愨, 上曰: “何如?” 光佐曰: “尹愨事, 前後曲折多矣. 當初出於鞫招, 而階梯不分明, 故卽爲酌處, 減死濟州定配矣. 厥後, 又出金昌道招中, 而昌道已死, 憑問路絶. 又欲酌處, 其後又出於金盛節招中, 有曰貸得尹愨之銀云. 三出鞫招, 事甚可疑. 臺啓又發, 故刑推累次, 終不吐款, 不得已與委官崔錫恒, 相議酌處矣. 厥後臺啓, 請鞫蒙允, 經年相持, 實爲難處, 而輿情皆憤, 以愨爲無疑, 而以臣之終不肯當, 爲不是, 故末後更爲設鞫, 仍斃於杖下. 柳星樞則所謂上送之銀錢, 布, 元無與受之階梯, 似涉虛踈, 故更以酌處定奪, 編配濟州, 乙巳放還矣.” 泰億曰: “柳星樞, 乙巳以後, 終不仕宦, 人或疑其有冤矣.” 上曰: “尹愨事, 文案無分明處, 而至於杖斃, 則到今不必更議. 只收贈職何如? 諸臣各陳所見可也.”

7) 『승정원일기』(책 647) 1727년(영조 3) 10월 6일.

○ 至尹愬, 上曰, 何如? 光佐曰, 尹愬事, 前後曲折多矣. 當初出於鞫招, 而階梯不分明, 故卽爲酌處, 減死濟州定配矣. 厥後又出金昌道招中, 而昌道已死, 憑問路絕, 又欲酌處矣. 其後又出於金盛節招中, 有曰, 貸得尹愬之銀云云. 皆以銀事, 三出鞫招, 言又分明, 事甚可疑, 臺啓又發, 故刑推累次, 終不吐款, 不得已與委官崔錫恒, 相議酌處矣. 厥後臺啓, 請鞫蒙允, 而崔錫恒則以情勢難安, 不得開坐, 小臣拜相後, 入侍春塘臺建白, 以尹愬三出賊招, 頗似丁寧, 而刑訊已久, 尙未得情, 柳星樞比尹愬, 又差輕, 竝以酌處定奪矣. 崔錫恒則後因嚴旨, 往在美沙里, 臣獨在朝, 經年相持, 實爲難處, 而輿情皆憤, 以愬爲無疑, 而臣之終不肯當, 爲不是. 臣反復思量, 以爲愬旣已三出賊招, 而階梯加詳, 終始固執, 不爲按問, 亦近於私意, 故末後更爲設鞫, 仍斃於杖下. 柳星樞則所謂上送之銀錢布, 元無與受之階梯, 似涉虛疎, 故更以酌處定奪, 編配濟州, 乙巳放還矣. 泰億曰, 柳星樞, 乙巳以後, 終不仕宦, 人或疑其有冤, 而亦多稱道者矣. 光佐曰, 尹愬事, 若心知其冤, 則何可更鞫? 只是三出賊招, 階梯加詳, 輿論多咎, 臣之不當, 故臣終出而當之矣. 上曰, 尹愬事, 文案無分明處, 而至於杖斃, 則到今不必更議, 只收贈職, 何如? 諸臣, 各陳所見, 可也.

110. 윤성시(尹聖時)

- 신분: 관리(부교리)
- 유배 연월: 1725년(영조 1) 4월 22일.
- 이배 연월: 1727년(영조 3) 10월 9일(영광군).
- 사유: 정권변동(김일경〈金一鏡〉 소하 6적〈박필몽, 이명의, 이진유, 윤성시, 정해, 서종하〉)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2일.

○ 命一鏡孥籍, 依虎龍例舉行, 教曰: “一鏡事, 不忍汚口, 而於國事何等說, 尤極凶悖. 其擥凶之心得成, 則謂之際遇, 不合於心, 則如此陳疏, 陰凶情節, 卽此可知.” 仍以冀, 顯等語陰慘, 命一鏡辛丑疏下李眞儒, 朴弼夢, 李明誼, 鄭楷, 尹聖時, 徐宗厦削奪官爵, 門外黜送.

2)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25일.

○ 義禁府啓: “朴弼夢配茂長, 李眞儒 羅州, 李明誼 清道, 鄭楷 永川, 尹聖時 密陽, 徐宗厦 安陰.”

3) 『영조실록』(권 5) 1725년(영조 1) 4월 22일.

○ 政院啓曰: “李喜之等遠配啓, 金時泰等遠配啓, 十六人遠配啓, 三啓首發人竝遠竄, 其餘削黜事, 批下. 首發, 朴弼夢也, 隨參, 尹聖時, 趙遠命也. 弼夢, 聖時, 因他罪遠竄, 只趙遠命捧傳旨事.” 批知道.

4) 『승정원일기』(책 591) 1725년(영조 1) 4월 22일.

○ 李挺周啓曰, 李喜之·沈尙吉·洪義人遠配之啓, 金時泰·柳就章·梁益標遠配之啓, 十六人遠配之啓, 凡此三啓, 發啓臺臣, 令本院現告, 與時龍, 一體嚴鞫之啓, 以三啓中首發人, 竝遠竄, 其餘, 竝削黜事, 批下矣. 考見日記, 則三啓首發, 朴弼夢也. 隨參, 尹聖時·趙遠命

也.朴弼夢·尹聖時, 既以他罪遠竄, 又有絕島安置之命, 今不可學論.趙遠命, 捧傳旨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5) 『영조실록』(권 13) 1727년(영조 3) 10월 6일.

○ 命李眞儒, 朴弼夢, 尹聖時, 鄭楷, 徐宗廈, 李明誼出陸, 朴長潤減等量移. 從領府事李光佐, 判義禁沈壽賢, 吏曹判書吳命恒之請也. 蓋眞儒等六人, 同參賊鏡之疏者也, 長潤, 請改明陵誌文者也. 時壽賢奏曰: “臣頃按一鏡獄事矣. 其時只以教文及疏語爲問目, 而辛丑疏則元不學論. 只以一時之同疏, 罪其疏下, 則此甚不然. 況其疏語, 豈有可罪之事乎? 其時搢紳疏之初出也, 無職前銜, 皆已同參. 臣以其時疏頭, 遭彈下鄉, 他皆四散, 而同參人中在京者, 獨一鏡, 以職秩, 推爲疏頭, 疏亦出自其手. 同參之人, 只是一時聯名而已, 豈可無辨別之道哉?” 命恒進曰: “國有大慶, 且經今日大處分, 竄配未放之類, 似是次第舉行之事. 彼李眞儒, 朴長潤諸人之海島竄棘, 洽滿三年矣.” 上曰: “朴長潤之請改誌文, 不思甚矣. 改撰後事, 何以處之耶? 是甚妄矣.” 光佐繼而請之, 上曰: “當時可參搢紳疏者, 奚但七人而已? 何必與一鏡同事耶? 疏中遣辭, 何乃慳刻耶? 雖不可輕議, 而竄配已三年, 況此國有大慶之日, 不可無分別之道.” 遂命出陸減等. 【李眞儒 羅州, 朴弼夢 茂長, 李明誼 興陽, 尹聖時 靈光, 徐宗廈 務安, 朴長潤 星州.】

6) 『승정원일기』(책 647) 1727년(영조 3) 10월 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今十月初六日, 時任大臣·原任大臣·諸宰三司長官, 引見入侍時, 疏下諸人竝出陸, 朴長潤亦爲一體出陸事, 〈學條見上〉命下矣. 靈巖郡楸子島圍籬安置罪人李眞儒, 旌義縣圍籬安置罪人朴弼夢, 興陽縣羅老島圍籬安置罪人李明誼, 濟州牧圍籬安置罪人尹聖時, 大靜縣圍籬安置罪人徐宗廈·南海縣圍籬安置罪人朴長潤, 竝出陸事, 承傳啓下矣. 李眞儒, 全羅道羅州牧, 朴弼夢茂長縣, 李明誼興陽縣, 尹聖時靈光郡, 徐宗廈務安縣, 朴長潤慶尙道星州牧定配所, 竝撤籬出陸,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

111. 이현장(李顯章)

- 신분: 관리(의주부윤)
- 유배 연월: 1725년(영조 1) 4월 18일.
- 해배 연월: 1727년(영조 3) 7월 5일.
- 사유: 정권변동(김일경 옥사 관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4) 1725년(영조 1) 3월 27일.

○ 竄李正臣, 趙翼命, 徐命遇, 金啓煥于極邊, 削奪姜覲, 李肇, 金演, 李台佐, 朴泰恒, 柳重茂, 金重器, 李森, 金始煥, 尹遇晋, 李世最, 南就明, 趙遠命, 朴熙晋, 李廷濟, 金重熙, 李明彦, 梁廷虎, 尹大英, 權益淳, 李顯章, 李普昱, 李匡輔, 李眞淳, 具命奎, 呂善長, 黃爾章, 尹行教, 金東弼, 俞命凝, 尹會, 慎惟益, 韓在垣, 朴徵賓, 鄭壽期, 柳綏, 金弘錫 官爵, 黜送門外. 以壬寅請對與按獄事也. 初, 李光佐, 趙泰億入於削黜現告中, 上以大臣事體自別, 雖是拜相前事, 國體逕庭, 流弊可慮, 特命拔去.

2) 『영조실록』(권 5) 1725년(영조 1) 4월 18일.

○ 憲府【掌令李倚天.】申前啓, 不允. 又啓: “李顯章熨慰陰凶, 作爲逆鏡血黨. 頃年一疏, 語意凶毒, 一則曰: ‘趙聖復之疏, 效忠於春宮.’ 一則曰: ‘帝奕我殿下, 孺嬰我春邸.’ 其他潛圖密旨之說, 極其叵測. 其所謂潛圖者, 潛圖於何地, 其所謂密旨者, 指何而言也? 其用意之陰凶巧慘, 吁亦甚矣. 噫嘻! 帝奕, 孺嬰, 何等昏亂, 何等時世, 而乃敢比擬於兩宮, 略無顧忌? 此豈爲人臣子者, 所敢萌於心發諸口者哉? 實與賊鏡凶疏, 一串貫來者也. 若不夫正典刑, 明示八方, 使此等絕悖凶惡之言, 書之史冊, 傳之後世, 後之視今者, 以今日爲何如時也? 論其罪惡, 萬戮猶輕, 而尙今容息於覆載之間, 輿憤益激. 請削黜罪人李顯章, 姑先絕島圍籬安置. 洞伸誣獄, 瞻聆感泣, 而前監司權詹疏, 顯示怨懟之意, 一則曰: ‘以向來治逆之論, 驅諸罔測之科.’ 一則曰: ‘密網之布, 無人得免.’ 渠若有一分嚴畏之心, 何敢若是無畏憚乎? 逆鏡之赴配也, 路過完營, 詹乃出見, 握手相慰, 接待款洽. 至以四十貫錢文, 二十石米穀, 肆然驢送, 流涕送行, 伊時目擊之人, 來傳洛下. 其甘心黨逆, 肆口

誹怨之狀, 萬萬痛惡. 若不嚴加堤防, 則怨國不逞之徒, 將必有乖亂朝廷, 嫁禍搢紳之患. 請前監司權詹遠竄.” 批依啓. 權詹削黜, 顯章配濟州.

3) 『승정원일기』(책 591) 1725년(영조 1) 4월 24일.

○ 李挺周, 以義禁府言啓曰, 當此推鞠多事之時, 本府都事, 不可不備員, 濟州牧絶島圍籬安置罪人李顯章, 押去都事李衡齡, 令該曹, 卽爲口傳閑官換差,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책 641) 1727년(영조 3) 7월 4일.

○ 宋寅明, 以義禁府言啓曰, 武弁被謫人南泰徵·朴纘新·李汝迪·李森·金世鼎, 極邊遠竄罪人權扶·李善行, 絶島圍籬安置罪人李顯章·尹恕教, 絶島安置罪人權益淳·呂善長·李三齡·尹志, 極邊遠竄罪人權益寬·沈檀·金壽龜·李泰和·李夏英·金始燁·趙翼命·李世璣·柳重茂·李明彦·李普昱·尹會·柳弼垣·朴徵賓·李眞儉·李濟·李匡輔·柳綏·趙鎮禧·趙德隣·沈垞·李衡秀·朴弼夔·李大源·韓游·睦天任·申慶濟·柳述·李基聖, 遠地定配罪人崔鑒·鄭■■, 遠竄罪人李世最·李重述·李巨源·李眞洙·梁聖揆·尹筵·趙彝鼎·趙趾彬·尹大英·金重熙·梁廷虎·李眞淳·具命奎·慎惟益·李景說·鄭啓章·尹彬·金岱等放送事, 承傳啓下矣. 放送事, 分付各道之意, 敢啓. 傳曰, 知道.

5) 『영조실록』(권 12) 1727년(영조 3) 7월 5일.

○ 放安置罪人李顯章·尹恕教·權益淳·呂善長·李三齡·尹志, 遠竄罪人權扶·李善行·權益寬·沈檀·金壽龜·李泰和·李夏英·金始燁·趙翼命·李世璣·柳重茂·李明彦·李普昱·尹會·柳弼垣·朴徵賓·李眞儉·李濟·李匡輔·柳綏·趙鎮禧·趙德隣·沈垞·李衡秀·朴弼夔·李大源·韓游·睦天任·申慶濟·柳述·李基聖, 定配罪人崔鑒·鄭翽·李世最·李重述·李巨源·李眞洙·梁聖揆·尹筵·趙彝鼎·趙趾彬·尹大英·金重熙·梁廷虎·李眞淳·具命奎·慎維益·李景說·鄭啓章·尹彬·金岱·南泰徵·朴纘新·李汝迪·李森·金世鼎等六十二人.

112~115. 민당효(閔堂孝), 민원숭(閔元崇), 민원효(閔源孝),
민정백(閔庭百)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4월 15일.
- 해배 연월: 1735년(영조 11) 1월 29일.
- 사유: 연좌(민암〈閔黯〉, 민종도〈閔宗道〉 친인척)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7) 1728년(영조 4) 4월 15일.

○ 掌令姜必愼啓曰: “麟佐, 觀孝總功以上, 竝請島配, 而聖批以法外持難. 第其強近中凶
孿者, 不可置輦轂下. 閔黯, 閔宗道子孫, 一體島配.” 上從之.

2) 『승정원일기』(책 793) 1735년(영조 11) 1월 2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今正月二十八日, 時·原任大臣及金吾堂上引見入侍時, 傳曰, 應坐
外定配, 此是法外. 而頃年尹·李·閔三族竝配之請, 其涉過慮, 乃亦法外. 而其時懲討方嚴,
雖以允之, 伊後思之, 決知太過. 況當大赦, 豈不施乎曠蕩之典, 其干連賊招者外, 三姓編
配者, 竝放送事, 分付. 傳曰, … 濟州牧移配罪人閔元崇·閔堂孝, … 濟州牧移配罪人閔源
孝·閔庭百, … 依傳教, 竝放送. … 敢啓. 傳曰, 知道.

116. 이기좌(李夔佐)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5월 6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인좌〈李麟佐〉 동생)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660) 1728년(영조 4) 4월 3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稱兵逆魁麟佐, 應坐諸人, 追後成冊, 今始來到, 而麟佐緣坐之類, 已配者改配絕島事, 下教矣. 穩城府爲奴罪人麟佐子中明·仁明, 濟州牧旌義縣爲奴, 會寧府爲奴罪人文明·化明, 大靜縣爲奴, 同姓叔弘仁, 全羅道興陽縣羅老島安置, 同生弟夔佐, 年十二未滿, 靈巖郡楸子島爲奴, 同姓姪子現明·慶明, 濟州牧竝安置, 而右罪人等, 或在配所, 或在外方,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책 661) 1728년(영조 4) 5월 6일.

○ 金渚, 以義禁府言啓曰, 逆賊能佐同生夔佐, 移配他有官府絕島事, 下教矣. 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罪人夔佐, 移配于濟州牧,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책 663) 1728년(영조 4) 6월 1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頃者逆賊能佐同生夔佐, 移配他有官府絕島事下教, 故既已移配於濟州牧, 而又有李益命定配於此島, 亦令移配他島, 而此後則無官守之島, 罪人勿復偏配, 永爲定式事, 允下矣. 楸子島, 本無官守, 則令前定配之類, 亦不可仍置, 緣坐安置罪人李益命, 移配於全羅道羅州牧智島, 逆賊希亮母未順, 移配爲婢於濟州牧大靜縣, 希亮子鐵興, 移配爲奴於旌義縣, 而右罪人等, 俱在於靈岩郡[靈巖郡]楸子島,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17~118. 이현명(李現明), 이경명(李慶明)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5월 6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인좌〈李麟佐〉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660) 1728년(영조 4) 4월 3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稱兵逆魁麟佐, 應坐諸人, 追後成冊, 今始來到, 而麟佐緣坐之類, 已配者改配絕島事, 下教矣. 穩城府爲奴罪人麟佐子中明·仁明, 濟州牧旌義縣爲奴, 會寧府爲奴罪人文明·化明, 大靜縣爲奴, 同姓叔弘仁, 全羅道興陽縣羅老島安置, 同生弟夔佐, 年十二未滿, 靈巖郡楸子島爲奴, 同姓姪子現明·慶明, 濟州牧竝安置, 而右罪人等, 或在配所, 或在外方,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19. 신석영(申錫永)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4월 30일.
- 나래/사망 연월: 1728년(영조 4) 5월 21일.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7) 1728년(영조 4) 4월 29일.

○ 命申錫永絶島爲奴, 放送朴景淳, 林喜大, 全漢相, 定配權尙及維賢奴突蒙於絶島. 錫永, 後更拿來, 取服正刑.

2) 『승정원일기』(책 660) 1728년(영조 4) 4월 30일.

○ 金湑, 以義禁府言啓曰, 鞫廳罪人申錫永, 絶島爲奴, 玆夢, 絶島定配事, 下教矣. 申錫永, 全羅道濟州牧爲奴, 玆夢, 慶尙道巨濟府定配, 而右罪人等, 方在囚禁中,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영조실록』(권 18) 1728년(영조 4) 5월 21일.

○ 刑申錫永六次, 錫永供: “臣名果是日永. 謀逆是實.” 處斬, 孥籍如法.

4) 『승정원일기』(책 662) 1728년(영조 4) 5월 22일.

○ 鄭錫五, 以義禁府言啓曰, 大逆同參罪人萬彬·錫永等, 既已承服正刑, 各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 年歲·姬名[姓名]·存沒·居住, 令漢城府考出帳籍, 分付五部及該道, 成冊修正, 上送後舉行. 而籍沒家產·破家瀆澤·降邑號·罷守令等事, 令各該司捧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120. 민득효(閔得孝)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6월 4일.
- 나래/사망 연월: 1729년(영조 5) 5월 11일.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민원보〈閔元普〉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663) 1728년(영조 4) 6월 4일.

○ 趙德鄰,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忠淸·慶尙兩道監司粘移及各該邑所報成冊, 則逆賊百孝·祖謙·熊輔·崇坤等應坐諸人, 列錄以來矣. 祖謙子泰禧, 年十九, 旣已年滿, 而時囚忠州牧, 崇坤妻成愛, 時囚聞慶縣, 而卽稱兵逆魁之妻, 依例發遣府都事, 與各其地方官眼同, 竝不待時緣坐處絞, 祖謙子婦大阿只, 黃海道豐川府爲婢, 同姓姪子仲禧·季禧, 平安道甑山縣竝流三千里安置. 崇坤繼母戎興, 弟今年生子日策, 年二, 年未滿, 慶尙道巨濟府, 竝絕島爲奴婢, 弟海甲·仁甲·四甲, 妹明順, 南海縣竝絕島爲奴婢. 百孝母必愛, 全羅道興陽縣蛇渡鎮, 同生弟復孝, 旌義縣, 得孝濟州牧, 竝絕島爲奴婢. 熊輔女丹陽, 珍島郡爲婢, 而右罪人等, 各在外方,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책 684) 1729년(영조 5) 5월 11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忠淸道忠州牧使所報成冊, 則逆賊元普, 應坐諸人, 列錄以來矣. 子濟州牧旌義縣緣坐爲奴罪人復孝年二十六, 子濟州牧緣坐爲奴罪人得孝年二十, 旣已年滿,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 竝不待時緣坐處絞, 母李女, 年過七十. 律文內, 婦人之年六十廢疾者, 不在舉論中, 今姑勿論. 妻畢愛孫女歎女, 旣已百孝緣坐, 全羅道興陽縣蛇島鎮, 先此爲婢矣. 畢愛則以元普妻, 緣坐爲婢改錄事, 本道監司處, 發關分付. 元普子德孝妻申女, 得孝妻李女, 復孝妻羅女, 不過爲婢定配. 而關文下去之日, 竝一時結項自斃, 此乃不善嚴祕之致. 應施之律, 不得見行, 則揆以事體, 不可無警責之道, 牧使柳縝推考, 當該刑吏, 自本州查治懲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3) 『영조실록』(권 22) 1729년(영조 5) 5월 11일.

○ 義禁府啓: “忠州牧所報逆賊, 元普子復孝·得孝緣坐處絞, 母李女年過七十, 律文內婦人年六十廢疾者, 不論. 妻畢愛女歎女, 以百孝緣坐, 先此爲婢.” 又言: “元普子德孝妻申女, 得孝妻李女, 復孝妻羅女, 關文下去之日, 一時結項自斃, 此乃不嚴祕之致. 牧使柳縝, 請推考.” 允之.

4) 『영조실록』(권 22) 1729년(영조 5) 6월 18일.

○ 命旌義縣監尙時昌拿問. 以本縣爲奴罪人復孝同住, 其弟得孝, 濟州牧配所故也.

5) 『승정원일기』(책 687) 1729년(영조 5) 6월 18일.

○ 以禁府都事狀啓, 旌義縣爲奴罪人復孝, 同在濟州牧其弟得孝配所, 同縣監尙時昌, 啓聞罷黜事, 分付濟州牧使事. 傳于張泰紹曰, 事極無據, 拿問從重勘處.

121. 윤경제(尹景濟)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7월 13일.
- 사망 연월: 1743년(영조 19) 3월 20일 이전.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연루, 이인좌 장인, 윤휴(尹鑄)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8) 1728년(영조 4) 6월 17일.

○ 左捕廳啓言: “尹景濟以凶賊麟佐之妻父, 今二月, 棄公山本土, 無端移居于慶尙道 柒谷窮峽中, 極可疑, 曾陳發捕之意, 景濟及其子尙靖等. 今已捉來, 請移送鞠廳.” 上命定配絕島. 景濟, 賊鑄之子. 後臺啓請嚴鞠, 許之, 累鞠不得實, 遂發配.

2) 『승정원일기』(책 664) 1728년(영조 4) 6월 21일.

○ 洪景輔, 以左邊捕盜廳言啓曰, 尹景濟, 以兇賊麟佐之妻父, 棄其公山本土, 今二月, 無端移去于慶尙道柒谷窮峽中, 極涉可疑. 已爲發捕之意, 前日登對時陳達, 景濟及其子相靖·相惠·相協等四人, 今已捉來矣. 此與他罪人有異, 景濟等四父子, 移送鞠廳之意, 敢啓. 傳曰, 既不出於鞠招, 只以賊佐妻父, 不必鞠問, 竝移送禁府, 絕島定配.

3) 『영조실록』(권 18) 1728년(영조 4) 7월 13일.

○ 上引見大臣備局堂上. 上曰: “諸罪囚當此炎熱, 一向逮繫, 非王者欽恤之道. 或不無原恕者, 而每以鞠事未了, 尙今置之, 不可無參酌之道. 尹景濟父子, 以麟佐之妻父, 無必殺之義, 尹景濟, 尹相靖, 尹相惠, 尹相憲, 依判付, 竝絕島定配.”

4) 『승정원일기』(책 665) 1728년(영조 4) 7월 13일.

○ 上曰, 尹景濟·尹相靖·尹相惠·尹相憲四父子, 依前判付, 竝絕島定配.

5) 『승정원일기』(책 908) 1740년(영조 16) 3월 2일.

○ 至尹景濟事.上曰, 仍.

6)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定配身死未蒙放罪人尹景濟, 上曰, 仍.

7) 『승정원일기』(책 1095) 1753년(영조 29) 6월 3일.

○ 定配身死未蒙放罪人秩, 濟州牧尹景濟 仍.

122. 지안(智安)

- 신분: 종교인(승려)
- 유배 연월: 1729년(영조 5) 8월 27일 이전.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역모 연루(이인좌의 난)<추정>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680) 1729년(영조 5) 3월 13일.

○ 顯命, 進讀李命根查狀畢, 陳達曰, 趙世績戶牌事, 渠之自明與世直之言相左, 似有違端, 智安, 卽湖南名僧也. 其徒弟近千人. 臣於前冬, 聞同副承旨曹命教之言, 則以爲, 聞風傳之言, 則湖南僧智安, 於前年變亂時, 欲聚黨謀逆矣, 以爲天時不利, 遂稱半身不遂, 入處松廣寺云云. 臣既聞此言, 而今見渠招辭中全身不遂云者, 亦爲相符. 王武立事, 亦有疑端, 以鞫體論之, 則當竝拿京獄, 嚴加究覈, 而第命根, 極爲虛妄, 若以其言, 拿來多人, 則或不無難處之事, 今若更加訊問于命根, 詳問其所告人老少·年貌, 以爲憑覈之地, 則其虛實可判矣. 上曰, 所達是矣, 諸臣之意, 何如? 廷錫曰, 多人盡爲拿來, 則似或有弊, 而其在嚴鞫體之道, 亦不可全然置之矣. 上曰, 諸人招內, 言與命根, 爲素昧平生云, 此則似是虛言, 而第以同道相見之人, 盡疑其同情, 則亦非矣. 顯命曰, 豈可以同道相見, 盡謂其同情乎? 上曰, 智安則不無疑端矣. 台佐曰, 李匡德, 請拿送面質, 若面質則可知其虛實, 而第拿來多人, 亦似有弊, 今若依趙顯命之言, 以老少年貌, 更爲憑覈, 則似好矣. 上曰, 命根, 初若徑先正法, 則此數三人, 當無結末之時, 人雖微末, 事則可憫矣.

2) 『승정원일기』(책 692) 1729년(영조 5) 8월 27일.

○ (都承旨) 趙顯命曰, 成宗朝, 亦以此事, 有所申飭, 而近來法令解弛, 無復防限, 前有智安者入逆獄, 竄配濟州. 僧徒爲之齎送糧資者甚多云, 其徒之寔繁, 亦可以推知矣.

123. 김세추(金世樞)

- 신분: 관리(초군)
- 유배 연월: 1737년(영조 13) 4월 25일.
- 이배(출륙) 연월: 1743년(영조 19) 6월 13일.
- 사유: 범죄(궁궐 월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846) 1737년(영조 13) 4월 12일.

○ 李普昱, 以左右捕盜廳言啓曰, 傳教內, 行止殊常人, 被捉於大報壇近處, 極可駭也. 卽命捕廳, 究問事, 命下矣. 罪人金世樞處, 依傳旨, 捧招以入, 而渠以都監砲手, 因狂病除案云. 故欲知其眞僞, 其時書字的趙起璧及隊長朴尙順等, 卽爲招致推問, 則兩漢言內, 今此罪人金世樞, 果以同哨軍, 多年隨行, 而素有狂病, 故上年四月, 手本除案矣. 同年日月不記, 夏秋間世樞, 着軍服, 攔入慶德宮, 作挈於差備門外, 故移送秋曹查問之際, 自稱砲手, 而腰牌則無矣. 自該曹, 招問哨官與隊長, 故渠等以因病除案之意, 從實告達, 則該曹以此稟啓, 仍爲放釋云. 今以言語之有錯, 炙烙之多痕觀之, 似非平常之人, 而獨自踰牆, 殊涉可疑. 其間似不無隱情, 平問之下, 難以得實, 爲先施威嚴問, 何如? 傳曰, 闕牆非白晝所越者, 雖曰非晝, 非渠獨踰越者. 渠果若此, 其所供辭, 豈若是條理乎? 極涉殊常, 各別杖問.

2) 『승정원일기』(책 847) 1737년(영조 13) 4월 25일.

○ 上曰, 秋曹罪人金世樞, 考律後有登對時, 稟處之命矣. 今已考律耶? 秋判進達, 可也. 刑曹判書尹惠教曰, 依傳教, 考諸律文, 則踰越宮牆, 爲絞罪矣. 上曰, 此既狂易之人, 則參酌, 施以島配之律, 可也. 惠教曰, 此雖狂易之人, 再次踰牆, 終涉殊常, 而在小臣爲法官之道, 則惟當以其律, 仰請矣. 上曰, 自某處踰牆, 渠既無承服之言, 其人則明是狂易矣. 惠教曰, 臣非不知聖心出於好生之仁, 而踰越宮牆之罪, 不可不嚴治. 使人皆知其必死之律, 雖以往事言之, 尙今骨驚心寒, 此後若或有奸人, 復犯此罪, 而詐稱狂易, 則豈非深慮乎? 臣意, 專在慮後矣. 上曰, 言則是矣, 而既知其狂易, 則依下教, 減死絕島定配, 可也. 出舉條

3) 『승정원일기』(책 907) 1740년(영조 16) 2월 30일.

○ 至李復箕事, 上曰, 仍. 至朴景河事, 上曰, 仍. 至金世樞事, 上曰, 仍. 此漢夏着耳掩矣. 金在魯曰, 踰越宮牆, 罪犯至重, 不可不仍也. 上曰, 仍. 至奴太山事, 上曰, 仍. 至張佐翼事, 上曰, 仍. 至守禮·愛春等事, 金在魯曰, 此是臺啓中, 萊府兩女人事也. 上曰, 仍.

4)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濟州三邑定配秩李復基, 上曰, 仍. 更考懸注. 在魯曰, 如是猝猝文書, 亦未及看閱, 殊欠詳審矣. 朴世太, 上曰, 仍. 奴次敬, 上曰, 減等. 後因稟啓, 改以放. 朴景河, 上曰, 仍. 金世樞, 上曰, 仍. 張佐翼, 上曰, 仍. 守禮·愛春, 上曰, 竝仍. 金兌元, 上曰, 仍. 金處洙, 上曰, 仍. 未至配所秩朴金昱, 上曰, 放. 文昌瑞, 上曰, 仍. 宋濟命, 上曰, 仍. 陸宗敬, 上曰, 仍. 崔祉敬, 上曰, 放. 李東植, 上曰, 放. 奴俊石, 上曰, 放. 金世雄, 上曰, 仍. 奴老味, 上曰, 放. 表哲周. 羽良曰, 此漢, 以刀刺人, 常常爲之矣. 上曰, 仍. 崔時昌, 上曰, 仍.

5) 『승정원일기』(책 959) 1743년(영조 19) 6월 13일.

○ 全羅道刑案徒年秩, … 睦宗敬·(韓守天·金就聲·崔益奉). 上曰, 竝放. … 金世雄. 上曰, 仍. … (崔友齊·李孝徵)·文昌瑞·(安世垕·金允河·張得清·金振采·李以雄·卞興玉). 上曰, 竝放. 宋濟命·(朴泰玄). 上曰, 竝放. … 李復箕·朴世太. 上曰, 竝仍. 金世樞. 上曰, 出陸. 張左翼·守禮·愛春. 上曰, 竝仍. 金兌元·(金交珠·奴有卜)·表哲柱. 上曰, 竝仍.

124~126. 이관산(李寬山), 이기득(李起得),
이사언(李思彦)〈이태응조(李台應祖)〉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39년(영조 15) 5월 1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이사성〈李思晟〉 아들, 동생)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658) 1728년(영조 4) 3월 2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賊思晟妻斗愛, 孽子寬山, 次子慶得, 咸鏡道三水府竝緣坐爲奴婢, 庶母金女, 妾李女, 孽弟起得, 利城縣竝緣坐爲奴婢, 妾朴女, 孫孟宜, 次孫重宜, 孫女喜德, 平安道理山府緣坐爲奴婢, 子婦順喜, 洪原縣緣坐爲婢, 同姓三寸叔楚徵, 北青府流三千里緣坐安置, 孽弟台應祖, 寧遠府緣坐爲奴, 姪子任芑, 利城縣流三千里緣坐安置, 逆賊有翼繼母福愛, 甲山府緣坐爲婢, 妻喜貞, 女白桂, 慶源府緣坐爲婢, 同生弟鳳巖, 渭原郡緣坐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中, 或在外方云, 依例發遣府書吏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책 891) 1739년(영조 15) 5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今五月二十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因大臣所啓, 緣坐爲奴罪人有翼之子及思晟子與弟, 此時不可置之西北, 竝令移配濟州事, 舉條啓下矣. 明川府緣坐爲奴罪人有翼子祖行, 利城縣緣坐爲奴罪人思晟子寬山, 慶得弟起得, 寧遠郡緣坐爲奴罪人思晟弟台應祖等,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濟州配所, 何如? 傳曰, 允.

127. 이경득(李慶得)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39년(영조 15) 5월 17일.
- 나래 연월: 1746년(영조 22) 3월 12일.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이사성〈李思晟〉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658) 1728년(영조 4) 3월 2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賊思晟妻斗愛, 孽子寬山, 次子慶得, 咸鏡道三水府竝緣坐爲奴婢, 庶母金女, 妾李女, 孽弟起得, 利城縣竝緣坐爲奴婢, 妾朴女, 孫孟宜, 次孫重宜, 孫女喜德, 平安道理山府緣坐爲奴婢, 子婦順喜, 洪原縣緣坐爲婢, 同姓三寸叔楚徵, 北青府流三千里緣坐安置, 孽弟台應祖, 寧遠府緣坐爲奴, 姪子任丕, 利城縣流三千里緣坐安置, 逆賊有翼繼母福愛, 甲山府緣坐爲婢, 妻喜貞, 女白桂, 慶源府緣坐爲婢, 同生弟鳳巖, 渭原郡緣坐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中, 或在外方云, 依例發遣府書吏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책 891) 1739년(영조 15) 5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今五月二十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因大臣所啓, 緣坐爲奴罪人有翼之子及思晟子與弟, 此時不可置之西北, 竝令移配濟州事, 舉條啓下矣. 明川府緣坐爲奴罪人有翼子祖行, 利城縣緣坐爲奴罪人思晟子寬山, 慶得弟起得, 寧遠郡緣坐爲奴罪人思晟弟台應祖等,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濟州配所, 何如? 傳曰, 允.

3) 『영조실록』(권 63) 1746년(영조 22) 3월 12일.

○ 上御仁政門, 親鞫罪人慶得, 慶得卽逆賊思晟之庶子, 爲奴於濟州者也. 曾出於穢及有弼等招, 至是拿鞫, 連日刑訊, 而終不服. 遂命義禁府推鞫.

4) 『승정원일기』(책 999) 1746년(영조 22) 3월 12일.

○ 以罪人上闕單子，傳于洪啓禧曰，只慶得上闕.

5) 『영조실록』(권 63) 1746년(영조 22) 3월 18일.

○ 行推鞠，罪人慶得刑問九次，物故.

128. 이조행(李祖行)

- 신분: 연좌(가족)
- 유배 연월: 1739년(영조 15) 5월 17일.
- 나래(사망) 연월: 1746년(영조 22) 1월 12일.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이유익<李有翼>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659) 1728년(영조 4) 4월 3일.

○ 鄭錫五, 以義禁府言啓曰, 卽接京畿監司粘移龍仁縣監所報成冊, 則逆賊樞應坐人等列錄以來, 連接南部所報成冊, 則逆賊有翼子祖行年十二, 時在鐵原地云, 而年既未滿, 依律文咸鏡道慶源府緣坐爲奴. 樞同生兄稅, 江原道蔚珍縣緣坐爲奴, 同姓侄子重杰, 蔚珍縣流三千里安置. 同生兄根, 平安道价川郡爲奴, 同姓侄子重杰·侄子福壽, 价川郡流三千里安置. 妻次蕙·妾種今·女次深·女戒深, 平海郡竝爲婢. 今右罪人等, 或在龍仁, 或在鐵原等地,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책 718) 1731년(영조 7) 2월 3일.

○ 慎無逸, 以義禁府言啓曰, … 又以義禁府言啓曰, 去十一月二十四日, 鞫廳大臣·金吾堂上請對入侍時, 西北定配罪人沓聚一處者, 必有主客俱困之弊, 自金吾, 便宜分配之意, 分付可也事, 命下矣. 西北沿邊, 連值凶荒, 罪人之一處定配者數多, 誠爲可慮. 咸鏡道甲山府逆賊瑞麟庶叔緣坐安置罪人萬謹, 移配於本道利城縣, 慶源府逆賊有翼子緣坐爲奴罪人祖行, 移配於仁川府, 富寧府逆賊培子緣坐爲奴罪人斗守, 移配於吉州牧, 平安道理山府逆賊思晟孫緣坐爲奴罪人孟宜, 移配於本道德川郡, 理山府逆賊應良叔緣坐安置罪人效徵, 移配於寧遠郡, 朔州府逆賊宗元弟緣坐爲奴罪人宗仁, 移配於雲山郡, 龍川府逆賊宗元姪緣坐安置罪人來欽, 移配於郭山郡, 渭原郡逆賊有翼弟緣坐爲奴罪人鳳巖, 移配於龜城府, 渭原郡逆賊培姪緣坐安置罪人加守, 移配於价川郡,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他餘罪人等, 追後分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책 891) 1739년(영조 15) 5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今五月二十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因大臣所啓, 緣坐爲奴罪人有翼之子及思晟子與弟, 此時不可置之西北, 竝令移配濟州事, 舉條啓下矣. 明川府緣坐爲奴罪人有翼子祖行, 利城縣緣坐爲奴罪人思晟子寬山, 慶得弟起得, 寧遠郡緣坐爲奴罪人思晟弟台應祖等,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濟州配所, 何如? 傳曰, 允.

4) 『영조실록』(권 62) 1745년(영조 21) 12월 14일.

○ 上御仁政門, 親鞫有弼, 承服. 結案以爲: 臣逢穡於郭山, 穡言, ‘思晟子及鎮紀在全羅道樂島方謀舉事, 送斗齡探來後, 吾輩與此處諸謫客, 相聚爲相應之地’ 云, 此是八月間事. 而元得處亦有酬酢, 十月念間移配時, 歷入郭山, 元得以爲, ‘事敗, 吾輩死而已’ 云矣. 臣姪祖行自島配所, 有諺書以爲, ‘無放謫之望, 欲爲謀逆, 而島人本強, 且少謫客, 磨以歲月, 可以動得’, 而使臣率西路謫客而爲謀云. 祖行則不知穡事, 而別派謀事矣. 臣見書後, 見穡而說及祖行之意, 則穡以爲 ‘待斗齡探來後, 可更相議’ 云. 臣妻祖母鄭女, 卽元得之祖母, 善爲焦易占. 占臣移配事以爲, ‘李郎有後福, 豈無更見天日之時乎?’ 云且鄭女能刺繡, 多有唐物錦段, 故欲爲五方旗幟, 使臣載去, 有所贊助逆謀之事矣. 以謀逆同參, 凌遲處斬.

5) 『영조실록』(권 62) 1745년(영조 21) 12월 25일.

○ 上召見金吾堂上, 命崇敬, 二同, 鎬, 映還配, 德夏放送. 仍命推鞫姑停, 餘并仍囚, 待祖行拿來後舉行.

6) 『영조실록』(권 63) 1746년(영조 22) 1월 12일.

○ 上御仁政門, 親鞫罪人祖行, 結案正法. 祖行卽戊申逆魁有翼之子, 朴亮漢之外孫, 以緣坐謫濟州者也. 與其叔往復書札中, 有凶言謀逆, 而刑訊不服. 但曰見叔書而知其爲謀逆, 故喜之也. 上問: “喜者何意?” 祖行發不道之言. 諸臣力請正法, 上遂從之.

7) 『승정원일기』(책 996) 1746년(영조 22) 1월 12일.

○ 李昌壽, 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祖行, 既已正刑. 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

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年歲姓名·存沒居住，令漢城府，考出帳簿·亦爲分付該道，一一查出，成冊牒報後，依律舉行，而破家瀦澤·降邑號·罷守令·籍沒家產等事，令各該司，捧承傳舉行，何如？傳曰，允.

129. 장섭(張涉)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39년(영조 15) 10월 14일.
- 이배 연월: 1743년(영조 19) 3월 28일(강진현).
- 사유: 역모 연루(양찬규〈梁纘揆〉, 양안귀〈梁眠龜〉 역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50) 1739년(영조 15) 10월 14일.

○ 上御金商門, 親鞫金漢聲. 上以爲奇怪, 非可問者, 命送本道刑配. 上以鞫事既了, 諸囚情犯, 別無更究, 詢問諸臣, 諸議皆以爲然, 遂命酌處. 東愈, 大揆, 學揆并遠配, 性澄, 碩章放送, 聖孟, 張涉島配, 蓮學以有應坐放, 前府使崔命柱削黜, 前府使權域以慰問賊招中人削職. 教曰: “亂逆之作, 何代無之, 而豈有若否德所當者乎? 逆佐, 逆隆先後於前, 就道陰慘, 戊申所無, 而於今纘賊, 眠龜不道之說而極矣. 觀於諸招, 二賊之狂狡可知. 噫! 教化誠行, 人怪焉出; 朝廷凝聚, 梟獍何售? 究厥所由, 莫非涼德. 鞫事已了, 宜先飭躬. 自今日減膳十日, 大小臣工, 咸體此意.”

2) 『승정원일기』(책 899) 1739년(영조 15) 10월 14일.

○ 申宅夏, 以義禁府言啓曰, 鞫廳罪人韓東愈, 極邊定配, 梁大揆·梁義揆, 參酌遠配, 性澄減死島配, 張涉減死絕島定配事, 承傳啓下矣. 韓東愈, 平安道龍川府極邊定配, 梁大揆, 鐵山府遠配, 梁義揆, 宣川府遠配, 性澄, 全羅道珍島郡減死島配, 張涉, 濟州牧減死絕島定配. 而因承傳內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8일.

○ 李命坤, 以義禁府言啓曰, 今此疏決單子中, 錦城縣出陸罪人尹志, 放黜田里, 禁錮終身, 康津縣薪智島島配罪人禮業, 珍島郡島配罪人玉丁, 南海縣島配罪人順賓, 巨濟府島配罪人忠今等, 其時關係至重, 事由駭憤, 其雖特教, 律者王者所慎, 無於律之律, 創施則後弊不可不顧, 更依法文勘律. 錦城縣黑山島島配罪人李春苾·件里金等, 此亦由於駭憤,

施以無於律之律，此等之時，宜有參酌。考其律文，以應坐律施行。鐵山府遠配罪人梁大揆，放。濟州牧島配罪人張涉出陸。迎日縣遠配罪人楊聖揆，放。明川府定配罪人梁義揆，減等。忠原縣量移罪人樁，減等。巨濟府島配罪人甲姝·呂善喆，放。濟州牧島配罪人金遠材，關係莫重，所犯，雖駭憤，其時帳問，非渠僞創，事由其父，而無他可問處故也。雖然既問之後，不可不嚴處，渠之得活，蓋由於此。特命島配，亦由於此，而大訓之後，國是大定，此等枝葉，不過孤雛。追惟昔年，宜有參酌，仍其勿限年之目，特爲出陸。江西縣徒配罪人金鼎位，洪州牧龍谷驛徒配罪人入人燦，放送事，付標啓下矣。梁大揆·楊聖揆·甲姝·呂善喆·金鼎位·入人燦等，放送。梁義揆減等，以徒三年改錄之意，分付各該道，而尹志，放黜田里事，樁減等事，及定配身死未蒙放罪人，放秩中李明彥事，方有臺啓，竝不得舉行。張涉，全羅道康津縣出陸。金遠材，羅州牧出陸，而因前罪目，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各其配所。至於禮業·玉丁·順賓·忠今等，勘律事，及李春苾·件里金等，應行律施行事，取考律文，謀反大逆條云。若女許嫁，已定歸其夫，此以下爲外人，俱不緣坐，又無犯逆女人之夫應坐之法文，則今無可以更依之法文，竝置之，何如？傳曰，允。

130~134. 이복기(李復基/李復箕), 박경하(朴景河), 장좌익(張佐翼),
수례(守禮)<여>, 애춘(愛春)<여>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1740년<영조 16> 2월 30일/1743년<영조 19> 6월 13일 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907) 1740년(영조 16) 2월 30일.

○ 至李復箕事, 上曰, 仍. 至朴景河事, 上曰, 仍. 至金世樞事, 上曰, 仍. 此漢夏着耳掩矣. 金在魯曰, 踰越宮牆, 罪犯至重, 不可不仍也. 上曰, 仍. 至奴太山事, 上曰, 仍. 至張佐翼事, 上曰, 仍. 至守禮·愛春等事, 金在魯曰, 此是臺啓中, 萊府兩女人事也. 上曰, 仍.

2)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濟州三邑定配秩李復基, 上曰, 仍. 更考懸注. 在魯曰, 如是猝猝文書, 亦未及看閱, 殊欠詳審矣. 朴世太, 上曰, 仍. 奴次敬, 上曰, 減等. 後因稟啓, 改以放 朴景河, 上曰, 仍. 金世樞, 上曰, 仍. 張佐翼, 上曰, 仍. 守禮·愛春, 上曰, 竝仍. 金兌元, 上曰, 仍. 金處洙, 上曰, 仍. 未至配所秩朴金昱, 上曰, 放. 文昌瑞, 上曰, 仍. 宋濟命, 上曰, 仍. 陸宗敬, 上曰, 仍. 崔祉敬, 上曰, 放. 李東植, 上曰, 放. 奴俊石, 上曰, 放. 金世雄, 上曰, 仍. 奴老味, 上曰, 放. 表哲周. 羽良曰, 此漢, 以刀刺人, 常常爲之矣. 上曰, 仍. 崔時昌, 上曰, 仍.

3) 『승정원일기』(책 959) 1743년(영조 19) 6월 13일.

○ 全羅道刑案徒年秩, … 睦宗敬·(韓守天·金就聲·崔益奉). 上曰, 竝放. … 金世雄. 上曰, 仍. … (崔友齊·李孝徵)·文昌瑞·(安世垺·金允河·張得清·金振采·李以雄·卞興玉). 上曰, 竝放. 宋濟命·(朴泰玄). 上曰, 竝放. … 李復箕·朴世太. 上曰, 竝仍. 金世樞. 上曰, 出陸. 張左翼·守禮·愛春. 上曰, 竝仍. 金兌元·(金交珠·奴有卜)·表哲柱. 上曰, 竝仍.

135. 박세태(朴世太)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1740년<영조 16> 3월 1일 이전).
- 해배 연월: 미상(1743년<영조 19> 6월 13일 유배 중)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908) 1740년(영조 16) 3월 1일.

○ 至全羅道全家定配罪人 … 至朴世太事, 上曰, 仍.

2)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濟州三邑定配秩李復基, 上曰, 仍. 更考懸注. 在魯曰, 如是猝猝文書, 亦未及看閱, 殊欠詳審矣. 朴世太, 上曰, 仍. 奴次敬, 上曰, 減等. 後因稟啓, 改以放. 朴景河, 上曰, 仍. 金世樞, 上曰, 仍. 張佐翼, 上曰, 仍. 守禮·愛春, 上曰, 竝仍. 金兌元, 上曰, 仍. 金處洙, 上曰, 仍. 未至配所秩朴金玆, 上曰, 放. 文昌瑞, 上曰, 仍. 宋濟命, 上曰, 仍. 陸宗敬, 上曰, 仍. 崔祉敬, 上曰, 放. 李東植, 上曰, 放. 奴俊石, 上曰, 放. 金世雄, 上曰, 仍. 奴老味, 上曰, 放. 表哲周. 羽良曰, 此漢, 以刀刺人, 常常爲之矣. 上曰, 仍. 崔時昌, 上曰, 仍.

3) 『승정원일기』(책 959) 1743년(영조 19) 6월 13일.

○ 全羅道刑案徒年秩, … 睦宗敬·(韓守天·金就聲·崔益奉). 上曰, 竝放. … 金世雄. 上曰, 仍. … (崔友齊·李孝徵)·文昌瑞·(安世壘·金允河·張得清·金振采·李以雄·卞興玉). 上曰, 竝放. 宋濟命·(朴泰玄). 上曰, 竝放. … 李復箕·朴世太, 上曰, 竝仍. 金世樞. 上曰, 出陸. 張左翼·守禮·愛春. 上曰, 竝仍. 金兌元·(金交珠·奴有卜)·表哲柱. 上曰, 竝仍.

136. 김원재(金遠材)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40년(영조 16) 11월 2일.
- 이배 연월: 1743년(영조 19) 3월 28일(나주목).
- 사유: 어시(御詩) 위조(백망<白望>) 전달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52) 1740년(영조 16) 11월 2일.

○ 上御仁政門, 將鞫遠材, 福澤等, 先命諸大臣及判義禁, 入侍于幄次. … 又鞫金遠材, 加刑訊問, 遠材供如前, 以見欺白望爲供. 上曰: “僞詩非虎龍, 則乃喜之所爲也.” 諸臣皆言: “此是常漢之作, 尺童亦可辨.” 上將酌處遠材, 問諸大臣, 大臣知上意傳生議, 亦不敢爭. 遂命配遠材于海島, 福澤下王府鞫之.

2) 『승정원일기』(책 924) 1740년(영조 16) 11월 2일.

○ 上曰, 金遠材, 海島勿限年減<死>定配, 可也. 出學條 上曰, 罪人解枷, 脫蒙頭下之. 渠之誣詩, 非但誣當宁, 誣及於不敢言之地, 罪死無惜, 而渠既稚昧, 亦已承款, 故參酌減死矣.

3) 『영조실록』(권 57)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行疏決. 上曰: “赦令, 只是文具. 今當大霈, 又無其實, 則是欺民也. 卿等體此意, 必惕念審克也.” 判義禁趙尙綱, 歷舉諸罪人以奏, 事關戊申逆獄者竝仍, 而跡涉疑晦者皆放, 閔允昌出陸, 尹志放黜田里禁錮終身, 物故罪人明彦·觀厚竝放, 金遠材減等出陸.

4)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金遠材, 上曰, 此則爲其父所欺也. 島配何如? 顯命曰, 關係重矣. 在魯曰, 於渠, 有何可痛者乎? 渠則實不知矣. 顯命曰, 以渠父事, 殺之則似過, 故當初, 亦以此達之矣. 上曰, 此是問於渠父之事, 而渠父死矣, 無可問處, 故問之於渠也. 其時都事所搜文書中, 有內降諺

文手札, 蓋是金萬重處賜書, 而以家人禮待之者也. 予於其日, 始得見手筆, 垂涕而納之慈殿, 慈殿, 奉而藏之矣. 予之爲先苦心, 渠輩豈能知之? 若用常規, 則雖放, 亦可爲之, 而卽今規模, 不可用常規, 勿限年之目, 豈能免乎? 命書傳旨曰, 關係莫重, 所犯雖駭憤, 其時帳問, 非渠僞創, 事由其父而無他可問處故也. 雖然, 旣問之後, 不可不嚴處, 渠之得活, 蓋由於此, 特命島配, 亦由於此, 而大訓之後, 國是大定, 此等枝葉, 不過孤雛. 追惟昔年, 宜有參酌, 仍其勿限年之目, 特爲出陸.

5)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8일.

○ 李命坤, 以義禁府言啓曰, 今此疏決單子中, … 濟州牧島配罪人金遠材, 關係莫重, 所犯, 雖駭憤, 其時帳問, 非渠僞創, 事由其父, 而無他可問處故也. 雖然旣問之後, 不可不嚴處, 渠之得活, 蓋由於此. 特命島配, 亦由於此, 而大訓之後, 國是大定, 此等枝葉, 不過孤雛. 追惟昔年, 宜有參酌, 仍其勿限年之目, 特爲出陸. … 付標啓下矣. … 金遠材, 羅州牧出陸, 而因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各其配所. … 傳曰, 允.

137. 박사대(朴師大)

- 신분: 가족(연좌)<무신년 역적 박필현(朴弼顯) 아들>
- 유배 연월: 1740년(영조 16) 12월 26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배소<진도> 무단이탈)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52) 1740년(영조 16) 12월 17일.

○ 遣禁府都事, 拿湖南罪囚魯澤. 時湖南有魯澤者, 因山訟, 入營獄, 將刑, 自謂告變, 遂引朴師大, 師寬謂謀逆. 兩人乃戊申賊弼顯子姪也. 監司狀聞, 上問諸臣曰: “設鞫則有傷國體, 宜遣御史究覈.” 大臣及諸臣皆請拿鞫, 從之.

2) 『영조실록』(권 52) 1740년(영조 16) 12월 20일.

○ 命拿問羅州牧使李普昱, 珍島縣監閔塏. 領議政金在魯奏曰: “戊申逆屬之緣坐者, 以年久之故, 禁防全疎. 年前師純之擅離配所, 已極驚駭, 而今者師大又有擅行之舉. 羅州牧使及地方官宜拿問定罪.” 上許之.

3) 『영조실록』(권 52) 1740년(영조 16) 12월 26일.

○ 命鞫囚魯澤減死島配. 時魯澤拿致禁府鞫之, 虛妄無端緒. 大臣白其狀, 上欲酌處問大臣, 皆請遠配絕島, 從之. 師大則以緣坐罪人, 擅離配所, 出入京中, 移配于濟州. 師大之妻父參判李春躋以留接師大, 始拿處後又定配. 李普昱, 閔塏以不禁罪謫人之擅離, 亦配于遠地.

4) 『승정원일기』(책 925) 1740년(영조 16) 12월 26일.

○ 寅明曰, 魯澤之言, 雖歸虛罔, 而師大之以逆賊緣坐, 擅離配所, 出入京鄉, 極爲放恣無嚴. 不可仍置其處, 宜令移配濟州矣. 上曰, 依爲之. 出舉條

138. 임상악(林象岳)

- 신분: 관리(내자시 봉사)
- 유배 연월: 1741년(영조 17) 3월 5일.
- 해배(이배) 연월:
- 사유: 범죄(배소<진도> 무단이탈)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53) 1741년(영조 17) 2월 27일.

○ 珍島郡定配罪人林象岳, 擅離配所, 乘曉乘舸而出, 監司權燦狀聞之, 上命移配象岳于濟州.

2) 『승정원일기』(책 928) 1741년(영조 17) 2월 28일.

○ 在魯曰, 今觀全羅監司權燦狀啓, 則珍島郡定配罪人林象岳, 擅離配所, 乘曉騎舸, 出往務安本家云. 其後捉得, 還配與否, 姑未知之. 而珍島以朴師大事, 生事屬耳. 象岳又爲擅出, 可謂放恣矣. 郡守朴琰, 雖不給由, 而常時不能檢飭之罪, 在所難免, 拿問宜矣. 顯命曰, 朴師大出後, 又有此事, 不可無罰矣. 上曰, 依爲之. 此乃補外者耶? 在魯曰, 向日權賢所啓請遞者也. 上曰, 於此時尤宜慎也. 在魯曰, 觀此則象岳, 亦當施罪矣. 上曰, 象岳則渠當不齒人類, 終身島中, 何可自同平人? 事極無據. 移配極島, 可也. 在魯曰, 然則當移配濟州乎? 上曰, 依爲之. 出學條

3) 『승정원일기』(책 929) 1741년(영조 17) 3월 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珍島郡緣坐爲奴定配罪人象岳, 移配濟州事, 學條啓下矣. 凡緣坐罪人之擅離配所者, 嚴刑一次, 移配絕島, 已有定式. 今此象岳, 依定式, 分付道臣, 嚴刑一次後,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139~144. 차경(次敬), 박금돌(朴金堧), 준석(俊石), 노미(老味),
최지경(崔祉敬), 이동식(李東植)

- 신분: 노비(차경<次敬>/박금돌<朴金堧>/준석<俊石>/노미<老味>), 미상(최지경<崔祉敬>/이동식<李東植>)
- 유배 연월: 미상(1743년<영조 19> 3월 20일 이전)
- 해배 연월: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濟州三邑定配秩李復基, 上曰, 仍.更考懸注.在魯曰, 如是猝猝文書, 亦未及看閱, 殊欠詳審矣.朴世太, 上曰, 仍.奴次敬, 上曰, 減等.後因稟啓, 改以放 朴景河, 上曰, 仍.金世樞, 上曰, 仍.張佐翼, 上曰, 仍.守禮·愛春, 上曰, 竝仍.金兌元, 上曰, 仍.金處洙, 上曰, 仍.未至配所秩朴金堧, 上曰, 放.文昌瑞, 上曰, 仍.宋濟命, 上曰, 仍.陸宗敬, 上曰, 仍.崔祉敬, 上曰, 放.李東植, 上曰, 放.奴俊石, 上曰, 放.金世雄, 上曰, 仍.奴老味, 上曰, 放.表哲周.羽良曰, 此漢, 以刀刺人, 常常爲之矣.上曰, 仍.崔時昌, 上曰, 仍.

145~147. 문창서(文昌瑞), 송제명(宋濟命),
육종경(陸宗敬)<목종경(睦宗敬)>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1743년<영조 19> 3월 20일 이전)
- 해배 연월: 1743년(영조 19) 6월 13일.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濟州三邑定配秩李復基, 上曰, 仍.更考懸注.在魯曰, 如是猝猝文書, 亦未及看閱, 殊欠詳審矣.朴世太, 上曰, 仍.奴次敬, 上曰, 減等.後因稟啓, 改以放 朴景河, 上曰, 仍.金世樞, 上曰, 仍.張佐翼, 上曰, 仍.守禮·愛春, 上曰, 竝仍.金兌元, 上曰, 仍.金處洙, 上曰, 仍.未至配所秩朴金玆, 上曰, 放.文昌瑞, 上曰, 仍.宋濟命, 上曰, 仍.陸宗敬, 上曰, 仍.崔祉敬, 上曰, 放.李東植, 上曰, 放.奴俊石, 上曰, 放.金世雄, 上曰, 仍.奴老味, 上曰, 放.表哲周.羽良曰, 此漢, 以刀刺人, 常常爲之矣.上曰, 仍.崔時昌, 上曰, 仍.

2) 『승정원일기』(책 959) 1743년(영조 19) 6월 13일.

○ 全羅道刑案徒年秩, … 睦宗敬·(韓守天·金就聲·崔益奉).上曰, 竝放. … 金世雄.上曰, 仍. … (崔友齊·李孝徵)·文昌瑞·(安世垕·金允河·張得清·金振采·李以雄·卞興玉).上曰, 竝放. 宋濟命·(朴泰玄).上曰, 竝放. … 李復箕·朴世太.上曰, 竝仍.金世樞.上曰, 出陸.張左翼·守禮·愛春.上曰, 竝仍.金兌元·(金交珠·奴有卜)·表哲柱.上曰, 竝仍.

148~149. 김처수(金處洙), 최시창(崔時昌)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1743년<영조 19> 3월 20일 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濟州三邑定配秩李復基, 上曰, 仍.更考懸注.在魯曰, 如是猝猝文書, 亦未及看閱, 殊欠詳審矣.朴世太, 上曰, 仍.奴次敬, 上曰, 減等.後因稟啓, 改以放 朴景河, 上曰, 仍.金世樞, 上曰, 仍.張佐翼, 上曰, 仍.守禮·愛春, 上曰, 竝仍.金兌元, 上曰, 仍.金處洙, 上曰, 仍.未至配所秩朴金玆, 上曰, 放.文昌瑞, 上曰, 仍.宋濟命, 上曰, 仍.陸宗敬, 上曰, 仍.崔祉敬, 上曰, 放.李東植, 上曰, 放.奴俊石, 上曰, 放.金世雄, 上曰, 仍.奴老味, 上曰, 放.表哲周.羽良曰, 此漢, 以刀刺人, 常常爲之矣.上曰, 仍.崔時昌, 上曰, 仍.

150~152. 김태원(金兌元), 김세웅(金世雄), 표철주(表哲周)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1743년<영조 19> 3월 20일/6월 13일 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표철주, 범죄<상습 살인>)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濟州三邑定配秩李復基, 上曰, 仍.更考懸注.在魯曰, 如是猝猝文書, 亦未及看閱, 殊欠詳審矣.朴世太, 上曰, 仍.奴次敬, 上曰, 減等.後因稟啓, 改以放 朴景河, 上曰, 仍.金世樞, 上曰, 仍.張佐翼, 上曰, 仍.守禮·愛春, 上曰, 竝仍.金兌元, 上曰, 仍.金處洙, 上曰, 仍.未至配所秩朴金玆, 上曰, 放.文昌瑞, 上曰, 仍.宋濟命, 上曰, 仍.陸宗敬, 上曰, 仍.崔祉敬, 上曰, 放.李東植, 上曰, 放.奴俊石, 上曰, 放.金世雄, 上曰, 仍.奴老味, 上曰, 放.表哲周.羽良曰, 此漢, 以刀刺人, 常常爲之矣.上曰, 仍.崔時昌, 上曰, 仍.

2) 『승정원일기』(책 959) 1743년(영조 19) 6월 13일.

○ 全羅道刑案徒年秩, … 睦宗敬·(韓守天·金就聲·崔益奉).上曰, 竝放. … 金世雄.上曰, 仍. … (崔友齊·李孝徵)·文昌瑞·(安世垕·金允河·張得清·金振采·李以雄·卞興玉).上曰, 竝放. 宋濟命·(朴泰玄).上曰, 竝放. … 李復箕·朴世太.上曰, 竝仍.金世樞.上曰, 出陸.張左翼·守禮·愛春.上曰, 竝仍.金兌元·(金交珠·奴有卜)·表哲柱.上曰, 竝仍.

153. 임정(任琎)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45년(영조 21) 6월 26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무신년 역적 임환<任環> 형, 흑세자행<惑世恣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8) 1728년(영조 4) 5월 2일.

○ 命義禁府, 祕關咸鏡監營, 捉囚任環兄琎. 琎方在咸鏡監司權益寬幕下也, 後定配.

2) 『승정원일기』(책 661) 1728년(영조 4) 5월 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查出帳籍及當部成冊, 則大逆不道罪人環, 應坐諸人, 列錄以來矣. 環妻李女, 女寬美, 忠清道文義縣, 竝緣坐爲婢, 妾善香, 子盤麟, 年四, 次子, 今年生, 俱是年未滿, 全羅道南平縣, 竝爲奴婢, 同生兄琎, 慶尙道豐基郡爲奴, 姪子泰壘, 豐基郡流三千里安置, 兄璐, 順興府爲奴, 兄璟, 榮川郡爲奴, 姪子著孫, 榮川郡流三千里安置. 連接驪州牧使牒服, 則逆賊胤祖女戊愛, 捕捉囚禁云, 戊愛, 黃海道文化縣緣坐爲婢, 而右罪人等, 或在囚禁中, 或下去咸興·文川等地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책 901) 1739년(영조 15) 11월 5일.

○ (掌令) 韓鳳朝曰, 豐基緣坐罪人任琎, 本以妖惡凶狡之人, 藉其醫術, 行己陰祕, 年前潛奸士夫所棄之妾, 至發臺啓, 受刑竄配, 及至戊申, 闔族爲逆, 情節狼藉. 渠之至今得保首領, 已是失刑之大者, 而到配之後, 不悛舊惡, 蓋肆巧慝, 白晝大道之中, 劫奪賓姓良女之寡女, 一道之人, 無不扼腕而語. 稱以看病, 擅離謫所, 橫行於列邑守宰之間, 故人莫敢誰何, 終至掩置不發. 此等關係既重, 不可不一番明覈, 請豐基緣坐罪人任琎, 令本道嚴加究覈, 依律重勘. 上曰, 依啓. 傳啓措語見上.

4) 『승정원일기』(책 986) 1745년(영조 21) 5월 8일.

○ 上曰, 任理事, 何如? 尙迪曰, 良女恟奸, 擅離謫所罪, 而所謂良女恟奸, 則厥女自謂非良女, 且行媒云, 故此罪則已爲脫空, 而其擅離謫所罪, 則似不可免矣. 上曰, 初以何罪被謫乎? 尙迪曰, 以任環之弟, 緣坐委[爲]奴矣. 上曰, 此人以醫術見稱, 而曾前洪啓迪之所刑推者乎? 予亦見其爲人, 似甚不美, 而曾前出入於局坊矣. 尙迪曰, 其良女恟奸之罪, 則行媒受諾之事, 已有證左, 誠似可冤. 鄭益河爲監司, 亦以冤狀狀請, 而右相防塞云. 右相則峻執, 而臣意則如此, 故書啓以輕議傳之矣. 顯命曰, 任理在京時, 亦盜人妾者, 而以逆賊緣坐, 謫去矣, 又恟良女, 終始不悛其舊惡, 故臺啓出而欲爲民除害. 鄭益河下去時, 必欲殺之云矣, 及其下去後, 以爲非恟奸, 乃和奸云云, 而狀請傳生. 臣果於其時, 嚴塞之矣, 其後尙未嚴覈云, 誠爲慨然. 此人以其醫術, 眩惑一世, 橫行於士大夫之家, 故終不得一次嚴刑云矣. 前後方伯守令, 皆食其藥, 視以華·扁, 待以恩人, 誰能守法治罪乎? 在魯曰, 臣爲方伯, 亦知其妖惡, 故終不近之矣. 上曰, 此人尙有形勢乎? 顯命曰, 監司·守令, 皆愛惜之, 此其形勢當何如也? 上曰, 此等事, 予亦峻論矣. 顯命曰, 良女恟奪之罪, 不可不嚴刑得情矣. 在魯曰, 任理則無狀, 而但其子頗孝, 故善爲周旋, 得免其父之嚴刑云矣. 上曰, 任理予欲杖殺矣, 其子爲孝云, 予意感動而稍緩矣. 任理刑問三次後, 島配, 似好矣. 頃日鄭益河過驪州時, 有一小兒, 失父呼訴, 而以其事上聞, 故下于刑曹查覈矣. 其時何以爲之耶? 刑判若入直, 則使之入侍, 欲問此事, 刑判不入, 故未果. 承旨出去後, 問于該曹, 後日登對, 達之爲可. 予於此等處, 不無感動, 故任理, 將以此得生矣. 尙迪曰, 任理之子, 不但有孝, 醫術極善. 小臣在統營時得重病, 亦飲其藥二貼, 而得神效矣. 顯命曰, 審理使亦服其藥, 所以不得刑推也. 上曰, 其藥何物乎? 尙迪曰, 人蔘·桂枝多入矣. 上曰, 極峻劑也. 其醫術似是霸術, 只服二貼, 適善爲矣, 若多服則必易有害矣. 尙迪曰, 臣雖不用任理之藥, 而猶服其子之藥矣, 今聞大臣所達, 臣甚惶愧矣. 顯命曰, 靈城君朴文秀, 爲其方伯時, 病重頗危, 有人謂曰, 任理在近, 若服其藥, 則必有得效云云. 文秀方昏臥而聞此言, 驚起叱之曰, 兩班寧死, 豈服任理之藥乎? 終不招問云. 蓋朴文秀是可貴之人矣. 上曰, 靈城事, 必能如此矣. 道臣·守令之終不能刑推其人, 實爲慨然, 而審理使亦甚弱矣. 顯命曰, 道臣·守令, 皆服其藥, 顧惜無怪矣. 尙迪曰, 臣亦服其藥, 不勝慙愧矣. 在魯曰, 此人人物, 極爲妖惡, 雖其醫術甚高, 決非可近之人, 尤不可或用於局坊矣. 上曰, 予亦甚惡其人. 若有聞欲用其藥於予, 則予亦驚起而叱之矣. 且以審理使所服藥見之, 其藥甚峻, 決不可輕用. 前日, 故

領相李光佐謂予曰，殿下欲服附子云，是否？如此峻藥，決不可用。若聞殿下將服附子，則臣雖在鄉，當急來力爭云云，其言乃慎重之道也。任瑄之藥，決非可服之藥矣。仍命書傳旨曰，今者嶺南審理使殺獄狀本，下該司，就議大臣，待下教登對，稟處，而其中任瑄事，當初道臣之請，蓋爲執法，而其後道臣，尙今遲滯，已涉太寬，而今者審理使，亦傳輕議，俱涉過矣。竝推考。瑄之尙今食息於覆載，於渠寬典，則不悛舊習，以爲奴之人，恣行縱淫，其狀節節可駭。良賤不足問也，受諾之說，亦何信也？噫，今者審理，蓋由欽恤。宜體臯陶曰殺帝曰宥之典，豈可峻也？而除其惑世，王政之大者，去其不逞，爲國之先務，其當仍令嚴刑取服，雖杖殺奚惜？而聞大臣陳達，其子可尙。王者以孝爲治，予意亦不無動，而然此等不有國法，惑世恣行之類，不可不尋常酌處。令道臣嚴刑三次，啓聞後，其令該府，海島爲奴。書訖。

5) 『승정원일기』(책 987) 1745년(영조 21) 6월 26일.

○ 金尙迪，以義禁府言啓曰，慶尙道豐基郡緣坐爲奴罪人任瑄，不有國法，惑世恣行罪，令道臣嚴刑三次後，更移海島事，舉條啓下，故發關，分付於諸道道臣矣。罪人任瑄，既施三次嚴刑事，啓本已下，移配於濟州牧，而渠方見囚於嶺南營獄，依例發遣府羅將，仍令押送配所，何如？傳曰，允。

154. 이다치(李多致)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45년(영조 21) 10월 20일.
- 나래(사망) 연월: 1745년(영조 21) 11월 12일 이전(1745년<영조 21> 12월 25일).
- 사유: 연좌(역적 이하<李河>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993) 1745년(영조 21) 10월 20일.

○ 金光世, 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西北邊地逆賊緣坐罪人抄出移配絕島事, 命下矣. 平安道鐵山府爲奴罪人逆賊河子多致, 移配濟州牧. 逆賊弼夢姪師讓, 移配全羅道旌義縣. 龜城府爲奴罪人逆賊有翼弟鳳巖, 移配大靜縣. … 咸鏡道 … 富寧府爲奴罪人逆賊培子福守, 移配大靜縣. 茂山府爲奴罪人逆賊天海弟萬海, 移配濟州牧. … 而右罪人等, 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영조실록』(권 62) 1745년(영조 21) 11월 12일.

○ 上御仁政門, 親鞫南翼漢, 車道林, 李述, 李富, 李自得, 李多致, 刑訊不服. 述, 富, 自得三兄弟, 卽穡之從弟也; 多致卽戊申逆河之子也. 多致所供以爲: “臣則無通知諸賊之事, 臣之表叔朴泰容抵書于臣曰, ‘聞穡告變西北諸罪人逆謀云, 汝則年幼, 何以知? 若或移配, 必預治行’ 云矣.” 上曰: “泰容誰耶?” 領議政金在魯曰: “先正臣朴世采從姪, 方爲蔭仕矣.” 上以漏洩鞫事, 命該府拿問泰容.

3) 『영조실록』(권 62) 1745년(영조 21) 12월 25일.

○ 光遠, 敏泰, 德載, 自得, 多致, 泰興, 秀采, 運泰, 望得, 福壽 并物故.

155. 이만해(李萬海)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45년(영조 21) 10월 2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천해〈李天海〉동생)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993) 1745년(영조 21) 10월 20일.

○ 金光世, 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西北邊地逆賊緣坐罪人抄出移配絕島事, 命下矣. **平安道鐵山府爲奴罪人逆賊河子多致, 移配濟州牧.**逆賊弼夢姪師讓, 移配全羅道旌義縣. 龜城府爲奴罪人逆賊有翼弟鳳巖, 移配大靜縣. … 咸鏡道 … 富寧府爲奴罪人逆賊培子福守, 移配大靜縣. **茂山府爲奴罪人逆賊天海弟萬海, 移配濟州牧.** … 而右罪人等, 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56. 김우태(金遇兌)

- 신분: 관리(사천현감)
- 1차 유배 연월: 1747년(영조 23) 5월 23일~1748년(영조 24) 1월 17일(나래).
- 2차 유배 연월: 1748년(영조 24) 2월 28일~1752년(영조 28) 7월 18일(해배).
- 사유: 지방관 폭정(백성 침탈)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65) 1747년(영조 23) 5월 23일.

○ 命金遇兌 濟州牧勿限年定配. 藥房提調元景夏奏, 以遇兌以牟利名, 南北之民, 受害最甚故也.

2) 『승정원일기』(책 1025) 1748년(영조 24) 1월 17일.

○ 金遇兌, 自前貽害南北之民, 罔有紀極, 尙此往來湖南, 扶安經理廳所屬田畓, 作爲私橐, 憑公營私, 無所不至矣. 申飭道臣, 各別嚴禁, 好矣. 上曰, 遇兌尙能如此耶? 予聞如許之言, 則不覺蹶然而起矣. 仍命書傳教. 上曰, 爲民除害, 若爲農祛蠹賊也. 噫, ■■年金遇兌之恣意牟利, 流害湖南一道之民, 欲食其肉, 曾聞深矣. 尙今戴頭於覆載之間, 可謂國之寬典, 而頃年北道賑民也. 聞此名, 意以爲不過免法餘息. 今聞猶尙往來於湖南, 爲弊不貲云, 渠若有一毫嚴畏國法之心, 焉敢若此. 昔西門豹, 沈一巫於江中, 而鄴民賴焉, 西門豹, 不過一邑令, 而其猶爲民除害, 況爲其君, 而爲其一道之民乎? 以此推之, 非徒湖南, 此等牟利之際, 貽害他道, 可以推知. 頃年北賑, 亦不無南北貽害之端, 衆民嗷嗷於蔀屋, 遇兌自若於京中, 曰有國綱. 金遇兌, 其令秋曹, 濟州牧大靜縣, 勿限年定配, 申飭湖南及諸道, 稱以遇兌之已物, 侵微小民者, 切勿聽施. 出傳教

3) 『승정원일기』(책 1025) 1748년(영조 24) 1월 17일.

○ 權相一, 以義禁府言啓曰, 忠清道監司狀啓, 據刑曹粘目內, 泗川前縣監金遇兌, 移本府處置事, 允下矣. 金遇兌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之意, 敢啓. 知道.

4) 『승정원일기』(책 1026) 1748년(영조 24) 2월 28일.

○ 至金遇兌事.判義禁金始炯曰, 所爲無據矣.上曰, 何事也? 領議政金在魯曰, 爲泗川倅時, 以奸吏偷竊事, 瞞報營門罪也.上曰, 然則其所謂戊申軍功, 亦可疑矣.邊遠定配, 可也.

5) 『승정원일기』(책 1073) 1751년(영조 27) 8월 23일.

○ 上曰, 金遇兌, 今何在也? 象漢曰, 今番赦典見放矣.上曰, 其然乎? 文案, 注書取來.上命書傳教曰, 頃年金遇兌, 處分若何? 而又命勿揀赦典, 則今聞倅放, 疾之已甚, 聖人所戒.頃者貪吏, 亦不更配, 則其復配過矣.渠雖被放, 決不可以恒人處之.此後雖幕下及差人, 復爲引用者, 備局與耳目之臣, 隨聞請重繩引用者, 遇兌, 亦請島配.直置放中之牧使鄭彥儒, 罷職.不察回啓之秋官, 從重推考.出楊教

6) 『승정원일기』(책 1084) 1752년(영조 28) 7월 9일.

○ 右議政李天輔曰, 國綱之陵夷, 臣旣陳達於初筵, 而雖以金遇兌事言之, 誠極寒心.遇兌之特配絕島, 實出於聖上爲民除害之意, 而昨年赦典, 直入於放秩,今乃晏然肆行於都下, 作弊多端云, 其時道臣及該曹堂上, 竝從重推考, 而遇兌則更爲勿限年, 定配, 何如? 上曰, 金遇兌島配, 乃是特教, 而況勿限年, 則今日少有國綱, 遇兌蒙放, 復肆行於都下乎?紀綱攸在, 不可不嚴處, 其時當該道臣·秋判, 竝從重推考, 遇兌, 嚴刑一次後還配.出學條

7) 『승정원일기』(책 1084) 1752년(영조 28) 7월 18일.

○ 右議政李天輔曰, 此近來疏章陳語, 何必以此爲嫌乎? 又啓曰, 臣頃以金遇兌事, 有所陳達.自上有刑推還配之教, 而今聞遇兌, 年方七十云, 七十停刑, 法典所載, 何以爲之?上曰, 法不可創開, 除刑推還配, 可也.出學條

157. 이수홍(李壽弘)

- 신분: 무과(출신)
- 유배 연월: 1748년(영조 24) 3월 7일.
- 이배 연월: 1751년(영조 27) 4월 29일(여산(礪山)).
- 사유: 범죄(여성 겁간)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015) 1747년(영조 23) 4월 2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刑曹啓目內, 劫奸罪人出身李壽弘, 移本府處置事, 允下矣. 壽弘自刑曹移送本府, 依例着枷杻足鎖, 嚴囚南間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영조실록』(권 67) 1748년(영조 24) 3월 7일.

○ 命李壽弘減死島配. 壽弘, 京城無賴人也, 夜從其徒三人縱飲, 道逢女子, 劫而奸之. 自捕廳移送秋曹, 女子始供: “三人更淫.” 復供: “淫之者, 壽弘一人.” 所供相左. 壽弘刑十餘次, 不服, 上問諸臣, 皆曰殺無赦. 又下大臣議, 領議政金在魯請論如法, 左議政趙顯命, 獨傳生, 會大赦, 遂命島配.

3) 『승정원일기』(책 1067) 1751년(영조 27) 4월 29일.

○ 魚錫胤, 以義禁府言達曰, 因濟州牧使放未放申本府回達, 濟州牧定配罪人李壽弘量移事, 達下矣. 李壽弘, 全羅道礪山府量移,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 又以兵曹言啓曰, 在前別歲抄時, 有準期不敘書入之例, 今番則何以爲之? 敢稟. 傳曰, 依爲之.

158. 이증(李增)

- 신분: 종실(여천군(驪川君))
- 유배 연월: 1749년(영조 25) 10월 8일.
- 사망 연월: 1752년(영조 28) 6월 17일.
- 사유: 역모 혐의(투서)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68) 1748년(영조 24) 11월 9일.

○ 夜, 驪川君 增請對, 入奏曰: “臣家有驚心之事. 冬至祭後見廟龕中, 有投書之變, 朱書而封之. 有曰, ‘開則萬人和悅, 不開則一人自靜,’ 語極妖慘. 臣之三叔姪, 視之大驚, 卽投之火. 權嵒者, 臣家外孫也. 臣憐其早孤稚駿, 遇之如子, 冬至翌日過去, 後二日又來, 忽問曰, ‘此有故訓戒之辭乎?’ 曰 ‘無.’ 又問 ‘有夢兆乎?’ 曰 ‘無.’ 又問, ‘有逆天理之事乎?’ 曰 ‘無.’ 嵒曰, ‘於吾家庭中, 婢得一封書.’ 臣始疑怪, 固問不已, 則久而後告其辭曰, ‘天以辭訓, 祖以傳訓吉之多也, 人逆孫逆, 吉變爲凶. 嗚呼! 吾神將何依將何依? 索辭于增, 慎獻于天, 而書之于絳色木錦’ 云, 書語又極妖慘. 臣問, ‘汝獨見乎?’ 則謂 ‘示其從權縑, 權崇亦同見, 縑之言曰, ‘書中增字, 乃驪川名也,’ 謂嵒: ‘汝往驪川家, 但問有何事, 無事則可火此書’ 云. 臣自遭此事, 晝不能食, 夜不能眠.” 仍涕泣, 上曰: “予之近親獨卿在, 而又如是, 世道叵測矣. 此則與闕門投書有異, 作爲驪川祖先之語, 旨意陰惡. 而兩家一串貫來, 明是一人之事. 顧何以得捕乎?” 乃飭三軍門大將, 左右捕將, 申嚴夜禁, 戒入侍承, 史, 毋或傳播此說.

2) 『영조실록』(권 70) 1749년(영조 25) 7월 11일.

○ 憲府【持平李翼元.】申前達, 不從. 又達: “向來宗臣家投書, 實史牒所無之妖變. 爲人臣而遭此, 宜驚心痛骨, 卽請嚴覈, 固人理之當然, 而驪川君 增, 多日泯默, 後時發告. 況身爲宗臣, 旣入於妖賊三條設問之中, 其在嚴法杜禍之道, 不可置之. 請增絕島安置.” 王世子不從. 校理李奎采, 承旨尹光毅白於上, 宜早從臺論, 上不許. 且曰: “李翼元久不行臺職, 今其言雖過, 其心可嘉也.” 於是, 獻納趙重晦, 校理申晦, 皆上書請之, 王世子不從.

3) 『영조실록』(권 70) 1749년(영조 25) 10월 8일.

○ 前日三司諸臣, 雖請罪增, 而以齋日未及合辭定律, 及承嚴教, 始改請島置. 上聞之, 命召時, 原任大臣及三司諸臣, 諭曰: “今日召卿等, 意蓋在矣. 昨見所爭, 有一節深於一節之慮矣, 今見達辭, 君臣之間, 似有相孚, 故欲爲處分矣. 今日之事, 予豈樂聽? 予只有八寸數人, 而將至於死, 故有此處分. 予已矢心. 若此之後, 何敢欺其君於咫尺乎? 若有加請, 雖臺臣亦不可顧藉, 諸臣須量予今日即允之意也.” 大司憲申思建, 大司諫趙明謙, 應教趙雲達, 諸人皆曰: “臺體固當以次加律, 而昨日聖教, 以 ‘稍緩則當允從’, 故急於仰承, 雖不加律, 今又下教致此, 孰不感動? 而在外之人必異之矣.” 上曰: “**增之島配, 予心愴感, 無異按律, 卿等亦以按律, 知之可也.**” 仍命安置增于濟州, 令所經邑, 助給藥物, 到島後給衣食, 藥餌. 增家舊奉仁嬪祀, 命其弟壘攝事壘, 時名在臺達, 命罷職. 雲達又請嚴問崇, 訖, 採其根因, 命崇設鞠, 燿拿鞠. 初崇之待罪也, 其親交有慰問於路次者, 趙載浩以此陳於上前. 至是憲臣請窮治其人, 命勿限年定配, 卽李魯, 趙榮益也.

4) 『승정원일기』(책 1058) 1750년(영조 26) 7월 21일.

○ 上曰, **今覽濟州牧使狀啓, 有論安置罪人增之事矣.**驪川, 素多痰喘, 而尙今生存, 此則異常也. 其家屬隨往云, 越海豈不難哉? 其夫人可謂賢矣, 而其叔之入去者誰也? 益烜曰, 必是海恩君燾也. 上曰, 吏判行公耶? 領相既出仕, 則吏判, 亦何不行公耶? 益烜曰, 上書承批後, 復何有撕捥之端乎? 上曰, 戶判何以爲之耶? 益烜曰, 連爲牌不進矣. 吏曹參議, 亦以臺言上書, 到院而退却矣. 上曰, 然則終爲入達之書耶? 益烜曰, 不得已捧入之上書也. 上曰, 此等事, 元良, 皆以稟于大朝下答. 予苦哉, 爲此下教者, 微示其意也. 黃木+成與黃梓, 幾許親耶? 益烜曰, 六寸兄弟間也. 上曰, 然則所見, 何其若鄉人耶? 益烜曰, 今方居鄉矣. 上曰, 李堉何人耶? 益烜曰, 已經臺諫, 且聞宗室遠代孫云矣. 上曰, 鄭漢奎則曾於入侍時見之矣, 其人亦精潔矣. 魚錫胤曰, 尹光纘達辭, 才已依達下答矣. 上曰, 元良下答, 異於予意矣. 元良, 不知此三人, 而予則知其過矣. 仍命書承旨傳教曰, 臺達中鄭漢奎·李堉·黃木+成, 臺達雖過, 不過三小官, 曰依曰否, 其何難也? 答雖難也, 以不從爲答, 從容問予, 其亦一道, 而此等微事, 以稟于大朝下答云, 故以此下教, 政院知悉舉行, 元良下答. 出榻教 李益烜退出後, 魚錫胤進伏. 上曰, 承旨知其此狀聞事耶? 錫胤曰, 知之矣. 上曰, 承旨讀此狀啓, 可也. 錫胤伏讀後, 上曰, 承旨, 此事謂何如耶? 錫胤曰, 其叔尤放恣矣. 上曰,

承旨自在儒臣時，言論甚峻矣。海恩既帶職，則其無受由出去之事乎？錫胤曰，渠豈敢以宗宰自處，而請由於朝廷乎？上曰，其言則是矣，而此狀文措語，無乃太過乎？錫胤曰，鄭彥儒之爲人，本來精順非高激，而爲此狀聞者，彼之橫濫既極，故不得已爲此狀啓之事也。自上既有令本道食物備給之恩典，則於渠過矣。增若檢飭，則豈有如是作弊之事耶？渠不當若是放恣矣。上曰，承旨無過矣。仍命書承旨傳教曰，今覽元良所稟濟州狀聞，所爲下語，其涉過矣。海恩亦在惶悚中，不敢請由，事勢固然，而帶職無端越海，其在國體，不可無飭。令該府處之。出榻教

5) 『영조실록』(권 71) 1750년(영조 26) 7월 25일.

○ 諫院【司諫尹光績.】申前達，不從。又達曰：“濟州安置罪人增，負犯至重，尙今全保，實出大朝至仁盛德，挈入家眷，已極放肆。而以本牧狀啓見之，徵責官府，擅役民丁。若不痛繩，何以示有法於絕海之外？請增嚴加梏棘。時囚罪人燻，以增之至親，擅自越海，橫挈島中，請遠竄。”不從。憲府【持平李師曾】申前達，又達請增，燻罪，竝不從。玉堂，承旨請從臺達，不從。

6) 『영조실록』(권 77) 1752년(영조 28) 6월 17일.

○ 濟州牧啓言：“罪人增物故.”上教曰：“近宗只有驪善兄弟，而因巧黠陰譎之愆，縲，又陷叵測。難拂公議而處之，惻然之心常不弛，幾年海島，王法已伸。噫！已故近宗，若不放而出島，其將對玉食而靡甘，撫《常訓》而自悲。此亦恩法之俱伸也，特爲放送，運柩時，令該道，助其擔軍，亦令該曹，綿布，麻布，米，太，柩材厚給，以表予意。其不給牒，故不曰喪葬等需，而稱物名題給，便是恤典。有司之臣，焉敢爲爭？”

159. 김윤흥(金允興)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일.
- 사망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사유: 연좌(김일경<金一鏡>의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4일.

○ 義禁府啓, 一鏡子正海, 寧海, 遣府都事處絞, 允興, 喜雄, 年未滿, 仍前配所, 連坐爲拏事, 命正海, 寧海, 減死爲奴.

2) 『승정원일기』(책 583) 1725년(영조 1) 1월 4일.

○ 蔡彭胤, 以義禁府言啓曰, 今正月初二日, 右承旨鄭錫三, 前都事柳應煥, 引見入侍時, 上曰, 一鏡事不忍汚口, 而於國事何云云等說, 極其凶悖, 其寧凶之心, 得成則謂之際遇, 不合於心, 則如此陳疏, 陰凶情節, 卽其上疏一節, 可知矣. 不可仍置, 收拏一節, 依虎龍例, 卽速舉行事, 分付禁府事, 命下矣. 頃因榻前定奪, 正刑罪人一鏡之子, 自刑曹查出發配, 故取考該曹所上配所單子及成冊, 則子正海年二十一, 全羅道南海縣, 子寧海年十八, 康津縣流配, 而竝皆年滿, 各遣府都事, 與本邑守令眼同, 依法處絞. 子允興年十, 慶尙道固城縣, 子喜雄年三, 河東府流配, 而俱是年未滿, 仍其配所邑, 依律文緣坐爲奴之意, 分付本道. 其餘應坐之類, 令漢城府考出帳籍, 亦令五部, 罪人一鏡族屬姓名年歲居住存沒, 一一查出, 急速成冊牒報後, 舉行之意, 敢啓. 傳曰, 依啓. 正海·寧海, 特爲減死爲奴.

3)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1일.

○ 左議政金尙魯啓: “固城縣爲奴罪人允興, 卽一鏡之子也, 不可使之容息於陸地, 請移配濟州牧.” 從之.

4) 『승정원일기』(책 1117) 1755년(영조 31) 3월 3일.

○ 南泰赫, 以義禁府言達曰, 今月初一日親鞫入侍時, 左議政金尙魯所啓, 固城爲奴罪人允興, 卽鏡賊之子也. 不可使之容息於陸地, 移配濟州牧, 何如? 上曰, 依爲之事舉條, 啓下矣. 慶尙道固城爲奴罪人允興, 移配於全羅道濟州牧爲奴,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

5) 『승정원일기』(책 1117)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權抗, 以義禁府言啓曰, 逆賊鏡·虎·獐·亮四賊之子應施之律, 卽令該府舉行事, 命下矣. 逆賊一鏡子允興, 虎龍子德成·德福, 獐佐子文明·仁明, 希亮子鐵興等, 俱配於濟州·大靜·旌義三邑, 依例發遣府都事, 卽爲舉行, 而在前鞫獄方張之時, 有假都事差送之例, 今亦以假都事發送, 與地方官, 眼同處絞, 何如? 傳曰, 允.

160~163. 정채(鄭采), 윤득정(尹得貞), 서채수(徐采修), 이지승(李址崇)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자손), 정채(정해<鄭楷> 손자), 윤득정(윤성시<尹聖時> 손자), 서채수(서종하<徐宗廈> 손자), 이지승(이명언<李明彦> 손자, 이하택<李夏宅>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17)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柳顯章,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成府報狀, 當部成冊, 忠淸·京畿監司牒呈, 則逆賊就商·志·師尙·眞儒·明誼·楷·聖時·宗廈·鳳輝·泰耆·明彦·夏宅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就商弟徵商, 咸鏡道茂山府爲奴, 姪勲, 慶尙道柒原縣, 流三千里安置, 姪慙, 三水府安置, 逆賊志孫吉甲, 大靜縣爲奴. 孫女吉亥, 晉州牧爲婢, 孫女吉丑, 定平府爲婢, 孫女終生, 咸興府爲婢, 逆賊師尙孫修範, 濟州牧旌義縣爲奴, 孫修溫, 南海縣爲奴, 孫福伊, 黃海道長淵府白翎鎮爲奴, 子婦敬郎, 明川府爲婢, 子之妾英梅, 機張縣爲婢, 姪獻哲, 金海府安置, 逆賊眞儒孫承孝, 巨濟府爲奴, 子婦大阿只, 泗川縣爲婢, 姪匡鼎, 吉州牧安置, 姪匡彦, 熊川縣安置, 姪匡贊, 明川府安置, 姪匡顯, 機張縣安置, 匡明, 寧海府安置, 姪匡順, 端川府安置, 逆賊楷孫采, 濟州牧爲奴, 弟樞, 甲山府爲奴, 姪東呂, 三水府安置, 姪東疇, 富寧府安置, 姪東獻, 甲山府安置, 姪東進, 鏡城府安置, 姪東俊, 茂山府安置, 逆賊聖時孫得貞, 濟州牧爲奴, 孫得明, 大靜縣爲奴, 孫得望白翎鎮爲奴, 孫重曦, 南海縣爲奴, 孫孝達, 全羅道珍島郡爲奴, 孫孝文, 巨濟府爲奴, 子婦愛, 昆陽郡爲婢, 子婦喜, 延日縣爲婢, 逆賊宗廈孫采修, 濟州牧爲奴, 孫懿修, 南海縣, 孫五哲, 白翎鎮爲奴, 孫壽得, 豐川牧椒島鎮爲奴, 孫五兼, 巨濟府爲奴, 孫然福, 南海縣爲奴, 孫然喜, 珍島郡爲奴, 逆賊鳳輝子婦幸每, 泗川縣爲婢, 孫東渾, 大靜縣爲奴, 孫女賢門, 昆陽郡爲婢, 弟鳳徵, 甲山府爲奴, 姪昌垣, 旌義縣安置, 姪奎垣, 茂山府安置, 姪景垣, 長鬐縣安置, 逆賊泰耆子婦一梅, 興海郡爲婢, 孫榮集, 旌義縣爲奴, 孫英得, 大靜縣爲奴, 孫榮喆, 珍島郡爲奴, 孫大慰,

巨濟府爲奴，孫大承，南海縣爲奴，逆賊明彥孫址崇，以夏宅之子，出繼於夏定，減死，濟州牧爲奴。逆賊夏宅孫文穆，三水府爲奴，而右罪人等，或在京或居外邑，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各其配所，師尙妾月愛，年過七十，最蓮，年過六十，聖時子婦惠伊，宗廈子婦畢英，年今六十，依律文竝免坐，逆賊明誼·■·濂·光哲，應坐諸人及上頃諸逆等應及緣坐之類及在外未查出者，待其該道之查報，舉行，何如？傳曰，允.

164. 한종동(韓終童)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한세량(韓世良)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17) 1755년(영조 31) 3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當部·忠淸·京畿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世良·益寬·嵇·縑·應坐諸人及逆賊宗廈·泰耆·楷·夏宅·耆等應坐未及查出者, 成冊以來矣. 逆賊世良孫終童, 濟州牧爲奴, 孫煌, 濟州牧大靜縣爲奴, 孫炫, 慶尙道巨濟府爲奴, 孫煥, 南海縣爲奴, 孫瑩, 珍島郡爲奴, 孫榮, 咸鏡道三水府爲奴, 孫淡, 濟州牧旌義縣爲奴, 孫熾, 富寧府爲奴, 孫甲金, 黃海道豐川府椒島鎮爲奴, 姪應心, 鏡城府流三千里安置, 姪應翼, 機張縣安置, 逆賊益寬·孫維, 大靜縣爲奴, 姪穆衡, 鏡城府流三千里安置, 逆賊嵇母次願, 長鬐縣爲婢, 兄■■■, 甲山府爲奴, 弟岱, 吉州牧爲奴, 妹泰惠, 昆陽郡爲婢, 叔綸, 寧海府流三千里安置. 姪輔國, 三水府流三千里安置, 逆賊縑妻小愛, 河東府爲婢, 子婦貴今, 鎭海縣爲婢, 子婦惠臨, 茶原縣爲婢, 子婦壯伊, 熊川縣爲婢, 叔得衡, 明川府安置, 孫壽曾, 巨濟府爲奴, 孫女福媛, 晉州牧爲婢, 孫女連伊·孫老味, 熊川縣竝爲奴婢, 逆賊宗廈子之妾玉每, 延日縣爲婢, 孫千年金, 三水府爲奴, 孫加五金, 大靜縣爲奴, 孫女閏德, 定平府爲婢, 孫女閏安, 鏡城府爲婢, 孫女福任·於屯介, 固城縣竝爲婢, 逆賊泰耆子婦一順, 巨濟府爲婢, 逆賊楷孫女甲伊, 興海郡爲婢, 逆賊夏宅妻景任, 丹城縣爲婢, 子婦可愛, 昌原府爲婢, 子婦最愛, 咸興府爲婢, 孫應龍·又龍·慶龍等, 長湍府白翎鎭竝爲奴, 孫女妙喜, 咸興府爲婢, 逆賊耆弟審, 富寧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而諸逆應坐之類未及查出者, 待其各該道查報舉行, 何如? 傳曰, 允.

165. 이몽진(李夢鎭)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렴<李濂>의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17) 1755년(영조 31) 3월 18일.

○ 權抗, 以義禁府言啓曰, 卽接京畿·忠清監司牒報, 則諸逆賊應坐之類在外未及查出者, 成冊以來矣. 逆賊嵇姪金得, 咸鏡甲山府流三千里安置, 逆賊濂子婦德順, 三水府緣坐爲婢, 孫夢鎭, 全羅道濟州牧爲奴, 孫夢福, 三水府爲奴, 逆賊明彦子婦達喜, 慶尙道彦陽(陽)爲婢, 有愛, 梁山郡爲婢, 逆賊泰耆子婦孝慧, 南海縣爲婢 子婦順愛, 孫女閏喜, 南海縣竝緣坐爲婢, 而右罪人等, 俱在外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66. 이이산(李耳山)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9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렴<李濂>의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17) 1755년(영조 31) 3월 19일.

○ 權抗,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平安監司牒報, 則逆賊濂·裔應坐之類在外未及查出者, 成冊以來矣. 濂子萬宇·萬宙等, 捉囚寧邊,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處絞, 濂子耳山, 年十二年未滿, 濟州牧爲奴, 子婦於仁連, 梁山郡爲婢, 裔妾介德, 泗川縣爲婢, 而右罪人等, 時囚於寧邊嘉山等地, 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67~169. 김택훈(金宅勳), 윤토련(尹土蓮), 악지(惡只)〈여〉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후손) 김택훈(김호<金浩> 손자), 윤토련, 악지(윤광철<尹光哲> 아들, 처)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17) 1755년(영조 31) 3월 22일.

○ 蔡濟恭, 以義禁府言啓曰, 逆賊浩孫宅勳, 濟州牧爲奴, 孫女孝順·未順, 子婦小愛, 永興府竝爲婢, 姪柱廈, 三水府流三千里安置. 姪柱恒, 鏡城府安置, 姪柱漢, 昆陽郡安置, 姪柱明, 機張縣安置. 姪柱東, 延日縣安置. 逆賊鳳輝姪陽垣, 明川府安置. 逆賊明彥子婦莫喜, 晉州牧爲婢. 逆賊尙白母任伊, 盈德縣爲婢, 女貞福, 孫女莊任, 寧海府竝爲婢, 子婦福伊, 明川府爲婢, 子婦孝愛, 吉州牧爲婢. 逆賊志妾分伊, 女福蕙, 北青爲婢, 女老愛, 端川府爲婢. 逆賊光哲子雄伊, 年十五年未滿, 大靜縣爲奴, 子土蓮, 年九年未滿, 濟州牧爲奴. 妻惡只, 濟州牧爲婢. 右罪人等, 或在京或在外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70. 김인제(金寅濟)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나래(사망) 연월: 미상(1755년(영조 31) 5월 16일).
- 사유: 연좌(김일경〈金一鏡〉 조카, 김요경〈金堯鏡〉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金尙魯曰: “鏡賊諸姪, 以鏡賊出繼之故, 初不入於緣坐中, 至今偃息於京鄉之間. 纔因京兆所報, 始乃發覺, 失刑之大, 莫過於此. 龍鏡子弘濟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及庶子大再等六人, 請竝令王府, 分配於耽羅三邑.” 上允之.

2) 『승정원일기』(책 1118)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尙魯曰, 鏡賊諸姪, 以鏡賊出繼之故, 當初不入於緣坐中, 至今偃息自在於京鄉之間, 纔因京兆堂上之隨所聞往復, 始乃發覺, 而令京兆查出矣. 失刑之大, 莫過於此, 龍鏡子弘濟, 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 及庶子大再等六人, 竝令王府, 分排於耽羅三邑,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3) 『승정원일기』(책 1118) 1755년(영조 31) 4월 22일.

○ 鄭光忠, 以義禁府言啓曰, 鏡賊當初出繼之故, 諸姪, 不入於緣坐之中, 龍鏡子弘濟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 及庶子大再等, 六人, 竝令王府, 分配於耽羅三邑事, 舉條啓下矣. 逆鏡姪弘濟·寅濟, 全羅道濟州牧定配, 同伊·有濟, 大靜縣定配, 彭命·大再, 旌義縣定配, 而右人等, 或在京, 或在外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而當部查牒中, 大再乞食出往, 不知去處云, 莫重定配罪人, 不可不及時捉得, 分付捕廳及五部, 各別譏捕, 亦令諸道道臣, 嚴飭列邑, 調察捉囚後, 發配, 何如? 傳曰, 允.

4)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16일.

○ 上御內司僕, 親鞫, 逆賊寅濟, 竣, 佺伏誅. 寅濟, 逆鏡本生從子也, 累加刑訊, 至是供: “以世交之故, 蛤洞居李大運及陽川居呂光學, 至今相親, 而呼字爾汝. 大運即竣之子也, 臣發配時, 竣父子來見以爲, ‘初以出繼, 不施當律, 而今始緣坐, 即是法外,’ 光學則以臣謂之可矜矣.” 又供: “臣發配時, 光學以爲, ‘汝之從兄弟四五人僅餘存, 而今乃定配, 金哥亡矣, 豈非可矜乎?’ 云, 竣常稱逆鏡, 以丫洞矣.” 又供: “臣發配時, 竣書一札, 使臣傳於臣兄, 故果持去, 而竣曉頭貫馬來別, 謂臣曰, ‘汝輩曖昧被配’ 云. 又聞竣語, 光學子善餘曰, ‘今番疏下諸賊, 籍沒太過,’ 多發怨言. 至於發啓諸臣, 則辱之云, 可殺云矣.” 連施刑, 承服招曰: “國家使臣家至此, 故臣常懷怨國之心, 與竣等締結往來, 多發怨國之言, 共爲不軌之謀. 始欲與夏徵同事, 夏徵伏法, 未及遂計. 而臣之親舊雖少, 竣則多親舊, 故臣與竣合謀約, 而八月內舉兵犯闕, 而竣以爲, ‘渠每往申致雲家, 同爲逆謀’ 云矣. 臣以逆鏡之姪島配, 故竣來見臣, 相與酬酢以爲: ‘今此處分, 乃是法外,’ 又以爲, ‘自有放還之時,’ 此無非出於陰凶叵測之心.” 謀逆同參遲晚, 正刑拏籍如法.

5) 『승정원일기』(책 1119) 1755년(영조 31) 5월 16일.

○ 寅濟拿來都事拿入, 上曰, 罪人拿來時, 使之着道袍, 何也? 都事對曰, 罪人, 自羅州獄拿來, 而其時見之, 則着袍而囚矣. 上曰, 此則非都事之過, 分揀焉.

6) 『승정원일기』(책 1119) 1755년(영조 31) 5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謀逆同參罪人寅濟, 既已承服正刑, 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 年歲姓名存沒居住, 令漢城府, 考出帳籍, 亦爲分付, 五部及各該道, 應坐諸人, 一一查出, 成冊牒報後, 依律舉行, 而籍沒家產破家瀕澤降邑號罷守令等事, 令各該司, 捧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7)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18일.

○ 罪人耀德物故, 耀德, 一鏡從孫也. 一鏡從子有濟·寅濟·德濟·弘濟·大再·佑海, 從孫天柱·耀白·耀采·耀玉·耀德等, 以鼎衍招并被鞫, 寅濟承款正刑, 耀白, 耀采與逆惠同梟示, 其餘俱杖斃.

171. 김홍제(金弘濟)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나래(사망)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9일 이전(1755년<영조 31>) 5월 18일).
- 사유: 연좌(김일경<金一鏡> 조카, 김용경<金龍鏡>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金尙魯曰: “鏡賊諸姪, 以鏡賊出繼之故, 初不入於緣坐中, 至今偃息於京鄉之間. 纔因京兆所報, 始乃發覺, 失刑之大, 莫過於此. 龍鏡子弘濟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及庶子大再等六人, 請竝令王府, 分配於耽羅三邑.” 上允之.

2) 『승정원일기』(책 1118)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尙魯曰, 鏡賊諸姪, 以鏡賊出繼之故, 當初不入於緣坐中, 至今偃息自在於京鄉之間, 纔因京兆堂上之隨所聞往復, 始乃發覺, 而令京兆查出矣. 失刑之大, 莫過於此, 龍鏡子弘濟, 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 及庶子大再等六人, 竝令王府, 分排於耽羅三邑,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3) 『승정원일기』(책 1118) 1755년(영조 31) 4월 22일.

○ 鄭光忠, 以義禁府言啓曰, 鏡賊當初出繼之故, 諸姪, 不入於緣坐之中, 龍鏡子弘濟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 及庶子大再等, 六人, 竝令王府, 分配於耽羅三邑事, 舉條啓下矣. 逆鏡姪弘濟·寅濟, 全羅道濟州牧定配, 同伊·有濟, 大靜縣定配, 彭命·大再, 旌義縣定配, 而右人等, 或在京, 或在外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而當部查牒中, 大再乞食出往, 不知去處云, 莫重定配罪人, 不可不及時捉得, 分付捕廳及五部, 各別譏捕, 亦令諸道道臣, 嚴飭列邑, 調察捉囚後, 發配,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책 1119) 1755년(영조 31) 5월 9일.

○ 上曰, 柳鳳隣[柳鳳麟]下之.九鏡之子弘濟上之.敎曰, 汝每往春川鼎衍家云, 是何故耶?
弘濟刑問準二次後下之.

5)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18일.

○ 罪人耀德物故, 耀德, 一鏡從孫也. 一鏡從子有濟·寅濟·德濟·弘濟·大再·佑海,
從孫天柱·耀白·耀采·耀玉·耀德等, 以鼎衍招并被鞫, 寅濟承款正刑, 耀白, 耀采與
逆惠同梟示, 其餘俱杖斃.

172. 심우적(沈遇赤)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9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심정연〈沈鼎衍〉 조카).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4일.

○ 上御內司僕, 親鞫, 逆賊鼎衍伏誅. 刑訊鼎衍, 鼎衍供: “匿名書, 臣果爲之, 其中數人, 卽臣之讎也. 臣以成衍, 益衍之弟, 有怨國心, 故勳戚之人眷遇之臣并嫉之, 而欲先除去, 爲此陰慘罔測之計矣. 臣與逆志族惠同謀, 惠卽就商弟, 五商繼子, 慙之弟, 而春川人柳明斗之女壻也. 逆鏡之從孫道成爲窩主, 與惠書此文給臣使呈. 而臣欲謀逆, 既呈匿名書, 又以臣名書呈經綸, 欲掩匿名之跡矣. 逆鏡之從孫, 又有變姓名爲僧者. 又有事機之時急者, 惠方聚軍謀逆於春川矣.” 其結案招有曰: “科前作文書于桃洞.” 又曰: “欲除勳戚眷遇之臣, 誣此人等.” 又曰: “陰慘不道之說, 向上罔測之計, 臣之凶肚綻露.” 大逆不道遲晚. 教曰: “逆賊何代無之, 而豈有若鼎衍者乎? 崇禮門外戊申受馘處, 金吾堂上親往正法.” 時上怒甚, 日已晚, 尙未進御食. 出御宣仁門, 命東宮侍坐, 鼎衍正刑後, 始還御.

2) 『승정원일기』(책 1119) 1755년(영조 31) 5월 9일.

○ 鄭光忠, 以義禁府言啓曰, 因臺臣所懷, 罪人朴命球徒配事學條, 啓下矣. 朴命球, 忠清道牙山縣長時驛徒三年定配, 而以學條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春川府使牒報, 則逆賊鼎衍應坐諸人, 查出成冊以來矣. 逆賊鼎衍妻二禮, 依傳教全羅道羅州牧黑山島爲婢, 女等等, 黑山島爲婢, 庶女福煥, 慶尙道鎭海縣爲婢, 庶姪陽復, 濟州牧旌義縣流三千里安置, 庶姪遇赤, 濟州牧流三千里安置, 而方囚春川府,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73. 강몽징(姜夢徵)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강몽상(姜夢相) 동생)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8일.

○ 上御內司僕, 親鞫, 刑訊姜夢協, 仍與白六昌, 柳鳳麟面質, 六昌, 鼎衍食主人也. 鳳麟曰: “夢協與鼎衍相親, 數往來同謀逆, 鼎衍爲將, 夢協爲副將, 謀舉事, 殺牛於沙幕洞, 欲舉兵向京城, 聚六十餘人, 欲載船而往云矣.” 加刑夢協, 供: “鼎衍, 惠怨國爲逆, 而臣與怨國之漢相親, 參涉凶言, 是臣死罪. 而既屠牛犒軍, 欲爲火賊, 攻春川府, 得軍器來矣. 凶書書頭, 臣記得其上書于三字矣.” 加刑夢協, 供: “臣與衍, 惠等, 綢繆相結, 同爲凶謀, 且參凶言.” 大逆同參遲晚, 正刑, 孥籍如法. 夢協子鶴壽, 亦與鼎衍, 同入場屋, 故被鞫杖斃. 夢協從弟夢相, 亦以大逆, 同參遲晚, 正刑.

2) 『승정원일기』(책 1119)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春川府使成冊, 則逆賊惠·夢協·夢相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惠妻初玉女連喜等, 全羅道羅州牧黑山島竝緣坐爲婢, 夢協妻壽喜女蘭英等, 珍島郡竝緣坐爲婢, 女癸英, 康津縣爲婢, 弟夢福, 濟州牧大靜縣爲奴, 叔叙+土, 慶尙道機張縣流三千里安置, 逆賊夢相母舞愛, 固城縣爲婢, 妻丹伊, 長鬐縣爲婢, 子大連, 年十二以年未滿, 濟州牧旌義縣爲奴, 子鶴連, 年三以年未滿, 固城縣爲奴, 子今年生, 年一以年未滿, 長鬐縣爲奴, 女愛喜, 延日縣爲婢, 弟夢徵, 濟州牧爲奴, 弟夢陽, 黃海道長淵府白翎鎮爲奴, 弟夢覺, 豐川府椒島鎮爲奴, 侄大老, 固城縣流三千里安置, 姪二老, 長鬐縣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時囚春川府,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74. 박경응(朴慶應)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해배 연월: 1757년(영조 33) 3월 15일.
- 사유: 역모(역적 강몽협(姜夢協))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上御內司僕, 親鞫. 敎曰: “罪人洪啓文, 姜德俊, 朴慶應, 出於夢協之招, 而無他執賊, 參酌減死, 竝島配.” 持平李壽助, 正言鄭光漢所懷: “洪啓文, 姜德俊, 朴慶應, 既出於大逆夢協之招, 至有稱兵犯闕之語, 則其爲情節, 誠極凶慘. 臣等謂啓文, 德俊, 慶應宜更加嚴鞫, 期於得情.” 上不許.

2) 『승정원일기』(책 1119)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鄭光忠以義禁府言啓曰, 罪人洪啓文,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 姜德峻, 大靜縣定配, 朴慶應·濟州牧定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책 1142) 1757년(영조 33) 3월 15일.

○ 李顯重, 以義禁府言啓曰, 疏決單子中, 未及拿來罪人高原郡守趙麟, 甲山前府使安宗奎, 各道定配罪人海南縣閔鎭, 羅州牧黑山島尹光鼎, 三陟府高次奉, 三水府朴致厚, 臨坡[臨陂]縣趙文福, 狼川縣李堪, 淮陽府許構, 康津縣鄭道三, 明川府崔景燮, 結城縣李喜謙, 龍安縣尹鵬舉等放. 鏡城府任珣, 今聞筵奏, 禁錮猶過, 特爲放送. 機張縣李敬玉, 麻田郡權導, 安東府李彥, 忠州牧鄭基安, 唐津縣朴世光, 淮陽府林好榮, 端川府金向成等放. 定配身死未蒙放罪人光陽縣柳漢基, 鍾城府柳師百, 通川郡朴混源, 穩城府金孝溫, 巨濟府朴弘儒, 旌義縣洪啓文, 大靜縣姜德俊, 濟州牧朴慶應, 南海縣金績熙, 鍾城府鄭桂等竝放.

175. 목진흥(睦震興)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목호룡〈睦虎龍〉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19) 1755년(영조 31) 5월 16일.

○ 尙魯曰, 昆陽安置罪人震興, 河東安置罪人震福, 卽虎龍之姪也. 當此嚴處逆屬之時, 不可使此賊至親, 偃息陸地, 竝令移配耽羅, 何如? 上曰, 依爲之. 而其所生, 亦不可置之也. 尙魯曰, 下教誠然矣. 今此兩罪人所生, 亦令該府, 卽爲查出, 分配此島,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2) 『승정원일기』(책 1119) 1755년(영조 31) 5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賊虎龍姪, 昆陽安置罪人震興, 濟州牧移配安置, 震福旌義縣移配安置,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책 1120) 1755년(영조 31) 6월 12일.

○ 沈鏞, 以義禁府意啓曰, 逆賊虎龍姪震興·震福等所生子查出後, 分配耽羅事, 舉條曾已啓下矣. 卽接慶尙監司查報及成冊, 則震福本無所生, 而震興子守益, 捉囚昆陽郡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全羅道濟州牧大靜縣配所, 何如? 傳曰, 允.

176~177. 김요업(金耀業), 김행득(金幸得)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2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김일경〈金一鏡〉 종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19) 1755년(영조 31) 5월 2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依定奪, 逆鏡從孫耀業, 全羅道濟州牧定配, 戒三, 大靜縣定配, 戒男, 旌義縣定配, 幸得, 濟州牧定配, 喜得, 大靜縣定配, 興得, 旌義縣定配, 而右罪人等, 或囚捕廳, 或囚外邑,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78~182. 김태해(金太海), 김수해(金壽海), 김거정(金渠正),
윤관상(尹觀商), 윤용득(尹龍得)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6월 15일.
- 나국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김일경〈金一鏡〉 조카/종손, 윤혜〈尹惠〉 삼촌/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20) 1755년(영조 31) 6월 1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咸鏡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一鏡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鏡, 庶姪子太海, 全羅道濟州牧流三千里緣坐安置, 庶姪子濟海, 大靜縣安置, 庶姪子成海, 旌義縣安置, 庶姪子壽海, 濟州牧安置, 庶姪子雲海, 大靜縣安置, 而逆鏡種子, 不可食息, 查出後, 雖年不滿者, 依逆黯例, 分配濟州事, 亦有傳教矣. 逆鏡庶從孫渠正(金), 濟州牧島配, 庶從孫辰柱, 旌義縣島配, 庶從孫渠正, 大靜縣島配, 而右罪人等, 時囚於鍾城·會寧·茂山等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又啓曰, 逆賊惠, 逆賊侄等, 應坐諸人, 捉囚捕廳矣, 逆賊惠叔觀商, 全羅道濟州牧流三千里緣坐安置, 姪子夢鼎, 大靜縣安置, 姪子和鼎, 旌義縣安置, 姪子龍得, 濟州牧安置, 而逆惠至親, 不可食息, 查出後, 依逆黯例, 分配濟州事, 亦有傳教矣. 逆惠庶四寸弟戀, 大靜縣島配, 逆賊侄, 姪子基堊, 咸鏡道茂山府流三千里緣坐安置, 而右罪人等, 俱囚於捕廳,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83. 이윤동(李胤同)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2월 2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흥효(李興孝)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8) 1756년(영조 32) 12월 22일.

○ 上御內司僕, 親鞫諸罪人, 出御宣仁門, 命摠戎使李章吾, 梟示逆賊李興孝於水口門外, 申謹以知情律梟示. 興孝者, 眞儒之從孫, 以謹招就鞫, 謂眞儒非逆, 鏡, 夢分而二之, 至於《昭鑑》中雲賊罔測之說, 只曰怪駭, 逆陽於是綻露矣. 上教曰: “昨年處分後, 餘賊懲戢, 而此等之輩, 誑惑遐方無識者類, 若無此輩, 雲澄, 時澤雖懷不測之心, 不敢若此. 而逐日帳殿, 端緒未覈, 乾道昭昭, 今得此賊.” 特命施大逆律, 仍教示中外.

2) 『승정원일기』(책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當部成冊, 則逆賊興孝,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妻妊伊, 女快榮, 女福榮等, 平安道雲山郡, 竝緣坐爲婢, 子胤同年十二, 以年未滿, 全羅道濟州牧緣坐爲奴, 子胤曾, 年四, 以年未滿, 寧遠郡爲奴, 弟能孝, 大靜縣爲奴, 姪子胤彭, 咸鏡道鏡城府流三千里安置, 姪子胤聃, 明川府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或囚捕廳, 或下去果川·巨濟等地,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母淑惠, 年六十二, 以年過六十, 依律免坐, 姪子胤敏, 年今二歲, 依續典勿論, 何如? 傳曰, 允.

184. 이석림(李錫臨)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2월 2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장원(李章源)의 삼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8) 1756년(영조 32) 12월 25일.

○ 上御內司僕, 親鞫諸罪人. 逆賊李章源伏誅. 章源結案以爲: “臣以逆賊致雲之甥姪, 生長(卯)[卯] 育, 無異於親子. 致雲以陰慘叵測之言, 居常傳說於臣, 故臣亦嘗與之酬酢, 稱以是矣. 致雲又以爲鳳輝, 泰耆之疏筭, 俱非逆也, 臣亦曰是矣. 臣以雲賊罔測不道之說皆以爲是, 大逆同參的實遲晚.

2) 『승정원일기』(책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京畿監司牒報, 則陽川·衿川, 當部成冊, 則逆賊日觀·章源等,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日觀妻順德, 咸鏡道吉州牧緣坐爲婢. 弟日潤, 全羅道濟州牧爲奴, 弟日咸, 大靜縣爲奴, 弟日沈, 旌義縣爲奴, 弟日濟, 前以他罪, 康津縣薪智島定配, 仍其地爲奴. 姪子性獍, 旌義縣安置, 姪子性模, 濟州牧安置, 姪子二月兒, 年今一歲, 依續典勿論. 逆賊章源母孝惠, 鏡城府爲婢, 妻福愛, 富寧府爲婢, 祖母崔女, 今年七十四, 依律免坐. 叔錫履, 大靜縣安置, 叔錫師, 旌義縣安置, 叔錫臨, 濟州牧安置, 而古罪人等, 或囚捕廳, 或囚陽川·振威·清州等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85~186. 최일윤(崔日潤), 최성모(崔性模)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2월 2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최일관<崔日觀>의 동생/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京畿監司牒報, 則陽川·衿川, 當部成冊, 則逆賊日觀·章源等,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日觀妻順德, 咸鏡道吉州牧緣坐爲婢. 弟日潤, 全羅道濟州牧爲奴, 弟日咸, 大靜縣爲奴, 弟日沈, 旌義縣爲奴, 弟日濟, 前以他罪, 康津縣薪智島定配, 仍其地爲奴. 姪子性獍, 旌義縣安置, 姪子性模, 濟州牧安置, 姪子二月兒, 年今一歲, 依續典勿論. 逆賊章源母孝惠, 鏡城府爲婢, 妻福愛, 富寧府爲婢, 祖母崔女, 今年七十四, 依律免坐. 叔錫履, 大靜縣安置, 叔錫師, 旌義縣安置, 叔錫臨, 濟州牧安置, 而古罪人等, 或囚捕廳, 或囚陽川·振威·清州等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87. 권부(權褒)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1월 11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무신년 역적 권침<權詹>의 손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26) 1730년(영조 6) 5월 1일.

○ 上御崇政門, 親問罪人權詹曰: “戊申淸州賊何如, 而汝逗遛不出兵? 此乃今日與道昌謀逆之張本也. 其時汝雖遞方伯, 何可等待新伯, 而不出兵乎?” 詹供: “行關營將矣.” 上曰: “此豈行關之時乎? 假使隣家有盜, 不肯相救, 只坐見其恣意行盜乎? 兵使, 營將俱被害, 而汝爲監司, 既佩兵符, 則何不討賊, 只行一關文乎? 道昌爲汝謀凶, 汝豈非謀主乎?” 詹抵賴. 上顧謂領右相曰: “詹非至今生存者. 道昌既曰爲權監司謀逆, 則與推戴何異? 不可不刑問. 詹曰: “道昌之計已售, 苟究其本, 豈不由於汝耶? 戊申事, 汝不遲晚耶? 汝受國恩, 無論道昌爲汝輩謀逆, 禍及貳極, 汝雖不謀逆, 與汝自爲逆何異?” 供: “道昌以軍官謀逆, 於國家, 矣身罪當死.” 又問: “道昌輩逆謀, 亘古所無, 常曰爲鄭監司爲權監司凶心所抵, 一則思孝, 一則汝也. 知不知間, 其將免乎, 不免乎? 此於汝, 爲斷案, 乃以杖斃之說, 敢達, 尤極凶獰.” 詹供: “逗留觀望之罪, 無辭遲晚, 留置道昌於幕下, 而今日貽禍於國家, 專由於道昌之爲矣身地, 此亦無辭遲晚.” 是日, 詹受一次刑.

2) 『영조실록』(권 26) 1730년(영조 6) 5월 5일.

○ 罪人權詹物故.

3) 『승정원일기』(책 1140) 1757년(영조 33) 1월 11일.

○ 韓光肇, 以義禁府言啓曰, 卽接黃海·忠淸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天才·詹·褒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天才兄天柱, 咸鏡道三水府, 緣坐爲奴, 逆賊詹孫子褒, 全羅道濟州牧爲奴, 孫子褒, 大靜縣爲奴, 孫子辰, 旌義縣爲奴, 孫女次順, 平安道寧遠郡爲婢, 逆賊

褒妻玉丹，鏡城府爲婢，子業同年十一，以年未滿鏡城府爲奴，子婦德只明川府爲婢，姪子以大，明川府流三千里安置，姪子興孫·仁孫等，吉州牧流三千里安置，姪子武孫，寧遠郡流三千里安置，而右罪人等，時囚於海州·公州·韓山等邑，依例發遣府羅將，仍令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188~191. 김당(金塘), 양민수(楊敏樹), 서연희(徐連喜), 조영철(趙榮喆)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2월 4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진도 흉년(진도 유배인 제주 이배), 김당(김장<金璋>의 동생), 양민수(양취도<楊就道>의 조카), 서연희(서종하<徐宗廈>의 손자), 조영철(조태구<趙泰耆>의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41) 1757년(영조 33) 2월 4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珍島郡, 酷被凶荒, 緣坐諸罪人, 竝令移配於濟州三邑事, 舉條啓下矣. 珍島郡緣坐爲奴罪人逆賊璋弟塘, 緣坐安置罪人逆賊就道姪子敏樹, 緣坐爲奴罪人逆賊宗廈庶孫子連喜, 緣坐爲奴罪人逆賊泰耆孫子榮喆等, 竝移配於濟州牧. 緣坐爲奴罪人逆賊巨源孫子翼佐·吉元, 緣坐爲奴罪人逆賊明祚子江阿之等, 竝移配於大靜縣. 緣坐安置罪人逆賊弼顯姪子今同, 緣坐爲奴罪人逆賊楡子昌伊, 緣坐爲奴罪人逆賊坦弟壘等, 竝移配於旌義縣.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令曰, 依.

192~198. 김정단(金呈端), 김천필(金天必), 김상제(金尙悌),
김필중(金必重), 김필홍(金必鴻), 김필정(金必定),
김창현(金昌鉉)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
- 해배 연월: 1757년(영조 33) 2월 5일.
- 사유: 역모(윤지<尹志>) 연루 무고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41) 1757년(영조 33) 2월 5일.

○ 上追後狀啓金天成結辭, 承旨讀之. 上曰, 李穀·兪鴻觀, 何許人也? 尙魯曰, 鴻觀卽文官也. 與徵賊相親之說傳播, 似是此人矣. 上曰, 戶判知之耶? 百祥曰, 天成則悖惡罔測之人矣. 上曰, 書之. 今覽湖南道臣狀聞, 近者人心, 其雖罔測, 豈有若金天成者乎? 此等之時, 不可尋常處之, 令道臣張威儀, 以誣人律正法, 嚴懲他人. 李穀·兪鴻觀, 以本鄉之人, 逆徵爲牧時, 其所相親, 不是異事, 旣無同參謀逆之節, 則不可以物故, 爲限刑推. 而供辭俱不白直, 其在嚴隄防之道, 不可循例酌處. 濟州牧島配金呈端·金天必·金尙悌·金必重·金必鴻·金必定·金昌鉉等, 卽爲放送事, 分付 出傳教 上曰, 今值齋日, 不欲爲如此處分, 而此亦爲宗社除惡之意也, 故爲之矣.

2) 『승정원일기』(책 1142) 1757년(영조 33) 3월 1일.

○ 同副承旨李顯重曰, 臣下去時, 意欲歷觀諸島, 若無他故, 不至許久遷就, 而金天成獄事, 意外發於道內, 則臣雖不敢參聞於道臣按覈之時, 而獄情虛實所援諸人, 不可不詳探, 故因此遲留者久矣. 蓋金天成所告金天必之子尙悌, 受學於志賊之說, 人皆以爲誣罔, 且言出死囚之口, 而以此成獄, 亦非聖世所有之事, 有關後弊, 而臣意則以爲, 羅州城受降樓之名, 決是凶心所出, 兪鴻觀·李穀兩人, 則非誣引, 蓋聞李穀, 本是凶論之人, 而與光哲最親, 鴻觀則長在賊徵衙中, 與徵晝夜往來於志家, 而必令鴻觀, 倒騎馬在前, 故邑內之人,

以爲奇觀云.如是之際，豈無如許酬酢乎？自上處分，雖至爲允當，此兩人則濟州定配，猶爲失刑矣.上曰，已處置，何以爲之乎？顯重曰，臣歷觀島中逆孽形止，作一帖子，以備睿覽，而今聞島中諸孽，俱已移配於濟州，今無可觀，而旣已持來，故敢此袖納矣.

199~200. 유홍관(兪鴻觀), 이곡(李穀)

- 신분: 유홍관(관리<대정현감>), 이곡(유학<幼學>)
- 유배 연월: 미상(1757년(영조 33) 3월 1일 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역모 연루(역적 윤지<尹志>, 윤광철<尹光哲> 부자 친분)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141) 1757년(영조 33) 2월 5일.

○ 上追後狀啓金天成結辭, 承旨讀之. 上曰, 李穀·兪鴻觀, 何許人也? 尙魯曰, 鴻觀卽文官也. 與徵賊相親之說傳播, 似是此人矣. 上曰, 戶判知之耶? 百祥曰, 天成則悖惡罔測之人矣. 上曰, 書之. 今覽湖南道臣狀聞, 近者人心, 其雖罔測, 豈有若金天成者乎? 此等之時, 不可尋常處之, 令道臣張威儀, 以誣人律正法, 嚴懲他人. 李穀·兪鴻觀, 以本鄉之人, 逆徵爲牧時, 其所相親, 不是異事, 既無同參謀逆之節, 則不可以物故, 爲限刑推. 而供辭俱不白直, 其在嚴隄防之道, 不可循例酌處. 濟州牧島配金呈端·金天必·金尙悌·金必重·金必鴻·金必定·金昌鉉等, 卽爲放送事, 分付. 出傳教 上曰, 今值齋日, 不欲爲如此處分, 而此亦爲宗社除惡之意也, 故爲之矣.

2) 『승정원일기』(책 1142) 1757년(영조 33) 3월 1일.

○ 同副承旨李顯重曰, 臣下去時, 意欲歷觀諸島, 若無他故, 不至許久遷就, 而金天成獄事, 意外發於道內, 則臣雖不敢參聞於道臣按覈之時, 而獄情虛實所援諸人, 不可不詳探, 故因此遲留者久矣. 蓋金天成所告金天必之子尙悌, 受學於志賊之說, 人皆以爲誣罔, 且言出死囚之口, 而以此成獄, 亦非聖世所有之事, 有關後弊, 而臣意則以爲, 羅州城受降樓之名, 決是凶心所出, 兪鴻觀·李穀兩人, 則非誣引, 蓋聞李穀, 本是凶論之人, 而與光哲最親, 鴻觀則長在賊徵衙中, 與徵晝夜往來於志家, 而必令鴻觀, 倒騎馬在前, 故邑內之人, 以爲奇觀云. 如是之際, 豈無如許酬酢乎? 自上處分, 雖至爲允當, 此兩人則濟州定配, 猶爲失刑矣. 上曰, 已處置, 何以爲之乎? 顯重曰, 臣歷觀島中逆孽形止, 作一帖子, 以備睿覽, 而今聞島中諸孽, 俱已移配於濟州, 今無可觀, 而旣已持來, 故敢此袖納矣.

201. 조철금(趙鐵金)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10월 16일/1757년(영조 33) 11월 23일(대정현).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무신년 역적 조동규(趙東奎) 조카, 조흥규(趙興奎)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0) 1757년(영조 33) 10월 13일.

○ 上引見大臣, 備堂. … 左尹具善復奏: “公州居李斗載來告御將言, ‘戊申逆賊子趙鐵金, 梁一增, 至今隱伏’ 云. 送捕校於本道究覈, 則鐵金卽正刑罪人東奎之姪, 而乙丑杖斃罪人興奎之子. 一增則謂逆賊德溥之從孫, 而考其帳籍, 則德溥無兄弟矣.” 尙魯曰: “鐵金雖異亡命, 以凶逆之姪, 漏網隱伏, 不可只用緣坐本律. 請嚴刑島配, 一增則更令本道查聞.” 從之.

2) 『승정원일기』(책 1149) 1757년(영조 33) 10월 16일.

○ 南泰著, 以義禁府言達曰, 因左尹具善復所啓, 戊申逆賊東奎侄[姪]鐵金, 令監營嚴刑一次後, 島配事舉條, 啓下矣. 鐵金, 時囚公州牧, 分付道臣, 嚴刑一次後, 全羅道濟州牧緣坐安置,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

3) 『승정원일기』(책 1150) 1757년(영조 33) 11월 23일.

○ 啓禧曰, 此乃忠淸監司金尙喆狀達也. 趙鐵金, 卽逆賊興奎之子也. 興奎雖未及正刑, 而其叔東奎, 承款正刑, 則鐵金當在緣坐, 而漏脫潛隱, 頃始現發, 因大臣陳達, 定配大靜縣矣. 今此狀達, 以爲劇賊緣坐之潛匿者, 無異亡命, 仍請梟示, 而梟示非本府所當議律, 大臣方入侍, 下詢處之, 何如? 上曰, 大臣諸堂之意, 何如? 尙魯曰, 渠以兇賊之子姪, 三十年漏脫緣坐, 至今潛匿, 論其情狀, 萬萬絕痛, 雖用一律, 固無所惜. 而但與亡命有異, 正刑係是法外, 故當初所以參酌島配者此也. 臣則前後無異見矣. 晚曰, 兇逆緣坐之三十年漏脫隱匿, 雖極絕痛, 而此是當初年未滿見漏者, 則今不可直斷以亡命之律. 向者島配時, 臣意

與左相無異，故有所仰達，今亦別無他見矣.啓禧曰，此正宜無遺類殄滅者，而在法則異於緣坐罪人之亡命，無必置死律之明文矣.漢喆曰，臣於入侍前，已與首堂，有所相議，別無異見矣.趙載洪曰，此則異於亡命，既無當用之律，參酌之論，與諸臣無異矣.宋昌明曰，臣之意見，與判堂同矣.上曰，依前下教島配.出擧條

202. 김여택(金汝澤)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10월 23일.
- 해배 연월: 1763년(영조 39) 4월 9일.
- 사유: 범죄(조삼<造蔘>=가짜 인삼 제조)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77) 1752년(영조 28) 6월 13일.

○ 上召見均役郎廳, … 又教曰: “今覽造蔘, 以細辛作塑, 以蔘皮糊封, 何異納鉛乎? 昔之羊祐, 卽一將也, 而誠孚敵國, 有豈有鳩人羊叔子之語. 以堂堂之國, 么麼貢人, 若是作俑, 使不信於交隣, 此樣之蔘, 實是束芻而欲徵高價. 契人當施一律, 使民懲創, 而十分參酌, 行首貢人及首倡造蔘者, 嚴刑島配.”

2) 『영조실록』(권 90) 1757년(영조 33) 10월 23일.

○ 東萊府使趙曦狀言: “造蔘罪人李光林, 金汝澤等嚴囚, 以待處分.” 命光林依律處斷, 汝澤以同情減死島配. 蒜山別將姜弼文, 買取造蔘, 有締結之跡, 命拿問嚴處.

3) 『승정원일기』(책 1149) 1757년(영조 33) 10월 23일.

○ 尙魯曰, 此卽東萊府使趙曦狀啓也. 以爲前府使洪重孝在任時, 造蔘罪人李光林·金汝澤等, 竝已嚴囚, 故臣於到任之後, 刑訊究問, 則李光林, 果爲造蔘, 使金汝澤斥賣情節, 一一直招, 故具格馳啓其罪狀, 當依續典處斷. 金汝澤, 有首·從之別, 宜施以島配之律, 請令廟堂稟處, 蒜山別將姜弼文, 買取造蔘, 已極可疑, 締結光林, 圖仍已瓜之任, 所當一番嚴查, 而佩符之官, 臣府有難擅便, 請令攸司稟處, 李光林之造蔘之情節, 旣已取服, 依續典律文處斷, 金汝澤同情使喚之狀, 雖極痛惡, 宜有首·從之別, 絕島定配爲宜, 以此分付於道臣, 守臣姜弼文, 身爲別將, 旣買取造蔘, 又圖仍任之說, 旣騰於守臣狀聞, 則兩罪俱發, 不可不重勘, 令該府拿問嚴處, 何如? 上曰, 依爲之.

4) 『승정원일기』(책 1217) 1763년(영조 39) 4월 9일.

○ 命東昇讀奏濟州放未放狀聞.上曰, 濟州放未放狀聞稟秩中, 金汝澤放, 金龍祚仍, 其餘, 依啓聞施行事, 分付該府·該曹.出傳教

203. 임태후(任泰后)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62년(영조 38) 3월 12일.
- 이배 연월: 1762년(영조 38) 7월 8일(풍기군).
- 사유: 연좌 유배인(무신년 역적 임환〈任環〉 조카) 배소 이탈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661) 1728년(영조 4) 5월 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查出帳籍及當部成冊, 則大逆不道罪人環, 應坐諸人, 列錄以來矣. 環妻李女, 女寬美, 忠清道文義縣, 竝緣坐爲婢, 妾善香, 子盤麟, 年四, 次子, 今年生, 俱是年未滿, 全羅道南平縣, 竝爲奴婢, 同生兄瑄, 慶尙道豐基郡爲奴, 姪子泰后, 豐基郡流三千里安置, 兄璐, 順興府爲奴, 兄環, 榮川郡爲奴, 姪子著孫, 榮川郡流三千里安置. 連接驪州牧使牒服, 則逆賊胤祖女戊愛, 捕捉囚禁云, 戊愛, 黃海道文化縣緣坐爲婢, 而右罪人等, 或在囚禁中, 或下去咸興·文川等地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책 1203) 1762년(영조 38) 3월 10일.

○ 司諫安復駿書曰, … 夫連坐罪人之必投諸遐裔, 所以示不與同國之意, 而豐基郡爲奴罪人泰后者, 以逆環之姪, 圖配[徒配]于嶺底近邑. 論以法例, 已極無謂, 而挾其醫伎, 顛倒一路, 擅離配所, 遍于列邑, 東西賣術, 行止恣肆, 不有國法, 情跡可惡. 其在慮違之道, 此等妖種, 何可仍置善地? 一任其放縱而莫之何問乎? 謂宜移諸絕島, 以嚴其防禁也. 罪人雖欲擅離, 官長若能嚴禁, 則渠何敢任自越境出入惟意, 而既借其術, 拘於面情, 違越禁法, 任其所爲, 此其罪不但在於泰后, 前後地方官, 亦令本道查究, 隨其現發, 而竝加譴罷焉. 朝家之偏配罪人, 豈欲貽害於良民, 而罪人到配之後, 自地方官, 定給接主人, 則所謂接主者, 擔當餽養, 便成謬例, 彼皆竊生理, 僅僅延縷, 而白地耗財, 其何能堪? 罪人數多處, 則輸回換易, 遍受其病, 往往至於破產者有之. 其爲良民之害, 莫此爲甚, 亦宜申飭列邑, 痛革此弊也. 臣治書將上, 庚牌辱臨, 忱畏分義, 謹此隨詣, 而形禁勢格, 未免徑退, 臣罪尤

萬死.乞令司敗,重加勘處,以爲人臣違傲者之戒焉.書批,載錄於入對筵說中

3) 『승정원일기』(책 1203) 1762년(영조 38) 3월 12일.

○ 又以義禁府言達曰,因司諫安復駿上書,豐基郡緣坐罪人逆環姪泰堍,擅離配所,遍于列邑,東西賣術,行止恣肆罪,移配絕島事,依下矣.戊申逆賊環姪豐基郡緣坐安置罪人泰堍,移配於全羅道濟州牧,而依例發遣府羅將,押送配所,何如?令曰,依.

4) 『승정원일기』(책 1208) 1762년(영조 38) 7월 8일.

○ 又啓曰,緣坐罪人任泰堍,向因臺臣安復駿所論,至於濟州移配矣.此是微賤之類,定配三十年之後,無他所犯,而忽然移配於絕島,終涉過當,今因言端,敢陳微見矣.上曰,濟州則過矣,依前配所舉行.出舉條

5) 『승정원일기』(책 1208) 1762년(영조 38) 7월 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全羅道濟州牧移配緣坐罪人任泰堍,依前配所舉行事,舉條啓下矣.罪人泰堍,依前配所慶尙道豐基郡緣坐安置,而依例發遣府羅將,仍令押送配所,何如?傳曰,允.

204. 이월(二月)

- 신분: 가족(연좌)<여>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1월 2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어기(御器) 절도 유득<有得> 처)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1) 1763년(영조 39) 1월 21일.

○ 上御內司僕, 親鞫偷竊御器罪人有得·尙郁·康時賢·李聖來. 鞫罷, 分輕重或正法或酌處. 有得, 中官金重光奴也, 以雇軍, 出入禁中, 偷取集祥殿所置金銀器. 事發, 上曰: “此乃得自藩中, 爲闕內百餘年世傳之物.” 令左右捕廳譏詞, 果捕有得等. 設鞫取服, 有得下本府正法. 尙郁, 鐘城府爲奴. 時賢, 三水府爲奴, 聖來, 蔚珍縣勿限年定配. 其餘干連人朴昌潤·全明銳·趙德昌·金命五等, 皆以不謹守直, 竝散配. 仍教曰: “珍島爲奴罪人金重光, 所犯已罔赦, 而其時以差備中官, 偷取服飾器皿, 使其奴有得, 放恣發賣, 令監運御史, 嚴刑三次, 黑山島爲奴.”

2) 『승정원일기』(책 1214) 1763년(영조 39) 1월 22일.

○ 金應淳, 以義禁府言啓曰, 正法罪人有得妻, 海島爲婢事, 命下矣. 罪人有得妻二月, 全羅道濟州牧爲婢,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205. 이광복(李光福)

- 신분: 관리(차비관)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5월 2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도과〈圖科〉), 과거 문란)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218) 1763년(영조 39) 5월 20일.

○ 上曰, 頃覽捕廳草記已知, 今覽關西狀聞, 此弊近者特甚. 犯者拔去, 其雖不惜, 參榜者拔而若付, 則極涉殘忍. 此徐就成·李光福處, 令捕廳施威嚴問, 用意拔去人, 後登對以奏, 圖謀者雖有, 若無差備官該吏, 豈有此弊? 貪一時之慾, 亂莫重之科, 已涉無狀, 而以車聖五招觀之, 渠欲不赴, 而減數勒督, 尤爲叵測, 宜端其本. 自徐就成·李光福定法, 書吏徐就成嚴刑三次後, 黑山島限己身爲奴, 差備官李光福嚴刑三次後, 限己身濟州牧充定水軍, 以除遐方武士或公然見漏或受囑行賂未梢見拔之弊, 捕廳則有此例否, 直爲行關卽禁制, 左捕廳之直行關於順川, 其涉異也, 令備局察推.

2) 『승정원일기』(책 1218) 1763년(영조 39) 5월 25일.

○ 又以左邊捕盜廳言啓曰, 圖科罪人徐就成·李光福等, 依傳教施威嚴問已奏矣. 罪人徐就成·李光福等, 移送秋曹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책 1219) 1763년(영조 39) 6월 11일.

○ 又以刑曹言啓曰, 今五月二十日所下傳教中, 貪一時之慾, 亂莫重之科, 宜端其本, 自徐就成·李光福定法, 書吏徐就成, 嚴刑三次, 黑山島限己身爲奴, 差備官李光福, 嚴刑三次, 限己身濟州牧充定水軍, 以除遐方武士公然見漏之弊事, 命下矣. 書吏徐就成, 差備官李光福, 竝依傳教, 各嚴刑三次後, 徐就成限己身黑山島爲奴, 李光福限己身濟州牧充定水軍, 纔已發配, 而至於圖科罪人金宗澤·金珏·車聖五等削科一款, 令兵曹稟處, 何如? 傳曰, 允.

206. 심남득(沈南得)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8월 3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모반 심래복〈沈來復〉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8월 27일.

○ 上御太僕, 鞫罪人來復. 來復卽乙亥賊鼎衍之姪也. 始以緣坐竄于海島, 臺啓屢請鞫, 上允之. 及就拿, 上親問之, 來復供曰: “自丁丑年, 締結諸緣坐罪人榮得·東渾等之在同島者, 怨國謀不軌. 約募軍粧商賈狀, 潛越大海, 先襲湖南邑, 取軍器資糧, 直上京, 火犯廟社, 推戴謫宗臣璫. 昨冬臣果一往見璫, 計未及成而先被拿. 謀逆是實.” 上夜御惠政橋, 更問來復, 以內應爲誰, 來復援引左議政尹東度. 蓋東度乙亥爲諫長時, 論啓其叔鼎衍故憾之也. 上嚴訊之, 旋以誣人自服. 東度自班出, 席藁俟命, 上引見慰諭之. 仍命來復正刑, 孥籍如法.

2) 『승정원일기』(책 1221) 1763년(영조 39) 8월 30일.

○ 尹得雨,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堂部成冊, 則逆賊來復應坐諸人, 查出以來矣, 母阿只慶尙道固城縣爲婢, 庶母二德泗川縣爲婢, 妻新惠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婢, 子南得, 年九, 以年未滿濟州牧緣坐爲奴,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妾春分, 時在大靜縣, 庶兄陽復時在旌義縣配所, 庶弟遇迪, 時在濟州牧配所, 因其地竝緣坐爲婢爲奴之意, 發關分付, 何如? 傳曰, 允.

207. 김익(金煜)

- 신분: 관리(응교)
- 유배 연월: 1769년(영조 45) 2월 3일.
- 해배 연월: 1769년(영조 45) 2월 29일.
- 사유: 건의 불발(상소, 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2) 1769년(영조 45) 2월 3일.

○ 應教金煜上疏, 略曰: “殿下自期非不高矣, 而轉至於自聖, 方圓不須於規矩, 輕重不審於衡石, 好臣其所教而不好臣其所受教. 近年以來, 稍聞繩糾之論, 遽示拂吝之意, 摧折之不足, 譴罰之不足, 不情之教, 過中之旨, 震疊於辭教之間, 處分乖當, 舉措失平. 時或煩惱之極, 過自菲薄, 自貶威重. 以是而朝廷之上, 不敢爲陳閉之言, 只以無忤上旨, 苟全爵祿爲當今第一義, 不復知名義之爲何物, 忠節之爲何事. 一有杈枒峭勁之論, 出於其間, 則群嘲衆詈, 目之以鄉閭, 疑之以起鬧, 時議如此, 世道可知. 雖以目下事言之, 李鼎烈之尊斯文斥濫享, 三日叫閭, 獨進危言, 凜凜有忠愛直截之氣, 是宜嘉獎採納, 而反施竄配之律. 金履禧之職居論思, 略校匡救之言, 而亦被屏裔之典. 伏況稱觴獻壽, 臣民之同慶也, 遇事進言, 三司之常職也. 進宴自進宴, 進言〔自〕進言也, 事件各異, 脈絡不聯, 而激惱於進言, 移怒於進宴, 至使滿庭臣僚, 震蕩罔措, 審如聖教, 則華封祝聖之時, 不宜有益·稷規警之語耶? 惜乎! 伊日大小臣隣, 無一人爲殿下正論, 汲汲彌縫, 有若黽勉而扶持者然, 有君無臣, 臣竊痛之. 爵賞者, 人主勵世之具也. 伏見近日, 大小差除, 多出上簡, 朱子所謂‘除書未出, 物色先定, 姓名未顯, 中外已知, 非天下第一流者’, 不幸近之. 王者奉三無私, 豈於用人之際, 以私恩而病公道也哉? 然而大臣不敢言, 三司不敢論, 惟以窺度聖衷, 先意承迎爲長計, 《書》所謂‘天工人代’者, 豈如是耶?” 疏入, 命金煜通清銓官, 罷職不敘. 諸大臣惶懼, 不敢以煜論斥引咎, 率諸備堂詣賓廳, 上引見, 命承旨讀煜疏, 至進宴事, 上連下嚴教曰: “卿等不退而庭請. 非事君者也.” 仍起入內. 諸大臣立庭下, 請許引接, 齊聲懇乞, 上御建明門, 復召見諸大臣, 又名百官耆民, 命承旨問受宴當否於百官耆民. 於是領議政洪鳳漢等, 以金煜屏裔事, 率百官庭請, 上曰: “何不請絕島安置乎?”

鳳漢曰：“當依聖教爲之矣。”遂請絕島梲棘，卽允之，命梲棘于濟州牧，遂乘輦出，教曰：“當往舊邸矣。”諸大臣蒼黃隨之，王世孫亦隨詣。大臣遮路，將臣具善復等，又皆擔輦，上曰：“將臣忠矣。”皆錫馬，遂還宮。大臣二品以上入侍，復以進宴力請，上曰：“予已誓矣。”戶曹判書金時默曰：“因金煜誤用文字，有此下教，豈不損國體乎？”上曰：“戶判非矣。”命罷職。時夜已五鼓，上曰：“予將就寢矣。”諸大臣退坐閣道，天明始出。

2) 『승정원일기』(책 1289) 1769년(영조 45) 2월 3일.

○ 崔台衡，以義禁府言啓曰，因庭請啓辭，金煜亟施絕島梲棘之典事，依啓矣。罪人金煜，全羅道濟州牧梲棘，而以啓辭內辭意，具罪目，卽爲發遣府都事，卽爲押送配所梲棘，何如？傳曰，允。

3) 『영조실록』(권 112) 1769년(영조 45) 2월 29일.

○ 羅州牧出陸罪人李謙彬，海南縣梲棘罪人尹蕃東，濟州牧梲棘罪人金煜，旌義縣庶人罪人金履禧，黑山島庶人罪人李鼎烈竝放送，因尹長烈疏，命金若行外，海島竄配，特許放送。

4) 『승정원일기』(책 1289) 1769년(영조 45) 2월 29일.

○ 南玄老，以義禁府言啓曰，全羅道羅州牧出陸減等罪人李謙彬，海南縣梲棘罪人尹蕃東，濟州牧梲棘罪人金煜，旌義縣免爲庶人罪人金履禧等放送，承傳啓下矣。竝放送事，分付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208. 최효달(崔孝達)

- 신분: 관리(선전관)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6월 5일.
- 해배 연월: 1771년(영조 47) 6월 22일 이전.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317) 1771년(영조 47) 5월 4일.

○ 宣傳官崔孝達 南正周·金百彬進伏. 孝達曰, 臣馳進南壇摘奸, 則壇直之數八人, 而只有三人, 其餘則姑未充定矣. 正周曰, 臣摘奸于北壇, 則壇直之數亦八人, 而只有一人, 餘未充定矣. 百彬曰, 臣摘奸于先農壇, 則壇直之數亦八人, 而今則無一人矣. 命書傳教曰, 南·北郊二壇, 先農·先蠶二壇設置, 意皆重也, 而況此時乎? 宣傳官摘奸, 意蓋在也. 壇直之數, 或有參差, 亦有無者. 故今日更命宣傳官摘奸, 其數皆八, 而或有未充定者, 至於先農壇, 皆闕云, 事之寒心, 莫此爲甚. 其令禮曹, 今日內壇所附近處有根着人, 一齊差定草記, 而令京兆, 凡諸雜役一切勿侵事, 定式施行, 而外方社壇, 作爲牛馬場者多, 故曾已申飭, 而況當此憫旱時乎? 亦令禮曹, 申飭八道兩都, 設門致潔. 噫, 國君守社稷, 諸道三百六十州, 皆有邑社, 以國君之重, 猶有守社之義, 可不重歟? 另加申飭, 予當令宣傳官抽牲摘奸, 或有不設門不致潔者, 當該守令雖善治, 當禁錮三年, 一體嚴飭. 仍命退出.

2) 『승정원일기』(책 1318) 1771년(영조 47) 6월 5일.

○ 又以義禁府意啓曰, 傳命宣傳官一人, 爲先濟州充軍事, 命下矣. 宣傳官崔孝達, 濟州牧充軍,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分揀.

3) 『승정원일기』(책 1318) 1771년(영조 47) 6월 22일.

○ 兵批, 判書李翼元進, 參判尹得雨進, 參議洪述海, 參知邊得讓進, 右副承旨柳善養進. 以朴聖樞爲同知, … 崔孝達爲訓練主簿, 李顯宅爲訓練主簿, 宋思鑑·具翼元·金大礪·林暄爲武兼, 金東淵爲忠翊衛將, 李憲彬·金益彬·吳益常·朴光迪爲宣傳官, 李汝節爲武兼,

李周聃·禹聖欽·邊聖輔·趙逸鎮爲部將， 宋漢坤爲守門將， 李國觀·金錫彬·金楚璧爲守門將。訓練主簿單李顯宅， 副護軍具明謙·金海柱·申旭， 馬海里權管單李長煜， 江口權管單趙台鎮， 栗浦權管單鄭大濟， 大坡兒權管單徐大秋， 安原權管單姜道璣， 吾村權管單全始大。

209. 송락(宋樂)

- 신분: 관리(전 정언)
- 유배 연월: 1772년(영조 48) 7월 29일.
- 해배 연월: 1772년(영조 48) 12월 29일.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329) 1772년(영조 48) 7월 2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前正言宋樂, 全羅道濟州牧充軍, 倍三道押付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倍三道押付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승정원일기』(책 1333) 1772년(영조 48) 12월 2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充軍罪人宋樂, 晉州牧竄配罪人李得華, 北青府投畀罪人李文源, 三水府投畀罪人李亨元等特放, 今日內分付事, 命下矣. 竝卽爲放送事, 分付各該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210. 이만(二萬)

- 신분: 노비
- 유배 연월: 미상(1773년<영조 49> 3월 5일 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336) 1773년(영조 49) 3월 5일.

○ 趙載得, 以刑曹言啓曰, 張益臣, 已物故而然乎? 此島只三人, 其涉可怪, 令該曹, 考徒流案以啓事, 命下矣. 取考徒流案, 則濟州牧三邑, 元無張益臣定配之事, 而大靜縣定配罪人張益成, 昨年二月, 因病物故. 本曹所管定配罪人濟州牧奴二萬, 大靜縣丁潤愼, 旌義縣洪起震, 合爲三名, 而洪起震, 今正月, 已蒙特放, 奴二萬, 甲申年, 因傳教, 勿揀赦典, 其餘爲奴定配罪人八名, 則自前不入於放未放啓本中之意, 敢啓. 傳曰, 知道.

211. 금련(今連)<여>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3월 30일.
- 해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9월 4일.
- 사유: 연좌(사도세자 처벌 주장 문성국<文聖國> 모친)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3월 30일.

○ 命淑儀文氏奪其爵號, 私第安置, 文聖國施孥籍之典, 聖國母濟州爲婢. 教曰: “予之銘心腐骨, 非但一尙魯, 又有文聖國. 從當洞諭, 而尙魯既處分, 則其在王章, 不可拘於公除.” 仍有是命.

2) 『승정원일기』(책 1379) 1776년(정조 즉위) 4월 1일.

○ 金夏材,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該府成冊, 則逆賊聖國應坐諸人, 查出以來, 而追施逆律者, 其父與子勿施一律, 依兄弟應座律舉行, 奉承傳施行事, 曾有受教矣. 子景行, 咸鏡道甲山府爲奴, 子景輝, 會寧府爲奴, 子景煥, 慶尙道長鬐縣爲奴, 子景興, 平安道龍川府爲奴, 女成愛, 全羅道谷城縣爲婢, 女興艷, 求禮縣爲婢, 妾松月, 慶尙道昆陽郡爲婢, 子婦楚愛, 咸鏡三水府爲婢, 子婦喜念, 富寧府爲婢, 子婦英柱, 慶尙道迎日縣爲婢, 孫順徵, 咸鏡道甲山府爲奴, 孫快徵, 三水府爲奴, 孫赫伊, 富寧府爲奴, 孫潤赫, 會寧府爲奴, 叔繼哲, 洪原縣流三千里安置, 叔弘道, 全羅道長興府流三千里安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配所, 而女人年六十以上, 男夫年八十以上免坐, 載在律文, 母今連年六十, 祖以達年八十, 一竝依律文施行, 何如? 傳曰, 允.

○ 丙申四月初一日未時, 上御廬次. 藥房副提調持湯劑入侍時, 副提調洪國榮, 記事官尹翊東, 記注官朴聖鉉, 記事官朴祐源, 醫官方泰輿, 以次進伏訖. 國榮請進湯劑, 上進御訖, 泰輿先退. 上命國榮書傳教曰, 聖國母今連, 渠以妖僧長髮, 出沒於宮禁, 罪惡貫盈, 不可置之於輦轂之下, 濟州牧爲婢, 當日押付. 又命書前禮曹判書鄭存謙上疏批答訖, 上命退,

諸臣以次退出.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賊聖國母今連, 濟州牧爲婢, 當日押付事, 命下矣.以傳教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當日押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책 1388) 1776년(정조 즉위) 9월 4일.

○ 李義翊, 以義禁府言啓曰, 未結案而用逆律者, 身已死而追施孥籍者, 結案於次律, 而請加極律者, 一竝除之, 而尙魯子侄及聖國諸子, 卽其地安置, 聖國母罪惡貫盈, 今不可舉論, 而其他諸緣坐罪人, 竝放送事, 舉條, 啓下矣, 尙魯子濟州牧旌義縣爲奴罪人致讓, 羅州牧黑山島爲奴罪人致顯, 珍島郡金甲島爲奴罪人致廣, 庶子興陽縣蛇島爲奴罪人致默, 侄巨濟府安置罪人致恭, 靈岩郡楸子島安置罪人致良, 南海縣安置罪人致勛, 珍島郡安置罪人致訥, 聖國子甲山府爲奴罪人景行, 會寧府爲奴罪人景輝, 長鬐縣爲奴罪人景煥, 龍川府爲奴罪人景興等, 仍前配所, 竝爲安置, 聖國母濟州牧爲婢罪人今連, 依前罪目, 濟州牧仍爲爲婢, 而尙魯妻必喜, 妾德辰·松月, 子婦李女孝任, 庶子婦美方, 子之妾萬受, 庶女美行, 孫鍾烈·芑伊, 庶孫石伊, 孫女珠玉, 庶孫女乙任, 聖國妾松月女成愛·興艷, 子婦楚愛·喜艷·莫珠, 孫順徵·潤赫快·徵赫伊, 叔弘道·繼哲等, 竝即放送事, 分付各該道臣, 尙魯·聖國·商輅等, 籍產還給等事, 令各該司舉行, 何如? 傳曰, 允.

212~213. 단혜(丹惠)<여>, 덕순(德順)<여>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4월 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선대왕 모함 대역 조재한<趙載翰> 처, 딸)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4월 1일.

○ 李德師, 朴相老, 趙載翰, 李一和, 崔載興, 柳翰申, 李東讓等伏誅. 初上在春邸, 載翰與一種不逞之徒, 假托壬午義理, 陰結妖宦李興祿, 金壽賢等, 轉聞于上, 興祿等因上遊後苑, 誘脅萬端, 又薦引匪類之入其黨者. 上時在冲年, 心惡之. 至是乘大喪, 載翰嗾鄉儒李一和, 投疏言壬午事, 德師之疏同日并徹, 翰申亦呈疏政院, 疏語同. 教曰: “此誣及先大王之大逆也. 雖在公除前, 當親鞫殿庭, 以告先大王之靈. 一和猶是孤雛, 德師正法然後, 先王之志可明.” 御金商門親鞫德師及李峻培, 峻培, 德師之從姪, 而寫匈疏者也.

2) 『승정원일기』(책 1379) 1776년(정조 즉위) 4월 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則正法罪人載翰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庶子惠鎮年十, 庶子任通年五, 庶子繼龍年三, 俱以年未滿免絞, 惠鎮, 咸鏡道富寧府爲奴, 任通, 全羅道海南縣爲奴, 繼龍, 珍島郡爲奴, 兄載得, 咸鏡道慶興府爲奴, 弟載田, 穩城府爲奴, 弟載天, 鍾城府爲奴, 庶弟載則, 茂山府爲奴, 庶弟載旭, 慶源府爲奴, 妻丹惠, 全羅道濟州牧爲婢. 妾明喜, 咸鏡道會寧府爲婢, 妾新暹, 全羅道珍島郡爲婢, 女德順, 濟州牧爲婢. 庶女何寬, 咸鏡道鏡城府爲婢, 子婦順愛, 全羅道康津縣爲婢, 姪潞鎮, 海南縣安置, 姪溫鎮, 靈巖郡安置, 姪衍鎮, 慶尙道熊川縣安置, 姪平鎮, 機張縣安置, 姪尙特, 長鬐縣安置, 孫三熙, 全羅道康津縣爲奴,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14. 홍필해(洪弼海)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7년(정조 1) 8월 11일.
- 해배 연월: 미상(1781년<정조 5> 1월 16일 유배 중).
- 사유: 역모(정조 시해 연루, 홍계희<洪啟禧> 아들)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8월 11일.

○ 諸賊伏誅. 自前月尊賢閣賊變之後, 屢飭譏詞, 久未斯得. 是夜景秋門守舖軍金春得, 金世徵等, 相與枕藉而臥, 有人低聲呼舖軍者再三, 世徵欲應. 春得時年十七, 亟止之曰: “呼聲可異, 姑勿應, 第觀動靜.” 有頃有人直向景秋門之北垣, 將欲潛越, 春得等蹴起隣舖軍金春三, 李福才二人, 相與追捕, 由兵曹送之捕廳, 捕廳詰其情節, 則院洞任掌田有起改名興文者也. 蓋興文與姜龍輝潛入尊賢閣雷上, 謀欲稱亂而未果, 今又再舉, 竟爲舖軍所捕也. 捕廳以聞, 初命庭鞠. 是日御肅章門, 賞金春得等有差, 親鞫興文, 興文供曰: “述海之子相範, 陰養死士, 謀欲爲逆, 扈衛軍官姜龍輝曉勇如飛, 相範與之隔隣, 深相結納, 啗之以好爵, 使爲其所欲爲. 而以臣有膂力, 貧窮不自資, 龍輝與臣千五百文之錢, 許以女奴妻之, 要與同事, 故臣果諾之, 常與龍輝至相範所居洪大燮之家, 則有洪同知者, 與相範爲九寸親, 參聞密謀, 亦有金興福者在焉. 臣留宿二日, 聽其密謀, 則相範問龍輝曰: ‘與汝同心者幾人?’ 龍輝曰: ‘可得二十人.’ 相範卽列其姓名, 藏之笥中, 指期潛入, 約龍輝手鐵鞭, 臣手利劍, 入闕逢人輒殺, 相範率二十人躡其後, 觀變應接, 要束已定. 七月二十八日, 至闕外屠狗家, 龍輝與臣, 買吃狗醬, 同入闕中, 招繼昌之爲別監者, 月惠之爲內人者, 附耳語良久. 日且暮, 由藥房相對之問安所, 龍輝以肩升臣, 臣又以手扳引龍輝, 則龍輝掬沙襯裾, 同登屋上, 至于尊賢閣中雷, 撤瓦拋沙, 作魍魎狀, 以眩人視聽, 將售不道. 忽聞闕中鼎沸, 搜索甚急, 故臣與龍輝跳下屋簷, 臣伏漏局後之草莽中, 天明由興元門走, 龍輝向禁川橋, 決水門桶逸去. 翌日相會於屠狗家, 見其一足, 跌水尚濕, 相範與金姓人亦自水門桶躡後, 見事機已誤, 旋即逸歸. 龍輝復語臣曰: ‘復當再會相範家, 慎勿沮.’ 及聞大駕還御, 謀欲再舉, 竟爲舖軍所捕也.” … 諸臣至金吾, 跪禱于庭曰: “汝爲逆徒所推戴,

萬無一生，而上雖不忍置汝于死，汝若有臣節，寧可一日活也？”禕拒不從，大臣復求對言：“卽此已無臣節矣。請賜死。”上猶難之，大臣請令承旨，以使之自盡事，榻前定奪書出，上涕泣而領之，乃賜禕死。孝任，甘丁，以窮凶極惡，萬副猶輕，大逆不道正法，趾海，述海，續海，興文，龍輝，相範，相吉，相格，興祚，世福以大逆不道正法，貞伊以謀逆同參正法。澤遂初以謀逆同參結案，上曰：“汝母卽慈宮至親。予不忍以謀逆連坐論。”乃以知情不告正法，興福·信德以知情不告正法，海根，繼昌，啓能，國來承款徑斃，履海·信海亦徑斃，弼海以知情不告結案後，濟州牧圍籬安置。趙峨，禕之妻父，李受采，禕之師徑斃。李克觀，克泰，克己以孝任至親就鞠，克觀，克泰絕島爲奴，克己島配。趙貞喆，南興老，大燮，奇同減死絕島安置，趙元喆，任宗周，具翼遠永丹邊遠定配，李會遂減死島配。李潤成，趙岬，禕妻族絕島定配。李觀源，啓能女婿，洪卓然，洪秉憲，趾海近族，遠地定配。今喜，秀愛以有異造謀，減死定配，福永以累朝宮人，邊遠定配。申光緝因龍輝招逮捕，放逐本鄉。趙濟泰，李彥衡就鞠特放。干連諸囚，並酌決。是歲逆變，載籍所無，而上或恐獄情之濫，一從惟輕之典，至九月十一日，鞠事始撤。

2) 『승정원일기』(책 1406) 1777년(정조 1) 9월 12일.

○ 徐有防,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弼海減死, 絕島圍籬安置事, 命下矣.罪人弼海全羅道濟州牧大靜縣, 減死絕島圍籬安置,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圍籬安置,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책 1479) 1781년(정조 5) 1월 16일.

○ 司諫金和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金重得, 亟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請海南縣定配罪人李弘濟, 亟令王府, 設鞠嚴問. 請大靜縣定配罪人聖中, 放逐罪人有臣·宗甲·義駿等, 並令王府, 設鞠嚴問, 期於得情, 快正王法.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 古今島爲奴罪人克泰, 泗川縣定配罪人萬赫, 更令王府, 嚴鞠得情, 快正王法. 請定配罪人具翼遠,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嚴鞠得情, 快施當律. 請減死安置罪人大燮,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請減死罪人弼海, 亟寢酌處之命, 仍令王府, 設鞠得情, 快正王法. 請遠竄罪人安兼濟·李宅鎮, 亟命王府, 並加嚴鞠, 期於得情, 〈依律〉處斷. 請恒·善支屬, 亟令散配, 時謙兄弟, 並投絕島,

以嚴隄防.請荐棘罪人瑩中, 亟令王府, 設鞫嚴問, 快施當律.請固城縣投畀罪人李鎮常, 巨濟府絕島安置罪人朴宗集, 亟令王府, 拿鞫得情, 施以當律.請濟州牧減死定配罪人範聖, 依律處斷.請減死定配罪人德秀, 亟令王府, 更加嚴鞫, 快正王法.請逆賊尙魯, 亟施孥戮之典.請前判書李滉, 亟施島配之典.請具庠, 設鞫嚴問, 依律處斷.請趙宗鉉, 亟施絕島定配之典. **答院曰, 不允.第九件第十六件事, 亟停勿煩.**措辭見上

215. 조정철(趙貞喆)

- 신분: 관리(가주서)
- 유배 연월: 1777년(정조 1) 9월 11일(제주목)/ 1782년(정조 6) 1월 14일(정의현).
- 이배 연월: 1790년(정조 14) 9월 17일(추자도)/ 1803년(순조 3) 2월 20일(나주목).
- 해배 연월: 1805년(순조 5) 7월 27일.
- 사유: 정치(역모〈정조 시해 미수〉 연루, 홍지해〈洪趾海〉 사위, 홍상간〈洪相簡〉 매제)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8월 11일.

○ 趙貞喆, 南興老, 大變, 奇同減死絕島安置.

2) 『승정원일기』(권 1406) 1777년(정조 1) 9월 11일.

○ 鄭民始, 以義禁府言啓曰, 鞫廳罪人奇同絶島減死安置, 永丹極邊定配, 貞喆絶島減死安置, 元喆邊遠定配事, 命下矣. 罪人奇同全羅道康津縣加里浦鎮減死安置, 罪人永丹平安道朔州府極邊定配, 罪人貞喆濟州牧減死安置, 罪人元喆慶尙道機張縣邊遠定配, 而以備忘記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일성록』 1777년(정조 1) 9월 11일.

○ 義禁府啓言. 鞫廳罪人奇同 加里浦鎮. 貞喆 濟州牧竝減死安置. 永丹 朔州府極邊. 元喆 機張縣邊遠定配. 允之. 又以大變移配旌義縣安置. 啓.

4) 『정조실록』(권 13) 1782년(정조 6) 1월 14일.

○ 判義禁洪樂性啓言: “濟州御史別單中, 州城距船所未滿十里, 如趙貞喆, 沈翼雲之逆孽, 締結陸商, 交通京信. 宜移配貞喆於旌義縣, 翼雲於大靜縣.” 從之.

5) 『승정원일기』(권 1501) 1782년(정조 6) 1월 14일.

○ 樂性曰, 濟州御史朴天衡別單中, 以濟州城內, 去船所未滿十里, 且是許多陸商之所都

會處也.書信之往來,物貨之交通,職由於此.如貞喆·翼雲等罪人,此皆攀緣京洛之類,不可置之於濟州.以臣愚見,貞喆·翼雲,分配於大靜·旌義等縣,似爲得宜,令該府稟處爲請矣.本州之爲許多商賈都會處,誠如御史所陳,則逆攀之如貞喆·翼雲輩,締結陸商,交通京信,必有其弊.罪人貞喆,移配旌義縣,罪人翼雲,移配大靜縣,嚴飭各其配所官,另加檢束,以爲各別防守之地,何如?上曰,依爲之.

6) 『일성록』 1782년(정조 6) 1월 14일.

○ 知事 洪樂性啓言.濟州御史 朴天衡別單中.濟州城內.去船所未滿十里.書信之往來.物貨之交通.職由於此.貞喆 雲翼等罪人.攀緣京洛之類.不可置之於濟州.貞喆 雲翼分配於大靜 旌義等縣.令該府稟處爲請矣.交通京信.必有其弊.罪人貞喆移配旌義.雲翼移配大靜.請各別防守.從之.

7) 『승정원일기』(권 1501) 1782년(정조 6) 1월 1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減死安置罪人貞喆,移配旌義縣定配,定配罪人翼雲,移配大靜縣事,摺條啓下矣.罪人貞喆·翼雲等,仍前罪目,依例發遣府羅將,自濟州牧執捉,押送于各其配所,何如? 傳曰,島中移配,不必自京發差,令該牧使別定將校,押送各其配所,可也.

8) 『일성록』 1782년(정조 6) 1월 15일.

○ 義禁府.以罪人貞喆 翼雲移配啓.教以.島中移配.不必自京發差.令該牧使別定羅將.押送各其配所也.

9) 『일성록』 1790년(정조 14) 9월 17일.

○ 狀啓 以爲臣敬奉教書,頒布三邑,雜犯輕囚,卽令疏放,至於定配罪人,俱是罪犯深重,竝置仍秩,孥籍逆賊緣坐罪人,及爲奴婢罪人等,依例竝不舉論.未放秩禁府所管罪人,旌義縣 會遂,貞喆,大靜縣 煥億,刑曹所管罪人,大靜縣 範中 未喜 信圭,濟州牧 穆金 復丈 林鶴來 金亮基.教曰 旌義縣 減死絕島定配罪人會遂,減死安置罪人貞喆,移配湖南他島,大靜縣 不限年定配罪人 信圭,移配道內稍近島事,分付道臣.

10) 『순조실록』(권 5) 1803년(순조 3) 2월 6일.

○ 大王大妃判下諸道竄配罪人放，未放成冊. 【秋子島安置貞詰出陸，…】仍教曰：“昨年邦慶，卽國朝所未有，往牒所未聞，其在廣慶之道，當靡不用極. 今此疏放之舉，誠出於導揚和氣，祈天永命之意，大小廷臣，須體此意，更勿煩聒.”

11) 『승정원일기』(권 1863) 1803년(순조 3) 2월 6일.

○ 大王大妃殿，傳于李肇源曰，秋子島安置罪人貞詰出陸. 光陽縣竄配罪人李濟萬，熙川郡竄配罪人權裕，明川府竄配罪人金翰東，英陽縣定配罪人洪卓然，穩城府定配罪人順海，竝量移. 南海縣安置罪人趙時俊，鹿島島配罪人宋文輅，郭山郡竄配罪人鄭尙愚，泗川縣定配罪人朴聖泰，鍾城府定配罪人朴齊家，竝放逐鄉里. 金甲島島配罪人度謙，金甲島島配罪人李謹，巨濟府島配罪人宋文述，熊川縣屏裔罪人李允行，朔州府屏裔罪人李羽晉，渭原郡屏裔罪人李仁行，昌城府屏裔罪人趙恒鎮，茂山府屏裔罪人李儒修，三水府屏裔罪人李鎮宅，丹城縣流三千里罪人任長源，泗川縣流三千里罪人李益恢，渭原郡竄配罪人鄭允僑，楚山府竄配罪人白成一，茂山府竄配罪人皮載吉，樂安郡竄配罪人趙圭鎮，竝放.

12) 『일성록』 1803년(순조 3) 2월 6일.

○ 大王大妃殿教曰，昨年邦慶，卽國朝所未有，往牒所未聞，其在廣慶之道，當靡不用極. 今此疏放之舉，誠出於導揚和氣祈天永命之意，然公議不可不從，故日前筵中詢問於諸臣者此也. 今於時原任大臣及諸臣所奏中，不得不勉從者勉從，其外罪犯輕歇之類，不可不分等書下，如此則隄防之嚴曠蕩之典，兩不相妨恩法并行. 大小廷臣，須體諒此意，更勿煩聒. 又教曰 秋子島 安置罪人 貞詰出陸 ….

13) 『승정원일기』(권 1863) 1803년(순조 3) 2월 20일.

○ 閱耆顯，以義禁府言啓曰，金甲島島配罪人度謙，南海縣安置罪人趙時俊，渭原郡屏裔罪人李仁行，量移，秋子島減死安置罪人貞詰，出陸. 茂山府屏裔罪人李儒修，三水府屏裔罪人李鎮宅，樂安郡竄配罪人趙圭鎮，竝放事，承傳啓下矣. 度謙求禮縣量移，趙時俊金山郡量移，李仁行黃海道長湍縣量移，貞詰羅州牧出陸，而前罪目添書，今番承傳，依例發遣府都事及羅將，自各其配所執捉，仍令押付于新定配所，李儒修·李鎮宅·趙圭鎮竝即放送

事, 分付各該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4) 『승정원일기』(권 1891) 1805년(순조 5) 3월 28일.

○ 趙德潤, 以義禁府言啓曰, 穩城府竄配罪人蔡弘遠, 求禮縣量移罪人度謙放送, 羅州牧量移罪人貞喆量移事, 命下矣. 蔡弘遠·度謙, 竝放送事, 分付各該道臣, 貞喆, 黃海道兔山縣量移.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自羅州牧執捉, 押送于新定配所, 何如? 傳曰, 允.

15) 『승정원일기』(권 1897) 1805년(순조 5) 7월 27일.

○ 尹羽烈, 以義禁府言啓曰, 諸道放未放回啓判付內, 海美李馨秀, 長連崔笠, 兔山趙貞喆, 淮陽李殷錫, 昌城李冕膺, 北青金廷臣, 昌原閔昌燦, 丹城金峻岳, 加德金健瑞, 機張沈魯崇, 金山趙時俊, 鎭海趙鎭井, 金海玄重祚, 興陽李景烈, 金甲島履翼, 興陽申耆, 古今島履載·李東萬, 興陽鄭彥仁, 呂島李晚遠放送事, 命下矣. 李馨秀·崔笠·趙貞喆·李殷錫·李冕膺·金廷臣·閔昌燦·金峻岳·金健瑞·趙時俊·李景烈·李晚遠等, 竝放送事, 分付各該道臣, 玄重祚·鄭彥仁, 罪犯深重, 今方別爲疏籲, 而沈魯崇·趙鎭井·履翼·申耆·履載·李東萬等, 俱在臺啓, 不得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16) 『승정원일기』(권 1969) 1809년(순조 9) 7월 11일.

○ 尹益烈, 以吏批言啓曰, … 趙貞喆爲穆陵別檢.

17) 『승정원일기』(권 1969) 1809년(순조 9) 7월 23일.

○ 金宗善, 以吏曹言啓曰, 新除授穆陵別檢趙貞喆呈狀內, 矣身病勢猝劇, 時日之內, 萬無供職之望云. 身病既如是, 則不可強令察任, 改差, 何如? 傳曰, 允.

18) 『승정원일기』(권 1971) 1809년(순조 9) 9월 10일.

○ 載瓚曰, 前別檢趙貞喆, 登科已過三十年云, 依榜後十年陞六之例, 令該曹, 陞六, 何如? 上曰, 依爲之.

19) 『승정원일기』(권 1976) 1809년(순조 9) 12월 30일.

○ 有政. 吏批, … 趙貞喆·李潞爲正言.

20) 『승정원일기』(권 2000) 1811년(순조 11) 5월 6일.

○ 備邊司薦望, 以趙貞喆爲濟州牧使.

21) 『승정원일기』(권 2014) 1812년(순조 12) 4월 15일.

○ 洪秀晚,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趙貞喆身病添劇, 呈狀乞遞, 聞其病情, 果難強令行公, 改差, 何如? 傳曰, 允.

216. 조완(趙峴)

- 신분: 관리(삼도수군통제사)
- 유배 연월: 1777년(정조 1) 9월 27일.
- 해배 연월: 1782년(정조 6) 12월 3일.
- 사유: 정권 변동(역적 정후겸〈鄭厚謙〉, 홍인한〈洪麟漢〉 절친)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2) 1776년(정조 즉위) 12월 2일.

○ 趙峴以厚, 麟私人, 與養厚綢繆, 養厚被謫後, 饋遺事覺, 至是拿鞫. 敎曰: “趙峴便一泰淵也. 與厚謙等諸賊, 居常親切, 貌類吾子之說, 發於和緩之言, 而東宮不必干涉外事統帥, 以此不安莅任之說, 又出於麟漢之口, 渠輩苟非切親, 言之無倫, 豈至此哉? 其他附麗符同之端, 亦甚狼藉, 而逆窟既露之後, 姑未明執其綢繆之跡, 故爲漏網之魚, 而倖迨至今矣. 近始以饋遺養厚之事, 逮究於今番之獄, 乾道昭昭, 政謂此也. 渠雖無狀, 身爲將兵閫帥, 不畏朝綱, 潛通妖賊, 放恣無忌, 乃至於此. 然則古之思戢, 不獨無臣分於戊申, 尤豈非凜然寒心處乎? 然昨冬逆謀, 不可謂之同情, 亦與本獄干連有異, 不必曠日盤問. 至於凡厥諸賊之頤指氣使也, 極意承奉, 狐媚蝨附, 於渠猶是常事, 不必深責. 特從惟輕之典, 罪人趙峴加刑邊遠定配.”

2)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9월 27일.

○ 移配趙峴于濟州牧. 右議政徐命善啓言: “昌城府定配罪人趙峴, 居謫之際, 居處凡百, 無異官府, 濫猾之習, 殊極痛駭. 且賊出後, 亦不無深遠之慮, 絕島移配爲宜.” 從之.

3) 『승정원일기』(책 1407) 1777년(정조 1) 9월 28일.

○ 高裕, 以義禁府言啓曰, 昌城府定配罪人趙峴, 絕島移配事, 舉條啓下矣. 罪人趙峴, 全羅道濟州牧移配, 而以舉條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自昌城府配所執捉, 仍令押送, 何如? 傳曰, 允.

4) 『정조실록』(권 14) 1782년(정조 6) 12월 3일.

○ 召見大臣, 義禁府, 刑曹, 吏·兵曹堂上, 疏放三千一百三十七人. 教曰: “... 量移罪人陸祖煥, 島配罪人鄭澤孚·李萱, 出陸罪人崔東岳·李普溫·尹弘烈, 屏裔罪人安寬濟, 定配罪人安兼濟·申光履·金載順·李金緯·李復一·尹得毅·金悌行·南柱老·李聖模, 放逐罪人趙德成, 身死未蒙放罪人鄭義達, 罪人金相定·安大濟·金相戊·申光緝, 門黜罪人吳道鈺·趙峴·李潤成·李鎮常·孟鳴遠·尹彝復竝放. 趙濟泰, 金昌祿, 李弘達, 李弘濟, 竝減等. 趙岬量移. 圍籬安置罪人韓光緊撤籬.” 時京外謫籍盡空, 蓋無前大需也.

5) 『승정원일기』(책 1522) 1782년(정조 6) 12월 5일.

○ 柳誼, 以義禁府言啓曰, 身死未蒙放罪人康津鄭義達, 楸子島吳道鈺, 濟州趙峴, 鏡城尹彝復, 鎭海金慶浹, 固城李鎮常, 丹城徐德潤, 慶源孟鳴遠, 海南李潤成等, 依傳教放送, 罪案爰周之意, 敢啓. 傳曰, 知道.

217. 윤태연(尹泰淵) 처 희(喜)<여>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7년(정조 1) 10월 1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윤태연<尹泰淵> 처)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9월 21일.

○ 兩司【司諫李謙彬, 持平洪樂恒·鄭淵淳, 獻納洪周萬, 正言金翊休.】上疏, 請泰淵應坐諸人島配, 還寢弼海酌處之命, 依律處斷. 批曰: “泰淵應坐事依施, 末端事不允.”

2) 『승정원일기』(책 1408) 1777년(정조 1) 10월 1일.

○ 高裕, 以刑曹言啓曰, 因臺疏, 罪人泰淵應坐諸人, 絕島散配事, 命下矣. 移文京兆, 考出帳籍, 知委該部, 使之修成成冊以來, 而罪人泰淵子範口全羅道濟州牧大靜縣, 定配所押送事, 草記蒙允後, 已爲發配, 仍前配所押送, 妻喜全羅道濟州牧, 妾善玉旌義縣, 子婦弼禮靈巖郡楸子島, 竝定配所, 卽爲押送, 孫女丹喜今年二歲, 以年未滿, 依律文免坐之意, 敢啓. 傳曰, 知道.

218. 심형지(沈衡之)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8년(정조 2) 8월 26일.
- 이배 연월: 1781년(정조 5) 9월 14일(강진현 신지도).
- 사유: 연좌(역모 심혁(沈錫)의 아들)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6) 1778년(정조 2) 7월 18일.

○ 韓後翼, 洪量海, 沈錫伏誅. 公忠道觀察使徐有隣密啓, 言徐命完告變事情. 初以直閣鄭志儉爲按覈御史, 與道臣眼同究覈. 志儉以情跡之狼藉馳啓, 命逮捕諸罪人. 上御肅章門親鞫, … 錫結案: “臣以後翼之妹夫, 量海之親查, 同一腸肚, 素蓄怨國不道之心. 後翼, 量海, 同會臣家, 後翼疏中四字凶言, 相議搆出, 以爲詆罵, 天日之計. 與後翼, 量海潛圖不軌, 欲爲募人稱兵之舉. 而軍兵猝難嘯聚, 則出於下策, 求得刺客, 挾匕作變. 卽臣等爛漫謀議者, 大逆不道. 是實.”

後翼, 量海, 錫并正法. 干連諸罪人, 分輕重酌配.

2) 『승정원일기』(책 1426) 1778년(정조 2) 8월 26일.

○ 徐有防, 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沈錫子衡之, 依下教, 全羅道濟州牧, 更定配所, 而令刑曹依例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책 1493) 1781년(정조 5) 9월 1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沈錫之子衡之, 卽後樂之甥姪, 同居切隣, 朝夕相從, 衡之弟甲互, 又配旌義, 故互相往來, 無所顧忌云. 兄弟叔侄同配一島, 殊非嚴防限絕通交之意, 分付該府, 使之分配他島事, 舉條啓下矣. 全羅道濟州牧爲奴罪人衡之, 康津縣薪智島爲奴, 旌義縣爲奴罪人甲互, 興陽縣呂島爲奴, 而令刑曹依例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19. 한후락(韓後樂)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8년(정조 2) 8월 1일.
- 나래 연월: 1782년(정조 6) 12월 16일.
- 사유: 연좌(역모 한후익(韓後翼)의 형)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6) 1778년(정조 2) 7월 18일.

○ 韓後翼, 洪量海, 沈鏐伏誅. 公忠道觀察使徐有隣密啓, 言徐命完告變事情. 初以直閣鄭志儉爲按覈御史, 與道臣眼同究覈. 志儉以情跡之狼藉馳啓, 命逮捕諸罪人. 上御肅章門親鞫, … 鏐結案: “臣以後翼之妹夫, 量海之親查, 同一腸肚, 素蓄怨國不道之心. 後翼, 量海, 同會臣家, 後翼疏中四字凶言, 相議搆出, 以爲詆罵, 天日之計. 與後翼, 量海潛圖不軌, 欲爲募人稱兵之舉. 而軍兵猝難嘯聚, 則出於下策, 求得刺客, 挾匕作變. 卽臣等爛漫謀議者, 大逆不道. 是實.” 後翼, 量海, 鏐并正法, 干連諸罪人, 分輕重酌配.

2) 『정조실록』(권 6) 1778년(정조 2) 7월 21일.

○ 大司憲李衍祥, 持平李延年啓言: “後樂以正法罪人後翼之兄. 見其弟凶疏, 初不挽止, 爛漫綢繆之陰凶情節, 與後翼一而二, 二而一也. 請亟令王府, 嚴鞫得情, 明施典刑.” 不允.

3) 『승정원일기』(책 1425) 1778년(정조 2) 7월 2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後樂, 依堂啓, 參酌定配事, 命下矣. 罪人後樂, 全羅道興陽縣鹿島鎭, 定配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책 1426) 1778년(정조 2) 8월 1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尹昌鼎以慶尙道定配所, 孟鳴遠以咸鏡道定配所, 後樂以濟州定配

所後, 草記事, 命下矣. 罪人尹昌鼎, 慶尙道河東府減死定配, 罪人孟鳴遠, 咸鏡道慶源府定配,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罪人後樂, 全羅道濟州牧定配. 而已爲發配於興陽縣鹿島鎮, 發遣府羅將, 所到處執捉. 仍令押送于濟州牧, 何如? 傳曰, 允.

5) 『정조실록』(권 12) 1781년(정조 5) 10월 9일.

○ 諭濟州御史朴天衡, 教曰: “觀此狀啓, 別無更覈之事, 許久留滯, 徒貽民邑之弊. 罪人翼雲, 貞詰, 會遂, 後樂, 衡之, 致讓, 範中, 秉成及丹惠慘等, 依前配所, 嚴飭保授. 所謂劉世輝, 居在廣州云, 分付捕廳發捕. 其餘諸囚, 竝參酌決折, 待竣事, 卽爲復路.”

6) 『승정원일기』(책 1495) 1781년(정조 5) 10월 9일.

○ 辛丑十月初九日申時, 上御誠正閣.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李在學, 假注書趙衍德, 編修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教曰, 觀此狀啓, 別無更覈之事, 若以狀啓之未及回下, 不卽還程, 則許久留滯, 徒貽民邑之弊, 罪人翼雲·貞詰·會遂·後樂·衡之·致讓·範中·秉成及丹惠慘等, 依前配所, 嚴飭保授, 所謂劉世輝稱名漢, 居在廣州地云, 分付捕廳, 已令發捕矣, 其他干連諸囚, 竝參量決折, 待峻[竣]事卽爲復路之意, 回諭于濟州御史處. 又命書傳教曰, 諸囚滯獄, 民邑之弊, 不可不念, 從當分等酌處, 而其中金愛·李奎景, 朝廷既從大臣之請, 根因脈絡, 有難平問取服, 嚴刑得情, 斯速馳聞, 大臣擧條, 臚出一通, 與此有旨, 同爲下送于審覈使處, 向欲下教而未果, 參覈官太多, 徒貽廚傳之弊, 量宜差定, 餘皆罷送事, 一體回諭. 又命書領議政筭批訖. 命退, 承史以次退出.

7) 『승정원일기』(책 1523) 1782년(정조 6) 12월 16일.

○ 又啓曰, 後樂, 既以後翼爲弟, 且以量海鏐爲黨, 則凶謀逆節, 必無不知之理, 而親問之下, 游辭漫漶, 至以本不見重於其弟之說, 肆然納供, 究其情節, 極爲叵測, 不可以不了了極蠢蠢, 而有所容貸, 請濟州牧定配罪人後樂, 亟令王府, 更加嚴鞫, 期於得情. 上曰, 依啓.

8) 『승정원일기』(책 1523) 1782년(정조 6) 12월 17일.

○ 以濟州牧定配罪人後樂嚴鞫傳旨, 傳于柳誼曰, 公議伸, 此傳旨置之.

220. 단혜삼(丹惠慘)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
- 해배 연월: 미상(1781년<정조 5> 10월 9일 유배 중)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2) 1781년(정조 5) 10월 9일.

○ 諭濟州御史朴天衡, 教曰: “觀此狀啓, 別無更覈之事, 許久留滯, 徒貽民邑之弊. 罪人翼雲, 貞喆, 會遂, 後樂, 衡之, 致讓, 範中, 秉成及丹惠慘等, 依前配所, 嚴飭保授. 所謂劉世輝, 居在廣州云, 分付捕廳發捕. 其餘諸囚, 竝參酌決折, 待竣事, 卽爲復路.”

2) 『승정원일기』(책 1495) 1781년(정조 5) 10월 9일.

○ 辛丑十月初九日申時, 上御誠正閣.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李在學, 假注書趙衍德, 編修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教曰, 觀此狀啓, 別無更覈之事, 若以狀啓之未及回下, 不卽還程, 則許久留滯, 徒貽民邑之弊, 罪人翼雲·貞喆·會遂·後樂·衡之·致讓·範中·秉成及丹惠慘等, 依前配所, 嚴飭保授, 所謂劉世輝稱名漢, 居在廣州地云, 分付捕廳, 已令發捕矣, 其他干連諸囚, 竝參量決折, 待峻[竣]事卽爲復路之意, 回諭于濟州御史處. 又命書傳教曰, 諸囚滯獄, 民邑之弊, 不可不念, 從當分等酌處, 而其中金愛·李奎景, 朝廷旣從大臣之請, 根因脈絡, 有難平問取服, 嚴刑得情, 斯速馳聞, 大臣舉條, 膽出一通, 與此有旨, 同爲下送于審覈使處, 向欲下教而未果, 參覈官太多, 徒貽廚傳之弊, 量宜差定, 餘皆罷送事, 一體回諭. 又命書領議政筭批訖. 命退, 承史以次退出.

221. 임학래(林鶴來)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84년(정조 8) 3월 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530) 1783년(정조 7) 4월 5일.

○ 以全羅監司罪人林鶴來到配事狀啓, 傳于鄭存中曰, 此等罪人, 各別嚴飭, 萬一疎虞, 自卿難免重勘, 惕念舉行事, 回諭.

2) 『승정원일기』(책 1552) 1784년(정조 8) 3월 2일.

○ 金思穆, 以刑曹言啓曰, 全羅道定配罪人中, 淳昌崔茂山, 潭陽李世佑, 珍山李春燁, 樂安奴喆伊, 興陽池維漢·崔順得, 光陽朴春成等, 放. 康津奴苐金, 興陽婢今禮, 光陽朴命德, 康津奴大者, 光陽金時三, 康津朴師赫, 羅州李枝春, 康津朴尙玄等, 移配稍實邑. 康津朴宗性, 羅州崔潭, 谷城黃後昌, 鹿島文弘德, 興陽俞雲柱, 光陽李馨垚·洪龍世, 移配, 南桃浦孫德福, 楸子島景行等, 移配左島, 黑山島崔光泰, 移配左道水營地方島. 古今島有達, 移配他島, 古今島金天欽, 移配左道, 康津崔德崇·林奉春移配海西稍實邑. 康津韓後良, 楸子島移配, 康津林鶴來, 濟州移配. 靈巖韓走傑, 黃州移配事, 命下矣. 崔茂山等七名, 竝即放送. 奴苐金茂朱府, 婢今禮任實縣, 朴命德潭陽府, 奴大者淳昌郡, 金時三高山縣, 朴師赫龍潭縣, 李枝春同福縣, 朴尙玄珍山郡, 朴宗性長城府, 崔潭南平縣, 黃後昌鎭安縣, 文弘德長水縣, 俞雲柱泰仁縣, 李馨垚井邑縣, 洪龍世玉果縣, 孫德福呂島, 景行蛇渡, 崔光泰防踏, 有達鉢島, 金天欽錦山郡, 崔德崇黃海道載寧郡, 林奉春安岳郡, 竝定配所, 仍前罪目, 卽爲押送. 韓後良·林鶴來·韓走傑等, 亦依書下配所, 卽爲押送事, 一體發關, 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依俄下草記批旨, 舉行, 可也.

222. 구순(具純)

- 신분: 관리(별군직)
- 유배 연월: 1787년(정조 11) 1월 3일.
- 이배 연월: 1789년(정조 13) 4월 18일(장성부).
- 사유: 무고죄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23) 1787년(정조 11) 1월 3일.

○ 配別軍職具純于濟州, 曹學臣于明川. 純與別軍職李潤彬有隙, 摘其私語以奏. 教曰: “反坐, 自有常典. 渠既構誣潤彬, 乘機敲撼, 以渠之從兄柳孝源, 爲潤彬同情, 渠自作證, 寧有如許陰毒之事乎? 具純限死決棍定配, 曹學臣無實冗長, 猥忝廳首. 令兵判, 決棍定配.”

2) 『승정원일기』(책 1617) 1787년(정조 11) 1월 3일.

○ 洪義榮,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具純, 濟州牧減死定配, 罪人曹學臣, 遠地定配事, 承傳, 啓下矣. 罪人具純, 以承傳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書吏, 着行次枷, 嚴禁雜人押送配所, 而到配後, 各別防守, 俾無疎虞之意, 行會于該道道臣及該牧使處, 罪人曹學臣, 咸鏡道明川府, 遠地定配, 而亦以承傳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책 1655) 1789년(정조 13) 4월 18일.

○ 李敏采,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減死定配罪人具純, 出陸量移事, 命下矣. 具純, 全羅道長城府出陸量移,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 自濟州牧執捉, 仍令押付于配所, 何如? 傳曰, 允.

223. 조시위(趙時偉)

- 신분: 관리(이조참판)
- 유배 연월: 1789년(정조 13) 5월 12일.
- 사망 연월: 1804년(순조 4) 2월 2일 이전.
- 사유: 역모 연루(이담〈李湛〉 역모)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27) 1789년(정조 13) 5월 12일.

○ 移配趙時偉于濟州牧, 加棘. 敎曰: “如鬼如人, 似勘似斬, 寧有如許刑政乎? 非不知早已處斷, 而不鞫則無以正其律, 鞫必先請證質, 國言豈有證乎? 然則無出於徑斃與還配, 此所以尙今拖到不決者. 衆口如沸之國言, 雖難的指參聽, 以渠之地處, 得聞此說, 卽此可謂斷案. 爲人臣子, 負此罪名, 偃息於橫目之列, 以尋常島置, 殆作究竟法者, 自有刑政以來所未聞. 如是之際, 疏章之堆集公車者, 效噤者自歸塞責, 逞私者若將網打, 居然成一副當偏戰, 一時偉之害, 胡至此甚? 論以生道殺人之義, 渠之所犯, 雖在可東可西之間, 斷當付渠司敗, 快正典刑, 以贖無累之許多世臣, 況上累下害, 公私受病, 乃至於未暇救藥者乎? 此一款, 比之本事, 猶屬總功之察, 其爲駭憤亦大矣. 大抵不良不逞, 自犯罔赦, 而以鞫啓之未見許, 因仍勾勘於編配, 終有乖於刑政. 金甲島島置罪人趙時偉, 姑先移配濟州, 施以加棘之典. 雖欲拿鞫, 豈係於島棘與否? 前此島棘處分, 輒皆請寢, 反涉如何, 令該府知悉.”

2) 『승정원일기』(책 1656) 1789년(정조 13) 5월 12일.

○ 洪仁浩, 以義禁府言啓曰, 金甲島島置罪人趙時偉, 姑先移配濟州, 施以加棘之典事, 命下矣. 罪人時偉, 卽爲發遣府都事, 自金甲島執捉, 仍令押送于濟州牧, 與地方官, 眼同荐棘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정조실록』(권 29) 1790년(정조 14) 1월 10일.

○ 兩司【大司憲洪秀輔, 大司諫尹曠, 掌令李錫夏, 獻納魚錫齡】合啓言: “物故罪人在

簡, 本以梟獍之性, 兼以蛇蝎之毒, 護法於鏡, 虎, 傳神於雲, . 讎視義理, 背君死黨, 卽渠平生伎倆, 而及夫綢繆字, 偉, 締結姻, 湛, 暗地醞釀, 密逕排布, 固非一朝一夕之故, … 請物故罪人在簡, 亟施拏戮之典.” 批曰: “在簡事, 既膽前啓, 如是加律何也?”

4) 『승정원일기』(책 1873) 1803년(순조 3) 11월 30일.

○ 荏棘罪人時偉, 設鞫得情, 快正王法, 遲晚罪人字鎮, 捧根脚快正王法, 上曰, 不允.

5) 『승정원일기』(책 1877) 1804년(순조 4) 2월 2일.

○ 噫嘻, 時偉性本陰譎, 行又凶悖, 賊翰之餘論, 無不主張, 賣權兜攬, 惟意所欲, 樂禍忌伎, 爲世側目, 厥有久矣. 暗結妖字之父子, 昏夜綢繆, 情跡陰祕, 隱然自比於戚聯之人, 至欲擬舉於握兵之任, 長惡助勢, 便一窩主, 及夫賊字之輸款, 而渠之眞賊, 畢露無餘, 推此一款, 卽是斷案, 而尤有國人之至今所腐心痛骨者, 壬寅秋邦慶, 實是八域臣民歡忭蹈舞之辰, 而噫, 彼時偉, 抑獨何心, 顯示不悅之意, 章奏之上, 力遏邦慶二字, 酬酢之間, 牢諱慶忭等語, 公坐稠廣, 攘臂咆喝, 有耳皆聞, 無人不道, 及至定號之日, 肆發凶言於衆人之中曰, 今此定號, 何如是太早, 究厥心腸, 已萬萬極凶絕悖, 而甚至於五月喪變之後, 以平日不平之心, 益肆陰凶之計, 暗囑其兄, 沮戲葬地, 國言喧藉, 情節莫掩, 特以先大王好生之德, 姑不設鞫嚴問, 只施絕島荏棘, 而王章未加, 鬼誅先及, 神人之憤, 容有極哉, 請物故罪人時偉諸子, 亟施散配之典. 答曰, 不允. 有隣諸子事, 履載事, 不允. 在學等事, 徐有防事, 勿煩, 行恁諸子事, 不允. 十五字刀削家煥等事, 國榮事, 不允. 末端事, 不允.

224. 신기현(申驥顯)

- 신분: 관리(승지)
- 유배 연월: 1792년(정조 16) 11월 24일.
- 사망 연월: 1795년(정조 19) 1월 17일.
- 사유: 흥언 역적 연루(이재간〈李在簡〉사주 상소)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36) 1792년(정조 16) 11월 24일.

○ 命申驥顯減死, 配于濟州牧. 教曰: “爲萬世深長慮, 欲樹君君臣臣之大綱. 於是乎慈教所重, 非不知也, 有向來陞擢之舉矣. 到今渠忽翻身, 反以專輒爲臣分之當然, 至曰不知專輒之爲何物, 而爲李在簡者, 所妄度脅使, 究渠情狀, 可謂殺無赦. 到今渠爲從, 而簡爲首矣, 討之則一也. 朝家之深嫉者, 翻身也; 廷臣之齊憤者, 知情也. 政所謂同行異情, 殺獄雖有首從, 此案豈容說首與從乎? 然於律有之, 犯上大辟也. 知而不告減一等, 況知而告者乎? 特以告之後時, 欲用不告之律者, 自有微意在焉. 二死之減而爲流之文, 若爲渠設, 罪人申驥顯, 依此律舉行. 專輒人臣之極罪, 欲暴伊時辦一死之本情, 須有講明輕重之別, 然後可以有國有君, 觀於禁堂除拜, 予意尤可知. 此而不卽舉行, 敢欲抗拒, 則國有常憲, 予言不再.”

2) 『승정원일기』(책 1711) 1792년(정조 16) 11월 24일.

○ 李書九, 以義禁府言啓曰, 犯上, 大辟也. 知而不告減一等, 況知而告者乎? 特以告之後時, 欲用不告之律者, 自有微意在焉. 二死之減而爲流之文, 若爲渠設, 罪人申驥顯, 依此律學行事, 命下矣. 罪人申驥顯, 全羅道濟州牧減死島配,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發遣府羅將, 當刻內押送配所, 而此特貸頭之一凶逆, 不可以尋常絕島舉行. 故雖未承下教, 以耽羅磨鍊以入, 而押去之時, 另加防守之意, 分付沿路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정조실록』(권 42) 1795년(정조 19) 1월 17일.

○ 又教曰: “有喆坐律竄死, 豈可久置鬼錄中? 煥周應坐外被謫而死’ 後樂生前不爲加刑,

何斬於死後？韓采，東彬不足道’在簡若非道死，豈不生還乎？與拿問得情，發配有間，當此大霈，豈可置之未決之中？疎不過坐律，則物故自當爰周。特因出於囚供，尚在赦文書中，不足責。驥顯死後，何必追理生前事乎？竝徒流案抹去。”又命盧聖中，李疎亦抹去。

4) 『승정원일기』(책 1740) 1795년(정조 19) 1월 18일.

○ 以禁府定配身死未蒙放罪人赦單子，傳于成德雨曰，朴廷燦，放。有詰，坐律竄死，豈可久置鬼錄中？徒流案抹去。煥周，應坐外被謫而死者，徒流案抹去。後樂，生前不爲加刑，何斬於死後？徒流案抹去。聖中徒流案抹去。韓采，不足道，徒流案抹去。東彬，亦不足道，徒流案抹去。在簡，若非道死，豈不生還乎？與拿問得情發配有間。當此大霈，豈可置之未決之中？放。疎，不過坐律，則物故自當爰周，特因出於囚供，尚在赦文書中，不足責，依應坐定配人物故例，徒流案抹去事，分付。驥顯，死後何必追理生前事乎？徒流案抹去。疎與疎，無異，一依應坐物故施行，抹去。朱炯魯，無足責，抹去。

225~227. 이경일(李敬一), 최수로(崔守魯), 이정운(李貞運)

- 신분: 관리(이경일<대사간>, 최수로<지평>, 이정운<헌납>)
- 유배 연월: 1794년(정조 18) 4월 28일.
- 해배 연월: 1794년(정조 18) 6월 1일.
- 사유: 건의 불발(언로 개방 진언 불수용)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39) 1794년(정조 18) 4월 28일.

○ 三司【大司諫李敬一, 持平崔守魯, 獻納李貞運, 副校理崔獻重, 修撰韓光植.】合啓言:
“言路之開閉, 實關有國之興替, 而殿下設爲禁令, 屢下不忍聞之教, 使諸臣更不得容喙者, 已是群情之掩抑, 而至於三司合啓末端事燒火之命, 尤爲萬萬非常之舉, 而四百年所未有之事也. 臣等之所以藉手事君者, 卽懲討之大義理也. 義理斃絕, 則其將國不國人不人, 而舉皆入於夷狄禽獸之域矣. 臣等雖甚無似, 顧其職則執法之地也. 今若怵於嚴威, 以涉禁爲戒, 不思所以碎首力爭, 格回天心之道, 則聖朝之置臺閣, 將焉用哉? 伏願亟收禁令, 以開言路, 使義理不至斃絕焉.” 批曰: “不允.” 教曰: “雖此啓, 豈可使之發口, 而今筵以兩元輔登筵力陳, 竊以爲敬禮之方, 收還禁令之請一款, 付之三司, 爲言於兩相矣. 然以筵以疏, 左右迭發, 則其言不過收禁, 其苦甚於前啓謄傳. 今筵此啓外, 切勿以文字迭相煩聒事, 該房遵此筵教, 分付三司.”

2) 『정조실록』(권 39) 1794년(정조 18) 4월 28일.

○ 竄李敬一, 李貞運, 崔守魯於濟州牧, 配林濟遠, 俞漢寧, 李儒慶於湖沿. 教曰: “今日三司事, 欲聲言, 則又將爲一番風波. 且觀諫長等所爲, 則無足責備, 只以許遞, 無痕彌縫之餘. 今忽以初未嘗分明, 發自其口, 眞箇徹于上聽之一張舉條曰: ‘以改措語之啓, 無批答.’ 書入, 又以一長, 稱以收禁事所懷無批答, 亦爲書入, 而瞰承宣之未及歸院, 潛納于四仙閣, 此非臺啓, 卽投書也. 往古來今, 寧有如許格例乎? 苟欲禁令無拘, 筵教不顧, 則豈有不可爲之事, 不可發之啓乎? 以不治治之. 筵席之着帽出去, 已可謂倖追, 則追後舉措, 不可以無足責, 又略其投其草之罪. 無簡通之舉條草, 潛投堂后之兩司諸臺, 濟州牧勿限

年投竄，勿揀赦典。今日事，其間事勢，承旨果曖昧，而不能預禁於未然之罪，焉敢免乎？不可以身從下土，未聞筵教，有所屈法，姑從末勘，該房承旨湖沿定配。在院承旨，熟知事實，若論不能檢飭，罪浮於該房。湖沿亦爲定配。”

3) 『승정원일기』(책 1729) 1794년(정조 18) 4월 28일.

○ 李勉兢，以義禁府言啓曰，前大司諫李敬一，前獻納李貞運，前持平崔守魯，濟州牧爲先勿限年投竄，勿揀赦典事，承傳啓下矣。李敬一·李貞運·崔守魯等，全羅道濟州牧，勿限年投竄，而以承傳內辭意，具罪目，依下教發遣一書吏，卽爲押送配所之意，敢啓。傳曰，知道。

4) 『승정원일기』(책 1731) 1794년(정조 18) 6월 1일.

○ 尹致性，以義禁府言啓曰，濟州牧竄配罪人李敬一·李貞運·崔守魯，義興縣定配罪人朴宗甲，江東縣定配罪人洪受浩，竝放送事，承傳啓下矣。李敬一·李貞運·崔守魯·朴宗甲·洪受浩，竝卽放送事，分付各該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228. 강이천(姜彝天)

- 신분: 유생(진사)
- 유배 연월: 1797년(정조 21) 11월 12일.
- 나래 연월: 1801년(순조 1) 3월 16일.
- 사유: 종교박해(신유박해)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47) 1797년(정조 21) 11월 12일.

○ 配刑曹罪人姜彝天于濟州牧, 金履白于黑山島, 金鑣于慶源府.

2) 『승정원일기』(책 1783) 1797년(정조 21) 11월 12일.

○ 李海愚, 以刑曹言啓曰, 因罪人姜彝天等捧供啓目, 判付內, 向聞大臣所奏, 政欲火其紙而人其人, 姜哥不知本意之如此, 急於自拔, 往告重臣, 到此當顧事面, 使之一番推問是置, 嚴刑島配, 俾圖自新更生之方, 而所謂金哥之履白稱名漢, 嚴刑減死定配, 金鑣定配, 金鑄何足責? 與金信國·李周璜勿論事判下矣. 依判下, 罪人姜彝天, 嚴刑一次, 全羅道濟州牧, 金履白, 依前劃紙加刑後, 羅州牧黑山島, 減死定配, 金鑣, 咸鏡道慶源府定配所, 竝卽押送, 金信國·李周璜等, 謹以判付內辭意曉諭, 放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정조실록』(권 47) 1797년(정조 21) 11월 16일.

○ 左議政蔡濟恭啓言: “刑曹罪人姜彝天罪狀顛末, 臣不見文案, 故未詳其裏面, 而但聞彝天, 締結匪類, 出入京外, 做出妖言, 誑誘鄉曲無知之輩者, 已有年所云. 其心則出於欺人取物之計, 而其跡則妖言惑衆, 正是當律. 懸之藁街, 懲一勵百, 夫誰曰不可? 而以天地好生之德, 止於刑訊島配, 臣何必力爭? 而第念彝天性既妖邪, 文兼薄才, 如耽羅遐遠之地, 招聚蚩蠱之類, 誑惑人心, 如前日之爲, 則有國法, 在渠顧無足惜, 而無罪蚩氓, 若因渠而陷於罪辟, 則不亦可矜乎? 臣意則嚴飭耽羅守臣, 嚴加伺察, 無論班族與常漢, 使無敢出入於彝天居接之主人, 以絕稔惡之路, 恐不可已. 而今番諸罪人, 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 申飭各其所配官, 防戢伺察, 一依耽羅例爲之之意, 請各別知委.” 批曰: “他人之

見惑，姑無論，渠輩圖生自新之方，政在於閉門讀書。追悔愆尤，若自新爲端士，則豈不卽爲酌放乎？以此嚴飭各該道臣及地方官，一邊曉諭，一邊嚴戢，期於爲人。”

4) 『승정원일기』(책 1834) 1801년(순조 1) 3월 8일.

○ 左議政李時秀曰, 罪人金履白已拿來, 而金鑣·姜彝天則姑未及拿來, 將待他罪人之拿來, 設鞫乎, 當先爲設鞫乎? 委官無由登筵, 要臣提奏, 故敢此仰稟矣. 上曰, 待他罪人之拿來, 同爲設鞫, 可也. 仍命退出, 時秀先爲退出.

5) 『순조실록』(권 2) 1801년(순조 1) 3월 16일.

○ 推鞫罪人周文謨, 言語未熟, 請以書告曰: 矣身世居蘇州之地, 壯年來留北京之天主堂. 甲寅春, 遇朝鮮人池璜, 而因冬至使行時, 邊門相通, 始爲出柵, 此是西洋人梁棟材之所紹介. 亦有權姓, 崔姓人書札之相通, 而初與相逢之池璜, 乙卯死於捕廳. 渠自義州至京, 轉輾留住於願學諸人處爲供. 其辭連諸人, 蓋多鞫獄中勘罪者. 而又及於島棘罪人姻妻宋氏, 姻之子湛妻申氏, 至受領洗, 領洗者, 卽邪學受教之法也. 參鞫時, 原任大臣及金吾堂上, 相率求對, 請姻妻, 湛妻, 竝賜死, 大王大妃教曰: “先朝於此罪人, 終始全恩, 而至於其家眷之今番負犯, 大關風化, 但當罪其罪, 以懲其他. 而渠家既係國家懿親, 先從此輩用法, 然後閭巷匹庶, 知有邦憲, 有所懲畏, 卿等之所請, 不得不允從矣.” 傳旨曰: 江華府安置罪人姻妻宋姓, 其子湛妻申姓等夫婦俱溺於邪學, 與外人凶醜, 往來相見, 而罔畏邦禁之至嚴, 肆然藏匿於家中, 論其負犯, 不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 并賜死. 文謨供辭中, 又有與金建淳, 姜彝天, 金鑣, 金履白等諸人, 相會傳法之說, 并爲發捕.

6) 『승정원일기』(책 1835) 1801년(순조 1) 3월 26일.

○ 推鞫時罪人姜彝天原情, 罪人金信國原情後, 與罪人姜彝天面質, 罪人金履白更招後, 與罪人姜彝天面質, 罪人金建淳更招後, 與罪人姜彝天面質, 罪人金鎔更招後, 與罪人姜彝天·金建淳面質, 罪人金鑣更招, 罪人李喜英更招.

229. 홍낙임(洪樂任)

- 신분: 외척(혜경궁 홍씨 동생)
- 유배 연월: 1801년(순조 1) 4월 27일.
- 사망 연월: 1801년(순조 1) 5월 29일.
- 사유: 종교박해(신유박해)
- 관련 사료

1) 『순조실록』(권 2) 1801년(순조 1) 4월 27일.

○ 大王大妃 仍下諺教曰: 今日諸臣之請, 實是國人之公議, 予雖婦人, 豈不知當以大義斷之? 而第思之, 先朝不忍置法, 至今曲保之聖意, 惻怛懇懇, 有足以泣鬼神. 其在今日, 豈忍以陟降冥冥, 遽違昔日之至意也? 然庭籲日久, 公議所激, 有難一味牢拒. 江華府島置罪人禍, 卽其地并其子移置他家, 加律荐棘. 前知敦寧洪樂任, 濟州牧圍籬安置.

2) 『순조실록』(권 3) 1801년(순조 1) 5월 29일.

○ 賜江華府荐棘罪人禍, 濟州牧安置罪人洪樂任死.

3) 『승정원일기』(책 1837) 1801년(순조 1) 5월 29일.

○ 李肇源,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圍籬安置罪人樂任賜死事, 承傳啓下矣. 罪人樂任,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賜死之意, 敢啓. 傳曰, 知道.

230. 윤중원(尹鍾遠)

- 신분: 종교인(천주교)<윤지충(尹持忠) 동생>
- 유배 연월: 1801년(순조 1) 10월 1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종교박해(신유박해)
- 관련 사료

1) 『순조실록』(권 3) 1801년(순조 1) 9월 11일.

○ 時, 原任大臣, 聯筭請: “秋曹在囚罪人, 既皆輸款, 情節極爲凶悖, 不可許久滯獄. 拿致鞠廳, 具格舉行.” 賜批許之. 仍設推鞠, 酌處邪學罪人, 罪人柳恒儉, 蠱惑邪學, 同心講習, 奉周文謨爲神父, 埋主廢祭等罪惡, 已極罔赦. 而至與李家煥, 李承薰, 權日身, 洪樂敏輩, 符同周賊, 潛通異國, 家煥出五十兩銀, 渠與堂姪重泰, 辦出四百兩錢, 治送金有一於北京之天主堂, 請出大舶, 以爲脅持我國, 一場判決之計, 窮凶絕悖, 萬戮猶輕, 以大逆不道結案. 罪人柳觀儉, 恒儉之弟, 而爛漫綢繆於邀來洋人之學, 埋主滅倫之罪, 請來大舶之計, 難足而難弟, 以謀逆同參結案. 罪人尹持憲, 持忠之弟也, 渠兄伏法之後, 終不改悔, 又與恒儉兄弟, 符同沈溺, 鼓倡邪學, 崇奉周賊, 潛通異域, 貽書洋人, 前後三次, 請來大舶之陰謀凶計, 爛漫參涉, 以謀逆同參結案. 罪人李宇集, 以恒儉之切姻, 受觀儉之勸誘, 傳受邪學, 至死不變, 恒儉輩潛通異類, 請來大舶之事, 全無驚憤奔告之意, 雄唱雌和, 闌漫酬酢, 以知情不告結案. 罪人金有山, 本以鄉曲常賤, 酷信邪學, 往來於若鍾, 恒儉之家, 通涉於家煥, 存昌之間, 訪邪魁於營獄, 蔽妖札於衣襟, 敢以驛卒名色, 潛入洋人所居之堂, 傳書討答, 爛漫交通, 以知情不告結案. 竝押送于全羅監營正法.

2) 『승정원일기』(책 1842) 1801년(순조 1) 10월 11일.

○ 李翊模, 以義禁府言啓曰, 卽接高山縣監李在純牒報及成冊, 則謀逆同參罪人持憲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妻宗恒, 全羅道羅州牧黑山島爲婢, 子鍾遠年十五, 子鍾近年十三, 子鍾得年四, 俱以年未滿, 依律文免絞, 鍾遠, 全羅道濟州牧, 鍾近, 慶尙道巨濟府, 鍾得, 南海縣, 竝爲奴, 女英日, 咸鏡道慶興府, 女成愛, 平安道碧潼郡, 竝爲婢, 而右罪人等,

方囚於高山縣獄，竝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3) 『승정원일기』(책 1842) 1801년(순조 1) 10월 15일.

○ 鄭東觀，以刑曹言啓曰，因義禁府啓辭，謀逆同參罪人持憲妻宗恒，全羅道羅州牧黑山島爲婢，子鍾遠年十五，子鍾近年十三，子鍾得年四，俱以年未滿免絞，鍾遠，全羅道濟州牧，鍾近，慶尙道巨濟府，鍾得，南海縣竝爲奴，女英日，咸鏡道慶興府，女成愛，平安道碧潼郡，竝爲婢事，命下矣。上項罪人等，方囚高山縣獄，押送各其配所事，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231. 이치훈(李致薰)

- 신분: 종교인(천주교)〈이승훈(李承薰) 동생〉
- 유배 연월: 1801년(순조 1) 11월 5일.
- 사망 연월: 1823년(순조 23) 8월 5일.
- 사유: 종교박해(신유박해)
- 관련 사료

1) 『순조실록』(권 2) 1801년(순조 1) 4월 21일.

○持平李允行疏略. 曰: 嗚呼! 近日邪學, 千古所無之一大變怪也. 何幸日監孔昭, 天討肆行, 凶魁醜徒, 次第伏法, 而猶有所深憂遠慮者. 噫! 彼李致薰, 以承薰之弟, 傾邪儉巧, 萬惡俱備. 今於其兄正刑之後, 少無畏戢之心, 偃處城園之間, 殆同無故者然, 而締結餘孽, 閃忽行跡, 死黨怨國之狀, 傳聞狼藉. 李益運, 本以濟恭之卵育, 又結樂敏之親查. 外若攻斥邪學, 而內實網繆凶黨, 陰謀祕計, 昭不可掩. 其子之名, 屢出於賊招, 而至發於儒通, 則自知其罪之難追, 遽斃於一夜之間, 以爲滅口之計. 若使益運, 苦心禁止於平日, 則薰染沈惑, 豈止於此哉? 且以今番渠疏觀之, 告君之語, 何等嚴重, 而滿紙肆毒, 遣辭極悖, 敢以汙穢戕殺之句, 人俎渠肉之說, 無難筆之於書. 渠若眞箇無濡染, 則只當自兢自靖而已, 乃反以鉗制萬口之計, 敢試於君父之前. 由前而不能教其子, 由後則不能反諸身, 脅君怨人, 無所不至, 如此無嚴之類, 不可置而勿論. 臣謂致薰, 益運, 一并拿致王府, 嚴鞫得情. 批曰: “當詢大臣矣.”

2) 『순조실록』(권 3) 1801년(순조 1) 9월 19일.

○配前水使李哲于興陽縣 呂島, 放逐罪人李致薰于巨濟府, 以染護邪學, 從臺臣所請也.

3) 『순조실록』(권 3) 1801년(순조 1) 11월 5일.

○推鞫酌處邪學罪人. 罪人黃嗣永, 本以丁若鍾之侄婿, 惑溺邪術, 周文謨出來之後, 師事而父號, 領洗而受名. 逮捕之下, 知機亡命, 竄伏山峽, 潛圖不軌, 與黃沁, 玉千禧, 爛漫和應, 寫出帛書, 將傳洋人之堂, 書中所言, 字字凶肚, 句句逆腸, 無非向上不道之說, 與

國爲讎之計，以大逆不道結案。罪人玉千禧，本以宣川人，每歲隨節使往來，而締結黃嗣永，黃沁，玄啓欽之徒，屢度傳書，受洗受名於天主堂居接之湯姓名亞立山者，訪見周文謨於姜完淑之家，討書傳于洋人，受其答，而將欲歸傳文謨，到灣聞邪黨就捕，還入彼中，備傳國事。嗣永輩請來海舶，廣布邪術之計，爛漫參聞，以知情不告結案。罪人玄啓欽，綢繆關通於嗣永，昌顯，完淑等諸人，周文謨出來之後，受洗受號。而當初邪黨就獄，知機逃躲，自知難免，旋即自現，以更不染污之意，納招蒙放。及夫嗣永就捕，而情節益著，邪黨之請來洋舶，爛漫參涉，日夜佇企其出來矣，聞異國船之漂舶東萊，委往見之，畫示十字，乃是邪教中相探之法，而以此辨其真贋。至發於周漢之文蹟，嗣永之凶書，皆以東萊探船，作一話本，狼藉譁張，轉相醞釀，以知情不告結案，并正法。巨濟府定配罪人李致薰，薪智島定配罪人丁若銓，長髻縣定配罪人丁若鏞，綾州牧定配罪人李學達，雲峯縣定配罪人申與權·罪人李寬基，俱發鞠招，竝更拿訊，別無情犯之有如究覈，命竝酌處，配致薰于濟州牧，若銓于羅州牧 黑山島，若鏞于康津縣，學達于金海府，與權于固城縣，寬基于長興府，仍命撤罷推鞠。三司交章請寢酌配之命，不從。

4) 『승정원일기』(책 1843) 1801년(순조 1) 11월 5일.

○ 李滄，以義禁府言啓曰，鞠廳議啓內，罪人李致薰減死絕島定配，罪人丁若銓減死島配，罪人丁若鏞減死遠地定配，罪人李學達·申與權·李寬基竝施以遠配之典事，判付內，依慈教舉行。大王大妃殿傳曰，依議啓舉行，卽爲收殺後，推鞠撤罷，朝者批答，以傳教頒布朝紙事，命下矣。罪人李致薰，全羅道·濟州牧，減死絕島定配，罪人丁若銓，羅州牧黑山島，減死島配，罪人丁若鏞，康津縣，減死遠地定配，罪人李學達，慶尙道金海府，罪人申與權，固城縣，罪人李寬基，全羅道長興府，竝施以遠配之典，而以鞠廳議啓內辭意，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羅將，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5) 『승정원일기』(책 2156) 1822년(순조 22) 7월 26일.

○ 掌令朴昌學啓曰，近日妖凶之邪學，熾如烈火，勢急滔天，實爲國家呼吸之憂，而幸賴我慈聖殿下，特降明旨，亟令嚴覈，妖腰亂領，次第就戮，庶幾根拔去，窩窟掃蕩。而噫，彼丁若銓，自以逆鍾之同氣，暗受承薰之妖書，日夜耽惑，悖亂名教，戮滅倫綱，爲世指目，積有年所，今於嚴鞠之下，始迷終悟之說，都是粧撰，力拒痛挽之跡，了無可證，沈溺之自

如，可以推知，而又況儉恒之獄案出後，若鍾·承薰，迭出諸招，逆節彰著，不可但以邪學言也。若鍾既已籍沒，承薰亦既正法，而噫，彼若銓之爲若鍾兄弟者，致薰之爲承薰同氣者，不過烏配定配而止，盤覈情節，掃蕩窩窟，顧不在於此輩耶？若銓則雖以今番獄案言之，爲承薰之緊黨，與知凶謀，明出致薰之招，以邪術而自服，至請伏法，又納鞫庭之供，究厥情跡，何變不圖？噫，彼致薰，以承薰之同氣，家煥之親甥，萬惡咸萃，千妖俱備，嘯聚邪黨，養成部落，凡請排布設施，皆出其手，而訊問之下，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至謂之賊黨，此可見良心之都亡，倫紀之全喪，卽此一節，邪術淺深，有不暇論。學達·與權，俱以家煥之甥姪，承薰之至親，標號之陰慘，花助惟均，迷溺之丁寧，致·嗣各證，凶祕之跡，如印一板，雖然此輩之沈溺邪術，猶屬餘事，目下所當覈者，卽是儉恒請舶之計，嗣永傳書之謀，而凡此六囚之於嗣永，或爲切姻至親，或爲血黨死友，而嗣永凶書，以爲渠輩莫不願此事云爾，則凡爲邪術者，尙必知此箇凶謀，況此六囚之至切至密，而豈有不知之理乎？至於今番訊鞫，情節則半吐而半吞，端緒則若露而若隱，彼此參互，庶幾取服，而只緣爲日不多，盤問未究，賊情至妖，詭詐莫測，邀來謨賊之事，締結湯胡之計，以至窩窟之未露，徒黨之散在者，尙未究覈，而特推寬大之恩，遽降酌處之命，刑政之失，姑置勿論，宗社之憂，實爲無窮。請濟州牧烏配罪人致薰，金海府定配罪人學達，固城縣定配罪人與權，竝令王府，設鞫嚴問，期於得情，夫正典刑。噫嘻痛矣，世道註誤，義理晦塞，至於今番秋曹兩囚而極矣。渠以鄙悖之流，潛蓄凶慘之計，肆發通文，投諸賢關，遣辭陰險，引用凶悖，字字狡惡，句句閃忽，耳目難掩，手腳盡露，聞者髮豎，思之膽掉，固當卽地設鞫，不日正刑，而只令秋曹盤覈情節，略加刑訊，旋即酌處，雖出於大聖人好生之德，豈有亂言不道，自服遲晚，而罰止烏配，假息覆載之間者乎？若以言出卑賤，事已勘處，置而不論，其可曰，闡義理而嚴懲討乎？請金甲島爲奴罪人申鼎朝，古今島爲奴罪人韓鼎鎮，亟令王府，卽爲拿來，嚴鞫得情，快正典刑。新除授司諫院獻納李魯秉，時在京畿驪州地，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答府曰，不允。申鼎朝等事，不允。下諭事，依啓。

6) 『순조실록』(권 26) 1823년(순조 23) 8월 5일.

○ 兩司【大司諫李寅溥，持平金炳朝.】合啓：“李晦祥等事，在敏事，徐滢修事，張錫胤事，晦植事，停啓，日柱事，物故停啓。明謙等事中自逆字以下，至字鎮諸子事，李永純等事中自李元樸以下，至李元樸諸子事抹去。府啓致薰事，物故停啓，學達，與權等事，停啓。

232. 전재직(田載稷)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802년(순조 2) 1월 1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흥서(패서) 사건(의령 전지효(田志孝)의 부친)
- 관련 사료

1) 『순조실록』(권 3) 1801년(순조 1) 12월 14일.

○ 酌處嶺南掛書罪人. 先是, 河東, 昌原, 次第有掛凶書者, 道臣以聞. 朝廷不欲張大其事, 使道臣查之, 及獄情已露, 命送按覈使韓用鐸, 與監司金履永, 眼同究覈. 罪人宜寧居田志孝者, 使其妹兄晉州人李震化掛書, 仍使震化撤來, 囑里任告官, 以爲希功之地, 又使妹兄裴縉慶書凶書, 送縉慶之弟綸慶掛之昌原, 及其究覈也, 情跡將露, 震化推諉於晉州人鄭養善. 屢被嚴訊, 有以志孝與震化謀議, 諉人之說告者, 養善始見脫於元犯之誣. 罪人李好春, 本以靈山人, 粗解卦繇, 誑說億中, 人多惑信, 思亂樂禍, 煽動妖言, 至向不敢言之地, 多發不忍聞之語, 與河東所掛之書, 一樣凶慝. 按使, 道臣啓言: “諸賊逆節, 卽前古簡牒之所罕有, 而概其源委, 由於妖讖流毒, 惑亂人心, 凶窩亂本, 不可不嚴覈. 請令王府, 設鞫得情.” 備局啓言: “今不必重煩王府. 今按覈使與道臣, 更以諸罪人取服之招, 直捧結案, 考律正法, 使遐外蚩頑之類, 知所警畏. 其餘諸囚, 分等決處, 亦自本道舉行, 實爲得宜.” 從之.

2) 『승정원일기』(책 1844) 1801년(순조 1) 12월 15일.

○ 柳숙(肅+心), 以義禁府言啓曰, 罪人李好春·田志孝等, 以大逆不道捧結案, 罪人李震化·裴縉慶·裴綸慶等, 以犯上不道捧結案, 罪人表命斗, 以知情不告捧結案, 竝正法事, 承傳啓下矣. 謹按律文, 則大明律謀叛大逆條有曰, 凡謀叛及大逆, 但共謀者不分首從, 皆凌遲處死, 大典通編推斷條有曰, 凡亂言干犯於上, 情理切害者, 斬, 籍沒家產, 大明律謀叛大逆條有曰, 凡謀叛及大逆, 知情故縱隱藏者, 斬, 同律死囚覆奏待報條有曰, 其犯十惡之罪, 應死者, 決不待時矣. 罪人好春·志孝等, 係是大逆不道, 不待時陵遲處死, 罪人震化·

縉慶·綸慶等，係是犯上不道，不待時斬，籍沒家產，罪人命斗，係是知情不告，不待時斬，而右罪人等，方囚嶺獄，卽爲發遣府都事，與按覈使及該道道臣，眼同捧結案後，依律正法，應坐之類，待罪人等正刑，狀聞舉行之意，敢啓.傳曰，知道.

3) 『승정원일기』(책 1846) 1802년(순조 2) 1월 9일.

○ 任希存，以義禁府言啓曰，卽接慶尙監司金履永牒報及成冊，則大逆不道罪人志孝·好春應坐諸人，查出報來，仍以爲，志孝子峻八，年二十一，本是志孝兄處孝子，志孝未生子之前，果爲收養，呼父呼子，而初未有禮斜之事云，故招問田哥諸人及該面執綱·戶有司，則所告雖無異同，禮斜成出之有無，不可所信於渠輩之所告，考諸該曹文蹟眞僞，可以立判，而設或禮斜未及成出，收養多年，呼父呼子，名則已定，故鄉人莫不認以爲父子，則不可以禮斜之未出，換其父子之名，傳之叔姪之義，撤榜之初，首先解釋，雜出於諸囚之供，則同參情跡，昭不可掩，斷當殄滅無遺，絕其兇種，論以名義，參以負犯，合置父子應坐之律云矣. 志孝父載稷年八十三，依法典免絞，全羅道濟州牧絕島定配，母宜生年八十一，依律文免坐，妻儀永咸鏡道慶興府爲婢，子宗郁年一，以年未滿，依律文免絞，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女守幸咸鏡道茂山府爲婢，兄處孝全羅道羅州牧黑山島，弟宅孝珍島郡金甲島，竝爲奴，姪峻豐平安道朔州府，彩郁咸鏡道三水府，大快平安道孟山縣，小快全羅道靈光郡，代快平安道寧遠郡，命郁全羅道古阜郡，竝流三千里安置，好春妻岳只咸鏡道明川府爲婢，子睦駿年十一，烈駿年三，俱以年未滿，依律文免絞，睦駿全羅道濟州牧大靜縣，烈駿興陽縣呂島鎮，竝爲奴，女玉伊平安道郭山郡，七伊咸鏡道利原縣，竝爲婢，兄漢春慶源府爲奴，姪孟駿平安道碧潼郡，流三千里安置，而右罪人等，今方捉囚於宜寧·靈山等縣獄，竝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而峻八撤榜之時，首先解釋，既出諸囚之招，則究其負犯，不但罔赦，渠雖處孝之子，既爲志孝之所收養，稱父稱子，名義已定，則不可以禮斜之未出，遽議傳生之典，而事係一律，以臣等膚淺之見，有難臆斷，下詢大臣處之，何如? 傳曰，允.

4) 『승정원일기』(책 1846) 1802년(순조 2) 1월 15일.

○ 任希存，以刑曹言啓曰，因義禁府啓辭，大逆不道罪人志孝父載稷年八十三，依法典免絞，全羅道濟州牧絕島定配，母宜生年八十一，依律文免坐. 妻儀永，咸鏡道慶興府爲婢，

子宗郁年一，以年未滿，依律文免絞。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女守幸，咸鏡道茂山府爲婢，兄處孝，全羅道羅州牧黑山島，弟宅孝，珍島郡金甲島爲奴，姪峻豐，平安道朔州府，彩郁，咸鏡道三水府，大快，平安道孟山縣，小快，全羅道靈光郡，代快，平安道寧遠郡，命郁，全羅道古阜郡，竝流三千里安置，好春妻岳只咸鏡道明川府爲婢，子睦駿年十一，烈駿年三，俱以年未滿，依律文免絞。睦駿，全羅道濟州牧大靜縣，烈峻，興陽縣呂島鎮，竝爲奴，女玉伊，平安道郭山郡，七伊，咸鏡道利原縣，竝爲婢，兄漢春，慶源府爲奴，姪孟峻，平安道碧潼郡流三千里安置事，命下矣。上項罪人等，方囚宜寧·靈山等獄，押送各其配所事，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233. 한학춘(韓學春)

- 신분: 종인(장번내관<長番內官>)
- 유배 연월: 1811년(순조 11) 1월 8일.
- 이배 연월: 1811년(순조 11) 3월 24일(통천군).
- 사유: 근무불성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992) 1811년(순조 11) 1월 8일.

○ 傳于金教根曰, 稟啓特爲低微啖訥, 前後提飭何如, 而頑不知悛, 不可置之, 以長其悖惡之習. 長番內官韓學春, 爲先削職, 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 勿踰我國之地方, 以懲諸宦者無忌憚之類.

2) 『승정원일기』(책 1992) 1811년(순조 11) 1월 9일.

○ 申綱, 以義禁府言啓曰, 長番內官韓學春稟啓, 特爲低微啖訥, 前後提飭何如, 而頑不知悛, 不可置之, 以長其悖惡之習, 爲先削職, 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 勿踰我國之地方, 以懲諸宦者無忌憚之類事, 承傳, 啓下矣. 韓學春, 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책 1995) 1811년(순조 11) 3월 24일.

○ 金相休,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李顯宅啓本, 罪人韓學春, 濟州牧絶島定配事判付內, 事則微細一端頑字, 出陸移配於江原道通川郡事, 分付事, 命下矣. 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罪人韓學春, 江原道通川郡移配, 而依例發遣府羅將, 自濟州牧執捉, 仍令押送于通川郡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책 1998) 1811년(순조 11) 4월 11일.

○ 以濟州牧使李顯宅啓本, 罪人韓學春通川郡移配事, 傳于鄭觀綏曰, 本事不甚大段, 而且聞渠遭故云, 放送事, 分付.

○ 鄭觀綏，以義禁府言啓曰，以濟州牧使李顯宅啓本，罪人韓學春通川郡移配事，傳曰，本事不甚大段，而且聞渠遭故云，放送事，命下矣。江原道通川郡出陸移配罪人韓學春，卽爲放送事，分付該道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234. 이종협(李鍾協)

- 신분: 관리(우림위장〈羽林衛將〉)
- 유배 연월: 1844년(헌종 10) 9월 6일.
- 해배 연월: 1849년(철종 즉위) 9월 4일.
- 사유: 흉언
- 관련 사료

1) 『헌종실록』(권 11) 1844년(헌종 10) 8월 21일.

○ 罪人李遠德結案, “妄藉醫技, 英熙之至凶而腸肚相連, 晉鏞之絕愚而謀議與同. 晉賊江舍之會, 許多酬酢, 罔非凶言, 而三人大用之說, 卽此一案, 凶謀逆節, 綻露無餘. 誕夢破字等妖言悖說, 爛熳互倡於鍾協之家, 矢口茶飯, 惟意和應. 諸般窮凶情節, 古今所未有, 天地所不容, 謀反大逆不道的實遲晚, 罪不待時凌遲處死.”

2) 『헌종실록』(권 11) 1844년(헌종 10) 9월 6일.

○ 配鞫囚孟鶴述于楸子島, 李鍾協于濟州牧, 徐永淳于黑山島.

3) 『승정원일기』(책 2431) 1844년(헌종 10) 9월 6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在囚罪人孟鶴述·李鍾協·徐永淳, 竝絕島定配事, 承傳啓下矣. 竝爲先移囚西間, 而孟鶴述全羅道靈巖郡楸子島, 李鍾協全羅道濟州牧, 徐永淳全羅道羅州牧黑山島絕島定配, 而以承傳內辭意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책 2490) 1849년(철종 즉위) 8월 26일.

○ 以濟州牧放未放成冊, 傳于金基纘曰, 李鍾協·閔達鏞竝放.

5) 『승정원일기』(책 2490) 1849년(철종 즉위) 8월 27일.

○ 金基纘, 以義禁府言啓曰, 各道放未放成冊啓下, 平安道朔州府邊遠定配罪人鄭基元,

昌城府邊遠定配罪人洪穆周，碧潼郡邊遠定配罪人尹永植等名下，放字書下，全羅道康津縣薪智島安置罪人金致貞，羅州牧黑山島絕島定配罪人徐永淳，靈巖郡楸子島絕島定配罪人孟鶴述，長興府定配罪人文學一，珍島郡金甲島島配罪人李玄文，濟州牧絕島定配罪人李鍾協，旌義縣減死爲奴罪人閔達鏞等名下，放字書下矣。鄭基元·洪穆周·尹永植·徐永淳·孟鶴述·李鍾協·閔達鏞等，臺啓方張，金致貞，罪犯深重，竝不得舉行，文學一·李玄文，竝卽放送事，分付該道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6) 『승정원일기』(책 2490) 1849년(철종 즉위) 9월 4일.

○ 金基纘，以義禁府言啓曰，以各道放未放成冊平安道朔州府鄭基元，昌城府洪穆周，碧潼郡尹永植，全羅道黑山島徐永淳，楸子島孟鶴述，濟州牧李鍾協，旌義縣閔達鏞等名下，放字書下，以本府徒流案咸鏡道會寧府李晉錫名下，放字書下矣。臺啓已停，竝卽放送事，分付各該道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235. 이민영(李敏榮)

- 신분: 중인(중관)
- 유배 연월: 1845년(헌종 11) 4월 12일.
- 이배 연월: 1845년(헌종 11) 11월 10일(흑산도).
- 사유: 근무불성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436) 1845년(헌종 11) 2월 1일.

○ 傳于曹錫亨曰, 中官李敏榮事多無嚴, 爲先汰去, 令該府拿問, 各別重勘.

2) 『승정원일기』(책 2438) 1845년(헌종 11) 4월 12일.

○ 傳于沈宜升曰, 中官李敏榮, 罪關罔赦, 不可尋常處之, 令該府, 全羅道濟州牧, 勿限年定配.

3) 『승정원일기』(책 2438) 1845년(헌종 11) 4월 1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中官李敏榮, 全羅道濟州牧, 勿限年定配事, 承傳啓下矣. 李敏榮全羅道濟州牧, 勿限年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책 2444) 1845년(헌종 11) 11월 10일.

○ 傳于李晉翼曰, 全羅道濟州牧勿限年定配罪人李敏榮, 羅州牧黑山島移配.

236. 이명혁(李明赫)

- 신분: 종실(소현세자 후손, 이명섭(李明燮)의 동생)
- 유배 연월: 1853년(철종 4) 11월 25일.
- 해배 연월: 1864년(고종 1) 7월 11일.
- 사유: 모역 연루(김수정(金守禎), 최봉주(崔鳳周) 모역)
- 관련 사료

1) 『철종실록』(권 3) 1851년(철종 2) 11월 11일.

○ 敎曰: “鞫廳諸罪人, 俱係逆獄, 則固難遽議容貸, 而罪疑惟輕, 亦聖王欽恤之義. 趙士悅, 禹敬猷, 柳基均, 丁穉常, 罪犯未嘗不緊重, 而不過隨從之類, 竝出付秋曹, 減死島配, 至於李明赫, 參諸衆招, 只一愚蠢, 特以明燮之弟, 至於被逮. 而非但無躬犯之跡, 明燮罪案, 尙未的知, 則況爲其弟者, 亦何遽議典憲乎? 特放.”

2) 『철종실록』(권 3) 1851년(철종 2) 11월 11일.

○ 時原任大臣, 聯筭請亟寢成命, 批曰: “造謀諸囚, 旣已置辟. 則其餘不過愚迷沒覺, 卿等試思之. 斯民也皆予赤子也, 赤子之自就死罪, 雖曰王法所不敢赦, 而設令悉得其情, 哀矜勿喜之心, 當如何? 誅之則不可勝數, 輕之則不害爲審克之政. 至於李明赫特放, 非屈法也, 斷斷是十分秤量, 而卿等之言旣如此, 施以端川府定配之典.”

3) 『승정원일기』(책 2524) 1851년(철종 2) 11월 23일.

○ 又啓曰, 鞫廳罪人李明赫, 端川府定配之典事, 承傳啓下矣. 李明赫咸鏡道端川府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책 2548) 1853년(철종 4) 11월 21일.

○ 義禁府啓曰, 定配罪人李明赫具格拿來, 南間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

5) 『철종실록』(권 5) 1853년(철종 4) 11월 25일.

○ 時原任大臣，聯筭乞寢三罪人未減之命，批曰：“李明燦，既知其無所躬犯，故有此處分，而崔鳳周不過是愚蠢沒覺之類，李奎和別無深覈之端，竝特貸一縷，不害爲好生之德。而卿等之言既如此，李明燦則特施濟州牧安置之典，崔，李兩漢，依判付舉行。”

6) 『승정원일기』(책 2548) 1853년(철종 4) 11월 25일.

○ 領府事鄭元容，判府事朴晦壽·金興根·朴永元·李憲球，領議政金左根，右議政趙斗淳筭曰，伏以，臣等於鞠廳罪人議啓判付下者，相顧愕眙，有不勝長慮永憂者，臣等聯參訊問之坐，備閱諸囚爰辭，而年來騷訛之迭興，亂逆之層生，究其歸則李明赫之爲奇貨也蒿矢也，當喜佑諸賊之就逮也，赫兄明燦之在途自斃，國言疑憤，三載如一日，而曾未幾何，其弟之名，又出捕查鞠招，不啻大〈和〉盤之托出矣。守禎之一番委訪，縱曰記起之不能，榮瑾之千里誘來，必有聲氣之交關，況喜載·應道輩之夙相逢迎，積有醞釀，非一朝夕之漸也，天地好生，亦有霜雪之威，鈇鉞必誅，莫逃日月之明，則今此特貸之恩，適滋不軌之謀，至於崔鳳周之服事榮瑾，而既以知情承款，李奎和之親密守禎，而莫諱凶圖所底，彼此之糾結，中外之綱繆，鳳賊則斷案既成，奎漢則盤覈未竟，而酌處之教遽降，聽聞之惑轉甚，天網之太恢，國綱之不振，豈細故也哉？生道殺人，卽古聖王辟以止辟之義也，一或失出，犯者益衆，苟以亂根逆柢，謂無躬犯，凶徒醜類，不足深誅，罄匄之刑不加，肆市之典莫施，則鬼域梟獍，安所懲畏，而躑躅跳踉，容有其既也哉？義在沫飲，相率聯籲，惟聖明穆然澄省，亟寢三罪人未減之命，俾有以究天討而嚴鞠體，千萬幸甚云云。答曰，省筭具悉卿等之懇。李明赫既知其無所躬犯，故有此處分，而崔鳳周則不過是愚蠢沒覺之類，李奎和則別無深覈之端，竝特貸一縷，不害爲好生之德，而卿等之言既如此，李明赫則特施濟州牧安置之典，崔·李兩漢，依判付舉行，仍傳曰，此批答遣史官傳諭。

7) 『철종실록』(권 5) 1853년(철종 4) 11월 27일.

○ 義禁府啓言：“明燦 濟州牧安置，崔鳳周 靈巖郡 楸子島減死安置，李奎和 羅州牧 黑山島，限已身定配。”

8) 『승정원일기』(책 2548) 1853년(철종 4) 11월 27일.

○ 義禁府啓曰, 罪人李明赫全羅濟州牧安置, 崔鳳周靈巖郡楸子島減死安置, 李奎和羅州牧黑山島限己身定配所, 依例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9) 『승정원일기』(책 2679) 1864년(고종 1) 7월 11일.

○ 以濟州牧, 放未放成冊. 傳曰, 李明赫·義榮, 竝放.

10) 『승정원일기』(책 2679) 1864년(고종 1) 7월 18일.

○ 又啓曰, 本府徒流案中, 慶尙道機張縣爲奴罪人鍾澈, 河東府爲婢罪人小秀, 泗川縣爲奴罪人俊榮, 定配罪人大阿只·仲阿只·小何只, 金海府爲婢罪人柳連, 全羅道康津縣爲奴罪人順榮, 濟州牧爲奴罪人義榮, 安置罪人李明赫, 平安道龍川府爲奴罪人碩鏞, 龜城府爲奴罪人畢永, 咸鏡道穩城府爲婢罪人不喜, 甲山府爲奴罪人南極, 明川府爲婢罪人順心, 安置罪人鳳仁等名下, 放字書下矣.竝放送事, 分付各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237. 염희영(廉羲榮)

- 신분: 관리(우림장<羽林將>)
- 유배 연월: 1861년(철종 12) 11월 14일.
- 해배 연월: 1864년(고종 1) 7월 11일.
- 사유: 연좌(부친 염종수<廉宗秀> 부도)
- 관련 사료

1) 『철종실록』(권 13) 1861년(철종 12) 11월 7일.

○ 誅罪人宗秀, 誣上不道也.

2) 『철종실록』(권 13) 1861년(철종 12) 11월 11일.

○ 命廉羲榮, 令王府刑推得情, 宗秀子也.

3) 『철종실록』(권 13) 1861년(철종 12) 11월 14일.

○ 命羲榮 濟州牧爲奴.

4) 『승정원일기』(책 2646) 1861년(철종 12) 12월 2일.

○ 持平李擎日, 正言李源鼎等啓曰, 請物故罪人國榮, 亟施孥戮之典, 措辭見上 請物故罪人裕, 亟施孥戮之典, 措辭見上 請逆賊漢祿, 亟施孥戮之典, 措辭見上 請追奪罪人龜柱支屬應坐之類, 一依尙魯例, 施以散配之典, 措辭見上 請追奪罪人鍾秀支屬應坐之類, 一依尙魯·漢祿例施行, 措辭見上 請大逆不道罪人鍾一·振采, 竝施适·雲之例, 措辭見上 請逆賊友文·光友, 加施孥戮之典, 致後·延壽, 竝施孥籍之典, 措辭見上 請正法罪人宜學諸子, 竝施散配之典, 措辭見上 請謀反大逆不道知情不告罪人榮瑾, 亟施孥戮之典, 措辭見上 請濟州牧安置罪人李明赫, 楸子島安置罪人崔鳳周, 黑山島定配罪人李奎和, 更爲設鞫得情, 夫正典刑焉, 措辭見上 請薪智島梟圍罪人世輔, 亟令王府, 拿鞫得情, 夫正典刑, 以絕亂本焉, 措辭見上 請正法罪人宗秀, 加施孥戮之典, 濟州牧爲奴罪人羲榮, 亟令王府, 拿鞫得情, 明正典刑. 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宗秀·羲榮事, 已有處分, 勿煩.

持平李擎日啓曰, 請古今島爲奴罪人韓鼎鎭, 亟令王府, 卽爲拿來, 設鞫得情, 決正典刑,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正言李源鼎啓曰, 請梟首罪人性世, 亟施孥戮之典, 措辭見上 請古今島爲奴罪人韓鼎鎭,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典刑.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5) 『승정원일기』(책 2679) 1864년(고종 1) 7월 11일.

○ 以濟州牧, 放未放成冊.傳曰, 李明赫·義榮, 竝放.

6) 『승정원일기』(책 2679) 1864년(고종 1) 7월 18일.

○ 又啓曰, 本府徒流案中, 慶尙道機張縣爲奴罪人鍾澈, 河東府爲婢罪人小秀, 泗川縣爲奴罪人俊榮, 定配罪人大阿只·仲阿只·小何只, 金海府爲婢罪人柳連, 全羅道康津縣爲奴罪人順榮, 濟州牧爲奴罪人義榮,安置罪人李明赫, 平安道龍川府爲奴罪人碩鏞, 龜城府爲奴罪人畢永, 咸鏡道穩城府爲婢罪人不喜, 甲山府爲奴罪人南極, 明川府爲婢罪人順心, 安置罪人鳳仁等名下, 放字書下矣.竝放送事,分付各該道道臣之意, 敢啓.傳曰, 知道.

238. 백낙신(白樂莘)

- 신분: 관리(경상우병사)
- 유배 연월: 1862년(철종 13) 4월 15일.
- 해배 연월: 1863년(철종 14) 7월 30일(전리방축〈田里放逐〉).
- 사유: 지방관 탐학(진주민란 연유)
- 관련 사료

1) 『철종실록』(권 14) 1862년(철종 13) 4월 15일.

○ 敎曰: “晉州之變, 專由於白樂莘之貪饕不法矣. 晉民則今方次第按覈, 以法從事, 而白樂莘, 不可島配而止. 濟州牧圍籬安置.”

2) 『승정원일기』(책 2650) 1862년(철종 13) 4월 15일.

○ 義禁府啓曰, 康津縣古今島定配罪人白樂莘, 濟州牧圍籬安置事, 承傳, 啓下矣. 白樂莘全羅道濟州牧圍籬安置, 而白樂莘前已發配, 以今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 發遣府都事, 所到處執捉, 仍令押送于新定配所, 與地方官眼同, 圍籬安置, 何如? 傳曰, 允.

3) 『철종실록』(권 15) 1863년(철종 14) 7월 30일.

○ 敎曰: “飭已施矣, 且當慶會, 加棘罪人金始淵, 圍籬罪人白樂莘, 島配罪人徐相復, 洪翰周, 金魯鳳, 遠竄罪人任憲大, 林昺默, 權命奎, 金東壽, 高濟渙, 竄配罪人洪秉元, 朴希淳, 徐相岳, 具性喜, 量移罪人金厚根, 竝放逐田里, 因繡啓而在謫者, 亦爲放送.”

4) 『승정원일기』(책 2666) 1863년(철종 14) 7월 30일.

○ 傳曰, 飭已施矣, 且當慶會, 加棘罪人金始淵, 圍籬罪人白樂莘, 島配罪人徐相復·洪翰周·金魯鳳, 遠配罪人任憲大·林昺默·權命奎·金東壽·高濟渙, 竄配罪人洪秉元·朴希淳·徐相岳·具性喜, 量移罪人金厚根 竝放逐鄉里, 因繡啓而在謫者, 亦爲放送.

5) 『승정원일기』(책 2667) 1863년(철종 14) 8월 1일.

○ 義禁府啓曰, 加棘罪人金始淵, 圍籬罪人白樂莘, 島配罪人徐相復·洪翰周·金魯鳳, 遠竄罪人任憲大·林曷默·權命奎·金東壽·高濟渙, 竄配罪人洪秉元·朴希淳·徐相岳·具性喜, 量移罪人金厚根等放逐鄉里, 因繡啓而在謫者竝放送事, 承傳啓下矣. 全羅道濟州牧加棘罪人金始淵, 圍籬罪人白樂莘等撤去圍籬後, 仍爲放逐鄉里, 智島島配罪人徐相復·洪翰周, 鹿島島配罪人金魯鳳, 鎭安縣竄配罪人具性喜, 礪山府量移罪人金厚根, 咸鏡道穩城府遠竄罪人林曷默·金東壽, 慶興府遠竄罪人高濟渙, 德源府竄配罪人洪秉元, 平安道安州牧竄配罪人朴希淳, 楚山府遠竄罪人任憲大, 慶尙道寧海府遠竄罪人權命奎, 聞慶縣竄配罪人徐相岳等放逐鄉里, 全羅道礪山府定配罪人李寅植·金尙鉉, 沃溝縣定配罪人李啓淳, 茂朱府定配罪人李錫宙, 錦山郡定配罪人朴岱壽·宋泰熙, 臨陂縣定配罪人李熙訥, 慶尙道聞慶縣定配罪人趙基晉, 豐基郡定配罪人尹定鎬·丁大錫, 尙州牧定配罪人黃鍾奭·李根奭·趙在豐·金山郡定配罪人嚴敦永, 平安道祥原郡定配罪人李熙永·鄭克鉉, 咸鏡道德源府定配罪人李承喬, 公忠道德山郡定配罪人李承游, 黃海道瑞興府定配罪人李審在, 鳳山郡定配罪人金朋來等放送事, 竝爲分付各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239. 김시연(金始淵)

- 신분: 관리(전라감사)
- 1차 유배 연월: 1862년(철종 13) 7월 10일~1863년(철종 14) 7월 30일(전리방축 <田里放逐>).
- 2차 유배 연월: 1864년(고종 1) 1월 10일~1865년(고종 2) 1월 5일(전리방축).
- 사유: 지방관 탐학(민란 원인)
- 관련 사료

1) 『철종실록』(권 14) 1862년(철종 13) 7월 10일.

○ 敎曰: “此罪人家世何如, 榮顯何如, 而荐受兩藩, 罔念圖報之誠, 敢肆貪饕之習? 臺論藉曰傳聞, 繡啓的有授據, 痛惋之極, 寧欲無言. 此若不嚴加處分, 無以謝南民. 拏囚罪人金始淵, 免爲庶人, 濟州牧圍籬安置三倍道押去, 其子依法典勿許清顯之意, 分付銓曹.”

2) 『승정원일기』(책 2653) 1862년(철종 13) 7월 10일.

○ 義禁府啓曰, 罪人金始淵, 免爲庶人, 濟州牧圍籬安置,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使之三倍道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3) 『철종실록』(권 15) 1863년(철종 14) 7월 30일.

○ 敎曰: “飭已施矣, 且當慶會, 加棘罪人金始淵, 圍籬罪人白樂莘, 島配罪人徐相復, 洪翰周, 金魯鳳, 遠竄罪人任憲大, 林昺默, 權命奎, 金東壽, 高濟渙, 竄配罪人洪秉元, 朴希淳, 徐相岳, 具性喜, 量移罪人金厚根, 竝放逐田里, 因繡啓而在謫者, 亦爲放送.”

4) 『승정원일기』(책 2666) 1863년(철종 14) 7월 30일.

○ 傳曰, 飭已施矣, 且當慶會, 加棘罪人金始淵, 圍籬罪人白樂莘, 島配罪人徐相復·洪翰周·金魯鳳, 遠配罪人任憲大·林昺默·權命奎·金東壽·高濟渙, 竄配罪人洪秉元·朴希淳·徐相岳·具性喜, 量移罪人金厚根 竝放逐鄉里, 因繡啓而在謫者, 亦爲放送.

5) 『승정원일기』(책 2667) 1863년(철종 14) 8월 1일.

○ 義禁府啓曰, 加棘罪人金始淵, 圍籬罪人白樂莘, 島配罪人徐相復·洪翰周·金魯鳳, 遠竄罪人任憲大·林昺默·權命奎·金東壽·高濟渙, 竄配罪人洪秉元·朴希淳·徐相岳·具性喜, 量移罪人金厚根等放逐鄉里, 因繡啓而在謫者竝放送事, 承傳啓下矣. 全羅道濟州牧加棘罪人金始淵, 圍籬罪人白樂莘等撤去圍籬後, 仍爲放逐鄉里, 智島島配罪人徐相復·洪翰周, 鹿島島配罪人金魯鳳, 鎭安縣竄配罪人具性喜, 礪山府量移罪人金厚根, 咸鏡道穩城府遠竄罪人林昺默·金東壽, 慶興府遠竄罪人高濟渙, 德源府竄配罪人洪秉元, 平安道安州牧竄配罪人朴希淳, 楚山府遠竄罪人任憲大, 慶尙道寧海府遠竄罪人權命奎, 聞慶縣竄配罪人徐相岳等放逐鄉里, 全羅道礪山府定配罪人李寅植·金尙鉉, 沃溝縣定配罪人李啓淳, 茂朱府定配罪人李錫宙, 錦山郡定配罪人朴岱壽·宋泰熙, 臨陂縣定配罪人李熙訥, 慶尙道聞慶縣定配罪人趙基晉, 豐基郡定配罪人尹定鎬·丁大錫, 尙州牧定配罪人黃鍾奭·李根奭·趙在豐·金山郡定配罪人嚴敦永, 平安道祥原郡定配罪人李熙永·鄭克鉉, 咸鏡道德源府定配罪人李承喬, 公忠道德山郡定配罪人李承游, 黃海道瑞興府定配罪人李審在, 鳳山郡定配罪人金朋來等放送事, 竝爲分付各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6) 『고종실록』(권 1) 1864년(고종 1) 1월 10일.

○ 大王大妃敎曰: … 又敎曰: “放逐鄉里罪人金始淵, 罪固罔赦, 而非但有代行朝處分, 追念昔年, 特貸一縷, 濟州牧圍籬安置.” 仍敎曰: “金始淵, 卽鎔之子也. 鎔當翼廟時眷遇, 果何如, 而渠以乃父之子, 年前按節湖南時, 貪饕狼藉, 予雖處深宮, 盡爲入聞, 予心痛駭, 有倍他人. 故有此下敎耳.”

7) 『승정원일기』(책 2672) 1864년(고종 1) 1월 1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放逐鄉里罪人金始淵, 特貸一縷, 濟州牧圍籬安置事, 承傳啓下矣. 金始淵, 全羅道濟州牧圍籬安置, 而方在京畿高陽地云, 依例發遣府都事, 自高陽地執捉, 仍令押送配所,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與地方官, 眼同, 施以圍籬安置之典, 何如? 傳曰, 允.

8) 『고종실록』(권 2) 1865년(고종 2) 1월 2일.

○ 又敎曰: “金始淵犯賊之罪, 卽國人之所共誅也. 而尙貸一縷者, 爲渠先故而然耳. 近聞其老母, 日夜涕泣, 眼爲之廢. 當者不孝, 已無更論, 而渠雖負國, 其在體下之道, 亦不可不念. 放逐鄉里, 俾母子相逢可也.”

9) 『승정원일기』(책 2685) 1865년(고종 2) 1월 2일.

○ 大王大妃殿傳曰, 金始淵犯賊之罪, 卽國人之所共誅也, 而尙貸一縷者, 爲渠先祖而然耳. 近聞其老母, 日夜涕泣, 眼爲之廢, 當者不孝, 已無更論, 而渠雖負國, 其在體下之道, 亦不可不念, 放逐鄉里, 俾母子相逢, 可也.

10) 『승정원일기』(책 2685) 1865년(고종 2) 1월 3일.

○ 義禁府啓曰, 金龜柱罪名爰周, 復其官爵, 金始淵放逐鄉里事, 承傳啓下矣. 兩罪人負犯至重, 臺啓方張, 不得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11) 『승정원일기』(책 2685) 1865년(고종 2) 1월 5일.

○ 又啓曰, 金龜柱罪名爰周, 復其官爵, 金始淵放逐鄉里事, 承傳啓下, 而臺啓方張, 不得舉行矣, 今則臺啓已停矣, 金龜柱復官爵事, 罪名係是追奪, 非臣府所管, 依例令吏曹稟處, 全羅道濟州牧加棘罪人金始淵, 撤去圍籬後, 放逐鄉里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240. 이하전(李夏銓)

- 신분: 종실(경모궁령<景慕宮令>)
- 유배 연월: 1862년(철종 13) 7월 27일.
- 사망 연월: 1862년(철종 13) 8월 11일.
- 사유: 무고 역모 연루(오위장 이재두<李載斗>), 헌종 사후 왕 추대)
- 관련 사료

1) 『철종실록』(권 14) 1862년(철종 13) 7월 25일.

○ 鞠廳, 以罪人李夏銓議啓, 敎曰: “此囚之名出鞠招, 誠是意慮之所不到也. 其家世守規模何如, 祖宗朝眷庇敦厚何如? 而爲其後承者, 不能恬約自修, 使不逞悖類, 出入無常, 竟未免爲把弄中物. 而第其匈圖逆節, 渠旣不知云, 則不過是蒙駭沒覺也. 自茲獄始起, 予心實有所盡然, 且屢閱爰招, 其然豈其然, 的未見和應之跡. 以百世可宥之義, 特貸一縷, 濟州牧安置, 當日押送.”

2) 『승정원일기』(책 2653) 1862년(철종 13) 7월 27일.

○ 又啓曰, 因鞠廳議啓判付, 李夏銓, 濟州牧安置, 當日押送事, 命下矣. 李夏銓解枷杻移囚西間後, 全羅道濟州牧安置, 使之當日押送, 而以判付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3) 『철종실록』(권 14) 1862년(철종 13) 8월 11일.

○ 敎曰: “予於此事, 屢費商量, 而非有忽於必無赦之刑政, 特終始全保, 不害爲好生之德. 而參以前後獄案, 則亂窩渠也. 匈魁渠也. 至於兇書之發, 而其所指目, 不啻狼藉則天討王章, 予雖欲低昂, 有不可得矣. 靖國論壹民志, 爲今日莫大之務, 濟州牧荐棘罪人李夏銓, 賜死.”

4) 『승정원일기』(책 2654) 1862년(철종 13) 8월 11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荐棘罪人李夏銓賜死事, 承傳啓下矣. 罪人夏銓以承傳內辭意, 具罪目發遣府都事, 所到處與地方官, 眼同賜死之意, 敢啓. 傳曰, 知道.

241. 심이택(沈履澤)

- 신분: 관리(의주 부윤)
- 유배 연월: 1864년(고종 1) 3월 4일.
- 해배 연월: 1865년(고종 2) 10월 18일(방축향리).
- 사유: 지방관 탐학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1) 1864년(고종 1) 3월 3일.

○ 義州府暗行御史李應夏書啓: “前府尹沈履澤, 徒事賄賂, 專務騙財. 大小政令, 非賄不成, 巨細邑務, 無處不病. 貪饕三載, 一府蕩析. 壬戌, 癸亥府作米之作錢取剩, 還穀, 餉穀, 因歸私用, 邊鎮軍籍, 惟意削減, 莫掩肥己之跡. 國界三島, 許關放賣, 不念交界之信, 私商之捧賂潛越, 包蔘之加稅勒捧. 賣任賣科及富民勒奪, 合爲二十七萬三千七百兩. 貪虐不法, 莫此爲甚. 其罪狀, 令攸司稟處.

2) 『고종실록』(권 1) 1864년(고종 1) 3월 4일.

○ 大王大妃教曰: “灣府之素稱腴邑, 不過燕貨出入之故, 則本是自好之士所當審慎, 而往往不免譏疑, 已極慨歎. 今此沈履澤狼藉賊犯, 又多意思之所不到, 驚心駭惋, 於斯極矣. 其職則三品大吏也, 其任則西門鎖鑰也, 罔念委寄之重, 地望之別, 而視之若天設此區, 專爲渠充欲之地, 貪黷無厭. 一邑蕩殘, 怨讟朋興, 隣境皆聞, 則其可曰國有法而國有人乎? 其父之湖西遺臭, 已是倖迨之大者, 而忘君負國, 可謂世濟其惡. 如此之類, 不施重典, 將何以謝西民, 將何以整頽綱乎? 金吾堂上開坐通衢, 沈履澤嚴刑一次, 濟州牧圍籬安置, 三倍道押送.

3) 『승정원일기』(책 2674) 1864년(고종 1) 3월 4일.

○ 尹定善, 以義禁府言啓曰, 金吾堂上, 開坐通衢, 沈履澤嚴刑一次, 濟州牧圍籬安置, 三倍道押付事, 承傳啓下矣. 謹依承傳內辭意, 罪人沈履澤, 拿致通衢, 百官與上京及未下直守令, 同爲序立, 嚴刑一次, 訊杖第三十度後, 全羅道濟州牧, 與地方官眼同, 圍籬安置,

而以承傳內辭意，具罪目，依例發遣府都事，使之三倍道，押送配所，何如？傳曰，允.

4) 『고종실록』(권 2) 1865년(고종 2) 10월 15일.

○ 又敎曰: “沈履澤之罪犯賊汙, 不可以年前薄勘, 有所曲恕, 而卽聞其父在謫身故云. 朝家刑政, 非欲前嚴而後緩, 不無斟酌者存, 特令放逐鄉里. 沈宜冕罪名, 亦爲蕩滌.

5) 『승정원일기』(책 2695) 1865년(고종 2) 10월 18일.

○ 義禁府啓曰, 沈履澤放逐鄉里, 沈宜冕罪名, 亦爲蕩滌事, 承傳啓下, 金鎮衡罪名又周事, 命下, 而臺啓方張, 不得舉行, 今則臺啓已停矣. 沈宜冕, 罪名蕩滌, 金鎮衡, 罪名又周, 全羅道濟州牧加棘罪人沈履澤, 撤去圍籬後, 放逐鄉里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242. 구성희(具星喜)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864년(고종 1) 5월 14일.
- 해배 연월: 1867년(고종 4) 4월 15일.
- 사유: 과거부정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1) 1864년(고종 1) 5월 14일.

○持平愼我祐疏略: “今我聖上一元之初, 新設慶科, 八域多士, 就如雲日. 傳教內曰: ‘各書道名, 又書濟州’, 凡居濟州人士, 莫不蹈舞歡忭. 及伏見榜眼, 所謂具星喜爲名者, 敢稱濟州幼學, 圖占參榜. 豈有如此無嚴之習哉? 古之名臣, 有不許增年, 有不許開封貫籍者. 稱以士子, 乃於進身之初, 冒稱居住, 敢犯欺君之罪,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臣以爲具星喜不可仍置, 亟施當律, 以懲不忠之罪, 以泄公共之憤焉.” 批曰: “朝家之軫念遠人, 與他自別. 而乃有此等奸弊, 極爲駭然, 當有處分矣.”

○教曰: “濟州學子, 駕海遠赴, 勞苦可悶, 使之頭書邑名, 特出軫念. 而乃有此僞冒圖占之弊, 使本州儒生, 竟抱漏榜之歎, 豈非可痛乎? 具星喜原榜目拔去後, 濟州充軍, 以謝一境人士之心.”

2) 『승정원일기』(책 2677) 1864년(고종 1) 5월 15일.

○義禁府啓曰, 具星喜濟州牧充軍事, 傳旨啓下矣. 具星喜全羅道濟州牧充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책 2713) 1867년(고종 4) 4월 14일.

○以濟州牧放未放成冊, 傳曰, 具星喜放.

4) 『승정원일기』(책 2713) 1867년(고종 4) 4월 15일.

○ 義禁府啓曰, 各道放未放成冊, 可放者付籤以入, 而踏啓字以下矣. 全羅道海南縣遠竄罪人許雲老, 鎭安縣遠配罪人金顯成, 茂朱府流三千里定配罪人李承穆, 玉溝縣遠配罪人金肇演, 海南縣流三千里罪人申命羲, 濟州牧充軍罪人具星喜, 慶尙道機張縣流三千里定配罪人盧樂, 金海府遠竄罪人申吉輔, 軍威縣遠配罪人金顯文, 咸鏡道甲山府遠惡地定配罪人許燁, 明川府安置罪人李錫永, 公忠道公州牧徒一年半定配罪人金英烈, 江原道江陵府加施徒一年半定配罪人李燮等放送事, 分付各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243. 최익현(崔益鉉)

- 신분: 관리(호조참판)
- 유배 연월: 1873년(고종 10) 11월 12일.
- 해배 연월: 1875년(고종 12) 2월 12일.
- 사유: 건의 불발(고종의 강력한 친정 청원)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10) 1873년(고종 10) 10월 25일.

○ 同副承旨崔益鉉疏略. 臣於年前召命, 黽勉就列, 曾未幾日, 無事譴罷. 臣之無狀不似, 已有聖鑑孔昭. 自是以往, 退伏畎畝, 分甘邱壑, 爲貧祿仕, 猶不敢擬, 而況承宣顯職也? 聞命驚惶, 益不知死所矣. 且見挽近以來, 政變舊章, 人取軟熟. 大臣, 六卿無建白之議, 臺諫, 侍從避好事之謗. 朝廷之上, 俗論恣行而正誼消, 諂佞肆志而直士藏. 賦斂不息, 生民魚肉; 彝倫斃喪, 士氣沮敗. 事公者謂之乖激; 事私者謂之得計. 無恥者沛然而得時; 有守者荼然而濱死. 以致天災見於上, 地變作於下, 雨暘寒暑, 俱失其常. 于斯時也, 雖使老成宿德爲世推望者當之, 猶應掣肘矛盾, 未易爲力. 況如小臣姿本愚劣, 學沒巴鼻, 兼以孤根弱植, 孑孑踽踽, 靡所止屆? 今若憑恃寵靈, 罔存負乘之戒, 不念過福之災, 隨行逐隊, 呼唱道路, 揚揚自足, 而無所顧忌, 則亦安知無人言峻發, 無將不敬之誅, 接跡而起也? 此臣之所以彷徨躑躅, 而雖欲趨走而不敢者也云云. 批曰: “爾之此疏, 出於衷曲, 且爲戒予之辭, 極爲嘉尙. 敢述列聖朝盛事, 戶曹參判除授. 而如此正直之言, 若有岐貳者, 不免爲小人矣.”

2) 『고종실록』(권 10) 1873년(고종 10) 11월 3일.

○ 戶曹參判崔益鉉疏略: 伏以臣駟召之下, 猥陳情私, 冀蒙睿燭. 而縣道封章, 自爾淹滯, 未趁登徹. 且復治疏之際, 措辭下字, 專沒審慎, 撞觸忌諱, 罪著逋慢, 忤犯貴近, 嶺海鈇鉞, 束裝竣命. 乃者聖量天涵, 納汙藏疾, 旣無絲毫之譴, 寵以越例之典. 臣仰而愧天, 俯而忤人. 誠不意幸追當罰, 濫叨匪分, 至此之甚也. 夫爵祿, 國家之名器也. 苟或非其人, 適足以上累君政, 下拂民情, 未流之弊, 及於無窮. 況人臣去就, 其所以關風俗之盛衰, 廉

隅之大防，尤有加於此者乎？是以臣於君命，當進而不進，爲不恭，不當進而進，亦爲不恭。以臣之今日事勢言之，臣實蠢蠢一鄉閭耳。雖在抱關，擊柝之任，猶不可堪承，況於地部之官？當此財窮民困之時，決非如臣身所可須臾冒據。此臣之不敢進者，一也。辭尊居卑，辭富居貧，辭受之大節也。臣於日前，既辭承宣之命，今於超擢，乃反晏然冒膺，有若倘來，則真所謂辭萬而居十萬，將不免於孟子之罪人矣。此，臣之不敢進者，二也。臣於年前，妄論時政，宜伏誅譴。而刊削未久，卽陞通政。聖恩雖曰罔極，而權鍾祿之疏，亦蒙優批，臣罪之無將不敬，固其當勘。而緣臣無狀，鈞名沾譽之厚誣，及於臣師前參判臣李恒老，則是豈不冤抑之甚乎？自己之罪名未洗，父師之厚誣未白，則臣之一身，斷無舉顏出脚者，三也。乃於前日駙召，貪變恩寵，率意妄行，打乖廉防，貽羞縉紳，內省自疚，悔不可及。此，臣之不敢進者，四也。太平朝廷，緣臣一疏，雌黃層激，至於大臣聯筭，三司交章，以及前銜散官之臣，聲討方張，朝著騷擾而罪惡彌彰。此臣之不敢進者，五也。伏乞聖明，念臣自知之明，憫臣情勢之難安，亟爲還收成命，以重公器，以安私分，千萬幸甚。且念臣身既不進而言亦不進，非人臣盡忠之義，亦非所以對揚我殿下容諫之聖德。…

3) 『고종실록』(권 10) 1873년(고종 10) 11월 3일.

○ 敎曰：“今見戶曹參判崔益鉉疏，則辭語中多有語逼者，豈有如許道理乎？萬萬駭然，施以竄配之典。”

4) 『고종실록』(권 10) 1873년(고종 10) 11월 9일.

○ 鞫廳“罪人崔益鉉，請刑議“啓。敎曰：“觀此供招，當初疏辭，出於鄉曲無識，全沒分數。而至於設鞫，存事面矣，聽衆論矣。別無更問之端，特用好生之德，濟州牧圍籬安置。”

5) 『승정원일기』(책 2795) 1873년(고종 10) 11월 9일.

○ 鞫廳罪人崔益鉉請刑議啓判付內，觀此供招，當初疏辭，出於鄉曲無識，全沒分數，而至於設鞫，存事面矣聽衆論矣，別無更問之端，特用好生之德，濟州牧圍籬安置爲良如敎。

6) 『고종실록』(권 10) 1873년(고종 10) 11월 12일.

○ 義禁府以“崔益鉉，濟州牧，圍籬安置“啓。

7) 『승정원일기』(책 2795) 1873년(고종 10) 11월 12일.

○ 義禁府啓曰, 鞫廳罪人崔益鉉, 濟州牧圍籬安置事, 承傳啓下矣. 崔益鉉爲先解枷杻, 移囚西間後, 依例發遣府都事, 全羅道濟州牧, 與地方官眼同圍籬安置,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8) 『고종실록』(권 12) 1875년(고종 12) 2월 9일.

○ 敎曰: “濟州牧圍籬安置罪人崔益鉉放.”

9) 『승정원일기』(책 2810) 1875년(고종 12) 2월 1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圍籬安置罪人崔益鉉放事, 承傳啓下矣. 全羅道濟州牧圍籬安置罪人崔益鉉, 撤去圍籬後放送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244. 김복성(金復性)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875년(고종 12) 4월 30일.
- 해배 연월: 1879년(고종 16) 2월 26일.
- 사유: 과거 부정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12) 1875년(고종 12) 4월 30일.

○ 禮曹啓: “別試文科丙科第八人金復性, 變幻居住, 至於冒占. 揆以法紀, 萬萬駭然. 原榜目爲先拔去, 其罪狀令該曹照律勘處何如?” 敎曰: “如此士習, 萬萬痛駭. 欺君之罪, 不可尋常處之. 金復性嚴刑一次, 濟州牧限己身定配.”

2) 『승정원일기』(책 2812) 1875년(고종 12) 4월 30일.

○ 又以禮曹言啓曰, 今此別試文科殿試榜目中, 丙科第八人幼學金復性居住, 以星州懸錄, 而取考初試原榜, 則居住, 以果川書之矣. 金復性之變幻居住, 至於冒占者, 揆以法紀, 萬萬駭然. 原榜目中, 爲先拔去, 付標以入, 而其罪狀, 令該曹, 照律勘處, 何如? 傳曰, 允. 如此士習, 萬萬痛駭. 欺君之罪, 不可尋常處之. 金復性, 嚴刑一次, 濟州牧限己身定配, 當日押送.

3) 『고종실록』(권 16) 1879년(고종 16) 2월 26일.

○ 敎曰: “削科人金復性, 特爲復科, 付之今番庭試榜末, 以示廣慶之意.”

4) 『승정원일기』(책 2859) 1879년(고종 16) 2월 26일.

○ 又以禮曹言啓曰, 傳曰, 削科人金復性, 特爲復科, 付之今番庭試榜末, 以示廣慶之意事, 命下矣. 幼學金復性, 付之今番庭試榜末, 一體放榜之意, 敢啓. 傳曰, 知道.

245. 정태호(鄭泰好)

- 신분: 관리(황해도 관찰사)
- 유배 연월: 1876년(고종 13) 9월 11일.
- 해배 연월: 1879년(고종 16) 2월 13일.
- 사유: 지방관 탐학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13) 1876년(고종 13) 8월 25일.

○ 議政府啓: “瓦署別提李獻耆, 名以朝官, 符同雜類, 行其所不爲之事. 苟存一分嚴畏之心, 焉敢乃爾? 爲先永刊仕籍, 令該府嚴刑島配, 勿揀赦前. 行護軍鄭泰好, 持身不謹, 締結獻耆, 駭悖之說, 極其狼藉. 以若宰臣之列, 不可但以貽羞言, 施以竄配之典何如?” 允之.

2) 『승정원일기』(책 2829) 1876년(고종 13) 8월 26일.

○ 義禁府啓曰, 瓦署別提李獻耆, 爲先永刊仕籍, 嚴刑島配, 勿揀赦前, 行護軍鄭泰好, 施以竄配之典事, 承傳, 啓下矣. 李獻耆, 今方待命拿囚, 卽當嚴刑發配, 而以齋日不得開坐, 過齋後舉行, 鄭泰好, 平安道中和府竄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3) 『고종실록』(권 13) 1876년(고종 13) 9월 5일.

○ 敎曰: “卽見海繡啓本, 則鄭泰好之狼藉賊犯, 何若是無厭乎? 承化之地, 有此貪饕之流毒, 其一省之蕩殘, 當何如也? 如此不法之類, 不可尋常處之. 竄配罪人鄭泰好, 爲先令該府, 還爲拿來, 別般嚴囚.”

4) 『고종실록』(권 13) 1876년(고종 13) 9월 11일.

○ 敎曰: “鄭泰好之許多負犯, 言之痛惋矣. 不念一省委寄之重, 敢肆溪壑, 竟致塗炭, 至於公用之幻弄, 國試之濁亂而極矣. 其忘君負國, 已是罔赦之罪, 而況又以方技邪術, 甘作

需用之資者，乃無知賤類之亦所不爲也。渠以簪纓之裔，車服之列，不知此事之爲人唾罵，則貪饕殘虐，當何所不爲乎？左道誣惑，亦有常憲，似此不法無恥之類，斷當明示典刑，以謝海民之困苦，以滌朝班之污穢。罪人鄭泰好，濟州牧圍籬安置，三倍道押送。其犯賊諸條，自秋曹刻期徵捧，下送本道監營，充補還給之方，量宜措處。繡啓中所謂裨幕輩，不可以人微而勿問。亦令秋曹，竝捉致。鄭重愚嚴刑一次，遠惡地充軍，洪鳳華遠地充軍。”

5) 『승정원일기』(책 2830) 1876년(고종 13) 9월 12일.

○ 義禁府啓曰, 罪人鄭泰好, 濟州牧圍籬安置, 三倍道押送事, 承傳啓下矣. 鄭泰好, 全羅道濟州牧圍籬安置, 三倍道押送, 而以承傳內辭意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 圍籬安置之意, 敢啓. 傳曰, 知道.

6) 『고종실록』(권 16) 1879년(고종 16) 2월 9일.

○ 敎曰: “黑山島圍籬安置罪人崔益鉉, 楸子島安置罪人趙秉昌, 竝放逐鄉里. 濟州牧圍籬安置罪人鄭泰好, 智島島配罪人趙秉式, 碧潼郡極邊遠竄罪人李建昌, 放逐鄉里, 罪人金世鎬, 洪玩, 李載晚, 竝放送.”

7) 『승정원일기』(책 2859) 1879년(고종 16) 2월 9일.

○ 傳于金明鎭曰, 黑山島圍籬安置罪人崔益鉉, 楸子島安置罪人趙秉昌, 竝放逐鄉里, 濟州牧圍籬安置罪人鄭泰好, 智島島配罪人趙秉式, 碧潼郡極邊遠竄罪人李建昌, 放逐鄉里, 罪人金世鎬·洪玩·李載晚, 竝放送.

8) 『승정원일기』(책 2859) 1879년(고종 16) 2월 13일.

○ 閔泳奎, 以義禁府言啓曰, 黑山島圍籬安置罪人崔益鉉, 楸子島安置罪人趙秉昌, 竝放逐鄉里, 濟州牧圍籬安置罪人鄭泰好放送事, 承傳啓下, 而以臺啓方張, 不得舉行矣, 今則臺啓已停, 崔益鉉·鄭泰好撤去圍籬後, 崔益鉉·趙秉昌等, 放逐鄉里, 鄭泰好放送事, 竝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246~249. 이희당(李禧戇), 남정호(南廷皓), 박영훈(朴泳薰), 민영서(閔泳序)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876년(고종 16) 3월 13일(이희당), 25일(남정호, 박영훈, 민영서).
- 해배 연월: 1880년(고종 17) 6월 10일.
- 사유: 과거 부정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16) 1879년(고종 16) 3월 13일.

○ 承文判校金炳洙疏略: “今番慶科之各書道名也, 李禧戇非濟州人, 而冒書參榜. 進身之初, 敢犯欺君之罪, 不可仍置. 亟施當律焉.” 批曰: “豈有如許士習乎? 朝家之此地示意, 因此而未究, 尤爲痛歎. 當有處分矣.”

○ 教曰: “向日庭試, 使之頭書濟州, 特出於軫念遠人. 而乃有此僞冒欺罔, 使原籍之士, 抱茲漏榜之歎. 究厥所爲, 豈非可痛乎? 李禧戇, 原榜目拔去, 濟州牧充軍.”

2) 『승정원일기』(책 2860) 1879년(고종 16) 3월 13일.

○ 傳曰, 向日庭試, 使之頭書濟州, 特出於軫念遠人, 而乃有此僞冒欺罔, 使原籍之士, 抱茲漏榜之嘆, 究厥所爲, 豈非可痛乎? 李禧戇原榜目拔去, 濟州牧充軍.

3) 『고종실록』(권 17) 1876년(고종 16) 3월 25일.

○ 司諫李鳳德疏略: “今番庭試, 南廷皓, 朴泳薰, 閔泳序, 俱冒書道名而參榜矣. 伏乞特降處分, 以立朝綱, 以正士趣焉.” 批曰: “向有李禧戇之事, 而此疏又至. 故犯欺罔之習, 寧容若是? 當有處分矣.”

4) 『승정원일기』(책 2860) 1879년(고종 16) 3월 25일.

○ 司諫李鳳德疏曰, 伏以臣, 以草野寒微之踪, 猥參科籍, 累參臺職, 榮已極矣, 分斯濫矣. 而才智闕燭, 識見空疎, 徒竊斗祿之俸, 未效寸毫之報, 每念及此, 不覺駢顏而汗背矣. 伏願亟賜鐫斥, 俾官方重而私分安焉, 臣於丐免之章, 不敢贅他而竊有所區區仰達者矣. 夫朝家之遇慶設科, 亶出於簡賢選能, 與國同休之盛舉也. 本年二月二十七日, 臨軒試士之時, 特下各書道名, 又書濟州之命, 八域之士, 莫不歡欣蹈舞, 咸頌均施之聖澤, 而仰之以陽春, 不遺寒谷, 太陽遍照陰崕矣. 及其出榜, 考其居住, 則互相眩幻, 地則是而人則非矣, 進士臣南廷皓, 居是京也而懸之以春川地, 進士臣朴泳薰, 亦是京也而懸之以羅州地, 幼學臣閔泳序, 居是廣州而懸之以尙州地, 幼學臣李禧憲, 居是中和而懸之以濟州地, 次第獲參, 各道儒生之失望, 已無可言, 而聖朝眷念之意, 果安在哉? 李禧憲事, 已悉於判校臣金炳洙疏中, 至蒙處分, 今不必更瀆, 而其外三人, 俱是名門之後裔, 才譽方苑, 苟能順天而俟命, 則必有其時, 而未遏躁進之心, 自陷欲事先欺之科, 誠不勝慨嘆之至. 上恩, 因此而未究, 科規, 緣是而漸弛, 故職在言地, 不得泯默, 茲敢冒悚仰陳. 伏乞聖明, 俯垂鑑諒, 特降處分, 以立朝綱, 以正士趣焉. 臣無任云云. 答曰, 向有李禧憲之事, 而此疏又至, 故犯欺誣之習, 寧容若是? 當有處分矣. 爾其勿辭察職.

○ 傳曰, 今見臺疏, 其僞冒之習, 誠極痛該[痛駭], 士子通籍, 欲其事君也, 而先行欺君可乎? 不可尋常置之, 庭試被選人南廷皓·朴泳薰·閔泳序, 竝原榜目拔去, 濟州牧充軍.

5) 『고종실록』(권 17) 1880년(고종 17) 6월 9일.

○ 敎曰: “今番慶年設科試取之會, 不可無參量示意. 昨年春庭試削科人李禧憲, 南廷皓, 朴泳薰, 閔泳序, 竝特爲復科, 付之今番增廣文科殿試榜末.”

6) 『승정원일기』(책 2876) 1880년(고종 17) 6월 10일.

○ 傳于李根命曰, 今番慶年設科試取之會, 不可無參量示意, 昨年春庭試削科人李禧憲·南廷皓·朴泳薰·閔泳序, 竝特爲復科, 付之今番增廣文科殿試榜末.

250. 이태현(李泰鉉)

- 신분: 관리(경상좌병사)
- 유배 연월: 1881년(고종 18) 6월 13일.
- 이배 연월: 1882년(고종 19) 12월 2일(익산군).
- 사유: 지방관 탐학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18) 1881년(고종 18) 4월 26일.

○ 敎曰: “卽見北伯狀啓, 則南樞事, 極爲駭惋. 以樞帥之任, 罔念圖報, 恣行不法, 騙取虐斂, 若是狼藉, 賊律莫嚴, 何可尋常處之? 南兵使李泰鉉, 發遣府都事, 具格拿來.”

2) 『고종실록』(권 18) 1881년(고종 18) 6월 13일.

○ 敎曰: “此罪囚之饕貪虐斂, 已有道啓之臚列矣. 渠以樞帥之列, 恣行不法, 若是狼藉, 使此無辜之民, 受其毒而莫能奠保. 苟有一分嚴畏, 則寧容若是? 此不可尋常處之, 亦不必更爲發問. 捧招禁堂, 開坐通衢, 大會民人, 李泰鉉各別嚴刑一次後, 濟州牧圍籬安置三倍道押送.” 又敎曰: “李泰鉉決杖時, 百官序立, 上京與未下直守令, 同爲序立.”

3) 『승정원일기』(책 2888) 1881년(고종 18) 6월 13일.

○ 傳曰, 此囚之饕貪虐斂, 已爲道啓之臚列矣. 渠以樞帥之列, 恣行不法, 若是狼藉, 使此無辜之民, 受其毒而莫能奠保, 苟有一分嚴畏, 則寧容若是? 此不可尋常處之, 亦不必更爲發問捧招, 禁堂開坐通衢, 大會民人, 李泰鉉各別嚴刑一次後, 濟州牧圍籬安置, 三倍道押送.

4) 『승정원일기』(책 2906) 1882년(고종 19) 11월 12일.

○ 以濟州牧放未放成冊, 傳于朴周陽曰, 李泰鉉減等定配.

5) 『승정원일기』(책 2907) 1882년(고종 19) 12월 2일.

○ 義禁府啓曰, 各道放未放成冊啓下全羅道靈光郡荏子島遠惡島安置罪人徐奭輔, 珍山郡減等定配罪人金鍾憲, 濟州牧圍離安置罪人李泰鉉, 羅州牧智島遠惡島定配罪人柳冀大, 咸鏡道端川府邊地竄配勿揀赦前罪人徐周輔等名下, 減等定配事書下, 全羅道興陽縣遠地定配罪人印亨純, 靈光郡荏子島遠惡島定配罪人金運盛, 羅州牧智島遠惡島定配罪人金興求, 求禮縣遠地竄配罪人閔泳柱, 雲峯縣流三千里定配罪人洪在駿, 綾州牧流三千里定配罪人徐弼輔, 潭陽府流三千里定配罪人朱明相, 咸鏡道高原郡遠地竄配罪人沈鎮圭, 利原縣遠惡地定配罪人洪炳夏, 明川府遠惡地定配罪人姜顯文, 慶尙道延日縣定配罪人崔昌植, 流三千里定配罪人方希年, 仁同府流三千里定配罪人朴珪熙, 平安道朔州府遠惡地竄配罪人元俊常, 龜城府遠地定配罪人金元奎, 江原道楊口含春驛徒二年半定配罪人李臣燁等名下, 放字書下矣. 印亨純·金運盛·金興求·洪炳夏·姜顯文·崔昌植·方希洙·朴珪熙·元俊常·金元奎·李臣燁等, 放送事, 分付該道道臣, 徐奭輔全羅道咸悅縣, 金鍾憲忠清道槐山郡, 徐周輔定山縣, 柳冀大全羅道珍山郡, 李泰鉉撤去圍離後益山郡竝減等定配, 而俱以前罪目添書, 今番草記內辭意, 依例發遣府書吏·羅將, 各其配所執捉, 仍命押送于新定配所, 閔泳柱·洪在俊·徐弼輔·朱明相·沈鎮圭等, 已爲蒙放, 竝不舉論之意, 敢啓. 傳曰, 知道.

251. 백낙관(白樂寬)

- 신분: 유생(충청도)
- 유배 연월: 1882년(고종 19) 10월 8일.
- 나래 연월: 1883년(고종 20) 6월 10일.
- 사유: 상소(친일 정책 규탄)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19) 1882년(고종 19) 5월 4일.

○ **忠淸道儒生白樂寬原情略**【獨疏未徹，舉火于南山，以原情入徹。】：臣於國家，無可死之義。而敢陳妄言，不避鈇鉞之誅者，豈有他哉？臣護軍臣弘洙之子也。臣父遭逢聖明，立朝四十餘年，歷事三朝，洪恩特厚，天地罔量。臣父每欲思報其萬一，自十餘年前，風病爲肆，坐臥須人。每念王室，祇自流涕。臣雖至愚，獨不知繼述之義也。魯論曰：“亂臣賊子，人人得而誅之。”今之廷臣，不爲亂賊者幾希矣。學孔，孟，程，朱之畫，而喜耶穌，瑪嚴之教，食父母邦國之穀，而衣倭，洋，法，美之服。出于正而入于邪，仕于此而役于彼。變夏爲夷，營私害公，致誤聖明，至於此極。臣請得以誅之，誅而不誅，臣之反誅必矣，而豈以畏誅而不誅？誅而反誅，是亦誅也，臣之幸也。**臣之死，賢於生，有三，非一死，無以明臣父憂國之誠，無以愧庭臣懷貳之心，無以墮義質欺我之計也。**效死而言之，何所不言？夫倭自壬辰敗歸之後，抱冤積忿，十年磨一劍，十年修一藝。商船賈舶，無所不至，援結諸洋，誑誘中國，而窺我有釁子茲有年矣。觀我朶頤而莫售其志者，我國本以忠孝爲甲兵，仁義爲城郭，非智力之所可犯也。故乃以讖言流於國中，以爲亡朝鮮者院也。蓋院祠者，崇德報功之所也，講學明道之地也，乃以列聖朝經邦衛國之深謨遠慮者也。苟有利國家衛聖道者，在在旌表矣。殿下幼冲之初，權臣獨斷，陷於不經之言，而皇廟，聖祠，忠院，義宇，一竝毀撤，此何異於周禁檠弧而速亡，秦防胡虜而自滅也？于時，有骨肉大臣，乘時而起，雍蔽聰明，煽動內外，以爲院將不利於國家。衆口鑠金，積毀消骨，故親親之義掃如，厚厚之道蔑然。武衛之手下親兵，以此而設焉，豫建世子之議，以此而急焉。遂發丙子之和事，廷臣之知其謀者，莫敢開口，卒以誤國。**以我堂堂千乘之國，冊封元良，何賴義質，而區區若是？**忘其不共戴天之讎，充其無厭貪虎之慾，惟請是從，惟令是行，如恐不及。殿下千秋萬歲

後, 東宮邸下代履寶位, 則義質言必稱吾家所立, 此言何以塞之? … 黃遵憲亦義質之黨, 與初誘我國而以爲結日本, 連美國, 親中國, 以防俄羅. 日本與我國百世之讎, 而初無可結. 義質之義, 美國, 遠在絕域, 連之何爲? 中國, 我已服事三百年, 別無加親之道, 俄羅與我無釁, 有何相關之慮? 此言固已疑之. 今聞魚允中使于中國, 請以五年一貢. 此果加一層外親之事乎? 三百年服事之例, 一朝倍之, 中國得無窺釁之理乎? 舊有仇讎之嫌, 今有鉅蛋之依, 蓋義質之欲舉兵入寇者久矣, 而畏中國復如大明之來救, 故今以是謀, 使之成隙兩國, 兵連疲弊, 則渠於此, 坐收漁人功之計. 若盡從義質之計, 必也國亡後已. 與其死於夷狄之手, 不若死於王章之下. 故臣所以請誅廷臣之倡爲和議者, 以勵其餘. 伏願殿下, 廓揮乾斷, 去邪勿疑. 昔大舜罪四凶, 而天下咸服, 成王誅三叔, 而周室久安, 齊威王烹阿大夫, 而強於諸侯. 今廷臣之中, 有四凶焉, 有三叔焉, 有阿大夫焉. 罪人黜伏然後, 王室乂安, 人心可服, 敵國可退. 不者, 人人哲九, 家家驥泳, 武衛之親兵, 必將倒戈, 別技之子弟, 莫不旋踵, 此必然之勢也. 臣知其必然而不言, 與亂賊何異哉? 瀝舌拜疏, 言不取裁.

2) 『고종실록』(권 19) 1882년(고종 19) 10월 6일.

○ 又敎曰: “觀此白樂寬之前後爰辭, 卽無異狂易失性. 於渠何足深誅? 罪人白樂寬, 特貸一縷, 濟州牧, 圍籬安置.”

3) 『승정원일기』(책 2905) 1882년(고종 19) 10월 6일.

○ 傳曰, 觀此白樂寬之前後爰辭, 卽無異狂易失性, 於渠何足深誅? 罪人白樂寬, 特貸一縷, 濟州牧圍籬安置.

4) 『승정원일기』(책 2905) 1882년(고종 19) 10월 8일.

○ 義禁府啓曰, 罪人白樂寬, 特貸一縷, 濟州牧圍籬安置事, 承傳啓下矣. 罪人白樂寬, 解枷紐, 移囚西間後, 全羅道濟州牧圍籬安置,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 與地方官眼同, 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5) 『고종실록』(권 20) 1883년(고종 20) 6월 9일.

○ 敎曰: “圍籬安置罪人白樂寬, 令王府具格拿來, 南門囚.”

6) 『승정원일기』(책 2913) 1883년(고종 20) 6월 10일.

○ 義禁府啓曰, 圍籬安置罪人白樂寬, 具格拿來, 南間囚事, 承傳啓下矣. 全羅道濟州牧
圍籬安置罪人白樂寬, 卽爲發遣府都事, 具格拿來之意, 敢啓. 傳曰, 知道.

252. 윤상화(尹相和)

- 신분: 관리(부호군)
- 유배 연월: 1882년(고종 19) 12월 19일.
- 이배 연월: 1884년(고종 21) 3월 24일(흑산도).
- 사유: 건의 불발(상소문 언사 불측)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19) 1882년(고종 19) 12월 5일.

○ 副護軍尹相和陳疏言事. 批曰: “疏辭, 令廟堂稟處.”

2) 『고종실록』(권 19) 1882년(고종 19) 12월 7일.

○ 時原任大臣率金吾堂上, 請對入侍時, 領議政洪淳穆曰: “臣等見尹相和疏本, 句語之至凶絕惡, 莫知所以仰達矣. 臣等髮豎膽掉, 按住不得. 今茲相率登對. 如此極逆大愆, 豈可晷刻容貸乎? 亟令王府, 具格拿來, 設鞫得情, 決正典刑, 幾不可已也.” 左議政金炳國曰: “其疏句語, 未有如此極逆也. 骨戰膽掉, 相率請對, 亟降處分焉.” 教曰: “疏本中數三句語, 果是至凶絕惡矣.”

3) 『고종실록』(권 19) 1882년(고종 19) 12월 11일.

○ 教曰: “罪囚之疏中句語, 果有所不可容貸矣. 斷以極律, 宜無可惜, 而如渠蟻蝨賤類, 施以惟輕, 卽不足責之義. 罪人尹相和, 特貸一縷, 嚴刑一次後, 濟州牧圍籬安置, 勿揀赦前.”

4) 『승정원일기』(책 2907) 1882년(고종 19) 12월 11일.

○ 傳曰, 罪囚之疏中句語, 果有所不可容貸矣. 斷以極律, 宜無可惜, 而如渠蟻蝨賤類, 施以惟輕, 卽不足責之義. 罪人尹相和, 特貸一縷, 嚴刑一次後, 濟州牧圍籬安置, 勿揀赦前.

5) 『승정원일기』(책 2907) 1882년(고종 19) 12월 19일.

○ 義禁府啓曰, 罪人尹相和, 特貸一縷, 濟州牧圍籬安置, 勿揀赦前事, 承傳啓下矣. 尹相和爲先解枷杻, 移囚西間, 嚴刑一次, 訊杖第三十度後, 全羅道濟州牧圍籬安置, 勿揀赦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 與地方官眼同, 使之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6) 『고종실록』(권 21) 1884년(고종 21) 3월 23일.

○ 又敎曰: “濟州牧圍籬安置罪人尹相和, 移配黑山島, 圍籬安置.”

7) 『승정원일기』(책 2921) 1884년(고종 21) 3월 24일.

○ 尹定求,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圍籬安置罪人尹相和, 移配黑山島圍籬安置事, 承傳啓下矣. 全羅道濟州牧圍籬安置, 勿揀赦前罪人尹相和, 依前罪目添書, 今番承傳內辭意, 移配羅州牧黑山島圍籬安置, 勿揀赦前, 而依例發遣府都事, 罪人尹相和, 自濟州牧配所, 撤去圍籬後, 卽爲執捉, 仍令押送于羅州牧黑山島, 與地方官眼同, 使之圍籬安置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253~259. 한기석(韓祈錫), 김국선(金國善), 임진수(林璉洙),
허엽(許燁), 김명호(金明鎬), 장덕현(張德鉉), 최형순(崔亨順)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895년(고종 32) 4월 19일.
- 해배(이배) 연월: 미상, 1901년(고종 38) 6월 7일(최형순 진도군 금갑도 이배).
- 사유: 역모 기도(이준용 모반 사건)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33) 1895년(고종 32) 4월 19일.

○ 特別法院의 判決을 受호 謀反罪人朴準陽, 李泰容, 高宗柱와 謀殺罪人田東錫, 崔亨植은 死刑을 執行호고 謀反罪人韓祈錫, 金國善, 林璉洙, 許燁, 金明鎬와 謀殺罪人張德鉉, 崔亨順은 竝濟州牧; 謀殺罪人高致弘, 李汝益, 李永培, 金漢英, 徐丙奎, 金乃吾, 李乃春, 曹龍承은 竝白翎島; 謀殺罪人尹震求는 黑山島; 鄭祖源은 荏子島에 流配하다.

2) 『승정원일기』(책 3057) 1895년(고종 32) 4월 19일.

○ 又奏, 受特別法院判決, 謀反罪人朴準陽·李泰容·高宗柱, 謀殺罪人田東錫·崔亨植, 其夜執行死刑, 謀反罪人韓祈錫·金國善·林璉洙·許燁·金明鎬, 謀殺罪人張德鉉·崔亨順, 流配於全羅道濟州牧, 謀殺罪人高致弘·李汝益·李永培·金漢英·徐丙奎·金乃吾·李乃春·曹龍承, 流配於黃海道白翎島, 謀殺罪人尹震求, 流配於全羅道羅州牧黑山島, 鄭祖源, 流配於靈光郡荏子島, 何如? 奉旨, 依允.

3) 『고종실록』(권 41) 1901년(고종 38) 6월 7일.

○ 法部大臣署理李載崑奏: “欽奉詔勅, 濟州牧所在流終身罪人金允植, 移配于智島郡 智島; 流終身罪人鄭丙朝, 移配于蝟島; 流十年罪人金思燦, 移配于荏子島; 流終身罪人徐周輔, 移配于突山郡 呂島; 流終身罪人李台璜, 移配于蝟島; 流終身罪人金經夏, 移配于鹿島; 流十年罪人李範疇, 移配于莞島郡 薪智島; 流十年罪人韓善會, 移配于楸子島; 流七年罪人李容鎬, 移配于薪智島; 流終身罪人崔亨順, 流七年罪人張允善, 竝移配于珍島郡 金甲島.” 允之.

260~263. 이민굉(李敏宏), 이충구(李忠求), 전우기(全佑基),
노흥규(盧興奎)

- 신분: 미상, 전우기/노흥규(양주〈楊州〉 평민)
- 유배 연월: 1895년(고종 32) 12월 6일.
- 해배 연월: 1895년(고종 32) 12월 28일.
- 사유: 모반(춘생문 사건)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33) 1895년(고종 32) 11월 15일.

○ 判決宣告書… 李敏宏과 李忠求과 全佑基과 盧興奎는 謀反律에 情狀을 酌量하여 一等을 減하여 流終身에 處하고

2) 『승정원일기』(책 3066) 1895년(고종 32) 12월 6일.

○ 〈懲〉役三年罪人安駟壽·金在豐·南萬里流終身于白翎島, 李敏宏·李忠求·全佑基·盧興奎流配于濟州郡.

3) 『승정원일기』(책 3066) 1895년(고종 32) 12월 28일.

○ 勅令濟州府濟州郡流終身罪人李敏宏·李忠求·全佑基·盧興奎, 海州府長湍郡白翎島流三年罪人安駟壽·金在豐·南萬里竝特放.

4) 『고종실록』(권 34) 1896년(고종 33) 2월 11일.

○ 流終身罪人李敏宏·李忠求·全佑基·盧興奎, 流三年罪人安駟壽·金在豐·南萬里竝特放.

264~268. 서주보(徐周輔), 정병조(鄭丙朝), 김경하(金經夏),
이태항(李台璜), 이범주(李範疇)

- 신분: 관리(서주보<궁내부 참서관>, 정병조<동궁 시종관>, 김경하<한성부 관찰사>, 이범주<시종원 시종>), 미상(이태항)
- 유배 연월: 1896년(고종 33) 4월 18일.
- 이배 연월: 1901년(고종 38) 6월 7일(서주보<돌산군 여도>, 정병조<위도>, 김경하<녹도>, 이태항<사도>, 이범주<완도군 신지도>).
- 사유: 명성황후 시해 연루(친일파)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3069) 1896년(고종 33) 3월 9일.

○ 高等裁判所判決, 流終身罪人徐周輔·鄭丙朝·金經夏·李台璜, 流十年罪人李範疇定配處所, 濟州府濟州郡, 流十五年罪人鄭萬朝定配處所, 羅州府珍島金甲島, 流十五年罪人禹洛善定配處所, 海州<府>長淵郡白翎島, 流十年罪人全峻基定配處所, 羅州府羅州郡黑山島, 役一年罪人洪祐德監禁處所, 羅州府海南縣楸子島.

2) 『고종실록』(권 34) 1896년(고종 33) 4월 18일.

○ 法部, 依詔勅宣告後, 定配所: “徐周輔, 鄭丙朝, 金經夏, 李台璜, 李範疇, 濟州郡; 鄭萬朝, 金甲島; 禹洛善, 白翎島; 全峻基, 黑山島; 洪祐德監禁處所, 楸子島”上奏.

3) 『고종실록』(권 41) 1901년(고종 38) 6월 7일.

○ 法部大臣署理李載崑奏: “欽奉詔勅, 濟州牧所在流終身罪人金允植, 移配于智島郡 智島; 流終身罪人鄭丙朝, 移配于蝟島; 流十年罪人金思燦, 移配于荏子島; 流終身罪人徐周輔, 移配于突山郡 呂島; 流終身罪人李台璜, 移配于蝟島; 流終身罪人金經夏, 移配于鹿島; 流十年罪人李範疇, 移配于莞島郡 薪智島; 流十年罪人韓善會, 移配于楸子島; 流七年罪人李容鎬, 移配于薪智島; 流終身罪人崔亨順, 流七年罪人張允善, 竝移配于珍島郡 金甲島.” 允之.

269~273. 이용호(李容鎬), 장윤선(張允善), 한선회(韓善會),
김사찬(金思燦), 이근용(李根 彡 + 鎔)

- 신분: 관리(이용호<전 교리>, 한선회<중추원 참서관>, 이근용<전 길주목사>), 미상(장윤선, 김사찬).
- 유배 연월: 1897년(고종 34) 3월 15일.
- 해배 연월: 1897년(고종 34) 10월 28일(이근용)
- 이배 연월: 1901년(고종 38) 6월 7일(이용호<신지도>, 장윤선<진도군 금갑도>, 한선회<추자도>, 김사찬<임자도>).
- 사유: 역모 기도(반란)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35) 1897년(고종 34) 2월 1일.

○ 法部以“**韓善會等各被告**, 李彰烈, 金洛榮凶謀干連事件, 由檢事公訴審理, 則‘凶謀自建陽元年十月始, 至同年十一月定計, 以殺害各大臣, 奉迎大君主陛下還御. 又請外兵相助, 而慮有不如意, 則豫先雇得外國人刺客五十名, 換着兵丁, 巡檢服色, 潛入慶運宮, 待俄兵, 或他人有防遏時, 使之抵當. 李根용(彡 + 鎔)乘時率兵入直, 望之爲內應. 又豫先偽造詔勅三度: 一, 還御後送致俄館, 稱謝久住貽惱; 一, 送致各國公館, 調兵保護; 一, 還御後告示文也. 初意, 十一月十九日公故時, 慶運宮移御, 仍爲刼駕, 還御于景福宮, 以刺客服色未辦而止. 此際, 風聞他人亦有此計, 恐爲其先着鞭. 同二十日又計, 其翌獨立協會宴會時, 內部大臣朴定陽, 外部大臣李完用, 農商工部大臣李允用, 軍部大臣閔泳煥, 學部協辦金鴻陸, 其他各部協辦, 一時戕害于會席. 翌朝十點鐘, 齊會于金洛榮家, 發告人俞鎮九, 俞起煥, 田仁圭亦來會. 方議事之際, 有人來告, 李根용(彡 + 鎔), 徐廷圭兩大隊長被捉. 李彰烈謂事不諧, 卽地逃散’云云. 被告韓善會, 張允善, 金思燦, 李容鎬, 或辦出錢財, 或製述偽勅, 或同往外國人議事, 其爲從犯的確. 被告李根용(彡 + 鎔)與李彰烈, 自來親近, 而十一月十六日, 彰烈來言其凶謀, 仍請分付兵丁, 放白衣人入去, 禁放銃. 被告給曰: ‘伊日非吾直次’云, 而如此緊重所聞, 趁不稟達矣. 右事實, 照各證人證供, 各被告陳

供, 鑿確. 照法, 被告韓善會, 張允善, 金思燦, 李容鎬, 李根용(ㄱ+鎔), 竝笞一百, 流十五年“擬律上奏. 制曰: “李容鎬, 張允善, 既已自現, 合有參恕, 特減二等. 韓善會, 金思燦, 李根용(ㄱ+鎔), 罪固罔赦, 不無斟量, 特減一等.”

2) 『승정원일기』(책 3080) 1897년(고종 34) 2월 13일.

○ 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趙秉稷謹奏, 特旨流七年罪人李容鎬·張允善, 流十年罪人韓善會·金思燦·李根용(ㄱ+鎔)等, 竝濟州牧定配所之意, 謹奏. 奉旨, 依奏.

3) 『고종실록』(권 35) 1897년(고종 34) 3월 15일.

○ 法部大臣奏: “特旨流七年罪人李容鎬·張允善, 流十年罪人韓善會·金思燦·李根용(ㄱ+鎔)等, 竝濟州牧定配所何如?” 允之.

4) 『고종실록』(권 36) 1897년(고종 34) 10월 28일.

○ 法部大臣趙秉式奏: 又奏: “配案中六犯外罪人鄭惺愚, 李升遠, 李容翊, 李明翔, 柳東根, 李根용(ㄱ+鎔), 金瑨鉉, 李辰石, 車順西等, 竝即放送何如?” 允之.

5) 『고종실록』(권 41) 1901년(고종 38) 6월 7일.

○ 法部大臣署理李載崑奏: “欽奉詔勅, 濟州牧所在流終身罪人金允植, 移配于智島郡 智島; 流終身罪人鄭丙朝, 移配于蝟島; 流十年罪人金思燦, 移配于荏子島; 流終身罪人徐周輔, 移配于突山郡 呂島; 流終身罪人李台璜, 移配于蝟島; 流終身罪人金經夏, 移配于鹿島; 流十年罪人李範疇, 移配于莞島郡 薪智島; 流十年罪人韓善會, 移配于楸子島; 流七年罪人李容鎬, 移配于薪智島; 流終身罪人崔亨順, 流七年罪人張允善, 竝移配于珍島郡金甲島.” 允之.

274. 김낙영(金洛榮)

- 신분: 관리(도사<都事>)
- 유배 연월: 1897년(고종 34) 12월 14일.
- 사망 연월: 1898년(고종 35) 3월 14일.
- 사유: 역모 기도(반란)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35) 1897년(고종 34) 2월 1일.

○ 法部以“韓善會等各被告, 李彰烈, 金洛榮凶謀干連事件, 由檢事公訴審理, 則‘凶謀自建陽元年十月始, 至同年十一月定計, 以殺害各大臣, 奉迎大君主陛下還御. 又請外兵相助, 而慮有不如意, 則豫先雇得外國人刺客五十名, 換着兵丁, 巡檢服色, 潛入慶運宮, 待俄兵, 或他人有防遏時, 使之抵當. 李根용(ㄱ+鎔)乘時率兵入直, 望之爲內應. 又豫先偽造詔勅三度: 一, 還御後送致俄館, 稱謝久住貽惱; 一, 送致各國公館, 調兵保護; 一, 還御後告示文也. 初意, 十一月十九日公故時, 慶運宮移御, 仍爲刼駕, 還御于景福宮, 以刺客服色未辦而止. 此際, 風聞他人亦有此計, 恐爲其先着鞭. 同二十日又計, 其翌獨立協會宴會時, 內部大臣朴定陽, 外部大臣李完用, 農商工部大臣李允用, 軍部大臣閔泳煥, 學部協辦金鴻陸, 其他各部協辦, 一時戕害于會席. 翌朝十點鐘, 齊會于金洛榮家, 發告人俞鎮九, 俞起煥, 田仁圭亦來會. 方議事之際, 有人來告, 李根용(ㄱ+鎔), 徐廷圭兩大隊長被捉. 李彰烈謂事不諧, 卽地逃散’云云. 被告韓善會, 張允善, 金思燦, 李容鎬, 或辦出錢財, 或製述偽勅, 或同往外國人議事, 其爲從犯的確. 被告李根용(ㄱ+鎔)與李彰烈, 自來親近, 而十一月十六日, 彰烈來言其凶謀, 仍請分付兵丁, 放白衣人入去, 禁放銃. 被告給曰: ‘伊日非吾直次’云, 而如此緊重所聞, 趁不稟達矣. 右事實, 照各證人證供, 各被告陳供, 鑿確. 照法, 被告韓善會, 張允善, 金思燦, 李容鎬, 李根용(ㄱ+鎔), 竝答一百, 流十五年“擬律上奏. 制曰: “李容鎬, 張允善, 旣已自現, 合有參恕, 特減二等. 韓善會, 金思燦, 李根용(ㄱ+鎔), 罪固罔赦, 不無斟酌, 特減一等.”

2) 『고종실록』(권 36) 1897년(고종 34) 12월 14일.

○ 命金洛榮流十五年于濟州牧. 該犯上年十月，國事犯韓善會等按獄時，以其共犯逃躲，今始被捉. 法部，照詐爲制書爲從者律，上奏. 裁下.

3) 『속음청사』(권 9) 1898년(고종 35) 3월 14일.

○ 金洛榮의 凶謀

追後詳聞，今番房逆之事，始終皆出於金洛榮之慫慂，及其凶謀不成，陰欲翻城應之，有人知其事，蹴下於南城下，衆共殺之，莫不稱快.

275. 이승오(李承五)

- 신분: 관리(규장원경〈奎章院卿〉)
- 유배 연월: 1897년(고종 34) 12월 20일.
- 사망 연월: 1900년(고종 37) 8월.
- 사유: 정치 변동(명성황후 시해 연루)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3090) 1897년(고종 34) 11월 27일.

○ 詔曰, 乙未逆變, 尙切神人之憤, 而渠以世祿之裔, 既有難撝之跡, 懲討截嚴, 輿論愈沸, 至今寬貸, 失刑大矣. 金允植·李允五[李承五], 竝姑先濟州牧流終身定配.

2) 『고종실록』(권 36) 1897년(고종 34) 12월 20일.

○ 詔曰: “乙未逆變, 尙切神人之憤. 而渠以世祿之裔, 既有難撝之跡, 懲討截嚴. 輿論愈沸, 至今寬貸, 失刑大矣. 金允植, 李承五, 竝姑先濟州牧流終身定配.”

3) 『승정원일기』(책 3165) 1903년(고종 40) 11월 4일.

○ 宮內府特進官尹容善筭曰, 伏以臣, 癯病奄奄之中, 得伏見政府奏本下者, 則逆賊範善, 被刺海外. 噫嘻, 此賊逃命許久, 誅不能以法, 臣於是竊不勝痛憤之愈激, 而心膽之愈掉矣. 繼伏見政府聯筭, 卽允植·承五夫施極律事也, 凶彼允植, 乙未諸賊之一也, 著僞勅而頒布中外, 構凶辭而移照各館, 且巧飾罔測, 求媚於外人, 究厥逆腸, 反有甚於諸賊矣. 至於承五, 則以至凶絕悖之辭, 製告廟之文, 與彼逆黨, 爛熳同歸, 渠輩平日受國厚恩, 顧何如, 而乃忍爲此乎? 凡今圓顱方趾之倫, 誓不欲共戴一天, 而承五則竟使自斃. 允植則又使假息於域中, 拖至今日, 王法莫伸, 天理蔑矣. 人理戮矣. 亂賊將何所懼, 而刑章將何所施乎? 輿情愈久愈甚, 有此政府聲討之更發, 而陛下又斬允俞, 臣未敢知陛下, 於此二賊, 其欲終始寬貸之者, 果何意也? 莫撓者先王之常憲也, 莫遏者學國之公論也, 雖以我陛下至仁大德, 何得以施之, 亦何得以遏之哉? 茲敢疾聲仰籲. 伏乞陛下, 廓揮乾斷, 允政府之請, 夫雪神人之憤焉取進止. 批, 省筭具悉卿懇. 公共之憤, 峻發之論, 可見大同之情,

卿亦宜有是言，而朕豈不諒之事？遣祕書郎傳諭。

4) 『고종실록』(권 48) 1907년(고종 44) 7월 16일.

○ 內閣總理大臣李完用，法部大臣趙重應奏：“流終身罪人李承五를 往在光武二年一月 頃에 前濟州牧으로 流配하얏삽너니 至庚子八月하야 身故而名載罪案이온바 際茲百度一新之會하야 其在導迎祥和之地에 不可無斟量者存焉이오니 該罪名은 原案에 玆周하고 其官爵은 仍前還授하옵미 恐合事宜이옵기 閣議를 經흔 後冀蒙特赦. 伏候聖裁.” 允之.

276. 김윤식(金允植)

- 신분: 관리(외부대신)
- 유배 연월: 1897년(고종 34) 12월 20일.
- 이배 연월: 1901년(고종 38) 6월 7일(지도<智島>).
- 사유: 정치 변동(명성황후 시해 연루)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3090) 1897년(고종 34) 11월 27일.

○ 詔曰, 乙未逆變, 尙切神人之憤, 而渠以世祿之裔, 既有難揜之跡, 懲討截嚴, 輿論愈沸, 至今寬貸, 失刑大矣. 金允植·李允五[李承五], 竝姑先濟州牧流終身定配.

2) 『고종실록』(권 36) 1897년(고종 34) 12월 20일.

○ 詔曰: “乙未逆變, 尙切神人之憤, 而渠以世祿之裔, 既有難揜之跡, 懲討截嚴. 輿論愈沸, 至今寬貸, 失刑大矣. 金允植, 李承五, 竝姑先濟州牧流終身定配.”

3) 『속음청사』(권 8) 1897년(고종 34) 12월 21일.

○ 金允植, 李承五의 濟州 流配

今日有詔勅曰, 乙未之變, 尙切神人之憤, 渠以世祿之裔, 既有難掩之跡, 懲討截嚴, 輿論甚沸, 至今寬貸, 失刑大矣, 金允植李承五, 并姑先濟州牧流, 終身定配.惶恐感激, 不知所裁.

4) 『고종실록』(권 41) 1901년(고종 38) 6월 7일.

○ 法部大臣署理李載崑奏: “欽奉詔勅, 濟州牧所在流終身罪人金允植, 移配于智島郡 智島; 流終身罪人鄭丙朝, 移配于蝟島; 流十年罪人金思燦, 移配于荏子島; 流終身罪人徐周輔, 移配于突山郡 呂島; 流終身罪人李台璜, 移配于蝟島; 流終身罪人金經夏, 移配于鹿島; 流十年罪人李範疇, 移配于莞島郡 薪智島; 流十年罪人韓善會, 移配于楸子島; 流七年罪人李容鎬, 移配于薪智島; 流終身罪人崔亨順, 流七年罪人張允善, 竝移配于珍島郡 金甲島.” 允之.

277. 이일직(李逸植)〈이세직(李世植)〉

- 신분: 관리(법부 형사국장)
- 1차 유배 연월: 1898년(고종 35) 1월 7일~1898년(고종 35) 7월 14일(추자도 이배).
- 2차 유배 연월: 1905년(고종 42) 10월 22일~1907년(순종 즉위) 11월 28일(해배).
- 사유: 범죄(공급 횡령/국정 혼란)
- 관련 사료

1) 『고종실록』(권 37) 1898년(고종 35) 1월 7일.

○ 法部大臣臨時署理外部大臣趙秉式奏: “高等裁判所審理罪人李世植, 稱以韓善會等獄事在逃人捕拿, 乾沒公貨二千元, 上前入對時, 以若不差警務使之任於洪鍾宇, 則將至禍變甚於乙未八月云云之危言妄事, 恐動至尊, 其情節明白. 照用計欺官私取財律及亂言於上者律, 從一科斷, 處流終身“之意, 上奏. 允之.

2) 『승정원일기』(책 3099) 1898년(고종 35) 7월 14일.

○ 詔曰, 濟州郡流終身罪人李世植, 移配于楸子島.

3) 『승정원일기』(책 3184) 1905년(고종 42) 6월 15일.

○ 議政府參政大臣沈相薰, 外部大臣李夏榮謹奏, 曩者所頒韓日協定書, 寔由兩國所以締盟敦好之至意也. 兩政府, 惟當貫徹期[斯]旨, 切實履行, 苟有遠[違]反約疑[款], 理應均屬無效. 第伏聞近者金漢宗·李世植等, 罔念國體, 潛通外人, 私自締約, 致損邦交, 究厥罪狀, 亮非細故. 所締約稿, 不惟有遠[違]約旨, 且未經政府議准, 合認無效, 不須多辦. 該犯等, 亟令司法, 嚴行懲辦. 嗣後遇有讓與特權于外國人者, 勿問宮中府中, 遵照協約趣旨, 畢具方式, 乃能有效之意, 頒示中外, 恐合妥當, 謹上奏. 奉旨依奏. 韓日協定一書, 足以表彰兩國敦密之情好, 合應互相遵守, 永遠無替, 現有不逞之徒, 罔念兩政府至意, 夤緣售奸, 紊亂國交, 聽聞所暨, 良庸慨歎. 其著司法, 施以常憲, 而折奸萌, 惟爾大小臣黎, 體朕至意, 無或謬戾.

4) 『고종실록』(권 46) 1905년(고종 42) 10월 22일.

○ 法部大臣李夏榮奏：“接准平理院裁判長李漢英質稟書，內開：‘被告李世植案件審理，則被告以濟州島流終身罪人，逃躲入京，’與日本人狎川芳義，松本茂平，巖本善治，毛利部寅壽等，關於全國財產，締結二十三件條約，奉侍金漢宗，司謁劉命均，亦爲參知。其事實證，被告陳供明白。渠雖曰確非私自締約，初無政府認准，未免爲壞損國權。纔有膽草之受授，未及調印交換，事屬未遂。被告李世植，照《刑法大全》第二百條五項各國約章內所許地段外，將官有私有，一應田土，森林，川澤，家屋附從外國人借名私認者律，同第三百十七條未遂犯死刑罪減一等文，同第三百三十三條刑期間又犯罪時所犯相等科答一百，仍就本刑文，科答一百處流終身’云矣。該犯李世植，依原擬律處辦何如？”允之。又以“還發配于莞島郡 楸子島，上奏。”

5) 『고종실록』(권 47) 1906년(고종 43) 8월 24일.

○ 法部大臣李夏榮奏：“濟州牧流配罪人李世植案件，議政府參贊李商在，平理院判事太明軾，前侍從尹甲炳，行將拿致，而曾經勅任官，故依《刑法大全》第八條，上奏。”允之。

6) 『고종실록』(권 47) 1906년(고종 43) 10월 27일.

○ 法部大臣李夏榮奏：接準平理院裁判長李允用報告書，內開：“被告李世植，尹甲炳，柳冀亮，李裕寅，宋秉峻案件審理，則被告李世植，以濟州島流終身罪人發配，而淹留不發，潛往李裕寅家，邀見四署警務官柳冀亮，與之談話，遂隱身於宋秉峻家，教誘尹甲炳，妄奏天陛。被告尹甲炳，受李世植教誘，以李世植若蒙特赦，白日憲隊，必不更爲干涉等說，妄奏天陛。被告柳冀亮，受四署補佐員桐原彦吉探示李世植發程與否之託，而被邀於李裕寅家，會見李世植，終始掩過。被告宋秉峻，留接世植於渠家，而受警務顧問丸山重俊，探示世植所在處之託，而終始掩過之事實，據被告等陳供明白。被告李裕寅，又被訴於他事，方在審查，姑不可擬律。被告李世植，照《刑法大全》百二十七條，‘教誘人犯法者，與犯人同罪律’，當處懲役三年，而又照百三十三條，‘刑期間犯罪之律’，輕於本律者，科答一百，仍就本刑文，處答一百，流終身還發配所。被告尹甲炳，照三百四十六條，‘奏事詐不以實律’，酌減二等，處懲役二年。被告柳冀亮，照同三百六條，‘罪人所在處知而不捕者律’，酌減二等，處懲役一年半。被告宋秉峻，照六百七十八條，‘不應爲事理重者律’，處答八十“云矣。

竝原擬律處辦何如? 制曰: “依奏. 懲役換以流配.”

7) 『순종실록』(권 1) 1907년(순종 즉위) 11월 28일.

○ 內閣總理大臣李完用, 法部大臣趙重應奏: “欽奉本月十八日特赦詔勅, 各島流配罪人 徐周輔, 鄭萬朝, 鄭丙朝, 金經夏, 李台璜, 李世植, 其外八十九人, 平理院及各裁判所已決罪囚劉相德等二百八十九人放釋案, 經閣議, 開錄上奏.” 制曰: “可.”

278. 박영효(朴泳孝)

- 신분: 관리(궁내부대신)
- 유배 연월: 1907년(순종 즉위) 8월 22일.
- 해배 연월: 1909년 12월 8일(자의 제주 체류 중).
- 사유: 근무 불성실(순종 즉위 불참)
- 관련 사료

1) 『순종실록』(권 1) 1907년(순종 즉위) 8월 22일.

○ 法部大臣趙重應奏: “接准平理院裁判長趙民熙報告書, 則‘被告朴泳孝’, 李道宰, 南廷哲案件審理, 被告等, 皆以宮府重任, 皇太子代理陳賀行禮時, 不爲入參, 或稱病或未聞通知等說爲供. 莫重典禮, 偃然規避, 難免當勘. 被告等竝照《刑法大全》第二百二十六條, 官吏承差나 在任時에 臨事託故호거나 稱病圖避호는 者 重事律, 各處笞八十’云矣. 依該院原擬律處辦何如?” 允之.

2) 『통감부문서』(권 4), 5. 전수(電受)〈128〉

○ 往電

明治四十年八月二十七日 午後〇時五〇分 京城發

明治四十年八月二十七日 午後七時五五分 東京着

丸山 警視總監

國分 祕書官

朴泳孝ハ裁判宣告ノ後一旦家ニ歸リタルモ治安妨害ノ虞アルヲ以テ再ヒ本人ヲ警視廳ニ拘束シ治安法第五條ニ依リ 濟州島以外ニ住居スルコトヲ禁シタリ不日同島ヘ押收ノ筈

3) 『주한일본공사관기록』(권 26), 11. 잡찬(雜纂)〈16〉

○ 來電

明治四〇年八月三十一日 午前一〇時五〇分 京城 發

明治四〇年八月三十一日 午後 九時一九分 大磯 着

丸山 警視總監

古谷 祕書官

朴泳孝ハ仁川滯在中ノ處來ル四日ノ汽船便ニテ濟州島ニ押送ノ筈又今回ノ處分ニ
對シ同人ハ少シモ不服ヲ唱ヘス寧口暫ク身ヲ同島ニ避ケ靜養シタシト語レリ

4) 『통감부문서』(권 4), 5. 전수(電受)<140>

○ 往電

明治四十年八月三十一日 午前一〇時五〇分 京城發

明治四十年八月三十一日 午後九時一九分 大磯着

丸山 警視

古谷 祕書官

朴泳孝ハ仁川滯在中ノ處來ル四日ノ汽船便ニテ濟州島ニ押送ノ筈又今回ノ處分ニ
對シ同人ハ少シモ不服ヲ稱ヘス寧口暫ク身ヲ同島ニ避ケ靜養シタシト語レリ

5) 『통감부문서』(권 5), 13. 전송합철(電送合綴)<75>

○ 往電 第四四〇號

明治四十一年七月二十一日 午前一〇時 發

曾禰 副統監

伊藤 統監.

第八號 朴泳孝ニ一ケ年間同一命令ヲ發スルノ件ヲ熟考スルニ京城ニ歸還セシム
ルノ不得策ナルハ御同感ナリ然レトモ本人在島中ノ行動ニ就キ未タ一回モ注意ヲ
與ヘタルコトナキ趣ナレハ今日單ニ彼ノ歸還後ノ行動ヲ推測シテ危險ヲ事前ニ
防カンカ爲引續キ一ケ年間同一ノ命令ヲ發スルハ法律適用上穩當ナラス且列國環
視ノ中ニ在テ韓國ノ上下ニ蒞マル、ノ德澤ヲ損スルノ恐レアリ就テハ本人ヲ說
諭シテ滿期後直ニ日本ニ赴度トノ願出ヲ爲サシメ彼ヲ日本ニ在留セシメタシ然
スルトキハ一面ハ韓國ノ危害ヲ豫防シ一面ハ外國ノ手前モ好都合カト考フ若シ本
人ニ於テ此盛意ヲ無視シ京城ニ歸來スルノ様子判然スル時ハ豫テ御決意ノ處分ヲ

斷行致シ些モ差支無之儀ナレハ如此手數ヲ執リテハ如何哉至急返電ヲ乞フ

6) 『통감부문서』(권 4), 2. 잡철(雜綴)<10>

○ 往電第三四號

明治四十一年八月六日 午後〇時五五分 發

曾禰 副統監

伊藤 統監

朴泳孝ノ件ニ付貴電第三號ノ次第モアリタル處今回本人ヨリ 滿期後六ヶ月間ハ引續キ濟洲島ニ滞在スル旨申來レリ 右報告ス

7) 『통감부문서』(권 5), 13. 전송합철(電送合綴)<75>

○ 往電第四九四號

明治四十一年八月六日 午後〇時五五分 發

曾禰 副統監

伊藤 統監

第三四號 朴泳孝ノ件ニ付貴電第三號ノ次第モアリタル處今回本人ヨリ 滿期後六ヶ月間ハ引續キ濟州島ニ滞在スル旨申來レリ 右報告ス

8) 『통감부문서』(권 10), 9. 헌병대기밀문서1(憲兵隊機密文書一)<90>

○ 憲機第二一二號

在濟州島朴泳孝ニ就テ全羅南道光州分遣所長內報中ニ左ノ一節アリ

一. 光州郡不動坊面新基村ニ住メル富豪家林士範ハ左ノ如ク語レリ

林士範(前職名承旨)ハ郡內屈指ノ富豪家ニシテ朴泳孝ノ妾弄仙ノ父ナル朴良三(和順居住)トハ親族ノ間柄ニテ時々互ニ往來シ居リ左ニ記スルハ朴良三ヨリ聞キシ話ナリト

尙朴良三モ相當財産ヲ有シ居ル由

朴泳孝ニ對シ總理大臣タラシメン故上京スヘシト過日京城某ヨリ御來リシモ 朴泳孝ハ農事經營ノ目的アル爲メ是ク辭退シタリト尙妾弄仙ノ所有タル田地ヲ賣却シ

其代金送附方依頼シ來リシニ付過日送金セシト

以上

明治四十二年一月三十一日

9) 『통감부문서』(권 6), 1. 헌병대기밀보고(憲兵隊機密報告)<833>

○ 憲機第二三七二號

十二月三日附羅州分遣所長ヨリ左ノ報告アリ

一. 十一月二十七日京城明治町鐘峴ニ在ル佛國天主教會堂ヨリ修女(修女トハ一生涯嫁セス布教ニ從事ス) 木浦ニ至リ同月三十日濟州島へ渡リタリト

二. 其目的ハ同島居住ノ朴泳孝力多額ノ金錢ヲ同地佛國教會堂ニ寄進セシヲ以テ其金ヲ資トシ同島ニ於テ數多ノ修女ヲ養成スル爲メ特ニ京城ヨリ派遣セリト

以上

明治四十二年十二月八日

10) 『순종실록부록』(권 1) 1910년(순종 3) 10월 7일.

○ 李載完, 李載覺, 李海昌, 李海昇, 尹澤榮, 朴泳孝, 依朝鮮貴族令, 侯爵被授. 李址鎔, 閔泳璘, 李完用, 伯爵被授.

279. 이승훈(李昇薰)

- 신분: 개신교 교육가(독립운동가)
- 유배 연월: 1911년 7월 23일.
- 나래 연월: 1911년 10월(105인 사건).
- 사유: 안악(安岳) 사건(1910년 11월 안명근(安明根) 무관학교 설립자금모집, 황해도 신천)
- 관련 사료

1) 『매일신보(每日申報)』 1911년 7월 23일.

○ 京城地方裁判所에서 安明根 등 18名에 관한 強盜 및 同未遂被告事件과 梁起鐸 등 16名에 관한 保安法違反被告事件에 대한 판결이 있어 朱鎮洙, 梁起鐸, 安泰國, 林蚩正, 高貞華, 金道熙는 各 懲役 2년 玉觀彬, 甘翊龍, 安允在, 金容奎는 各 懲役 1년半 柳文馨, 權泰善은 各 懲役 1년 金容參, 金成柱, 金熙祿, 鄭達河는 各 懲役 6월 [以上 梁起鐸 關聯事件] 安明根은 無期懲役 朴晚俊, 裴敬鎭, 李承吉, 金龜, 韓亨稷, 金鴻亮, 元行燮은 各 懲役 15년 都寅權, 楊星鎭은 各 懲役 10년 崔益馨, 崔明植, 金益淵, 張倫根, 高奉守, 朴亨秉, 韓禎教, 金庸濟는 各 懲役 7년이 선고되었는데 본 사건은 지난 3월에 警務總監部에서 취급된 것으로 관련자 70여명 중 34명만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던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 하여 李東暉 등 17명은 19일부터 遠島安置 처분을 당했는데 그 주요인물은 李東暉(京畿道 大舞衣島), 高敬俊(忠南 於靑島), 崔衡穆(忠南 於靑島), 張明善(全南 智島), 崔重鎬(全南 珍島), 李昇薰(全南 濟州島), 鄭澤鉉(全南 濟州島), 申教範(全南 濟州島), 張應善(全南 莞島), 許鍾(全南 古今島), 金聖淑(全南 古今島), 金益聲(全南 巨文島), 高一清(全南 巨文島), 金秉玉(全南 羅老島), 李相晋(慶南 愍智島), 朴道平(慶南 鬱陵島), 鄭文源(慶南 鬱陵島), 崔時俊(慶南 鬱陵島)이다.

「起訴事實」梁起鐸은 수년 전부터 舊韓國의 國情을 慨嘆하며 韓國에서 日本의 세력을 배제하고 舊韓國의 國權을 회복코자 하되 안으로는 新聞紙에 의하여 國民을 각성하고 밖으로는 西間島 이주의 韓國인을 개발 양성하여 舊 國權회복을 도모하고자 할

새 당시에 주재하던 大韓每日申報 紙上에 그 계획 및 사상을 누누히 발표하였는데 隆熙 4년 5월에 同 新聞은 매각되고 그 다음에 한일합병이 되므로 인하여 同地 이주 사업에 전력을 하되 다수한 한국인을 同地로 이주케 하고 다시 유능한 청년을 모집하여 西間島로 送하여 써 교육을 베풀고 문명에 進케 한 후 武官學校를 설립하고 사기를 진흥하였다. 기회를 보아 舊韓國의 독립을 계획하기로 梁起鐸과 일심 동체라 칭하는 林蚩正과 日夕에 상호 왕래하여 素志 遂行의 모의를 정하고 그 후에 同志 李東寧, 金龜, 金道熙, 安泰國, 朱鎭洙 등과 회합하여 西間島 이주의 모의를 하고 金龜는 黃海道를 安泰國는 平安道를 朱鎭洙는 江原道를 梁起鐸 및 林蚩正은 京畿 기타를 담임하여 이주자를 권유 모집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던 중에 발각된 것이다.

280. 신교범(申敎範)

- 신분: 독립운동가
- 유배 연월: 1911년 7월 23일.
- 나래 연월: 미상
- 사유: 안악(安岳) 사건(1910년 11월 안명근(安明根) 무관학교 설립자금모집, 황해도 신천)
- 관련 사료

1) 『매일신보(每日申報)』 1911년 7월 23일.

○ 京城地方裁判所에서 安明根 등 18名에 관한 強盜 및 同未遂被告事件과 梁起鐸 등 16名에 관한 保安法違反被告事件에 대한 판결이 있어 朱鎭洙, 梁起鐸, 安泰國, 林蚩正, 高貞華, 金道熙는 各 懲役 2년 玉觀彬, 甘翊龍, 安允在, 金容奎는 各 懲役 1年半 柳文馨, 權泰善은 各 懲役 1년 金容參, 金成柱, 金熙祿, 鄭達河는 各 懲役 6월 [以上 梁起鐸 關聯事件] 安明根은 無期懲役 朴晚俊, 裴敬鎭, 李承吉, 金龜, 韓亨稷, 金鴻亮, 元行燮은 各 懲役 15년 都寅權, 楊星鎭은 各 懲役 10년 崔益馨, 崔明植, 金益淵, 張倫根, 高奉守, 朴亨秉, 韓禎教, 金庸濟는 各 懲役 7년이 선고되었는데 본 사건은 지난 3월에 警務總監部에서 취급된 것으로 관련자 70여명 중 34명만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던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 하여 李東暉 등 17명은 19일부터 遠島安置 처분을 당했는데 그 주요인물은 李東暉(京畿道 大舞衣島), 高敬俊(忠南 於靑島), 崔衡穆(忠南 於靑島), 張明善(全南 智島), 崔重鎬(全南 珍島), 李昇薰(全南 濟州島), 鄭澤鉉(全南 濟州島), 申敎範(全南 濟州島), 張應善(全南 莞島), 許鍾(全南 古今島), 金聖淑(全南 古今島), 金益聲(全南 巨文島), 高一清(全南 巨文島), 金秉玉(全南 羅老島), 李相晋(慶南 愍智島), 朴道平(慶南 鬱陵島), 鄭文源(慶南 鬱陵島), 崔時俊(慶南 鬱陵島)이다.

「起訴事實」梁起鐸은 수년 전부터 舊韓國의 國情을 慨嘆하며 韓國에서 日本의 세력을 배제하고 舊韓國의 國權을 회복코자 하되 안으로는 新聞紙에 의하여 國民을 각성하고 밖으로는 西間島 이주의 韓國인을 개발 양성하여 舊 國權회복을 도모하고자 할

새 당시에 주재하던 大韓每日申報 紙上에 그 계획 및 사상을 누누히 발표하였는데 隆熙 4년 5월에 同 新聞은 매각되고 그 다음에 한일합병이 되므로 인하여 同地 이주 사업에 전력을 하되 다수한 한국인을 同地로 이주케 하고 다시 유능한 청년을 모집하여 西間島로 送하여 써 교육을 베풀고 문명에 進게 한 후 武官學校를 설립하고 사기를 진흥하였다. 기회를 보아 舊韓國의 독립을 계획하기로 梁起鐸과 일심 동체라 칭하는 林蚩正과 日夕에 상호 왕래하여 素志 遂行의 모의를 정하고 그 후에 同志 李東寧, 金龜, 金道熙, 安泰國, 朱鎭洙 등과 회합하여 西間島 이주의 모의를 하고 金龜는 黃海道를 安泰國은 平安道를 朱鎭洙는 江原道를 梁起鐸 및 林蚩正은 京畿 기타를 담임하여 이주자를 권유 모집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던 중에 발각된 것이다.

제2장 정의현

1. 한천(韓臧)

- 신분: 관리(예문관 대제학)
- 유배 연월: 1392년(태조 1) 7월 1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정권 변동(조선 건국 반대)
- 관련 사료

1) 『고려사』(권 46) 1392년(공양왕 4) 7월 12일.

○ 斬丹陽君禹成範，晉原君姜淮季于會賓門外，我太祖聞之，大怒止之，不及。流贊成事成石璘，政堂文學李元紘，菁城君姜蓍，藝文館大提學韓臧，密直提學成石琿。

2) 『태조실록』(권 4) 1393년(태조 2) 7월 29일.

○ 敎曰：“前判三司事姜仁裕，前判開城府事韓臧等七十一人，自辛氏竊位，亂極思治之際，而安危皆注意於予，諡德宣譽，馴致今日，功亦不細矣。檢校密直副使柳方澤，盧乙俊等十一人，方卽位之時，俱在日官，心不疑貳，謹卜天時，勸登大位，其功亦可尙也。其褒賞之典，有司舉行。”

3) 『정종실록』(권 4) 1400년(정종 2) 6월 1일.

○ 非功臣而封君者皆罷. 以權仲和爲判門下府事致仕, 李居仁, 權禧, 韓葢, 崔永沚, 慶補 皆爲判三司事致仕.

4) 『태종실록』(권 5) 1403년(태종 3) 5월 21일.

○ 放清城君 鄭擢于海豐. 初, 擢奪內侍別監盧績奴婢, 績擊申聞鼓. 上使司憲府治之, 憲府直績, 請罪擢. 上謂朴錫命曰: “擢, 開國功臣, 且於經筵侍講, 功可掩罪. 然法亦不可廢也, 如有農庄在都門外者, 放之.” 錫命對曰: “海豐有農舍, 去都城三十里.” 上曰: “甚可.” 司憲府上疏曰: 清城君 鄭擢, 再爲功臣, 致位宰輔, 其祿秩之豐, 土田臧獲之多, 無與比者. 卒檢校侍中韓葢, 巨富而無嗣, 擢在諸姪之中, 不顧兄弟之序, 惟以威力, 奪占其田庄財物, 恬不爲愧, 猶以爲不足, 乃以微劣人盧績之奴婢, 接續韓葢之賤案, 恃力擅奪. 其陰譎貪冒之罪, 不可不懲, 故臣等前日啓聞請罪, 殿下以功臣之故, 止置農庄, 豈有懲艾之心哉? 殿下不忍繩之以法, 則許令奪其職牒, 置之邊鄙, 以待自艾, 以警其他. 不報.

5) 최익현, 「서재한천유허비」, 1879년(고종 16) 8월.

○ 毛羅之旌義縣加時里 有古恕齋韓公 諱葢 遺墟 漢拏脊脈 連延起伏 東走六十餘里 至此而平岡長阜 環合分開 地勢平正 瀛洲 甲蟬 兔撻 鳥鷹 諸峯羅列四衛 眺望佳勝 儘靈境也 今距 公五百餘年 其寢廓 廚廡 書齋 點堂 諸位置 牧老耕叟 尙歷歷指點 記傳不忘 如召茭鄭鄉焉 苟非公 德入人深 功及人遠者 能如是乎 謹按韓氏 清州著族 有諱蘭 佐高麗太祖開國 官至太尉 (諡)威襄 寔爲公十世祖 匡靖大夫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判典理事世子師致仕 諡文惠 諱康 僉議府左司議大夫寶文閣提學知制誥 諱謝奇 宣力佐理功臣上黨府院君 賜鐵券 諡思肅 諱渥 推忠協贊功臣匡靖大夫知都僉議司事 諱大淳 公府君也 天安全氏 同知密直進賢館大提學 諱信 公外祖也 公生于麗季 以學行節義 國在掌敷文教 國亡扶植彝倫 民至于今受其賜 麗史所載 恭愍王二十年辛亥二月 以韓葢 爲慶尙道都巡問使 恭讓王三年辛未 判開城府事 四年壬申七月 王遜于原州 斬丹陽君 禹成範 晉原君 姜淮季 大提學 韓葢于濟州者 此實錄也 足徵百世矣 公配光山金氏 匡靖大夫政堂文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 章榮公 諱楨女 生二子 長曰沫 次曰濟 金氏舊譜 既載公與二子 濟州官籍 又可考公子姓 而獨於韓氏內地全譜 以無後懸錄 何故歟 當時事情 概可想已

國破君亡 公幸不死 減律南流 則遠海僻山 於公 可謂爰得我所 欲晦響減影 與世無聞 海既遠而猶恨未遠 山既僻而猶恨未僻 爲公子姓者 豈不知乃父祖心事也 以心傳心歷數世 未暇問聞於內地修譜 而內地修譜諸公 亦以水陸數千里外 聲息阻絕 遂謂無後也 然金譜官籍 不泯有據 此亦神理妙處 嗣後有修 當採而正之 豈以公德深功遠 而其後不昌大也 螽斯椒聊繩繩蕃衍 其麗數千 殆遍一洲 或闡科宦 或著孝友 多才藝 多文學 有未艾氣數報施之 天果不惑哉 又聞公居於是也 以教育後進爲己任 後進之勤慢能否 必點考焉 所謂書齋點堂 是其址也 嗚呼 罔爲臣僕 箕聖東來 八條教民 而夷變爲夏 恥事二姓 公又南渡 立約教士 而島漸興學 德雖有深淺 功雖有廣狹 而氣脈相傳 歷數千載 而一揆 不亦奇乎 益鉉適過是墟 竊有曠感於心者 書此以遺韓氏 俾豎碑以記之

崇禎后五己卯仲秋 月城 崔益鉉 謹書.

2-4. 한구질금(韓仇叱金), 한괴록(韓怪祿), 한괴중(韓怪中)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
- 해배 연월: 1474년(성종 5) 4월 17일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성종실록』(권 41) 1474년(성종 5) 4월 17일.

○ 傳旨刑曹: “放典獄廳直定役李仁春, 律學廳直定役孟有才·韓內隱山·朴得金·朴乙生·崔豆乙萬·金自新·金今同·仁萬·姜自山·宋云山·趙巨乙吾未·金今音勿·全未同·全珍·李元吉·張赤攀烟·金守山·孔哲山·金義·孔石伊·朱山·李莫同, 藥房徒年定役金貴全, 刑曹皂隸定役韓承重, 驪州充軍洪今生, 月串充軍李仲山, 井浦充軍北間·白山·金敬, 坡州徒年定役李叔武·李次仲, 漣川徒年定役任址, 坡州充軍崔山, 海州永屬僧學空, 鳳山充軍姜牛叱·同徒年定役宋自貞·付處田吉甫, 瓮津充軍李祐, 信川充軍金尙勇·羅叔明, 吾叉浦充軍金南守·徐孟孫·金致和·金誌, 遂安充軍韓孝順, 長湍徒年定役張末生, 龍媒梁充軍李同·李末同, 許沙浦充軍金孝榮·金孝元, 瑞興充軍崔植, 廣巖梁充軍金孝民·金上佐, 黃州充軍李永山, 海州充軍崔莫同·金尙, 江陵烽火干定役安好之, 昌城流金仲珍, 渭源充軍田萬·官奴定屬李春今·定役李守知, 肅川定役朴山, 中和定屬金巨勿·宋石柱, 龍川定役婢召史, 義州定役金嚴同·金莫同·黃有丁·李卯同·定屬石山, 熙川流朴波迴, 龍崗定役吳敏正·僧義公, 龜城充軍方玉仇知, 寧邊充軍金義文·李自義·得夫·權永通·金丁·全以善·付處李念佛, 江界流小莫同, 鐵山充軍崔仲文, 蔚山充軍朴元進, 唐津充軍鄭仁和, 昆陽充軍僧學官, 寧海充軍文玉同·朴永山·李善同·郭石同·李壽生, 咸昌定役行眞僧戒守, 長鬐充軍姜處賓, 泗川充軍金自溫, 丑山浦充軍朴潤德, 固城流今音同, 珍島流琴永, 泰仁充軍姜自延, 突山浦充軍白宗, 扶安永屬良女繼石, 珍島永屬今音同, 萬頃永屬婢永非, 黔毛浦充軍崔閏正, 羣山浦充軍金同叱三, 旌義定役韓仇叱金·韓怪祿·韓怪中, 康津流金鼎鉉, 永興定役嚴守明, 穩城定役朴春生·韓永實·姜乙巳·朴德金·申自平·崔田己·朴元忠.”

5. 홍유손(洪裕孫)

- 신분: 유생(貢生(貢生))
- 유배 연월: 1498년(연산군 4) 9월 16일.
- 해배 연월: 1507년(중종 2) 1월(「존자암개구유인문」 작성).
- 사유: 소요(죽림칠현 표방)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31) 1498년(연산군 4) 8월 10일.

○ 尹弼商啓: “柳子光云: ‘外方生員, 進士, 自稱司馬所.’ “子光遽曰: “吾當啓之.” 遂啓曰: “南原, 咸陽皆臣本貫, 故臣親見之. 生員, 進士別立一所, 名曰: ‘司馬.’ 私相聚集, 群飲橫議. 於人吏少有不愜, 輒鞭撻. 留鄉品官多是老劣, 故一邑人吏, 蔑視留鄉所, 反附司馬所, 其弊不貲. 爲守令者, 非徒不能禁之, 反給奴婢, 以典其所殖穀貨. 國家所設留鄉之外, 又有此輩私立一所, 甚不可.” 弼商啓: “七國之處士, 東漢之黨人, 趙宋洛, 蜀黨, 近日金宗直姦黨, 皆成於群聚橫議, 如此之風, 所宜痛革. 請下書八道監司, 凡所謂司馬所, 一切革罷.” 子光謂弼商曰: “洪裕孫事, 亦可啓也.” 弼商啓: “南陽府有貢生洪裕孫者, 能詩文, 然行己甚怪. 與年少六, 七輩爲黨, 自稱某也程, 某也朱, 時會江上人家, 着逍遙巾, 相與群飲誹謗. 嘗赴試, 不肯製述, 終日沈酣, 或書戲語而出. 此輩久在都下, 必誣誤後生, 請尋捕, 屏諸遐方.” 傳曰: “外間如此事, 予何得聞? 卿等此啓, 予甚嘉之.” 遂命義禁府尋捕裕孫.

2) 『연산군일기』(권 31) 1498년(연산군 4) 9월 16일.

○ 王見洪裕孫推案問曰 只罪裕孫, 其黨則勿論何如 政院啓上教允當. 李克均慎守勤啓 禹善言趙自知韓景琦皆裕孫之黨, 傲世非俗, 而善言最猾者也, 不可全釋. 傳曰 裕孫善言 屏諸遐方, 其餘黨, 竝放遣. 克均等更啓 裕孫奸猾之徒, 若屏諸北道, 則必投野人, 請流濟州爲奴. 善言甲山爲奴. 且明陽正秀川正, 皆以裕孫之徒, 待裕孫如父兄, 竝鞠之. 傳曰可.

3) 『소충유고』(상), 「존자암개구유인문」

○ (在 濟州) 正德單闕孟春人日, 識.

6. 김덕룡(金德龍)

- 신분: 미상(황당인〈荒唐人〉)
- 유배 연월: 1614년(광해군 6) 11월 26일.
- 사망 연월: 1615년(광해군 7) 9월 5일.
- 사유: 범죄(흉언)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76) 1614년(광해군 6) 3월 2일.

○ 以慶尙監司狀啓 “荒唐人金德龍, 星州捕捉”事, 傳曰: “都事, 宣傳官, 發遣拿來.”

2) 『광해군일기』(권 77) 1614년(광해군 6) 4월 4일.

○ 推鞠廳啓曰: “全羅監司狀啓, 王齒國辭緣書狀, 啓下矣. 金德龍所納諺書內第一行書 ‘王齒國爲之者, 長帥也.’ 其下列書人名, 長字則以眞字書, 帥字則以諺文書, 此則將帥之誤書也. 以此當初錯認 ‘王齒國’ 爲人名, 而稱將帥者, 故抄啓於逮捕之列. 去二十七日, 金德龍盤問時供稱: ‘我以非兩班年老之人, 豈爲逆賊王治國乎?’ 云. 臣等初不解聽, 詳細問之, 王治國三字, 似指爲王而治國, 非人名也. 蓋齒與治, 鄉音之混稱. 其都目中, 書人名處, 亦有以治爲齒者, 音韻之致訛, 明矣. 誤以爲人名, 尋捕於虛無, 只以王姓之故, 王春景爲名者, 七十之年, 至於囚繫, 極爲未安, 分揀放釋, 今後 ‘王齒國’ 更勿尋捕事, 下諭似當. 敢稟.” 從之.

3) 『광해군일기』(권 84) 1614년(광해군 6) 11월 26일.

○ 禁府啓 金德龍旌義, 彦春大靜安置. 判義禁朴承宗筭子 誣告賊彦春, 絕島安置未安, 請辭職. 答曰勿辭. 彦春事, 當與大臣議處.

4) 『광해군일기』(권 93) 1615년(광해군 7) 8월 9일.

○ 合啓五賊中, 金德龍, 金彦春停啓, 定配濟州.

5) 『광해군일기』(권 95) 1615년(광해군 7) 9월 5일.

○ 濟州安置罪人德龍 死於中路.

7. 원종(元宗)

- 신분: 관리(사과<司果>)
- 유배 연월: 1620년(광해군 12) 7월 15일.
- 사망 연월: 1623년(인조 1) 5월 4일.
- 사유: 옥사 연루(허균)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131) 1618년(광해군 10) 8월 22일.

○ 鞫 元宗. 宗 供: “臣與賊筠自少相知, 不爲不切. 前年七月, 適往見筠, 則筠 語曰: ‘禍根不可不去, 而人無明大義, 討君讎, 汝亦可與爲乎?’ 臣聞言義之, 教異姓六寸弟尹唯謙, 上章請討. 自是之後, 臣頻頻往來, 議定疏意, 勸起館學, 以恢正論, 如斯而已. 及聞筠被逮, 必以爲與奇, 對辨之事也. 入隣家, 望見其入鞫門而去, 下獄之後, 只見筠一家之人. 打獄門, 奪賊筠, 豈臣子所可言乎? 幽暗之中, 猶不敢言, 況大言於衆中乎? 若使臣身死於大論, 則死無所憾, 拈出不軌之言, 加之於身, 雖死, 亦不瞑目矣. 臣於鞫廳門外過去時, 只見許實, 許案, 李士星, 李文蘭而已. 若問於此人, 則可知臣情狀. 奪賊筠於鞫門, 置之何處乎? 雖欲爲之, 其可得乎?”

2) 『광해군일기』(권 154) 1620년(광해군 12) 7월 15일.

○ 罪人元宗, 定配于旌義. 【宗以極惡大罪, 得免刑戮, 人皆憤惋. 邊應垣等事, 論啓經年, 至是, 停啓, 定配.】

3) 『인조실록』(권 2) 1623년(인조 1) 5월 4일.

○ 元宗伏誅. 宗與許筠金闔結爲腹心, 謀危母后, 至是, 因臺諫論啓, 拿鞫正刑.

8. 우필전(禹弼甸)

- 신분: 관리(의금부도사)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4월/ 1628년(인조 6) 6월 29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정권 변동(인조반정, 인목대비 폐모론 주장)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4월 2일.

○ 又合啓: “安應魯, 李日馨, 禹弼甸, 禹弼舜, 尹伸, 李尙恒, 成夏衍, 李衍, 南省身等, 首倡廢母之論, 與偉卿同上兇疏, 至有內作巫蠱, 外應逆謀, 母道已絕等語, 張皇狼藉, 極其兇慘. 洪衍箕, 以筠賊腹心, 謀作亂於西宮. 尹惟謙疏辭兇慘, 有不忍言, 鄭淇罪狀慈殿, 移文八道. 崔光弼之疏, 至有廢誅之言, 請竝拿鞫定罪.” 上從之.

2) 이견, 「유찬기(제양일록)」〈1628년(인조 6) 6월 29일〉, 『규창유고』(권 11)

○ 戊辰六月二十九日 … 是時本島流配人, 有前僉正柳希顏, 前縣監成宏烈, 及第李宗英, 盲人金禹鼎在焉. 皆使人致款, 如見骨肉之來. 此皆素昧平生之人, 而人情有自然矣. 柳希顏力農資生, 李宗英教授諸生賴以糊口, 又聞旌義縣流竄人有韓泳, 禹弼甸, 徐兢. 徐則筆法超絕云.

9. 한영(韓泳)

- 신분: 관리(원주목사)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4월/ 1628년(인조 6) 6월 29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정권 변동(인조반정, 인목대비 폐모론 주장)
- 관련 사료

1) 이진, 「유찬기(제양일록)」〈1628년(인조 6) 6월 29일〉, 『규창유고』(권 11)

○ 戊辰六月二十九日 … 是時本島流配人, 有前僉正柳希顔, 前縣監成宏烈, 及第李宗英, 盲人金禹鼎在焉. 皆使人致款, 如見骨肉之來. 此皆素昧平生之人, 而人情有自然矣. 柳希顔力農資生, 李宗英教授諸生賴以糊口, 又聞旌義縣流竄人有韓泳, 禹弼甸, 徐兢. 徐則筆法超絕云.

10. 서신(徐斌)

- 신분: 유생(교생)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4월/ 1628년(인조 6) 6월 29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정권 변동(인조반정, 인목대비 폐모론 주장)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4월 2일.

○ 上復御明光殿, 引見領議政李元翼, 左議政鄭昌衍, 判義禁尹昉, 同知義禁李景涵, 大司憲吳允謙, 大司諫朴東善, 大將兵曹判書金瑬·吏曹參判李貴, 議獻獄囚, 分等誅竄. 李挺元, 以爾瞻腹心, 擔當兇論, 至於銓官, 濁亂尤甚; 徐國禎, 韓定國·正國, 附托爾瞻, 共倡兇論; 李覺, 洪堯儉, 蔡謙吉, 主張兇疏, 罪犯極重; 覺且與許筠同惡, 黃德符後雖與爾瞻携貳, 初實同惡; 李滄傳致金悌男之獄, 覆啓追刑, 竝誅止其身. 劉夢玉, 李如桂, 亦誅止其身. 李元輿以爾瞻族屬, 所犯甚多, 林健自初盤據臺閣, 共倡兇論, 姜慄, 申垺, 崔濩罪惡, 與林健一體, 竝圍籬安置. 景儉, 善胤投疏請廢母后, 其罪當死, 而以宗室故減死, 圍籬安置. 鄭諶, 孫佑, 李宗英, 皆爾瞻腹心; 諶, 佑則且主張嶺儒, 張弓挾矢之論, 鄭道同參兇論, 罪犯頗重; 鄭世芳, 世馨, 以昭媛切親, 藉勢作弊; 李承吉, 以夢弼同壻, 縱吏作弊; 李景茂, 以廢妃之族, 作弊閭閻; 徐斌, 以鄉生投疏, 請廢母后, 竝安置. 韓惟翔附托爾瞻, 得罪公論, 且以李貴爲護逆, 陳啓狼藉; 鄭碩僞交結爾瞻, 冒占科第; 李挺, 鄭鑑, 所犯甚多; 金大麟, 以宦官用事, 竝遠竄. 鄭之良, 鄭之問亦竄絕島, 權餘慶, 權餘均藉勢宮掖, 作弊閭閻, 竝中道付處. 韓嘻, 韓吸以續男之子, 坐誅; 雲著以造之子, 坐誅; 達以造之兄, 坐爲庶人; 全滢, 李再榮爲爾瞻卵育, 罪犯甚重, 且有科場代述之罪, 令鞠廳訊問處置. 鄭鉉, 李顯忠, 鄭夢得, 鄭之準, 鄭碩亮·碩勳·碩彥, 內官金孝業, 更查處置. 李惟聖勸其姪而斂告變, 惟聖竄而而斂正刑. 徐永健, 以爾瞻私昵之人, 聚募武士, 頗有綢繆之迹, 遠竄. 上仍問曰: “三昌之罪, 必有公論, 群議如何?” 元翼曰: “臣意, 麤鄙濁亂之罪, 固無異也. 至於廢論, 則希奮每與爾瞻角立, 朴自凝則上疏, 排擊異論, 不可一體論罪.” 瑬曰: “自凝搆一堂, 揭號挹白, 求序於臣之妻父柳根, 問挹白之意, 則曰: ‘白是西方之色,

大妃所御之處，稱以西宮，吾有扶護西宮之意，此號所以識也.’云.” 貴曰：“爾瞻忌憚朴承宗，不能恣行胸臆。承宗雖有貪婪之罪，救護士類則有之矣。自上特囚朴自凝，抑別有所聞耶？”其父兄皆已死矣。渠且不參庭請，其情似可恕矣。” 貴曰：“柳家諸子，斷以何律耶？” 上曰：“皆定配可矣。”

2) 이견, 「유찬기(제양일록)」〈1628년(인조 6) 6월 29일〉, 『규창유고』(권 11)

○ 戊辰六月二十九日 … 是時本島流配人，有前僉正柳希顏，前縣監成宏烈，及第李宗英，盲人金禹鼎在焉。皆使人致款，如見骨肉之來。此皆素昧平生之人，而人情有自然矣。柳希顏力農資生，李宗英教授諸生賴以糊口，又聞旌義縣流竄人有韓泳，禹弼甸，徐兢。徐則筆法超絕云。

11. 기준격(奇俊格)

- 신분: 관리(예조좌랑)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8월 24일.
- 사망 연월: 1624년(인조 2) 3월 17일.
- 사유: 정권 변동(인조반정, 인목대비, 김제남 배척)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132) 1618년(광해군 10) 9월 2일.

○ 推鞠廳議啓: “奇俊格摘發兇逆姦狀, 具疏上達則功在社稷, 他不暇論. 而《大明律》《謀反大逆條》, 知而不首者, 杖流三千里. 俊格則既知筠逆謀, 而久乃發告, 若以此擬律, 則當服次律. 請以杖配三年科罪.” 從之. 史臣曰: “俊格疏中, 多有人臣口不忍道之說, 及與賊筠, 入庭辨詰, 又提前說, 略無忌憚. 其爲兇逆, 不下於筠賊, 而不以此爲罪, 今以不卽上變, 止於徒配. 其父自獻, 亦免在家主謀之罪, 其敗倫失刑甚矣.”

2) 『광해군일기』(권 132) 1618년(광해군 10) 9월 8일.

○ 奇俊格決杖一百, 配橫城. 【以不卽發告也.】

3) 『인조실록』(권 2) 1623년(인조 1) 7월 16일.

○ 憲府啓曰: “進士奇俊格, 本以兇譎之人, 曾在丁巳年間, 陳疏上變, 誣搆國舅金悌男及沈愼父子, 極其兇慘. 疏中有曰: ‘筠在扶安時, 與沈光世謀立永昌.’ 又曰: ‘筠與光世對門, 朝夕相從, 將作兇謀.’ 又曰: ‘筠與金悌男通謀, 而主遷都之議, 添入讖書, 所無一漢二河三江四海之語.’ 又曰: ‘李弘老連昏於沈愼者, 亦爲金悌男及永昌也.’ 又曰: ‘戊申年沈愼恐事覺, 驚遑自盡, 人謂縊死.’ 滿紙狼藉, 不忍正視. 原其情狀, 與應犀無異. 且於原情之際, 至舉審食其之說, 指斥慈殿. 此則造, 誣, 偉卿等所未道之語, 其大逆不道, 通天極惡之罪, 不可不法. 請拿鞫定罪.” 從之.

4) 『승정원일기』(권 2) 1623년(인조 1) 8월 24일.

○ 禁府, 柳慶宗免山, 曹挺立報恩, 鄭良胤德山, 金晷晉州, 奇俊格旌義定配. 啓.

5) 『인조실록』(권 5) 1624년(인조 2) 3월 17일.

○ 兩司合啓曰: “罪人奇俊格, 曾以其父自獻廢論立異之故, 曲貸其死. 今自獻既伏王法, 俊格罪犯, 萬無可活之理. 及聞賊适稱兵之說, 托以畋獵, 越境橫行, 其心所在, 有不可測. 林沆, 奇允獻兇謀逆狀, 狼藉於有林之獄, 所當與黃玟等一體正刑, 而只以後來之故, 得免王誅, 物情之憤鬱久矣. 厥後, 李時言佯爲告變, 以亂其迹之狀, 現出於李佑等之招, 前後逆獄, 爛熳同歸, 決不可容息於覆載之間. 請奇俊格, 林沆, 奇允獻, 竝命拿鞠, 按律處斷.” 答曰: “俊格等, 已爲定罪, 今又更論, 無乃已甚? 聞變畋獵之說, 亦不近理, 雖極悖惡, 豈有聞父死而畋獵之人乎?” 厥後踰月固爭, 乃從之. 沆, 允獻不服, 死於杖下, 俊格承服正刑.

12. 유영립(柳英立)

- 신분: 가족(연좌)/ 유희발(柳希發) 아들
- 유배 연월: 1628년(인조 6) 2월 16일.
- 사망 연월: 1628년(인조 6) 12월 17일.
- 사유: 역모 연루(유효립(柳孝立) 옥사)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18) 1628년(인조 6) 2월 12일.

○ 合啓: “昏朝諸奸, 數倫, 病國, 使宗社傾危, 民生塗炭. 雖學族受誅, 難以贖罪, 而反正之後, 特施寬典, 今其餘孽, 寔繁且夥. 不思革心, 反懷怨毒, 或做出惡言, 搖動民心; 或連謀失志, 肆爲亂逆. 若不及今處置, 國家禍亂, 無時可已也. 請逆賊爾瞻, 造, 訕, 偉卿等兄弟子孫, 罪人承宗, 希奮, 希發, 鼎吉及前後係干逆獄伏刑者子孫, 雖年未滿者, 竝於絕島圍籬安置, 已配邊遠者, 就其配所, 亦爲圍籬, 使不得交通内外人. 且逆黨中尤甚親切, 曾已定配, 而蒙宥量移, 放還者, 更加遠竄, 以杜亂萌.” 從之.

2) 『승정원일기』(권 20) 1628년(인조 6) 2월 16일.

○ 禁府, 圍籬罪人, 濟州柳正立·朴自凝, 大靜柳時立, 旌義柳英立, 巨濟柳命立, 南海曲浦柳厚立, 平山浦柳中立, 巨濟知世浦柳顯立, 熊川朴自全, 南海柳鼎立, 彌助項朴自天, 唐浦朴自昱, 尙州浦朴全度, 加里浦李元輿, 興陽鄭碩儁, 巨濟鄭達, 助羅浦朴永澤, 西水羅閔貴達, 會寧權誼, 鍾城任興後, 穩城任就正·崔應虛, 慶源任器之·李傳芳, 慶興柳活, 三水趙國弼, 富寧金時輔, 定配.

3) 『승정원일기』(권 23) 1628년(인조 6) 12월 17일.

○ 濟州牧使書目, 罪人柳英立十月十四日物故. 啓.

13. 권철견(權鐵堅)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43년(인조 21) 4월 18일.
- 이배 연월: 1647년(인조 25) 5월 16일.
- 사유: 범죄(심양 사신단 잠복)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44) 1643년(인조 21) 4월 18일.

○ 先是, 光州人權以平上疏言兵事, 且請遣其子於瀋陽, 給事東宮館所, 政院以辭語怪妄斥之. 至是, 清使回到黃州, 以平率其子以去, 投書自薦, 願偕入清國, 先通于鄭命壽. 命壽不傳于清使, 而拘送于伴使, 伴使卽以此馳啓, 遣禁府都事拿來. 大臣以爲: ‘以平謀背本朝, 潛從他國, 於律當斬.’ 上從之, 流其子于旌義縣.

2) 『승정원일기』(권 84) 1643년(인조 21) 4월 21일.

○ 禁府, 李英豪興陽, 鄭漢驥礪山, 權鐵堅旌義, 定配.

3) 『승정원일기』(권 97) 1647년(인조 25) 5월 16일.

○ 義禁府啓曰, 傳教矣, 丑伊, 乃益信子, 而益信, 本是鎭安縣官奴也. 昨者, 伏承逆賊緣坐人中, 兩班子枝, 移配之教, 而丑伊, 元非兩班子枝, 故不爲移配. 以平, 則與其子權鐵堅, 投書勅使, 謀入瀋陽, 癸未四月日定配矣.當初定配三邑之類, 則今番移配時, 所當改定於絕島, 而兩南島邑, 只是南海·珍島·巨濟等三處而已. 此三邑前後定配者亦多, 故不得已分配於沿海遠邑矣, 今承聖教, 不勝惶恐. 原單中, 丑伊配所, 及其他改定配之人, 竝爲付標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14. 홍무적(洪茂績)

- 신분: 관리(대사헌)
- 유배 연월: 1646년(인조 24) 3월 14일.
- 이배 연월: 1647년(인조 25) 5월 13일(남해현).
- 사유: 왕명 비판(소현세자빈〈강빈〉 옹호)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47) 1646년(인조 24) 3월 14일.

○ 上下敎曰: “洪茂績不念知遇之恩, 敢生護逆之計, 至欲殺身以救大惡. 沈膺則爲姜盡忠, 意欲合啓, 【初膺欲爲合啓, 而茂績不從.】 竝絕島竄黜, 使奸邪不忠之徒, 稍知君臣分義. 李敬輿忘君負國之罪, 似不可遠竄而止, 令該府圍籬安置.” 乃竄茂績於旌義, 沈膺於南海.

2) 『인조실록』(권 48)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配昭顯世子三子石鐵, 石麟, 石堅于濟州. 初, 禁府請以石鐵配濟州, 石麟配旌義, 石堅配大靜. 石鐵時年十二, 石麟八歲, 石堅四歲. 上下敎曰: “一處定配, 使之相依以生. 內官, 別將等輪定以送, 勿使外人交通, 三邑定配士大夫, 竝令移配他島.” 於是, 洪茂績移配南海縣, 申得淵移配玕島郡.

3) 『승정원일기』(권 97)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義禁府啓曰, 濟州等官定配罪人, 申得淵·洪茂績, 移配他島事, 傳敎矣. 申得淵則圍籬罪人, 故郎廳一員, 當爲押去, 洪茂績則書吏一人, 當爲押去, 而一路夫馬, 多有貽弊之事, 今以石鐵等押去郎廳, 及南胤先移配書吏, 仍令押送于各岐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15. 골계선(骨繼善)

- 신분: 미상(평안도 영변(寧邊))
- 유배 연월: 1653년(효종 4) 7월 16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작폐)
- 관련 사료

1) 『비변사등록』(국역 16) 1653년(효종 4) 7월 16일.

○ 啓曰, 平安監司查啓中, 名付各人, 論罪輕重, 昨日榻前, 既已定奪, 今將行會罪名及定配處所, 別單開錄以啓, 以此亦爲分付該曹, 依例舉行之意敢啓, 答曰, 知道.

別單

義州金男 徐義一 右人等, 憑藉作惡, 比他尤甚, 竝依狀啓, 極律處斷, 李鳳祥因他事, 方爲被囚, 待其結末處置, 張得京, 捕捉後議處, 韓德連到黃州云云之言, 尤爲可駭, 令平安監司, 更查其實, 啓聞後處置, 嘉山骨大民 右人, 前日以其田役出定之故, 本郡鄉所, 告訴於彼, 酷刑卽殺, 殺人之罪亦當, 代死以極律處斷, 其子骨汝鐵 右人, 比之厥父, 不無差別, 珍島郡定配, 殷山李今金 江西金錄 右人等, 從前罪犯, 死無足惜, 而特爲末減, 竝大靜縣定配, 殷山金亂立 奴義信 奴京輝 右人等, 籍勢作弊, 罪犯尤著, 竝南海縣定配, 而義信·京輝, 則元是公賤, 本縣官奴定屬, 順川金行一 金大秀 右人等, 前日脅迫良人, 稱以已奴, 私自結縛, 至於刑問, 被囚之後, 越獄逃走等罪, 自本道嚴刑處置, 順川奴義善 宣川李信男 右人等, 阿附作弊, 到處橫挈, 竝巨濟縣定配, 寧邊骨繼善 右人, 以大民之姪, 阿附作弊, 凌蔑一鄉, 人皆切齒, 旋義縣定配 成川李復興 右人, 雖以玉鍊妹夫, 爲彼所親, 圖得邊將, 而在其鄉則不爲橫挈云, 特爲分揀事, 傳教, 義州崔起灣 右人, 隨彼往來之時, 多有作弊之事, 巨濟縣定配, 平壤李仁確 右人, 本府一境, 雖常漢, 無一人附托於彼者, 而渠以士族之人, 獨爲阿附, 圖得官爵, 一鄉莫不痛惡, 光陽縣定配, 安州裴尙曾 右人, 初以馨長腹心, 仍爲親密於彼人, 圖除僉使, 奪人田民, 珍島郡定配, 安州方繼一, 非繼一, 乃敬一也, 已自捕盜廳捉囚, 當窮問處置, 義州奴莫乃 右人, 籍勢免役, 多有作弊之事, 竝其子, 興陽縣定配, 仍爲定屬本縣奴婢, 仍叱石處附托者, 已自本道囚禁, 而此漢之事, 似有

間隔，隨其現著，各以其罪治之而已，不必定配，而其附托圖囑，免賤免役者，還賤還役，除職者，還削其職，定配各人，應用全家之律，而西邊之民，亦不可多數遷配，其妻子則同配，其奴婢則使之仍舊住活本道.

16. 무인(武仁)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62년(현종 3) 4월 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살인 미고지죄)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73) 1662년(현종 3) 4월 8일.

○ 尹飛卿, 以刑曹言啓曰, 賊人春龍·繼善·丫赤·武仁等結案啓目判付內, 殺越人命之賊, 旣不待時, 則以此爲例, 終爲謬規是旡, 武仁段, 初不自告, 似無其功是在果, 捕捉丫赤之功, 係於後路, 特爲減死, 絕島定配事, 判下矣. 武仁段, 卽爲旌義定配, 而春龍·繼善·丫赤三賊, 則卽日當爲梟示.〈數行缺〉

17. 양계달(梁戒達)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62년(현종 3) 11월 26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77) 1662년(현종 3) 11월 26일.

○ 洪處厚啓曰, 濟州牧使李翊漢, 旌義縣定配罪人梁戒達〈缺〉本不爲着署, 難免不察之失. 請推考. 傳曰, 允.

18. 송지렴(宋之濂)

- 신분: 관리(화순현감)
- 유배 연월: 1664년(현종 5) 10월 1일.
- 해배 연월: 1670년(현종 11) 4월 10일.
- 사유: 지방관 실정(옥사 잘못 다스림)
- 관련 사료

1) 『현종실록』(권 9) 1664년(현종 5) 10월 1일.

○ 流宋之濂于濟州. 之濂爲和順縣監時, 羅州人羅禎殺其婢夫于和順地. 之濂以推官, 按其獄, 曲護羅禎, 不欲成獄. 方伯以狀聞, 上下之濂于禁府訊之, 之濂辭服. 禁府初配海南, 上特命流之旌義縣.

2) 『현종개수실록』(권 11) 1664년(현종 5) 10월 1일.

○ 流宋之濂于濟州 旌義縣. 之濂爲和順縣監時, 羅州人羅換, 殺其婢夫, 之濂以推官按其獄, 文案中年月, 有用意塗改處, 方伯啓聞, 請罪, 禁府以私護死囚照律, 流三千里. 初配海南, 上特命改配旌義縣.

3) 『현종개수실록』(권 22) 1670년(현종 11) 4월 10일.

○ (宋)浚吉又曰: “臣亦有可達者. 宋之濂爲和順縣監, 以殺人推官被罪, 曾配濟州, 累年之後, 始得量移. 此非親自殺人之比, 當此曠蕩之日, 似當有漸有之道矣.” 上曰: “減等”

4) 『승정원일기』(권 185) 1664년(현종 5) 10월 8일.

○ 傳曰, 以義禁府宋之濂海南縣定配單子, 旌義縣改付標以入. 〈以上禁府謄錄〉

5) 『승정원일기』(권 219) 1670년(현종 11) 4월 12일.

○ 今四月初十日疏決引見時, 左參贊宋浚吉所啓, 小臣又有所懷, 不得不達矣. 姜碩圭旣已蒙放, 則宋之濂, 爲和順縣監時, 以殺人推官, 曾配濟州, 累年之後, 始得量移, 而與自己殺人者有間. 當此曠蕩之日, 如此久遠流配者, 亦當分揀矣. 左議政許積曰, 渠之所犯則有之, 而但其爲人, 甚爲迂闊, 實非巧詐用奸而然也. 上曰, 減等可也. … 〈以上禁府謄錄〉

19. 육상(六上)

- 신분: 노비(노〈奴〉)
- 유배 연월: 미상
- 해배 연월: 1666년(현종 7) 9월 11일.
- 사유: 범죄(오랑캐 내통)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97) 1666년(현종 7) 9월 11일.

○ 奴六上以與賊交通罪，旌義充軍. 積曰，先朝，非以六上，爲大罪，缺.上曰，放之.

20. 이정기(李鼎基)

- 신분: 관리(산릉 감조관)
- 유배 연월: 1674년(현종 15) 5월 11일.
- 이배 연월: 1680년(숙종 6) 5월 2일.
- 사유: 봉당(영능 관리 부실)
- 관련 사료

1) 『현종실록』(권 22) 1674년(현종 15) 5월 11일.

○ 命疏決罪囚，以久旱不雨也。領相金壽興，領府事許積，判府事金壽恒，知義禁張善澈，同知義禁閔點，刑曹判書權大運，參判鄭楹，參議睦來善，右副承旨李端錫等，入侍于思賢閣，隨罪輕重，或徒配，或削，或放者，九十二人。咀呪，竊盜等罪，不爲舉論。善澈持罪囚文案，以次披讀，至申命圭，李鼎基等，上曰：“此則何如？”積曰：“臣欲達此人等事，而未敢矣。受莫重之任，致莫大之變，自上必欲斷以一罪者，固當矣。然原其情，則必非故犯。定配邊遠，以待其死，似可矣。”壽興曰：“臣於前日，陳達此事，至被嚴教，而積之言是也。命圭等，雖甚無狀，豈於封陵之際，敢有慢忽之心乎？”壽恒曰：“以次問及之下，臣何敢獨爲泯默乎？臣意則無論其有情無情，此等罪名，本無當律，若以一時受教，斷以一罪，似爲未安矣。”閔點曰：“今日赦宥，專爲祈雨，則常赦所未蒙之人，雖得蒙宥，亦或一道。”上曰：“此人罪狀，予甚痛惡，見欺工匠，不近似矣。十二面內六面裳石，如法作凹，而六面初旣作凹，反復撞破。郎廳若至誠監役，則工匠何敢如是？命圭等罪，在漢則當以大不敬論之矣。”積曰：“不能敬慎，則有之，論以一罪，似爲過重。若貸其死，使得畢命於海島之中，則非但有光於仁厚之德，亦足爲後日懲戒之地。”壽興亦申請不已，上默然良久曰：“予意則必欲殺之，諸大臣之言如此，只令貸死而已，永勿奴釋可也。”因命曰：“命圭等減死，絕島定配，命圭配大靜縣，鼎基配旌義縣。”

2) 『승정원일기』(권 239) 1674년(현종 15) 5월 12일.

○ 禁府，魏天會海南，丁炯蔚山，申命圭珍島，李鼎基巨濟，韓時說宣川定配，朴振翰德豐驛徒一年，金謹行碧蹄驛徒三年定配，啓“申命圭大靜縣，李鼎基旌義縣定配事，付標以下。

3) 『승정원일기』(권 276) 1680년(숙종 6) 5월 2일.

○ 傳曰, 頃觀濟州御史李增狀啓, 則減死罪人申命奎·李鼎基等, 雖無大段作弊之事, 亦不無貽害於島民云, 此兩人竝移配他道.

21. 유필명(柳弼明)

- 신분: 유생(청주<淸州>)
- 유배 연월: 1675년(숙종 1) 윤5월 23일.
- 해배 연월: 1680년(숙종 6) 10월 9일.
- 사유: 간쟁(송시열 무고 상소)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4) 1675년(숙종 1) 윤5월 23일.

○ 配陳疏人柳弼明于旌義, 會寧儒生崔愼于泗川. 禁府初配弼明于巨濟, 上命改旌義. 弼明愚駭不文, 自稱爲留名萬古疏, 寓盲家占吉凶, 鑄等聞之, 陰伺行止. 弼明呈疏翌日, 鑄入請捧疏, 謀構大禍. 於是, 衆南謂拷掠弼明, 辭必連及於時烈, 喜躍厲吻而待之. 及捕至訊刑極酷, 未盡一次, 膝破骨碎, 弼明不堪楚毒, 盡告行處. 愼亦在所告, 而無一語累時烈, 知不可成獄, 遂復解散其事, 而時烈因此圍籬. 諸臣猶言弼明拾聞於時烈, 閔熙言先殺枝葉之枝葉, 於國事何? 雖似救解, 其意甚慘. 嗣基必欲殺之而告宗廟, 以及時烈也. 愼質朴剛直, 博通文史, 時烈甚重之. 邏卒往捕, 愼不動, 在途亦無幾微. 及聞安置時烈之命, 泣曰: “吾死不足惜, 吾師何以至此?” 入獄, 見弼明罵之曰: “先生由汝加罪, 汝何以生爲?” 愼供辭言時烈冤, 大運等益惡之. 弼明既言太丁事, 非愼所教, 而猶竝請刑, 冀其有亂言. 愼屢被酷刑, 終不少撓, 弼明亦無它辭, 上意稍解. 命罷鞫, 事得已. 是後, 無敢言時烈事者. 雖在屋下, 父戒兄飭, 諱言議禮是非.

2) 『승정원일기』(권 255) 1676년(숙종 2) 7월 12일.

○ 備忘記, 罪人柳弼明, 前年七月, 有減死定配, 而今觀濟州牧使尹昌亨放·未放啓本, 則以甲寅七月到配懸錄, 莫重入啓公事, 不能詳審之失, 在所難追, 尹昌亨推考, 元啓目中, 付標以入, 該房承旨, 亦難免不察之責矣.

3) 『승정원일기』(권 279) 1680년(숙종 6) 10월 9일.

○ 傳曰, 定配罪人柳弼明, 定配已久, 獨未蒙宥, 特爲放釋事, 榻前下教.

22. 애숙(愛淑)

- 신분: 궁비(宮婢) 〈복녕군(福寧君) 나인(內人)〉
- 유배 연월: 1676년(숙종 2) 11월 17일.
- 해배 연월: 1678년(숙종 4) 5월 7일.
- 사유: 범죄(승려 손처경(孫處瓊)의 소현세자 유복자 사칭 연루)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5) 1676년(숙종 2) 11월 1일.

○ **妖僧處瓊伏誅**. 處瓊, 平海郡吏孫燾之子也. 容貌頗似清秀, 性奸巧邪慝. 歲辛亥, 棄其師, 雲遊畿甸, 自稱神僧, 詭云絕粒, 而夜入巖穴, 潛啗餅肉. 又誘女居士年少者, 託以教誨佛經, 恣行奸淫. 又持小玉佛宣言: “凡有禱求, 無不獲遂.” 以此愚氓奔波, 稱之以生佛. **諸宮內人, 以供佛往來寺刹者, 莫不尊信, 或與之有私.** 有女居士妙香, 乃京城士夫家婢也. 嘗聞昭顯世子遺腹子投水之說, 乃謂瓊曰: “昭顯遺腹子, 或言投水, 或言生存. 今師貌甚清秀, 似王子君貌樣, 無乃是耶?” 瓊聞之, 遂萌奸心, 後因福昌君家內人供佛者, 細聞其時事, 且挾妖術, 得小民迷惑, 意謂國家亦可欺. 遂取故汚倭菱花紙, 以諺書書曰: “昭顯遺腹子, 乙酉四月初九日生.” 其下又書姜嬪二字, 往于領議政許積家, 泣示其紙曰: “此乃姜嬪手迹也. 每懷畏懼不敢出. 今逢聖代, 敢來謁.” 時, 積呈病. 左議政權大運請對白上曰: “昨日領相與諸宰觀其書, 詰其人, 皆以爲: ‘昭顯之喪, 在四月二十六日.’ 此云四月初九日生, 而稱遺腹, 已大謬. 且姜嬪之號, 非其時所稱. 且其書字畫, 分明是常漢所寫, 而從其音誤書者, 多尤可疑也.” 上命會二品及三司諸臣, 問處置之道, 皆請試爲驗問. 乃令時任, 原任, 六卿, 三司, 會同推覈於訓練都監北營, 蓋欲使外人, 皆得聞知也. 瓊納供曰: “當初詐爲投水, 而只投所盛之櫃, 潛拔我身, 使宮人丁氏, 出給妙香, 隱置養育, 年十餘, 妙香使之剃髮云.” 妙香供辭則曰: “初見處瓊時, 瓊已削髮爲僧, 而聞其神異, 以師事之. 名以妙香, 亦瓊之所命云.” 使與面質, 瓊語塞, 猶不服. 判義禁柳赫然使捕廳軍官, 搜其橐中, 得渠親戚相通書, 姓名可考, 又得僞書菱花紙. 時, 草本數件, 奸情畢露, 始乃吐實. 遂捉致其親戚通書者, 問知其爲孫燾之子, 而生年則壬辰也. 時, 燾及其妻皆已死, 乃得瓊母舅及其師智膺, 使瓊見之, 瓊合眼不視. 使人批開其目而問之, 瓊乃應之曰: “果師

也. 果外叔也.” 遂誅之. 妙香斃於刑訊, 與瓊交結容接者皆流配. 捕盜軍官之搜得橐中書者, 論賞.

2) 『승정원일기』(권 257) 1676년(숙종 2) 11월 7일.

○ 又啓曰, 淑伊與處瓊面質之際, 臣等, 先問此是其內人與否於處瓊, 則處瓊言此女人, 亦是其日上寺者, 而與渠問答者, 即是大房內人, 非此女人云. 問同往內人之名於淑伊, 則對以同往者, 即是福寧君房內人愛淑爲名者云. 淑伊則姑爲仍囚, 愛淑拿來憑問, 何如? 傳曰, 依啓.

3) 『승정원일기』(권 257) 1676년(숙종 2) 11월 17일.

○ 禁府罪人韓天敬春川地, 金善鳴忠州地, 朴仁義全州地, 淑伊信川地, 愛淑泰安地, 徒三年定配, 啓. 淑伊三水郡, 愛淑旌義郡, 不限年定配事, 付標以下. 〈以上朝報〉

4) 『승정원일기』(권 265) 1678년(숙종 4) 5월 7일.

○ 今日疏決時, 禁府蒙宥時囚罪人李彬安放送, 金貴一·崔永吉, 嚴刑一次放送, 柳斗章, 減死定配, 梁善望定配, 定配罪人韓世弼·李亨植·李亨敏·朴泰輔·愛淑·淑伊, 放送, 金時成·崔元泰減等.

23. 이입신(李立身)

- 신분: 관리(평안 병사)
- 유배 연월: 1689년(숙종 15) 2월 27일.
- 나래 연월: 1689년(숙종 15) 9월 17일.
- 사유: 봉당(기사환국)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20) 1689년(숙종 15) 2월 26일.

○ 大司憲閔宗道, 掌令朴紳, 金龜萬, 持平成瓘啓曰: “陽興君李立身, 內結闇豎鉉, 潭之屬, 外交師命, 堦, 翊之輩, 鑄幻陰祕, 有難測度, 而一自師命之竄, 承指教於益勳, 授方略於光漢, 散遣驍弁, 恣行調察, 請絕島定配. 綾平君 具鎰, 當東朝禮陟之日, 家行婚禮, 晚赴哭班, 未及成服, 宰牛營中, 軍校有諫者, 反汰其人, 況近來調察四布, 鎰爲之首? 承李翊指會益勳第, 請絕島定配.” 上不從, 只命立身削奪官爵, 門外黜送.

2) 『승정원일기』(책 333) 1689년(숙종 15) 2월 26일.

○ 行大司憲閔宗道, 掌令朴紳·金龜萬, 持平成瓘啓曰, 請還收吳順彦等減死定配之命. 請還收罪人煥·燦放歸田里之命. 請行副護軍柳尙運中途付處. 請還收畫師曹世傑實職除授, 許義順·咸泰碩·韓後邦等東班職除授之命. 措辭竝見上 興陽君李立身, 賦得凶穽之性, 稔其貪功之慾, 內結闇豎炫·潭之屬, 外受師命·堦·翊之輩, 偵伺官禁之事, 暗逞譎幻之術, 悖說凶言, 流播遠邇, 陰祕之迹, 有難測度, 而一自師命之竄, 不忍憤怒之心, 承指教於益勳, 受方略於光漢, 發遣驍弁, 恣行調察, 起自京輦, 遠及西陲. 且曩者捕盜大將之有窠也, 李翊之以立身, 濫擬於人望之外者, 專出於設機售凶之計, 人心惴惴, 莫保朝夕, 雖緣譴罷, 稍殺陰謀, 而樂禍之心, 猶不少悛. 乃於去年秋間, 適值金壽恒之來在城外, 晨昏去來, 日以爲常, 這間言語, 祕不得聞, 而其曰, 天災孔棘, 必起大獄之說, 因渠自創, 傳者甚多, 前後情節, 萬萬兇惡, 決不可置之輦轂之下. 請絕島定配. 綾平君具鎰, 爲人愚濫, 全無知識, 徒藉勳蔭, 濫躋卿班, 曾在蔭仕之初, 藏名投書於相臣之家, 事迹頗露, 爲世所棄, 晚竊武科, 遂握將權, 偷取軍需, 大起亭觀於西湖之上, 軍情嗟怨, 道路唾罵. 頃當東朝禮陟

之日，肆行孫女之婚，晚赴會哭之班，且於成服之前，公然牽牛於軍營，吳姓哨官，陳其不可，則不但不聽，反汰其人，人之蔑禮無識，胡至於此？近年以來，詞察四布，人心危懼，而攘臂擔當，鎰爲之首，承受李翊之指，聚會益勳之策，陰謀祕計，靡所不與，悖說凶言，無所不至，動止非常，情節叵測，尙今漏網，未免失刑。如此陰凶之人，不可置諸輦轂之下，請綾平君具鎰絕島定配。答曰，不允。李立身，削奪官爵，門外黜送。

○ 朴鎮圭啓曰，興陽君李立身，削奪官爵，門外黜送事，命下矣。臺諫，方以絕島定配論啓，削黜傳旨，不得捧之之意，敢啓。傳曰，知道。

3) 『승정원일기』(책 333) 1689년(숙종 15) 2월 27일.

○ 府啓，煥·燦等事。措辭見上 臣等，以行副護軍柳尙運中途付處事，有所論列，而俞音尙闕，臣等竊不勝疑惑焉。尙運，外假粉飾，內實巧密，向年罪狀妖逆之啓，乃以狎歡名流四字插入，危動上心，欲售網打之計，且故相臣許穆，以議禮見忤於時烈，而尙運，承望奸壬之意，挺身擔當，直發削黜之論，士林之駭憤，固已久矣。及夫元子定號之日，有崖異之意，至以日後難處爲言，噫嘻，此何言哉？國無儲位，十有六年，人心危懼，國勢岌岌，正名之典，不容少緩，而別生意見，敢拒明命，前後罪狀，俱極可痛，其他黷貨分利，在尙運，爲薄物細故。如此邪佞之人，不可置而不論，請中途付處，興陽君李立身，本以凶穢之性，肆其貪功樂禍之心，內結閹豎炫·潭之屬，外昵師命·堦·翊之輩，潛伺宮禁之事，做出妖惡之言，傳播遠邇，情節叵測，且與具鎰·益勳等昏夜追逐，同心密議，憑其機密陷人之計，此人罪惡，國人皆知，王法難貸。此非削黜小罰，可以懲戢，請絕島定配。綾平君具鎰，大小罪狀，已陳於昨日之啓，不必更爲覲縷，而惟其身爲勳戚，不思報國之圖，職在將任，徒懷死黨之心。自庚申以後，承受權臣之意，廣設機察，遍陳中外，必欲盡驅文武異己之人於惡逆之域，殲滅乃已者，都是鎰與益勳·光漢等所爲。益勳·光漢既以誣告拿鞠，則鎰以機察主管之人，安得獨免治罪之舉乎？至今漏網，不但輿情咸憤，雖鎰之儕流，莫不致訝。鎰若終或倖免，則人心之危懼，無時可定，陰兇之徒，無所可懲，請絕島定配。答曰，不允。柳尙運，削奪官爵，門外黜送，李立身事，依啓。以上朝報

4) 『승정원일기』(책 336) 1689년(숙종 15) 7월 27일.

○ 又以義禁府意啓曰, 李立身·李元成等, 嚴鞫處斷事, 傳旨, 啓下矣, 李立身, 時在旌義縣配所, 李元成, 時在兔山地配所, 依例發遣府都事拿來, 何如? 傳曰, 允.

5) 『승정원일기』(책 337) 1689년(숙종 15) 9월 17일.

○ 禁府啓曰, 罪人李立身, 既已拿囚, 係是推鞫罪人, 自本府不可循例鞫問, 所當大臣以下, 齊會推鞫, 敢此仰稟. 傳曰, 依爲之.

6) 『숙종실록』(권 21) 1689년(숙종 15) 9월 21일.

○ 執義金聲久, 持平趙湜, 論: “禁府都事尹楡, 爲拿李立身至濟州, 私見金鎮龜. 以奉命之人, 何敢如是? 請拿問定罪.” 從之.

7) 『승정원일기』(책 337) 1689년(숙종 15) 9월 21일.

○ 府啓, 申範華事. 見上 推鞫罪人拿來, 事體極爲嚴祕, 使不得與外人交通, 奉命都事, 亦不敢私覲於人, 而禁府都事尹楡, 乃於罪人立身拿來時, 往見濟州定配罪人金鎮龜, 朝廷若有紀綱, 奉命之人, 何敢私相尋訪他罪人, 若是其無忌憚乎? 蔑法縱恣, 至於此極, 則罪人拿來之際, 不能嚴祕, 必多疎漏之弊, 亦可知矣, 事之寒心, 莫此爲甚. 請禁府都事尹楡, 拿問定罪.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24. 이시중(李時中)

- 신분: 관리(의영고 주부)
- 유배 연월: 1689년(숙종 15) 8월 2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337) 1689년(숙종 15) 8월 20일.

○ 禁府, 劉自勗光陽縣, 李世憲昆陽郡, 丁大祿河東縣, 極邊定配. 李敏哲珍島郡, 李時中旌義縣, 申彦華濟州牧, 柳滌巨濟縣, 吳定邦南海縣, 絶島定配. 啓. 以上朝報

25. 김선필(金善弼)

- 신분: 내관(內官)
- 유배 연월: 1689년(숙종 15) 12월 11일.
- 해배 연월: 1693년(숙종 19) 4월 6일.
- 사유: 봉당(기사환국 김석주〈金錫胄〉 친밀)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21) 1689년(숙종 15) 12월 11일.

○ 下備忘記曰: “申潭負犯, 與金鉉一也. 而身死未正法. 妻子用律文, 流二千里安置. 金善弼亦與凶胄親密, 情狀可惡, 不可置輦轂之下. 絕島定配, 以嚴懲惡之典. 潭與善弼, 皆宦官也.”

2) 『승정원일기』(권 338) 1689년(숙종 15) 12월 11일.

○ 以備忘記, 傳于金聲久曰, 申潭負犯, 與正刑罪人金鉉, 一而二, 二而一者, 而渠既身死, 不得正法, 誠可痛也. 令該府申潭妻子, 依律文流二千里安置, 金善弼, 亦與兇胄親密, 情狀可惡, 故自內, 曾罪罰, 而終不可置諸輦轂之下, 絕島以嚴懲惡之典.

3) 『승정원일기』(권 352) 1693년(숙종 19) 4월 6일.

○ 禁府啓目, 李昌興刑問二次, 不服, 加刑得情, 何如? 啓依允. 又啓目, 崔俊傑刑問三次, 李鎰刑問六次, 不服, 加刑得情, 何如? 啓各別嚴刑得情. 又啓目, 內官鄭重亨上言云云, 其父金善弼, 以親密凶胄, 定配絕島, 則當初免死, 於渠亦幸, 勿施, 何如? 啓罪名雖重, 原其情, 則與潭等有異, 五年編配, 亦足懲罪, 特爲放歸田里.

4) 『숙종실록』(권 25) 1693년(숙종 19) 4월 9일.

○ 憲府啓曰: “旌義定配罪人金善弼, 有放歸田里之命. 善弼以內官, 親密凶胄, 因傳教定配. 當初免死, 既是寬典, 到今其子之呼籲駕前, 願移陸地, 亦極猥越. 而特有之命, 出於覆啓之外, 請還收.” 答曰: “勿煩.” 爭之累月, 終不允.

5) 『승정원일기』(권 352) 1693년(숙종 19) 4월 9일.

○ 司憲府啓曰, 伏聞因旌義縣定配罪人金善弼養子鄭重亨上言, 有善弼放歸田里之命, 臣等, 取考禁府徒流案則善弼, 以內官, 親密兇冑, 因傳教定配絕島, 觀其罪名, 則當初免死, 既是寬典, 到今其子之呼籲駕前, 願移陸地, 亦極猥越, 而不料特有之命, 出於該府覆啓之外, 仰惟聖明, 嚴內外之別, 謹隄防之道, 方以德屹事, 罪尙仰, 備忘之下, 人心莫不悅服, 今此疏釋之典, 決不可施之於親密兇冑之善弼. 請還收旌義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 答曰, 不允.

6) 『승정원일기』(권 352) 1693년(숙종 19) 5월 29일.

○ 府啓, 金善弼·崔尙仰事, 停啓.

26. 이의징(李義徵)

- 신분: 관리(훈련대장)
- 유배 연월: 1694년(숙종 20) 7월 7일.
- 사망 연월: 1695년(숙종 21) 1월 23일.
- 사유: 봉당(갑술환국)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27) 1694년(숙종 20) 7월 5일.

○ 領議政南九萬 判義禁申汝哲 知義禁尹趾善申琬 同義禁安如石 執義韓聖佑 獻納沈極 議鞫獄以啓, 蓋一用九萬前後入對所奏而爲之辭, 李玄逸極邊圍籬安置, 李義徵絕島圍籬安置, 咸以完惟當與閔黯及章道同其罪, 金寅以誣告論, 金元燮極邊遠竄, 張萬春極邊定配, 李時棹以反坐論, 朴義吉·朴貴根定配. 尹大男, 李三達, 李成豹, 李益華, 李養中竝放. 上皆從之, 只加金元燮以安置之律.

2) 『승정원일기』(권 360) 1694년(숙종 20) 7월 7일.

○ 以義禁府意啓曰, 旌義縣圍籬安置罪人李義徵押去啓目, 旣已啓下, 卽當定配次放送, 而臺諫, 方以亟正邦刑, 論啓, 不得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숙종실록』(권 28) 1695년(숙종 21) 1월 22일.

○ 御晝講. 持平李世載, 正言李喜茂, 爭論李義徵事. 世載曰: “義徵罪狀, 下賤皆曰可殺, 則公共之論, 據此可知.” 喜茂曰: “希載死罪, 特以春宮外戚, 或雖留難, 而義徵之尙斬允俞, 實未可曉也. 己巳之禍, 皆由於此人, 而且以坤宮爲禍本, 欲襲呂夷簡, 閻文應之凶計, 做出西小門外隱伏之說, 欲以延及於不敢言之地, 其罪決不可容貸.” 知經筵申翼相曰: “自古人臣負罪, 未有如義徵而得生者也.” 特進官尹趾善, 檢討官趙泰采亦以爲言, 上命參酌賜死.

4) 『숙종실록』(권 28) 1695년(숙종 21) 1월 23일.

○ 罪人李義徵, 賜死于西小門外. 【史臣曰: “義徵以白徒, 冒握重兵, 布置爪牙, 散盡軍貨, 廣設譏訶, 欲售網打之計. 當己巳之初, 締結希載, 偵探宮掖, 和附宗道, 密開邪逕, 終至釀成滔天之禍. 又以金廷說, 曾爲國舅幕裨之故, 幻做西門外隱伏之說, 欲以延及不敢言之地, 是可忍歟? 身居將兵之任, 名入於變書, 草草疏陳, 晏然參鞠, 而申英元之指教, 金寅之啗誘, 奸情慝態, 敗露無餘. 爲臣子負此罪惡, 何可偃息於覆載之間哉?”】

27. 이석(二碩)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01년(숙종 27) 10월 1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장희재 첩<숙정 淑正>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400) 1701년(숙종 27) 10월 12일.

○ 禁府, 謀逆罪人雪春母同生禮仁, 珍島郡, 貴山, 長興府爲奴婢定屬, 罪人時英母同生淑伊, 巨濟縣, 尙烈, 熊川縣爲奴婢定屬, 時英同姓三寸叔韓斗齡, 康津縣流三千里安置, 罪人淑正母子翠容, 南海縣, 墨碩, 大靜縣, 年未滿, 二碩, 旌義縣, 年未滿爲奴婢定屬, 淑正同姓嫡三寸叔安世楨, 機張縣流三千里安置, 淑正同生弟末正, 蔚山府爲奴婢定屬, 罪人丑生同生已生, 光陽縣, 已英, 寶城縣, 後先, 穩城府爲奴婢定屬, 丑生同姓三寸叔二俊, 光陽<縣>, 時迪, 泗川縣, 永贊, 興海郡, 四尙, 鏡城府, 五尙, 樂安郡, 順貞, 金海府, 竝只流三千里安置, 罪人者斤禮女七月? 者斤禮子婦禮伊, 昆陽郡, 者斤禮同生靛同, 固城縣爲奴婢定屬, 以上緣坐.

28. 유항(柳沆)

- 신분: 유생(영남)
- 유배 연월: 1702년(숙종 28) 3월 17일/ 1708년(숙종 34) 5월 21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간쟁/상소(장희빈, 장희재 사사 반대)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6) 1702년(숙종 28) 1월 12일.

○ 正言金相稷, 黃一夏啓曰: “前大司諫尹德駿, 掌令朴泰昌等, 相繼投疏, 而至以昨年親鞫, 謂之不合義理. 希載, 業同, 何等惡逆, 而其時按獄大臣, 汲汲營護, 到今二賊伏法之後, 兩臣請罪之啓, 實出於一國公共之論, 則德駿輩挺身分疏者, 已極無嚴, 至於姜世龜之疏, 語極危險. 其煽動疑亂之罪, 合置重誅, 而相與和應, 費辭力辨, 其縱恣無忌, 何至此哉? 請竝罷職. 日昨嶺儒柳沆爲名者, 投進一疏, 政院退却, 而概聞其主意, 則以昨年討逆, 歸之誣獄, 掘穢宮禁, 謂之暗昧. 沆雖遐方鄙儒, 亦是殿下臣子, 則何敢以大庭親鞫, 快施天討之獄, 置諸疑信之間, 肆然投疏, 略無顧忌乎? 請拿致鞫問.” 不從.

2) 『숙종실록』(권 36) 1702년(숙종 28) 3월 4일.

○ 司諫崔重泰上疏, 首陳正朝廷辨邪正之道, 次辨尹行教疏中營救私黨, 訾議先正臣宋時烈, 故相臣金壽恒·閔鼎重之罪. 且請柳沆投畀, 痛禁武弁違牌之弊, 未乃引《中庸》之擇善固執, 《書傳》之二三其德, 縷縷勉戒, 答曰: “憂時進言之誠, 予用嘉尙. 可不留意, 而柳沆事所論亦好, 投之絕島, 以嚴懲討之典.”

3) 『승정원일기』(권 403) 1702년(숙종 28) 3월 17일.

○ 刑曹, 投疏人柳沆, 旌義縣絕島定配. 啓.

4) 『숙종실록』(권 44) 1706년(숙종 32) 9월 17일.

○ 是夜, 上出御仁政門殿坐, 參鞫諸臣, 以次入侍. 上教曰: “人心, 世道, 日益壞亂, 怪駭

之疏, 前後相繼. 林漙纔已參酌定配, 曾未幾何, 又有此李潛之疏, 至以左右前後, 向刃春宮等語, 肆然筆之於疏中, 過半朝廷之人, 一併驅入於罔測之科, 有同變書, 豈不痛哉? 孝廟朝有徐忤者, 投進罔測之疏, 孝廟震怒, 亦嘗親鞫處斷. 予於此輩, 若不明覈痛治, 則將至於國不爲國, 朝廷不爲朝廷, 故予方親鞫矣.” 領議政崔錫鼎曰: “臣未及見李潛疏, 故不知其語意之如何矣, 今承上教, 豈料人心, 世道之至於此極耶? 請下原疏, 以爲招出問目之地何如?” 上出給原疏, 命金吾堂上, 相議出問目. 潛納供之際, 言辭悖慢, 上曰: “罪人極爲放恣. 在予前尙如此, 何所不爲? 如許之漢, 予實初見矣. 各別嚴刑.” 仍下教曰: “兩相本心, 予非不知, 而誤之大者罪大, 誤之小者罪小. 辛巳變起之後, 兩司追論兩臣, 至於付處, 實出參酌. 其時論啓之人, 元不係於向刃春宮, 何可以此爲言? 予之在時, 邪論猶尙如此, 日後之禍, 何可勝言? 若予不在之後, 則如濟州罪人柳沆之徒, 接迹而起, 必欲伸救逆張而後已, 辛巳之獄, 未知歸諸何地, 而他日必爲禍根矣. 如此之人, 必誅罔赦. 今茲親鞫, 爲防後患. 且其疏中, 以按鞫大臣, 不爲請拿爲言. 大臣非逆, 則不可鞫問, 而必欲驅入於罔測之地, 是誠何心? 迹其所爲, 萬萬凶慘. 予之在時, 豈敢以如此等語, 肆然仰達乎?” 訊問時, 上曰: “纔下罪人, 各別嚴刑之命, 而執杖羅將, 訊杖之際, 顯有從輕之狀, 極爲痛駭. 令攸司, 囚禁科罪.” 潛受一次刑不服, 命姑罷親鞫.

5) 『승정원일기』(권 442) 1708년(숙종 34) 5월 21일.

○ 上御資政殿, 疏決引見入侍時, 左議政李濡, 判府事李頤命, 判義禁李益壽, 知義禁金字杭, 同義禁閔鎮遠·李晚成, 刑曹參判金演, 參議任胤元, 右副承旨朴泰恒, 掌令尹會, 正言鄭纘先, 校理李堦, 假注書洪尙寅, 記事官鄭來周, 記注官南世珍. … 全羅道罪人達之, … (金)演讀柳沆罪目. 上曰, 仍.

29. 한도장(韓道章)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02년(숙종 28) 6월 16일.
- 사망 연월: 1705년(숙종 31) 10월 12일.
- 사유: 범죄(배소<진도> 이탈)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404) 1702년(숙종 28) 6월 16일.

○ 特進官閔鎭厚啓, 頃於筵中, 以明禮宮穀物敗船, 船人朴允男等事, 有所陳達, 而舉行條件, 搆草之時, 臣誤以壽缺書送, 不勝惶恐, 且其時上教停刑仍囚之外, 似又有他教, 而臣及注書缺自記得, 舉行條件中, 只以停刑, 上曰, 不可一向仍囚, 宜有區處之缺緝, 以允男等, 似非故敗之意, 陳達, 半行缺刑訊之教, 故臣於允男等, 受刑三次之後, 循例缺刑, 而詳考文書, 則允男等之事, 未知其決非故敗矣. 當初內司手本中, 別遣宮差摘奸, 則米十石, 無水沈之事云云, 而以本道查啓見之, 則長淵色吏輩招辭, 皆以不見米石爲言, 此是大段違端, 自本曹憑問於其時摘奸宮差, 詳知曲折, 後更爲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又所啓, 罪人韓道章, 初犯死罪, 因捉告越獄罪人之功, 減死定配於珍島, 擅離配所, 潛入京中, 拔劍作挐於士夫齊會之處, 臺官論啓, 自本曹刑推三次, 而猶不承服, 故更請加刑矣. 道章前後罪狀, 萬分痛惡, 而拔劍作挐一款, 三次之刑, 亦足懲罪, 數字缺律不過杖一百, 還發配所, 則半行缺百惡俱備, 珍島之民, 半行缺有作弊之事云, 今若半行缺受害, 雖無彼此之別, 而出陸半行缺敢此仰達. 上曰, 情狀雖甚痛駭, 而既非死罪, 移配于濟州等處, 可也.

2) 『승정원일기』(권 405) 1702년(숙종 28) 윤6월 19일.

○ 上曰, 旌義定配罪人韓道章, 其罪可惡, 而不必置之死刑, 故自刑曹刑訊三次後, 發送配所矣. 今見京畿監司狀啓, 則結縛押去下人, 中道逃躲云, 誠極痛駭, 若不別樣懲治, 則日後之弊, 有所難言者, 今雖在逃, 不可不及時跟捕, 亦不可以竄配之律, 又爲勘斷, 令該曹設機捕捉, 不待時稟示, 可也. 上曰, 考見司諫院時推單子, 則己卯年金致龍推考, 尙未

明勘，致龍，連在京中，與在鄉者有異，而已至四年，不爲畢勘，稽緩，甚矣.參贊官金德基曰，不卽緘答，以致未勘，則責在於帶推者，而緘辭書送之後，尙未畢推，則責在諫院矣.上曰，無論帶推者之不卽緘答，諫院之趁未照勘與否，日後別爲申飭，時推人員，使之速爲照勘，可也.

3) 『승정원일기』(권 426) 1705년(숙종 31) 10월 12일.

○ 刑曹, 罪人韓道章, 當日堂古介行刑.啓.

30. 민시준(閔時俊)

- 신분: 관리(사헌부 부리<府吏>)
- 유배 연월: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이배 연월: 1703년(숙종 29) 11월 16일(흑산도).
- 사유: 범죄(과거 부정)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3) 1699년(숙종 25) 12월 30일.

○ 初, 禁府捧收券官金戡·金時郁, 謄錄官吳碩夏, 封彌官洪受禹招. 戡, 時郁曰: “收券之際, 適觀憲府吏, 頻頻下來于收券所, 閱試券, 考其某軸某張, 驚駭而叱退之.” 碩夏曰: “明朝出榜之夜, 與封彌官同寢, 憲吏閔時俊, 開戶入坐. 極以爲駭, 速令出去, 則微哂曰: ‘勿爲驚怪. 曾前科舉, 進士及第, 多出吾手. 如此之事, 其來已久.’ 云, 突出皮封櫃, 持金開鎖, 初場皮封四條, 卽爲拔去. 意謂皮封, 乃封彌官所職, 日後發覺, 責有所歸, 趑趄未告, 含默至今.” 云. 受禹招, 與碩夏無異. 遂讞奏: “時俊抽出皮封之狀, 旣爲目覩, 至有問答之語, 而旣不奪取, 又不發告, 不可謂不知情. 四張皮封之爲某軸某張, 必無不知之理, 終場皮封之不爲發說, 亦甚可疑. 竝請刑推.” 易書書吏等, 自刑曹囚推.

2) 『숙종실록』(권 38)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司諫金相稷, 獻納尹憲柱, 停科獄還收啓, 禁府遂決遣諸囚. 宋晟 濟州, 李聖輝 羅州智島, 鄭順億 黑山島, 李秀哲 康津 古今島, 李道徵 興陽 鹿島, 朴泰晦 珍島, 朴弼渭 金甲島, 金麟至 順天 防踏, 吳碩夏 大靜, 洪受禹 巨濟, 閔時俊旌義, 竝爲奴定配. 識者歎曰: “科賊生出獄門, 國無刑矣.”

3) 『승정원일기』(권 414) 1703년(숙종 29) 10월 14일.

○ 禁府, 宋晟濟州牧, 李聖輝羅州牧智島, 吳碩夏大靜縣, 洪受禹巨濟縣, 金麟至順天府防踏鎮, 李秀哲康津縣古今島, 李道徵興陽縣鹿島, 朴泰晦珍島郡, 鄭順億羅州牧黑山島, 閔時俊旌義縣, 朴弼渭珍島郡金甲島, 爲奴定配. 啓.

4) 『승정원일기』(권 415)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禁府, 宋晟·李道徵大靜縣, 李聖輝·李秀哲·朴泰晦濟州牧, 吳碩夏·洪受禹·鄭順億·閔時俊黑山島, 金麟至·朴弼渭旌義縣, 爲奴改配, 洪時紀巨濟縣, 慎之逸南海縣, 趙衛漢興陽縣, 減死定配, 柳渭光陽縣, 邊遠定配. 啓.

31-32. 김인지(金麟至), 박필위(朴弼渭)

- 신분: 관리(서윤庶尹), 유생
- 유배 연월: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1730년(영조 6) 10월 2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과거 부정)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3) 1699년(숙종 25) 12월 30일.

○ 備局又啓請: “令禮曹, 收聚會試入格試券朱草, 該曹堂上與禁府, 刑曹堂上, 一處同坐, 考閱其祕封, 易書, 封彌, 枝·查等筆迹及場屋印信同異.” 於是, 禮曹判書金構, 參議李寅燁, 刑曹判書李彥綱, 參判金錫衍, 知義禁李玄錫, 同義禁申厚命, 齊會禮曹, 考閱入格試券, 則宋晟試券, 三處所書三露字號筆迹, 與李鳳年四露試券字號筆迹, 頗似不同. 且其試券中文字墨抹, 至於五六十處, 而所改書者, 率多還用本字. 落幅朱草中二成填號之策, 與宋晟三露入格之文, 虛頭純同, 中頭一段及救弊四五行差異, 而其餘全篇, 無非雷同, 二成見落之文, 變爲三露入格之文者, 有不可掩. 左議政徐文重, 又請聚會諸試官於賓廳, 憑考試券, 驗其真僞. 諸試官承命會閱, 皆以爲高中之作, 明白無疑, 而其餘賦表中句語, 策問中文字, 雖或間間記得, 全篇則時日已久, 不能盡記云. 於是李彥綱上疏言: 臣之待罪京兆也, 庶尹金麟至見差應辦官, 過初場後, 臣取見其科製, 則其中有穀腹絲身一句, 臣心病其文字之不雅, 至有對郎僚疵短之言. 試券考較時, 見其試券, 其全篇文字異同, 雖不能盡記, 日前所見穀腹絲身一句, 不在其中, 臣竊訝惑, 莫知其故也. 上下禁府, 麟至遂就拿. 受禹, 碩夏竝受刑一次, 受禹乃改供曰: “曾與朴泰晦, 有面分矣. 一日泰晦來言: ‘五子弼渭, 方赴會試, 君如入試所, 未可顧見耶?’ 厥後又言: ‘吳碩夏及君, 已圖差差備官, 須相議顧見.’ 云. 碩夏本爲沈益昌, 朴泰晦謀議, 入試所者也. 碩夏以速從時俊之言力勸, 故陷於奸謀, 不能牢拒, 則時俊與順億, 抽出皮封四張, 時俊持其三張而出, 分給朴弼渭, 李聖輝, 李秀哲, 一張則順億以碩夏言, 出給益昌. 已而, 順億來言: ‘沈成川言: 「此皮封不好. 決非吾等士大夫皮封, 還爲入送.」’, 而出榜後聞之, 則順億出給於李道徵云.” 碩夏改供曰: “受禹言: ‘在外時, 朴弼渭, 李秀哲, 李聖輝等懇囑, 故果爲書給, 君須默默勿

傳.’云. 且曰: ‘一秋, 十盈, 六黃, 似非渠所書.’云.” 一秋則金麟至, 十盈則李秀哲, 六黃則李聖輝之試券也. 麟至以爲: “穀腹緣身四字, 果用於起草之時, 而臨寫猝改, 直書試紙. 翌朝判尹送人求見, 忽遽之中, 送示草本.”云. 金吾讞奏以爲: “倉卒中臨時改書, 乃是場中不足怪之事, 送示草本之未及刪改者, 頗涉可疑, 而渠所謂果有他意, 何以送示, 既已送示, 則亦何敢作奸云者, 亦近情實之言. 皮封既無出給之事, 則字畫亦似無不同之理, 而碩夏既已發告, 獄體所當訊問.”云. 時, 知義禁李玄錫, 同義禁申厚命, 以麟至之姻親, 顯有容護之迹, 至以自明之供辭, 歸之情實, 不同之字畫, 諉之無理, 物議駭之. 李聖輝, 宋晟, 朴泰晦, 李秀哲, 皆累招牢諱, 竝加訊問. 朴弼渭, 以謀出泰晦, 事係證父, 而姑徐之.

2) 『숙종실록』(권 38)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司諫金相稷, 獻納尹憲柱, 停科獄還收啓, 禁府遂決遣諸囚. 宋晟 濟州, 李聖輝 羅州智島, 鄭順億 黑山島, 李秀哲 康津 古今島, 李道徵 興陽 鹿島, 朴泰晦 珍島, 朴弼渭 金甲島, 金麟至 順天 防踏, 吳碩夏 大靜, 洪受禹 巨濟, 閔時俊旌義, 竝爲奴定配. 識者歎曰: “科賊生出獄門, 國無刑矣.”

3) 『승정원일기』(권 414) 1703년(숙종 29) 10월 14일.

○ 禁府, 宋晟濟州牧, 李聖輝羅州牧智島, 吳碩夏大靜縣, 洪受禹巨濟縣, 金麟至順天府 防踏鎮, 李秀哲康津縣古今島, 李道徵興陽縣鹿島, 朴泰晦珍島郡, 鄭順億羅州牧黑山島, 閔時俊旌義縣, 朴弼渭珍島郡金甲島, 爲奴定配. 啓.

4) 『승정원일기』(권 415)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禁府, 宋晟·李道徵大靜縣, 李聖輝·李秀哲·朴泰晦濟州牧, 吳碩夏·洪受禹·鄭順億·閔時俊黑山島, 金麟至·朴弼渭旌義縣, 爲奴改配, 洪時紀巨濟縣, 慎之逸南海縣, 趙衛漢興陽縣, 減死定配, 柳渭光陽縣, 邊遠定配. 啓.

5) 『승정원일기』(권 712) 1730년(영조 6) 10월 2일.

○ 洪尙賓, 以義禁府言啓曰, 取考丁酉以來啓下, 本府擊錚及上言, 則朴鳳瑞, 爲其高祖承宗, 伸冤事, 吳載運, 爲其祖始壽, 伸冤事, 韓道增, 爲其父重爨, 伸冤事, 洪致源, 爲

其叔義人，其父哲人，其祖彥慶，伸理事，趙氏，爲其夫洪致祥，伸冤事，內官金重一·洪澤，爲其養父祖世忭，定配放釋事，姜遂，爲其父世胤，伸辨事，李以復，爲其父萬準，定配放釋事，奴來復，請免其曾祖父賊碓，坐籍沒事，奴介也之，爲其上典淑只，緣坐放釋事，金教行，爲其父時哲等，緣坐放釋事，金萬裕，爲其父煥，伸冤事，睦天光·天顯等，爲其祖來善，伸冤事，吳氏，爲其夫金獐至，出陸事，朴弼隆，爲其父泰晦，出陸事，宋遇璟，爲其父尙用，伸冤事，裴胤休，爲其兄胤命，定配放釋事也。各人等，或係昏朝凶黨，或關前後鞫獄，或關惡逆緣坐，或關誣告，或關名義，或關辛巳科獄，或所坐甚重，不可以親屬之上言擊鼓，有所輕議，既不可輕議，則亦不必一一覆啓，竝姑置之，至於天海妻母上言，則乃敢爲其夫河潤源訟冤，事極絕痛，而喉司之初不拔去，殊涉不察。此上言，不置於舉論中之意，敢啓。傳曰，知道。此上言，混下該曹，極爲未安，當該承旨，從重推考。

33. 조성복(趙聖復)

- 신분: 관리(집의)
- 유배 연월: 1722년(경종 2) 5월 4일.
- 해배 연월: 1722년(경종 2) 10월 5일.
- 사유: 봉당(세제<영조>)의 대리청정 요청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5) 1721년(경종 1) 10월 10일.

○ 執義趙聖復上疏曰: 殿下念宗社之大策, 推因心之至愛, 上體先志, 內稟慈旨, 亟定國本, 允屬元良. 殿下此舉, 誠卓越於百王, 罕覩於往牒. 第离筵勸講, 實爲今日急務, 謂宜勉勵春宮, 書筵法講, 毋或暫輟, 雖值齋戒, 輒引僚屬, 討論書史, 俾無十寒一曝之憂也. 曾在先朝丁丑年間, 廷臣有以引對臣隣之際, 令殿下, 傍侍參聞, 教習國事之意, 上章陳請者, 臣謂爲此言者, 誠得訓迪儲君之法. 殿下, 其時尚在沖年, 而猶且云然. 今日東宮年貌之壯盛, 不啻倍蓰於殿下之當年, 則明習庶政, 尤豈非當務之急? 殿下倘於臣僚引接之際, 政令裁決之間, 輒引世弟, 侍側參聽, 商確可否, 隨事訓習, 則其必明練於庶務, 而有補於國事矣. 伏願殿下, 深留聖意, 仰稟慈旨而進退焉. 上答曰: “所陳好矣. 可不留意?”

2) 『경종실록』(권 5) 1721년(경종 1) 10월 12일.

○ 安置趙聖復于珍島郡, 竄李眞儉于密陽府.

3) 『경종실록』(권 7) 1722년(경종 2) 4월 14일.

○ 禁府囚趙聖復.

4) 『승정원일기』(권 540) 1722년(경종 2) 5월 2일.

○ (右議政)崔錫恒曰, 罪人趙聖復, 二次嚴刑, 終不直告, 似當加刑, 而此與逆獄有異, 渠雖無狀, 職是臺官, 一向嚴刑, 終至殞斃, 則既非聖朝之美事, 且關後弊, 今姑參酌, 絕島圍籬安置, 何如? 上曰, 唯.

5) 『경종실록』(권 8) 1722년(경종 2) 5월 4일.

○ 安置趙聖復於旌義, 加圍籬尹廷舟於固城, 配玄德明於羅州, 洪哲人於渭原, 金壽天於濟州, 鶴孫於大靜, 李尙建於三水.

6) 『승정원일기』(권 544) 1722년(경종 2) 9월 9일.

○ (司諫李世德, 獻納尹聖時, 正言趙鎮禧所啓 …) 又所啓, 請旌義圍籬安置罪人趙聖復, 更令鞠廳拿來, 嚴刑究問, 快施典刑.措語同前 上曰, 依啓.

7) 『경종실록』(권 10) 1722년(경종 2) 10월 5일.

○ 鞠廳囚趙聖復.

34. 김선재(金善材)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3년(경종 3) 1월 10일.
- 해배 연월: 1726년(영조 2) 6월 25일 이전.
- 사유: 연좌(폐비윤씨복위운동 김춘택〈金春澤〉 조카, 김민택〈金民澤〉 아들)
- 관련 사료

1) 『경종수정실록』(권 4) 1723년(경종 3) 1월 10일.

○ 流金祖澤 南海縣, 金福澤 巨濟府, 金廷澤 珍島郡, 金延澤 智島, 金德材 濟州牧, 金善材 旌義縣, 金俊材 黑山島, 金厚材 金甲島, 金偉材 薪智島, 金養材 扶安縣, 金聖材 珍島郡, 金用材 扶安縣, 金騏孫 楸子島, 金海得 古今島, 皆金春澤之諸弟, 子, 姪. 從李眞儒之請也. 逆獄緣坐, 二三歲兒, 有勿爲定配之受教, 今乃一併流配於絕島, 母子分離, 呼哭干和, 非王政之所宜有. 其時史官, 亦以此刺評者, 猶有一段未泯之公議, 而凶黨用法之慘, 亦可見矣.

2) 『승정원일기』(권 619) 1726년(영조 2) 6월 25일.

○ 吏批, (以)金善材爲翼陵參奉.

3) 『승정원일기』(권 1101) 1753년(영조 29) 12월 10일.

○ 上曰, 金善材誰子耶? 徐宗弼曰, 金民澤之子也.

35. 이수민(李壽民)

- 신분: 관리(통제사)
- 유배 연월: 1723년(경종 3) 5월 13일.
- 사망 연월: 1725년(영조 1) 3월 25일 이전.
- 사유: 봉당(임인무옥 관련)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8) 1722년(경종 2) 6월 15일.

○ 憲府【掌令李基聖.】申前啓, 又啓曰: “前統制使李壽民, 在統營也, 倚藉權勢, 貪饕益肆, 其時暗行御史之啓, 至以專廢軍務, 唯事料理爲言. 其私黨之斟酌未減, 猶尙如此, 則其貪鄙尸職之罪, 灼然可見. 凶賊赴謫之日, 至欲出院門而迎送. 統使之不得私出院門, 法例則然. 雖因人挽止, 計卒中止, 其心同氣膈, 左袒賊魁之狀, 節節明矣. 逮夫兩凶之在荇棘也, 船運陸續, 專以參養凶賊爲事. 目今鞫事未了, 人心危疑, 不可使凶賊餘孽, 一日偃息於輦轂之下, 請遠竄.” … 竝不從.

2) 『경종실록』(권 8) 1722년(경종 2) 6월 19일.

○ 憲府申前啓, 又啓曰: “向者權凶擅國, 債帥狼藉. 前統制使李壽民, 蝨附頤, 集之門, 濫叨閭臬之任, 頃年國恤之初, 托以都監所納軍木三百同, 使其親信私人, 領送京中, 而去處不明. 噫! 凶黨之密逕行貨, 莫非交通三手, 不可不窮覈去處. 請李壽民拿鞫嚴問. … 竝不從.

3) 『경종실록』(권 9) 1722년(경종 2) 8월 18일.

○ 禁府罪人李壽民移送鞫廳.

4) 『경종실록』(권 4) 1723년(경종 3) 5월 13일.

○ 上御宣政殿前廡, 行疏決. 命申鉉出陸撤籬, 趙尙綱, 任陞, 金有慶, 趙榮福, 俞崇, 尹廷舟量移, 尹在重, 權鷹, 俞夏基減等, 具鼎勳, 金令行, 李邦華, 金昌發放送. 時囚罪人

李壽民減死，絕島定配，又有刑曹輕囚及諸道流配罪輕者。

5) 『승정원일기』(권 558) 1723년(경종 3) 9월 1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以統制使狀啓，刑曹粘目，前統制使李壽民，南海前縣令趙台相等，移本府處置事，允下矣。李壽民，前以他罪，定配於濟州牧旌義縣配所，趙台相，自任所時未上來云.竝依例發遣府書吏拿來，何如？傳曰，允.

6) 『승정원일기』(권 560) 1723년(경종 3) 11월 8일.

○ 金始慶，以義禁府言啓曰，因統制使南泰徵狀啓，濟州牧旌義縣絕島定配罪人李壽民拿來事，前已發遣府書吏，時未入來矣.李壽民因赦蒙放，依前罪目，更遣府書吏還配之意，敢啓.傳曰，知道.

7) 『영조실록』(권 4) 1725년(영조 1) 3월 25일.

○ (判義禁府事) (洪)致中曰：“李壽民，以先朝舊將，竄死絕域，宜復官，趙洽，以誣告論斷.” 許之.

36. 조정빈(趙鼎彬)

- 신분: 관리(호조 좌랑)
- 유배 연월: 1723년(경종 3) 12월 19일.
- 해배 연월: 1725년(영조 1) 3월 2일.
- 사유: 연좌(신임사화, 부친 조태채〈趙泰采〉, 노론4대신)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13) 1723년(경종 3) 12월 19일.

○ 定配趙鼎彬於旌義縣, 觀彬於興陽縣, 謙彬於巨濟府, 李廷煥妻於黑山島. 是泰采子女也. 泰采情節, 與頤, 集輩差間, 初至論死, 終未免過重. 況既不施逆律, 則追配其子於絕島, 不亦甚乎? 且廷煥妻所犯, 罪係綱常, 按查正法可也, 而只以成獄無階, 直請投畀. 竄流之禍, 及於婦女, 是可忍耶? 蓋其時傳說, 趙女將埋凶於諸讎家, 故一鏡等慮其害及, 嗾臺官而成其事云.

2) 『영조실록』(권 4) 1725년(영조 1) 3월 2일.

○ (禮曹判書) “(閔)鎮遠曰: “趙泰采子, 初非緣坐, 而搆出怨國之罪, 至竄其女, 尤是世變, 囚其俾僕, 累次刑訊, 尙在獄中矣. 泰采既昭雪, 則其子亦宜放釋.” 上曰: “趙女事, 向見其奴擊錚原情, 甚殘忍矣. 婢僕之移送捕廳, 必欲取服, 殺之而後已, 然徑竄於未究竟之前, 違法甚矣. 趙鼎彬三兄弟及其妹竝放送.” 鳳祥陳趙氏婢僕宜放, 命放送.

3) 『승정원일기』(권 588) 1725년(영조 1) 3월 6일.

○ 申弼賢,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旌義縣減死絕島定配罪人趙鼎彬, 興陽縣羅老島減死絕島定配罪人趙觀彬, 安陰縣遠竄罪人趙道彬, 南原縣遠竄罪人吳重周, 寧遠郡遠竄罪人慎無逸, 寧海府遠竄罪人李廷燾, 務安縣緣坐罪人李明會, 海南縣緣坐罪人李明翼, 朔州府緣坐罪人李弘選·李世裕, 宣川府緣坐罪人李弘邁, 鐵山府緣坐罪人李世祉, 興陽縣羅老島緣坐罪人李世福, 舒川郡緣坐罪人泰婉, 龍安縣安置罪人終愛, 竝放送事, 承傳啓下矣. 右罪人等放送事, 分付各道之意, 敢啓. 傳曰, 知道.

37. 이시필(李時弼)

- 신분: 중인(의관)
- 유배 연월: 1723년(경종 3) 12월 3일.
- 사망 연월: 1724년(경종 4) 윤4월 9일.
- 사유: 범죄(흉언)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13) 1723년(경종 3) 12월 3일.

○ 命結案罪人李時弼, 減死定配於旌義縣. 時弼, 內局醫也. 老且聾, 酒後對諸醫, 語多譏辱. 諸醫執以爲指斥乘輿, 播於朝紳間, 臺官李普昱, 發啓請覈. 時弼引鍼醫李得英等, 得英等始依違, 未乃證成之, 遂移鞠廳訊問, 至再遂自服. 右議政李光佐與判義禁姜錕等, 請對言: “渠雖承款, 情有可察, 或減死島配, 或長流不赦, 不害爲聖德事矣.” 且言籍產, 亦宜酌處. 上下教曰: “時弼所遭, 雖曰妄悖, 大臣筵奏, 極其正當, 減死定配.” 政院覆逆, 上不從.

2) 『경종실록』(권 14) 1724년(경종 4) 윤4월 9일.

○ 李時弼, 自濟州就拿, 至南海自殺, 憲府論押來禁府都事, 防守不嚴, 請拿問定罪. 上從之.

3) 『승정원일기』(권 567) 1724년(경종 4) 윤4월 9일.

○ 今此濟州押來罪人李時弼, 中路物故, 以致失刑, 事甚駭惋. 押來都事不謹檢勅之罪, 不可不懲, 請當該禁府都事, 拿問定罪. 依啓.

38. 김일경(金一鏡)

- 신분: 관리(우참찬)
- 유배 연월: 1724년(영조 즉위) 11월 11일.
- 나국 연월: 1724년(영조 즉위) 12월 4일.
- 사유: 정권 변동(영조 즉위, 신임사화 주동<노론4대신 처형 등>)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2) 1724년(영조 즉위) 11월 11일.

○ 安置金一鏡於絕島. 教曰: “一鏡敢以不忍引之事, 肆然書之於代撰之中, 叫呼殯殿, 寧欲溘然. 其在嚴懲討之道, 不可削黜而止, 絕島安置, 當日內押送. 向以朋黨事, 面諭丁寧, 而一鏡所犯, 關係至重, 爲臣子者, 安敢一毫營護? 而急於私黨, 不顧分義, 此予所謂朋黨甚, 而是非不明者也. 不可罷職而止, 伊日覆逆承旨, 削奪官爵, 門外黜送.”

2) 『영조실록』(권 2) 1724년(영조 즉위) 11월 20일.

○ 右議政趙泰億奏曰: “義淵, 一鏡, 有因山後鞫問之命, 而罪人豈可拿囚數月, 置而不問乎? 義淵誣先王, 是殯殿罪人. 臣與領, 左相相議, 皆以爲趁今設鞫爲宜云矣.” 上曰: “左揆意如何?” 鳳輝曰: “臣遭義淵之詆斥, 不敢言, 而設鞫事, 諸議皆以爲不可少緩.” 上曰: “義淵, 一鏡, 當不問, 直爲正法, 而昔鼂錯衣朝衣, 斬東市, 後人譏之. 人主操生殺之權, 而必爲鞫問者, 蓋杜後日之害也. 義淵爲先設鞫, 一鏡拿來後, 亦爲設鞫可也.”

3) 『영조실록』(권 2) 1724년(영조 즉위) 12월 1일.

○ 上引見領議政李光佐, 右議政趙泰億. 光佐陳: “侵斥大臣疏, 勿捧之教, 雖幸收還, 爲大臣而防人言, 其能爲臣子乎? 朴趾赫之疏, 既有捏陷臣等之語, 則雖以營護義淵而投畀, 此與勿捧疏之教同矣.” 又曰: “自上建極然後, 可以感化人心. 以罪制下, 則其下受罪而已, 其心則不服矣.” 光佐請寢山陵隨幸之命, 不許. 光佐陳: “金一鏡拿來都事, 尙今不來. 此去康津船所, 卽十一日程, 罪人拿來, 倍日竝行, 而今已十二日, 尙不來. 請拿來都事, 待一鏡拿來後, 拿問定罪.” 上曰: “予亦以爲稽緩, 而大臣之言如此, 依爲之.”

4) 『승정원일기』(권 578) 1724년(영조 즉위) 11월 11일.

○ 備忘記, 傳于趙遠命曰, 噫, 一鏡教文之語, 靜以思之, 不覺心裂. 噫嘻, 往逆之事, 謂何如, 而敢以不忍引之辭, 肆然書之於代撰之中乎? 叫呼殯殿, 寧欲溘然, 其在嚴懲惡之道, 不可削黜而止. 絕島安置, 當日內押送配所. 向以朋黨事, 勉諭丁寧, 而一鏡所犯, 關係至重, 爲臣子者, 每敢一毫營護之意, 而急於私黨, 不顧分義, 此予所以朋黨甚而是非不明者也, 不可坐罷而止. 伊日覆逆承旨, 削奪官爵, 門外黜送.

5) 『승정원일기』(권 579) 1724년(영조 즉위) 11월 17일.

○ 金啓煥,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旌義縣絕島安置罪人金一鏡配所加棘事, 承傳啓下矣. 押去都事處, 以此意發關分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6) 『승정원일기』(권 581) 1724년(영조 즉위) 12월 4일.

○ (尹惠教 啓曰 …) 又啓曰, 鞫廳罪人金一鏡渡海與否問啓事, 命下矣. 卽爲招問禁府都事, 則以爲, 都事崔尙恒, 率領罪人, 候風於海南津邊, 未及渡海云矣, 敢啓. 傳曰, 知道.

39. 박필몽(朴弼夢)

- 신분: 관리(도승지, 부제학)
- 유배 연월: 1725년(영조 1) 7월 11일.
- 이배 연월: 1727년(영조 3) 10월 9일(무장현).
- 사유: 정권 변동(영조 즉위, 김일경 소하〈疏下〉 6적〈박필몽, 이명의, 이진유, 윤성시, 정해, 서종하〉)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2일.

○ 命一鏡孥籍, 依虎龍例舉行, 敎曰: “一鏡事, 不忍汚口, 而於國事何等說, 尤極凶悖. 其寧凶之心得成, 則謂之際遇, 不合於心, 則如此陳疏, 陰凶情節, 卽此可知.” 仍以冀, 顯等語陰慘, 命一鏡辛丑疏下李眞儒, 朴弼夢, 李明誼, 鄭楷, 尹聖時, 徐宗厦削奪官爵, 門外黜送.

2)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25일.

○ 義禁府啓: “朴弼夢配茂長, 李眞儒 羅州, 李明誼 淸道, 鄭楷 永川, 尹聖時 密陽, 徐宗厦 安陰.”

3) 『영조실록』(권 7) 1725년(영조 1) 7월 1일.

○ 竄李濟于甲山府, 朴弼夢于慶興府. 請鞫趙聖復之啓, 首發者也.

4) 『승정원일기』(권 596) 1725년(영조 1) 7월 2일.

○ 上曰, 承旨進來. 朴弼夢等六人, 曾有梃棘之命矣. 致遠曰, 臺諫, 方以正刑論啓, 故梃棘傳旨, 姑不得捧入, 而李明誼, 則以他罪, 先已梃棘, 故弼夢之極邊移配, 亦以他罪, 捧入傳旨矣. 上曰, 賊鏡, 旣已正法之後, 則其疏下六人, 豈可使偃息至今耶? 雖於梃棘之後, 一律之啓, 亦可爲之, 且其所犯, 與他有異, 不必以他罪移配, 疏下六人絕島梃棘傳旨, 先爲捧入, 可也. 出學條 致遠曰, 當如聖教. 諸臣, 以次退出.

5) 『승정원일기』(권 596) 1725년(영조 1) 7월 11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茂長縣遠竄罪人朴弼夢, 極邊遠竄事, 承傳啓下後, 以咸鏡道慶興府, 定配所以入矣. 伏聞逆鏡疏下罪人等, 以絕島梲棘傳旨, 先爲捧入事, 榻前下敎云. 朴弼夢押去書吏, 姑勿發送, 以待絕島梲棘承傳啓下舉行矣, 傳旨尙今不下, 有難一向等待, 有所未安. 何以爲之? 敢啓. 傳旨今當啓下, 宜卽舉行.

6) 『영조실록』(권 13) 1727년(영조 3) 10월 6일.

○ 命李眞儒, 朴弼夢, 尹聖時, 鄭楷, 徐宗廈, 李明誼出陸, 朴長潤減等量移. 從領府事李光佐, 判義禁沈壽賢, 吏曹判書吳命恒之請也. 蓋眞儒等六人, 同參賊鏡之疏者也, 長潤, 請改明陵誌文者也. 時壽賢奏曰: “臣頃按一鏡獄事矣. 其時只以敎文及疏語爲問目, 而辛丑疏則元不舉論. 只以一時之同疏, 罪其疏下, 則此甚不然. 況其疏語, 豈有可罪之事乎? 其時搢紳疏之初出也, 無職前銜, 皆已同參. 臣以其時疏頭, 遭彈下鄉, 他皆四散, 而同參人中在京者, 獨一鏡, 以職秩, 推爲疏頭, 疏亦出自其手. 同參之人, 只是一時聯名而已, 豈可無辨別之道哉?” 命恒進曰: “國有大慶, 且經今日大處分, 竄配未放之類, 似是次第舉行之事. 彼李眞儒, 朴長潤諸人之海島竄棘, 洽滿三年矣.” 上曰: “朴長潤之請改誌文, 不思甚矣. 改撰後事, 何以處之耶? 是甚妄矣.” 光佐繼而請之, 上曰: “當時可參搢紳疏者, 奚但七人而已? 何必與一鏡同事耶? 疏中遣辭, 何乃慳刻耶? 雖不可輕議, 而竄配已三年, 況此國有大慶之日, 不可無分別之道.” 遂命出陸減等. 【李眞儒 羅州, 朴弼夢 茂長, 李明誼 興陽, 尹聖時 靈光, 徐宗廈 務安, 朴長潤 星州.】

7) 『승정원일기』(권 647) 1727년(영조 3) 10월 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今十月初六日, 時任大臣·原任大臣·諸宰三司長官, 引見入侍時, 疏下諸人竝出陸, 朴長潤亦爲一體出陸事, 舉條見上, 命下矣. 靈巖郡楸子島圍籬安置罪人李眞儒, 旌義縣圍籬安置罪人朴弼夢, 興陽縣羅老島圍籬安置罪人李明誼, 濟州牧圍籬安置罪人尹聖時, 大靜縣圍籬安置罪人徐宗廈·南海縣圍籬安置罪人朴長潤, 竝出陸事, 承傳啓下矣. 李眞儒, 全羅道羅州牧, 朴弼夢茂長縣, 李明誼興陽縣, 尹聖時靈光郡, 徐宗廈務安縣, 朴長潤慶尙道星州牧定配所, 竝撤籬出陸,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40. 서종하(徐宗廈)

- 신분: 관리(사헌부 집의)
- 유배 연월: 1725년(영조 1) 7월 2일.
- 나국 연월: 1730년(영조 6) 4월 3일.
- 사유: 정권 변동(영조 즉위, 김일경 소하〈疏下〉 6적〈박필몽, 이명의, 이진유, 윤성시, 정해, 서종하〉)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2일.

○ 命一鏡孥籍, 依虎龍例舉行, 教曰: “一鏡事, 不忍汚口, 而於國事何等說, 尤極凶悖. 其寧凶之心得成, 則謂之際遇, 不合於心, 則如此陳疏, 陰凶情節, 卽此可知.” 仍以冀, 顯等語陰慘, 命一鏡辛丑疏下李眞儒, 朴弼夢, 李明誼, 鄭楷, 尹聖時, 徐宗厦削奪官爵, 門外黜送.

2)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25일.

○ 義禁府啓: “朴弼夢配茂長, 李眞儒 羅州, 李明誼 淸道, 鄭楷 永川, 尹聖時 密陽, 徐宗厦 安陰.”

3) 『승정원일기』(권 596) 1725년(영조 1) 7월 2일.

○ 上曰, 承旨進來. 朴弼夢等六人, 曾有梃棘之命矣. 致遠曰, 臺諫, 方以正刑論啓, 故梃棘傳旨, 姑不得捧入, 而李明誼, 則以他罪, 先已梃棘, 故弼夢之極邊移配, 亦以他罪, 捧入傳旨矣. 上曰, 賊鏡, 旣已正法之後, 則其疏下六人, 豈可使偃息至今耶? 雖於梃棘之後, 一律之啓, 亦可爲之, 且其所犯, 與他有異, 不必以他罪移配, 疏下六人絶島梃棘傳旨, 先爲捧入, 可也. 出學條 致遠曰, 當如聖教. 諸臣, 以次退出.

4) 『영조실록』(권 13) 1727년(영조 3) 10월 6일.

○ 命李眞儒, 朴弼夢, 尹聖時, 鄭楷, 徐宗厦, 李明誼出陸, 朴長潤減等量移, 從領府事李

光佐, 判義禁沈壽賢, 吏曹判書吳命恒之請也. 蓋眞儒等六人, 同參賊鏡之疏者也, 長潤, 請改明陵誌文者也. 時壽賢奏曰: “臣頃按一鏡獄事矣. 其時只以教文及疏語爲問目, 而辛丑疏則元不舉論. 只以一時之同疏, 罪其疏下, 則此甚不然. 況其疏語, 豈有可罪之事乎? 其時摺紳疏之初出也, 無職前銜, 皆已同參. 臣以其時疏頭, 遭彈下鄉, 他皆四散, 而同參人中在京者, 獨一鏡, 以職秩, 推爲疏頭, 疏亦出自其手. 同參之人, 只是一時聯名而已, 豈可無辨別之道哉?” 命恒進曰: “國有大慶, 且經今日大處分, 竄配未放之類, 似是次第舉行之事. 彼李眞儒, 朴長潤諸人之海島竄棘, 洽滿三年矣.” 上曰: “朴長潤之請改誌文, 不思甚矣. 改撰後事, 何以處之耶? 是甚妄矣.” 光佐繼而請之, 上曰: “當時可參摺紳疏者, 奚但七人而已? 何必與一鏡同事耶? 疏中遺辭, 何乃慳刻耶? 雖不可輕議, 而竄配已三年, 況此國有大慶之日, 不可無分別之道.” 遂命出陸滅等. 【李眞儒 羅州, 朴弼夢 茂長, 李明誼 興陽, 尹聖時 靈光, 徐宗廈 務安, 朴長潤 星州.】

5) 『승정원일기』(권 663) 1728년(영조 4) 6월 14일.

○ 今日入侍時, 傳曰, 鞠廳罪人鄭思孝, 賊招所引, 卽無可捉之緒, 而以逆賊師寬招辭觀之, 不無可宥之端, 但身爲道臣, 其若自重, 賊何敢藉口乎? 不可無責罰定配. 李光績既已領軍往赴於官陣, 則賊招援引, 自可脫空, 而但與泛然援引者有間, 其在重鞠體之道, 不可遽釋, 參酌定配. 姜世胤領軍赴官陣, 與光績一樣, 此已有可恕之端? 此曾在庚寅仍科事, 伊時下教曲盡, 則渠何心腸, 隨參逆賊乎? 況不用奸於科場之心, 尤不當作此惡逆, 似當分揀放釋, 而光績既已定配, 則罰不當低仰, 一體定配. 李燾, 逆賊世樞所引, 俱不緊着, 而甲辰冬逆賊麟佐, 來訪論兵之事, 似涉殊常, 而蓋以一時偶聽, 雖不可斷以知情, 但鞠獄體重, 不可分揀, 參酌定配絕島. 黃沈·吳鵬萬等, 逆賊世樞所引, 雖無着落, 旣曰魁首, 則其在重鞠體之道, 不可放釋, 竝極邊定配. 朴景淳, 逆賊百孝所引, 雖無端緒之可捉, 以逆賊彥良之壻, 留置甥姪德鎮於渠家, 又出賊招, 則不可以其無端而放釋, 參酌定配. 尹聖時, 移囚南間. 李眞儒·徐宗廈等, 竝還發配所. 李衡祥·韓師億·吳命始·權敘經·李喜震·洪命源等, 竝放送.

6) 『승정원일기』(권 663) 1728년(영조 4) 6월 15일.

○ 金漵,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羅州牧出陸罪人李眞儒, 務安縣出陸罪人徐宗廈, 還發

配所事, 啓下矣. 依前罪目, 發遣府書吏,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7) 『영조실록』(권 24) 1729년(영조 5) 9월 28일.

○ 命移配李眞儒·尹聖時·徐宗厦于絶島. 掌令金聲發疏言: 一鏡與尙儉締結之狀, 旣已昭著, 則疏下諸人, 自在黜味難明之中, 固不宜置諸陸地. 況眞儒之捉納萬鼎, 旣在於逆顯兵敗之後, 則其間情節, 尤涉可疑, 請一併絶島梏棘. 上教曰: “本事旣明白下教, 則疏下諸人, 不可仍置陸地, 而若復梏棘過矣, 併絶島定配.”

8) 『승정원일기』(권 695) 1729년(영조 5) 10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絶島定配罪人李眞儒·尹聖時·徐宗厦等, 改定配所事, 榻前下教矣. 右罪人等改定配所, 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9) 『영조실록』(권 25) 1730년(영조 6) 4월 2일.

○ 諫院【大司諫趙錫命, 正言沈星鎮.】申前啓, 不允. 又啓: “逆鏡辛丑之疏, 旣出於締結妖儉, 則同參一疏者, 宜無不知之理. 此嚴鞠之啓, 所以重發也. 今者本院前啓, 不問情節, 徑請正刑, 旣非王者審慎用刑之意, 又非究覈情節, 明示典刑之道. 淺見如此, 不可苟然膽傳. 請命遞斥臣等之職.” 上曰: “正刑與設鞠, 不過五十步百步之間. 以此一着, 有甲乙之議, 予則以爲不是矣.” 命勿辭, 亦勿退待, 及臺臣退出, 特遞其職. 仍命拿鞠李眞儒, 尹聖時, 徐宗厦, 卽逆鏡疏下賊也.

10) 『승정원일기』(권 704) 1730년(영조 6) 4월 3일.

○ 朴乃貞,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絶島定配罪人李眞儒, 濟州牧絶島定配罪人尹聖時, 旌義縣絶島定配罪人徐宗厦, 竝拿來事, 傳旨啓下矣. 依例發遣府都事三員, 拿來, 何如? 傳曰, 允.

41. 윤봉조(尹鳳朝)

- 신분: 관리(동지중추부사)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1월 23일.
- 이배 연월: 1729년(영조 5) 10월 24일(영광군).
- 사유: 왕명 비판(탕평책 비판 상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5) 1728년(영조 4) 1월 23일.

○ 安置尹鳳朝於旌義

2) 『승정원일기』(권 695) 1729년(영조 5) 10월 2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旌義縣絕島安置罪人尹鳳朝, 爲先減等出陸事, 承傳啓下矣. 全羅道靈光郡減等出陸, 而因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3) 『영조실록』(권 27) 1730년(영조 6) 9월 18일.

○ 先是, 命禁府朝臣竄配人, 懸注書入. 至是教曰: “尹鳳朝參酌放送, 李倚天, 其甘心時象之習, 心常痛駭, 而遠竄三年, 禁錮六年, 特爲量移, 李太元, 當初遠竄, 終涉過中, 放送. 李宜祿, 申益欽量移, 金弘錫, 趨時附勢, 常痛駭, 而數年遠竄, 罰已行矣. 放送. 宋逢源, 鄭胤獻, 并放送, 尹懋教出陸.”

4) 『승정원일기』(권 712) 1730년(영조 6) 10월 9일.

○ 洪尙賓, 以義禁府言啓曰, 今此別單中, 尹鳳朝參酌量移, 李太元當初遠配終涉過中, 減等踰年量移, 申益欽量移, 金弘錫趨時附勢, 當痛駭者, 而數年遠竄, 罰已行矣. 量移, 宋逢源·鄭胤獻竝放送, 尹懋教減等出陸事, 承傳啓下矣. 全羅道靈光郡減等出陸罪人尹鳳朝, 忠清道禮山縣, 平安道安陵縣徒配罪人李太元, 京畿安山郡石谷驛, 慶尙道泗川縣極邊遠竄罪人金弘錫, 忠清道大興郡, 竝量移,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仍令押送各其配所, 申益欽·尹懋教等, 初不入於臺啓中, 故既已奉承傳量移出陸, 宋逢源·鄭胤獻等, 亦已放送, 今不舉論之意, 敢啓. 傳曰, 知道.

42-43. 민정례(閔庭禮), 민정시(閔庭詩)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4월 15일.
- 해배 연월: 1735년(영조 11) 1월 29일.
- 사유: 연좌(민암〈閔黯〉, 민종도〈閔宗道〉 자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7) 1728년(영조 4) 4월 15일.

○ 掌令姜必愼啓曰: “麟佐, 觀孝總功以上, 竝請島配, 而聖批以法外持難. 第其強近中凶悍者, 不可置輦轂下. 閔黠, 閔宗道子孫, 一體島配.” 上從之. 必愼曰: “弘輔, 纔已遠配, 而義徵, 碩徵子孫, 舉族爲惡, 與儒佐, 震佐, 一體島配.” 亦從之.

2) 『승정원일기』(권 793) 1735년(영조 11) 1월 2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今正月二十八日, 時·原任大臣及金吾堂上引見入侍時, 傳曰, 應坐外定配, 此是法外. 而頃年尹·李·閔三族竝配之請, 其涉過慮, 乃亦法外. 而其時懲討方嚴, 雖以允之, 伊後思之, 決知太過. 況當大赦, 豈不施乎曠蕩之典, 其干連賊招者外, 三姓編配者, 竝放送事. 分付. 傳曰, 羅燦·宋重弘·宋楷·李聖至·朴師孟·沈得行·鄭暘賓·吳彥賓·黃玉鉉·蕊梅·李璠, 竝放, 炤依前放歸田里, 孫荊佐·安鑄·禹如天·韓聖欽·申正模, 竝出陸, 黃沈·崔必蕃·吳鵬萬·姜必齊·李鳳祥·李世瑋·朴來章, 竝量移. 睦聖履·鄭璉·陳漢相等, 減等事, 命下矣. 北青府移配罪人尹相鼎·尹載輝·尹大輝, 寧邊縣移配罪人尹相恒·尹昌輝·尹發輝, 陽德縣移配罪人尹相昇·尹山輝, 龜城府移配罪人尹國輝·尹庭輝, 巨濟府島配罪人尹昌賁, 南海縣絕島移置罪人李慶佐·李禎佐, 珍島郡絕島移置罪人李命佐·李千祿, 康津縣薪智島絕島移置罪人李國佐, 巨濟府絕島移置罪人李弘潤·李憲佐, 羅州牧智島絕島移置罪人李弘淑·李德佐·李慶甲·李彭佐·李又彭·李甲運, 大靜縣移配罪人閔庭鯉·閔庭鱣, 羅州牧智島安置罪人閔命孝·閔庭來, 濟州牧移配罪人閔元崇·閔堂孝, 長湍府白翎鎮絕島安置罪人閔齊孝, 蔚珍縣移配罪人閔彥胄·閔天孝·閔庭萊, 蔚山府移配罪人閔重孝·閔庭燾·閔庭燁, 濟州牧移配罪人閔源孝·閔庭百, 長鬐縣移配罪人閔彥麟·閔載孝·閔庭鳳, 旌

義縣移配罪人閔庭詩·閔庭禮, 韓山郡移配罪人閔成道·閔彥升·閔彥恒, 長湍府白翎鎮減死島配罪人羅燦. 信川郡定配罪人宋重弘, 平昌郡定配罪人宋楷. 鐵山府邊遠定配罪人李聖至, 恩津縣定配罪人朴師孟. 大興郡量移罪人沈得行, 靈光郡法聖鎮邊遠充軍罪人鄭暘賓, 臨坡縣定配罪人吳彥賓, 錦城縣智島島配罪人黃玉鉉, 南海縣減死島配罪人蕊梅, 雲山郡定配罪人李璠等, 依傳教, 竝放送. 珍島郡島配罪人炤, 依前放歸田里. 南海縣減死絕島定配罪人孫荊佐, 開寧縣·康津縣薪智島減死絕島定配罪人安鑄, 金溝縣巨濟府減死島配罪人禹如天, 金山郡南海縣絕島定配罪人韓聖欽, 礪山府興陽縣驪島島配罪人申正模, 錦山郡竝依前罪目出陸. 而義州府所串鎮減死極邊充軍罪人崔必蕃, 黃海道瑞興縣明川府極邊定配罪人黃沈, 忠清道延豐縣·富寧府極邊定配罪人吳鵬萬, 堤川縣雲山郡定配罪人姜必齊, 江原道平昌郡錦城縣流三千里定配罪人李鳳祥, 林川郡康津縣加里浦鎮邊遠充軍罪人李世璿, 陰城縣三水府別害鎮邊遠充軍罪人朴來章, 禮山縣竝仍前罪目量移.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仍令狎送于各其配所. 長興縣遠地定配罪人睦聖履, 龍川府遠地定配罪人鄭璉, 鐵山府遠地定配罪人陳漢相, 減等徒三年, 改錄事, 分付各該道之意, 敢啓. 傳曰, 知道.

44. 정철흥(鄭鐵興)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4월 26일(추자도)/ 1728년(영조 4) 6월 12일(정의현).
- 사망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정희량〈鄭希亮〉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60) 1728년(영조 4) 4월 26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因嶺南安撫使狀啓, 逆魁希亮子鐵興, 以年未滿, 特爲絶島爲奴事, 覆啓允下矣. 鐵興, 全羅道靈巖郡楸子島絶島爲奴, 而時在奉化縣囚禁中,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663) 1728년(영조 4) 6월 1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頃者逆賊能佐同生夔佐, 移配他有官府絶島事下教, 故既已移配於濟州牧, 而又有李益命定配於此島, 亦令移配他島, 而此後則無官守之島, 罪人勿復偏配, 永爲定式事, 允下矣. 楸子島, 本無官守, 則令前定配之類, 亦不可仍置, 緣坐安置罪人李益命, 移配於全羅道羅州牧智島, 逆賊希亮母未順, 移配爲婢於濟州牧大靜縣, 希亮子鐵興, 移配爲奴於旌義縣, 而右罪人等, 俱在於靈岩郡[靈巖郡]楸子島,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權抗, 以義禁府言啓曰, 逆賊鏡·虎·獐·亮四賊之子應施之律, 卽令該府舉行事, 命下矣. 逆賊一鏡子允興, 虎龍子德成·德福, 獐佐子文明·仁明, 希亮子鐵興等, 俱配於濟州·大靜·旌義三邑, 依例發遣府都事, 卽爲舉行, 而在前鞫獄方張之時, 有假都事差送之例, 今亦以假都事發送, 與地方官, 眼同處絞, 何如? 傳曰, 允.

45. 정흠유(鄭欽儒)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4월 2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정중항(鄭重恒)의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60) 1728년(영조 4) 4월 28일.

○ 柳緄, 以義禁府言啓曰, 因嶺南安撫使別遣御史聯名狀啓, 曹命佐, 既是稱兵逆魁鼎佐之弟, 依适·明璉緣坐例處斬, 而鄭思儒·欽儒, 竝絕島定配之意, 既已稟定於榻前, 本道監司處, 以此舉行之意, 回移事覆啓, 允下矣. 命佐, 時在大丘囚禁中, 發遣都事, 與地方官眼同處斬, 鼎佐, 既是稱兵逆魁, 則其餘緣坐, 不可不舉行, 應坐人等, 令漢城府查出帳籍, 分付五部及本道, 其年歲姓名居住存沒, 一一開錄成冊, 上送後舉行, 籍沒家產, 破家瀦澤, 降邑號, 罷守令等事, 令各該司承傳舉行, 而鄭思儒, 濟州牧大靜縣, 欽儒, 旌義縣, 竝絕島定配, 而亦在囚禁中,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694) 1729년(영조 5) 9월 20일.

○ 張泰紹,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慶尙監司所報成冊, 則梟示逆賊重恒緣坐, 已爲處斬者外, 應坐諸人, 列錄以來矣. 重恒妾世英子二奉年九, 子二崇年六, 俱爲年未滿, 黃海道豐川府, 竝緣坐爲奴婢, 子婦自愛, 孫子重悅等, 長淵府, 竝爲奴婢, 子婦愛比元, 孫女美惠·徵惠·池江等, 平安道龍崗縣, 竝爲婢, 子婦幸孫子又悅·戒悅等甌山縣竝爲奴婢, 而右罪人等時囚, 革安陰縣,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而同姓姪子思儒·欽儒等, 曾已絕島定配于濟州牧大靜縣·旌義縣, 仍其邑流三千里, 緣坐安置, 而徒流案中, 改錄後啓聞之意, 分付本道, 何如? 傳曰, 允.

46-47. 이중명(李中明), 이인명(李仁明)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4월 30일.
- 사망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이인좌(李麟佐)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59) 1728년(영조 4) 4월 14일.

○ 鄭錫五,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查出帳籍及該道該邑當部所報成冊, 則逆賊涵敬·奎瑞·世龍·麟佐·天永等應坐諸人列錄以來, 故涵敬妻鐵貞, 咸鏡道吉州牧緣坐爲婢, 奎瑞妻屹加應, 子景說年十五, 年未滿, 端川府竝爲奴婢, 世龍妻有點, 子國麟年十, 年未滿, 江原道平海郡竝爲奴婢, 弟世弘, 平安道朔州府爲奴, 弟世枰北青府爲奴, 姪子國泰·國成, 利城縣竝流三千里安置, 麟佐子中明年十二, 仁明年二, 俱是年未滿, 穩城府竝爲奴, 子文明年九, 化明年六, 亦是年未滿, 會寧府爲奴, 天永妻姜次, 女至愛, 慶源府竝爲婢, 子善伊年五, 子官伊年四, 俱是年未滿, 慶源府竝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中, 或在外方, 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660) 1728년(영조 4) 4월 3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稱兵逆魁麟佐, 應坐諸人, 追後成冊, 今始來到, 而麟佐緣坐之類, 已配者改配絕島事, 下教矣.穩城府爲奴罪人麟佐子中明·仁明, 濟州牧旌義縣爲奴, 會寧府爲奴罪人文明·化明, 大靜縣爲奴, 同姓叔弘仁, 全羅道興陽縣羅老島安置, 同生弟夔佐, 年十二未滿, 靈巖郡楸子島爲奴, 同姓姪子現明·慶明, 濟州牧竝安置, 而右罪人等, 或在配所, 或在外方,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權抗, 以義禁府言啓曰, 逆賊鏡·虎·獐·亮四賊之子應施之律, 卽令該府舉行事, 命下矣.逆賊一鏡子允興, 虎龍子德成·德福, 獐佐子文明·仁明, 希亮子鐵興等, 俱配於濟州·大靜·旌義三邑, 依例發遣府都事, 卽爲舉行, 而在前鞠獄方張之時, 有假都事差送之例, 今亦以假都事發送, 與地方官, 眼同處絞, 何如? 傳曰, 允.

48. 민복효(閔復孝)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6월 4일.
- 사망 연월: 1729년(영조 5) 5월 11일.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민원보〈閔元普〉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63) 1728년(영조 4) 6월 4일.

○ 趙德鄰,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忠淸·慶尙兩道監司粘移及各該邑所報成冊, 則逆賊百孝·祖謙·熊輔·崇坤等應坐諸人, 列錄以來矣.祖謙子泰禧, 年十九, 旣已年滿, 而時囚忠州牧, 崇坤妻成愛, 時囚聞慶縣, 而卽稱兵逆魁之妻, 依例發遣府都事, 與各其地方官眼同, 竝不待時緣坐處絞, 祖謙子婦大阿只, 黃海道豐川府爲婢, 同姓姪子仲禧·季禧, 平安道甑山縣竝流三千里安置.崇坤繼母戎興, 弟今年生子日策, 年二, 年未滿, 慶尙道巨濟府, 竝絕島爲奴婢, 弟海甲·仁甲·四甲, 妹明順, 南海縣竝絕島爲奴婢.百孝母必愛, 全羅道興陽縣蛇渡鎮, 同生弟復孝, 旌義縣, 得孝濟州牧, 竝絕島爲奴婢.熊輔女丹陽, 珍島郡爲婢, 而右罪人等, 各在外方,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영조실록』(권 22) 1729년(영조 5) 5월 11일.

○ 義禁府啓: “忠州牧所報逆賊, 元普子復孝·得孝緣坐處絞, 母李女年過七十, 律文內婦人年六十廢疾者, 不論. 妻畢愛女歎女, 以百孝緣坐, 先此爲婢.” 又言: “元普子德孝妻申女, 得孝妻李女, 復孝妻羅女, 關文下去之日, 一時結項自斃, 此乃不嚴祕之致. 牧使柳縝, 請推考.” 允之.

3) 『승정원일기』(권 684) 1729년(영조 5) 5월 11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忠淸道忠州牧使所報成冊, 則逆賊元普, 應坐諸人, 列錄以來矣.子濟州牧旌義縣緣坐爲奴罪人復孝年二十六, 子濟州牧緣坐爲奴罪人得孝年二十, 旣已年滿,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 竝不待時緣坐處絞, 母李女, 年過七十.律文內,

婦人之年六十廢疾者，不在舉論中，今姑勿論。妻畢愛孫女歎女，既已百孝緣坐，全羅道興陽縣蛇島鎮，先此爲婢矣。畢愛則以元普妻，緣坐爲婢改錄事，本道監司處，發關分付。元普子德孝妻申女，得孝妻李女，復孝妻羅女，不過爲婢定配。而關文下去之日，竝一時結項自斃，此乃不善嚴祕之致。應施之律，不得見行，則揆以事體，不可無警責之道，牧使柳挺推考，當該刑吏，自本州查治懲後事，分付，何如？傳曰，允。

4) 『영조실록』(권 22) 1729년(영조 5) 6월 18일.

○ 命旌義縣監尙時昌拿問. 以本縣爲奴罪人復孝同住，其弟得孝，濟州牧配所故也.

5) 『승정원일기』(권 687) 1729년(영조 5) 6월 18일.

○ 以禁府都事狀啓, 旌義縣爲奴罪人復孝，同在濟州牧其弟得孝配所, 同縣監尙時昌, 啓聞罷黜事, 分付濟州牧使事. 傳于張泰紹曰, 事極無據, 拿問從重勘處.

49. 이하택(李夏宅)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737년(영조 13) 3월 10일.
- 사망 연월: 1744년(영조 20) 4월 29일.
- 사유: 역모 연루(이인좌의 난, 이명언(李明彦)의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43) 1737년(영조 13) 3월 10일.

○ 命李明彦, 夏宅分配絕島. 先是, 明彦, 夏宅配渭原, 及出於玄機之招, 命本府拿來推鞠. 問夏宅曰: “汝之緊出賊招, 前後非一, 衣裏藏札, 足爲斷案. 諸人之啓, 指汝爲魁, 而纔允卽寢, 致令吞舟漏網. 海正之招, 贈衣留宿, 往來賊陣之說, 俱有可據, 從實直招.” 夏宅供曰: “臣之戊申被誣, 只是一佐之招, 具言之無實, 聖明已燭, 獄案俱在, 而猶謂之緊出, 噫! 亦甚矣. 衣裏藏札事, 有手筆參書而聯名者, 有居間持札而往來者, 伊時詢問諸臣, 皆謂無可疑, 而其後媚嫉之人, 始以擬書謂可疑. 贈衣留宿事, 蔡之洪疏以爲: ‘二月晦間, 晨有二人與臣同宿, 解衣相贈.’ 以臣婢夫海正爲證, 而臣家之自河東, 撤還清寓, 在二月二十七日, 月小而盡. 一日之間, 雖至親尙未及知, 有何往來之人乎? 且臣家在水南西村, 海正在城底闌闌, 白晝往來之人, 亦難卞知, 況早晨乎? 之洪又以爲: ‘安坐家中, 往復于賊.’ 云而臣於變起之夜, 宿於寓舍, 與李日躋相隣. 日躋夜送奴急呼曰: ‘城中有賊變, 吾方避而登山.’ 臣驚起推窓, 則火光燭天, 一城鼎沸. 睡夢中蒼黃負木主, 挈妻孥, 以短衣袴登山而會日躋, 兩家顛仆, 行五里餘, 尋得小寺名棲雲者藏蹤, 埋木主於寺後, 仍與日躋, 晝伏夜行, 艱到燕歧山谷, 聞賊平同歸, 當時出避之證, 昭然如此. 且臣之鄉廬上樑, 卽三月十六日也. 臣若有通謀之事, 則安有以凶賊起兵之期, 爲上樑之日, 而半夜奔避乎? 清州本是峻於黨之鄉, 臣如有可疑之跡, 則必如得奇貨, 而乃於四年之後, 始借山林之人, 創出虛辭, 以爲立證之計乎? 故相臣吳命恒過清州, 詳聞事情, 爲臣父子伸暴無餘, 聖明亦必記有矣.” 問明彦曰: “汝有不臣之心久矣. 甲辰一疏, 已極凶慘. 鏡賊同去就之說, 心肚難掩. 遐荒放謫, 遲徊不歸, 已多可疑之端. 久廢復用, 不陳例疏, 顯有罔測之意, 此所以向來筵臣有無臣節之論也. 況父子之名, 屢出賊招, 胡服舉事之說, 元非倉卒做出

之言，衣縫納書之計，實出臨急圖免之意。汝之父子，若無爛漫同參之事，則逆招所引，何如是狼藉，而世樞之至死不變其說，尤豈非明證乎？今者玄機招言，戊申漏網賊僧最學與玄機師僧法訓，同處金剛菴，又造藥果，送汝謫所，汝奴石男持汝書，四五次來到，學僧買送燒酒，乾蠶，藥丸三箇，仍與石男偕往渭原云。前後情節，從實直招。”明彥供曰：“不臣之心，未知指何事，而人臣聞此，直欲刺心以明，而不可得也。甲辰冬一疏，不過自附於知無不言，言無不盡之義。鏡賊同去就之說，戊申冬臣招，卞破無餘，載在鞫案。放謫不歸，不陳例疏事，臣於丁未秋，幸蒙恩宥，而伊時臺疏斥以爲：‘三年竄謫，不足以贖其罪。’故不敢遽歸，遲徊數月，及至冬末，以卞誣副价，特敕駟召，罔夜上來。若復以私義陳疏，則恐非主辱臣死之義，不敢陳疏，以待竣事而歸，不意反以此爲罪也。筵臣無臣節之說，聞人所傳，則指臣不仕一款，然臣之求退，在於先朝，而甲辰嗣服初則臣連以都憲及山陵之役，立朝竣事，復命始陳疏退去，而臺啓已隨發矣。父子之屢出賊招，亦於戊申招中，卞之已審矣。胡服舉事之說，當初世樞之招以爲：‘副使李哥留在義州，與思晟舉兵同來。’又曰：‘平安道軍，以胡服粧來。’云，所謂胡服，卽指晟賊之凶圖，則於臣全不相干。故伊時上教有曰：‘坐於玉河館之人，謂之留義州。’胡服舉事云者，其果成說乎？禁堂之請拿臣也，入侍大臣以爲：‘既命加刑，世樞捧其誣告之招，則到今請拿，不成國體。’聖上亦以爲：‘誠然，庶幾一世舉無疑惑。’而臺臣乃謂至死不變云者，何所據而發耶？至於衣縫納書，非臣子夏宅一人所自辦，既有聯名爲之者，又有居間傳之者，而當初擬書登徹之日，自上詢問諸臣，皆痛卞其非，則大臣亦言：‘非以此謂可疑，拿來都事不免疎忽。’云。當時無可疑，而到今疑之，其果成說乎？所謂玄機，法訓，學首座，此等凶髡，臣未知其何樣凶賊，而臣之奴子，元無名石男者，故都事考見渭原郡臣所納戶籍，終不得髡髻名字者，乃捉代奴而來。鞫獄何等重要事，無其人則斯可止矣。替囚代奴，固已訝惑，所援石男，既已脫空，則所謂皮之不存，毛將焉傳？向來臺臣謂臣爲振起之族戚，不可置諸鳴江一帶之地，恐動天聽，殆同急書。倘非聖明深察，則臣已死於拷掠矣。”更問明彥曰：“前招中鏡賊同去就之說，稱以戊申招，卞破無餘，所供模糊，終不分曉。甲辰一疏，旨意難測，而泛稱言無不盡，抑何意思？至於戊申，宜璉，世樞，時薰之招，屢發汝名，如是狼藉。時薰誣告將相諸宰，旋即自服，而於爾則終不變辭。今招以爲：‘自上有加刑捧誣告之教。’云而其時世樞初無誣告自服之語，此皆汝抑勒粧撰者也。從實直招。”明彥供曰：“臣之受誣，自有本末。蓋臣之父子，俱陷大戮，群憾競起，乘時下石，湛滅之禍，只隔一紙，而恩數迥越，昭洗幽枉。己酉酌處之

日，特下還配之命，有司力爭，不免勉許，而伊日聖教有其間幾許之語，故外間妄傳匪久當宥，媚嫉之人，猜疑轉深。申處洙復發前啓，疏章迭出，構誣不已，三載靳許。天聽愈邈，故時議別般搆索，草野臺閣，閃弄和應，至有海正之三次嚴問，終無事實。向在乙卯，臣之父子臺啓之批，每示停論之意，故李碩臣又以無據之說，爲俱發之啓，而緇徒之凶狡者，亦知時象，又上急變，自恨老而不死，受此無限僇辱也。鏡賊同去就之說，戊申招，既已洞卞，而臣之在灣府所抵書，足見臭味之不同。及至還朝，或竝列僚席，而大小言議，不必苟同。其在禁堂時，金時發以罪人女婿，擅止傳旨，不待承款，徑先處斷，故臣職在有司，疏請還收，而賊鏡之議，大不同矣。甲辰大喪之卜山陵也，鏡則主新陵，臣則主寧陵舊岡，而果以微見，陳於殯殿，竟被嚴教。且臣見鏡賊第舍宏侈，引鬼瞰高明之語斥之，渠亦遜謝。逆鏡嘗遭臺彈，臣往慰之，則鏡與尹淳兄弟交惡，答以此輩將欲殺我矣。臣責之曰：‘同朝相陌，大非好事。’鏡雖變色含慍，而及至臣去朝之日，多其急流勇退，對人輒稱道云：‘臣疏有云，有事則疏論，有急則躬赴。’故逆鏡疏中，果有同去就之語，而臣則仲夏陳疏乞退，鏡則秋間被彈迸出，事之異同，時之先後有如是矣。甲辰一疏，只出於願忠之誠，寧有一毫他意哉？臣之乙巳竄謫，蓋由於是，臣之姓名，不幸出於三賊之招，而伊時大臣所謂諸賊同聞麟佐之言，而非各出云者，正謂此也。臣自燕歸，歷見松都留守沈瑋則以爲：‘舍兄與令公，同出時薰之招，未乃同歸清脫，仍以誣人伏法。’云。如沈瑋者，雖不單舉姓名，而同歸清脫，今以臣名之不爲單拈，謂之不入於誣告者，不亦冤乎？世樞之加刑，捧誣告之命，非臣臆說。大臣筵奏，得於耳聞。聖上每以義州胡服之說，前後筵教，不啻明白矣。”後，玄機之自服誣招也，言明彥事曰：“曾往渭原 高鳳寺則明彥之子讀書，怒其不拜，杖臀十度，故含憾而做此誣云矣。鞠廳大臣請對，左議政金在魯曰：“玄機雖以誣告引服，黃賊終有可疑，請更拿已放諸囚。”上不許。在魯請刑李夏宅，上曰：“夏宅父子，十年登臺啓，無以自明，故予欲因此問而決之。鞠廳有違端，然後始請刑矣。夏宅之供，有何違端耶？予任使明彥不久，夏宅尤不知何狀，然決不從時議而殺之也。仍囚酌處可也。”在魯又固請不已，上默然良久曰：“予欲因此，而拿問蔡之洪，夏宅事之洪證之，若令對質，夏宅見屈，則當許刑訊矣。”在魯曰：“之洪不過因所聞，而陳疏也。”上曰：“夏宅即被告，而之洪即原告也。”豐原君趙顯命曰：“當時不問之洪，不成鞠體矣。”上曰：“夏宅之藏書，稱以爲國討賊之方略，而反爲罪贓。戊申年羅燾受賊傳令，托以欲呈官之際，被捉於官軍云。欲呈之說，何可取信，而向者之洪爲狀頭伸辨，之洪一也而於燾則救之，於夏宅則告之，引問海正，決非儒

者之事也。”至是，罪人玄機以誣人惡逆斬。上以明彥，夏宅當還發前配，詢諸臣，左議政金在魯力持之，右議政宋寅明知上意堅不殺，雖傳死議，而語多依違。戶曹參議金若魯頗譏詆之，寅明謝之不已。豐原君 趙顯命曰：“臣常謂明彥父子罪有輕重，明彥壬寅間，羽翼鏡，夢之罪，不可勝誅，甲辰一疏，亦極凶悖，而戊申逆招，快脫無可問。今以玄機所引，拿鞠而無實，則又引前疏而杖殺，有非欽恤之意。夏宅事儘多疑端，當與海正之供，一處參覈，而今海正已死，無階可質，似宜刑配。”上曰：“甲辰疏，予不能記，而往時予爲時輩所賣，故明彥之意，不過欲予，毋以擁立爲德，此蓋不知予心故耳。古之人君，多以猜疑殺人，予入儲之日，已以脫略此事存諸心。予之必欲生明彥，明彥必不知。若以不知而不之恕，則豈仁者之心乎？予雖不明，今日決不從卿等殺無辜之人矣。”上辭色頗厲。仍命書傳教曰：當初斬允，意蓋有在。玄機誣告，既已自服，事已脫空，而甲辰疏語，雖曰絕悖，以幾年事，曾經竄配，今施極律，豈王政乎？但鞠體莫重，不可只施遠竄，明彥配海島。又傳旨曰：罪人夏宅衣縫之書，戊申親鞠時，業已下教，而兩司閱歲爭執，尙今斬允，因此鞠事，欲觀供辭矣。渠之供辭，亦無違端，而賊中傳喝之說，極涉殊常，亦配海島，分配大靜，旌義。

2) 『승정원일기』(권 844) 1737년(영조 13) 3월 10일.

○ 上又曰，李明彥事，戊申年世樞招中，以爲時方隱伏羲州，欲爲胡服舉事云，而其時入往北京，受咨文而來，則胡服之說，既已脫空，其時出於賊招之人，亦多得脫矣。今番玄機所告，亦已白脫，同時被拿者，皆已放釋，有何刑訊之端耶？予意如是，則親鞠時上來殿庭，可也，而決未亦難處，故不爲之矣。予雖不疑而脫之，此非可以仕宦者也，還發配所之外，無他道矣。夏宅則衣中納書之事，前已屢次下教者也。蔡之洪疏中語，則夏宅，雖曰可疑，逆獄，自有面質之法，若於海正在時，令蔡之洪及海正，面質其言，歸一後，又與夏宅面質，夏宅語屈，則可以刑訊，而今何可以疑心加刑耶？亦爲還配，可也。在魯曰，臣於此事，與僚相相議，則僚相所見，亦與臣不甚相遠矣。上曰，今予處分，亦云苟且矣。若知其逆，則不可置之，不然則何必仍配耶？予於李眞儒，亦欲生之，而已酉年以逆儉事，有所下教，其時，故李判府事聞之，故主張刑訊而殺之。眞儒則辛·壬年間，多有所爲，渠以足可超脫之人，乃如是，雖杖斃，亦無惜矣。此乃懲礪之道，而猶且如何，況今則既已問之，知其曖昧，而只以人心之沸鬱，有此仍配，王者處分，豈不苟且哉？在魯曰，世樞，卽臣所捉得而上送

者也.臣在忠州時,已爲親問取招,渠非親聞麟佐之言,概以賊中所聞,言之,其時則以爲,明彦自北京出來時,約與思晟舉事云云矣.臣上來後,考見鞠廳文案,則其招辭以隱伏羲州之說,書之,此或文案誤書之致也.聖上,以渠其時在彼地,故不爲致疑,而自下疑明彦者,皆以爲戊申變亂徑發,故其言不符,而出來時,約與舉事之說,不爲虛罔云矣.且其甲辰上疏,臣曾未得見,今始見之,其言極爲悖慢,見無禮於君者,如鷹鷂逐雀之心,自然而生矣.上曰,其疏,予雖未見,似爲殊常,然以文字殺人,本非王者所當爲,若於其時,以此疏罪之,則可也,今則初以玄機事,拿來,卽已歸虛,則又以年久之甲辰疏,鞠問,豈其可乎?在魯曰,其疏之悖慢無禮,不道不敬,可勝言哉?有曰,殿下爲此輩之所援立,天下後世,將謂如何?又曰,凶徒之所擁立云云,原其疏意,則或恐其時,自上進用屏退之人,以爲脅持上下之計,而以擁立·援立之目,被之於殿下,後世之人,將以爲如何?其時建儲,上稟慈旨,從容下教,擇日冊禮,豈不光明正大,而鳳輝之疏,以舉措忙急爲言?明彦又以擁立·援立爲言,後世見者,將謂斯何?今番鞠坐,以此發問目,再三問之,而渠但曰,十年前上疏事,今何以記得云矣,其疏且言,景廟時事,以爲受制強臣,如此之言,全不擇發,肆然書之,渠於其時,得追常刑幸矣.今雖以此誅之,豈是挾摘文字之比?決不可循例還配也.雖以扶護逆鏡事,言之,金東弼之疏,極是寂寥,而猶欲補外,此乃顯著之事也,可見其爲一鏡心腹,舉世皆知之,今番原情一鏡,同去就之說,只以金時發事及山陵事,爲發明而扶護之事,終無明白發明之端,何可循例處之?今此下教,過於太寬矣,夏宅則今番鞠廳,先爲請刑,而自上不從矣.賊招所出,重於明彦,日佐,以麟賊至親,其招辭以爲,麟佐之黨三人,明彦之子夏宅及李思晟·權紱經云,渠與夏宅,色目既異,且彼年少儒生,何以知其名,必有所以然也?雖以海正事言之,海正生時,未及究覈,而賊中傳喝事,海正雖以其婢夫,亦不得掩諱,聖上,每以蔡之洪疏,疑其出於黨論害人之習,而豈有因其婢夫,公然誣告之理乎?至若衣中納書事此一事,亦足刑訊矣,其所爲計,可謂欲巧反拙矣.渠之被配,以渭原謫所事也,今又仍配則刑政,豈不乖舛乎?以本罪罪之,可也.今此二事處分,小臣,則斷斷以爲失之太寬矣.上曰,日佐招中語,戊申年,已問之矣,右相及金吾堂上,各陳所見,可也.寅明曰,明彦無臣節之說,卽臣之言,而其時初啓,卽允矣,此則以心迹論之,其心迹有如此者,故臣爲此言,而甲辰之疏,今始見之,辭語極凶絕悖矣.他人之疏,亦必多有如此者,而其疏語,則絕悖,死有餘罪矣.上曰,其時諸人之疏,盡爲尋出,而罪之則將無餘人矣,所謂無臣節者,指何事耶?先陳之,可也.寅明曰,似有右袒一鏡之形,且其蒙放

後，不卽上來，爲使臣後，又不陳疏，故謂之無臣節，非欲以此律治之，只論其心迹如此也。今以甲辰疏，殺之，則無惜，而設鞫嚴問，則不可，蓋鞫廳舉行之事，卽戊申逆招事也。在魯曰，鞫廳亦非一端矣。寅明曰，戊申諸賊之招辭，臣亦非謂皆可信也。大凡鞫獄之事，當觀本事之虛實，戊申以後鞫獄，則臣見其柱子不實，故枝葉多有緩治者，戊申鞫獄，則柱子實，故治之尙嚴，多人中雖或有橫罹之弊，而法例當嚴，則亦不可從寬矣。變書何必盡信，而柱子實，則雖是風聞不的之言，皆當問之，故臣亦於其時，有所爭執矣。世樞·宜璉生存之時，若加究問，則明彥之罪，或有尤著者，而其時不能如是，可恨矣。今則宜璉·世樞之招，已無盤質之階，且多他罪，難可得生矣。上曰，夏宅事，陳之，可也。寅明曰，日佐招，既指夏宅之名，世上之人甚多，何必無端指夏宅乎？況日佐所告，皆是實逆賊也。初不鞫問則已，既已鞫問之後，無明白發明之言，則杖訊當然，蔡之洪之疏，則雖未必盡然，而衣書之事，亦極殊常矣。上曰，衣縫藏書事，疑之者，何謂耶？寅明曰，渠有自作之罪，故欲以此發明云矣。上曰，其書中辭語，何耶？寅明曰，爲國討賊之方略矣。上曰，宅夏自書耶？寅明曰，李日躋之筆矣。上曰，曾亦言之，而渠以爲，李日躋，使之深藏，故藏之衣縫云矣。在魯曰，自知其罪，欲爲發明之資，而此反爲贓物矣。上曰，未有拿命之前，先爲納袴，則何如是工巧耶？寅明曰，此則或因金吾郎之緩緩入去，致有此事，故臣於其時，請鞫其拿來都事矣。上曰，判金吾陳之。顯命曰，小臣則論其父子之罪，有緩急之異矣，李明彥罪狀，可勝誅哉？辛·壬年間怪論，無不主張，其時若非李眞儒·李明彥，則一鏡特一孤雛腐鼠，而力爲扶護，增其聲勢，幾乎禍及宗社，論其罪狀，何可生乎？宜璉招，不往北京之說，其時參鞫之臣，聞之而莫不失笑，此則既已快脫，無復可論。甲辰冬疏，今於鞫廳，始爲詳見，果爲萬萬凶悖，而過十年之後，以玄機虛言拿來，此事白脫後，以前事爲罪，而杖殺之，則刑政，似涉如何矣。夏宅則不可還配而止，戊申逆招，則雖無指的某事之言，而海正事，不善治獄，未能究竟矣。蔡之洪疏，自上或以偏論，疑之，而多人之中，尤可嫉於夏宅者，亦必有之，人雖無狀，豈於白白地爲此說乎？必有所聞矣。海正，乃是夏宅之人，而平問之下，賊中傳喝之事，不能掩諱，以爲夏宅，托以上京不答云。以事理揣之，則海正，於夏宅事，隱諱則有之，而必無暴揚之事矣。海正既死，今不可更問，當以此一事，了當其罪矣，致有逆賊傳喝之來者，與申正模，彷彿矣。申正模則答而送之，夏宅則諱而不答，夏宅似輕，而正模則不出逆招，夏宅則虛實間出於逆招，折長補短，罪實一般矣，正模，既已刑推定配，今亦用其律，似宜矣。在魯曰，衣中書之事，何不論之耶？顯命曰，此事則其時臣意以爲，以此爲案，或

涉已甚，故今不舉論矣。寅明曰，夏宅與申正模，異矣，申正模則不出鞫招矣。在魯曰，申正模則只於皮封，書賊將之號云矣。上曰，皮封與書內，何異耶？在魯曰，明彥則以上疏殺之，無妨，而別無可以鞫問之隱情云爾，則雖不必刑訊，而夏宅則賊招之言，渠雖發明，而賊帥傳喝事及衣中納書事，節節可疑，豈可不刑推乎？寅明曰，玄機獄事，元本虛疎，故畢竟歸虛，而戊申事，則本事實矣。上曰，其時所謂大元帥，終不言其骨子，謀議之本心矣。寅明曰，諸處賊徒，各相團聚，故渠輩亦有不相知之事矣。上曰，自中相食之意，亦有之矣。聖應曰，兩大臣及判金吾之言，不同，更加博詢而處之，何如？上曰，李明彥事，甲辰冬疏，予則初不深看，豈能追憶乎？己酉半夜下教時，以予爲時象所賣爲教矣，怪異之輩，爲戊申之變，而渠輩亦豈有嫉予之事乎？實由於不知予之心故也。古之人君，或以猜疑殺人，而予自辛丑入闕時，已以脫略爲心，至今日常存此心，未有變改，若令盡知予心，則應無戊申之事矣。予於今日明彥事，必欲生之之心，渠亦必不知之，以渠之不知予心，予亦不爲寬恕，則此非仁者之心也。若於戊申鞫獄，杖殺則無妨，而今以玄機事拿來，乃因大臣陳達，始聞上疏，仍用極律，可乎？若非此世界，則予雖欲殺之，卿等，必當勸予勿殺矣，戊申事，柱子雖實，而不往北京之說，豈不虛罔乎？玄機事，既已白脫，則本事自如矣，處分，何可有加乎？夏宅事，以衣中書爲疑者，決知其過矣。或謂之出於爲國，或謂之此尤奸巧，二說皆過，予則以中道言之，渠若入賊中，則豈有此書耶？日佐招中，以儒生入之者，誠爲可怪，而蔡之洪，豈無尤嫉於夏宅者，而獨言夏宅事，必有所然云者，此則非矣，若以他人爲言，則難可售於予之前，而夏宅事，則可以見售故也。蔡之洪之引問海正，決非儒者之事矣。申正模，出於戊申鞫獄時，而亦得生焉，又有可以比論者，戊申年，羅燦受賊傳令，欲爲呈官之際，被捉於官軍云，而其所謂欲呈之說，何以取信？向者其地儒生等，以羅燦伸辨事，呈文官家，而蔡之洪爲狀頭矣，一蔡之洪，於羅燦則救之，於夏宅則告之，豈不怪哉？極爲無據矣。大抵朋友之義重耶，君臣之義重耶？如羅燦者，至於呈文伸辨，沐浴之義，元不知之矣，卽今朝廷，亦必有心知夏宅者，而不敢發言，蓋畏護逆之名也。卿等及執法之臣，如是爭執，當初罪名，則不過持身不謹而已。在魯曰，明彥事，他事勿論，金東弼寂寥之疏，猶惡其逼於一鏡，必欲斥逐，養成賊勢，此罪當誅矣。上曰，今則事已久遠矣。寅明曰，臣意則直爲賜之死，則無妨矣。上曰，玄機事脫空後，以久遠之事，又爲加律，則此豈王者道理耶？向來觀厚事，予亦悔之，其時李宗城·趙明翼，以爲初不設鞫，宜矣。在魯曰，明彥之拿來，奚但以玄機事耶？屢年爭執，彼此皆參之，臺啓，自上允從而拿來，則臺啓中，論列之罪，固自

如矣.上曰, 此則不然.予之所以允從者, 以玄機事也, 其時一邊發捕, 一邊斬允, 不可, 故允從臺啓矣.既以玄機事允從, 而今以前罪加刑, 則是爲欺心也.雖治逆之事, 何可欺心而爲之乎? 李明彥, 則依俄者下教學行, 李夏宅, 則卿等, 以還配爲太輕, 當初定配, 不過以持身不謹爲罪也, 今則極邊定配, 可也.予又有勉諭於卿等者矣, 右相則曾見其無臣節, 而猶不欲以極律治之, 則非不知極律之過, 而猶不盡言, 左揆則所見, 必與李碩臣有異.曾於啓覆時, 亦有下教, 而以今番陳達見之, 猶有如何者, 人有罪則直請用法, 可也, 而故相臣柳鳳輝, 去其姓而呼之, 猶有其心矣, 爲卿慨然, 須去此習, 可也.在魯曰, 明彥之疏, 根源出於柳鳳輝之疏, 柳鳳輝之疏與明彥疏亦一般, 故語次及之, 而若其斥呼, 則常時口熟之致也, 大概, 明彥之疏, 戊申之逆, 論其根源, 則皆出於此矣.寅明曰, 聖教如是縷縷, 不勝感激, 而臣之心事, 雖以日月之明, 猶有未盡燭矣.明彥之疏, 絕悖無嚴, 人臣, 爲絕悖無嚴之疏, 何可生乎? 若是疑似文字, 則不可殺之, 而此則非疑似者也, 今則直爲正法當然, 而此非變亂之時, 故國法, 雖有所屈, 無朝夕危急之事, 臣之力爭, 亦與戊申初, 有異矣, 其所爭執, 雖有緩急之殊, 而本意則誠如是矣.臣非有顧瞻前後左右之心, 而今承聖教, 有若臣, 動於浮議者, 然此猶未盡洞燭於小臣之心事矣, 明彥之罪, 雖是當死, 而自上, 若屈法貸死, 則亦非以死力爭之事, 臣之所見, 本自如是矣.在魯曰, 臣屢承飭勵之教, 豈不仰體, 而閱歷世變已多, 臣亦有所見矣.柳鳳輝之疏, 辭氣勃勃悖慢, 實無一毫可恕之端, 聖上, 雖命復官, 此乃強拂而爲之者, 一邊討罪之人, 無一許可者, 臣之常時所見, 如此矣.明彥則臣於前日, 最相親熟, 今豈有隨人欲殺之心, 而甲辰疏, 終無可恕之端, 一鏡之勢成威立, 莫非此輩數人之致也, 今此還發配所之命, 決知其不然矣.寅明曰, 還發配所, 則似未得當矣.上曰, 若欲稍加於此, 則豈不聽從耶? 何以爲之, 則好耶? 寅明曰, 其父子, 皆當以濟州爲配所, 此亦爲鎮世道安國家之道也.在魯曰, 明彥雖不加刑, 而夏宅, 不可不刑矣.顯命曰, 似不可, 只爲發配矣.上曰, 刑訊而不服, 則將限死加刑耶? 在魯曰, 罪人, 或有初次刑致斃者, 限死與否, 何必預論耶? 寅明曰以杖斃無惜, 爲定然後, 可以始刑矣.上曰, 然矣.若魯曰, 臣則非獄官而以人得以誅之之義, 敢達矣.今此明彥父子事, 右相之言, 誠爲慨然矣.其罪則當殺, 而今已年久不可殺之云, 若以爲無罪, 則當以臣等之爭執爲過, 而今則不然, 以爲罪雖當死, 年久之後, 何必殺之? 其罪非他罪, 乃是逆也, 治逆之典, 何論年久耶? 況其年久者, 無他, 積年斬允之致也, 今於允從後, 以臺啓措語, 發爲問目, 若有發明之端, 則酌處, 可也, 若無分明發明之端, 則酌處豈不無義乎? 寅明曰, 金若魯之言, 與

臣所言，異矣。臣之言，以爲殺之當然，而其所爭執之際，憤聲盡氣者，自與戊申初，有異而已，金若魯何以聞之，而其言如斯耶？上曰，然矣。金若魯以爲，卿謂雖是當殺，不必力爭此言不然云矣。金若魯今聞卿言，而猶未知卿意，則方外之人，必尤甚矣。以明彥·夏宅之事，朝廷每致紛亂，誠爲支離，若是收殺，爲好，故卿等之言，如此矣。若魯曰，大臣亦無欲生之意，臣亦知之矣。然力爭當然，而不爲力爭，此亦慨然矣，此非印僞造殺人之比，則何可以年久生之乎？寅明曰，筵中，非相爭之地，而金若魯，猶未盡知臣意矣。臣伏承聖教，猶未盡燭臣心，故欲明本心，以爭執之形容，比前自有緩急之不同，爲言，初非以爭與不爭，論之者也。上曰，卿亦不知下教之意矣，非謂卿有意輕重也。俄者左揆，亦有去姓之事，有如此之心，則今於夏宅事，亦恐如是，故有所勉戒，卿亦曾以無臣節爲言，此乃人臣之極罪也。當時亦不用極律，則今於年久之後，予之不用極律者，卿必以爲是矣，此予所望於卿者，而卿終不爲此言，故亦爲勉戒矣。寅明曰，此不可以年久生之者，誠如金若魯之言矣。當初則事極嚴急爭之者，牽裾折檻，可也，今則稍緩，從容開陳，可也，而今此下教，則每以年久不當殺，爲教，此則不然，事至年久，則人情，自然稍緩，而以事理言之，則不當論年久與否，關係惡逆者，何可以年久之故，傳之生議乎？上曰，以其事在久遠，從輕處之者，自前亦多有之，若無時象，則必不如是，卿等之言，分數皆過矣。左揆去姓之事，其所係着，可以勉飭，而卿則有異於此，必無疑阻，故以公平望於卿，而今乃操持不捨，誠可慨然矣。在魯曰，臣以處分太寬，陳之，金若魯所謂，不爲力爭，臣亦不免矣。明彥之扶護一鏡，斥補金東弼，以助其聲勢者，既已顯著，甲辰之疏，尤極無狀，且其蒙宥後，不爲陳疏，極爲叵測，雖非賊招，以臺啓中措語，亦可以勘律矣。上曰，予嗣服後，元不陳疏耶？寅明曰，甲辰疏，亦是嗣服後也。在魯曰，以臺啓勘律，則渠亦必無辭矣。上曰，臺啓幾年斬允耶？只以玄機事，聽從矣。明彥·夏宅之事，實爲支離，今若杖斃，則朝廷，可以寧靖，而王者，何可以此枉殺人乎？夏宅則年少，而明彥，豈不有決斷之時耶？在魯曰，以扶護逆鏡事，及甲辰疏事殺之，則此豈枉殺乎？上曰，以玄機事允之，以甲辰疏殺之，則王者處分，豈如是不乎？命臣曰，今此處分，則終涉乖舛矣。初以臺啓爲過，而不爲允從則已，既已允從，拿來發問，而渠不發明，何可酌處乎？上曰，承旨非矣。以臺言允從，則何可如是云，而雖以我朝故事言之，拿來酌處，至於數次者，亦多有之，今則以因臺啓拿來事，欲爲脅持之資，後世之人，必謂今日在上者，見制於群下矣。在魯曰，承旨之言，本意不如此，而下教誠爲過中矣。上曰，予則欲爲脫出之，而今不然矣，承旨之言如是，予之所答，非過矣。雖以臺言從之，若無摸捉

者，則放之無妨，豈可以初既允從爲言，而困其君上乎？寅明曰，承旨之言，大意是矣。上曰，既聽臺啓，則不可如是云，而頃年以疏下六人事，論啓也，予以當有絃韋爲教，則未乃拈出一二人而論之，其時，遂有處分，卿以承旨入來，予諭以今此處分，非予樂爲矣。其時諸臣入侍者，必皆一番開口，以爲制上之習，在下者，不宜有此習，近來則無此習，而此習，甚不可矣。今日處分，人必謂予於臺臣不入之時，爲此處分，而予豈欺心哉？初欲待臺官之入來爲之，而今日卿等，先爲提達，故仍爲處分矣，在上者參酌處之，雖有意，而臺官爭執，亦非異事，臺官則今雖以鞫問爲請，予亦不以爲過，而予之處分，則此外無他矣。寅明曰，今日筵中，雖無臺臣，臺臣爭論，何時不可乎？以臣下責難之道，年少臺官，則雖牽裾折檻而爭之，可也。上曰，明彥·夏宅，非巨魁大慝，何可至於牽裾折檻乎？寅明曰，若是頃年逆變時，則如是，可也。上曰，事干戊申者，以年久之故，酌處者亦多有之矣。顯命曰，此則然矣。寅明曰，當爲少退矣。上曰，處分之事，卿等欲更言之耶？寅明曰，不可以單辭處決矣。上曰，雖以海島處分，亦欲爭之耶？寅明曰，一邊如金若魯者，方此爭執，故不得以海島爲請，而海島之律，不可減之矣。在魯曰，自上終不允從，則臣等當止，而先以海島爲言，則不可矣，勿論律名之如何，大體有誤矣。上曰，如眞儒者，過甚而李明彥，則量狹不弘而浮沈者，故稍有間矣。在魯曰，偏論怪惡，而爲人則非量狹者，以恢弘見稱者也。上曰，不然矣。諸臣少退，承史未及出。上曰，承旨進來。有駭然之事矣。昨日政院，以禮曹堂上，變通差出事稟啓也，予以爲陵奉審，今日當去，則今日口傳差出，明日當去，則待明日差出，無妨，使中官，問其下直之日，中官但當以下直，當在何日？傳于司謁，使之問啓，而竝與差出事，而傳之司謁，又以承旨之言，來啓曰，明日必趁早開政，可以及時差出云，開政早晚，豈是承宣·司謁，所可煩稟者耶？命臣曰，伏承上教，臣誠惶恐，而口傳下教及口傳啓辭，每多差誤之事矣。昨日事，禮曹若無緊急舉行之事，則私忌正日，何敢啓稟乎？陵奉審，十一日出去然後，可以及之，別試·殿試時，直赴事，名紙事及軫對等事，皆當時急舉行，故因禮曹郎廳之言，有所稟啓矣。司謁來傳下教以爲，事急則今日口傳差出，不然則明日政可以差出，爲教云，故以明日受灸相值，或不得開政之意，言于司謁，而至若趁早開政之說，臣等私酬酢之言也。豈知司謁，竝以此傳達乎？上曰，禮曹參判·參議，下直日下問者，其意有在，則中官，誤傳下教，承旨以不緊者，微稟，極爲非矣，竝從重推考。司謁則欲掩誤聽，敢以開政遲速，煩稟，極爲無據，令攸司科治。此一段 下教罷對後自上書下 仍命依此 出舉條承史退出移時，諸臣還入。上曰，卿等出去後，更思之，而予之處分，終非過矣，卿等必以爲

過，則處分，當稍加，而其外，則更無可言矣。在魯曰，聖教如此，豈不欲仰體，而此何等罪，以年久之故，從輕處之乎？以明彥言之，則必欲黜補金東弼，其時，與李肇，大戰於政席，以助鏡賊之聲勢，且其甲辰疏，臣子見之，自然生憤惋之心矣。上曰，卿等之言，如此，其甲辰疏，當取入見之，而予既不欲以此加罪，則見之不緊，故不見矣，所陳之條件，止此耶？在魯曰，其中最重者此也。其言概以爲，辛丑諸臣，非有爲殿下之心也，殿下，倉卒爲凶徒之所擁立，何可以此涵貸耶云云，其時李義淵疏出後，或恐一邊人之復進，故以爲脅持之計，而言之不道如此，此豈挾摘文字者乎？其時殺之，則渠亦必無辭，今以年久之故，聖意如此，而此等關係至重之罪，何可以年久寬之乎？至於夏宅，則四次更推，渠既語屈請刑者，法例當然，而聖意不欲加刑，以從當下教爲教，故仍爲停鞫，而請刑之外，豈有他道理乎？寅明曰，臣之所見，亦與僚相，無異矣，其疏語，極爲絕悖，其時殺之，可也。上曰，與此相類者，有之，趙德隣之疏，亦爲殊常矣。在魯曰，趙德隣之疏，語意陰沈，而無不道之言，且引朱子封事，故以此發明，而明彥則自作不道之語，與此異矣。上曰，觀厚，以其疏言之，則豈可貸王法，而猶且得生矣。在魯曰，胤命代作之事，則既已分明，故渠則不死矣。上曰，雖非渠所作，而極爲陰慘，其末端語，亦極凶慘，而上款二字，予若誦而言之，則實爲辱矣，其二字，豈非斷案乎？觀厚事，在近而生之，明彥事，已遠而殺之，則何以服人心乎？在魯曰，彼則猶爲藏頭之說者，而臺諫，猶至今爭執，此則直爲不道之言者也。上曰，凡事無適莫而後，可也。觀厚則卿心嫉之，不如明彥故也，明彥則論斥其時廷臣，而不覺其語逼在上者也。觀厚則雖云非渠自作，使方欲辱國之胤命，爲其疏直辱在上者，卿等以公心觀之，則尤嫉觀厚，宜矣。在魯曰，觀厚末梢，以誣招刑推，而胤命則以其疏事殺之矣，其疏則猶以文字爲言，而此疏則直是不道之言也，既異於觀厚，又異於德隣矣。寅明曰，明彥疏語，則死有餘罪矣。上曰，其時以疏語論罪，則可也，而今於玄機事後，以此爲罪則不可矣。寅明曰，臣等此言，皆非誠實矣，俄者伏聞下教，可知聖意之難動，而猶爲此言，臣等亦知其不誠矣。聖上之不欲生之者，事理則未知如何，而亦非出於私意也，既非私意，故臣等亦不敢牽裾折檻而爭之，然以事理論之，則臣等亦以爲當殺矣。在魯曰，只以玄機事拿來，則不可殺之者，誠如聖教，而臣等自其前，爭執已久，今以臺啓中語論罪，有何不可乎？上曰，從容思之，則下教之意，不爲非矣，予於他事，何可自信，而此事則誠然矣。明彥則攻斥，在下者之際，語及在上者，蓋其時象之心，拂鬱於中，故自爲突兀之言，觀厚則戊申以後，梟獍餘黨，猶不無之，故湖南亦有怪事，胤命常有此心，故直辱在上者，此乃犯上不道

也.彼則因時象之心,自不覺其言之犯上,胤命則借時象而辱君上,觀厚雖以不知其疏意,有所容恕,而無論自製與借製,書名呈疏則一也,明彥,豈有加乎?在魯曰,觀厚之得生,以其不知其文故也,明彥,豈如是人乎?若魯曰,鞫囚處置之道,觀其招辭而爲之,可也.明彥之招,果有發明之端乎?上曰,謂之出於無隱者,亦可謂發明矣.在魯曰,年久不記之說,非發明矣.上曰,何可以言語文字殺人乎?怪惡之輩,爲怪事者,無非時象之害也.觀厚事,其時李宗城·趙明翼之言,是矣,而予所痛駭者,長慮善處等語,有陷害搢紳之意,故以丙戌年處分李潛之意,處之,而曾聞祖宗朝曹南冥之疏,亦有妄言云,其時亦如是爭之耶?寅明曰,古者姜鶴年,有如此之疏,其時亦有爭論者,而曹南冥事,則不爲爭之矣.上曰,今至幾年之後,以文字殺人,則豈不有愧於漢宣帝乎?宣帝時夏侯勝,爲辱及武帝之言,若使今日,有夏侯勝,則必以爲不道矣,惟彼因時象而爲言者,與辱先朝者,豈不有異乎?右相,亦知予意之難動,而以爲欲生之者,出於公心,其言是矣.今若殺之,則人皆不信,予之處分,人皆謂不足信,則雖小國,何以爲君乎?如是不信,則良人,亦皆化爲梟獍矣.寅明曰,聖上所執,臣亦知其非私意,而至於夏侯勝事,與此不同矣,武帝則真有窮兵黷武之事,其所議論者,雖爲殊常,而亦可謂直切矣.上曰,時方有之,則將謂如何?寅明曰,光海朝鄭經世上疏以爲,殿下之初政,如先王之末年云,宣廟中興之烈,豈不盛哉,而末年任事之臣,或不及於初年,故鄭經世之言,雖如此,亦不害爲直臣,設令今日有此人,臣等,亦豈欲請殺乎?彼則與此不同矣.上曰,以文字言語,挾摘爲罪,終不可矣.向者湖南試所書題事,亦不知而爲之者也,帖子詩事,亦欲申飭而未果矣,曾前則大殿帖子製進官,以弘文館官爲之,而近來乏人,故製進官抄出時,權知之類,亦皆參焉.文字亦有迂闊者,而不爲點下,頃見獻官單子,有落漏臣字者,以此爲罪,則重大,而此不過鄉暗之致,故亦不言之矣,明彥之事,何必謂之逆耶?謂之時象,宜矣,其疏語則諸臣中,必有以爲無情者,而不敢發言,予則謂之無情,而時象則怪惡者也.眞儒之死,亦其自取,渠豈可以杖斃者,而乃其自取無可惜者,而明彥,豈至如眞儒乎?顯命曰,彼此無輕重矣.寅明曰,小臣則以爲明彥有加矣.若魯曰,抑有甚焉.在魯曰,金東弼補外事,一體爲之,其時左相崔錫恒,以一參議,不可如是擅恣陳達勿施矣.寅明曰,此事則同,而亦有不同者矣.上曰,卿則以爲明彥有加,而豐原則以爲不然耶?寅明曰,然矣.在魯曰,聖上,以爲量狹之人,而此則不然矣.上曰,豈其然乎?其所爲之事,雖未多見,而不弘者矣,明彥,若比眞儒則稍勝,明誼則有加於眞儒者也.顯命曰,明誼則不足言也,不過眞儒·明彥之間浮沈者也.上曰,明誼亦非等閑

者，如此者，得志則尤難矣。故相趙泰翁，爲師時，予有所言，則明誼冷笑矣。甲辰年，入於予前，渠有若排斥彼輩者然，此若得志，必亂朝廷者也。若魯曰，若無眞儒·明彥，則明誼渠何爲耶？顯命曰，眞儒·明彥之罪，互相有之。上曰，眞儒之所爲，明彥不爲矣。寅明曰，明彥則辛·壬初頭，不在朝廷故也。顯命曰，明彥則偏論怪惡，眞儒則專擅朝權，自爲吏判之事，又爲兵判之事，又爲副學之事，明彥則出於鞠招，眞儒則不出於鞠招，故其罪互有輕重，而合而論之，莫上莫下矣。上曰，觀厚，至今在囚耶？在魯曰，然矣。上曰，泰績之在囚，今至幾年，而尙爲尋常，可怪矣。寅明曰，泰績則分明之逆賊，得生矣。上曰，此亦得生矣。若魯曰，泰績之啓，既不允從，又以此猶得生爲例，則豈有可死者乎？寅明曰，泰績，應是當殺者也。在魯曰，韓聖欽，狼藉出入於城中，且有人言矣。寅明曰，今此處分之事，國家之失刑，可悶，而聖心，亦出於好生，非是私意，故在下者之爭執，亦與出於私意之事，有異矣。在魯曰，存心於好生，豈不好矣，而治逆之典，不可如是矣。上曰，予志有在，承旨書之。仍口呼曰，當初斬允，意蓋有在，而上曰，今此處分，終非王者之政也，旣無可以加罪者，而只以衆心之沸鬱，將爲加律矣。寅明曰，初則門黜，終爲加律，至於竄配者，亦多有之。上曰，此則無若罪矣。在魯曰，問之而不得發明矣。上曰，心有適莫，則其流之害，至於洪水·猛獸矣。大抵眞儒·明誼，則過爲作用者，而以眞箇心峻論者也，至如一鏡·弼夢，則雖以相貌見之，極爲怪異矣，又有一人姓李而忘其名矣，乙巳年，豈不處分耶？寅明曰，李師尙耶？上曰，然矣。予於壬寅年題主時，始見師尙之面，實爲可驚，入於小次後，問題主官爲誰，則左右曰李師尙也。予點頭曰，其容貌如此，豈不如是作用耶？師尙之死，亦其自取也。在魯曰，如弼夢者，雖以相貌見之，可知其厲氣所鍾矣。上曰，不必以相貌爲言，而觀其眸子，人焉廋哉？聖訓，豈欺我哉？李明彥·豐原所達，亦爲過矣。以予所見，雖以相貌觀之，亦非惡者也，夏宅則戊申年見之，少年也，嫉之者，必以爲尤惡者，而亦不如是矣。在魯曰，今番招辭，極爲過甚矣。上曰，聖教如此，惶恐云矣。寅明曰，殺一不辜，得天下不爲之言，非罪人所當言矣。上曰，獨啓而竄申鉉於海島者，師尙耶？顯命曰，然矣。寅明曰，海島中有三邑，濟州·大靜·旌義矣。此等處分，三司備員入侍後爲之，宜矣，今日引見，非專爲此事也。若魯曰，此事出後，次對二番爲之，而兩司無一人入來，無可奈何矣。上曰，向來眞儒事啓辭時，臺諫多不行公，而其在君使臣以禮之道，群下之事，勿論過與不過，其不美之態，暴揚之不可矣。顯命曰，眞儒·明彥事，啓辭出後，自中名官，無一行公於臺職者，亦足以觀世變矣。若魯曰，此事有從當下教之教，故今日無一人入參者矣。上曰，何必隨其事事而非之？此等

態，不可暴揚矣。寅明曰，今日只是臣等入侍，似爲草率矣。上曰，頃日則日晚，故不爲之，今日當爲處決矣。在魯曰，鞫坐，久未爲之，言端既出，故臣等，亦已陳之矣。上曰，豈有如玄機者乎？痛惡矣。渠不過一妖僧，而僧輩多有被害者，關西必致騷擾矣。在魯曰，玄機初招，以炊飯僧，不使暫離云，而乃往海南，其時已知其虛罔矣。雖明火賊，亦多有誣引曖昧者，區別玉石，難矣。上曰，小貞可生耶？在魯曰，小貞之事，極爲奸詐，一次刑，豈不當受耶？上口呼曰，末梢允啓者，以玄機所告，方爲設鞫，不必相持，故而玄機誣告，既已自服，卽事已脫空。上曰，此事渠何以知之耶？寅明曰，玄機以誣告承服事耶？上曰，然矣。在魯曰，問目則以爲玄機，他事則皆以誣告自服，而汝之事，則不以爲誣告云矣。寅明曰，今番問目，則玄機事，拔之而渠已知之，可怪矣。顯命曰，同爲被囚於傍間者，皆已脫出，或可以此推知矣。寅明曰，在渠人事，雖知之，不當爲此言，而其言如此矣。若魯曰，以獄體言之則其先知玄機事者，亦當發問矣。寅明曰，此等之言，皆是矣，今則縱玩太甚，大事將出矣。上曰，隱伏羲州之說，亦出於宜璉招耶？寅明曰，世樞之招也。上呼曰，往者世樞所告，業亦其時處分者，而上曰，甲辰疏，欲以絕悖爲言，而予既不見，則如是爲言，事涉如何矣，然以卿等所論，可以斟酌矣。寅明曰，臺啓必有所論矣。上曰，臺啓則不言其措語矣。上呼曰，甲辰冬疏，雖曰絕悖，以其過幾年事。上曰，其時竄配，以疏語爲罪耶？寅明曰，然矣。上呼曰，曾經竄配，到今施以極律，卽王政之過者，此等事，俱若下教，則還配之外，其無他道，而但鞫事莫重。上曰，卿等則見其招辭，而謂之無所發明耶？在魯曰，甲辰疏，不能發明矣。上曰，世樞之言，則發明矣。寅明曰，然矣。在魯曰，自上，每如是爲教，故渠乃發明矣。上呼曰，渠之招辭，別無痛快處，則其在嚴鞫體之道，亦不可只施遠竄罪人，明彥其配海島。寅明曰，濟州配所，當自禁府爲定，而此非微罪，自上直勘，則尤可爲辭嚴義正矣。在魯曰，似當安置矣。寅明曰，當以減死爲律名矣。上曰，非朝官乃鞫囚也，何可安置耶？減死則非矣，但此有可悶者，過於時象者，往在海島，教其時象，則海島中士人，皆必學之矣。寅明曰，濟州則不爲關係矣。上曰，又書之。寅明曰，此亦不可不以海島，爲之矣。若魯曰，夏宅，豈可亦爲酌處耶？臣以人得以誅之之義，仰達矣。上曰，夏宅，逆耶？在魯曰，自下皆以爲如是矣。顯命曰，今若限輸情刑訊，則過矣，而公然酌處，則失之太寬矣。上曰，先書其名，可也。命臣，書罪人夏宅，上口呼曰，衣縫之書，戊申親鞫時，業已下教者，兩司閱歲爭執，尙今靳允者，意亦有在，而今者其所允啓者，亦無他，因此鞫事，欲觀供辭矣。渠之供辭，雖欠別白，亦無違端，則其當依前發配，而海正，雖已物故，賊中傳喝之說，極涉殊常，既問之後，

亦不可以持身不謹之律，仍配亦配海島。上曰，又書之。仍口呼曰，明彦·夏宅配所，以大靜·旌義書入事，分付。

3) 『승정원일기』(권 971) 1744년(영조 20) 4월 29일.

○ 持平閔光遇來啓曰，坦事·泰績事·瑞虎·元諧事·陸師聖事·尹志事.措語竝見上 夏宅嚴訊之啓，年久力爭，終未蒙允.使之自斃於配所，神人之憤惋，當復如何？王章之所可伸者，惟有孥籍一事也.執法之論，不可因而遽停.請物故罪人夏宅孥籍，亟令王府舉行.… 答府曰，不允.

50. 김성탁(金聖鐸)

- 신분: 관리(교리)
- 유배 연월: 1737년(영조 13) 6월 2일.
- 이배 연월: 1738년(영조 14) 5월 24일(광양현).
- 사유: 간쟁(이현일〈李玄逸〉 신원 상소, 영조 반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44) 1737년(영조 13) 6월 2일.

○ 上引見大臣禁堂, 命安置金聖鐸於絕島. 上謂諸臣曰: “聖鐸既知黯, 義微爲逆, 而至於明嫡庶之說, 渠輩相諱不能知者, 非異事矣.” 左議政金在魯曰: “甲戌處分不嚴, 故馴至於此, 後弊不可不念也.” 判府事徐命均曰: “玄逸既不伏法, 而加聖鐸極典過矣.” 上曰: “玄逸之死於隔下, 實由寬大之盛德, 名在歲抄, 於渠幸矣. 今聖鐸憑藉清顯之職, 敢稱生三事一之義, 其疏足爲斷案, 所供亦多周遮, 其在樹義理嚴防限之道, 足以正法. 且爲嶺人曉倫綱, 亦不可已者, 而察其爲人, 直是癡騃, 不無參酌之道. 特減其死, 絕島梟棘.” 在魯曰: “如是酌處, 大拂物情, 聲罪既重, 勘律太輕矣.” 上曰: “罪當正法, 而欲爲寬恕, 故終近苟且矣. 聖鐸因臺啓發, 姑囚本府.” 司諫許沃申前啓, 不允. 又啓請寢金聖鐸島棘, 更加嚴鞫, 不允. 持平洪啓禧申前啓, 不允. 又啓請寢金聖鐸島棘, 快正邦刑, 不允. 請前後別薦聖鐸, 李我諸人削職, 我, 玄逸之子也. 上以子與門徒有輕重, 命薦我者削職, 薦聖鐸者罷職. 又以不能執法, 請禁府諸堂罷職, 上只命重推.

2) 『승정원일기』(권 850) 1737년(영조 13) 6월 2일.

○ 許沃曰, 玄逸已已之疏, 犯分悖義, 蔑倫不敬, 輿情之憤痛, 至今未已, 而罪人金聖鐸, 乃敢稱以門徒, 恣意訟冤, 遣辭造意, 俱極叵測, 親鞫嚴問之下, 又復終始抵賴, 其爲情狀, 尤可痛駭, 今此酌處之命, 雖出於好生之大德, 名義至重, 輿情愈激, 決難容貸, 使得假息, 請還收罪人金聖鐸絕島梟棘之命, 更令王府, 嚴鞫得情, 以正王法. 上曰, 樹紀綱嚴隄防, 此則關係甚重, 何待臺臣之言, 而今者處分, 意有所在, 不允.

3) 『승정원일기』(권 858) 1737년(영조 13) 윤9월 9일.

○ 俞健基, 以義禁府言啓曰, 本府都事十員內, 一員本府入直, 一員當直入直, 五員東堂文武科五所禁亂官進去, 一員方在囚禁中, 都事趙昌林, 鍾城府遠竄罪人李秉常押去, 都事宋載恒, 旌義縣梟棘罪人金聖鐸押去, 公事交代都事, 無以推移備數. 出使都事趙昌林·宋載恒, 令該曹卽爲口傳閑官換差, 何如? 傳曰, 允.

4) 『영조실록』(권 47) 1738년(영조 14) 5월 22일.

○ 上召大臣及金吾諸堂, 行疏決于熙政堂. 命放李顯弼, 趙德隣, 姜世胤等, 命金聖鐸撤籬出睦, 李觀厚, 陸天顯, 睦聖觀出陸, 命復洪致祥, 睦趾敬官, 皆重罪者也. 金致堽, 李聖海, 趙明履, 韓億增諸人亦或出陸或量移, 皆以言獲罪者也.

5) 『승정원일기』(권 872) 1738년(영조 14) 5월 24일.

○ 李重協, 以義禁府言啓曰, 今五月二十二日, 親臨疏決時, 未及拿來罪人, 金海前府使朴泰新, 天城前萬戶金重兌, 鍾城前府使權燮, 竝削職放. 加德前僉使盧恰, 放, 施以告身三等之律. 安骨前萬戶金春瑞, 罷職放. 晉州前營將朴時佐, 廢茂山萬戶徐友錫竝放. 各道定配罪人龍岡縣量移罪人李獻章, 傳教內, 初旣法外, 不可每仍, 遠斥不逞之道, 亦不可例放, 放黜鄉里. 燕岐縣姜世胤, 晉州牧許鍾, 錦城縣李時熙, 龍川府李顯弼, 長鬐縣張洵, 竝放. 巨濟府李喜報, 放, 終身禁錮. 各道徒配罪人龍川府鄭璉, 德川郡尹興國, 金山郡禹如天, 平昌郡姜必齊, 泗川縣車世徵, 寶城郡丁熙弼, 會寧府二太, 德川郡鄭興僑, 恩津縣黃澤, 德山縣再暉, 大興郡再暉, 德山縣權徹, 楊州牧俞彥哲·許樹, 廣州府全聖俞, 楊州牧徐宗朝·李相堯, 永平縣李弘模, 礪山府金亨魯, 咸悅縣李思海等, 竝放送事. 疏決單子啓下矣, 竝依此舉行之意, 分付各其該道. 而懷仁縣定配罪人崔鳳禧, 減等, 仍其地, 以徒三年改錄之意, 分付該道. 金溝縣出陸罪人安鐸, 昆陽郡出陸罪人朴景淳, 靈巖郡出陸罪人沈益衍, 茂長縣定配罪人炯, 鏡城府極邊投畀罪人趙明履, 機長縣遠配罪人韓億增等, 竝量移. 珍島郡減死絕島定配罪人睦天顯, 出陸量移. 興陽縣羅老島減死絕島定配罪人睦聖觀, 出陸量移. 康津縣薪智島減死絕島定配罪人李觀厚, 出陸. 羅州牧黑山島島配罪人李聖海, 其道出陸. 扶安縣蝟島減死絕島定配罪人許堧, 出陸量移. 終身禁錮旌義縣減死絕島梟棘罪人金聖鐸, 傳教內, 所犯雖重, 頃者酌處, 出於矜惻, 于今疏決, 以孝爲治之道, 亦不無

參酌，特爲撤籬出陸.扶安縣蝟島島配罪人金致堉，其道出陸事，單子啓下矣.安鑄，金城縣量移，朴景淳，忠州牧量移，沈益衍，洪川縣量移，炯，寧越府量移，趙明履，安邊府量移，韓億增，尙州牧量移，睦天顯，堤川縣出陸量移，睦聖觀，永春縣出陸量移，李觀厚寶城郡出陸，李聖海，長城府其道出陸，許堧，大興郡出陸量移，終身禁錮金聖鐸，光陽縣撤籬出陸，金致堉，泰仁縣其道出陸.依前罪目，發遣府書吏羅將，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51. 이숙(李櫛)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37년(영조 13) 8월 2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이감(李槓) 모역 연루)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855) 1737년(영조 13) 8월 27일.

○ 趙明<謙>, <以>義禁府言啓曰, 慶尙假都事牒呈內, 興海郡逆賊槓, 緣坐安置罪人櫛, 逃還本土, 搜捕押送事報來, 故櫛, 搜得捉囚之意, 移文左右捕廳矣. 卽接左右捕廳牒報, 則罪人櫛, 執捉拘留云. 依定式令刑曹嚴刑後, 濟州牧旌義縣絕島定配, 而仍前罪目, 發遣府羅將, 押送配所, 而當該配所官, 常時不能嚴飭, 莫重緣坐罪人, 有此逃失, 不可無罪. 分付道臣, 使之指名現告, 以爲啓聞論罪之地, 何如? 傳曰, 允.

52. 양취형(楊就迥)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38년(영조 14) 9월 19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대역부도죄인 양취도〈楊就道〉 아우), 배소 도망.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47) 1738년(영조 14) 7월 5일.

○ 上自藝文館小次, 出臨帳殿, 親鞫諸罪人楊就道, 楊敏益. 就道刑二次, 至九度, 以逆鏡爲直臣, 麟賊謂之名正言順. 見《祖鑑》時, 窮凶極惡之說, 皆是自做. 初供推諉於敏益, 始搏者, 此是誣陷報復之計, 遲晚結案. 敏益刑二次, 亦承款, 結案, 竝磔于市, 孥籍如法. 敏觀終不服, 以緣坐絞, 就迥爲奴于三水府, 命稷放, 楊始搏加資, 敏益之子始 命罷繼, 分揀, 以始搏之弟故也.

2) 『승정원일기』(권 874) 1738년(영조 14) 7월 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傳教內楊敏觀, 則就道既已承款伏法, 雖不遲晚, 自有應坐, 分付該府舉行. 楊就迥, 亦令王府, 依律勘處事, 命下矣. 罪人敏觀, 依律文不待時緣坐處絞. 而法典內, 夜未明勿行死刑云, 待明日舉行. 就迥以就道之庶弟, 依律文緣坐, 爲奴於咸鏡道三水府.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878) 1738년(영조 14) 9월 1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公洪監司尹敬龍牒呈, 則枚舉清安縣監所報內, 大逆不道罪人就道同生庶弟, 緣坐爲奴於三水府之後, 逃還來, 故執捉嚴囚云. 罪人就迥, 到配未久, 旋即逃還之狀, 萬分痛駭. 依定式就迥, 令該道, 嚴刑一次後, 濟州牧旌義縣, 緣坐爲奴,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而莫重爲奴罪人, 非但不能嚴飭, 致令逃還本土, 又至今尚無覺察論報之事, 尤極駭然. 當該地方官三水府使, 不可不拿問嚴處. 令本道, 指名現告, 狀聞後, 稟處, 何如? 傳曰, 允.

53. 송익휘(宋翼輝)

- 신분: 관리(병조 정랑)
- 유배 연월: 1741년(영조 17) 6월 19일.
- 이배 연월: 1743년(영조 19) 6월 13일(강진현).
- 사유: 봉당(소론계 이광의〈李匡誼〉 연루, 당심)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932) 1741년(영조 17) 6월 19일.

○ 在魯曰, 亦謂議於翼輝, 則可, 謂之爲翼輝所勸, 而匡誼發此啓云, 則亦非矣. 泰齊曰, 匡誼發啓, 而入於死地者, 因其妄毒也. 得生者, 亦因其妄毒也. 上下, 皆以妄毒處之, 故活之矣. 上曰, 此言正是矣. 翼輝既用次律, 則無加於黑山島者矣, 何處可乎? 在魯曰, 可送此處矣. 始炯曰, 同罪之人, 何可送之一處乎? 上曰, 類類相從, 則可矣, 而判義禁之言, 亦是矣, 當送何處乎? 始炯曰, 大靜·旌義, 遠於黑山, 而亦深於濟州矣. 弼均曰, 聞楸子島險惡云矣. 在魯曰, 無邊將處, 勿定配所事, 定式矣. 上曰, 予曾禁之矣, 可以旌義爲配矣. 承旨書傳旨. 吳遂采執筆進伏. 上呼傳曰, 翼輝之無君無父, 無倫無義, 非特上下共知, 以渠之供辭及遲晚者, 莫敢隱諱, 暗地粧撰, 教誘匡誼, 欺君罔上, 肆然黨心, 誣援至親, 傷倫悖義, 都無人理, 卽此二件, 已渠之遲晚者, 而敢欲傳合於匡誼詬罵等說, 以不忍聞三字, 教誘匡誼, 其猶不足, 巧飾註脚, 已極陰慘, 而帳殿親問之時, 以不忍聞之句語, 去其忍聞二字, 泛稱道字, 游辭周遮, 不爲直招, 尤爲巧詐. 噫, 匡誼筵奏, 不過臨時臆對, 翼輝巧飾, 卽是爲黨粧撰, 以此推之, 翼輝較重於匡誼矣. 匡誼, 則以事近無心, 其雖酌處, 翼輝, 焉敢追王章乎? 故累日嚴訊, 期於輸情者, 意蓋此也. 而渠極頑忍, 終不承款, 輔相之首尾陳達, 既有所據, 一巧惡無君之翼輝, 杖殺無惜, 而其或杖斃, 無君巧惡之狀, 中外何以洞然知之, 不若勉從股肱之請, 因酌處而洞示, 況既施之刑, 庶可謂懲勵, 十分參酌, 旌義縣減死嚴棘. 噫, 咸曰改革, 既已上告之後, 有此慘刻之黨人, 快正邦刑, 懸首藁街, 義理當然, 而此則事端有焉, 既已鞫問之後, 正法酌處, 其從法文. 今者翼輝之戴頭生出, 可謂寬典之寬典, 而進諸窮海, 卽所以投諸有北之意也, 咸使知之. 書畢. 上命倍日發配.

2) 『영조실록』(권 58) 1743년(영조 19) 6월 13일.

○ 上憂旱, 行疏決, 至宋翼輝文案命仍置之. 領議政金在魯曰: “李匡誼爲翼輝之根本, 而匡誼則出陸, 翼輝則尙不減等, 論以法理, 恐非平當.” 上曰: “匡誼則無心, 而翼輝則非無心者. 予於此隄防甚嚴, 有難變改矣.” 同義禁洪景輔曰: “翼輝事, 援引至親之大臣, 情狀則可痛, 而參究情法, 容有可恕矣.” 上又問刑曹判書鄭羽良, 羽良曰: “論以法理, 比匡誼差輕, 宜參酌也.” 副應教尹光毅, 正言洪益三之對亦如諸臣, 上始命撤籬, 出陸于康津縣.

3) 『승정원일기』(권 959) 1743년(영조 19) 6월 13일.

○ 宋翼輝. 上曰, 仍. 在魯曰, 李匡誼則出陸, 而宋翼輝則尙不減等. 李匡誼是根本, 而宋翼輝不過指揮之人也. 匡誼已移送地, 而翼輝未蒙差減, 論以法理, 恐非平當. 上曰, 匡誼不過一怪物而已, 猶可謂之無心, 而至於翼輝, 則非無心之比, 而予所切痛者也. 予於此等處, 堤防甚嚴, 此予之苦心. 卿之所達雖如此, 有難變改矣. 景輔曰, 臣每欲以此事, 一番陳白, 而今因其端, 敢此仰達矣. 翼輝事, 在渠, 雖有不善處身之失, 本非自朝家大段聲罪之端, 且念親友之情親者爲臺諫, 有所來議, 則其所指揮者, 不是異事. 然至於援引至親之大臣, 指揮罪人, 其情狀, 萬萬切痛, 死固無惜. 而參究情法, 容有一分可恕之道矣. 渠雖蒙宥, 將焉用之? 知舊亦將棄之. 而朝家之尙置重律, 終涉太過矣. 上曰, 秋判之意, 何如? 羽良曰, 大臣所達, 同義禁之言, 皆是矣. 臣於宋翼輝事, 以其罪狀, 曾有所仰達. 而論以法理, 比匡誼差輕. 根本之匡誼, 既減其律, 則枝葉之翼輝, 尙置海島, 已過三年, 豈不冤乎? 宜有參酌之道矣. 上曰, 儒臣之意, 何如? 光毅曰, 究其心情, 雖出於黨私之偏, 以法論之, 不過屋下私談, 比匡誼差輕矣, 尙置重律, 終涉太過矣. 益三曰, 大臣諸臣之言是矣. 當此疏決之時, 合有疏通參酌之道矣. 上曰, 此故重臣之獨子乎? 其父賢矣. 何以生如此子耶? 其時予有下教, 渠若思其父, 則宜有感容, 而言辭自若, 誠無據矣. 予之苦心, 實難變改, 而大臣及諸臣所達如此, 渠何足觀也? 念其父而特用冤典, 撤籬出陸, 可也. 命書傳旨曰, 背君甘黨, 傷於倫理之人, 雖物故海中, 奚足惜也? 而首揆法官所陳, 不無意見, 十分參酌, 十分參酌, 撤籬出陸.

54. 박사양(朴師讓)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45년(영조 21) 10월 2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박필몽(朴弼夢)의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59) 1728년(영조 4) 4월 10일.

○ 鄭錫五, 以義禁府言啓曰, 京兆查出帳籍及當部所報成冊, 今始來到, 逆賊弼夢應坐諸人, 列錄以來, 故依弼顯例, 子婦壬伊·孫女完惠·孫子今年生等, 慶尙道巨濟府, 並緣坐爲奴婢, 子婦加應只, 全羅道珍島郡爲婢, 同姓姪子師讓, 平安道鐵山府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各在於果川·全州地云.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而其中弼夢季子師沈, 既已年滿, 當依弼顯例處斬, 而不知去處云. 令本道及左右捕廳各別窺伺, 期於捉得後舉行,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993) 1745년(영조 21) 10월 20일.

○ 金光世, 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西北邊地逆賊緣坐罪人抄出移配絕島事, 命下矣. 平安道鐵山府爲奴罪人逆賊河子多致, 移配濟州牧. 逆賊弼夢姪師讓, 移配全羅道旌義縣. 龜城府爲奴罪人逆賊有翼弟鳳巖, 移配大靜縣. 朔州府爲奴罪人逆賊方憲弟守經, 移配扶安縣. 蝟島鎮. 昌城府安置罪人逆賊文著庶叔恒齊, 爲奴罪人文著弟光著, 庶弟聖著, 移配康津縣. 古今島. 爲奴罪人逆賊萬周弟鎮周, 移配康津縣. 薪智島. 渭原郡爲婢罪人逆賊維賢妾重涉, 移配羅州牧. 智島爲奴罪人逆賊應良庶叔效聃, 移配巨濟府. 理山府爲奴罪人逆賊瑞鳳子(子)宗先, 移配萬頃縣. 古群山爲奴罪人逆賊濟時弟世緝, 移配羅州牧. 智島. 咸鏡道甲山府爲婢罪人逆賊有翼母福愛, 移配萬頃縣. 古群山爲婢罪人逆賊維賢妻降愛, 移配珍島郡. 富寧府爲奴罪人逆賊培子福守, 移配大靜縣. 茂山府爲奴罪人逆賊天海弟萬海, 移配濟州牧. 穩城府爲奴罪人逆賊天永弟七曾, 爲婢罪人天永妹繼順, 移配巨濟府. 安置罪人逆賊天海叔再興, 移配康津縣. 薪智島. 慶源府爲婢罪人逆賊有翼女白桂, 妹美艷, 移配珍島郡. 爲婢罪人逆賊天永女至愛, 子官伊·先伊, 移配南海縣. 而右罪人等, 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55. 이존중(李存中)

- 신분: 관리(대사간)
- 유배 연월: 1751년(영조 27) 7월 2일.
- 해배 연월: 1752년(영조 28) 12월 15일.
- 사유: 왕명 비판(대신 능욕/ 탕평 정치 비판 상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73) 1751년(영조 27) 3월 2일.

○ **竄大司諫李存中于巨濟.** 時存中上書論時事, 其書曰: 嗚呼! 戊申凶黨之怨國, 厥惟久矣. 始張於己巳, 轉激於辛巳, 含憾於丙申處分, 終至於釀成滔天之禍, 可勝痛哉? 惟我大朝之乙巳初政, 豈不光明嚴正, 而大慝巨魁, 尙追王章, 故倫綱絕斁, 義理晦塞, 神人之憤, 久而莫洩. 向日合辭之論, 實出於正君綱討亂賊之意, 則苟有一分人理者, 宜不敢異同於此論. 而隨發輒停, 必欲角勝乃已, 然猶不敢顯肆申救. 獨彼李宗城者, 乃敢以貫日宥世等說, 右袒凶魁, 小無忌憚, 而朝廷之所以處之者, 殆若薄物細故, 推遷引進, 如恐不及. 以是之故, 其餘干犯大論之輩, 前後銓官隨續檢擬於清選, 馴致曹命教之挺身獨當. 一政四人肆然注擬, 而隄防之壞無復餘地. 討復之論日漸泯滅, 豈不寒心哉? 臣謂前後注擬負犯諸人之政官, 宜一併譴罷, 而右袒之宗城, 停啓之諸臣, 亦當亟施屏裔之典, 使凶徒知畏也. 爲國之要, 專在於士夫名節. 故國之將亂, 名節先亡名節亡則廉恥喪, 諛佞進而大權奸於是乎得肆其志矣. 嗚呼! 今日世道, 可謂痛哭而不足矣. 一國如狂惟利是趨, 居廟堂者, 以固位要寵爲命脈, 逢迎承順爲身計. 臺諫專事含默, 庶僚只圖哺餽, 數百年列朝培養之名節, 掃地無餘矣. 惟我邸下, 受大朝付托之重, 其所以倚任咨訪, 矯揉世道者, 只在輔相之得其人. 而惟彼大僚姿本闖茸, 素無識見, 一生伎倆, 專用權數, 滿腹撐拄, 都是慾火. 中年患得之心, 轉成狂易之症, 喜怒無常, 舉止駭悖. 入則仰面嘻笑, 少無敬謹嚴畏之意, 出則肆氣咆哮, 用作脅世御人之資. 至於班行之叱罵搢紳, 公堂之驅迫朝士, 法殿之脫靴, 大路之徒步, 凡在瞻聆, 莫不駭愕. 蓋其爲人, 雖在不病之時, 特一麤鄙庸濁之流, 而堂堂具瞻之地, 乃以此喪性之人, 苟然充位, 街童走卒, 皆以狂相目之, 其爲朝廷之辱何如哉? 其弟尙魯性尤陰鷲, 行又黠猾, 外假公平, 以階發身, 內藏機括, 籠絡一世. 兄據鼎席, 弟

處銓地，聲勢相倚，表裏共濟，潛抑異己，顯推私朋，內而卿宰陞遷，外而藩閫薦剡，無不主張愆愆，而要不出於姻婭血黨。勢利所驅，附趨日衆，及其釁尤層積，公議拂鬱，則或恐他人之議己也，乃敢爲拒塞言路之計，欲論之臺臣，斥補遠邑，緘口之諷語，至發政席。且其葬妻之地村里效勞者，數年之內，前後收舉至於十三人之多，敢以朝廷官爵，作爲樹黨酬功之資。幹旋運用，唯意所欲，而眷遇至重，根基甚固，故人皆畏其陰中之禍，舉相爲戒，莫敢疵議，寧負國家而不敢忤金氏兄弟，吁其可怕也已！惟其處高位主世道者，嗜利貪權，一至於此，故風聲所暨，俗習大變，以名節爲弁髦，以利祿爲標準。如李亮天之陽托士論，掠取時譽，反復言議，回互心腹者，濫叨清選，金善行之專媚當路，坐席幾弊，爲兄求官，涕泣乞憐者，猥玷東壁。身爲士子，迹廁名塗，而甘爲索價搖尾之態，聞者掩耳，言之可羞。曹命采之才聞子喪，挾妓張樂，南來之人莫不唾罵，嚴瑀之貪饕污穢，行查不實，西土之民無不憤惋。如此薄行無恥之輩，雖不可以名節責之，至若蔭路抄選，全取行誼。而崔載興之素無檢飭，恣行穢悖者，盜竊學名，亦參是選，舉世喧傳，作一笑囨。其污辱衣冠，更無可言，此莫非大官非其人而風習隨以不美也。噫！名節之盛衰，全係於臺閣，而自古操國柄者，其所顧畏，亦莫過於臺閣之敢言。今日臺閣之權，歸於宰相久矣。培植布列，無非異軟附己之類，間或有能自樹立者，一言脫口，詬罵隨至。或譖之以傾軋，諉之以指喉，或毀之以雜類，訾之以不擇。換面游辭，疑亂天聰，終至於一斥不復，苟非至愚之人，誰肯捨巧宦之階而取撲燈之禍耶？是以媵姻成風，氣節消沮，臺閣之體日卑，宰相之勢日張，臣恐此非國家之細慮也。今邸下如欲扶植名節，挽回世道，則如彼大臣決不可獎用。而如金尙魯貪權樂勢之類，亦宜亟加斥黜，以示好惡。餘外諸人，并刊仕籍，前後以言獲罪之臺官，一併甄敘，以勵頽俗，有不可已也。我國良役之爲弊，其勢必至於亡國而後已。乃者天誘聖衷，銳意拯救，始議戶布，末乃減正，甚大惠也。如使群臣仰體聖心，多方講究，務至於十停百當之地，則庶幾爬梳積瘼，漸就實效。而今之所區劃講定者，不過曰收藩閫之若干錢穀，括州郡之若干餘結，東破西補，猶未充足，則又創別軍官名目，始自世族之殘裔，以至於鄉品之庶孽，無一得免。稱號雖別於編伍，收布實同於簽丁，朝三暮四，其孰信之？八路嗷嗷，荷擔相望，獸駭鳥散，愁怨載路，或曰某邑之官長逢辱，或曰某鄉之閭里殆空。遠外風聞，雖未可盡信，而減布之效未著，收布之怨方起，民情之不悅，亦可知矣。我東規模異於他國，常民既慣賤役，故窮未必濫，士夫頗識道理，故勞而無怨。獨彼處於兩間者，既無恒產，又無恒心，在平時獨有不安分之心，今乃一併驅之於納布之科，則其勢終必至

於困極思亂而已，臣竊懼之，臣竊憂之。夫饒藩之需儲不少，而國計未贍，則不害其取用，豐邑之田結多漏，而法典有違，則亦宜其搜括，而列朝以來置而不問者，非爲貪污輩囊橐之資也。營閩之用度浩大，州縣之支應多端，必使財用恒有餘裕，然後水旱調賑之資，徭役絀縮之數，亦得有所推移充補，以紓一時之民瘼。抑或有意外緩急之變，則尤不可無財而能做事也。今以一切搜斂爲務者，是豈經遠之謨哉？減疋之令已布，輿民之望方切，則今不可中止。誠宜聚精會神，研究善策，以爲萬全無弊，永久遵行之圖，不可如此零瑣湊合，草率了當，以益生民之怨也。臣本迂闊腐儒，不識時務，寧有嘉言善策，可以仰贊聖朝奮發之志，而第聞聖人論治道，不過曰節用而愛人，唐家之大變通，必以併州縣省吏員爲先。我朝先輩之論事務者，必以汰冗兵爲最，苟能於此數言者，深思而熟計之，則夫豈無恰好至當之策，可以填今日給代之數，有以蠲百年之痼弊，而結四方之民心也哉？書入，上御時敏堂，東宮侍坐。命存中入侍，上曰：“汝之釋褐也，旣已面飭，則此何事也？”存中曰：“臣以世祿之臣，目見國事之日非，冒萬死陳此書。臣非不知觸忤權倖，大禍立至，而忠憤所激，不得已爲此，至於義理關頭，不可不辨破故耳。”上曰：“爾必見《大訓》，敢以辛壬之事，陳之於元良耶？”存中曰：“臣之書意，本不當於《大訓》矣。”上厲聲曰：“爾敢言不當於《大訓》耶？爾旣有滿腔黨心，則直言之可也。爾以丙申愠憾之言，隱然歸之於戊申，丙申何關於南人，爾今欲以二邊人，一併驅之於逆科耶？”存中曰：“戊申凶黨，卽千右大變，而自己·辛以來釀成者。故臣只舉入其中者而斥之，臣何嘗盡驅二邊乎？”上曰：“非爾之自辨，必有指使之人，果誰耶？”存中曰：“臣雖不似，職是臺官，何爲如此下教乎？”上曰：“李宗城等，卽調劑之人，而爾欲盡逐之，此豈無黨心耶？”存中曰：“卽今調劑云者，非眞調劑，乃樹私黨也。”上曰：“四人云者，金始煒，趙鎮世，沈外，一人誰也？”存中曰：“徐志修停合啓矣。”都承旨尹東度曰：“其時徐志修欲停啓云云矣。”上曰：“豈可以此枳之？”又曰：“臺臣斥補云者誰耶？”存中曰：“李敏坤也。金尙魯除邑曰‘某也欲爲某言，故出外’矣。”上曰：“‘緘口之諷語，至發政席’云者，果何事也？”存中曰：“尙魯在銓時，差除臺諫曰：‘不言爲妙。’云矣。”上曰：“李亮天果合於回互之目耶？”存中曰：“亮天自言參選，則當爲合啓云矣。及其三入臺地，再入玉堂，終無一言，其心豈不回互耶？”上曰：“曹命采果張樂耶？”存中曰：“臣上書後更聞，則果爽實矣。”上曰：“果挾妓耶？”存中曰：“嶺南乃禮義之鄉也。命采於其成服內，挾妓行樂，故南土之人無不傳說，行樂誤書以張樂矣。”上曰：“一心爲民，幾番臨殿，而爾以減布爲非，此乃浮動百姓之意也。”存中曰：“臣何敢以減布

爲非耶?”教曰:“噫!李晋吉趨時挾雜,先自跳踉,今李存中滿腔黨心,凌踏大僚,一倍晋吉.而以一筆句斷其兄弟,是可忍也,孰不可忍也?李宗城事,此亦黨心.《傳》所云屏諸四裔,不與同中國,卽指此等人也.李存中 巨濟府投畀,倍道押送.”

2) 『영조실록』(권 74) 1751년(영조 27) 7월 2일.

○ 黜吳瓚,黃枬,尹學東,安允行, 移配李存中于旌義縣.時合啓諸臣,胥命於金吾,至是上始下嚴教,命合啓首唱臺臣,施以門黜之律,又命安允行,尹學東二人,并施門黜.又教曰:“李存中卽百祥之先鋒,合辭之引路也.先有黃枬,後有吳瓚,放恣護黨,李存中氣勢,可以推知.”遂下旌義縣移配之命,黃枬,吳瓚,亦施門黜.

3) 『승정원일기』(권 1071) 1751년(영조 27) 7월 2일.

○ 辛未七月初二日申時,上御崇文堂.承旨入侍時,右承旨權一衡,假注書蔡緯夏,記事官朴海潤·李慶濟,進伏訖.上曰,承旨來書傳旨,一衡進伏.命書之際,上曰,李存中島配何處耶?一衡曰,巨濟島配矣.上曰,尹學東·李渭輔,一則挾雜,一則鄙陋,其曰賊堅復生云者,其時左相,未及卜相,是逼於領相之言也.學東,亦可行玉堂者乎?是攘臂助勢之類.安允行筵席之間請寢,而外作此舉,二人形迹,予當畫像矣.命書傳旨曰,諺云雖鼓樂之聲,恒聞苦云,況不忍聞者乎?頃者柳鳳輝處分時,已示弦韋.其時有下教者,爲今日臣子者,焉敢復售黨心?而乘元良之沈默,幸其君局外之教,甘心黨習,跳梁元良,是眼無其君也,眼無其國也.已涉無嚴.而雖不提說百祥,四字之意,含包其中,予已痛心.百祥放恣書陳之後,諸臣之心已露.況頃者下教,豈臣子所忍聞?而且堇廻蘇之君,忿慨世道,方昏昏于枕席,若無其心,效古人當剖腹鳴冤,一或有挾雜之心,亦宜效古人自剄闕下,以白悚慄之意.而雖俱不若此,爲臣子之道,聞此教,其宜不避風雨,免冠席藁於王府門外,臣分當然.而依幕金吾之外,借名待命之義,初不盡乎臣節,末又掃盡臣分.噫,一隅青邱,將至於禽獸之域,而若此乎?待元良之處置,而其猶無聞.予雖益衰,太阿尙在手,豈一向泯默,先懲大者,今番合辭,首唱臺臣,施以門黜之律.安允行聞局外之教,筵席之間,飾請還寢.於其黨類,曰其機而傳諭,乃作此舉.尹學東,述編中兢業二字,筵席之間,因文義,勉君靜攝.於其黨類,揚臂助勢,不有其君,二心事君,將焉用哉?併一例施以門黜之典.李存中頃者書中句語,卽百祥之先鋒,合辭之引路也.若此之故,於元良不顧受君命,代理於其君,不恤

處分之嚴正.先有黃桺, 後有吳瓚, 放恣護黨, 少無臣分.存中黨中氣勢, 可以推知, 雖不投乎豺虎, 豈可同配黨人, 李存中, 旌義縣島配, 倍道押送, 護黨之人, 亦不可不嚴懲.黃桺·吳瓚, 併施門黜之律.噫, 甚者已處分, 同心隨之, 趨附勉從之輩, 予何諭哉?

4) 『영조실록』(권 77) 1752년(영조 28) 7월 1일.

○ 義禁府達曰: “在謫遭親喪者, 許令歸葬, 既有法典矣. 旌義縣島配罪人李存中, 遭父喪云, 許令歸葬.” 令曰: “依.”

5) 『승정원일기』(권 1084) 1752년(영조 28) 7월 1일.

○ 以義禁府言達曰, 在謫遭親喪者, 許令歸葬事, 既有法典矣.即者全羅道濟州牧旌義縣島配罪人李存中, 代奴呈狀內, 其上典遭父喪云, 依法典許令歸葬之意, 分付道臣, 何如? 令曰, 依.

6) 『승정원일기』(권 1089) 1752년(영조 28) 12월 15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投畀罪人旌義縣李存中, 珍島郡張澍, 機張縣柳謩, 大旌縣李宜哲, 藍浦縣曹命教, 海美縣徐命臣, 報恩縣趙重稷, 庇仁縣李朝望, 懷德縣丁喜慎, 結城縣尹得徵, 青陽縣李運海, 泰安郡韓光肇, 庇仁縣林象元, 舒川郡李重祚, 海南縣南泰會, 固城縣李壽德, 熊川縣柳顯章, 河東府朴起采, 昆陽郡任希教, 北青府鄭純儉, 茂長縣金尙重, 靈巖郡閔宅洙, 扶安縣朴昌潤, 沃溝縣李堉, 長興府鄭基安, 咸平縣權抗, 務安縣李思觀, 海南縣趙載敏, 巨濟府金砮, 竝放送事, 令旨達下矣.放送之意, 分付各該道臣, 何如? 令曰, 依.

56. 이인명(李仁命)〈이인명(李仁明)〉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2년(영조 28) 4월 26일/ 1764년(영조 40) 3월 21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흥언(이양제<李亮濟> 투서 연좌, 이소(李炤)의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76) 1752년(영조 28) 4월 17일.

○ 上親鞫李亮濟于內司僕, 領議政金在魯, 判義禁金聖應參鞫. 先時, 投書之賊, 久未捕, 連命嚴飭譏誚矣, 是日右捕盜大將張泰紹家門外, 有一人斑白儒衣, 徊徨來去, 日已昏暮, 蹤跡可疑, 泰紹僉從輩見而怪之, 捉而入搜其衣無物. 探其袴, 有一封書落地, 其外封書以張大將親執開坼, 坼而見之, 則其中辭語, 與前日投書同. 問其人, 則對曰: “我是廣平大君後裔, 家於加平, 名爲亮濟矣.” 泰紹詭問曰: “汝前既投書我家, 又欲投書者何也?” 亮濟曰: “前日所投, 非捕將家, 卽鄭暉良家也.” 泰紹曰: “書中爲何語耶?” 亮濟曰: “語及增, 壘事矣.” 又問: “書中尹台誰也?” 對曰: “沈字, 誤以尹字書之矣.” 又問: “五兩白金之說, 何謂也?” 對曰: “非兩字, 卽斗字之誤也.” 又問: “此外無他語乎?” 對曰: “語及洪啓禧均役事矣.” 問曰: “洪字下, 以何字書之乎?” 對曰: “以台字書之矣. 啓禧庶弟啓良, 與增連姻, 故及之矣.” 遂請對以聞, 命卽親問. 問李亮濟投書中辭意: “觀於捕廳供辭, 已知之, 汝亦朝鮮臣子, ‘五斗白金酌酒相賀’ 等言, 豈忍爲之? 一一直招.” 亮濟供: “臣果以私嫌陷入惡逆, 更無可達矣, 驪善君不善奏達於炤子伏地時, 使炤之子孫, 不得支保, 故深懷悲痛, 投書中欲驅驪善於極惡之科, 而有躍然等語矣. 臣與崇善之孫炤爲姨從, 炤在謫時, 移書於臣, 使於身死後返葬, 立後, 而炤既死, 其眷屬顛連道路, 炤妻亦已死矣. **炤之庶子名仁明, 年十五, 次(敬明)[景明]年十三,** 炤之養子, 與臣有嫌, 不相知矣. 沈聖希卽驪川之切姻, 故果以身死可惜書之, 沈字誤書以尹字矣. 今番均役後, 民不得聊生, 若去洪台, 則或意均役之中止, 欲逐而書之矣.” 問金德海曰: “汝之根本爲誰, 何年爲日傘事知, 而果知亮濟乎?” 德海供: “臣父振聲, 是盲人, 臣母卽權義衡家婢子也. 臣於戊申業武, 甲寅入禁軍, 壬戌出身, 爲嶺南邊將, 而遞來後, 復爲日傘事知矣. 亮濟則本不知之, 權縑未知以

何事而杖斃於鞠廳云，故果爲收屍矣。”

2) 『영조실록』(권 76) 1752년(영조 28) 4월 18일.

○ 問草貞, 草貞卽炤婢妾, 爲仁明, 景明母者也. 草貞供: “臣本以崇善君房子內人, 爲炤之妾, 李亮濟, 炤之六寸故臣知之. 己未炤死, 其妻朴氏以二十年疎逐之身, 來到喪次, 臣之母子衣服, 什物, 田地, 盡奪而逐出. 而臣夫生時, 托孤於亮濟, 而亮濟間常率往臣三子教以文字, 故臣果率臣子, 往接於加平 亮濟家矣. 臣一子死後, 始送亮濟家一奴, 請得葬需於朴氏, 則不給而逐送之. 朴氏所得養子, 不知其爲幾許寸, 而果川 李弘緒之子也. 弘緒與朴氏爲姻家, 而李經濟居間指示定養矣. 香玉初爲內人之房子, 內人死後出來, 居於匙廬, 宮賣酒資生, 而再昨亦來炤家矣. 臣夫又有一妾, 卽莫禮, 生二子. 炤死後, 莫禮與臣一併見逐, 炤妻死後, 莫禮所生與臣子, 同在養子家矣. 丙寅伏地時, 臣果指揮臣子希望付職而爲之, 驪善所達之語, 不得詳知. 亮濟許諺札, 只以田土推尋事, 有所書通, 至於同謀事, 千萬曖昧矣. 怨國之言, 無所發口, 而聞亮濟遲晚納供之辭, 果爲凶惡矣.”

3) 『영조실록』(권 76) 1752년(영조 28) 4월 26일.

○ 罪人草貞物故. 命莫烈放送, 安道行遠配, 城, 塚令秋曹永送, 景明, 仁明竝島配. 金德海及未及拿來罪人金守一竝放送. 持平朴師訥曰: “金德海以妖縲之奴, 地處固已可疑, 亮濟又既往來, 結結之迹, 有不可掩. 臣謂德海邊遠定配宜矣.” 上曰: “此不可相持者, 邊遠過矣, 遠配.” 蓋此獄, 極其妖詐. 事發於投書, 而其供辭所出, 咀呪埋凶等情節, 怨國誣人之說, 俱出諸罪人供中, 而上命問目外所告者, 竝勿書, 獄既嚴祕, 文又不傳, 人莫得以知其詳也.

4) 『승정원일기』(권 1095) 1753년(영조 29) 6월 3일.

○ 各道定配罪人秩, 靈巖郡金世潤仍, 會寧府李興仁量移, 興陽縣羅老島洪益龜仍, 羅州牧尹志仍, 南海縣順賓, 巨濟府忠今竝仍, 羅州牧黑山島件里金仍, 彥陽縣車萬行仍, 三和府鄭良輔仍, 機張縣李綏慶仍, 河東府壽澤仍, 巨濟府魯澤仍, 靈光郡羅沈量移, 機張縣金就寶仍, 長淵府白翎島八金放, 昆陽郡禹圭章放, 康津縣尹德履放, 珍島郡今奉, 南海縣老郎竝出陸, 鐵山府貴得減等, 務安縣堦量移, 濟州牧姜錫濟仍, 珍島郡安就尙仍, 巨濟趙

完璧出陸, 南海縣嚴祥鴻出陸, 靈巖郡姜行鼎放, 巨濟府李經濟仍, 機張縣金德海放, 大靜縣景命仍, 旌義縣仁命仍, 海南縣安道行仍, 渭原郡趙昌運放, 龍岡縣金光祚, 江西縣李杞泰, 咸從府李再春, 三和府洪以道竝仍, 唐津縣崔起獻放, 黑山島李亮天, 靈巖郡楸子島洪準海, 當此悶旱, 竝出陸. 天輔曰, 臣於其時, 以其事關僚相, 不敢陳達. 而今當悶旱疏決之時, 宜有參酌之道矣. 上曰, 不然矣. 出陸, 於渠幸矣. 豈可全釋乎? 天輔曰, 聞俱有老母矣. 上曰, 有老母而爲偏論, 尤爲無據矣. 金海府金範甲仍, 寶城郡許潛放, 順天府李時熙放, 慶源府訓戎鎮趙倅·李始赫竝放, 東萊府鄭忠彥放, 海南縣申暉, 當此悶旱, 特放, 珍島郡黃夏成, 康津縣古今島黃大逸, 竝出陸, 大丘府金浩放, 海南縣李朝望放, 徒配罪人秩, 密陽府車道林放, 長鬐縣沈海容放, 陽川縣南山驛高星輝放, 海美縣趙載敏放, 衿川縣盤乳驛南鶴宗放, 稷山縣鄭纘述放, 橫城縣葛豐驛洪有輔放, 廣州府德豐驛安相徽放, 原州牧安昌驛李浚放, 楊州牧平丘驛趙榮祐放, 廣州府慶安驛鄭景曾放, 定配身死未蒙放罪人秩, 濟州牧尹景濟仍, 盈德縣趙世忭仍, 珍島郡李弘澤仍, 泗川縣趙德普仍, 南海縣尹相憲仍, 大靜縣金堯鏡仍, 大靜縣李明彥仍, 大靜縣金德裕仍, 興陽縣申弼誨仍. 上曰, 近來上言甚紛紜, 此後則一番定奪後, 其中如趙德普者, 永勿令訟冤, 宜矣. 天輔·尙魯曰, 下教至當矣. 順川郡申弼仁仍, 扶安縣蝟島鎮閔允昌仍, 巨濟府尹相靖仍, 泗川縣李獻章仍, 康津縣薪智島尹遂仍, 金堤郡權攝仍, 襄陽府尹相憲仍, 羅州牧黑山島楊就達仍, 通川郡權繕放, 忠州牧朴景淳仍, 海南縣許槩既諭特放.

5) 『승정원일기』(권 1228) 1764년(영조 40) 3월 21일.

○ 甲申三月二十一日二更,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判義禁洪象漢, 同義禁具允鉉·韓光會·申暉, 大司憲鄭光忠, 大司諫尹坊, 行都承旨沈鏞, 左承旨鄭尙淳, 左副承旨金應淳, 右副承旨鄭運維, 同副承旨李壽鳳, 問事郎副應教李命植, 副校理李明煥, 副校理朴志源, 副校理李性源, 副司果元義孫, 副修撰尹承烈, 副司果李敬玉, 副修撰朴師海, 別刑房都事李基正·鄭東顯, 文書色都事沈載鎮·趙鼎鎮, 假注書李思祚, 事變假注書金宅洙, 記事官金紱九·金煊. 上具翼善冠·袞龍袍, 自興泰門, 出廣達門, 詣太僕殿座時, 上以承旨, 命書傳教曰, 其答雖諱, 莫重之事, 年少學儒, 焉敢陳請? 況疏頭, 以黃口小儒, 未能誦詩, 而敢引詩義, 且製疏更思之, 頃年應殿講者也, 以講經之儒, 焉能製此? 噫, 以璿派, 隨衆輕躁之儒, 其涉可駭, 若不嚴隄防, 此後怪學, 何以懲哉? 今日入侍

四儒及發論之儒，竝除名儒籍，此等莫重之章，職在唯允，焉敢捧納，當該承旨罷職。洪鳳漢曰，問事郎廳李在協有實病云，副修撰朴師海差下，何如？上曰，依爲之。大司憲洪樂性曰，親臨鞫囚，事係嚴急，沐浴義重，蒼黃承命，而鞫獄事體，或有獄官臺閣，相與可否之時，臣父方帶判義禁之任，臣之冒沒參鞫，揆以私義，已極不安。且臣堂叔，以上相，參鞫，其在鞫體，尤爲萬萬難安之端。臣之不可晏然也，明甚，請命遞斥臣職。上曰，依啓。上曰，大司諫鄭光忠，大司憲除授，承旨尹坊，大司諫除授，先入侍，後謝恩。上曰，參議鄭尙淳，承旨除授，牌招察任，房順房。上曰，殿座，承旨不可不備員，行副護軍金應淳，承旨除授，牌招察任，房順房。沈鏞曰，省記承旨皆遞，別省記，敢稟。上曰，依爲之。上曰，罪人德潤上之。上曰，汝以翊周之子，必參於榮得諸賊飲食之會，謀逆情節，汝亦得知，一一直招。罪人口招，在事變日記。上曰，遣御史慰諭之後，德潤拿囚，德潤以能猾翊周之子，敢爲求生之計，恐或支蔓島中無辜之人，雖憊親問者，或有事端，則欲辨玉石之意矣。德潤今則箇箇遲晚，而無他蔓延之事，不孤慰諭耽羅之意，從今以後，非徒予心之快解，島民可以便心。金牧使以此布諭島中，應坐編配中景命，雖登德潤之招，無他緊語，雖不發捕，渠以其時，宜乎正法者，年未滿而刑配，則不悛舊心，尙爲總角，御史推問時，其兄仁命，謂以非兄，亦曰，非草貞之子，而以其父招，亦曰，非渠之父，此無父無兄，巧惡無倫者。即此一事，殺之無赦，不可一刻置之於覆載之間，使牧使逐日嚴刑三次事，令該府卽爲分付。出傳教。上曰，今日事果善成矣，或慮此漢，爲死中求生之計，支蔓於無辜之島氓矣。無一辭遲晚，極可幸矣。鳳漢曰，聖教至當矣。上曰，瓜滿代，都政舉行，其雖法典，非徒本州，先或差代，亦有其例。今聞判官新迎夫馬，歲初上來云，飢歲島民遲滯，不可不顧，濟州判官瓜滿代，令該曹不爲署經者，口傳擇差，使之卽爲辭朝。出傳教。大司憲鄭光忠曰，憲府無啓矣。上曰，何以無啓？光忠曰，洪得源事，已停啓故也。上曰，善爲之矣。光忠曰，新除授持平李台鼎，時在京畿廣州地，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上曰，依啓。大司諫尹坊曰，請鍾城府爲奴罪人天大，還收酌處之命，依律處斷。措辭見上。上曰，勿煩。坊曰，新除授獻納金魯鎮，時在京畿漣川地，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上曰，依啓。李壽鳳曰，濟州人，飲食居處，極爲苟略，而居處則全無房埃，大靜甘山村，以自京竄謫人居處之故，獨有房埃。以德潤之招見之，尋常竄謫之人，緣坐編配之類，雜處往來於甘山村者，誠爲可悶。竄謫之人，則或分移於西北，以絕其雜處之患似宜，故敢達矣。上曰，令該府分付本牧，使之移配他鄉。上曰，明日只晝講，中甸次對兼行。出傳教。還入大內後，諸臣以次退出。

57. 목덕복(睦德福)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2월 29일.
- 사망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목호룡〈睦虎龍〉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581) 1724년(영조 즉위) 12월 12일.

○ 權益寬, 以義禁府言啓曰, 正刑罪人虎龍緣坐族屬, 令漢城府五部查出事, 分付矣. 卽接該府帳籍, 考出牒報及各部成冊內, 虎龍之祖與父, 既已身故, 其母愛年今七十, 律文中, 婦人年六十以上免坐云, 依法文施行. 其子福成年今十四, 德福年今十二, 德成年今九歲, 皆是年未滿. 妻大阿只年三十五, 女太任年今五歲, 今年生年今一歲, 載錄於帳籍成冊中, 依律文爲奴婢定屬. 其餘, 流三千里安置之類, 亦依律文定配所, 單子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2월 29일.

○ 左議政金尙魯奏曰: “虎龍兩子, 尙今容息於湖南陸地, 誠是失刑之大者. 請樂安郡爲奴罪人德福移配旌義縣, 寶城郡爲奴罪人德成移配大靜縣.” 上從之.

3) 『승정원일기』(권 1116) 1755년(영조 31) 2월 29일.

○ 尙魯所啓, 虎賊兩子, 尙今容息於湖南陸地, 誠是失刑之失刑矣. 樂安爲奴罪人德福, 移配旌義縣, 寶城爲奴罪人德成, 移配大靜縣, 何如? 上曰, 依爲之.

4)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權抗, 以義禁府言啓曰, 逆賊鏡·虎·獐·亮四賊之子應施之律, 卽令該府舉行事, 命下矣. 逆賊一鏡子允興, 虎龍子德成·德福, 獐佐子文明·仁明, 希亮子鐵興等, 俱配於濟州·大靜·旌義三邑, 依例發遣府都事, 卽爲舉行, 而在前鞫獄方張之時, 有假都事差送之例, 今亦以假都事發送, 與地方官, 眼同處絞, 何如? 傳曰, 允.

58. 이수범(李修範)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사망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5일.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이사상〈李師尙〉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柳顯章,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成府報狀, 當部成冊, 忠淸·京畿監司牒呈, 則逆賊就商·志·師尙·眞儒·明誼·楷·聖時·宗廈·鳳輝·泰耆·明彥·夏宅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就商弟徵商, 咸鏡道茂山府爲奴, 姪勲, 慶尙道柒原縣, 流三千里安置, 姪慙, 三水府安置, 逆賊志孫吉甲, 大靜縣爲奴. 孫女吉亥, 晉州牧爲婢, 孫女吉丑, 定平府爲婢, 孫女終生, 咸興府爲婢, 逆賊師尙孫修範, 濟州牧旌義縣爲奴, 孫修溫, 南海縣爲奴, 孫福伊, 黃海道長淵府白翎鎮爲奴, 子婦敬郎, 明川府爲婢, 子之妾英梅, 機張縣爲婢, 姪獻哲, 金海府安置, 逆賊眞儒孫承孝, 巨濟府爲奴, 子婦大阿只, 泗川縣爲婢, 姪匡鼎, 吉州牧安置, 姪匡彥, 熊川縣安置, 姪匡贊, 明川府安置, 姪匡顯, 機張縣安置, 匡明, 寧海府安置, 姪匡順, 端川府安置, 逆賊楷孫采, 濟州牧爲奴, 弟樾, 甲山府爲奴, 姪東呂, 三水府安置, 姪東疇, 富寧府安置, 姪東獻, 甲山府安置, 姪東進, 鏡城府安置, 姪東俊, 茂山府安置, 逆賊聖時孫得貞, 濟州牧爲奴, 孫得明, 大靜縣爲奴, 孫得望白翎鎮爲奴, 孫重曦, 南海縣爲奴, 孫孝達, 全羅道珍島郡爲奴, 孫孝文, 巨濟府爲奴, 子婦愛, 昆陽郡爲婢, 子婦喜, 延日縣爲婢, 逆賊宗廈孫采修, 濟州牧爲奴, 孫懿修, 南海縣, 孫五哲, 白翎鎮爲奴, 孫壽得, 豐川牧椒島鎮爲奴, 孫五兼, 巨濟府爲奴, 孫然福, 南海縣爲奴, 孫然喜, 珍島郡爲奴, 逆賊鳳輝子婦幸每, 泗川縣爲婢, 孫東渾, 大靜縣爲奴, 孫女賢門, 昆陽郡爲婢, 弟鳳徵, 甲山府爲奴, 姪昌垣, 旌義縣安置, 姪奎垣, 茂山府安置, 姪景垣, 長鬐縣安置, 逆賊泰耆子婦一梅, 興海郡爲婢, 孫榮集, 旌義縣爲奴, 孫英得, 大靜縣爲奴, 孫榮喆, 珍島郡爲奴, 孫大慰, 巨濟府爲奴, 孫大承, 南海縣爲奴, 逆賊明彥孫址崇, 以夏宅之子, 出繼於夏定, 減死, 濟州牧爲奴, 逆賊夏宅孫文穆, 三水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

將，押送于各其配所，師尙妾月愛，年過七十，最蓮，年過六十，聖時子婦惠伊，宗廈子婦畢英，年今六十，依律文竝免坐，逆賊明誼·■·濂·光哲，應坐諸人及上頃諸逆等應及緣坐之類及在外未查出者，待其該道之查報，舉行，何如？傳曰，允.

2)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25일.

○ 刑訊李修範, 修範, 師尙孫也. 供: “再昨年, 光哲來見臣以爲, ‘其父居謫三十年, 不能堪, 欲有變通之道’ 云, 臣問何以變通, 則光哲曰, ‘羅州傍邑, 多相知之人, 皆入於吾之圈內, 如有相應之意, 則當以書相通’ 云矣. 光哲京中親舊比臣倍多, 與李匡師爲莫逆交, 清州亦有親舊十餘人, 而希哲及渠之查頓, 主張收合, 無可慮云矣.” 累加刑, 物故.

59. 유창원(柳昌垣)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유봉휘<柳鳳輝>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柳顯章,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成府報狀, 當部成冊, 忠淸·京畿監司牒呈, 則逆賊就商·志·師尙·眞儒·明誼·楷·聖時·宗廈·鳳輝·泰耆·明彥·夏宅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就商弟徵商, 咸鏡道茂山府爲奴, 姪勲, 慶尙道柒原縣, 流三千里安置, 姪慙, 三水府安置, 逆賊志孫吉甲, 大靜縣爲奴. 孫女吉亥, 晉州牧爲婢, 孫女吉丑, 定平府爲婢, 孫女終生, 咸興府爲婢, 逆賊師尙孫修範, 濟州牧旌義縣爲奴, 孫修溫, 南海縣爲奴, 孫福伊, 黃海道長淵府白翎鎮爲奴, 子婦敬郎, 明川府爲婢, 子之妾英梅, 機張縣爲婢, 姪獻哲, 金海府安置, 逆賊眞儒孫承孝, 巨濟府爲奴, 子婦大阿只, 泗川縣爲婢, 姪匡鼎, 吉州牧安置, 姪匡彥, 熊川縣安置, 姪匡贊, 明川府安置, 姪匡顯, 機張縣安置, 匡明, 寧海府安置, 姪匡順, 端川府安置, 逆賊楷孫采, 濟州牧爲奴, 弟樾, 甲山府爲奴, 姪東呂, 三水府安置, 姪東疇, 富寧府安置, 姪東獻, 甲山府安置, 姪東進, 鏡城府安置, 姪東俊, 茂山府安置, 逆賊聖時孫得貞, 濟州牧爲奴, 孫得明, 大靜縣爲奴, 孫得望白翎鎮爲奴, 孫重曦, 南海縣爲奴, 孫孝達, 全羅道珍島郡爲奴, 孫孝文, 巨濟府爲奴, 子婦愛, 昆陽郡爲婢, 子婦喜, 延日縣爲婢, 逆賊宗廈孫采修, 濟州牧爲奴, 孫懿修, 南海縣, 孫五哲, 白翎鎮爲奴, 孫壽得, 豐川牧椒島鎮爲奴, 孫五兼, 巨濟府爲奴, 孫然福, 南海縣爲奴, 孫然喜, 珍島郡爲奴, **逆賊鳳輝**子婦幸每, 泗川縣爲婢, 孫東渾, 大靜縣爲奴, 孫女賢門, 昆陽郡爲婢, 弟鳳徵, 甲山府爲奴, **姪昌垣, 旌義縣安置**, 姪奎垣, 茂山府安置, 姪景垣, 長鬐縣安置, 逆賊泰耆子婦一梅, 興海郡爲婢, 孫榮集, 旌義縣爲奴, 孫英得, 大靜縣爲奴, 孫榮喆, 珍島郡爲奴, 孫大慰, 巨濟府爲奴, 孫大承, 南海縣爲奴, 逆賊明彥孫址崇, 以夏宅之子, 出繼於夏定, 減死, 濟州牧爲奴, 逆賊夏宅孫文穆, 三水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

將，押送于各其配所，師尙妾月愛，年過七十，最蓮，年過六十，聖時子婦惠伊，宗廈子婦畢英，年今六十，依律文竝免坐，逆賊明誼·■■·濂·光哲，應坐諸人及上頃諸逆等應及緣坐之類及在外未查出者，待其該道之查報，舉行，何如？傳曰，允.

60. 조영집(趙榮集)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11월 20일.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조태구〈趙泰耆〉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柳顯章,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成府報狀, 當部成冊, 忠淸·京畿監司牒呈, 則逆賊就商·志·師尙·眞儒·明誼·楷·聖時·宗廈·鳳輝·泰耆·明彦·夏宅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就商弟徵商, 咸鏡道茂山府爲奴, 姪勲, 慶尙道柒原縣, 流三千里安置, 姪慙, 三水府安置, 逆賊志孫吉甲, 大靜縣爲奴. 孫女吉亥, 晉州牧爲婢, 孫女吉丑, 定平府爲婢, 孫女終生, 咸興府爲婢, 逆賊師尙孫修範, 濟州牧旌義縣爲奴, 孫修溫, 南海縣爲奴, 孫福伊, 黃海道長淵府白翎鎭爲奴, 子婦敬郎, 明川府爲婢, 子之妾英梅, 機張縣爲婢, 姪獻哲, 金海府安置, 逆賊眞儒孫承孝, 巨濟府爲奴, 子婦大阿只, 泗川縣爲婢, 姪匡鼎, 吉州牧安置, 姪匡彦, 熊川縣安置, 姪匡贊, 明川府安置, 姪匡顯, 機張縣安置, 匡明, 寧海府安置, 姪匡順, 端川府安置, 逆賊楷孫采, 濟州牧爲奴, 弟樾, 甲山府爲奴, 姪東呂, 三水府安置, 姪東疇, 富寧府安置, 姪東獻, 甲山府安置, 姪東進, 鏡城府安置, 姪東俊, 茂山府安置, 逆賊聖時孫得貞, 濟州牧爲奴, 孫得明, 大靜縣爲奴, 孫得望白翎鎭爲奴, 孫重曦, 南海縣爲奴, 孫孝達, 全羅道珍島郡爲奴, 孫孝文, 巨濟府爲奴, 子婦愛, 昆陽郡爲婢, 子婦喜, 延日縣爲婢, 逆賊宗廈孫采修, 濟州牧爲奴, 孫懿修, 南海縣, 孫五哲, 白翎鎭爲奴, 孫壽得, 豐川牧椒島鎭爲奴, 孫五兼, 巨濟府爲奴, 孫然福, 南海縣爲奴, 孫然喜, 珍島郡爲奴, 逆賊鳳輝子婦幸每, 泗川縣爲婢, 孫東渾, 大靜縣爲奴, 孫女賢門, 昆陽郡爲婢, 弟鳳徵, 甲山府爲奴, 姪昌垣, 旌義縣安置, 姪奎垣, 茂山府安置, 姪景垣, 長鬐縣安置, 逆賊泰耆子婦一梅, 興海郡爲婢, 孫榮集, 旌義縣爲奴, 孫英得, 大靜縣爲奴, 孫榮喆, 珍島郡爲奴, 孫大慰, 巨濟府爲奴, 孫大承, 南海縣爲奴, 逆賊明彦孫址崇, 以夏宅之子, 出繼於夏定, 減死, 濟州牧爲奴, 逆賊夏宅孫文穆, 三水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

將，押送于各其配所，師尙妾月愛，年過七十，最蓮，年過六十，聖時子婦惠伊，宗廈子婦畢英，年今六十，依律文竝免坐，逆賊明誼·■■·濂·光哲，應坐諸人及上頃諸逆等應及緣坐之類及在外未查出者，待其該道之查報，舉行，何如？傳曰，允.

2)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1월 20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榮集·榮喆·陽復及濟州人姜翊周·月中梅. 榮集·榮喆, 泰耆之孫也.先是榮得既謀逆伏誅, 而辭連於諸囚. 至是拿至, 上親臨鞫之. 鞫畢, 命囚榮喆·榮集于王府, 陽復嚴刑三次, 黑山島爲奴, 月中梅 黑山島爲婢, 姜翊周嚴刑二次, 鍾城府勿限年定配.

3) 『승정원일기』(권 1224) 1763년(영조 39) 11월 20일.

○ 上曰, 罪人榮集上之.上命啓禧問于榮集曰, 汝兄榮得, 既已正刑, 汝不可隱, 卽爲嚴刑, 可也. 上曰, 榮得之罪, 萬古所無, 而汝罪惟均, 榮得既以怨國正刑, 則汝亦以怨國, 能免正刑乎? 用刑準次.上曰, 罪人榮喆上之. 因命啓禧曰, 榮得結案招辭, 分付使知其罪, 可也. 上曰, 汝兄榮得, 既已正刑, 汝何不遲晚乎? 怨國之言, 非止冤痛二字, 汝兄弟必公傳道之, 所以怨國之言, 箇箇直招, 可也. 用刑準次.

61. 이거원(李巨源)

- 신분: 관리(부사과)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2일.
- 나국(사망) 연월: 1755년(영조 31) 7월 9일.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목호롱 지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12일.

○ 掌令李堉啓: “虎龍凶逆, 往牒所無, 而李巨源製其教文, 其心可見. 請遠竄.” 上命島配.噫! 巨源負犯, 便一逆鏡, 尙今偃息, 誠非《春秋》先治黨與之義, 而爲臺臣者, 只請邊配, 可謂無嚴也已.

2)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2일.

○ 李堉所懷曰, 賊虎凶逆, 往牒所無, 李巨源教文製述, 其心可見.至今容貸, 莫非聖上之至仁, 而其爲負犯, 既如是深重, 則當此嚴懲討之日, 決不可置之於輦轂之下, 請極邊遠竄.上曰, 所奏是矣, 而不治則已, 既治之後, 不可遠竄而止, 旌義縣勿限年定配.出學條

3) 『영조실록』(권 85) 1755년(영조 31) 7월 9일.

○ 上御內司僕, 親鞫李巨源.巨源嘗製虎龍僞勳教書, 甲辰冬, 以玉堂力救耆, 輝, 鏡, 夢, 而一鏡教文凶言, 註釋分疏, 以討一鏡之人, 比諸柳子光. 至是屢出逆招, 致雲亦自以爲與巨源, 同一心腸, 自島中就捕. 上親訊之, 情節已露, 無可更問, 命梟示以逆律施行.

4) 『승정원일기』(권 1121) 1755년(영조 31) 7월 9일.

○ 罪人李巨源刑訊.上曰, 汝之同黨誰也? 招曰, 同黨則無之, 而與朴文秀·李喆輔相親矣. 上曰, 汝何敢誣引耶? 仍命刑訊. 巨源招曰, 矣身果誣招矣. 招辭在事變日記. 上曰, 戶判勿待命, 率其子入侍. 上曰, 戶判事殘忍矣. 李喆輔進伏. 上曰, 予不疑卿, 卿勿自阻也. 上曰,

罪人巨源，以製逆虎教書之人，敢護逆鏡。而請討逆鏡之人，比之子光，逆賊致雲南門末招，亦以同一心腸自服，而今日親問之下，乃敢忍杖不服？令兵判，卽爲水口門外梟示，逆律舉行。出榻教

62. 한담(韓淡)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한세량(韓世良) 손자)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5) 1721년(경종 1) 10월 12일.

○ 行司果 **韓世良上疏**曰: 伏見下政院備忘, 有大小國事, 竝令世弟裁斷之教, 繼見趙聖復疏, 有曰: “政務裁決之際, 輒引世弟參聽, 商確可否.” 噫嘻! **天無二日, 地無二王**. 北面殿下者, 何敢以此等語, 萌於心而發之口哉? 雖無直請, 使世弟臨朝之語, 而其曰輒引參聽, 商確可否者, 非請臨朝而何? 爲人臣子, 敢懷陰移天位之計, 其罪安得一日容息於覆載之間乎? 向於儲位請建之時, 似指恭靖王時事云者, 蓋引以弟爲儲之意, 而卽末後一事, 猶未免國人之疑惑. 臣以爲此而不正邦刑, 大義滅而綱常斁, 亂臣賊子, 將接迹而起矣. 政院啓斥: “世良疏天無二日之云, 陰移天位之說, 俱極凶悖. 至於末後一事者, 果指何事? 國人疑惑者, 果有何說? 妄懷危疑之心, 而自不覺挨逼於不敢言之地. 爲人臣子, 何敢以此等語, 萌於心而發諸口哉?”

2)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當部·忠淸·京畿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世良·益寬·嵇·縑·應坐諸人及逆賊宗廈·泰耆·楷·夏宅·■■■等應坐未及查出者, 成冊以來矣. **逆賊世良** 孫終童, 濟州牧爲奴, 孫煜, 濟州牧大靜縣爲奴, 孫炫, 慶尙道巨濟府爲奴, 孫煥, 南海縣爲奴, 孫瑩, 珍島郡爲奴, 孫榮, 咸鏡道三水府爲奴, **孫淡, 濟州牧旌義縣爲奴**, 孫懌, 富寧府爲奴, 孫甲金, 黃海道豐川府椒島鎮爲奴, 姪應心, 鏡城府流三千里安置, 姪應翼, 機張縣安置, 逆賊益寬·孫維, 大靜縣爲奴, 姪穆衡, 鏡城府流三千里安置, 逆賊嵇母次願, 長鬐縣爲婢, 兄■■■, 甲山府爲奴, 弟岱, 吉州牧爲奴, 妹泰惠, 昆陽郡爲婢, 叔綸, 寧海府流三千里安置. 姪輔國, 三水府流三千里安置, 逆賊縑妻小愛, 河東府爲婢, 子婦貴今, 鎮

海縣爲婢，子婦惠臨，恭原縣爲婢，子婦壯伊，熊川縣爲婢，叔得衡，明川府安置，孫壽曾，巨濟府爲奴，孫女福媛，晉州牧爲婢，孫女連伊·孫老味，熊川縣竝爲奴婢，逆賊宗廈子之妾玉每，延日縣爲婢，孫千年金，三水府爲奴，孫加五金，大靜縣爲奴，孫女閏德，定平府爲婢，孫女閏安，鏡城府爲婢，孫女福任·於屯介，固城縣竝爲婢，逆賊泰耆子婦一順，巨濟府爲婢，逆賊楷孫女甲伊，興海郡爲婢，逆賊夏宅妻景任，丹城縣爲婢，子婦可愛，昌原府爲婢，子婦最愛，咸興府爲婢，孫應龍·又龍·慶龍等，長湍府白翎鎮竝爲奴，孫女妙喜，咸興府爲婢，逆賊■■弟審，富寧府爲奴，而右罪人等，或在京或居外邑.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各其配所，而諸逆應坐之類未及查出者，待其各該道查報舉行，何如？傳曰，允.

63. 김대재(金大再)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4월 24일.
- 나국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6일.
- 사유: 연좌(역적 김일경〈金一鏡〉 조카, 김요경〈金堯鏡〉 서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金尙魯曰: “鏡賊諸姪, 以鏡賊出繼之故, 初不入於緣坐中, 至今偃息於京鄉之間. 纔因京兆所報, 始乃發覺, 失刑之大, 莫過於此. 龍鏡子弘濟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及庶子大再等六人, 請竝令王府, 分配於耽羅三邑.” 上允之.

2) 『승정원일기』(권 1118)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尙魯曰, 鏡賊諸姪, 以鏡賊出繼之故, 當初不入於緣坐中, 至今偃息自在於京鄉之間, 纔因京兆堂上之隨所聞往復, 始乃發覺, 而令京兆查出矣. 失刑之大, 莫過於此, 龍鏡子弘濟, 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 及庶子大再等六人, 竝令王府, 分排於耽羅三邑, 何如? 上曰, 依爲之.

3) 『승정원일기』(권 1118) 1755년(영조 31) 4월 22일.

○ 鄭光忠, 以義禁府言啓曰, 鏡賊當初出繼之故, 諸姪, 不入於緣坐之中, 龍鏡子弘濟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 及庶子大再等, 六人, 竝令王府, 分配於耽羅三邑事, 舉條啓下矣. 逆鏡姪弘濟·寅濟, 全羅道濟州牧定配, 同伊·有濟, 大靜縣定配, 彭命·大再, 旌義縣定配, 而右人等, 或在京, 或在外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而當部查牒中, 大再乞食出往, 不知去處云, 莫重定配罪人, 不可不及時捉得, 分付捕廳及五部, 各別譏捕, 亦令諸道道臣, 嚴飭列邑, 調察捉囚後, 發配,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권 1118) 1755년(영조 31) 4월 2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右捕廳牒報, 則鏡賊姪大再, 捉囚云,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全羅道濟州牧旌義縣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5)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16일.

○ 上曰, 罪人大再上之. 上曰, 汝是何許人? 大再招曰, 鄉徒軍也. 上曰, 大臣進前, 如彼之類, 杖殺亦過矣. 未就拿之人, 竝皆如彼, 則無患矣. 尙魯曰, 臣意亦如此矣. 上曰, 姑爲下府, 以待結未好矣.

6)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23일.

○ 又以左右捕盜廳言啓曰, 自鞠廳移囚罪人大再, 今五月二十三日申時量物故, 今漢城府依例檢屍之意, 敢啓, 傳曰, 知道.

64. 김팽명(金彭命)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나국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사유: 연좌(역적 김일경〈金一鏡〉 조카, 김구경〈金九鏡〉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金尙魯曰: “鏡賊諸姪, 以鏡賊出繼之故, 初不入於緣坐中, 至今偃息於京鄉之間. 纔因京兆所報, 始乃發覺, 失刑之大, 莫過於此. 龍鏡子弘濟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及庶子大再等六人, 請竝令王府, 分配於耽羅三邑.” 上允之.

2) 『승정원일기』(권 1118)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尙魯曰, 鏡賊諸姪, 以鏡賊出繼之故, 當初不入於緣坐中, 至今偃息自在於京鄉之間, 纔因京兆堂上之隨所聞往復, 始乃發覺, 而令京兆查出矣. 失刑之大, 莫過於此, 龍鏡子弘濟, 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 及庶子大再等六人, 竝令王府, 分排於耽羅三邑, 何如? 上曰, 依爲之.

3) 『승정원일기』(권 1118) 1755년(영조 31) 4월 22일.

○ 鄭光忠, 以義禁府言啓曰, 鏡賊當初出繼之故, 諸姪, 不入於緣坐之中, 龍鏡子弘濟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 及庶子大再等, 六人, 竝令王府, 分配於耽羅三邑事, 擧條啓下矣. 逆鏡姪弘濟·寅濟, 全羅道濟州牧定配, 同伊·有濟, 大靜縣定配, 彭命·大再, 旌義縣定配, 而右人等, 或在京, 或在外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而當部查牒中, 大再乞食出往, 不知去處云, 莫重定配罪人, 不可不及時捉得, 分付捕廳及五部, 各別譏捕, 亦令諸道道臣, 嚴飭列邑, 調察捉囚後, 發配,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上曰) 彭命上之, 上曰, 汝兄弟皆在何處? 彭命招曰, 兄弟皆在豐壤, 而一弟爲僧於青松雙溪寺云, 而未能詳知矣. 上曰, 汝弟僧名云何? 彭命招曰, 暢奎矣. 刑問準次下之. ...
上曰, 彭命又上之, 加刑準次下之.

65. 심양복(沈陽復)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9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심정연〈沈鼎衍〉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9일.

○ 鄭光忠, 以義禁府言啓曰, 因臺臣所懷, 罪人朴命球徒配事學條, 啓下矣. 朴命球, 忠清道牙山縣長時驛徒三年定配, 而以學條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春川府使牒報, 則逆賊鼎衍應坐諸人, 查出成冊以來矣. 逆賊鼎衍妻二禮, 依傳教全羅道羅州牧黑山島爲婢, 女等等, 黑山島爲婢, 庶女福煥, 慶尙道鎭海縣爲婢, 庶姪陽復, 濟州牧旌義縣流三千里安置, 庶姪遇赤, 濟州牧流三千里安置, 而方囚春川府,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1221) 1763년(영조 39) 8월 30일.

○ 尹得雨,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堂部成冊, 則逆賊來復應坐諸人, 查出以來矣, 母阿只慶尙道固城縣爲婢, 庶母二德泗川縣爲婢, 妻新惠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婢, 子南得, 年九, 以年未滿濟州牧緣坐爲奴,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妾春分, 時在大靜縣, 庶兄陽復時在旌義縣配所, 庶弟遇迪, 時在濟州牧配所, 因其地竝緣坐爲婢爲奴之意, 發關分付, 何如? 傳曰, 允.

3)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憲府【大司憲南泰齊.】又啓: “陽復以來復之弟, 稱以曉解醫術, 往來壩家, 爲來復往探之階梯, 其間綢繆之迹, 不可不嚴加究覈. 請旌義縣緣坐罪人陽復, 令王府設嚴問.” 依啓.

4)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南)泰齊曰, 陽復, 以來復之弟, 稱以曉解醫術, 往來壩家, 爲來復往探之階梯, 其間綢繆之跡, 不可不嚴加究覈. 請旌義緣坐罪人陽復, 令王府設鞫嚴問. 上曰, 依啓.

5)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1월 20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榮集·榮喆·陽復及濟州人姜翊周·月中梅·榮集. 榮喆, 泰耆之孫也. 先是榮得既謀逆伏誅, 而辭連於諸囚. 至是拿至, 上親臨鞫之. 鞫畢, 命囚榮喆·榮集于王府, 陽復嚴刑三次, 黑山島爲奴. 月中梅 黑山島爲婢, 姜翊周嚴刑二次, 鍾城府勿限年定配.

6)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1월 20일.

○ 諫院【司諫朴盛源.】又啓: “罪人陽復, 既是鼎衍之姪, 來復之弟, 則來復陰凶情節, 必無不知之理. 而帳殿嚴訊, 不爲直告, 極爲妖惡. 請收還陽復酌處之命, 更令捕廳嚴問得情.” 允之.

7) 『승정원일기』(권 1224) 1763년(영조 39) 11월 20일.

○ 上曰, 罪人陽復 上之. 上曰, 陽復與來復, 其容貌相似, 而萬古所無鼎衍之姪, 且來復之弟, 一一直招, 可也. 上進湯劑. 上曰, 罪人陽復既爲鼎衍之姪, 則法當正刑, 而至今生存於覆載之間者, 極是寬典, 若有一毫隱諱, 依法重治焉. 陽復只言其叔鼎衍薄待渠輩之狀. 上曰, 親訊之下, 汝當直招, 而每以隱辭譎言, 巧飾如此, 當送捕廳嚴刑窮問, 期於得情, 可也. 因命啓禧曰, 罪人陽復下送捕廳. … 上曰, 罪人陽復捕廳招辭, 雖似直陳, 此等之種, 不可循例復配, 令刑曹勿拘日次, 嚴刑三次後, 黑山島爲奴. … 盛源所啓, 臣就坐後, 聞書下傳教, 則罪人陽復, 下秋曹嚴刑三次後黑山島爲奴定配事, 命下矣. 陽復既是鼎衍之姪·來復之弟, 則來復陰兇情節, 必無不知之理, 而嚴訊之下, 隱忍不服之狀, 極甚妖惡. 捕廳盤問, 又不吐實, 尤爲絕痛, 而既下捕廳之後, 不可更爲鞫問事, 俄者聖教既然, 且己卯綸音中, 有鞫廳罪人不可兼問捕廳事, 永爲定式, 已作金石之典, 則雖不可更爲鞫問, 宜自捕廳, 依前嚴問. 請還收罪人陽復下秋曹酌處之命, 即令捕廳更加嚴問, 期於得情. 上曰, 既得

臺體，令本廳依前更加嚴問.

8) 『승정원일기』(권 1224) 1763년(영조 39) 11월 23일.

○ 金華鎭，以刑曹言啓曰，卽接典獄署牒呈，則罪人陽復，受刑三次後，當日未時量物故云，依例移文京兆，使之檢驗後入啓施行之意，敢啓.傳曰，知道.

66. 강대련(姜大連)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강몽상(姜夢相)의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8일.

○ 上御內司僕, 親鞫, 刑訊姜夢協, 仍與白六昌, 柳鳳麟面質, 六昌, 鼎衍食主人也. 鳳麟曰: “夢協與鼎衍相親, 數往來同謀逆, 鼎衍爲將, 夢協爲副將, 謀舉事, 殺牛於沙幕洞, 欲舉兵向京城, 聚六十餘人, 欲載船而往云矣.” 加刑夢協, 供: “鼎衍, 惠怨國爲逆, 而臣與怨國之漢相親, 參涉凶言, 是臣死罪. 而既屠牛犒軍, 欲爲火賊, 攻春川府, 得軍器來矣. 凶書書頭, 臣記得其上書于三字矣.” 加刑夢協, 供: “臣與衍, 惠等, 綢繆相結, 同爲凶謀, 且參凶言.” 大逆同參遲晚, 正刑, 孥籍如法. 夢協子鶴壽, 亦與鼎衍, 同入場屋, 故被鞫杖斃. 夢協從弟夢相, 亦以大逆, 同參遲晚, 正刑.

2)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春川府使成冊, 則逆賊惠·夢協·夢相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惠妻初玉女連喜等, 全羅道羅州牧黑山島竝緣坐爲婢, 夢協妻壽喜女蘭英等, 珍島郡竝緣坐爲婢, 女癸英, 康津縣爲婢, 弟夢福, 濟州牧大靜縣爲奴, 叔■■, 慶尙道機張縣流三千里安置, 逆賊夢相母舞愛, 固城縣爲婢, 妻丹伊, 長鬐縣爲婢, 子大連, 年十二以年未滿, 濟州牧旌義縣爲奴, 子鶴連, 年三以年未滿, 固城縣爲奴, 子今年生, 年一以年未滿, 長鬐縣爲奴, 女愛喜, 延日縣爲婢, 弟夢徵, 濟州牧爲奴, 弟夢陽, 黃海道長淵府白翎鎮爲奴, 弟夢覺, 豐川府椒島鎮爲奴, 侄大老, 固城縣流三千里安置, 姪二老, 長鬐縣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時囚春川府,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67. 홍계문(洪啓文)

- 신분: 유생(경상도)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해배 연월: 1757년(영조 33) 3월 15일.
- 사유: 연좌(역적 강몽협(姜夢協)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上御內司僕, 親鞫. 教曰: “罪人洪啓文, 姜德俊, 朴慶應, 出於夢協之招, 而無他執賊, 參酌減死, 竝島配.” 持平李壽勛, 正言鄭光漢所懷: “洪啓文, 姜德俊, 朴慶應, 既出於大逆夢協之招, 至有稱兵犯闕之語, 則其爲情節, 誠極凶慘. 臣等謂啓文, 德俊, 慶應宜更加嚴鞫, 期於得情.” 上不許.

2)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鄭光忠以義禁府言啓曰, 罪人洪啓文,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 姜德峻, 大靜縣定配, 朴慶應·濟州牧定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142) 1757년(영조 33) 3월 15일.

○ 李顯重, 以義禁府言啓曰, 疏決單子中, 未及拿來罪人高原郡守趙麟, 甲山前府使安宗奎, 各道定配罪人海南縣閔鎬, 羅州牧黑山島尹光鼎, 三陟府高次奉, 三水府朴致厚, 臨坡[臨陂]縣趙文福, 狼川縣李堪, 淮陽府許構, 康津縣鄭道三, 明川府崔景燮, 結城縣李喜謙, 龍安縣尹鵬學等放. 鏡城府任珣, 今聞筵奏, 禁錮猶過, 特爲放送. 機張縣李敬玉, 麻田郡權導, 安東府李彥, 忠州牧鄭基安, 唐津縣朴世光, 淮陽府林好榮, 端川府金向成等放. 定配身死未蒙放罪人光陽縣柳漢基, 鍾城府柳師百, 通川郡朴混源, 穩城府金孝溫, 巨濟府朴弘僞, 旌義縣洪啓文, 大靜縣姜德俊, 濟州牧朴慶應, 南海縣金績熙, 鍾城府鄭桂等 竝放. 江界府定配罪人柳東垣, 既與干連有間, 其時下教, 亦諱矣. 今當大赦, 宜施曠蕩之

典，而此等之時，此等之人，不可不嚴隄防，參酌減等.機張縣李聖望，今當大赦，減等.金海府吳命佑，熊川縣吳重觀，減等.巨濟府趙載敏，此等大赦，宜施曠蕩之典，而此等之人，不可不弦韋，特爲減等.巨濟府荇棘罪人尹光纘，方當大赦，特爲減等.鍾城府林德恒，減等.巨濟府崔萬衡，貪吏，其若弛張，於元元，何？然今當大赦，特爲出陸.萬頃縣古郡山島〈定〉配罪人鄭東明，其時雖未執贓，禁酒之時，麪孽[麴孽]二字，不可遽放，而今當大赦，特爲出陸減等.巨濟府黃幹，方當大赦，出陸事，付標啓下矣.放送事，發關分付於各其道臣，減等罪人柳東垣·李聖望·吳命佑·吳重觀·趙載敏·林德恒等，仍其配所，減等徒三年改錄，荇棘罪人尹光纘，亦爲仍其邑，減等撤籬後，徒三年改錄事，一體分付於該道道臣，出陸罪人崔萬衡·黃幹等，慶尙道尙州牧出陸，鄭東明，全羅道礪山府出陸，減等徒三年改錄，而竝依前罪目，發遣府羅將，仍令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68. 심래복(沈來復)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나국(사망) 연월: 1763년(영조 39) 8월 27일.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심정연〈沈鼎衍〉 조카)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敎曰: “罪人沈來復, 以應坐律, 巨濟府安置.” 來復卽鼎衍姪, 益衍子也. 持平李壽勛, 正言鄭光漢等爭之, 改命配旌義.

2)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沈來復, 以應坐律, 旌義縣舉行事, 命下矣. 沈來復, 以逆賊鼎衍姪, 全羅道濟州牧旌義縣流三千里安置,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8월 27일.

○ 上御太僕, 鞫罪人來復. 來復卽乙亥賊鼎衍之姪也. 始以緣坐竄于海島, 臺啓屢請鞫, 上允之. 及就拿, 上親問之, 來復供曰: “自丁丑年, 締結諸緣坐罪人榮得·東渾等之在同島者, 怨國謀不軌. 約募軍粧商賈狀, 潛越大海, 先襲湖南邑, 取軍器資糧, 直上京, 火犯廟社, 推戴謫宗臣壘. 昨冬臣果一往見壘, 計未及成而先被拿. 謀逆是實.” 上夜御惠政橋, 更問來復, 以內應爲誰, 來復援引左議政尹東度. 蓋東度乙亥爲諫長時, 論啓其叔鼎衍故憾之也. 上嚴訊之, 旋以誣人自服. 東度自班出, 席藁俟命, 上引見慰諭之. 仍命來復正刑, 孥籍如法.

4) 『승정원일기』(권 1221) 1763년(영조 39) 8월 27일.

○ 尹得雨, 以義禁府言啓曰, 謀反大逆罪人來復, 既已承服正刑, 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

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年歲·姓名·存沒·居住令漢城府，考出帳籍，亦爲分付五部及各該道道臣，應坐諸人，查出成冊牒報後，依律舉行，而籍沒家產，破家瀕澤，降邑號罷守令等事，令各該司奉承傳舉行，何如？傳曰，允。

69. 조영항(趙榮恒)

- 신분: 관리(우림위장<羽林衛將>)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6일.
- 해배 연월: 1758년(영조 34) 3월 23일.
- 사유: 연좌(역적 이전<李佺>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16일.

○ 敎曰: “罪人趙榮恒, 以逆姪爲其子之學長, 不可尋常處之. 旌義縣定配.”

2)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16일.

○ 罪人趙榮恒刑問準次, 上曰, 罪人趙榮恒, 以逆姪, 爲子爲學長, 留着於門外至近之地, 使往來逆埃之家, 敢以罔測不道之言, 肆然納供於帳殿親問之下, 不可尋常處之, 旌義縣定配.

○ 南泰會以義禁府言啓曰, 罪人趙榮恒, 依傳教旌義縣定配, 而發遣府書吏,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154) 1758년(영조 34) 3월 21일.

○ 尙魯曰, 臣仍定配放送事, 有所懷欲陳矣. 趙榮恒之爲子置學長, 自是常事, 人之善惡有難逆知, 且既二次刑推, 則足以懲矣. 上曰, 頃者趙榮恒不過飭勵, 而今問尙不蒙放云. 武弁之不知其人, 誤爲學長, 不是異事, 特爲放送事, 分付.

4) 『승정원일기』(권 1154) 1758년(영조 34) 3월 23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罪人趙榮恒, 依傳教放送令旨, 達下矣. 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達. 令曰, 知道.

70. 목진복(睦震福)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역적 목호룡〈睦虎龍〉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16일.

○ 尙魯曰, 昆陽安置罪人震興, 河東安置罪人震福, 卽虎龍之姪也. 當此嚴處逆屬之時, 不可使此賊至親, 偃息陸地, 竝令移配耽羅, 何如? 上曰, 依爲之.

2)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賊虎龍姪, 昆陽安置, 罪人震興濟州牧移配安置, 震福旌義縣移配安置,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何如? 傳曰, 允.

71. 윤이정(尹彝鼎)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나주과서사건, 역적 윤혜<尹惠>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18일.

○ 南泰會以義禁府言啓曰, 逆賊惠姪彝鼎旌義縣流三千里緣坐安置, 逆賊夢協叔■■■昆陽郡流三千里緣坐安置, 逆賊竣孫琰連子婦容伊孫女沆伊等熊川縣爲奴婢, 孫白連子婦喜, 長髻縣竝爲奴婢,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1501) 1782년(정조 6) 1월 14일.

○ 朴天衡曰, 年前李壽鳳, 以御史入島也, 以罪人彝鼎之做作訛言, 誑惑人心, 果有擅刑之事矣.

72-73. 김계남(金戒男), 김흥득(金興得)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2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김일경〈金一鏡〉 종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2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依定奪, 逆鏡從孫耀業, 全羅道濟州牧定配, 戒三, 大靜縣定配, 戒男, 旌義縣定配, 幸得, 濟州牧定配, 喜得, 大靜縣定配, 興得, 旌義縣定配, 而右罪人等, 或囚捕廳, 或囚外邑,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74. 신준(申俊)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6월 1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신치운〈申致雲〉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20) 1755년(영조 31) 6월 1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忠淸監司查報及公州石城等邑成冊, 則逆賊弘錫·致雲等,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弘錫, 子婦必占, 孫女日愛等, 平安道昌城府, 竝緣坐爲婢, 逆賊致雲, 姪子俊, 全羅道濟州牧旌義縣流三千里緣坐安置, 而右罪人等, 時囚於各該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75-76. 김성해(金成海), 김진주(金辰柱)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6월 1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김일경〈金一鏡〉 조카, 종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20) 1755년(영조 31) 6월 1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咸鏡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一鏡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鏡, 庶姪子太海, 全羅道濟州牧流三千里緣坐安置, 庶姪子濟海, 大靜縣安置, 庶姪子成海, 旌義縣安置, 庶姪子壽海, 濟州牧安置, 庶姪子雲海, 大靜縣安置, 而逆鏡種子, 不可食息, 查出後, 雖年不滿者, 依逆黯例, 分配濟州事, 亦有傳教矣. 逆鏡庶從孫渠正(金), 濟州牧島配, 庶從孫辰柱, 旌義縣島配, 庶從孫渠正, 大靜縣島配, 而右罪人等, 時囚於鍾城·會寧·茂山等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77. 윤화정(尹和鼎)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6월 1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나주괘서사건, 역적 윤혜<尹惠>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20) 1755년(영조 31) 6월 15일.

○ 又啓曰, **逆賊惠**, 逆賊侄等, 應坐諸人, 捉囚捕廳矣, 逆賊惠叔觀商, 全羅道濟州牧流三千里緣坐安置, 姪子夢鼎, 大靜縣安置, **姪子和鼎, 旌義縣安置**, 姪子龍得, 濟州牧安置, 而逆惠至親, 不可食息, 查出後, 依逆黯例, 分配濟州事, 亦有傳教矣. 逆惠庶四寸弟戀, 大靜縣島配, 逆賊侄, 姪子基堂, 咸鏡道茂山府流三千里緣坐安置, 而右罪人等, 俱囚於捕廳,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78. 송정홍(宋廷弘)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7월 23일.
- 사망 연월: 1759년(영조 35) 7월 1일.
- 사유: 연좌(역적 이탄<李坦> 사돈)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5) 1755년(영조 31) 7월 23일.

○持平鄭昌聖, 正言李尙允所懷: “及第宋瑜, 以士夫敢於戊申之後, 肆然娶妻於逆坦之家, 請極邊遠竄.” 上曰: “瑜之娶妻, 罪在家長, 瑜父旌義縣定配, 瑜 鍾城府定配.”

2) 『승정원일기』(권 1121) 1755년(영조 31) 7월 24일.

○鄭基安, 以刑曹言達曰, 今七月二十三日親鞫入侍時, 因持平鄭昌聖, 正言李尙允所懷, 宋瑜父, 旌義縣定配事, 命下矣. 宋瑜父廷弘, 時在京畿振威地云, 令本道, 依傳教, 旌義縣卽爲發配後, 依例申聞之意, 分付道臣, 何如? 令曰, 依.

3) 『승정원일기』(권 1171) 1759년(영조 35) 7월 1일.

○又以義禁府言啓曰, 疏決單子啓下各道, 定配罪人中海南縣, 今奉熊川縣老郎, 竝減等, 珍島郡金聲律雖重, 稚騃之人, 旣參酌, 當疏決, 其本鳳齡, 特爲出陸, 端川府金鳳壽減等, 江陵府李尙賢放, 鍾城府宋瑜不齒人類足矣. 其本在渠父, 其父旣故, 特爲放送.

79. 최학령(崔鶴齡)

- 신분: 종인(역관)/ 동래가별차(東萊假別差)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월 29일.
- 해배 연월: 1758년(영조 34) 4월 11일.
- 사유: 범죄(사사로운 무역 거래)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27) 1756년(영조 32) 1월 29일.

○ 李應協, 以義禁府言啓曰, 東萊前假別差崔鶴齡嚴刑一次後, 旌義縣勿限年定配事, 命下矣. 崔鶴齡既已嚴刑一次, 以傳教內辭意具罪目, 全羅道濟州牧旌義縣, 勿限年定配, 而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승정원일기』(권 1155) 1758년(영조 34) 4월 6일.

○ 上御崇文堂. 承旨入侍時, 同副承旨洪名漢, 假注書權師彥, 記事官鄭昌順·柳敘五, 以〈次〉進伏訖. 上曰, 今番懿昭墓動駕時上言中, 京內上言, 注書出去, 盡數持入. 臣師彥, 卽爲持入. 上命承旨讀之. 至崔鶴齡子·玄敬躋子兩人上言. 上曰, 承旨書之, 今番京中上言中, 一張卽譯官崔鶴齡之子, 一張卽譯官玄敬躋之子, 其時欲爲嚴處此輩, 皆特教, 今覽上言, 崔鶴齡初雖捧置, 既告于官, 玄敬躋其雖蔘主, 中放又配, 不無參酌之道, 而累經大赦, 頃者懿昭墓動駕時, 有下教者, 而京中上言, 爲父訟冤, 只此二人, 今番白首臨墓, 宜施蕩典, 崔鶴齡·玄敬躋, 竝特爲放送事, 分付. 仍命退去, 諸臣, 以次退出.

3) 『승정원일기』(권 1155) 1758년(영조 34) 4월 11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罪人崔鶴齡, 因傳教, 放送令旨達下矣. 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達. 令曰, 知道.

80. 윤유일(尹有一)

- 신분: 관리(수원 감목관)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2월 2일.
- 해배 연월: 1758년(영조 34) 4월 19일.
- 사유: 범죄(사사로운 무역 거래)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28) 1756년(영조 32) 2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尹有一, 全羅濟州牧旌義縣, 勿限年定配事, 命下矣.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1155) 1758년(영조 34) 4월 16일.

○ 尙魯曰, 臣於詣闕之路, 有一號訴人, 故問之則島配罪人尹有一之子也.渠以當初以萊蔘事, 有一及玄敬躋·崔鶴齡, 同時被配,而敬躋·鶴齡, 則今番因其子上言, 特命放釋, 渠父獨未蒙一視之恩云, 此則罪旣同而放則異矣.不但渠之訴冤, 在朝家處分, 亦涉斑駁, 尹有一, 似當竝放, 故敢達.上曰, 放送, 可也.

3) 『승정원일기』(권 1155) 1758년(영조 34) 4월 19일.

○ 洪梓, 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罪人尹有一, 放送事舉條, 啓下矣.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達.令曰, 知道.

81. 송도형(宋道亨)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2월 23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송시택〈宋時澤〉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3일.

○ 元仁孫,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全羅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時澤,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時澤子道亨, 當爲緣坐處絞, 而追施逆律, 罪人之子, 依兄弟律舉行事, 特教定式, 道亨全羅道濟州牧旌義縣緣坐爲奴, 妻金丹, 子婦今延, 孫女今年生, 平安道陽德縣竝爲婢, 姪子日東咸鏡道鏡城府流三千里, 緣坐安置, 姪子道涵, 古瑟山等, 吉州牧流三千里, 安置, 而右罪人等, 時囚於沃溝縣,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82. 이승효(李承孝)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2월 23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진유(李眞儒)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柳顯章,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成府報狀, 當部成冊, 忠淸·京畿監司牒呈, 則逆賊就商·志·師尙·眞儒·明誼·楷·聖時·宗廈·鳳輝·泰耆·明彥·夏宅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
逆賊眞儒孫承孝, 巨濟府爲奴.

2) 『승정원일기』(권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賊眞儒孫巨濟府爲奴罪人承孝, 配所猶輕, 旌義縣爲奴事, 命下矣.巨濟府爲奴罪人承孝,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全羅道濟州牧旌義縣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

83-85. 이석사(李錫師), 최성경(崔性獍), 최일침(崔日沈)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2월 2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장원〈李章源〉 숙부, 최일관〈崔日觀〉의 조카, 아우)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京畿監司牒報, 則陽川·衿川, 當部成冊, 則逆賊日觀·章源等,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日觀妻順德, 咸鏡道吉州牧緣坐爲婢. 弟日潤, 全羅道濟州牧爲奴, 弟日咸, 大靜縣爲奴, 弟日沈, 旌義縣爲奴, 弟日濟, 前以他罪, 康津縣薪智島定配, 仍其地爲奴. 姪子性獍, 旌義縣安置, 姪子性模, 濟州牧安置, 姪子二月兒, 年今一歲, 依續典勿論. 逆賊章源母孝惠, 鏡城府爲婢, 妻福愛, 富寧府爲婢, 祖母崔女, 今年七十四, 依律免坐. 叔錫履, 大靜縣安置, 叔錫師, 旌義縣安置, 叔錫臨, 濟州牧安置, 而古罪人等, 或囚捕廳, 或囚陽川·振威·淸州等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86. 김언(金彦)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1월 4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김시억〈金時億〉 아우)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40) 1757년(영조 33) 1월 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全羅·江原·京畿監司牒報及沃溝·鐵原·陽川等邑成冊, 則逆賊受采·時潛·衍宇·雲澄·時億·日觀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受采子虎徵, 捉囚全州府,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處絞, 而妻暹伊, 平安道熙川郡爲婢, 子若金年十, 以年未滿, 咸鏡道鏡城府緣坐爲奴. 子冬骨金年八, 以年未滿, 富寧府爲奴. 女丁愛, 女今年生等, 端川府竝爲婢. 逆賊時潛妻介春, 富寧府爲婢. 子婦西未, 孫女惡只等, 鏡城府竝爲婢. 逆賊衍宇妻丹伊, 孟山縣爲婢. 子惡只, 年三, 子者斤惡只年二, 以年未滿, 孟山縣竝爲奴. 女大惡只, 陽德縣爲婢. 逆賊時億繼母史阿只, 利城縣爲婢. 庶母蔭接, 洪原縣爲婢. 兄時進, 濟州牧大靜縣爲奴. 弟彦, 旌義縣爲奴. 妹守丹, 妹今年生, 龜城府竝爲婢. 妹昌世, 吉州牧流三千里安置. 逆賊雲澄, 孫女大延伊, 鏡城府爲婢. 逆賊日觀妾阿只, 熙川郡爲婢. 女必伊·者斤必伊等, 吉州牧竝爲婢. 而右罪人等, 時囚全州·沃溝·鐵原·陽川及捕廳,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87. 권의(權辰)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1월 11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권침〈權詹〉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40) 1757년(영조 33) 1월 11일.

○ 韓光肇, 以義禁府言啓曰, 卽接黃海·忠淸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天才·詹·褒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天才兄天柱, 咸鏡道三水府, 緣坐爲奴, 逆賊詹孫子褒, 全羅道濟州牧爲奴, 孫子褒, 大靜縣爲奴, 孫子辰, 旌義縣爲奴, 孫女次順, 平安道寧遠郡爲婢, 逆賊褒妻玉丹, 鏡城府爲婢, 子業同年十一, 以年未滿鏡城府爲奴, 子婦德只明川府爲婢, 姪子以大, 明川府流三千里安置, 姪子興孫·仁孫等, 吉州牧流三千里安置, 姪子武孫, 寧遠郡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時囚於海州·公州·韓山等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88-90. 이훈(李璵), 박금동(朴今同), 조창이(趙昌伊)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2월 4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이훈)
- 해배 연월: 미상(박금동, 조창이)
- 사유: 연좌(진도 유배인 이배<진도 흥년>/ 역적 이탄<李坦> 아우, 박필현<朴弼顯> 조카, 조윤<趙楡>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41) 1757년(영조 33) 2월 4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珍島郡, 酷被凶荒, 緣坐諸罪人, 竝令移配於濟州三邑事, 擧條啓下矣. 珍島郡緣坐爲奴罪人逆賊璋弟塘, 緣坐安置罪人逆賊就道姪子敏樹, 緣坐爲奴罪人逆賊宗廈庶孫子連喜, 緣坐爲奴罪人逆賊泰裔孫子榮喆等, 竝移配於濟州牧. 緣坐爲奴罪人逆賊巨源孫子翼佐·吉元, 緣坐爲奴罪人逆賊明祚子江阿之等, 竝移配於大靜縣. 緣坐安置罪人逆賊弼顯姪子今同, 緣坐爲奴罪人逆賊楡子昌伊, 緣坐爲奴罪人逆賊坦弟璵等, 竝移配於旌義縣.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令曰, 依.

2)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8월 27일.

○ 應府【大司憲洪名漢.】申前啓, 不允. 彥杓事依啓. 又啓: “逆復招中, 昨冬見璵之行, 尤極凶惡, 有非往來渠弟之比. 兩邑守令之任其放恣, 誠極寒心. 請旌義·大靜前後守令, 竝拿問嚴處.” 又啓: “逆復之與在島凶孽, 締結謀議之跡, 綻露無餘, 豈無可考文書? 而拿來時無一張搜探而來者, 事極踈虞. 請當該都事鄭榮拿處.” 竝從之. 仍命濟州諸罪人, 出於來復招者, 竝逮捕以來. 諫院申前啓, 不允. 天大事, 依啓. 問事郎廳洪樂純啓曰: “逆復卽一梟獍遺種, 大靜縣監崔宗信視同平民, 循例分糶, 使之安居, 請拿問嚴處.” 上允之.

3)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壬午/上御太僕, 親鞫罪人璵·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

· 夢鼎 · 濟海 · 運海 · 陽祚 · 彥杓 · 昌翼 · 天大等. 初逆賊來復告榮得等, 以凶孽緣坐, 謫于島, 每發怨國之言, 往覘在謫宗臣壘, 爲推戴之謀, 上既誅來復, 命逮捕諸賊, 至是竝拿. 至榮得文書, 有軍器置簿, 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 現發於發捕金吾郎. 上竝親問之. **壘供曰**: “臣年前得病島中無醫. 逆衍之庶姪, 頗解醫理, 故果爲邀見. 又有一人隨來, 問之則其嫡兄云, 而不接一言矣.”

4)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3일.

○ 上以**逆壘**名出推戴, 在法當誅, 而爲其宗親之故, 不忍置法, **命減死竄配巨濟**.

5)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25일.

○ 尹得雨啓曰, 禁府單子內, **罪人壘, 當日丑時物故事**, 微稟. 傳曰, 知道.

6)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26일.

○ 禁府**罪人壘物故**.

91. 민헌주(閔憲周)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2월 11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41) 1757년(영조 33) 2월 11일.

○ (刑曹判書 吳)彦儒又奏閔憲周事.上曰, 此則只是駭民, 無識所爲也.百祥曰, 此是臣之同姓族也.上曰, 驪陽閔氏有譜乎? 百祥曰, 有譜八卷矣.上曰, 今聞大臣·秋官, 考奏趙老味初檢被蹴實因觀之, 腎囊柔軟, 實因誤矣.再檢以被打爲實因, 其雖是矣, 前後檢狀矛盾.大抵殺人, 辜限最緊, 而此則踰限, 又過十日, 道臣結語是矣.則秋判之其言詳悉, 深引律文, 此則有過於臯陶之曰殺, 特爲減一律遠配 … 上曰 閔憲周觀其所供, 愚駭所致, 且無關係緊重者, 不可無參酌之道.而此等末世, 亦不可尋常處之, 嚴刑一次後, 旌義縣島配.

92. 홍기진(洪起震)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5월 23일.
- 해배 연월: 1773년(영조 49) 3월 4일.
- 사유: 범죄(간통죄/ 역적 이성<李愼> 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9) 1757년(영조 33) 5월 23일.

○ 三江御史南泰著, 洪良漢復命, 上召見于通明殿廬次. 泰著奏宗臣西清守 蹴殺隣居朴姓人事, 命拿問, 嚴查以聞. 又奏牙山居洪曷之子, 與逆賊愼之女, 離移本夫者潛通事, 上命洪曷子刑配旌義, 愼女爲婢絕島. 良漢奏廣興守李泰祥濫杖貢人之奴, 至於致死狀, 命該府嚴查. 良漢因言兩倉虛錄之狀, 氷戶歛錢之弊, 竝命拿問郎官. 良漢又奏通津, 金浦, 陽川, 富平等邑流民來住沿江, 自成一村, 見漏帳籍, 或生弊端, 請令京兆搜括入籍, 上曰: “是化外之民也. 既令括屬京籍, 四邑守令拿處.” 良漢又奏: “西蠶室在漢江邊, 乃是公桑重地. 而居民斫伐枯木, 仍耕其地, 內侍府利其地稅亦不問, 桑田幾至童濯, 殊非設置本意.” 上曰: “蠶室爲后妃而設也. 闕中嘗有蠶板, 今聞如此, 內侍之祛桑徵稅, 甚於聚歛之臣. 特施制書有違之律, 壇直刑配.” 又奏江村豪強人定配, 合歿戶顧恤, 施之.

2) 『승정원일기』(권 1144) 1757년(영조 33) 5월 23일.

○ 李泰祥所爲, 尤涉無狀, 令該府嚴問口招, 應問各人, 亦令秋曹, 嚴查洪曷之子, 令刑曹嚴刑一次後, 旌義縣定配. 他餘事啓下舉條, 其令卽爲舉行.

3) 『승정원일기』(권 1144) 1757년(영조 33) 5월 26일.

○ 魏昌祖, 以刑曹言達曰, 今五月二十三日, 御史入侍時傳教內, 洪曷之子, 嚴刑一次後, 旌義縣定配事, 命下矣. 依傳教, 發刑差譏捕, 則洪曷之子起震, 時在忠清道保寧地云, 捉送事, 今方發關本道之意, 敢達. 令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336) 1773년(영조 49) 3월 4일.

○ 又以刑曹言啓曰, 因濟州牧使梁世絢放未放啓本稟中, 洪暭之子起震, 丁丑年定配於旌義縣, 今正月, 因其子伯興, 鳴鼓原情, 已蒙特放之意, 敢啓.傳曰, 知道.

93. 이형규(李亨逵)

- 신분: 관리(지평)
- 유배 연월: 1758년(영조 34) 12월 10일.
- 해배 연월: 1759년(영조 35) 5월 27일.
- 사유: 간쟁(우의정 이후〈李王+厚〉 탄핵)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2) 1758년(영조 34) 12월 10일.

○ 上御恭默閣, 召見李亨逵, 命自讀所上書. 上曰: “漢 獻帝受制於強臣, 唐 昭宗受制於家奴, 爾以右相比於鄭瓘, 以予比於昭宗乎?” 亨逵曰: “右相辭章, 亦自用歇後文字, 故臣亦用之矣.” 上曰: “意涉巧矣. 天怒震疊.” 命旌義縣投畀.

2) 『승정원일기』(권 1163) 1758년(영조 34) 12월 10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前持平李亨逵, 全羅道濟州牧旌義縣投畀, 倍道押付事, 命下矣. 投畀罪人李亨逵,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倍道押送配所之意, 敢達. 令曰, 依.

3) 『영조실록』(권 93) 1759년(영조 35) 5월 26일.

○ 上御涵仁亭召見李王+厚. 王+厚請放李亨逵, 上從之.

4) 『승정원일기』(권 1168) 1759년(영조 35) 5월 27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濟州牧旌義縣投畀罪人李亨逵, 特爲放送事, 命下矣. 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達. 令曰, 知道.

94. 천광복(千光福)

- 신분: 관리(능군<陵軍>)
- 유배 연월: 1761년(영조 37) 8월 28일.
- 해배 연월: 1764년(영조 40) 5월 6일.
- 사유: 범죄(살인, 명릉<明陵> 금리<禁吏> 구타)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8) 1761년(영조 37) 8월 28일.

○ 上, 詣昌德宮, 展拜眞殿, 仍御太僕, 鞫千光福, 配旌義縣. 光福家在明陵蜂峴外麓, 其隣人有犯釀者, 被執於禁吏. 光福毆打禁吏, 以脫其隣人, 而慮其吏之斃也, 謂以禁吏路由蜂峴莫重之地誣告, 陵官轉報禮曹, 仍又擊鼓. 上以語犯陵寢, 口奏于眞殿, 至有親問流配之舉.

2) 『승정원일기』(권 1196) 1761년(영조 37) 8월 28일.

○ 俞漢蕭,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千光福, 全羅道濟州牧旌義縣島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1230) 1764년(영조 40) 5월 6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因濟州牧使李明運放未放啓本, 旌義縣島配罪人千光福放, 大靜縣島配罪人金龍祚減等, 其他罪人, 依啓聞施行事, 命下矣. 千光福放, 金龍祚仍, 其地減等, 徒三年改錄, 他餘罪人等, 依啓聞施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95. 이인(李 土+寅)

- 신분: 종실(연좌)/ 해은군(海恩君) 이당(李燾)의 아들
- 유배 연월: 1762년(영조 38) 윤5월 1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부친 해은군의 권혜(權愷), 권집(權縑) 옥사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3일.

○ 敎曰: “噫! 其人若在, 則爲國之道, 爭之可也, 其人既無, 則有何爭執於特放? 昨日已諭頃者垂涕之意, 而至於燿事, 與其相持而經年, 不若允從而收殺, 故代元良特允. 而更以思之, 燿, 燿一也, 竝允臺請, 燿 端川府定配, 燿 洪原縣定配.” 燿, 燿以干連愷, 縑之獄. 憲府發達請遠配, 至是蒙允.

2) 『영조실록』(권 85) 1755년(영조 31) 7월 2일.

○ 左議政金尙魯請燿, 燿諸子, 極邊定配, 命配嶺沿.

3) 『승정원일기』(권 1121) 1755년(영조 31) 7월 5일.

○ 沈鏞, 以義禁府言啓曰, 卽接當部成冊, 則處絞罪人燿·燿等諸子, 查出以來矣. 燿子 垺, 慶尙道興海郡定配, 燿子■, 昌原府定配, ■■, 金海府定配, 仁得, 咸安郡定配, 善得, 漆原縣定配, 畢得, 鎭海縣定配, 而垺·■■等, 下去咸鏡道端川·洪原等地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권 1206) 1762년(영조 38) 윤5월 18일.

○ 尹東昇, 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燿·燿諸子, 移配絕島事, 依啓矣. 處絞罪人燿子昌原府定配罪人土+寅, 移配旌義縣, 咸安郡定配罪人仁得, 移配巨濟府, 漆原縣定配罪人善得, 移配南海縣, 處絞罪人燿子興海郡定配罪人垺, 移配大靜縣,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96. 박창윤(朴昌潤)

- 신분: 관리(승지)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1월 21일.
- 해배 연월: 1763년(영조 39) 4월 6일.
- 사유: 근무 소홀(어기〈御器〉 도난 시 수직 불성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1) 1763년(영조 39) 1월 21일.

○ 上御內司僕, 親鞫偷竊御器罪人有得·尙郁·康時賢·李聖來. 鞫罷, 分輕重或正法或酌處. 有得, 中官金重光奴也, 以雇軍, 出入禁中, 偷取集祥殿所置金銀器. 事發, 上曰: “此乃得自藩中, 爲闕內百餘年世傳之物.” 令左右捕廳譏訶, 果捕有得等. 設鞫取服, 有得下本府正法, 尙郁, 鐘城府爲奴. 時賢, 三水府爲奴, 聖來, 蔚珍縣勿限年定配. 其餘干連人朴昌潤·全明銳·趙德昌·金命五等, 皆以不謹守直, 竝散配. 仍教曰: “珍島爲奴罪人金重光, 所犯已罔赦, 而其時以差備中官, 偷取服飾器皿, 使其奴有得, 放恣發賣, 令監運御史, 嚴刑三次, 黑山島爲奴.”

2) 『승정원일기』(권 1214) 1763년(영조 39) 1월 21일.

○ 姜必履, 以義禁府言啓曰, 罪人朴昌潤, 全羅道濟州牧旌義縣島配, 金命銳慶尙道巨濟府島配, 趙德昌咸鏡道吉州牧城津鎮定配, 金命五江原道三陟府定配, 竝勿限年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217) 1763년(영조 39) 4월 6일.

○ 金應淳, 以義禁府言啓曰, 蔚珍縣定配罪人李聖來, 三陟府定配罪人金命五, 旌義縣定配罪人朴昌潤, 巨濟府定配罪人金命銳, 吉州牧定配罪人趙德昌, 三水府定配罪人李斗器, 渭原郡定配罪人梁得濟, 茂山府定配罪人金德銳, 碧潼郡定配罪人宋時贊, 山陰縣定配罪人李時彬, 高原郡定配罪人朴重茲, 祥原郡定配罪人李相萬, 文川郡定配罪人金仁國, 宣川府定配罪人盧聖昂, 靈山縣定配罪人張泰翼, 甲山府定配罪人金定五等 放送, 承傳啓下矣. 竝放送事, 分付於各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97. 심춘남(沈春男)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64년(영조 40) 1월 9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심래복<沈來復> 모역 연루, 심래복의 아들<2세>)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26) 1764년(영조 40) 1월 9일.

○ 金鍾正,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濟州牧使啓本及大靜·旌義縣監成冊, 則逆賊褒·翼佐·得明·能孝·東渾·榮得·來復·宗廈應坐之類, 查出以來矣. 褒妾曹娥, 咸鏡道穩城府緣坐爲婢, 庶子永孫年四, 二孫年二, 竝以年未滿, 穩城府爲奴, 姪甲孫, 鍾城府流三千里安置, 翼佐妾福德, 平安道碧潼郡爲婢, 得明妾奉順, 庶女永又, 黃海道豐川府椒島鎮竝爲婢, 能孝妾永甫, 庶女娥又, 慶尙道巨濟府竝爲婢, 東渾妾順德, 渭原郡爲婢, 榮得庶姪現得, 南海縣流三千里安置, 來復庶子春男年二, 以年未滿, 旌義縣爲奴, 宗廈曾孫孝甲, 明川府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時囚大靜·旌義縣,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98. 박호걸(朴好乞)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64년(영조 40) 2월 3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무신년 역적 박미귀(朴美龜)의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63) 1728년(영조 4) 6월 10일.

○ 金藻,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全羅·忠清兩道監司粘移, 及各該邑所報成冊, 則逆賊美龜·大命·德三等應坐諸人, 竝列錄以來矣. 美龜長子晉奎, 次子履奎等, 旣已年滿, 而時囚潭陽府,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 依律文不待時竝緣坐處絞, 妻元女, 咸鏡道洪原縣爲婢, 妾恠德, 妾子靛金, 年八, 靛男年四, 靛東年二, 俱是年未滿, 定平府竝爲奴婢, 子婦姜女, 孫女■惡只, 孫子玆卓惡只, 咸興府竝爲奴婢, 子晉奎, 妾右占, 孫子好乞今年生, 孫女一仙·二仙·三仙, 全羅道昌平縣, 竝爲奴婢, 子婦鄭女, 孫子德重, 和順縣竝爲奴婢, 同姓姪子以文, 咸興府流三千里安置, 大命妻連代, 女汝每, 子奉太年七, 年未滿, 平安道雲山郡竝緣坐爲奴婢, 德三妻萬今, 子婦尙禮, 孫女今年生, 孟山縣竝緣坐爲婢, 子尙儀年二十五, 旣已年滿, 所當依律文, 緣坐處絞, 而曾已逃躲云, 各別跟捕之意, 分付該道及左右捕廳, 子婦次玉, 女次任, 同生弟德容, 陽德縣竝爲奴婢, 而右罪人等, 各在外方,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1227) 1764년(영조 40) 2월 3일.

○ 洪趾海, 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全羅道昌平縣爲奴罪人戊申逆賊美龜孫乞, 令本道嚴刑後, 絕島爲奴事, 舉條啓下矣. 緣坐罪人好乞, 令該道道臣嚴刑, 濟州牧旌義縣絕島爲奴,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99. 송가상(宋可相)

- 신분: 관리(감찰)
- 유배 연월: 1764년(영조 40) 5월 20일.
- 해배 연월: 1764년(영조 40) 7월 28일.
- 사유: 근무 소홀(사직단 금초〈禁草〉 소홀)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3) 1764년(영조 40) 5월 20일.

○ 上以步輿又親禱雨于社壇. 以禁草不嚴, 罷該署提調, 竄監察宋可相于旌義.

2) 『승정원일기』(권 1230) 1764년(영조 40) 5월 20일.

○ 以承傳色口傳下教曰, 飲草摘奸祭班, 監察處得來, 此乃先詣者, 非禁喧郎廳作門哨官所知, 今日少有紀綱, 豈如此乎? 問名, 宋可相云, 況可相何人? 尤爲無狀, 永刊仕版, 當日旌義縣, 倍道押送. 書吏申肅, 墨山島[黑山島]爲奴, 亦爲倍道押送, 此皆誠淺不飭之致, 若是而得雨乎? 特却夕膳, 以謝于神, 其令禁喧郎廳, 大索以納, 如不得納, 則當該禁喧郎廳, 回駕後, 當爲軍律, 以此分付.

3) 『승정원일기』(권 1232) 1764년(영조 40) 7월 28일.

○ 金華鎮,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旌義縣投畀罪人宋可相放送事, 承傳啓下矣. 放送事, 分付濟州牧使之意, 敢啓. 傳曰, 知道.

100. 김보순(金普淳)

- 신분: 관리(지평)
- 유배 연월: 1764년(영조 40) 5월 28일.
- 해배 연월: 1764년(영조 40) 7월 28일.
- 사유: 간쟁(신하 당습 의심 철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3) 1764년(영조 40) 5월 28일.

○ 文純公 朴世采, 從享文廟, 上親臨崇政殿, 頒教于中外, 罷諸臣之不參頒教者, 在外抄選則命勿問, 竄持平金普淳于旌義縣. 普淳曰: “殿下四十年苦心, 在於祛黨, 入庭之臣, 孰敢復懷黨心? 而上下相孚, 貴在情志, 自上勿復疑阻臣隣, 是所望也.” 上曰: “疑阻者在君乎, 在臣乎? 黨習之轉成, 一疑字爲之本也. 何敢肆然, 以陳於頒教之日乎?” 遂竄之. 諫院申前啓, 不允. 憲府申前啓, 不允.

2) 『승정원일기』(권 1230) 1764년(영조 40) 5월 28일.

○ 洪良漢, 以漢城府言啓曰, 今五月二十八日頒教入侍時. 傳曰, 今日頒教, 噫, 四十年苦心, 庶可遂矣, 而諸臣雖咸曰無黨, 而予則決不然矣, 戒懼之心, 兢業之意, 彌切于中矣. 今日其若勉戒, 則勿以大同而解心, 益加自勉, 使無不承權輿之歎, 道理正當, 則持平金普淳, 復勿以疑阻, 肆然以陳. 噫, 余雖涼德, 調劑二字, 四十年若一, 頃者, 疑阻, 在君乎, 在臣乎? 黨習轉成, 一疑字中來也, 此等之言, 卽舊日黨心之言, 則普淳焉敢放恣, 以陳於法殿頒教之日乎? 此誠他日黨習之張本, 不可循例罷職而止, 永刊仕板, 旌義縣爲庶民, 當日下送事, 命下矣. 罪人金普淳, 依聖教, 當日內下送旌義縣爲庶民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232) 1764년(영조 40) 7월 28일.

○ 金應淳, 以漢城府言啓曰, 旌義縣爲庶民罪人金普淳放釋事, 命下矣. 依聖教, 卽爲放釋事, 指委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01. 신사찬(申思贊)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768년(영조 44) 9월 27일.
- 해배 연월: 1800년(정조 24) 2월 22일.
- 사유: 범죄(과거 부정, 급제 후 시제 미암송)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1) 1768년(영조 44) 9월 26일.

○ 上御春塘臺, 王世孫侍坐, 設文武科, 取申思贊等十人. 命新恩入侍, 思贊不能誦試題, 命拔去充軍. 金處坤以代述自服, 命拔去, 李德師劾封中, 其父有階銜無實職, 命拔去. 以乙科洪宗蓋權付甲科. 命宗蓋進前, 奉獻松節茶. 松節茶, 卽宗蓋父晟所進方也. 命禁百官代加, 徑授通德階, 以德師父徵澤, 因階通德, 得一資爲大夫, 加階無漸也. 陳賀時, 讀致詞, 至賢俊登庸句, 上以手掩耳.

2) 『승정원일기』(권 1284) 1768년(영조 44) 9월 26일.

○ 上曰, 文榜人先爲進前, 可也, 以榜次當見之矣. 申思贊進前告姓名, 上曰, 今科當嚴, 先誦書題, 可也. 思贊不能誦, 上厲聲曰, 原榜中拔去. 思贊將退, 上曰, 當充軍, 賜花紅牌還納, 速爲出送, 可也. … 上曰, 今番庭試, 昨慶同也. 頃聞臺臣陳章, 亂雜可知, 其於武科, 舉措可駭. 故自初嚴懲, 今日入庭儒生, 若有一分人心, 豈有此弊, 而壯元則莫知御題之某字, 孟浪可知, 此與遐方無識儒生有異, 豈特拔榜? 申思贊旌義縣限已身充軍.

3) 『승정원일기』(권 1284) 1768년(영조 44) 9월 27일.

○ 鄭昌聖, 以刑曹言啓曰, 申思贊, 旌義縣限已身充軍事, 命下矣. 罪人申思贊, 依傳教全羅道濟州牧旌義縣充軍, 卽爲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772) 1797년(정조 21) 1월 30일.

○ 上命下上言一度曰, 史官持此上言, 往問于左相曰, 上言中所云申思贊, 在先朝戊子,

登庭試魁科，以不能誦試券，至於拔去，今其子爲父訟冤，請其復科，見其事實，合有參恕之道，大臣意見何如，爾其往問而來.

5) 『승정원일기』(권 1818) 1800년(정조 24) 2월 22일.

○ 柳憲周, 以禮曹言啓曰, 戊子九月, 庭試拔榜人申思贊·金處坤, 分揀事, 命下矣.榜目令成均館修正, 紅牌及賜花, 亦令各該曹造給, 何如? 傳曰, 允.

6) 『승정원일기』(권 1819) 1800년(정조 24) 3월 20일.

○ 有政.吏批, 判書徐龍輔進, 參判李書九進, 參議洪樂游未肅拜, 行都承旨李集斗進.以崔時淳爲掌令, 具晉行爲持平, 崔履亨爲正言, 尹命烈爲修撰, 安策爲副修撰, 李益運爲工曹參判, 俞漢謨爲左尹, 洪良浩爲分內局提調, 尹序東爲司成, 金世淳爲監察, 申思贊爲典籍, 崔重圭爲軍資正, 長興主簿朴顯範, 掌苑別提李命求, 相換, 及第金處坤贈承文正字, 未分館前身死, 依法典, 贈相當職.

102. 김리희(金履禧)

- 신분: 관리(수찬)
- 유배 연월: 1769년(영조 45) 1월 25일.
- 해배 연월: 1769년(영조 45) 2월 29일.
- 사유: 간쟁(언로 개방)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2) 1769년(영조 45) 1월 25일.

○ 命副修撰金履禧, 免爲庶人, 竄旌義. 履禧疏救李鼎烈甚力, 乞收成命, 以開言路, 上曰: “許宴後如此, 豈朝鮮臣子? 請討然後當酬應矣.” 連下不忍聞之教. 領議政洪鳳漢胥命, 教曰: “金履禧之心, 路人所知.” 御建明門, 行朝參, 命四學儒生, 皆令來待, 儒生未及待命, 罷承旨及大司成, 儒生停舉. 命嬖娼三司, 刊名仕版, 放逐城外, 戶判趙雲達罷職. 還御于延和門內司鑰房, 諸大臣請對, 又以進宴力請. 夜深, 上意稍解, 罷職人皆令仍任, 儒生停舉, 亦寢之.

2) 『승정원일기』(권 1288) 1769년(영조 45) 1월 25일.

○ 崔台衡, 以義禁府言啓曰, 前修撰金履禧, 先遞其職, 免爲庶人, 旌義縣三倍道押送事, 命下矣. 免爲庶人罪人金履禧,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三倍道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영조실록』(권 112) 1769년(영조 45) 2월 29일.

○ 羅州牧出陸罪人李謙彬, 海南縣梲棘罪人尹蕃東, 濟州牧梲棘罪人金煜, 旌義縣庶人罪人金履禧, 黑山島庶人罪人李鼎烈竝放送, 因尹長烈疏, 命金若行外, 海島竄配, 特許放送.

4) 『승정원일기』(권 1289) 1769년(영조 45) 2월 29일.

○ 南玄老,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羅州牧出陸減等罪人李謙彬, 海南縣梲棘罪人尹蕃東, 濟州牧梲棘罪人金煜, 旌義縣免爲庶人罪人金履禧等放送, 承傳啓下矣. 竝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03. 윤밀(尹謐)

- 신분: 관리(교검<校檢>)
- 유배 연월: 1769년(영조 45) 4월 19일.
- 이배 연월: 1769년(영조 45) 8월 19일.
- 사유: 범죄(축기인<畜妓人, 기생을 데리고 살던 사람> 처벌)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91) 1769년(영조 45) 4월 19일.

○ 又以漢城府言啓曰, 今日滿百搜得後入侍事, 命下矣. 各部及各邸人處, 更加各別嚴問, 則平壤婢投松, 前府使元厚鎮率來, 安州婢甘丁, 大興中軍林世茂率來, 慶州婢文里化, 業儒辛光允率來, 谷城婢梅月, 校檢尹謐率來, 興陽婢世辰, 故良人李等巨里率來, 谷城婢壬辰, 監司李景祐率來. 故卽卽下送之意, 已爲嚴飭, 而此外雖有略干所告者, 或以爲癸未禁令前率來, 或以爲有子女, 虛實眞僞, 無以的知. 今日則亦姑無自首之人, 今方嚴加究覈, 以爲隨得隨啓之地, 而顧此實數, 若是零星, 臣等, 不勝萬萬惶悚之意, 竝以敢啓. 傳曰, 知道. 良人李等巨里, 此輩豈有此事, 而本官視若尋常, 其時興陽縣監問名, 禁錮十年, 校檢尹謐, 下教若何, 而身爲朝官, 忘其君愛其畜, 此等之類在京, 得人依着, 古雖有之, 此輩焉敢率娼京中, 今乃自首乎? 節節放恣, 刊名官案, 旌義縣定配, 倍道押送. 辛光允, 名雖業儒, 其本土也, 而在京至今日敢欺, 其涉無狀, 金城縣勿限年充軍.

○ 又以義禁府言啓曰, 校檢尹謐, 旌義縣定配, 倍道押送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卽爲倍道,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승정원일기』(권 1295) 1769년(영조 45) 8월 19일.

○ 趙■,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定配罪人吳道鈺, 海南縣充軍罪人尹載大, 江原道蔚珍縣定配罪人鄭履玉, 全羅左水營充軍罪人尹性淵竝放. 濟州牧旌義縣投界罪人尹謐, 陸地減等. 大靜縣充軍罪人南舜喆, 出陸事命下, 而咸鏡道放未放啓本中, 鍾城府定配罪人趙德亮, 咸興府投界罪人柳宅夏等名下, 以放字書下矣. 吳道鈺·尹載大·鄭履

玉·尹性淵·趙德亮·柳宅夏竝爲先放送事，分付各該道臣。尹謐羅州牧陸地減等，徒三年南舜喆，靈巖郡出陸，而依前罪目，依例發遣府書吏羅將，仍令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 참고.

『영조실록』(권 112)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上御建明門，拿入畜妓人，大加處分。時上益加激惱，連下嚴旨，文蔭武名爲搢紳者，命待令，下諸侍從於禁府，使之自首，自首者十餘人，命勿就囚。其未及者，皆具枷紐，囚之南間，具旗鼓前排及刑具，或依軍法回示，或決棍加刑，皆於沿海及絕島充軍。犯夜人，亦爲結縛具枷，亦與畜妓者同。

104. 서계수(徐季修)

- 신분: 유생(유학 幼學)
- 유배 연월: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해배 연월: 1769년(영조 45) 7월 23일.
- 사유: 범죄(통행금지 위반, 삼경량범야인〈三更量犯夜人〉)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91)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又以一所巡廳言啓曰, 去夜巡將監軍, 巡檢至北部昭格洞字內, 二更量犯夜人中學生鄭履和, 三更量犯夜人幼學徐季修, 執捉之意, 敢啓. 傳曰, 身爲士子, 欺君爲事, 莫重夜禁, 恣行若此, 今日朝鮮, 可謂此輩世界. 噫, 此輩少有臣子之分, 夜深殿座之時, 豈若是放恣? 其心可問, 秋曹諸堂押領, 興化門待令.

○ 又以刑曹言啓曰, 徐季修, 旌義縣充軍事, 命下矣. 罪人徐季修, 依傳教, 全羅道濟州牧旌義縣充軍, 卽爲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승정원일기』(권 1294) 1769년(영조 45) 7월 14일.

○ 金致恭, 以刑曹言啓曰, 頃者夜禁處分二儒, 一體特放事, 命下矣. 全羅道大靜縣充軍罪人鄭履和, 旌義縣充軍罪人徐季修等, 依傳教卽爲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294) 1769년(영조 45) 7월 23일.

○ 魚錫定, 以刑曹言啓曰, 雖因慨而教, 旣放旋仍, 事近已甚, 頃者, 犯夜島配者二人, 依今初下教, 仍放事, 命下矣. 全羅道濟州牧大靜縣充軍罪人鄭履和, 旌義縣充軍罪人徐季修等, 依傳教, 卽爲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참고.

『영조실록』(권 112)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上御建明門, 拿入畜妓人, 大加處分. 時上益加激惱, 連下嚴旨, 文蔭武名爲搢紳者, 命待令, 下諸侍從於禁府, 使之自首, 自首者十餘人, 命勿就囚. 其未及者, 皆具枷紐, 囚之南間, 具旗鼓前排及刑具, 或依軍法回示, 或決棍加刑, 皆於沿海及絕島充軍. 犯夜人, 亦爲結縛具枷, 亦與畜妓者同.

105. 박규환(朴奎煥)

- 신분: 관리(진주 영장)
- 유배 연월: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해배 연월: 1769년(영조 45) 11월 29일.
- 사유: 범죄(축기인〈畜妓人, 기생을 데리고 살던 사람〉 처벌)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68) 1767년(영조 43) 6월 30일.

○ 兵批, … 朴奎煥爲晉州營將.

2) 『승정원일기』(권 1291)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又以漢城府言啓曰, 各邑邸人處, 各別嚴杖究覈, 則滿浦鎮婢宗惠, 前僉使南舜喆率來, 還爲下送自首, 晉州婢世禮, 前營將朴奎煥率來, 還爲下送自首, 青松婢厚梅, 進士李得會率來, 還爲下送自首, 黃州婢得每, 前牧使金履長率來, 還爲下送自首, 理山婢山月, 前府使李宜老率來, 還爲下送自首, 泰仁婢桂娘, 前察訪鄭履玉率來, 還爲下送自首, 江陵婢白蓮, 嘉善張德裕率來, 永柔婢者斤娥, 閑良金說行率來, 鏡城婢次禮, 前察訪安■率來自首云.故嚴飭各該部, 已下送者, 使之摘奸, 未下送者, 使之卽爲下送, 其他未及發現者隨所到, 這這草記之意, 敢啓.傳曰, 點下者, 結縛待令興化門, 墨圈者, 朝士令金吾拿待, 士人令秋曹拿待, 竝其枷杻.

3) 『승정원일기』(권 1291)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南舜喆, 大靜縣充軍, 朴奎煥, 旌義縣充軍事, 命下矣.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竝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298) 1769년(영조 45) 11월 29일.

○ 徐有良, 以義禁府言啓曰, 朴奎煥特爲放送, 其時因此事, 同爲編配者, 無論文武儒蔭, 一體放送事, 命下矣.全羅道濟州牧旌義縣充軍罪人朴奎煥特爲放送之意, 分付該牧, 而靈

巖郡出陸罪人南舜喆，羅州牧出陸減等罪人尹謐，江原道蔚珍縣定配罪人鄭履玉，平昌郡定配罪人金挺蓋等，俱係其時編配者，依傳教一體特放事，分付各該道道臣，何如？傳曰，允。

● 참고.

『영조실록』(권 112)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上御建明門，拿入畜妓人，大加處分。時上益加激惱，連下嚴旨，文蔭武名爲搢紳者，命待令，下諸侍從於禁府，使之自首，自首者十餘人，命勿就囚。其未及者，皆具枷紐，囚之南間，具旗鼓前排及刑具，或依軍法回示，或決棍加刑，皆於沿海及絕島充軍。犯夜人，亦爲結縛具枷，亦與畜妓者同。

106. 황덕혜(黃德惠)

- 신분: 가족(연좌)/ 여(女)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2월 1일.
- 해배 연월: 1774년(영조 50) 5월 30일.
- 사유: 연좌(재물 침탈 범죄인 황경룡〈黃景龍〉 누이, 은신군〈恩信君〉 보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2월 1일.

○ 命拿龍銅宮任掌二人，其中黃景龍，卽正科人，命金吾諸堂及時原任大臣兩司左右捕將，竝牌招。上仍御建明門，親鞫景龍等，景龍供：“臣實非欲侈衣侈食者，而外間多有不好所聞，故卽告于本宮，招來五部書員，以宮家初無所侵之意分付。金禹象爲名人，初不知面，一日來言於臣曰，自家大監，雖欲讀書，無人隨廳，雖欲習字，無人磨墨，汝來隨廳爲好云，故臣果往，而實無作俑之事矣。禹象則自臣入去之後，不爲頻來，蓋因自家之疎待故也。去月臣告于自家，以外間多言之故，無賴下人盡逐之。只留別陪二人，至於廬人密封事，臣所不知，廬民向臣皆稱善，則禹象所告之言，必是誤矣。”使與禹象面質，禹象曰：“百姓與市井，皆以王孫宮之故，將不得保存云，以汝方爲掌務，故俄果告之，非欲害汝而告之也。”上更問於景龍，景龍供：“今至死境，當直告矣。洪奉朝賀招臣，使之隨行任掌，丁亥年二月，得差於李興祿之手，而興祿最親於恩彦君矣。”及其三招，景龍皆稱誣告，又以爲請囑於其妹之爲宮婢者？及興祿處得差，而各廬私自徵〔斂〕者，錢則五六百兩，苧綿木等爲數十疋。宮任李再春等，又嚴刑鞫問，竝參酌定配，罪人德惠·連愛，大靜·旌義兩縣分配，德惠·卽黃景龍之妹，王孫之保母也，連愛，與德惠同心用事者也。

2) 『승정원일기』(권 1314) 1771년(영조 47) 2월 1일.

○ 上曰，今番亂國，專由於連愛·德惠□一也，而德惠，則不敢稱之名，肆然以稱，尤涉放恣，以此推之，連愛前口所稱，必也同意，連愛，大靜縣爲婢，德惠，旌義縣爲婢，其令該曹，卽爲分付。

3) 『승정원일기』(권 1314) 1771년(영조 47) 2월 2일.

○ 又以刑曹言啓曰, 連愛, 大靜縣爲婢, 德惠, 旌義縣爲婢事, 命下矣. 罪人連愛·德惠, 日前因特教, 已爲發配於慶尙道寧海·清河等地, 依傳教, 罪人連愛,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德惠旌義縣爲婢, 自各其所到處, 竝卽舉行後啓聞事, 卽爲發關分付於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351) 1774년(영조 50) 5월 30일.

○ 洪述海, 以刑曹言啓曰, 大靜連愛, 旌義德惠竝放事, 命下矣. 依傳教, 濟州牧大靜縣爲婢罪人連愛, 旌義縣爲婢罪人德惠, 竝卽放送事, 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07. 홍문한(洪文漢)

- 신분: 관리(돈녕 주부)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4월 24일.
- 해배 연월: 1771년(영조 47) 7월 6일.
- 사유: 근무 소홀(헌납 이일증〈李一曾〉 처벌 업무 태만)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314) 1771년(영조 47) 2월 17일.

○ 吏批, 有政. … 禁府都事柳正養, 敦寧主簿洪文漢相換, 仁陽君單李景祐, 戶曹參判李滄仍任事, 承傳.

2) 『승정원일기』(권 1316) 1771년(영조 47) 4월 24일.

○ 上曰, 李一曾戶籍, 令漢城府搜入, 罪人李一曾, 刑推二次. 上曰, 文書搜來乎? (判義禁) 申晦持文書進前曰, 搜來者兩軸, 而別無可觀者矣. 上曰, 此外必有之, 一都事更送搜之, 可也. 上曰, 當初文書兩次搜探都事拿入. 趙榮慶·洪文漢拿入. 上曰, 誰也? (都承旨) 嚴璘曰, 榮慶則觀彬之子, 文漢則鏡輔之子云矣. 上曰, 汝輩以南行, 亦負君耶? 文漢, 初若盡爲搜來, 則榮慶, 何以疊得? 以此觀之, 汝輩搜探之不審, 可知, 用計巧密, 可謂亂臣賊子矣. 決棍十度, 拿出. … (右副承旨) 李碩載, 以刑曹言啓曰, 趙榮慶, 大靜縣爲庶民, 水軍充定, 洪文漢, 旌義縣爲庶民, 水軍充定, 令刑吏, 倍道押付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趙榮慶, 全羅道濟州牧大靜縣, 洪文漢, 旌義縣, 竝爲庶民, 水軍充定, 令刑吏, 卽爲倍道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19) 1771년(영조 47) 7월 6일.

○ 李廷壽, 以義禁府言啓曰, 竄配罪人慶尙道寧海府李長老, 機張縣權坪·洪彬·蔡廷夏, 晉州牧林鵬翰, 南海縣俞彥鎬·柳義養, 巨濟府李秉鼎, 熊川縣金普淳, 興海郡金載人, 金海府金文淳, 全羅道海南縣朴奎壽, 康津縣安杓, 興德縣安翼濟, 興陽縣成胤協, 濟州牧大靜縣趙榮慶, 旌義縣洪文漢, 咸鏡道吉州牧朴思亨, 明川府趙英鎮, 甲山府丁範祖·尹錫周,

三水府崔範重，北青府尹晁東，鍾城府李重海，穩城府趙鎮衡，富寧府南鶴宗，會寧府李恒祚，忠清道稷山縣金容·沈垓·任希沅，公州牧徐郁修，京畿廣州府朴載德等放送，承傳啓下矣。竝放送事，分付各該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108. 심항지(沈恒之)

- 신분: 유생(성균 생원)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5월 26일.
- 해배 연월: 1771년(영조 47) 11월 20일.
- 사유: 범죄(홍서)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5월 26일.

○ 上御建明門, 拿入冊僮, 推問冊子買賣處, 金履復·沈恒之等, 以次定罪. 又問於李羲天, 羲天供以爲: “雖買置《明記輯略》, 而實未嘗考見, 乃聞朴弼淳疏概後, 仍卽付丙矣.” 遂教曰: “嗚呼! 今者陳奏之時, 我國買來者, 若不定法, 崩心痛迫, 何可勝言? 以次盤問.” 果得李羲天及冊僮裴景度等, 其若相雜於《鳳洲綱鑑》, 則未及見, 亦非異事. 此則罔測之書, 互相買賣, 聞來心寒骨青, 不可循例處之者. 李羲天及冊僮裴景度, 帳殿回示三匝後, 令訓將青坡橋臬示, 江邊懸首三日, 其妻孥黑山島永屬官奴婢, 仍命弼淳進前曰, “疏概何以爲之?” 弼淳對以: “璿派誣史云云.” 上怒下教曰: “其章雖嘉, 今聞大概, 不覺心隕. 賞自賞飭自飭, 如此大概, 頒布中外, 是豈陳奏之意乎? 前承旨朴弼淳, 淮陽府遠竄.”

2) 『승정원일기』(권 1317) 1771년(영조 47) 5월 26일.

○ 仍命拿入冊僮等, 推問冊子買賣處後, 命拿金履復, 下教曰, 汝以忠臣之孫, 當此時, 留置此等冊子, 不爲自現, 何也? 履復供曰, 矣身所買冊子, 卽綱鑑正史, 而朴弼淳疏後, 矣身骨驚心寒, 廿一日, 卽爲付丙, 故未得自現矣. 命特放. 又命拿沈觀之, 問冊子首末. 觀之供曰, 矣身則本無冊子買賣事矣. 命更推問冊僮. 僮曰, 觀之之弟恒之, 曾以綱鑑, 求買于矣身矣. 上曰, 沈觀之免爲庶人, 逐出西小門外, 當日渡江. 出傳教 又命拿沈恒之推問. 恒之供以爲, 冊子中無明史, 而只係宋史, 故不爲自現矣. 命書傳教曰, 罪人沈恒之, 旌義縣限己身充軍. 又命拿沈履之, 推問後特放.

○ 又以刑曹言啓曰, 沈恒之, 旌義縣限己身充軍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沈恒之, 全羅道濟州牧旌義縣, 限己身充軍, 卽爲發配之意, 敢啓. 答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23) 1771년(영조 47) 11월 20일.

○ 又以刑曹言啓曰, 母論朝士·儒生·冊僧, 凡係以冊事被罪者一併蕩滌事, 命下矣. 依傳教慶尙道巨濟府申大昌, 全羅道海南縣姜世恭, 羅州牧黑山島李恒健·趙得麟·朴師億·高壽仁·金德堉·高得觀·高興文·高師儉, 濟州牧旌義縣沈恒之, 靈巖郡楸子島高師忠, 咸鏡道三水府趙弘鎮, 甲山府李達連, 鏡城府徐尙修等竝卽放送事, 發關分付于各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09. 구상(具庠)

- 신분: 관리(이조 참판)
- 유배 연월: 1772년(영조 48) 7월 5일.
- 해배 연월: 1773년(영조 49) 3월 10일.
- 사유: 봉당 조장(패륜)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8) 1772년(영조 48) 3월 27일.

○ 以具庠爲吏曹參判, 洪檢爲吏曹參議, 李昌任爲承旨.

2) 『영조실록』(권 118) 1772년(영조 48) 6월 10일.

○ 上御建明門, 命羅卒拿入具庠, 教曰: “清與名時體, 團聚一黨, 此國之存亡所係. 主張時論四字, 既登白簡, 予之嚴問, 豈可弛乎?” 因嚴訊具庠, 庠自服曰: “果好清名, 而陷入其黨, 主張時論之罪, 臣實難追. 今因李東顯之言, 而始覺其非也.” 教曰: “噫! 彼具庠負君負祖, 有甚於金致仁. 若不刑配, 何以勵百人? 而思其父追昔勳戚, 逐出街道, 于今抱此心者, 以此懲戢, 勿陷大戾.” 命判義禁曰: “具庠勿爲解縛, 使羅卒, 因其刑機, 摔出于紅馬木外, 使都民皆知.”

3) 『영조실록』(권 118) 1772년(영조 48) 6월 12일.

○ 上御集慶堂, 藥房及臺臣入侍. 上曰: “冢宰之子, 相連元輔, 於邊景鎮帳殿之間, 綻露無餘. 元輔爲領袖, 銓官爲主張, 而國豈不亡? 若有漆室興歎者, 宜陳所懷. 其復含默, 朝鮮臺閣先亡矣.” 又勵聲曰: “臺臣若默默, 當臥舊邸.” 命中官待令駕輶, 臺臣請安置具庠於絕島, 金致仁於旌義, 配趙曦於邊遠, 上并依啓, 頃之還寢致仁, 曦之加律. 曦之弟晷, 亦入於三通中, 故臺臣以此添罪於曦, 上允之, 旋以啓辭模糊, 且無執贓, 還寢是命. 致仁則以不忘其父, 亦寢加律.

4) 『승정원일기』(권 1329) 1772년(영조 48) 7월 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巨濟府圍籬安置罪人具庠, 旌義縣荐棘事, 命下矣.以傳教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都事, 所到處執捉, 押送于配所荐棘之意, 敢啓.傳曰, 知道.此都事羅將, 一體依鍾城府都事下教嚴飭.

5) 『영조실록』(권 119) 1772년(영조 48) 11월 18일.

○ 命放金致仁, 具庠, 鄭存謙, 韓必壽, 尹勉升. 上曰: “五人旣處分, 況李範濟乎? 李蕃廷處分, 予亦知過特放. 我國無三族之法, 豈可開無前之法? 許, 襄兩逆三族散配者并放.”

6) 『승정원일기』(권 1332) 1772년(영조 48) 11월 18일.

○ 徐晦修, 以義禁府言啓曰, 慶尙道南海縣荐棘罪人金致仁, 咸鏡道鍾城府荐棘罪人鄭存謙, 全羅道荐棘罪人具庠, 羅州牧黑山島竄配罪人韓必壽, 靈巖郡楸子島竄配罪人尹勉升, 羅州牧黑山島荐棘罪人李範濟, 慶尙道機張縣定配罪人李蕃延, 熊川縣定配罪人李蕃建, 固城縣定配罪人李蕃廷等竝特放, 非逆律而發配者, 勿論遠近, 令該府該曹, 卽放以啓事, 命下矣.金致仁·鄭存謙·具庠·韓必壽·尹勉升·李範濟·李蕃延·李蕃建·李蕃廷等放送.晉州牧定配罪人汝草里, 丹城縣定配罪人昌胤等, 竝依傳教, 亦爲放送事, 分付各該道臣之意, 敢啓.傳曰, 知道.

7) 『영조실록』(권 120) 1773년(영조 49) 3월 2일.

○ 命具庠給牒敍用, 申益彬, 李最中, 鄭存謙亦命敍用.

8) 『승정원일기』(권 1336) 1773년(영조 49) 3월 2일.

○ 命書傳教曰, 以其貢果推之, 風勢可知.噫, 雖來, 艱辛勝言, 況頃者帳殿所供聞之? 旣稱其父之子, 具庠, 卽爲給牒敍用.又命書傳教曰, 今聞較重者已敍用, 其差間者, 尙在永刊之律云, 其涉不均, 申益彬, 依李最中例, 給牒敍用, 鄭存謙, 其時大官, 旣敍用, 況冢宰? 一體敍用.

9) 『승정원일기』(권 1336) 1773년(영조 49) 3월 10일.

○ 趙載得, 以義禁府言啓曰, 義州前府尹具庠·宋載經·黃最彦等, 令該府拿問, 受口供登對以奏後, 依本律, 從輕重勘處事, 傳旨啓下矣. 具庠, 自濟州牧旌義縣配所, 未及上來, 宋載經, 時在忠清道懷德地, 黃最彦, 時在江原道平康地云, 依例發遣府書吏, 竝拿來後舉行, 何如? 傳曰, 允.

110. 이제봉(李齊鵬)

- 신분: 관리(북부 도사)
- 유배 연월: 1772년(영조 48) 7월 28일.
- 해배 연월: 1778년(정조 2) 12월 15일 이전.
- 사유: 명령 불이행(당습 타파 명첩 제출 지연)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9) 1772년(영조 48) 7월 26일.

○ 上還御彰義宮, 令文蔭武, 若無黨心, 各呈名帖, 以名帖之遲到, 散配京兆郎官.

○ 上御彰義宮, 命訓將入旗鼓, 拿入五部官員, 令回示三匝, 以昨日所捧名帖之少也.

2) 『승정원일기』(권 1329) 1772년(영조 48) 7월 2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五部都事, 嶺沿充軍, 追入二人, 大靜·旌義充軍事, 命下矣.南部都事南顯老, 慶尙道機張縣, 奉事鄭德濟熊川縣, 西部奉事安錫佺柒原縣, 北部奉事鄭東協金海府, 東部都事林重遠固城縣, 奉事李駿祥泗川縣, 中部奉事權捷全羅道濟州牧大靜, 北部都事李齊鵬旌義縣竝充軍, 而傳教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竝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八羅將其若外方作弊, 令其道稟示, 以此嚴飭.

3) 『승정원일기』(권 1432) 1778년(정조 2) 12월 15일.

○ 有政.吏批, 判書洪樂純, 參判徐浩修進, 參議李義翊式暇, 左副承旨蔡弘履進.以吳載純爲大司憲, 李夔爲持平, 金憲爲校理, 李正模爲順興府使, 趙武範爲古阜郡守, 李宗魯爲康翎縣監, 李齊鵬爲眞寶縣監, 李鎮斗爲司宰直長.經筵官宋德相·金亮行·俞彥鏞·金鍾厚, 惠陵參奉宋煥程, 內侍教官趙德洵相換.

111. 연덕행(延德行)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75년(영조 51) 6월 29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토호 민폐(청양〈靑陽〉, 음성〈陰城〉 지역)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364) 1775년(영조 51) 6월 29일.

○ 上御集慶堂.該房承旨·御史同爲入侍時, 右副承旨李晉圭, 御史李商建, 假注書柳河源, 記事官宋銓·李益運, 以次進伏訖.上命晉圭讀奏書啓.上曰, 延哥事, 何如? 商建曰, 延哥卽強族梗民, 多豪強侵凌之事矣.上曰, 邑臣, 誰耶? 商建曰, 嶺人李世述也.初則決給郭哥後, 爲延哥所恐動而翻訟矣.上曰, 延哥刑推乎? 商建曰, 以恐動邑臣之罪刑推矣.命書傳教曰, 近者申聞, 猥濫太多, 而今者兩漢, 一則了然, 故其道道臣嚴處, 而此則不可不詳審, 故有此舉.今聞御史書啓, 延東煥旣施其律, 今無可論.李世述若是無形, 而道臣例考, 豈嚴殿最之意, 而於此於彼, 不能自顯, 律何過也? 亦無可論.李世述可謂爲國羞也.北道鍾城府定配.原犯旣已處治, 延德行此等豪強, 若不嚴懲, 何以礪末俗? 旌義縣充軍.

○ 洪景顔, 以兵曹言啓曰, 依傳教, 罪人延德行, 全羅道旌義縣充軍事. 分付該道道臣, 卽爲發配之意, 敢啓.傳曰, 知道.

112. 김치양(金致讓)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3월 30일/ 1781년(정조 5) 10월 9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사도세자 처벌 동조, 김상로〈金尙魯〉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364) 1775년(영조 51) 6월 2일.

○ 金致讓爲刑曹參議.

2) 『승정원일기』(권 1378) 1776년(정조 즉위) 3월 30일.

○ 金煜, 以義禁府言啓曰, 因副校理李秉模上疏, 尙魯子侄, 竝令絶島安置事, 依施矣. 尙魯子致讓,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安置, 致顯羅州牧黑山島安置, 侄致恭慶尙道巨濟府安置, 致良全羅道靈巖郡楸子島安置, 而以承傳內辭意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致顯外竝發配, 致顯待明日處分.

3) 『승정원일기』(권 1379) 1776년(정조 즉위) 4월 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則孥籍罪人尙魯, 應坐諸人, 查出以來, 而追施逆律者, 其父與子勿施一律, 依兄弟應坐律舉行, 奉承傳施行事, 曾有受教矣. 頃因承傳, 尙魯子致讓,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安置, 子致廣, 珍島郡金甲島安置, 庶子致默, 全羅道興陽縣蛇渡安置, 而既已發配, 依受教仍其地爲奴, 子致顯, 嚴囚本府南間, 待處分舉行, 姪致恭, 慶尙道巨濟府安置, 姪致良,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安置, 姪致勛, 慶尙道南海縣安置, 姪致訥, 全羅道珍島郡安置, 皆已發配, 仍其絶島, 依律文流三千里安置, 妻必喜,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婢, 妾德辰, 咸鏡道慶興府爲婢, 妾松月, 茂山府爲婢, 子之妾萬愛, 慶尙道機張縣爲婢, 子婦孝任, 長鬐縣爲婢, 子婦花愛, 東萊府定配, 庶子婦美方, 咸鏡道穩城府爲婢, 孫鍾烈, 三水府爲奴, 孫女珠玉, 慶尙道長鬐縣爲婢, 庶孫石伊, 咸鏡道穩城府爲奴, 庶孫女乙任, 全羅道興陽縣爲婢,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

其配所，何如？傳曰，允。

4) 『승정원일기』(권 1388) 1776년(정조 즉위) 9월 4일.

○ 李義翊，以義禁府言啓曰，未結案而用逆律者，身已死而追施挈籍者，結案於次律，而請加極律者，一竝除之，而尙魯子侄及聖國諸子，卽其地安置，聖國母罪惡貫盈，今不可學論，而其他諸緣坐罪人，竝放送事，舉條，啓下矣，尙魯子濟州牧旌義縣爲奴罪人致讓，羅州牧黑山島爲奴罪人致顯，珍島郡金甲島爲奴罪人致廣，庶子興陽縣蛇島爲奴罪人致默，侄巨濟府安置罪人致恭，靈岩郡楸子島安置罪人致良，南海縣安置罪人致勛，珍島郡安置罪人致訥，聖國子甲山府爲奴罪人景行，會寧府爲奴罪人景輝，長鬐縣爲奴罪人景煥，龍川府爲奴罪人景興等，仍前配所，竝爲安置，聖國母濟州牧爲婢罪人今連，依前罪目，濟州牧仍爲爲婢，而尙魯妻必喜，妾德辰·松月，子婦李女孝任，庶子婦美方，子之妾萬受，庶女美行，孫鍾烈·芑伊，庶孫石伊，孫女珠玉，庶孫女乙任，聖國妾松月女成愛·興艷，子婦楚愛·喜艷·莫珠，孫順徵·潤赫快·徵赫伊，叔弘道·繼哲等，竝卽放送事，分付各該道臣，尙魯·聖國·商輅等，籍產還給等事，令各該司舉行，何如？傳曰，允。

5) 『일성록』 1776년(정조 즉위) 3월 30일.

○ 義禁府啓言.尙魯子致讓 旌義縣.致顯 黑山島.侄致恭 巨濟府.致良 楸子島.并安置.請押送.允之.教以致顯外.竝發配.致顯待明日處分.

6) 『정조실록』(권 12) 1781년(정조 5) 10월 9일.

○ 諭濟州御史朴天衡，教曰：“觀此狀啓，別無更覈之事，許久留滯，徒貽民邑之弊。罪人翼雲，貞詰，會遂，後樂，衡之，致讓，範中，秉成及丹惠慘等，依前配所，嚴飭保授。所謂劉世輝，居在廣州云，分付捕廳發捕。其餘諸囚，竝參酌決折，待竣事，卽爲復路。”

7) 『승정원일기』(권 1495) 1781년(정조 5) 10월 9일.

○ 上御誠正閣.左副承旨入侍時，左副承旨李在學，假注書趙衍德，編修官張顯慶，記事官金鳳顯，以次進伏訖.上命書傳教曰，觀此狀啓，別無更覈之事，若以狀啓之未及回下，不卽還程，則許久留滯，徒貽民邑之弊，罪人翼雲·貞詰·會遂·後樂·衡之·致讓·範中·秉成及

丹惠慘等, 依前配所, 嚴飭保授, 所謂劉世輝稱名漢, 居在廣州地云, 分付捕廳, 已令發捕矣, 其他干連諸囚, 竝參量決折, 待峻[竣]事即爲復路之意, 回諭于濟州御史處. 又命書傳教曰, 諸囚滯獄, 民邑之弊, 不可不念, 從當分等酌處, 而其中金愛·李奎景, 朝廷既從大臣之請, 根因脈絡, 有難平問取服, 嚴刑得情, 斯速馳聞, 大臣舉條, 膽出一通, 與此有旨, 同爲下送于審覈使處, 向欲下教而未果, 參覈官太多, 徒貽廚傳之弊, 量宜差定, 餘皆罷送事, 一體回諭. 又命書領議政筭批訖. 命退, 承史以次退出.

113. 조헌진(趙獻鎭)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4월 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선대왕 모함 조재한(趙載翰) 아들)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4월 1일.

○ 李德師, 朴相老, 趙載翰, 李一和, 崔載興, 柳翰申, 李東讓等伏誅. 初上在春邸, 載翰與一種不逞之徒, 假托壬午義理, 陰結妖宦李興祿, 金壽賢等, 轉聞于上, 興祿等因上遊後苑, 誘脅萬端, 又薦引匪類之入其黨者. 上時在冲年, 心惡之. 至是乘大喪, 載翰嗾鄉儒李一和, 投疏言壬午事, 德師之疏同日并徹, 翰申亦呈疏政院, 疏語同. 教曰: “此誣及先大王之大逆也. 雖在公除前, 當親鞫殿庭, 以告先大王之靈. 一和猶是孤雛, 德師正法然後, 先王之志可明.” 御金商門親鞫德師及李峻培, 峻培, 德師之從姪, 而寫匈疏者也. 問: “先大王梓宮在殯之時, 投呈匈疏, 欲爲眩惑, 究其設意, 已極陰慘. 事係壬午, 不但不敢言不忍言. 日記洗草之後, 先朝達權之大義, 國家哀痛之至情, 兩伸而不悖. 則雖在三月初四日之前, 今日臣子, 固不敢發諸口筆之書, 況三月初四日之後乎? 爾疏中‘明先王之本心’云者, 尤萬萬叵測. 先大王之教若曰: ‘事係壬午, 義理或有十分似是者, 卽誣予也, 非但不忠於予, 抑亦不忠於爾. 他日干犯此事者, 殯殿之庭, 必也嚴問, 雖成服前, 斷以王法.’ 爲教. 今日親問, 卽追先王之志也, 明先王之志也.” 德師供曰: “先大王以止慈止仁, 當不忍當之情境, 恐非先大王之本意, 妄爲此疏誣上是實.” 以誣上大逆不道正法, 峻培減死定配. 又御內兵曹, 親鞫李一和, 趙載翰, 載翰之子方鎭·獻鎭·純鎭, 韓光瓘, 朴相老, 李勛濟, 勛濟之子東讓, 趙雲亨, 李範濟, 載翰等供: “爛漫謀議, 嗾出一和匈疏是實.” 相老與載翰, 東讓, 會于雲亨家議疏草, 發詬天不道之說, 其說以爲 ‘勿論疏事是非, 某年事, 我殿下’ 云云, 【已忘壬午四字.】蓋詬天語也. 東讓以告, 相老語屈不敢隱, 以窮匈極惡大逆不道結案. 上曰: “予豈意今日, 聞此匈言?” 仍嗚咽流涕, 諸臣皆泣, 金吾諸堂承史問郎侍衛將士, 各執杖亂捶之. 上曰: “治逆有道, 其禁之.” 遂大會百官都民, 戮相老于市, 載

翰, 翰申, 一和以誣上不道正法. 又設庭鞫, 推鞫東讓, 以知情不告正法, 範濟杖斃, 光瓘初以參涉德師疏被拿, 減死極邊圍籬安置, 雲亨, 助濟減死定配, 方鎮, 獻鎮, 純鎮, 依收孥本律, 干連諸人, 并命酌處. 任城以昔年春坊, 上不忍親問, 只拿囚待撤鞫遠配, 俞漢敬減律定配, 睦祖煥極邊安置, 宋翼彥, 曹晦振特放.

2) 『승정원일기』(권 1379) 1776년(정조 즉위) 4월 5일.

○ 金相戊, 以義禁府言啓曰, 罪人雲亨減死定配, 助濟定配, 獻鎮依本律決配事, 命下矣. 雲亨, 咸鏡道甲山府定配, 助濟, 慶尙道熊川縣定配, 獻鎮, 全羅道濟州牧旌義縣緣坐爲奴. 而右罪人等,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14. 윤태연(尹泰淵)

- 신분: 관리(어영대장)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4월 7일.
- 나국 연월: 1777년(정조 1) 8월 8일.
- 사유: 정권 변동(정조 즉위, 세손 즉위 반대 정후겸〈鄭厚謙〉 심복)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27) 1776년(영조 52) 1월 20일.

○ 命御將尹泰淵 機張縣投界, 以張志恒爲御營大將.

2)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3월 25일.

○ 竄鄭厚謙于慶源府, 移配尹養厚於巨濟府, 尹泰淵於蝟島, 養厚, 泰淵竝荐棘. 厚謙卽和緩主之繼子, 與洪麟漢, 洪相簡, 養厚, 泰淵等, 乘英宗倦勤, 表裏糾結, 布植黨與, 弄權蔑法, 壞亂一世, 憚上英明, 譸張誣毀, 謀欲動搖儲宮.

3) 『승정원일기』(권 1379) 1776년(정조 즉위) 4월 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荐棘罪人韓光綮·尹泰淵, 更定配所事, 命下矣. 咸鏡道三水府圍籬安置罪人韓光綮, 慶尙道機張縣更定配所, 全羅道扶安縣蝟島鎮荐棘罪人尹泰淵, 濟州牧旌義縣更定配所, 而依例發遣府都事, 仍令執捉押送于各其配所, 與地方官, 眼同荐棘, 何如? 傳曰, 廚傳有弊, 以前都事舉行.

4) 『승정원일기』(권 1403) 1777년(정조 1) 8월 8일.

○ 上御誠正閣.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鄭民始, 假注書李兢淵, 記事官徐龍輔·金勉柱, 以次進伏訖. 上曰, 宣傳官具純入侍. 賤臣承命召入, 宣傳官具純進前. 上曰, 泰淵今將發捕, 卽往其家, 文書搜探以來. 仍命先退. 上曰, 續海荐棘事, 出去都事誰也? 知入而宣傳官申應周, 使之入侍. 賤臣承命出, 還奏曰, 荐棘都事安宗厚待令, 而宣傳官申應周, 姑未入來矣. 上命書尹泰淵拿來密旨. 上曰, 宣傳官申應周, 假都事差下, 封給密旨, 使之罔夜拿來,

而或有逆命之事，分付討捕營，發軍捕來，文書亦爲收來之意，言及，可也。仍命退，諸臣以次出。

5)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8월 11일.

○ 是日又親鞫尹泰淵. 泰淵以厚，麟腹心，逆節彰著，至是拿來於棘中. 泰淵供曰：“與厚謙相親，萬死無惜，而爲洪鳳漢所慫慂也. 範，吉逆謀，則初不與知.” 忍杖不服.

6)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9월 24일.

○ 頒教: 王若曰, 惟予不德, 叨承丕基, 粵自新服以來, 無一德化及民, 徒見誅罰荐行. 嗚呼! 是豈予心之所欲哉? 莫嚴者天討, 所重者宗社. 予一人曷敢以己意參焉哉? 嗚呼! 國家不幸, 遭時孔艱, 亂本起自戚里, 賊黨殆遍世臣以至. 今茲逆變極, 往牒所無之凶, 幸賴皇天祖宗之默佑, 半夜宮城手脚既敗, 十日帳殿, 頭腦自綻, 罪人斯得, 王章已舉. … 將逆賊興文, 龍輝, 相範, 相吉, 相格, 世福, 甘丁, 貞伊, 興祚, 孝任, 介連, 述海, 趾海, 續海, 壽大, 澤遂, 信德等, 依律正法, 啓能已承款而徑斃, 未及正法, 禳使之自盡, 海根, 宗洙, 國來, 峽, 受采, 信海, 履海, 泰淵等杖斃, 弘燮亦施追奪之律. 鋤除亂逆, 既洩神人之憤, 滌蕩瑕垢, 寧靳霈澤之流? 自昧爽以前雜犯死罪以下, 咸有除之云云. 於乎! 從今以往, 逆順益明, 國是大定, 凡厥臣庶, 尙不迷於向背, 同我家國期永享於太平. 故茲教示, 想宜知悉. 【藝文提學金鍾秀製進】

115. 강덕엽(姜德曄)

- 신분: 중관(中官, 내관)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7월 3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역졸 구타, 역마 남용)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7월 30일.

○ 敎曰: “濫騎驛駟, 毆打驛卒, 聞是中官姜德曄云. 本事猶是細故, 聞來不覺體栗而膽掉. 此等妖宦, 尙今偃息, 今此現發, 可見昭昭之理. 聖國至於孥籍, 而此宦之無故, 朝廷刑政, 尤極顛倒. 渠罪渠自知之, 予不忍索言. 當此孤危之日, 決不可一刻置之輦轂之下, 以貽無窮之慮, 旌義縣限己身爲奴. 渠之戴頭, 卽是寬典, 赦典勿揀.”

2) 『승정원일기』(권 1386) 1776년(정조 즉위) 7월 30일.

○ 徐有防,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姜德曄, 嚴刑一次, 發配事, 批下矣.罪人姜德曄, 旣施嚴刑一次, 依傳教, 全羅道濟州牧旌義縣, 限己身爲奴, 此後赦典勿揀,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答曰, 知道.

116. 홍찬해(洪纘海)

- 신분: 관리(양주 목사)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8월 28일.
- 사망 연월: 1777년(정조 1) 9월 8일.
- 사유: 정치 변동(정조 즉위, 정조 즉위 반대)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2) 1776년(정조 즉위) 8월 28일.

○ 移配黑山島竄配罪人纘海于旌義縣, 以致顯之同配一邑也.

2) 『승정원일기』(권 1387) 1776년(정조 즉위) 8월 2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羅州牧黑山島減死定配罪人纘海, 濟州牧旌義縣移配事, 命下矣. 減死定配罪人纘海, 仍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 自黑山島執捉, 仍令押送于旌義縣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403) 1777년(정조 1) 8월 11일.

○ 昌順·英鎭·觀周·聖彬·豐之·夔·岳柱曰, 今番凶逆, 振古所無, 臣等不覺骨顫膽掉, 龍輝旣已伏法, 相範亦方鉤問, 指使顯有所歸, 窩窟今幾盡露, 則荐棘罪人趾海·述海·纘海之發捕鞫問, 尤不可一刻遲滯, 請趾海·述海·纘海等, 卽令發捕, 究覈情節, 快正王法. 上曰, 依啓

4)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8월 11일.

○ 越六日親鞫洪述海, 翼月推鞫洪趾海, 述海以赴謫時藏符呪事, 及相範募刺客作變, 孝任與妖巫埋凶, 啓能推戴之凶謀, 在謫後往復指揮承款, 趾海供亦同. 翼日又鞫洪纘海, 洪啓能. 纘海供曰: “昨年八月在黑山島時, 臣之婢夫卜龍持衣服書札而來, 其中有相吉者, 詳報三塗作逆之謀, 臣果一一往復, 臣當結案, 然結案甚重, 臣當從頭至尾, 逐句口呼也.”

5) 『승정원일기』(권 1406) 1777년(정조 1) 9월 8일.

○ 李亨達, 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續海, 既已承服正刑, 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妹, 子之妻妾, 伯叔父兄弟之子, 年歲·姓名·存沒·居住, 令漢城府考出帳籍, 亦爲分付五部及各該道, 應坐諸人, 一一查出, 成冊牒報後, 依律舉行, 而籍沒家產, 破家瀦澤, 罷守令·降邑號等事, 令各該司奉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117. 이회수(李會遂)

- 신분: 관리(집의)
- 유배 연월: 1777년(정조 1) 8월 18일.
- 사망(표류) 연월: 1791년(정조 15) 2월 7일.
- 사유: 연좌(역모 이택수〈李澤遂〉 아우)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2) 1776년(정조 즉위) 11월 20일.

○ 司憲府【掌令李枰, 尹在醇.】啓言: “… 又啓言: “李澤遂, 會遂, 以麟之甥姪, 與續海爲妹壻, 仰麟賊有若父母, 以續海結爲死友, 締結逆孽, 興訛造妖, 請施屏裔之典.” 命削黜.

2)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8월 11일.

○ 諸賊伏誅. 自前月尊賢閣賊變之後, 屢飭譏訶, 久未斯得. 是夜景秋門守舖軍金春得, 金世徵等, 相與枕藉而臥, 有人低聲呼舖軍者再三, 世徵欲應. 春得時年十七, 亟止之曰: “呼聲可異, 姑勿應, 第觀動靜.” 有頃有人直向景秋門之北垣, 將欲潛越, 春得等蹴起隣舖軍金春三, 李福才二人, 相與追捕, 由兵曹送之捕廳, 捕廳詰其情節, 則院洞任掌田有起改名興文者也. 蓋興文與姜龍輝潛入尊賢閣雷上, 謀欲稱亂而未果, 今又再舉, 竟爲舖軍所捕也. 捕廳以聞, 初命庭鞫. 是日御肅章門, 賞金春得等有差, 親鞫興文, 興文供曰: “述海之子相範, 陰養死士, 謀欲爲逆, 扈衛軍官姜龍輝曉勇如飛, 相範與之隔隣, 深相結納, 啗之以好爵, 使爲其所欲爲. 而以臣有膂力, 貧窮不自資, 龍輝與臣千五百文之錢, 許以女奴妻之, 要與同事, 故臣果諾之, 常與龍輝至相範所居洪大燮之家, 則有洪同知者, 與相範爲九寸親, 參聞密謀, 亦有金興福者在焉. 臣留宿二日, 聽其密謀, 則相範問龍輝曰: ‘與汝同心者幾人?’ 龍輝曰: ‘可得二十人.’ 相範卽列其姓名, 藏之笥中, 指期潛入, 約龍輝手鐵鞭, 臣手利劍, 入闕逢人輒殺, 相範率二十人躡其後, 觀變應接, 要束已定. 七月二十八日, 至闕外屠狗家, 龍輝與臣, 買吃狗醬, 同入闕中, 招繼昌之爲別監者, 月惠之爲內人者, 附耳語良久. 日且暮, 由藥房相對之問安所, 龍輝以肩升臣, 臣又以手扳引龍輝, 則龍輝

掬沙擲裾，同登屋上，至于尊賢閣中霑，撒瓦拋沙，作魍魎狀，以眩人視聽，將售不道。忽聞闕中鼎沸，搜索甚急，故臣與龍輝跳下屋簷，臣伏漏局後之草莽中，天明由興元門走，龍輝向禁川橋，決水門桶逸去。翌日相會於屠狗家，見其一足，跌水尚濕，相範與金姓人亦自水門桶躡後，見事機已誤，旋即逸歸。龍輝復語臣曰：‘復當再會相範家，慎勿沮。’及聞大駕還御，謀欲再舉，竟爲舖軍所捕也。”… 諸臣至金吾，跪禱于庭曰：“汝爲逆徒所推戴，萬無一生，而上雖不忍置汝于死，汝若有臣節，寧可一日活也？”禱拒不從，大臣復求對言：“卽此已無臣節矣。請賜死。”上猶難之，大臣請令承旨，以使之自盡事，榻前定奪書出，上涕泣而頷之，乃賜禱死。孝任，甘丁，以窮凶極惡，萬副猶輕，大逆不道正法，趾海，述海，續海，興文，龍輝，相範，相吉，相格，興祚，世福以大逆不道正法，貞伊以謀逆同參正法。澤遂初以謀逆同參結案，上曰：“汝母卽慈宮至親。予不忍以謀逆連坐論。”乃以知情不告正法，興福·信德以知情不告正法，海根，繼昌，啓能，國來承款徑斃，履海·信海亦徑斃，弼海以知情不告結案後，濟州牧圍籬安置。趙鹹，禱之妻父，李受采，禱之師徑斃。李克觀，克泰，克己以孝任至親就鞠，克觀，克泰絕島爲奴，克己島配。趙貞喆，南興老，大變，奇同減死絕島安置，趙元喆，任宗周，具翼遠 永丹邊遠定配，**李會遂減死島配**。李潤成，趙岬，禱妻族絕島定配。李觀源，啓能女婿，洪卓然，洪秉憲，趾海近族，遠地定配。今喜，秀愛以有異造謀，減死定配，福永以累朝宮人，邊遠定配。申光緝因龍輝招逮捕，放逐本鄉。趙濟泰，李彥衡就鞠特放。干連諸囚，並酌決。是歲逆變，載籍所無，而上或恐獄情之濫，一從惟輕之典，至九月十一日，鞠事始撤。

3) 『승정원일기』(책 1404) 1777년(정조 1) 8월 18일.

○ 上曰, **罪人李會遂**, 上之. 上曰, 大臣進前. 尙喆·存謙·命善進伏. 上曰, 鄭得夢別無可問之端耶? 尙喆曰, 然矣. 上曰, 今則逆魁, 幾盡鋤治, 而獄中逮囚者, 不過其孤雛也, 可以酌處者, 今欲酌處, 大臣之意, 何如? 尙喆等曰, 今日罪人, 當下府, 而獄囚彌滿, 亦甚可悶矣. 上曰, 聞李觀源, 卽故判書李益輔之子, 而渠以喬木之裔, 渠若罪死, 則渠家無主祀之人云, 誠極惻然. 且會遂, 旣欲傳之生道, 勿爲加刑, 解縛以置. 仍命書傳教曰, **罪人李會遂, 以逆澤之弟, 賊能之門徒,** 凡厥凶謀, 宜無不知之理, 而與同參啓能謀議之時, 或有間焉. 且欲使此之輩, 並皆窮斃, 則失藪之鬼, 其麗不億, 眞所謂誅之, 則不可勝誅也, 姑從罔治之義, **減死絕島定配.**

○ 李亨達, 以義禁府言啓曰, 罪人會遂減死島配, 罪人李觀源遠地定配, 罪人申光復參酌定配事, 命下矣. 會遂全羅道濟州牧旌義縣減死島配, 李觀源慶尙道三嘉縣定配, 申光復忠清道海美縣定配,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4) 『정조실록』(권 12) 1781년(정조 5) 10월 9일.

○ 諭濟州御史朴天衡, 教曰: “觀此狀啓, 別無更覈之事, 許久留滯, 徒貽民邑之弊. 罪人翼雲, 貞喆, 會遂, 後樂, 衡之, 致讓, 範中, 秉成及丹惠慘等, 依前配所, 嚴飭保授. 所謂劉世輝, 居在廣州云, 分付捕廳發捕. 其餘諸囚, 竝參酌決折, 待竣事, 卽爲復路.”

5) 『승정원일기』(책 1495) 1781년(정조 5) 10월 9일.

○ 辛丑十月初九日申時, 上御誠正閣.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李在學, 假注書趙衍德, 編修官張顯慶, 記事官金鳳顯, 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教曰, 觀此狀啓, 別無更覈之事, 若以狀啓之未及回下, 不卽還程, 則許久留滯, 徒貽民邑之弊, 罪人翼雲·貞喆·會遂·後樂·衡之·致讓·範中·秉成及丹惠慘等, 依前配所, 嚴飭保授, 所謂劉世輝稱名漢, 居在廣州地云, 分付捕廳, 已令發捕矣, 其他干連諸囚, 竝參量決折, 待峻[竣]事卽爲復路之意, 回諭于濟州御史處. 又命書傳教曰, 諸囚滯獄, 民邑之弊, 不可不念, 從當分等酌處, 而其中金愛·李奎景, 朝筵旣從大臣之請, 根因脈絡, 有難平問取服, 嚴刑得情, 斯速馳聞, 大臣舉條, 臚出一通, 與此有旨, 同爲下送于審覈使處, 向欲下教而未果, 參覈官太多, 徒貽廚傳之弊, 量宜差定, 餘皆罷送事, 一體回諭. 又命書領議政筭批訖. 命退, 承史以次退出.

6) 『정조실록』(권 32) 1791년(정조 15) 2월 7일.

○ 濟州牧使李鴻運, 啓聞移配罪人李會遂, 僧信圭等遇風漂去狀.

118. 조정철(趙貞喆)

- 신분: 관리(가주서)
- 유배 연월: 1777년(정조 1) 9월 11일(제주목)/ 1782년(정조 6) 1월 14일(정의현).
- 이배 연월: 1790년(정조 14) 9월 17일(추자도)/ 1803년(순조 3) 2월 20일(나주목).
- 해배 연월: 1805년(순조 5) 7월 27일.
- 사유: 정치(역모〈정조 시해 미수〉 연루, 홍지해〈洪趾海〉 사위, 홍상간〈洪相簡〉 매제)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8월 11일.

○ 趙貞喆, 南興老, 大變, 奇同減死絕島安置.

2) 『승정원일기』(권 1406) 1777년(정조 1) 9월 11일.

○ 鄭民始, 以義禁府言啓曰, 鞫廳罪人奇同絕島減死安置, 永丹極邊定配, 貞喆絕島減死安置, 元喆邊遠定配事, 命下矣. 罪人奇同全羅道康津縣加里浦鎮減死安置, 罪人永丹平安道朔州府極邊定配, 罪人貞喆濟州牧減死安置, 罪人元喆慶尙道機張縣邊遠定配, 而以備忘記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일성록』 1777년(정조 1) 9월 11일.

○ 義禁府啓言. 鞫廳罪人奇同 加里浦鎮. 貞喆 濟州牧並減死安置. 永丹 朔州府極邊. 元喆 機張縣邊遠定配. 允之. 又以大變移配旌義縣安置. 啓.

4) 『정조실록』(권 13) 1782년(정조 6) 1월 14일.

○ 判義禁洪樂性啓言: “濟州御史別單中, 州城距船所未滿十里, 如趙貞喆, 沈翼雲之逆孽, 締結陸商, 交通京信. 宜移配貞喆於旌義縣, 翼雲於大靜縣.” 從之.

5) 『승정원일기』(권 1501) 1782년(정조 6) 1월 14일.

○ 樂性曰, 濟州御史朴天衡別單中, 以濟州城內, 去船所未滿十里, 且是許多陸商之所都

會處也.書信之往來,物貨之交通,職由於此.如貞喆·翼雲等罪人,此皆攀緣京洛之類,不可置之於濟州.以臣愚見,貞喆·翼雲,分配於大靜·旌義等縣,似爲得宜,令該府稟處爲請矣.本州之爲許多商賈都會處,誠如御史所陳,則逆攀之如貞喆·翼雲輩,締結陸商,交通京信,必有其弊.罪人貞喆,移配旌義縣,罪人翼雲,移配大靜縣,嚴飭各其配所官,另加檢束,以爲各別防守之地,何如?上曰,依爲之.

6) 『일성록』 1782년(정조 6) 1월 14일.

○ 知事 洪樂性啓言.濟州御史 朴天衡別單中.濟州城內.去船所未滿十里.書信之往來.物貨之交通.職由於此.貞喆 雲翼等罪人.攀緣京洛之類.不可置之於濟州.貞喆 雲翼分配於大靜 旌義等縣.令該府稟處爲請矣.交通京信.必有其弊.罪人貞喆移配旌義.雲翼移配大靜.請各別防守.從之.

7) 『승정원일기』(권 1501) 1782년(정조 6) 1월 1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減死安置罪人貞喆,移配旌義縣定配,定配罪人翼雲,移配大靜縣事,摺條啓下矣.罪人貞喆·翼雲等,仍前罪目,依例發遣府羅將,自濟州牧執捉,押送于各其配所,何如? 傳曰,島中移配,不必自京發差,令該牧使別定將校,押送各其配所,可也.

8) 『일성록』 1782년(정조 6) 1월 15일.

○ 義禁府.以罪人貞喆 翼雲移配啓.教以.島中移配.不必自京發差.令該牧使別定羅將.押送各其配所也.

9) 『일성록』 1790년(정조 14) 9월 17일.

○ 狀啓 以爲臣敬奉教書,頒布三邑,雜犯輕囚,卽令疏放,至於定配罪人,俱是罪犯深重,竝置仍秩,孥籍逆賊緣坐罪人,及爲奴婢罪人等,依例竝不舉論.未放秩禁府所管罪人,旌義縣 會遂,貞喆,大靜縣 煥億,刑曹所管罪人,大靜縣 範中 未喜 信圭,濟州牧 穆金 復丈 林鶴來 金亮基.教曰 旌義縣 減死絕島定配罪人會遂,減死安置罪人貞喆,移配湖南他島,大靜縣 不限年定配罪人 信圭,移配道內稍近島事,分付道臣.

10) 『순조실록』(권 5) 1803년(순조 3) 2월 6일.

○ 大王大妃判下諸道竄配罪人放，未放成冊. 【秋子島安置貞喆出陸，…】 仍教曰：“昨年邦慶，卽國朝所未有，往牒所未聞，其在廣慶之道，當靡不用極. 今此疏放之舉，誠出於導揚和氣，祈天永命之意，大小廷臣，須體此意，更勿煩聒.”

11) 『승정원일기』(권 1863) 1803년(순조 3) 2월 6일.

○ 大王大妃殿，傳于李肇源曰，秋子島安置罪人貞喆出陸. 光陽縣竄配罪人李濟萬，熙川郡竄配罪人權裕，明川府竄配罪人金翰東，英陽縣定配罪人洪卓然，穩城府定配罪人順海，竝量移. 南海縣安置罪人趙時俊，鹿島島配罪人宋文輅，郭山郡竄配罪人鄭尙愚，泗川縣定配罪人朴聖泰，鍾城府定配罪人朴齊家，竝放逐鄉里. 金甲島島配罪人度謙，金甲島島配罪人李謹，巨濟府島配罪人宋文述，熊川縣屏裔罪人李允行，朔州府屏裔罪人李羽晉，渭原郡屏裔罪人李仁行，昌城府屏裔罪人趙恒鎮，茂山府屏裔罪人李儒修，三水府屏裔罪人李鎮宅，丹城縣流三千里罪人任長源，泗川縣流三千里罪人李益恢，渭原郡竄配罪人鄭允僑，楚山府竄配罪人白成一，茂山府竄配罪人皮載吉，樂安郡竄配罪人趙圭鎮，竝放.

12) 『일성록』 1803년(순조 3) 2월 6일.

○ 大王大妃殿教曰，昨年邦慶，卽國朝所未有，往牒所未聞，其在廣慶之道，當靡不用極. 今此疏放之舉，誠出於導揚和氣祈天永命之意，然公議不可不從，故日前筵中詢問於諸臣者此也. 今於時原任大臣及諸臣所奏中，不得不勉從者勉從，其外罪犯輕歇之類，不可不分等書下，如此則隄防之嚴曠蕩之典，兩不相妨恩法并行. 大小廷臣，須體諒此意，更勿煩聒. 又教曰 秋子島 安置罪人 貞喆出陸 ….

13) 『승정원일기』(권 1863) 1803년(순조 3) 2월 20일.

○ 閱耆顯，以義禁府言啓曰，金甲島島配罪人度謙，南海縣安置罪人趙時俊，渭原郡屏裔罪人李仁行，量移，秋子島減死安置罪人貞喆，出陸. 茂山府屏裔罪人李儒修，三水府屏裔罪人李鎮宅，樂安郡竄配罪人趙圭鎮，竝放事，承傳啓下矣. 度謙求禮縣量移，趙時俊金山郡量移，李仁行黃海道長淵縣量移，貞喆羅州牧出陸. 而前罪目添書，今番承傳，依例發遣府都事及羅將，自各其配所執捉，仍令押付于新定配所，李儒修·李鎮宅·趙圭鎮竝即放送

事, 分付各該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4) 『승정원일기』(권 1891) 1805년(순조 5) 3월 28일.

○ 趙德潤, 以義禁府言啓曰, 穩城府竄配罪人蔡弘遠, 求禮縣量移罪人度謙放送, 羅州牧量移罪人貞喆量移事, 命下矣. 蔡弘遠·度謙, 竝放送事, 分付各該道臣, 貞喆, 黃海道兔山縣量移.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自羅州牧執捉, 押送于新定配所, 何如? 傳曰, 允.

15) 『승정원일기』(권 1897) 1805년(순조 5) 7월 27일.

○ 尹羽烈, 以義禁府言啓曰, 諸道放未放回啓判付內, 海美李馨秀, 長連崔笠, 兔山趙貞喆, 淮陽李殷錫, 昌城李冕膺, 北青金廷臣, 昌原閔昌燦, 丹城金峻岳, 加德金健瑞, 機張沈魯崇, 金山趙時俊, 鎭海趙鎭井, 金海玄重祚, 興陽李景烈, 金甲島履翼, 興陽申耆, 古今島履載·李東萬, 興陽鄭彥仁, 呂島李晚遠放送事, 命下矣. 李馨秀·崔笠·趙貞喆·李殷錫·李冕膺·金廷臣·閔昌燦·金峻岳·金健瑞·趙時俊·李景烈·李晚遠等, 竝放送事, 分付各該道臣, 玄重祚·鄭彥仁, 罪犯深重, 今方別爲疏籲, 而沈魯崇·趙鎭井·履翼·申耆·履載·李東萬等, 俱在臺啓, 不得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16) 『승정원일기』(권 1969) 1809년(순조 9) 7월 11일.

○ 尹益烈, 以吏批言啓曰, … 趙貞喆爲穆陵別檢.

17) 『승정원일기』(권 1969) 1809년(순조 9) 7월 23일.

○ 金宗善, 以吏曹言啓曰, 新除授穆陵別檢趙貞喆呈狀內, 矣身病勢猝劇, 時日之內, 萬無供職之望云. 身病既如是, 則不可強令察任, 改差, 何如? 傳曰, 允.

18) 『승정원일기』(권 1971) 1809년(순조 9) 9월 10일.

○ 載瓚曰, 前別檢趙貞喆, 登科已過三十年云, 依榜後十年陞六之例, 令該曹, 陞六, 何如? 上曰, 依爲之.

19) 『승정원일기』(권 1976) 1809년(순조 9) 12월 30일.

○ 有政. 吏批, … 趙貞喆·李潞爲正言.

20) 『승정원일기』(권 2000) 1811년(순조 11) 5월 6일.

○ 備邊司薦望, 以趙貞喆爲濟州牧使.

21) 『승정원일기』(권 2014) 1812년(순조 12) 4월 15일.

○ 洪秀晚,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趙貞喆身病添劇, 呈狀乞遞, 聞其病情, 果難強令行公, 改差, 何如? 傳曰, 允.

119. 선옥(善玉)

- 신분: 가족(연좌)/ 여(女)
- 유배 연월: 1777년(정조 1) 10월 1일.
- 이배 연월: 1781년(정조 5) 10월 26일.
- 사유: 연좌(역적 윤태연<尹泰淵> 첩)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408) 1777년(정조 1) 10월 1일.

○ 高裕, 以刑曹言啓曰, 因臺疏, 罪人泰淵應坐諸人, 絶島散配事, 命下矣. 移文京兆, 考出帳籍, 知委該部, 使之修成成冊以來, 而罪人泰淵子範口全羅道濟州牧大靜縣, 定配所押送事, 草記蒙允後, 已爲發配, 仍前配所押送, 妻喜全羅道濟州牧, 妾善玉旌義縣, 子婦弼禮靈巖郡楸子島, 竝定配所, 卽爲押送, 孫女丹喜今年二歲, 以年未滿, 依律文免坐之意, 敢啓.傳曰, 知道.

2) 『승정원일기』(권 1496) 1781년(정조 5) 10월 26일.

○ 李在學, 以刑曹言啓曰, 因本曹別單, 濟州三邑定配罪人中, 石奉·金德麟奴一才, 寺奴世命·士善·碩童, 奴丁男·卜男·善玉, 奴十月金·孫景完等, 竝令該曹, 移定配所後草記事, 命下矣. 依傳教, 濟州牧定配罪人石奉全羅道康津縣古今島, 金德麟羅州牧智島, 爲奴罪人奴一才興陽縣蛇島, 大靜縣定配罪人碩童羅州牧黑山島, 爲奴罪人寺奴世明慶尙道巨濟府, 奴士善南海縣, 奴丁男全羅道興陽縣鹿島, 奴卜男靈岩郡楸子島, 旌義縣定配罪人善玉羅州牧黑山島, 奴十月金康津縣薪智島, 孫景完珍島郡金甲島, 竝移定配所, 卽爲押送事, 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傳曰, 知道.

120. 증매(曾每)

- 신분: 가족(연좌)/ 여(女)
- 유배 연월: 1778년(정조 2) 6월 1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정조 즉위 반대 홍상격〈洪相格〉 처)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404) 1777년(정조 1) 8월 2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北部成冊, 則大逆不道罪人相格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妻曾每, 平安道陽德縣爲婢, 子曾丕伊年三, 以年未滿, 依律免絞, 慶尙道南海縣爲奴, 女曾順, 機張縣爲婢, 而右罪人等, 在於全州地云, 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曾丕伊, 黑山島爲奴.

2) 『승정원일기』(권 1421) 1778년(정조 2) 6월 1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平安監司洪樂純狀啓內, 逆格妻曾每, 在於陽德縣, 逆格奴汝加里, 在於德川郡, 逆禰海妻福兆, 在於孟山縣, 逆禰海子今年生, 在於寧遠郡. 今此四邑, 地界相接, 或爲半日程, 或爲一日程, 互相往來, 密通情意, 綢繆釀禍之端, 難保其必無. 逆能孫快樂, 在於朔州府, 逆能孫今年生, 在於碧潼郡, 逆能奴世福, 在於昌城府, 逆能奴齡福, 在於渭原郡, 逆能奴老味, 在於楚山府. 此等逆孽, 列置於沿江咫尺之地, 迭相往來, 亦不無做出變怪之慮. 其在慮遠之道, 不可因循置之, 曾每等九名, 卽爲散配於海島絕域事啓下矣. 陽德縣爲婢罪人格妻曾每, 全羅道濟州牧旌義縣移配. 孟山縣爲婢罪人逆禰海妻福兆, 濟州牧大靜縣移配. 竝爲婢. 寧遠郡爲奴罪人逆禰海子今年生, 靈巖郡楸子島移配爲奴. 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 而逆格奴汝加里, 逆能孫快樂今年生, 逆能奴世福·齡福·老味等, 俱非本府所管罪人, 竝令刑曹, 稟處,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1421) 1778년(정조 2) 6월 12일.

○ 李鎭衡,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平安道陽德縣爲坐爲婢罪人, 逆格妻曾每. 全羅

道濟州牧旌義縣移配, 孟山縣爲婢罪人, 逆續海妻福兆. 大靜縣移配, 寧遠郡爲奴罪人逆續海子今年生, 靈巖郡楸子島移配. 咸鏡道鏡城府爲奴罪人逆載翰弟載天, 三水府移配. 穩城府爲奴罪人載田, 旌義縣移配, 茂山府爲奴罪人載翰, 庶弟載則, 羅州牧黑山島移配. 慶源府爲奴罪人載旭, 靈巖郡楸子島移配, 竝爲奴婢, 令刑曹押送配所. 德川郡爲奴罪人逆格奴汝加里, 朔州府定配罪人逆能孫快樂, 碧潼郡定配罪人今年生, 昌城府爲奴罪人逆能奴世福, 渭源郡爲奴罪人逆能奴齡福, 楚山府爲奴罪人逆能奴老味, 令刑曹稟處事命下矣. 依傳教, 緣坐移配罪人曾每·福兆·今年生·載天·載田·載則·載旭等七名, 令兩道道臣, 卽爲移配. 奴汝加里, 全羅道靈光郡荏子島移配爲奴, 快樂珍島郡, 今年生羅州智島移配, 奴世福康津縣古今島, 奴齡卜扶安縣蠟島, 奴老味珍島郡南桃浦移配爲奴, 亦令該道道臣發送, 而上項罪人等, 勿爲一時竝送, 使得同行, 次次押送. 計其前者到配, 然後始送其次事, 發關分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121. 조재전(趙載田)

- 신분: 관리(은진 현감)
- 유배 연월: 1778년(정조 2) 6월 1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무상부도죄인 조재한〈趙載翰〉 아우)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379) 1776년(정조 즉위) 4월 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則正法罪人載翰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庶子惠鎮年十, 庶子任通年五, 庶子繼龍年三, 俱以年未滿免絞, 惠鎮, 咸鏡道富寧府爲奴, 任通, 全羅道海南縣爲奴, 繼龍, 珍島郡爲奴, 兄載得, 咸鏡道慶興府爲奴, 弟載田, 穩城府爲奴, 弟載天, 鍾城府爲奴, 庶弟載則, 茂山府爲奴, 庶弟載旭, 慶源府爲奴, 妻丹惠, 全羅道濟州牧爲婢, 妾明喜, 咸鏡道會寧府爲婢, 妾新暹, 全羅道珍島郡爲婢, 女德順, 濟州牧爲婢, 庶女何寬, 咸鏡道鏡城府爲婢, 子婦順愛, 全羅道康津縣爲婢, 姪潞鎮, 海南縣安置, 姪溫鎮, 靈巖郡安置, 姪衍鎮, 慶尙道熊川縣安置, 姪平鎮, 機張縣安置, 姪尙特, 長鬐縣安置, 孫三熙, 全羅道康津縣爲奴,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1421) 1778년(정조 2) 6월 1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凶逆緣坐之在六鎮者, 移配絕島事, 舉條啓下矣. 誣上不道罪人載翰, 弟咸鏡道鍾城府爲奴罪人載天, 全羅道濟州牧大靜縣移配. 穩城府爲奴罪人載田, 濟州牧旌義縣移配. 庶弟茂山府爲奴罪人載則, 羅州牧黑山島移配. 慶源府爲奴罪人載旭, 靈巖郡楸子島移配. 竝爲奴而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載天移配三水.

3) 『승정원일기』(권 1421) 1778년(정조 2) 6월 12일.

○ 李鎮衡,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平安道陽德縣爲坐爲婢罪人, 逆格妻曾每. 全羅道濟州牧旌義縣移配, 孟山縣爲婢罪人, 逆續海妻福兆. 大靜縣移配, 寧遠郡爲奴罪人逆續

海子今年生，靈巖郡楸子島移配。咸鏡道鏡城府爲奴罪人逆載翰弟載天，三水府移配。穩城府爲奴罪人載田，旌義縣移配，茂山府爲奴罪人載翰，庶弟載則，羅州牧黑山島移配。慶源府爲奴罪人載旭，靈巖郡楸子島移配，竝爲奴婢，令刑曹押送配所。德川郡爲奴罪人逆格奴汝加里，朔州府定配罪人逆能孫快樂，碧潼郡定配罪人今年生，昌城府爲奴罪人逆能奴世福，渭源郡爲奴罪人逆能奴齡福，楚山府爲奴罪人逆能奴老味，令刑曹稟處事命下矣。依傳教，緣坐移配罪人曾每·福兆·今年生·載天·載田·載則·載旭等七名，令兩道道臣，卽爲移配。奴汝加里，全羅道靈光郡荏子島移配爲奴，快樂珍島郡，今年生羅州智島移配，奴世福康津縣古今島，奴齡卜扶安縣蝟島，奴老味珍島郡南桃浦移配爲奴，亦令該道道臣發送，而上項罪人等，勿爲一時竝送，使得同行，次次押送。計其前者到配，然後始送其次事，發關分付之意，敢啓。傳曰，知道。

122. 홍병성(洪秉成)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8년(정조 2) 8월 5일/ 1781년(정조 5) 10월 9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모 홍양해(洪量海)의 아들)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6) 1778년(정조 2) 7월 18일.

○ 韓後翼, 洪量海, 沈鏐伏誅. 公忠道觀察使徐有隣密啓, 言徐命完告變事情. 初以直閣鄭志儉爲按覈御史, 與道臣眼同究覈. 志儉以情跡之狼藉馳啓, 命逮捕諸罪人. 上御肅章門親鞫, … 鏐結案: “臣以後翼之妹夫, 量海之親查, 同一腸肚, 素蓄怨國不道之心. 後翼, 量海, 同會臣家, 後翼疏中四字凶言, 相議搆出, 以爲詆罵, 天日之計. 與後翼, 量海潛圖不軌, 欲爲募人稱兵之舉. 而軍兵猝難嘯聚, 則出於下策, 求得刺客, 挾匕作變. 卽臣等爛漫謀議者, 大逆不道. 是實.”

後翼, 量海, 鏐并正法. 干連諸罪人, 分輕重酌配.

2) 『승정원일기』(책 1426) 1778년(정조 2) 8월 5일.

○ 李義翊,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洪忠監司徐有隣牒報及洪州前牧使柳燾成冊, 則窮凶極惡大逆不道罪人量海諸人, 查出以來矣. 子秉成, 出繼於其十一寸章海云. 依律免絞, 全羅道濟州牧旌義縣爲奴. 庶子敬達年九, 庶子謹達年一, 俱以年未滿, 依律免絞. 敬達珍島郡金甲島爲奴. 謹達海南縣爲奴. 庶女達妹, 興陽縣鹿島爲婢. 妾孝吉, 靈巖郡荏子島爲婢. 子婦栗臻, 咸鏡道富寧府爲婢. 子婦任德, 吉州牧爲婢. 姪子秉義, 全羅道興陽縣呂島流三千里安置. 姪子秉禮, 慶尙道巨濟府流三千里安置. 姪子寅德, 南海縣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捉囚於洪州牧云. 竝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秉義·寅德, 大靜·旌義, 散配, 嚴飭押送. 亦令本牧使, 各別防戢, 罪人範聖, 亦以濟州先散配後草記.

3) 『정조실록』(권 12) 1781년(정조 5) 10월 9일.

○ 諭濟州御史朴天衡, 教曰: “觀此狀啓, 別無更覈之事, 許久留滯, 徒貽民邑之弊. 罪人翼雲, 貞喆, 會遂, 後樂, 衡之, 致讓, 範中, 秉成及丹惠慘等, 依前配所, 嚴飭保授. 所謂劉世輝, 居在廣州云, 分付捕廳發捕. 其餘諸囚, 竝參酌決折, 待竣事, 卽爲復路.”

123. 홍주익(洪柱翼)

- 신분: 관리(정언)
- 유배 연월: 1780년(정조 4) 11월 22일.
- 이배 연월: 1784년(정조 8) 8월 3일.
- 사유: 역모 연루(홍계능<洪啟能>, 홍술해<洪述海>, 홍상간<洪相簡> 친인척)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0) 1780년(정조 4) 11월 22일.

○ 安置洪柱翼于旌義縣, 臺啓始停. 減死圍籬安置.

2) 『승정원일기』(권 1475) 1780년(정조 4) 11월 23일.

○ 金字鎮, 以義禁府言啓曰, 洪柱翼事, 旣已停啓, 依初下教, 今日內發配後草記事, 命下矣. 罪人柱翼, 全羅道濟州牧旌義縣, 減死絕島圍籬安置, 而以當初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 與地方官, 眼同圍籬安置, 何如? 傳曰, 允.

3) 『정조실록』(권 18) 1784년(정조 8) 8월 3일.

○ 仍下赦典. 教曰: “... 旌義 洪柱翼, 靈光 李普行竝出陸.”

4) 『승정원일기』(권 1564) 1784년(정조 8) 8월 3일.

○ 具明謙,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旌義縣圍籬安置罪人柱翼出陸, 咸鏡道茂山府邊遠定配罪人元喆, 放送事, 命下矣. 元喆, 卽爲放送事, 分付該道道臣, 而柱翼, 康津縣出陸, 李萬軾, 端川府量移,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24. 이우득(李偶得)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83년(정조 7) 12월 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대역부도죄인 이택징<李澤徵> 서자)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4) 1782년(정조 6) 8월 2일.

○ 兩司合啓, 【大司憲李埤, 持平李延伋·嚴思憲, 正言李羽晉】 請大逆不道結案後物故罪人澤徵, 結案後物故罪人有白孥籍. 命該府更考伊時受教稟處. 義禁府啓請, 依法典, 澤徵孥籍, 有白籍沒. 允之.

2) 『승정원일기』(책 1546) 1783년(정조 7) 12월 5일.

○ 安聖彬,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澤徵庶子, 偶得年十三, 松得年十, 老得年六歲云, 俱以年未滿.偶得, 全羅道濟州牧旌義縣, 松得, 康津縣薪智島, 老得, 興陽縣蛇島, 竝免絞爲奴. 孫初孫, 順天府, 時孫, 慶尙道昆陽郡, 七孫, 河東府竝爲奴. 妾德只, 平安道昌城府, 子婦民惠, 朔州府, 庶子婦次順, 全羅道光陽縣, 孫女順希, 慶尙道鎭海縣, 不希, 丹陽縣, 連希, 全羅道樂安郡, 可希, 平安道雲山郡, 竝爲婢. 令刑曹押送事, 命下矣. 罪人等, 時囚於原春道原州牧云, 自本道別定將校, 押送於各其配所事, 發關, 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逆屬之散配, 不容泛忽, 無或一時發配, 必須間數日次次押送之意, 知委該道道臣處, 可也.

125. 권지명(權趾命)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804년(순조 4) 9월 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국혼 반대 주장²⁾, 권유(權裕)의 아들)
- 관련 사료

1) 『순조실록』(권 6) 1804년(순조 4) 5월 26일.

○ 推鞠權裕于王府. 【委官左議政李時秀, 右議政金觀柱, 判義禁黃昇源, 知義禁閔台燦, 林蓍喆, 同義禁任希存.】以其辛酉疏, 引用都人尹·姑曲埃徙薪等句語, 卽沮戲大婚之凶計, 而居謫時作詩有曰: “先王赫然義, 壞了一鉤金,” 又曰, ‘安國承前後’ 云者, 指意陰慘爲問. 裕抵賴, 竟不輸款, 刑二次, 徑斃.

2) 『승정원일기』(책 1884) 1804년(순조 4) 9월 8일.

○ 李滄,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裕賊子趾命全羅道濟州牧旌義縣, 趾性羅州牧黑山島, 趾中靈岩郡楸子島, 侄趾寬慶尙道南海縣, 趾碩全羅道興陽縣蛇島鎮, 竝安置, 而右罪人等方在捕廳·鳳山獄及舒川地云, 依例令刑曹押送事, 命下矣. 罪人趾性·趾中方囚捕廳, 自臣曹卽爲押送于各其配所, 趾命方囚鳳山獄, 趾寬·趾碩時在舒川地云. 卽令各該道臣, 押送各其配所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2) 권유(權裕)는 김조순(金祖淳)의 딸 순원왕후(純元王后)와 순조와의 국혼을 반대하는 소를 올려 삼간택(三揀擇)을 방해하였다 하여 순원왕후의 가례가 끝난 뒤, 1804년 6월 가족, 제자들과 함께 추국(推鞠)을 당하였다.

126. 김필주(金弼柱)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806년(순조 6) 5월 2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노론 벽파 김한록〈金漢祿〉 서자)
- 관련 사료

1) 『순조실록』(권 9) 1806년(순조 6) 5월 20일.

○ 金吾啓言: “漢祿緣坐罪人庶子弼柱 濟州牧 旌義縣, 寅柱 靈巖郡 楸子島, 姪華柱 興陽縣 鉢浦, 姪勉柱 巨濟府 助羅浦安置.”

2) 『승정원일기』(권 1912) 1806년(순조 6) 5월 20일.

○ 嚴耆, 以義禁府言啓曰, 漢祿事, 依尙魯例舉行事, 承傳啓下, 故其應坐諸人, 令漢城府考出帳籍, 分付五部, 使之查報漢城府及五部, 查牒今已齊到矣. 漢祿庶子弼柱全羅道濟州牧旌義縣, 寅柱靈巖郡楸子島, 姪華柱興湯縣鉢浦安置,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姪勉柱慶尙道巨濟府助羅浦安置, 而秩在正卿者, 都事押付, 雖在法典, 此罪人係是緣坐, 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127. 민달용(閔達鏞)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844년(헌종 10) 4월 28일.
- 해배 연월: 1849년(철종 즉위) 9월 4일.
- 사유: 범죄(과거 부정)
- 관련 사료

1) 『헌종실록』(권 11) 1844년(헌종 10) 4월 13일.

○ 大司諫權漫疏略曰: 臣退自試所, 始聞場內外萬口喧傳, 則有一試券合封坼名之後, 又得同名之兩場封彌, 而已坼之券, 汲汲推去, 俾不得考準云. 若非換名竊科, 必是疊呈兩券, 試官中或有目見者, 或有耳聞者, 視若尋常, 掩置不論, 豈料莫嚴之東堂, 有此前所未聞之事乎? 臣亦監試中一人, 臣謂諸試官, 并施譴削之典, 其入格之券, 與兩封彌, 亟命查實後, 果有是事, 則學子之削科與當律施行, 斷不可已. 臣既不善糾察, 有此溺職, 伏乞勘臣當律焉. 批曰: “此事關係何如? 而乃以風傳, 遽加論斷乎? 爾言太妄率矣.” 上試官左參贊趙秉鉉, 繼疏自劾, 命罷其職, 入格人閔達鏞, 爲先削科拿覈.

2) 『헌종실록』(권 11) 1844년(헌종 10) 4월 28일.

○ 敎曰: “此囚罪犯, 萬殺猶輕. 人之無良, 胡至此極? 既有捕查秋供之取服, 則不待渠招, 斷案已定. 一律施行, 更無可論, 但《禮典》曰, ‘潛擦他人已入格之祕封, 換書已名, 以竊科者, 以一律論’, 此則非已入格也, 乃未及考也, 究其換名之情, 則較尤甚焉. 考諸所載之律, 則懸有不同, 而肅廟己卯科獄, 雖證左分明, 以其初無定律, 竟施傳生之典, 則今此未及考換名之無定律, 亦與已入格換名之無定律, 或可旁照者矣. 然則仰遵故事, 特貸一縷, 卽所以體肅廟好生之盛德也. 換祕封罪人閔達鏞, 加刑一次, 濟州牧 旌義縣減死爲奴, 此後則雖未及考祕封, 若有換名竊科者, 與已入格換名竊科同論, 載之受教.”

3) 『승정원일기』(권 2426) 1844년(헌종 10) 4월 13일.

○ 左參贊趙秉鉉疏曰, 伏以臣卽伏見諫長疏批下者, 滿心惶慄, 無地自容, 念臣既忝主試

矣. 凡係試事, 臣所當知, 而臣於伊日出榜詣闕之際, 取見預備試券, 其中果有前參奉閔達鏞之兩場封彌, 達鏞之券, 既合封而坼名, 則又此兩封彌之榜後露出, 大是驚惑, 當場核實, 卽係臣職分, 而券之已坼者, 旋即推去, 榜之已出者, 亦爲登徹, 趑趄難慎, 未及周旋, 致此臺言之峻發, 律以邦憲. 臣實爲首, 茲敢短章自劾, 仰干崇嚴. 惟願下臣司敗, 擬臣重勘, 至若科律所關, 臣既失之於當場, 不敢有所仰請. 伏乞亟允諫臣之請, 俾頽綱振試體嚴焉. 臣無任云云. 答曰, 省疏具悉. 卿言如此, 何待更查, 而所關非輕, 不宜造次, 疏辭, 令廟堂稟處, 卿於當場措處, 不可謂全無所失, 卿則罷職.

4) 『승정원일기』(권 2426) 1844년(헌종 10) 4월 28일.

○ 義禁府啓目, 向前罪人閔達鏞亦, 以判付內辭意, 發問目嚴刑是白遣, 取考捕廳文案, 參以諸招, 反覆究覈是白乎則, 換封一款, 終始抵賴, 究厥情狀, 尤極狡惡, 更加嚴刑, 期於得情, 何如? 判付啓. 此囚罪犯, 萬殺猶輕, 人之無良, 胡至此極? 既有捕查秋供之取服, 則不待渠招, 斷案已定, 一律施行, 更無可論. 但禮典曰, 潛察他人已入格之祕封, 換書己名以竊科者, 以一律論, 此則非已入格也, 乃未及考也. 究其換名之情, 則較尤甚焉. 考諸所載之律, 則煞有不同, 而肅廟己卯科獄, 雖證左分明, 以其初無定律, 竟施傳生之典, 則今此未及考換名之無定律, 亦與已入格換名之無定律, 或可有旁照者矣. 然則仰遵故事, 特貸一縷, 卽所以體肅廟好生之盛德也. 換祕封罪人閔達鏞, 加刑一次, 濟州牧旌義縣, 減死爲奴. 此後則雖未及考祕封, 若有換名竊科者, 與已入格換名竊科同論, 載之受教爲良如教. 又啓目, 向前罪人魏鍾善亦, 以判付內辭意, 發問目施威嚴問是白乎則, 一向以不知不察, 極口發明, 終不直招,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此何等嚴重, 而諸罪人作奸, 若是狼藉乎? 藉曰不知, 不知亦罪, 罪人魏鍾善, 遠地定配爲良如教.

5) 『승정원일기』(권 2426) 1844년(헌종 10) 4월 2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閔達鏞更推公事判府內, 換祕封罪人閔達鏞, 加刑一次, 濟州牧旌義縣, 減死爲奴事, 命下矣. 閔達鏞加刑一次·訊杖三十度後, 全羅道濟州牧旌義縣減死爲奴. 而以判付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6) 『승정원일기』(권 2490) 1849년(철종 즉위) 8월 26일.

○ 以濟州牧放未放成冊, 傳于金基纘曰, 李鍾協·閔達鋪竝放.

7) 『승정원일기』(권 2491) 1849년(철종 즉위) 9월 4일.

○ 金基纘, 以義禁府言啓曰, 以各道放未放成冊平安道朔州府鄭基元, 昌城府洪稷周, 碧潼郡尹永植, 全羅道黑山島徐永淳, 楸子島孟鶴述, 濟州牧李鍾協, 旌義縣閔達鋪等名下, 放字書下, 以本府徒流案咸鏡道會寧府李晉錫名下, 放字書下矣. 臺啓已停, 竝卽放送事, 分付各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28. 이승헌(李承憲)

- 신분: 관리(부사과)
- 유배 연월: 1848년(헌종 14) 11월 22일.
- 해배 연월: 1850년(철종 1) 7월 10일.
- 사유: 근무 소홀(국청 공초 불성실)
- 관련 사료

1) 『헌종실록』(권 15) 1848년(헌종 14) 11월 22일.

○ 敎曰: “李承憲絶悖之言, 網打之計, 卽此已可, 丕蔽至若而鞫而訊, 情節之終不直招, 尤極狡惡. 固當到底窮覈, 明正典憲, 而張大之舉, 不欲拖至多日, 姑從寬大之典, 特貸一縷, 鞫廳罪人李承憲, 旌義縣減死圍籬安置.”

2) 『승정원일기』(권 2479) 1848년(헌종 14) 11월 22일.

○ 傳于趙然昌曰, 李承憲之絶悖之言, 網打之計, 卽此已可丕蔽, 至若而鞫而訊, 情節之終不直招, 尤極狡惡. 固當到底窮覈, 明正典憲, 而張大之舉, 不欲拖至多日, 姑從寬大之典, 特貸一縷, 鞫廳罪人李承憲, 旌義縣減死圍籬安置.

3) 『철종실록』(권 2) 1850년(철종 1) 7월 10일.

○ 放安置罪人李承憲.

4) 『승정원일기』(권 2507) 1850년(철종 1) 7월 10일.

○ 以濟州牧放未放成冊, 傳于朴承輝曰, 李承憲放.

5) 『승정원일기』(권 2507) 1850년(철종 1) 7월 12일.

○ 朴承輝, 以義禁府言啓曰, 今初十日全羅道濟州牧放未放成冊, 旌義縣減死圍籬安置罪人李承憲名下, 放字書下, 而其時臺啓方張, 不得舉行矣. 今則臺啓已停, 李承憲放送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제3장 대정현

1. 김순손(金舜孫)

- 신분: 중관(中官, 내관)
- 유배 연월: 1496년(연산군 2) 5월 13일(대정현), 1497년(연산군 3) 2월 13일(제주목).
- 사망 연월: 1504년(연산군 10) 3월 30일.
- 사유: 간쟁(왕의 부도〈不道〉 제지)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6) 1495년(연산군 1) 6월 29일.

○ 傳曰: “中官金舜孫, 下義禁府, 決杖一百, 外方充軍, 使苦役, 母休息.” 以拒傳旨也.

2) 『연산군일기』(권 14) 1496년(연산군 2) 윤3월 28일.

○ 馳書于濟州點馬別監鄭灝曰: 犯罪內官金舜孫於濟州殘邑, 定軍役. 常時母得完恤, 使之困苦事已諭. 其定役困苦與否, 備細摘奸以啓.

3) 『연산군일기』(권 15) 1496년(연산군 2) 5월 13일.

○ 傳旨義禁府曰: “大靜縣充軍內官金舜孫前日侍衛時, 妄自尊大, 傲慢君上, 罪不可赦. 令濟州牧使遲晚取招, 依法囚禁, 詳覆啓聞.”

4) 『연산군일기』(권 21) 1497년(연산군 3) 2월 13일.

○ 傳曰: “移置金舜孫于濟州, 永爲編民定役.”

5) 『연산군일기』(권 25) 1497년(연산군 3) 7월 1일.

○ 命放濟州定役內官金順孫. 崔有淵.

6) 『연산군일기』(권 52) 1504년(연산군 10) 3월 12일.

○ 傳曰: “內官金舜孫卽全家徙濟州, 母令稽留于途.” 王嘗被酒, 欲烝先朝後宮, 舜孫諫, 王怒欲殺之, 有內救, 外廷亦請聞其罪, 只竄外, 至是徙濟州.

7) 『연산군일기』(권 52) 1504년(연산군 10) 3월 30일.

○ 傳旨議政府曰: “陵上之風革去未殄. 李世佐其在先朝, 當大事不力爭, 至於今日, 年位俱高, 驕縱日恣, 親賜之酒傾注不飲; 金舜孫宦侍之微者, 妄自尊大, 傲慢君上. 二人之罪, 不可不正, 故廣收群議, 世佐則賜死, 舜孫則處斬. 以爲驕傲君上者之戒.”

8) 『연산군일기』(권 52) 1504년(연산군 10) 4월 13일.

○ 義禁府都事申涵斬金舜孫, 持其首, 還置于丹鳳門外, 王令宦者輩出視, 使之知戒後, 藏于內侍府. 有一宦者不及見, 更令取來視之, 又有一宦掩面不見, 命下當直廳罪之.

2. 김양보(金良輔)

- 신분: 관리(홍문관 정자)
- 유배 연월: 1504년(연산군 10) 6월 25일.
- 사망 연월: 1506년(중종 1) 10월 13일.
- 사유: 간쟁(갑자사화)
- 관련 사료

1) 『연산군일기』(권 54) 1504년(연산군 10) 6월 25일.

○ 下御書: 柳軒杖一百, 濟州爲奴. 金良輔杖一百, 巨濟爲奴, 並定苦役, 永不復敘. 內官金淸杖一百, 穩城爲奴, 定苦役. 仍傳曰: “金良輔 濟州三邑中, 極邊爲奴.”

2) 『중종실록』(권 1) 1506년(중종 1) 10월 13일.

○ 受常參, 御朝講. 領事柳順汀曰: “觀全羅道觀察使啓本, 則前大司諫柳軒等五人, 同乘一舟, 自濟州出來, 爲水賊所害云, 水賊與倭奴, 未可卞認, 臣意近來, 邊境虛疎, 必倭賊所爲也. 請令濟州牧使, 推報觀察使, 且令護喪.” 【大司諫柳軒, 弘文館正字金良輔等五人, 廢朝時, 被謫濟州, 至是蒙宥出來, 遇此變.】 上曰: “可.”

3) 『중종실록』(권 1) 1506년(중종 1) 10월 19일.

○ 濟州謹理使李芸秬啓聞曰: “自濟州出來, 道遇水賊, 前忠淸道節度使柳軒, 前弘文正字金良輔等, 中搶死, 臣僅以身免. 【蓋軒, 良輔等, 皆被罪廢主, 謫濟州, 芸秬以謹理使留, 領罪人, 至是出來也.】

3. 이홍로(李弘老)

- 신분: 관리(관찰사)
- 유배 연월: 1608년(광해군 즉위) 3월 15일.
- 사망 연월: 1608년(광해군 즉위) 9월 12일.
- 사유: 모위죄(謀危罪)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2) 1608년(광해군 즉위) 3월 15일.

○ 兩司啓請許浚遠竄, 又啓: “**李弘老**, 本以兇悖邪毒之人, 龍灣上疏之後, 自知心迹敗露, 做作無根不測之說, 以爲交構之計, 其爲兇慘, 有不忍言. 請命絕塞圍籬安置.” 答曰: “已諭. 不允. 李弘老依啓.” 因傳曰: “李弘老絕島安置.” 弘老曾於義州行朝, 上疏請還世子撫軍之行, 辭指不測. 蓋欲陷從行大臣, 而王見之曰: “此以我爲唐 肅宗也.” 其後弘老, 交結嬖倖, 累歷藩閫, 人皆唾鄙. 又與妻弟奇自獻, 有隙交惡. 自獻, 嘗從兩宮間, 以鄙褻事, 搆弘老於王. 弘老大恐, 欲自辨言于柳希奮, 希奮止之曰: “宮省間事, 不可煩於疏札. 他日有難, 我自當之.” 弘老止不敢, 至是與 永慶, 共被謀危之罪, 希奮不之救. **大靜定配**.

2) 『광해군일기』(권 8) 1608년(광해군 즉위) 9월 1일.

○ 兩司請正柳永慶, 奇自獻, 李弘老等罪, 答曰: “永慶之罪, 公議日激, 國人齊憤, 予何敢終始容庇? 只念先朝大臣, 不可顯置重典, 於配所使之自處, 以謝中外. **李弘老事**, 路人皆知, 更無可鞫, 何忍形諸案牘, 重污人耳目? 亦**賜死於配所**, 以戒後日之亂賊. 奇自獻罪, 非關於國家, 所不幸者, 遇其家變, 原其情, 則實爲可恕. 然公議重發, 故曾已罷職, 到今加罪, 恐爲已甚. 三司宜知予意, 鎮靜過激之論, 以安朝廷.”

3) 『광해군일기』(권 8) 1608년(광해군 즉위) 9월 12일.

○ 合司(【座目如前.】)啓請**李弘老**拿鞫定罪, 柳永慶事告廟, 頒教. 答曰: “李弘老, 姑舍其暗昧難明之事, 只舉頃日兩司避嫌所及龍灣上疏中數款之語, 其心所在, 路人皆知. 今雖拿鞫, 有何加得之情乎? **可賜死於配所**. 告廟, 頒教, 考實錄處之.”

4. 정온(鄭蘊)

- 신분: 관리(부사직)
- 유배 연월: 1614년(광해군 6) 7월 4일.
- 해배 연월: 1623년(인조 1) 3월 16일.
- 사유: 왕명 비판(영창대군 시해 비판)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75) 1614년(광해군 6) 2월 21일.

○ 副司直臣 鄭蘊上疏: “(伏以)嗚呼! 以殿下仁聖之德, 不幸遭人倫之變, 欲盡其處之之道, 終不得自由, 未免見欺於驕悍之武夫, 其爲聖德之累, 不既大矣乎? 今之論璘之罪者, 一則曰禍本也, 二則曰奇貨也. 其言固不爲無理, 而試以濟王竑之事, 援而比之, 則亦有說焉. 濟王初爲皇太子, 見嫉於奸臣, 退處藩邦, 未幾爲賊徒所擁, 黃袍加身, 約誓已成. 雖知其事之不濟, 旋有討平之功, 而身負惡名, 則有之矣. 以今觀之, 當時禍本, 莫竑若也, 兇賊奇貨, 亦莫如竑也, 彌遠陰謀殺之, 可謂安社之忠. 而時人冤其死, 後世甚其殺者, 何歟? 觀夫眞德秀之言曰: ‘三綱五常者, 扶持宇宙之棟幹, 奠安生民之柱石. 人而無此, 冠裳而禽犢矣, 國而無此, 中夏而裔夷矣.’ 其言之痛切如此者, 誠以竑之跡, 雖或云云, 而其心本無可疑. 故原其情, 而雪其冤, 仍請追封立後. 古之君子, 不計一時之利害, 惟論義理之當否而惓惓以倫紀之或紊, 君德之或愆, 告戒而勸導之者, 爲如何哉? 今璘一王子耳. 心迹與此懸殊, 只出賊口, 未嘗有擁立之跡矣. 蒙無知識, 亦安有謀逆之心乎? 如使德秀之輩, 立乎本朝, 其不肯請殺也明矣. 恭惟殿下深憐童子之無知, 仰體先王之遺教, 思所以保護而安全之者, 蓋無所不用其極. 百僚盈庭, 三司交章, 自去年迄今春, 凡幾日月, 而惻念難遏, 俞音終闕. 嗚呼! 殿下之於璘, 豈不知終不相容也? 然而留時引日, 愈久而愈拒者, ‘豈不以逆賊之子, 猶有待年之事, 況於幼穉之弟, 豈合遽施刑章? 安置江都, 待其年滿, 觀其志行之如何而徐爲之處, 亦未晚也.’ 聖意所在, 灼然可知, 而推鞠諸臣, 經年入侍, 無一言將順其美, 三司多官, 善爲雷同, 無一人愛君以德, 其視君德之得失, 不啻若越瘠之秦視. 噫! 殿下之勢, 可謂孤立而無助矣. 尤可痛者, 殿下待以不死, 而鄭沆待之以死, 朝廷論之以法, 而鄭沆迫之以死, 使殿下不能如大舜之處象而未免爲漢, 唐以下人

君處置，未盡合理之歸焉。噫！殺人者死，國法甚嚴。殺凡人無辜，猶且罔赦，況殺吾君同氣之親乎？臣愚以爲‘不斬鄭沆，恐殿下無面目入於先王之廟庭也。’嗚呼！既往之咎，誰雖不可諫，將來之美，猶或可追。生不相容者勢也，死有贈典者情也。昔宋太宗之於廷美，既致之死，而旋有封爵恤孤之恩，眞宗之於元佐，只誅首謀而起封於久廢之中，此盛德事也。仁人之於弟也，不藏怒焉，不宿怨焉。況殿下之於璘，既無可藏之怒焉，有可宿之怨乎？其死之冤，路人猶悲，況殿下哀痛之懷，當復何如？近日玉候之靡寧，臣知其出於哀傷之過也。臣愚以爲‘宜命有司，追復永昌之號，葬以大君之禮，又下哀痛之教，使四方(庶)曉然知殿下至誠友愛之本心。’上可以慰先王在天之靈，下可以解萬民聽聞之惑，傳之後世，亦將有辭。今日清明之朝，必無章豎之矯詔，殿下何憚而莫之爲乎？抑臣之私憂過慮，又有甚於此者，不得不盡其說焉。善乎！宋臣韓琦之言曰：“父母慈而子孝，此常事不足道，惟父母不慈而子不失孝，乃爲可稱。”大妃雖或不慈於殿下，殿下安得不盡孝於大妃乎？況璘已死矣，復何疑問之有哉？誠願繼自今，斥絕讒邪之言，杜塞交構之路，如有奸細之徒，敢以不好語，及於大妃，卽付有司，論以重律。殿下亦宜共爲子職，不廢問安之禮，毋怠視膳之誠，務得大妃之歡心，重見母子之如初，則豈不足以掩前失而明新化乎？雖然爲此有道，遠佞人而已。嗚呼！母子，兄弟之間，人豈易言之哉？設有當誅之罪如管叔，可廢之惡如呂武，爲言官者，所當先議同僚，次通他司，上告大臣，下詢諸宰，待其論議歸一，然後發於啓筭，乃所以重其事也。頃者鄭造，尹訥，丁好寬等，首發廢妃，殺弟之議，而不議於同僚，不通於他司，不告於大臣，不詢於諸宰而竊發於完席之上，遽暴於避嫌之中。曾不若論一守令，劾一庶官之猶或持難，此其心不難知矣。蓋自近年以來，倖門一開，勳名太濫，貪功樂禍之徒，接迹而起。至以吾君之至親爲自己富貴之餌，比如逐獸，擠人獨走，冀得先殺之功。噫！爲臣子而是可忍耶？臣愚以爲‘殿下欲全母子之恩，亟取三人者，投諸四裔，不與同中國，然後讒說者不得作而三綱五常，昭揭於宇宙矣。’臣本以孤遠之蹤，猥荷聖明之知，既參勳盟，又廁清班。自料材力，無他報效，惟將‘勿欺犯’三字，爲平生事君之節，竊自附於‘莫如我敬王’之義矣。方當大論之發，或在罷散，或以疾病，一未隨參於百僚之後。日者人言罔極，目以護逆，必欲置之死地。臣自念職非言責，堂有老母，與其徒死於讒鋒，曷若一言而死於雷霆之下哉？力疾就庭，一啓乃退，思懷尺疏，仰叫閭閻，庶幾暴微臣之心而補衰職之闕。構思未就，以至今日，不及救正之罪，臣實有之，請殺無辜之罪，臣亦難免。伏願殿下先正臣之罪，以彰其不忠，臣雖萬殞，不敢怨悔(臣無任激切戰兢之至，

謹昧死以聞.)“

2) 『광해군일기』(권 79) 1614년(광해군 6) 6월 24일.

○ 王親鞫問鄭蘊曰：“予之假手，汝何知之，沆之擅殺，汝何聞之，以竝比璫，汝何所見？造，訶啓辭中，本無‘廢’字，汝何以‘廢’爲言耶？誰人(之)指嗾而爲此疏乎？天日在上，從實直告。”領議政奇自獻啓曰：“鄭蘊之事，以狂妄罪之則可也，而鞫問則不當矣。前日大臣李元翼，沈喜壽，鄭昌衍等俱以此意啓達矣。臣之愚意，不爲鞫問可也。(惶恐敢啓.)”王曰：“然則欲爲不鞫之乎？”自獻曰：“愚臣之意，不必鞫問矣。”王曰：“取捨招亦不爲之乎？”自獻曰：“取招亦不必爲之也。”王曰：“無君不道之罪，不可不鞫之爾。”自獻曰：“徐埃他大臣出仕，問而處之爲當矣。”王曰：“予意已諭，速爲捧招。”自獻出位啓曰：“此非係干逆獄者(比矣)。埃右議政鄭昌衍出仕，更爲下問而處之爲當矣。臣適失音，不得直，啓敢使權縉傳達矣。”王曰：“別無更議之事。捧招則不可不爲之矣。”蘊供曰：“臣雖昏愚，作事顛妄，而君臣大義，粗得聞知。今此陳疏之舉，實出於愛君憂國之至誠，而反陷於忘君護逆之罪。人雖至愚，豈不知自爲身謀，而護璫於既死之後，自速不測之誅乎？鄭沆到任之初，圍籬中卽撤煙火，自外供飯，初三日得病，則卽當馳啓。而最晚始爲狀啓，旋有身死之啓，若此數款，足以致人之疑。自上亦下推考之命，聖意所在，灼然可知，而終無請罪之人。以此而聞於四方，傳之後世，則慮或爲聖世之累。故所以請斬之語，發於疏中，欲聖上踵漢文治不發封諸縣令之意。至於鄭造，尹訢，啓辭中，有‘不可以國母待之’之語，故廢妃之說，爲閭巷間常談，故疏中及之。大概多少妄說，非爲璫也，皆所以爲聖上地，欲使天下後世，皆知聖上之於璫，生焉而待以不死，死焉而盡其情禮。愚無知識，胡亂陳疏，初非聽人指嗾，而上以獲罪於君父，下以貽感於老母，不忠不孝，萃于一身，自知死有餘罪。而若曰：‘忘君護逆’，則天地鬼神，臨之在上；質之在傍，非臣之罪也。”**【蘊被囚已數月矣。至是，始鞫之，而因諸大臣相繼力救，得免死。】**

3) 『광해군일기』(권 80) 1614년(광해군 6) 7월 4일.

○ 義禁府啓曰：“**鄭蘊定配事，本院累爲催促**，而判義禁府事來詣政廳，不得與他堂上會議，**故今方議定矣。**”傳曰：“知道。”

○ 以特命，配鄭蘊 于 定配單子，傳曰：大靜 改定配.

4)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3월 16일.

○ 以鄭蘊爲獻納. 蘊樸直有氣節，初以仁弘門生，及廢論方張，獨上章極言，遂被安置絕島，士論莫不偉之. 至是，首拜諫職.

5) 『인조실록』(권 3) 1623년(인조 1) 9월 18일.

○ 上晝講《論語》于文政殿. 知事金塗，特進官李時發，檢討官李植等啓曰：“光海將廢母后，南原府使鄭蘊，抗疏直諫，被竄絕島，十年之後，幸逢聖明生還故國，特命陞敘. 又得專城之養，而猶未定以褒獎大節，聳動一代. 至於吳長，以言獲罪，死於謫中，姜大進亦以直論，與吳長同時竄逐，宜有褒嘉之典.” 上曰：“鄭蘊加資. 其餘亦令該曹施賞.”

6)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3월 16일.

○ 院啓，原州牧使韓泳，賊黨之兇悖者，上游重地，不可容息，請命削職拿鞫. 京畿水使兼統禦使李時言，今者學義之事，聞機聚兵，顯有可疑之跡，而南陽義旅之起，多被拘繫，請命削職拿鞫. 毛都督接伴使鄭榮國，孟推官接伴使朴宗胄，皆是賊黨，當此危疑之日，不可使候伺天將，請遞.鄭蘊在大靜地，請上來事，下諭. 禮曹判書任就正，請遞差.

5. 김언춘(金彦春)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14년(광해군 6) 11월 26일.
- 사망 연월: 1615년(광해군 7) 9월 6일.
- 사유: 범죄(무고)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84) 1614년(광해군 6) 11월 26일.

○ 禁府啓: “(罪人) 金德龍 旌義, 彦春 大靜安置“啓. 判義禁朴承宗筭子: “誣告賊彦春, 絶島安置, 未安, 請辭職(事. 入啓).” 答曰: “勿辭. 彦春事, 當與大臣議處.”

2) 『광해군일기』(권 93) 1615년(광해군 7) 8월 9일.

○ 合啓五賊中, 金德龍, 金彦春停啓, 定配濟州.

3) 『광해군일기』(권 95) 1615년(광해군 7) 9월 6일.

○ 濟州安置罪人彦春, 死於中路物故.

6. 윤유겸(尹惟謙)

- 신분: 유생(강진)
- 유배 연월: 1618년(광해군 10) 11월 5일.
- 나국 연월: 1623년(인조 1) 4월 3일.
- 사유: 건의 불발(서궁〈인목대비〉 폐출 상소)
- 관련 사료

1) 『광해군일기』(권 134) 1618년(광해군 10) 11월 5일.

○ 傳曰: “辛光業·尹惟謙, 圍籬安置.”

2)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4월 2일.

○ 又合啓: “安應魯, 李日馨, 禹弼甸, 禹弼舜, 尹伸, 李尙恒, 成夏衍, 李衍, 南省身等, 首倡廢母之論, 與偉卿同上兇疏, 至有內作巫蠱, 外應逆謀, 母道已絕等語, 張皇狼藉, 極其兇慘. 洪衍箕, 以筠賊腹心, 謀作亂於西宮. 尹惟謙疏辭兇慘, 有不忍言, 鄭淇罪狀慈殿, 移文八道. 崔光弼之疏, 至有廢誅之言, 請竝拿鞫定罪.” 上從之.

3) 『승정원일기』(책 1) 1623년(인조 1) 4월 3일.

○ 權盡已, 以義禁府言啓曰, 以昨日臺諫所啓, 禹弼甸·尹伸·李尙恒·禹弼舜·李衍·成夏衍, 已爲拿囚矣. 安應魯在尼山, 南省身在沔川, 洪衍箕在缺配所, 尹惟謙在大靜, 崔光弼在光陽配所, 發遣都事, 拿來宜當, 鄭淇, 不知在處, 令捕廳缺捕事, 捧承傳施行, 何如? 傳曰, □□.

7. 이선윤(李善胤)

- 신분: 종실(무림군(茂林君))
- 유배 연월: 1623년(인조 1) 4월 2일.
- 사망 연월: 1628년(인조 6) 1월 21일.
- 사유: 정권 변동(인목대비 폐모론 주장)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3월 20일.

○ 憲府啓曰: “茂林君 善胤, 順寧君 景儉曩時投疏, 請廢母后, 辭極兇慘, 請拿鞠定罪.” 從之.

2) 『인조실록』(권 1) 1623년(인조 1) 4월 2일.

○ 上復御明光殿, 引見領議政李元翼, 左議政鄭昌衍, 判義禁尹昉, 同知義禁李景涵, 大司憲吳允謙, 大司諫朴東善, 大將兵曹判書金瑬·吏曹參判李貴, 議獻獄囚, 分等誅竄. … 景儉, 善胤投疏請廢母后, 其罪當死, 而以宗室故減死, 圍籬安置.

3) 『승정원일기』(책 20) 1628년(인조 6) 1월 21일.

○ 濟州牧使書目, 大靜圍籬罪人善胤, 物故.啓.

8. 정호(丁鎬)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624년(인조 2) 2월
- 사망 연월: 1624년(인조 2) 10월 1일
- 사유: 연좌(이괄의 난, 역적 정석필〈丁碩弼〉 부친)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39) 1633년(인조 11) 5월 16일.

○ 禁府, 圍籬罪人成夏衍·吳汝穩[吳汝穩]·李元興·金應鼎等, 圍籬撤去, 遠竄罪人任援·金徹·劉敬甲·鄭伋·崔晬·丁鎬·金仁·房斗元·趙國彦等, 量移事, 捧承傳.

2) 『승정원일기』(책 40) 1633년(인조 11) 8월 20일.

○ 義禁府啓曰, 大靜定配罪人丁鎬, 今五月大霈時, 量移事, 命下. 發遣府書吏, 使之押領, 移配於長興府矣. 今考舊文書, 則天啓四年十月初一日成貼, 全羅觀察使李溟啓本, 濟州牧使成安義牒呈, 逆賊丁碩弼父丁鎬, 曾以逆适三寸姪, 大靜定配, 碩弼緣坐, 罪當絞, 卿其處絞事, 有旨據, 本州出身高起崇, 卽遣配所, 大靜縣監李揚門, 眼同處絞事, 同年十月初八日啓下本府, 而其時不卽查正罪案, 以致混同抄啓, 至於蒙恩, 極爲駭愕. 其時當該郎廳摘發, 從重推考, 色吏令攸司囚禁治罪, 府發遣書吏, 令本道急速還送事, 行移, 何如? 傳曰, 依啓. 其時色郎廳, 先罷後推, 堂上亦爲推考.

9. 유성선(柳性善)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628년(인조 6) 2월 4일.
- 이배 연월: 1628년(인조 6) 5월 27일(진도).
- 사유: 연좌(유효립 옥사<인성군 옹립>, 유효립<柳孝立>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0) 1628년(인조 6) 2월 4일.

○ 禁府, 罪人金慶先·張世哲吉州, 鄭泊·鄭口慶興, 鄭浯南海, 具喆巨濟, 趙有恒清河, 柳栢壽長鬐, 李大鳴甲山, 允金機張, 南應敏迎日, 鄭洱金海, 具珏熊川, 趙有道鏡城, 閔聖復沃溝, 柳性善大靜, 朴千億彥陽, 定配.啓.

2) 『승정원일기』(책 21) 1628년(인조 6) 5월 27일.

○ 禁府, 濟州定配罪人柳正立·朴自凝·柳性善·閔卓立移配珍島, 丁焞康津, 朴啓章海南, 柳時立巨濟移配.

10. 유시립(柳時立)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628년(인조 6) 2월 16일.
- 이배 연월: 1628년(인조 6) 5월 27일(거제).
- 사유: 연좌(유효립 옥사<인성군 옹립>, 유희발<柳希發>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0) 1628년(인조 6) 2월 16일.

○ 禁府, 圍籬罪人, 濟州柳正立·朴自凝, 大靜柳時立, 旌義柳英立, 巨濟柳命立, 南海曲浦柳厚立, 平山浦柳中立, 巨濟知世浦柳顯立, 熊川朴自全, 南海柳鼎立, 彌助項朴自天, 唐浦朴自晷, 尙州浦朴全度, 加里浦李元輿, 興陽鄭碩儁, 巨濟鄭達, 助羅浦朴永澤, 西水羅閔貴達, 會寧權誼, 鍾城任興後, 穩城任就正·崔應虛, 慶源任器之·李傳芳, 慶興柳活, 三水趙國弼, 富寧金時輔, 定配.

2) 『승정원일기』(책 21) 1628년(인조 6) 5월 27일.

○ 禁府, 濟州定配罪人柳正立·朴自凝·柳性善·閔卓立移配珍島, 丁焞康津, 朴啓章海南, 柳時立巨濟移配.

3) 『인조실록』(권 19) 1628년(인조 6) 9월 5일.

○ 移罪人朴自凝, 柳正立安置于珍島, 柳時立安置于巨濟, 朴啓章定配于南海.

11. 황여팽(黃汝彭)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29년(인조 7) 윤4월 11일.
- 해배 연월: 1633년(인조 11) 5월 8일.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26) 1629년(인조 7) 윤4월 11일.

○ 禁府, 鄭尙古吉州, 黃汝彭大靜定配. 啓. 已上出古判書朴鼎賢日記

2) 『인조실록』(권 28) 1633년(인조 11) 5월 8일.

○ 命成夏衍, 吳汝樞, 李元輿等竝撤圍籬, 姜翼文, 朴大辰, 金承仁, 黃汝彭, 李應澤, 鄭忠立, 任獻之, 趙渰, 閔潔, 柳健, 鄭晟, 黃中允, 任器之, 任徵之, 金弘遠, 洪迎, 金慶先, 趙有道, 趙有恒, 姜信立等竝放釋, 金尙窩, 朴東亮放歸田里.

3) 『승정원일기』(책 39) 1633년(인조 11) 5월 12일.

○ 禁府議大臣公事, 判付內, 罪人康文翼·朴大辰·金承仁·黃汝彭·李應澤·鄭忠立·任獻之·趙渰·閔潔·柳健·鄭晟·任徵之·黃中允·金弘遠·洪迎·金慶元·趙有恒·姜信立·任器之·李莘·尹熙善·申弘駟·魚大振·羅宜素·朴春陽·梁貴生·朴悌儉·鄭尙古·郭希震·朴宗一·鄭國彬·安應雲·鄭忠直, 放送. 丁好恕·康輔臣·金搢·朴惟健, 量移. 金尙窩·朴東亮·金時讓·鄭忠信, 放歸田里. 追崇朝報

12. 남윤선(南胤先)

- 신분: 관리(영장 營將)
- 유배 연월: 1643년(인조 21) 1월 25일.
- 이배 연월: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사유: 범죄(심양 가는 어영청 군인 인솔 시 불법)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81) 1642년(인조 20) 2월 20일.

○ 御營廳啓曰, 今此二運赴瀋御營軍, 全羅〈道〉一百三十名, 當日逢點, 犒饋後, 營將南胤先率領, 二十一日發送之意, 敢啓.傳曰, 依啓.出備邊司謄錄

2) 『승정원일기』(책 84) 1643년(인조 21) 1월 25일.

○ 又啓曰, 傳教矣.交替將士, 已爲回還, 向前南胤先, 依前定配啓下, 大靜配所發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책 97) 1647년(인조 25) 5월 13일.

○ 義禁府啓曰, 濟州等官定配罪人, 申得淵·洪茂績, 移配他島事, 傳教矣.申得淵則圍籬罪人, 故郎廳一員, 當爲押去, 洪茂績則書吏一人, 當爲押去, 而一路夫馬, 多有貽弊之事, 今以石鐵等押去郎廳, 及南胤先移配書吏, 仍令押送于各岐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

13. 이덕인(李德仁)

- 신분: 종실(회은군(懷恩君))
- 유배 연월: 1644년(인조 22) 4월 24일.
- 사망 연월: 1644년(인조 22) 7월 29일.
- 사유: 역모 연루
- 관련 사료

1) 『인조실록』(권 45) 1644년(인조 22) 3월 21일.

○ 副司直黃灝, 五局別將李元老等上變, 告青原府院君 沈器遠與前知事李一元, 廣州府尹權滄等謀反, 將推戴懷恩君 德仁. 命招大臣及備局, 禁府堂上, 三司長官, 設推鞠廳于內兵曹, 逮捕按問.

2) 『승정원일기』(책 88) 1644년(인조 22) 4월 19일.

○ 合啓.答曰, 絶島圍籬安置.德仁事.

3) 『인조실록』(권 45) 1644년(인조 22) 4월 24일.

○ 安置德仁於大靜縣.

4) 『인조실록』(권 45) 1644년(인조 22) 7월 29일.

○ 遣義禁府都事, 賜德仁死于濟州.

5) 『승정원일기』(책 88) 1644년(인조 22) 7월 29일.

○ 義禁府啓曰, 德仁正刑事, 臺諫合啓, 已爲停啓, 發遣都事, 馳往配所, 卽爲賜藥之意, 敢啓.傳曰, 知道.寧國儀軌

14. 이금금(李今金)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53년(효종 4) 7월 16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평안도)
- 관련 사료

1) 『비변사등록』(책 16) 1653년(효종 4) 7월 16일.

○ 啓曰, 平安監司查啓中, 名付各人, 論罪輕重, 昨日榻前, 既已定奪, 今將行會罪名及定配處所, 別單開錄以啓, 以此亦爲分付該曹, 依例舉行之意敢啓, 答曰, 知道, 別單 … 殷山李今金 江西金錄 右人等, 從前罪犯, 死無足惜, 而特爲末減, 竝大靜縣定配.

15. 김록(金錄)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53년(효종 4) 7월 16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평안도)
- 관련 사료

1) 『비변사등록』(책 16) 1653년(효종 4) 7월 16일.

○ 啓曰, 平安監司查啓中, 名付各人, 論罪輕重, 昨日榻前, 既已定奪, 今將行會罪名及定配處所, 別單開錄以啓, 以此亦爲分付該曹, 依例舉行之意敢啓, 答曰, 知道, 別單 … 殷山李今金 江西金錄 右人等, 從前罪犯, 死無足惜, 而特爲末減, 竝大靜縣定配.

16. 최지남(崔智男)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미상
- 이배 연월: 1657년(효종 8) 4월 8일(담양).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45) 1657년(효종 8) 4월 8일.

○ 義禁府啓曰, 大靜定配罪人崔智男, 因其子上言覆啓, 陸地移配事判下, 故本道潭陽府移配單子, 已爲啓下矣. 絶島羅卒入送, 押領出來, 多有往來貽弊之端, 依近例令本道次次押送, 交付配所後, 啓聞之意, 行會本道, 何如? 傳曰, 允. 禁府臚錄

17. 고의중(高義重)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666년(현종 7) 4월 19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94) 1666년(현종 7) 4월 19일.

○ 左副承旨臣宋時喆, 同副承旨臣金字亨等, 同日辰時成貼狀啓. 宮城內外宿衛無事爲白在果, 兵曹今十八日, 一·二所巡將行巡無事單子, 烽燧候望無事單子各一度, 觀象監日暈單子一度, 原襄監司李俊耆雨澤農事狀啓一度, 黃海監司李尙逸, 平山府使許珽病重罷黜事狀啓, 雨澤兩麥旱災缺事狀啓一度, 開城留守權大運等, 申孝一米石載來緣辭查覈事啓本一度, 合八度段, 監封上送爲白乎旆, 黃海監司李尙逸月課田未九月山城備上事啓本一度, 南兵使李斗鎭等, 軍糧指徵無處事啓本一度, 濟州牧使洪宇<缺>罪人高義重, 大靜縣到配事啓本一度, 合三度段, 姑爲留院緣由, 竝以馳啓爲白臥乎事, 啓下本院.

18. 신명규(申命圭)

- 신분: 관리(산릉도감 낭청)
- 유배 연월: 1674년(현종 15) 5월 11일.
- 이배 연월: 1680년(숙종 6) 5월 2일(강진).
- 사유: 봉당(영릉〈寧陵, 효종릉〉 관리 부실)
- 관련 사료

1) 『현종실록』(권 22) 1674년(현종 15) 5월 11일.

○ 命疏決罪囚，以久旱不雨也。領相金壽興，領府事許積，判府事金壽恒，知義禁張善澈，同知義禁閔點，刑曹判書權大運，參判鄭楹，參議睦來善，右副承旨李端錫等，入侍于思賢閣，隨罪輕重，或徒配，或削，或放者，九十二人。咀呪，竊盜等罪，不爲舉論。善澈持罪囚文案，以次披讀，至申命圭，李鼎基等，上曰：“此則何如？”積曰：“臣欲達此人等事，而未敢矣。受莫重之任，致莫大之變，自上必欲斷以一罪者，固當矣。然原其情，則必非故犯。定配邊遠，以待其死，似可矣。”壽興曰：“臣於前日，陳達此事，至被嚴教，而積之言是也。命圭等，雖甚無狀，豈於封陵之際，敢有慢忽之心乎？”壽恒曰：“以次問及之下，臣何敢獨爲泯默乎？臣意則無論其有情無情，此等罪名，本無當律，若以一時受教，斷以一罪，似爲未安矣。”閔點曰：“今日赦宥，專爲祈雨，則常赦所未蒙之人，雖得蒙宥，亦或一道。”上曰：“此人罪狀，予甚痛惡，見欺工匠，不近似矣。十二面內六面裳石，如法作凹，而六面初旣作凹，反復撞破。郎廳若至誠監役，則工匠何敢如是？命圭等罪，在漢則當以大不敬論之矣。”積曰：“不能敬慎，則有之，論以一罪，似爲過重。若貸其死，使得畢命於海島之中，則非但有光於仁厚之德，亦足爲後日懲戒之地。”壽興亦申請不已，上默然良久曰：“予意則必欲殺之，諸大臣之言如此，只令貸死而已，永勿奴釋可也。”因命曰：“命圭等減死，絕島定配，命圭配大靜縣，鼎基配旌義縣。”

2) 『승정원일기』(책 239) 1674년(현종 15) 5월 12일.

○ 禁府，魏天會海南，丁炯蔚山，申命圭珍島，李鼎基巨濟，韓時說宣川定配，朴振翰德豐驛徒一年，金謹行碧蹄驛徒三年定配，啓.申命圭大靜縣，李鼎基旌義縣定配事，付標以下.

3) 『승정원일기』(책 243) 1674년(숙종 즉위) 11월 29일.

○ 禁府啓目粘連, 濟州牧使啓本云云. 罪人申命圭·李鼎基等, 罪名既重, 到配未久, 不可輕議仍配之意, 回移何如? 啓依允.

4) 『승정원일기』(책 276) 1680년(숙종 6) 5월 2일.

○ 傳曰, 頃觀濟州御史李增狀啓, 則減死罪人申命奎·李鼎基等, 雖無大段作弊之事, 亦不無貽害於島民云, 此兩人竝移配他道.

5) 『숙종실록』(권 13) 1682년(숙종 8) 4월 27일.

○ 鼎重曰: “康津定配罪人申命圭有九十老母, 病篤垂絶, 而命圭罪名甚重, 雖不可輕議放釋, 而孝理之下, 許令給由歸訣, 似合於《大典後續錄》: ‘入居罪人有父母篤疾者, 特許除往還給由一朔.’ 之義矣.” 上命一月給暇.

19. 유혁연(柳赫然)

- 신분: 관리(훈련대장)
- 유배 연월: 1680년(숙종 6) 4월 22일.
- 나국 연월: 1680년(숙종 6) 6월 10일.
- 사유: 봉당(경신환국)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9) 1680년(숙종 6) 4월 21일.

○ 萬鐵供曰: “堅之圖設體府時, 萬鐵往堅家, 則堅曰: ‘昨日訓將來見大人, 大人以埋伏壯士, 屬竟焜, 焜事言之, 柳公奮然曰: ‘渠輩, 今日何敢爲此計乎? 所謂壯士, 捉得則好矣.’ 大人曰: ‘若然則必起獄事, 勢難爲之.’ 柳公曰: ‘然則復設體府之外, 無他策矣.’ 以此觀之, 則他日東村之事, 柳公似無異意.’ 云. 且萬鐵自伊川入京, 適有將相易置之事, 而元老來言曰: ‘因伊川屯軍事, 有此舉.’ 云矣. 萬鐵言於母, 母亦驚曰: ‘福昌往伊川時, 堅以其所帶醫官金有鉉, 與渠相切, 使之寄書.’ 云. 到今思之, 堅似寄凶書於有鉉之行, 故敢此追達.” 鞫廳請更鞫赫然, 赫然不服. 上命發配. 拿問有鉉. 有鉉亦以萬鐵之言爲臆料, 命放送.

2) 『승정원일기』(책 276) 1680년(숙종 6) 4월 22일.

○ 禁府, 柳赫然大靜縣減死絕島定配. 金楚三南海絕島定配. 李曼龍旌善徒三年定配. 朴時建淮陽徒三年定配. 啓.

3) 『승정원일기』(책 277) 1680년(숙종 6) 6월 10일.

○ 禁府都事李舜岳, 柳赫然押去後, 入來.

4) 『숙종실록』(권 10) 1680년(숙종 6) 9월 5일.

○ 賜柳赫然死. 連因臺啓, 不得舉行, 至是臺諫停啓, 遂賜死.

5) 『승정원일기』(책 278) 1680년(숙종 6) 9월 6일.

○ 傳曰, 罪人柳赫然, 賜死.

20. 민암(閔黯)

- 신분: 관리(우의정)
- 유배 연월: 1694년(숙종 20) 4월 2일.
- 나국 연월: 1694년(숙종 20) 4월 15일.
- 사유: 봉당(갑술환국)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26) 1694년(숙종 20) 4월 2일.

○ 禁府無堂上, 不得定流竄人配所. 上以特旨, 安置閔黯 大靜縣, 柳命賢 黑山島, 李義徵 巨濟縣, 鄭維岳 珍島郡, 睦林一 南海縣, 仍命即日押送.

2) 『승정원일기』(권 356) 1694년(숙종 20) 4월 2일.

○ 政院啓曰, 禁府方有時急舉行事, 不容少緩, 而判義禁柳尙運, 在外, 同義禁朴泰尙, 亦在郊外, 未及入來, 今已日暮, 而被謫人等, 尚未發配, 何以爲之? 敢稟. 傳曰, 閔黯, 濟州大靜縣絕島安置, 柳命賢, 全羅道羅州黑山島絕島安置, 鄭維岳, 珍島郡絕島安置, 睦林一, 慶尙道南海縣絕島安置, 李義徵巨濟縣絕島安置, 竝於當日內押送. 已上朝報

3) 『승정원일기』(권 356) 1694년(숙종 20) 4월 15일.

○ 禁府都事曹錫宇, 罪人閔黯拿來.

4) 『숙종실록』(권 27) 1694년(숙종 20) 7월 8일.

○ 用前日判批, 賜閔黯死. 黯爲人鄙悖兇譎, 締結希載, 廢黜母后, 負犯極重, 前史罕聞, 其貪淫放縱, 蔑棄名行, 特其細者耳. 南九萬以身保希載, 事多不問. 黯之陰謀, 亦未盡發, 終不得肆諸市朝, 人憤其失刑, 及後辛巳之獄, 始以逆論.

5) 『승정원일기』(권 360) 1694년(숙종 20) 7월 8일.

○ 朴世■, 以義禁府言啓曰, 罪人閔黯, 發遣都事, 已爲賜死之意, 敢啓. 傳曰, 知道.

21. 장희재(張希載)

- 신분: 외척(장희빈 오빠)
- 유배 연월: 1697년(숙종 23) 윤3월 14일.
- 나래 연월: 1701년(숙종 27) 9월 24일.
- 사유: 봉당(갑술환국)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26) 1694년(숙종 20) 5월 20일.

○ 初義禁府屢問張希載, 希載輒對以精神昏迷, 未能記憶, 而且曰, 咸以完將爲告變之說, 旣親聞於閔黯, 似以此有所內達也.” 上判曰: “諺書旣所親見, 不必更問, 而與黯, 以完陰謀祕計, 隱然嘗試, 纔過一二日, 黯果入奏. 噫! 旣欲謀害國母, 又欲欺君父起誣獄, 其以此二罪之已著者, 照勘其律.” 禁府言: “謀害國母, 是逆也, 自本府照律, 有所不敢, 請移于鞠廳.” 上曰: “希載之二罪, 固莫大. 而第以世子至親, 宜有酌處, 其議于大臣.” 大臣南九萬言: “希載之罪, 旣干惡逆, 流入諺札, 又是上所親覽, 則非在下衆證之比, 直爲照斷, 似無不可. 且漢之薄昭, 文帝之舅, 又有代來之功, 而猶不貸其死. 今希載言其親則輕, 言其罪則重, 設令王世子年已長成, 必自有以義滅親之請矣. 但世子方在幼沖, 不能有所省知, 而外姓至親, 惟希載一人. 此殿下所以憫惻哀矜而有此下詢也. 孟子所謂: ‘仁者, 以其所愛’, 及其所不愛者’, 豈非若此等事耶?” 上判曰: “今遽置法, 誠有所矜念, **特命減死絕島安置, 嚴加梏棘.**”

2) 『승정원일기』(권 357) 1694년(숙종 20) 5월 20일.

○ 禁府啓目, 罪人張希載, 議大臣稟處云云. 議于大臣, 則領議政議以爲, 希載之罪, 旣是干係惡逆, 而流入諺札, 又是上所親覽, 則其爲明白, 不啻在下衆證之比, 渠雖抵諱, 直爲照斷, 似無不可, 且漢之薄昭, 文帝之舅, 又有代來之功, 而文帝猶不貸其死, 今希載, 比之薄昭, 言其親則輕, 論其罪則重, 非但在法難赦, 設令王世子年已長成, 則必自有以義滅親之請矣. 第念卽今事勢, 王世子方在幼沖之年, 不能自有所省知, 而外姓至親, 只有希載一人, 此殿下所以憫惻哀矜, 有下詢之舉者也. 孟子所謂仁者, 以其所愛, 及其所不愛者,

豈非若此等事耶? 雖然, 法外酌處, 非在下所敢請, 伏惟上裁. 左議政·右議政, 在外未肅拜, 不得收議, 大臣之意如此, 伏惟上裁. 啓. 希載二罪, 既已彰著, 不待承款而可知, 則按法處置, 未爲不可, 而第世子至親, 只有一人, 今遽置法, 誠有所矜念是置, 特爲減死, 絶島安置, 嚴加梏棘. 已上燼餘

3) 『숙종실록』(권 30) 1696년(숙종 22) 5월 2일.

○ 尹趾善言: “囚人張希載病重, 症涉可疑, 有熏染之慮, 宜有變通.” 允之. 【令醫官看審, 未能的知某症, 義禁府啓請姑觀數日, 允之.】

4) 『승정원일기』(권 370) 1697년(숙종 23) 윤3월 14일.

○ 禁府, 罪人張希載, 大靜縣, 減死, 絶島圍籬安置. 啓.

5) 『승정원일기』(권 370) 1697년(숙종 23) 윤3월 15일.

○ 禁府都事尹道教, 罪人張希載圍籬安置事, 大靜縣出去.

6) 『숙종실록』(권 35) 1701년(숙종 27) 9월 23일.

○ 夜, 下備忘記曰: 大行王妃遺疾二載, 而禧嬪 張氏, 非但一不起居, 不曰中宮殿而必稱閔氏, 又曰: “閔氏實妖人. 不特此也. 潛設神堂於就善堂之西, 每與二三婢僕, 屏人祈禱, 極其綢繆.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濟州梏棘罪人張希載, 爲先亟正邦刑.

7) 『승정원일기』(권 400) 1701년(숙종 27) 9월 23일.

○ 備忘記, 大行王妃遺疾二載, 而禧嬪張氏[禧嬪張氏], 非但一不起居, 不曰中宮殿, 而必稱閔氏, 又曰閔氏, 實妖人, 不特此也, 潛設神堂於就善之西, 每與二三婢僕, 屏人祈禱, 極其綢繆,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濟州梏棘罪人張希載, 爲先克正邦刑. 燼餘 闕

8) 『승정원일기』(권 400) 1701년(숙종 27) 9월 24일.

○ 禁府都事尹志源, 罪人張希載拿來事, 濟州地出去.

9) 『승정원일기』(권 401) 1701년(숙종 27) 11월 1일.

○ 禁府, 罪人張希載, 當日軍器寺前路, 行刑. 啓.

22. 송상주(宋尙周)

- 신분: 관리(순천부사)
- 유배 연월: 1694년(숙종 20) 5월 26일.
- 이배 연월: 1702년(숙종 28) 5월 18일(위원).
- 사유: 봉당(갑술환국)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26) 1694년(숙종 20) 5월 26일.

○ 執義洪受瀨, 掌令安世徵, 金弘楨: “ … 前府使宋尙周, 附托權奸, 敢構一疏, 以臣子不忍聞不忍道之說, 侵逼先后, 誣毀中壺, 恣意矯誣, 爲其儕友所止, 雖未上徹, 而渠以輪對官入侍時, 亦嘗陳此疏事矣. 中外喧傳, 驚心痛骨, 請絕島安置.” 上皆從之.

2) 『승정원일기』(권 357) 1694년(숙종 20) 5월 26일.

○ 執義洪受瀨, 掌令安世徵·金弘楨啓曰, … 前府使宋尙周, 本以南中微賤之人, 附托權奸, 猥占顯職, 悖妄無倫之舉, 不一而足, 曾於己巳年間, 敢構一疏, 而以臣子不忍聞不忍道之說, 慢逼先后, 詆毀中壺, 恣意矯誣, 罔有紀極, 爲其儕友所止, 雖未得上徹, 而渠以輪對官入侍時, 亦嘗陳達此疏事矣. 中外喧傳, 舉皆驚心痛骨, 不可不快施屏裔之典, 以嚴懲討之義. 請前府使宋尙周絕島安置. 答曰, 依啓.

3) 『숙종실록』(권 33) 1699년(숙종 25) 2월 4일.

○ 大臣, 禁府堂上, 三司入侍, 行疏決. 放歸田里罪人權大運·鄭維岳·樗·煥·熾·燦, 竄配罪人業同·尹夏濟·閔彥良, 中途付處罪人李頤命竝放送. 竄配罪人柳命天, 柳命賢, 睦來善, 李玄逸, 李玄紀, 李雲徵, 韓構, 沈季良竝放歸田里, 宋道成, 宋相周竝減等, 禁府時囚罪人申鍵放送. 餘不能悉記.

4) 『승정원일기』(권 383) 1699년(숙종 25) 2월 4일.

○ 疏決時, 安置罪人睦來善·金德遠·柳命天·柳命賢·李玄紀. 移配罪人李雲徵·韓構·李玄

逸.定配罪人鄭濟先, 量移罪人沈季良, 竝放歸田里.定配罪人李濟·金光守·業同·尹夏濟·閔彦良·李翊華·申鍾華·蔣永祐·金元燮·崔嶷·李夔·李頤命·文道器, 門黜罪人朴行義·丁時潤, 放歸田里罪人權大運·鄭維岳·樗·煥·燦·燦, 竝放送.定配罪人張萬春·宋相周·宋道成, 減等, 椅, 移配陸地.

5) 『숙종실록』(권 36) 1702년(숙종 28) 5월 17일.

○ 憲府啓曰: “大靜安置罪人宋相周, 因減等限滿, 直爲放送, 臣等竊不勝駭然之至. 當初相周陰凶之疏, 侵逼先后, 誣毀中壺, 其罪與正刑罪人嗣基無異, 而特以其疏之未徹, 獨保首領, 投配海島, 已不免失刑之歸. 曾未幾何, 遽被減等, 又至全釋, 將使悖亂倫常之凶孽, 偃息於田里, 其在懲惡之道, 決無是理. 請凶人宋相周邊遠定配.” 從之.

6) 『승정원일기』(권 404) 1702년(숙종 28) 5월 17일.

○ 府啓, 請罪人杭家籍沒等事, 令該府照例舉行, 請還寢杭子炤兄弟放歸田里之命, 竝命絕島定配. 請還收科獄罪人酌處之命, 更加嚴刑, 期於得情. 措辭竝見上 大靜安置罪人宋尙周, 因減等限滿, 自配所直爲放送云, 臣竊不勝駭然之至. 當初尙周, 陰兇之疏, 侵逼先君, 誣毀中壺, 其罪實與正刑罪人嗣基無異, 而特以其疏之未上徹, 獨保首領, 投配海島, 已不免失刑之歸, 而曾未幾何, 遽被減等, 減等之後, 又至全釋, 有若凡罪流配循例減等者然, 將使敗亂倫常之餘孽, 偃息於田里, 其在懲惡之道, 決無是理. 請兇人宋尙周, 邊遠定配.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7) 『승정원일기』(권 404) 1702년(숙종 28) 5월 18일.

○ 禁府, 宋尙周, 渭源郡邊遠定配.

23-26. 김준완(金峻完), 박중경(朴重慶), 신우석(申遇碩), 이동설(李東畵)

- 신분: 내관
- 유배 연월: 1700년(숙종 26) 2월 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근무 불성실(패악)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4) 1700년(숙종 26) 2월 2일.

○ 上下敎曰: “內官李東畵, 申遇碩, 金峻完, 朴重慶等, 持身悖惡, 罔畏國法, 可愕之事, 不一而足. 各別嚴刑一次後, 大靜縣絕島定配.” 及受灸入診, 提調李彥綱言: “內官既有罔畏國法之罪, 則其在宮, 府一體之義, 固宜明其罪狀, 昭示有司, 以爲依法定罪之地.” 上命出內司囚禁罪人房子者斤烈, 月今, 順今, 英業, 竝內官四人, 移送刑曹, 仍下別紙, 俾爲問目. 蓋四宦與四女人, 初一日夜, 同坐中正門外小宦上直房, 被建極堂守宮內宦現告事也. 及驗問, 皆言: “相與結爲兄弟, 間有聚會談話書札問候之事, 而實無他意” 云. 受訊幾數十次, 終不吐實. 上以房子與內人有間, 合有酌處之道, 特命竝絕島定配.

2) 『승정원일기』(권 389) 1700년(숙종 26) 2월 3일.

○ 備忘記, 小宦內官李東畵·申愚碩·金峻完·朴重慶等, 持身悖惡, 罔畏國法, 可愕之事, 不一而足. 其爲情狀, 萬萬痛惋, 竝各別嚴刑一次後, 全羅道大靜縣, 絕島定配.

3) 『승정원일기』(권 397) 1701년(숙종 27) 4월 13일.

○ 正言呂必重所啓, 請還收丙子科獄罪人等及差備官, 竝爲放釋之命. 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請御營大將李弘述, 罷職不敘. 措辭見上 上曰, 再啓似甚過重, 勿爲煩論. 又所啓, 請還收內官李東畵·申遇碩·金峻完·朴重慶及房子英業·月今等減死定配之命, 亟令該曹, 嚴刑得情, 夫伸王法. 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引嫌而退. 兩款嫌碍, 勢所固然, 不爲聯名, 自有近例, 何可以此, 輕遞言官? 請正言李宜顯出仕. 上曰, 依啓. 前啓, 己巳增廣文科入場諸人事, 停啓.

27. 묵석(墨碩)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01년(숙종 27) 10월 1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장희재 첩<숙정 淑正> 아들)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5) 1701년(숙종 27) 10월 3일.

○ 淑正, 淑英, 丑生, 五禮, 者斤禮等, 竝結案取招, 處斬于軍器寺前路, 鐵生斬于堂峴. 移送李壽長, 貞伊, 信月, 順禮, 烈伊等於刑曹, 放送一烈, 李俊一, 玉學臣, 武一等. 遂罷庭鞠.

2) 『승정원일기』(권 400) 1701년(숙종 27) 10월 12일.

○ 禁府, 謀逆罪人雪春母同生禮仁, 珍島郡, 貴山, 長興府爲奴婢定屬, 罪人時英母同生淑伊, 巨濟縣, 尙烈, 熊川縣爲奴婢定屬, 時英同姓三寸叔韓斗齡, 康津縣流三千里安置, 罪人淑正母子翠容, 南海縣, 墨碩, 大靜縣, 年未滿, 二碩, 旌義縣, 年未滿爲奴婢定屬, 淑正同姓嫡三寸叔安世楨, 機張縣流三千里安置, 淑正同生弟末正, 蔚山府爲奴婢定屬, 罪人丑生同生已生, 光陽縣, 已英, 寶城縣, 後先, 穩城府爲奴婢定屬, 丑生同姓三寸叔二俊, 光陽<縣>, 時迪, 泗川縣, 永贊, 興海郡, 四尙, 鏡城府, 五尙, 樂安郡, 順貞, 金海府, 竝只流三千里安置, 罪人者斤禮女七月? 者斤禮子婦禮伊, 昆陽郡, 者斤禮同生靛同, 固城縣爲奴婢定屬, 以上緣坐.

* 참고

1) 『숙종실록』(권 35) 1701년(숙종 27) 9월 27일.

○ (判義禁府事) 李畬曰: “文案中神堂事爲重, 而罪人抵賴不肯服. 須待取服, 可以決處, 而昨承下教, 臣民之心, 當復如何? 第咀呪之獄, 自古難明, 殿下必當詳審, 俾無復悔, 而不見其端緒, 徑下備忘, 乃有莫大之處分, 實爲輕遽耳.” 都承旨李塾曰: “殿下處分, 國家

一切之法也，大臣筭陳，十分善處之意也。爲世子而思之，則母雖得罪於君父，人子情理之罔極，當如何也？大臣所證，雖不十分襯當，其言出於血誠，宜從之。”上竝不答。以其筭還上，遂賜批曰：“仍寢勿行之說，出於大臣，實涉未安。”上命拿巫女【太子房。】子壽長以至問之，對以：“母生時，乙亥年張希載妾淑正及稱以市上水賜者同來，以綿紬及米，禱于神堂。是後每歲節日，以飯祈之，丁丑以後，每月設飯。己卯正月母死，有一巫，稱以聖人房，自西江來處俺家，其名固不知，其子名順興也。自禧嬪房驅逐俺等兄弟，而厥巫設神堂兩處，一則所自主，一則禧嬪房所設，而希載妾與厥巫同在焉。”問巫女【太子房。】之女貞，【一字名。】所對略與壽長同。以時英言，問一烈，對曰：“床卓等物，俺果持往于巫女所。此禧嬪所使，而只以俺有沈痼之疾，故冀其祈禱有應，非有他意也。”時淑正已囚于內司獄，以壽長所言者，拿而問之，對曰：“雪香要使俺往來太子房，故從之。所謂太子房，爲禧嬪禳厄，或設神祀，或燃燈，丑生嘗至焉。戊寅秋，上候未寧，禧嬪以命銀【以銀祈禱命故曰命銀。】禱之，及太子房死，前所排設之物，多火之。所謂萬命帝釋，【萬命帝釋，巫女所祝神號。】移于禧嬪本宮，而他巫【所謂順興之母。】行神祀，禧嬪房以銀百兩，與太子房之夫，而賣其家處他巫，非奪而與之也。”命拿巫女五禮以問之，卽壽長所謂順興之母也。對曰：“本以西江船人之妻，夫死無所依，往接太子房，前年六月，一行神祀而已。希載妾，雖或往來，既不熟其面，寧與之相知，而祈禱一事，亦所不知也。”乃命五禮與淑正，壽長對辨，淑正，壽長皆曰：“五禮實主祈禱。”遂刑訊，五禮乃曰：“自甲戌，希載妾與大水賜頭白者，同行神祀，每時節亦禱之，不過冀國家太平。所與共事者，絃手【俗以助巫女爲神祀者爲絃手。】者斤女，【一人名。】所謂神仙房【巫女之號。】者，方主祈禱。此人與希載妾及者斤禮，嘗祝張大將妹爲中殿矣。”以五禮言，刑訊壽長，未準一次，壽長曰：“上年七八月間，順興之母，與韓尙宮【時英。】車姓宮人，【丑生。】設新祀甚頻，每祀，順興之母，爲佩弓矢，作樂而言曰：‘吾將持閔中殿，入于鐵網中。’仍以矢亂射，大呼如霹靂曰：‘吾射閔中殿，已投井中。’仍言：‘張中殿，不久復位，使道匪久越海而來。’所謂使道，卽指希載也。又曰：‘今月晦間，不殺中殿，來月晦間，必殺之。’張家奴玉姓，李姓者及正月【婢名。】之母龜山【奴名。】之妹，皆知之。”獻納魚史徽論曰：“英淑正刑，出於特教，而第其斷案，只是不少懲畏等數句語而已，其在獄體，極爲疎漏，居出納之地者，旣無啓稟之舉，有司之臣，亦不鉤問得情。只以備忘文字，草草取招，殊失重辟結案之體，請當該承旨及刑曹堂上，竝從重推考。”從之。

28. 오시복(吳始復)

- 신분: 관리(호조판서)
- 유배 연월: 1702년(숙종 28) 5월 14일.
- 이배 연월: 1712년(숙종 38) 5월 13일(강진).
- 사유: 정치 변동(장희빈 복위 기도)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6) 1702년(숙종 28) 5월 14일.

○ 吳始復 大靜縣絕島圍籬安置. 諫院纔停始復更鞫之啓故也.

2) 『승정원일기』(권 404) 1702년(숙종 28) 5월 15일.

○ 禁府, 南九萬牙山縣, 柳尙運稷山縣, 中途付處.吳始復, 大靜縣絕島, 圍籬安置. 啓.

3) 『숙종실록』(권 51) 1712년(숙종 38) 5월 13일.

○ 引見大臣及禁府, 刑曹堂上, 疏放罪人. 命金春澤放送, 金泰潤減等, 吳始復出陸撤圍籬. 刑曹罪人得放者六七人.

4) 『승정원일기』(권 468) 1712년(숙종 38) 5월 13일.

○ 泰采, 讀吳始復罪名, 四行餘缺配陸地, 實爲聖度寬容之道矣. … 上曰, 圍籬年久, 則撤籬者有之, 吳始復之絕島荇棘, 已過十年, 出陸撤圍籬, 可也.

5) 『숙종실록』(권 51) 1712년(숙종 38) 5월 20일.

○ (趙)泰采以圍籬罪人吳始復, 移配咸平, 道里既近, 且其曾前所莅之邑, 請改定配所, 上許之. 後始復, 移配康津.

6) 『승정원일기』(권 468) 1712년(숙종 38) 5월 21일.

○ 李東皐, 以義禁府言啓曰, 今日引見時, 安置罪人吳始復配所改定事, 定奪矣. 以康津

縣改付標以入，而下去都事處，以此發關，分付，何如？傳曰，允.

7) 『승정원일기』(권 469) 1712년(숙종 38) 7월 3일.

○ 李世最，以義禁府言啓曰，本府都事李世鴻，以大靜縣圍籬安置罪人吳始復出陸移配事，下去濟州，其越海之行，遲速難期當此鎮日開坐之時，不可無變通之道.都事李世鴻，令該曹依近例，閑官換差，何如？傳曰，允.

8) 『숙종실록』(권 54) 1713년(숙종 39) 11월 10일.

○ 以湖南飢凶，移配羅州定配罪人林泓于慶尙道 南海縣，康津安置罪人吳始復于寧海府.

29. 오석하(吳碩夏)

- 신분: 관리(성균관 직강)
- 유배 연월: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사망 연월: 1707년(숙종 33) 8월 20일.
- 사유: 범죄(과거 부정)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8)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司諫金相稷, 獻納尹憲柱, 停科獄還收啓, 禁府遂決遣諸囚. 宋晟 濟州, 李聖輝 羅州智島, 鄭順億 黑山島, 李秀哲 康津 古今島, 李道徵 興陽 鹿島, 朴泰晦 珍島, 朴弼渭 金甲島, 金麟至 順天 防踏, 吳碩夏 大靜, 洪受禹 巨濟, 閔時俊旌義, 竝爲奴定配. 識者歎曰: “科賊生出獄門, 國無刑矣.”

2) 『승정원일기』(권 414) 1703년(숙종 29) 10월 14일.

○ 禁府, 宋晟濟州牧, 李聖輝羅州牧智島, 吳碩夏大靜縣, 洪受禹巨濟縣, 金麟至順天府防踏鎮, 李秀哲康津縣古今島, 李道徵興陽縣鹿島, 朴泰晦珍島郡, 鄭順億羅州牧黑山島, 閔時俊旌義縣, 朴弼渭珍島郡金甲島, 爲奴定配. 啓.

3) 『승정원일기』(권 415)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禁府, 宋晟·李道徵大靜縣, 李聖輝·李秀哲·朴泰晦濟州牧, 吳碩夏·洪受禹·鄭順億·閔時俊黑山島, 金麟至·朴弼渭旌義縣, 爲奴改配, 洪時紀巨濟縣, 愼之逸南海縣, 趙衛漢興陽縣, 減死定配, 柳渭光陽縣, 邊遠定配. 啓.

4) 『승정원일기』(권 415) 1703년(숙종 29) 11월 19일.

○ 禁府啓曰, 罪人愼之逸·洪時紀·趙衛漢等配所單子, 旣已啓下, 故發配次放送矣. 臺諫, 方以更加嚴問依律定罪, 論啓, 押去羅將, 姑勿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禁府謄錄 又啓曰, 科獄罪人配所, 依榻前定奪, 纔已改定矣. 其中黑山島爲奴罪人吳碩夏, 家在羅州云,

黑山島，亦是羅州之地，則不可定配於所配之邑。以前配大靜縣，仍定配所，元單子中，改付標以入之意，敢啓.傳曰，知道.禁府謄錄

5) 『승정원일기』(권 415) 1703년(숙종 29) 11월 21일.

○ 禁府，李文興，楊州延曙驛徒三年定配，科獄罪人吳碩夏，大靜縣仍配.啓.

6) 『승정원일기』(권 437) 1707년(숙종 33) 8월 20일.

○ 濟州牧使書目，定配罪人吳碩夏物故事.

30. 이도징(李道徵)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과거 부정)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4) 1700년(숙종 26) 1월 20일.

○ 初, 領議政徐文重言: “順億所犯既重, 不無中路逃走之慮. 請令捕廳軍官, 偕館人知面者, 下送捉來矣.” 順億因其妹夫鄭守日之密通, 果爲逃躲, 命捕廳譏捕捉來. … 道徵供曰: “推見試券, 則五戾純六賦, 卽吾所製, 皮封亦所自書, 第朱草胡亂, 不能識別, 而直以次上書之, 故問曰: ‘此易書何至如此?’ 順億曰: ‘此必筆才未熟書吏之所書, 從容改書無妨. 卽具朱墨, 紙筆以給’ 云, 信聽其說, 親自謄書矣. 守日下來之後, 順億乃請試券, 填字改書, 驚駭不聽, 適吾出去之際, 潛出試券, 浮去外面, 改五戾爲九天, 驚懼還奪, 將欲自首, 渠百般哀乞, 故拘於顏情而未果” 云. 上以半吐半吞, 尤極痛惡, 特命各別嚴刑.

2) 『숙종실록』(권 38)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司諫金相稷, 獻納尹憲柱, 停科獄還收啓, 禁府遂決遣諸囚. 宋晟 濟州, 李聖輝 羅州智島, 鄭順億 黑山島, 李秀哲 康津 古今島, 李道徵 興陽 鹿島, 朴泰晦 珍島, 朴弼渭 金甲島, 金麟至 順天 防踏, 吳碩夏 大靜, 洪受禹 巨濟, 閔時俊 旌義, 竝爲奴定配. 識者歎曰: “科賊生出獄門, 國無刑矣.”

3) 『승정원일기』(책 414) 1703년(숙종 29) 10월 14일.

○ 禁府, 宋晟濟州牧, 李聖輝羅州牧智島, 吳碩夏大靜縣, 洪受禹巨濟縣, 金麟至順天府防踏鎮, 李秀哲康津縣古今島, 李道徵興陽縣鹿島, 朴泰晦珍島郡, 鄭順億羅州牧黑山島, 閔時俊旌義縣, 朴弼渭珍島郡金甲島, 爲奴定配. 啓.

4) 『승정원일기』(책 415)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禁府, 宋晟·李道徵·大靜縣, 李聖輝·李秀哲·朴泰晦濟州牧, 吳碩夏·洪受禹·鄭順億·閔時俊黑山島, 金麟至·朴弼渭旌義縣, 爲奴改配, 洪時紀巨濟縣, 慎之逸南海縣, 趙衛漢興陽縣, 減死定配, 柳渭光陽縣, 邊遠定配. 啓.

31. 송성(宋晟)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703년(숙종 29) 10월 12일(제주목)/ 1703년(숙종 29) 11월 16일(대정현).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과거 부정)

● 관련 사료

1) 『숙종실록』(권 33) 1699년(숙종 25) 11월 26일.

○ 禁府按科獄. 李聖輝供曰: “自幼著工於詞賦, 近又從事於駢儷, 驟看表題, 頗似順易, 故初以駢儷構草, 先書數句於試紙矣, 再三諦看, 所作不能滿意, 旋即以賦改述, 書諸原篇, 所寫表題, 卽又抹去, 移用於裨篇. 或者同場之人, 只見其初頭製而未知其末抄改寫, 輾轉訛誤, 馴致人聽之訝惑耶? 改寫賦詞之狀, 同坐接近之人, 亦有目覩者, 至勸以舍表取賦, 至於裨篇得中之說, 尤非意念之所到. 旣以詞賦書諸原篇, 得以參榜, 則豈有可隱之情, 而假托裨篇, 對人說出哉?” **宋晟供曰**: “凡科場收券作軸之際, 例多紛沓易次之患, 故先呈者或編於後, 後呈者或編於先. 及其榜出, 推見試券, 則每多有相左之弊. 今此諫臣之所謂目覩云者, 未知有何所據, 而深夜火光之下, 何能的知其魚有鳳之呈卷, 必在於三露乎? 其日畢寫試券, 猶慮有未盡處, 與儕友商確點竄之際, 自致夜深, 收券已多, 至於騷擾之境, 自呈試券, 而亦未能的知其入於某軸, 則所謂同場舉子, 未知何人, 而何能舍己之事, 審察他人呈卷之早晚乎?”

2) 『숙종실록』(권 38) 1703년(숙종 29) 10월 12일.

○ 司諫金相稷, 獻納尹憲柱, 停科獄還收啓, 禁府遂決遣諸囚. **宋晟 濟州**, 李聖輝 羅州智島, 鄭順億 黑山島, 李秀哲 康津 古今島, 李道徵 興陽 鹿島, 朴泰晦 珍島, 朴弼渭 金甲島, 金麟至 順天 防踏, 吳碩夏 大靜, 洪受禹 巨濟, 閔時俊旌義, 竝爲奴定配. 識者歎曰: “科賊生出獄門, 國無刑矣.”

3) 『승정원일기』(권 414) 1703년(숙종 29) 10월 14일.

○ 禁府, 宋晟濟州牧, 李聖輝羅州牧智島, 吳碩夏大靜縣, 洪受禹巨濟縣, 金麟至順天府防踏鎮, 李秀哲康津縣古今島, 李道徵興陽縣鹿島, 朴泰晦珍島郡, 鄭順億羅州牧黑山島, 閔時俊旌義縣, 朴弼渭珍島郡金甲島, 爲奴定配. 啓.

4) 『승정원일기』(권 415) 1703년(숙종 29) 11월 16일.

○ 禁府, 宋晟·李道徵大靜縣, 李聖輝·李秀哲·朴泰晦濟州牧, 吳碩夏·洪受禹·鄭順億·閔時俊黑山島, 金麟至·朴弼渭旌義縣, 爲奴改配, 洪時紀巨濟縣, 慎之逸南海縣, 趙衛漢興陽縣, 減死定配, 柳渭光陽縣, 邊遠定配. 啓.

32. 김천당(金千堂)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20년(경종 즉위) 7월 29일 이전.
- 감등 연월: 1725년(영조 1) 3월 25일.
- 사유: 범죄(살옥<殺獄>, 살인 사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524) 1720년(경종 즉위) 7월 29일.

○ 讀濟州定配秩大靜徒年罪人愼戒武文案.上曰, 仍.讀大靜徒年罪人陳男文案.上曰, 仍.
讀大靜徒年罪人金千堂文案.上曰, 仍.

2) 『승정원일기』(권 539) 1722년(경종 2) 4월 26일.

○ 刑曹參判李森持濟州定配秩以進, 先以徒年秩讀達, 讀大靜縣眞男伊重複賣田罪, 右議政崔錫恒曰, 此是不大段之事, 庚子定配, 將滿三年, 放之, 何如? 上曰, 唯.森讀愼戒武偽造文記, 盜賣上典田罪曰, 與眞男一樣, 似放矣.上曰, 唯.森以流三千里秩進, 讀大靜縣金千堂罪曰, 殺獄當仍矣.上曰, 唯.森以減死秩進, 讀大靜懸韓致權舊殿牌掘移罪曰, 罪名至重, 當仍乎? 上曰, 唯.

3) 『승정원일기』(권 589) 1725년(영조 1) 3월 25일.

○ 金千堂 減等.

33-34. 신계무(愼戒武), 진남(陳男)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20년(경종 즉위) 7월 29일 이전.
- 해배 연월: 1722년(경종 2) 4월 26일.
- 사유: 범죄(토지 사기)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524) 1720년(경종 즉위) 7월 29일.

○ 讀濟州定配秩大靜徒年罪人愼戒武文案.上曰, 仍.讀大靜徒年罪人陳男文案.上曰, 仍.讀大靜徒年罪人金千堂文案.上曰, 仍.

2) 『승정원일기』(권 539) 1722년(경종 2) 4월 26일.

○ 刑曹參判李森持濟州定配秩以進, 先以徒年秩讀達, 讀大靜縣眞男伊重複賣田罪, 右議政崔錫恒曰, 此是不大段之事, 庚子定配, 將滿三年, 放之, 何如? 上曰, 唯. 森讀愼戒武偽造文記, 盜賣上典田罪曰, 與眞男一樣, 似放矣. 上曰, 唯. 森以流三千里秩進, 讀大靜縣金卞堂罪曰, 殺獄當仍矣. 上曰, 唯. 森以減死秩進, 讀大靜懸韓致權舊殿牌掘移罪曰, 罪名至重, 當仍乎? 上曰, 唯.

3) 『승정원일기』(권 543) 1722년(경종 2) 8월 2일.

○ 趙景命, 讀濟州牧使崔浣狀啓, 大靜縣徒年罪人至男·愼戒武等放送事.踏啓字. 崔浣狀啓, 以世弟冊封赦, 放未放秩定配罪人年月別案.踏啓字. 訓練都監啓曰, 都監郎廳有闕, 代前縣監崔尙震, 已爲啓下, 而方在罷散中, 時無職名, 依例付軍職, 冠帶常仕事. 上曰, 允. 備邊事啓曰, 本司郎廳具聖任, 今已准朔, 六品遷轉, 守令除授, 奉承傳施行事. 上曰, 允. 戶曹回啓, 忠州等各邑女人九十五歲·六歲人等, 衣資食物題給, 金光運祖母申氏, 米二石·太二石·紬二匹·木三匹題給事.踏啓字. 麟蹄幼學金禹度父震龍一百六歲人, 食物米二石·太二石題給事.踏啓字.

35. 신임(申鉉)

- 신분: 관리(사직)
- 유배 연월: 1722년(경종 2) 4월 2일.
- 해배 연월: 1725년(영조 1) 1월 12일.
- 사유: 봉당(신임사화 노론 탄압 항의)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7) 1722년(경종 2) 4월 2일.

○ 司直申鉉上疏. 略曰: 得聞鞫獄初設, 金吾之官, 出於罪囚之口, 进出待命, 而鞫廳不爲請拿, 移鞫本府, 事異常規, 按獄大臣, 又爲待命. 鞫事嚴祕, 未知曲折, 而雖以承宣啓辭中不忍聞之說觀之, 緊出罪人之招, 可知矣. 辨正虛實, 在所不已, 而喉司, 臺閣, 不思鞫事之嚴重, 至請其敦勉完獄. 罪人一斃之後, 援引諸臣, 雖欲辨明, 更無其路. 在昔名臣, 碩輔, 枉被誣陷, 一辨即脫, 自同平人. 此非但重獄體, 實出伸冤枉之意, 而今日三司, 無一言爭執. 惟聖明嚴斥, 以礪君臣之義. 仍伏念春宮屢遭罔極之變, 幸賴殿下孝友之德, 慰安之道, 無不用極, 臣民孰不欽頌? 此後保護之道, 在於隄防邪枉之嚴云. 政院啓曰: “領, 右相來詣賓廳請對矣, 申鉉疏以鞫事, 侵斥大臣, 故還爲出去矣.” 上答以知道. 大司諫李師尙請對, 入侍于進修堂, 啓曰: “倫綱斃絕, 亂賊橫恣, 謀弑之逆, 出於權門. 爲今日臣子者, 當以食肉寢皮爲期, 申鉉疏, 略無驚動於謀弑之亂逆, 乃以逆豎亂供, 欲爲擠陷朝紳, 沮敗獄事之計. 噫! 凶徒, 逆黨, 無非渠之黨與, 則唯恐端緒之畢露, 欲緩市朝之顯戮, 陰藉賊供, 力沮大獄, 欲絕按治之路, 顯有和應之跡. 上自大臣, 下至三司, 一筆勾斷, 必欲空國乃已, 苟究其心, 便一白望. 忘君黨逆之罪, 不可不嚴懲, 請申鉉減死絕島圍籬安置.” 上久不答, 承旨黃爾章, 與師尙力爭之, 上始允之. 師尙申前啓, 不從.

2) 『승정원일기』(권 539) 1722년(경종 2) 4월 2일.

○ 初昏, 四月初二日 上御進修堂. 大司諫李師尙, 請對入侍時, 大司諫李師尙, 同副承旨黃爾章, 假注書俞彥通, 記事官金岱·趙顯命入侍. 李師尙所啓, 臣於司直申鉉之事, 不勝萬萬駭痛, 敢來請對矣. 鉉疏既有侵斥三司之語, 以體例言之. 臣當引避之不暇, 而鞫獄中

輟，事關宗社，何暇顧恤私義，不爲登時入對乎？睦虎龍，以凶黨之謀害聖躬上變，而罪囚白望，敢生緩死之計，乃以凶悖無倫之言，誣逐按獄諸臣，陰兇情節，昭不可掩。爲今日殿下之臣者，所當抹血飲泣，汲汲請討，而鉉敢生沮敗鞠事之計，情狀誠爲絕痛，臣當以啓辭繼陳矣。啓辭曰，倫綱斃絕，亂賊橫恣，謀弑君父之逆，遽出於權凶之門牆。按治窮覈，快正王法，少洩神人之憤，此固頃刻不可緩者，而爲今日殿下之臣子者，苟知北面之義，惟當腐心切齒，必以食肉寢皮爲期，而乃者司直申鉉，投進一疏，片言半辭，略無驚動於謀弑之凶逆，乃以被告逆囚之驅逐獄官，緩獄延死之亂供，欲爲擠陷朝紳，沮敗鞠事之計。噫，凶徒逆黨，莫非渠之黨與，則惟恐端緒之畢露，欲緩市朝之顯戮者，計無所不至，陰藉賊供，力沮大獄，欲絕按治之路，顯有和應之跡，上自大臣，下至三司，一筆勾斷，意在迫逐，必欲空國乃已。苟究其情，便一白望。其忘君父黨惡逆之罪，不可不嚴加懲討，請行司直申鉉，減死絕島，圍籬安置。

3) 『경종실록』(권 12) 1723년(경종 3) 5월 13일.

○ 上御宣政殿前廡，行疏決。命申鉉出陸撤籬，趙尙綱，任陞，金有慶，趙榮福，俞崇，尹廷舟量移，尹在重，權鷹，俞夏基減等，具鼎勳，金令行，李邦華，金昌發放送。時囚罪人李壽民減死，絕島定配，又有刑曹輕囚及諸道流配罪輕者。

4) 『승정원일기』(권 554) 1723년(경종 3) 5월 13일.

○ 判義禁沈檀讀申鉉罪。右議政崔錫恒曰，申鉉之疏，專攻大臣。臣於此事，不無嫌端，而當此詢問之下，何敢不盡所懷乎？鉉今年八十五歲，便是九耄。悼與耄，雖十惡大罪，亦有容恕之道。量移減等，雖不敢請，出陸撤籬，似爲得宜矣。檀曰，大臣之言，以其年高也。錫恒曰，出陸乎？上曰，出陸。同義禁金一鏡曰，出陸則撤籬乎？上曰，唯。

5) 『승정원일기』(권 554) 1723년(경종 3) 5월 17일.

○ 李翊漢，以義禁府言啓曰，今番疏決時，濟州牧大靜縣圍籬安置罪人申鉉，出陸撤籬，固城縣遠竄罪人尹廷舟，安陵縣遠竄罪人趙尙綱，咸從府遠竄罪人任陞，肅川府遠竄罪人金有慶，善山府遠竄罪人趙榮福，康津縣極邊遠竄罪人俞崇，量移事，命下矣。尹廷舟忠清道舒山郡，趙尙綱牙山縣，金有慶洪陽縣，俞崇清州牧量移，而依前罪目，發遣府書吏，仍

令押付配所, 申鉉出陸撤籬, 任陞·趙榮福量<移>之命, 臺諫方以還收論啓, 姑不得舉行之意, 敢啓.傳曰, 知道.

6) 『승정원일기』(권 583) 1725년(영조 1) 1월 7일.

○ 蔡彭胤啓曰, 被謫罪人放送量移減等出陸定配傳旨, 今方書入, 絶島圍籬安置罪人申鉉, 所當一體書入, 而臺諫方以出陸還收論啓, 不得循例捧傳旨之意, 敢啓.傳曰, 知道.

7) 『승정원일기』(권 584) 1725년(영조 1) 1월 11일.

○ 傳于尹鳳朝曰, 申鉉出陸, 向日臺臣, 雖請還寢, 今之放送, 與此有異, 不可以連啓, 有所持難, 特爲放送事, 分付.

8) 『승정원일기』(권 584) 1725년(영조 1) 1월 12일.

○ 又以義禁府意啓曰, 大靜縣圍籬安置罪人申鉉放送, 承傳啓下矣, 申鉉放送事, 分付本道之意, 敢啓.傳曰, 知道.

36. 학손(鶴孫)

- 신분: 노비
- 유배 연월: 1722년(경종 2) 5월 4일.
- 해배 연월: 1725년(영조 1) 3월 25일.
- 사유: 연좌(신임사화 연루 백흥석<白興錫>의 노비)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7) 1722년(경종 2) 4월 16일.

○ 鞠廳囚春業, 河白, 鶴孫等. 皆白望³⁾奴婢, 銀貨出入時, 使喚者也.

2) 『경종실록』(권 8) 1722년(경종 2) 5월 4일.

○ 安置趙聖復於旌義, 加圍籬尹廷舟於固城, 配玄德明於羅州, 洪哲人於渭原, 金壽天於濟州, 鶴孫於大靜, 李尙建於三水.

3) 『승정원일기』(권 540) 1722년(경종 2) 5월 2일.

○ 右議政崔錫恒曰, 鶴孫, 本以白望之奴, 所謂孝敬橋喪人, 累次嚴刑, 終不直告, 情狀絕痛, 而此非死罪, 絕島定配, 何如? 判義禁沈檀曰, 白望之奴也, 使喚事耳. 領議政趙泰耆曰, 以望之奴, 追隨謀議, 豈曰不與謀乎? 白望往來之處, 終不直告, 故刑推累次矣. 同義禁金一鏡曰, 累變辭, 故累刑矣, 此是白望之奴也. 錫恒曰, 不可置之京輦, 絕島定配, 何如? 泰耆曰, 此是凶逆, 或邊遠或絕島, 何如? 錫恒曰, 此逆賊惡種, 絕島定配, 何如? 上曰, 唯.

4) 『영조실록』(권 4) 1725년(영조 1) 3월 25일.

○ 判義禁洪致中讀疏決秩: “朴熙晉, 朴長潤, 李濟, 梁聖揆, 尹筵, 李廣道, 李景說, 金始

3) 백망(白望): 백흥석(白興錫). 육현(陸玄)의 옥사에 연루되어 사형됨(『경종실록』〈권 7〉, 1722년〈경종 2〉 4월 13일). 육현은 술사(術士)로 노론 대신 김창집(金昌集)의 밀객(密客)이었는데, 틈이 생겨 배반하고 떠난 뒤 포도대장 이홍술(李弘述)이 김창집의 사주를 받고 죽인 뒤 거짓으로 옥안(獄案)을 만들었다(『경종실록』〈권 2〉, 1720년〈경종 즉위〉 9월 21일).

燁, 趙翼命, 趙鎮禧, 李顯章, 權益淳, 呂善長, 尹游, 李承源, 李師尙, 申潤廷, 河潤遠, 朴弼夢, 李眞儒, 李明誼, 鄭楷, 尹聖時, 徐宗厦, 尹就商, 李重述, 申慶濟, 李公胤, 李巨源, 李眞淳, 權益寬竝仍, 金壽天, 鶴孫, 朴厚應, 皇甫謙, 李志達, 黃尙鼎, 李命龍, 徐允興, 洪聖疇, 文德麟, 洪彥度, 金時鼎, 李垞, 吳命峻, 李鳳鳴并放.”

5) 『승정원일기』(권 589) 1725년(영조 1) 3월 25일.

○ 鶴孫, 上曰, 飜案後, 非所可論, 放.

6) 『승정원일기』(권 590) 1725년(영조 1) 4월 2일.

○ 金樺, 以義禁府言啓曰, 疏決單子中, 朔州府定配罪人姜宰承, 龜城府定配罪人邊玉明, 減等, 北青府遠配罪人權高, 量移, 巨濟府絶島定配罪人皇甫謙·洪聖疇, 靈巖郡定配罪人徐命伯, 利城縣定配罪人任勛, 安東府定配罪人李志達, 臨陂縣定配罪人黃尙鼎, 全州府出陸罪人李命龍, 昆陽郡定配罪人徐允興, 熊川縣定配罪人金時鼎, 古阜郡定配罪人李圀春, 會寧府定配罪人文德麟, 密陽府定配罪人洪彥度, 白川郡量移罪人李悟, 南海縣定配罪人李垞, 珍島郡定配罪人李星彩, 端川府定配罪人金弘績, 淳昌郡定配罪人金定五, 陽德縣定配罪人李鳳鳴, 瑞山郡付處罪人吳命峻, 靈山縣安置罪人沈尙友, 昌原府安置罪人沈尙奎, 濟州牧減等徒配罪人金壽天, 大靜縣減等徒配罪人鶴孫, 義州府減等徒配罪人一業, 高敞縣減等徒配罪人朴厚應, 抱川縣徒配罪人孫碩祖, 積城縣徒配罪人李相晟等, 竝放, 罪人金龍澤, 緣坐爲奴婢安置罪人泗川縣淑正·文曾·五愛, 河東府日愛, 長鬐縣光澤·碩曾, 罪人李天紀緣坐爲婢罪人樂安郡任, 罪人白望緣坐爲奴婢安置罪人興海郡允致·尙愛, 吉州牧彝得, 寧海府尙輝·阿只, 罪人鄭麟重緣坐爲奴婢安置罪人慶源府俊得·彥得·敏得·慶任, 穩城府瑑·瑛·球, 延順·金·戊應, 慶興府夔重, 機張縣奎重, 光陽縣爾瑗, 東萊府琛·琰, 罪人池烈緣坐爲奴婢安置罪人理山府昌龜·美竹·蓮伊, 博川郡甘麻·正儉同·古音蓮, 龍岡縣溟達·德龜, 雲龜, 甑山縣二達·騰龜·英惠, 价川郡弘龜·聖龜·舜龜, 興海郡振龜等, 放, 籍沒還收時囚罪人李根放送事, 付標啓下矣. 姜宰承·邊玉明等減等, 其餘罪人等放送事, 分付各道, 權高, 因前罪目, 忠清道恩津縣量移, 而依例發遣府羅將, 因令押送配所, 籍沒還收事, 令各該衙門, 奉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37. 임창(任敞)

- 신분: 유생(전 제주목사 임홍망⁴⁾ 조카)
- 유배 연월: 1722년(경종 2) 7월 25일.
- 나국 연월: 1723년(경종 3) 3월 22일.
- 사유: 건의 불발(장희빈 일파 비판 상소)
- 관련 사료

1) 『경종실록』(권 9) 1722년(경종 2) 7월 23일.

○ 憲府【掌令尹大英, 持平李普昱.】申前啓, 不從. 又啓曰: “昔年任敞投進凶疏, 其初呈未徹者, 賊心逆腸, 有浮於志述, 論其負犯, 萬戮猶輕, 而其時喉司, 欲掩其跡, 彌縫出給, 改構以呈. 雖其已徹者, 犯分悖義, 專無顧藉, 原其情狀, 極爲妖惡, 請絕島定配.” 上不從.

2) 『경종실록』(권 9) 1722년(경종 2) 7월 25일.

○ 憲府申前啓, 不從, 任敞絕島定配事, 從之.

3) 『승정원일기』(권 542) 1722년(경종 2) 7월 25일.

○ 府前啓, 請寢頤命·昌集收孥籍產還收之命事. 請寢健命鞍馬田民賜給之命事. 請李喜朝極邊遠竄事. 請任敞絕島定配事. 措語俱見上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4) 『승정원일기』(권 552) 1723년(경종 3) 3월 2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絕島定配罪人任敞, 亟正邦刑事, 傳旨啓下矣. 依例發遣府都事, 拿來, 何如? 傳曰, 允.

5) 『승정원일기』(권 555) 1723년(경종 3) 6월 3일.

○ 俞命凝, 又以禁府言啓曰, 亟正邦刑罪人任敞行刑事, 承傳啓下矣. 卽當舉行, 而法典內

4) 임홍망(任弘望): 제주목사 재임 기간 1680년(숙종 6) 8월~1681년(숙종 7) 12월.

夜未明雨未晴，勿行死刑云，待晴明舉行之意，敢啓。傳曰，知道。

6) 『경종실록』(권 12) 1723년(경종 3) 6월 4일.

○ 誅任啟. 啟自竄所拿至. 禁府結案取招，拒逆不着. 禁府啓請嚴刑取招，判義禁沈檀，疏請依尹志述例，直爲正刑. 戶曹判書李台佐自上曰：“罪人之必待結案後正刑，卽三尺常典也. 一時特教，不可引例，以啓無窮之弊. 宜令王府嚴訊，待其結案正法.” 上從之. 判義禁沈檀，復請對奏曰：“向來凶逆，醞釀禍機，凡幾年所，而凶言，逆說，啟賊實爲倡首. 其初疏有臣子不忍聞之說，其時凶黨，猶不敢捧入，仍爲掩匿，而有口皆傳，有耳皆聞. 其後刪改之疏，亦是不道罔測之言，貫盈之惡，比健賊無輕重. 健賊伏法，不待結案，則何獨於啟賊持疑哉? 啟年七十，一向加刑，必致徑斃. 先朝趙嗣基，直爲正刑，在近事有志述，健命. 蓋罪在大辟，昭著無餘，則不拘結案一節. 請直爲正法.” 上亦從之. 承旨李翊漢曰：“李台佐請待結案而正法，既已蒙允，今因沈檀之請對，又命正刑，不但處分顛倒，實關後弊. 請議大臣處之.” 檀曰：“不必議大臣. 若不直爲正刑，則此後忍杖不服者，必多矣.” 翊漢又爭之，檀力請直斷，上曰：“依爲之.” 同義禁李明彥疏論，上答曰：“判義禁筵奏得宜. 更無可問之端矣.” 【史臣曰：“罪固關於惡逆，法不可以輕改. 夫結案取招之後，始爲正法，此我國不易之典也. 尹志述之特命正刑，亦是法外，而當時諸臣，不能爭之，其後健命之菟斬，啟之直斬，以快一時，而啓日後無窮之弊，可勝歎哉?”】

38. 서종하(徐宗廈)

- 신분: 관리(집의)
- 유배 연월: 1725년(영조 1) ?월~1727년(영조 3) 10월 6일(무안).
- 환배 연월: 1728년(영조 4) 6월 14일~1729년(영조 5) 9월 28일.
- 이배 연월: 1729년(영조 5) 9월 28일(정의)~1730년(영조 6) 4월 3일(나국).
- 사유: 정권 변동(김일경 소하<疏下> 6적<박필몽, 이명익, 이진유, 윤성시, 정해, 서종하>)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2일.

○ 命一鏡孥籍, 依虎龍例舉行, 敎曰: “一鏡事, 不忍汚口, 而於國事何等說, 尤極凶悖. 其擥凶之心得成, 則謂之際遇, 不合於心, 則如此陳疏, 陰凶情節, 卽此可知.” 仍以冀, 顯等語陰慘, 命一鏡辛丑疏下李眞儒, 朴弼夢, 李明誼, 鄭楷, 尹聖時, 徐宗廈削奪官爵, 門外黜送.

2)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25일.

○ 義禁府啓: “朴弼夢配茂長, 李眞儒 羅州, 李明誼 淸道, 鄭楷 永川, 尹聖時 密陽, 徐宗廈 安陰.”

3) 『영조실록』(권 13) 1727년(영조 3) 10월 6일.

○ 命李眞儒, 朴弼夢, 尹聖時, 鄭楷, 徐宗廈, 李明誼出陸, 朴長潤減等量移. 從領府事李光佐, 判義禁沈壽賢, 吏曹判書吳命恒之請也. 蓋眞儒等六人, 同參賊鏡之疏者也, 長潤, 請改明陵誌文者也. 時壽賢奏曰: “臣頃按一鏡獄事矣. 其時只以敎文及疏語爲問目, 而辛丑疏則元不舉論. 只以一時之同疏, 罪其疏下, 則此甚不然. 況其疏語, 豈有可罪之事乎? 其時搢紳疏之初出也, 無職前銜, 皆已同參. 臣以其時疏頭, 遭彈下鄉, 他皆四散, 而同參人中在京者, 獨一鏡, 以職秩, 推爲疏頭, 疏亦出自其手. 同參之人, 只是一時聯名而已, 豈可無辨別之道哉?” 命恒進曰: “國有大慶, 且經今日大處分, 竄配未放之類, 似是次第舉行之事. 彼李眞儒, 朴長潤諸人之海島竄棘, 洽滿三年矣.” 上曰: “朴長潤之請改誌文,

不思甚矣. 改撰後事, 何以處之耶? 是甚妄矣.” 光佐繼而請之, 上曰: “當時可參摺紳疏者, 奚但七人而已? 何必與一鏡同事耶? 疏中遺辭, 何乃僭刻耶? 雖不可輕議, 而竄配已三年, 況此國有大慶之日, 不可無分別之道.” 遂命出陸減等. 【李眞儒 羅州, 朴弼夢 茂長, 李明誼 興陽, 尹聖時 靈光, 徐宗廈 務安, 朴長潤 星州.】

4) 『승정원일기』(권 647) 1727년(영조 3) 10월 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今十月初六日, 時任大臣·原任大臣·諸宰三司長官, 引見入侍時, 疏下諸人竝出陸, 朴長潤亦爲一體出陸事, 舉條見上, 命下矣. 靈巖郡楸子島圍籬安置罪人李眞儒, 旌義縣圍籬安置罪人朴弼夢, 興陽縣羅老島圍籬安置罪人李明誼, 濟州牧圍籬安置罪人尹聖時, 大靜縣圍籬安置罪人徐宗廈·南海縣圍籬安置罪人朴長潤, 竝出陸事, 承傳啓下矣. 李眞儒, 全羅道羅州牧, 朴弼夢茂長縣, 李明誼興陽縣, 尹聖時靈光郡, 徐宗廈務安縣, 朴長潤慶尙道星州牧定配所, 竝撤籬出陸,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5) 『승정원일기』(권 663) 1728년(영조 4) 6월 14일.

○ 今日入侍時, 傳曰, 鞠廳罪人鄭思孝, 賊招所引, 卽無可捉之緒, 而以逆賊師寬招辭觀之, 不無可宥之端, 但身爲道臣, 其若自重, 賊何敢藉口乎? 不可無責罰定配. 李光績旣已領軍往赴於官陣, 則賊招援引, 自可脫空, 而但與泛然援引者有間, 其在重鞠體之道, 不可遽釋, 參酌定配. 姜世胤領軍赴官陣, 與光績一樣, 此已有可恕之端? 此曾在庚寅仍科事, 伊時下教曲盡, 則渠何心腸, 隨參逆賊乎? 況不用奸於科場之心, 尤不當作此惡逆, 似當分揀放釋, 而光績旣已定配, 則罰不當低仰, 一體定配. 李燾, 逆賊世樞所引, 俱不緊着, 而甲辰冬逆賊麟佐, 來訪論兵之事, 似涉殊常, 而蓋以一時偶聽, 雖不可斷以知情, 但鞠獄體重, 不可分揀, 參酌定配絕島. 黃沈·吳鵬萬等, 逆賊世樞所引, 雖無着落, 旣曰魁首, 則其在重鞠體之道, 不可放釋, 竝極邊定配. 朴景淳, 逆賊百孝所引, 雖無端緒之可捉, 以逆賊彥良之壻, 留置甥姪德鎮於渠家, 又出賊招, 則不可以其無端而放釋, 參酌定配. 尹聖時, 移囚南間. 李眞儒·徐宗廈等, 竝還發配所. 李衡祥·韓師億·吳命始·權敘經·李喜震·洪命源等, 竝放送.

6) 『승정원일기』(권 663) 1728년(영조 4) 6월 15일.

○ 金漵,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羅州牧出陸罪人李眞儒, 務安縣出陸罪人徐宗廈, 還發配所事, 啓下矣. 依前罪目, 發遣府書吏,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7) 『영조실록』(권 24) 1729년(영조 5) 9월 28일.

○ 命移配李眞儒·尹聖時·徐宗廈于絶島, 掌令金聲發疏言: 一鏡與尙儉締結之狀, 旣已昭著, 則疏下諸人, 自在黜昧難明之中, 固不宜置諸陸地. 況眞儒之捉納萬鼎, 旣在於逆顯兵敗之後, 則其間情節, 尤涉可疑, 請一併絶島梲棘. 上敎曰: “本事旣明白下敎, 則疏下諸人, 不可仍置陸地, 而若復梲棘過矣, 併絶島定配.”

8) 『승정원일기』(권 695) 1729년(영조 5) 10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絶島定配罪人李眞儒·尹聖時·徐宗廈等, 改定配所事, 榻前下敎矣. 右罪人等改定配所, 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9) 『영조실록』(권 25) 1730년(영조 6) 4월 2일.

○ 諫院【大司諫趙錫命, 正言沈星鎭.】申前啓, 不允. 又啓: “逆鏡辛丑之疏, 旣出於締結妖儉, 則同參一疏者, 宜無不知之理. 此嚴鞫之啓, 所以重發也. 今者本院前啓, 不問情節, 徑請正刑, 旣非王者審慎用刑之意, 又非究覈情節, 明示典刑之道. 淺見如此, 不可苟然謄傳. 請命遞斥臣等之職.” 上曰: “正刑與設鞫, 不過五十步百步之間. 以此一着, 有甲乙之議, 予則以爲不是矣.” 命勿辭, 亦勿退待, 及臺臣退出, 特遞其職. 仍命拿鞫李眞儒, 尹聖時, 徐宗廈, 卽逆鏡疏下賊也.

10) 『승정원일기』(권 704) 1730년(영조 6) 4월 3일.

○ 朴乃貞,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絶島定配罪人李眞儒, 濟州牧絶島定配罪人尹聖時, 旌義縣絶島定配罪人徐宗廈, 竝拿來事, 傳旨啓下矣. 依例發遣府都事三員, 拿來, 何如? 傳曰, 允.

39. 이진유(李眞儒)

- 신분: 관리(대사성)
- 유배 연월: 1729년(영조 5) 9월 28일.
- 나국 연월: 1730년(영조 6) 4월 3일.
- 사유: 정권 변동(김일경 소하<疏下> 6적<박필몽, 이명의, 이진유, 윤성시, 정해, 서종하>)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2일.

○ 命一鏡孥籍, 依虎龍例舉行, 教曰: “一鏡事, 不忍汚口, 而於國事何等說, 尤極凶悖. 其擥凶之心得成, 則謂之際遇, 不合於心, 則如此陳疏, 陰凶情節, 卽此可知.” 仍以冀, 顯等語陰慘, 命一鏡辛丑疏下 李眞儒, 朴弼夢, 李明誼, 鄭楷, 尹聖時, 徐宗厦 削奪官爵, 門外黜送.

2) 『영조실록』(권 3) 1725년(영조 1) 1월 25일.

○ 義禁府啓: “朴弼夢配茂長, 李眞儒 羅州, 李明誼 淸道, 鄭楷 永川, 尹聖時 密陽, 徐宗厦 安陰.”

3) 『영조실록』(권 13) 1727년(영조 3) 10월 6일.

○ 命 李眞儒, 朴弼夢, 尹聖時, 鄭楷, 徐宗厦, 李明誼 出陸, 朴長潤減等量移. 從領府事李光佐, 判義禁沈壽賢, 吏曹判書吳命恒之請也. 蓋眞儒等六人, 同參賊鏡之疏者也, 長潤, 請改明陵誌文者也. 時壽賢奏曰: “臣頃按一鏡獄事矣. 其時只以教文及疏語爲問目, 而辛丑疏則元不舉論. 只以一時之同疏, 罪其疏下, 則此甚不然. 況其疏語, 豈有可罪之事乎? 其時搢紳疏之初出也, 無職前銜, 皆已同參. 臣以其時疏頭, 遭彈下鄉, 他皆四散, 而同參人中在京者, 獨一鏡, 以職秩, 推爲疏頭, 疏亦出自其手. 同參之人, 只是一時聯名而已, 豈可無辨別之道哉?” 命恒進曰: “國有大慶, 且經今日大處分, 竄配未放之類, 似是次第舉行之事. 彼李眞儒, 朴長潤諸人之海島竄棘, 洽滿三年矣.” 上曰: “朴長潤之請改誌文, 不思甚矣. 改撰後事, 何以處之耶? 是甚妄矣.” 光佐繼而請之, 上曰: “當時可參搢紳疏

者，奚但七人而已？何必與一鏡同事耶？疏中遣辭，何乃慳刻耶？雖不可輕議，而竄配已三年，況此國有大慶之日，不可無分別之道。”遂命出陸減等。【李眞儒 羅州，朴弼夢 茂長，李明誼 興陽，尹聖時 靈光，徐宗廈 務安，朴長潤 星州.】

4) 『승정원일기』(권 647) 1727년(영조 3) 10월 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今十月初六日，時任大臣·原任大臣·諸宰三司長官，引見入侍時，疏下諸人竝出陸，朴長潤亦爲一體出陸事，舉條見上，命下矣。靈巖郡楸子島圍籬安置罪人李眞儒，旌義縣圍籬安置罪人朴弼夢，興陽縣羅老島圍籬安置罪人李明誼，濟州牧圍籬安置罪人尹聖時，大靜縣圍籬安置罪人徐宗廈·南海縣圍籬安置罪人朴長潤，竝出陸事，承傳啓下矣。李眞儒，全羅道羅州牧，朴弼夢茂長縣，李明誼興陽縣，尹聖時靈光郡，徐宗廈務安縣，朴長潤慶尙道星州牧定配所，竝撤籬出陸，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仍令押送于各其配所之意，敢啓。傳曰，知道。

5) 『승정원일기』(권 663) 1728년(영조 4) 6월 14일.

○ 今日入侍時，傳曰，鞫廳罪人鄭思孝，賊招所引，卽無可捉之緒，而以逆賊師寬招辭觀之，不無可宥之端，但身爲道臣，其若自重，賊何敢藉口乎？不可無責罰定配。李光績旣已領軍往赴於官陣，則賊招援引，自可脫空，而但與泛然援引者有間，其在重鞫體之道，不可遽釋，參酌定配。姜世胤領軍赴官陣，與光績一樣，此已有可恕之端？此曾在庚寅仍科事，伊時下教曲盡，則渠何心腸，隨參逆賊乎？況不用奸於科場之心，尤不當作此惡逆，似當分揀放釋，而光績旣已定配，則罰不當低仰，一體定配。李燾，逆賊世樞所引，俱不緊着，而甲辰冬逆賊麟佐，來訪論兵之事，似涉殊常，而蓋以一時偶聽，雖不可斷以知情，但鞫獄體重，不可分揀，參酌定配絕島。黃沈·吳鵬萬等，逆賊世樞所引，雖無着落，旣曰魁首，則其在重鞫體之道，不可放釋，竝極邊定配。朴景淳，逆賊百孝所引，雖無端緒之可捉，以逆賊彥良之壻，留置甥姪德鎮於渠家，又出賊招，則不可以其無端而放釋，參酌定配。尹聖時，移囚南間。李眞儒·徐宗廈等，竝還發配所。李衡祥·韓師億·吳命始·權敘經·李喜震·洪命源等，竝放送。

6) 『승정원일기』(권 663) 1728년(영조 4) 6월 15일.

○ 金漵,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羅州牧出陸罪人李眞儒, 務安縣出陸罪人徐宗廈, 還發配所事, 啓下矣. 依前罪目, 發遣府書吏,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7) 『영조실록』(권 24) 1729년(영조 5) 9월 28일.

○ 命移配李眞儒·尹聖時·徐宗廈于絕島. 掌令金聲發疏言: 一鏡與尙儉締結之狀, 旣已昭著, 則疏下諸人, 自在黜昧難明之中, 固不宜置諸陸地. 況眞儒之捉納萬鼎, 旣在於逆顯兵敗之後, 則其間情節, 尤涉可疑, 請一併絕島梟棘. 上教曰: “本事旣明白下教, 則疏下諸人, 不可仍置陸地, 而若復梟棘過矣, 併絕島定配.”

8) 『승정원일기』(권 695) 1729년(영조 5) 10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絕島定配罪人李眞儒·尹聖時·徐宗廈等, 改定配所事, 榻前下教矣. 右罪人等改定配所, 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9) 『영조실록』(권 25) 1730년(영조 6) 4월 2일.

○ 諫院【大司諫趙錫命, 正言沈星鎮.】申前啓, 不允. 又啓: “逆鏡辛丑之疏, 旣出於締結妖儉, 則同參一疏者, 宜無不知之理. 此嚴鞫之啓, 所以重發也. 今者本院前啓, 不問情節, 徑請正刑, 旣非王者審慎用刑之意, 又非究覈情節, 明示典刑之道. 淺見如此, 不可苟然謄傳. 請命遞斥臣等之職.” 上曰: “正刑與設鞫, 不過五十步百步之間. 以此一着, 有甲乙之議, 予則以爲不是矣.” 命勿辭, 亦勿退待, 及臺臣退出, 特遞其職. 仍命拿鞠李眞儒, 尹聖時, 徐宗廈, 卽逆鏡疏下賊也.

10) 『승정원일기』(권 704) 1730년(영조 6) 4월 3일.

○ 朴乃貞,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絕島定配罪人李眞儒, 濟州牧絕島定配罪人尹聖時, 旌義縣絕島定配罪人徐宗廈, 竝拿來事, 傳旨啓下矣. 依例發遣府都事三員, 拿來, 何如? 傳曰, 允.

40. 윤지(尹志)

- 신분: 관리(지평)
- 1차 유배 연월: 1725년(영조 1) 6월 25일~1727년(영조 3) 7월 5일.
- 2차 유배 연월: 1729년(영조 5) 11월 19일~1736년(영조 12) 3월 16일(이배, 나주).
- 사유: 정권 변동(김일경〈金一鏡〉 옥사)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6) 1725년(영조 1) 6월 25일.

○ 李眞儉 康津縣, 尹志 大靜縣, 絶島安置.

2) 『승정원일기』(권 641) 1727년(영조 3) 7월 4일.

○ 宋寅明, 以義禁府言啓曰, 武弁被謫人南泰徵·朴纘新·李汝迪·李森·金世鼎, 極邊遠竄罪人權扶·李善行, 絶島圍籬安置罪人李顯章·尹恕教, 絶島安置罪人權益淳·呂善長·李三齡·尹志, 極邊遠竄罪人權益寬·沈檀·金壽龜·李泰和·李夏英·金始燁·趙翼命·李世璉·柳重茂·李明彦·李普昱·尹會·柳弼垣·朴徵賓·李眞儉·李濟·李匡輔·柳綏·趙鎮禧·趙德隣·沈垞·李衡秀·朴弼夔·李大源·韓游·睦天任·申慶濟·柳述·李基聖, 遠地定配罪人崔鑒·鄭■■■, 遠竄罪人李世最·李重述·李巨源·李眞洙·梁聖揆·尹筵·趙彝鼎·趙趾彬·尹大英·金重熙·梁廷虎·李眞淳·具命奎·慎惟益·李景說·鄭啓章·尹彬·金岱等放送事, 承傳啓下矣.放送事, 分付各道之意, 敢啓.傳曰, 知道.

3) 『영조실록』(권 12) 1727년(영조 3) 7월 5일.

○ 放安置罪人李顯章·尹恕教·權益淳·呂善長·李三齡·尹志, 遠竄罪人權扶·李善行·權益寬·沈檀·金壽龜·李泰和·李夏英·金始燁·趙翼命·李世璉·柳重茂·李明彦·李普昱·尹會·柳弼垣·朴徵賓·李眞儉·李濟·李匡輔·柳綏·趙鎮禧·趙德隣·沈垞·李衡秀·朴弼夔·李大源·韓游·睦天任·申慶濟·柳述·李基聖, 定配罪人崔鑒·鄭翽·李世最·李重述·李巨源·李眞洙·梁聖揆·尹筵·趙彝鼎·趙趾彬·尹大英·金重熙·梁廷虎·李眞淳·具命奎·慎維益·李景說·鄭啓章·尹彬·金岱·

南泰徵·朴纘新·李汝迪·李森·金世鼎等六十二人.

4) 『영조실록』(권 24) 1729년(영조 5) 11월 19일.

○ 諫院【正言鄭益河.】申前啓, 不允. 又啓: “前島配罪人尹志, 以賊商之子, 爲逆虎之黨, 其所締結斗昌, 密地陰謀之狀, 論以王法, 誅殛亦輕, 頃年聖上之特允島配者, 蓋以好生之德, 從未減之議也. 往者丁未秋, 聖龍獄諸囚竝放之日, 此凶之名, 混入其中, 并與本配而全釋. 國人之駭憤, 久而愈激. 爲獄官者, 卽當區別稟旨, 以俟裁處, 而矇然不察, 一并放送, 致使晏然自在於輦轂之下. 當此危疑之時, 決不可置而不論. 請前島配罪人尹志, 還發配所. 伊時禁堂, 亦難免不職之失, 并命罷職不敘. 以宰臣而重遭臺言, 勢難仍冒, 爲人子而聞有親憂, 理宜歸護. 昨日, 聖上之特推鄭錫五, 而不用其擅離職次之罪者, 蓋以其情理事勢之有可恕也. 然而沁都自是朝夕待變之地, 而一邊投疏, 一邊登途, 若不以其罪罪之, 則此後方伯閩帥之遭人言有親病者, 任情徑還, 想必以錫五爲例. 其在杜後弊之道, 不可問備而止, 請江華留守鄭錫五, 爲先罷職, 其擅離之罪, 令王府拿問處之.” 批曰: “尹志事, 依啓. 禁堂事, 未免太過. 鄭錫五罷職事, 依啓. 拿問則過矣.” 【錫五以丁未停啓事被論.】

5) 『승정원일기』(권 697) 1729년(영조 5) 11월 19일.

○ 正言鄭益河啓曰, 請安置罪人金重器, 拿鞠得情, 以正邦刑. 請令王府, 更爲詳細查出後, 逆魁維賢破家渚澤應施之律, 亟命舉行. 請充軍罪人李時蕃,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陸重衡, 更令鞠廳嚴刑得情, 以正王法. 請減死絕島定配罪人黃玉鉉, 更加嚴刑, 期於輸情. 請還收鞠廳罪人洪啓一, 還發配所之命, 仍令鞠廳, 嚴刑得情. 請逆魁坦緣坐籍沒等事, 亟令王府依律舉行. 請充軍罪人詹, 境上梟示. 請疏下三賊, 竝命亟正邦刑. 請定配罪人世胤, 拿鞠嚴刑, 期於得情, 依律處斷. 請益寬, 設鞠嚴刑, 期於得情正法. 以上措辭竝見上前島配罪人尹志, 以賊商之子, 爲逆虎之黨, 其所締結斗昌, 密地陰謀之狀, 論以王法, 誅殛亦輕, 頃年聖上之即允, 島配之請者, 蓋以好生之德, 特從未減之議也. 以其負犯之重, 尙今得保首領, 此實失刑之大者, 而往在丁未秋, 聖龍獄諸囚竝放之日, 此凶之名, 混入其中, 竝與本配而竟至全釋之境, 國人之駭憤, 久而愈激. 竊想諸囚竝放之教, 蓋指聖龍獄所干之事而已, 元非以此凶本罪. 謂有可恕之端, 則身爲獄官者, 所當區別稟旨, 以俟聖明之

裁處，而及反矇然不察，一竝放送，致使莫重島配之罪人，晏然自在於輦轂之下，踪迹陰祕，少無懲畏之意，當此危疑之日，決不可置而不論。前島配罪人尹志還發配所，伊時禁堂，亦難免不職之責，竝命罷職不敘，以宰臣而重遭臺言，則勢難仍冒，爲人子而聞有親憂，則理宜歸護。昨日聖上之特推鄭錫五，而不用其擅離職次之罪者，蓋以其事勢情理之容有可恕者也。然而沁都自是朝夕待變之地，朝家之所以委畀於錫五者，意非偶然，則在錫五之道，雖有大難安不可留之事，固當具由上聞，以俟聖明處分，而今則不然，一邊投疏，一邊登途，使此保障重地，視若等閑官守，任目棄歸，少不顧念。若此而猶復曲恕，不以其罪罪之，則此後方伯閫帥之遭人言有親病者，任情徑還，必皆以錫五爲例，其在杜後弊之道，不可問備薄罰而止。請江華留守鄭錫五，爲先罷職，其擅離之罪，令王府拿問處之。答曰，不允。尹志事，依啓。禁堂事，因一事若是，未免太過，且申飭之日，此等疑阻過中之習，當先去矣。鄭錫五罷職事，依啓。拿問則留守與京官，一般往來京中，與方伯有間，責其徑行罷職，可矣。拿問則過中矣。

6) 『승정원일기』(권 822) 1736년(영조 12) 3월 16일.

○ 傳于鄭羽良曰，禁府放未放單，竝依此施行，而點下中閔允昌·尹志·沈廷玉·沈益衍·申潤廷，竝出陸，李獻章·全聖澤·申正模·李興仁·河潤源，竝量移，其餘皆放送，而李台重，其所犯，豈輕議？而當此大霈，宜有參酌，特爲撤籬。

7) 『승정원일기』(권 822) 1736년(영조 12) 3월 17일.

○ 李重協，以義禁府言啓曰，傳曰禁府放未放單，竝依此施行，而點下中閔允昌·尹志·沈廷玉·沈益衍·申潤廷竝出陸，李獻章·金聖澤·申正模·李興仁·河潤源竝量移，其餘皆放送，李台重，其所犯，豈輕議，而當此大霈，宜有參酌，特自撤圍籬事，命下矣。扶安縣蝟島閔允昌，咸悅縣，大靜縣尹志，錦城縣，臣濟府沈廷玉，晉州牧，錦城縣黑山島沈益衍，靈巖郡，巨濟府申潤廷，昌原府，竝出陸，慶興府李獻章，平安道龍岡縣，定州牧金聖澤，黃海道鳳山郡，錦山郡申正模，公洪道忠原縣，會寧府李興仁，江春道平海郡，鎭海縣河潤源，尙州牧竝量移，而仍前罪目，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各其配所，各道定配罪人放秩中，金山郡尹心雄稟秩中咸悅縣，元一瑞瑞興縣，崔必蕃珍島郡，洪啓裕益山郡，李秉鼎錦山郡，宋文相仍秩中延豐縣，黃沈堤川縣，吳鵬萬載寧郡，宋國休平昌郡，姜必濟勵山府，韓聖欽

龜城府，黃翼再未及拿來罪人仍秩中，甲山前府使南正夏等，依點下，竝放送之意，分付各該道，錦城縣黑山島圍籬安置罪人李台重撤圍籬事，亦爲分付本道後，卽爲啓聞之意，敢啓。傳曰，知道。

8) 『영조실록』(권 41) 1736년(영조 12) 3월 19일.

○ 憲府【掌令李光運.】申前啓又啓，請還收閔允昌，尹志，申潤廷，朴景淳出陸，金聖澤，申正模，尹相靖，尹相憲量移，黃翼再全釋之命，不從。

9) 『영조실록』(권 57)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行疏決. 上曰：“赦令，只是文具. 今當大霽，又無其實，則是欺民也. 卿等體此意，必惕念審克也.” 判義禁趙尙綱，歷舉諸罪人以奏，事關戊申逆獄者竝仍，而跡涉疑晦者皆放，閔允昌出陸，尹志放黜田里禁錮終身，物故罪人明彥·觀厚竝放，金遠材減等出陸. 刑曹判書鄭羽良，又以諸道徒配罪人姓名，歷舉以奏，事關殺獄·綱常干紀亂法者并仍，而輕囚及徒年者并放之. 尙綱又舉擊錚上言覆奏之，其一卽戊申逆宗燁·堧之子，爲其父訟冤者也. 大臣陳其猥濫，仍置之. 領議政金在魯曰：“北兵使具聖益，語逼道伯，有關體統. 宜削職也.” 右議政趙顯命曰：“宜用厭避之律也.” 上曰：“削職則歇，而厭避之律則過也.” 命遠配.

10) 『승정원일기』(권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尹志. 上曰，此何如？尙綱曰，就商之子也. 寅明曰，雖無形現之罪，旣入鞠廳則難可容議矣. 在魯曰，似有身犯，與李獻章似異矣. 上曰，就商之子，豈齒人類乎？命書傳旨曰，放出田里，禁錮終身

11) 『영조실록』(권 59) 1744년(영조 20) 7월 28일.

○ 憲府【掌令鄭廣運.】申前啓，不允，只允尹志之啓. 志卽就商之子，干連鞠獄定配矣. 癸亥疏決時，命放黜鄉里，禁錮終身. 臺臣發啓爭執，至是始允之.

12) 『승정원일기』(권 975) 1744년(영조 20) 7월 28일.

○ 又請尹志放歸之命還收事.措辭見上 上曰, 此是法外故勘處者, 而非亦相持者, 依啓.

13)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2월 11일.

○ 發遣禁府都事於羅州, 捕尹志等諸賊. 志逆賊就商子也. 謫在羅州, 陰懷逆圖, 怨望朝廷, 締結徒黨, 張掛凶書, 全羅監司趙雲達鉤得其情節, 馳奏於朝, 上卽命發捕.

14)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2월 25일.

○ 逆志物故. 持平洪良漢, 正言宋文載, 校理南泰會·洪名漢, 修撰蔡濟恭等啓: “逆賊志, 以逆商之子, 積蓄不軌之心, 肆爲掛書之變, 結謀排布, 陰謀綢繆之狀, 狼藉諸賊之招, 至於虎賊凶言之書置篋中, 渠亦無辭遲晚, 而特以其凶頑寧慝, 忍杖徑斃, 不得與逆徵同施肆市之典, 神人之憤, 無以少洩. 踞斬之刑, 雖未得行, 瀦孥之法, 不容暫緩. 臣等以爲逆志, 宜令王府, 以大逆律舉行.” 上允之.

41. 김요경(金堯鏡)

- 신분: 관리(지평)
- 1차 유배 연월: 1725년(영조 1) 9월 20일~1726년(영조 2) 10월 14일(나국).
- 2차 유배 연월: 1727년(영조 3) 7월 4일(환배)~1753년(영조 29) 6월 3일(유배 중)~?.
- 사유: 정권 변동(김일경<金一鏡> 옥사, 김일경 아우)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7) 1725년(영조 1) 9월 20일.

○ 憲府【掌令李齊恒.】申前啓, 不允. 又啓: “言門黜罪人柳綏, 以逆鏡至親, 和應之狀, 臺章略論, 而向日金東弼疏斥逆鏡教文事, 則悶其情狀之敗露, 潛受鏡, 寬輩陰嗾, 論斥東弼, 至請罷職. 且於逆鏡宴飲之日, 爲其狎客, 獻壽逆鏡. 鏡賊伏法之後, 安得免黨與之誅? 請極邊遠竄.” 又啓言: “前參奉金堯鏡, 卽鏡賊親弟也. 鏡賊滔天之惡, 實由堯鏡之助成, 而壬寅士禍之起, 稱以齋任, 突入太學, 驅逐齋生, 以凶言悖說, 通文八道, 凡異己者, 一切目以逆黨, 墨削儒案, 刀割校籍, 甚至咆哮列邑, 毀其家而黜其鄉. 自古釀禍於士林者, 豈有如堯之慘毒者哉? 請絕島定配.” 竝依啓. 【匡輔竄陽德, 堯鏡竄大靜.】.

2) 『승정원일기』(권 601) 1725년(영조 1) 9월 20일.

○ 掌令李齊恒所啓, 請疏下五賊, 竝命亟正邦刑事, … 前參奉金堯鏡, 卽鏡賊之親弟也. 凶獍狡猾, 無異逆鏡, 陰謀祕計, 莫不主張, 鏡賊滔天之惡, 實由於堯鏡之助成, 往在壬寅年間, 士禍大起之日, 堯鏡, 稱以齋任, 突入太學, 驅逐齋生, 網打士類, 無復餘地, 最是萬萬絕痛者, 以兇言悖說, 通文于八道, 凡士類之稍異於其黨者, 則一切目之以逆黨, 使各校各院, 墨削于儒案, 刀割于校籍, 非但不使之接跡於學宮而已. 甚至咆哮列邑, 毀其家而黜其鄉, 凶焰所及, 八路騷擾, 若逢亂離, 景色愁慘, 冤呼徹天, 自古奸凶之釀禍士林者, 何限, 而豈有如堯鏡之慘毒者乎? 國人齊憤, 莫不欲食肉而寢皮, 況以大逆之同氣, 其所負犯, 又如是, 尙今晏然, 偃息其家, 豈非刑典之大乖者哉? 不可不各別懲治, 以慰一國章甫之心, 請前參奉金堯鏡, 絕島定配. 答曰, 不允. 末端事依啓.

3) 『승정원일기』(권 624) 1726년(영조 2) 10월 14일.

○ 慶聖會, 以義禁府言啓曰, 罪人金堯鏡, 既已拿來囚, 所當捧招, 而一體請拿之人, 未及就囚, 姑待其盡爲拿來, 一時推問, 何如? 傳曰, 允.

4) 『영조실록』(권 12) 1727년(영조 3) 7월 4일.

○ 敎曰: “向者僞批之事, 殊極痛駭. 雖有陰害一邊者之人, 自有其人, 而得出聖龍幾乎羅織, 此等處, 予嘗尤駭. 堯鏡, 卽逆鏡之弟, 其雖白脫, 不可置諸輦轂, 還發配所, 其他橫罹諸人, 并卽放送. 聖龍之趨時效力, 幾成大獄, 不可不痛懲, 絕島定配.”

5) 『승정원일기』(권 641) 1727년(영조 3) 7월 4일.

○ 傳于宋寅明曰, 向者僞批之事, 殊極痛駭, 雖有陰害一邊者之人, 自有其人, 而得出聖龍, 幾乎羅織, 此等之處, 予嘗尤駭者, 堯鏡, 卽逆鏡之弟, 若此之人, 其雖白脫, 不可置諸輦轂, 還發配所. 其他橫罹諸人, 竝卽放送, 而聖龍則乃敢趨時效力之計, 胡辭亂說, 幾成大獄, 不可不痛懲, 絕島定配事, 分付.

6) 『승정원일기』(권 641) 1727년(영조 3) 7월 5일.

○ 宋寅明,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金堯鏡, 還發配所事, 命下矣. 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全羅道濟州牧大靜縣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7) 『승정원일기』(권 1095) 1753년(영조 29) 6월 3일.

○ 各道定配罪人秩, … 大靜縣金堯鏡仍, 大靜縣李明彦仍, 大靜縣金德裕仍.

42. 이봉(李筠)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27년(영조 3) 2월 29일~1743년(영조 19) 6월 13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패륜, 가족 내 분쟁)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 1727년(영조 3) 2월 9일.

○ 全羅監司李瑜, 以李範獄事啓聞, 上下教褒獎, 賜以皐比, 仍命收議于大臣. 範, 靈光人也. 其子斗德兄弟, 生於範年老之後, 故人或疑之. 範之弟笈, 筠及範之子有機, 相與證之, 遂以成獄, 既係倫常, 又多疑晦, 官長久不能決. 至是道臣查奏, 上有是命. 其後刑曹判書尹憲柱, 持收議奏獻, 上命誅笈, 筠及有機, 干連諸人, 勘律有差.

2) 『승정원일기』(권 632) 1727년(영조 3) 2월 9일.

○ 備忘記, 傳于李重協曰, 今觀啓聞, 非特各人承款之明白, 三招四招, 至於笈·筠·箴之同推問目, 可得按事之體. 凡按事之人, 若得其緒, 則惟恐變辭更不詳問, 而徑作已了之案, 予嘗非矣. 矧今湖伯, 破脫俗習, 猶慮承款者之或有抱冤, 推心問目, 使笈等感動遲晚, 古人人性本善之語, 至愚而神之說, 誠可驗於今日, 而亦使笈等可服, 而伏王章矣. 今茲湖伯, 無慙於昔人, 而亦可謂無孤欽哉之戒矣. 噫, 父子之親, 兄弟之友, 本乎天性. 有機與笈·筠·箴等, 或子或弟, 或以從兄弟之間, 弟告其兄, 子證其父, 敦滅天倫, 此何人斯, 此何人斯, 不待事之究竟, 容有一毫之可恕之端哉? 然定人父子, 亦天倫之大者, 故令道臣而詳查矣. 卽觀查狀, 尤極絕痛, 有機等之尙今偃息, 可勝言哉, 而今此按問, 與他自別, 不必循例覆啓, 有機則當施三省之律, 而笈等陷兄之律, 亦當次第舉行, 其令該曹, 卽議于大臣稟處, 而有機等, 其正法于本道, 布政之門, 使一道之人, 曉然知之. 昌瑞等則其所爲, 雖極駭痛, 視笈等則差間, 律當減等, 一體問議于大臣.

3) 『승정원일기』(권 633) 1727년(영조 3) 2월 29일.

○ 又以刑曹言啓曰, 罪人李筠配所, 以黑山島定配事, 臣親承傳教矣. 罪人等定配次, 取考路程記, 則黑山島乃全羅道羅州地, 而李筠所居, 亦靈光地也. 靈光·羅州, 俱是同道之邑, 相距黑山島, 亦不遠之地. 島雖險惡, 必不無罪人往來渠家之弊. 論其情狀, 萬萬絕痛, 而不如遠配於大靜·旌義, 或黃海道白翎·椒島等絕島, 何以爲之? 敢稟. 傳曰, 啓辭誠然, 以大靜磨鍊.

4) 『승정원일기』(권 959) 1743년(영조 19) 6월 13일.

○ 全羅道刑案 不限年秩. … 金夢才·潛德·趙漢彬·李筠·金再太·金斗里金·宋龍瑞. 上曰, 竝仍.

43. 임징하(任徵夏)

- 신분: 관리(장령)
- 유배 연월: 1727년(영조 3) 7월 3일.
- 나국 연월: 1728년(영조 4) 3월 17일.
- 사유: 왕명 비판(탕평책 비판 상소, 소론 제거 요청)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2) 1727년(영조 3) 7월 3일.

○ 安置于大靜縣. 憲府【掌令李挺膺.】啓曰: “先大王英明, 至矣盡矣, 而一種無倫悖義之徒, 輒懷詬天罵日之心, 至於賊臣徵夏而極矣. 其曰一亂撥亂等語, 隱然歸之於昏亂之世. 當初勘律, 未免未減. 請遠竄罪人任徵夏, 姑先絕島安置.” 上從之.

2) 『승정원일기』(권 641) 1727년(영조 3) 7월 3일.

○ 李挺膺啓曰, 天地間至嚴而至重者, 無過於君臣之分義, 而凡爲人臣者, 一或干犯於此, 則決不可頃刻容貸於覆載之間矣. 恭惟我先大王, 智無不周, 量無不包, 摠攬權綱, 洞辨邪正, 孝友之德, 英明之斷, 至矣盡矣. 無容議爲, 而一種無倫悖義之徒, 輒懷詬天罵日之心, 其所不忍聞不忍見之說, 至於賊臣徵夏而極矣. 其曰一亂撥亂等語, 隱然以天大之德, 歸之於昏亂之世, 自古及今, 曷嘗見宮車晏駕之後, 爲其臣子者敢以誣辱先朝之說, 筆之於書, 移進於新王之前者哉? 究厥用心, 將欲何爲? 此賊罪狀, 莫逃於天鑑之下, 而當初勘律, 未免未減之未減, 凡爲臣子者, 莫不飲泣而茹痛, 此賊之罪, 不可以編配薄罰而止. 請遠竄罪人任徵夏, 姑先絕島圍籬安置. 上曰, 依啓.

3) 『영조실록』(권 16) 1728년(영조 4) 3월 5일.

○ 諫院【正言李性孝.】申前啓, 不允. 又啓: “罪人徵夏拿來, 禁府都事金礪下去七日, 始抵海南, 發船之前, 且費十八日, 罪人家屬, 先爲入送之說, 大播都下. 及見狀本, 多般辭說, 專咎都會官, 顯有推托彌縫之狀, 請拿問定罪, 都會官一體拿問.” 從之.

4) 『승정원일기』(권 657) 1728년(영조 4) 3월 5일.

○ 又所啓, 奉承王命, 拿來罪人, 何等重大, 何等嚴急, 而向者正刑罪人徵夏拿來禁府都事金礪下去之後, 中路淹滯, 至令罪人家屬, 先爲入送之說, 大播都下, 而遠外流傳, 不以爲信矣. 及見金礪狀本, 則七日始抵海南, 已極稽緩, 而發船之前, 且費十八日子, 乃以船隻支供, 不卽備待, 以致遲延爲言, 此實前所未有之事也. 夫金吾郎之往來濟州, 前後非一, 則自當有應行前例, 都會官安敢趁不舉行, 又豈有不得一船隻, 虛送幾番順風之理乎? 其間事狀, 已涉可疑, 且其多般辭說, 專咎都會官, 而顯有推托彌縫之狀, 今日少有紀綱, 豈容如是? 請拿來都事金礪, 待其回還, 拿問定罪, 都會官, 亦一體拿問. 上曰, 稽滯既久, 欲爲申飭矣, 臺臣之言如此, 依啓.

5) 『승정원일기』(권 658) 1728년(영조 4) 3월 17일.

○ 鄭錫五, 以義禁府言啓曰, 亟正邦刑罪人任徵夏, 今已拿囚, 卽當開坐, 結案取招, 而親鞫相值, 何以爲之? 敢稟. 傳曰, 依例舉行.

6) 『영조실록』(권 22) 1729년(영조 5) 5월 20일.

○ 義禁府罪人柳灝刑問三次, 不服. 任徵夏刑問二十五次, 不爲着名.

7) 『영조실록』(권 26) 1730년(영조 6) 6월 21일.

○ 上親臨鞫囚. … 時, 任徵夏囚本府受刑, 上親加鞫訊. 時, 判義禁申思詰, 以親病見遞, 知義禁朴師益, 同義禁李世瑾違召, 上怒竝罷其職曰: “判府事閔鎮遠之筭, 與徵夏疏有異, 而自謂之同, 豈不怪哉? 禁堂之相繼遞職, 顯有顧藉之心, 不忍加刑, 此豈臣子道理? 予當親鞫.” 遂發問曰: “汝之頃年一疏, 其所用意, 路人所知, 而逮夫承批之後, 吐出心腸, 伊後避辭, 爲汝之斷案. 使汝若有一分秉彝之心, 雖常人昆弟之間, 決不若此, 一治一亂等說, 尤極凶慘. 汝以任敝之至親, 以敝被罪, 怨懟于心, 敢爲逞憾于嗣君, 是可忍也, 何事不做? 所謂一治一亂, 比諸洪水, 猛獸, 欲爲隱諱之計, 則撥亂反正等說, 亦何心哉? 若汝怪鬼凶慘者, 敢生怨毒之心, 侵誣景廟, 反誣君父, 今日世道之陷溺, 義理之晦塞, 亦由於汝之尙在覆載之間. 本府加刑之下, 牢忍不服, 尤極凶慘. 今使汝, 斃於囹圄, 則君臣分義將掃地盡矣. 今此親問, 蓋由於此, 無隱直陳.” 參鞫大臣李宜顯曰: “向發徵夏設鞫之

啓，而斬允者，聖意有在。今因禁堂之擿捱，有親鞫之舉，未知得宜，而況今諸賊訊鞫之日，混加鞫問，於事體，何如也？”上曰：“徵夏設鞫，卿謂過耶？卿妄發矣。徵夏不斃，必生葛藤，殺徵夏，然後可以調和時象矣。”上謂徵夏曰：“汝敢拒結案，汝或謂逢時可生，而天翻地覆，不復有汝輩得志之日矣。”仍震怒曰：“羅將一杖，折其脛可矣。”徵夏曰：“豈忍結案乎？將無歸拜景廟之顏一也，使殿下，有殺諫臣之名二也。”上曰：“殺諫臣之云，將爲他日凶言之根柢矣。他罪人，羅卒必以朱杖觸之，此罪人，則皆環立不敢觸。上自大臣，下至羅卒，只知有徵夏，不知有君父，不殺徵夏，何以立國紀乎？”準一次刑，下本府，連加刑，至八次，物故。

44. 김유경(金有慶)

- 신분: 관리(부사직)
- 유배 연월: 1727년(영조 3) 10월 26일.
- 이배 연월: 1728년(영조 4) 1월 22일(영광군).
- 사유: 왕명 비판(김일경〈金一鏡〉 일당 제거 상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3) 1727년(영조 3) 10월 26일.

○ 副司直金有慶上疏. 略曰: 因史局諸臣之筵請, 聖上特下纂修諸堂削黜之命, 旋即反汗云. 臣不覺心骨俱竦. 繼得見尹得徵等疏本, 略知其梗概. 臣亦諸堂中一人, 正宜引罪之不暇, 何敢容喙於史事, 而區區憂慨之忱, 自不能已. 噫! 今日黨論, 雖成痼疾, 而一段公心, 人皆不泯. 此雖同志, 豈不知惡, 彼雖異己, 豈不知美, 而乃於千載傳信之書, 豈忍以一己之私好惡, 有所予奪於其間哉? 若有其人, 天必殃之. 至於疏章之係於論議者, 必須兩存, 可使後人, 知其所爭之本末, 而定其是非. 假使喜黨論者當之, 惟恐彼言之不傳於後, 略而不錄, 寧有是理? 且書卒之例, 敘其平生言行, 而末乃以史臣之意斷之, 善則褒之, 惡則貶之, 亦不敢以有爲無, 指實爲虛, 而一循當時之公議而已, 而今之言者, 至謂之彼此章疏, 詳略不同, 諸臣書卒, 亦且不公. 噫嘻甚矣! 此何言也? 傳說史語, 邦有常刑, 其事例之嚴重, 爲如何也? 今乃指舉事實, 評論是非, 以爲某年之事, 記之如此, 某人之事, 書之如此, 肆然陳達, 略無忌憚, 又引庚申舊例, 直請追改, 人之縱恣, 一何至此? 《顯廟實錄》中, 漏而不記者, 多是軍國之重事, 國家之典禮, 則稟旨別纂, 勢不可已, 而其時先輩, 尙或有難之者. 蓋以史事至重, 不容輕議故耳. 況今一二私黨之見貶於直筆者, 其大小公私之別, 不啻天壤, 則何敢擬議於庚申事, 而恣意欺誣, 游辭幻弄, 必售其計而後已? 此路一開, 若不嚴防, 則末流之弊, 當無所不至. 小則子光之釀禍, 大則李斯之焚書, 其將自今日兆朕矣, 豈不懼哉? 臣尙記修史時事矣. 常與諸臣, 列坐纂修也, 僚堂之父兄, 或有入於當貶之中者, 則不敢顧藉, 隨事直書, 而人情所在, 恐其見知, 輒掩草而祕之. 郎廳之父兄, 亦在貶中, 則使他郎, 書出中草, 間或有之. 今日諸臣, 亦皆世族, 安知其祖先父兄之事, 不入於補改之中, 而不復思量, 容易陳請, 乃若是耶? 噫! 此輩之擅弄欺蔽, 自是舊套, 而至於爲

濟其私，請改實錄，此實千古所未有之事，而殿下無少留難，曲循其言，他日良史書之曰：“先朝實錄，既就剗削，二三臣僚，怒其私黨，書卒之辭，不滿其意，請改成史，上即許之，添刪變幻，一任其所爲”，天下後世，以今日之處分，爲何如也耶？臣誠太息流涕，繼之痛哭也。伏願殿下，亟寢成命，以爲史事之幸，而聖德之光焉。臣且伏見大臣之筭，至論纂修諸臣之平日言行，極加誣辱。臣等言行，固無足稱，而言之輕肆，何乃至此？當渠輩濁亂之日，首以一鏡爲實錄堂上。人之言行，必如一鏡，然後方可合於修史之任耶？一鏡逆節，彰著無餘，而大臣特加獎拔，至擬大司馬之望，則大臣之言行，亦可知也。臣等之見斥於大臣，固也，何足怪也？且臣於頃年，疏論權益寬疏語之陰凶，今聞益寬，陳疏自卞，而侵詆之言，不啻狼藉。臣雖未見其疏，而竊不勝駭惋也。渠以一鏡之至親，爲其謀主，凡一鏡之一動一靜，無非此人之所指教，則其疏語之陰凶，特其餘事耳。國家失刑，罪止投北，輿情之憤怨，久而益甚，乃者廟堂之首加擢用，抑何意也？一鏡之逆節，實在於疏與教文，而教文之作，在於壬寅九月，玉堂陳筭，在於八月。教文中誣逼文字，皆自堂筭中出來，而所添者，只是蹀血禁庭四字而已。及至一鏡伏法之後，渠輩墨抹政院之日記，拔改玉堂之謄錄。此皆殿下之所親覩也。其罪惡情狀，萬萬絕痛。當初島配，已乖王章，到今混放，尤駭群聽，而長銓之臣，汲汲獎用於初政，有若償功者然，若尹恕教之首擬臺望，顧何可論也？殿下方傾意寵進，雖有罪過，惟事覆蓋，而在渠輩之道，如有一毫顧藉之心，此等負犯之類，何敢用之如舊耶？一鏡雖死，一鏡之血黨，充滿朝廷，一鏡之心法，復傳於今日，一鏡之言議，復行於今日，而寧海之啓，尙傳故紙，俗所謂以鎌掩目，正指此也。古今天下，安有如許事理，亦安有如許論議耶？臣竊笑之，臣竊痛之。噫！殿下以今日朝廷，爲正耶？爲不正耶？如其正也，逆臣遺孽，何其布列於左右也，如其不正也，何不思正之道，而一任其簸弄壞亂，使義理日晦，綱紀日紊耶？臣請言正之道。古語曰：“正心以正百官”，又曰：“正己而後物正。”今日正朝廷之本，惟在於殿下之正己，而殿下正己之要，且自善繼述，懋誠信，嚴宮闈，杜邪逕始。伏願殿下，念茲在茲，無少忽焉。臣固知一言才發，大禍旋至，而臣若計較一身之利害，心知其可言，而口不敢言，則生將爲不忠之臣，死當作不瞑之鬼。茲敢觸冒斧鉞，干瀆宸嚴。疏入，上下嚴教，大靜縣絕島安置。

2) 『승정원일기』(권 648) 1727년(영조 3) 10월 26일.

○ 備忘記，今觀副司直金有慶之疏，一篇精神，徒在於壞亂處分，網打摺紳之計也。所引子

光·李斯等說,殊極絕悖,而至於疏末,托以陳戒四件語,其所用意,尤極痛駭.身爲宰列,若有一分嚴畏之心,焉敢若是?不過甘心死黨,護逆視尋常之故.況今日處分,非一時而發者也.焉敢妄揣嘗試乎?且今茲補闕,非改纂,而向日筵中下教,亦甚嚴截,則左袒私黨,譏君父誣大臣.今日國綱,可謂末如之何矣.此等之類,若不嚴加痛懲,則何以鎮世道,而頃者嚴飭之意,亦安在哉? 濟州牧大靜縣, 絶島安置.初以圍籬捧傳旨,卽入備忘,改下

3) 『승정원일기』(권 648) 1727년(영조 3) 10월 2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金有慶, 濟州牧大靜縣, 絶島安置事承傳, 啓下矣.金有慶, 時在忠清道瑞山地本家云.依例發遣府書吏, 仍令押送配所之意, 敢啓.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654) 1728년(영조 4) 1월 2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絶島安置罪人金有慶, 特爲參酌出陸, 量移事承傳啓下矣.金有慶, 全羅道靈光郡定配所, 仍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45. 말순(末順)

- 신분: 가족(연좌)<여>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6월 12일.
- 사망 연월: 1734년(영조 10) 12월 30일.
- 사유: 연좌(이인좌<李麟佐>)의 난, 정희량<鄭希亮> 모친)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59) 1728년(영조 4) 4월 14일.

○ 鄭錫五, 以義禁府言啓曰, 逆魁希亮母末順, 絶島爲婢事, 下教矣.末順, 全羅道靈巖郡楸子島絶島爲婢,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663) 1728년(영조 4) 6월 1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頃者逆賊能佐同生夔佐, 移配他有官府絶島事下教, 故既已移配於濟州牧, 而又有李益命定配於此島, 亦令移配他島, 而此後則無官守之島, 罪人勿復偏配, 永爲定式事, 允下矣.楸子島, 本無官守, 則令前定配之類, 亦不可仍置, 緣坐安置罪人李益命, 移配於全羅道羅州牧智島, 逆賊希亮母末順, 移配爲婢於濟州牧大靜縣, 希亮子鐵興, 移配爲奴於旌義縣, 而右罪人等, 俱在於靈岩郡[靈巖郡]楸子島,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792) 1734년(영조 10) 12월 30일.

○ 同副承旨宋秀衡 … 又讀濟州防禦使狀啓, 罪人末順物故事.上曰, 上之.

46-47. 민정리(閔庭鯉), 민정전(閔庭鱣)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4월 15일.
- 해배 연월: 1735년(영조 11) 1월 29일.
- 사유: 연좌(남인의 영수 민암〈閔黯〉, 민종도〈閔宗道〉 친인척)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7) 1728년(영조 4) 4월 15일.

○ 掌令姜必愼啓曰: “麟佐, 觀孝總功以上, 竝請島配, 而聖批以法外持難. 第其強近中凶獰者, 不可置輦轂下. 閔黯, 閔宗道子孫, 一體島配.” 上從之. 必愼曰: “弘輔, 纔已遠配, 而義徵, 碩徵子孫, 舉族爲惡, 與儒佐, 震佐, 一體島配.” 亦從之.

2) 『승정원일기』(권 746) 1732년(영조 8) 6월 9일.

○ 上曰, 金吾疏決, 今日爲之, 刑曹疏決, 明日爲之事, 出送注書, 分付, 可也. 榻前下教在魯讀各道定配罪人秩, … 至閔庭鱣等, 上曰, 此是姜必愼所啓, 而其啓辭措語, 可怪矣. 致中曰, 黯之孫與熙之孫, 寸數頗遠, 賊招所出者, 及其至親外, 亦似有分等之道矣. 在魯曰, 此輩想皆與知, 而皆不如人矣. 上曰, 卿見之乎? 在魯曰, 其在忠州者, 臣皆見之矣. 上曰, 此則何其多任絕島耶? 又爲移配無妨, 竝移配.

3) 『승정원일기』(권 793) 1735년(영조 11) 1월 2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今正月二十八日, 時·原任大臣及金吾堂上引見入侍時, 傳曰, 應坐外定配, 此是法外. 而頃年尹·李·閔三族竝配之請, 其涉過慮, 乃亦法外. 而其時懲討方嚴, 雖以允之, 伊後思之, 決知太過. 況當大赦, 豈不施乎曠蕩之典, 其干連賊招者外, 三姓編配者, 竝放送事, 分付. 傳曰, 羅燦·宋重弘·宋楷·李聖至·朴師孟·沈得行·鄭陽賓·吳彥賓·黃玉鉉·蔭梅·李璠, 竝放, 炤依前放歸田里, 孫荊佐·安鑄·禹如天·韓聖欽·申正模, 竝出陸, 黃沈·崔必蕃·吳鵬萬·姜必齊·李鳳祥·李世瑋·朴來章, 竝量移. 睦聖履·鄭璉·陳漢相等, 減等事, 命下矣. 北青府移配罪人尹相鼎·尹載輝·尹大輝, 寧邊縣移配罪人尹相恒·尹昌輝·尹

發輝，陽德縣移配罪人尹相昇·尹山輝，龜城府移配罪人尹國輝·尹庭輝，巨濟府島配罪人尹昌賁，南海縣絕島移置罪人李慶佐·李禎佐，珍島郡絕島移置罪人李命佐·李千祿，康津縣薪智島絕島移置罪人李國佐，巨濟府絕島移置罪人李弘潤·李憲佐，羅州牧智島絕島移置罪人李弘淑·李德佐·李慶甲·李彭佐·李又彭·李甲運， 大靜縣移配罪人閔庭鯉·閔庭鱣，羅州牧智島安置罪人閔命孝·閔庭來，濟州牧移配罪人閔元崇·閔堂孝，長湍府白翎鎮絕島安置罪人閔齊孝，蔚珍縣移配罪人閔彥胄·閔天孝·閔庭萊，蔚山府移配罪人閔重孝·閔庭燾·閔庭燁，濟州牧移配罪人閔源孝·閔庭百，長鬐縣移配罪人閔彥麟·閔載孝·閔庭鳳，旌義縣移配罪人閔庭詩·閔庭禮，韓山郡移配罪人閔成道·閔彥升·閔彥恒，長湍府白翎鎮減死島配罪人羅燦·信川郡定配罪人宋重弘，平昌郡定配罪人宋楷·鐵山府邊遠定配罪人李聖至，恩津縣定配罪人朴師孟·大興郡量移罪人沈得行，靈光郡法聖鎮邊遠充軍罪人鄭暘賓，臨坡縣定配罪人吳彥賓，錦城縣智島島配罪人黃玉鉉，南海縣減死島配罪人蕊梅，雲山郡定配罪人李璠等， 依傳教，竝放送·珍島郡島配罪人炤，依前放歸田里·南海縣減死絕島定配罪人孫荊佐，開寧縣·康津縣薪智島減死絕島定配罪人安鑄，金溝縣巨濟府減死島配罪人禹如天，金山郡南海縣絕島定配罪人韓聖欽，礪山府興陽縣驪島島配罪人申正模，錦山郡竝依前罪目出陸·而義州府所串鎮減死極邊充軍罪人崔必蕃，黃海道瑞興縣明川府極邊定配罪人黃沈，忠清道延豐縣·富寧府極邊定配罪人吳鵬萬，堤川縣雲山郡定配罪人姜必齊，江原道平昌郡錦城縣流三千里定配罪人李鳳祥，林川郡康津縣加里浦鎮邊遠充軍罪人李世璿，陰城縣三水府別害鎮邊遠充軍罪人朴來章，禮山縣竝仍前罪目量移·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仍令狎送于各其配所·長興縣遠地定配罪人睦聖履，龍川府遠地定配罪人鄭璉，鐵山府遠地定配罪人陳漢相，減等徒三年，改錄事，分付各該道之意，敢啓·傳曰，知道。

48. 이만준(李萬準)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4월 24일~1732년(영조 8) 6월 9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하인 흥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7) 1728년(영조 4) 4월 21일.

○ 捕盜大將李森請對, 告李萬準奴斗去非, 於西小門外道上, 多發不道之說, 上命竝萬準, 拿囚鞠廳.

2) 『영조실록』(권 17) 1728년(영조 4) 4월 22일.

○ 命誅斗去非, 定配李萬準於絕島. 斗去非, 被鞠言, 受萬準指爲凶言, 而語不可了. 萬準納招稱冤, 面質而不得實. 上參酌, 有是命.

3) 『승정원일기』(권 660) 1728년(영조 4) 4월 24일.

○ 權益淳, 以義禁府言啓曰, 鞠廳罪人李萬準, 絕島定配事, 命下矣, 李萬準, 全羅道濟州牧大靜縣, 絕島定配, 而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권 721) 1730년(영조 6) 10월 2일.

○ 洪尙賓, 以義禁府言啓曰, 取考丁酉以來啓下, 本府擊錚及上言, 則朴鳳瑞, 爲其高祖承宗, 伸冤事, 吳載運, 爲其祖始壽, 伸冤事, 韓道增, 爲其父重爨, 伸冤事, 洪致源, 爲其叔義人, 其父哲人, 其祖彥慶, 伸理事, 趙氏, 爲其夫洪致祥, 伸冤事, 內官金重一·洪澤, 爲其養父祖世忭, 定配放釋事, 姜遂, 爲其父世胤, 伸辨事, 李以復, 爲其父萬準, 定配放釋事. 奴來復, 請免其曾祖父賊碓, 坐籍沒事, 奴介也之, 爲其上典淑只, 緣坐放釋事, 金教行, 爲其父時哲等, 緣坐放釋事, 金萬裕, 爲其父煥, 伸冤事, 睦天光·天顯等, 爲其祖來善, 伸冤事, 吳氏, 爲其夫金獐至, 出陸事, 朴弼隆, 爲其父泰晦, 出陸事, 宋遇璟,

爲其父尙用，伸冤事，裴胤休，爲其兄胤命，定配放釋事也.各人等，或係昏朝凶黨，或關前後鞫獄，或關惡逆緣坐，或關誣告，或關名義，或關辛巳科獄，或所坐甚重，不可以親屬之上言擊鼓，有所輕議，旣不可輕議，則亦不必一一覆啓，竝姑置之，至於天海妻母上言，則乃敢爲其夫河潤源訟冤，事極絕痛，而喉司之初不拔去，殊涉不察.此上言，不置於舉論中之意，敢啓.傳曰，知道.此上言，混下該曹，極爲未安，當該承旨，從重推考.

5) 『승정원일기』(권 723) 1731년(영조 7) 5월 23일.

○ 上曰，安益泰·李鐵槌·朴天齊·尹興國·李萬準·石乙夢，竝仍.

6) 『승정원일기』(권 746) 1732년(영조 8) 6월 9일.

○ 李萬準，上曰，仍.致中曰，此則斗巨非，爲路次不道之說，稱以得聞於其上典矣.文命曰，一自三金事後，此等事，近於虛謊矣.

49. 정사유(鄭思儒)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4월 2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정중항(鄭重恒)의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60) 1728년(영조 4) 4월 28일.

○ 柳紉, 以義禁府言啓曰, 因嶺南安撫使別遣御史聯名狀啓, 曹命佐, 既是稱兵逆魁鼎佐之弟, 依适·明璉緣坐例處斬, 而鄭思儒·欽儒, 竝絕島定配之意, 既已稟定於榻前, 本道監司處, 以此舉行之意, 回移事覆啓, 允下矣. 命佐, 時在大丘囚禁中, 發遣都事, 與地方官眼同處斬, 鼎佐, 既是稱兵逆魁, 則其餘緣坐, 不可不舉行, 應坐人等, 令漢城府查出帳籍, 分付五部及本道, 其年歲姓名居住存沒, 一一開錄成冊, 上送後舉行, 籍沒家產, 破家瀦澤, 降邑號, 罷守令等事, 令各該司承傳舉行, 而鄭思儒, 濟州牧大靜縣, 欽儒, 旌義縣, 竝絕島定配, 而亦在囚禁中,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694) 1729년(영조 5) 9월 20일.

○ 張泰紹,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慶尙監司所報成冊, 則梟示逆賊重恒緣坐, 已爲處斬者外, 應坐諸人, 列錄以來矣. 重恒妾世英子二奉年九, 子二崇年六, 俱爲年未滿, 黃海道豐川府, 竝緣坐爲奴婢, 子婦自愛, 孫子重悅等, 長淵府, 竝爲奴婢, 子婦愛比元, 孫女美惠·徵惠·池江等, 平安道龍崗縣, 竝爲婢, 子婦幸孫子又悅·戒悅等甑山縣竝爲奴婢, 而右罪人等時囚, 革安陰縣,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而同姓姪子思儒·欽儒等, 曾已絕島定配于濟州牧大靜縣·旌義縣, 仍其邑流三千里, 緣坐安置, 而徒流案中, 改錄後啓聞之意, 分付本道, 何如? 傳曰, 允.

50-51. 이화명(李化明), 이문명(李文明)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8년(영조 4) 4월 30일.
- 사망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이인좌(李麟佐)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59) 1728년(영조 4) 4월 14일.

○ 鄭錫五,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查出帳籍及該道該邑當部所報成冊, 則逆賊涵敬·奎瑞·世龍·麟佐·天永等應坐諸人列錄以來, 故涵敬妻鐵貞, 咸鏡道吉州牧緣坐爲婢, 奎瑞妻屹加應, 子景說年十五, 年未滿, 端川府竝爲奴婢, 世龍妻有點, 子國麟年十, 年未滿, 江原道平海郡竝爲奴婢, 弟世弘, 平安道朔州府爲奴, 弟世枰北青府爲奴, 姪子國泰·國成, 利城縣竝流三千里安置, 麟佐子中明年十二, 仁明年二, 俱是年未滿, 穩城府竝爲奴, 子文明年九, 化明年六, 亦是年未滿, 會寧府爲奴, 天永妻姜次, 女至愛, 慶源府竝爲婢, 子善伊年五, 子官伊年四, 俱是年未滿, 慶源府竝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中, 或在外方, 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660) 1728년(영조 4) 4월 3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稱兵逆魁麟佐, 應坐諸人, 追後成冊, 今始來到, 而麟佐緣坐之類, 已配者改配絕島事, 下教矣.穩城府爲奴罪人麟佐子中明·仁明, 濟州牧旌義縣爲奴, 會寧府爲奴罪人文明·化明, 大靜縣爲奴, 同姓叔弘仁, 全羅道興陽縣羅老島安置, 同生弟夔佐, 年十二未滿, 靈巖郡楸子島爲奴, 同姓姪子現明·慶明, 濟州牧竝安置, 而右罪人等, 或在配所, 或在外方,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20일.

○ 全羅監司趙雲達上疏, 請鏡, 虎, 麟, 亮四賊之子, 并依律, 上從之, 仍教曰: “翼觀, 亘古所無之逆, 其子令該府, 一體舉行.” 掌令李吉輔, 獻納尹東星啓: “鏡, 虎, 麟, 亮四賊

孥籍事，此乃兩司積年陳請者，而今始蒙允，王章夬舉，輿憤大洩。但道臣所請，只是本道見在賊孥而已，則臺達中十魁餘孽，猶有未盡施律者。四賊戮孥之日，此不可獨漏常刑。請戊申賊魁子散在他道者，一依湖南例，查出正法。”上允之。

4)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權抗，以義禁府言啓曰，逆賊鏡·虎·麟·亮四賊之子應施之律，卽令該府舉行事，命下矣。逆賊一鏡子允興，虎龍子德成·德福，麟佐子文明·仁明，希亮子鐵興等，俱配於濟州·大靜·旌義三邑，依例發遣府都事，卽爲舉行，而在前鞫獄方張之時，有假都事差送之例，今亦以假都事發送，與地方官，眼同處絞，何如？傳曰，允。

52. 이경명(李景命)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9년(영조 5) 4월 30일/ 1764년(영조 40) 3월 21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모역, 이소(李炤)의 서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22) 1729년(영조 5) 4월 30일.

○持平李性孝傳前啓, 不允. 又啓: “炤以賊杭子, 處身行事, 爲世指疑, 自先朝臺啓之經年爭執, 旣出深惡痛嫉之意, 昨年島配, 又出爲國長慮. 徑先特放, 大拂物情, 請還收放歸田里之命.” 不允.

2) 『영조실록』(권 76) 1752년(영조 28) 4월 17일.

○上親鞫李亮濟于內司僕, 領議政金在魯, 判義禁金聖應參鞫. 先時, 投書之賊, 久未捕, 連命嚴飭譏詞矣, 是日右捕盜大將張泰紹家門外, 有一人斑白儒衣, 徊徨來去, 日已昏暮, 蹤跡可疑, 泰紹僂從輩見而怪之, 捉而入搜其衣無物. 探其袴, 有一封書落地, 其外封書以張大將親執開坼, 坼而見之, 則其中辭語, 與前日投書同. 問其人, 則對曰: “我是廣平大君後裔, 家於加平, 名爲亮濟矣.” 泰紹詭問曰: “汝前旣投書我家, 又欲投書者何也?” 亮濟曰: “前日所投, 非捕將家, 卽鄭暈良家也.” 泰紹曰: “書中爲何語耶?” 亮濟曰: “語及增, 壘事矣.” 又問: “書中尹台誰也?” 對曰: “沈字, 誤以尹字書之矣.” 又問: “五兩白金之說, 何謂也?” 對曰: “非兩字, 卽斗字之誤也.” 又問: “此外無他語乎?” 對曰: “語及洪啓禧均役事矣.” 問曰: “洪字下, 以何字書之乎?” 對曰: “以台字書之矣. 啓禧庶弟啓良, 與增連姻, 故及之矣.” 遂請對以聞, 命卽親問. 問李亮濟投書中辭意: “觀於捕廳供辭, 已知之, 汝亦朝鮮臣子, ‘五斗白金酌酒相賀’ 等言, 豈忍爲之? 一一直招.” 亮濟供: “臣果以私嫌陷入惡逆, 更無可達矣, 驢善君不善奏達於炤子伏地時, 使炤之子孫, 不得支保, 故深懷悲痛, 投書中欲驅驢善於極惡之科, 而有躍然等語矣. 臣與崇善之孫炤爲姨從, 炤在謫時, 移書於臣, 使於身死後返葬, 立後, 而炤旣死, 其眷屬顛連道路, 炤妻亦已死矣. 炤之庶子

名仁明, 年十五, 次(敬明)[景明]年十三, 炤之養子, 與臣有嫌, 不相知矣. 沈聖希卽驪川之切姻, 故果以身死可惜書之, 沈字誤書以尹字矣. 今番均役後, 民不得聊生, 若去洪台, 則或意均役之中止, 欲逐而書之矣.” 問金德海曰: “汝之根本爲誰, 何年爲日傘事知, 而果知亮濟乎?” 德海供: “臣父振聲, 是盲人, 臣母卽權義衡家婢子也. 臣於戊申業武, 甲寅入禁軍, 壬戌出身, 爲嶺南邊將, 而遞來後, 復爲日傘事知矣. 亮濟則本不知之, 權縑未知以何事而杖斃於鞠廳云, 故果爲收屍矣.”

3) 『승정원일기』(권 1095) 1753년(영조 29) 6월 3일.

○ 各道定配罪人秩, 靈巖郡金世潤仍, 會寧府李興仁量移, 興陽縣羅老島洪益龜仍, 羅州牧尹志仍, 南海縣順賓, 巨濟府忠今竝仍, 羅州牧黑山島件里金仍, 彥陽縣車萬行仍, 三和府鄭良輔仍, 機張縣李綏慶仍, 河東府壽澤仍, 巨濟府魯澤仍, 靈光郡羅沈量移, 機張縣金就寶仍, 長淵府白翎島八金放, 昆陽郡禹圭章放, 康津縣尹德履放, 珍島郡今奉, 南海縣老郎竝出陸, 鐵山府貴得減等, 務安縣堦量移, 濟州牧姜錫濟仍, 珍島郡安就尙仍, 巨濟趙完璧出陸, 南海縣嚴祥鴻出陸, 靈巖郡姜行鼎放, 巨濟府李經濟仍, 機張縣金德海放, 大靜縣景命仍, 旌義縣仁命仍, 海南縣安道行仍, 渭原郡趙昌運放, 龍岡縣金光祚, 江西縣李杞泰, 咸從府李再春, 三和府洪以道竝仍, 唐津縣崔起獻放, 黑山島李亮天, 靈巖郡楸子島洪準海, 當此悶旱, 竝出陸. 天輔曰, 臣於其時, 以其事關僚相, 不敢陳達. 而今當悶旱疏決之時, 宜有參酌之道矣. 上曰, 不然矣. 出陸, 於渠幸矣. 豈可全釋乎? 天輔曰, 聞俱有老母矣. 上曰, 有老母而爲偏論, 尤爲無據矣. 金海府金範甲仍, 寶城郡許潛放, 順天府李時熙放, 慶源府訓戎鎮趙倅·李始赫竝放, 東萊府鄭忠彥放, 海南縣申暉, 當此悶旱, 特放, 珍島郡黃夏成, 康津縣古今島黃大逸, 竝出陸, 大丘府金浩放, 海南縣李朝望放, 徒配罪人秩, 密陽府車道林放, 長鬐縣沈海容放, 陽川縣南山驛高星輝放, 海美縣趙載敏放, 衿川縣盤乳驛南鶴宗放, 稷山縣鄭續述放, 橫城縣葛豐驛洪有輔放, 廣州府德豐驛安相徽放, 原州牧安昌驛李浚放, 楊州牧平丘驛趙榮祐放, 廣州府慶安驛鄭景曾放, 定配身死未蒙放罪人秩, 濟州牧尹景濟仍, 盈德縣趙世忭仍, 珍島郡李弘澤仍, 泗川縣趙德普仍, 南海縣尹相惠仍, 大靜縣金堯鏡仍, 大靜縣李明彥仍, 大靜縣金德裕仍, 興陽縣申弼誨仍. 上曰, 近來上言甚紛紜, 此後則一番定奪後, 其中如趙德普者, 永勿令訟冤, 宜矣. 天輔·尙魯曰, 下教至當矣. 順川郡申弼仁仍, 扶安縣蝟島鎮閔允昌仍, 巨濟府尹相靖仍, 泗川縣李獻章仍, 康

津縣薪智島尹遂仍, 金堤郡權攝仍, 襄陽府尹相憲仍, 羅州牧黑山島楊就達仍, 通川郡權繕放, 忠州牧朴景淳仍, 海南縣許榮既諭特放.

4) 『승정원일기』(권 1228) 1764년(영조 40) 3월 21일.

○ 甲申三月二十一日二更,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判義禁洪象漢, 同義禁具允鉦·韓光會·申暉, 大司憲鄭光忠, 大司諫尹坊, 行都承旨沈鏞, 左承旨鄭尙淳, 左副承旨金應淳, 右副承旨鄭運維, 同副承旨李壽鳳, 問事郎副應教李命植, 副校理李明煥, 副校理朴志源, 副校理李性源, 副司果元義孫, 副修撰尹承烈, 副司果李敬玉, 副修撰朴師海, 別刑房都事李基正·鄭東顯, 文書色都事沈載鎭·趙鼎鎭, 假注書李思祚, 事變假注書金宅洙, 記事官金敘九·金煊. 上具翼善冠·袞龍袍, 自興泰門, 出廣達門, 詣太僕殿座時, 上以承旨, 命書傳教曰, 其答雖諭, 莫重之事, 年少學儒, 焉敢陳請? 況疏頭, 以黃口小儒, 未能誦詩, 而敢引詩義, 且製疏更思之, 頃年應殿講者也, 以講經之儒, 焉能製此? 噫, 以璿派, 隨衆輕躁之儒, 其涉可駭, 若不嚴隄防, 此後怪舉, 何以懲戢? 今日入侍四儒及發論之儒, 竝除名儒籍, 此等莫重之章, 職在唯允, 焉敢捧納, 當該承旨罷職. 洪鳳漢曰, 問事郎應李在協有實病云, 副修撰朴師海差下, 何如? 上曰, 依爲之. 大司憲洪樂性曰, 親臨鞫囚, 事係嚴急, 沐浴義重, 蒼黃承命, 而鞫獄事體, 或有獄官臺閣, 相與可否之時, 臣父方帶判義禁之任, 臣之冒沒參鞫, 揆以私義, 已極不安. 且臣堂叔, 以上相, 參鞫, 其在鞫體, 尤爲萬萬難安之端. 臣之不可晏然也, 明甚, 請命遞斥臣職. 上曰, 依啓. 上曰, 大司諫鄭光忠, 大司憲除授, 承旨尹坊, 大司諫除授, 先入侍, 後謝恩. 上曰, 參議鄭尙淳, 承旨除授, 牌招察任, 房順房. 上曰, 殿座, 承旨不可不備員, 行副護軍金應淳, 承旨除授, 牌招察任, 房順房. 沈鏞曰, 省記承旨皆遞, 別省記, 敢稟. 上曰, 依爲之. 上曰, 罪人德潤上之. 上曰, 汝以翊周之子, 必參於榮得諸賊飲食之會, 謀逆情節, 汝亦得知, 一一直招. 罪人口招, 在事變日記. 上曰, 遣御史慰諭之後, 德潤拿囚, 德潤以能猾翊周之子, 敢爲求生之計, 恐或支蔓島中無辜之人, 雖憊親問者, 或有事端, 則欲辨玉石之意矣. 德潤今則箇箇遲晚, 而無他蔓延之事, 不孤慰諭耽羅之意, 從今以後, 非徒予心之快解, 島民可以便心. 金牧使以此布諭島中, 應坐編配中景命, 雖登德潤之招, 無他緊語, 雖不發捕, 渠以其時, 宜乎正法者, 年未滿而刑配, 則不悛舊心, 尙爲總角, 御史推問時, 其兄仁命, 謂以非兄, 亦曰, 非草貞之子, 而以其父招, 亦曰, 非渠之父, 此無父無兄, 巧惡無倫者. 卽此一事, 殺之

無赦，不可一刻置之於覆載之間，使牧使逐日嚴刑三次事，令該府卽爲分付.出傳教 上曰，今日事果善成矣，或慮此漢，爲死中求生之計，支蔓於無辜之島氓矣.無一辭遲晚，極可幸矣.鳳漢曰，聖教至當矣.上曰，瓜滿代，都政舉行，其雖法典，非徒本州，先或差代，亦有其例.今聞判官新迎夫馬，歲初上來云，飢歲島民遲滯，不可不顧，濟州判官瓜滿代，令該曹不爲署經者，口傳擇差，使之卽爲辭朝.出傳教 大司憲鄭光忠曰，憲府無啓矣.上曰，何以無啓？光忠曰，洪得源事，已停啓故也.上曰，善爲之矣.光忠曰，新除授持平李台鼎，時在京畿廣州地，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上曰，依啓.大司諫尹坊曰，請鍾城府爲奴罪人天大，還收酌處之命，依律處斷.措辭見上 上曰，勿煩.坊曰，新除授獻納金魯鎮，時在京畿漣川地，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上曰，依啓.李壽鳳曰，濟州人，飲食居處，極爲苟略，而居處則全無房堦，大靜甘山村，以自京竄謫人居處之故，獨有房堦.以德潤之招見之，尋常竄謫之人，緣坐編配之類，雜處往來於甘山村者，誠爲可悶.竄謫之人，則或分移於西北，以絕其雜處之患似宜，故敢達矣.上曰，令該府分付本牧，使之移配他鄉.上曰，明日只晝講，中甸次對兼行.出傳教 還入大內後，諸臣以次退出.

53. 김덕유(金德裕)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29년(영조 5) 1월 20일/ 1753년(영조 29) 6월 3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이인좌의 난, 민백효〈閔百孝〉 연좌, 민암〈閔黯〉 사위)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21) 1729년(영조 5) 1월 20일.

○ 引見鞠廳大臣, 酌處趙德普, 睦重衡, 禹如天, 姜必齊, 金德裕, 朴泰堅, 朴泰三, 洪啓一等有差. 初, 戊申賊閔百孝供稱: “德普知賊謀, 聞安城敗報, 仰天太息事, 在三月十五日.” 德普供: “三月十八日, 自京下往龍仁, 二十三日, 發龍仁宿稷山, 赴任湖縣.” 命本道查問, 官人之供, 一如德普言. 上以德普與閔昌道結姻, 持身不謹而爲是, 先正臣趙光祖後孫也. 命參酌配極邊. 重衡累出戊申賊招, 以爲三月十五日, 期會于板橋至有青坡 睦井邑湖南賊大將之說. 重衡供: “三月十五日, 卽清州作變之日, 則板橋期會之說, 不成事理.” 上以三月十五日, 乃是嶺湖各道諸賊, 約與相應之日, 則此不足爲自明之端, 而罪不明白, 命減死配絕島. 如天, 鎭岑縣座首也, 必齊, 鎭岑縣吏也, 縣監李萬東從逆時, 或酬酢凶言, 或往來賊陣. 上以脅從原之, 命如天配絕島, 必齊配遠地. 德裕, 忠州人, 閔黯之女壻, 韓世弘之內舅也. 始爲百孝所引, 逮問旋酌處, 忠州人藉藉言, 德裕漏網, 司諫徐宗玉啓請更鞠, 從之. 累加刑訊, 不得端緒. 上曰: “從臺言, 欲以釋群情之疑耳. 德裕既經酌處, 旋復杖死, 則凡經酌處者, 豈不舉懷疑懼乎? 以疑殺人, 非王者道.” 特命減死配大靜縣.

2) 『승정원일기』(권 677) 1729년(영조 5) 1월 20일.

○ 左議政洪致中曰, 金德裕, 卽世弘之外三寸, 而賊黯之女壻也. 其名既出於百孝之招, 又與諸逆賊, 結連情迹, 極涉可疑, 故臺啓之爭執, 鞠廳之請刑, 蓋出於此, 而但以文案所載觀之, 則未有明白同情之證, 限輸情訊問, 似有乖於欽恤之義, 下詢而處之, 何如? 上曰, 諸臣各爲陳達, 可也. 台佐曰, 聞德裕一鄉之人, 致疑於德裕者多矣. 向來酌處之後, 忠州之人, 皆以吳尙稷·尙億酌處爲得當, 以德裕爲漏網, 故日昨徐宗玉之論所以發也. 但別無明

白同情之迹，只以與世弘爲舅甥。且與賊黯連姻之故，致疑而一向刑訊，至於徑斃，則恐非欽恤之道，故左相有此仰達矣。興慶曰，頃日臺臣，亦以德裕之事，有人言拈出而論啓者，以其處地之故也。臺啓蒙允之後，更推受刑，已至二次，今當酌處之日，減死絕島定配，恐不害爲欽恤之道矣。就明曰，臣意亦然矣。世瑾曰，臣亦與委官意同矣。尙容曰，德裕之即今受刑，以其處地之故，而無指摘可捉之事，似當有參酌之道矣。龜休曰，右相所謂無明白同情之迹云者，是矣。致中曰，此類則雖或酌處，置之最遠絕島似宜矣。上曰，德裕事，向日徐宗玉言之，而予意則謂不當以疑事按鞫，而允其啓者，欲其釋群情之疑耳。德裕，既經酌處，而旋復杖死，則前此酌處者，豈不舉懷疑懼乎？王者之道，當祛疑字，二次刑訊，亦懲其罪，終以疑殺之，則有非王者恤刑之道，而如此之人，當屏諸四裔，參酌減死絕島定配，而配所則定以濟州，可也。致中曰，濟州則既多竄配之類，定以大靜等處似宜矣。上曰，定以大靜，可也。出舉條

3) 『승정원일기』(권 879) 1738년(영조 14) 10월 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濟州牧定配罪人放未放啓本，頃纔上來，而本府所管大靜縣定配罪人金德裕，落漏於啓本中，殊涉疎忽，當該牧使推考警責，何如？傳曰，允。

4) 『승정원일기』(권 1095) 1753년(영조 29) 6월 3일.

○ 各道定配罪人秩，靈巖郡金世潤仍，會寧府李興仁量移，興陽縣羅老島洪益龜仍，羅州牧尹志仍，南海縣順賓，巨濟府忠今竝仍，羅州牧黑山島件里金仍，彥陽縣車萬行仍，三和府鄭良輔仍，機張縣李綏慶仍，河東府壽澤仍，巨濟府魯澤仍，靈光郡羅沈量移，機張縣金就寶仍，長淵府白翎島八金放，昆陽郡禹圭章放，康津縣尹德履放，珍島郡今奉，南海縣老郎竝出陸，鐵山府貴得減等，務安縣堦量移，濟州牧姜錫濟仍，珍島郡安就尙仍，巨濟趙完璧出陸，南海縣嚴祥鴻出陸，靈巖郡姜行鼎放，巨濟府李經濟仍，機張縣金德海放，大靜縣景命仍，旌義縣仁命仍，海南縣安道行仍，渭原郡趙昌運放，龍岡縣金光祚，江西縣李杞泰，咸從府李再春，三和府洪以道竝仍，唐津縣崔起獻放，黑山島李亮天，靈巖郡楸子島洪準海，當此悶旱，竝出陸。天輔曰，臣於其時，以其事關僚相，不敢陳達。而今當悶旱疏決之時，宜有參酌之道矣。上曰，不然矣。出陸，於渠幸矣。豈可全釋乎？天輔曰，聞俱有老母矣。上曰，有老母而爲偏論，尤爲無據矣。金海府金範甲仍，寶城郡許潛放，順天府李時熙放，

慶源府訓戎鎮趙倂·李始赫竝放，東萊府鄭忠彥放，海南縣申暉，當此悶旱，特放，珍島郡黃夏成，康津縣古今島黃大逸，竝出陸，大丘府金浩放，海南縣李朝望放，徒配罪人秩，密陽府車道林放，長鬐縣沈海容放，陽川縣南山驛高星輝放，海美縣趙載敏放，衿川縣盤乳驛南鶴宗放，稷山縣鄭纘述放，橫城縣葛豐驛洪有輔放，廣州府德豐驛安相徽放，原州牧安昌驛李浚放，楊州牧平丘驛趙榮祐放，廣州府慶安驛鄭景曾放，定配身死未蒙放罪人秩，濟州牧尹景濟仍，盈德縣趙世忭仍，珍島郡李弘澤仍，泗川縣趙德普仍，南海縣尹相憲仍，大靜縣金堯鏡仍，大靜縣李明彥仍，**大靜縣金德裕仍**，興陽縣申弼誨仍。上曰，近來上言甚紛紜，此後則一番定奪後，其中如趙德普者，永勿令訟冤，宜矣。天輔·尙魯曰，下教至當矣。順川郡申弼仁仍，扶安縣蝟島鎮閔允昌仍，巨濟府尹相靖仍，泗川縣李獻章仍，康津縣薪智島尹邃仍，金堤郡權攝仍，襄陽府尹相憲仍，羅州牧黑山島楊就達仍，通川郡權繕放，忠州牧朴景淳仍，海南縣許槩既諭特放。

54. 이만유(李萬維)

- 신분: 관리(집의)
- 유배 연월: 1729년(영조 5) 12월 14일.
- 이배 연월: 1732년(영조 8) 6월 23일(광주목).
- 사유: 봉당(기사환국 두둔 상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24) 1729년(영조 5) 12월 14일.

○ **執義李萬維上疏**, 略曰: 頃日蔡彭胤之承牌入泮, 乃所以奉君命試多士, 則其事體亦重矣, 而泮儒提起累十年既往之事, 終至驅逐而後已. 噫! 此何舉也? 從祀一節, 乃百年彼此相持之論也. 今之在銓衡者, 蓋惜彭胤文章才華之超群, 起廢於四十年之久, 畀以藝苑之文任. 此可見朝議之通同, 公議之少伸, 而一番出脚, 狼狽無餘, 臣竊痛之. 前後排斥從祀之人, 掌文衡知貢舉者, 亦何限, 而臭味不同之士子, 未嘗有以此嫌礙而廢舉者, 豈慕賢之誠, 前人不及今人而然歟? 殿下, 方以蕩平爲務, 往事付之先天之教, 累發於絲綸. 有君如此, 下若承奉, 則二百年弊痼之黨習, 庶可少祛, 而人心不齊, 間有此等無前之異舉, 若此不已, 臣恐半國臣僚, 更無立朝事君之人也. 且臣於《肅廟寶鑑》纂修事, 抑有區區所懷. 嗚呼! 惟我肅宗大王五十年, 臨御盛德大業, 卓越百王, 深仁厚澤, 淪人骨髓, 此所謂文王沒世不忘者也. 既舉綱儀, 爲百代不祧之位, 又纂《寶鑑》, 爲萬世貽燕之謨, 於是乎我殿下聖孝, 亦無愧於武王, 周公, 猗歟盛哉! 第伏聞邦禮一款, 不爲載錄. 蓋禮訟, 本多支文, 一一收錄, 有違寶鑑, 凡例故也. 而然伏念聖考體顯廟遺意, 卽位元年, 首正大禮, 以爲金石不刊之典, 于今五十有餘年, 則此豈與私家事之作爲黨論, 推上於朝廷者, 比而同之, 一體刪去也哉? 臣愚死罪, 亦以爲此一節, 舉其大略, 數十年邦禮, 既誤復正之意, 作數行文字, 昭揭《寶鑑》之中, 光聖烈而眎來後, 斷不可已也. 疏入, 教曰: “今者以蕩平申飭, 而又命付諸先天者, 乃丙申以後起於微甚. 至於辛壬乙丙者也. 己亥, 己巳等事, 元無提論, 乃先朝處分, 明若日星故矣. 歲久年深, 其革舊勵新者, 勿永枳疏通調用, 乃蕩平之道. 而本事元不混付於先天, 則今李萬維憑藉憲職, 托以所懷, 欲亂幾四十年處分, 已極痛駭. 而況今番下教之後, 在上者涇渭固當若此, 而使渠, 若有嚴君父之心, 何敢以民彝, 倫常等語,

肆進仿君父乎? 且提論從祀邦禮, 欲售蘊蓄, 欲眩處分, 渠若有一分人心, 豈敢若此? 事之痛駭, 莫此爲甚. 一自十八日下教之後, 凡諸不脫舊習者, 本不欲深治, 助其層激, 而此則關係非細, 其躑躅之漸, 不可不嚴加堤防, 濟州牧 大靜縣絕島安置.”

2) 『승정원일기』(권 698) 1729년(영조 5) 12월 14일.

○ 又以備忘記, 傳于李春躋曰, 今者以蕩平申勅, 而又命付諸先天者, 乃丙申以後, 起於微, 甚至於辛·壬·乙·丙者也, 己亥·己巳等事, 元無提論, 乃先朝處分, 明若日星故矣. 歲久年深, 其革舊勵新者, 勿爲永枳, 疏通調用, 乃蕩平之道, 而本事元不混付於先天, 則今李萬維, 憑藉憲職, 托以所懷, 欲亂幾四十年處分, 已極痛駭. 而況今番下教之後, 在上者經緯, 固當若此, 而使渠若有嚴君父之心, 何敢以民彝倫常等語, 肆進於君父乎? 且提論從祀邦禮, 欲售蘊蓄之心, 欲眩若日之處分, 渠若有一分人心, 豈敢若此? 事之痛駭, 尤莫此爲甚. 一自十八日下教之後, 凡諸不脫舊習者, 本不欲深治, 助其層激, 而此則關係非細, 其躑躅之漸, 不可不嚴加堤防, 濟州牧大靜縣, 絕島安置.

3) 『영조실록』(권 31) 1732년(영조 8) 6월 21일.

○ 命申處洙撤籬量移, 朴長潤近道量移, 李萬維出陸, 以旱災疏釋也.

4) 『승정원일기』(권 746) 1732년(영조 8) 6월 21일.

○ 備忘記, 傳于金應福曰, 牲幣遍舉, 再禱社壇, 神猶夢夢, 終不惠我. 噫, 咎在寡躬, 民實奚辜? 顧此八路, 實欲無語. 朔膳停捧, 業有前例, 方當責躬, 尤何依常? 兩朔朔膳, 特爲停封. 今則顧軍兵之暴露, 效古人之默省, 靜以反求之外, 無他道矣. 雖然, 有司舉行, 亦不可停, 勿拘親祭, 次第舉行. 而雙嶺·險川戰亡人, 戊申年設壇賜祭處, 竝爲致祭, 以慰幽冤. 此時講究廟謨, 疏通滯鬱, 其不容緩, 明日雖非日次, 來會賓廳事, 分付. 申處洙·朴長潤·李萬維, 其所所犯, 俱極痛駭. 若有漢法, 處洙·長潤, 豈敢戴頭覆載? 而渠等雖無狀, 倚門其母, 其何辜焉? 此輩雖甘心時象, 不孝不忠. 王者以孝治國, 既傳生也. 值此疏滯, 豈無參酌? 萬維, 其所處分, 不可不嚴. 當初海島, 予亦過中, 既知過焉, 值此憫旱, 亦宜參酌. 申處洙撤籬量移, 朴長潤近道量移, 竝使見其母, 李萬維亦爲出陸量移. 噫, 觀今三人之處分, 可知予心之迫切. 咨爾臣僚, 此乃爲民, 非爲三人, 莫曰或弛於時象.

5) 『승정원일기』(권 746) 1732년(영조 8) 6월 23일.

○ 金應福, 以義禁府言啓曰, 甲山府梲棘罪人申處洙, 撤籬量移, 星州牧出陸罪人朴長潤, 近途量移, 大靜縣絕島安置罪人李萬維, 出陸量移事, 承傳啓下矣. 申處洙, 平安道中和府撤籬量移, 朴長潤, 忠清道全義縣量移, 李萬維, 全羅道光州牧出陸量移. 而依前罪目, 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6) 『승정원일기』(권 751) 1732년(영조 8) 11월 19일.

○ 上曰, 濟州人民, 先朝視如赤子, 繼述之道, 當有另念矣. 羅里浦設置後有所益乎? 柑子之來, 儒生苦待, 而不惟柑無消息, 柚亦不來, 予恐或有飄風之患也. 命均曰, 今年風勢不順, 謫客李萬維, 幾死飄還, 魚藿船二隻致敗, 進上船亦飄還云矣.

55. 조관빈(趙觀彬)

- 신분: 관리(대사헌)
- 유배 연월: 1731년(영조 7) 10월 27일.
- 이배 연월: 1732년(영조 8) 2월 24일(만경현).
- 사유: 왕명 비판(탕평책 비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30) 1731년(영조 7) 10월 27일.

○ **大司憲趙觀彬**入侍, 上怒責之曰: “卿疏中有非陰, 非陽之語, 今日主蕩平者誰也, 而敢爲是語乎?” 觀彬曰: “蕩平下有主之者, 而殿下陷其術中也. 《易》以陽比君子, 以陰比小人, 主蕩平之臣, 既不得爲君子, 比小人之甚者, 則差有間焉, 故曰非陰非陽也.” 上曰: “予自甲乙, 實主蕩平, 卿何願忠於非陰非陽之物也?” 觀彬曰: “殿下豈忍爲此言? 且乙巳彙征, 何嘗爲蕩平乎?” 上曰: “以卿處地, 不念國事, 何爲此乖亂之舉乎?” 觀彬曰: “舉世媮媚, 人無敢論右相與吏判者, 而臣知其爲人之必誤國, 故敢言之, 可見臣爲國苦心也.” 上曰: “設有捧日之忠, 欲乖亂朝廷者, 非忠也. 予當鞫問, 而惜其職, 故不爲也.” 仍顧承旨曰: “予之今日辭氣, 若是從容者, 以向日儒臣, 勉予涵養故也.” 命書傳教曰: “大司憲趙觀彬, 先遞其職.” 又教曰: “趙觀彬初疏, 已示微意, 及其再疏, 露出黨心. 噫! 今之恢蕩, 欲扶將亡之國勢, 則渠雖急於私讎, 獨不念公乎? 況今之此奉, 在上者主之乎, 在下者主之乎? 在上者主之而歸之在下, 非陰非陽之說, 舉敢免於不道之科? 且誣人惡逆, 尤爲無狀, 初欲嚴問, 而渠雖無狀, 其職則都憲也, 其所參酌, 惜其職也. **其竄于大靜縣.**”

2) 『승정원일기』(권 733) 1731년(영조 7) 10월 27일.

○ 觀彬曰, 臣以世臣, 憂係宗國, 淹留江上, 可謂爲國, 元無罪狀之可論矣. 至於光佐, 賊魁也, 國人之所共誅, 而渠乃敢遲回不去, 寧不萬萬可慮乎? 上曰, 予於今日筵席, 若是從容言之, 不示辭色者, 入侍諸臣, 亦當不以爲意, 而渠之無狀之言, 於我何關? 且儒臣於向日, 以涵養工夫, 勉戒切至, 曾未幾何, 不能操存此心, 則涵養工夫, 何時可就? 今日之少無過學者, 蓋爲此也. 上曰, 以事體言之, 八刑之中, 亂言之誅, 卿豈可免乎? 非陰非陽則

此爲天地間一箇乖物，卿雖以此侵辱在下者，而以凡人言之，其父所爲之事，移之以辱其子，則其辱，不歸於其父乎？知人爲逆，則當以密封告之，而不爲密封者，懼其置對，故以疏言之，似此用意，尤爲絕痛。今後則雖有以光·森爲言者，當依密封例，先捧其供辭矣。初見卿疏，意欲設鞫親問，其非陰非陽之語矣，既又思之，卿雖無狀，官則都憲，若有犯上爲逆之事，則雖都憲，亦不可顧，而此則異焉，故不爲設鞫，非爲卿也，爲都憲也。予素知卿，閱歷禍故，所傷已多，且知卿性躁，若放之於絕塞絕海，則必不能生，而卿之今日之言，卿父在則必以爲不可，卿其負卿父矣。予在潛邸，爲摠管時，卿父久爲兵判，故熟知其爲人醇厚，而卿則不尙於卿父，自出身初，已知其持論之刻薄矣，卿父如有知者，必以今日之下教，爲是，卿於歸見卿父之日，以此予言，傳之，可也。觀彬曰，臣於是乎始知聖意之不欲殺臣也。譴罪之時，有此縫眷之意，不勝感激，雖絕塞絕海，臣所不辭，然與其以臣薄竄，而必爲蕩平，寧殺臣而勿爲蕩平，則幸矣。上命承旨書之曰，大司憲趙觀彬，爲先遞差。觀彬起伏曰，殿下雖遞臣職名，臣之常所欲言者，入此筵席，何可不畢陳而退乎？上又命承旨書之曰，趙觀彬初疏，其意可見，而及於再疏，露出其心。噫，今日處分，欲扶將亡之國勢，則渠雖急於私讐，焉敢若是？況今之此舉，在上者主之乎？在下者主之乎？欲致寅協之意，自甲辰主者在上，而敢托諸臣非陰非陽之說，已極無嚴，豈將免於不道之科？且誣人惡逆，爲今痼弊，欲爲嚴問痛處，定時象之囂囂，定意久矣，於此於彼，俱難免王法。噫，觀彬雖無狀，其職乃都憲也，因其言，鞫都憲，非王政所宜，十分參酌者，非爲人也，惜其職也。雖若此，此等教亂時象之人，其無國則已，決不可以不治治之，濟州牧大靜縣絕島定配，即刻發送。

3) 『영조실록』(권 31) 1732년(영조 8) 2월 21일.

○ 教曰：“恩威不可偏廢。噫！世道浮薄，朝象汙渙。趙觀彬乘時逞憾，投之海島，乃末勘爾，但其父受後命於海島，宜推不忍人之政。趙觀彬特令出陸。”

4) 『승정원일기』(권 739) 1732년(영조 8) 2월 21일.

○ 上，又命濊書之曰，恩威，王者之不可偏廢，況王言當信。頃者趙觀彬之投畀海島，非罰也，乃未減中未減也。國無法則已，既有法，而若觀彬而不施，施於何人耶？故右揆之不安陳達，首揆之從容陳白，皆不許也，而至以往事，豈不恤而未越海之前，決難撓改之意，下

教矣.噫,世道浮薄,朝象不齊,若觀彬者,亦乘時而逞憾,恣意而構捏乎?況又疏語,尤極無倫,可勝痛哉?海島之中,雖報故狀,於渠自陷,豈足道也?但渠父以大臣,受命荒島,渠又以都憲,物故絕島,則是豈王者不忍人之政哉?故頃者下教,乃由此也.到配之狀,既已啓下,當信之道,亦有參酌,特命出陸,而今者處分,非曰觀彬所爲,容有可恕,實追惟乎渠父矣.使觀彬,若不自悔而悛舊習,是非特負君也,乃負其父也,知予此意,俾令悛改其舊習於邊陲.濊書畢,上謂文命曰,趙觀彬事,卿與領相言之,而使觀彬不越海,則是國家不嚴也.故以到配狀入來後,當處之爲教矣,今到配狀入來,故爲此處分

5) 『승정원일기』(권 739) 1732년(영조 8) 2월 2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絕島定配罪人趙觀彬出陸事,承傳啓下矣.趙觀彬,全羅道萬頃縣出陸,而仍前罪目,依例發遣府書吏,仍令押送于配所之意,敢啓.傳曰,知道.

6) 『영조실록』(권 31) 1732년(영조 8) 6월 9일.

○ 命放趙觀彬之謫,量移權燮於中道.

7) 『승정원일기』(권 746) 1732년(영조 8) 6월 1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今六月初九日,親臨疏決時,未及拿來罪人,甌山縣令李博,假注書李台重,忠清道大興郡量移罪人金弘錫,洪陽縣定配罪人李世燁,黃海道松禾縣遠地定配罪人尹萬億,文化縣定配罪人張■,全羅道咸平縣定配罪人僧文贊,興陽縣遠地定配罪人金守白,長興縣極邊定配罪人洪廷佐,海南縣卽其地定配罪人金夏九, 萬頃縣出陸罪人趙觀彬,慶尙道機張縣遠地定配罪人劉光賢,知禮縣遠配罪人柳紘,平安道咸從府遠地定配罪人繼輝,安陵縣遠地定配罪人邊緯等, 竝放送.

56. 권영(權瑩)

- 신분: 관리(지평)
- 유배 연월: 1733년(영조 9) 1월 14일.
- 이배 연월: 1733년(영조 9) 1월 22일(해남현).
- 사유: 건의 불발(왕의 실정 상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33) 1733년(영조 9) 1월 14일.

○ 竄持平權瑩于大靜縣，以上疏言事也。 其疏略曰：殿下之使臣，殆若廝役，少有違拂，輒加呵叱。苟欲其出，不問其情地，廉隅之如何，而必下不忍聞之教，爲臣下者，不知爲朝廷惜名節，惶恐悚迫，擺却廉恥。殿下方以此，爲迫出臣隣之妙鍵，而所以任使者，率皆惟命是趨，依違苟且之類。夫如是，故大官，小官相師成風，專事周容。或有一二逆耳之言，則殿下創見而駭之，譴責言者，不啻詆訕，乃以不問賢愚，竝用雜進，認爲無黨無偏之效，而衰世之象，無不畢見矣。殿下於卽阼之初，首選經筵官，若將有意於儒學，而權輿不承，不復招延。如李紱，韓元震，蔡之洪，尹鳳九諸臣，皆窮經林下，負一時之重望，若招致賓筵，以責啓沃，則其所以贊聖學責聖化，豈若今日廷臣之庸庸碌碌，而向者殿下所以待元震，紱者，大是情實之外，有失中外之望，豈不惜哉？今若追還前後過中之下教，深示悔悟之意，仍竝與之洪，鳳九，而別加敦召，置之左右，以資聖治，則日月之更，孰不仰止？噫！四臣之事，前後諸臣，疏請筵白，已盡無餘矣。同參聯筭，同被酷禍，則有罪無罪，宜無異同，而或伸或不伸，未免半上落下之歸。雖以已伸之兩臣言之，只還其職，猶斬例諡，則是猶以罪人待之也，烏在其伸白也哉？夫四臣之屈伸，實關義理顯晦，則諸臣之苦心力陳，必以去就爭者，只以所重有在故也。殿下初則許以待諸臣畢至而處分，及夫諸臣之盡在朝列，則筵教疏批，頓異前日。殿下若初無必伸之意，而只爲招徠諸臣，姑爲此教，則是待諸臣，太不誠實，而進之不以其正也。且殿下旣於此事，痛察幽冤，哀愍惻怛，無復餘蘊，將爲處分之教，屢下於筵席，而特激惱於群下之力請，至以此非在下者所當請爲教。事苟可爲，因其請而許之，顧何歉於虛受之德乎？近來人心狃玩，隄防漸弛。李巨源，李普昱俱以父事鏡賊，爲一世指目，而巨源則以泰徵之妻甥，贊美虎賊，辭意極其凶悖，尤非他人之

比. 臣恐此防一壞, 亂賊生心. 明彥父子罪惡, 不可勝誅, 設鞫嚴問之啓, 日登於兩司, 而今聞夏宅出沒於京輦之間, 蹤迹陰祕, 人多疑惑. 縱不卽快正王法, 姑先屏諸遐裔, 以絕禍根也. 疏入, 上震怒, 命牌招, 連加催促. 瑩入肅, 夜已三鼓矣. 上召見問曰: “人臣事君之道當如何?” 瑩對曰: “爲國盡忠, 卽臣子之道也.” 起伏之際, 仰瞻天顏, 上厲聲叱曰: “少有嚴畏之心, 安敢仰視? 先爲從重推考.” 瑩曰: “臣雖愚劣, 不料殿下待臺臣如此也.” 上曰: “汝居言事之職, 不思效忠於君父, 而乃與汝從弟爌, 欲效忠於時象, 豈不痛哉? 先朝弼夢之補鏡城也, 見其辭氣不變, 謂有氣節, 終爲逆賊矣. 汝於四臣事, 以予爲欺臣者然,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韓元震向來疏語, 有礙逼於皇明 高皇帝, 予自此不以儒臣待之. 李緯, 尹鳳九等學問, 予亦知之. 汝若從容陳白, 未爲不可, 而急於護黨, 欲沮朝廷出仕之人, 此尤無狀矣. 李巨源雖是泰徵之妻甥, 且有甲辰堂筭之事, 而豈可直驅之於逆乎?” 瑩徐對曰: “臣當次第仰達矣. 韓元震向聞傳播爽誤之言, 不勝愛君憂國之心, 至於陳戒. 豈有不尊周之心乎? 李緯雖是科目出身, 林下讀書, 已三十年, 學問高明. 向者召還疏, 殿下疑其出於緯之門人, 實是情外也. 李巨源, 李普昱舉世皆謂一鏡, 師尙之假子, 心常痛惋矣.” 上曰: “巨源之作虎文爲鏡黨, 予亦知之. 故不復通擬於清望矣. 權爌旣斥巨源, 而汝以從兄, 又繼之可乎?” 對曰: “事苟可論, 父子之間, 亦且不避, 況從兄弟乎?” 又曰: “四臣事, 臣當仰陳矣.” 言纔發端, 上大怒曰: “汝以此事, 欲操切君父乎? 予當以太阿斬汝矣.” 命先遞職. 瑩趨出, 上拍案曰: “此時象之忠臣, 朝廷之亂臣也. 五賊皆傷於黨論, 而予最見欺於弼夢. 自是以後, 痼於時象者, 雖有臥龍之才, 決不用於今日朝廷矣. 予豈畏一權瑩乎?” 仍下教曰: “權瑩甘心時象, 不顧君父, 屏諸四裔, 非瑩而誰? 大靜縣絕島定配, 卽爲發送, 令今月內越海.”

2) 『승정원일기』(권 754) 1733년(영조 9) 1월 14일.

○ 同日夜三更三點, 上御別儲廂. 引見, 持平權瑩入侍, 承旨尹東衡, 假注書李鼎輔, 記事官宋教明·金漢喆. 上曰, 承宣記得向日庭試題乎? 對曰, 乃本支百世也. 上曰, 權瑩新登科第, 不知何狀, 欲爲識面而招入矣. 仍下詢曰, 人臣許身事君之道當如何? 權瑩曰, 區區愚忠, 已悉於疏中矣. 上曰, 非問疏中語也, 欲聞許身事君之道矣. 對曰, 爲國盡忠, 卽臣子許身事君之道也. 仍起伏之際, 乍瞻天顏, 承宣尹東衡曰, 其在事體, 不當仰視矣. 上疾聲叱責曰, 渠敢仰視君父, 少有一分嚴畏之心, 安敢若是乎? 誠極痛駭, 爲先從重推考. 對曰, 臣

雖愚劣，不料殿下之待臺臣如此也。上曰，汝居言思之地，不思效忠於君父，與汝之從弟權爍，欲爲效忠於時象，豈不痛惡乎？先朝弼夢之外補鏡城也，予見其辭氣之不變，謂有氣節矣。終爲逆賊矣。予問以科題者，其時落點於本支百世者，意有所在，汝不思本支百世之意，使予激惱，至於添病，無君父而後，汝欲效忠於何處乎？人臣，衣君衣，食君祿，不思效忠之道，安有如許臣子乎？己酉以後，言及不敢言之地，其時閉閣之舉，實是往牒之所無，可見予之苦心，而況今歲首之飭勵，意有在焉，則許身事君者，不念于此，而敢售偏黨之言，蓋爲時象而護黨者，畢竟爲逆賊矣。四臣事，向有當有遺教，及臣擇君之言後，敢發此等之言，以予爲有若欺臣者然，安敢若是乎？予雖昏暗，見其疏，能知其人，汝之用心，極爲無狀矣。是可忍也，孰不可忍也？雖以韓元震事言之，向來疏語，顯有礙逼於皇明太祖皇帝，故予自此，不以儒臣待之，汝亦權尙夏之姪，猶知此等事也。元震，無尊周之意，而欲爲營護，豈不痛駭乎？李緯學問，汝若詳知，則從後陳白，未爲不可，而敢逞護私黨之計，欲沮朝廷出仕之人，尤極無狀矣。李巨源輩，設曰鏡黨，汝疏，以封德彝事言之，而德彝，雖爲隋煬帝之佞臣，末則爲忠臣，予雖昏劣，豈使直臣，爲佞臣乎？汝於辛壬之事，一皆謂之忠，於戊申事，一皆謂之逆。巨源，雖是泰徵之妻甥，甲辰且有堂筭之事，然豈可直驅之於逆科乎？德修，於予爲誰？猶入於勘亂錄，大小宗戚，亦多入之，汝不量此而發如此之言乎？汝初入臺閣，欲售護私黨排異己之習，豈不痛惡乎？對曰，臣當次第，仰達矣。臣疏尚在，未知疏中何語，果爲朝臣不安之端耶。韓元震，嘗屢登經席，被待遇之異恩，常有死報之心，故向聞傳播爽誤之言，不勝愛君憂國之心，至於陳戒，豈有一分不尊周之心乎？殿下只見疏語，而未諒其本心也。李緯，雖曰科目出身，三十年林下讀書，學問頗高明，向來召還疏中，洛蜀黨之說，雖不緊，而凡召還疏，門人不得爲之例也。今殿下，疑其出於門人，此於李緯，實是情實之外也。上曰，向來湖儒，皆如汝輩之流也。予始疑此疏，有主張者，而不知爲誰矣，始知汝之所勸成也。對曰，李巨源·李普昱之事，承史今方入侍，下詢則可知矣。舉世皆謂一鏡·師尙之假子，臣自布衣時，心常痛惋，故有所論及矣。上曰，巨源，作虎文，爲鏡黨，予亦知之。故不復通擬於清望，而以一時補邑之事，欲害大臣，豈不非乎？對曰，權爍向亦論斥於筵中，而以其對辨之疏觀之，其氣已死矣。言未及畢，上曰，汝之無廉恥，胡至於此？爍既斥巨源，而汝以四寸，又爲繼疏，何其無恥之，甚也？對曰，事苟可論，雖父子間，亦且不避而言之，豈可以四寸之所論，臣不敢言乎？巨·昱，初與鏡輩，心腸相連，自戊申以後，稍變言論，而本心則終不變矣。此非薄物微故，豈可容易洗滌而用之乎？

上曰, 汝能往見其中心乎? 權瑩曰, 四臣事, 臣當仰陳矣. 臣雖不記其日子, 而曾於己酉冬, 言未畢, 而上曰, 汝欲以此事, 敢爲操縱君父, 予雖昏暗, 以太阿, 寧斬汝, 豈可倒持於汝輩之手乎? 持平權瑩, 爲先遞差. 權瑩仍卽退出. 上仍拍案高聲曰, 以權哥, 吾國將亡矣. 渠雖以巨源, 爲鏡賊之假子, 渠則時象之假子也, 豈不絕痛乎? 初入筵中, 欲探予意, 敢以白眼仰視, 豈不放恣之甚乎? 了初見榜目, 意以爲權嬭之至親, 斬點於臺望矣, 果然矣. 想其懷此心, 赴庭試之狀, 其意都在於登科後, 欲陳此等之疏, 豈不痛惋乎? 此輩乘予疾之小愈, 爲如此之舉, 欲使添疾, 殆可謂亂臣賊子也. 承宣曰, 臣有所見, 故敢此仰達矣. 黨論之弊, 前後親承聖教, 臣心嘗戒飭矣. 歲首及今朝, 屢下備忘, 而權瑩痼於黨論, 有此等之疏, 誠極痛惋. 然遞差之前, 則身爲臺官, 殿下之所待過者, 豈不太薄乎? 且辭氣太過, 此則平日涵養工夫不足, 故亦不無激發之病, 深惡痛斥, 何所不可, 而辭氣之失, 若是太過? 此非但有損於靜攝之節, 且非物來順應之道矣. 上曰, 予非樂爲此也. 亦多有自量者矣. 平日雖不足涵養工夫, 向以李匡德處分事言之, 其時依之少退者, 亦多有所忍矣. 權瑩事, 實有所深痛者, 予如見其心肝, 常懷入臺地則欲爲此言之心, 故有此疏論, 豈不痛惋乎? 其疏別無大段語, 不過攻斥巨源輩, 是所謂軟地插木也. 予雖無物來順應之量, 初欲補外而止, 其疏語, 分作兩端, 顯有護私之意, 是則時象之忠臣, 朝廷之亂臣也. 予自聞東朝不忍聞之言, 必欲妥帖時象, 權瑩亦有父母, 渠若聞辱父母之言, 於其心安乎否乎? 予若來妥帖時象, 則實無歸拜於先朝之面也. 爲臣下者, 食吾祿爲吾官, 而不知君父, 徒知時象, 予不爲君上則已, 既爲君上, 則豈畏一權瑩而不敢言乎? 權瑩敢仰視君父, 欲爲探視, 孟子所謂, 望之不似人君之意也. 近來稍稍有過於權瑩之言, 而瑩則自蔭官時, 已懷護黨之心, 故登第之初, 有如此之疏, 尤爲痛惋矣. 予初見榜目, 其父名之有尙字, 意以爲權嬭之至親, 而疑其言論之過峻, 果符所料矣. 渠輩所爲, 適中予之所疑, 雖欲使予勿疑, 其可得乎? 以五賊事觀之, 皆傷於黨論之致, 眞儒則本痼於黨習, 而弼夢則稍有氣節, 故予常以爲可用矣. 予最見欺於弼夢矣. 自是以後, 痼於時象者, 雖有臥龍之才, 決不用於今日朝廷矣. 仍下詢曰, 權瑩爲司馬乎? 注書曰, 爲辛丑春榜進士也. 仍命承宣, 書島配. 備忘曰, 今日紀綱雖凌夷, 幾至於君不君臣不臣, 使權瑩, 少有嚴畏君父之心, 出身初頭, 右袒時象, 角勝君父耶. 予之尤爲痛駭者, 應科許身之日, 當有盡忠報國之心, 而今瑩, 不思于此, 甘心時象, 反肆好惡, 不顧君父, 歲首飭勵之志, 猶恐未及效忠於時象, 排斥朝象, 必欲孤君, 至親相授, 滿腔謬習, 近雖以不治不問爲標準, 立身初頭, 猶尙如此, 其於他日, 奚足可論? 朝雖無人, 決不

容此等之人，屏諸四裔，非權瑩而更誰？況決不容三尺之意，朝不諭則已，既諭之後，決不使歸於文具。前持平權瑩，濟州牧大靜縣絕島定配，待開城門，卽爲發送，而初登筵席，偃蹇可知，其赴配所，抑必遲滯，嚴飭金吾，今月內越海押送

3) 『영조실록』(권 33) 1733년(영조 9) 1월 20일.

○ 命移配權瑩於海南縣. 教曰: “權瑩之當初處分, 予亦謂其過中. 宜有參酌之道, 仍本道出陸, 移配海南.”

4) 『승정원일기』(권 755) 1733년(영조 9) 1월 2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絕島定配罪人權瑩, 參酌配于陸地海南縣事, 承傳啓下矣. 依前罪目, 隨其罪人所到處, 仍令押去府羅將, 押送于海南縣配所之意, 分付本道, 何如? 傳曰, 允.

57. 목찬흥(睦贊興)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34년(영조 10) 3월 1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신임사화 고변, 목호룡〈睦虎龍〉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776) 1734년(영조 10) 3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左邊捕盜廳啓辭, 據逆賊虎龍同姓姪子緣坐安置罪人贊興, 杖問捧招以入, 而其所供辭, 與前無異, 更爲移送本府, 稟處事, 允下矣. 贊興, 依定式令秋曹嚴刑後, 濟州牧大靜縣, 絕島定配, 而因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58. 이명언(李明彦)

- 신분: 관리(형조참판)
- 유배 연월: 1737년(영조 13) 3월 10일.
- 사망 연월: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사유: 정권 변동(김일경〈金一鏡〉 박필몽〈朴弼夢〉 옹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43) 1737년(영조 13) 3월 10일.

○ 命李明彦, 夏宅分配絶島. 先是, 明彦, 夏宅配渭原, 及出於玄機之招, 命本府拿來推鞠. 問夏宅曰: “汝之緊出賊招, 前後非一, 衣裏藏札, 足爲斷案. 諸人之啓, 指汝爲魁, 而纔允卽寢, 致令吞舟漏網. 海正之招, 贈衣留宿, 往來賊陣之說, 俱有可據, 從實直招.” 夏宅供曰: “臣之戊申被誣, 只是一佐之招, 具言之無實, 聖明已燭, 獄案俱在, 而猶謂之緊出, 噫! 亦甚矣. 衣裏藏札事, 有手筆參書而聯名者, 有居間持札而往來者, 伊時詢問諸臣, 皆謂無可疑, 而其後媚嫉之人, 始以擬書謂可疑. 贈衣留宿事, 蔡之洪疏以爲: ‘二月晦間, 晨有二人與臣同宿, 解衣相贈.’ 以臣婢夫海正爲證, 而臣家之自河東, 撤還清寓, 在二月二十七日, 月小而盡. 一日之間, 雖至親尙未及知, 有何往來之人乎? 且臣家在水南西村, 海正在城底闌闌, 白晝往來之人, 亦難卞知, 況早晨乎? 之洪又以爲: ‘安坐家中, 往復于賊.’ 云而臣於變起之夜, 宿於寓舍, 與李日躋相隣. 日躋夜送奴急呼曰: ‘城中有賊變, 吾方避而登山.’ 臣驚起推窓, 則火光燭天, 一城鼎沸. 睡夢中蒼黃負木主, 挈妻孥, 以短衣袴登山而會日躋, 兩家顛仆, 行五里餘, 尋得小寺名棲雲者藏蹤, 埋木主於寺後, 仍與日躋, 晝伏夜行, 艱到燕歧山谷, 聞賊平同歸, 當時出避之證, 昭然如此. 且臣之鄉廬上樑, 卽三月十六日也. 臣若有通謀之事, 則安有以凶賊起兵之期, 爲上樑之日, 而半夜奔避乎? 清州本是峻於黨之鄉, 臣如有可疑之跡, 則必如得奇貨, 而乃於四年之後, 始借山林之人, 創出虛辭, 以爲立證之計乎? 故相臣吳命恒過清州, 詳聞事情, 爲臣父子伸暴無餘, 聖明亦必記有矣.” 問明彦曰: “汝有不臣之心久矣. 甲辰一疏, 已極凶慘. 鏡賊同去就之說, 心肚難掩. 退荒放謫, 遲徊不歸, 已多可疑之端. 久廢復用, 不陳例疏, 顯有罔測之意, 此所以向來筵臣有無臣節之論也. 況父子之名, 屢出賊招, 胡服舉事之說, 元非倉卒做出

之言，衣縫納書之計，實出臨急圖免之意。汝之父子，若無爛漫同參之事，則逆招所引，何如是狼藉，而世樞之至死不變其說，尤豈非明證乎？今者玄機招言，戊申漏網賊僧最學與玄機師僧法訓，同處金剛菴，又造藥果，送汝謫所，汝奴石男持汝書，四五次來到，學僧買送燒酒，乾蠶，藥丸三箇，仍與石男偕往渭原云。前後情節，從實直招。”明彥供曰：“不臣之心，未知指何事，而人臣聞此，直欲刺心以明，而不可得也。甲辰冬一疏，不過自附於知無不言，言無不盡之義。鏡賊同去就之說，戊申冬臣招，卞破無餘，載在鞫案。放謫不歸，不陳例疏事，臣於丁未秋，幸蒙恩宥，而伊時臺疏斥以爲：‘三年竄謫，不足以贖其罪。’故不敢遽歸，遲徊數月，及至冬末，以卞誣副价，特敍駟召，罔夜上來。若復以私義陳疏，則恐非主辱臣死之義，不敢陳疏，以待竣事而歸，不意反以此爲罪也。筵臣無臣節之說，聞人所傳，則指臣不仕一款，然臣之求退，在於先朝，而甲辰嗣服初則臣連以都憲及山陵之役，立朝竣事，復命始陳疏退去，而臺啓已隨發矣。父子之屢出賊招，亦於戊申招中，卞之已審矣。胡服舉事之說，當初世樞之招以爲：‘副使李哥留在義州，與思晟舉兵同來。’又曰：‘平安道軍，以胡服粧來。’云，所謂胡服，卽指晟賊之凶圖，則於臣全不相干。故伊時上教有曰：‘坐於玉河館之人，謂之留義州。’胡服舉事云者，其果成說乎？禁堂之請拿臣也，入侍大臣以爲：‘既命加刑，世樞捧其誣告之招，則到今請拿，不成國體。’聖上亦以爲：‘誠然，庶幾一世舉無疑惑。’而臺臣乃謂至死不變云者，何所據而發耶？至於衣縫納書，非臣子夏宅一人所自辦，既有聯名爲之者，又有居間傳之者，而當初擬書登徹之日，自上詢問諸臣，皆痛卞其非，則大臣亦言：‘非以此謂可疑，拿來都事不免踈忽。’云。當時無可疑，而到今疑之，其果成說乎？所謂玄機，法訓，學首座，此等凶髡，臣未知其何樣凶賊，而臣之奴子，元無名石男者，故都事考見渭原郡臣所納戶籍，終不得髡髻名字者，乃捉代奴而來。鞫獄何等重要，無其人則斯可止矣。替囚代奴，固已訝惑，所援石男，既已脫空，則所謂皮之不存，毛將焉傳？向來臺臣謂臣爲振起之族戚，不可置諸鳴江一帶之地，恐動天聽，殆同急書。倘非聖明深察，則臣已死於拷掠矣。”更問明彥曰：“前招中鏡賊同去就之說，稱以戊申招，卞破無餘，所供模糊，終不分曉。甲辰一疏，旨意難測，而泛稱言無不盡，抑何意思？至於戊申，宜璉，世樞，時薰之招，屢發汝名，如是狼藉。時薰誣告將相諸宰，旋即自服，而於爾則終不變辭。今招以爲：‘自上有加刑捧誣告之教。’云而其時世樞初無誣告自服之語，此皆汝抑勒粧撰者也。從實直招。”明彥供曰：“臣之受誣，自有本末。蓋臣之父子，俱陷大戮，群憾競起，乘時下石，湛滅之禍，只隔一紙，而恩數迥越，昭洗幽枉。己酉酌處之

日，特下還配之命，有司力爭，不免勉許，而伊日聖教有其間幾許之語，故外間妄傳匪久當宥，媚嫉之人，猜疑轉深。申處洙復發前啓，疏章迭出，構誣不已，三載靳許。天聽愈邈，故時議別般搆索，草野臺閣，閃弄和應，至有海正之三次嚴問，終無事實。向在乙卯，臣之父子臺啓之批，每示停論之意，故李碩臣又以無據之說，爲俱發之啓，而緇徒之凶狡者，亦知時象，又上急變，自恨老而不死，受此無限僂辱也。鏡賊同去就之說，戊申招，旣已洞卞，而臣之在灣府所抵書，足見臭味之不同。及至還朝，或竝列僚席，而大小言議，不必苟同。其在禁堂時，金時發以罪人女壻，擅止傳旨，不待承款，徑先處斷，故臣職在有司，疏請還收，而賊鏡之議，大不同矣。甲辰大喪之卜山陵也，鏡則主新陵，臣則主寧陵舊岡，而果以微見，陳於殯殿，竟被嚴教。且臣見鏡賊第舍宏侈，引鬼瞰高明之語斥之，渠亦遜謝。逆鏡嘗遭臺彈，臣往慰之，則鏡與尹淳兄弟交惡，答以此輩將欲殺我矣。臣責之曰：‘同朝相陌，大非好事。’鏡雖變色含慍，而及至臣去朝之日，多其急流勇退，對人輒稱道云：‘臣疏有云，有事則疏論，有急則躬赴。’故逆鏡疏中，果有同去就之語，而臣則仲夏陳疏乞退，鏡則秋間被彈迸出，事之異同，時之先後有如是矣。甲辰一疏，只出於願忠之誠，寧有一毫他意哉？臣之乙巳竄謫，蓋由於是，臣之姓名，不幸出於三賊之招，而伊時大臣所謂諸賊同聞麟佐之言，而非各出云者，正謂此也。臣自燕歸，歷見松都留守沈瑋則以爲：‘舍兄與令公，同出時薰之招，未乃同歸清脫，仍以誣人伏法。’云。如沈瑋者，雖不單舉姓名，而同歸清脫，今以臣名之不爲單拈，謂之不入於誣告者，不亦冤乎？世樞之加刑，捧誣告之命，非臣臆說。大臣筵奏，得於耳聞。聖上每以義州胡服之說，前後筵教，不啻明白矣。”後，玄機之自服誣招也，言明彥事曰：“曾往渭原 高鳳寺則明彥之子讀書，怒其不拜，杖臀十度，故含憾而做此誣云矣。鞠廳大臣請對，左議政金在魯曰：“玄機雖以誣告引服，黃賊終有可疑，請更拿已放諸囚。”上不許。在魯請刑李夏宅，上曰：“夏宅父子，十年登臺啓，無以自明，故予欲因此問而決之。鞠廳有違端，然後始請刑矣。夏宅之供，有何違端耶？予任使明彥不久，夏宅尤不知何狀，然決不從時議而殺之也。仍囚酌處可也。”在魯又固請不已，上默然良久曰：“予欲因此，而拿問蔡之洪。夏宅事之洪證之，若令對質，夏宅見屈，則當許刑訊矣。”在魯曰：“之洪不過因所聞，而陳疏也。”上曰：“夏宅卽被告，而之洪卽原告也。”豐原君趙顯命曰：“當時不問之洪，不成鞠體矣。”上曰：“夏宅之藏書，稱以爲國討賊之方略，而反爲罪贓。戊申年羅燾受賊傳令，托以欲呈官之際，被捉於官軍云。欲呈之說，何可取信，而向者之洪爲狀頭伸辨，之洪一也而於燾則救之，於夏宅則告之，引問海正，決非儒

者之事也。”至是，罪人玄機以誣人惡逆斬。上以明彥，夏宅當還發前配，詢諸臣，左議政金在魯力持之，右議政宋寅明知上意堅不殺，雖傳死議，而語多依違。戶曹參議金若魯頗譏詆之，寅明謝之不已。豐原君 趙顯命曰：“臣常謂明彥父子罪有輕重，明彥壬寅間，羽翼鏡，夢之罪，不可勝誅，甲辰一疏，亦極凶悖，而戊申逆招，快脫無可問。今以玄機所引，拿鞠而無實，則又引前疏而杖殺，有非欽恤之意。夏宅事儘多疑端，當與海正之供，一處參覈，而今海正已死，無階可質，似宜刑配。”上曰：“甲辰疏，予不能記，而往時予爲時輩所賣，故明彥之意，不過欲予，毋以擁立爲德，此蓋不知予心故耳。古之人君，多以猜疑殺人，予入儲之日，已以脫略此事存諸心。予之必欲生明彥，明彥必不知。若以不知而不之恕，則豈仁者之心乎？予雖不明，今日決不從卿等殺無辜之人矣。”上辭色頗厲。仍命書傳教曰：當初斬允，意蓋有在。玄機誣告，既已自服，事已脫空，而甲辰疏語，雖曰絕悖，以幾年事，曾經竄配，今施極律，豈王政乎？但鞠體莫重，不可只施遠竄，明彥配海島，又傳旨曰：罪人夏宅衣縫之書，戊申親鞠時，業已下教，而兩司閱歲爭執，尙今斬允，因此鞠事，欲觀供辭矣。渠之供辭，亦無違端，而賊中傳喝之說，極涉殊常，亦配海島，分配大靜，旌義。

2) 『승정원일기』(권 844) 1737년(영조 13) 3월 10일.

○ ○ 上又曰，此非廣詢之事也，卿等及金吾堂上，皆方入侍，可以處決矣。李明彥事，戊申年世樞招中，以爲時方隱伏羲州，欲爲胡服學事云，而其時入往北京，受咨文而來，則胡服之說，既已脫空，其時出於賊招之人，亦多得脫矣。今番玄機所告，亦已白脫，同時被拿者，皆已放釋，有何刑訊之端耶？予意如是，則親鞠時上來殿庭，可也，而決末亦難處，故不爲之矣。予雖不疑而脫之，此非可以仕宦者也，還發配所之外，無他道矣。夏宅則衣中納書之事，前已屢次下教者也。蔡之洪疏中語，則夏宅，雖曰可疑，逆獄，自有面質之法，若於海正在時，令蔡之洪及海正，面質其言，歸一後，又與夏宅面質，夏宅語屈，則可以刑訊，而今何可以疑心加刑耶？亦爲還配，可也。在魯曰，臣於此事，與僚相相議，則僚相所見，亦與臣不甚相遠矣。上曰，今予處分，亦云苟且矣。若知其逆，則不可置之，不然則何必仍配耶？予於李真儒，亦欲生之，而己酉年以逆儉事，有所下教，其時，故李判府事聞之，故主張刑訊而殺之。真儒則辛·壬年間，多有所爲，渠以足可超脫之人，乃如是，雖杖斃，亦無惜矣。此乃懲礪之道，而猶且如何，況今則既已問之，知其曖昧，而只以人心之啡鬱，有此仍配，王者處分，豈不苟且哉？在魯曰，世樞，卽臣所捉得而上送者也。臣在忠州時，已爲親問取招，

渠非親聞麟佐之言，概以賊中所聞，言之，其時則以爲，明彥自北京出來時，約與思晟舉事云云矣。臣上來後，考見鞫廳文案，則其招辭以隱伏羲州之說，書之，此或文案誤書之致也。聖上，以渠其時在彼地，故不爲致疑，而自下疑明彥者，皆以爲戊申變亂徑發，故其言不符，而出來時，約與舉事之說，不爲虛罔云矣。且其甲辰上疏，臣曾未得見，今始見之，其言極爲悖慢，見無禮於君者，如鷹鷂逐雀之心，自然而生矣。上曰，其疏，予雖未見，似爲殊常，然以文字殺人，本非王者所當爲，若於其時，以此疏罪之，則可也，今則初以玄機事，拿來，卽已歸虛，則又以年久之甲辰疏，鞫問，豈其可乎？在魯曰，其疏之悖慢無禮，不道不敬，可勝言哉？有曰，殿下爲此輩之所援立，天下後世，將謂如何？又曰，凶徒之所擁立云云，原其疏意，則或恐其時，自上進用屏退之人，以爲脅持上下之計，而以擁立·援立之目，被之於殿下，後世之人，將以爲如何？其時建儲，上稟慈旨，從容下教，擇日冊禮，豈不光明正大，而鳳輝之疏，以舉措忙急爲言？明彥又以擁立·援立爲言，後世見者，將謂斯何？今番鞫坐，以此發問目，再三問之，而渠但曰，十年前上疏事，今何以記得云矣，其疏且言，景廟時事，以爲受制強臣，如此之言，全不擇發，肆然書之，渠於其時，得違常刑幸矣。今雖以此誅之，豈是挾摘文字之比？決不可循例還配也。雖以扶護逆鏡事，言之，金東弼之疏，極是寂寥，而猶欲補外，此乃顯著之事也，可見其爲一鏡心腹，舉世皆知之，今番原情一鏡，同去就之說，只以金時發事及山陵事，爲發明而扶護之事，終無明白發明之端，何可循例處之？今此下教，過於太寬矣，夏宅則今番鞫廳，先爲請刑，而自上不從矣。賊招所出，重於明彥，日佐，以麟賊至親，其招辭以爲，麟佐之黨三人，明彥之子夏宅及李思晟·權敘經云，渠與夏宅，色目既異，且彼年少儒生，何以知其名，必有所以然也？雖以海正事言之，海正生時，未及究覈，而賊中傳喝事，海正雖以其婢夫，亦不得掩諱，聖上，每以蔡之洪疏，疑其出於黨論害人之習，而豈有因其婢夫，公然誣告之理乎？至若衣中納書事此一事，亦足刑訊矣，其所爲計，可謂欲巧反拙矣。渠之被配，以渭原謫所事也，今又仍配則刑政，豈不乖舛乎？以本罪罪之，可也。今此二事處分，小臣，則斷斷以爲失之太寬矣。…而上曰，甲辰疏，欲以絕悖爲言，而予既不見，則如是爲言，事涉如何矣，然以卿等所論，可以斟酌矣。寅明曰，臺啓必有所論矣。上曰，臺啓則不言其措語矣。上呼曰，甲辰冬疏，雖曰絕悖，以其過幾年事。上曰，其時竄配，以疏語爲罪耶？寅明曰，然矣。上呼曰，曾經竄配，到今施以極律，卽王政之過者，此等事，俱若下教，則還配之外，其無他道，而但鞫事莫重。上曰，卿等則見其招辭，而謂之無所發明耶？在魯曰，甲辰疏，不能發明矣。上曰，世樞之言，則發明矣。寅明曰，然矣。在魯曰，自上，每如是爲教，故渠乃發明矣。上呼曰，渠之招

辭，別無痛快處，則其在嚴鞫體之道，亦不可只施遠竄罪人，明彥其配海島。寅明曰，濟州配所，當自禁府爲定，而此非微罪，自上直勘，則尤可爲辭嚴義正矣。在魯曰，似當安置矣。寅明曰，當以減死爲律名矣。上曰，非朝官乃鞫囚也，何可安置耶？減死則非矣，但此有可悶者，過於時象者，往在海島，教其時象，則海島中士人，皆必學之矣。寅明曰，濟州則不爲關係矣。上曰，又書之。寅明曰，此亦不可不以海島，爲之矣。若魯曰，夏宅，豈可亦爲酌處耶？臣以人得以誅之之義，仰達矣。上曰，夏宅，逆耶？在魯曰，自下皆以爲如是矣。顯命曰，今若限輸情刑訊，則過矣，而公然酌處，則失之太寬矣。上曰，先書其名，可也。命臣，書罪人夏宅，上口呼曰，衣縫之書，戊申親鞫時，業已下教者，兩司閱歲爭執，尙今斬允者，意亦有在，而今者其所允啓者，亦無他，因此鞫事，欲觀供辭矣。渠之供辭，雖欠別白，亦無違端，則其當依前發配，而海正，雖已物故，賊中傳喝之說，極涉殊常，旣問之後，亦不可以持身不謹之律，仍配亦配海島。上曰，又書之。仍口呼曰，明彥·夏宅配所，以大靜·旌義書入事，分付。

3) 『영조실록』(권 57)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行疏決. 上曰: “赦令, 只是文具, 今當大霑, 又無其實, 則是欺民也. 卿等體此意, 必惕念審克也.” 判義禁趙尙綱, 歷學諸罪人以奏, 事關戊申逆獄者竝仍, 而跡涉疑晦者皆放, 閔允昌出陸, 尹志放黜田里禁錮終身, 物故罪人明彥·觀厚竝放, 金遠材減等出陸.

4) 『승정원일기』(권 955) 1743년(영조 19) 3월 20일.

○ 癸亥三月二十日未時上御熙政堂. 疏決時, 判中樞府事金興慶, 領議政金在魯, 左議政宋寅明, 右議政趙顯命, 判義禁趙尙綱, 刑曹判書鄭羽良, 同義禁鄭來周·鄭彥燮, 刑曹參判李世璣, 參議柳復明, 大司諫魚有龍, 掌令沈益聖, 校理金尙迪, 右副承旨南泰齊, 記事官朴弘儒·趙明鼎·李毅中入侍. … 尙綱, 歷學諸罪人之名而達之. 時囚罪人 … 李明彥, 上曰, 已物故矣. 何如? 在魯曰, 故判書朴師誅, 亦以爲有逆節矣. 寅明曰, 死後則有可緩之道矣. 上曰, 予則以爲過矣. 人也雖愎, 而非如鏡類也. 寅明曰, 豈與鏡同乎? 在魯曰, 雖無現露事, 而峻論則同矣. 上曰, 峻論, 豈逆乎? 然因此而爲逆矣? 放. 在魯曰, 不可, 今若放之則後必入於職牒還給秩矣. 興慶曰, 如睦來善之類, 皆未蒙放, 則豈可以其物故而放之乎? 上曰, 雖放之, 豈生來乎?

59. 이규채(李奎采)

- 신분: 관리(지평)
- 유배 연월: 1740년(영조 16) 11월 2일.
- 이배 연월: 1741년(영조 17) 11월 2일(나주목).
- 사유: 왕명 비판(탕평 배척)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52) 1740년(영조 16) 11월 2일.

○ 榕棘持平李奎采於大靜. 時司諫李潤身欲停鳳輝, 光佐等合啓, 持平李奎采執不可. 潤身啓言: “欲停合啓, 而爲奎采所沮.” 引嫌請遞, 上曰: “立異之非在彼, 其勿辭.” 李奎采又以潤身言引避, 上曰: “爲今日臣子, 敢如此乎? 遞其職.” 仍教曰: “今日親鞫, 所關何如, 而敢復揚揚龍澤之僞詩, 福澤之將心, 不足怪也.” 始命竄奎采于極邊, 更命拿鞫曰: “罪人奎采上闕.” 判義禁申思詰曰: “奎采初無就拿之事, 何以上關乎?” 上怒叱之, 命重推. 於是大臣及諸臣力爭, 乃寢其命, 命榕棘於大靜.

2) 『승정원일기』(권 924) 1740년(영조 16) 11월 2일.

○ 傳于元景夏曰, 李奎采, 頃者舉措之後, 爲今臣子者, 何敢萌舊心, 而噫嘻痛矣. 今者親鞫, 事關在何, 終日目覩, 敢復揚揚, 龍澤之僞詩, 福澤之將心, 不足怪矣. 今日紀綱, 雖曰陵夷, 有君有臣而後, 決不可不嚴處. 刊名仕版, 大靜縣榕棘, 卽日擇送.

3) 『영조실록』(권 54) 1741년(영조 17) 11월 2일.

○ 命榕棘罪人李奎采, 島配罪人李宇夏, 竝出陸. 前以奎采, 宇夏事諸臣屢言, 而上不聽, 大訓旣成, 大臣又陳請, 遂許出陸.

4) 『승정원일기』(권 938) 1741년(영조 17) 11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靜縣沔棘罪人李奎采, 珍島郡絶島定配罪人李宇夏, 竝出陸事, 承傳啓下矣. 李奎采, 全羅道羅州牧出陸, 李宇夏, 高山縣出陸, 因前罪目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60. 민창수(閔昌洙)

- 신분: 외척(척리음관)
- 유배 연월: 1742년(영조 18) 1월 29일.
- 이배 연월: 1742년(영조 18) 7월 15일(나주목).
- 사유: 봉당(임금 무시, 당습 지향, 인현왕후 조카)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55) 1742년(영조 18) 1월 29일.

○ 上引見時, 原任大臣二品以上, 領議政金在魯, 左議政宋寅明, 右議政趙顯命, 右參贊朴文秀, 左承旨李匡輔, 右承旨柳萬重, 左副承旨鄭必寧, 右副承旨李世璣, 副校理金尙迪, 副修撰洪啓禧, 領府事李宜顯, 判府事金興慶, 知事申思喆, 判尹李秉常, 左參贊尹陽來, 吏曹判書徐宗玉, 戶曹判書徐宗伋, 禮曹判書鄭錫五, 兵曹判書金聖應, 刑曹判書閔應洙, 行司直鄭羽良, 禮曹參判金若魯, 兵曹參判李益烜, 左尹徐命九, 右尹元景夏, 大司成金尙星入對. 顯命進曰: “釋負二字, 此何教也?” 上曰: “侍卿等在也.” 顯命曰: “君臣相須, 獨使臣等在, 將焉用哉?” 上曰: “有冲子矣.” 顯命曰: “殿下生殺惟意, 何憚於一昌洙乎?” 上曰: “昌洙疏入, 卿等當直爲請討, 豈可胥命而已乎?” 顯命以拳叩地曰: “昌洙目臣以脅持君父, 臣安敢請罪他人乎? 第大訓旣作, 上告陟降, 渠苟瞻宗廟敬君父, 則豈敢爲此疏? 是其心無宗廟無君父無國法也. 況以戚聯家子弟, 何敢以聚銀交通宦寺, 至謂之忠, 而登諸章疏乎? 此若釋而不問, 則國必亡矣. 臣於此事, 必欲捨命而斥之. 臣有衆子, 雖與之并命, 亦無恨矣.” 上曰: “聞此言, 心骨俱寒, 不可不問矣.” 寅明曰: “其疏所切痛者, 豈止此乎?” 上命注書, 召昌洙入侍. 寅明曰: “旣曰有罪而問之, 則何可令帽帶入侍乎?” 顯命曰: “必欲問之, 則以法問之可也.” 於是遂下親鞫之命. 是日上御仁政門, 問昌洙曰: “君臣分義, 無所逃於霄壤. 上告之文, 大訓之文, 頒赦之文, 不命詞臣, 躬自製下. 由此君臣之分大定, 忠逆之辨自判, 相關之端可息, 而爾身在戚里, 職爲蔭官, 肆然投章, 欲眩國是. 精神大旨, 伸救龍, 紀, 雖曰先臣之遺意, 臣弟之遺章, 假使爾父而尙在, 必協贊之不暇, 雖曰爾弟之遺疏, 而旣曰商確云, 則非爾弟也, 乃汝也. 以滿腔黨心, 搆章於大訓之前, 投章於大訓之後, 此輕視告文, 不滿大訓, 其無君不忠, 何追王章? 不滿處分, 欲爲釀亂之

狀，其無隱直陳。”昌洙供：“昨年冬聞，壬案快雪，先志快伸，臣之私情，豈不欣喜？而其後聞，以臣弟庚子前後之言，成一逆案云，臣不勝驚駭。而臣弟嘗有所搆之疏，可以明此一段，故欲爲一番呈覽矣。聞大訓處分嚴正，又有禁令，不敢呈疏，求見大訓，則所禁者不在於此一段，疏是大訓前所搆，遂敢呈納。豈敢有不滿大訓，眩亂國是之計哉？只欲發明臣弟之事。”上又問曰：“汝知龍澤輩爲逆乎？甘心黨習，眩亂國是，汝豈不服乎？今日見世子之隨輦，而乘間投疏，是汝日後釀亂之計也。”昌洙供：“黨心二字，臣固不免，而他日釀亂之教，誠冤甚矣。”上又命更推曰：“汝以甘心黨習，肆然投章，眩亂國是之狀，若不遲晚，則當爲嚴刑。”於是昌洙遂以遲晚納供。上命大臣進前，教曰：“此非樂爲，而大義理所關處，故不得不然。然此非逆也，又非犯上不道者，卿等以爲何如？”在魯曰：“黨習二字，足爲抵法，而仰體追念惻怛之教，寧不奉承乎？”寅明曰：“下教惻怛，參酌減死何妨也？”顯命曰：“臣則知關係大訓者，生死以之矣。雖戚臣，殿下不可低昂。而但其疏既曰其弟之疏，則與渠所撰有異。不必至於死，然未知執法之官以爲何如也。”上又問金吾諸堂及三司諸臣，皆言減死爲宜。寅明曰：“此非臺體也。屈法伸恩，乃聖上之事，臺言則不當如是。”上曰：“耳目之官爭之，則予雖參酌，罪人必不生矣。雖耳目之官，不必導人君以刻薄，周之八議，亦非法耶？”諸大臣遂皆退。執義徐命臣，以大臣詆斥，避嫌請遞曰：“究之於法，既無必死之端，參之於情，不害好生之仁，故詢問之下，略陳所懷。臺閣論事，雖曰尙峻，若當緩而峻，或使聖世有殺一不辜之舉，則此亦可謂仰贊天地之大德乎？”正言魚錫胤亦避嫌，上以殺一不辜一句語，與親鞫之意，大有逕庭，有關國體，特罷命臣職，而錫胤則只命勿辭。上遂教曰：“閔昌洙無君無嚴，不耐黨心，不顧義理，肆然投章，眩亂國是之狀，亦已遲晚。噫！不有其君，甘心黨習之輩，雖在大訓之前，懸其頭於藁街，懲百人於他日，況大訓既頒之後乎？其宜聚會百官，軍民，咸使快觀黨人之懸頭，而遙望追惟，感懷深切，屈其法而伸其恩，雖貸其死，豈可尋常酌處？**罪人閔昌洙，特爲減死，大靜縣定配。**”

2) 『승정원일기』(권 940) 1742년(영조 18) 1월 29일.

○ 上曰，昌洙上之。罪人脫蒙頭後，在魯曰，今則渠頗有知覺矣。上曰，卿言是矣。上仍命承旨，書傳旨曰，無君無嚴，痛駭之狀，親鞫命下之教，其既悉諭，渠之招辭，不耐黨心之衝動，不顧義理，肆然投章，眩亂國是之狀，亦已遲晚。噫，不有其君，甘心黨習之輩，雖非〈?〉大訓之前，懸一人頭於藁街，欲懲百人於他日，況大訓既降之後乎？其宜聚會百官軍民

於闕<下>, 懸首於大道之上, 咸使快觀黨人之頭. 而遙望追惟, 感懷采切, 屈其法而伸其恩, 雖貸其頭, 豈可以尋常酌處? 罪人閔昌洙, 特爲減死, 大靜縣島配. 書傳旨訖. 上命解枷. 上曰, 判義禁持此傳旨, 使都事讀之, 而使罪人聽之, 可也. 上命判義禁, 又以口傳傳諭曰, 汝敢生黨心, 眩亂國是, 罪當懸首藁街, 而追惟昔年, 使之戴頭而往, 汝往海島, 尊君父惟昔年, 而革心, 可也.

3) 『승정원일기』(권 940) 1742년(영조 18) 1월 30일.

○ 李世璣, 以禁府言啓曰, 鞫廳罪人閔昌洙, 濟州牧大靜縣減死島配事, 命下矣. 依例俱罪目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권 946) 1742년(영조 18) 7월 1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因咸鏡·全羅·濟州牧放未放啓, 本府回啓, 高原郡遠配罪人金潤國, 量移減等, 羅州牧黑山島梔棘罪人李匡誼, 撤籬出陸, 濟州牧大靜縣島配罪人閔昌洙出陸事, 允下矣. 金潤國, 黃海道黃州牧量移減等, 李匡誼, 全羅道咸平縣撤籬出陸, 閔昌洙, 羅州牧出陸, 因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5) 『승정원일기』(권 954) 1743년(영조 19) 2월 8일.

○ 鄭暉良,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羅州牧出陸罪人閔昌洙, 近地移配事, 命下矣. 閔昌洙, 江原道原州牧移配, 而仍前罪目, 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6) 『영조실록』(권 59) 1744년(영조 20) 2월 6일.

○ 特放閔昌洙之謫. 先是京畿監司柳儼白上曰: “臣於巡歷時經閔鎮遠之墓, 崩頽荒涼, 極甚憫憐.” 上聞而惻然, 命自官修葺. 至是, 教曰: “頃聞畿伯言, 心常咨嗟, 夜夢見故閔奉朝賀. 噫! 昌洙之其時酌處, 可謂寬典, 非爲渠也, 追慕昔日也. 奉朝賀子, 只有昌洙, 若是零替, 又值大赦, 特放田里, 俾守先墓.” 或言, ‘儼與昌洙有姻好, 欲以此感動上意, 實未嘗過其墓’ 云.

7) 『승정원일기』(권 969) 1744년(영조 20) 2월 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江原道原州牧移配罪人閔昌洙, 特放田里事, 承傳啓下矣. 放歸田里之意, 分付該道道臣, 何如? 傳曰, 允.

61. 정실(鄭實)

- 신분: 관리(부응교)
- 유배 연월: 1743년(영조 19) 4월 26일.
- 이배 연월: 1744년(영조 20) 9월 15일(괴산군).
- 사유: 건의 불발(임금 행정 비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57) 1743년(영조 19) 4월 26일.

○ 副應教鄭宗上疏, 略曰: 臣於韓億增輩被罪事, 有所慨然者. 殿下於其時兩司諸臣既以不言而罪之, 則惟彼儒臣之言而獲罪者何也? 同是一事, 而言與不言俱爲罪過, 則政令舛乖莫過於此. 此無他特以言出於億增輩, 而易以見疑故耳. 夫閔昌洙之疏, 不過追先父亡弟之遺志, 欲一陳暴於聖明之世而已. 有罪無罪, 惟聖鑑在上, 而其時大臣之血爭前席, 聲罪請討者, 抑何意也? 伊日舉措, 可謂無嚴. 而以大臣本來言議見之, 則所謂使堯舜授, 不能正大光明等說, 肆然陳達於筵中, 其甘心昌洙, 脅持君父者, 無足怪也. 噫! 故奉朝賀閔鎮遠, 愛君憂國, 至誠圖報, 眞所謂社稷之臣. 跡其忠赤, 雖十世可宥也. 而今其二子相繼而歿, 獨昌洙在, 而又陷不測之罪, 國人至今悲之. 此豈非聖上所當深念處耶? 至若洪啓禧事, 其按賊虛實, 非他人所可知, 而今者推問諸人, 只是文秀信任私人. 一番平問, 草草了當, 查體苟艱, 前所未有的. 其他文秀, 不能自明者, 固多其端. 而三匹駿駒之冒禁贈遺, 終無罪責者, 無乃以受之者大臣而置而不問耶? 國家刑政之失類如此, 臣竊憂焉. 疏入, 右議政趙顯命待命于金吾門外, 命史官傳諭. 是夕, 上下嚴教, 投畀鄭宗于大靜縣, 又教曰: “今日內若不渡江, 則金吾郎當一體論罪.” 俄頃之間, 飭教凡六下, 院隸傳呼, 聲震闕中, 人無不失色.

2) 『승정원일기』(권 956) 1743년(영조 19) 4월 26일.

○ 備忘記, 傳于李命坤曰, 若此, 故此等之輩, 因赦蕩滌, 則小人之倖也. 其常靳持, 恃其滌用. 以昌洙寬處, 敢曰其機放恣, 陳章一篇, 其意雖專在於右相, 意之放恣, 猶浮韓億增黨習. 申飭大訓既下之後, 甘心放恣, 其欲角勝, 其脅持之目, 可爲渠自道, 而所謂遺志等

說, 其涉陰慘. 頃者欲問億增, 則況今鄭案, 豈比億增? 此人之心, 何待其問? 豈可尋常處之? 大靜縣投畀.

3) 『영조실록』(권 60) 1744년(영조 20) 9월 15일.

○ 上引見大臣, 備堂. 領議政金在魯, 以鄭案老母請宥之, 上不許, 命量移槐山郡, 使見其母.

4) 『승정원일기』(권 977) 1744년(영조 20) 9월 15일.

○ 在魯曰, 當此霈澤旁流之時, 有至可矜惻之事, 故敢達.鄭案事, 前既累陳未蒙允許, 而渠有老母而病且重, 常思子而泣云. 今於孝理之下, 特施赦宥之典, 則和氣可以普達矣. 顯命曰, 臣非有私於鄭案而聞有病母, 似宜矜憫矣. 周鎮曰, 聞其老母, 疾病奄奄之中, 晝夜呼泣云. 今於霈澤旁流之時, 使之歸見其母, 則實有光於孝理之政矣. 在魯曰, 島配恰滿二年, 已經幾番大慶, 而未蒙赦典, 誠爲矜憐矣. 顯命曰, 首揆, 亦非以爲無罪也. 其罪則臣無所惜, 而使之死於其地, 則過矣. 上曰, 情理則可矜, 而予意決不欲放. 無已, 則暫許歸覲後還配, 可矣. 在魯曰, 一番歸覲還配之後, 老人之事, 朝夕不可知, 若使有靡及之悔, 則不亦有傷於孝理之政乎? 上曰, 不可輕釋, 近道量移, 使見其母, 可也.

5) 『승정원일기』(권 977) 1744년(영조 20) 9월 17일.

○ 尹光毅,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投畀罪人鄭案, 近道量移事, 承傳啓下矣. 因前罪目, 公洪道槐山郡量移,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62. 나침(羅沈)

- 신분: 중인(서얼)
- 유배 연월: 1745년(영조 21) 3월 5일.
- 이배 연월: 1748년(영조 24) 2월 29일(영광군).
- 사유: 범죄(무속으로 동궁 저주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61) 1745년(영조 21) 2월 12일.

○ 左議政宋寅明, 右議政趙顯命, 與校理宋昌明請對. 寅明曰: “臣之從弟昌明, 住濟生洞, 士人李敬中亦在其洞. 一日來言于昌明曰: ‘近有妖巫, 稱以獨甲房, 出入宮禁, 向東宮, 賢嬪宮, 有不忍聞之事, 昌明聞即來告于臣. 臣不勝驚心, 以宜付捕廳之意, 言及僚相, 而僚相亦別有所聞, 比臣頗詳矣.’ 顯命曰: “有羅沉者, 即故掌令良佐妾子, 而與臣相知. 日前來見臣言: ‘趙徵, 李熙有巫蠱事, 趙徵與李得中, 切親, 無言不到. 徵自以爲: ‘締結國巫, 欲以大監家, 爲姜月塘家.’ 云.’ 且曰: ‘李熙, 故參判弘之孫, 而賣文場屋者, 趙徵即禮判尙綱從姪, 而與禮判相絕, 家本貧寒, 而近來好居, 且常言: ‘吾當爲兵判.’ 以此推之, 可知有妙理.’ 云. 臣之所聞於沈者, 與僚相所聞, 雖有詳略, 大體相符矣.” 昌明亦以所聞仰白, 如寅明言. 顯命曰: “聞巫女獨甲房者, 居在中部洞, 其夫則柳哥, 兩班云矣.” 上曰: “曾有米廩房出入宮禁云, 而此亦訛言. 此事若歸虛妄, 豈非宗社之福乎? 雖有南北憂, 予當不動, 而此則不能不動矣.” 寅明曰: “趙徵雖甚虛悖, 自是名家子, 且有文名, 出入搢紳間, 相親者多. 若或因其狂言妄說, 有所蔓延, 則轉成士禍, 亦極可慮. 此等處, 聖上宜審察而痛絕之. 至於不逞雜類, 不可不鋤治也.” 上曰: “正合予意.” 仍下親鞫之命.

2) 『영조실록』(권 61) 1745년(영조 21) 3월 5일.

○ 上引見大臣, 備堂, 羅沉至是就捕. 上曰: “當初命捕, 由於李敬中, 得中面質之致, 而敬中白脫, 沉無更問之端. 然得中既以誣人自服, 沉不可全釋.” 仍命島配于大靜縣. 掌令任鏡觀, 啓請鞫問, 獻納趙鎮世, 啓請島配. 副提學元景夏以: “兩臺臣所請, 模糊不別白, 請遞差.” 上允之. 景夏曰: “臣既承《東國歷代總目》添補之命, 退而考見, 則洪萬宗之所

撰，如史略，頗用史法。今若添輔先朝事而用史法，則有窒礙處矣。”上曰：“既是史法，則何可使之添補也？其寢之。”

3) 『승정원일기』(권 984) 1745년(영조 21) 3월 5일.

○ 上曰, **羅沈事**, 今當置之, 而予於今番獄事, 尙有追悔於心者矣, 而予亦動於不當動之事矣. 寅明曰, 當初之議, 不過巫女, 則令捕廳處置, 趙徽則查定其罪, 止於竄配, 而豈意得中之妖惡, 至於此極乎? 帳殿親問之下, 見其招辭, 而始覺得中之情節矣. 上曰, 徵與得中, 刑推數次, 亦有輕重, 而今已爲世除害, 何必正刑然後有味乎? 上又曰, 羅哥是武家乎? 元景夏曰, 羅弘佐之子孫矣. 上以承旨書之曰, 羅沈之頃日命捕, 蓋由於李敬中·得中面質之致. 而敬中既已白脫, 鞫事亦已收殺, 於**沈**, 今無更問之端. 而帳殿既諭, 雖以得中之語納招, 問目之外, 挾雜他語, 自塘自蜚之教, 渠亦曰是也, 則不顧渠之坐地, 倍然於得中之語, 挾雜於親問之招, 殊欠不正. 況得中誣人承款之後, **不可無罪, 島配**. 出榻教

4) 『승정원일기』(권 1026) 1748년(영조 24) 2월 2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本府疏決單子中, 各道定配罪人, 羅州智島金敬一, 出陸減等. 黑山島尹光天, **大靜縣羅沈**, 智島趙徽, 臣濟崔齊恒**竝出陸**, 大靜縣任命周撤籬出陸, 務安洪相朝, 密陽車道林, 長鬐沈海容, 安州柳徵龜·慎徽, 泰川鄭德載**竝減等**. 靈巖沈東尙·南平韓, 聞慶申光岳, 巨濟尹澤厚, 安州徐宗翕, 郭山慎榮來, 尙州崔柱天, 黃州權一衡, 鐵山金尙重, 康津玄泰翼, 未及拿來罪人方山萬戶宋聖遇, 釜山僉使申■■■, 晉州前牧使金尙重等, **竝放送事**, 啓下矣. 減等徒三年改錄事及放送事, 發關, 分付於各該道道臣. 而金敬一·長城府出陸減等, 尹光天·扶安縣出陸, **羅沈靈光郡出陸**, 趙徽·泰仁縣出陸, 崔齊恒·東萊府出陸, 任命周羅州牧撤籬出陸,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63. 이복수(李福守)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45년(영조 21) 10월 2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배<李培> 첩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58) 1728년(영조 4) 3월 2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賊培, 既已承服正刑, 其父母祖孫妻妾子女, 及子之妻妾, 兄弟姊妹伯叔父兄弟之子, 年歲姓名存沒居住, 令漢城府考出帳籍, 亦爲分付五部, 一一查出, 急速成冊牒報後, 依律文施行, 而籍沒家產, 破家瀦澤, 罷邑號降守令等事, 令各該司捧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659) 1728년(영조 4) 4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京畿監司粘移振威縣監所報成冊, 則逆賊培緣坐人等, 列錄以來, 而妻愛每, 女愛伊, 竝爲囚禁, 妾名不知人及妾子福泰, 年十九, 福五年十一, 福壽年五. 叔父時甲·震甲等, 皆以逃亡懸錄, 妻愛每, 女愛伊, 爲先咸鏡道明川府竝緣坐爲婢, 其餘逃亡人等, 分付左右捕廳及本道監司處, 各別窺伺搜捕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718) 1731년(영조 7) 2월 3일.

○ 慎無逸, 又以義禁府言啓曰, 去十一月二十四日, 鞫廳大臣·金吾堂上請對入侍時, 西北定配罪人沓聚一處者, 必有主客俱困之弊, 自金吾, 便宜分配之意, 分付可也事, 命下矣. 西北沿邊, 連值凶荒, 罪人之一處定配者數多, 誠爲可慮. 咸鏡道甲山府逆賊瑞麟庶叔緣坐安置罪人萬謹, 移配於本道利城縣, 慶源府逆賊有翼子緣坐爲奴罪人祖行, 移配於仁川府, 富寧府逆賊培子緣坐爲奴罪人斗守, 移配於吉州牧, 平安道理山府逆賊思晟孫緣坐爲奴罪人孟宜, 移配於本道德川郡, 理山府逆賊應良叔緣坐安置罪人效徵, 移配於寧遠郡, 朔州府逆賊宗元弟緣坐爲奴罪人宗仁, 移配於雲山郡, 龍川府逆賊宗元姪緣坐安置罪人來欽,

移配於郭山郡，渭原郡逆賊有翼弟緣坐爲奴罪人鳳巖，移配於龜城府，渭原郡逆賊培姪緣坐安置罪人加守，移配於价川郡，而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各其配所，他餘罪人等，追後分配之意，敢啓.傳曰，知道.又以刑曹言啓曰，今因武二所移文，李萬福稱名人，代射辭緣推覈，則李萬福，果以己酉榜武科出身，冒入場中代射事，既已遲晚，卽當依律科罪，而係是出身，受教內，常漢出身，自本曹，有推治之例，依受教照律勘罪，何如? 傳曰，允.又啓曰，卽者禁府都事，以鞠廳大臣意來言，臺諫不備，日勢已暮，今日鞠坐，不得爲之云矣，敢啓.傳曰，知道.又以武一所差備官，以試官意啓曰，臣等趁早來會試所，而因試官與監試官不備，今日又不得開坐試取之意，敢啓.傳曰，知道.

4) 『승정원일기』(권 993) 1745년(영조 21) 10월 20일.

○ 金光世，以義禁府言啓曰，因臺啓，西北邊地逆賊緣坐罪人抄出移配絕島事，命下矣.平安道鐵山府爲奴罪人逆賊河子多致，移配濟州牧.逆賊弼夢姪師讓，移配全羅道旌義縣.龜城府爲奴罪人逆賊有翼弟鳳巖，移配大靜縣.朔州府爲奴罪人逆賊方憲弟守經，移配扶安縣.蝟島鎮.昌城府安置罪人逆賊文著庶叔恒齊，爲奴罪人文著弟光著，庶弟聖著，移配康津縣.古今島.爲奴罪人逆賊萬周弟鎮周，移配康津縣.薪智島.渭原郡爲婢罪人逆賊維賢妾重涉，移配羅州牧.智島爲奴罪人逆賊應良庶叔效聃，移配巨濟府.理山府爲奴罪人逆賊瑞鳳子(子)宗先，移配萬頃縣.古群山爲奴罪人逆賊濟時弟世緝，移配羅州牧.智島.咸鏡道甲山府爲婢罪人逆賊有翼母福愛，移配萬頃縣.古群山爲婢罪人逆賊維賢妻降愛，移配珍島郡. 富寧府爲奴罪人逆賊培子福守，移配大靜縣.茂山府爲奴罪人逆賊天海弟萬海，移配濟州牧.穩城府爲奴罪人逆賊天永弟七曾，爲婢罪人天永妹繼順，移配巨濟府.安置罪人逆賊天海叔再興，移配康津縣.薪智島.慶源府爲婢罪人逆賊有翼女白桂，妹美艷，移配珍島郡.爲婢罪人逆賊天永女至愛，子官伊·先伊，移配南海縣.而右罪人等，仍前罪目，依例發遣府羅將，仍令押送于各其配所，何如? 傳曰，允.

64. 이봉암(李鳳巖)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45년(영조 21) 10월 2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유익〈李有翼〉 동생)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658) 1728년(영조 4) 3월 2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逆賊思晟妻斗愛, 孽子寬山, 次子慶得, 咸鏡道三水府竝緣坐爲奴婢, 庶母金女, 妾李女, 孽弟起得, 利城縣竝緣坐爲奴婢, 妾朴女, 孫孟宜, 次孫重宜, 孫女喜德, 平安道理山府緣坐爲奴婢, 子婦順喜, 洪原縣緣坐爲婢, 同姓三寸叔楚徵, 北青府流三千里緣坐安置, 孽弟台應祖, 寧遠府緣坐爲奴, 姪子任互, 利城縣流三千里緣坐安置, 逆賊有翼繼母福愛, 甲山府緣坐爲婢, 妻喜貞, 女白桂, 慶源府緣坐爲婢, 同生弟鳳巖, 渭原郡緣坐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中, 或在外方云, 依例發遣府書吏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718) 1731년(영조 7) 2월 3일.

○ 慎無逸, 又以義禁府言啓曰, 去十一月二十四日, 鞠廳大臣·金吾堂上請對入侍時, 西北定配罪人沓聚一處者, 必有主客俱困之弊, 自金吾, 便宜分配之意, 分付可也事, 命下矣. 西北沿邊, 連值凶荒, 罪人之一處定配者數多, 誠爲可慮. 咸鏡道甲山府逆賊瑞麟庶叔緣坐安置罪人萬謹, 移配於本道利城縣, 慶源府逆賊有翼子緣坐爲奴罪人祖行, 移配於仁川府, 富寧府逆賊培子緣坐爲奴罪人斗守, 移配於吉州牧, 平安道理山府逆賊思晟孫緣坐爲奴罪人孟宜, 移配於本道德川郡, 理山府逆賊應良叔緣坐安置罪人效徵, 移配於寧遠郡, 朔州府逆賊宗元弟緣坐爲奴罪人宗仁, 移配於雲山郡, 龍川府逆賊宗元姪緣坐安置罪人來欽, 移配於郭山郡, 渭原郡逆賊有翼弟緣坐爲奴罪人鳳巖, 移配於龜城府, 渭原郡逆賊培姪緣坐安置罪人加守, 移配於价川郡,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他餘罪人等, 追後分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又以刑曹言啓曰, 今因武二所移文, 李萬福稱名人, 代射辭緣

推覈，則李萬福，果以己酉榜武科出身，冒入場中代射事，既已遲晚，即當依律科罪，而係是出身，受教內，常漢出身，自本曹，有推治之例，依受教照律勘罪，何如？傳曰，允。又啓曰，即者禁府都事，以鞠廳大臣意來言，臺諫不備，日勢已暮，今日鞠坐，不得爲之云矣，敢啓。傳曰，知道。又以武一所差備官，以試官意啓曰，臣等趁早來會試所，而因試官與監試官不備，今日又不得開坐試取之意，敢啓。傳曰，知道。

3) 『승정원일기』(권 993) 1745년(영조 21) 10월 20일.

○ 金光世，以義禁府言啓曰，因臺啓，西北邊地逆賊緣坐罪人抄出移配絕島事，命下矣。平安道鐵山府爲奴罪人逆賊河子多致，移配濟州牧。逆賊弼夢姪師讓，移配全羅道旌義縣。龜城府爲奴罪人逆賊有翼弟鳳巖，移配大靜縣。朔州府爲奴罪人逆賊方憲弟守經，移配扶安縣。蝟島鎮。昌城府安置罪人逆賊文著庶叔恒齊，爲奴罪人文著弟光著，庶弟聖著，移配康津縣。古今島。爲奴罪人逆賊萬周弟鎮周，移配康津縣。薪智島。渭原郡爲婢罪人逆賊維賢妾重涉，移配羅州牧。智島爲奴罪人逆賊應良庶叔效聃，移配巨濟府。理山府爲奴罪人逆賊瑞鳳子(子)宗先，移配萬頃縣。古群山爲奴罪人逆賊濟時弟世緝，移配羅州牧。智島。咸鏡道甲山府爲婢罪人逆賊有翼母福愛，移配萬頃縣。古群山爲婢罪人逆賊維賢妻降愛，移配珍島郡。富寧府爲奴罪人逆賊培子福守，移配大靜縣。茂山府爲奴罪人逆賊天海弟萬海，移配濟州牧。穩城府爲奴罪人逆賊天永弟七曾，爲婢罪人天永妹繼順，移配巨濟府。安置罪人逆賊天海叔再興，移配康津縣。薪智島。慶源府爲婢罪人逆賊有翼女白桂，妹美艷，移配珍島郡。爲婢罪人逆賊天永女至愛，子官伊·先伊，移配南海縣。而右罪人等，仍前罪目，依例發遣府羅將，仍令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65. 임명주(任命周)

- 신분: 관리(지평)
- 유배 연월: 1747년(영조 23) 12월 23일.
- 이배 연월: 1748년(영조 24) 2월 29일(나주목).
- 사유: 왕명 비판(탕평책 비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66) 1747년(영조 23) 12월 23일.

○ 上召見藥房三提調. 大臣及金吾諸堂請對同入. 上曰: “予更思之, 命周非直爲容護挺徽也, 欲救益普, 自不覺其爲容護挺徽, 此異於直爲護逆也.” 在魯曰: “不知挺徽云者雖無狀, 而非直救挺徽也, 欲救李益普而然矣.” 上曰: “親鞠之命雖還寢, 關係莫重, 欺君罔上, 漫漶逆賊. **罪人任命周 大靜縣梟棘, 倍道押去.**” 左議政趙顯命曰: “金尙魯事, 不可置人於黯昧, 請行查.” 上允之. 顯命曰: “今以挺徽五寸姪之故, 有此處分, 檢擬廷說親姪之銓官, 宜有責.” 上曰: “罷職.” 司諫鄭彥儒, 以 ‘不言三司’ 引避, 上曰: “勿辭.”

2) 『승정원일기』(권 1024) 1747년(영조 23) 12월 23일.

○ 在魯曰, 今聞下教, 已知聖意. 臺臣設鞠, 莫大過舉, 而不待臣等匡救, 下教如此, 實有光於聖德矣. 上曰, 予已老矣. 豈有過舉之理? 昔年李匡誼處分, 實因卿等激惱而致之, 雖悔何及? 昨夜筵中酬酢, 自初至終, 少無使氣, 此豈非年老所致耶? 罪人任命周親鞠之命, 特寢. 出榻教 元景夏曰, 不待臣等仰達, 旋寢成命. 聖德光輝, 實如日月之更也. 顯命曰, 臣等方欲入來陳達, 而聖衷回悟, 下諭渙宣, 臣等復何有所達? 君君臣臣之義, 無所逃於霄壤. 若堤坊一解, 將至於國不國君不君, 可勝言哉? 噫, 戊申逆賊, 史牒所無. 彼麟佐之輩, 本是梟獍逆腸, 而其時不知逆順. 承風從逆者, 其心叵測, 有倍賊佐. 處分下教, 誤記而諭, 而挺徽非徒牒呈麟佐者也. 敢以領軍付賊, 報賊魁, 比之象極, 其亦倍焉. 其時只京中軍門梟示, 不施逆律, 於渠亦寬典. 今任命周, 公然欲引進李益普, 而發啓下問之後, 初則曰不知挺徽事, 彌縫周遮. 嚴教之後, 末乃強對挺徽豈不爲逆云? 果若不知本事, 逆之有無, 渠焉能知乎? 不知憤痛從逆之意, 乃敢挺身營護益普, 下問之際, 欺君周遮, 又敢以挺徽似

人似鬼之間，逆之一字，猶不忍直加，曰豈非逆云者？語甚巧詐，心亦叵測。噫，述編既云，續典又載，渠雖無狀，職則臺臣，鞫問諫官，予豈樂爲？而此不嚴懲，君綱將此墜矣，義理將此熄矣。親鞫之命，非使氣而然也，乃所以嚴堤防也。今者諸臣，雖各執述編而爭之，予有所執，其當殿坐而已，而更以熟思之，名雖臺臣，其若干犯倫綱，容護逆賊，此亦續典已云，豈可容貸？而今命周，則意則容護益普，無憤痛挺徽之心，而雖然，意蓋由於益普，不專在於容護挺徽，則比諸肆然容護者，放恣訟冤者有間。噫，五旬又三述此編，五十五年不過有日，而初不使氣，而處分，則此等界限，宜可審慎。更加三思後，乃召見乎諸臣，而不待其奏，先爲下教者，此亦言顧行，貽厥孫謀之意。欺君之罪，已爲不敬。引化之際，自歸漫漶逆賊，其亦大不敬。亟正邦刑，烏可已也？而既參量下教之後，當踐其言，親鞫之命特寢，而關係莫重，亦不可尋常處之。欺君罔上，漫漶逆賊罪人任命周，大靜縣荐棘，倍道押付事，分付。

3) 『승정원일기』(권 1026) 1748년(영조 24) 2월 2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本府疏決單子中，各道定配罪人，羅州智島金敬一，出陸減等。黑山島尹光天，大靜縣羅沈，智島趙徽，臣濟崔齊恒竝出陸，大靜縣任命周撤籬出陸，務安洪相朝，密陽車道林，長鬐沈海容，安州柳徵龜·慎徽，泰川鄭德載竝減等。靈巖沈東尙·南平韓，聞慶申光岳，巨濟尹澤厚，安州徐宗翕，郭山慎榮來，尙州崔柱天，黃州權一衡，鐵山金尙重，康津玄泰翼，未及拿來罪人方山萬戶宋聖遇，釜山僉使申■■■，晉州前牧使金尙重等，竝放送事，啓下矣。減等徒三年改錄事及放送事，發關，分付於各該道道臣。而金敬一長城府出陸減等，尹光天扶安縣出陸，羅沈靈光郡出陸，趙徽泰仁縣出陸，崔齊恒東萊府出陸，任命周羅州牧撤籬出陸，而仍前罪目，依例發遣府書吏羅將，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4) 『영조실록』(권 67) 1748년(영조 24) 3월 1일.

○ 顯命又曰：“濟州雖曰候風，而昨年十二月，罪人押去都事，尙無還來之事，極涉稽緩。罪人任命周押去都事，請拿問定罪。”允之。

5) 『승정원일기』(권 1027) 1748년(영조 24) 3월 1일.

○ 顯命曰, 濟州雖曰候風之地, 昨年十二月, 罪人押去都事, 尙無還來之事, 其入去與否, 姑未可知, 事涉稽緩.罪人任命周押去都事, 拿問定罪,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66. 강석제(姜錫濟)

- 신분: 좌수(座首)
- 유배 연월: 1750년(영조 26) 7월 26일/ 1753년(영조 29) 6월 3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역모 연루(무신년 충청 연풍현 좌수)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058) 1750년(영조 26) 7월 26일.

○ 尹光紹以義禁府言達曰, 忠淸監司狀啓, 據延豐縣戊申年座首姜錫濟, 身爲座首, 賊檄到縣之日, 稱以官奇, 膽送賊魁之情狀, 萬萬凶慘, 而事在久遠, 減死島配. 其中干連人安就尙, 則屢次盤問之下, 每以曖昧發明, 不可直歸之於知情之科, 似當有區別酌處之道. 梁億基非王府勘斷者, 令道臣考律學行事, 舉條啓下矣. 姜錫濟濟州牧大靜縣減死島配, 安就尙平安道碧潼郡邊遠定配, 而罪人等, 時囚於公州營獄.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梁億基令道臣考律學行之意, 發關分付, 何如? 令曰, 依.

2) 『승정원일기』(권 1095) 1753년(영조 29) 6월 3일.

○ 各道定配罪人秩, 靈巖郡金世潤仍, 會寧府李興仁量移, 興陽縣羅老島洪益龜仍, 羅州牧尹志仍, 南海縣順賓, 巨濟府忠今竝仍, 羅州牧黑山島件里金仍, 彥陽縣車萬行仍, 三和府鄭良輔仍, 機張縣李綏慶仍, 河東府壽澤仍, 巨濟府魯澤仍, 靈光郡羅沈量移, 機張縣金就寶仍, 長淵府白翎島八金放, 昆陽郡禹圭章放, 康津縣尹德履放, 珍島郡今奉, 南海縣老郎竝出陸, 鐵山府貴得減等, 務安縣堦量移, 濟州牧姜錫濟仍, 珍島郡安就尙仍, 巨濟趙完璧出陸, 南海縣嚴祥鴻出陸, 靈巖郡姜行鼎放, 巨濟府李經濟仍, 機張縣金德海放, 大靜縣景命仍, 旌義縣仁命仍, 海南縣安道行仍, 渭原郡趙昌運放, 龍岡縣金光祚, 江西縣李杞泰, 咸從府李再春, 三和府洪以道竝仍, 唐津縣崔起獻放, 黑山島李亮天, 靈巖郡楸子島洪準海, 當此悶旱, 竝出陸.

67. 이의철(李宜哲)

- 신분: 관리(정언)
- 유배 연월: 1752년(영조 28) 7월 12일.
- 해배 연월: 1752년(영조 28) 12월 15일.
- 사유: 건의 불발(영의정 반대, 대정현감 임명 후 곧바로 그 땅에 유배)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77) 1752년(영조 28) 7월 12일.

○ 正言李宜哲上疏略曰: 殿下盛德當陽, 可以追軼前聖, 而受善之量, 容諫之道, 反出乎衰世中主之下. 臣未知其何說也, 言路壅於下, 君道亢於上, 凡以言得罪於殿下之廷者, 今幾人矣? 夫臺閣者, 人主之耳目而公議之所在. 故古之明主, 常尊畏而不敢褻焉. 雖其言狂訐而可惡, 踈闊而難從, 必屈己而下之, 傾心而與之, 惟恐其言之不盡, 而已失之不聞也. 殿下則不然. 凡有進言於前者, 少有不概於上心, 則便示不悅之色, 甚則錮廢之流遣之. 其又甚, 則致之縲絏之中, 施以雷霆之威. 不然則目之黨論而斥罰之. 論一事, 則就其事而愈益拂戾, 論一人, 則就其人而更加拔擢, 務以獨任聖智, 力排群議而後已. 臣未知聖人所謂‘舍己從人’, ‘予違汝弼’者, 其當若此否乎? 古之法, 臣下不匡則刑. 今之制, 臣下有言, 則不免於罪. 是以近年以來, 朝廷之上, 氣象愁縮, 言議索然. 凡其處於左右親近之列者, 類皆阿諛逢迎, 竊取名位, 坐視君上之闕失, 而莫之抹焉. 殿下孤立于深宮之中, 獨運於群言之表, 凡所勤己而爲治者, 皆歸於虛文, 無一實效之可見. 此臣之所大懼也. 雖然前後進言之臣, 賴殿下德意隆厚, 雖暫得罪而去, 終始保全其生, 無一人死於牢狴, 嶺海之間, 猶不失爲聖世祥和之象. 及至近者, 吳瓚首死於絕塞之外, 雖使其罪之可死, 孝理之下, 猶當宥之, 以慰其老母, 況其罪之不至於此乎? 然而未蒙舒究, 遽坐以忘君忘兄之罪, 臣竊以爲過也. 夫人臣之職, 從其義而不從其令. 今瓚居其職, 義不可撓其所守以循上旨, 而今乃以是得罪, 則是阿諛承令者爲賢, 盡言無諱者爲失職, 其可矣乎哉? 李存中之所坐, 不過論一大臣耳. 夫臺閣之體, 事係君上, 猶許論奏, 況其下者乎? 今以論斥大臣, 而身囚絕海, 父死而不得見, 其情理迫切. 宜蒙聖明之悶傷. 其有言者是而大臣非, 則固當從其言而退大臣矣, 其有言者非而大臣是, 則雖不必從其言, 亦不可罪其人. 蓋其言雖非而遽罪

之，則妨於言路，竝其是而不得進於上，非國家之利也。今則不論是非，輒行譴斥，馴致宰相之勢日隆，諫官之勢日卑，甚可憂也。夫逆之爲言，天下之至變，犯其罪者，固不可赦也，討其罪者，亦不幸之甚也。是以事有明據，罪有所歸，雖欲寬之，有不可得，而非其所樂爲也。殿下乃疑其發於一偏之黨心，然則停其論者，獨非出於黨心乎？於是傍伺之徒，乃敢窺測而生心，至有自稱以凶渠之徒弟，而略不顧忌，豈不寒心哉？然而殿下猥假借之節次，推排，卒置之三事之列，而未聞有諫止之者，可見其權之重，臣竊慨然也。嗚呼！言路之閉，主聽之壅，至於此極，莫可抹正。自古國家敗亡之道，非止一端，而惟惡諫而自用，其禍爲尤酷。故孔子論喪邦之由，特舉‘惟予言莫予違’之一言以爲之首，而聲色，荒淫之敗不與焉。其可畏如此，而至於國朝尤有大焉。臺臣之微罪可論者，法不得下吏而推責之，文忠公臣金誠一，引桀，紂以諫宣祖，而宣祖優假之，大司諫臣俞伯曾，援昏朝以規仁廟，而仁廟不非之。此又殿下家法之所傳，不待遠法堯，舜而得之矣。何殿下之不察於此耶？有過而不善其規，則上下乖隔，直言不聞。直言不聞，則君心日驕，君心日驕，則下無所輔，而主勢漸孤，主勢孤立，危亡隨之。其機若此，可不謹哉？臣請凡前後以言獲罪者，一竝釋放，其干犯大論及阿諛不言者，悉加斥退，以存大防而明好惡。殿下亦宜自勉，不以無過爲尙，惟以受善爲心。此今日爲治之第一要者也。伏念臣頃叨史職，密邇清光。伏觀殿下不樂莊士之讜言，而安於小人之諛習，最爲切己之大病也。臣所以願殿下之自勉者此也。疏入，上焚之，教曰：“其君日益憊綴，而黨習日益熾盛，可勝痛哉？噫！衰晚登科，黨心不衰，若置從班，負其君之苦心，亂元良之初政，必此人也。先遞其職，大靜縣監除授，倍道赴任。”仍命宜哲入侍，上連下嚴教。命誦七事，宜哲誤誦之，教曰：“大靜縣監李宜哲不知七事，不可爲字牧之任。卽其地投畀，卽日倍道押付。”

2) 『승정원일기』(권 1084) 1752년(영조 28) 7월 12일.

○ 鄭熙普，以義禁府言達曰，大靜縣監李宜哲，卽其地投畀事，命下矣。李宜哲以傳教內罪目，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濟州牧大靜縣配所之意，敢達。令曰，知道。

3) 『승정원일기』(권 1084) 1752년(영조 28) 7월 14일.

○ 金尙重，以義禁府言達曰，傳教內，大靜縣投畀罪人李宜哲，今日內過素沙，其形止，令縣監報該府，命下矣。依傳教各別嚴飭，而卽接振威縣文狀，則李宜哲，今月十三日辰時量，

過素沙境云, 敢達. 令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089) 1752년(영조 28) 12월 15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投畀罪人旌義縣李存中, 珍島郡張澍, 機張縣柳謩, 大靜縣李宜哲, 藍浦縣曹命教, 海美縣徐命臣, 報恩縣趙重稷, 庇仁縣李朝望, 懷德縣丁喜慎, 結城縣尹得徵, 青陽縣李運海, 泰安郡韓光肇, 庇仁縣林象元, 舒川郡李重祚, 海南縣南泰會, 固城縣李壽德, 熊川縣柳顯章, 河東府朴起采, 昆陽郡任希教, 北青府鄭純儉, 茂長縣金尙重, 靈巖郡閔宅洙, 扶安縣朴昌潤, 沃溝縣李堉, 長興府鄭基安, 咸平縣權抗, 務安縣李思觀, 海南縣趙載敏, 巨濟府金砮, 竝放送事, 令旨達下矣. 放送之意, 分付各該道臣, 何如? 令曰, 依.

68. 김시욱(金時煜)

- 신분: 관리(차비관)
- 유배 연월: 1751년(영조 27) 8월 22일(추정).
- 해배 연월: 1753년(영조 29) 4월 22일.
- 사유: 범죄(과거 부정, 무과).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073) 1751년(영조 27) 8월 22일.

○ 辛未八月二十二日卯時, 上御崇文堂. 兩處長官, 同爲入侍時, 判義禁金聖應, 刑曹判書鄭益河, 右副承旨南泰耆, 假注書趙重明, 記事官李致彥, 記注官康弘濟, 諸臣以次進伏. 上以微■, 於寢內御便服而臥. 右副承旨南泰耆, 持禁府文案進伏. 奏武二所用奸差備官 **金時煜** 等十六人姓名. 上曰, 何如是多乎? 秋曹文案有之乎? 泰耆曰, 在此矣. 上命讀. 至池末金招辭, 稱有戊申軍功. 上曰, 此輩能有戊申軍功. 泰耆讀各人招辭畢. 上命判金吾·秋判進前. 金聖應·鄭益河進伏. 益河曰, 今番武試用奸, 不在冶匠及旗鼓軍也. 差備官, 直自廳上, 持試冊矢數, 任意低昂, 以致如此, 誠極巧惡矣. 上曰, 若有參試官, 則差備官輩, 不敢逞巧, 而今番無參試官, 故以致如此矣. 益河曰, **金時煜年過四十, 多年爲差備官, 每當科舉, 則持試冊用奸甚多, 不特今年也.** 聖應曰, 非特此榜, 已往多年爲之矣. 上曰, 科場以來所無之變也. 兩班多乎? 泰耆曰, 兩班多矣. 上曰, 申燦, 申昉之孽族云, 然乎? 泰耆曰, 果是申昉之孽族也. 又曰, 前監察李崇, 卽故完豐府院君李曙之五代孫也. 上曰, 無庶名乎? 泰耆曰, 無庶名, 故曾爲監察矣. 聖應曰, 李崇, 爲人頗善, 可用之人也. 上曰, 文龍徵, 似是曾爲事知者也. 聖應曰, 然矣. 上曰, 尤爲無據矣. 李崇可惜, 將爲棄人矣. 泰耆曰, 武弁此事, 少無所傷矣. 上曰, 然乎? 聖應曰, 然矣. 上曰, 此往牒所無之變也. 入格者凡幾人乎? 益河曰, 三十餘人矣. 上曰, 古豈無三十餘人, 而豈有如今番之狼藉也? 聖應曰, 此外亦無數, 曾所不知之人, 多從其面而爲之, 故姓名忘失, 雖欲悉吐而不能得. 今其言曰, 得見其人之面, 則可以知得而悉吐云矣. 上曰, 由其如是也. 故至有以父告子之境, 情狀可知矣. 如是則雖杖問, 無可奈何. 聖應曰, 雖杖問, 不知姓名者, 何以覈之也? 不但入格之人, 落榜中亦多云, 一體問之乎? 上曰, 落榜之人, 豈可盡問也? 益河曰, 甚誠學也. 聖應曰, 用奸

之狼藉如此，罷榜宜矣。上曰，訓將之言甚善。此輩知此科，異於他科，故必欲爲之，以至爲不義如是也。禁府文案，上命泰耆書判付曰，今覽供辭，**金時煜**，則有叵測者，有秉彝者。叵測者，此科場用情，邇來所不聞之事也。秉彝者，特教之下，不敢隱諱而自服也。自此黑白可以分也。而今聞所奏，渠亦有不能記得者云。若此白中猶有黑，雖查得情，其原榜何以處之？既問之後，不可以此招而止是去乎？取來二所試冊，嚴查更問以啓。金必成·金盛佑段，今者用情，不在於的而在於冊，時煜用情之事，渠等其豈不知是旃。時煜近四十人用情之時，渠等，亦豈只二三人用情乎？時煜雖無狀，問目之下，不敢自諱，其有秉彝之心是乎矣。必成·盛佑段，半吐半吞，不爲直招，渠若有毫分秉彝之心，今番下教之下，豈忍若此？是可忍也，孰不可忍也？不可尋常更推而止，竝施威嚴問。李崇之，以何等人犯此？文龍微，渠雖微賤，以事知隨近者，而以出身前萬戶，又何所欲而不顧慰悅之意敢犯乎？此初招若不直招，雖是一律，其何所惜？初招不服，仍爲施威嚴問。此教之下，若不直招，其曰有秉彝，以此嚴問爲遣。金宗大，係是出身，一體嚴問，金禹剛，亦一體嚴問爲乎矣。若不直招，與**金時煜**對質後，施威嚴問，其餘諸人，送秋曹嚴查。其餘差備官，渠供似爲實狀，竝仍囚以待決未爲乎矣。今招竝捧口招，此六人，竝囚南間爲良如教。判付書之未畢，紙將盡，上命泰耆，粘連他紙。泰耆顧假注書趙重明曰，麪糊持來。重明出欄邊高聲呼曰，麪糊持來。上笑曰，彼史官，是新入來者，故此舉誠非異事，然彼糊誰當來納？上曰，下番兼春秋，曾已見之矣。誰也？泰耆曰，康弘濟也。上曰，年幾何而如是衰白也？泰耆曰，今年爲六十三。上曰，二所試官誰也？泰耆曰，朴弼均·洪德望也。上曰，皆老矣。又無參試官，故如此矣。洪德望，今則老昏矣。聖應曰，年雖多，不至於老昏之境矣。且國家不用老熟之人，故今爲闔任者，皆是年少之人也。小臣少時，見閫帥之來辭於臣家者，皆是年老白髮之人也。泰耆曰，判金吾之言是矣。小臣曾經北評事，見兵使官案，皆年過七十，或近八十者多。朝家嚮用宿將之意，於此可見矣。上曰，此言是則是矣。益河曰，沈瑑年過七十，精力尙強，做事亦不錯矣。泰耆曰，小臣待罪甲山府使時，沈瑑爲南兵使，故屢次見之，頗有儒將之風，精力甚不衰矣。聖應曰，別軍職得除守令，皆是瘴鄉，人皆得水土之疾，甚爲悶事也。上曰，今番以別軍職爲長髻縣監者有之，此地，何如？聖應曰，少勝云矣。上曰，邑況，何如？聖應曰，長髻則均役廳後，少勝云矣。上曰，是何故也？聖應曰，差人所捧之稅，使本官捧納，故不無少勝之道矣。聖應持禁府文案，先爲退出。刑曹文案，上命泰耆書判付曰，觀此各人所供，似是實狀。忿不喻。今者用奸，在於冊而不在於的，而結束吏張世佐段，置其招亦似吐實是乎矣。關

係科場，竝仍因以待決末，作備舉子，隨該府關嚴問爲乎矣。此則今無可疑之端，直招者勿杖請律，不爲直招者，施威嚴問爲良如教。益河，以保齋聖躬，縷縷仰達，又以四字下教之後，元景夏所陳，得宜之意，仰達。泰耆曰，有四字下教之後，小臣初爲入侍矣。殿下此教，何爲而發也？此教不還收，則一隅東方，將爲黑宰之世界也。上曰，此言過矣。泰耆曰，何爲過也？殿下此教之後，諸臣當力請還收，而無一人言之者。元景夏始爲力請，出於忠愛之忱，而殿下不從之，又上短筭，而不賜一字之批而還給之。重臣，今出郊外，想必抑鬱矣。上曰，重臣已出郊外乎？泰耆曰，陳筭翌日，陳書出銅雀津矣。上曰，重臣筭語，似是前日所陳，故不見而還給矣。果無他語乎？泰耆曰，只以還收四字之教爲請矣。上曰，還收何以爲之乎？泰耆曰，殿下若以還收爲教，日後更無此等下教，則是爲還收也。殿下此教，不可一日留在，而殿下既不從重臣之言，如臣疏逃者之言，何敢望俯賜允許，而於心不勝感感然。益河曰，此承旨可用之說，臣曾發於筵席，知其有爲國之心矣。上曰，承宣之心，予已知之。昨年溫幸時，到葛院，承宣以爲，聞此地名，則於心不好。予問之，對曰，戊申逆賊，多聚於此處酒幕而謀議，詳載於勘亂錄，故惡聞其地名矣。傳曰，今覽金吾供辭，此實曾所無聞，不可尋常以處，勿拘齋戒，今日亦爲舉行，而金吾·秋曹長官，待朝領相入侍時，同爲入侍。出榻教 傳曰，待朝藥院入侍時，領相同爲入侍。出榻教 傳曰，人臣分義，以一時下教，不敢一向撕捥，事體當然。而頃者處分，不過飭勵，其後下教，開釋無餘，則入城之後，何敢復事撕捥？而且頃日入侍時，更爲入侍面奏，而其筭忽到，以爲殊常矣。今聞投章徑歸云，其行之忽遽，一何至此？雖不以處分撕捥，往者李昌儒之斥，亦涉無謂。而其後亦入城參候班，今更撕捥，尤涉無謂。藥院問候，雖不逐日，此非臣子出城之時也，分義事體，俱爲寒心。行司直元景夏，從重推考，其令卽爲入城，而縣道之書勿捧。出榻教 諸臣將退之際，上命泰耆曰，史臣近前。重明進伏。上曰，史官與趙重晦爲幾寸親乎？重明曰，爲十寸親矣。上曰，今年幾何？重明曰，五十一矣。上曰，父名云何？重明曰，趙榮遂也。上曰，下字是何字？重明曰，卽遂字也。上曰，爾是昨年謁聖及第者乎？重明曰，然矣。諸臣以次退出。

2) 『영조실록』(권 77) 1752년(영조 28) 7월 20일.

○ 義禁府啓: “大靜縣徒配罪人金時煜遭父喪云. 請依法典, 許令歸葬.” 令曰: “許由, 過葬後還配.”

3) 『승정원일기』(권 1084) 1752년(영조 28) 7월 20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定配罪人遭親喪者, 許令歸葬事, 既有法典矣. 全羅道濟州牧大靜縣徒配罪人金時煜, 戶奴呈狀內, 時煜遭父喪云, 所當依法典許令歸葬. 而大朝下教之下, 不敢循例舉行, 何以爲之乎? 敢稟. 令曰, 許由, 過葬後, 卽爲還配.

4) 『승정원일기』(권 1093) 1753년(영조 29) 4월 22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濟州牧大靜縣絕島充軍罪人金時煜放送事令旨達下矣. 放送之意, 分付濟州牧, 何如? 令曰, 依.

69. 이성술(李聖述)

- 신분: 유생(진사)
- 유배 연월: 1753년(영조 29) 4월 14일.
- 나국(사망)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4일.
- 사유: 범죄(과거 부정, 4대조 오류)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79) 1753년(영조 29) 4월 14일.

○ 命進士李聖述 大靜縣勿限年島配, 前承旨尹光纘 海南縣極邊定配. 聖述父衡秀參壬寅勳, 例贈其父職, 乙巳削僞勳. 而聖述爲掌議時, 疏下六賊, 皆生墨. 及聖述登第, 修撰徐孝修見其糊封中四祖有贈職, 意其書壬寅贈職, 筵白請嚴處, 查出則乃孝行贈職也. 其後自京兆, 又考出聖述乙巳以後帳籍, 則果書贈職於削勳後. 光纘, 衡秀之甥也, 亦書其外祖贈職. 李澤徵發達, 大臣亦請嚴處, 有是命. 光纘與其弟光紹, 一時登科, 皆尙氣凌人, 且峻於黨論, 人多嫉之.

2) 『승정원일기』(권 1093) 1753년(영조 29) 4월 14일.

○ 上仍命書傳旨曰, 頃者大臣陳筭, 儒臣陳白, 而不可以此遽爲處分. 故不教. 今因事端, 令京兆·太學, 詳考李聖述僞贈冒錄, 既皆非渠主戶之時, 心雖同, 王者處分, 不可以渠父之事, 治其子, 而至於疏下賊解墨事, 不問, 其心可知. 此等堤防不嚴, 何以樹君君臣臣之義於青丘? 大靜縣勿限年島配.

3)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4일.

○ 上御內司僕, 親鞫, 逆賊鼎衍伏誅. 刑訊鼎衍, 鼎衍供: “匿名書, 臣果爲之, 其中數人, 卽臣之讎也. 臣以成衍, 益衍之弟, 有怨國心, 故勳戚之人眷遇之臣并嫉之, 而欲先除去, 爲此陰慘罔測之計矣. 臣與逆志族惠同謀, 惠卽就商弟, 五商繼子, 懃之弟, 而春川人柳明斗之女壻也. 逆鏡之從孫道成爲窩主, 與惠書此文給臣使呈. 而臣欲謀逆, 既呈匿名書, 又以臣名書呈經綸, 欲掩匿名之跡矣. 逆鏡之從孫, 又有變姓名爲僧者. 又有事機之時急者,

惠方聚軍謀逆於春川矣。”其結案招有曰：“科前作文書于桃洞。”又曰：“欲除勳戚眷遇之臣，誣此人等。”又曰：“陰慘不道之說，向上罔測之計，臣之凶肚綻露。”大逆不道遲晚。教曰：“逆賊何代無之，而豈有若鼎衍者乎？崇禮門外戊申受馘處，金吾堂上親往正法。”時上怒甚，日已晚，尙未進御食。出御宣仁門，命東宮侍坐，鼎衍正刑後，始還御。內司僕刑訊李聖述。聖述曾爲太學掌議時，解一鏡疏下諸賊墨罰，又以其祖翊周壬寅僞勳所贈官，書於帳籍者也。前已繫于秋曹，至是親問，以護逆自服處斬。

4)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4일.

○ 罪人聖述刑問準次後更招. 上曰, 施以護逆律, 何如? 尙魯曰, 護逆則情少無異同, 而亦無過中之事矣. 上曰, 此時此等種子, 不可食息於輦轂之下, 聖述子, 竝令該府, 嶺東定配. 出榻教

5)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5일.

○ 正言鄭光漢達曰, 李時蕃依律處斷事, 逆坦籍沒事, 恒延·命垕·敏樞等嚴鞫得情事, 泰績拿鞫事, 金已明依律處斷事, 金一興依律處斷事, 卜連拿鞫事, 還收前後諸賊伸理之命事, 李六孫依律處斷事, 崔漵依律處斷事, 斗齡嚴鞫得情事, 天大快正王法事, 益源快正王法事, 致雲嚴鞫得情事, 匡師嚴鞫得情事 柱天以同參律舉行事, 厚基以同參律舉行事, 措辭見上 尹光纘, 敢以僞勳時所贈官秩, 肆然書其帳籍之狀, 萬萬凶悖, 與聖述無異, 昨日聖述正法之後, 雖特允臺達, 而關係至重, 決不可島配而止. 請巨濟安置罪人尹光纘, 稟于大朝, 亟令王府, 設鞫嚴問. 新除授司憲府執義朴弘僞, 時在慶尙道榮川地, 持平李壽勛, 時在京畿水原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從. 光纘事, 所陳誠是, 所陳誠是, 大朝既已處分, 其所難稟者此也. 下諭事依達.

70. 장익성(張益成)

- 신분: 노비
- 유배 연월: 1753년(영조 29) 8월 6일.
- 사망 연월: 1772년(영조 48) 2월.
- 사유: 범죄(주인 배반, 홍상한(洪象漢)의 하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0) 1753년(영조 29) 8월 6일.

○ 還宮時, 敎曰: “今日伸禮, 予懷一倍. 贈領相孫進參者, 只有崔鎮衡一人, 令該曹卽爲準職除授.” 又敎曰: “旣已封園, 心若奮飛. 況予日復一日之心, 何待明年, 而今番國役, 數年內稠疊, 若不顧民, 何以體我私親昔年小心之義哉? 明年展謁長陵, 當展拜昭寧園. 噫! 明年展拜, 意亦有在. 嗚呼! 此心, 彼蒼知之.” 駐輿呼寫, 涕淚沾襟. 又敎曰: “毓祥宮有未準結數者三百結, 待宮望定舉行事, 分付戶曹.” 命書述懷詩及寧嬪致祭祭文. 到惠政橋, 命金吾, 秋曹堂上入侍. 上曰: “張益成之處置, 何堂爲之耶?” 刑曹判書趙榮國曰: “參議申晦所處置矣.” 上曰: “此漢卽是宮任, 故予卽聞之, 而近來宮家所屬, 未聞有如此處置, 參議可謂漢之董宣矣.” 晦曰: “厥漢洪象漢之奴, 而叛主爲僧, 長髮還俗, 出入閭閻, 所行叵測, 故臣於日昨赴坐時, 嚴刑發配矣.” 命書鍾聲詩及感懷詩, 命承旨讀寧嬪致祭文, 上曰: “其若有知, 必感我矣.”

2) 『승정원일기』(권 1097) 1753년(영조 29) 8월 6일.

○ 上曰, 張益成之處置, 何堂之所爲乎? 榮國曰, 臣則不知, 而似聞參議之所爲云, 參議亦方入侍矣. 上曰, 厥漢有何所犯而處之乎? 此漢卽是宮任, 故予卽聞之, 而近來宮家所屬, 未聞有如此處置事矣. 今果爲之, 參議可謂漢之董宣矣. 申晦曰, 張益成, 卽平安監司洪象漢之奴也. 而有重罪, 其上典欲爲重治而未及果, 厥漢知幾逃走, 仍爲削髮爲僧, 不知去處矣. 四五年後, 始爲往來京中, 長髮還俗, 出入閭閻, 所行叵測, 且多侵虐無故之人, 人皆目之以可殺.而非但此也, 渠之所生父母, 侍之甚薄, 論其所爲, 可謂殺之無惜. 而且此漢

之母，以年老巫女，平日所爲，多有妖惡之事云。故臣於日前赴坐時，發差捉來，數其罪惡，嚴刑發配矣。上曰，申晦事果難矣。申晦事是矣，又難矣。俄以漢之董宣事言之矣。申晦事果難矣。榮國曰，臣昨日始聞之，亦以爲難矣。上曰，聞承宣所達，厥漢之妻，何爲而在囚徒中耶？申晦曰，伊日開坐時，三門之外，有披髮作亂之女人，故問之則乃是此漢之妻。卽令囚禁，而未及處之矣。上曰，厥漢卽是叛主之奴，且其巫女，亦是妖惡者。則不可不嚴處，發配何處乎？晦曰，張益成定配於珍島，巫女定配於端川矣。上曰，罪人朴道弘放後嚴杖，巫女順愛，仍其配所勿限年，巫女之子張益成大靜，其婦玉丹珍島，竝勿限年定配。駕前下教

3) 『승정원일기』(권 1336) 1773년(영조 49) 3월 5일.

○ 趙載得，以刑曹言啓曰，張益臣，已物故而然乎？此島只三人，其涉可怪，令該曹，考徒流案以啓事，命下矣。取考徒流案，則濟州牧三邑，元無張益臣定配之事，而大靜縣定配罪人張益成，昨年二月，因病物故。本曹所管定配罪人濟州牧奴二萬，大靜縣丁潤慎，旌義縣洪起震，合爲三名，而洪起震，今正月，已蒙特放，奴二萬，甲申年，因傳教，勿揀赦典，其餘爲奴定配罪人八名，則自前不入於放未放啓本中之意，敢啓。傳曰，知道。

71. 이경로(李景老)

- 신분: 관리(전 거제부사)
- 유배 연월: 1754년(영조 30) 2월 5일.
- 이배 연월: 1755년(영조 31) 8월 7일(영암군).
- 사유: 지방관 탐장(貪贓, 전복 갈취)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02) 1754년(영조 30) 1월 24일.

○ 至崔岳事.上曰, 全卜[全馥]之贓, 何其多也? 非渠獨食, 必有所用處, 品踵李景老矣.

2) 『승정원일기』(권 1103) 1754년(영조 30) 2월 5일.

○ 任瑋, 以義禁府言達曰, 時囚罪人巨濟前府使李再馨, 嶺南熊川縣徒三年定配.李景老, 濟州牧大靜縣勿限年定配, 限己身禁錮.固城前縣令李徵淳, 徒一年定配, 限一年禁錮.閔百範, 徒二年定配, 限二年禁錮.熊川前縣監李徵華, 濟州牧旌義縣勿限年定配, 限己身禁錮.三嘉前縣監柳愈, 徒一年定配, 限三年禁錮.金鳴魯, 徒三年定配, 限五年禁錮.青松前府使李珪輔, 徒一年定配, 限三年禁錮.俞直基, 施以告身一等之律, 限一年禁錮.河東前府使洪一涵, 徒一年定配, 限三年禁錮.申翊文, 施以告身一等之律, 限一年禁錮.機張前縣監宋載遇, 施以告身三等之律, 前統制使具善行, 施以告身一等之律.鄭纘述, 施以告身三等之律.龜山前僉使韓夢益, 依下教定配.永川前郡守吳遂燁, 施以不應爲輕律事, 判付啓下矣.李再馨·李景老·李徵淳·閔百範·李徵華·柳愈·金鳴魯·李珪輔·洪一涵·韓夢益等配所單子, 磨鍊以入.而俞直基·申翊文·具善行等, 依律文杖六十, 一等奪告身.宋載遇·鄭纘述等, 杖八十, 三等奪告身.吳遂燁, 以不應爲事理, 輕答四十, 依判付勘律, 而答杖竝依法典收贖後放送.禁錮告身一款, 令吏曹舉行, 何如? 令曰, 依.

3) 『승정원일기』(권 1122) 1755년(영조 31) 8월 7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濟州牧使放未放申本府回達內稟秩中, 李景老仍前罪目, 全羅道靈巖郡出陸事, 達下矣.依例發遣府罷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

72. 조영순(趙榮順)

- 신분: 관리(부수찬)
- 유배 연월: 1754년(영조 30) 11월 27일.
- 이배 연월: 1755년(영조 31) 1월 23일(해남현).
- 사유: 건의 불발(영의정 매도 상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2) 1754년(영조 30) 11월 27일.

○ 副修撰趙榮順上書, 首以瀛館新錄, 何等重選, 而人言狼(籍)[藉], 物情駭憤, 相門私客無不同隊而并武, 爲難進之義, 其下乃曰: 臣之踪地, 固不敢開口論事, 以事難終默, 敢此附陳焉. 嗚呼? 今日名義斃敗, 廉恥(倒)[都]喪, 朝無讜直之風, 國有綴旒之勢. 危亡之徵, 汙渙之形, 難徧疏舉, 而若論其最誤世大病國者, 只在輔相之匪其人, 而亦未有甚於今日. 首相蓋其藍面白眼, 陰譎庸陋, 始假清論, 冒竊極選, 終附權門, 驟占隆秩. 平生伎倆, 不過乎擠人利己, 寤寐經營, 只在於獻媚固寵. 是非之不可不明也, 而必欲紊亂之, 忠逆之不可不嚴也, 而必欲汨董之. 至於三司合達, 自是一國大論, 而初入銓地, 則密排而擅停之, 及登台席, 則詭辭而漫奏之, 敢謂公議之可勝, 敢謂聖聰之可欺, 辨質君父, 貽辱朝廷, 其窘遁之態, 閃倏之狀, 令人可痛, 亦令人可羞. 且以近日事言之, 庇護逆孽, 而必伸之於丹書之案, 阿好凶科, 而亟薦之於本兵之望, 放恣專擅, 亦可謂無所不至, 而況其殘忍不仁, 貪饕無厭? 妖孽嬖畜, 貨賄日輳, 狎友倖客, 黨與日熾, 威利之所籠, 權焰之所壓, 人莫敢誰何, 雖以向來所播閭巷歌詩見之, 亦可知十手所指矣. 其從弟益輔, 又以狠毒之性, 兼有狎邪之行, 左右盤據, 同惡相濟, 官欲自占則乘機而傾奪之, 人有所逼, 則造言而噬螫之. 憑藉威福, 乖亂搢紳, 譬如梟音之鵠應, 虎威之狐假, 三窟勢成, 一世影附. 而又其殘盃冷灸, 出奴入主, 心之所欲, 頤之所指, 無不奉令而效力, 蓋觀乎前冬李鼎輔陞資事而極矣. 惟其如是也, 故君綱日入於解弛, 士氣日趨於污下, 無復有一箇半箇得保本色者, 甚則昏夜而乞哀者有之, 俯仰而吮舐者有之, 殊不知名義之爲何事, 廉恥之爲何物. 世道至此, 他尙何說? 臺評之發, 亦云晚矣, 而氣勢所驅, 端緒莫究, 本事終歸黷昧, 輿情益切憤惋. 噫! 彼圓頭, 橫目, 看似常人, 葱珩赤芾, 看似大官, 而斷其心跡, 已不容於舉

國之誅，則亦何必以人言之有無，查事之虛實，爲其罪之輕重也哉？臣竊痛之。惟願邸下，亟稟大朝，明正好惡，屏黜權相，嘉獎臺臣，使四維張而百僚勵焉。司諫李敏坤又上書，略曰：竊觀相臣之對辨臺書，略無自反之意，輒肆憤懣之氣，一何與古名臣容受之意相反也？文清公鄭澈之言曰，苟欲聞過，但當一一虛受，不必計較其虛實。人能急於自治，則人言之來，有則改之，無則加勉，莫非有益於己，何暇計其言之虛實哉？昔之諫其君者，或比於桀，紂，或比於桓，靈，時君不之罪焉。莫尊於君上，而敢言之士，猶且不諱，況乎宰相之位在乎君上之下者乎？自古能治之朝，莫不假借臺閣之權，而至於我朝，則尤有所大焉者。元衡，芑，樑之凶，勢焰薰天，足可以移祚亡國，猶能帖伏於臺閣之筆。今日大臣苟知此義，則其於論己之言，亦當惕然恐懼，摧謝引伏，而遂乃疑之以禍心，斥之以毒鋒，顯有相較角勝之意。夫如是，則攻己者日踈，佞己者日進，相門之所擬蓼尤之儲者，不過慕羶之蟻，逐腐之蠅，而陰朋比類，莫不根本於是。大朝三十年苦心，惟在於破朋黨，晚年之所倚毗者，只在於一元輔，而不能贊其美，乃反別生一黨，則此豈所以仰體大朝之本意，而亦豈爲世臣私門之福也哉？今以一朝之憤，不思萬世之弊，深於計慮者，恐不當如是。臣謂宜邸下，明諭大臣，遽忘其怒，觀理之是非，則風浪自可息，而國事尙可爲矣。昔漢文帝，止輦受言，言可用則採之，不可用則置之。誠以人言互有得失，不可以一言之善盡取其言，亦不可以一言之不善盡棄其言。臣觀前後進言者，或有一言之觸於時諱，則其他千萬言雖切於時務者，率皆置而不用。今以憲臣書言之，所引先正臣趙憲之事，語及廊廟，威罰遽降，併與此言而不省，則臣實慨然也。臣曾見故名臣李之菡之遺集，之菡嘗弔趙憲之居憂仁川，其夜妖彗亘天，憲問其兆之如何，則之菡以爲，彗星長遲短速，此在十數年後，天下必大亂，生民魚肉，世無人當之者，惟君益讀古書，以報國家，及至壬辰之亂，其言果符。臣於癸亥之冬，以兼史入直禁中，其時彗星之災彌月不消。臣所目擊而憂歎者，計今年數，適與之菡之所言者相近。臣固未解之菡與憲前知之術，而以其篤信二臣之故，每不勝其隱憂深慮。況自數年以來，非常可愕之災，又從而疊見層出？凡厥災異之作，雖有遲速，未嘗見無其應者，不可以今年有災明年無事，而或忘警懼之心也。嗚呼！以天地之告警，則殆至於無變之不有，而以時象言之，則諂諛競進，佞倖鴟張，生民塗炭，邦本有壞，邊圉踈虞，緩急無持，厝火積薪，未足喻其危急。而世方以倖科巧宦，馳騫相尙，靡哲不愚，滔滔淪胥，將不知國事之稅駕何地。邸下深居端拱，亦何以知今日世道之至於此極耶？消災抹弊之道，更無別法，實惟在於恢張言路察納讜言。伏願邸下必於宴侍之際，從容仰稟，收回言者之

謹，以彰來諫之路者，實爲恐懼修省之一端也。王世子令曰：“今覽趙榮順，李敏坤二書，詬辱大臣極矣。如此背公死黨之類，不可置諸輦轂之下，并施投畀之典。”後數日，上聞兩人陳章事，以黨習嚴責之，竄敏坤于巨濟，榮順于大靜。

2) 『승정원일기』(권 1113) 1754년(영조 30) 11월 28일.

○ 沈鏞，以義禁府言達曰，傳教內，李敏坤勿配，施以永刊仕版之律，趙榮順大靜縣投畀，倍道押付事，命下矣。李敏坤·趙榮順，既已發配，李敏坤放送之意，發關分付於押去羅州所到處。而趙榮順以傳教內辭意，具罪目更即發遣他羅將，仍令押送于全羅道濟州牧大靜縣之意，敢達。令曰，知道。

3)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1월 23일.

○ 移配趙榮順于海南縣。上召校理南泰會，命讀《東國摠目》。泰會曰：“今於李存吾，鄭樞事，殿下有可以鑑戒者，勝國恭愍王亡國之主也。尊禮辛旽，無異周武，齊桓之於尚父·管仲，而李，鄭之論劾旽也，不過竄逐茂長而止，此可見愛惜言官也。殿下卽昨以來，以言獲罪者，輒竄海島，固非聖世美事。而至若趙榮順，則其父於辛，壬年間，定配絕島，而榮順出於其時云，今若一朝死於島中，則其生其死皆在絕島，豈非矜惻處乎？”上感其言而有是命。仍教曰：“頃者元良效我，投三臺於海島，亦令倍道，此予導之也。因此予當自勉，以此書入元良，使之知我意焉。噫！彼黨人莫曰飭弛。雖畫地囹圄，宜不入也。”

4) 『승정원일기』(권 1115) 1755년(영조 31) 1월 23일.

○ 泰會曰，臣區區所懷，敢不畢陳，今於李存吾·鄭樞事，殿下有可以鑑戒者矣。勝國恭愍王，亡國之主也。於辛旽，尊師禮敬，無異於周武王之師尚父，齊桓公之管敬仲，而多人，既論劾罪惡，及其召來，乃目叱下床，必欲殺之，而其所竄逐，不過茂長，猶惜言官也。殿下卽昨以來，以言獲罪者，皆竄絕島，此非聖世之美事也。且以趙榮順事言之，臣影響不相接，非敢爲營護也。其疏誠非矣，豈曰無罪？殿下之處分至當，而聞榮順，生於海島云，今若死於海島，則豈非可矜乎？上曰，然乎？對曰，聞其父辛壬年，定配絕島，而榮順，生於絕島云矣。且聞其父得病於配所，乙巳蒙宥後，卽爲作故云，若使榮順，有生行死歸之患，則此豈聖世之美事乎？上問承旨曰，榮順生於海島乎？金致仁曰，臣未能的知，而考其年歲，則

似然矣，泰會曰，榮順，若出陸而罪之，則豈非有光於待言官之聖度乎？上曰，聞儒臣之所奏，予多惡焉。榮順之罪則難赦，而追思其祖，亦甚惻然，業欲處分，而所陳又如此，當有處分矣。泰會曰，昨冬，臣之從兄泰齊，以都憲，定配巨濟，而有倍道之令，故半夜蒼黃，景色愁絕。又逢惡獸，馬數驚逸，朝家既不誅殛，而傳之生路，則不爲如此，宜矣。金致仁曰，儒臣所奏好矣，先朝無倍道之令，故或於城外，留滯治裝而往矣。殿下少有激惱，則輒命倍道，故向於三臺處分，東宮，亦令倍道，此殿下以身教之也。上曰，予果導之也。以承旨書之曰，趙榮順，卽一黨臣也。此正傳所云屏諸四裔，不與同中國之意者也。以言讒人，亦寺人孟子所云投諸有北者也。投畀海島，於渠當律，而今日儒臣，因自省編陳勉，其涉得體，心覺自惡，而且聞榮順父謙彬，頃年巨濟，得榮順云，渠雖無狀，追惟乃祖，豈可復令越海？分付該府，以海南縣更定，其自惡者，何以恭愍，深惡李存吾·鄭樞之心，其配不過止於茂長，此指正而言矣。昔年，仰觀此等之類，雖或被配，海島甚罕，予則黑山·楸子等島，特命外，雖申飭，勿配海島，聯翩而申飭，楸子島，亦命投畀，近有倍道之命，雖觀世道處，頃者元良效我，一投三臺於海島，亦令倍道，此予導之也。五十三，述此編，六旬暮年，導元良過中，視恭愍而自惡者也。因此而予當自勉，政院，一本書入元良，使元良知我意焉。而亦爲下教者，噫，彼黨人，視此而莫曰飭弛，雖劃地囹圄，宜不入也。海南·濟州，投畀一也，非參酌榮順而然也。覽此教，其不感悟而滌心，乃反自曰飭弛，而揚揚曰，有臣分，此習不悛，前轍滔滔，海島陸地，其亦節目間事也。未稍此教，乃見衰世，而亦大小群工，自勉處也。出榻教

5) 『승정원일기』(권 1115) 1755년(영조 31) 1월 24일.

○ 任瑋，以義禁府言達曰，傳教內趙榮順配所，以海南縣更定事，命下矣。全羅道濟州牧大靜縣投畀罪人趙榮順，因前罪目，海南縣更定配所，而依例發遣府羅將，仍令押送，何如？令曰，依。

73. 목덕성(睦德成)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2월 29일.
- 사망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사유: 연좌(역적 목호룡<睦虎龍>)의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2월 29일.

○ 左議政金尙魯奏曰: “虎龍兩子, 尙今容息於湖南陸地, 誠是失刑之大者. 請樂安郡爲奴罪人德福移配旌義縣, 寶城郡爲奴罪人德成移配大靜縣.” 上從之.

2) 『승정원일기』(권 1116) 1755년(영조 31) 2월 29일.

○ 尙魯所啓, 虎賊兩子, 尙今容息於湖南陸地, 誠是失刑之失刑矣. 樂安爲奴罪人德福, 移配旌義縣, 寶城爲奴罪人德成, 移配大靜縣,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3)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3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今月二十九日親鞫入侍時, 左議政金尙魯所啓, 虎賊兩子, 尙今容息於湖南陸地, 誠是失刑之失刑矣. 樂安爲奴罪人德福, 移配旌義縣, 寶城爲奴罪人德成, 移配大靜縣, 何如? 上曰, 依爲之事舉條, 啓下矣.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令曰, 依.

4)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20일.

○ 全羅監司趙雲達上疏, 請鏡, 虎, 麟, 亮四賊之子, 并依律, 上從之. 仍教曰: “翼觀, 亘古所無之逆, 其子令該府, 一體舉行.” 掌令李吉輔, 獻納尹東星啓: “鏡, 虎, 麟, 亮四賊孥籍事, 此乃兩司積年陳請者, 而今始蒙允, 王章夫舉, 輿憤大洩. 但道臣所請, 只是本道見在賊孥而已, 則臺達中十魁餘孽, 猶有未盡施律者. 四賊戮孥之日, 此不可獨漏常刑. 請戊申賊魁子散在他道者, 一依湖南例, 查出正法.” 上允之.

5)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21일.

○ 權抗, 以義禁府言啓曰, 逆賊鏡·虎·獐·亮四賊之子應施之律, 卽令該府舉行事, 命下矣. 逆賊一鏡子允興, 虎龍子德成·德福, 獐佐子文明·仁明, 希亮子鐵興等, 俱配於濟州·大靜·旌義三邑, 依例發遣府都事, 卽爲舉行, 而在前鞠獄方張之時, 有假都事差送之例, 今亦以假都事發送, 與地方官, 眼同處絞, 何如? 傳曰, 允.

74. 유동혼(柳東渾)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사유: 모역(심래복 모반사건, 신임사화 주동 유봉휘<柳鳳輝>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柳顯章,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成府報狀, 當部成冊, 忠淸·京畿監司牒呈, 則逆賊就商·志·師尙·眞儒·明誼·楷·聖時·宗廈·鳳輝·泰耆·明彥·夏宅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就商弟徵商, 咸鏡道茂山府爲奴, 姪勲, 慶尙道柒原縣, 流三千里安置, 姪慙, 三水府安置, **逆賊志孫吉甲, 大靜縣爲奴**. 孫女吉亥, 晉州牧爲婢, 孫女吉丑, 定平府爲婢, 孫女終生, 咸興府爲婢, 逆賊師尙孫修範, 濟州牧旌義縣爲奴, 孫修溫, 南海縣爲奴, 孫福伊, 黃海道長淵府白翎鎮爲奴, 子婦敬郎, 明川府爲婢, 子之妾英梅, 機張縣爲婢, 姪獻哲, 金海府安置, 逆賊眞儒孫承孝, 巨濟府爲奴, 子婦大阿只, 泗川縣爲婢, 姪匡鼎, 吉州牧安置, 姪匡彥, 熊川縣安置, 姪匡贊, 明川府安置, 姪匡顯, 機張縣安置, 匡明, 寧海府安置, 姪匡順, 端川府安置, 逆賊楷孫采, 濟州牧爲奴, 弟樾, 甲山府爲奴, 姪東呂, 三水府安置, 姪東疇, 富寧府安置, 姪東獻, 甲山府安置, 姪東進, 鏡城府安置, 姪東俊, 茂山府安置, **逆賊聖時**孫得貞, 濟州牧爲奴, **孫得明, 大靜縣爲奴**, 孫得望白翎鎮爲奴, 孫重曦, 南海縣爲奴, 孫孝達, 全羅道珍島郡爲奴, 孫孝文, 巨濟府爲奴, 子婦愛, 昆陽郡爲婢, 子婦喜, 延日縣爲婢, 逆賊宗廈孫采修, 濟州牧爲奴, 孫懿修, 南海縣, 孫五哲, 白翎鎮爲奴, 孫壽得, 豐川牧椒島鎮爲奴, 孫五兼, 巨濟府爲奴, 孫然福, 南海縣爲奴, 孫然喜, 珍島郡爲奴, **逆賊鳳輝**子婦幸每, 泗川縣爲婢, **孫東渾, 大靜縣爲奴**, 孫女賢門, 昆陽郡爲婢, 弟鳳徵, 甲山府爲奴, 姪昌垣, 旌義縣安置, 姪奎垣, 茂山府安置, 姪景垣, 長鬐縣安置, **逆賊泰耆**子婦一梅, 興海郡爲婢, 孫榮集, 旌義縣爲奴, **孫英得, 大靜縣爲奴**, 孫榮喆, 珍島郡爲奴, 孫大慰, 巨濟府爲奴, 孫大承, 南海縣爲奴, 逆賊明彥孫址崇, 以夏宅之子, 出繼於夏定, 減死, 濟州牧爲奴, 逆賊夏宅孫文穆, 三水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

將，押送于各其配所，師尙妾月愛，年過七十，最蓮，年過六十，聖時子婦惠伊，宗廈子婦畢英，年今六十，依律文竝免坐，逆賊明誼·■■·濂·光哲，應坐諸人及上頃諸逆等應及緣坐之類及在外未查出者，待其該道之查報，舉行，何如？傳曰，允。

2)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8월 27일.

○ 上御太僕，鞫罪人來復。來復卽乙亥賊鼎衍之姪也。始以緣坐竄于海島，臺啓屢請鞫，上允之。及就拿，上親問之，來復供曰：“自丁丑年，締結諸緣坐罪人榮得·東渾等之在同島者，怨國謀不軌。約募軍粧商賈狀，潛越大海，先襲湖南邑，取軍器資糧，直上京，火犯廟社，推戴謫宗臣壘。昨冬臣果一往見壘，計未及成而先被拿。謀逆是實。”上夜御惠政橋，更問來復，以內應爲誰，來復援引左議政尹東度。蓋東度乙亥爲諫長時，論啓其叔鼎衍故憾之也。上嚴訊之，旋以誣人自服。東度自班出，席藁俟命，上引見慰諭之。仍命來復正刑，孥籍如法。

3)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上御太僕，親鞫罪人壘·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夢鼎·濟海·運海·陽祚·彥杓·昌翼·天大等。初逆賊來復告榮得等，以凶孽緣坐，謫于島，每發怨國之言，往覘在謫宗臣壘，爲推戴之謀，上既誅來復，命逮捕諸賊，至是竝拿。至榮得文書，有軍器置簿，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現發於發捕金吾郎。上竝親問之。壘供曰：“臣年前得病島中無醫。逆衍之庶姪，頗解醫理，故果爲邀見。又有一人隨來，問之則其嫡兄云，而不接一言矣。”問榮得，供曰：“軍都目及軍器文書，受價書給於軍器色吏，而此是會案文書，故更書以納。來復則初不相知。”更推刑訊不服。問得明供曰：“臣於點考時，雖見來復，初無酬酢。”問維供曰：“雖知來復之面，實無接談之事。”更推維，供曰：“來復則未嘗接話，榮得則相親。”刑訊不服。問褒供曰：“臣不知來復，點考時，只知其面。”問能孝，供曰：“臣遭母喪時，來復爲弔喪而來，而既無相弔之義，故不爲受弔。其後臣尋採鰻人，往于渠家，八年之間四次逢着。而心中如食敗肉，每自不好。”問正觀，供曰：“文書中潤碩卽大靜官奴曹潤碩也。厥漢來請代書，故果書置之，入於文書中矣。徒流案一節，大靜吏輩不能書之，給升米於臣，而使書給，故臣書之矣。”刑訊不服。問翼佐，供曰：“來復面貌則臣豈不知？”刑訊不服。更推翼佐供曰：“榮得則臣果知之。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

故欲束冊而置之.”榮得處加刑不服. 問戀, 供曰: “點考時, 來復則果相見. 臣在光州, 惠在春川, 渠等之事, 豈相知乎?” 刑訊不服. 問夢鼎, 供曰: “來復面目則臣果知之.” 刑訊不服. 問濟海, 供曰: “臣便同常漢, 爲人耕田, 不識一字.” 刑訊不服. 問運海, 供曰: “臣若有所知之事, 則豈不直告?” 刑訊不服. 問陽祚, 以文書中怪誕之書, 左道之文, 供曰: “臣欲無物慾, 故每念佛, 而非有邪心. 與志·光哲諸賊連姻之事, 心常恨之, 故志賊居謫時, 亦無書札往復. 玉樞經曾無所讀之事, 主人爲祈禱而有之矣.” 刑訊不服. 問彥杓, 供曰: “臣於乙亥年, 以見志賊凶書被鞠, 以無端緒, 蒙酌處之恩. 若有可達者, 乙亥親問時, 豈不盡達乎?” 問昌翼, 供曰: “志之孫女通婚, 而臣非門長, 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 果出於藉重之心矣.” 刑訊不服. 問天大, 供曰: “臣於望華樓下場市, 見樓上掛書, 朴順才者摘取, 而時值空官, 故臣傳于座首柳頤泰. 臣與志同參, 而盡知其中事, 故乙亥皆已直招矣.” 命諸囚竝下府.

4)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癸未九月二十八日辰時, 上御太僕. 親鞠入侍時, 行都承旨沈璫,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燠, 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晚曰, 夜間,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此時則三煎以入, 可也. 右副承旨金應淳曰, 問郎不卽待令於文書床,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上曰, 罪人壙上之.** 上曰, 判義禁問之. 上曰, 戊申後初見汝面, 汝以此樣上來, 予豈料之乎? 上曰, 汝孫書中以爲, 奴僕外勿接他人云, 旣知汝事, 故書辭然矣. 汝有接見人客之事乎? 招辭云云. 見推案, 下同 上曰, 然矣. 果是來復矣. 上曰, 今番厥漢之事, 正如趙哥之發言於汝兄也. 但汝兄則聽而不答, 汝則無聽, 而又無答矣, 然厥漢若如趙哥之言於汝兄, 則汝將何以處之? 招辭云云. 上曰, 實矣. 上曰, 兩司在彼矣. 必不仍置, 然則汝不得更往濟州, 又不得生踰圉圉矣. 汝雖生, 亦何益也? 若無汝身, 則豈有是事乎? 招辭云云. 上曰, 下教, 不能領會矣. 上曰, 壙下府. 上曰, 問郎持草紙進來. 金魯鎮進伏. 上命書榮得問目訖. **上曰,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初無欺隱之

事, 問目內辭緣, 一一直告. 招辭云云. 上曰, 緣坐罪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 上曰, 遁辭矣.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來復以爲, 汝爲逆賊緣坐之魁首, 偷取軍器, 將爲戊申之事云, 而軍器置簿, 入於文書中, 豈不鑿鑿符合乎? 招辭云云. 上曰, 汝何爲而使來復, 往見堦乎? 招辭云云. 上命書東渾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祖事, 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若不與來復言語酬酢, 則點考時, 汝何以吾祖上疏云云之說, 言及於來復乎? 招辭云云. 上命書維問目訖. 上曰, 東渾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雖欺隱, 而許多罪人之口, 綻露無餘, 則卽當正法矣. 招辭云云. 上命書得明問目訖. 上曰, 維下之, 得明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吾則毫無所累之言, 汝與誰人酬酢乎? 招辭云云.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命書褒問目訖. 上曰, 得明下之, 褒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應坐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 上曰, 汝以名祖之血孫, 爲逆賊之繼後孫, 雖不免爲緣坐, 而敢與此輩, 綢繆相從乎? 招辭云云. 上命書陽祚問目訖. 上曰, 褒下之, 陽祚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念佛何故爲之? 招辭云云. 上曰, 石片皆書南無阿彌陀佛何也? 汝以逆賊之種子, 敢爲念佛, 必有隱情矣. 招辭云云. 上曰, 依法. 上曰, 志與光哲事, 汝不知乎? 招辭云云. 上曰, 汝雖至此, 其本則士也, 以士而念佛, 何心也? 推是心, 何事不可爲也? 招辭云云. 上曰, 更無酌處之理, 斯速遲晚. 陽祚刑準次. 上命書正觀問目訖. 上曰, 陽祚下之, 正觀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以逆賊假兵使之親姪, 又犯亡命之罪, 宜乎象示, 而尙此偃息矣. 汝與來復相親往來之事, 一一直告. 招辭云云. 上曰, 依法. 上曰, 汝之書札中, 有來後年出陸之說, 汝豈有出陸之機耶? 其間曲折, 直告之. 招辭云云. 上曰, 來復以爲, 汝輩聚會謀議, 而汝之文書中, 有徒流案, 尤豈不殊常乎? 將欲爲汝叔之事乎? 招辭云云. 正觀刑準次, 上命書濟海問目訖. 上曰, 正觀下之, 濟海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以逆鏡之姪, 宜卽死矣, 而況與應坐諸賊, 往來綢繆乎? 招辭云云, 濟海刑準次. 判義禁洪啓禧曰, 卽見能孝之搜探文書中, 有一帖字, 觀其辭語, 可見聖化之無處不暨, 且其叔匡師戒飭子姪之書, 亦入其中, 字字言言, 皆有感恩懷化之意矣. 上曰, 匡師則本如此矣. 應淳曰, 獄情將不至[知]止於何境, 此非可長語者也. 上命書戀問目訖. 上曰, 濟海下之, 戀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以逆賊惠之四寸, 又與來復謀逆, 而敢爲隱諱之計乎? 招辭云云, 戀刑準次. 上命書夢鼎問目訖. 上曰, 戀下之, 夢鼎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以逆賊應坐, 敢與來復輩, 交通謀逆乎? 招辭云云. 夢鼎刑準次. 上命書運海問目訖. 上曰, 夢鼎下之, 運海上之. 上曰, 問目

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一鏡之姪，乃敢忍杖不服乎？招辭云云。運海刑準次。上命書翼佐問目訖。上曰，運海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巨源之孫，運和之姪，又與來復，謀議不軌，汝豈得生乎？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父汝祖之所爲，汝敢稱冤乎？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能孝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以鼎衍之故，汝家至此也。然則鼎衍之子姪，卽汝之讎也。何心言語乎？招辭云云。上命書天大·彥杓問目訖。上曰，能孝下之，天大·彥杓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天大則雖以同參謀逆遲晚，而當初酌處，蓋以多告同黨也。彥杓則雖爲知情不告，而既有持杖驅逐之說，故十分酌處矣。今者亂逆層生之時，不得不特允臺啓，將欲正法，卽爲遲晚結案。招辭云云。上曰，乙亥既已直招，而今日變辭可乎？招辭云云。上曰，乙丙日記，持入考奏，可也。啓禧曰，取考日記，則諸罪人文案，俱甚草率矣。應淳曰，卽見丙子鞫案，則所錄甚疎略，其時禁堂及當該問郎，從重推考，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上命書昌翼問目訖。上曰，天大·彥杓下之，昌翼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與賊志家結婚，是何意思乎？招辭云云。上曰，志之結婚時，春躋果以爲無妨，而且給婚紙，則汝於乙亥，何不言之乎？招辭云云。上曰，乃敢推諉於作故之人乎？右議政金相福曰，庚申年春躋家設宴時，此人有嫌怨，故敢爲逞毒之計矣。上曰，依法。上曰，汝終不以誣引自服乎？招辭云云。上曰，李春躋之任使已久矣，此等婚姻，豈有勸成之理乎？招辭云云。上曰，設使春躋勸之，有可爲之婚，有不可爲之婚，豈可以春躋之言，而爲不可爲之婚耶？招辭云云。昌翼刑準次。上曰，昌翼下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鳳漢曰，前判尹南泰齊，既已敍用，其時左尹曹命采，右尹李光傳[李光溥]，一體敍用。明日試望，當擬之人，甚苟簡云，前大司諫尹學東及堂上·堂下侍從違罷人，竝敍用，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上命書榮得更推問目訖。上曰，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以汝祖之故，汝輩至此，汝甘受乎，稱冤乎？招辭云云。上曰，奈何之說，極勃慢矣。上曰，非汝以泰耆之孫而拿來也。蓋以與來復謀議之事也。汝敢終始隱諱乎？且軍器置簿，是汝之贓物矣，尤何敢不服乎？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榮得下之，維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益寬之孫，忍杖何益？直招無隱。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榮得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軍器置簿，汝與榮得，共力贍出，是何意思乎？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東渾更推問目訖。上曰，翼佐下之，東渾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祖汝認以爲逆乎？招辭云云。上曰，然則汝何爲而對來

復言, 吾祖則初無可罪之端云耶? 招辭云云. 東渾刑準次. 上曰, 東渾下之, 諸罪人竝下府. 上命承旨書之曰, 親鞫姑罷, 明日殿座待下教, 只入正時, 堦外皆預爲上闕, 而傳香後舉行. 出榻教

5)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得明·榮得·正觀·東渾·翼佐·裒·彦杓·維·戀·昌翼·夢鼎·敬修等, 榮得·東渾·敬修伏誅. 問得明, 供曰: “臣止接於外村, 榮得輩保授於城內, 渠輩親密與否, 何以詳知?” 更推不服. 得明與元德昭面質. 德昭, 大靜吏也. 德昭曰: “汝不言吾等當有好時乎?” 得明曰: “汝何爲此言?” 問榮得供如前. 加刑不服. 正觀·榮得面質. 正觀曰: “汝不與東渾等日日往來, 而姜翊周之女官妓月中梅, 作妾贖良乎?” 榮得曰: “贖良則其父爲之矣.” 正觀曰: “汝之三兄弟, 豈不相往來乎?” 榮得曰: “吾母喪時, 暫會矣.” 加刑, 供曰: “臣得妓妾, 免賤率畜, 與本縣倅, 爲妾同壻, 財穀相換以食. 與諸罪人往來綱繆.” 大逆不道結案. 問正觀, 供曰: “榮得以妓作妾, 而妓父姜翊周爲座首, 故榮得身爲官奴, 不爲立役. 其時邑倅曹敬修也, 榮得妾弟, 敬修作妾率去. 其謀議則不知矣.” 加刑不服. 問能孝不服. 問東渾, 供曰: “臣初無綱繆之事?” 加刑不服. 正觀·東渾面質. 正觀曰: “汝於點考時, 與榮得輩, 不同行同坐乎?” 東渾曰: “同受點考, 故同坐矣.” 加刑, 供曰: “與榮得同爲官奴, 故仍與綱繆.” 以大逆不道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雖正法, 豈敢稱冤?” 更推加刑不服. 問裒供曰: “東渾輩相親往來, 而臣則不入其類矣.” 加刑不服. 裒·榮得面質. 裒曰: “汝豈不曰傷痛乎?” 榮得曰: “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 則易生怨心, 汝勿燥燥云乎?” 裒曰: “然矣.” 榮得曰: “吾見嫉於汝與來復, 以有嫉惡之腸故也.” 加刑不服. 問彦杓, 供曰: “若有所知之事, 豈敢欺隱?” 問維加刑不服, 更推加刑不服. 問戀, 供如前不服. 問昌翼, 供如前, 加刑不服. 問夢鼎不服. 問敬修, 供曰: “所謁邑妓, 知其爲榮得妾弟, 而爲所生率來, 萬死無惜.” 教曰: “前大靜縣監曹敬修, 敢與罪人榮得作爲友壻, 官穀那移換給, 此眼無國法. 若不快施邦刑, 何以礪頽世? 亟正邦刑.” 仍命榮得弟二人及姜翊周·月中梅, 竝拿來.

6)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璣, 右承旨鄭夏彦, 左副承旨李彦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彦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

事申晚，領議政洪鳳漢，左議政尹東度，判義禁洪啓禧，同義禁李應協·元仁孫·李湫，大司憲鄭光忠，大司諫金始煥，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以次進伏訖。領府事申晚曰，昨日終日殿座，侵夜還內，聖體，若何？上曰，一樣矣。晚曰，寢睡·水刺之節，亦何如？上曰，一樣矣。領議政洪鳳漢曰，問郎金魯鎮·洪檢，見擬試望，謂有情勢，纔已違罷，而問郎則雖在罷散中，例爲啓下矣，兩問郎，使卽入侍，何如？上曰，依爲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上曰，問郎持草紙進前。洪樂純進伏。上命書得明更推問目訖。上曰，得明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祖非以血黨入於逆也，特以人事之僮侗也。今汝亦然，故昨日不爲刑推，而今又平問，無隱直招，則可免刑推矣。招辭云云。上曰，緣坐諸賊之互相綱繆親密之狀，汝則必見之矣，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得明下之，彦杓上之。上曰，濟州應坐諸人謀議之狀，汝必見之矣，隨見直告。招辭云云。上曰，汝今上來，法當結案，予雖參酌，而執法之臣，何容仍置？此事若直告，則可以立功矣。招辭云云。上曰，所陳實矣。榮得·東渾·能孝·維·褒等，締結往來之說，果不出所料矣。上曰，得明·翼佐，亦入其中乎？招辭云云。上命書褒更推問目訖。上曰，彦杓下之，褒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輩五六人作隊往來之事，已有明白指告者，汝敢隱諱乎？招辭云云。上曰，依法。招辭云云。上曰，汝旣以六人納招矣。予則聞是七人云，其中一人，必是汝矣。直告之。招辭云云，褒刑準次。上曰，汝招稍實，故姑解縛矣。上命書榮得更招問目訖。上曰，褒下之，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與東渾輩六人切親往來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汝之同類中，已有指告者，汝敢欺隱乎？招辭云云。上曰，面質時若見屈，則當正法矣。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榮得下之，維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奸狀已露，更無可問，而又出於同類之招，無可欺隱矣。汝之爲汝祖稱冤之說話，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不思之說，極無據矣。他人則發明，而渠則以爲不思云，可見其常存於心也。上曰，依法。上曰，汝祖造船調馬之事，姑置勿論，予辭位時，乃敢曰，東宮之事，不過爲問寢視膳云，此一言，已是大逆矣。上曰，各別訊問，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今則無可隱矣。汝輩聚首謀議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已出於同類之招，汝敢隱諱乎？若不直告，則當依汝祖之例，卽爲梟示矣。招辭云云。上命書能孝更推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入於七人中，綱繆往來之狀，旣已綻露矣，汝於此輩，猶恐其相近，可也，乃敢與之爛漫親密乎？招辭云云。上曰，能孝下之，褒與榮得，竝上之。上曰，兩人使之面質。招辭云云。上曰，褒之

佯屈，極妖惡矣。李壽鳳曰，乙亥年致雲與尙白面質時，尙白故見屈矣。此罪人情態，恰似尙白，尤極妖惡矣。上曰，然矣。榮得下之，褻依法，褻刑準次。上曰，褻下之，維上之。上曰，依法，維刑準次。上曰，維下之，榮得上之。上曰，依法。上曰，汝之情狀，綻露無餘，而褻之初既直招，未又變辭者，尤極妖惡，豈可以此，而謂之見勝於面質乎？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曰，榮得下之，東渾上之。上曰，依法，東渾刑準次。上曰，東渾下之，翼佐上之。上曰，依法，翼佐刑準次。上曰，翼佐下之。昌翼·正觀，竝上之。上曰，竝依法，昌翼·正觀刑準次。上曰，正觀招中，榮得卜妾之事，尤爲放恣無狀矣。上曰，昌翼下之，榮得上之，與正觀面質。招辭云云。上曰，榮得依法。上曰，汝之初招，以爲邂逅相逢矣。今乃爛漫往來於各其家中，且汝以泰耆之孫，緣坐爲奴，乃敢以官婢作妾乎？是心亦逆也。招辭云云。上曰，榮得同生二人及姜哥□□，竝即發捕，可也。鳳漢曰，濟州人誠過甚矣。敢以其女，許給於連坐之逆孽，其在懲後之道，恐不可尋常處之矣。上曰，其女月中梅，亦不可不竝爲拿來矣。其女竝其父，使捕校，隨往都事，拿來好矣。鳳漢曰，捕將使之入侍，分付，何如？上曰，依爲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榮得刑準次。上曰，榮得下之，正觀依法。上曰，汝招似實，而猶不盡吐，榮得謀逆節次，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以榮得·東渾爲魁之說，果是矣。曹敬修之與逆賊，爲妾同婿，而出穀相助之事，又豈非逆賊乎？亦即發捕，可也。上曰，濟州京主人處，問其去住，則可知其在鄉與否，以此分付捕將，可也。正觀刑準次。上曰，正觀下之，榮得上之。上曰，依法。上曰，汝之情狀，綻露無餘，而終不直告，然前後已納之招，已是逆心，汝以汝祖之笏子，故遂至此境矣。蓋此憤懣之心，蓄積於中，故自歸怨國矣。汝既以逆心占於口，又以自歸怨國四字，口招遲晚，可也。榮得刑十二度結案。上曰，榮得下府，東渾上之。上曰，依法。上曰，榮得既已承款，汝既同一心腸，則一向抵賴，有何所益？汝輩聚首謀議之狀，既已綻露無餘，直爲遲晚。招辭云云。上曰，恰似逆■■之同歸可樂之語矣。東渾結案，上命承旨書之曰，大逆遲晚罪人榮得，頃者下教依。

7)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1일.

○ 又以義禁府〈言〉啓曰，大逆罪人榮得·東渾等，既已承服正刑，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年歲·姓名·存沒·居住，令漢城府，考出帳籍，亦爲分付五部及各該道道臣，應坐諸人一一查出成冊牒報後，依律舉行，而籍沒家產，破家渚澤，降邑號罷守令等事，令各該司捧承傳舉行，何如？傳曰，允。

8)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上御金商門, 頒教: “王若曰. 嗚呼! 邦運多艱, 亂逆肆行. 辛丑之耆·輝, 一轉而爲壬寅之鏡·虎, 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 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 賴上天默佑, 祖宗陰隲, 前後諸賊, 咸伏王章, 至《闡義昭鑑》成, 而義理大明, 如日中天. 雖輿儻婦孺, 莫不曉然洞悉, 誰謂耆·輝等之遺種, 不悛梟音, 潛懷凶圖. 何幸端緒畢露, 諸逆就戮, 快正典刑, 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 其尙明聽. 嗚呼! 今此獄情, 實由來復而發. 蓋來復以乙亥凶賊鼎衍之從子, 緣坐投配於耽羅, 與諸凶遺孽, 打成一片, 綢繆陰謀, 窮凶叵測, 頃於鞠訊之際, 一一納款, 所告諸凶之中, 最頑狡大包藏者, 卽七賊, 曰榮得, 泰耆之孫也, 曰東渾, 鳳輝之孫也, 曰得明, 聖時之孫也, 曰翼佐, 巨源之孫也, 曰褒, 詹之孫也, 曰維, 益寬之孫也, 曰能孝, 眞儒之從孫, 興孝之弟也. 至於惠之弟姪戀·夢鼎, 一鏡之姪, 濟海·運海, 天永之姪正觀, 亦皆附麗於七賊, 同在海島, 綢繆相從. 其所以聚首而密謀, 仰親而俯畫者, 無非怨國之言, 逞凶之圖. 尤可痛者, 榮得·東渾, 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 謂有何罪? 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 互相非斥. 榮得·能孝之暗地酬酢, 至凶且慝, 有不忍聞. 此固辛壬以來諸凶之陰肚逆腸, 一串貫來者, 嗚呼! 尙忍言哉? 得明·翼佐·褒·維之徒, 戀·夢·濟運·正觀之類, 其所揣摩團聚, 如蛇蚓之糾結者, 透露無餘. 至若昌翼·彥杓, 則志之姻親血黨, 陽祚則明祚之弟, 亦皆情節難掩, 亟就顯戮, 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 予尤有所痛惋者, 來復與七賊, 潛謀, 乘夜訪壩, 旨意陰慘, 殆若德鼎之密探坦意. 予以念昔之意, 雖斬執法之請. 而敬修以曾任大靜者, 與榮得爲友壻, 授其糧而助食, 囑縣吏而欲隱, 若非德昭, 何以知此? 究其心, 有浮於榮得. 所惜者不盡承款, 不能快施當律也. 嗚呼! 予嘗以涵育覆燾爲心, 庶幾使梟獍輩革心, 而醜類惡種, 猶復接迹而起. 前由逆穢, 今由賊復, 可見乾道之昭昭, 天綱之恢恢, 照魔高懸, 魑魅何逃? 《昭鑑》之作, 蓋欲明天理淑人心, 將見凶醜屏迹, 鬼蜮遁形, 而奈之何妖腰亂領, 又輒干紀, 一至此哉? 所可幸者, 一允來復之啓, 而凶逆之情狀, 一皆呈露. 此非予也, 卽彼蒼也. 自此而梟獍餘種, 將有所畏, 《昭鑑》之義理, 尤益光明矣. 咨! 我中外大小臣僚章甫, 明聽予言, 其各自勉同寅協恭, 輔我邦家. 故茲教示, 想宜知悉.” 【弘文提學洪啓禧製進.】

9)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諭中外大小臣僚章甫書, 王若曰, 嗚呼, 邦運多艱, 亂逆肆行, 辛丑之耆·輝, 一轉而爲

壬寅之鏡·虎，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錐·賴上天默佑，祖宗陰鷺，前後諸賊，咸伏王章。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如日中天，雖在輿儻婦孺，莫不曉然洞悉。誰謂耆·輝等之遺種，不悛梟音，潛懷凶圖，又有今日之鞠？神人之憤，尙復何言？何幸端緒畢露，諸逆就戮。茲當親臨南門，序立百官，快正典刑之餘，渙發明旨，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其尙明聽。嗚呼，今此獄情，實由來復而發，蓋來復，以乙亥萬古所無凶賊鼎衍之從子，緣坐投配於耽羅，與諸凶遺孽，打成一片，網繆陰謀，窮凶叵測。頃於鞠訊之際，一一納款，所告諸凶之中，最頑狡大包藏者，卽七賊。曰榮得，泰耆之孫也，曰東渾，鳳輝之孫也，曰得明，聖時之孫也，曰翼佐，巨源之孫也，曰褒，詹之孫也。曰維，益寬之孫也，曰能孝，眞儒之從孫，興孝之弟也。至於惠之弟·姪戀·夢鼎，一鏡之姪濟海·運海，天永之姪正觀，亦皆附麗於七賊，同在海島，網繆相從。其所以聚首而密謀，仰視而俯畫者，無非怨國之言，逞凶之圖。尤可痛者，榮得·東渾，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謂有何罪，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互相非斥。榮得·孝能之暗地酬酢，至凶且憎，有不忍聞，此固辛丑以來，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嗚呼，尙忍言哉？得明·翼佐·褒·維之徒，戀·夢·濟·運·正觀之類，其所揣摩團聚，如蛇虬之糾結者，透露無餘。至若昌翼·彥杓，則志之姻親血黨，陽祚則明祚之弟，亦皆情節難掩，亟就顯戮，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予尤有所痛惋者。來復與七賊潛謀，乘夜訪壩，旨意陰慘，殆若德鼎之密探坦意。予以念昔之意，雖斬執法之請，而敬脩以曾任大靜者，與榮得爲友壻，換其糧而助食，囑縣吏而欲隱，若非德昭，何以知此？究其心，有浮於榮得。所惜者，不盡承款，不能快施當律也。嗚呼，予嘗以涵育覆燾爲心，庶幾使梟獍輩革心，而醜類惡種，猶復接跡而起。上天至仁，而沴氣所鍾，乃至於是，寧不痛心？前由逆裔，今由賊復，可見乾道之昭昭，天網之恢恢，照魔高懸，魑魅何逃？昭鑑之作，蓋欲明天理淑人心，將見凶醜屏跡，鬼蜮遁形，而奈之何妖腰亂領，又輒干紀，一至此哉？所可幸者，一允來復之啓，而凶逆之情狀，一皆呈露，此非予也，卽彼蒼也。自此而梟獍餘種，亦當快滌心腸，忠良將有所恃，奸凶將有所畏，海東之國是，因此尤嚴，昭鑑之義理，又益光明矣。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明聽予言，其各自勉，同寅協恭，輔我邦家。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提學洪啓禧製進

75. 조영득(趙榮得)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사유: 모역(심래복 모반사건, 신임사화 주동 조태구〈趙泰耆〉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柳顯章,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成府報狀, 當部成冊, 忠淸·京畿監司牒呈, 則逆賊就商·志·師尙·眞儒·明誼·楷·聖時·宗廈·鳳輝·泰耆·明彥·夏宅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就商弟徵商, 咸鏡道茂山府爲奴, 姪懃, 慶尙道柒原縣, 流三千里安置, 姪慙, 三水府安置, **逆賊志孫吉甲, 大靜縣爲奴**. 孫女吉亥, 晉州牧爲婢, 孫女吉丑, 定平府爲婢, 孫女終生, 咸興府爲婢, 逆賊師尙孫修範, 濟州牧旌義縣爲奴, 孫修溫, 南海縣爲奴, 孫福伊, 黃海道長淵府白翎鎮爲奴, 子婦敬郎, 明川府爲婢, 子之妾英梅, 機張縣爲婢, 姪獻哲, 金海府安置, 逆賊眞儒孫承孝, 巨濟府爲奴, 子婦大阿只, 泗川縣爲婢, 姪匡鼎, 吉州牧安置, 姪匡彥, 熊川縣安置, 姪匡贊, 明川府安置, 姪匡顯, 機張縣安置, 匡明, 寧海府安置, 姪匡順, 端川府安置, 逆賊楷孫采, 濟州牧爲奴, 弟樾, 甲山府爲奴, 姪東呂, 三水府安置, 姪東疇, 富寧府安置, 姪東獻, 甲山府安置, 姪東進, 鏡城府安置, 姪東俊, 茂山府安置, **逆賊聖時**孫得貞, 濟州牧爲奴, **孫得明, 大靜縣爲奴**, 孫得望白翎鎮爲奴, 孫重曦, 南海縣爲奴, 孫孝達, 全羅道珍島郡爲奴, 孫孝文, 巨濟府爲奴, 子婦愛, 昆陽郡爲婢, 子婦喜, 延日縣爲婢, 逆賊宗廈孫采修, 濟州牧爲奴, 孫懿修, 南海縣, 孫五哲, 白翎鎮爲奴, 孫壽得, 豐川牧椒島鎮爲奴, 孫五兼, 巨濟府爲奴, 孫然福, 南海縣爲奴, 孫然喜, 珍島郡爲奴, **逆賊鳳輝**子婦幸每, 泗川縣爲婢, **孫東渾, 大靜縣爲奴**, 孫女賢門, 昆陽郡爲婢, 弟鳳徵, 甲山府爲奴, 姪昌垣, 旌義縣安置, 姪奎垣, 茂山府安置, 姪景垣, 長鬐縣安置, **逆賊泰耆**子婦一梅, 興海郡爲婢, 孫榮集, 旌義縣爲奴, **孫英得, 大靜縣爲奴**, 孫榮喆, 珍島郡爲奴, 孫大慰, 巨濟府爲奴, 孫大承, 南海縣爲奴, 逆賊明彥孫址崇, 以夏宅之子, 出繼於夏定, 減死, 濟州牧爲奴, 逆賊夏宅孫文穆, 三水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

將，押送于各其配所，師尙妾月愛，年過七十，最蓮，年過六十，聖時子婦惠伊，宗廈子婦畢英，年今六十，依律文竝免坐，逆賊明誼·■■·濂·光哲，應坐諸人及上頃諸逆等應及緣坐之類及在外未查出者，待其該道之查報，舉行，何如？傳曰，允。

2)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8월 27일.

○ 上御太僕，鞫罪人來復。來復卽乙亥賊鼎衍之姪也。始以緣坐竄于海島，臺啓屢請鞫，上允之。及就拿，上親問之，來復供曰：“自丁丑年，締結諸緣坐罪人榮得·東渾等之在同島者，怨國謀不軌。約募軍粧商賈狀，潛越大海，先襲湖南邑，取軍器資糧，直上京，火犯廟社，推戴謫宗臣壘。昨冬臣果一往見壘，計未及成而先被拿。謀逆是實。”上夜御惠政橋，更問來復，以內應爲誰，來復援引左議政尹東度。蓋東度乙亥爲諫長時，論啓其叔鼎衍故憾之也。上嚴訊之，旋以誣人自服。東度自班出，席藁俟命，上引見慰諭之。仍命來復正刑，孥籍如法。

3)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上御太僕，親鞫罪人壘·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夢鼎·濟海·運海·陽祚·彥杓·昌翼·天大等。初逆賊來復告榮得等，以凶孽緣坐，謫于島，每發怨國之言，往覘在謫宗臣壘，爲推戴之謀，上既誅來復，命逮捕諸賊，至是竝拿。至榮得文書，有軍器置簿，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現發於發捕金吾郎。上竝親問之。壘供曰：“臣年前得病島中無醫。逆衍之庶姪，頗解醫理，故果爲邀見。又有一人隨來，問之則其嫡兄云，而不接一言矣。”問榮得，供曰：“軍都目及軍器文書，受價書給於軍器色吏，而此是會案文書，故更書以納。來復則初不相知。”更推刑訊不服。問得明供曰：“臣於點考時，雖見來復，初無酬酢。”問維供曰：“雖知來復之面，實無接談之事。”更推維，供曰：“來復則未嘗接話，榮得則相親。”刑訊不服。問褒供曰：“臣不知來復，點考時，只知其面。”問能孝，供曰：“臣遭母喪時，來復爲弔喪而來，而既無相弔之義，故不爲受弔。其後臣尋採鰻人，往于渠家，八年之間四次逢着。而心中如食敗肉，每自不好。”問正觀，供曰：“文書中潤碩卽大靜官奴曹潤碩也。厥漢來請代書，故果書置之，入於文書中矣。徒流案一節，大靜吏輩不能書之，給升米於臣，而使書給，故臣書之矣。”刑訊不服。問翼佐，供曰：“來復面貌則臣豈不知？”刑訊不服。更推翼佐供曰：“榮得則臣果知之。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

故欲束冊而置之.”榮得處加刑不服. 問戀, 供曰: “點考時, 來復則果相見. 臣在光州, 惠在春川, 渠等之事, 豈相知乎?” 刑訊不服. 問夢鼎, 供曰: “來復面目則臣果知之.” 刑訊不服. 問濟海, 供曰: “臣便同常漢, 爲人耕田, 不識一字.” 刑訊不服. 問運海, 供曰: “臣若有所知之事, 則豈不直告?” 刑訊不服. 問陽祚, 以文書中怪誕之書, 左道之文, 供曰: “臣欲無物慾, 故每念佛, 而非有邪心. 與志·光哲諸賊連姻之事, 心常恨之, 故志賊居謫時, 亦無書札往復. 玉樞經曾無所讀之事, 主人爲祈禱而有之矣.” 刑訊不服. 問彥杓, 供曰: “臣於乙亥年, 以見志賊凶書被鞠, 以無端緒, 蒙酌處之恩. 若有可達者, 乙亥親問時, 豈不盡達乎?” 問昌翼, 供曰: “志之孫女通婚, 而臣非門長, 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 果出於藉重之心矣.” 刑訊不服. 問天大, 供曰: “臣於望華樓下場市, 見樓上掛書, 朴順才者摘取, 而時值空官, 故臣傳于座首柳頤泰. 臣與志同參, 而盡知其中事, 故乙亥皆已直招矣.” 命諸囚竝下府.

4)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癸未九月二十八日辰時, 上御太僕. 親鞠入侍時, 行都承旨沈墀,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鎭·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鎭,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晚曰, 夜間,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此時則三煎以入, 可也. 右副承旨金應淳曰, 問郎不卽待令於文書床,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上曰, 罪人壘上之. 上曰, 判義禁問之. 上曰, 戊申後初見汝面, 汝以此樣上來, 予豈料之乎? 上曰, 汝孫書中以爲, 奴僕外勿接他人云, 旣知汝事, 故書辭然矣. 汝有接見人客之事乎? 招辭云云. 見推案, 下同. 上曰, 然矣. 果是來復矣. 上曰, 今番厥漢之事, 正如趙哥之發言於汝兄也. 但汝兄則聽而不答, 汝則無聽, 而又無答矣. 然厥漢若如趙哥之言於汝兄, 則汝將何以處之? 招辭云云. 上曰, 實矣. 上曰, 兩司在彼矣. 必不仍置, 然則汝不得更往濟州, 又不得生踰圉圉矣. 汝雖生, 亦何益也? 若無汝身, 則豈有是事乎? 招辭云云. 上曰, 下教, 不能領會矣. 上曰, 壘下府. 上曰, 問郎持草紙

進來.金魯鎮進伏.上命書榮得問目訖.上曰, 榮得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初無欺隱之事, 問目內辭緣, 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 緣坐罪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上曰, 遁辭矣.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來復以爲, 汝爲逆賊緣坐之魁首, 偷取軍器, 將爲戊申之事云, 而軍器置簿, 入於文書中, 豈不鑿鑿符合乎? 招辭云云.上曰, 汝何爲而使來復, 往見堦乎? 招辭云云.上命書東渾問目訖.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祖事, 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若不與來復言語酬酢, 則點考時, 汝何以吾祖上疏云云之說, 言及於來復乎? 招辭云云.上命書維問目訖.上曰, 東渾下之, 維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雖欺隱, 而許多罪人之口, 綻露無餘, 則卽當正法矣.招辭云云.上命書得明問目訖.上曰, 維下之, 得明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吾則毫無所累之言, 汝與誰人酬酢乎? 招辭云云.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命書褒問目訖.上曰, 得明下之, 褒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應坐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上曰, 汝以名祖之血孫, 爲逆賊之繼後孫, 雖不免爲緣坐, 而敢與此輩, 綢繆相從乎? 招辭云云.上命書陽祚問目訖.上曰, 褒下之, 陽祚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念佛何故爲之? 招辭云云.上曰, 石片皆書南無阿彌陀佛何也? 汝以逆賊之種子, 敢爲念佛, 必有隱情矣.招辭云云.上曰, 依法.上曰, 志與光哲事, 汝不知乎? 招辭云云.上曰, 汝雖至此, 其本則士也, 以士而念佛, 何心也? 推是心, 何事不可爲也? 招辭云云.上曰, 更無酌處之理, 斯速遲晚.陽祚刑準次.上命書正觀問目訖.上曰, 陽祚下之, 正觀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以逆賊假兵使之親姪, 又犯亡命之罪, 宜乎象示, 而尙此偃息矣.汝與來復相親往來之事, 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 依法.上曰, 汝之書札中, 有來後年出陸之說, 汝豈有出陸之機耶? 其間曲折, 直告之.招辭云云.上曰, 來復以爲, 汝輩聚會謀議, 而汝之文書中, 有徒流案, 尤豈不殊常乎? 將欲爲汝叔之事乎? 招辭云云.正觀刑準次, 上命書濟海問目訖.上曰, 正觀下之, 濟海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汝以逆鏡之姪, 宜卽死矣, 而況與應坐諸賊, 往來綢繆乎? 招辭云云, 濟海刑準次.判義禁洪啓禧曰, 卽見能孝之搜探文書中, 有一帖字, 觀其辭語, 可見聖化之無處不暨, 且其叔匡師戒飭子姪之書, 亦入其中, 字字言言, 皆有感恩懷化之意矣.上曰, 匡師則本如此矣.應淳曰, 獄情將不至[知]止於何境, 此非可長語者也.上命書戀問目訖.上曰, 濟海下之, 戀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以逆賊惠之四寸, 又與來復謀逆, 而敢爲隱諱之計乎? 招辭云云, 戀刑準次.上命書夢鼎問目訖.上

曰,戀下之, 夢鼎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賊應坐,敢與來復輩,交通謀逆乎?招辭云云.夢鼎刑準次.上命書運海問目訖.上曰,夢鼎下之, 運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一鏡之姪,乃敢忍杖不服乎?招辭云云.運海刑準次.上命書翼佐問目訖.上曰,運海下之, 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巨源之孫,運和之姪,又與來復,謀議不軌,汝豈得生乎?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父汝祖之所爲,汝敢稱冤乎?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能孝問目訖.上曰,翼佐下之, 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以鼎衍之故,汝家至此也.然則鼎衍之子姪,卽汝之讎也.何心言語乎?招辭云云.上命書天大·彥杓問目訖.上曰,能孝下之, 天大·彥杓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天大則雖以同參謀逆遲晚,而當初酌處,蓋以多告同黨也.彥杓則雖爲知情不告,而既有持杖驅逐之說,故十分酌處矣.今者亂逆層生之時,不得不特允臺啓,將欲正法,卽爲遲晚結案.招辭云云.上曰,乙亥旣已直招,而今日變辭可乎?招辭云云.上曰,乙丙日記,持入考奏,可也.啓禧曰,取考日記,則諸罪人文案,俱甚草率矣.應淳曰,卽見丙子鞠案,則所錄甚疎略,其時禁堂及當該問郎,從重推考,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上命書昌翼問目訖.上曰,天大·彥杓下之, 昌翼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與賊志家結婚,是何意思乎?招辭云云.上曰,志之結婚時,春躋果以爲無妨,而且給婚紙,則汝於乙亥,何不言之乎?招辭云云.上曰,乃敢推諉於作故之人乎?右議政金相福曰,庚申年春躋家設宴時,此人有嫌怨,故敢爲逞毒之計矣.上曰,依法.上曰,汝終不以誣引自服乎?招辭云云.上曰,李春躋之任使已久矣,此等婚姻,豈有勸成之理乎?招辭云云.上曰,設使春躋勸之,有可爲之婚,有不可爲之婚,豈可以春躋之言,而爲不可爲之婚耶?招辭云云.昌翼刑準次.上曰,昌翼下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鳳漢曰,前判尹南泰齊,旣已敍用,其時左尹曹命采,右尹李光傳[李光溥],一體敍用.明日試望,當擬之人,甚苟簡云,前大司諫尹學東及堂上·堂下侍從違罷人,竝敍用,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上命書榮得更推問目訖.上曰,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以汝祖之故,汝輩至此,汝甘受乎,稱冤乎?招辭云云.上曰,奈何之說,極勃慢矣.上曰,非汝以泰裔之孫而拿來也.蓋以與來復謀議之事也.汝敢終始隱諱乎?且軍器置簿,是汝之贓物矣,尤何敢不服乎?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榮得下之, 維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益寬之孫,忍杖何益?直招無隱.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 翼佐上之.上曰,問目

讀之, 仍爲依法. 上曰, 榮得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軍器置簿, 汝與榮得, 共力騰出,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翼佐刑準次. 上命書東渾更推問目訖. 上曰, 翼佐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祖汝認以爲逆乎? 招辭云云. 上曰, 然則汝何爲而對來復言, 吾祖則初無可罪之端云耶? 招辭云云. 東渾刑準次. 上曰, 東渾下之, 諸罪人竝下府. 上命承旨書之曰, 親鞫姑罷, 明日殿座待下教, 只入正時, 堧外皆預爲上闕, 而傳香後舉行. 出榻教

5)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得明·榮得·正觀·東渾·翼佐·裒·彦杓·維·戀·昌翼·夢鼎·敬修等, 榮得·東渾·敬修伏誅. 問得明, 供曰: “臣止接於外村, 榮得輩保授於城內, 渠輩親密與否, 何以詳知?” 更推不服. 得明與元德昭面質. 德昭, 大靜吏也. 德昭曰: “汝不言吾等當有好時乎?” 得明曰: “汝何爲此言?” 問榮得供如前. 加刑不服. 正觀·榮得面質. 正觀曰: “汝不與東渾等日日往來, 而姜翊周之女官妓月中梅, 作妾贖良乎?” 榮得曰: “贖良則其父爲之矣.” 正觀曰: “汝之三兄弟, 豈不相往來乎?” 榮得曰: “吾母喪時, 暫會矣.” 加刑, 供曰: “臣得妓妾, 免賤率畜, 與本縣倅, 爲妾同壻, 財穀相換以食. 與諸罪人往來綢繆.” 大逆不道結案. 問正觀, 供曰: “榮得以妓作妾, 而妓父姜翊周爲座首, 故榮得身爲官奴, 不爲立役. 其時邑倅曹敬修也, 榮得妾弟, 敬修作妾率去. 其謀議則不知矣.” 加刑不服. 問能孝不服. 問東渾, 供曰: “臣初無綢繆之事?” 加刑不服. 正觀·東渾面質. 正觀曰: “汝於點考時, 與榮得輩, 不同行同坐乎?” 東渾曰: “同受點考, 故同坐矣.” 加刑, 供曰: “與榮得同爲官奴, 故仍與綢繆.” 以大逆不道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雖正法, 豈敢稱冤?” 更推加刑不服. 問裒供曰: “東渾輩相親往來, 而臣則不入其類矣.” 加刑不服. 裒·榮得面質. 裒曰: “汝豈不曰傷痛乎?” 榮得曰: “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 則易生怨心, 汝勿燥燥云乎?” 裒曰: “然矣.” 榮得曰: “吾見嫉於汝與來復, 以有嫉惡之腸故也.” 加刑不服. 問彦杓, 供曰: “若有所知之事, 豈敢欺隱?” 問維加刑不服, 更推加刑不服. 問戀, 供如前不服. 問昌翼, 供如前, 加刑不服. 問夢鼎不服. 問敬修, 供曰: “所丐邑妓, 知其爲榮得妾弟, 而爲所生率來, 萬死無惜.” 教曰: “前大靜縣監曹敬修, 敢與罪人榮得作爲友壻, 官穀那移換給, 此眼無國法. 若不快施邦刑, 何以礪顏世? 亟正邦刑.” 仍命榮得弟二人及姜翊周·月中梅, 竝拿來.

6)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親鞫入侍時,行都承旨沈墜,右承旨鄭夏彦,左副承旨李彦衡,右副承旨金應淳,同副承旨尹得雨,記事官俞彥鎬,事變假注書沈重奎,記事官韓後樂·金敍九,領府事申晩,領議政洪鳳漢,左議政尹東度,判義禁洪啓禧,同義禁李應協·元仁孫·李澂,大司憲鄭光忠,大司諫金始煥,問事郎廳金魯鎭·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文書都事李成祐·沈載鎭,以次進伏訖.領府事申晩曰,昨日終日殿座,侵夜還內,聖體,若何?上曰,一樣矣.晩曰,寢睡·水刺之節,亦何如?上曰,一樣矣.領議政洪鳳漢曰,問郎金魯鎭·洪檢,見擬試望,謂有情勢,纔已違罷,而問郎則雖在罷散中,例爲啓下矣,兩問郎,使卽入侍,何如?上曰,依爲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上曰,問郎持草紙進前.洪樂純進伏.上命書得明更推問目訖.上曰,得明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祖非以血黨入於逆也,特以人事之僮侗也.今汝亦然,故昨日不爲刑推,而今又平問,無隱直招,則可免刑推矣.招辭云云.上曰,緣坐諸賊之互相綱繆親密之狀,汝則必見之矣,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得明下之,彥杓上之.上曰,濟州應坐諸人謀議之狀,汝必見之矣,隨見直告.招辭云云.上曰,汝今上來,法當結案,予雖參酌,而執法之臣,何容仍置?此事若直告,則可以立功矣.招辭云云.上曰,所陳實矣.榮得·東渾·能孝·維·褒等,締結往來之說,果不出所料矣.上曰,得明·翼佐,亦入其中乎?招辭云云.上命書褒更推問目訖.上曰,彥杓下之,褒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輩五六人作隊往來之事,已有明白指告者,汝敢隱諱乎?招辭云云.上曰,依法.招辭云云.上曰,汝旣以六人納招矣.予則聞是七人云,其中一人,必是汝矣.直告之.招辭云云,褒刑準次.上曰,汝招稍實,故姑解縛矣.上命書榮得更招問目訖.上曰,褒下之,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與東渾輩六人切親往來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汝之同類中,已有指告者,汝敢欺隱乎?招辭云云.上曰,面質時若見屈,則當正法矣.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榮得下之,維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奸狀已露,更無可問,而又出於同類之招,無可欺隱矣.汝之爲汝祖稱冤之說話,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不思之說,極無據矣.他人則發明,而渠則以爲不思云,可見其常存於心也.上曰,依法.上曰,汝祖造船調馬之事,姑置勿論,予辭位時,乃敢曰,東宮之事,不過爲問寢視膳云,此一言,已是大逆矣.上曰,各別訊問,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今則無可隱矣.汝輩聚首謀議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已出於同類之招,汝敢隱諱乎?若不直告,則當依汝祖之例,卽爲梟示矣.招辭云

云.上命書能孝更推問目訖.上曰, 翼佐下之, 能孝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之入於七人中, 綢繆往來之狀, 既已綻露矣, 汝於此輩, 猶恐其相近, 可也, 乃敢與之爛漫親密乎? 招辭云云.上曰, 能孝下之, 褒與榮得, 竝上之.上曰, 兩人使之面質.招辭云云.上曰, 褒之佯屈, 極妖惡矣.李壽鳳曰, 乙亥年致雲與尙白面質時, 尙白故見屈矣.此罪人情態, 恰似尙白, 尤極妖惡矣.上曰, 然矣.榮得下之, 褒依法, 褒刑準次.上曰, 褒下之, 維上之.上曰, 依法, 維刑準次.上曰, 維下之, 榮得上之.上曰, 依法.上曰, 汝之情狀, 綻露無餘, 而褒之初既直招, 未又變辭者, 尤極妖惡, 豈可以此, 而謂之見勝於面質乎? 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上曰, 依法, 東渾刑準次.上曰, 東渾下之, 翼佐上之.上曰, 依法, 翼佐刑準次.上曰, 翼佐下之.昌翼·正觀, 竝上之.上曰, 竝依法, 昌翼·正觀刑準次.上曰, 正觀招中, 榮得卜妾之事, 尤爲放恣無狀矣.上曰, 昌翼下之, 榮得上之, 與正觀面質.招辭云云.上曰, 榮得依法.上曰, 汝之初招, 以爲邂逅相逢矣.今乃爛漫往來於各其家中, 且汝以泰耆之孫, 緣坐爲奴, 乃敢以官婢作妾乎? 是心亦逆也.招辭云云.上曰, 榮得同生二人及姜哥□□, 竝即發捕, 可也.鳳漢曰, 濟州人誠過甚矣.敢以其女, 許給於連坐之逆孽, 其在懲後之道, 恐不可尋常處之矣.上曰, 其女月中梅, 亦不可不竝爲拿來矣.其女竝其父, 使捕校, 隨往都事, 拿來好矣.鳳漢曰, 捕將使之入侍,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榮得刑準次.上曰, 榮得下之, 正觀依法.上曰, 汝招似實, 而猶不盡吐, 榮得謀逆節次, 一一直告, 招辭云云.上曰, 以榮得·東渾爲魁之說, 果是矣.曹敬修之與逆賊, 爲妾同婿, 而出穀相助之事, 又豈非逆賊乎? 亦即發捕, 可也.上曰, 濟州京主人處, 問其去住, 則可知其在鄉與否, 以此分付捕將, 可也.正觀刑準次.上曰, 正觀下之, 榮得上之.上曰, 依法.上曰, 汝之情狀, 綻露無餘, 而終不直告, 然前後已納之招, 已是逆心, 汝以汝祖之笏子, 故遂至此境矣.蓋此憤懣之心, 蓄積於中, 故自歸怨國矣.汝既以逆心占於口, 又以自歸怨國四字, 口招遲晚, 可也.榮得刑十二度結案.上曰, 榮得下府, 東渾上之.上曰, 依法.上曰, 榮得既已承款, 汝既同一心腸, 則一向抵賴, 有何所益? 汝輩聚首謀議之狀, 既已綻露無餘, 直爲遲晚.招辭云云.上曰, 恰似逆■■之同歸可樂之語矣.東渾結案, 上命承旨書之曰, 大逆遲晚罪人榮得, 頃者下教依.

7)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1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逆罪人榮得·東渾等, 既已承服正刑, 其父母·妻妾·子女·祖孫·

兄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年歲·姓名·存沒·居住，令漢城府，考出帳籍，亦爲分付五部及各該道道臣，應坐諸人一一查出成冊牒報後，依律舉行，而籍沒家產，破家渚澤，降邑號罷守令等事，令各該司捧承傳舉行，何如？傳曰，允。

8)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上御金商門，頒教：“王若曰。嗚呼！邦運多艱，亂逆肆行。辛丑之苛·輝，一轉而爲壬寅之鏡·虎，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賴上天默佑，祖宗陰隲，前後諸賊，咸伏王章，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如日中天。雖輿僂婦孺，莫不曉然洞悉，誰謂苛·輝等之遺種，不悛梟音，潛懷凶圖。何幸端緒畢露，諸逆就戮，快正典刑，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其尙明聽。嗚呼！今此獄情，實由來復而發。蓋來復以乙亥凶賊鼎衍之從子，緣坐投配於耽羅，與諸凶遺孽，打成一片，綢繆陰謀，窮凶叵測，頃於鞫訊之際，一一納款，所告諸凶之中，最頑狡大包藏者，卽七賊，曰榮得，泰耆之孫也，曰東渾，鳳輝之孫也，曰得明，聖時之孫也，曰翼佐，巨源之孫也，曰褒，詹之孫也，曰維，益寬之孫也，曰能孝，眞儒之從孫，興孝之弟也。至於惠之弟姪戀·夢鼎，一鏡之姪，濟海·運海，天永之姪正觀，亦皆附麗於七賊，同在海島，綢繆相從。其所以聚首而密謀，仰親而俯畫者，無非怨國之言，逞凶之圖。尤可痛者，榮得·東渾，乃敢分疏於其祖之凶箭逆疏，謂有何罪？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互相非斥。榮得·能孝之暗地酬酢，至凶且慝，有不忍聞。此固辛壬以來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嗚呼！尙忍言哉？得明·翼佐·褒·維之徒，戀·夢·濟運·正觀之類，其所揣摩團聚，如蛇蚓之糾結者，透露無餘。至若昌翼·彥杓，則志之姻親血黨，陽祚則明祚之弟，亦皆情節難掩，亟就顯戮，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予尤有所痛惋者，來復與七賊，潛謀，乘夜訪壩，旨意陰慘，殆若德鼎之密探坦意。予以念昔之意，雖斬執法之請。而敬修以曾任大靜者，與榮得爲友壻，授其糧而助食，囑縣吏而欲隱，若非德昭，何以知此？究其心，有浮於榮得。所惜者不盡承款，不能快施當律也。嗚呼！予嘗以涵育覆燾爲心，庶幾使梟獍輩革心，而醜類惡種，猶復接迹而起。前由逆穢，今由賊復，可見乾道之昭昭，天綱之恢恢，照魔高懸，魑魅何逃？《昭鑑》之作，蓋欲明天理淑人心，將見凶醜屏迹，鬼蜮遁形，而奈之何妖腰亂領，又輒干紀，一至此哉？所可幸者，一允來復之啓，而凶逆之情狀，一皆呈露。此非予也，卽彼蒼也。自此而梟獍餘種，將有所畏，《昭鑑》之義理，尤益光明矣。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明聽予言，其各自勉同寅協恭，輔我邦家。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提學洪啓禧製進。】

9)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諭中外大小臣僚章甫書, 王若曰, 嗚呼, 邦運多艱, 亂逆肆行, 辛丑之耆·輝, 一轉而爲壬寅之鏡·虎, 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 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錐. 賴上天默佑, 祖宗陰鷺, 前後諸賊, 咸伏王章. 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 如日中天, 雖在輿儻婦孺, 莫不曉然洞悉. 誰謂耆·輝等之遺種, 不悛梟音, 潛懷凶圖, 又有今日之鞠? 神人之憤, 尙復何言? 何幸端緒畢露, 諸逆就戮. 茲當親臨南門, 序立百官, 快正典刑之餘, 渙發明旨, 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 其尙明聽. 嗚呼, 今此獄情, 實由來復而發, 蓋來復, 以乙亥萬古所無凶賊鼎衍之從子, 緣坐投配於耽羅, 與諸凶遺孽, 打成一片, 綢繆陰謀, 窮凶叵測. 頃於鞠訊之際, 一一納款, 所告諸凶之中, 最頑狡大包藏者, 卽七賊. 曰榮得, 泰耆之孫也, 曰東渾, 鳳輝之孫也, 曰得明, 聖時之孫也, 曰翼佐, 巨源之孫也, 曰褒, 詹之孫也. 曰維, 益寬之孫也, 曰能孝, 眞儒之從孫, 興孝之弟也. 至於惠之弟·姪戀·夢鼎, 一鏡之姪濟海·運海, 天永之姪正觀, 亦皆附麗於七賊, 同在海島, 綢繆相從. 其所以聚首而密謀, 仰視而俯畫者, 無非怨國之言, 逞凶之圖. 尤可痛者, 榮得·東渾, 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 謂有何罪, 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 互相非斥. 榮得·孝能之暗地酬酢, 至凶且憎, 有不忍聞, 此固辛丑以來, 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 嗚呼, 尙忍言哉? 得明·翼佐·褒·維之徒, 戀·夢·濟·運·正觀之類, 其所揣摩團聚, 如蛇蚓之糾結者, 透露無餘. 至若昌翼·彥杓, 則志之姻親血黨, 陽祚則明祚之弟, 亦皆情節難掩, 亟就顯戮, 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 予尤有所痛惋者. 來復與七賊潛謀, 乘夜訪壘, 旨意陰慘, 殆若德鼎之密探坦意. 予以念昔之意, 雖斬執法之請, 而敬脩以曾任大靜者, 與榮得爲友壻, 換其糧而助食, 囑縣吏而欲隱, 若非德昭, 何以知此? 究其心, 有浮於榮得. 所惜者, 不盡承款, 不能快施當律也. 嗚呼, 予嘗以涵育覆燾爲心, 庶幾使梟獍輩革心, 而醜類惡種, 猶復接跡而起. 上天至仁, 而沴氣所鍾, 乃至於是, 寧不痛心? 前由逆裔, 今由賊復, 可見乾道之昭昭, 天網之恢恢, 照魔高懸, 魑魅何逃? 昭鑑之作, 蓋欲明天理淑人心, 將見凶醜屏跡, 鬼蜮遁形, 而奈之何妖腰亂領, 又輒干紀, 一至此哉? 所可幸者, 一允來復之啓, 而凶逆之情狀, 一皆呈露, 此非予也, 卽彼蒼也. 自此而梟獍餘種, 亦當快滌心腸, 忠良將有所恃, 奸凶將有所畏, 海東之國是, 因此尤嚴, 昭鑑之義理, 又益光明矣. 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 明聽予言, 其各自勉, 同寅協恭, 輔我邦家. 故茲教示, 想宜知悉. 弘文提學洪啓禧製進

76. 윤득명(尹得明)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사유: 모역(심래복 모반사건, 김일경 소하 6적 윤성시(尹聖時)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柳顯章,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成府報狀, 當部成冊, 忠淸·京畿監司牒呈, 則逆賊就商·志·師尙·眞儒·明誼·楷·聖時·宗廈·鳳輝·泰耆·明彥·夏宅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就商弟徵商, 咸鏡道茂山府爲奴, 姪勲, 慶尙道柒原縣, 流三千里安置, 姪慙, 三水府安置, **逆賊志孫吉甲, 大靜縣爲奴**. 孫女吉亥, 晉州牧爲婢, 孫女吉丑, 定平府爲婢, 孫女終生, 咸興府爲婢, 逆賊師尙孫修範, 濟州牧旌義縣爲奴, 孫修溫, 南海縣爲奴, 孫福伊, 黃海道長淵府白翎鎮爲奴, 子婦敬郎, 明川府爲婢, 子之妾英梅, 機張縣爲婢, 姪獻哲, 金海府安置, 逆賊眞儒孫承孝, 巨濟府爲奴, 子婦大阿只, 泗川縣爲婢, 姪匡鼎, 吉州牧安置, 姪匡彥, 熊川縣安置, 姪匡贊, 明川府安置, 姪匡顯, 機張縣安置, 匡明, 寧海府安置, 姪匡順, 端川府安置, 逆賊楷孫采, 濟州牧爲奴, 弟樾, 甲山府爲奴, 姪東呂, 三水府安置, 姪東疇, 富寧府安置, 姪東獻, 甲山府安置, 姪東進, 鏡城府安置, 姪東俊, 茂山府安置, **逆賊聖時**孫得貞, 濟州牧爲奴, **孫得明, 大靜縣爲奴**, 孫得望白翎鎮爲奴, 孫重曦, 南海縣爲奴, 孫孝達, 全羅道珍島郡爲奴, 孫孝文, 巨濟府爲奴, 子婦愛, 昆陽郡爲婢, 子婦喜, 延日縣爲婢, 逆賊宗廈孫采修, 濟州牧爲奴, 孫懿修, 南海縣, 孫五哲, 白翎鎮爲奴, 孫壽得, 豐川牧椒島鎮爲奴, 孫五兼, 巨濟府爲奴, 孫然福, 南海縣爲奴, 孫然喜, 珍島郡爲奴, **逆賊鳳輝**子婦幸每, 泗川縣爲婢, **孫東渾, 大靜縣爲奴**, 孫女賢門, 昆陽郡爲婢, 弟鳳徵, 甲山府爲奴, 姪昌垣, 旌義縣安置, 姪奎垣, 茂山府安置, 姪景垣, 長鬐縣安置, **逆賊泰耆**子婦一梅, 興海郡爲婢, 孫榮集, 旌義縣爲奴, **孫英得, 大靜縣爲奴**, 孫榮喆, 珍島郡爲奴, 孫大慰, 巨濟府爲奴, 孫大承, 南海縣爲奴, 逆賊明彥孫址崇, 以夏宅之子, 出繼於夏定, 減死, 濟州牧爲奴, 逆賊夏宅孫文穆, 三水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

將，押送于各其配所，師尙妾月愛，年過七十，最蓮，年過六十，聖時子婦惠伊，宗廈子婦畢英，年今六十，依律文竝免坐，逆賊明誼·■·濂·光哲，應坐諸人及上頃諸逆等應及緣坐之類及在外未查出者，待其該道之查報，舉行，何如？傳曰，允。

2)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上御太僕，親鞫罪人壘·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夢鼎·濟海·運海·陽祚·彥杓·昌翼·天大等，初逆賊來復告榮得等，以凶孽緣坐，謫于島，每發怨國之言，往覘在謫宗臣壘，爲推戴之謀，上既誅來復，命逮捕諸賊，至是竝拿，至榮得文書，有軍器置簿，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現發於發捕金吾郎。上竝親問之。壘供曰：“臣年前得病島中無醫。逆衍之庶姪，頗解醫理，故果爲邀見。又有一人隨來，問之則其嫡兄云，而不接一言矣。”問榮得，供曰：“軍都目及軍器文書，受價書給於軍器色吏，而此是會案文書，故更書以納。來復則初不相知。”更推刑訊不服。問得明供曰：“臣於點考時，雖見來復，初無酬酢。”問維供曰：“雖知來復之面，實無接談之事。”更推維，供曰：“來復則未嘗接話，榮得則相親。”刑訊不服。問褒供曰：“臣不知來復，點考時，只知其面。”問能孝，供曰：“臣遭母喪時，來復爲弔喪而來，而既無相弔之義，故不爲受弔。其後臣尋採鰻人，往于渠家，八年之間四次逢着。而心中如食敗肉，每自不好。”問正觀，供曰：“文書中潤碩卽大靜官奴曹潤碩也。厥漢來請代書，故果書置之，入於文書中矣。徒流案一節，大靜吏輩不能書之，給升米於臣，而使書給，故臣書之矣。”刑訊不服。問翼佐，供曰：“來復面貌則臣豈不知？”刑訊不服。更推翼佐供曰：“榮得則臣果知之。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故欲束冊而置之。”榮得處加刑不服。問戀，供曰：“點考時，來復則果相見。臣在光州，惠在春川，渠等之事，豈相知乎？”刑訊不服。問夢鼎，供曰：“來復面目則臣果知之。”刑訊不服。問濟海，供曰：“臣便同常漢，爲人耕田，不識一字。”刑訊不服。問運海，供曰：“臣若有所知之事，則豈不直告？”刑訊不服。問陽祚，以文書中怪誕之書，左道之文，供曰：“臣欲無物慾，故每念佛，而非有邪心。與志·光哲諸賊連姻之事，心常恨之，故志賊居謫時，亦無書札往復。玉樞經曾無所讀之事，主人爲祈禱而有之矣。”刑訊不服。問彥杓，供曰：“臣於乙亥年，以見志賊凶書被鞫，以無端緒，蒙酌處之恩。若有可達者，乙亥親問時，豈不盡達乎？”問昌翼，供曰：“志之孫女通婚，而臣非門長，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果出於藉重之心矣。”刑訊不服。問天大，供曰：“臣於望華樓下場市，見樓上掛書，朴順才者摘取，而時值空官，故臣傳于座首柳頤泰。臣與志同參，而盡知其中事，故乙亥皆已直招

矣.”命諸囚竝下府.

3)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癸未九月二十八日辰時, 上御太僕.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璫,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晩,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 以次進伏訖.領府事申晩曰, 夜間,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晩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領議政洪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上曰, 此時則三煎以入, 可也.右副承旨金應淳曰, 問郎不卽待令於文書床,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出學條 上曰, 罪人堦上之.上曰, 判義禁問之.上曰, 戊申後初見汝面, 汝以此樣上來, 予豈料之乎? 上曰, 汝孫書中以爲, 奴僕外勿接他人云, 旣知汝事, 故書辭然矣.汝有接見人客之事乎? 招辭云云.見推案, 下同 上曰, 然矣.果是來復矣.上曰, 今番厥漢之事, 正如趙哥之發言於汝兄也.但汝兄則聽而不答, 汝則無聽, 而又無答矣, 然厥漢若如趙哥之言於汝兄, 則汝將何以處之? 招辭云云.上曰, 實矣.上曰, 兩司在彼矣.必不仍置, 然則汝不得更往濟州, 又不得生踰囹圄矣.汝雖生, 亦何益也? 若無汝身, 則豈有是事乎? 招辭云云.上曰, 下教, 不能領會矣.上曰, 堦下府.上曰, 問郎持草紙進來.金魯鎮進伏.上命書榮得問目訖.上曰, 榮得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初無欺隱之事, 問目內辭緣, 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 緣坐罪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上曰, 遁辭矣.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來復以爲, 汝爲逆賊緣坐之魁首, 偷取軍器, 將爲戊申之事云, 而軍器置簿, 入於文書中, 豈不鑿鑿符合乎? 招辭云云.上曰, 汝何爲而使來復, 往見堦乎? 招辭云云.上命書東渾問目訖.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祖事, 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若不與來復言語酬酢, 則點考時, 汝何以吾祖上疏云云之說, 言及於來復乎? 招辭云云.上命書維問目訖.上曰, 東渾下之, 維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雖欺隱, 而許多罪人之口, 綻露無餘, 則卽當正法矣.招辭云云.上命書得明問目訖.上曰, 維下之, 得明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吾則毫無所累之言, 汝與誰人酬酢乎? 招辭云云.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命書褒問目訖.上曰, 得明下之, 褒上之.上曰, 問目

讀之.上曰, 應坐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上曰, 汝以名祖之血孫, 爲逆賊之繼後孫, 雖不免爲緣坐, 而敢與此輩, 綢繆相從乎? 招辭云云.上命書陽祚問目訖.上曰, 褒下之, 陽祚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念佛何故爲之? 招辭云云.上曰, 石片皆書南無阿彌陀佛何也? 汝以逆賊之種子, 敢爲念佛, 必有隱情矣.招辭云云.上曰, 依法.上曰, 志與光哲事, 汝不知乎? 招辭云云.上曰, 汝雖至此, 其本則士也, 以士而念佛, 何心也? 推是心, 何事不可爲也? 招辭云云.上曰, 更無酌處之理, 斯速遲晚.陽祚刑準次.上命書正觀問目訖.上曰, 陽祚下之, 正觀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以逆賊假兵使之親姪, 又犯亡命之罪, 宜乎象示, 而尙此偃息矣.汝與來復相親往來之事, 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 依法.上曰, 汝之書札中, 有來後年出陸之說, 汝豈有出陸之機耶? 其間曲折, 直告之.招辭云云.上曰, 來復以爲, 汝輩聚會謀議, 而汝之文書中, 有徒流案, 尤豈不殊常乎? 將欲爲汝叔之事乎? 招辭云云.正觀刑準次, 上命書濟海問目訖.上曰, 正觀下之, 濟海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汝以逆鏡之姪, 宜卽死矣, 而況與應坐諸賊, 往來綢繆乎? 招辭云云, 濟海刑準次.判義禁洪啓禧曰, 卽見能孝之搜探文書中, 有一帖字, 觀其辭語, 可見聖化之無處不暨, 且其叔匡師戒飭子姪之書, 亦入其中, 字字言言, 皆有感恩懷化之意矣.上曰, 匡師則本如此矣.應淳曰, 獄情將不至[知]止於何境, 此非可長語者也.上命書戀問目訖.上曰, 濟海下之, 戀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以逆賊惠之四寸, 又與來復謀逆, 而敢爲隱諱之計乎? 招辭云云, 戀刑準次.上命書夢鼎問目訖.上曰, 戀下之, 夢鼎上之.上曰, 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 汝以逆賊應坐, 敢與來復輩, 交通謀逆乎? 招辭云云.夢鼎刑準次.上命書運海問目訖.上曰, 夢鼎下之, 運海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汝以一鏡之姪, 乃敢忍杖不服乎? 招辭云云.運海刑準次.上命書翼佐問目訖.上曰, 運海下之, 翼佐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以巨源之孫, 運和之姪, 又與來復, 謀議不軌, 汝豈得生乎? 招辭云云.上曰, 依法.上曰, 汝父汝祖之所爲, 汝敢稱冤乎? 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能孝問目訖.上曰, 翼佐下之, 能孝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以鼎衍之故, 汝家至此也.然則鼎衍之子姪, 卽汝之讎也.何心言語乎? 招辭云云.上命書天大·彥杓問目訖.上曰, 能孝下之, 天大·彥杓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天大則雖以同參謀逆遲晚, 而當初酌處, 蓋以多告同黨也.彥杓則雖爲知情不告, 而既有持杖驅逐之說, 故十分酌處矣.今者亂逆層生之時, 不得不特允臺啓, 將欲正法, 卽爲遲晚結案.招辭云云.上曰, 乙亥既已直招, 而今日變辭可乎? 招辭云云.上曰, 乙丙日記, 持入考奏, 可也.啓禧曰, 取考日記, 則諸罪人文案, 俱甚草率矣.應淳

曰, 卽見丙子鞫案, 則所錄甚疎略, 其時禁堂及當該問郎,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命書昌翼問目訖. 上曰, 天大·彥杓下之, 昌翼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與賊志家結婚,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上曰, 志之結婚時, 春躋果以爲無妨, 而且給婚紙, 則汝於乙亥, 何不言之乎? 招辭云云. 上曰, 乃敢推諉於作故之人乎? 右議政金相福曰, 庚申年春躋家設宴時, 此人有嫌怨, 故敢爲逞毒之計矣. 上曰, 依法. 上曰, 汝終不以誣引自服乎? 招辭云云. 上曰, 李春躋之任使已久矣, 此等婚姻, 豈有勸成之理乎? 招辭云云. 上曰, 設使春躋勸之, 有可爲之婚, 有不可爲之婚, 豈可以春躋之言, 而爲不可爲之婚耶? 招辭云云. 昌翼刑準次. 上曰, 昌翼下之. 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鳳漢曰, 前判尹南泰齊, 旣已敍用, 其時左尹曹命采, 右尹李光傳[李光溥], 一體敍用. 明日試望, 當擬之人, 甚苟簡云, 前大司諫尹學東及堂上·堂下侍從違罷人, 竝敍用,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命書榮得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以汝祖之故, 汝輩至此, 汝甘受乎, 稱冤乎? 招辭云云. 上曰, 奈何之說, 極勃慢矣. 上曰, 非汝以泰耆之孫而拿來也. 蓋以與來復謀議之事也. 汝敢終始隱諱乎? 且軍器置簿, 是汝之贓物矣, 尤何敢不服乎? 招辭云云. 榮得刑準次. 上命書維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以益寬之孫, 忍杖何益? 直招無隱. 維刑準次. 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 上曰, 維下之, 翼佐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榮得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軍器置簿, 汝與榮得, 共力膽出,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翼佐刑準次. 上命書東渾更推問目訖. 上曰, 翼佐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祖汝認以爲逆乎? 招辭云云. 上曰, 然則汝何爲而對來復言, 吾祖則初無可罪之端云耶? 招辭云云. 東渾刑準次. 上曰, 東渾下之, 諸罪人竝下府. 上命承旨書之曰, 親鞫姑罷, 明日殿座待下教, 只入正時, 壩外皆預爲上闕, 而傳香後舉行. 出榻教

4)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得明·榮得·正觀·東渾·翼佐·褒·彥杓·維·戀·昌翼·夢鼎·敬修等, 榮得·東渾·敬修伏誅. 問得明, 供曰: “臣止接於外村, 榮得輩保授於城內, 渠輩親密與否, 何以詳知?” 更推不服. 得明與元德昭面質. 德昭, 大靜吏也. 德昭曰: “汝不言吾等當有好時乎?” 得明曰: “汝何爲此言?” 問榮得供如前. 加刑不服. 正觀·榮得面質. 正觀曰: “汝不與東渾等日日往來, 而姜翊周之女官妓月中梅, 作妾贖良乎?” 榮得曰:

“贖良則其父爲之矣.” 正觀曰: “汝之三兄弟, 豈不相往來乎?” 榮得曰: “吾母喪時, 暫會矣.” 加刑, 供曰: “臣得妓妾, 免賤率畜, 與本縣倅, 爲妾同壻, 財穀相換以食. 與諸罪人往來綢繆.” 大逆不道結案. 問正觀, 供曰: “榮得以妓作妾, 而妓父姜翊周爲座首, 故榮得身爲官奴, 不爲立役. 其時邑倅曹敬修也, 榮得妾弟, 敬修作妾率去. 其謀議則不知矣.” 加刑不服. 問能孝不服. 問東渾, 供曰: “臣初無綢繆之事?” 加刑不服. 正觀·東渾面質. 正觀曰: “汝於點考時, 與榮得輩, 不同行同坐乎?” 東渾曰: “同受點考, 故同坐矣.” 加刑, 供曰: “與榮得同爲官奴, 故仍與綢繆.” 以大逆不道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雖正法, 豈敢稱冤?” 更推加刑不服. 問褒供曰: “東渾輩相親往來, 而臣則不入其類矣.” 加刑不服. 褒·榮得面質. 褒曰: “汝豈不曰傷痛乎?” 榮得曰: “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 則易生怨心, 汝勿燥燥云乎?” 褒曰: “然矣.” 榮得曰: “吾見嫉於汝與來復, 以有嫉惡之腸故也.” 加刑不服. 問彥杓, 供曰: “若有所知之事, 豈敢欺隱?” 問維加刑不服, 更推加刑不服. 問戀, 供如前不服. 問昌翼, 供如前, 加刑不服. 問夢鼎不服. 問敬修, 供曰: “所丐邑妓, 知其爲榮得妾弟, 而爲所生率來, 萬死無惜.” 教曰: “前大靜縣監曹敬修, 敢與罪人榮得作爲友壻, 官穀那移換給, 此眼無國法. 若不快施邦刑, 何以礪頹世? 亟正邦刑.” 仍命榮得弟二人及姜翊周·月中梅, 竝拿來.

5)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璣,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李激,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鎭·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鎭,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晚曰, 昨日終日殿座, 侵夜還內,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問郎金魯鎭·洪檢, 見擬試望, 謂有情勢, 纔已違罷, 而問郎則雖在罷散中, 例爲啓下矣, 兩問郎, 使卽入侍, 何如? 上曰, 依爲之. 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問郎持草紙進前. 洪樂純進伏. 上命書得明更推問目訖. 上曰, 得明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祖非以血黨入於逆也, 特以人事之僮侗也. 今汝亦然, 故昨日不爲刑推, 而今又平問, 無隱直招, 則可免刑推矣. 招辭云云. 上曰, 緣坐諸賊之互相綢繆親密之狀, 汝則必見之矣, 一一直告. 招辭云

云.上曰, 得明下之, 彦杓上之.上曰, 濟州應坐諸人謀議之狀, 汝必見之矣, 隨見直告.招辭云云.上曰, 汝今上來, 法當結案, 予雖參酌, 而執法之臣, 何容仍置? 此事若直告, 則可以立功矣.招辭云云.上曰, 所陳實矣.榮得·東渾·能孝·維·褒等, 締結往來之說, 果不出所料矣.上曰, 得明·翼佐, 亦入其中乎? 招辭云云.上命書褒更推問目訖.上曰, 彦杓下之, 褒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輩五六人作隊往來之事, 已有明白指告者, 汝敢隱諱乎? 招辭云云.上曰, 依法.招辭云云.上曰, 汝既以六人納招矣.予則聞是七人云, 其中一人, 必是汝矣.直告之.招辭云云, 褒刑準次.上曰, 汝招稍實, 故姑解縛矣.上命書榮得更招問目訖.上曰, 褒下之, 榮得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與東渾輩六人切親往來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 汝之同類中, 已有指告者, 汝敢欺隱乎? 招辭云云.上曰, 面質時若見屈, 則當正法矣.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 榮得下之, 維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之奸狀已露, 更無可問, 而又出於同類之招, 無可欺隱矣.汝之爲汝祖稱冤之說話, 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 不思之說, 極無據矣.他人則發明, 而渠則以爲不思云, 可見其常存於心也.上曰, 依法.上曰, 汝祖造船調馬之事, 姑置勿論, 予辭位時, 乃敢曰, 東宮之事, 不過爲問寢視膳云, 此一言, 已是大逆矣.上曰, 各別訊問, 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 維下之, 翼佐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今則無可隱矣.汝輩聚首謀議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 已出於同類之招, 汝敢隱諱乎? 若不直告, 則當依汝祖之例, 卽爲梟示矣.招辭云云.上命書能孝更推問目訖.上曰, 翼佐下之, 能孝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之入於七人中, 綢繆往來之狀, 既已綻露矣, 汝於此輩, 猶恐其相近, 可也, 乃敢與之爛漫親密乎? 招辭云云.上曰, 能孝下之, 褒與榮得, 竝上之.上曰, 兩人使之面質.招辭云云.上曰, 褒之佯屈, 極妖惡矣.李壽鳳曰, 乙亥年致雲與尙白面質時, 尙白故見屈矣.此罪人情態, 恰似尙白, 尤極妖惡矣.上曰, 然矣.榮得下之, 褒依法, 褒刑準次.上曰, 褒下之, 維上之.上曰, 依法, 維刑準次.上曰, 維下之, 榮得上之.上曰, 依法.上曰, 汝之情狀, 綻露無餘, 而褒之初既直招, 未又變辭者, 尤極妖惡, 豈可以此, 而謂之見勝於面質乎? 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上曰, 依法, 東渾刑準次.上曰, 東渾下之, 翼佐上之.上曰, 依法, 翼佐刑準次.上曰, 翼佐下之.昌翼·正觀, 竝上之.上曰, 竝依法, 昌翼·正觀刑準次.上曰, 正觀招中, 榮得卜妾之事, 尤爲放恣無狀矣.上曰, 昌翼下之, 榮得上之, 與正觀面質.招辭云云.上曰, 榮得依法.上曰, 汝之初招, 以爲邂逅相逢矣.今乃爛漫往來於各其家中, 且汝以泰耆之孫, 緣坐爲奴, 乃敢以官婢作妾乎? 是心亦逆也.招辭云云.上曰, 榮得同生二人及姜哥□□, 竝卽發捕, 可也.鳳漢曰, 濟州人誠過甚矣.敢以其女, 許給於連坐之逆

孽，其在懲後之道，恐不可尋常處之矣。上曰，其女月中梅，亦不可不竝爲拿來矣。其女竝其父，使捕校，隨往都事，拿來好矣。鳳漢曰，捕將使之入侍，分付，何如？上曰，依爲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榮得刑準次。上曰，榮得下之，正觀依法。上曰，汝招似實，而猶不盡吐，榮得謀逆節次，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以榮得·東渾爲魁之說，果是矣。曹敬修之與逆賊，爲妾同婿，而出穀相助之事，又豈非逆賊乎？亦卽發捕，可也。上曰，濟州京主人處，問其去住，則可知其在鄉與否，以此分付捕將，可也。正觀刑準次。上曰，正觀下之，榮得上之。上曰，依法。上曰，汝之情狀，綻露無餘，而終不直告，然前後已納之招，已是逆心，汝以汝祖之筭子，故遂至此境矣。蓋此憤懣之心，蓄積於中，故自歸怨國矣。汝既以逆心占於口，又以自歸怨國四字，口招遲晚，可也。榮得刑十二度結案。上曰，榮得下府，東渾上之。上曰，依法。上曰，榮得既已承款，汝既同一心腸，則一向抵賴，有何所益？汝輩聚首謀議之狀，既已綻露無餘，直爲遲晚。招辭云云。上曰，恰似逆■■之同歸可樂之語矣。東渾結案，上命承旨書之曰，大逆遲晚罪人榮得，頃者下教依。

6)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2일.

○ 上御太僕，親鞫罪人德昭·得明·裒·夢鼎·濟海·戀·天大·能孝·彦杓·昌翼·翼佐·陽祚等，得明·裒·彦杓·昌翼·翼佐·陽祚伏誅。是日問德昭，供曰：“得明·翼佐輩常常相從，而自謂當有好時云。敬修以官廳米，輸送于榮得家。問得明，供曰：“好時之說，未嘗言矣。”加刑更推，供曰：“身世難堪，故怨國。臣祖脅從而與魁首同罪，故怨國矣。”以大逆不道結案。問裒不服，加刑更推，供曰：“臣聞東渾輩怨國之言，與之酢酬。”以大逆不道結案。問夢鼎供如前，加刑不服。問濟海，供如前，加刑不服。問戀供如前，加刑不服。問天大供如前，問能孝，供曰：“與渠輩雖有酬酢，未嘗怨國。”加刑不服。問彦杓，以知情結案。問昌翼，供曰：“與光哲結婚。”帳殿親問，猶不直招，籍重誣人，以罔上誣人結案。問翼佐，供曰：“臣祖以逆虎之教文，被逆律爲曖昧，故常怨國。”以大逆不道結案。教曰：“罪人陽祚，無更問之端，意欲參酌。觀其文書，覽其供辭，書輒念佛，語皆佛語，非徒逆種，卽一怪物。頃者海西稱彌勒佛者，遣御史置法。則其在闢異端之道，不可循例究問，亟正邦刑。”

7)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上御金商門，頒教：“王若曰。嗚呼！邦運多艱，亂逆肆行。辛丑之耆·輝，一轉而爲壬寅之鏡·虎，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賴上天默佑，祖宗陰隲，前後諸賊，咸伏王章，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如日中天。雖輿僮婦孺，莫不曉然洞悉，誰謂耆·輝等之遺種，不悛梟音，潛懷凶圖。何幸端緒畢露，諸逆就戮，快正典刑，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其尙明聽。嗚呼！今此獄情，實由來復而發。蓋來復以乙亥凶賊鼎衍之從子，緣坐投配於耽羅，與諸凶遺孽，打成一片，綢繆陰謀，窮凶叵測，頃於鞠訊之際，一一納款，所告諸凶之中，最頑狡大包藏者，卽七賊，曰榮得，泰耆之孫也，曰東渾，鳳輝之孫也，曰得明，聖時之孫也，曰翼佐，巨源之孫也，曰褒，詹之孫也，曰維，益寬之孫也，曰能孝，眞儒之從孫，興孝之弟也。至於惠之弟姪戀·夢鼎，一鏡之姪，濟海·運海，天永之姪正觀，亦皆附麗於七賊，同在海島，綢繆相從。其所以聚首而密謀，仰親而俯畫者，無非怨國之言，逞凶之圖。尤可痛者，榮得·東渾，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謂有何罪？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互相非斥。榮得·能孝之暗地酬酢，至凶且憎，有不忍聞。此固辛壬以來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嗚呼！尙忍言哉？得明·翼佐·褒·維之徒，戀·夢·濟運·正觀之類，其所揣摩團聚，如蛇蚓之糾結者，透露無餘。至若昌翼·彥杓，則志之姻親血黨，陽祚則明祚之弟，亦皆情節難掩，亟就顯戮，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予尤有所痛惋者，來復與七賊，潛謀，乘夜訪壩，旨意陰慘，殆若德鼎之密探坦意。予以念昔之意，雖斬執法之請。而敬修以曾任大靜者，與榮得爲友壻，授其糧而助食，囑縣吏而欲隱，若非德昭，何以知此？究其心，有浮於榮得。所惜者不盡承款，不能快施當律也。嗚呼！予嘗以涵育覆燾爲心，庶幾使梟獍輩革心，而醜類惡種，猶復接迹而起。前由逆穢，今由賊復，可見乾道之昭昭，天綱之恢恢，照魔高懸，魑魅何逃？《昭鑑》之作，蓋欲明天理淑人心，將見凶醜屏迹，鬼蜮遁形，而奈之何妖腰亂領，又輒干紀，一至此哉？所可幸者，一允來復之啓，而凶逆之情狀，一皆呈露。此非予也，卽彼蒼也。自此而梟獍餘種，將有所畏，《昭鑑》之義理，尤益光明矣。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明聽予言，其各自勉同寅協恭，輔我邦家。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提學洪啓禧製進。】

8)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諭中外大小臣僚章甫書，王若曰，嗚呼，邦運多艱，亂逆肆行，辛丑之耆·輝，一轉而爲壬寅之鏡·虎，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錐。賴上天默佑，祖宗陰鷺，前後諸賊，咸伏王章。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如日中天，雖在輿僮婦孺，莫不

曉然洞悉.誰謂奇·輝等之遺種,不悛梟音,潛懷凶圖,又有今日之鞠?神人之憤,尙復何言?何幸端緒畢露,諸逆就戮.茲當親臨南門,序立百官,快正典刑之餘,渙發明旨,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其尙明聽.嗚呼,今此獄情,實由來復而發,蓋來復,以乙亥萬古所無凶賊鼎衍之從子,緣坐投配於耽羅,與諸凶遺孽,打成一片,網繆陰謀,窮凶叵測.頃於鞠訊之際,一一納款,所告諸凶之中,最頑狡大包藏者,卽七賊.曰榮得,泰奇之孫也,曰東渾,鳳輝之孫也,曰得明,聖時之孫也,曰翼佐,巨源之孫也,曰褒,詹之孫也.曰維,益寬之孫也,曰能孝,眞儒之從孫,興孝之弟也.至於惠之弟·姪戀·夢鼎,一鏡之姪濟海·運海,天永之姪正觀,亦皆附麗於七賊,同在海島,網繆相從.其所以聚首而密謀,仰視而俯畫者,無非怨國之言,逞凶之圖.尤可痛者,榮得·東渾,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謂有何罪,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互相非斥.榮得·孝能之暗地酬酢,至凶且僭,有不忍聞,此固辛丑以來,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嗚呼,尙忍言哉?得明·翼佐·褒·維之徒,戀·夢·濟·運·正觀之類,其所揣摩團聚,如蛇蚓之糾結者,透露無餘.至若昌翼·彥杓,則志之姻親血黨,陽祚則明祚之弟,亦皆情節難掩,亟就顯戮,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予尤有所痛惋者.來復與七賊潛謀,乘夜訪壩,旨意陰慘,殆若德鼎之密探坦意.予以念昔之意,雖斬執法之請,而敬脩以曾任大靜者,與榮得爲友壻,換其糧而助食,囑縣吏而欲隱,若非德昭,何以知此?究其心,有浮於榮得.所惜者,不盡承款,不能快施當律也.嗚呼,予嘗以涵育覆燾爲心,庶幾使梟獍輩革心,而醜類惡種,猶復接跡而起.上天至仁,而沴氣所鍾,乃至於是,寧不痛心?前由逆裔,今由賊復,可見乾道之昭昭,天網之恢恢,照魔高懸,魑魅何逃?昭鑑之作,蓋欲明天理淑人心,將見凶醜屏跡,鬼蜮遁形,而奈之何妖腰亂領,又輒干紀,一至此哉?所可幸者,一允來復之啓,而凶逆之情狀,一皆呈露,此非予也,卽彼蒼也.自此而梟獍餘種,亦當快滌心腸,忠良將有所恃,奸凶將有所畏,海東之國是,因此尤嚴,昭鑑之義理,又益光明矣.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明聽予言,其各自勉,同寅協恭,輔我邦家.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提學洪啓禧製進

77. 권유(權維)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7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사유: 모역(심래복 모반사건, 이인좌의 난 역적 권익관〈權益寬〉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當部·忠淸·京畿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世良·益寬·嵇·縑·應坐諸人及逆賊宗廈·泰耆·楷·夏宅·KC10097等應坐未及查出者, 成冊以來矣. 逆賊世良孫終童, 濟州牧爲奴, 孫煜, 濟州牧大靜縣爲奴, 孫炫, 慶尙道巨濟府爲奴, 孫煥, 南海縣爲奴, 孫瑩, 珍島郡爲奴, 孫榮, 咸鏡道三水府爲奴, 孫淡, 濟州牧旌義縣爲奴, 孫燮, 富寧府爲奴, 孫甲金, 黃海道豐川府椒島鎮爲奴, 姪應心, 鏡城府流三千里安置, 姪應翼, 機張縣安置, 逆賊益寬 孫維, 大靜縣爲奴, 姪穆衡, 鏡城府流三千里安置, 逆賊嵇母次願, 長鬐縣爲婢, 兄■■■, 甲山府爲奴, 弟岱, 吉州牧爲奴, 妹泰惠, 昆陽郡爲婢, 叔綸, 寧海府流三千里安置. 姪輔國, 三水府流三千里安置, 逆賊縑妻小愛, 河東府爲婢, 子婦貴今, 鎭海縣爲婢, 子婦惠臨, 漆原縣爲婢, 子婦壯伊, 熊川縣爲婢, 叔得衡, 明川府安置, 孫壽曾, 巨濟府爲奴, 孫女福媛, 晉州牧爲婢, 孫女連伊·孫老味, 熊川縣竝爲奴婢, 逆賊宗廈子之妾玉每, 延日縣爲婢, 孫千年金, 三水府爲奴, 孫加五金, 大靜縣爲奴, 孫女閏德, 定平府爲婢, 孫女閏安, 鏡城府爲婢, 孫女福任·於屯介, 固城縣竝爲婢, 逆賊泰耆子婦一順, 巨濟府爲婢, 逆賊楷孫女甲伊, 興海郡爲婢, 逆賊夏宅妻景任, 丹城縣爲婢, 子婦可愛, 昌原府爲婢, 子婦最愛, 咸興府爲婢, 孫應龍·又龍·慶龍等, 長淵府白翎鎭竝爲奴, 孫女妙喜, 咸興府爲婢, 逆賊■■弟審, 富寧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而諸逆應坐之類未及查出者, 待其各該道查報舉行, 何如? 傳曰, 允.

2)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壘·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夢鼎·濟海·運海·陽祚·彦杓·昌翼·天大等. 初逆賊來復告榮得等, 以凶孽緣坐, 謫于島, 每發怨國之言, 往覘在謫宗臣壘, 爲推戴之謀, 上既誅來復, 命逮捕諸賊, 至是竝拿. 至榮得文書, 有軍器置簿, 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 現發於發捕金吾郎. 上竝親問之. 壘供曰: “臣年前得病島中無醫. 逆衍之庶姪, 頗解醫理, 故果爲邀見. 又有一人隨來, 問之則其嫡兄云, 而不接一言矣.” 問榮得, 供曰: “軍都目及軍器文書, 受價書給於軍器色吏, 而此是會案文書, 故更書以納. 來復則初不相知.” 更推刑訊不服. 問得明供曰: “臣於點考時, 雖見來復, 初無酬酢.” 問維供曰: “雖知來復之面, 實無接談之事.” 更推維, 供曰: “來復則未嘗接話, 榮得則相親.” 刑訊不服. 問褒供曰: “臣不知來復, 點考時, 只知其面.” 問能孝, 供曰: “臣遭母喪時, 來復爲弔喪而來, 而既無相弔之義, 故不爲受弔. 其後臣尋採鰻人, 往于渠家, 八年之間四次逢着. 而心中如食敗肉, 每自不好.” 問正觀, 供曰: “文書中潤碩卽大靜官奴曹潤碩也. 厥漢來請代書, 故果書置之, 入於文書中矣. 徒流案一節, 大靜吏輩不能書之, 給升米於臣, 而使書給, 故臣書之矣.” 刑訊不服. 問翼佐, 供曰: “來復面貌則臣豈不知?” 刑訊不服. 更推翼佐供曰: “榮得則臣果知之. 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 故欲束冊而置之.” 榮得處加刑不服. 問戀, 供曰: “點考時, 來復則果相見. 臣在光州, 惠在春川, 渠等之事, 豈相知乎?” 刑訊不服. 問夢鼎, 供曰: “來復面目則臣果知之.” 刑訊不服. 問濟海, 供曰: “臣便同常漢, 爲人耕田, 不識一字.” 刑訊不服. 問運海, 供曰: “臣若有所知之事, 則豈不直告?” 刑訊不服. 問陽祚, 以文書中怪誕之書, 左道之文, 供曰: “臣欲無物慾, 故每念佛, 而非有邪心. 與志·光哲諸賊連姻之事, 心常恨之, 故志賊居謫時, 亦無書札往復. 玉樞經曾無所讀之事, 主人爲祈禱而有之矣.” 刑訊不服. 問彦杓, 供曰: “臣於乙亥年, 以見志賊凶書被鞫, 以無端緒, 蒙酌處之恩. 若有可達者, 乙亥親問時, 豈不盡達乎?” 問昌翼, 供曰: “志之孫女通婚, 而臣非門長, 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 果出於藉重之心矣.” 刑訊不服. 問天大, 供曰: “臣於望華樓下場市, 見樓上掛書, 朴順才者摘取, 而時值空官, 故臣傳于座首柳頤泰. 臣與志同參, 而盡知其中事, 故乙亥皆已直招矣.” 命諸囚竝下府.

3)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癸未九月二十八日辰時,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璫,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晩,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晩曰, 夜間,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晩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此時則三煎以入, 可也. 右副承旨金應淳曰, 問郎不卽待令於文書床,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曰, 罪人堯上之. 上曰, 判義禁問之. 上曰, 戊申後初見汝面, 汝以此樣上來, 予豈料之乎? 上曰, 汝孫書中以爲, 奴僕外勿接他人云, 旣知汝事, 故書辭然矣. 汝有接見人客之事乎? 招辭云云. 見推案, 下同 上曰, 然矣. 果是來復矣. 上曰, 今番厥漢之事, 正如趙哥之發言於汝兄也. 但汝兄則聽而不答, 汝則無聽, 而又無答矣, 然厥漢若如趙哥之言於汝兄, 則汝將何以處之? 招辭云云. 上曰, 實矣. 上曰, 兩司在彼矣. 必不仍置, 然則汝不得更往濟州, 又不得生踰圉圉矣. 汝雖生, 亦何益也? 若無汝身, 則豈有是事乎? 招辭云云. 上曰, 下教, 不能領會矣. 上曰, 堯下府. 上曰, 問郎持草紙進來. 金魯鎮進伏. 上命書榮得問目訖. 上曰,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初無欺隱之事, 問目內辭緣, 一一直告. 招辭云云. 上曰, 緣坐罪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 上曰, 遁辭矣.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來復以爲, 汝爲逆賊緣坐之魁首, 偷取軍器, 將爲戊申之事云, 而軍器置簿, 入於文書中, 豈不鑿鑿符合乎? 招辭云云. 上曰, 汝何爲而使來復, 往見堯乎? 招辭云云. 上命書東渾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祖事, 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若不與來復言語酬酢, 則點考時, 汝何以吾祖上疏云云之說, 言及於來復乎? 招辭云云. 上命書維問目訖. 上曰, 東渾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雖欺隱, 而許多罪人之口, 綻露無餘, 則卽當正法矣. 招辭云云. 上命書得明問目訖. 上曰, 維下之, 得明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吾則毫無所累之言, 汝與誰人酬酢乎? 招辭云云.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命書褒問目訖. 上曰, 得明下之, 褒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應坐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 上曰, 汝以名祖之血孫, 爲逆賊之繼後孫, 雖

不免爲緣坐，而敢與此輩，綢繆相從乎？招辭云云。上命書陽祚問目訖。上曰，褒下之，陽祚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念佛何故爲之？招辭云云。上曰，石片皆書南無阿彌陀佛何也？汝以逆賊之種子，敢爲念佛，必有隱情矣。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志與光哲事，汝不知乎？招辭云云。上曰，汝雖至此，其本則士也，以士而念佛，何心也？推是心，何事不可爲也？招辭云云。上曰，更無酌處之理，斯速遲晚。陽祚刑準次。上命書正觀問目訖。上曰，陽祚下之，正觀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逆賊假兵使之親姪，又犯亡命之罪，宜乎象示，而尙此偃息矣。汝與來復相親往來之事，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之書札中，有來後年出陸之說，汝豈有出陸之機耶？其間曲折，直告之。招辭云云。上曰，來復以爲，汝輩聚會謀議，而汝之文書中，有徒流案，尤豈不殊常乎？將欲爲汝叔之事乎？招辭云云。正觀刑準次，上命書濟海問目訖。上曰，正觀下之，濟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鏡之姪，宜卽死矣，而況與應坐諸賊，往來綢繆乎？招辭云云，濟海刑準次。判義禁洪啓禧曰，卽見能孝之搜探文書中，有一帖字，觀其辭語，可見聖化之無處不暨，且其叔匡師戒飭子姪之書，亦入其中，字字言言，皆有感恩懷化之意矣。上曰，匡師則本如此矣。應淳曰，獄情將不至[知]止於何境，此非可長語者也。上命書戀問目訖。上曰，濟海下之，戀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汝以逆賊惠之四寸，又與來復謀逆，而敢爲隱諱之計乎？招辭云云，戀刑準次。上命書夢鼎問目訖。上曰，戀下之，夢鼎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賊應坐，敢與來復輩，交通謀逆乎？招辭云云。夢鼎刑準次。上命書運海問目訖。上曰，夢鼎下之，運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一鏡之姪，乃敢忍杖不服乎？招辭云云。運海刑準次。上命書翼佐問目訖。上曰，運海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巨源之孫，運和之姪，又與來復，謀議不軌，汝豈得生乎？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父汝祖之所爲，汝敢稱冤乎？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能孝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以鼎衍之故，汝家至此也。然則鼎衍之子姪，卽汝之讎也。何心言語乎？招辭云云。上命書天大·彥杓問目訖。上曰，能孝下之，天大·彥杓並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天大則雖以同參謀逆遲晚，而當初酌處，蓋以多告同黨也。彥杓則雖爲知情不告，而既有持杖驅逐之說，故十分酌處矣。今者亂逆層生之時，不得不特允臺啓，將欲正法，卽爲遲晚結案。招辭云云。上曰，乙亥旣已直招，而今日變辭可乎？招辭云云。上曰，乙丙日記，持入考奏，可也。啓禧曰，取考日記，則諸罪人文案，俱甚草率矣。應淳

曰, 卽見丙子鞫案, 則所錄甚疎略, 其時禁堂及當該問郎,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命書昌翼問目訖. 上曰, 天大·彥杓下之, 昌翼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與賊志家結婚,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上曰, 志之結婚時, 春躋果以爲無妨, 而且給婚紙, 則汝於乙亥, 何不言之乎? 招辭云云. 上曰, 乃敢推諉於作故之人乎? 右議政金相福曰, 庚申年春躋家設宴時, 此人有嫌怨, 故敢爲逞毒之計矣. 上曰, 依法. 上曰, 汝終不以誣引自服乎? 招辭云云. 上曰, 李春躋之任使已久矣, 此等婚姻, 豈有勸成之理乎? 招辭云云. 上曰, 設使春躋勸之, 有可爲之婚, 有不可爲之婚, 豈可以春躋之言, 而爲不可爲之婚耶? 招辭云云. 昌翼刑準次. 上曰, 昌翼下之. 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鳳漢曰, 前判尹南泰齊, 旣已敍用, 其時左尹曹命采, 右尹李光傳[李光溥], 一體敍用. 明日試望, 當擬之人, 甚苟簡云, 前大司諫尹學東及堂上·堂下侍從違罷人, 竝敍用,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命書榮得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以汝祖之故, 汝輩至此, 汝甘受乎, 稱冤乎? 招辭云云. 上曰, 奈何之說, 極勃慢矣. 上曰, 非汝以泰耆之孫而拿來也. 蓋以與來復謀議之事也. 汝敢終始隱諱乎? 且軍器置簿, 是汝之贓物矣, 尤何敢不服乎? 招辭云云. 榮得刑準次. 上命書維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以益寬之孫, 忍杖何益? 直招無隱. 維刑準次. 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 上曰, 維下之, 翼佐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榮得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軍器置簿, 汝與榮得, 共力膽出,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翼佐刑準次. 上命書東渾更推問目訖. 上曰, 翼佐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祖汝認以爲逆乎? 招辭云云. 上曰, 然則汝何爲而對來復言, 吾祖則初無可罪之端云耶? 招辭云云. 東渾刑準次. 上曰, 東渾下之, 諸罪人竝下府. 上命承旨書之曰, 親鞫姑罷, 明日殿座待下教, 只入正時, 堦外皆預爲上闕, 而傳香後舉行. 出榻教

4)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得明·榮得·正觀·東渾·翼佐·褒·彥杓·維·戀·昌翼·夢鼎·敬修等, 榮得·東渾·敬修伏誅. 問得明, 供曰: “臣止接於外村, 榮得輩保授於城內, 渠輩親密與否, 何以詳知?” 更推不服. 得明與元德昭面質. 德昭, 大靜吏也. 德昭曰: “汝不言吾等當有好時乎?” 得明曰: “汝何爲此言?” 問榮得供如前. 加刑不服. 正觀·榮得面

質. 正觀曰: “汝不與東渾等日日往來, 而姜翊周之女官妓月中梅, 作妾贖良乎?” 榮得曰: “贖良則其父爲之矣.” 正觀曰: “汝之三兄弟, 豈不相往來乎?” 榮得曰: “吾母喪時, 暫會矣.” 加刑, 供曰: “臣得妓妾, 免賤率畜, 與本縣倅, 爲妾同壻, 財穀相換以食. 與諸罪人往來綱繆.” 大逆不道結案. 問正觀, 供曰: “榮得以妓作妾, 而妓父姜翊周爲座首, 故榮得身爲官奴, 不爲立役. 其時邑倅曹敬修也, 榮得妾弟, 敬修作妾率去. 其謀議則不知矣.” 加刑不服. 問能孝不服. 問東渾, 供曰: “臣初無綱繆之事?” 加刑不服. 正觀·東渾面質. 正觀曰: “汝於點考時, 與榮得輩, 不同行同坐乎?” 東渾曰: “同受點考, 故同坐矣.” 加刑, 供曰: “與榮得同爲官奴, 故仍與綱繆.” 以大逆不道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雖正法, 豈敢稱冤?” 更推加刑不服. 問褒供曰: “東渾輩相親往來, 而臣則不入其類矣.” 加刑不服. 褒·榮得面質. 褒曰: “汝豈不曰傷痛乎?” 榮得曰: “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 則易生怨心, 汝勿燥燥云乎?” 褒曰: “然矣.” 榮得曰: “吾見嫉於汝與來復, 以有嫉惡之腸故也.” 加刑不服. 問彥杓, 供曰: “若有所知之事, 豈敢欺隱?” 問維加刑不服, 更推加刑不服. 問戀, 供如前不服. 問昌翼, 供如前, 加刑不服. 問夢鼎不服. 問敬修, 供曰: “所丐邑妓, 知其爲榮得妾弟, 而爲所生率來, 萬死無惜.” 教曰: “前大靜縣監曹敬修, 敢與罪人榮得作爲友壻, 官穀那移換給, 此眼無國法. 若不快施邦刑, 何以礪顏世? 亟正邦刑.” 仍命榮得弟二人及姜翊周·月中梅, 竝拿來.

5)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璣,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李澂,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鎭·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鎭,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晚曰, 昨日終日殿座, 侵夜還內,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問郎金魯鎭·洪檢, 見擬試望, 謂有情勢, 纔已違罷, 而問郎則雖在罷散中, 例爲啓下矣, 兩問郎, 使卽入侍, 何如? 上曰, 依爲之. 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問郎持草紙進前. 洪樂純進伏. 上命書得明更推問目訖. 上曰, 得明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祖非以血黨入

於逆也，特以人事之僮侗也。今汝亦然，故昨日不爲刑推，而今又平問，無隱直招，則可免刑推矣。招辭云云。上曰，緣坐諸賊之互相綱繆親密之狀，汝則必見之矣，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得明下之，彥杓上之。上曰，濟州應坐諸人謀議之狀，汝必見之矣，隨見直告。招辭云云。上曰，汝今上來，法當結案，予雖參酌，而執法之臣，何容仍置？此事若直告，則可以立功矣。招辭云云。上曰，所陳實矣。榮得·東渾·能孝·維·褒等，締結往來之說，果不出所料矣。上曰，得明·翼佐，亦入其中乎？招辭云云。上命書褒更推問目訖。上曰，彥杓下之，褒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輩五六人作隊往來之事，已有明白指告者，汝敢隱諱乎？招辭云云。上曰，依法。招辭云云。上曰，汝既以六人納招矣。予則聞是七人云，其中一人，必是汝矣。直告之。招辭云云，褒刑準次。上曰，汝招稍實，故姑解縛矣。上命書榮得更招問目訖。上曰，褒下之，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與東渾輩六人切親往來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汝之同類中，已有指告者，汝敢欺隱乎？招辭云云。上曰，面質時若見屈，則當正法矣。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榮得下之，維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奸狀已露，更無可問，而又出於同類之招，無可欺隱矣。汝之爲汝祖稱冤之說話，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不思之說，極無據矣。他人則發明，而渠則以爲不思云，可見其常存於心也。上曰，依法。上曰，汝祖造船調馬之事，姑置勿論，予辭位時，乃敢曰，東宮之事，不過爲問寢視膳云，此一言，已是大逆矣。上曰，各別訊問，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今則無可隱矣。汝輩聚首謀議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已出於同類之招，汝敢隱諱乎？若不直告，則當依汝祖之例，卽爲梟示矣。招辭云云。上命書能孝更推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入於七人中，綱繆往來之狀，既已綻露矣，汝於此輩，猶恐其相近，可也，乃敢與之爛漫親密乎？招辭云云。上曰，能孝下之，褒與榮得，竝上之。上曰，兩人使之面質。招辭云云。上曰，褒之佯屈，極妖惡矣。李壽鳳曰，乙亥年致雲與尙白面質時，尙白故見屈矣。此罪人情態，恰似尙白，尤極妖惡矣。上曰，然矣。榮得下之，褒依法，褒刑準次。上曰，褒下之，維上之。上曰，依法，維刑準次。上曰，維下之，榮得上之。上曰，依法。上曰，汝之情狀，綻露無餘，而褒之初既直招，未又變辭者，尤極妖惡，豈可以此，而謂之見勝於面質乎？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曰，榮得下之，東渾上之。上曰，依法，東渾刑準次。上曰，東渾下之，翼佐上之。上曰，依法，翼佐刑準次。上曰，翼佐下之，昌翼·正觀，竝上之。上曰，竝依法，昌翼·正觀刑準次。上曰，正觀招中，榮得卜妾之事，尤爲放恣無狀矣。上曰，昌翼下之，榮得上之，與正觀面質。

招辭云云.上曰, 榮得依法.上曰, 汝之初招, 以爲邂逅相逢矣.今乃爛漫往來於各其家中, 且汝以泰耆之孫, 緣坐爲奴, 乃敢以官婢作妾乎? 是心亦逆也.招辭云云.上曰, 榮得同生二人及姜哥□□, 竝卽發捕, 可也.鳳漢曰, 濟州人誠過甚矣.敢以其女, 許給於連坐之逆孽, 其在懲後之道, 恐不可尋常處之矣.上曰, 其女月中梅, 亦不可不竝爲拿來矣.其女竝其父, 使捕校, 隨往都事, 拿來好矣.鳳漢曰, 捕將使之入侍,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榮得刑準次.上曰, 榮得下之, 正觀依法.上曰, 汝招似實, 而猶不盡吐, 榮得謀逆節次, 一一直告, 招辭云云.上曰, 以榮得·東渾爲魁之說, 果是矣.曹敬修之與逆賊, 爲妾同婿, 而出穀相助之事, 又豈非逆賊乎? 亦卽發捕, 可也.上曰, 濟州京主人處, 問其去住, 則可知其在鄉與否, 以此分付捕將, 可也.正觀刑準次.上曰, 正觀下之, 榮得上之.上曰, 依法.上曰, 汝之情狀, 綻露無餘, 而終不直告, 然前後已納之招, 已是逆心, 汝以汝祖之笱子, 故遂至此境矣.蓋此憤懣之心, 蓄積於中, 故自歸怨國矣.汝既以逆心占於口, 又以自歸怨國四字, 口招遲晚, 可也.榮得刑十二度結案.上曰, 榮得下府, 東渾上之.上曰, 依法.上曰, 榮得既已承款, 汝既同一心腸, 則一向抵賴, 有何所益? 汝輩聚首謀議之狀, 既已綻露無餘, 直爲遲晚.招辭云云.上曰, 恰似逆■■之同歸可樂之語矣.東渾結案, 上命承旨書之曰, 大逆遲晚罪人榮得, 頃者下教依.

6)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上御金商門, 頒教: “王若曰. 嗚呼! 邦運多艱, 亂逆肆行. 辛丑之耆·輝, 一轉而爲壬寅之鏡·虎, 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 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 賴上天默佑, 祖宗陰隲, 前後諸賊, 咸伏王章, 至《闡義昭鑑》成, 而義理大明, 如日中天. 雖輿僂婦孺, 莫不曉然洞悉, 誰謂耆·輝等之遺種, 不俊梟音, 潛懷凶圖. 何幸端緒畢露, 諸逆就戮, 快正典刑, 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 其尙明聽. 嗚呼! 今此獄情, 實由來復而發. 蓋來復以乙亥凶賊鼎衍之從子, 緣坐投配於耽羅, 與諸凶遺孽, 打成一片, 綢繆陰謀, 窮凶叵測, 頃於鞠訊之際, 一一納款, 所告諸凶之中, 最頑狡大包藏者, 卽七賊, 曰榮得, 泰耆之孫也, 曰東渾, 鳳輝之孫也, 曰得明, 聖時之孫也, 曰翼佐, 巨源之孫也, 曰褒, 詹之孫也, 曰維, 益寬之孫也, 曰能孝, 眞儒之從孫, 興孝之弟也. 至於患之弟姪戀·夢鼎, 一鏡之姪, 濟海·運海, 天永之姪正觀, 亦皆附麗於七賊, 同在海島, 綢繆相從. 其所以聚首而密謀, 仰親

而俯畫者，無非怨國之言，逞凶之圖。尤可痛者，榮得·東渾，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謂有何罪？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互相非斥。榮得·能孝之暗地酬酢，至凶且慝，有不忍聞。此固辛壬以來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嗚呼！尙忍言哉？得明·翼佐·褒·維之徒，戀·夢·濟運·正觀之類，其所揣摩團聚，如蛇蚓之糾結者，透露無餘。至若昌翼·彥杓，則志之姻親血黨，陽祚則明祚之弟，亦皆情節難掩，亟就顯戮，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予尤有所痛惋者，來復與七賊，潛謀，乘夜訪壩，旨意陰慘，殆若德鼎之密探坦意。予以念昔之意，雖斬執法之請。而敬修以曾任大靜者，與榮得爲友壻，授其糧而助食，囑縣吏而欲隱，若非德昭，何以知此？究其心，有浮於榮得。所惜者不盡承款，不能快施當律也。嗚呼！予嘗以涵育覆燾爲心，庶幾使梟獍輩革心，而醜類惡種，猶復接迹而起。前由逆穢，今由賊復，可見乾道之昭昭，天綱之恢恢，照魔高懸，魑魅何逃？《昭鑑》之作，蓋欲明天理淑人心，將見凶醜屏迹，鬼蜮遁形，而奈之何妖腰亂領，又輒干紀，一至此哉？所可幸者，一允來復之啓，而凶逆之情狀，一皆呈露。此非予也，卽彼蒼也。自此而梟獍餘種，將有所畏，《昭鑑》之義理，尤益光明矣。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明聽予言，其各自勉同寅協恭，輔我邦家。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提學洪啓禧製進。】

7)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諭中外大小臣僚章甫書，王若曰，嗚呼，邦運多艱，亂逆肆行，辛丑之耆·輝，一轉而爲壬寅之鏡·虎，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錐。賴上天默佑，祖宗陰鷺，前後諸賊，咸伏王章。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如日中天，雖在輿儻婦孺，莫不曉然洞悉。誰謂耆·輝等之遺種，不悛梟音，潛懷凶圖，又有今日之鞠？神人之憤，尙復何言？何幸端緒畢露，諸逆就戮。茲當親臨南門，序立百官，快正典刑之餘，渙發明旨，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其尙明聽。嗚呼，今此獄情，實由來復而發，蓋來復，以乙亥萬古所無凶賊鼎衍之從子，緣坐投配於耽羅，與諸凶遺孽，打成一片，網繆陰謀，窮凶叵測。頃於鞠訊之際，一一納款，所告諸凶之中，最頑狡大包藏者，卽七賊。曰榮得，泰耆之孫也，曰東渾，鳳輝之孫也，曰得明，聖時之孫也，曰翼佐，巨源之孫也，曰褒，詹之孫也。曰維，益寬之孫也，曰能孝，眞儒之從孫，興孝之弟也。至於惠之弟·姪戀·夢鼎，一鏡之姪濟海·運海，天永之姪正觀，亦皆附麗於七賊，同在海島，網繆相從。其所以聚首而密謀，仰視而俯畫者，無非怨國之言，逞凶之圖。尤可痛者，榮得·東渾，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謂有何

罪, 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 互相非斥. 榮得·孝能之暗地酬酢, 至凶且憎, 有不忍聞, 此固辛丑以來, 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 嗚呼, 尚忍言哉? 得明·翼佐·褒·維之徒, 戀·夢·濟·運·正觀之類, 其所揣摩團聚, 如蛇蚓之糾結者, 透露無餘. 至若昌翼·彥杓, 則志之姻親血黨, 陽祚則明祚之弟, 亦皆情節難掩, 亟就顯戮, 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 予尤有所痛惋者. 來復與七賊潛謀, 乘夜訪壘, 旨意陰慘, 殆若德鼎之密探坦意. 予以念昔之意, 雖斬執法之請, 而敬脩以曾任大靜者, 與榮得爲友壻, 換其糧而助食, 囑縣吏而欲隱, 若非德昭, 何以知此? 究其心, 有浮於榮得. 所惜者, 不盡承款, 不能快施當律也. 嗚呼, 予嘗以涵育覆燾爲心, 庶幾使梟獍輩革心, 而醜類惡種, 猶復接跡而起. 上天至仁, 而沴氣所鍾, 乃至於是, 寧不痛心? 前由逆裔, 今由賊復, 可見乾道之昭昭, 天網之恢恢, 照魔高懸, 魑魅何逃? 昭鑑之作, 蓋欲明天理淑人心, 將見凶醜屏跡, 鬼蜮遁形, 而奈之何妖腰亂領, 又輒干紀, 一至此哉? 所可幸者, 一允來復之啓, 而凶逆之情狀, 一皆呈露, 此非予也, 卽彼蒼也. 自此而梟獍餘種, 亦當快滌心腸, 忠良將有所恃, 奸凶將有所畏, 海東之國是, 因此尤嚴, 昭鑑之義理, 又益光明矣. 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 明聽予言, 其各自勉, 同寅協恭, 輔我邦家. 故茲教示, 想宜知悉. 弘文提學洪啓禧製進

78. 윤길갑(尹吉甲)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윤지<尹志> 손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2월 11일.

○ 發遣禁府都事於羅州, 捕尹志等諸賊. 志逆賊就商子也. 謫在羅州, 陰懷逆圖, 怨望朝廷, 締結徒黨, 張掛凶書. 全羅監司趙雲達鉤得其情節, 馳奏於朝, 上卽命發捕.

2)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柳顯章,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成府報狀, 當部成冊, 忠淸·京畿監司牒呈, 則逆賊就商·志·師尙·眞儒·明誼·楷·聖時·宗廈·鳳輝·泰耆·明彥·夏宅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就商弟徵商, 咸鏡道茂山府爲奴, 姪勲, 慶尙道柒原縣, 流三千里安置, 姪慙, 三水府安置, 逆賊志孫吉甲, 大靜縣爲奴. 孫女吉亥, 晉州牧爲婢, 孫女吉丑, 定平府爲婢, 孫女終生, 咸興府爲婢, 逆賊師尙孫修範, 濟州牧旌義縣爲奴, 孫修溫, 南海縣爲奴, 孫福伊, 黃海道長湍府白翎鎮爲奴, 子婦敬郎, 明川府爲婢, 子之妾英梅, 機張縣爲婢, 姪獻哲, 金海府安置, 逆賊眞儒孫承孝, 巨濟府爲奴, 子婦大阿只, 泗川縣爲婢, 姪匡鼎, 吉州牧安置, 姪匡彥, 熊川縣安置, 姪匡贊, 明川府安置, 姪匡顯, 機張縣安置, 匡明, 寧海府安置, 姪匡順, 端川府安置, 逆賊楷孫采, 濟州牧爲奴, 弟樾, 甲山府爲奴, 姪東呂, 三水府安置, 姪東疇, 富寧府安置, 姪東獻, 甲山府安置, 姪東進, 鏡城府安置, 姪東俊, 茂山府安置, 逆賊聖時孫得貞, 濟州牧爲奴, 孫得明, 大靜縣爲奴, 孫得望白翎鎮爲奴, 孫重曦, 南海縣爲奴, 孫孝達, 全羅道珍島郡爲奴, 孫孝文, 巨濟府爲奴, 子婦愛, 昆陽郡爲婢, 子婦喜, 延日縣爲婢, 逆賊宗廈孫采修, 濟州牧爲奴, 孫懿修, 南海縣, 孫五哲, 白翎鎮爲奴, 孫壽得, 豐川牧椒島鎮爲奴, 孫五兼, 巨濟府爲奴, 孫然福, 南海縣爲奴, 孫然喜, 珍島郡爲奴, 逆賊鳳輝 子婦幸每, 泗川縣爲婢, 孫東渾, 大靜縣爲奴, 孫女賢門, 昆陽郡爲婢, 弟鳳徵, 甲山府爲

奴, 姪昌垣, 旌義縣安置, 姪奎垣, 茂山府安置, 姪景垣, 長髻縣安置, 逆賊泰耆子婦一梅, 興海郡爲婢, 孫榮集, 旌義縣爲奴, 孫英得, 大靜縣爲奴, 孫榮喆, 珍島郡爲奴, 孫大慰, 巨濟府爲奴, 孫大承, 南海縣爲奴, 逆賊明彦孫址崇, 以夏宅之子, 出繼於夏定, 減死, 濟州牧爲奴, 逆賊夏宅孫文穆, 三水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師尙妾月愛, 年過七十, 最蓮, 年過六十, 聖時子婦惠伊, 宗廈子婦畢英, 年今六十, 依律文竝免坐, 逆賊明誼·■·■·濂·光哲, 應坐諸人及上頃諸逆等應及緣坐之類及在外未查出者, 待其該道之查報, 舉行, 何如? 傳曰, 允.

79. 서가오금(徐加五金)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김일경 소하 6적 서종하(徐宗廈)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當部·忠淸·京畿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世良·益寬·嵇·縑·應坐諸人及逆賊宗廈·泰耆·楷·夏宅·■等應坐未及查出者, 成冊以來矣. 逆賊世良 孫終童, 濟州牧爲奴, 孫煜, 濟州牧大靜縣爲奴, 孫炫, 慶尙道巨濟府爲奴, 孫煥, 南海縣爲奴, 孫瑩, 珍島郡爲奴, 孫榮, 咸鏡道三水府爲奴, 孫淡, 濟州牧旌義縣爲奴, 孫燦, 富寧府爲奴, 孫甲金, 黃海道豐川府椒島鎮爲奴, 姪應心, 鏡城府流三千里安置, 姪應翼, 機張縣安置, 逆賊益寬 孫維, 大靜縣爲奴, 姪穆衡, 鏡城府流三千里安置, 逆賊嵇母次願, 長鬐縣爲婢, 兄■■, 甲山府爲奴, 弟岱, 吉州牧爲奴, 妹泰惠, 昆陽郡爲婢, 叔綸, 寧海府流三千里安置. 姪輔國, 三水府流三千里安置, 逆賊縑妻小愛, 河東府爲婢, 子婦貴今, 鎭海縣爲婢, 子婦惠臨, 柒原縣爲婢, 子婦壯伊, 熊川縣爲婢, 叔得衡, 明川府安置, 孫壽曾, 巨濟府爲奴, 孫女福媛, 晉州牧爲婢, 孫女連伊·孫老味, 熊川縣竝爲奴婢, 逆賊宗廈 子之妾玉每, 延日縣爲婢, 孫千年金, 三水府爲奴, 孫加五金, 大靜縣爲奴, 孫女閏德, 定平府爲婢, 孫女閏安, 鏡城府爲婢, 孫女福任·於屯介, 固城縣竝爲婢, 逆賊泰耆子婦一順, 巨濟府爲婢, 逆賊楷孫女甲伊, 興海郡爲婢, 逆賊夏宅妻景任, 丹城縣爲婢, 子婦可愛, 昌原府爲婢, 子婦最愛, 咸興府爲婢, 孫應龍·又龍·慶龍等, 長湍府白翎鎮竝爲奴, 孫女妙喜, 咸興府爲婢, 逆賊■弟審, 富寧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而諸逆應坐之類未及查出者, 待其各該道查報舉行, 何如? 傳曰, 允.

80. 한성(韓惺)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1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한세량〈韓世良〉 손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8일.

○ 掌令李吉輔, 正言宋文載所懷: “柳東垣既以借示筵說於逆志事發配, 而其後與光哲相親之狀, 又發於賊光之招, 則不可不一問. 請柳東垣設鞫嚴問. 世良疏中四字凶言, 實與耆筭, 輝疏, 一串貫來, 而神人之憤, 尚未快雪. 請世良, 以大逆律舉行. 嵇, 縲妖逆前古所無, 而凶頑徑斃, 天誅未加. 請嵇, 縲以大逆律舉行. 益寬之凶謀, 逆節, 狼藉於其時按撫使之狀, 而天網太疎, 王法未行. 請益寬以大逆律舉行.” 上并允之.

2)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當部·忠淸·京畿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世良·益寬·嵇·縲·應坐諸人及逆賊宗廈·泰耆·楷·夏宅·■等應坐未及查出者, 成冊以來矣. 逆賊世良 孫終童, 濟州牧爲奴, 孫惺, 濟州牧大靜縣爲奴, 孫炫, 慶尙道巨濟府爲奴, 孫煥, 南海縣爲奴, 孫瑩, 珍島郡爲奴, 孫榮, 咸鏡道三水府爲奴, 孫淡, 濟州牧旌義縣爲奴, 孫燦, 富寧府爲奴, 孫甲金, 黃海道豐川府椒島鎮爲奴, 姪應心, 鏡城府流三千里安置, 姪應翼, 機張縣安置, 逆賊益寬 孫維, 大靜縣爲奴, 姪穆衡, 鏡城府流三千里安置, 逆賊嵇母次願, 長鬐縣爲婢, 兄■■, 甲山府爲奴, 弟岱, 吉州牧爲奴, 妹泰惠, 昆陽郡爲婢, 叔綸, 寧海府流三千里安置. 姪輔國, 三水府流三千里安置, 逆賊縲妻小愛, 河東府爲婢, 子婦貴今, 鎭海縣爲婢, 子婦惠臨, 柒原縣爲婢, 子婦壯伊, 熊川縣爲婢, 叔得衡, 明川府安置, 孫壽曾, 巨濟府爲奴, 孫女福媛, 晉州牧爲婢, 孫女連伊·孫老味, 熊川縣竝爲奴婢, 逆賊宗廈 子之妾玉每, 延日縣爲婢, 孫千年金, 三水府爲奴, 孫加五金, 大靜縣爲奴, 孫女閏德, 定平府爲婢, 孫女閏安, 鏡城府爲婢, 孫女福任·於屯介, 固城縣竝爲婢, 逆賊泰耆子婦一順, 巨濟

府爲婢，逆賊楷孫女甲伊，興海郡爲婢，逆賊夏宅妻景任，丹城縣爲婢，子婦可愛，昌原府爲婢，子婦最愛，咸興府爲婢，孫應龍·又龍·慶龍等，長湍府白翎鎮竝爲奴，孫女妙喜，咸興府爲婢，逆賊■弟審，富寧府爲奴，而右罪人等，或在京或居外邑。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各其配所，而諸逆應坐之類未及查出者，待其各該道查報舉行，何如？傳曰，允。

81. 윤웅이(尹雄伊)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윤광철<尹光哲>의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8일.

○ 敎曰: “光哲不可循例行刑, 當親臨崇禮門, 快正王法, 使都民咸觀.” 於是, 御步輦由宣仁門出, 命王世子隨後. 仍御崇禮門, 命序立百官, 斬光哲於青坡前路, 孥籍如法, 傳示首級, 肢脚, 一如逆徵例舉行.

2)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光哲, 既以承服正刑. 其父母·妻妾·子女·祖孫·姊妹·兄弟·子之妻妾, 伯叔父·兄弟之子, 年歲·姓名·存歿·居住, 令漢城府考出帳籍, 亦爲分付五部及各該道, 應坐諸人, 一一查出, 成冊牒報後, 依法典舉行, 而籍沒家產, 破家瀦澤, 降邑號罷守令等事, 令各該司, 奉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11일.

○ 柳顯章,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成府報狀, 當部成冊, 忠淸·京畿監司牒呈, 則逆賊就商·志·師尙·眞儒·明誼·楷·聖時·宗廈·鳳輝·泰耆·明彥·夏宅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就商弟徵商, 咸鏡道茂山府爲奴, 姪勲, 慶尙道柒原縣, 流三千里安置, 姪慙, 三水府安置, 逆賊志孫吉甲, 大靜縣爲奴. 孫女吉亥, 晉州牧爲婢, 孫女吉丑, 定平府爲婢, 孫女終生, 咸興府爲婢, 逆賊師尙孫修範, 濟州牧旌義縣爲奴, 孫修溫, 南海縣爲奴, 孫福伊, 黃海道長淵府白翎鎮爲奴, 子婦敬郎, 明川府爲婢, 子之妾英梅, 機張縣爲婢, 姪獻哲, 金海府安置, 逆賊眞儒孫承孝, 巨濟府爲奴, 子婦大阿只, 泗川縣爲婢, 姪匡鼎, 吉州牧安置, 姪匡彥, 熊川縣安置, 姪匡贊, 明川府安置, 姪匡顯, 機張縣安置, 匡明, 寧海府安置, 姪匡

順, 端川府安置, 逆賊楷孫采, 濟州牧爲奴, 弟樾, 甲山府爲奴, 姪東呂, 三水府安置, 姪東疇, 富寧府安置, 姪東獻, 甲山府安置, 姪東進, 鏡城府安置, 姪東俊, 茂山府安置, 逆賊聖時孫得貞, 濟州牧爲奴, 孫得明, 大靜縣爲奴, 孫得望白翎鎮爲奴, 孫重曦, 南海縣爲奴, 孫孝達, 全羅道珍島郡爲奴, 孫孝文, 巨濟府爲奴, 子婦愛, 昆陽郡爲婢, 子婦喜, 延日縣爲婢, 逆賊宗廈孫采修, 濟州牧爲奴, 孫懿修, 南海縣, 孫五哲, 白翎鎮爲奴, 孫壽得, 豐川牧椒島鎮爲奴, 孫五兼, 巨濟府爲奴, 孫然福, 南海縣爲奴, 孫然喜, 珍島郡爲奴, 逆賊鳳輝子婦幸每, 泗川縣爲婢, 孫東渾, 大靜縣爲奴, 孫女賢門, 昆陽郡爲婢, 弟鳳徵, 甲山府爲奴, 姪昌垣, 旌義縣安置, 姪奎垣, 茂山府安置, 姪景垣, 長鬐縣安置, 逆賊泰耆子婦一梅, 興海郡爲婢, 孫榮集, 旌義縣爲奴, 孫英得, 大靜縣爲奴, 孫榮喆, 珍島郡爲奴, 孫大慰, 巨濟府爲奴, 孫大承, 南海縣爲奴, 逆賊明彥孫址崇, 以夏宅之子, 出繼於夏定, 減死, 濟州牧爲奴, 逆賊夏宅孫文穆, 三水府爲奴, 而右罪人等, 或在京或居外邑,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師尙妾月愛, 年過七十, 最蓮, 年過六十, 聖時子婦惠伊, 宗廈子婦畢英, 年今六十, 依律文竝免坐, 逆賊明誼·濂·光哲, 應坐諸人及上頃諸逆等應及緣坐之類及在外未查出者, 待其該道之查報, 舉行,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22일.

○ 蔡濟恭, 以義禁府言啓曰, 逆賊浩孫宅勳, 濟州牧爲奴, 孫女孝順·末順, 子婦小愛, 永興府竝爲婢, 姪柱廈, 三水府流三千里安置. 姪柱恒, 鏡城府安置, 姪柱漢, 昆陽郡安置, 姪柱明, 機張縣安置. 姪柱東, 延日縣安置. 逆賊鳳輝姪陽垣, 明川府安置. 逆賊明彥子婦莫喜, 晉州牧爲婢. 逆賊尙白母任伊, 盈德縣爲婢, 女貞福, 孫女莊任, 寧海府竝爲婢, 子婦福伊, 明川府爲婢, 子婦孝愛, 吉州牧爲婢. 逆賊志妾分伊, 女福蕙, 北青爲婢, 女老愛, 端川府爲婢. 逆賊光哲子雄伊, 年十五年未滿, 大靜縣爲奴, 子土蓮, 年九年未滿, 濟州牧爲奴. 妻惡只, 濟州牧爲婢. 右罪人等, 或在京或在外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82. 박재하(朴載河)

- 신분: 관리(전라좌수사).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3일.
- 해배 연월: 1756년(영조 32) 8월 22일.
- 사유: 정치 변동(윤지<尹志> 연좌=윤상백<尹尙白>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23일.

○ **命配朴載河于大靜縣, 勿限年.** 載河曾經全羅左水使, 而爲尙白所引, 至於拿鞠, 而事竟無實, 上初欲白放, 以其招中有色目之語, 有是命.

2)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24일.

○ 上曰, **罪人朴載河**, 尙白所告, 雖不指的其名, 而其在嚴鞫體之道, 其雖逮捕初招, 所供眞實, 今日欲爲更推, 其欲酌放, 敢以與四寸異色, 肆然初供, 渠以曾經閩帥之武弁, 甲子以後, 何敢復爲黨習? 況今番上告下布之後, 乃敢若此. 事當臬示警衆, 而本事, 旣欲酌處, 則其在審慎之道, 不可置之一律, 十分未減, **與其弟載漢, 大靜縣勿限年定配**, 以其所供推之, **朴載洙之與載河至親**而猶持色目, 今日帳殿, 至稱異色, 不聞則已, 旣聞之後, 亦不可置之, 雖不入此, 可以推其心, 律不可低仰[低昂], **大靜縣同爲勿限年定配**, 其令同歸于滌心. 出楊教

3) 『승정원일기』(권 1134) 1756년(영조 32) 8월 21일.

○ 上曰, 朴載河, 頗好矣. 漢喆曰, 臣待罪銓曹時, 爲金浦郡擇人, 以載河薦用之矣. 上命承旨書之曰, **昨年處分朴載河兄弟**, 不過飭勵武弁之意, 而周年已過, 王者用人, 飭滌宜竝行, 渠想必滌心, 上豈無滌道? 況赦典纔行, 及今不放, 更待何時? 分付該府, **竝放送**. 出楊教 上曰, 此則雖夜, 卽以草記舉行.

4) 『승정원일기』(권1134) 1756년(영조 32) 8월 22일.

○ 金始煥, 以義禁府言達曰, 朴載河兄弟, 不過飭勵, 分付該府, 竝放送, 前都事閔塾, 飭已行, 特爲放送事, 命下矣. 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朴載河·朴載漢·朴載洙, 咸鏡道鏡城府投畀罪人閔塾等, 竝放送事, 分付各該道道臣之意, 敢達. 令曰, 知道.

83-84. 박재한(朴載漢), 박재수(朴載洙)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3월 24일.
- 해배 연월: 1756년(영조 32) 8월 22일.
- 사유: 연좌(윤상백〈尹尙白〉 연루=박재하〈朴載河〉 동생)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23일.

○ **命配朴載河于大靜縣, 勿限年.** 載河曾經全羅左水使, 而爲尙白所引, 至於拿鞠, 而事竟無實, 上初欲白放, 以其招中有色目之語, 有是命.

2)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24일.

○ 上曰, **罪人朴載河**, 尙白所告, 雖不指的其名, 而其在嚴鞫體之道, 其雖逮捕初招, 所供眞實, 今日欲爲更推, 其欲酌放, 敢以與四寸異色, 肆然初供, 渠以曾經閩帥之武弁, 甲子以後, 何敢復爲黨習? 況今番上告下布之後, 乃敢若此. 事當臬示警衆, 而本事, 旣欲酌處, 則其在審慎之道, 不可置之一律, 十分未減, **與其弟載漢, 大靜縣勿限年定配**, 以其所供推之, **朴載洙之與載河至親**而猶持色目, 今日帳殿, 至稱異色, 不聞則已, 旣聞之後, 亦不可置之, 雖不入此, 可以推其心, 律不可低仰[低昂], **大靜縣同爲勿限年定配**, 其令同歸于滌心. 出楊教

3) 『승정원일기』(권 1134) 1756년(영조 32) 8월 21일.

○ 上曰, 朴載河, 頗好矣. 漢喆曰, 臣待罪銓曹時, 爲金浦郡擇人, 以載河薦用之矣. 上命承旨書之曰, **昨年處分朴載河兄弟**, 不過飭勵武弁之意, 而周年已過, 王者用人, 飭滌宜竝行, 渠想必滌心, 上豈無滌道? 況赦典纔行, 及今不放, 更待何時? 分付該府, **竝放送**. 出楊教 上曰, 此則雖夜, 卽以草記舉行.

4) 『승정원일기』(권1134) 1756년(영조 32) 8월 22일.

○ 金始煥, 以義禁府言達曰, 朴載河兄弟, 不過飭勵, 分付該府, 竝放送, 前都事閔塾, 飭已行, 特爲放送事, 命下矣. 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朴載河·朴載漢·朴載洙, 咸鏡道鏡城府投畀罪人閔塾等, 竝放送事, 分付各該道道臣之意, 敢達. 令曰, 知道.

85-86. 김동이(金同伊), 김유제(金有濟)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김일경〈金一鏡〉 인척, 김용경〈金龍鏡〉 서자, 김요경〈金堯鏡〉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金尙魯曰: “鏡賊諸姪, 以鏡賊出繼之故, 初不入於緣坐中, 至今偃息於京鄉之間. 纔因京兆所報, 始乃發覺, 失刑之大, 莫過於此. 龍鏡子弘濟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及庶子大再等六人, 請竝令王府, 分配於耽羅三邑.” 上允之.

2) 『승정원일기』(권 1118) 1755년(영조 31) 4월 18일.

○ 尙魯曰, 鏡賊諸姪, 以鏡賊出繼之故, 當初不入於緣坐中, 至今偃息自在於京鄉之間, 纔因京兆堂上之隨所聞往復, 始乃發覺, 而令京兆查出矣. 失刑之大, 莫過於此, 龍鏡子弘濟, 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 及庶子大再等六人, 竝令王府, 分排於耽羅三邑,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3) 『승정원일기』(권 1118) 1755년(영조 31) 4월 22일.

○ 鄭光忠, 以義禁府言啓曰, 鏡賊當初出繼之故, 諸姪, 不入於緣坐之中, 龍鏡子弘濟及庶子同伊, 九鏡子彭命, 堯鏡子有濟·寅濟, 及庶子大再等, 六人, 竝令王府, 分配於耽羅三邑事, 舉條啓下矣. 逆鏡姪弘濟·寅濟, 全羅道濟州牧定配, 同伊·有濟, 大靜縣定配, 彭命·大再, 旌義縣定配, 而右人等, 或在京, 或在外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而當部查牒中, 大再乞食出往, 不知去處云, 莫重定配罪人, 不可不及時捉得, 分付捕廳及五部, 各別譏捕, 亦令諸道道臣, 嚴飭列邑, 調察捉囚後, 發配, 何如? 傳曰, 允.

87. 강덕준(姜德峻)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해배 연월: 1757년(영조 33) 3월 15일.
- 사유: 연좌(역적 강몽협(姜夢協)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上御內司僕, 親鞫. 教曰: “罪人洪啓文, 姜德俊, 朴慶應, 出於夢協之招, 而無他執贓, 參酌減死, 竝島配.” 持平李壽助, 正言鄭光漢所懷: “洪啓文, 姜德俊, 朴慶應, 既出於大逆夢協之招, 至有稱兵犯闕之語, 則其爲情節, 誠極凶慘. 臣等謂啓文, 德俊, 慶應宜更加嚴鞫, 期於得情.” 上不許.

2)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14일.

○ 鄭光忠以義禁府言啓曰, 罪人洪啓文,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 姜德峻, 大靜縣定配, 朴慶應·濟州牧定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142) 1757년(영조 33) 3월 15일.

○ 李顯重, 以義禁府言啓曰, 疏決單子中, 未及拿來罪人高原郡守趙麟, 甲山前府使安宗奎, 各道定配罪人海南縣閔鎬, 羅州牧黑山島尹光鼎, 三陟府高次奉, 三水府朴致厚, 臨坡[臨陂]縣趙文福, 狼川縣李堪, 淮陽府許構, 康津縣鄭道三, 明川府崔景燮, 結城縣李喜謙, 龍安縣尹鵬舉等放. 鏡城府任珣, 今聞筵奏, 禁錮猶過, 特爲放送. 機張縣李敬玉, 麻田郡權導, 安東府李彥, 忠州牧鄭基安, 唐津縣朴世光, 淮陽府林好榮, 端川府金向成等放. 定配身死未蒙放罪人光陽縣柳漢基, 鍾城府柳師百, 通川郡朴混源, 穩城府金孝溫, 巨濟府朴弘儒, 旌義縣洪啓文, 大靜縣姜德俊, 濟州牧朴慶應, 南海縣金績熙, 鍾城府鄭桂等竝放. 江界府定配罪人柳東垣, 既與干連有間, 其時下教, 亦諱矣. 今當大赦, 宜施曠蕩之

典, 而此等之時, 此等之人, 不可不嚴隄防, 參酌減等. 機張縣李聖望, 今當大赦, 減等. 金海府吳命佑, 熊川縣吳重觀, 減等. 巨濟府趙載敏, 此等大赦, 宜施曠蕩之典, 而此等之人, 不可不弦韋, 特爲減等. 巨濟府荇棘罪人尹光纘, 方當大赦, 特爲減等. 鍾城府林德恒, 減等. 巨濟府崔萬衡, 貪吏, 其若弛張, 於元元, 何? 然今當大赦, 特爲出陸. 萬頃縣古郡山島<定>配罪人鄭東明, 其時雖未執贓, 禁酒之時, 麪孽[麴孽]二字, 不可遽放, 而今當大赦, 特爲出陸減等. 巨濟府黃幹, 方當大赦, 出陸事, 付標啓下矣. 放送事, 發關分付於各其道臣, 減等罪人柳東垣·李聖望·吳命佑·吳重觀·趙載敏·林德恒等, 仍其配所, 減等徒三年改錄, 荇棘罪人尹光纘, 亦爲仍其邑, 減等撤籬後, 徒三年改錄事, 一體分付於該道道臣, 出陸罪人崔萬衡·黃幹等, 慶尙道尙州牧出陸, 鄭東明, 全羅道礪山府出陸, 減等徒三年改錄, 而竝依前罪目, 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88. 김인손(金隣孫)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2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김인제〈金寅濟〉 조카)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2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楊州牧使牒報及成冊, 則逆賊寅濟緣坐人等, 查出以來矣. 寅濟妻彭伊女溫順等, 慶尙道南海縣緣坐爲婢, 姪隣孫, 全羅道濟州牧大靜縣流三千里緣坐安置, 而彭伊·溫順, 時囚楊州牧, 隣孫, 捉囚捕廳,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89-90. 김계삼(金戒三), 김희득(金喜得)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5월 2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김일경〈金一鏡〉 종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2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依定奪, 逆鏡從孫耀業, 全羅道濟州牧定配, 戒三, 大靜縣定配, 戒男, 旌義縣定配, 幸得, 濟州牧定配, 喜得, 大靜縣定配, 興得, 旌義縣定配, 而右罪人等, 或囚捕廳, 或囚外邑,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91. 목수익(睦守益)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6월 1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목호룡〈睦虎龍〉 조카, 목진흥〈睦震興〉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20) 1755년(영조 31) 6월 12일.

○ 沈鏞, 以義禁府意啓曰, 逆賊虎龍姪震興·震福等所生子查出後, 分配耽羅事, 舉條曾已啓下矣. 卽接慶尙監司查報及成冊, 則震福本無所生, 而震興子守益, 捉囚昆陽郡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全羅道濟州牧大靜縣配所, 何如? 傳曰, 允.

92-95. 김운해(金雲海), 김제해(金濟海), 윤몽정(尹夢鼎), 윤연(尹戀)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6월 15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 1763년(영조 39) 10월 3일(사망).
- 사유: 모역(심래복 모반사건, 역적 김일경〈金一鏡〉 조카, 윤혜〈尹惠〉 조카, 사촌 동생)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20) 1755년(영조 31) 6월 1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咸鏡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一鏡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鏡, 庶姪子太海, 全羅道濟州牧流三千里緣坐安置, 庶姪子濟海, 大靜縣安置, 庶姪子成海, 旌義縣安置, 庶姪子壽海, 濟州牧安置, 庶姪子雲海, 大靜縣安置, 而逆鏡種子, 不可食息, 查出後, 雖年不滿者, 依逆黯例, 分配濟州事, 亦有傳教矣. 逆鏡庶從孫渠正(金), 濟州牧島配, 庶從孫辰柱, 旌義縣島配, 庶從孫渠正, 大靜縣島配, 而右罪人等, 時囚於鍾城·會寧·茂山等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又啓曰, 逆賊惠, 逆賊侄等, 應坐諸人, 捉囚捕廳矣, 逆賊惠叔觀商, 全羅道濟州牧流三千里緣坐安置, 姪子夢鼎, 大靜縣安置, 姪子和鼎, 旌義縣安置, 姪子龍得, 濟州牧安置, 而逆惠至親, 不可食息, 查出後, 依逆黯例, 分配濟州事, 亦有傳教矣. 逆惠庶四寸弟戀, 大靜縣島配, 逆賊侄, 姪子基堊, 咸鏡道茂山府流三千里緣坐安置, 而右罪人等, 俱囚於捕廳,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壘·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夢鼎·濟海·運海·陽祚·彥杓·昌翼·天大等. 初逆賊來復告榮得等, 以凶孽緣坐, 謫于島, 每發怨國之言, 往覘在謫宗臣壘, 爲推戴之謀, 上旣誅來復, 命逮捕諸賊, 至是竝拿. 至榮得文書, 有軍器置簿, 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 現發於發捕金吾郎. 上竝親問之. 壘供曰: “臣年前得病島中無醫. 逆衍之庶姪, 頗解醫理, 故果爲邀見. 又有一人隨來, 問之則

其嫡兄云，而不接一言矣。”問榮得，供曰：“軍都目及軍器文書，受價書給於軍器色吏，而此是會案文書，故更書以納。來復則初不相知。”更推刑訊不服。問得明供曰：“臣於點考時，雖見來復，初無酬酢。”問維供曰：“雖知來復之面，實無接談之事。”更推維，供曰：“來復則未嘗接話，榮得則相親。”刑訊不服。問褒供曰：“臣不知來復，點考時，只知其面。”問能孝，供曰：“臣遭母喪時，來復爲弔喪而來，而既無相弔之義，故不爲受弔。其後臣尋採鰻人，往于渠家，八年之間四次逢着。而心中如食敗肉，每自不好。”問正觀，供曰：“文書中潤碩卽大靜官奴曹潤碩也。厥漢來請代書，故果書置之，入於文書中矣。徒流案一節，大靜吏輩不能書之，給升米於臣，而使書給，故臣書之矣。”刑訊不服。問翼佐，供曰：“來復面貌則臣豈不知？”刑訊不服。更推翼佐供曰：“榮得則臣果知之。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故欲束冊而置之。”榮得處加刑不服。問戀，供曰：“點考時，來復則果相見。臣在光州，惠在春川，渠等之事，豈相知乎？”刑訊不服。問夢鼎，供曰：“來復面目則臣果知之。”刑訊不服。問濟海，供曰：“臣便同常漢，爲人耕田，不識一字。”刑訊不服。問運海，供曰：“臣若有所知之事，則豈不直告？”刑訊不服。問陽祚，以文書中怪誕之書，左道之文，供曰：“臣欲無物慾，故每念佛，而非有邪心。與志·光哲諸賊連姻之事，心常恨之，故志賊居謫時，亦無書札往復。玉樞經曾無所讀之事，主人爲祈禱而有之矣。”刑訊不服。問彥杓，供曰：“臣於乙亥年，以見志賊凶書被鞠，以無端緒，蒙酌處之恩。若有可達者，乙亥親問時，豈不盡達乎？”問昌翼，供曰：“志之孫女通婚，而臣非門長，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果出於藉重之心矣。”刑訊不服。問天大，供曰：“臣於望華樓下場市，見樓上掛書，朴順才者摘取，而時值空官，故臣傳于座首柳頤泰。臣與志同參，而盡知其中事，故乙亥皆已直招矣。”命諸囚竝下府。

3)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癸未九月二十八日辰時，上御太僕。親鞠入侍時，行都承旨沈璫，右承旨鄭夏彥，左副承旨李彥衡，右副承旨金應淳，同副承旨尹得雨，記事官俞彥鎬，事變假注書沈重奎，記事官韓後樂·金敍九，領府事申晚，領議政洪鳳漢，左議政尹東度，右議政金相福，判義禁洪啓禧，同義禁李應協·元仁孫，大司憲鄭光忠，大司諫金始燠，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以次進伏訖。領府事申晚曰，夜間，聖體，若何？上曰，一樣矣。晚曰，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此時則三煎以入, 可也. 右副承旨金應淳曰, 問郎不即待令於文書床,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上曰, 罪人堦上之. 上曰, 判義禁問之. 上曰, 戊申後初見汝面, 汝以此樣上來, 予豈料之乎? 上曰, 汝孫書中以爲, 奴僕外勿接他人云, 旣知汝事, 故書辭然矣. 汝有接見人客之事乎? 招辭云云. 見推案, 下同. 上曰, 然矣. 果是來復矣. 上曰, 今番厥漢之事, 正如趙哥之發言於汝兄也. 但汝兄則聽而不答, 汝則無聽, 而又無答矣, 然厥漢若如趙哥之言於汝兄, 則汝將何以處之? 招辭云云. 上曰, 實矣. 上曰, 兩司在彼矣. 必不仍置, 然則汝不得更往濟州, 又不得生踰囹圄矣. 汝雖生, 亦何益也? 若無汝身, 則豈有是事乎? 招辭云云. 上曰, 下教, 不能領會矣. 上曰, 堦下府. 上曰, 問郎持草紙進來. 金魯鎮進伏. 上命書榮得問目訖. 上曰,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初無欺隱之事, 問目內辭緣, 一一直告. 招辭云云. 上曰, 緣坐罪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 上曰, 遁辭矣.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來復以爲, 汝爲逆賊緣坐之魁首, 偷取軍器, 將爲戊申之事云, 而軍器置簿, 入於文書中, 豈不鑿鑿符合乎? 招辭云云. 上曰, 汝何爲而使來復, 往見堦乎? 招辭云云. 上命書東渾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祖事, 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若不與來復言語酬酢, 則點考時, 汝何以吾祖上疏云云之說, 言及於來復乎? 招辭云云. 上命書維問目訖. 上曰, 東渾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雖欺隱, 而許多罪人之口, 綻露無餘, 則卽當正法矣. 招辭云云. 上命書得明問目訖. 上曰, 維下之, 得明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吾則毫無所累之言, 汝與誰人酬酢乎? 招辭云云.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命書褒問目訖. 上曰, 得明下之, 褒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應坐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 上曰, 汝以名祖之血孫, 爲逆賊之繼後孫, 雖不免爲緣坐, 而敢與此輩, 綢繆相從乎? 招辭云云. 上命書陽祚問目訖. 上曰, 褒下之, 陽祚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念佛何故爲之? 招辭云云. 上曰, 石片皆書南無阿彌陀佛何也? 汝以逆賊之種子, 敢爲念佛, 必有隱情矣. 招辭云云. 上曰, 依法. 上曰, 志與光哲事, 汝不知乎? 招辭云云. 上曰, 汝雖至此, 其本則士也, 以士而念佛, 何心也? 推是心, 何事不可爲也? 招辭云云. 上曰, 更無酌處之理, 斯速遲晚. 陽祚刑準次. 上命書正觀問目訖. 上曰, 陽祚下之, 正觀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以逆賊假兵使之親姪, 又犯亡命之罪, 宜乎象示, 而尙此偃息矣. 汝與來復相親往來之事, 一一直告. 招辭云云. 上曰, 依法. 上曰, 汝之

書札中，有來後年出陸之說，汝豈有出陸之機耶？其間曲折，直告之。招辭云云。上曰，來復以爲，汝輩聚會謀議，而汝之文書中，有徒流案，尤豈不殊常乎？將欲爲汝叔之事乎？招辭云云。正觀刑準次，上命書濟海問目訖。上曰，正觀下之，濟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鏡之姪，宜卽死矣，而況與應坐諸賊，往來綢繆乎？招辭云云，濟海刑準次。判義禁洪啓禧曰，卽見能孝之搜探文書中，有一帖字，觀其辭語，可見聖化之無處不暨，且其叔匡師戒飭子姪之書，亦入其中，字字言言，皆有感恩懷化之意矣。上曰，匡師則本如此矣。應淳曰，獄情將不至[知]止於何境，此非可長語者也。上命書戀問目訖。上曰，濟海下之，戀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汝以逆賊惠之四寸，又與來復謀逆，而敢爲隱諱之計乎？招辭云云，戀刑準次。上命書夢鼎問目訖。上曰，戀下之，夢鼎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賊應坐，敢與來復輩，交通謀逆乎？招辭云云。夢鼎刑準次。上命書運海問目訖。上曰，夢鼎下之，運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一鏡之姪，乃敢忍杖不服乎？招辭云云。運海刑準次。上命書翼佐問目訖。上曰，運海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巨源之孫，運和之姪，又與來復，謀議不軌，汝豈得生乎？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父汝祖之所爲，汝敢稱冤乎？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能孝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以鼎衍之故，汝家至此也。然則鼎衍之子姪，卽汝之讎也。何心言語乎？招辭云云。上命書天大·彥杓問目訖。上曰，能孝下之，天大·彥杓並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天大則雖以同參謀逆遲晚，而當初酌處，蓋以多告同黨也。彥杓則雖爲知情不告，而既有持杖驅逐之說，故十分酌處矣。今者亂逆層生之時，不得不特允臺啓，將欲正法，卽爲遲晚結案。招辭云云。上曰，乙亥旣已直招，而今日變辭可乎？招辭云云。上曰，乙丙日記，持入考奏，可也。啓禧曰，取考日記，則諸罪人文案，俱甚草率矣。應淳曰，卽見丙子鞫案，則所錄甚疎略，其時禁堂及當該問郎，從重推考，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上命書昌翼問目訖。上曰，天大·彥杓下之，昌翼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與賊志家結婚，是何意思乎？招辭云云。上曰，志之結婚時，春躋果以爲無妨，而且給婚紙，則汝於乙亥，何不言之乎？招辭云云。上曰，乃敢推諉於作故之人乎？右議政金相福曰，庚申年春躋家設宴時，此人有嫌怨，故敢爲逞毒之計矣。上曰，依法。上曰，汝終不以誣引自服乎？招辭云云。上曰，李春躋之任使已久矣，此等婚姻，豈有勸成之理乎？招辭云云。上曰，設使春躋勸之，有可爲之婚，有不可爲之婚，豈可以春躋之言，而爲不可爲之婚耶？招辭

云云.昌翼刑準次.上曰,昌翼下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鳳漢曰,前判尹南泰齊,既已敍用,其時左尹曹命采,右尹李光傳[李光溥],一體敍用.明日試望,當擬之人,甚苟簡云,前大司諫尹學東及堂上·堂下侍從違罷人,竝敍用,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 上命書榮得更推問目訖.上曰,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以汝祖之故,汝輩至此,汝甘受乎,稱冤乎?招辭云云.上曰,奈何之說,極勃慢矣.上曰,非汝以泰裔之孫而拿來也.蓋以與來復謀議之事也.汝敢終始隱諱乎?且軍器置簿,是汝之贓物矣,尤何敢不服乎?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榮得下之, 維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益寬之孫,忍杖何益?直招無隱.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 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榮得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軍器置簿,汝與榮得,共力膽出,是何意思乎?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東渾更推問目訖.上曰,翼佐下之, 東渾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祖汝認以爲逆乎?招辭云云.上曰,然則汝何爲而對來復言,吾祖則初無可罪之端云耶?招辭云云.東渾刑準次. 上曰,東渾下之,諸罪人竝下府.上命承旨書之曰,親鞫姑罷,明日殿座待下教,只入正時,堦外皆預爲上闕,而傳香後舉行.出榻教

4)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3일.

○ 上御崇禮門, 誅罪人能孝·夢鼎·正觀·運海·戀·濟海等,竝孥籍如法.回駕時御惠政橋.教曰:“罪人天大,與前招無異,且已多年酌處者,特貸一律,鍾城府爲奴.

5)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3일.

○ 癸未十月初三日未時,上詣南門樓舉動入侍時,行都承旨沈垷,右承旨鄭夏彥,左副承旨李彥衡,右副承旨金應淳,同副承旨尹得雨,記事官俞彥鎬,事變假注書沈重奎,記事官李崇祐·金敍九,以次陪從.上具翼善冠·袞龍袍,以步輦,出自太僕,至興化門外.上曰,百官堂上則門內序立,堂下則門外序立事,分付.上曰,今日春坊問安官置之事,分付.上詣南門樓殿座後,上命承旨書之曰,能孝既已遲晚, 夢鼎·正觀·運海·戀·濟海,竝亟正邦刑.出榻教

96. 신경일(申敬日)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7월 9일.
- 해배 연월: 1759년(영조 35) 윤6월 17일.
- 사유: 건의 불발(이광좌(李光佐) 등 성토)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19) 1755년(영조 31) 5월 27일.

○ 上曰, (太學)東西齋班首各陳姓名, 可也. 東齋班首對曰, 抱川人李弼商也. 西齋班首對曰, 聞慶人申敬日也.

2) 『영조실록』(권 85) 1755년(영조 31) 7월 9일.

○ 上聞儒生姜維等上東宮書, 召使至前讀之, 乃聲罪光佐, 錫恒, 泰億者也. 上以疏中有暗昧難明四字, 重觸忌器之嫌, 逮下詔獄, 親臨刑訊之, 杖流姜維, 申敬日, 許(金+翼)等三人, 敬日, (金+翼)以參涉於製書時也. 領府事金在魯上筭, 略曰: 名爲章甫, 義附沐浴, 而摘抉字句, 直治以治逆之法, 固有乖於刑政大體. 聖教所以執以爲罪者, 乃是暗昧等四字, 夫以請其勿書, 歸諸暗昧, 爲錫恒之罪, 前後三司屢發之言也. 鄉儒之蹈襲, 獨何大罪, 而至以此褫儒冠而訊鞠庭, 無或近於爲建德報仇耶? 上怒命罷在魯職. 弘文館, 司諫院交章言, 刑訊疏儒, 有駭瞻聆, 不報. 太學諸生捲堂, 王世子令大司成勸入.

3) 『승정원일기』(권 1121) 1755년(영조 31) 7월 9일.

○ 上御內司僕. 親鞠入侍時, 行都承旨李昌壽, 左承旨宋昌明, 左副承旨朴師訥, 右副承旨俞彥民, 同副承旨李永暉, 記事官朴相冕, 假注書崔夢岳, 記事官權穎·李世演, 左議政金尙魯, 判義禁具聖任, 知義禁李成中, 同義禁李益輔·南泰耆, 問事郎廳黃仁儉·洪麟漢·尹得雨·鄭昌聖·徐命天·元仁孫·具壽國·李最中, 大司諫李秀得, 掌令李河述, 刑房都事李成玉·具明遠, 文書都事金相翊·金履復, 以次進伏訟. 罪人姜維原情. 上曰, 製書誰也? 維招曰, 聞慶儒生申敬日也. 罪人申敬日原情, 罪人許(金+翼)原情, 許(金+翼)與申敬日面質.

上曰, 姜維更爲上之, 仍與(金+翼)·敬日面質, 可也. … 上曰, 罪人申敬日, 今番大處分之後, 義理大闡, 而嶺儒姜維等, 乘機跳踉, 上京投章, 已涉無據, 則右袒此輩, 製書以給, 其中叵測之說, 肆然敢書, 略無顧忌, 又製給李允復等上書, 而稱京外儒之書, 亦一渠作, 維·(金+翼)之招, 亦云渠之製作. 以此推之, 節節陰慘, 卽宜嚴訊取服, 快正邦刑, 而其中四字, 看雖心實, 覽其笏記, 此非渠(渠)創製, 卽三十年前三司之說也. 以此于今加一律於敬日, 似爲過中, 若又不嚴處, 末世此等之類, 何以懲戢? 特減一律, 大靜縣勿限年島配. 出榻教

○ 洪名漢, 以義禁府言啓曰, 罪人申敬日·姜維·許(金+翼)勿限年定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170) 1759년(영조 35) 윤6월 16일.

○ 尙魯曰, 申敬日五年謫居, 亦已徵罪, 大需屢經, 尙未蒙放矣. 上命書傳教曰, 申敬日·姜維·許(金+翼), 所坐雖不輕, 屢經大需, 竝特爲放送事, 分付.

5) 『승정원일기』(권 1170) 1759년(영조 35) 윤6월 17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申敬日, 咸鏡道鍾城府定配罪人姜維, 慶尙道機張縣定配罪人許(金+翼)等, 特爲放送, 承傳啓下矣. 竝放送事, 分付於各該道臣之意, 敢達. 令曰, 知道.

97. 김아지(金阿只)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8월 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김일경〈金一鏡〉 종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22) 1755년(영조 31) 8월 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咸鏡監司牒報及鍾城府使成冊, 則逆鏡從孫阿只, 今始追後查出以來矣. 阿只濟州牧大靜縣島配,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98. 권굉(權宏)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5년(영조 31) 10월 2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홍서 권소<權邵>의 조부, 나주괘서사건 관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6) 1755년(영조 31) 10월 27일.

○ 上御內司僕, 親鞫權邵, 李檻, 李元夏, 朴世儉伏誅. 邵供: “臣家世不下於自中, 而臣父不免沈滯, 居常怨國. 且以學製事含憾, 與妻父李檻之子元夏同爲凶書, 臣及檻製之, 元夏書之, 專出於欲亂朝廷之計. 且與鼎衍相知. 鼎衍所納凶書, 亦嘗參見, ‘南別宮樑上云云’ 一段至今記得. 故今番凶書, 以鼎衍未卒之言書之, 而書中有 ‘九老云云’ 之說及 ‘傳家心法’ 等語, 列書朝臣之下, 書謹悉二字, 書凡四層. 而初書則七月二十八日曉, 臣稱以別陪而自投之, 再書則檻使朴世儉投之, 窮凶情節綻露無餘, 大逆遲晚.” 正刑, 孥籍如法. 檻供: “權抗之爲投書, 世人皆知之. 邵亦危言悖行, 無所不爲. 而邵所引多人中, 若或謂臣亦同入, 則臣當爲元犯. 而世儉所供, 俱是虛言.” 屢加刑訊, 終不承款, 以特旨西門外正法, 以逆律施行. 元夏供: “與邵同爲凶書. 臣書上段, 邵書下段, 而字細於小冊字. 謀逆遲晚.” 正刑. 朴世儉供: “臣以檻之乳弟, 受檻之指嗾, 果爲持傳凶書, 而不知其書意矣.” 命以逆律, 門外正法. 抗以邵父, 刑訊不服, 以緣坐處絞. 宏以邵祖年老, 下詢大臣後, 以本律大靜縣爲奴. 鄭熙普, 鄭桂以元夏姻親, 援引被逮, 熙普 三陟府定配, 桂屢施刑訊, 鍾城府遠配. 鄭道三以道聽輕洩, 康津縣定配, 李萬育, 李賢汲, 以投書事, 致疑於抗, 相與酬酢, 而萬育以不卽直陳, 海南縣定配, 賢汲以所供無隱, 特命調用. 申思範, 朴相祿, 尹正烈, 洪楫, 權瑋, 黃最彥, 以邵誣援被逮, 并特放.

2) 『승정원일기』(권 1124) 1755년(영조 31) 10월 2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權宏, 全羅道濟州牧大靜縣絕島爲奴事, 命下矣. 權宏, 以逆賊邵緣坐爲奴,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99-101. 나삼만(羅三萬), 김득선(金得先), 김악금(金惡金)

- 신분: 관리(나삼만: 금리〈禁吏〉, 김득선, 김악금: 수종사령〈隨從使令〉)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월 23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가체〈加髻, 덧머리〉 금지 위반)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7) 1756년(영조 32) 1월 16일.

○ 禁士族婦女加髻, 代以俗名簇頭里. 加髻之制, 始自高麗, 卽蒙古之制也. 時士大夫家奢侈日盛, 婦人一加髻, 輒費累百金. 轉相夸效, 務尙高大, 上禁之.

2) 『승정원일기』(권 1127) 1756년(영조 32) 1월 23일.

○ 李惟秀, 以刑曹言啓曰, 今正月二十三日, 大臣·秋曹堂上, 同爲入侍時, 傳曰, 噫, 加髻之禁, 卽祛奢之意, 而先自士夫若遵令, 至於小民, 若從風而遵, 於此事有何禁亂? 而今聞大臣所奏, 稱此作弊, 窺伺捕捉云. 此不嚴懲, 民何以措手足? 所謂假稱禁吏, 其令秋曹, 今日內嚴刑一次後, 大靜縣勿限年定配事, 命下矣. 禁吏羅三萬及隨從使令金得先·金惡金等, 竝嚴刑一次後, 濟州牧大靜縣定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129) 1756년(영조 32) 3월 28일.

○ 以羅三萬妻李召史上言, 上曰, 非徒勿施, 下該曹從重科治. 出榻教

102. 김상도(金相度)

- 신분: 관리(정언)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2월 18일.
- 해배 연월: 1757년(영조 33) 3월 15일.
- 사유: 건의 불발(상소, 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7) 1756년(영조 32) 2월 12일.

○ 正言金相度上書, 論時弊, 其目有三. 一曰礪名節, 二曰獎廉儉, 三曰恤災荒. …

2) 『영조실록』(권 87) 1756년(영조 32) 2월 18일.

○ 持平鄭昌聖上書, 略曰: 邸下所以仰答天意下副民望者, 實在於勤講學問, 綜核朝政, 恢廣言路. 而新年以後, 邸下之開講筵, 不過爲七箇日矣, 雖臨講之時, 亦無發難之義, 惟以略其板行, 草草應文爲主. 如是而尙何望其進修德業, 時敏睿工乎? 邸下之代理萬機, 今幾年所, 賓對, 常參, 徒尙淵默, 事有可疑, 而一不俯詢, 下有所奏, 而只賜例答. 至若官司之所掌, 格例之應行者, 率多泛看, 似欠照檢, 則凡於酬應, 注措之間, 未嘗留神省察, 亦可仰揣矣. 邸下之前後遇災警惕修省者, 果爲何事? 而未聞有一言半辭, 反躬自責, 廣求輔助之教, 章奏之間, 徒以警惕留念等語, 循例塞責, 全無實效, 則骨鯁之風, 何由而見, 草野之言, 何由而至乎? 李彥衡之被罪, 當茲咎徵荐疊, 上下修省之時, 使以言爲名者, 重獲罪譴, 臣實惜之. 金相度 大靜縣爲庶人之命, 其言之罔圖荒亂, 果不概於聖心, 則流放之典, 顧何所惜? 而第聞其承重祖母年迫八耄, 病在危境, 一涉鯨波, 便是永訣. 昔劉禹錫以母老之故, 唐宗許以內移, 史稱美政. 伏願邸下, 竝爲仰稟焉.

3) 『승정원일기』(권 1128) 1756년(영조 32) 2월 18일.

○ 持平鄭昌聖上書曰, … 有相度大靜縣爲庶人之命, 其言之罔圖荒亂, 果不概於聖心, 則流放之典, 顧何所惜, 而第聞其承重祖母, 年迫八耄, 病在危境云, 一涉鯨波, 便是永訣, 罪雖難貫, 而情在可矜. 昔劉禹錫, 以母老之故, 唐宗許其內移, 史稱美政, 況我大朝殿下,

孝理之化，無微不遂，而獨於相度，寧不惻然而哀憐之乎？伏願邸下，竝爲仰稟焉，批答爰周

4) 『승정원일기』(권 1142) 1757년(영조 33) 3월 15일.

○ 王世子坐殯殿.承旨入對時, 同副承旨金器大, 假注書柳敘五, 記注官鄭晚淳, 記事官李仁培以次進伏訖.器大持徐迴修上書仰達曰, 此正言徐迴修上書, 而係是言事書也.令曰, 承旨讀之.器大進伏讀訖.令曰, 自尹蓍東以下, 承旨更讀之.令曰, 書中一斥不復, 何謂也? 器大曰, 一被放斥, 未蒙甄復之謂也.令曰, 書中所指數臣, 誰也? 器大曰, 臣未的知其指誰, 而金相度, 竄而蒙放, 柳憲·任命周等, 尙未甄復, 似指此等人, 而亦未之知也.令曰, 干連鞠獄者, 何時蒙放耶? 器大曰, 昨日大朝疏決時, 身死未蒙放者, 或有蒙放者, 生存者, 亦有減等蒙放者矣.令曰, 昨日入侍承旨誰也? 器大曰, 李顯重入侍矣.今日則已申退出去矣.令曰, 昨日疏決時, 尹蓍東事, 大朝何以下教乎? 器大曰, 昨日疏決時, 尹蓍東, 命置仍秩, 徐命彬, 伸救之, 特命罷職矣.令曰, 承旨書之.器大抽筆, 進伏書徐迴修書批訖.晚淳起伏達曰, 臣昨於診筵, 竊伏觀顏色之感, 哭泣之哀, 實是誠孝之所發, 固非勉強之可抑, 而第恐過於哀毀, 必多傷損.惟願節哀順禮, 勉從上下之群情焉.令曰, 當勉從矣.諸臣以次退出.

103. 신치하(申致夏)

- 신분: 내관(중관)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5월 1일.
- 해배 연월: 1756년(영조 32) 5월 7일.
- 사유: 근무 소홀(주대〈奏對〉) 예의 없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7) 1756년(영조 32) 5월 1일.

○ 內官申致夏 大靜縣島配, 以奏對無倫也. 內人海貞 巨濟府島配, 以禁酒之時, 闕中有釀也.

2) 『승정원일기』(권 1131) 1756년(영조 32) 5월 2일.

○ 上曰, 長番內官申致夏, 奏御之際, 言辭無倫, 大靜縣島配, 卽爲押送, 至康津, 倍道押送. 出榻教

3) 『승정원일기』(권 1131) 1756년(영조 32) 5월 3일.

○ 李光運, 以義禁府言達曰, 傳教內, 長番內官申致夏, 大靜縣島配, 卽爲押送, 至康津倍道押送事, 命下矣. 申致夏, 全羅道濟州牧大靜縣島配,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卽爲倍道押送之意, 敢達. 令曰, 知道.

4) 『영조실록』(권 87) 1756년(영조 32) 5월 7일.

○ 上引見時, 原任大臣及藥房三提調, 仍命領, 左相卜相以進. 內人海貞, 中官申致夏并放送, 承旨, 春坊, 玉堂處分并還寢, 樂善堂重建, 待秋成舉行.

5) 『승정원일기』(권 1131) 1756년(영조 32) 5월 7일.

○ 上命承旨書之曰, 內人海貞, 中官申致夏, 竝放送,

6) 『승정원일기』(권 1131) 1756년(영조 32) 5월 8일.

○ 鄭玉, 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島配罪人申致夏放送事, 令旨達下矣. 放送之意, 分付道臣, 何如? 令曰, 依.

104. 이대경(李大慶)

- 신분: 노비(겸종〈僉從〉)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2월 2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정치 변동(나주괘서사건 역적 신치운〈申致雲〉 겸종)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8) 1756년(영조 32) 12월 19일.

○ 逆賊宋時潛, 白受采, 李衍字, 李枝完等伏誅. 時潛以時澤之兄, 戊申全州逃還者也. 衍字, 受采亦沃溝常漢, 入於時澤黨中, 并結案正法. 枝完本憲吏也, 曾因雲賊之僉從李大慶, 得聞雲賊罔測之凶言, 至是見高廷燁事, 始言于宣傳官朴奎煥. 奎煥傳于左議政金尙魯, 尙魯卽達帳殿, 枝完就鞫, 既納招. 上教曰: “逆賊枝完, 與致雲父子僉從, 罔測陰慘之說酬酢, 卽一致雲. 而蘊蓄幾年, 敢欲希覬, 乃言于奎煥, 辦施大逆律.” 是時諸賊伏法, 鞫事垂訖, 忽因一枝完, 以至章源諸賊, 後先就鞫, 逆輩根柢, 首尾畢露, 可見天道之昭昭.

2) 『승정원일기』(권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李大慶,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定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105. 이지무(李之茂)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2월 24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이운징(李雲澄)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8) 1756년(영조 32) 12월 17일.

○ 上御內司僕, 親鞫諸罪人. 罪人李雲澄結案: “臣於戊申弼顯稱兵時, 與宋時澤, 時潛兄弟應募隨往, 爲後隊到全州 三川, 因城閉不得入, 弼顯打鉦先走. 臣等亦棄軍服, 鳥銃, 各自逃還, 尙此偃息. 至今陰蓄逆心, 與時澤輩, 綢繆締結, 謀爲不軌, 出沒京鄉, 求得徒黨. 常常以‘義黨, 天機, 乘時’等說, 爛漫酬酢, 而‘戊申年不善爲之, 故人多死亡, 若善爲之, 則豈不成乎’之說, 酬酢於時潛家, ‘昨年羅州事, 不知天時, 良民多死. 若得其時, 可以爲之’之說, 亦爲酬酢於時澤家. 謀逆的實遲晚.” 凌遲處死.

2) 『승정원일기』(권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4일.

○ 元仁孫,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全羅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雲澄, 應坐諸人,查出以來矣. 妻每占, 平安道平安道孟山縣緣坐爲婢, 子之茂, 年十三, 以年未滿, 濟州牧大靜縣爲奴,子婦宋延, 孫子今年生等, 咸鏡道鏡城府竝爲奴婢, 子婦丁丹, 孫子今延等, 明川府爲奴婢, 而右罪人等, 時囚於全州府,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06. 이능효(李能孝)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2월 25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 1763년(영조 39) 10월 3일(사망).
- 사유: 연좌(역적 이흥효(李興孝)의 동생, 심래복 모반사건 연루)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當部成冊, 則逆賊興孝,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妻妊伊, 女快榮, 女福榮等, 平安道雲山郡, 竝緣坐爲婢, 子胤同年十二, 以年未滿, 全羅道濟州牧緣坐爲奴, 子胤曾, 年四, 以年未滿, 寧遠郡爲奴, 弟能孝, 大靜縣爲奴, 姪子胤彭, 咸鏡道鏡城府流三千里安置, 姪子胤聃, 明川府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或囚捕廳, 或下去果川·巨濟等地,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母淑惠, 年六十二, 以年過六十, 依律免坐, 姪子胤敏, 年今二歲, 依續典勿論, 何如? 傳曰, 允.

2)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壘·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夢鼎·濟海·運海·陽祚·彥杓·昌翼·天大等, 初逆賊來復告榮得等, 以凶孽緣坐, 謫于島, 每發怨國之言, 往覘在謫宗臣壘, 爲推戴之謀, 上既誅來復, 命逮捕諸賊, 至是竝拿, 至榮得文書, 有軍器置簿, 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 現發於發捕金吾郎. 上竝親問之. 壘供曰: “臣年前得病島中無醫. 逆衍之庶姪, 頗解醫理, 故果爲邀見. 又有一人隨來, 問之則其嫡兄云, 而不接一言矣.” 問榮得, 供曰: “軍都目及軍器文書, 受價書給於軍器色吏, 而此是會案文書, 故更書以納. 來復則初不相知.” 更推刑訊不服. 問得明供曰: “臣於點考時, 雖見來復, 初無酬酢.” 問維供曰: “雖知來復之面, 實無接談之事.” 更推維, 供曰: “來復則未嘗接話, 榮得則相親.” 刑訊不服. 問褒供曰: “臣不知來復, 點考時, 只知其面.” 問能孝, 供曰: “臣遭母喪時, 來復爲弔喪而來, 而既無相弔之義, 故不爲受弔. 其後臣尋採鰻人, 往于渠家, 八年之間四次逢着. 而心中如食敗肉, 每自不好.” 問正觀, 供曰: “文書

中潤碩卽大靜官奴曹潤碩也. 厥漢來請代書, 故果書置之, 入於文書中矣. 徒流案一節, 大靜吏輩不能書之, 給升米於臣, 而使書給, 故臣書之矣.” 刑訊不服. 問翼佐, 供曰: “來復面貌則臣豈不知?” 刑訊不服. 更推翼佐供曰: “榮得則臣果知之. 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 故欲束冊而置之.” 榮得處加刑不服. 問戀, 供曰: “點考時, 來復則果相見. 臣在光州, 惠在春川, 渠等之事, 豈相知乎?” 刑訊不服. 問夢鼎, 供曰: “來復面目則臣果知之.” 刑訊不服. 問濟海, 供曰: “臣便同常漢, 爲人耕田, 不識一字.” 刑訊不服. 問運海, 供曰: “臣若有所知之事, 則豈不直告?” 刑訊不服. 問陽祚, 以文書中怪誕之書, 左道之文, 供曰: “臣欲無物慾, 故每念佛, 而非有邪心. 與志·光哲諸賊連姻之事, 心常恨之, 故志賊居謫時, 亦無書札往復. 玉樞經曾無所讀之事, 主人爲祈禱而有之矣.” 刑訊不服. 問彥杓, 供曰: “臣於乙亥年, 以見志賊凶書被鞠, 以無端緒, 蒙酌處之恩. 若有可達者, 乙亥親問時, 豈不盡達乎?” 問昌翼, 供曰: “志之孫女通婚, 而臣非門長, 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 果出於藉重之心矣.” 刑訊不服. 問天大, 供曰: “臣於望華樓下場市, 見樓上掛書, 朴順才者摘取, 而時值空官, 故臣傳于座首柳頤泰. 臣與志同參, 而盡知其中事, 故乙亥皆已直招矣.” 命諸囚竝下府.

3)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癸未九月二十八日辰時, 上御太僕. 親鞠入侍時, 行都承旨沈墿,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鎭·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鎭,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晚曰, 夜間,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此時則三煎以入, 可也. 右副承旨金應淳曰, 問郎不卽待令於文書床,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上曰, 罪人壘上之.** 上曰, 判義禁問之. 上曰, 戊申後初見汝面, 汝以此樣上來, 予豈料之乎? 上曰, 汝孫書中以爲, 奴僕外勿接他人云, 旣知汝事, 故書辭然矣. 汝有接見人客之事乎? 招辭云云. 見推案, 下同. 上曰, 然矣. 果是來復矣. 上曰, 今番厥漢之事, 正如趙哥之發言於汝兄也. 但汝兄則聽而不答, 汝則無聽, 而

又無答矣，然厥漢若如趙哥之言於汝兄，則汝將何以處之？招辭云云。上曰，實矣。上曰，兩司在彼矣。必不仍置，然則汝不得更往濟州，又不得生踰圉圉矣。汝雖生，亦何益也？若無汝身，則豈有是事乎？招辭云云。上曰，下教，不能領會矣。上曰，堦下府。上曰，問郎持草紙進來。金魯鎮進伏。上命書榮得問目訖。上曰，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初無欺隱之事，問目內辭緣，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緣坐罪人，誰與相親耶？招辭云云。上曰，遁辭矣。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來復以爲，汝爲逆賊緣坐之魁首，偷取軍器，將爲戊申之事云，而軍器置簿，入於文書中，豈不鑿鑿符合乎？招辭云云。上曰，汝何爲而使來復，往見堦乎？招辭云云。上命書東渾問目訖。上曰，榮得下之，東渾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汝祖事，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若不與來復言語酬酢，則點考時，汝何以吾祖上疏云云之說，言及於來復乎？招辭云云。上命書維問目訖。上曰，東渾下之，維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汝雖欺隱，而許多罪人之口，綻露無餘，則卽當正法矣。招辭云云。上命書得明問目訖。上曰，維下之，得明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吾則毫無所累之言，汝與誰人酬酢乎？招辭云云。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命書褒問目訖。上曰，得明下之，褒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應坐人，誰與相親耶？招辭云云。上曰，汝以名祖之血孫，爲逆賊之繼後孫，雖不免爲緣坐，而敢與此輩，綢繆相從乎？招辭云云。上命書陽祚問目訖。上曰，褒下之，陽祚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念佛何故爲之？招辭云云。上曰，石片皆書南無阿彌陀佛何也？汝以逆賊之種子，敢爲念佛，必有隱情矣。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志與光哲事，汝不知乎？招辭云云。上曰，汝雖至此，其本則士也，以士而念佛，何心也？推是心，何事不可爲也？招辭云云。上曰，更無酌處之理，斯速遲晚。陽祚刑準次。上命書正觀問目訖。上曰，陽祚下之，正觀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逆賊假兵使之親姪，又犯亡命之罪，宜乎象示，而尙此偃息矣。汝與來復相親往來之事，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之書札中，有來後年出陸之說，汝豈有出陸之機耶？其間曲折，直告之。招辭云云。上曰，來復以爲，汝輩聚會謀議，而汝之文書中，有徒流案，尤豈不殊常乎？將欲爲汝叔之事乎？招辭云云。正觀刑準次，上命書濟海問目訖。上曰，正觀下之，濟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鏡之姪，宜卽死矣，而況與應坐諸賊，往來綢繆乎？招辭云云，濟海刑準次。判義禁洪啓禧曰，卽見能孝之搜探文書中，有一帖字，觀其辭語，可見聖化之無處不暨，且其叔匡師戒飭子姪之書，亦入其中，字字言言，皆有感恩懷化之意矣。上曰，匡師則本如

此矣.應淳曰, 獄情將不至[知]止於何境, 此非可長語者也.上命書戀問目訖.上曰, 濟海下之, 戀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以逆賊惠之四寸, 又與來復謀逆, 而敢爲隱諱之計乎? 招辭云云, 戀刑準次.上命書夢鼎問目訖.上曰, 戀下之, 夢鼎上之.上曰, 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 汝以逆賊應坐, 敢與來復輩, 交通謀逆乎? 招辭云云.夢鼎刑準次.上命書運海問目訖.上曰, 夢鼎下之, 運海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汝以一鏡之姪, 乃敢忍杖不服乎? 招辭云云.運海刑準次.上命書翼佐問目訖.上曰, 運海下之, 翼佐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以巨源之孫, 運和之姪, 又與來復, 謀議不軌, 汝豈得生乎? 招辭云云.上曰, 依法.上曰, 汝父汝祖之所爲, 汝敢稱冤乎? 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能孝問目訖.上曰, 翼佐下之, 能孝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以鼎衍之故, 汝家至此也.然則鼎衍之子姪, 卽汝之讎也.何心言語乎? 招辭云云.上命書天大·彥杓問目訖.上曰, 能孝下之, 天大·彥杓竝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天大則雖以同參謀逆遲晚, 而當初酌處, 蓋以多告同黨也.彥杓則雖爲知情不告, 而既有持杖驅逐之說, 故十分酌處矣.今者亂逆層生之時, 不得不特允臺啓, 將欲正法, 卽爲遲晚結案.招辭云云.上曰, 乙亥既已直招, 而今日變辭可乎? 招辭云云.上曰, 乙丙日記, 持入考奏, 可也.啓禧曰, 取考日記, 則諸罪人文案, 俱甚草率矣.應淳曰, 卽見丙子鞫案, 則所錄甚疎略, 其時禁堂及當該問郎,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出學條 上命書昌翼問目訖.上曰, 天大·彥杓下之, 昌翼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與賊志家結婚, 是何意思乎? 招辭云云.上曰, 志之結婚時, 春躋果以爲無妨, 而且給婚紙, 則汝於乙亥, 何不言之乎? 招辭云云.上曰, 乃敢推諉於作故之人乎? 右議政金相福曰, 庚申年春躋家設宴時, 此人有嫌怨, 故敢爲逞毒之計矣.上曰, 依法.上曰, 汝終不以誣引自服乎? 招辭云云.上曰, 李春躋之任使已久矣, 此等婚姻, 豈有勸成之理乎? 招辭云云.上曰, 設使春躋勸之, 有可爲之婚, 有不可爲之婚, 豈可以春躋之言, 而爲不可爲之婚耶? 招辭云云.昌翼刑準次.上曰, 昌翼下之.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鳳漢曰, 前判尹南泰齊, 旣已敍用, 其時左尹曹命采, 右尹李光傳[李光溥], 一體敍用.明日試望, 當擬之人, 甚苟簡云, 前大司諫尹學東及堂上·堂下侍從違罷人, 竝敍用, 何如? 上曰, 依爲之.出學條 上命書榮得更推問目訖.上曰, 榮得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以汝祖之故, 汝輩至此, 汝甘受乎, 稱冤乎? 招辭云云.上曰, 奈何之說, 極勃慢矣.上曰, 非汝以泰耆之孫而拿來也.蓋以與來復謀議之事也.汝敢終

始隱諱乎？且軍器置簿，是汝之贓物矣，尤何敢不服乎？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榮得下之，維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益寬之孫，忍杖何益？直招無隱。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榮得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軍器置簿，汝與榮得，共力膽出，是何意思乎？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東渾更推問目訖。上曰，翼佐下之，東渾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祖汝認以爲逆乎？招辭云云。上曰，然則汝何爲而對來復言，吾祖則初無可罪之端云耶？招辭云云。東渾刑準次。上曰，東渾下之，諸罪人竝下府。上命承旨書之曰，親鞫姑罷，明日殿座待下教，只入正時，堦外皆預爲上闕，而傳香後舉行。出榻教

4)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親鞫罪人得明·榮得·正觀·東渾·翼佐·裒·彥杓·維·戀·昌翼·夢鼎·敬修等，榮得·東渾·敬修伏誅。問得明，供曰：“臣止接於外村，榮得輩保授於城內，渠輩親密與否，何以詳知？”更推不服。得明與元德昭面質。德昭，大靜吏也。德昭曰：“汝不言吾等當有好時乎？”得明曰：“汝何爲此言？”問榮得供如前。加刑不服。正觀·榮得面質。正觀曰：“汝不與東渾等日日往來，而姜翊周之女官妓月中梅，作妾贖良乎？”榮得曰：“贖良則其父爲之矣。”正觀曰：“汝之三兄弟，豈不相往來乎？”榮得曰：“吾母喪時，暫會矣。”加刑，供曰：“臣得妓妾，免賤率畜，與本縣倅，爲妾同壻，財穀相換以食。與諸罪人往來綢繆。”大逆不道結案。問正觀，供曰：“榮得以妓作妾，而妓父姜翊周爲座首，故榮得身爲官奴，不爲立役。其時邑倅曹敬修也，榮得妾弟，敬修作妾率去。其謀議則不知矣。”加刑不服。問能孝不服。問東渾，供曰：“臣初無綢繆之事？”加刑不服。正觀·東渾面質。正觀曰：“汝於點考時，與榮得輩，不同行同坐乎？”東渾曰：“同受點考，故同坐矣。”加刑，供曰：“與榮得同爲官奴，故仍與綢繆。”以大逆不道結案。問翼佐，供曰：“臣祖雖正法，豈敢稱冤？”更推加刑不服。問裒供曰：“東渾輩相親往來，而臣則不入其類矣。”加刑不服。裒·榮得面質。裒曰：“汝豈不曰傷痛乎？”榮得曰：“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則易生怨心，汝勿燥燥云乎？”裒曰：“然矣。”榮得曰：“吾見嫉於汝與來復，以有嫉惡之腸故也。”加刑不服。問彥杓，供曰：“若有所知之事，豈敢欺隱？問維加刑不服，更推加刑不服。問戀，供如前不服。問昌翼，供如前，加刑不服。問夢鼎不服。問敬修，供曰：“所眊邑妓，知其爲榮

得妾弟，而爲所生率來，萬死無惜。”教曰：“前大靜縣監曹敬修，敢與罪人榮得作爲友婿，官穀那移換給，此眼無國法。若不快施邦刑，何以礪顏世？亟正邦刑。”仍命榮得弟二人及姜翊周·月中梅，竝拿來。

5)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璣, 右承旨鄭夏彦,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李澂,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 以次進伏訖.領府事申晚曰, 昨日終日殿座, 侵夜還內,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領議政洪鳳漢曰, 問郎金魯鎮·洪檢, 見擬試望, 謂有情勢, 纔已違罷, 而問郎則雖在罷散中, 例爲啓下矣, 兩問郎, 使卽入侍, 何如? 上曰, 依爲之.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上曰, 問郎持草紙進前.洪樂純進伏.上命書得明更推問目訖.上曰, 得明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祖非以血黨入於逆也, 特以人事之僮侗也.今汝亦然, 故昨日不爲刑推, 而今又平問, 無隱直招, 則可免刑推矣.招辭云云.上曰, 緣坐諸賊之互相綱繆親密之狀, 汝則必見之矣, 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 得明下之, 彥杓上之.上曰, 濟州應坐諸人謀議之狀, 汝必見之矣, 隨見直告.招辭云云.上曰, 汝今上來, 法當結案, 予雖參酌, 而執法之臣, 何容仍置? 此事若直告, 則可以立功矣.招辭云云.上曰, 所陳實矣.榮得·東渾·能孝·維·褒等, 締結往來之說, 果不出所料矣.上曰, 得明·翼佐, 亦入其中乎? 招辭云云.上命書褒更推問目訖.上曰, 彥杓下之, 褒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輩五六人作隊往來之事, 已有明白指告者, 汝敢隱諱乎? 招辭云云.上曰, 依法.招辭云云.上曰, 汝旣以六人納招矣.予則聞是七人云, 其中一人, 必是汝矣.直告之.招辭云云, 褒刑準次.上曰, 汝招稍實, 故姑解縛矣.上命書榮得更招問目訖.上曰, 褒下之, 榮得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與東渾輩六人切親往來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 汝之同類中, 已有指告者, 汝敢欺隱乎? 招辭云云.上曰, 面質時若見屈, 則當正法矣.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 榮得下之, 維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之奸狀已露, 更無可問, 而又出於同類之招, 無可欺隱矣.汝之爲汝祖稱冤之說話, 一一直告.招辭

云云.上曰, 不思之說, 極無據矣.他人則發明, 而渠則以爲不思云, 可見其常存於心也.上曰, 依法.上曰, 汝祖造船調馬之事, 姑置勿論, 予辭位時, 乃敢曰, 東宮之事, 不過爲問寢視膳云, 此一言, 已是大逆矣.上曰, 各別訊問, 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 維下之, 翼佐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今則無可隱矣.汝輩聚首謀議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 已出於同類之招, 汝敢隱諱乎? 若不直告, 則當依汝祖之例, 卽爲梟示矣.招辭云云.上命書能孝更推問目訖.上曰, 翼佐下之, 能孝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之入於七人中, 綢繆往來之狀, 旣已綻露矣, 汝於此輩, 猶恐其相近, 可也, 乃敢與之爛漫親密乎? 招辭云云.上曰, 能孝下之, 褒與榮得, 竝上之.上曰, 兩人使之面質.招辭云云.上曰, 褒之佯屈, 極妖惡矣.李壽鳳曰, 乙亥年致雲與尙白面質時, 尙白故見屈矣.此罪人情態, 恰似尙白, 尤極妖惡矣.上曰, 然矣.榮得下之, 褒依法, 褒刑準次.上曰, 褒下之, 維上之.上曰, 依法, 維刑準次.上曰, 維下之, 榮得上之.上曰, 依法.上曰, 汝之情狀, 綻露無餘, 而褒之初旣直招, 未又變辭者, 尤極妖惡, 豈可以此, 而謂之見勝於面質乎? 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上曰, 依法, 東渾刑準次.上曰, 東渾下之, 翼佐上之.上曰, 依法, 翼佐刑準次.上曰, 翼佐下之.昌翼·正觀, 竝上之.上曰, 竝依法, 昌翼·正觀刑準次.上曰, 正觀招中, 榮得卜妾之事, 尤爲放恣無狀矣.上曰, 昌翼下之, 榮得上之, 與正觀面質.招辭云云.上曰, 榮得依法.上曰, 汝之初招, 以爲邂逅相逢矣.今乃爛漫往來於各其家中, 且汝以泰耆之孫, 緣坐爲奴, 乃敢以官婢作妾乎? 是心亦逆也.招辭云云.上曰, 榮得同生二人及姜哥□□, 竝卽發捕, 可也.鳳漢曰, 濟州人誠過甚矣.敢以其女, 許給於連坐之逆孽, 其在懲後之道, 恐不可尋常處之矣.上曰, 其女月中梅, 亦不可不竝爲拿來矣.其女竝其父, 使捕校, 隨往都事, 拿來好矣.鳳漢曰, 捕將使之入侍,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榮得刑準次.上曰, 榮得下之, 正觀依法.上曰, 汝招似實, 而猶不盡吐, 榮得謀逆節次, 一一直告, 招辭云云.上曰, 以榮得·東渾爲魁之說, 果是矣.曹敬修之與逆賊, 爲妾同婿, 而出穀相助之事, 又豈非逆賊乎? 亦卽發捕, 可也.上曰, 濟州京主人處, 問其去住, 則可知其在鄉與否, 以此分付捕將, 可也.正觀刑準次.上曰, 正觀下之, 榮得上之.上曰, 依法.上曰, 汝之情狀, 綻露無餘, 而終不直告, 然前後已納之招, 已是逆心, 汝以汝祖之笱子, 故遂至此境矣.蓋此憤懣之心, 蓄積於中, 故自歸怨國矣.汝旣以逆心占於口, 又以自歸怨國四字, 口招遲晚, 可也.榮得刑十二度結案.上曰, 榮得下府, 東渾上之.上曰, 依法.上曰, 榮得旣已

承款, 汝既同一心腸, 則一向抵賴, 有何所益? 汝輩聚首謀議之狀, 既已綻露無餘, 直爲遲晚. 招辭云云. 上曰, 恰似逆■■之同歸可樂之語矣. 東渾結案, 上命承旨書之曰, 大逆遲晚罪人榮得, 頃者下教依.

6)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2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德昭·得明·裒·夢鼎·濟海·戀·天大·能孝·彦杓·昌翼·翼佐·陽祚等, 得明·裒·彦杓·昌翼·翼佐·陽祚伏誅. 是日問德昭, 供曰: “得明·翼佐輩常常相從, 而自謂當有好時云. 敬修以官廳米, 輸送于榮得家. 問得明, 供曰: “好時之說, 未嘗言矣.” 加刑更推, 供曰: “身世難堪, 故怨國. 臣祖脅從而與魁首同罪, 故怨國矣.” 以大逆不道結案. 問裒不服, 加刑更推, 供曰: “臣聞東渾輩怨國之言, 與之酢酬.” 以大逆不道結案. 問夢鼎供如前, 加刑不服. 問濟海, 供如前, 加刑不服. 問戀供如前, 加刑不服. 問天大供如前, 問能孝, 供曰: “與渠輩雖有酬酢, 未嘗怨國.” 加刑不服. 問彦杓, 以知情結案. 問昌翼, 供曰: “與光哲結婚.” 帳殿親問, 猶不直招, 籍重誣人, 以罔上誣人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以逆虎之教文, 被逆律爲曖昧, 故常怨國.” 以大逆不道結案. 教曰: “罪人陽祚, 無更問之端, 意欲參酌. 觀其文書, 覽其供辭, 書輒念佛, 語皆佛語, 非徒逆種, 卽一怪物. 頃者海西稱彌勒佛者, 遣御史置法. 則其在闢異端之道, 不可循例究問, 亟正邦刑.”

7)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3일.

○ 上御崇禮門, 誅罪人能孝·夢鼎·正觀·運海·戀·濟海等, 竝孥籍如法. 回駕時御惠政橋. 教曰: “罪人天大, 與前招無異, 且已多年酌處者, 特貸一律, 鍾城府爲奴.

8)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能孝, 既已承服正刑, 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 年歲·姓名·存沒·居住, 令漢城府考出帳籍, 亦爲分付五部及該道道臣, 應坐諸人, 一一查出, 成冊牒報後, 依律舉行, 而籍沒家產, 破家瀆澤, 降邑號·罷守令等事, 令各該司捧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9)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上御金商門, 頒教: “王若曰. 嗚呼! 邦運多艱, 亂逆肆行. 辛丑之耆·輝, 一轉而爲壬寅之鏡·虎, 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 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 賴上天默佑, 祖宗陰隲, 前後諸賊, 咸伏王章, 至《闡義昭鑑》成, 而義理大明, 如日中天. 雖輿儻婦孺, 莫不曉然洞悉, 誰謂耆·輝等之遺種, 不悛梟音, 潛懷凶圖. 何幸端緒畢露, 諸逆就戮, 快正典刑, 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 其尙明聽. 嗚呼! 今此獄情, 實由來復而發. 蓋來復以乙亥凶賊鼎衍之從子, 緣坐投配於耽羅, 與諸凶遺孽, 打成一片, 綢繆陰謀, 窮凶叵測, 頃於鞠訊之際, 一一納款, 所告諸凶之中, 最頑狡大包藏者, 卽七賊, 曰榮得, 泰耆之孫也, 曰東渾, 鳳輝之孫也, 曰得明, 聖時之孫也, 曰翼佐, 巨源之孫也, 曰褒, 詹之孫也, 曰維, 益寬之孫也, 曰能孝, 眞儒之從孫, 興孝之弟也. 至於惠之弟姪戀·夢鼎, 一鏡之姪, 濟海·運海, 天永之姪正觀, 亦皆附麗於七賊, 同在海島, 綢繆相從. 其所以聚首而密謀, 仰親而俯畫者, 無非怨國之言, 逞凶之圖. 尤可痛者, 榮得·東渾, 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 謂有何罪? 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 互相非斥. 榮得·能孝之暗地酬酢, 至凶且慝, 有不忍聞. 此固辛壬以來諸凶之陰肚逆腸, 一串貫來者, 嗚呼! 尙忍言哉? 得明·翼佐·褒·維之徒, 戀·夢·濟運·正觀之類, 其所揣摩團聚, 如蛇蚓之糾結者, 透露無餘. 至若昌翼·彥杓, 則志之姻親血黨, 陽祚則明祚之弟, 亦皆情節難掩, 亟就顯戮, 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 予尤有所痛惋者, 來復與七賊, 潛謀, 乘夜訪壩, 旨意陰慘, 殆若德鼎之密探坦意. 予以念昔之意, 雖斬執法之請. 而敬修以曾任大靜者, 與榮得爲友壻, 授其糧而助食, 囑縣吏而欲隱, 若非德昭, 何以知此? 究其心, 有浮於榮得. 所惜者不盡承款, 不能快施當律也. 嗚呼! 予嘗以涵育覆燾爲心, 庶幾使梟獍輩革心, 而醜類惡種, 猶復接迹而起. 前由逆穢, 今由賊復, 可見乾道之昭昭, 天綱之恢恢, 照魔高懸, 魑魅何逃? 《昭鑑》之作, 蓋欲明天理淑人心, 將見凶醜屏迹, 鬼蜮遁形, 而奈之何妖腰亂領, 又輒干紀, 一至此哉? 所可幸者, 一允來復之啓, 而凶逆之情狀, 一皆呈露. 此非予也, 卽彼蒼也. 自此而梟獍餘種, 將有所畏, 《昭鑑》之義理, 尤益光明矣. 咨! 我中外大小臣僚章甫, 明聽予言, 其各自勉同寅協恭, 輔我邦家. 故茲教示, 想宜知悉.” 【弘文提學洪啓禧製進.】

10)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諭中外大小臣僚章甫書, 王若曰, 嗚呼, 邦運多艱, 亂逆肆行, 辛丑之耆·輝, 一轉而爲

壬寅之鏡·虎，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錐·賴上天默佑，祖宗陰鷺，前後諸賊，咸伏王章。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如日中天，雖在輿儻婦孺，莫不曉然洞悉。誰謂耆·輝等之遺種，不悛梟音，潛懷凶圖，又有今日之鞠？神人之憤，尙復何言？何幸端緒畢露，諸逆就戮。茲當親臨南門，序立百官，快正典刑之餘，渙發明旨，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其尙明聽。嗚呼，今此獄情，實由來復而發，蓋來復，以乙亥萬古所無凶賊鼎衍之從子，緣坐投配於耽羅，與諸凶遺孽，打成一片，網繆陰謀，窮凶叵測。頃於鞠訊之際，一一納款，所告諸凶之中，最頑狡大包藏者，卽七賊。曰榮得，泰耆之孫也，曰東渾，鳳輝之孫也，曰得明，聖時之孫也，曰翼佐，巨源之孫也，曰褒，詹之孫也，曰維，益寬之孫也，曰能孝，眞儒之從孫，興孝之弟也。至於惠之弟·姪戀·夢鼎，一鏡之姪濟海·運海，天永之姪正觀，亦皆附麗於七賊，同在海島，網繆相從。其所以聚首而密謀，仰視而俯畫者，無非怨國之言，逞凶之圖。尤可痛者，榮得·東渾，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謂有何罪，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互相非斥。榮得·孝能之暗地酬酢，至凶且憎，有不忍聞，此固辛丑以來，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嗚呼，尙忍言哉？得明·翼佐·褒·維之徒，戀·夢·濟·運·正觀之類，其所揣摩團聚，如蛇虬之糾結者，透露無餘。至若昌翼·彥杓，則志之姻親血黨，陽祚則明祚之弟，亦皆情節難掩，亟就顯戮，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予尤有所痛惋者。來復與七賊潛謀，乘夜訪壩，旨意陰慘，殆若德鼎之密探坦意。予以念昔之意，雖斬執法之請，而敬脩以曾任大靜者，與榮得爲友壻，換其糧而助食，囑縣吏而欲隱，若非德昭，何以知此？究其心，有浮於榮得。所惜者，不盡承款，不能快施當律也。嗚呼，予嘗以涵育覆燾爲心，庶幾使梟獍輩革心，而醜類惡種，猶復接跡而起。上天至仁，而沴氣所鍾，乃至於是，寧不痛心？前由逆裔，今由賊復，可見乾道之昭昭，天網之恢恢，照魔高懸，魑魅何逃？昭鑑之作，蓋欲明天理淑人心，將見凶醜屏跡，鬼蜮遁形，而奈之何妖腰亂領，又輒干紀，一至此哉？所可幸者，一允來復之啓，而凶逆之情狀，一皆呈露，此非予也，卽彼蒼也。自此而梟獍餘種，亦當快滌心腸，忠良將有所恃，奸凶將有所畏，海東之國是，因此尤嚴，昭鑑之義理，又益光明矣。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明聽予言，其各自勉，同寅協恭，輔我邦家。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提學洪啓禧製進

107-109. 신갑이(申甲伊), 이석리(李錫履), 최일함(崔日咸)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6년(영조 32) 12월 2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신치협<申致協> 아들, 이장원<李章源> 숙부, 최일관<崔日觀> 동생)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1일.

○ 丙子十二月二十一日夜三更.廳注書安兼濟, 陞六退出, 代假注書朴相老, 追後入侍時, 上曰, 捕廳罪人, 尙未承服乎? 左右捕將入侍, 李章吾·申旼, 進伏曰, 罪人等, 多般嚴問, 一向忍杖, 姑不承款矣. 上曰, 亂杖準次後, 卽爲上之. 上曰, 致協爲先上之. 上曰, 逆賊致雲, 常時與人凶言酬酢之時, 汝旣聞之, 則何不直告? 根本不知之說, 尤極凶譎矣. 汝旣異於廳直僂從輩, 則凶言酬酢, 汝豈不詳聞乎? 一一直告, 可也. 罪人招辭. 在事變日記 上曰, 刑問, 可也. 上曰, 姑下之. 李應協曰, 出使都事, 不捕罪人崔日觀而來矣. 上曰, 捕將入侍. 李章吾·申旼進伏, 上曰, 日觀失捕而來, 事極駭然, 各別譏察, 期於捕捉, 可也. 上曰, 侍衛回之. 上曰, 侍衛承史留, 待于宣化門外, 可也. 上曰, 騎馬二匹, 留待于耀金門外, 可也. 上乘輿由光政門還大內, 諸臣遂退留待于宣化門外, 夜五更餘矣.

2) 『영조실록』(권 88) 1756년(영조 32) 12월 22일.

○ 上御內司僕, 親鞫諸罪人. 罪人申致協, 金時億結案正法. 致協結案以爲: “臣本以逆賊致雲之至親, 爲其腹心, 徧裨, 陰慘叵測不道之說, 聞於雲賊, 仍與時億瀾漫酬酢. 大逆同參的實遲晚.” 時億結案以爲: “臣以鐵原府通引, 致雲爲本府府使時爲所親愛. 又爲隨往於金海任所, 晝夜同處, 如奴使喚. 其在鐵原時, 則陰謀叵測不道之說, 得聞於逆雲軍官申致協, 其在金海時, 則與逆賊枝完同宿於中東軒, 以所聞於致協之凶言, 瀾漫傳說於枝完. 大逆同參的實遲晚.”

3) 『영조실록』(권 88) 1756년(영조 32) 12월 25일.

○ 上御內司僕, 親鞫諸罪人. 逆賊李章源伏誅. 章源結案以爲: “臣以逆賊致雲之甥姪, 生長(卯)[卯] 育, 無異於親子. 致雲以陰慘叵測之言, 居常傳說於臣, 故臣亦嘗與之酬酢, 稱以是矣. 致雲又以爲鳳輝, 泰耆之疏筍, 俱非逆也, 臣亦曰是矣. 臣以雲賊罔測不道之說 皆以爲是, 大逆同參的實遲晚.

4) 『승정원일기』(권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7일.

○ 金孝大, 以右邊捕盜廳言啓曰, 亡命罪人崔日觀, 本廳麻浦加設軍官崔海秀, 自土亭里 捉來之意, 敢啓.

5) 『승정원일기』(권 1139) 1756년(영조 32) 12월 2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廣州府留守牒報及成冊, 則逆賊致協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妾者斤今, 全羅道黑山島緣坐爲婢, 子甲伊, 年十三, 以年未滿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 而竝囚廣州府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京畿監司牒報, 則陽川·衿川, 當部成冊, 則逆賊日觀·章源等,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日觀妻順德, 咸鏡道吉州牧緣坐爲婢. 弟日潤, 全羅道濟州牧爲奴, 弟日咸, 大靜縣爲奴, 弟日沈, 旌義縣爲奴, 弟日濟, 前以他罪, 康津縣薪智島定配, 仍其地爲奴. 姪子性獍, 旌義縣安置, 姪子性模, 濟州牧安置, 姪子二月兒, 年今一歲, 依續典勿論. 逆賊章源母孝惠, 鏡城府爲婢, 妻福愛, 富寧府爲婢, 祖母崔女, 今年七十四, 依律免坐. 叔錫履, 大靜縣安置, 叔錫師, 旌義縣安置, 叔錫臨, 濟州牧安置, 而古罪人等, 或囚捕廳, 或囚陽川·振威·淸州等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10. 김시진(金時進)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1월 4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김시억〈金時億〉 형)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8) 1756년(영조 32) 12월 22일.

○ 上御內司僕, 親鞫諸罪人. 罪人申致協, 金時億結案正法. 致協結案以爲: “臣本以逆賊致雲之至親, 爲其腹心, 徧裨, 陰慘叵測不道之說, 聞於雲賊, 仍與時億瀾漫酬酢. 大逆同參的實遲晚.” 時億結案以爲: “臣以鐵原府通引, 致雲爲本府府使時爲所親愛. 又爲隨往於金海任所, 晝夜同處, 如奴使喚. 其在鐵原時, 則陰謀叵測不道之說, 得聞於逆雲軍官申致協, 其在金海時, 則與逆賊枝完同宿於中東軒, 以所聞於致協之凶言, 瀾漫傳說於枝完. 大逆同參的實遲晚.”

2) 『승정원일기』(권 1140) 1757년(영조 33) 1월 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全羅·江原·京畿監司牒報及沃溝·鐵原·陽川等邑成冊, 則逆賊受采·時潛·衍字·雲澄·時億·日觀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受采子虎徵, 捉囚全州府,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處絞, 而妻暹伊, 平安道熙川郡爲婢, 子若金年十, 以年未滿, 咸鏡道鏡城府緣坐爲奴. 子冬骨金年八, 以年未滿, 富寧府爲奴. 女丁愛, 女今年生等, 端川府竝爲婢. 逆賊時潛妻介春, 富寧府爲婢. 子婦西未, 孫女惡只等, 鏡城府竝爲婢. 逆賊衍字妻丹伊, 孟山縣爲婢. 子惡只, 年三, 子者斤惡只年二, 以年未滿, 孟山縣竝爲奴. 女大惡只, 陽德縣爲婢. 逆賊時億繼母史阿只, 利城縣爲婢. 庶母蔭接, 洪原縣爲婢. 兄時進, 濟州牧大靜縣爲奴. 弟彥, 旌義縣爲奴. 妹守丹, 妹今年生, 龜城府竝爲婢. 妹昌世, 吉州牧流三千里安置. 逆賊雲澄, 孫女大延伊, 鏡城府爲婢. 逆賊日觀妾阿只, 熙川郡爲婢. 女必伊·者斤必伊等, 吉州牧竝爲婢. 而右罪人等, 時囚全州·沃溝·鐵原·陽川及捕廳,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11. 권유(權褒)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1월 11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 1763년(영조 39) 10월 2일(사망).
- 사유: 연좌(역적 권침<權詹> 손자, 심래복 모반사건 연루)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40) 1757년(영조 33) 1월 11일.

○ 韓光肇, 以義禁府言啓曰, 卽接黃海·忠淸監司牒報及成冊, 則逆賊天才·詹·褒等應坐諸人, 查出以來矣. 逆賊天才兄天柱, 咸鏡道三水府, 緣坐爲奴, 逆賊詹孫子褒, 全羅道濟州牧爲奴, 孫子褒, 大靜縣爲奴, 孫子辰, 旌義縣爲奴, 孫女次順, 平安道寧遠郡爲婢, 逆賊褒妻玉丹, 鏡城府爲婢, 子業同年十一, 以年末滿鏡城府爲奴, 子婦德只明川府爲婢, 姪子以大, 明川府流三千里安置, 姪子興孫·仁孫等, 吉州牧流三千里安置, 姪子武孫, 寧遠郡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時囚於海州·公州·韓山等邑,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壘·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夢鼎·濟海·運海·陽祚·彥杓·昌翼·天大等. 初逆賊來復告榮得等, 以凶孽緣坐, 謫于島, 每發怨國之言, 往覘在謫宗臣壘, 爲推戴之謀, 上既誅來復, 命逮捕諸賊, 至是竝拿. 至榮得文書, 有軍器置簿, 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 現發於發捕金吾郎. 上竝親問之. 壘供曰: “臣年前得病島中無醫. 逆衍之庶姪, 頗解醫理, 故果爲邀見. 又有一人隨來, 問之則其嫡兄云, 而不接一言矣.” 問榮得, 供曰: “軍都目及軍器文書, 受價書給於軍器色吏, 而此是會案文書, 故更書以納. 來復則初不相知.” 更推刑訊不服. 問得明供曰: “臣於點考時, 雖見來復, 初無酬酢.” 問維供曰: “雖知來復之面, 實無接談之事.” 更推維, 供曰: “來復則未嘗接話, 榮得則相親.” 刑訊不服. 問褒供曰: “臣不知來復, 點考時, 只知其面.” 問能孝, 供曰: “臣遭母喪時, 來復爲弔喪而來, 而既無相弔之義, 故不爲受弔. 其後臣尋採

鰥人，往于渠家，八年之間四次逢着。而心中如食敗肉，每自不好。”問正觀，供曰：“文書中潤碩卽大靜官奴曹潤碩也。厥漢來請代書，故果書置之，入於文書中矣。徒流案一節，大靜吏輩不能書之，給升米於臣，而使書給，故臣書之矣。”刑訊不服。問翼佐，供曰：“來復面貌則臣豈不知？”刑訊不服。更推翼佐供曰：“榮得則臣果知之。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故欲束冊而置之。”榮得處加刑不服。問戀，供曰：“點考時，來復則果相見。臣在光州，惠在春川，渠等之事，豈相知乎？”刑訊不服。問夢鼎，供曰：“來復面目則臣果知之。”刑訊不服。問濟海，供曰：“臣便同常漢，爲人耕田，不識一字。”刑訊不服。問運海，供曰：“臣若有所知之事，則豈不直告？”刑訊不服。問陽祚，以文書中怪誕之書，左道之文，供曰：“臣欲無物慾，故每念佛，而非有邪心。與志·光哲諸賊連姻之事，心常恨之，故志賊居謫時，亦無書札往復。玉樞經曾無所讀之事，主人爲祈禱而有之矣。”刑訊不服。問彥杓，供曰：“臣於乙亥年，以見志賊凶書被鞫，以無端緒，蒙酌處之恩。若有可達者，乙亥親問時，豈不盡達乎？”問昌翼，供曰：“志之孫女通婚，而臣非門長，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果出於藉重之心矣。”刑訊不服。問天大，供曰：“臣於望華樓下場市，見樓上掛書，朴順才者摘取，而時值空官，故臣傳于座首柳頤泰。臣與志同參，而盡知其中事，故乙亥皆已直招矣。”命諸囚竝下府。

3)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癸未九月二十八日辰時，上御太僕。親鞫入侍時，行都承旨沈璣，右承旨鄭夏彥，左副承旨李彥衡，右副承旨金應淳，同副承旨尹得雨，記事官俞彥鎬，事變假注書沈重奎，記事官韓後樂·金敍九，領府事申晚，領議政洪鳳漢，左議政尹東度，右議政金相福，判義禁洪啓禧，同義禁李應協·元仁孫，大司憲鄭光忠，大司諫金始煥，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以次進伏訖。領府事申晚曰，夜間，聖體，若何？上曰，一樣矣。晚曰，寢睡·水刺之節，亦何如？上曰，一樣矣。領議政洪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上曰，此時則三煎以入，可也。右副承旨金應淳曰，問郎不卽待令於文書床，推考，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上曰，罪人壘上之。上曰，判義禁問之。上曰，戊申後初見汝面，汝以此樣上來，予豈料之乎？上曰，汝孫書中以爲，奴僕外勿接他人云，旣知汝事，故書辭然矣。汝有接見人客之事乎？招辭云云。見推案，下同。上曰，然矣。果是

來復矣.上曰, 今番厥漢之事, 正如趙哥之發言於汝兄也.但汝兄則聽而不答, 汝則無聽, 而又無答矣, 然厥漢若如趙哥之言於汝兄, 則汝將何以處之? 招辭云云.上曰, 實矣.上曰, 兩司在彼矣.必不仍置, 然則汝不得更往濟州, 又不得生踰囹圄矣.汝雖生, 亦何益也? 若無汝身, 則豈有是事乎? 招辭云云.上曰, 下教, 不能領會矣.上曰, 墮下府.上曰, 問郎持草紙進來.金魯鎮進伏.上命書榮得問目訖.上曰, 榮得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初無欺隱之事, 問目內辭緣, 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 緣坐罪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上曰, 遁辭矣.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來復以爲, 汝爲逆賊緣坐之魁首, 偷取軍器, 將爲戊申之事云, 而軍器置簿, 入於文書中, 豈不鑿鑿符合乎? 招辭云云.上曰, 汝何爲而使來復, 往見墮乎? 招辭云云.上命書東渾問目訖.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祖事, 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若不與來復言語酬酢, 則點考時, 汝何以吾祖上疏云云之說, 言及於來復乎? 招辭云云.上命書維問目訖.上曰, 東渾下之, 維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雖欺隱, 而許多罪人之口, 綻露無餘, 則卽當正法矣.招辭云云.上命書得明問目訖.上曰, 維下之, 得明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吾則毫無所累之言, 汝與誰人酬酢乎? 招辭云云.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命書褒問目訖.上曰, 得明下之, 褒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應坐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上曰, 汝以名祖之血孫, 爲逆賊之繼後孫, 雖不免爲緣坐, 而敢與此輩, 綢繆相從乎? 招辭云云.上命書陽祚問目訖.上曰, 褒下之, 陽祚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念佛何故爲之? 招辭云云.上曰, 石片皆書南無阿彌陀佛何也? 汝以逆賊之種子, 敢爲念佛, 必有隱情矣.招辭云云.上曰, 依法.上曰, 志與光哲事, 汝不知乎? 招辭云云.上曰, 汝雖至此, 其本則士也, 以士而念佛, 何心也? 推是心, 何事不可爲也? 招辭云云.上曰, 更無酌處之理, 斯速遲晚.陽祚刑準次.上命書正觀問目訖.上曰, 陽祚下之, 正觀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以逆賊假兵使之親姪, 又犯亡命之罪, 宜乎象示, 而尙此偃息矣.汝與來復相親往來之事, 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 依法.上曰, 汝之書札中, 有來後年出陸之說, 汝豈有出陸之機耶? 其間曲折, 直告之.招辭云云.上曰, 來復以爲, 汝輩聚會謀議, 而汝之文書中, 有徒流案, 尤豈不殊常乎? 將欲爲汝叔之事乎? 招辭云云.正觀刑準次, 上命書濟海問目訖.上曰, 正觀下之, 濟海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汝以逆鏡之姪, 宜卽死矣, 而況與應坐諸賊, 往來綢繆乎? 招辭云云, 濟海刑準次.判義禁洪啓禧曰, 卽見能孝之搜探文書中, 有一帖字, 觀其辭語, 可見聖化之無處不暨,

且其叔匡師戒飭子姪之書，亦入其中，字字言言，皆有感恩懷化之意矣。上曰，匡師則本如此矣。應淳曰，獄情將不至[知]止於何境，此非可長語者也。上命書戀問目訖。上曰，濟海下之，戀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汝以逆賊惠之四寸，又與來復謀逆，而敢爲隱諱之計乎？招辭云云，戀刑準次。上命書夢鼎問目訖。上曰，戀下之，夢鼎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賊應坐，敢與來復輩，交通謀逆乎？招辭云云。夢鼎刑準次。上命書運海問目訖。上曰，夢鼎下之，運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一鏡之姪，乃敢忍杖不服乎？招辭云云。運海刑準次。上命書翼佐問目訖。上曰，運海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巨源之孫，運和之姪，又與來復，謀議不軌，汝豈得生乎？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父汝祖之所爲，汝敢稱冤乎？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能孝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以鼎衍之故，汝家至此也。然則鼎衍之子姪，卽汝之讎也。何心言語乎？招辭云云。上命書天大·彥杓問目訖。上曰，能孝下之，天大·彥杓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天大則雖以同參謀逆遲晚，而當初酌處，蓋以多告同黨也。彥杓則雖爲知情不告，而既有持杖驅逐之說，故十分酌處矣。今者亂逆層生之時，不得不特允臺啓，將欲正法，卽爲遲晚結案。招辭云云。上曰，乙亥旣已直招，而今日變辭可乎？招辭云云。上曰，乙丙日記，持入考奏，可也。啓禧曰，取考日記，則諸罪人文案，俱甚草率矣。應淳曰，卽見丙子鞠案，則所錄甚疎略，其時禁堂及當該問郎，從重推考，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上命書昌翼問目訖。上曰，天大·彥杓下之，昌翼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與賊志家結婚，是何意思乎？招辭云云。上曰，志之結婚時，春躋果以爲無妨，而且給婚紙，則汝於乙亥，何不言之乎？招辭云云。上曰，乃敢推諉於作故之人乎？右議政金相福曰，庚申年春躋家設宴時，此人有嫌怨，故敢爲逞毒之計矣。上曰，依法。上曰，汝終不以誣引自服乎？招辭云云。上曰，李春躋之任使已久矣，此等婚姻，豈有勸成之理乎？招辭云云。上曰，設使春躋勸之，有可爲之婚，有不可爲之婚，豈可以春躋之言，而爲不可爲之婚耶？招辭云云。昌翼刑準次。上曰，昌翼下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鳳漢曰，前判尹南泰齊，旣已敍用，其時左尹曹命采，右尹李光傳[李光溥]，一體敍用。明日試望，當擬之人，甚苟簡云，前大司諫尹學東及堂上·堂下侍從違罷人，竝敍用，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上命書榮得更推問目訖。上曰，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以汝祖之故，汝輩至此，汝甘受乎，稱冤乎？招辭云云。上

曰, 奈何之說, 極勃慢矣. 上曰, 非汝以泰耆之孫而拿來也. 蓋以與來復謀議之事也. 汝敢終始隱諱乎? 且軍器置簿, 是汝之贓物矣, 尤何敢不服乎? 招辭云云. 榮得刑準次. 上命書維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以益寬之孫, 忍杖何益? 直招無隱. 維刑準次. 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 上曰, 維下之, 翼佐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榮得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軍器置簿, 汝與榮得, 共力膽出,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翼佐刑準次. 上命書東渾更推問目訖. 上曰, 翼佐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祖汝認以爲逆乎? 招辭云云. 上曰, 然則汝何爲而對來復言, 吾祖則初無可罪之端云耶? 招辭云云. 東渾刑準次. 上曰, 東渾下之, 諸罪人竝下府. 上命承旨書之曰, 親鞫姑罷, 明日殿座待下教, 只入正時, 堦外皆預爲上闕, 而傳香後舉行. 出榻教

4)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得明·榮得·正觀·東渾·翼佐·裒·彦杓·維·戀·昌翼·夢鼎·敬修等, 榮得·東渾·敬修伏誅. 問得明, 供曰: “臣止接於外村, 榮得輩保授於城內, 渠輩親密與否, 何以詳知?” 更推不服. 得明與元德昭面質. 德昭, 大靜吏也. 德昭曰: “汝不言吾等當有好時乎?” 得明曰: “汝何爲此言?” 問榮得供如前. 加刑不服. 正觀·榮得面質. 正觀曰: “汝不與東渾等日日往來, 而姜翊周之女官妓月中梅, 作妾贖良乎?” 榮得曰: “贖良則其父爲之矣.” 正觀曰: “汝之三兄弟, 豈不相往來乎?” 榮得曰: “吾母喪時, 暫會矣.” 加刑, 供曰: “臣得妓妾, 免賤率畜, 與本縣倅, 爲妾同墻, 財穀相換以食. 與諸罪人往來綢繆.” 大逆不道結案. 問正觀, 供曰: “榮得以妓作妾, 而妓父姜翊周爲座首, 故榮得身爲官奴, 不爲立役. 其時邑倅曹敬修也, 榮得妾弟, 敬修作妾率去. 其謀議則不知矣.” 加刑不服. 問能孝不服. 問東渾, 供曰: “臣初無綢繆之事?” 加刑不服. 正觀·東渾面質. 正觀曰: “汝於點考時, 與榮得輩, 不同行同坐乎?” 東渾曰: “同受點考, 故同坐矣.” 加刑, 供曰: “與榮得同爲官奴, 故仍與綢繆.” 以大逆不道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雖正法, 豈敢稱冤?” 更推加刑不服. 問裒供曰: “東渾輩相親往來, 而臣則不入其類矣.” 加刑不服. 裒·榮得面質. 裒曰: “汝豈不曰傷痛乎?” 榮得曰: “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 則易生怨心, 汝勿燥燥云乎?” 裒曰: “然矣.” 榮得曰: “吾見嫉於汝與來復, 以有嫉惡之腸故也.” 加刑不服. 問彦杓, 供曰: “若有所知之事, 豈敢欺隱? 問維加刑不服, 更推加刑不服. 問戀, 供

如前不服. 問昌翼, 供如前, 加刑不服. 問夢鼎不服. 問敬修, 供曰: “所舐邑妓, 知其爲榮得妾弟, 而爲所生率來, 萬死無惜.” 教曰: “前大靜縣監曹敬修, 敢與罪人榮得作爲友婿, 官穀那移換給, 此眼無國法. 若不快施邦刑, 何以礪頑世? 亟正邦刑.” 仍命榮得弟二人及姜翊周·月中梅, 竝拿來.

5)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璣, 右承旨鄭夏彦, 左副承旨李彦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李激,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鎭·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鎭,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晚曰, 昨日終日殿座, 侵夜還內,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問郎金魯鎭·洪檢, 見擬試望, 謂有情勢, 纔已違罷, 而問郎則雖在罷散中, 例爲啓下矣, 兩問郎, 使卽入侍, 何如? 上曰, 依爲之. 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問郎持草紙進前. 洪樂純進伏. 上命書得明更推問目訖. 上曰, 得明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祖非以血黨入於逆也, 特以人事之僮侗也. 今汝亦然, 故昨日不爲刑推, 而今又平問, 無隱直招, 則可免刑推矣. 招辭云云. 上曰, 緣坐諸賊之互相綱繆親密之狀, 汝則必見之矣, 一一直告. 招辭云云. 上曰, 得明下之, 彦杓上之. 上曰, 濟州應坐諸人謀議之狀, 汝必見之矣, 隨見直告. 招辭云云. 上曰, 汝今上來, 法當結案, 予雖參酌, 而執法之臣, 何容仍置? 此事若直告, 則可以立功矣. 招辭云云. 上曰, 所陳實矣. 榮得·東渾·能孝·維·褒等, 締結往來之說, 果不出所料矣. 上曰, 得明·翼佐, 亦入其中乎? 招辭云云. 上命書褒更推問目訖. 上曰, 彦杓下之, 褒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輩五六人作隊往來之事, 已有明白指告者, 汝敢隱諱乎? 招辭云云. 上曰, 依法. 招辭云云. 上曰, 汝旣以六人納招矣. 予則聞是七人云, 其中一人, 必是汝矣. 直告之. 招辭云云, 褒刑準次. 上曰, 汝招稍實, 故姑解縛矣. 上命書榮得更招問目訖. 上曰, 褒下之,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與東渾輩六人切親往來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 汝之同類中, 已有指告者, 汝敢欺隱乎? 招辭云云. 上曰, 面質時若見屈, 則當正法矣. 上命書維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之奸狀已

露，更無可問，而又出於同類之招，無可欺隱矣。汝之爲汝祖稱冤之說話，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不思之說，極無據矣。他人則發明，而渠則以爲不思云，可見其常存於心也。上曰，依法。上曰，汝祖造船調馬之事，姑置勿論，予辭位時，乃敢曰，東宮之事，不過爲問寢視膳云，此一言，已是大逆矣。上曰，各別訊問，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今則無可隱矣。汝輩聚首謀議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已出於同類之招，汝敢隱諱乎？若不直告，則當依汝祖之例，卽爲梟示矣。招辭云云。上命書能孝更推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入於七人中，綢繆往來之狀，旣已綻露矣，汝於此輩，猶恐其相近，可也，乃敢與之爛漫親密乎？招辭云云。上曰，能孝下之，褒與榮得，竝上之。上曰，兩人使之面質。招辭云云。上曰，褒之佯屈，極妖惡矣。李壽鳳曰，乙亥年致雲與尙白面質時，尙白故見屈矣。此罪人情態，恰似尙白，尤極妖惡矣。上曰，然矣。榮得下之，褒依法，褒刑準次。上曰，褒下之，維上之。上曰，依法，維刑準次。上曰，維下之，榮得上之。上曰，依法。上曰，汝之情狀，綻露無餘，而褒之初旣直招，未又變辭者，尤極妖惡，豈可以此，而謂之見勝於面質乎？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曰，榮得下之，東渾上之。上曰，依法，東渾刑準次。上曰，東渾下之，翼佐上之。上曰，依法，翼佐刑準次。上曰，翼佐下之。昌翼·正觀，竝上之。上曰，竝依法，昌翼·正觀刑準次。上曰，正觀招中，榮得卜妾之事，尤爲放恣無狀矣。上曰，昌翼下之，榮得上之，與正觀面質。招辭云云。上曰，榮得依法。上曰，汝之初招，以爲邂逅相逢矣。今乃爛漫往來於各其家中，且汝以泰耆之孫，緣坐爲奴，乃敢以官婢作妾乎？是心亦逆也。招辭云云。上曰，榮得同生二人及姜哥□□，竝卽發捕，可也。鳳漢曰，濟州人誠過甚矣。敢以其女，許給於連坐之逆孽，其在懲後之道，恐不可尋常處之矣。上曰，其女月中梅，亦不可不竝爲拿來矣。其女竝其父，使捕校，隨往都事，拿來好矣。鳳漢曰，捕將使之入侍，分付，何如？上曰，依爲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榮得刑準次。上曰，榮得下之，正觀依法。上曰，汝招似實，而猶不盡吐，榮得謀逆節次，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以榮得·東渾爲魁之說，果是矣。曹敬修之與逆賊，爲妾同婿，而出穀相助之事，又豈非逆賊乎？亦卽發捕，可也。上曰，濟州京主人處，問其去住，則可知其在鄉與否，以此分付捕將，可也。正觀刑準次。上曰，正觀下之，榮得上之。上曰，依法。上曰，汝之情狀，綻露無餘，而終不直告，然前後已納之招，已是逆心，汝以汝祖之箴子，故遂至此境矣。蓋此憤懣之心，蓄積於中，故自歸怨國矣。汝旣以逆心占於口，又以自歸怨國四字，口

招遲晚, 可也. 榮得刑十二度結案. 上曰, 榮得下府, 東渾上之. 上曰, 依法. 上曰, 榮得既已承款, 汝既同一心腸, 則一向抵賴, 有何所益? 汝輩聚首謀議之狀, 既已綻露無餘, 直爲遲晚. 招辭云云. 上曰, 恰似逆■■之同歸可樂之語矣. 東渾結案, 上命承旨書之曰, 大逆遲晚罪人榮得, 頃者下教依.

6)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2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德昭·得明·裒·夢鼎·濟海·戀·天大·能孝·彦杓·昌翼·翼佐·陽祚等, 得明·裒·彦杓·昌翼·翼佐·陽祚伏誅. 是日問德昭, 供曰: “得明·翼佐輩常常相從, 而自謂當有好時云. 敬修以官廳米, 輸送于榮得家. 問得明, 供曰: “好時之說, 未嘗言矣.” 加刑更推, 供曰: “身世難堪, 故怨國. 臣祖脅從而與魁首同罪, 故怨國矣.” 以大逆不道結案. 問裒不服, 加刑更推, 供曰: “臣聞東渾輩怨國之言, 與之酢酬.” 以大逆不道結案. 問夢鼎供如前, 加刑不服. 問濟海, 供如前, 加刑不服. 問戀供如前, 加刑不服. 問天大供如前, 問能孝, 供曰: “與渠輩雖有酬酢, 未嘗怨國.” 加刑不服. 問彦杓, 以知情結案. 問昌翼, 供曰: “與光哲結婚.” 帳殿親問, 猶不直招, 籍重誣人, 以罔上誣人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以逆虎之教文, 被逆律爲曖昧, 故常怨國.” 以大逆不道結案. 教曰: “罪人陽祚, 無更問之端, 意欲參酌. 觀其文書, 覽其供辭, 書輒念佛, 語皆佛語, 非徒逆種, 卽一怪物. 頃者海西稱彌勒佛者, 遣御史置法. 則其在闢異端之道, 不可循例究問, 亟正邦刑.”

7)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得明·裒·翼佐等, 既已承服正刑, 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 年歲·姓名·存沒·居住, 令漢城府考出帳籍, 亦爲分付五部及各該道道臣, 應坐諸人一一查出成冊牒報後, 依律舉行, 而籍沒家產, 破家瀆澤, 降邑號罷守令等事, 令各該司捧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8)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上御金商門, 頒教: “王若曰. 嗚呼! 邦運多艱, 亂逆肆行. 辛丑之耆·輝, 一轉而爲壬寅之鏡·虎, 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 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 賴上天默

佑，祖宗陰隲，前後諸賊，咸伏王章，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如日中天。雖輿僂婦孺，莫不曉然洞悉，誰謂耆·輝等之遺種，不悛梟音，潛懷凶圖。何幸端緒畢露，諸逆就戮，快正典刑，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其尙明聽。嗚呼！今此獄情，實由來復而發。蓋來復以乙亥凶賊鼎衍之從子，緣坐投配於耽羅，與諸凶遺孽，打成一片，綢繆陰謀，窮凶叵測，頃於鞫訊之際，一一納款，所告諸凶之中，最頑狡大包藏者，卽七賊，曰榮得，泰耆之孫也，曰東渾，鳳輝之孫也，曰得明，聖時之孫也，曰翼佐，巨源之孫也，曰褒，詹之孫也，曰維，益寬之孫也，曰能孝，眞儒之從孫，興孝之弟也。至於惠之弟姪戀·夢鼎，一鏡之姪，濟海·運海，天永之姪正觀，亦皆附麗於七賊，同在海島，綢繆相從。其所以聚首而密謀，仰親而俯畫者，無非怨國之言，逞凶之圖。尤可痛者，榮得·東渾，乃敢分疏於其祖之凶逆逆疏，謂有何罪？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互相非斥。榮得·能孝之暗地酬酢，至凶且慝，有不忍聞。此固辛壬以來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嗚呼！尙忍言哉？得明·翼佐·褒·維之徒，戀·夢·濟運·正觀之類，其所揣摩團聚，如蛇蚓之糾結者，透露無餘。至若昌翼·彥杓，則志之姻親血黨，陽祚則明祚之弟，亦皆情節難掩，亟就顯戮，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予尤有所痛惋者，來復與七賊，潛謀，乘夜訪壩，旨意陰慘，殆若德鼎之密探坦意。予以念昔之意，雖斬執法之請。而敬修以曾任大靜者，與榮得爲友壻，授其糧而助食，囑縣吏而欲隱，若非德昭，何以知此？究其心，有浮於榮得。所惜者不盡承款，不能快施當律也。嗚呼！予嘗以涵育覆燾爲心，庶幾使梟獍輩革心，而醜類惡種，猶復接迹而起。前由逆穢，今由賊復，可見乾道之昭昭，天綱之恢恢，照魔高懸，魑魅何逃？《昭鑑》之作，蓋欲明天理淑人心，將見凶醜屏迹，鬼蜮遁形，而奈之何妖腰亂領，又輒干紀，一至此哉？所可幸者，一允來復之啓，而凶逆之情狀，一皆呈露。此非予也，卽彼蒼也。自此而梟獍餘種，將有所畏，《昭鑑》之義理，尤益光明矣。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明聽予言，其各自勉同寅協恭，輔我邦家。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提學洪啓禧製進。】

9)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諭中外大小臣僚章甫書，王若曰，嗚呼，邦運多艱，亂逆肆行，辛丑之耆·輝，一轉而爲壬寅之鏡·虎，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錐。賴上天默佑，祖宗陰鷺，前後諸賊，咸伏王章。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如日中天，雖在輿僂婦孺，莫不曉然洞悉。誰謂耆·輝等之遺種，不悛梟音，潛懷凶圖，又有今日之鞫？神人之憤，尙復何

言? 何幸端緒畢露, 諸逆就戮. 茲當親臨南門, 序立百官, 快正典刑之餘, 渙發明旨, 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 其尚明聽. 嗚呼, 今此獄情, 實由來復而發, 蓋來復, 以乙亥萬古所無凶賊鼎衍之從子, 緣坐投配於耽羅, 與諸凶遺孽, 打成一片, 網繆陰謀, 窮凶叵測. 頃於鞠訊之際, 一一納款, 所告諸凶之中, 最頑狡大包藏者, 卽七賊. 曰榮得, 泰壽之孫也, 曰東渾, 鳳輝之孫也, 曰得明, 聖時之孫也, 曰翼佐, 巨源之孫也, 曰褒, 詹之孫也, 曰維, 益寬之孫也, 曰能孝, 眞儒之從孫, 興孝之弟也. 至於惠之弟·姪戀·夢鼎, 一鏡之姪濟海·運海, 天永之姪正觀, 亦皆附麗於七賊, 同在海島, 網繆相從. 其所以聚首而密謀, 仰視而俯畫者, 無非怨國之言, 逞凶之圖. 尤可痛者, 榮得·東渾, 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 謂有何罪, 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 互相非斥. 榮得·孝能之暗地酬酢, 至凶且憎, 有不忍聞, 此固辛丑以來, 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 嗚呼, 尚忍言哉? 得明·翼佐·褒·維之徒, 戀·夢·濟·運·正觀之類, 其所揣摩團聚, 如蛇蚓之糾結者, 透露無餘. 至若昌翼·彥杓, 則志之姻親血黨, 陽祚則明祚之弟, 亦皆情節難掩, 亟就顯戮, 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 予尤有所痛惋者. 來復與七賊潛謀, 乘夜訪壩, 旨意陰慘, 殆若德鼎之密探坦意. 予以念昔之意, 雖斬執法之請, 而敬脩以曾任大靜者, 與榮得爲友壻, 換其糧而助食, 囑縣吏而欲隱, 若非德昭, 何以知此? 究其心, 有浮於榮得. 所惜者, 不盡承款, 不能快施當律也. 嗚呼, 予嘗以涵育覆燾爲心, 庶幾使梟獍輩革心, 而醜類惡種, 猶復接跡而起. 上天至仁, 而沴氣所鍾, 乃至於是, 寧不痛心? 前由逆裔, 今由賊復, 可見乾道之昭昭, 天網之恢恢, 照魔高懸, 魑魅何逃? 昭鑑之作, 蓋欲明天理淑人心, 將見凶醜屏跡, 鬼蜮遁形, 而奈之何妖腰亂領, 又輒干紀, 一至此哉? 所可幸者, 一允來復之啓, 而凶逆之情狀, 一皆呈露, 此非予也, 卽彼蒼也. 自此而梟獍餘種, 亦當快滌心腸, 忠良將有所恃, 奸凶將有所畏, 海東之國是, 因此尤嚴, 昭鑑之義理, 又益光明矣. 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 明聽予言, 其各自勉, 同寅協恭, 輔我邦家. 故茲教示, 想宜知悉. 弘文提學洪啓禧製進

112-113. 이강아지(李江阿之), 이길원(李吉元)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2월 4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진도유배인 이배(흥년), 이강아지(역적 이명조〈李明祚〉 아들), 이길원(역적 이거원〈李巨源〉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21) 1755년(영조 31) 7월 1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則逆賊巨源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孫子翼俊·澤七等, 全羅道扶安縣蝟島, 緣坐爲奴, 翼佐·吉元等, 珍島郡爲奴, 子婦貞愛, 長興府爲婢, 孫子翼健, 慶尙道南海縣爲奴, 而右罪人等, 時囚捕廳,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1121) 1755년(영조 31) 7월 27일.

○ 洪名漢,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西部成冊, 則逆賊明祚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子江阿之, 年四, 以年未滿, 全羅道珍島郡緣坐爲奴, 子婦毛丹, 平安道陽德縣爲婢,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1141) 1757년(영조 33) 2월 4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珍島郡, 酷被凶荒, 緣坐諸罪人, 竝令移配於濟州三邑事, 舉條啓下矣. 珍島郡緣坐爲奴罪人逆賊璋弟塘, 緣坐安置罪人逆賊就道姪子敏樹, 緣坐爲奴罪人逆賊宗廈庶孫子連喜, 緣坐爲奴罪人逆賊泰耆孫子榮喆等, 竝移配於濟州牧. 緣坐爲奴罪人逆賊巨源孫子翼佐·吉元, 緣坐爲奴罪人逆賊明祚子江阿之等, 竝移配於大靜縣. 緣坐安置罪人逆賊弼顯姪子今同, 緣坐爲奴罪人逆賊楡子昌伊, 緣坐爲奴罪人逆賊坦弟堧等, 竝移配於旌義縣.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令曰, 依.

114. 이익좌(李翼佐)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2월 4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사유: 진도유배인 이배(흥년), 역적 이거원(李巨源) 손자.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21) 1755년(영조 31) 7월 1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則逆賊巨源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孫子翼俊·澤七等, 全羅道扶安縣蝟島, 緣坐爲奴, 翼佐·吉元等, 珍島郡爲奴, 子婦貞愛, 長興府爲婢, 孫子翼健, 慶尙道南海縣爲奴, 而右罪人等, 時囚捕廳, 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승정원일기』(권 1121) 1755년(영조 31) 7월 27일.

○ 洪名漢,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西部成冊, 則逆賊明祚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子江阿之, 年四, 以年未滿, 全羅道珍島郡緣坐爲奴, 子婦毛丹, 平安道陽德縣爲婢,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1141) 1757년(영조 33) 2월 4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珍島郡, 酷被凶荒, 緣坐諸罪人, 竝令移配於濟州三邑事, 舉條啓下矣. 珍島郡緣坐爲奴罪人逆賊璋弟塘, 緣坐安置罪人逆賊就道姪子敏樹, 緣坐爲奴罪人逆賊宗廈庶孫子連喜, 緣坐爲奴罪人逆賊泰耆孫子榮喆等, 竝移配於濟州牧. 緣坐爲奴罪人逆賊巨源孫子翼佐·吉元, 緣坐爲奴罪人逆賊明祚子江阿之等, 竝移配於大靜縣. 緣坐安置罪人逆賊弼顯姪子今同, 緣坐爲奴罪人逆賊楡子昌伊, 緣坐爲奴罪人逆賊坦弟堧等, 竝移配於旌義縣.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令曰, 依.

4)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壘·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夢鼎·濟海·運海·陽祚·彥杓·昌翼·天大等. 初逆賊來復告榮得等, 以凶孽緣坐, 謫于島, 每發怨國之言, 往覘在謫宗臣壘, 爲推戴之謀, 上既誅來復, 命逮捕諸賊, 至是竝拿. 至榮得文書, 有軍器置簿, 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 現發於發捕金吾郎. 上竝親問之. 壘供曰: “臣年前得病島中無醫. 逆衍之庶姪, 頗解醫理, 故果爲邀見. 又有一人隨來, 問之則其嫡兄云, 而不接一言矣.” 問榮得, 供曰: “軍都目及軍器文書, 受價書給於軍器色吏, 而此是會案文書, 故更書以納. 來復則初不相知.” 更推刑訊不服. 問得明供曰: “臣於點考時, 雖見來復, 初無酬酢.” 問維供曰: “雖知來復之面, 實無接談之事.” 更推維, 供曰: “來復則未嘗接話, 榮得則相親.” 刑訊不服. 問褒供曰: “臣不知來復, 點考時, 只知其面.” 問能孝, 供曰: “臣遭母喪時, 來復爲弔喪而來, 而既無相弔之義, 故不爲受弔. 其後臣尋採鰻人, 往于渠家, 八年之間四次逢着. 而心中如食敗肉, 每自不好.” 問正觀, 供曰: “文書中潤碩卽大靜官奴曹潤碩也. 厥漢來請代書, 故果書置之, 入於文書中矣. 徒流案一節, 大靜吏輩不能書之, 給升米於臣, 而使書給, 故臣書之矣.” 刑訊不服. 問翼佐, 供曰: “來復面貌則臣豈不知?” 刑訊不服. 更推翼佐供曰: “榮得則臣果知之. 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 故欲束冊而置之.” 榮得處加刑不服. 問戀, 供曰: “點考時, 來復則果相見. 臣在光州, 惠在春川, 渠等之事, 豈相知乎?” 刑訊不服. 問夢鼎, 供曰: “來復面目則臣果知之.” 刑訊不服. 問濟海, 供曰: “臣便同常漢, 爲人耕田, 不識一字.” 刑訊不服. 問運海, 供曰: “臣若有所知之事, 則豈不直告?” 刑訊不服. 問陽祚, 以文書中怪誕之書, 左道之文, 供曰: “臣欲無物慾, 故每念佛, 而非有邪心. 與志·光哲諸賊連姻之事, 心常恨之, 故志賊居謫時, 亦無書札往復. 玉樞經曾無所讀之事, 主人爲祈禱而有之矣.” 刑訊不服. 問彥杓, 供曰: “臣於乙亥年, 以見志賊凶書被鞫, 以無端緒, 蒙酌處之恩. 若有可達者, 乙亥親問時, 豈不盡達乎?” 問昌翼, 供曰: “志之孫女通婚, 而臣非門長, 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 果出於藉重之心矣.” 刑訊不服. 問天大, 供曰: “臣於望華樓下場市, 見樓上掛書, 朴順才者摘取, 而時值空官, 故臣傳于座首柳頤泰. 臣與志同參, 而盡知其中事, 故乙亥皆已直招矣.” 命諸囚竝下府.

5)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癸未九月二十八日辰時,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璫,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敘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晚曰, 夜間,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此時則三煎以入, 可也. 右副承旨金應淳曰, 問郎不卽待令於文書床,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曰, 罪人堦上之. 上曰, 判義禁問之. 上曰, 戊申後初見汝面, 汝以此樣上來, 予豈料之乎? 上曰, 汝孫書中以爲, 奴僕外勿接他人云, 旣知汝事, 故書辭然矣. 汝有接見人客之事乎? 招辭云云. 見推案, 下同 上曰, 然矣. 果是來復矣. 上曰, 今番厥漢之事, 正如趙哥之發言於汝兄也. 但汝兄則聽而不答, 汝則無聽, 而又無答矣, 然厥漢若如趙哥之言於汝兄, 則汝將何以處之? 招辭云云. 上曰, 實矣. 上曰, 兩司在彼矣. 必不仍置, 然則汝不得更往濟州, 又不得生踰圉圉矣. 汝雖生, 亦何益也? 若無汝身, 則豈有是事乎? 招辭云云. 上曰, 下教, 不能領會矣. 上曰, 堦下府. 上曰, 問郎持草紙進來. 金魯鎮進伏. 上命書榮得問目訖. 上曰,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初無欺隱之事, 問目內辭緣, 一一直告. 招辭云云. 上曰, 緣坐罪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 上曰, 遁辭矣.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來復以爲, 汝爲逆賊緣坐之魁首, 偷取軍器, 將爲戊申之事云, 而軍器置簿, 入於文書中, 豈不鑿鑿符合乎? 招辭云云. 上曰, 汝何爲而使來復, 往見堦乎? 招辭云云. 上命書東渾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祖事, 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若不與來復言語酬酢, 則點考時, 汝何以吾祖上疏云云之說, 言及於來復乎? 招辭云云. 上命書維問目訖. 上曰, 東渾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雖欺隱, 而許多罪人之口, 綻露無餘, 則卽當正法矣. 招辭云云. 上命書得明問目訖. 上曰, 維下之, 得明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吾則毫無所累之言, 汝與誰人酬酢乎? 招辭云云.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命書褒問目訖. 上曰, 得明下之, 褒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應坐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 上曰, 汝以名祖之血孫, 爲逆賊之繼後孫, 雖

不免爲緣坐，而敢與此輩，綢繆相從乎？招辭云云。上命書陽祚問目訖。上曰，褒下之，陽祚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念佛何故爲之？招辭云云。上曰，石片皆書南無阿彌陀佛何也？汝以逆賊之種子，敢爲念佛，必有隱情矣。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志與光哲事，汝不知乎？招辭云云。上曰，汝雖至此，其本則士也，以士而念佛，何心也？推是心，何事不可爲也？招辭云云。上曰，更無酌處之理，斯速遲晚。陽祚刑準次。上命書正觀問目訖。上曰，陽祚下之，正觀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逆賊假兵使之親姪，又犯亡命之罪，宜乎象示，而尙此偃息矣。汝與來復相親往來之事，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之書札中，有來後年出陸之說，汝豈有出陸之機耶？其間曲折，直告之。招辭云云。上曰，來復以爲，汝輩聚會謀議，而汝之文書中，有徒流案，尤豈不殊常乎？將欲爲汝叔之事乎？招辭云云。正觀刑準次，上命書濟海問目訖。上曰，正觀下之，濟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鏡之姪，宜卽死矣，而況與應坐諸賊，往來綢繆乎？招辭云云，濟海刑準次。判義禁洪啓禧曰，卽見能孝之搜探文書中，有一帖字，觀其辭語，可見聖化之無處不暨，且其叔匡師戒飭子姪之書，亦入其中，字字言言，皆有感恩懷化之意矣。上曰，匡師則本如此矣。應淳曰，獄情將不至[知]止於何境，此非可長語者也。上命書戀問目訖。上曰，濟海下之，戀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汝以逆賊惠之四寸，又與來復謀逆，而敢爲隱諱之計乎？招辭云云，戀刑準次。上命書夢鼎問目訖。上曰，戀下之，夢鼎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賊應坐，敢與來復輩，交通謀逆乎？招辭云云。夢鼎刑準次。上命書運海問目訖。上曰，夢鼎下之，運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一鏡之姪，乃敢忍杖不服乎？招辭云云。運海刑準次。上命書翼佐問目訖。上曰，運海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巨源之孫，運和之姪，又與來復，謀議不軌，汝豈得生乎？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父汝祖之所爲，汝敢稱冤乎？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能孝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以鼎衍之故，汝家至此也。然則鼎衍之子姪，卽汝之讎也。何心言語乎？招辭云云。上命書天大·彥杓問目訖。上曰，能孝下之，天大·彥杓並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天大則雖以同參謀逆遲晚，而當初酌處，蓋以多告同黨也。彥杓則雖爲知情不告，而既有持杖驅逐之說，故十分酌處矣。今者亂逆層生之時，不得不特允臺啓，將欲正法，卽爲遲晚結案。招辭云云。上曰，乙亥旣已直招，而今日變辭可乎？招辭云云。上曰，乙丙日記，持入考奏，可也。啓禧曰，取考日記，則諸罪人文案，俱甚草率矣。應淳

曰, 卽見丙子鞫案, 則所錄甚疎略, 其時禁堂及當該問郎,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命書昌翼問目訖. 上曰, 天大·彥杓下之, 昌翼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與賊志家結婚,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上曰, 志之結婚時, 春躋果以爲無妨, 而且給婚紙, 則汝於乙亥, 何不言之乎? 招辭云云. 上曰, 乃敢推諉於作故之人乎? 右議政金相福曰, 庚申年春躋家設宴時, 此人有嫌怨, 故敢爲逞毒之計矣. 上曰, 依法. 上曰, 汝終不以誣引自服乎? 招辭云云. 上曰, 李春躋之任使已久矣, 此等婚姻, 豈有勸成之理乎? 招辭云云. 上曰, 設使春躋勸之, 有可爲之婚, 有不可爲之婚, 豈可以春躋之言, 而爲不可爲之婚耶? 招辭云云. 昌翼刑準次. 上曰, 昌翼下之. 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鳳漢曰, 前判尹南泰齊, 旣已敍用, 其時左尹曹命采, 右尹李光傳[李光溥], 一體敍用. 明日試望, 當擬之人, 甚苟簡云, 前大司諫尹學東及堂上·堂下侍從違罷人, 竝敍用,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命書榮得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以汝祖之故, 汝輩至此, 汝甘受乎, 稱冤乎? 招辭云云. 上曰, 奈何之說, 極勃慢矣. 上曰, 非汝以泰耆之孫而拿來也. 蓋以與來復謀議之事也. 汝敢終始隱諱乎? 且軍器置簿, 是汝之贓物矣, 尤何敢不服乎? 招辭云云. 榮得刑準次. 上命書維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以益寬之孫, 忍杖何益? 直招無隱. 維刑準次. 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 上曰, 維下之, 翼佐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榮得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軍器置簿, 汝與榮得, 共力膽出,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翼佐刑準次. 上命書東渾更推問目訖. 上曰, 翼佐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祖汝認以爲逆乎? 招辭云云. 上曰, 然則汝何爲而對來復言, 吾祖則初無可罪之端云耶? 招辭云云. 東渾刑準次. 上曰, 東渾下之, 諸罪人竝下府. 上命承旨書之曰, 親鞫姑罷, 明日殿座待下教, 只入正時, 堦外皆預爲上闕, 而傳香後舉行. 出榻教

6)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得明·榮得·正觀·東渾·翼佐·褒·彥杓·維·戀·昌翼·夢鼎·敬修等, 榮得·東渾·敬修伏誅. 問得明, 供曰: “臣止接於外村, 榮得輩保授於城內, 渠輩親密與否, 何以詳知?” 更推不服. 得明與元德昭面質. 德昭, 大靜吏也. 德昭曰: “汝不言吾等當有好時乎?” 得明曰: “汝何爲此言?” 問榮得供如前. 加刑不服. 正觀·榮得面

質. 正觀曰: “汝不與東渾等日日往來, 而姜翊周之女官妓月中梅, 作妾贖良乎?” 榮得曰: “贖良則其父爲之矣.” 正觀曰: “汝之三兄弟, 豈不相往來乎?” 榮得曰: “吾母喪時, 暫會矣.” 加刑, 供曰: “臣得妓妾, 免賤率畜, 與本縣倅, 爲妾同壻, 財穀相換以食. 與諸罪人往來綱繆.” 大逆不道結案. 問正觀, 供曰: “榮得以妓作妾, 而妓父姜翊周爲座首, 故榮得身爲官奴, 不爲立役. 其時邑倅曹敬修也, 榮得妾弟, 敬修作妾率去. 其謀議則不知矣.” 加刑不服. 問能孝不服. 問東渾, 供曰: “臣初無綱繆之事?” 加刑不服. 正觀·東渾面質. 正觀曰: “汝於點考時, 與榮得輩, 不同行同坐乎?” 東渾曰: “同受點考, 故同坐矣.” 加刑, 供曰: “與榮得同爲官奴, 故仍與綱繆.” 以大逆不道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雖正法, 豈敢稱冤?” 更推加刑不服. 問褒供曰: “東渾輩相親往來, 而臣則不入其類矣.” 加刑不服. 褒·榮得面質. 褒曰: “汝豈不曰傷痛乎?” 榮得曰: “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 則易生怨心, 汝勿燥燥云乎?” 褒曰: “然矣.” 榮得曰: “吾見嫉於汝與來復, 以有嫉惡之腸故也.” 加刑不服. 問彥杓, 供曰: “若有所知之事, 豈敢欺隱?” 問維加刑不服, 更推加刑不服. 問戀, 供如前不服. 問昌翼, 供如前, 加刑不服. 問夢鼎不服. 問敬修, 供曰: “所丐邑妓, 知其爲榮得妾弟, 而爲所生率來, 萬死無惜.” 教曰: “前大靜縣監曹敬修, 敢與罪人榮得作爲友壻, 官穀那移換給, 此眼無國法. 若不快施邦刑, 何以礪顏世? 亟正邦刑.” 仍命榮得弟二人及姜翊周·月中梅, 竝拿來.

7)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璫,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李澂,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鎭·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鎭,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晚曰, 昨日終日殿座, 侵夜還內,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問郎金魯鎭·洪檢, 見擬試望, 謂有情勢, 纔已違罷, 而問郎則雖在罷散中, 例爲啓下矣, 兩問郎, 使卽入侍, 何如? 上曰, 依爲之. 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問郎持草紙進前. 洪樂純進伏. 上命書得明更推問目訖. 上曰, 得明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祖非以血黨入

於逆也，特以人事之僮侗也。今汝亦然，故昨日不爲刑推，而今又平問，無隱直招，則可免刑推矣。招辭云云。上曰，緣坐諸賊之互相綢繆親密之狀，汝則必見之矣，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得明下之，彥杓上之。上曰，濟州應坐諸人謀議之狀，汝必見之矣，隨見直告。招辭云云。上曰，汝今上來，法當結案，予雖參酌，而執法之臣，何容仍置？此事若直告，則可以立功矣。招辭云云。上曰，所陳實矣。榮得·東渾·能孝·維·褒等，締結往來之說，果不出所料矣。上曰，得明·翼佐，亦入其中乎？招辭云云。上命書褒更推問目訖。上曰，彥杓下之，褒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輩五六人作隊往來之事，已有明白指告者，汝敢隱諱乎？招辭云云。上曰，依法。招辭云云。上曰，汝既以六人納招矣。予則聞是七人云，其中一人，必是汝矣。直告之。招辭云云，褒刑準次。上曰，汝招稍實，故姑解縛矣。上命書榮得更招問目訖。上曰，褒下之，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與東渾輩六人切親往來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汝之同類中，已有指告者，汝敢欺隱乎？招辭云云。上曰，面質時若見屈，則當正法矣。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榮得下之，維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奸狀已露，更無可問，而又出於同類之招，無可欺隱矣。汝之爲汝祖稱冤之說話，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不思之說，極無據矣。他人則發明，而渠則以爲不思云，可見其常存於心也。上曰，依法。上曰，汝祖造船調馬之事，姑置勿論，予辭位時，乃敢曰，東宮之事，不過爲問寢視膳云，此一言，已是大逆矣。上曰，各別訊問，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今則無可隱矣。汝輩聚首謀議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已出於同類之招，汝敢隱諱乎？若不直告，則當依汝祖之例，卽爲梟示矣。招辭云云。上命書能孝更推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入於七人中，綢繆往來之狀，既已綻露矣，汝於此輩，猶恐其相近，可也，乃敢與之爛漫親密乎？招辭云云。上曰，能孝下之，褒與榮得，竝上之。上曰，兩人使之面質。招辭云云。上曰，褒之佯屈，極妖惡矣。李壽鳳曰，乙亥年致雲與尙白面質時，尙白故見屈矣。此罪人情態，恰似尙白，尤極妖惡矣。上曰，然矣。榮得下之，褒依法，褒刑準次。上曰，褒下之，維上之。上曰，依法，維刑準次。上曰，維下之，榮得上之。上曰，依法。上曰，汝之情狀，綻露無餘，而褒之初既直招，未又變辭者，尤極妖惡，豈可以此，而謂之見勝於面質乎？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曰，榮得下之，東渾上之。上曰，依法，東渾刑準次。上曰，東渾下之，翼佐上之。上曰，依法，翼佐刑準次。上曰，翼佐下之。昌翼·正觀，竝上之。上曰，竝依法，昌翼·正觀刑準次。上曰，正觀招中，榮得卜妾之事，尤爲放恣無狀矣。上曰，昌翼下之，榮得上之，與正觀面質。

招辭云云.上曰, 榮得依法.上曰, 汝之初招, 以爲邂逅相逢矣.今乃爛漫往來於各其家中, 且汝以泰耆之孫, 緣坐爲奴, 乃敢以官婢作妾乎? 是心亦逆也.招辭云云.上曰, 榮得同生二人及姜哥□□, 竝卽發捕, 可也.鳳漢曰, 濟州人誠過甚矣.敢以其女, 許給於連坐之逆孽, 其在懲後之道, 恐不可尋常處之矣.上曰, 其女月中梅, 亦不可不竝爲拿來矣.其女竝其父, 使捕校, 隨往都事, 拿來好矣.鳳漢曰, 捕將使之入侍,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榮得刑準次.上曰, 榮得下之, 正觀依法.上曰, 汝招似實, 而猶不盡吐, 榮得謀逆節次, 一一直告, 招辭云云.上曰, 以榮得·東渾爲魁之說, 果是矣.曹敬修之與逆賊, 爲妾同婿, 而出穀相助之事, 又豈非逆賊乎? 亦卽發捕, 可也.上曰, 濟州京主人處, 問其去住, 則可知其在鄉與否, 以此分付捕將, 可也.正觀刑準次.上曰, 正觀下之, 榮得上之.上曰, 依法.上曰, 汝之情狀, 綻露無餘, 而終不直告, 然前後已納之招, 已是逆心, 汝以汝祖之笏子, 故遂至此境矣.蓋此憤懣之心, 蓄積於中, 故自歸怨國矣.汝既以逆心占於口, 又以自歸怨國四字, 口招遲晚, 可也.榮得刑十二度結案.上曰, 榮得下府, 東渾上之.上曰, 依法.上曰, 榮得既已承款, 汝既同一心腸, 則一向抵賴, 有何所益? 汝輩聚首謀議之狀, 既已綻露無餘, 直爲遲晚.招辭云云.上曰, 恰似逆■■之同歸可樂之語矣.東渾結案, 上命承旨書之曰, 大逆遲晚罪人榮得, 頃者下教依.

8)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2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德昭·得明·裒·夢鼎·濟海·戀·天大·能孝·彦杓·昌翼·翼佐·陽祚等, 得明·裒·彦杓·昌翼·翼佐·陽祚伏誅. 是日問德昭, 供曰: “得明·翼佐輩常常相從, 而自謂當有好時云. 敬修以官廳米, 輸送于榮得家. 問得明, 供曰: “好時之說, 未嘗言矣.” 加刑更推, 供曰: “身世難堪, 故怨國. 臣祖脅從而與魁首同罪, 故怨國矣.” 以大逆不道結案. 問裒不服, 加刑更推, 供曰: “臣聞東渾輩怨國之言, 與之酢酬.” 以大逆不道結案. 問夢鼎供如前, 加刑不服. 問濟海, 供如前, 加刑不服. 問戀供如前, 加刑不服. 問天大供如前, 問能孝, 供曰: “與渠輩雖有酬酢, 未嘗怨國.” 加刑不服. 問彦杓, 以知情結案. 問昌翼, 供曰: “與光哲結婚.” 帳殿親問, 猶不直招, 籍重誣人, 以罔上誣人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以逆虎之教文, 被逆律爲曖昧, 故常怨國.” 以大逆不道結案. 教曰: “罪人陽祚, 無更問之端, 意欲參酌. 觀其文書, 覽其供辭, 書輒念佛, 語皆佛語, 非

徒逆種，卽一怪物。頃者海西稱彌勒佛者，遣御史置法。則其在闢異端之道，不可循例究問，亟正邦刑。”

9)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大逆不道罪人得明·褒·翼佐等，既已承服正刑，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年歲·姓名·存沒·居住，令漢城府考出帳籍，亦爲分付五部及各該道道臣，應坐諸人一一查出成冊牒報後，依律舉行，而籍沒家產，破家瀆澤，降邑號罷守令等事，令各該司捧承傳舉行，何如？傳曰，允。

10)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上御金商門，頒教：“王若曰。嗚呼！邦運多艱，亂逆肆行。辛丑之耆·輝，一轉而爲壬寅之鏡·虎，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賴上天默佑，祖宗陰隲，前後諸賊，咸伏王章，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如日中天。雖輿僂婦孺，莫不曉然洞悉，誰謂耆·輝等之遺種，不悛梟音，潛懷凶圖。何幸端緒畢露，諸逆就戮，快正典刑，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其尙明聽。嗚呼！今此獄情，實由來復而發。蓋來復以乙亥凶賊鼎衍之從子，緣坐投配於耽羅，與諸凶遺孽，打成一片，綢繆陰謀，窮凶叵測，頃於鞠訊之際，一一納款，所告諸凶之中，最頑狡大包藏者，卽七賊，曰榮得，泰耆之孫也，曰東渾，鳳輝之孫也，曰得明，聖時之孫也，曰翼佐，巨源之孫也，曰褒，詹之孫也，曰維，益寬之孫也，曰能孝，眞儒之從孫，興孝之弟也。至於惠之弟姪戀·夢鼎，一鏡之姪，濟海·運海，天永之姪正觀，亦皆附麗於七賊，同在海島，綢繆相從。其所以聚首而密謀，仰親而俯畫者，無非怨國之言，逞凶之圖。尤可痛者，榮得·東渾，乃敢分疏於其祖之凶箭逆疏，謂有何罪？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互相非斥。榮得·能孝之暗地酬酢，至凶且慝，有不忍聞。此固辛壬以來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嗚呼！尙忍言哉？得明·翼佐·褒·維之徒，戀·夢·濟運·正觀之類，其所揣摩團聚，如蛇蚓之糾結者，透露無餘。至若昌翼·彥杓，則志之姻親血黨，陽詐則明詐之弟，亦皆情節難掩，亟就顯戮，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予尤有所痛惋者，來復與七賊，潛謀，乘夜訪壩，旨意陰慘，殆若德鼎之密探坦意。予以念昔之意，雖斬執法之請。而敬修以曾任大靜者，與榮得爲友壻，授其糧而助食，囑縣吏而欲隱，若非德昭，何以知此？究其心，有浮於榮得。所惜者不盡承款，不能快

施當律也。嗚呼！予嘗以涵育覆燾爲心，庶幾使梟獍輩革心，而醜類惡種，猶復接迹而起。前由逆穢，今由賊復，可見乾道之昭昭，天綱之恢恢，照魔高懸，魑魅何逃？《昭鑑》之作，蓋欲明天理淑人心，將見凶醜屏迹，鬼蜮遁形，而奈之何妖腰亂領，又輒干紀，一至此哉？所可幸者，一允來復之啓，而凶逆之情狀，一皆呈露。此非予也，卽彼蒼也。自此而梟獍餘種，將有所畏，《昭鑑》之義理，尤益光明矣。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明聽予言，其各自勉同寅協恭，輔我邦家。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提學洪啓禧製進。】

11)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4일.

○ 諭中外大小臣僚章甫書，王若曰，嗚呼，邦運多艱，亂逆肆行，辛丑之耆·輝，一轉而爲壬寅之鏡·虎，再轉而爲戊申之麟·亮·維·夢，三轉而爲乙亥之志·徵·雲·錐。賴上天默佑，祖宗陰鷺，前後諸賊，咸伏王章。至闡義昭鑑成而義理大明，如日中天，雖在輿儻婦孺，莫不曉然洞悉。誰謂耆·輝等之遺種，不悛梟音，潛懷凶圖，又有今日之鞠？神人之憤，尙復何言？何幸端緒畢露，諸逆就戮。茲當親臨南門，序立百官，快正典刑之餘，渙發明旨，誕告爾中外大小臣僚章甫，其尙明聽。嗚呼，今此獄情，實由來復而發，蓋來復，以乙亥萬古所無凶賊鼎衍之從子，緣坐投配於耽羅，與諸凶遺孽，打成一片，網繆陰謀，窮凶叵測。頃於鞠訊之際，一一納款，所告諸凶之中，最頑狡大包藏者，卽七賊。曰榮得，泰耆之孫也，曰東渾，鳳輝之孫也，曰得明，聖時之孫也，曰翼佐，巨源之孫也，曰褒，詹之孫也。曰維，益寬之孫也，曰能孝，眞儒之從孫，興孝之弟也。至於惠之弟·姪戀·夢鼎，一鏡之姪濟海·運海，天永之姪正觀，亦皆附麗於七賊，同在海島，網繆相從。其所以聚首而密謀，仰視而俯畫者，無非怨國之言，逞凶之圖。尤可痛者，榮得·東渾，乃敢分疏於其祖之凶筭逆疏，謂有何罪，仇視於昭鑑之洞辨義理，互相非斥。榮得·孝能之暗地酬酢，至凶且僭，有不忍聞，此固辛丑以來，諸凶之陰肚逆腸一串貫來者，嗚呼，尙忍言哉？得明·翼佐·褒·維之徒，戀·夢·濟·運·正觀之類，其所揣摩團聚，如蛇蚓之糾結者，透露無餘。至若昌翼·彥杓，則志之姻親血黨，陽祚則明祚之弟，亦皆情節難掩，亟就顯戮，天理之不可誣者如此矣。予尤有所痛惋者。來復與七賊潛謀，乘夜訪壘，旨意陰慘，殆若德鼎之密探坦意。予以念昔之意，雖斬執法之請，而敬脩以曾任大靜者，與榮得爲友壻，換其糧而助食，囑縣吏而欲隱，若非德昭，何以知此？究其心，有浮於榮得。所惜者，不盡承款，不能快施當律也。嗚呼，予嘗以涵育覆燾爲心，庶幾使梟獍輩革心，而醜類惡種，猶復接迹而起。上天至仁，而沴氣所鍾，乃至於

是，寧不痛心？前由逆裔，今由賊復，可見乾道之昭昭，天網之恢恢，照魔高懸，魑魅何逃？昭鑑之作，蓋欲明天理淑人心，將見凶醜屏跡，鬼蜮遁形，而奈之何妖腰亂領，又輒干紀，一至此哉？所可幸者，一允來復之啓，而凶逆之情狀，一皆呈露，此非予也，卽彼蒼也。自此而梟獍餘種，亦當快滌心腸，忠良將有所恃，奸凶將有所畏，海東之國是，因此尤嚴，昭鑑之義理，又益光明矣。咨我中外大小臣僚章甫，明聽予言，其各自勉，同寅協恭，輔我邦家。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提學洪啓禧製進

115. 기언표(奇彦杓)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5월 6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 1763년(영조 39) 10월 2일(사망).
- 사유: 역모 연루(역적 윤지<尹志> 제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2월 20일.

○ 上御銅龍門, 親鞫訊問尹志: “以汝卽逆商之子, 尙容食息已是寬典, 而敢懷怨國之心, 掛書於望華樓, 陰慘情節綻露無餘, 想必有網繆者然後爲此, 況汝書籠, 傳藏於林國薰家, 國薰現納, 汝家奴亦已盡告, 雖欲欺, 焉可得也?” 志供: “李孝植以爲見臣潛書奸臣二字, 而羅州官吏積負逋欠, 爲此死中求生之計, 推諉於臣, 豈不凶寧乎? 且臣家奴所告, 不過恐恟之致, 豈可以奴證主乎?” 刑推不服. 問奇彦杓, 彦杓供: “臣兒時往尹志家受學, 遊於廳事, 時聞尹志父子私語於房中曰, ‘吾父子當爲羅州之鬼. 然國豈長無事乎?’ 臣聞此語而憐之矣. 聞掛書出後, 臣自官出去時, 金重才問於臣曰, ‘朝有掛書之變, 知之乎?’ 臣曰, ‘此非愚民所爲, 似必尹志之所爲’ 云矣.

2) 『승정원일기』(권 1117) 1755년(영조 31) 3월 30일.

○ 上曰, 罪人奇彦杓, 無他端緒, 而既已受學於逆志, 掛書官門事, 既聞於天大, 則不可直放, 蔚珍縣定配. 出榻教

3) 『승정원일기』(권 1144) 1757년(영조 33) 5월 6일.

○ 金器大, 以義禁府意達曰, 因全羅監司狀達, 江原道蔚珍縣定配罪人奇彦杓, 以逃還本土罪, 令全羅監司, 嚴刑一次後, 絕島移配事, 達下矣. 奇彦杓捉囚於羅州牧, 嚴刑一次後, 濟州牧大靜縣絕島移拜,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

4)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壘·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夢鼎·濟海·運海·陽祚·彥杓·昌翼·天大等. 初逆賊來復告榮得等, 以凶孽緣坐, 謫于島, 每發怨國之言, 往覘在謫宗臣壘, 爲推戴之謀, 上既誅來復, 命逮捕諸賊, 至是竝拿. 至榮得文書, 有軍器置簿, 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 現發於發捕金吾郎. 上竝親問之. 壘供曰: “臣年前得病島中無醫. 逆衍之庶姪, 頗解醫理, 故果爲邀見. 又有一人隨來, 問之則其嫡兄云, 而不接一言矣.” 問榮得, 供曰: “軍都目及軍器文書, 受價書給於軍器色吏, 而此是會案文書, 故更書以納. 來復則初不相知.” 更推刑訊不服. 問得明供曰: “臣於點考時, 雖見來復, 初無酬酢.” 問維供曰: “雖知來復之面, 實無接談之事.” 更推維, 供曰: “來復則未嘗接話, 榮得則相親.” 刑訊不服. 問褒供曰: “臣不知來復, 點考時, 只知其面.” 問能孝, 供曰: “臣遭母喪時, 來復爲弔喪而來, 而既無相弔之義, 故不爲受弔. 其後臣尋採鰻人, 往于渠家, 八年之間四次逢着. 而心中如食敗肉, 每自不好.” 問正觀, 供曰: “文書中潤碩卽大靜官奴曹潤碩也. 厥漢來請代書, 故果書置之, 入於文書中矣. 徒流案一節, 大靜吏輩不能書之, 給升米於臣, 而使書給, 故臣書之矣.” 刑訊不服. 問翼佐, 供曰: “來復面貌則臣豈不知?” 刑訊不服. 更推翼佐供曰: “榮得則臣果知之. 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 故欲束冊而置之.” 榮得處加刑不服. 問戀, 供曰: “點考時, 來復則果相見. 臣在光州, 惠在春川, 渠等之事, 豈相知乎?” 刑訊不服. 問夢鼎, 供曰: “來復面目則臣果知之.” 刑訊不服. 問濟海, 供曰: “臣便同常漢, 爲人耕田, 不識一字.” 刑訊不服. 問運海, 供曰: “臣若有所知之事, 則豈不直告?” 刑訊不服. 問陽祚, 以文書中怪誕之書, 左道之文, 供曰: “臣欲無物慾, 故每念佛, 而非有邪心. 與志·光哲諸賊連姻之事, 心常恨之, 故志賊居謫時, 亦無書札往復. 玉樞經曾無所讀之事, 主人爲祈禱而有之矣.” 刑訊不服. 問彥杓, 供曰: “臣於乙亥年, 以見志賊凶書被鞫, 以無端緒, 蒙酌處之恩. 若有可達者, 乙亥親問時, 豈不盡達乎?” 問昌翼, 供曰: “志之孫女通婚, 而臣非門長, 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 果出於藉重之心矣.” 刑訊不服. 問天大, 供曰: “臣於望華樓下場市, 見樓上掛書, 朴順才者摘取, 而時值空官, 故臣傳于座首柳頤泰. 臣與志同參, 而盡知其中事, 故乙亥皆已直招矣.” 命諸囚竝下府.

5)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癸未九月二十八日辰時,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璫,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敘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右議政金相福,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晚曰, 夜間,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此時則三煎以入, 可也. 右副承旨金應淳曰, 問郎不卽待令於文書床,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曰, 罪人堦上之. 上曰, 判義禁問之. 上曰, 戊申後初見汝面, 汝以此樣上來, 予豈料之乎? 上曰, 汝孫書中以爲, 奴僕外勿接他人云, 旣知汝事, 故書辭然矣. 汝有接見人客之事乎? 招辭云云. 見推案, 下同 上曰, 然矣. 果是來復矣. 上曰, 今番厥漢之事, 正如趙哥之發言於汝兄也. 但汝兄則聽而不答, 汝則無聽, 而又無答矣, 然厥漢若如趙哥之言於汝兄, 則汝將何以處之? 招辭云云. 上曰, 實矣. 上曰, 兩司在彼矣. 必不仍置, 然則汝不得更往濟州, 又不得生踰圉圉矣. 汝雖生, 亦何益也? 若無汝身, 則豈有是事乎? 招辭云云. 上曰, 下教, 不能領會矣. 上曰, 堦下府. 上曰, 問郎持草紙進來. 金魯鎮進伏. 上命書榮得問目訖. 上曰,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初無欺隱之事, 問目內辭緣, 一一直告. 招辭云云. 上曰, 緣坐罪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 上曰, 遁辭矣.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來復以爲, 汝爲逆賊緣坐之魁首, 偷取軍器, 將爲戊申之事云, 而軍器置簿, 入於文書中, 豈不鑿鑿符合乎? 招辭云云. 上曰, 汝何爲而使來復, 往見堦乎? 招辭云云. 上命書東渾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祖事, 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若不與來復言語酬酢, 則點考時, 汝何以吾祖上疏云云之說, 言及於來復乎? 招辭云云. 上命書維問目訖. 上曰, 東渾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汝雖欺隱, 而許多罪人之口, 綻露無餘, 則卽當正法矣. 招辭云云. 上命書得明問目訖. 上曰, 維下之, 得明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吾則毫無所累之言, 汝與誰人酬酢乎? 招辭云云.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命書褒問目訖. 上曰, 得明下之, 褒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應坐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 上曰, 汝以名祖之血孫, 爲逆賊之繼後孫, 雖

不免爲緣坐，而敢與此輩，綢繆相從乎？招辭云云。上命書陽祚問目訖。上曰，褒下之，陽祚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念佛何故爲之？招辭云云。上曰，石片皆書南無阿彌陀佛何也？汝以逆賊之種子，敢爲念佛，必有隱情矣。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志與光哲事，汝不知乎？招辭云云。上曰，汝雖至此，其本則士也，以士而念佛，何心也？推是心，何事不可爲也？招辭云云。上曰，更無酌處之理，斯速遲晚。陽祚刑準次。上命書正觀問目訖。上曰，陽祚下之，正觀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逆賊假兵使之親姪，又犯亡命之罪，宜乎象示，而尙此偃息矣。汝與來復相親往來之事，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之書札中，有來後年出陸之說，汝豈有出陸之機耶？其間曲折，直告之。招辭云云。上曰，來復以爲，汝輩聚會謀議，而汝之文書中，有徒流案，尤豈不殊常乎？將欲爲汝叔之事乎？招辭云云。正觀刑準次，上命書濟海問目訖。上曰，正觀下之，濟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鏡之姪，宜卽死矣，而況與應坐諸賊，往來綢繆乎？招辭云云，濟海刑準次。判義禁洪啓禧曰，卽見能孝之搜探文書中，有一帖字，觀其辭語，可見聖化之無處不暨，且其叔匡師戒飭子姪之書，亦入其中，字字言言，皆有感恩懷化之意矣。上曰，匡師則本如此矣。應淳曰，獄情將不至[知]止於何境，此非可長語者也。上命書戀問目訖。上曰，濟海下之，戀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汝以逆賊惠之四寸，又與來復謀逆，而敢爲隱諱之計乎？招辭云云，戀刑準次。上命書夢鼎問目訖。上曰，戀下之，夢鼎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逆賊應坐，敢與來復輩，交通謀逆乎？招辭云云。夢鼎刑準次。上命書運海問目訖。上曰，夢鼎下之，運海上之。上曰，問目讀之，仍爲依法。上曰，汝以一鏡之姪，乃敢忍杖不服乎？招辭云云。運海刑準次。上命書翼佐問目訖。上曰，運海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以巨源之孫，運和之姪，又與來復，謀議不軌，汝豈得生乎？招辭云云。上曰，依法。上曰，汝父汝祖之所爲，汝敢稱冤乎？招辭云云。翼佐刑準次。上命書能孝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來復汝知之乎？招辭云云。上曰，以鼎衍之故，汝家至此也。然則鼎衍之子姪，卽汝之讎也。何心言語乎？招辭云云。上命書天大·彥杓問目訖。上曰，能孝下之，天大·彥杓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天大則雖以同參謀逆遲晚，而當初酌處，蓋以多告同黨也。彥杓則雖爲知情不告，而既有持杖驅逐之說，故十分酌處矣。今者亂逆層生之時，不得不特允臺啓，將欲正法，卽爲遲晚結案。招辭云云。上曰，乙亥既已直招，而今日變辭可乎？招辭云云。上曰，乙丙日記，持入考奏，可也。啓禧曰，取考日記，則諸罪人文案，俱甚草率矣。應淳

曰, 卽見丙子鞫案, 則所錄甚疎略, 其時禁堂及當該問郎,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命書昌翼問目訖. 上曰, 天大·彥杓下之, 昌翼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與賊志家結婚,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上曰, 志之結婚時, 春躋果以爲無妨, 而且給婚紙, 則汝於乙亥, 何不言之乎? 招辭云云. 上曰, 乃敢推諉於作故之人乎? 右議政金相福曰, 庚申年春躋家設宴時, 此人有嫌怨, 故敢爲逞毒之計矣. 上曰, 依法. 上曰, 汝終不以誣引自服乎? 招辭云云. 上曰, 李春躋之任使已久矣, 此等婚姻, 豈有勸成之理乎? 招辭云云. 上曰, 設使春躋勸之, 有可爲之婚, 有不可爲之婚, 豈可以春躋之言, 而爲不可爲之婚耶? 招辭云云. 昌翼刑準次. 上曰, 昌翼下之. 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鳳漢曰, 前判尹南泰齊, 旣已敍用, 其時左尹曹命采, 右尹李光傳[李光溥], 一體敍用. 明日試望, 當擬之人, 甚苟簡云, 前大司諫尹學東及堂上·堂下侍從違罷人, 竝敍用,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命書榮得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以汝祖之故, 汝輩至此, 汝甘受乎, 稱冤乎? 招辭云云. 上曰, 奈何之說, 極勃慢矣. 上曰, 非汝以泰耆之孫而拿來也. 蓋以與來復謀議之事也. 汝敢終始隱諱乎? 且軍器置簿, 是汝之贓物矣, 尤何敢不服乎? 招辭云云. 榮得刑準次. 上命書維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以益寬之孫, 忍杖何益? 直招無隱. 維刑準次. 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 上曰, 維下之, 翼佐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榮得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軍器置簿, 汝與榮得, 共力膽出,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翼佐刑準次. 上命書東渾更推問目訖. 上曰, 翼佐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祖汝認以爲逆乎? 招辭云云. 上曰, 然則汝何爲而對來復言, 吾祖則初無可罪之端云耶? 招辭云云. 東渾刑準次. 上曰, 東渾下之, 諸罪人竝下府. 上命承旨書之曰, 親鞫姑罷, 明日殿座待下教, 只入正時, 堦外皆預爲上闕, 而傳香後舉行. 出榻教

6)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得明·榮得·正觀·東渾·翼佐·褒·彥杓·維·戀·昌翼·夢鼎·敬修等, 榮得·東渾·敬修伏誅. 問得明, 供曰: “臣止接於外村, 榮得輩保授於城內, 渠輩親密與否, 何以詳知?” 更推不服. 得明與元德昭面質. 德昭, 大靜吏也. 德昭曰: “汝不言吾等當有好時乎?” 得明曰: “汝何爲此言?” 問榮得供如前. 加刑不服. 正觀·榮得面

質. 正觀曰: “汝不與東渾等日日往來, 而姜翊周之女官妓月中梅, 作妾贖良乎?” 榮得曰: “贖良則其父爲之矣.” 正觀曰: “汝之三兄弟, 豈不相往來乎?” 榮得曰: “吾母喪時, 暫會矣.” 加刑, 供曰: “臣得妓妾, 免賤率畜, 與本縣倅, 爲妾同壻, 財穀相換以食. 與諸罪人往來綱繆.” 大逆不道結案. 問正觀, 供曰: “榮得以妓作妾, 而妓父姜翊周爲座首, 故榮得身爲官奴, 不爲立役. 其時邑倅曹敬修也, 榮得妾弟, 敬修作妾率去. 其謀議則不知矣.” 加刑不服. 問能孝不服. 問東渾, 供曰: “臣初無綱繆之事?” 加刑不服. 正觀·東渾面質. 正觀曰: “汝於點考時, 與榮得輩, 不同行同坐乎?” 東渾曰: “同受點考, 故同坐矣.” 加刑, 供曰: “與榮得同爲官奴, 故仍與綱繆.” 以大逆不道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雖正法, 豈敢稱冤?” 更推加刑不服. 問褒供曰: “東渾輩相親往來, 而臣則不入其類矣.” 加刑不服. 褒·榮得面質. 褒曰: “汝豈不曰傷痛乎?” 榮得曰: “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 則易生怨心, 汝勿燥燥云乎?” 褒曰: “然矣.” 榮得曰: “吾見嫉於汝與來復, 以有嫉惡之腸故也.” 加刑不服. 問彥杓, 供曰: “若有所知之事, 豈敢欺隱?” 問維加刑不服, 更推加刑不服. 問戀, 供如前不服. 問昌翼, 供如前, 加刑不服. 問夢鼎不服. 問敬修, 供曰: “所謁邑妓, 知其爲榮得妾弟, 而爲所生率來, 萬死無惜.” 教曰: “前大靜縣監曹敬修, 敢與罪人榮得作爲友壻, 官穀那移換給, 此眼無國法. 若不快施邦刑, 何以礪顏世? 亟正邦刑.” 仍命榮得弟二人及姜翊周·月中梅, 竝拿來.

7)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入侍時, 行都承旨沈璣, 右承旨鄭夏彥, 左副承旨李彥衡, 右副承旨金應淳, 同副承旨尹得雨, 記事官俞彥鎬, 事變假注書沈重奎, 記事官韓後樂·金敍九, 領府事申晚, 領議政洪鳳漢, 左議政尹東度, 判義禁洪啓禧, 同義禁李應協·元仁孫·李澱, 大司憲鄭光忠, 大司諫金始煥, 問事郎廳金魯鎭·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 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 文書都事李成祐·沈載鎭, 以次進伏訖. 領府事申晚曰, 昨日終日殿座, 侵夜還內,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晚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 領議政洪鳳漢曰, 問郎金魯鎭·洪檢, 見擬試望, 謂有情勢, 纔已違罷, 而問郎則雖在罷散中, 例爲啓下矣, 兩問郎, 使卽入侍, 何如? 上曰, 依爲之. 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上曰, 問郎持草紙進前. 洪樂純進伏. 上命書得明更推問目訖. 上曰, 得明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祖非以血黨入

於逆也，特以人事之儻侗也。今汝亦然，故昨日不爲刑推，而今又平問，無隱直招，則可免刑推矣。招辭云云。上曰，緣坐諸賊之互相綢繆親密之狀，汝則必見之矣，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得明下之，彥杓上之。上曰，濟州應坐諸人謀議之狀，汝必見之矣，隨見直告。招辭云云。上曰，汝今上來，法當結案，予雖參酌，而執法之臣，何容仍置？此事若直告，則可以立功矣。招辭云云。上曰，所陳實矣。榮得·東渾·能孝·維·褒等，締結往來之說，果不出所料矣。上曰，得明·翼佐，亦入其中乎？招辭云云。上命書褒更推問目訖。上曰，彥杓下之，褒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輩五六人作隊往來之事，已有明白指告者，汝敢隱諱乎？招辭云云。上曰，依法。招辭云云。上曰，汝既以六人納招矣。予則聞是七人云，其中一人，必是汝矣。直告之。招辭云云，褒刑準次。上曰，汝招稍實，故姑解縛矣。上命書榮得更招問目訖。上曰，褒下之，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與東渾輩六人切親往來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汝之同類中，已有指告者，汝敢欺隱乎？招辭云云。上曰，面質時若見屈，則當正法矣。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榮得下之，維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奸狀已露，更無可問，而又出於同類之招，無可欺隱矣。汝之爲汝祖稱冤之說話，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不思之說，極無據矣。他人則發明，而渠則以爲不思云，可見其常存於心也。上曰，依法。上曰，汝祖造船調馬之事，姑置勿論，予辭位時，乃敢曰，東宮之事，不過爲問寢視膳云，此一言，已是大逆矣。上曰，各別訊問，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今則無可隱矣。汝輩聚首謀議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已出於同類之招，汝敢隱諱乎？若不直告，則當依汝祖之例，卽爲梟示矣。招辭云云。上命書能孝更推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入於七人中，綢繆往來之狀，既已綻露矣，汝於此輩，猶恐其相近，可也，乃敢與之爛漫親密乎？招辭云云。上曰，能孝下之，褒與榮得，竝上之。上曰，兩人使之面質。招辭云云。上曰，褒之佯屈，極妖惡矣。李壽鳳曰，乙亥年致雲與尙白面質時，尙白故見屈矣。此罪人情態，恰似尙白，尤極妖惡矣。上曰，然矣。榮得下之，褒依法，褒刑準次。上曰，褒下之，維上之。上曰，依法，維刑準次。上曰，維下之，榮得上之。上曰，依法。上曰，汝之情狀，綻露無餘，而褒之初既直招，未又變辭者，尤極妖惡，豈可以此，而謂之見勝於面質乎？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曰，榮得下之，東渾上之。上曰，依法，東渾刑準次。上曰，東渾下之，翼佐上之。上曰，依法，翼佐刑準次。上曰，翼佐下之。昌翼·正觀，竝上之。上曰，竝依法，昌翼·正觀刑準次。上曰，正觀招中，榮得卜妾之事，尤爲放恣無狀矣。上曰，昌翼下之，榮得上之，與正觀面質。

招辭云云.上曰, 榮得依法.上曰, 汝之初招, 以爲邂逅相逢矣.今乃爛漫往來於各其家中, 且汝以泰耆之孫, 緣坐爲奴, 乃敢以官婢作妾乎? 是心亦逆也.招辭云云.上曰, 榮得同生二人及姜哥□□, 竝卽發捕, 可也.鳳漢曰, 濟州人誠過甚矣.敢以其女, 許給於連坐之逆孽, 其在懲後之道, 恐不可尋常處之矣.上曰, 其女月中梅, 亦不可不竝爲拿來矣.其女竝其父, 使捕校, 隨往都事, 拿來好矣.鳳漢曰, 捕將使之入侍,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榮得刑準次.上曰, 榮得下之, 正觀依法.上曰, 汝招似實, 而猶不盡吐, 榮得謀逆節次, 一一直告, 招辭云云.上曰, 以榮得·東渾爲魁之說, 果是矣.曹敬修之與逆賊, 爲妾同婿, 而出穀相助之事, 又豈非逆賊乎? 亦卽發捕, 可也.上曰, 濟州京主人處, 問其去住, 則可知其在鄉與否, 以此分付捕將, 可也.正觀刑準次.上曰, 正觀下之, 榮得上之.上曰, 依法.上曰, 汝之情狀, 綻露無餘, 而終不直告, 然前後已納之招, 已是逆心, 汝以汝祖之笏子, 故遂至此境矣.蓋此憤懣之心, 蓄積於中, 故自歸怨國矣.汝既以逆心占於口, 又以自歸怨國四字, 口招遲晚, 可也.榮得刑十二度結案.上曰, 榮得下府, 東渾上之.上曰, 依法.上曰, 榮得既已承款, 汝既同一心腸, 則一向抵賴, 有何所益? 汝輩聚首謀議之狀, 既已綻露無餘, 直爲遲晚.招辭云云.上曰, 恰似逆■■之同歸可樂之語矣.東渾結案, 上命承旨書之曰, 大逆遲晚罪人榮得, 頃者下教依.

8)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10월 2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德昭·得明·裒·夢鼎·濟海·戀·天大·能孝·彦杓·昌翼·翼佐·陽祚等, 得明·裒·彦杓·昌翼·翼佐·陽祚伏誅. 是日問德昭, 供曰: “得明·翼佐輩常常相從, 而自謂當有好時云. 敬修以官廳米, 輸送于榮得家. 問得明, 供曰: “好時之說, 未嘗言矣.” 加刑更推, 供曰: “身世難堪, 故怨國. 臣祖脅從而與魁首同罪, 故怨國矣.” 以大逆不道結案. 問裒不服, 加刑更推, 供曰: “臣聞東渾輩怨國之言, 與之酢酬.” 以大逆不道結案. 問夢鼎供如前, 加刑不服. 問濟海, 供如前, 加刑不服. 問戀供如前, 加刑不服. 問天大供如前, 問能孝, 供曰: “與渠輩雖有酬酢, 未嘗怨國.” 加刑不服. 問彦杓, 以知情結案. 問昌翼, 供曰: “與光哲結婚.” 帳殿親問, 猶不直招, 籍重誣人, 以罔上誣人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以逆虎之教文, 被逆律爲曖昧, 故常怨國.” 以大逆不道結案. 教曰: “罪人陽祚, 無更問之端, 意欲參酌. 觀其文書, 覽其供辭, 書輒念佛, 語皆佛語, 非

徒逆種，卽一怪物。頃者海西稱彌勒佛者，遣御史置法。則其在闢異端之道，不可循例究問，亟正邦刑。”

9) 『승정원일기』(권 1223) 1763년(영조 39) 10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得明·褒·翼佐等, 既已承服正刑, 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 年歲·姓名·存沒·居住, 令漢城府考出帳籍, 亦爲分付五部及各該道道臣, 應坐諸人一一查出成冊牒報後, 依律舉行, 而籍沒家產, 破家瀦澤, 降邑號罷守令等事, 令各該司捧承傳舉行, 何如? 傳曰, 允.

116. 조중명(趙重明)

- 신분: 관리(장령)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9월 5일.
- 해배 연월: 1759년(영조 35) 1월 12일.
- 사유: 건의 불발(상소, 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0) 1757년(영조 33) 9월 4일.

○ 掌令趙重明上書, 略曰: 出陸罪人尹光績, 趙載敏, 干犯不輕, 向來減等, 雖出於我大朝遇慶曠蕩之典, 隄防之不嚴, 誠非細故. 而執法之地, 終無還收之達, 量移善地, 視同徒配, 臣謂其時不言臺臣, 宜一牴牾職也. 諫臣, 之論一宰臣掇拾零瑣數事, 爲其斷案者, 固失論事之體, 而第彼宰臣, 向於政院稠坐之中, 歷數朝紳, 目以五鬼, 語異諧嘲, 聲氣不佳. 再去年以後舊染之污, 咸與維新, 則此等相訐, 誠非美習, 惜乎, 臺書之不以此爲言也. 然臺臣則被譴, 而宰臣則自如, 恐欠於平物情之道. 臣謂兵曹參判李應協, 罷其職焉. 臺閣言事, 何等嚴重, 而前掌令尹在謙上書留院, 過數日還爲持去, 盡拔緊要而更呈, 臺體顛倒, 貽笑一世. 臣謂不可不改正也. 答曰: “第一件第三件依施. 第二件事, 向者大朝下教, 以細瑣爲教, 則欲其阿護, 至曰惜乎臺書之不以此爲言云, 其所挾雜, 良可寒心也.”

2) 『영조실록』(권 90) 1757년(영조 33) 9월 5일.

○ 命梲棘前掌令趙重明于大靜縣, 倍道押付. 自代理後, 疏章皆入小朝, 而有言事疏, 則白于大朝. 是日承旨奏重明有書, 上取覽召見, 問其書語, 重明奏對不明. 上曰: “五鬼之說, 非斥應協也, 乃將辱諸人也. 暗用機關, 不忍正視若無其人, 自有誣人律, 而觀渠卽一癡騃, 受囑不足責也.” 遂有是命.

3) 『승정원일기』(권 1148) 1757년(영조 33) 9월 5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荐棘罪人趙重明,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倍道押送之意, 敢達. 令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164) 1759년(영조 35) 1월 12일.

○ 申晩曰, 邦慶無前, 霈澤傍流, 如鄭彥暹者, 亦蒙放矣. 趙重明之放置大靜, 今已多年, 似宜有參量處分之道矣. 俞拓基曰, 臣未能詳知其因何罪犯, 而似不過文字語言間事. 且其人, 年已老而罪太重, 人皆稱冤矣. 上曰, 亦已久矣. 特爲放送. 出舉條

5) 『승정원일기』(권 1164) 1759년(영조 35) 1월 16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梀棘罪人趙重明, 因傳教放送, 令旨達下矣. 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達. 令曰, 知道.

117. 조철금(趙鐵金)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57년(영조 33) 11월 23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무신년 역적 조동규(趙東奎) 조카)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0) 1757년(영조 33) 10월 13일.

○ 上引見大臣, 備堂. 左尹具善復奏: “公州居李斗載來告御將言, ‘戊申逆賊子趙鐵金, 梁一增, 至今隱伏’ 云. 送捕校於本道究覈, 則鐵金卽正刑罪人東奎之姪, 而乙丑杖斃罪人興奎之子. 一增則謂逆賊德溥之從孫, 而考其帳籍, 則德溥無兄弟矣.” 尙魯曰: “鐵金雖異亡命, 以凶逆之姪, 漏網隱伏, 不可只用緣坐本律. 請嚴刑島配. 一增則更令本道查聞.” 從之.

2) 『승정원일기』(권 1149) 1757년(영조 33) 10월 16일.

○ 南泰著, 以義禁府言達曰, 因左尹具善復所啓, 戊申逆賊東奎侄[姪]鐵金, 令監營嚴刑一次後, 島配事舉條, 啓下矣. 鐵金, 時囚公州牧, 分付道臣, 嚴刑一次後, 全羅道濟州牧緣坐安置,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

3) 『승정원일기』(권 1150) 1757년(영조 33) 11월 23일.

○ 啓禧曰, 此乃忠淸監司金尙喆狀達也. 趙鐵金, 卽逆賊興奎之子也. 興奎雖未及正刑, 而其叔東奎, 承款正刑, 則鐵金當在緣坐, 而漏脫潛隱, 頃始現發, 因大臣陳達, 定配大靜縣矣. 今此狀達, 以爲劇賊緣坐之潛匿者, 無異亡命, 仍請梟示, 而梟示非本府所當議律, 大臣方入侍, 下詢處之, 何如? 上曰, 大臣諸堂之意, 何如? 尙魯曰, 渠以兇賊之子姪, 三十年漏脫緣坐, 至今潛匿, 論其情狀, 萬萬絕痛, 雖用一律, 固無所惜. 而但與亡命有異, 正刑係是法外, 故當初所以參酌島配者此也. 臣則前後無異見矣. 晚曰, 兇逆緣坐之三十年漏脫隱匿, 雖極絕痛, 而此是當初年未滿見漏者, 則今不可直斷以亡命之律. 向者島配時, 臣意

與左相無異，故有所仰達，今亦別無他見矣。啓禧曰，此正宜無遺類殄滅者，而在法則異於緣坐罪人之亡命，無必置死律之明文矣。漢喆曰，臣於入侍前，已與首堂，有所相議，別無異見矣。趙載洪曰，此則異於亡命，既無當用之律，參酌之論，與諸臣無異矣。宋昌明曰，臣之意見，與判堂同矣。上曰，依前下教島配。出舉條

118. 김용조(金龍祚)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59년(영조 35) 8월 17일.
- 해배 연월: 1764년(영조 40) 5월 27일.
- 사유: 흥언(역적 심정연〈沈鼎衍〉 부류, 전석조〈田錫祚〉 동향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4) 1759년(영조 35) 8월 11일.

○ 上御太僕寺, 親鞫田錫祚, 錫祚卽禮山人. 入試場, 伏地自言知國家盛衰之理, 書上國家將興必有禎祥八字. 又上一冊字, 上覽曰: “此乙亥餘孽也.” 至是設鞫親問, 錫祚托以夢中所言, 閃亂叵測, 未乃吐出凶言. 極爲陰慘. 上謂領議政金尙魯曰: “其本則戊申餘黨, 而其文則鼎衍一類, 此輩終無感化之意矣.” 使問錫祚曰: “今此訊問, 欲知戊申以後相傳之根柢也.” 錫祚供曰: “鄉人金龍祚, 見其冊子.” 上命發捕, 親鞫姑罷.

2) 『영조실록』(권 94) 1759년(영조 35) 8월 16일.

○ 上御太僕寺, 親鞫金龍祚, 其族龍鐵·龍彩, 亦自捕廳捉囚, 至是并訊刑, 而別無端緒之可疑, 錫祚加刑, 供以爲, 出於立功之意也.

3) 『승정원일기』(권 1172) 1759년(영조 35) 8월 17일.

○ 洪良漢, 以義禁府言啓曰, 罪人金龍祚, 全羅道濟州牧大靜縣勿限年定配事, 命下矣.以傳教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권 1230) 1764년(영조 40) 5월 27일.

○ 金華鎭, 以義禁府言啓曰, 咸鏡道端川府投畀罪人鄭枋, 定配罪人鄭景仁, 徒配罪人朴鳴陽, 北青府徒配罪人徐日輔, 鏡城府投畀罪人李蕃建, 全羅道萬頃縣充軍罪人李景春, 海南縣減等徒配罪人朴鳴球, 濟州牧大靜縣減等徒配罪人金龍祚, 慶尙道長鬐縣定配罪人尹冕東, 巨濟府定配罪人李益炆, 昆陽郡浣沙驛徒配罪人河命祥, 忠清道稷山縣投畀罪

人徐命臣，成驩驛徒配罪人李彥衡·柳聖發，延豐縣安保驛徒配罪人申敬日，槐山郡仁山驛徒配罪人李思贊，扶餘縣恩山驛徒配罪人尹光洙，淸風府黃江驛徒配罪人李錫濟，瑞山郡豐山驛徒配罪人李彝采，淸州牧栗峯驛徒配罪人徐好修，黃海道延安府深洞驛徒配罪人柳光翼，文化縣延陽驛徒配罪人洪啓九，江原道春川縣保安驛徒配罪人辛敦復，未及拿來罪人三水前府使具世仁等放送事，疏決單子中，付標啓下矣，竝放送事，分付於各該道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119. 안상오(安相五)

- 신분: 관리(평산부사)
- 유배 연월: 1759년(영조 35) 11월 23일.
- 이배 연월: 1764년(영조 40) 5월 6일(강진현).
- 사유: 지방관 탐장(貪贓, 부정부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3) 1759년(영조 35) 4월 2일.

○ 上御恭默閣, 引見大臣備堂. 海西御史金光國復命, 平山府使安相五, 以贓汚不法, 下金吾, 使之依律嚴處.

2) 『영조실록』(권 93) 1759년(영조 35) 4월 18일.

○ 上以贓吏安相五所坐累千金, 而遲晚之招, 其猶粧撰, 情狀可惡, 親臨宣仁門, 以軍法回示後, 更加刑訊, 結案取招, 留待啓覆後按法.

3) 『승정원일기』(권 1174) 1759년(영조 35) 10월 2일.

○ 行司直 李鼎輔曰, 啓覆不遠, 罪人安相五貪贓結案, 詳覈施行事, 允下, 而王府元無啓覆罪人舉行之例, 其文案, 移送秋曹, 以爲啓覆時一體舉行,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4) 『승정원일기』(권 1175) 1759년(영조 35) 11월 23일.

○ 李泰和, 以義禁府言啓曰, 傳教內, 安相五, 旣已酌處, 令該府, 次堂開坐, 將此判付, 曉諭相五, 當日押送配所, 渡海前倍道押送事, 命下矣. 同義禁鄭光忠, 開坐本府, 安相五拿入府庭, 判付內辭意曉諭後, 仍爲發遣府書吏, 倍道押送于全羅道濟州牧大靜縣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5) 『승정원일기』(권 1230) 1764년(영조 40) 5월 6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安相五, 特配陸地, 全羅道海南縣出陸罪人金致龜, 特爲中道減等事, 承傳, 啓下矣. 安相五, 康津縣出陸更配, 金致龜, 忠清道黃澗縣減等, 徒三年定配, 而依例發遣府書吏,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20. 이문순(李文淳/李文純)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60년(영조 36) 6월 26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사회 혼란, 의원 행세), 이천해(李天海)의 사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5) 1760년(영조 36) 6월 26일.

○ 上命秋曹, 嚴刑李文淳一次後, 大靜縣定配. 文淳者, 卽天海之四寸, 而以鍼醫行世, 出入於京中士夫家, 欲爲進身之計, 上聞戶曹判書洪鳳漢之所陳, 有是命.

2) 『승정원일기』(권 1182) 1760년(영조 36) 6월 26일.

○ 行戶曹判書 洪鳳漢曰, 今有驚駭之事, 敢此仰達矣. 李文純者, 以川海[天海]四寸孫, 稱以鍼醫, 肆然行世, 京中士夫, 無不往來, 誠極痛駭, 臣謂刑推島配, 可矣. 上驚問曰, 天海, 何等逆賊, 而渠以至親, 乃敢以恒人自處, 揚揚行世, 欲爲謀進之計乎? 不可置諸京輦, 秋判入侍, 當有下教矣. 承旨亦見之乎? 對曰, 臣自前知之, 而頃聞戶判之言, 心甚驚駭, 卽爲招問, 則不敢隱諱, 故一自厥後, 雖有疾病, 更不率來矣. 上曰, 今聞天海至親文純, 敢以醫術, 匿其本行于世云, 噫, 天海, 何等逆賊, 而旣無應坐之律, 雖道法律, 渠當縮伏, 不敢以恒人自處, 而亦焉敢放恣行世乎? 究其心, 不無謀進之意, 其心所在, 可謂叵測. 旣聞之後, 不可置諸輦轂之下, 不拘常例, 令秋曹合坐, 嚴刑一次後, 大靜縣定配. 出傳教

3) 『승정원일기』(권 1182) 1760년(영조 36) 6월 27일.

○ 洪麟漢, 以刑曹言啓曰, 罪人文純, 令秋曹嚴刑一次後, 大靜縣定配事, 命下矣. 罪人文純, 依傳教各別嚴刑後, 大靜縣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121. 신정관(申正觀)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61년(영조 37) 3월 18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9월 28일/ 1763년(영조 39) 9월 29일(사망).
- 사유: 연좌(무신년 역적 신천영(申天永)의 조카, 심래복 모반사건으로 나국)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191) 1761년(영조 37) 3월 18일.

○ 又以義禁府言達曰, 因江原監司狀啓, 凶逆天永姪正觀, 嚴刑三次, 絕島定配事, 擧條啓下矣. 罪人正觀, 時囚原州牧, 分付道臣, 嚴刑三次後, 以戊申逆賊天永姪, 全羅道濟州牧大靜縣, 流三千里, 緣坐安置, 而發遣府羅將, 仍令押送配所, 何如? 令曰, 依.

2)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壘·榮得·東渾·得明·維·褒·能孝·正觀·翼佐·戀·夢鼎·濟海·運海·陽祚·彥杓·昌翼·天大等, 初逆賊來復告榮得等, 以凶孽緣坐, 謫于島, 每發怨國之言, 往覘在謫宗臣壘, 爲推戴之謀, 上既誅來復, 命逮捕諸賊, 至是竝拿, 至榮得文書, 有軍器置簿, 而縣吏金萬車圖拔之狀, 現發於發捕金吾郎. 上竝親問之. 壘供曰: “臣年前得病島中無醫. 逆衍之庶姪, 頗解醫理, 故果爲邀見. 又有一人隨來, 問之則其嫡兄云, 而不接一言矣.” 問榮得, 供曰: “軍都目及軍器文書, 受價書給於軍器色吏, 而此是會案文書, 故更書以納. 來復則初不相知.” 更推刑訊不服. 問得明供曰: “臣於點考時, 雖見來復, 初無酬酢.” 問維供曰: “雖知來復之面, 實無接談之事.” 更推維, 供曰: “來復則未嘗接話, 榮得則相親.” 刑訊不服. 問褒供曰: “臣不知來復, 點考時, 只知其面.” 問能孝, 供曰: “臣遭母喪時, 來復爲弔喪而來, 而既無相弔之義, 故不爲受弔. 其後臣尋採鰻人, 往于渠家, 八年之間四次逢着. 而心中如食敗肉, 每自不好.” 問正觀, 供曰: “文書中潤碩卽大靜官奴曹潤碩也. 厥漢來請代書, 故果書置之, 入於文書中矣. 徒流案一節, 大靜吏輩不能書之, 給升米於臣, 而使書給, 故臣書之矣.” 刑訊不服. 問翼佐, 供曰: “來復面貌則臣豈不知?” 刑訊不服. 更推翼佐供曰: “榮得則臣果知之. 軍器冊則色吏借書於臣,

故欲束冊而置之。”榮得處加刑不服。問戀，供曰：“點考時，來復則果相見。臣在光州，惠在春川，渠等之事，豈相知乎？”刑訊不服。問夢鼎，供曰：“來復面目則臣果知之。”刑訊不服。問濟海，供曰：“臣便同常漢，爲人耕田，不識一字。”刑訊不服。問運海，供曰：“臣若有所知之事，則豈不直告？”刑訊不服。問陽祚，以文書中怪誕之書，左道之文，供曰：“臣欲無物慾，故每念佛，而非有邪心。與志·光哲諸賊連姻之事，心常恨之，故志賊居謫時，亦無書札往復。玉樞經曾無所讀之事，主人爲祈禱而有之矣。”刑訊不服。問彥杓，供曰：“臣於乙亥年，以見志賊凶書被鞠，以無端緒，蒙酌處之恩。若有可達者，乙亥親問時，豈不盡達乎？”問昌翼，供曰：“志之孫女通婚，而臣非門長，故以上京問于臣五寸叔爲言，果出於藉重之心矣。”刑訊不服。問天大，供曰：“臣於望華樓下場市，見樓上掛書，朴順才者摘取，而時值空官，故臣傳于座首柳頤泰。臣與志同參，而盡知其中事，故乙亥皆已直招矣。”命諸囚竝下府。

3)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8일.

○ 癸未九月二十八日辰時，上御太僕。親鞠入侍時，行都承旨沈墀，右承旨鄭夏彥，左副承旨李彥衡，右副承旨金應淳，同副承旨尹得雨，記事官俞彥鎬，事變假注書沈重奎，記事官韓後樂·金敍九，領府事申晚，領議政洪鳳漢，左議政尹東度，右議政金相福，判義禁洪啓禧，同義禁李應協·元仁孫，大司憲鄭光忠，大司諫金始煥，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以次進伏訖。領府事申晚曰，夜間，聖體，若何？上曰，一樣矣。晚曰，寢睡·水刺之節，亦何如？上曰，一樣矣。領議政洪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上曰，此時則三煎以入，可也。右副承旨金應淳曰，問郎不卽待令於文書床，推考，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 上曰，罪人墮上之。上曰，判義禁問之。上曰，戊申後初見汝面，汝以此樣上來，予豈料之乎？上曰，汝孫書中以爲，奴僕外勿接他人云，旣知汝事，故書辭然矣。汝有接見人客之事乎？招辭云云。見推案，下同。上曰，然矣。果是來復矣。上曰，今番厥漢之事，正如趙哥之發言於汝兄也。但汝兄則聽而不答，汝則無聽，而又無答矣，然厥漢若如趙哥之言於汝兄，則汝將何以處之？招辭云云。上曰，實矣。上曰，兩司在彼矣。必不仍置，然則汝不得更往濟州，又不得生踰圉圉矣。汝雖生，亦何益也？若無汝身，則豈有是事乎？招辭云云。上曰，下教，不能領會矣。上曰，墮下府。上曰，問郎持草紙

進來.金魯鎮進伏.上命書榮得問目訖.上曰, 榮得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初無欺隱之事, 問目內辭緣, 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 緣坐罪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上曰, 遁辭矣.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來復以爲, 汝爲逆賊緣坐之魁首, 偷取軍器, 將爲戊申之事云, 而軍器置簿, 入於文書中, 豈不鑿鑿符合乎? 招辭云云.上曰, 汝何爲而使來復, 往見堦乎? 招辭云云.上命書東渾問目訖.上曰, 榮得下之, 東渾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祖事, 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若不與來復言語酬酢, 則點考時, 汝何以吾祖上疏云云之說, 言及於來復乎? 招辭云云.上命書維問目訖.上曰, 東渾下之, 維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雖欺隱, 而許多罪人之口, 綻露無餘, 則卽當正法矣.招辭云云.上命書得明問目訖.上曰, 維下之, 得明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吾則毫無所累之言, 汝與誰人酬酢乎? 招辭云云.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命書褒問目訖.上曰, 得明下之, 褒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應坐人, 誰與相親耶? 招辭云云.上曰, 汝以名祖之血孫, 爲逆賊之繼後孫, 雖不免爲緣坐, 而敢與此輩, 綢繆相從乎? 招辭云云.上命書陽祚問目訖.上曰, 褒下之, 陽祚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念佛何故爲之? 招辭云云.上曰, 石片皆書南無阿彌陀佛何也? 汝以逆賊之種子, 敢爲念佛, 必有隱情矣.招辭云云.上曰, 依法.上曰, 志與光哲事, 汝不知乎? 招辭云云.上曰, 汝雖至此, 其本則士也, 以士而念佛, 何心也? 推是心, 何事不可爲也? 招辭云云.上曰, 更無酌處之理, 斯速遲晚.陽祚刑準次.上命書正觀問目訖.上曰, 陽祚下之, 正觀上之.上曰, 問目讀之.上曰, 汝以逆賊假兵使之親姪, 又犯亡命之罪, 宜乎象示, 而尙此偃息矣.汝與來復相親往來之事, 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 依法.上曰, 汝之書札中, 有來後年出陸之說, 汝豈有出陸之機耶? 其間曲折, 直告之.招辭云云.上曰, 來復以爲, 汝輩聚會謀議, 而汝之文書中, 有徒流案, 尤豈不殊常乎? 將欲爲汝叔之事乎? 招辭云云.正觀刑準次, 上命書濟海問目訖.上曰, 正觀下之, 濟海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汝以逆鏡之姪, 宜卽死矣, 而況與應坐諸賊, 往來綢繆乎? 招辭云云, 濟海刑準次.判義禁洪啓禧曰, 卽見能孝之搜探文書中, 有一帖字, 觀其辭語, 可見聖化之無處不暨, 且其叔匡師戒飭子姪之書, 亦入其中, 字字言言, 皆有感恩懷化之意矣.上曰, 匡師則本如此矣.應淳曰, 獄情將不至[知]止於何境, 此非可長語者也.上命書戀問目訖.上曰, 濟海下之, 戀上之.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上曰, 汝以逆賊惠之四寸, 又與來復謀逆, 而敢爲隱諱之計乎? 招辭云云, 戀刑準次.上命書夢鼎問目訖.上

曰, 戀下之, 夢鼎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以逆賊應坐, 敢與來復輩, 交通謀逆乎? 招辭云云. 夢鼎刑準次. 上命書運海問目訖. 上曰, 夢鼎下之, 運海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以一鏡之姪, 乃敢忍杖不服乎? 招辭云云. 運海刑準次. 上命書翼佐問目訖. 上曰, 運海下之, 翼佐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以巨源之孫, 運和之姪, 又與來復, 謀議不軌, 汝豈得生乎? 招辭云云. 上曰, 依法. 上曰, 汝父汝祖之所爲, 汝敢稱冤乎? 招辭云云. 翼佐刑準次. 上命書能孝問目訖. 上曰, 翼佐下之, 能孝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來復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以鼎衍之故, 汝家至此也. 然則鼎衍之子姪, 卽汝之讎也. 何心言語乎? 招辭云云. 上命書天大·彥杓問目訖. 上曰, 能孝下之, 天大·彥杓竝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天大則雖以同參謀逆遲晚, 而當初酌處, 蓋以多告同黨也. 彥杓則雖爲知情不告, 而既有持杖驅逐之說, 故十分酌處矣. 今者亂逆層生之時, 不得不特允臺啓, 將欲正法, 卽爲遲晚結案. 招辭云云. 上曰, 乙亥旣已直招, 而今日變辭可乎? 招辭云云. 上曰, 乙丙日記, 持入考奏, 可也. 啓禧曰, 取考日記, 則諸罪人文案, 俱甚草率矣. 應淳曰, 卽見丙子鞠案, 則所錄甚疎略, 其時禁堂及當該問郎,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命書昌翼問目訖. 上曰, 天大·彥杓下之, 昌翼上之. 上曰, 問目讀之. 上曰, 汝與賊志家結婚,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上曰, 志之結婚時, 春躋果以爲無妨, 而且給婚紙, 則汝於乙亥, 何不言之乎? 招辭云云. 上曰, 乃敢推諉於作故之人乎? 右議政金相福曰, 庚申年春躋家設宴時, 此人有嫌怨, 故敢爲逞毒之計矣. 上曰, 依法. 上曰, 汝終不以誣引自服乎? 招辭云云. 上曰, 李春躋之任使已久矣, 此等婚姻, 豈有勸成之理乎? 招辭云云. 上曰, 設使春躋勸之, 有可爲之婚, 有不可爲之婚, 豈可以春躋之言, 而爲不可爲之婚耶? 招辭云云. 昌翼刑準次. 上曰, 昌翼下之. 鳳漢曰, 湯劑進御, 何如? 上曰, 持來. 藥房提調金陽澤, 持湯劑入侍, 上進御湯劑. 鳳漢曰, 前判尹南泰齊, 旣已敍用, 其時左尹曹命采, 右尹李光傳[李光溥], 一體敍用. 明日試望, 當擬之人, 甚苟簡云, 前大司諫尹學東及堂上·堂下侍從違罷人, 竝敍用,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上命書榮得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以汝祖之故, 汝輩至此, 汝甘受乎, 稱冤乎? 招辭云云. 上曰, 奈何之說, 極勃慢矣. 上曰, 非汝以泰裔之孫而拿來也. 蓋以與來復謀議之事也. 汝敢終始隱諱乎? 且軍器置簿, 是汝之贓物矣, 尤何敢不服乎? 招辭云云. 榮得刑準次. 上命書維更推問目訖. 上曰, 榮得下之, 維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以益寬之孫, 忍杖何益? 直招無隱. 維刑準次. 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 上曰, 維下之, 翼佐上之. 上曰, 問目

讀之, 仍爲依法. 上曰, 榮得汝知之乎? 招辭云云. 上曰, 軍器置簿, 汝與榮得, 共力騰出, 是何意思乎? 招辭云云. 翼佐刑準次. 上命書東渾更推問目訖. 上曰, 翼佐下之, 東渾上之. 上曰, 問目讀之, 仍爲依法. 上曰, 汝祖汝認以爲逆乎? 招辭云云. 上曰, 然則汝何爲而對來復言, 吾祖則初無可罪之端云耶? 招辭云云. 東渾刑準次. 上曰, 東渾下之, 諸罪人竝下府. 上命承旨書之曰, 親鞫姑罷, 明日殿座待下教, 只入正時, 堧外皆預爲上闕, 而傳香後舉行. 出榻教

4)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 親鞫罪人得明·榮得·正觀·東渾·翼佐·裒·彦杓·維·戀·昌翼·夢鼎·敬修等, 榮得·東渾·敬修伏誅. 問得明, 供曰: “臣止接於外村, 榮得輩保授於城內, 渠輩親密與否, 何以詳知?” 更推不服. 得明與元德昭面質. 德昭, 大靜吏也. 德昭曰: “汝不言吾等當有好時乎?” 得明曰: “汝何爲此言?” 問榮得供如前. 加刑不服. 正觀·榮得面質. 正觀曰: “汝不與東渾等日日往來, 而姜翊周之女官妓月中梅, 作妾贖良乎?” 榮得曰: “贖良則其父爲之矣.” 正觀曰: “汝之三兄弟, 豈不相往來乎?” 榮得曰: “吾母喪時, 暫會矣.” 加刑, 供曰: “臣得妓妾, 免賤率畜, 與本縣倅, 爲妾同壻, 財穀相換以食. 與諸罪人往來綢繆.” 大逆不道結案. 問正觀, 供曰: “榮得以妓作妾, 而妓父姜翊周爲座首, 故榮得身爲官奴, 不爲立役. 其時邑倅曹敬修也, 榮得妾弟, 敬修作妾率去. 其謀議則不知矣.” 加刑不服. 問能孝不服. 問東渾, 供曰: “臣初無綢繆之事?” 加刑不服. 正觀·東渾面質. 正觀曰: “汝於點考時, 與榮得輩, 不同行同坐乎?” 東渾曰: “同受點考, 故同坐矣.” 加刑, 供曰: “與榮得同爲官奴, 故仍與綢繆.” 以大逆不道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雖正法, 豈敢稱冤?” 更推加刑不服. 問裒供曰: “東渾輩相親往來, 而臣則不入其類矣.” 加刑不服. 裒·榮得面質. 裒曰: “汝豈不曰傷痛乎?” 榮得曰: “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 則易生怨心, 汝勿燥燥云乎?” 裒曰: “然矣.” 榮得曰: “吾見嫉於汝與來復, 以有嫉惡之腸故也.” 加刑不服. 問彦杓, 供曰: “若有所知之事, 豈敢欺隱?” 問維加刑不服, 更推加刑不服. 問戀, 供如前不服. 問昌翼, 供如前, 加刑不服. 問夢鼎不服. 問敬修, 供曰: “所厝邑妓, 知其爲榮得妾弟, 而爲所生率來, 萬死無惜.” 教曰: “前大靜縣監曹敬修, 敢與罪人榮得作爲友壻, 官穀那移換給, 此眼無國法. 若不快施邦刑, 何以礪顏世? 亟正邦刑.” 仍命榮得弟二人及姜翊周·月中梅, 竝拿來.

5) 『승정원일기』(권 1222) 1763년(영조 39) 9월 29일.

○ 上御太僕.親鞫入侍時,行都承旨沈璣,右承旨鄭夏彦,左副承旨李彦衡,右副承旨金應淳,同副承旨尹得雨,記事官俞彦鎬,事變假注書沈重奎,記事官韓後樂·金敍九,領府事申晩,領議政洪鳳漢,左議政尹東度,判義禁洪啓禧,同義禁李應協·元仁孫·李澂,大司憲鄭光忠,大司諫金始煥,問事郎廳金魯鎮·李商芝·李在協·金載順·洪樂純·具壽國·洪檢·李壽鳳,刑房都事金履鐸·李基正,文書都事李成祐·沈載鎮,以次進伏訖.領府事申晩曰,昨日終日殿座,侵夜還內,聖體,若何?上曰,一樣矣.晩曰,寢睡·水刺之節,亦何如?上曰,一樣矣.領議政洪鳳漢曰,問郎金魯鎮·洪檢,見擬試望,謂有情勢,纔已違罷,而問郎則雖在罷散中,例爲啓下矣,兩問郎,使卽入侍,何如?上曰,依爲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上曰,問郎持草紙進前.洪樂純進伏.上命書得明更推問目訖.上曰,得明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祖非以血黨入於逆也,特以人事之僮侗也.今汝亦然,故昨日不爲刑推,而今又平問,無隱直招,則可免刑推矣.招辭云云.上曰,緣坐諸賊之互相綱繆親密之狀,汝則必見之矣,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得明下之,彦杓上之.上曰,濟州應坐諸人謀議之狀,汝必見之矣,隨見直告.招辭云云.上曰,汝今上來,法當結案,予雖參酌,而執法之臣,何容仍置?此事若直告,則可以立功矣.招辭云云.上曰,所陳實矣.榮得·東渾·能孝·維·褒等,締結往來之說,果不出所料矣.上曰,得明·翼佐,亦入其中乎?招辭云云.上命書褒更推問目訖.上曰,彦杓下之,褒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輩五六人作隊往來之事,已有明白指告者,汝敢隱諱乎?招辭云云.上曰,依法.招辭云云.上曰,汝既以六人納招矣.予則聞是七人云,其中一人,必是汝矣.直告之.招辭云云,褒刑準次.上曰,汝招稍實,故姑解縛矣.上命書榮得更招問目訖.上曰,褒下之,榮得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與東渾輩六人切親往來之狀及汝之爲汝祖稱冤之說,汝之同類中,已有指告者,汝敢欺隱乎?招辭云云.上曰,面質時若見屈,則當正法矣.上命書維更推問目訖.上曰,榮得下之,維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奸狀已露,更無可問,而又出於同類之招,無可欺隱矣.汝之爲汝祖稱冤之說話,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不思之說,極無據矣.他人則發明,而渠則以爲不思云,可見其常存於心也.上曰,依法.上曰,汝祖造船調馬之事,姑置勿論,予辭位時,乃敢曰,東宮之事,不過爲問寢視膳云,此一言,已是大逆矣.上曰,各別訊問,維刑準次.上命書翼佐更推問目訖.上曰,維下之,翼佐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今則無可隱矣.汝輩聚首謀議之狀及汝之爲汝祖稱

冤之說，已出於同類之招，汝敢隱諱乎？若不直告，則當依汝祖之例，卽爲梟示矣。招辭云云。上命書能孝更推問目訖。上曰，翼佐下之，能孝上之。上曰，問目讀之。上曰，汝之入於七人中，綢繆往來之狀，旣已綻露矣，汝於此輩，猶恐其相近，可也，乃敢與之爛漫親密乎？招辭云云。上曰，能孝下之，褒與榮得，竝上之。上曰，兩人使之面質。招辭云云。上曰，褒之佯屈，極妖惡矣。李壽鳳曰，乙亥年致雲與尙白面質時，尙白故見屈矣。此罪人情態，恰似尙白，尤極妖惡矣。上曰，然矣。榮得下之，褒依法，褒刑準次。上曰，褒下之，維上之。上曰，依法，維刑準次。上曰，維下之，榮得上之。上曰，依法。上曰，汝之情狀，綻露無餘，而褒之初旣直招，未又變辭者，尤極妖惡，豈可以此，而謂之見勝於面質乎？招辭云云。榮得刑準次。上曰，榮得下之，東渾上之。上曰，依法，東渾刑準次。上曰，東渾下之，翼佐上之。上曰，依法，翼佐刑準次。上曰，翼佐下之，昌翼·正觀，竝上之。上曰，竝依法，昌翼·正觀刑準次。上曰，正觀招中，榮得卜妾之事，尤爲放恣無狀矣。上曰，昌翼下之，榮得上之，與正觀面質。招辭云云。上曰，榮得依法。上曰，汝之初招，以爲邂逅相逢矣。今乃爛漫往來於各其家中，且汝以泰耆之孫，緣坐爲奴，乃敢以官婢作妾乎？是心亦逆也。招辭云云。上曰，榮得同生二人及姜哥□□，竝卽發捕，可也。鳳漢曰，濟州人誠過甚矣。敢以其女，許給於連坐之逆孽，其在懲後之道，恐不可尋常處之矣。上曰，其女月中梅，亦不可不竝爲拿來矣。其女竝其父，使捕校，隨往都事，拿來好矣。鳳漢曰，捕將使之入侍，分付，何如？上曰，依爲之。鳳漢曰，湯劑進御，何如？上曰，持來。藥房提調金陽澤，持湯劑入侍，上進御湯劑。榮得刑準次。上曰，榮得下之，正觀依法。上曰，汝招似實，而猶不盡吐，榮得謀逆節次，一一直告，招辭云云。上曰，以榮得·東渾爲魁之說，果是矣。曹敬修之與逆賊，爲妾同婿，而出穀相助之事，又豈非逆賊乎？亦卽發捕，可也。上曰，濟州京主人處，問其去住，則可知其在鄉與否，以此分付捕將，可也。正觀刑準次。上曰，正觀下之，榮得上之。上曰，依法。上曰，汝之情狀，綻露無餘，而終不直告，然前後已納之招，已是逆心，汝以汝祖之笥子，故遂至此境矣。蓋此憤懣之心，蓄積於中，故自歸怨國矣。汝旣以逆心占於口，又以自歸怨國四字，口招遲晚，可也。榮得刑十二度結案。上曰，榮得下府，東渾上之。上曰，依法。上曰，榮得旣已承款，汝旣同一心腸，則一向抵賴，有何所益？汝輩聚首謀議之狀，旣已綻露無餘，直爲遲晚。招辭云云。上曰，恰似逆■■之同歸可樂之語矣。東渾結案，上命承旨書之曰，大逆遲晚罪人榮得，頃者下教依。

122. 서지수(徐志修)

- 신분: 관리(이조판서)
- 유배 연월: 1761년(영조 37) 9월 9일.
- 해배 연월: 1762년(영조 38) 1월 4일.
- 사유: 건의 불발(주강 시 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8) 1761년(영조 37) 9월 8일.

○ 命徐志修付處, 敎曰: “職在冢宰, 何心曰過乎? 涎則無心而犯者, 徐志修有心而無嚴者, 付處於忠州, 使知忠字可也.”

2) 『영조실록』(권 98) 1761년(영조 37) 9월 9일.

○ 上御太僕, 親鞫李涎, 下問曰: “汝語犯大不敬, 是不忠也, 爲父上言, 不待決未, 遽卽遊山, 是不孝也. 命準刑.” 又問曰: “汝之上言, 自搆乎, 代草乎?” 供曰: “代搆者宋普命也, 刪削者黃景源也.” 命拿致, 問黃景源曰: “李涎上言句語叵測, 汝乃手自塗抹, 而向日登筵, 不爲直陳, 是豈人臣之道乎?” 景源供曰: “近來文集, 或有此等文字, 故泛然看過, 而有語及陸林一 南九萬者, 慮或歸於黨論, 果抹去矣.” 上曰: “語涉黨論, 則張目刪去, 事關先朝, 則尋常看過, 當繩之以法, 而予之不爲者, 非爲汝也, 爲搆紳也, 爲元良垂法也.” 問宋普命, 普命以代搆直招, 命以大不敬遲晚, 普命曰: “罪非犯逆, 而大不敬則逆也.” 上厲聲曰: “此與徐志修非逆之說, 相貫矣.” 命徐志修 大靜縣脞棘, 黃景源 巨濟府勿限年脞棘. 初, 賊臣洪麟漢, 嫉黃景源, 欲害之, 聞涎上言, 問承旨李心源曰: “上言者, 何如人也?” 心源曰: “黃景源姑母夫也.” 麟漢欲因涎上言, 中傷景源, 乃謂心源曰: “涎所謂被慘刑者, 語犯先王, 此不道也.” 心源進見. 爲上言涎不道狀, 因嗚咽涕泣, 上心警, 遂命刑曹, 逮涎囚. 群臣皆曰: “罪當誅.” 上, 以問黃景源, 景源對曰: “見涎上言, 而不能禁, 臣之罪也.” 判義禁李益炡, 與景源有隙, 至李涎納招, 益炡請拿景源, 上可之.

3) 『승정원일기』(권 1197) 1761년(영조 37) 9월 9일.

○ 柳健, 以義禁府言啓曰, 忠淸道忠原縣付處罪人徐志修, 全羅道濟州牧大靜縣圍籬安置, 而以傳教內辭意具罪目, 依例發府都事, 仍令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倍道下去, 其令卽爲押去.

4) 『영조실록』(권 99) 1762년(영조 38) 1월 4일.

○ 上御景賢堂, 引見大臣備堂, 命梃棘罪人徐志修, 特撤圍籬減等, 黃景源爲先撤圍籬. 教曰: “兩人所坐, 雖有輕重, 歲已翻矣, 不覺愴然.” 仍有是命.

5) 『승정원일기』(권 1201) 1762년(영조 38) 1월 4일.

○ 李翼元,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 荐棘罪人徐志修, 特撤圍籬減等, 慶尙道巨濟府, 荐棘罪人黃景源, 爲先撤圍籬事, 命下矣. 徐志修, 依前罪目, 仍其配所撤圍籬, 減等徒三年改錄, 黃景源, 依傳教, 爲先撤圍籬事, 發關分付於兩道道臣之意, 敢啓. 答曰, 知道.

6) 『승정원일기』(권 1202) 1762년(영조 38) 2월 3일.

○ 上命書黃景源傳旨曰, 徐志修, 今已蒙釋矣. 上曰, 豈意近七暮年, 行醺戒受朝, 見今朝已諡, 此寔皇天陟降之默佑, 欲爲差等, 雖不頒教, 今番之事, 與往年事, 亦較重, 徒年放送, 徒流案中, 可稟者啓聞, 依昨年例舉行. 黃景源事, 頃已下教, 而比諸徐志修, 輕重雖殊. 噫, 昨於下教時, 欲諡而默矣. 憶再昨年, 又憶同奉時事, 其時啓奏者誰? 到今興懷之時, 特施寬典, 亦體昔年之意, 特爲陸地減等. 出傳教

7) 『영조실록』(권 99) 1762년(영조 38) 5월 20일.

○ 命放黃景源 · 徐志修給牒紋用.

8) 『승정원일기』(권 1205) 1762년(영조 38) 5월 20일.

○ 鳳漢曰, 又有重臣. 上曰, 誰也? 對曰, 徐志修也. 上曰, 此則當別書傳教矣, 有所謂無隅石者, 眞志修是也. 鳳漢曰, 然故每蒙曲恕之恩於聖上者此也. 上曰, 來則雖明日, 又必作才

操矣，今則見放乎？鳳漢曰，黃景源乎？上曰，景源未蒙放乎？東度曰，今則與徒年同，遇赦則放矣。上曰，黃景源非矣，才勝德而無邪曲矣。晦曰，景源一生操心，而遭此境矣。鳳漢·東度俱奏曰，其人善文，慮得世謗，他人文字，他人疏草，一不掛眼，惟以謀避爲事，爲人徒善，故逢此境矣。上曰，其時若直對則爲宜，而不忍陳之，不但生畏怯，亦其姑夫之致耶？鳳漢曰，其時臣等，亦責以不直對，是自作之咎，而此非欺罔也，乃不能辦也。晦曰，此人無與人爭競事。鳳漢曰，實無言周變矣。上笑下教曰，然則與人爭詰，到處見落矣，然當與徐志修有別矣，志修則今已還乎？東度曰，尙未還矣。上曰，所坐雖重，其心無他，已知不然，其雖衰矣，何可輕施寬典？徐志修，特爲給牒敘用，輕重雖異，事件則同，係是徒年，宜舉放中，而循例以放，事體如何，黃景源，特爲放送，仍爲給牒。出傳教

123. 배운현(裴胤玄)

- 신분: 미상(상주인〈尙州人〉)
- 1차 유배 연월: 1762년(영조 38) 2월 28일~1762년(영조 38) 11월 8일(나국).
- 2차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6월 23일~미상.
- 사유: 범죄(홍서, 대궐 문에 괘서〈掛書〉 미수)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9) 1762년(영조 38) 2월 28일.

○ 夜上御典設司, 親鞫裴胤玄. 胤玄尙州人, 欲爲掛書於闕門, 爲府隸所捉. 判尹李喆輔請對以陳, 上卽命親鞫, 而所供皆是虛妄. 教曰: “觀其書, 不過雜術虛誕人. 此等人不可不嚴隄防, 故親問疏學, 旣已遲晚, 其宜屏諸遐裔.” 大靜縣定配.

2) 『승정원일기』(권 1202) 1762년(영조 38) 2월 2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裴胤玄, 濟州牧大靜倍道押送事, 命下矣.以傳教內辭意, 俱罪目, 發遣府羅將, 倍道押送之意, 敢啓.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1212) 1762년(영조 38) 11월 7일.

○ 領議政申晩曰, 濟州牧使申光翼牒報備局中, 以爲定配罪人裴允玄[裴胤玄], 呈所志於三縣巡歷時, 而語極虛謊, 故所志上送云矣.上曰, 其所志上之. 仍命(右副承旨鄭)存謙讀之訖. 上曰, 其言極凶譎矣. 此故爲辱國之計者, 頃者言倭艇趁未時, 南來之賊亦妖惡, 故以過未時加刑矣. 今此庚申月等說, 極凶矣. 左議政洪鳳漢曰, 生置此漢, 則恐惑濟州之民矣. 上曰, 杖殺之則何如, 而使牧使, 張軍威決棍, 亦好矣. 晩曰, 雖無可惜, 而不可張威決棍矣. 上曰, 備堂之意, 何如? 刑曹判書李益輔曰, 梟示一島, 以徵人心, 好矣. 吏曹判書金相福曰, 限死杖殺, 則無弊矣. 戶曹判書徐志修曰, 不必用軍法, 而以妖言律處之, 似好矣. 吏曹參議趙曦曰, 周有造言之律, 不可置之矣. 上曰, 承旨之意, 何如? 右副承旨鄭存謙曰, 既有妖言律, 則依律處斷, 好矣. 同副承旨李福源曰, 妖言惑衆, 罪當正法, 而杖殺則不爲當律矣. 上命存謙書曰, 今覽濟州牧使報備局狀, 裴允玄[裴胤玄], 么麼一允命[胤命]應坐

者, 反效允命[胤命]之怪誕, 其所下語, 謊誕莫甚, 其敢有有國·有法之心, 焉敢若是? 此乃物怪, 殺之無赦. 令本牧勿拘日次, 嚴刑三次後, 狀聞之意, 令該曹卽爲分付. 出傳教

4) 『승정원일기』(권 1212) 1762년(영조 38) 11월 8일.

○ 獻納嚴璘曰, 治獄之道, 當務謹嚴, 事關告變, 則不可以外面之虛謊, 徑先處斷, 今此裴胤玄所爲, 驟看頗似妖誕, 自上以三次嚴刑爲教, 而欲其斃於杖下者, 聖意固有, 在憲臣之以依律處斷爲請者, 亦可謂有所見, 而名以告變, 不爲嚴覈情僞, 直加勘斷, 甚非重獄體之意, 亦關後弊. 請大靜定配罪人裴允玄[裴胤玄], 亟命王府拿來, 嚴鞫得情, 以正王法. 上曰, 昨日處分, 意雖在矣, 執法之地, 必也若此, 憲臣所啓, 亦引周禮, 而今者所請, 國體果然. 依啓. 璘曰, 新除授正言朴相老, 時在京畿安城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上曰, 依啓. 持平申一淸曰, 臣年紀衰邁, 才識淺短, 本不合於清朝耳目之任, 而今於濟州定配罪人裴胤玄, 以妖言惑衆依律處斷之意, 論啓蒙允矣. 諫臣以拿鞫得情, 夫正王法之意, 繼發論啓而蒙允, 則臣之擬律乖當之失, 著矣. 臣何可一刻仍冒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 上曰, 各有意見, 既得臺體, 豈可以此, 過爲引嫌? 勿辭, 亦勿退待. 參贊官金孝大曰, 鞫囚發捕, 事體嚴重, 何以爲之乎? 上曰, 既允臺啓, 分付該府, 卽爲舉行.

5) 『영조실록』(권 101) 1763년(영조 39) 1월 6일.

○ 本府行推鞫, 罪人裴胤玄加刑, 供如前.

6) 『승정원일기』(권 1214) 1763년(영조 39) 1월 6일.

○ 同月初六日申時, 上御景賢堂. 坐直承旨入侍時, 行左承旨金孝大, 同副承旨李宜老, 假注書李亨元, 記事官李東顯·李崇祐, 以次進伏訖, 當直都事入侍事. 出榻教 禁府都事金履鐸進伏. 上曰, 在本府罪人問目所對, 與濟牧所報同與異, 速速知來以奏, 可也. 上曰, 履鐸勝於厥父矣. 宜老曰, 厥父甚淳實矣. 上命互奏公事, 至北伯啓狀. 上曰, 李景說事, 非人所爲矣. 如許者經閫帥耶? 上曰, 胤玄, 必然欲越海而來, 故作此怪舉, 而日氣乖常, 才操可慮矣. 命推鞫承旨入侍, 閱百興進伏. 上曰, 厥漢無恟耶? 百興曰, 大抵無常心, 而胡辭亂語, 不成說話矣. 上曰, 殺之外無他矣, 三公盡赴坐耶? 百興曰, 齊到矣. 命奏招辭. 上曰, 怪矣. 非人語也. 申一淸所啓, 島中臬示之言, 甚好矣. 其說雖無理, 非狂矣. 如洪述人矣. 上曰,

胤玄加刑後，推鞠姑罷，若無他供辭，明日大臣以下參鞠諸臣入侍.出傳教

7)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6월 22일.

○ 諫院【司諫鄭恒齡.】申前啓, 不允. 趙甲彬事停. 憲府【持平具庠.】申前啓, 不允. 裴胤玄事, 依啓. 仍命義禁府鞠之, 以其顛狂無實. 命酌處流海島.

8) 『승정원일기』(권 1219) 1763년(영조 39) 6월 2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裴胤玄, 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事, 承傳啓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124. 한광조(韓光肇)

- 신분: 관리(승지)
- 유배 연월: 1762년(영조 38) 6월 1일.
- 이배 연월: 1762년(영조 38) 7월 11일.
- 사유: 왕명 비판(사도세자 폐위 반대)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9) 1762년(영조 38) 윤5월 13일.

○ 上幸昌德宮, 廢世子爲庶人, 自內嚴囚. 初孝章世子既薨, 上久無嗣育, 及世子誕生, 天資卓越, 上甚愛之. 十餘歲以後, 漸怠於學問, 自代理之後, 疾發喪性. 初不大段, 故臣民冀其克瘳矣. 自丁丑戊寅以後, 病症益甚, 當其疾作之時, 殺宮婢宦侍, 殺後輒追悔. 上每嚴教切責, 世子疑懼添疾. 上御慶熙宮, 兩宮之間, 轉成疑阻, 且與閹寺妓女, 遊嬉無度, 專廢三朝之禮, 上意不合, 而既無他嗣, 上每爲宗國之憂矣. … 乃命挾輦軍, 牢塞殿門四五匝, 又令摠管等排侍, 向宮牆露刃. 攔宮城門, 吹角會軍護衛, 禁人出入, 雖卿宰無一人入來者, 獨領議政申晩入來. 上命世子伏地脫冠, 徒跣扣頭, 仍下不忍聞之教, 促其自殺, 世子扣額血出. 申晩, 左議政洪鳳漢, 判府事鄭暲良, 都承旨李彝章, 承旨韓光肇等入來, 未及陳言, 上命罷三大臣及韓光肇, 四人皆出. 世孫入來, 脫冠袍伏于世子後, 上抱送于侍講院, 命金聖應父子, 守衛毋得復入. 上持劔連下不敢聞之教, 促東宮自決, 世子欲自經, 爲春坊諸臣所解. 上仍下廢爲庶人之命. 時申晩·洪鳳漢·鄭暲良復入, 不敢諫, 諸臣亦不敢爭. 上使侍衛軍兵, 驅出春坊諸臣, 獨翰林林德躋牢伏而不去, 上嚴教曰: “廢世子, 豈有史官?” 使人扶掖以出, 世子扶德躋衣, 哭而隨出曰: “爾亦出去, 余將疇依?” 乃出殿門, 問于春坊諸僚, 事將奈何? 司書任晟曰: “事當復入殿庭, 以待處分.” 世子哭而復入, 伏地哀乞, 請改過爲善. 上教愈嚴, 微陳暎嬪之所告, 暎嬪卽世子誕生母李氏, 而有所密告於上者也. 都承旨李彝章曰: “殿下以深宮一女子之言, 動搖國本乎?” 上震怒, 命亟正邦刑, 旋寢其命. 遂命世子幽囚, 世孫倉皇入來. 上命嬪宮世孫及諸王孫, 送于左議政洪鳳漢第, 時夜已過半矣. 上乃下傳教, 頒示中外, 傳教史官諱而不敢書.

2) 『영조실록』(권 99) 1762년(영조 38) 6월 1일.

○ 上命前參判韓光肇 大靜縣定配, 以不參頒教, 因臺啓有是命.

3) 『승정원일기』(권 1207) 1762년(영조 38) 6월 1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韓光肇, 大靜縣島配事, 命下矣. 島配罪人韓光肇,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卽爲押送于全羅道濟州牧大靜縣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207) 1762년(영조 38) 6월 25일.

○ 鄭光漢, 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付處罪人韓光肇, 因前島荐棘, 削黜罪人張志恒遠地定配事, 承傳啓下矣. 韓光肇仍前配所全羅道濟州牧大靜縣絕島荐棘, 而依例發遣府都事, 仍令所到處, 押送配所荐棘, 張志恒咸鏡道北青府遠地定配, 而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5) 『영조실록』(권 100) 1762년(영조 38) 7월 11일.

○ 上御思賢閣, 引見大臣備堂. 上以韓光肇之島配過矣, 命定配鴻山.

6) 『승정원일기』(권 1208) 1762년(영조 38) 7월 11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靜荐棘罪人韓光肇, 依前酌處, 定配鴻山事, 命下矣. 定配罪人韓光肇,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仍令押送于忠清道鴻山縣配所, 何如? 傳曰, 允.

125. 엄린(嚴璘)=엄숙(嚴濤)

- 신분: 관리(수찬, 대사헌)
- 1차 유배 연월: 1762년(영조 38) 6월 22일~1762년(영조 38) 7월 15일(해배).
- 2차 유배 연월: 1772년(영조 48) 4월 12일~1772년(영조 48) 7월 14일(해배).
- 사유: 봉당(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07) 1762년(영조 38) 6월 22일.

○ 李宜哲, 以義禁府言啓曰, 問郎嚴璘全羅道濟州牧大靜縣島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승정원일기』(권 1207) 1762년(영조 38) 6월 24일.

○ 李宜哲, 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大靜縣島配罪人嚴璘圍籬安置事, 承傳啓下矣. 依例發遣府都事, 島配罪人嚴璘所到, 仍令押送配所, 圍籬安置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영조실록』(권 100) 1762년(영조 38) 7월 15일.

○ 上御景賢堂, 晝講《中庸》. 上命梄棘罪人嚴璘, 撤圍籬放送, 上燭其冤也.

4) 『승정원일기』(권 1208) 1762년(영조 38) 7월 1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荐棘罪人嚴璘, 卽爲撤圍籬放送事, 命下矣.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罪人嚴璘, 卽爲撤圍籬放送事, 發關分付於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5)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5월 28일.

○ 前參判嚴璘改名濤, 蓋以與朱璘同名, 故大臣陳達改之.

6) 『영조실록』(권 118) 1772년(영조 48) 4월 12일.

○ 命梄棘嚴濤於大靜縣. 時臺臣日請金致仁加律, 而濤以都憲入侍, 發眞清假清之說, 蓋

欲以致仁歸之於假清. 而奏未畢, 上震怒, 以璫趨附其黨, 而黽勉請討, 亟命梟棘, 并遞入侍三司之臣.

7) 『승정원일기』(권 1327) 1772년(영조 48) 4월 12일.

○ 尹勉升, 以義禁府言啓曰, 嚴璫, 大靜縣荐棘, 三倍道押付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8) 『영조실록』(권 119) 1772년(영조 48) 7월 14일.

○ 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 因右議政李澂所奏, 特放嚴璫.

9) 『승정원일기』(권 1329) 1772년(영조 48) 7월 1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罪人嚴璫特放, 承傳啓下矣. 放送事, 分付該道道臣及該牧使之意, 敢啓. 傳曰, 知道.

126. 목조령(睦祖齡)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62년(영조 38) 7월 11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대역부도죄인 목중도〈睦重道〉 손자)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9) 1762년(영조 38) 6월 25일.

○ 上御太僕寺, 親鞫罪人睦重道, 祖述, 黃冕, 朴垂裕, 以次就服. 重道, 垂裕以大逆不道書判狀, 祖述以妖言惑衆, 同犯不道遲晚, 獨冕不服.

2) 『승정원일기』(권 1207) 1762년(영조 38) 6월 28일.

○ 又以左右捕盜廳言啓曰, 依傳教左右廳軍官發送, 春川縣正法罪人重道子最敬·孫祖齡, 罪人祖述同生兄祖煥姪宗彦, 及罪人冕子壽坤, 同生弟晟等, 捉囚本縣後, 受文狀上來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208) 1762년(영조 38) 7월 11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江原監司牒報及春川縣監成冊, 則大逆不道罪人重道, 應坐諸人查出以來矣. 罪人重道子最敬, 捉囚春川縣, 卽爲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 緣坐處絞後, 孫祖齡, 全羅道濟州牧大靜縣緣坐爲奴, 子婦戒每, 慶尙道迎日縣緣坐爲婢, 孫女愛, 長鬐縣緣坐爲婢, 右罪人等, 時囚春川縣,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27. 김치구(金致龜)

- 신분: 관리(남양부사)
- 유배 연월: 1762년(영조 38) 7월 17일.
- 이배 연월: 1764년(영조 40) 1월 13일(해남현).
- 사유: 지방관 폭정(다수 악형)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0) 1762년(영조 38) 7월 14일.

○ 南陽御史姜必履, 進民人所食海紅菜, 上曰: “食此爲生, 甚可惻也.” 命封置政院. 命拿致南陽府使金致龜, 因御史所陳, 以其祈雨時, 私奸齋室, 民多離散, 施以惡刑故也.

2) 『영조실록』(권 100) 1762년(영조 38) 7월 17일.

○ 上御建明門, 親問金致龜, 致龜不服, 命特貸一律, 大靜縣充軍.

3) 『승정원일기』(권 1208) 1762년(영조 38) 7월 1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金致龜,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勿限年充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226) 1764년(영조 40) 1월 13일.

○ 嚴璘,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充軍罪人金致龜, 特爲更配於海南陸地事, 命下矣. 金致龜, 依傳教, 海南縣出陸更配, 而依例發遣府書吏, 仍令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128. 서유원(徐有元)

- 신분: 관리(정언)
- 유배 연월: 1762년(영조 38) 9월 26일.
- 해배 연월: 1763년(영조 39) 2월 20일.
- 사유: 건의 불발(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0) 1762년(영조 38) 9월 26일.

○ 上御景賢堂, 晝講《中庸》. 正言徐有元啓曰: “聖上復政之初, 務開言路, 聖意甚盛. 而向來奏對之三司, 陳疏之儒臣, 固宜包容, 而不賜恕諒, 過加摧折, 或削或補, 景色愁沮. 他日殿下, 或有過中之舉, 孰爲殿下進一言哉? 請三司削職, 儒臣補外之命, 一併還收.” 上曰: “依啓.” 又啓曰: “前持平崔, 爲人愚騃, 全沒知識. 向日兩守令放送還收之請, 不成說話, 請削職.” 上曰: “依啓.” 又啓曰: “尹得雨以釁累之蹤, 見棄於儕流, 當初拔望, 可見公議之甚嚴. 萊伯不過一邊倖耳, 尙有駁正之論, 況近密清顯之職乎? 請右副承(昔)〔旨〕尹得雨改正. 上不允. 又啓曰: “禁酒之令, 何等至嚴, 而民不畏法, 相續犯釁者, 死固無惜. 而大抵此禁, 都出於我聖上愛民欲生之意, 則爲臺臣者, 直以論置大辟爲請者, 已非對揚奉承之道. 況其拂拭洗滌, 受恩何如, 而新入臺地, 無一言及於衰闕官邪, 創出國典所無之法, 導人主於嚴法峻刑之科, 實非貽謨垂裕之道. 如此宵小之人, 不可置之衣冠之列, 請前正言權極, 削去仕版, 改正臺望.” 上曰: “此謂爲建德報仇, 大靜縣投畀.”

2) 『승정원일기』(권 1210) 1762년(영조 38) 9월 26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正言徐有元, 大靜縣定配. 倍道押送事承傳啓下矣. 徐有元, 以傳教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 倍道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영조실록』(권 101) 1763년(영조 39) 2월 20일.

○ 上引見大臣備堂. 上謂諸臣曰: “儒賢請放以言獲罪者, 而但金時粲, 不可遽釋矣.” 左議政洪鳳漢曰: “只可減等耶?” 上曰: “放則放耳, 何可減等?” 鳳漢曰: “以言被罪者, 非止

一人，放其可放者，亦爲待儒賢之道矣。”上然之。”… 鳳漢 陳徐有元·柳匡國事，上命放之。

4) 『승정원일기』(권 1215) 1763년(영조 39) 2월 21일.

○ 權導，以義禁府言啓曰，全羅道海南縣定配罪人尹塾，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徐有元，咸鏡道穩城府遠竄罪人柳匡國等，放送承傳啓下矣。竝放送事，分付於各該道〈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129. 이강(李綱)

- 신분: 종실(연좌)
- 유배 연월: 1762년(영조 38) 윤5월 18일.
- 해배 연월: 1774년(영조 50) 5월 24일.
- 사유: 연좌(종실 이관<李燿>=해릉군<海陵君>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3) 1755년(영조 31) 3월 3일.

○ 敎曰: “噫! 其人若在, 則爲國之道, 爭之可也, 其人既無, 則有何爭執於特放? 昨日已諭頃者垂涕之意, 而至於燿事, 與其相持而經年, 不若允從而收殺, 故代元良特允. 而更以思之, 燿, 燿一也, 竝允臺請, 燿 端川府定配, 燿 洪原縣定配.” 燿, 燿以干連帑, 縲之獄, 憲府發達請遠配, 至是蒙允.

2) 『영조실록』(권 85) 1755년(영조 31) 7월 2일.

○ 左議政金尙魯請 燿, 燿諸子, 極邊定配, 命配嶺沿.

3) 『영조실록』(권 99) 1762년(영조 38) 윤5월 15일.

○ 憲府申前啓, 不允. 至燿·燿事, 答曰: “燿·燿諸子事, 尙今相持, 亦云過矣. 莫云陸島, 其配一也.” 其所謄傳, 予於今日, 亦何循例? 依啓.” 諫院申前啓, 不允.

4) 『승정원일기』(권 1206) 1762년(영조 38) 윤5월 18일.

○ 尹東昇, 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燿·燿諸子, 移配絕島事, 依啓矣. 處絞罪人燿子昌原府定配罪人■■■, 移配旌義縣, 咸安郡定配罪人仁得, 移配巨濟府, 漆原縣定配罪人善得, 移配南海縣, 處絞罪人燿子興海郡定配罪人垺, 移配大靜縣,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5) 『승정원일기』(권 1334) 1773년(영조 49) 1월 24일.

○ 行大司憲黃景源, 大司諫李憲默, 持平李東郁, 持平洪宗蓋, 獻納崔KC01640啓曰, 請慶興府定配庶民罪人趙榮順, 按律處斷.措辭上同 行大司憲黃景源, 持平李東郁, 持平洪宗蓋啓曰, 請黑山島爲奴罪人五得, 依律處斷.措辭上同 請還寢張翼標島配之命, 依律處斷.措辭上同 又啓曰, 定配罪人垺, 以凶賊同堂至親, 因臺啓置之海島, 蓋所以嚴隄防也.今其妻擊申聞鼓, 至有出陸之命, 而當初臺論峻發, 有不可遽然減等, 請還寢罪人垺出陸之命, 仍配大靜.大司諫李憲默, 獻納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仲義, 依律處斷.措辭上同 請黑山島爲奴罪人五得, 依律處斷.措辭上同 又啓曰, 定配罪人垺, 以凶賊同堂至親, 因臺啓竄配絕島, 既多年所, 而今因其妻之擊鼓, 至有出陸之命, 而當初臺論峻發, 其在嚴隄防之道, 有不可遽然減等, 請還寢大靜縣定配罪人垺出陸之命.答府院曰, 既諭, 勿煩.答府院曰, 不允.末端事依啓.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絕島定配罪人垺, 初配所興海郡移配事, 草記蒙允, 而因臺啓, 出陸之命還寢, 仍配大靜縣事, 啓下矣.罪人垺, 依臺啓仍配, 大靜縣之意, 敢啓.傳曰, 知道.

6) 『승정원일기』(권 1351) 1774년(영조 50) 5월 2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絕島定配罪人垺, 特放爲陸地庶人, 其令夫妻團圓事, 命下矣.卽爲放送事, 分付該道道臣及該牧使之意, 敢啓.傳曰, 知道.

130. 이의배(李義培)

- 신분: 미상(강상인〈江上人〉)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2월 2일.
- 이배 연월: 1763년(영조 39) 8월 19일(해남현).
- 사유: 범죄(흉언, 고변〈告變〉 과장)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1) 1763년(영조 39) 1월 30일.

○ 左議政洪鳳漢請對, 上命入侍. 鳳漢曰: “江上人李義培者, 來言其查林彩羽家, 有何許怪人, 來請貸錢, 或作妖術, 或發危言, 蹤跡殊常, 故縛置來告云, 不可置而不問.” 上遂下親鞫之命.

2) 『승정원일기』(권 1215) 1763년(영조 39) 2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罪人李義培, 全羅道濟州牧大靜縣充軍, 罪人林彩羽, 特爲參酌, 咸鏡道端川府定配事, 命下矣. 竝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221) 1763년(영조 39) 8월 1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充軍罪人李義培, 出陸減等, 咸鏡道端川府定配罪人林采羽[林彩羽], 特爲放送事, 承傳啓下矣. 李義培, 海南縣出陸減等徒三年, 而依例發遣府書吏, 仍令押送配所, 林采羽[林彩羽], 卽爲放送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31. 이덕홍(李德泓)

- 신분: 종인(서리〈書吏〉)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4월 14일.
- 나국 연월: 1763년(영조 39) 5월 18일/ 1763년(영조 39) 7월 24일(사망).
- 사유: 범죄(어보〈御寶〉 위조)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17) 1763년(영조 39) 4월 14일.

○ 姜必履, 以刑曹言啓曰, 御寶僞造罪人李德泓, 當日內嚴刑一次, 大靜縣定屬爲奴事, 命下矣. 李德泓, 依傳教嚴刑一次後, 爲奴定屬於大靜縣, 仍卽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영조실록』(권 101) 1763년(영조 39) 5월 18일.

○ 諫院申前啓, 不允. 憲府【掌令申應顯.】申前啓, 不允. 德泓事, 依啓. 仍命該曹, 嚴刑取招.

3) 『승정원일기』(권 1218) 1763년(영조 39) 5월 18일.

○ 掌令申應顯曰, 請還收德泓爲奴之命, 更令該曹嚴刑取服, 依律處斷. 上曰, 旣令臺臣宜煞者煞之, 當因者因之, 則此等之啓, 其若靳持, 非己所不欲勿施於人, 依啓. 府·院啓措辭竝見上, 竝出舉條 上命承旨書之曰, 德泓事, 旣已依啓, 嚴刑取服後, 登對以奏. 出傳教

4) 『승정원일기』(권 1220) 1763년(영조 39) 7월 24일.

○ 傳曰, 李德泓既有勿拘日次之命, 則今日不爲舉行, 德泓所犯若何, 而若是泛忽乎? 該曹堂上從重推考, 此後逐日嚴刑, 期於取服事申飭. 出傳教

5) 『승정원일기』(권 1220) 1763년(영조 39) 7월 25일.

○ 傳曰, 今聞昨日德泓之不爲刑推, 蓋由物故云, 刑曹當該堂上推考勿施. 出傳教

132. 김중태(金重泰)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5월 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부정부패)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18) 1763년(영조 39) 5월 4일.

○ 上命備堂先退後, 捕盜大將李泰祥入侍進伏, 上命承旨讀金重泰等捕廳捧招訖, 上曰, 頃聞臺啓, 其涉駭然. 今則捕廳既得其人, 覽其供辭, 此關係世道者, 而究其本則不過數十貫錢兩, 初意則其慾, 深矣, 陰譎教誘指揮, 卽金重泰, 此不嚴懲, 若今人心, 涓涓炎炎, 將至於何? 首謀金重泰令本廳從重決棍五十度後, 送于秋曹, 大靜縣充軍, 張至永·田瑞雨亦令捕廳決棍三十度, 送于秋曹, 張至永江陵府充軍, 田瑞雨三陟府充軍. 出傳教

2) 『승정원일기』(권 1218) 1763년(영조 39) 5월 5일.

○ 又以刑曹言啓曰, 金重泰大靜縣充軍, 張至永江陵府充軍, 田瑞雨三陟府充軍事, 命下矣. 依傳教金重泰全羅道濟州牧大靜縣, 張至永江原道江陵府, 田瑞雨江原道三陟府, 竝充軍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133-134. 전효증(全孝曾), 전효순(全孝順)/전효舜(全孝舜)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5월 22일.
- 해배 연월: 1774년(영조 50) 5월 2일.
- 사유: 역모 연루(역적 심정연〈沈鼎衍〉 친밀)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84) 1755년(영조 31) 5월 4일.

○ 上御內司僕, 親鞫, 逆賊鼎衍伏誅. 刑訊鼎衍, 鼎衍供: “匿名書, 臣果爲之, 其中數人, 卽臣之讎也. 臣以成衍, 益衍之弟, 有怨國心, 故勳戚之人眷遇之臣并嫉之, 而欲先除去, 爲此陰慘罔測之計矣. 臣與逆志族惠同謀, 惠卽就商弟, 五商繼子, 慙之弟, 而春川人柳明斗之女壻也. 逆鏡之從孫道成爲窩主, 與惠書此文給臣使呈. 而臣欲謀逆, 既呈匿名書, 又以臣名書呈經綸, 欲掩匿名之跡矣. 逆鏡之從孫, 又有變姓名爲僧者. 又有事機之時急者, 惠方聚軍謀逆於春川矣.” 其結案招有曰: “科前作文書于桃洞.” 又曰: “欲除勳戚眷遇之臣, 誣此人等.” 又曰: “陰慘不道之說, 向上罔測之計, 臣之凶肚綻露.” 大逆不道遲晚. 教曰: “逆賊何代無之, 而豈有若鼎衍者乎? 崇禮門外戊申受馘處, 金吾堂上親往正法.” 時上怒甚, 日已晚, 尙未進御食. 出御宣仁門, 命東宮侍坐, 鼎衍正刑後, 始還御. 內司僕刑訊李聖述. 聖述曾爲太學掌議時, 解一鏡疏下諸賊墨罰, 又以其祖翊周壬寅僞勳所贈官, 書於帳籍者也. 前已繫于秋曹, 至是親問, 以護逆自服處斬. 問全孝曾, 全孝舜, 命孝曾湖西定配, 孝舜湖南沿海定配. 孝曾與鼎衍相知, 而以孝舜之能書, 薦於鼎衍, 入場前書其科製者也. 然曾與舜, 皆不知其謀之絕凶, 初無關於獄情, 故有是命. 臣謹按, 鼎衍以成衍, 益衍之弟, 常懷怨國之心, 謀作凶書, 投諸亂券之中, 又作科題呈券, 欲掩其投書之跡, 而及其事覺被鞫, 凶謀逆節, 狼藉發露, 噫嘻痛矣! 人誰不欲食其肉哉? 世人常謂理有不可諶者, 而今以衍事觀之, 天道尤可驗矣. 始衍之投書也, 自謂鬼神莫測, 天地可欺, 曾不旋踵, 拿入鞫獄, 自吐情節, 凶逆畢彰, 身膏斧鑕, 罪及妻孥, 此非天也耶? 古之聖賢, 論天甚詳, 有若赫赫帝君, 監之在上, 聽之在傍, 此蓋洞見天人之理而然也. 況夫凶逆之類, 其爲悖理蔑倫, 天下莫加焉? 雖使暗地謀計, 至密至祕, 冥冥之中, 夫豈無鬼惡神嫉, 而不知

不覺之間，驅而納諸刀鉅鼎鑊者耶？此理至明，古今不忒，凡世之孽臣，亂賊，其亦可以知懼也夫。

2) 『영조실록』(권 101) 1763년(영조 39) 5월 22일.

○ 上御晝講. 講訖, 命大臣判義禁三司, 持臺啓諸罪人文案入侍. 守仁·孝順·孝曾, 并減死爲奴, 皆前啓中請鞠之罪人也. 初臺臣申尙權請詳考諸罪人本案, 定其律, 而以壞損臺體被遞, 至是尙權之言行矣.

3) 『승정원일기』(권 1218) 1763년(영조 39) 5월 22일.

○ 上曰, 守仁雖較重於孝曾·孝順, 不過寫手, 孝順亦無異, 而既無可問之端, 俱皆酌處. 噫, 逆衍之事, 尙今思之, 心隕膽墜, 若有何待其請, 予雖毫矣, 君不忍更提焉, 況臣子乎? 至於守仁·孝順, 予已無參酌之道, 若或疏釋, 則臺臣爭執, 其勢固然. 噫, 思逆衍之事, 豈徒痛心? 夢裏猶愕. 守仁·孝順所寫者, 非投呈罔測之書, 不過循例呈券中書. 今以逆衍·逆惠之所投別文, 更問於莫知本事之兩人, 夢裏猶愕之意焉在? 今覽文案, 思往事, 心若隕墜. 吁嗟, 臺臣抑何心, 亂七十衰君之心乎? 況孝曾, 不過因請招寫手者, 其時欲爲白放, 而重其事而處分者, 今又問何, 寫手其無可問, 況招寫手者乎? 今雖放釋, 不可爭執, 而況問乎? 雖然, 若非今日臺臣, 何以詳知乎? 於茲事不可循例不允, 不若加其律, 少靜白首之心, 以嚴懲討之典. 守仁鏡城府無限年定配, 孝順大靜縣亦勿限年定配, 孝曾事件雖若此, 而與逆衍而相知, 招逆衍之寫手, 更不鞠問, 雖是寬典, 亦不可尋常處之. 今何仍配於湖中? 杆城郡定配.

4) 『승정원일기』(권 1220) 1763년(영조 39) 7월 6일.

○ 請守仁·孝曾等竝命王府, 更加嚴訊得情, 決正王法. 措辭竝見上. 上曰, 頃者下教, 而昨日特允院啓者, 此等之類, 今當初政, 不可不慮故耳. 雖然恐或若何? 取覽鞠案, 誠非過矣. 至於此啓, 大爲不然, 守仁其時不過邂逅相逢鼎衍者也, 孝曾等亦爲或指示寫手, 邂逅寫手者也. 尙今爭執, 已涉過矣. 今雖初政, 何可遽允, 而但雖曰邂逅, 或書給其題, 或只寫下句, 不入場中先寫乎? 此非徒本事, 自有其律, 守仁端川府循例定配, 孝曾等不過酌配, 尙今以士爲名, 其時本領錯矣. 守仁兼施科場之律, 黑山島爲奴, 孝曾等亦依此例, 大靜·旌義

爲奴.

5) 『영조실록』(권 122) 1774년(영조 50) 3월 22일.

○ 諫院【司諫崔■ .】申前啓, 不允. 又啓請還寢全孝曾特放之命, 上不納. 蓋孝曾, 以逆賊鼎衍寫手, 全孝舜之食主人, 沿海定配, 今因其妻之上言, 有放釋之命故也. 又請還收向來禁江居下教中驅入封鎖四字, 上嘉納.

6) 『승정원일기』(권 1349) 1774년(영조 50) 3월 22일.

○ 又啓曰, 定配罪人全孝曾妻金召史, 擊申聞鼓, 原情所當依例捧入, 而但庚寅九月, 孝曾妻, 駕前上言, 令該曹嚴問製述上言者, 沿海定配, 處分嚴正. 蓋孝曾, 以逆賊鼎衍寫手全孝舜之食主人, 定配, 今此擊鼓原情, 不敢循例入啓, 何以爲之? 敢稟. 上曰, 大臣之意, 何如? 金相福曰, 近有婦女, 因其夫事, 呼訴於闕下, 而其夫之所坐, 右相與藥房提調, 以乙亥鞠獄時問事郎, 詳知其事狀矣. 右議政元仁孫曰, 孝曾, 與孝舜, 爲同姓族屬, 故孝舜臨科上京, 二三次, 寄食孝曾之家, 因此被拿而定配矣. 出舉條 上曰, 今聞所奏, 且聞本事, 不無參酌. 噫, 其夫其妻, 載轎而來, 守闕外云, 聞甚可矜, 特放, 可也.

7) 『영조실록』(권 122) 1774년(영조 50) 5월 2일.

○ 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相福曰: “今已得雨, 減膳限秋成之教, 宜可還收.” 上曰: “此月後當復之.” 右議政元仁孫曰: “體天之道, 不當若是.” 上曰: “豈可遽復乎?” 金相福曰: “前以全孝曾之妻上書, 自上放釋, 而臺臣爭執, 臣不敢言. 而孝曾兄弟被竄, 其母八十云, 其所犯則素知鼎衍之寫手, 適來故饋飯, 而事在獄事前, 合有疏釋之道矣.” 上曰: “臺臣爭執, 予猶曰過. 令該曹特放兩人, 以奏.”

8) 『승정원일기』(권 1351) 1774년(영조 50) 5월 2일.

○ 相福曰, 臣見闕下有呼冤之人矣. 上曰, 誰也? 相福曰, 前以全孝曾之妻上言, 特命放釋, 而臺臣爭執, 臣不敢言, 而其時孝曾兄弟二人被竄矣. 聞有八十老母云, 渠之所犯既輕, 則合有疏釋之道矣. 上曰, 其事實, 何如? 相福曰, 當初孝曾等, 素知鼎衍之寫手矣, 其人適來, 故饋飯, 而在其時獄事前云矣. 上曰, 雖以全孝曾言也, 臺臣爭執, 予猶曰過矣, 今聞

領相所奏，闕外有呼冤者云，若漢丙吉問牛喘，心動問誰，卽其時饋飯之人云，況同氣乎？其令該曹，兩人問名，特放後以奏。出傳教

9) 『승정원일기』(권 1351) 1774년(영조 50) 5월 7일.

○ 沈翔雲，以義禁府言啓曰，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罪人全孝曾，臺啓既停，今日內三懸鈴⁵⁾，倍道騎驛分付事，命下矣。依傳教，今日內三懸鈴，倍道騎驛知委放送事，分付該道道臣及該州牧使之意，敢啓。傳曰，知道。

5) 三懸鈴(삼현령): 급(急)한 공문(公文)을 띄울 때 봉투에 세 개의 동그라미를 찍던 일.

135. 이동이(李同伊)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6월 2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미상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19) 1763년(영조 39) 6월 2일.

○ 趙曦, 以刑曹言啓曰, 家在義州, 被捉山城假稱惑衆者, 令秋曹嚴刑一次後, 大靜縣定配事, 命下矣. 罪人李同伊, 依傳教嚴刑一次後, 大靜縣卽爲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136. 송문재(宋文載)

- 신분: 관리(대사간)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7월 5일.
- 해배 연월: 1763년(영조 39) 8월 29일.
- 사유: 왕명 비판(이광사〈李匡師〉 계사 정지 불복)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7월 5일.

○ 竄前大司諫宋文載于大靜,以不停匡師啓也.

2) 『승정원일기』(권 1220) 1763년(영조 39) 7월 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削黜罪人宋文載,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倍道押送事,命下矣. 宋文載以傳教內辭意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卽爲倍道押送之意,敢啓.傳曰,知道.

3)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8월 28일.

○ 上御崇政殿,引見大臣備堂.領議政洪鳳漢奏曰:“日昨親鞫罪人斯得,夫正王法,此實爲幸.而但慮諸賊就捕之後,如或挾憾逞毒,延及於無辜,則情雖無疑,跡實難明.且如金華鎮之爲至親於宇和, 宋文載之多見嫉於彼輩,而見方俱配濟州,諸賊中或有嫌怨此人,至於誣罔,則豈不難乎?伏願存諸聖衷,勿使賊供,濫及他人也.”上曰:“卿言誠是矣.”

○ 命放李昌壽·徐命膺·李心源·金華鎮·宋文載·洪樂命·鄭昌聖·鄭恒齡·鄭述祚·李獻慶等謫,從大臣言也.

4) 『승정원일기』(권 1221) 1763년(영조 39) 8월 28일.

○ 領議政洪鳳漢曰,昨日親鞫,罪人斯得,夫正王法,此實爲幸,而但諸賊就捕之後,有不可不深慮者,敢此仰達矣.蓋彼輩之已爲廢族者,固無可惜,而如或挾憾逞毒,延及於無故之家,則豈不可悶乎?雖以昨事言之,如來賊之所誣引者,則夫孰有一毫致疑之心,而他

人或入其中，則情雖無疑，跡實難明，借如金華鎮之爲至親於宇和，宋文載之多見嫉於彼輩，而見方俱配濟州諸賊中，或有嫌怨此人，誣罔爲言，則豈不難乎？聖明在上，必無是理，而伏願以推亡固存之意，存諸聖衷，勿使賊供，濫及他人則好矣。上曰，誠是矣。予豈不念乎？右議政金相福曰，海以北則勿使波及，好矣。上曰，右相之言，貴矣。相福曰，向來李昌壽·徐命膺·宋文載·金華鎮等所爲，雖或過矣，其心事則可貴矣。上曰，皆欲自白其心也，予亦悔之矣。相福曰，昌壽則以載浩之查頓，故出於遠嫌之意也。上曰，然矣。判義禁洪啓禧曰，徐命膺之於載浩，則殆若仇讎矣。上曰，然乎？右參贊李益輔曰，本來然矣。上命承旨書之曰，飭已行，頃者投畀者李昌壽·李心源·徐命膺·金華鎮·宋文載·鄭昌聖·洪樂命·鄭恒齡·鄭述祚·李獻慶，竝放送。出榻教

5) 『승정원일기』(권 1221) 1763년(영조 39) 8월 29일.

○ 尹得雨，以義禁府言啓曰，咸鏡道茂山府定配罪人李心源，慶源府定配罪人李獻慶，穩城府定配罪人鄭述祚，會寧府定配罪人洪樂命，鍾城府定配罪人鄭恒齡·徐命膺，全羅道海南縣定配罪人李昌壽·鄭昌聖，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宋文載·金華鎮等放送事，承傳啓下矣，竝放送事，分付於各該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137. 김화진(金華鎭)

- 신분: 관리(승지)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7월 7일.
- 해배 연월: 1763년(영조 39) 8월 29일.
- 사유: 건의 불발(상소, 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6월 1일.

○ 行夕講. 講訖, 上以鄭述祚之不停趙甲彬啓, 又下嚴教, 承旨金華鎭奏曰: “臺啓停連, 當付公議, 上教如是, 則恐隄防漸弛.” 上曰: “甲彬若以泰億之子, 行已不慎爲啓, 則予當從之, 而拖入尹光紹非矣. 承旨所奏隄防二字, 亦極非矣.” 仍下嚴教, 遞其職.

2) 『승정원일기』(권 1220) 1763년(영조 39) 7월 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吏曹判書李昌壽, 全羅道海南縣遠竄, 參議徐命膺咸鏡道鏡城府遠配, 金華鎭濟州牧大靜縣定配, 竝倍道押送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書吏, 卽爲倍道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영조실록』(권 102) 1763년(영조 39) 8월 28일.

○ 上御崇政殿, 引見大臣備堂. 領議政洪鳳漢奏曰: “日昨親鞫罪人斯得, 夫正王法, 此實爲幸. 而但慮諸賊就捕之後, 如或挾憾逞毒, 延及於無辜, 則情雖無疑, 跡實難明. 且如金華鎭之爲至親於宇和, 宋文載之多見嫉於彼輩, 而見方俱配濟州, 諸賊中或有嫌怨此人, 至於誣罔, 則豈不難乎? 伏願存諸聖衷, 勿使賊供, 濫及他人也.” 上曰: “卿言誠是矣.”

○ 命放李昌壽 · 徐命膺 · 李心源 · 金華鎭 · 宋文載 · 洪樂命 · 鄭昌聖 · 鄭恒齡 · 鄭述祚 · 李獻慶等謫, 從大臣言也.

4) 『승정원일기』(권 1221) 1763년(영조 39) 8월 28일.

○ 領議政洪鳳漢曰, 昨日親鞫, 罪人斯得, 夫正王法, 此實爲幸, 而但諸賊就捕之後, 有不可不深慮者, 敢此仰達矣. 蓋彼輩之已爲廢族者, 固無可惜, 而如或挾憾逞毒, 延及於無故之家, 則豈不可悶乎? 雖以昨事言之, 如來賊之所誣引者, 則夫孰有一毫致疑之心, 而他人或入其中, 則情雖無疑, 跡實難明, 借如金華鎮之爲至親於宇和, 宋文載之多見嫉於彼輩, 而見方俱配濟州諸賊中, 或有嫌怨此人, 誣罔爲言, 則豈不難乎? 聖明在上, 必無是理, 而伏願以推亡固存之意, 存諸聖衷, 勿使賊供, 濫及他人則好矣. 上曰, 誠是矣. 予豈不念乎? 右議政金相福曰, 海以北則勿使波及, 好矣. 上曰, 右相之言, 貴矣. 相福曰, 向來李昌壽·徐命膺·宋文載·金華鎮等所爲, 雖或過矣, 其心事則可貴矣. 上曰, 皆欲自白其心也, 予亦悔之矣. 相福曰, 昌壽則以載浩之查頓, 故出於遠嫌之意也. 上曰, 然矣. 判義禁洪啓禧曰, 徐命膺之於載浩, 則殆若仇讎矣. 上曰, 然乎? 右參贊李益輔曰, 本來然矣. 上命承旨書之曰, 飭已行, 頃者投畀者李昌壽·李心源·徐命膺·金華鎮·宋文載·鄭昌聖·洪樂命·鄭恒齡·鄭述祚·李獻慶, 竝放送, 出榻教

5) 『승정원일기』(권 1221) 1763년(영조 39) 8월 29일.

○ 尹得雨, 以義禁府言啓曰, 咸鏡道茂山府定配罪人李心源, 慶源府定配罪人李獻慶, 穩城府定配罪人鄭述祚, 會寧府定配罪人洪樂命, 鍾城府定配罪人鄭恒齡·徐命膺, 全羅道海南縣定配罪人李昌壽·鄭昌聖, 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宋文載·金華鎮等放送事, 承傳啓下矣, 竝放送事, 分付於各該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38-139. 신혜(新惠), 춘분(春分)

- 신분: 가족(연좌)〈여〉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8월 3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심래복〈沈來復〉 모반사건), 심래복의 처첩(妻妾).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21) 1763년(영조 39) 8월 30일.

○ 尹得雨,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堂部成冊, 則逆賊來復應坐諸人, 查出以來矣, 母阿只慶尙道固城縣爲婢, 庶母二德泗川縣爲婢, 妻新惠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婢, 子南得, 年九, 以年未滿濟州牧緣坐爲奴,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妾春分, 時在大靜縣, 庶兄陽復時在旌義縣配所, 庶弟遇迪, 時在濟州牧配所, 因其地竝緣坐爲婢爲奴之意, 發關分付, 何如? 傳曰, 允.

140. 춘덕(春德)

- 신분: 가족(연좌)〈여〉
- 유배 연월: 1763년(영조 39) 11월 9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심래복〈沈來復〉 모반사건), 심래복의 서녀(庶女).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24) 1763년(영조 39) 11월 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濟州牧使牒報及大靜縣成冊, 則逆賊來復應坐之人, 查出以來矣.來復庶女春德, 大靜縣緣坐爲婢之意, 發關分付, 何如? 傳曰, 允.

141. 이형원(李亨元)

- 신분: 관리(한림, 검열(檢閱))
- 유배 연월: 1765년(영조 41) 1월 4일.
- 해배 연월: 1765년(영조 41) 윤2월 4일.
- 사유: 왕명 비판(황최언(黃最彦) 상소 동의)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5) 1765년(영조 41) 1월 4일.

○ 獻納黃最彦上疏, 略曰: “臣聞伏節死義之士, 當求於犯顏諫諍之中. 我朝立國以來, 專尙節義, 四百年扶植培養, 迺出千古. 夫何數十年來, 氣節消亡, 駸駸然入於骯髒不振之域. 試以近事言之, 向來申璟之疏誠妄矣, 而累延四人, 罰及多士, 疑怒層激, 處分過當, 至於自示貶損, 放倒威重, 尤非物來順應不大聲色之道. 在廷諸臣, 孰不曰無前過舉? 而寧爲屋下私談, 不肯出一言匡救. 是何祖宗朝累百年培養之功, 一朝掃盡, 至此之極也. 臣與被罪諸臣, 影響不相及, 臣非愛其人也, 愛其抄選之名也. 抄選列朝之所禮遇, 士林之所宗仰, 而今因一句語妄發, 并與許多人譴罰. 書之史冊, 謂殿下賤薄經術之士, 則其於累聖德何? 試於清燕之暇, 平心舒氣, 幡然改悟, 并施曠蕩之恩, 則豈不大有光於日月之更乎?” 疏入, 上震怒, 先問其疏於翰注, 注書金載人, 翰林李亨元, 俱以爲最彦甚非矣. 上不卽對, 有逡巡意, 竄載人于鍾城, 亨元于大靜, 最彦于三水. 屢下嚴教, 以最彦掇拾山林之餘意, 換面趨附, 眞亂臣. 當嚴問而惜其官名, 姑赦之. 削最彦名于摺紳疏錄, 罷捧入承旨職, 以袖手傍觀, 非逐雀之義, 罷行公諸臺職. 翰林李東遇請與亨元同被罪罰, 上曰: “始旣曰無狀, 終又請同罪, 必欲入其黨乎?” 命竄東遇于鐵原.

2) 『승정원일기』(권 1238) 1765년(영조 41) 1월 4일.

○ 上曰, 編次人入侍. 編次人洪麟漢進伏, 上曰, 承史之意, 何如? 載人·亨元曰, 最彦甚非矣. 上曰, 下問之後, 初不以對. 強曰之敢曰循例非矣. 其涉無狀, 注書金載人, 鍾城府爲民, 翰林李亨元, 大靜縣爲民, 李亨元, 削名譜牒. 出傳教

○ 李聖圭, 以漢城府言啓曰, 黃叡彦[黃最彦]三水府永爲庶民, 金載人鍾城府爲民, 李亨元大靜縣爲民事命下矣. 依聖教, 竝當日內押送爲庶民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240) 1765년(영조 41) 윤2월 4일.

○ 上曰, 前掌令李萬恢, 前正言閔弘烈竝給牒敍用, 前校理洪述海, 特放給牒敍用, 李明煥, 復爲處分, 自覺其過, 依前下教, 給牒敍用, 金載人·李亨元, 頃者處分, 不過勉飭小官, 李東遇, 則不無聽瑩而然矣, 竝特爲放送, 仍爲給牒敍用. 出傳教

○ 又以漢城府言啓曰, 鍾城府爲民罪人金載人, 大靜縣爲民罪人李亨元竝特爲放送事, 命下矣, 依聖教金載人·李亨元, 分付該道道臣, 竝放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142. 서명선(徐命善)

- 신분: 관리(사간)
- 유배 연월: 1766년(영조 42) 2월 10일.
- 해배 연월: 1766년(영조 42) 4월 2일.
- 사유: 건의 불발(상소, 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7) 1766년(영조 42) 2월 10일.

○ 司諫徐命善上疏, 略曰: “對班之一時譴罷, 舉朝驚遑, 鄉儒之即日渡江, 道路填咽, 景色愁沮, 聽聞憂歎. 以殿下聖學高明, 豈意其有是哉? 卽因儒臣之求對, 旋示轉環之大度, 前後絲綸, 次第還寢. 而第伏念殿下之一言一動, 不惟八方之所瞻仰, 而書之簡冊, 垂之關和, 將爲百辟之所柯鑑也. 自聖朝觀之, 則不吝之盛德, 雖由此益光, 收回之量, 難於觀法, 旣頒之令, 易於取則. 又豈若初無是事之爲純善純美也哉? 抑殿下日昨下教, 不過以飭勵之意, 薄示懲創而已, 在有司奉行之道, 固當不亟不疾, 委曲周旋, 或對或章, 以冀反汗, 實爲執藝之責, 而曾不留時, 猶恐或緩, 館隸搜括泮村, 甘結遍行五部, 促令出送, 無異驅迫, 以致幾千多士, 奔波蒼黃, 喘喘然無所依歸, 任師儒者, 烏得無警乎? 臣謂大司成權導, 亟施譴罷之典.” 上降嚴旨, 先遞其職, 刊名仕版, 放逐鄉里, 復命投畀大靜縣, 卽夜渡江. 又命徐命膺刊版, 命膺, 命善兄也.

2) 『승정원일기』(권 1252) 1766년(영조 42) 2월 10일.

○ 上御會祥殿, 藥房入診入侍<時>, 都提調金致仁, 提調南泰齊, 副提調具允鉦, 假注書李鎮復, 記事官鄭來謙·李謙彬, 醫官方泰輿·李泰遠·鄭允協·吳道炯·鄭允說·柳光翼, 以次進伏訖. 致仁曰, 午間聖候, 何如? 上曰, 一樣矣. 進湯劑. 上進御. 致仁曰, 運用, 何如? 上曰, 似愈而長時如此, 抑何以耐遣乎? 諸醫診候以奏曰, 脈候調均矣. 內局先退. 命坐直承旨入侍. 命允鉦 書興恩尉三揀擇日識御製. 都承旨先退. 右承旨尹得雨進前. 得雨曰, 試官徐命膺·李瀾, 有應避之嫌, 而爲同所試官矣. 上以俞漢蕭換書以下, 命內局入侍. 致仁進湯劑. 上進御. 上曰, 診候止之. 命讀司諫徐命善疏. 上曰, 古談矣. 命書傳教曰, 司諫徐命善, 爲先

遞差.出傳教 上曰,頃日處分,非爲鄉儒,予意有所非之者,有此處分,以過舉言之,則未爲不可,而此爲諸生報復也,大司成何以有過乎?致仁曰,再昨以酬應之煩惱,終夜失攝,而今有此舉,尤切焦迫矣.上曰,再昨處分,今覺過舉矣.大司成,異於承旨·玉堂,有司之臣奉行之外,奈何?如此之時,命善,無一言及於保蓄之戒,何敢爲諸生,有此舉乎?此人猶然,況海鎮乎?命書傳教曰,再昨撤霄之後,今者徐命善,不顧私義,視君父惻怛之教,佯若尋常,今已夜深,何可使渠,逗留京中乎?其令今日內渡江.出傳教 內局先退.上曰,徐命善疏中目下事三字,卽徐命膺引進海鎮之疏語也.尤爲無狀,不可放逐而止,初下教勿施,大靜縣投界.出傳教 上曰,宜請海鎮竄逐之啓,而返有此疏,乃父必不然矣.命宣傳官入侍.上教宣傳官,西小門仍留,出送徐命善,卽爲渡江,可也.宣傳官先退.

○ 李德海,以義禁府言啓曰,徐命善,大靜縣投界事,命下矣.以傳教內辭意,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卽爲押送配所之意,敢啓.傳曰,知道.

3) 『영조실록』(권 107) 1766년(영조 42) 4월 2일.

○ 放徐命善.

4) 『승정원일기』(권 1254) 1766년(영조 42) 4월 2일.

○ 丙戌四月初二日申時,上御會祥殿.藥房入診時,都提調洪鳳漢,提調鄭弘淳,副提調韓光會,記事官崔光璧·柳宅夏·洪彦喆,醫官李泰遠·鄭允協·慶絢·吳道炯·金孝儉·鄭允說·柳光翼,以次進伏訖. … 光會曰,兩銓歲抄,減等施行,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 鳳漢曰,徐命善,亦何以爲之乎?上曰,何事而謫於何處耶?鳳漢對曰,以權善事被罪,而配所則濟州矣.其時聖教,以目下事,爲其罪,而第其本意無他,只斥舉措之太過,非指其奉行下教者也.上曰,事雖駭也,飭已行,今當赦典,徐命善特爲放送.出傳教

5) 『승정원일기』(권 1254) 1766년(영조 42) 4월 3일.

○ 李萬恢,以義禁府言啓曰,全羅道濟州牧大靜縣投界罪人徐命善放送.承傳啓下矣.放送事,分付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143. 정이환(鄭履煥)

- 신분: 관리(교리)
- 유배 연월: 1766년(영조 42) 4월 15일.
- 해배 연월: 1767년(영조 43) 3월 12일.
- 사유: 건의 불발(신하 사면 상소, 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7) 1766년(영조 42) 4월 15일.

○ 命竄校理鄭履煥于大靜縣, 永爲庶人, 承旨李商芝于海南縣. 先是宋明欽·洪啓能·金亮行等, 獲罪已久, 經赦而未蒙宥, 黃最彥謫已期年, 履煥陳疏請宥, 疏入十日中官不敢奏. 至是因玉堂闕直, 上始知之, 命焚其章, 遂有是命, 商芝捧疏承旨也. 又以金吾之不卽舉行, 罷判義禁李昌壽職.

2) 『승정원일기』(권 1254) 1766년(영조 42) 4월 15일.

○ 上御會祥殿. 承旨入侍時, 同副承旨洪晟, 記事官洪相聖, 記注官辛應三, 記事官洪彥喆進伏訖. 上曰, 坐直, 誰也? 承旨對曰, 臣洪晟與李基德也. 命注書, 使宣傳官入侍. 上曰, 內局誰爲入直耶? 對曰, 提調沈鏞入直矣. 上曰, 鄭履煥疏, 誰爲捧入耶? 對曰, 李商芝也. 上高聲曰, 無狀矣. 宣傳官入侍, 命西小門留門曰, 甲山府投畀罪人舉行. 宣傳官出去, 更命還入曰, 水口門留門, 以大靜縣舉行. 上曰, 中官無狀, 掩置不奏, 此亦亂臣也. 予於昨夜, 空然失睡, 果是陟降之教予也. 命中官扶坐, 叩頭奏曰, 小臣不肖無狀, 致有此事矣. 仍卽就枕曰, 明日當不見興恩副尉矣. 命書傳旨曰, 噫, 身雖在於陽世, 心則已無世意. 噫, 目今臣子, 若無此心, 豈曰海東臣子? 若此之故, 莫重伸禮, 尙未能行. 凡於國事, 莫知何事, 日夜涔涔, 卽枕席也. 噫, 若有一分秉彝之心, 此時豈忍若此, 此時豈忍若此? 其君若此, 其臣若此, 么麼中官, 其亦特甚. 副校理鄭履煥駭章, 入啓已久, 掩置不奏, 今日乃聞, 此亦不意, 此亦不意. 尤爲無狀者, 李海鎮之事纔過, 何敢若此乎? 此非比于此. 噫, 所奏若何, 而使履煥, 其若眼有君父之心, 豈忍若此, 豈忍若此? 其欲卽日擔舁昌德宮, 謝過而未能, 此予不孝, 此予不孝. 今夜其若入睡, 此不孝不肖人也, 豈忍若此, 豈忍若此? 況乘此時爲此事者, 此百倍於李海鎮, 而其心路人所知, 自有奏律. 鄭履煥, 大靜縣永爲庶民, 今夜倍道押送. 掩

置不奏，當該中官韓聖圭，永刊內侍府，同任承傳色，以詐爲先，袖手傍觀，付諸不識東西中官，而事之無據，莫此爲甚，一併罷職。其中吳命來，滿腔驕慢，一腹詐謀，其令內侍府永刊。既有禁令，則焉敢不稟捧入？此亦履煥者流，乘機捧納承旨李商芝，海南縣投界，當日內押送。既有禁令，而袖手傍觀，事之寒心，莫此爲甚。其日仕進承旨，一併罷職不敘。退直之後，身爲承宣者曰，以已愈，呈告無日無之，事之可駭，莫此爲甚。近日呈告封納承旨，爲先遞差。違牌諸儒臣，一併只推，卽爲牌招，而其若違牌，一併嶺沿投界。此後凡諸辭單，平復間一切嚴禁。鄭履煥章，令政院卽爲焚章。承旨有闕，代行司直鄭尙淳除授，牌招察任。承旨書訖，命讀。又命注書，卽爲分付。注書未及受傳旨。上曰，注書耳聾耶？仍命書傳旨曰，注書洪相聖，只知黨人，不知君父，刊名仕版。

○ 洪晟，以義禁府言啓曰，鄭履煥，大靜縣永爲庶民。今夜倍道押送，承旨李商芝，海南縣投界，當日內押送事，命下矣。以傳教內辭意，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羅將，卽爲押送之意，敢啓。傳曰，知道。下教已久，若是稽滯，事之寒心，莫此爲甚。該堂罷職，當該都事拿處，不爲押去，書吏·羅將，令秋曹書吏嚴刑一次，羅將嚴刑二次。

3) 『승정원일기』(권 1254) 1766년(영조 42) 4월 16일.

○ 又以禁府言啓曰，濟州牧大靜縣永爲庶民罪人鄭履煥，仍其地，亟加荇棘事，命下矣。鄭履煥去夜，已爲倍道押送，卽爲發遣府都事，所到處仍令押去配所，亟加荇棘之意，敢啓。傳曰，知道。

4) 『영조실록』(권 108) 1767년(영조 43) 3월 12일.

○ 上御建明門試射。教曰：“今當邦慶，宜有同霑之典。侍從中被謫人鄭履煥·黃最彥·李海鎮·尹光禮·張淀竝放送，永除臺望，徐迥修·柳憲·李鎮恒·李獻慶·林鼎遠·崔益男·具庠竝蕩滌。”

5) 『승정원일기』(권 1265) 1767년(영조 43) 3월 12일.

○ 洪樂仁，以義禁府言啓曰，全羅道海南縣遠竄罪人李海鎮，濟州牧大靜縣荇棘罪人鄭履煥，羅州牧黑山島定配罪人尹光禮，海南縣遠竄罪人張淀，放黜鄉里罪人李獻慶特爲放送事，承傳啓下矣，竝放送事，分付各該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144. 임관주(任觀周)

- 신분: 관리(정언)
- 유배 연월: 1767년(영조 43) 6월 9일.
- 해배 연월: 1767년(영조 43) 9월 5일.
- 사유: 건의 불발(대신 비판 상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9) 1767년(영조 43) 6월 9일.

○ **正言任觀周上疏**, 略曰: “夫言路之於國家, 猶人之有耳目. 苟使耳不得司其聽, 目不得司其明, 則其可爲人乎哉? 嗚呼! 人主之意, 一有所左右, 則靡然若風前之草, 挺然爲松栢者, 幾何人哉? 賞之使言, 猶且回避, 況不然者乎? 或論銓地則歸之傾軋, 論及權宰則目以挾雜, 嶺海籤錮, 項背相望, 何幸天心開悟, 前後以言獲罪之人, 一竝疏釋, 朝野相慶, 風采頓變. 然徒有疏釋之命, 而廢枳如前. 十數年來, 殿下曷嘗見刺舉廊廟者乎? 一請問備, 顯示愠怒, 官師相規, 視若仇【誰.】百端齟齬, 必欲陰中. 陳章之說先泄, 則大官重宰, 莫不恐喝沮戲. 如此而國安得不亡乎? 御製《裕昆錄》, 歷敘亂逆之由, 而有曰問其本, 卽斯文. 結之曰有甚於洪水猛獸. 噫! 謂之斯文而豈可并論於亂逆之統乎? 夫輔相, 與庶官自別, 而乍罷旋仍, 殊欠九經之義, 難進易退, 無古大臣風. 君上有過舉則不思匡救, 以彌縫爲奇策, 國事潰裂則不思振刷, 以姑息爲妙方. 其責任不過奔走服役而已, 其人雖不足恤, 名以大官則在殿下禮使之道, 固不當若是輕蔑. 此正上下所當交勉處也. 向以水原薦望之不卽舉行, 至有備郎決棍之命, 此實無前之過舉也. 一箭塞責, 抗顏冒出, 殿下之輕視大官, 亦未必不由於此也. 當此廈氈悶旱之時, 不請祈雨, 先請進宴, 可謂不思之甚也. 向日李命勳之入侍也, 多有過中之教. 言官之前席面責, 本非美事, 況有無前之責教乎? 從今以後, 凡於辭氣, 深留聖意焉. 今番使行之回還也, 以不當出來之圖像, 至猥達於筵席, 事極無嚴. 臣謂三使臣, 一并譴罷也. 日昨泮儒製述時, 都承旨宋瑩中, 以軍都目之說, 輕侮多士, 至有捲堂之舉, 臣謂亟施譴罷之典焉. 冢宰國之重任也. 尹汲之頃年一經都政, 筵斥詩姍, 一時峻發. 而昨冬復除, 其卽冒出, 實爲舉世之唾罵. 及其親政入侍也, 殿下以館薦道薦御史薦, 諄諄下教, 則不悛前習, 急於濟私, 敢以元無三薦爲對, 白首殘年, 咫尺

欺君. 忍至於甄復之窠, 初仕之望, 非切姻則乃近族, 而腴邑豐郵, 前日善事之類, 及松都富人, 中路多錢者, 盡爲差送. 臣謂前吏判尹汲, 亟施改正之典也. 吏曹判書申晦, 前任西藩, 溺於貪淫, 一營儲蓄, 幾乎蕩殘, 及叨見職, 濟私拂公, 乃敢以無識卑庸凶逆東夏之壻, 肆然備擬於齋郎之望. 臣謂申晦亟施譴罷之典. 長寧殿參奉李潤臣, 亦宜命刊汰也. 李明運之爲濟牧時, 專事剝割, 但營善事, 七千飢民, 立視其死. 若有國綱, 宜施烹阿之典, 而爲銓官, 安敢舉擬於總管之望哉? 臣謂李明運永錮其身, 當該政官, 亟施譴罷之典也. 尹泰淵之驕妄貪殘, 不合將望之狀, 不但公議之所同. 伊時備堂, 亦有力言不可者, 而終至見通而後已. 跡其平生, 特以善事之名, 喧於世耳. 西方腴閭, 培剋賂遺, 本營儲積, 蕩然散盡. 重以酷毒之政, 敢於殺人, 無辜枉死, 不啻屢十人. 臣謂尹泰淵亟拔將望也. 訓將鄭汝稷, 摠使具善行, 以行伍間失措之事, 至被回示之罰, 其何以抗顏戎垣, 號令三軍乎? 此後則深留聖意焉. 經云‘無三年之蓄, 則國非其國.’ 目今京外儲蓄俱空, 一年需用, 猶患不足, 國計萬萬哀痛. 伏願凡於糜費之事, 一切省減.” 疏入, 初命刊名侍從案, 放逐鄉里, 旋命大靜縣投界. 三相出城, 遣承旨敦諭, 有待入面諭後, 進夕饌之教.

2) 『승정원일기』(권 1268) 1767년(영조 43) 6월 9일.

○ 備忘記, 更思之, 雖應行事, 五字雖無海東臣子之心, 猶不足道也. 噫, 彼遺昆錄[裕昆錄], 與大訓相等者, 其雖三頭六臂, 何敢更喙於此, 若不嚴隄防, 其於君不君臣不臣, 任觀周投界大靜縣, 倍道押付.

○ 又以義禁府言啓曰, 放逐鄉里罪人任觀周, 全羅道濟州牧大靜縣投界倍道押送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卽爲倍道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영조실록』(권 109) 1767년(영조 43) 9월 5일.

○ 上引見大臣備堂, 大臣皆以雷異引咎. 右議政金尙喆曰: “臣則爵秩自如, 言者則尙在島中, 不安甚矣.” 領議政金致仁亦以言官尙在島中, 殊涉如何仰奏, 左議政韓翼謦, 又以任觀周尙在濟州, 聞有七十老父, 情理可矜仰奏, 命李奎緯 · 任觀周特放.

4) 『승정원일기』(권 1272) 1767년(영조 43) 9월 5일.

○ 尙喆曰, 臣等, 雖遭言, 爵秩自如. 言者尙在島中, 雖非因臣而致此, 在臣不安, 則甚矣. 致仁曰, 右相事既孟浪[孟浪], 而臺臣, 亦雖怪矣. 既是言官, 則尙在島中, 亦涉如何? 僚相既奏, 故敢此仰達矣. 翼謦曰, 臣亦有言端敢達矣. 任觀周尙在濟州, 而其時被論諸臣, 無不晏然行公, 亦涉如何? 況聞有七十老父云, 情理可矜矣. 致仁曰, 臣等, 揚揚行公, 言者尙在謫中, 不安甚矣. 上命書傳教曰, 頃者處分, 非爲相臣, 意在杜讒, 而右相所奏, 其心可嘉, 領左相所奏, 意亦同矣. 渠雖無狀, 相臣之心可顧, 仁人放流之意, 豈特在於海島? 任觀周·李奎緯特放, 放逐鄉里, 以示予不與同中國之意. 出傳教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罪人任觀周, 羅州牧黑山島圍籬安置罪人李奎緯, 竝特放, 放逐鄉里事, 承傳啓下矣. 任觀周·李奎緯等放送鄉里事, 分付該道道臣及牧使之意, 敢啓. 傳曰, 知道.

145-146. 옥랑(玉娘), 월하선(月下仙)

- 신분: 관비(침선비<鍼線婢>)(여)
- 유배 연월: 1769년(영조 45) 4월 17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풍속 문란, 사대부 축기자<畜妓者>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2) 1769년(영조 45) 4월 16일.

○ 命京兆, 搜檢士夫之畜妓者以聞. 初士人金基長, 當進宴時, 潛匿醫女於其家. 惠民提調鄭亨復索出而囚之. 時有命放輕囚, 上取見囚案, 有醫女名, 大駭之, 遂教曰: “選妓之待朝即送者, 禁宗臣武臣之惑亂也. 于今觀之, 儒衣儒巾者, 其亦率畜, 儒生若此, 況搢紳乎? 搢紳倡之, 士人效之, 中庶亦效之, 惠民尙方工曹, 將無使役之人. 其欲飭也, 宜先顯者, 金基長特施決笞徒配之律.” 仍命京兆, 搜檢畜妓者, 又連下飭教而促之, 於是部官震慄, 四出搜捕.

○ 夜三更, 上御建明門, 拿入畜妓者朝官儒生, 或削職或放逐, 武人或中庶, 決棍或加刑, 諸軍門各司官及下隸, 因而獲罪者甚衆. 又命囚五部官於南間, 蓋以畜妓現告之少也. 又命捕廳, 捉犯夜人, 其不捉者, 擬以軍律施之, 於是當夜被捉者甚多, 刑配相續焉.

2) 『승정원일기』(권 1291) 1769년(영조 45) 4월 16일.

○ 閔弘烈, 以漢城府言啓曰, 今月十六日藥房入侍時, 內局惠民署·尙方·工曹此類士夫率畜者, 令京兆當日搜檢, 皆屬本處事, 命下矣. 依聖教, 內醫院醫女, 尙衣院鍼線婢, 惠民署醫女, 工曹鍼線婢, 一一詳查, 則內醫院, 無縉紳士子率畜者, 尙衣院鍼線婢玉娘·春丹·終蟾, 工曹鍼線婢月下仙. 惠民署醫女以節等, 還屬本處之意, 敢啓. 傳曰, 頃者二婢將, 已涉駭也, 而今者一青衿, 萬萬可駭, 故有此下教. 今覽草記, 奉君之命重乎, 溺愛娼類重乎? 決不止此, 惠民署, 亦豈惟一人, 而以已處分二節彌縫, 事之可駭, 莫此爲甚, 判尹適謂不然, 爲此類其不嚴查, 暮年嚴飭之意焉在? 判尹爲先從重推考, 五部官員, 若不一一現告,

當坐興化門嚴問，今日入直五部官員，姑除枷杻南間囚，五部首吏，勿爲徵贖，各決杖一百。予雖衰矣，此等貪色搢紳士子，何不嚴懲？予則曰都城內金基長，必也其百，以百數查問，雖九十九，判尹焉敢免欺君之律？惟以欺隱，尙於興化門，家長當嚴刑，以此一體嚴飭，初更內問奏。

○ 上曰，… 玉娘·月下仙，一則名係內局，一則線婢，其於率蓄，雖非渠之故，今聞判尹所奏，萬萬怪事，謀計削髮，已涉叵測，而今日嚴飭之下，摘奸時以聞，以一頭陀身，敢蒙頭着男衣，恣到府門，置裳于房而現捉，便一古之黃順徵，節節陰慳，都內今方禁令，秋判於南門外萬民所覩中，開坐究其事，雖梟示何惜？渠亦人命，十分參酌，箇箇嚴刑一次後，大靜縣爲婢，當日押送。

3) 『승정원일기』(권 1291) 1769년(영조 45) 4월 17일.

○ 金致讓，以刑曹言啓曰，婢玉娘·月下仙，各嚴刑一次，大靜縣爲婢，春丹·終蟾，各嚴刑一次，永屬殘邑婢，二節，嚴刑一次，黑山島爲婢，羅將金振玉，嚴刑一次，放逐江外，不敢復踰都門事，命下矣。婢玉娘·月下仙各嚴刑一次，濟州牧大靜縣爲婢，婢春丹·終蟾，各嚴刑一次，春丹，慶尙道泗川縣，終蟾，全羅道光陽縣，永屬爲婢，婢二節，嚴刑一次，羅州黑山島爲婢，羅將金振玉，嚴刑一次，卽爲放逐江外，使不敢復踰都門之意，敢啓。傳曰，知道。

147. 정리화(鄭履和)

- 신분: 유생(중학생〈中學生〉)
- 유배 연월: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해배 연월: 1769년(영조 45) 7월 23일.
- 사유: 범죄(야간 통행금지 위반)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91)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又以一所巡廳言啓曰, 去夜巡將監軍, 巡檢至北部昭格洞字內, 二更量犯夜人中學生鄭履和, 三更量犯夜人幼學徐季修, 執捉之意, 敢啓. 傳曰, 身爲士子, 欺君爲事, 莫重夜禁, 恣行若此. 今日朝鮮, 可謂此輩世界. 噫, 此輩少有臣子之分, 夜深殿座之時, 豈若是放恣? 其心可問, 秋曹諸堂押領, 興化門待令.

○ 又以刑曹言啓曰, 鄭履和, 大靜縣充軍事, 命下矣. 罪人鄭履和, 依傳教, 全羅道濟州牧大靜縣充軍, 卽爲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승정원일기』(권 1294) 1769년(영조 45) 7월 14일.

○ 金致恭, 以刑曹言啓曰, 頃者夜禁處分二儒, 一體特放事, 命下矣. 全羅道大靜縣充軍罪人鄭履和, 旌義縣充軍罪人徐季修等, 依傳教卽爲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294) 1769년(영조 45) 7월 23일.

○ 魚錫定, 以刑曹言啓曰, 雖因慨而教, 旣放旋仍, 事近已甚, 頃者, 犯夜島配者二人, 依今初下教, 仍放事, 命下矣. 全羅道濟州牧大靜縣充軍罪人鄭履和, 旌義縣充軍罪人徐季修等, 依傳教, 卽爲放送事, 分付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48. 남순철(南舜喆)

- 신분: 관리(총장위장〈忠壯衛將〉)
- 유배 연월: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이배 연월: 1769년(영조 45) 8월 19일(영암군).
- 사유: 범죄(풍속 문란, 사대부 축기자〈畜妓者〉 연루)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291)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又以漢城府言啓曰, 各邑邸人處, 各別嚴杖究覈, 則滿浦鎮婢宗惠, 前僉使南舜喆率來, 還爲下送自首, 晉州婢世禮, 前營將朴奎煥率來, 還爲下送自首, 青松婢厚梅, 進士李得會率來, 還爲下送自首, 黃州婢得每, 前牧使金履長率來, 還爲下送自首, 理山婢山月, 前府使李宜老率來, 還爲下送自首, 泰仁婢桂娘, 前察訪鄭履玉率來, 還爲下送自首, 江陵婢白蓮, 嘉善張德裕率來, 永柔婢者斤娥, 閑良金說行率來, 鏡城婢次禮, 前察訪安■率來自首云.故嚴飭各該部, 已下送者, 使之摘奸, 未下送者, 使之卽爲下送, 其他未及發現者隨所到, 這這草記之意, 敢啓.傳曰, 點下者, 結縛待令興化門, 墨圈者, 朝士令金吾拿待, 士人令秋曹拿待, 竝其枷杻.

○ 上曰, 待下批牌招.仍爲拍案下教曰, 世道如此, 國爲國乎? 墨點者南舜喆·朴奎煥及墨圈者李宜老等, 斯速拿待.弘烈曰, 南舜喆·朴奎煥, 已爲拿待矣.上曰, 拿入.舜喆·奎煥拿伏, 上曰, 舜喆異於他弁, 而無狀如此, 奎煥不思乙亥再生之恩, 放恣至此, 一位懸首, 實無可惜, 亟爲遲晚.舜喆·奎煥, 俱對以惶恐遲晚, 萬死無惜.上曰, 訓將回示.章吾小開門啓請之際, 聲甚惶怯.上曰, 訓將何如是無氣乎? 咸曰, 實病難強矣.上曰, 然乎? 訓將斯速退休, 兵判舉行.章吾先退, 兵曹判書金時默進前.上曰, 舜喆·益祥之幾寸乎? 翼元曰, 益齡之孫矣.時默稟舜喆·奎煥結縛面灰貫耳回示砲等節, 上曰, 兵判代訓將勞矣, 回示時令旗, 以御前令旗爲之.回示後, 時默稟拔貫耳.上曰, 肥者必汗矣.翼元曰, 兵判健矣.上曰, 昔者靈城, 自稱可合兵判, 此重臣, 亦是可合者矣.更命舜喆·奎煥拿伏, 教曰, 汝等負國之罪, 決棍充軍, 實爲未減, 而十分參酌, 令兵判南門外各決棍五十度.仍命南舜喆, 大靜縣充軍.

朴奎煥, 旌義縣充軍. 竝出榻教

○ 又以義禁府言啓曰, 南舜喆, 大靜縣充軍, 朴奎煥, 旌義縣充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竝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2) 『승정원일기』(권 1295) 1769년(영조 45) 8월 19일.

○ 趙■,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定配罪人吳道鈺, 海南縣充軍罪人尹載大, 江原道蔚珍縣定配罪人鄭履玉, 全羅左水營充軍罪人尹性淵竝放. 濟州牧旌義縣投畀罪人尹謐, 陸地減等. 大靜縣充軍罪人南舜喆, 出陸事命下, 而咸鏡道放未放啓本中, 鐘城府定配罪人趙德亮, 咸興府投畀罪人柳宅夏等名下, 以放字書下矣. 吳道鈺·尹載大·鄭履玉·尹性淵·趙德亮·柳宅夏竝爲先放送事, 分付各該道臣. 尹謐羅州牧陸地減等, 徒三年, 南舜喆, 靈巖郡出陸, 而依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149. 이의로(李宜老)

- 신분: 관리(대사간)
- 유배 연월: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해배 연월: 1769년(영조 45) 8월 19일.
- 사유: 범죄(풍속 문란, 사대부 축기자(畜妓者)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2)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上御建明門, 拿入畜妓人, 大加處分. 時上益加激惱, 連下嚴旨, 文蔭武名爲搢紳者, 命待令, 下諸侍從於禁府, 使之自首, 自首者十餘人, 命勿就囚. 其未及者, 皆具枷紐, 囚之南間, 具旗鼓前排及刑具, 或依軍法回示, 或決棍加刑, 皆於沿海及絕島充軍. 犯夜人, 亦爲結縛具枷, 亦與畜妓者同. **大司諫李宜老**, 以自首多日遲滯, 上顧謂承旨曰: “宜老論何人乎?” 對曰: “論李思觀矣.” 上曰: “汝知辱李思觀, 而不知君父也? 汝非禽獸, 見近日光景, 今始自首乎?” **命加刑訊二次, 竄大靜縣**. 上將刑畜妓人, 謂洪鳳漢曰: “卿可請討乎?” 對曰: “臣當請討矣.” 至刑宜老, 鳳漢無一言, 上曰: “領相其果誠乎?” 遂命罷職, 諸大臣以罪同鳳漢, 待命金吾, 上遂寢其命. 鳳漢與諸大臣還入, 泣請進藥診候, 累懇始許之.

2) 『승정원일기』(권 1291) 1769년(영조 45) 4월 20일.

○ 又以漢城府言啓曰, 各邑邸人處, 各別嚴杖究覈, 則滿浦鎮婢宗惠, 前僉使南舜喆率來, 還爲下送自首, 晉州婢世禮, 前營將朴奎煥率來, 還爲下送自首, 青松婢厚梅, 進士李得會率來, 還爲下送自首, 黃州婢得每, 前牧使金履長率來, 還爲下送自首, 理山婢山月, **前府使李宜老率來**, 還爲下送自首, 泰仁婢桂娘, 前察訪鄭履玉率來, 還爲下送自首, 江陵婢白蓮, 嘉善張德裕率來, 永柔婢者斤娥, 閑良金說行率來, 鏡城婢次禮, 前察訪安■率來自首云. 故嚴飭各該部, 已下送者, 使之摘奸, 未下送者, 使之卽爲下送, 其他未及發現者隨所到, 這這草記之意, 敢啓. 傳曰, 點下者, 結縛待令興化門, 墨圈者, 朝士令金吾拿待, 士人令秋曹拿待, 竝其枷紐.

○ 上曰, 李宜老誰也? 弘烈曰, 李喬岳之孫, 而曾經薇垣長矣. 上曰, 宜老蒙頭乎? 弘烈曰, 不爲之矣. 上曰, 既令枷杻, 則何敢不蒙頭也? 命當該守直都事汰去. 出榻教 宜老蒙頭進前, 上曰, 汝以薇垣長, 見再昨光景, 今始自首, 亟正邦刑, 小無所惜, 今命刑推, 可謂未減也. 仍命解枷, 勸杖如法. 宜老曰, 適往父墳, 未及即現矣. 上曰, 所去之地何處也? 宜老曰, 楊州矣. 上曰, 楊州於京, 幾日程乎? 宜老曰, 九十里矣. 上曰, 宜老向時論, 何人乎? 弘烈曰, 李思觀及李弘稷矣. 上曰, 汝知善辱李思觀, 而不知君父矣. 宜老曰, 所論非辱矣. 上曰, 過甚矣, 連爲勸杖, 汝忘汝祖, 何以事予乎? 宜老曰, 聖教至此, 萬死無惜. 上曰, 妓妾重乎, 君父重乎? 重勿欺予, 須作精白之鬼. 宜老曰, 矣身雖極無狀, 豈不知君父之重乎? 上曰, 下教之後, 晏然度日, 今始現告, 知君父者, 亦如是乎? 各別勸杖. 宜老曰, 家有老母, 生顏復見, 懇迫之祝也. 上曰, 國有八十君父, 家亦有老母, 而汝之所犯, 如此無狀, 不忠不孝遲晚可矣. 汝雖在鄉, 汝子在京, 邦禁之下, 胡不通也? 宜老曰, 矣身之子, 令出之後, 卽送厥女, 昨始通之故, 矣身罔夜馳還, 直現京兆, 推此可知矣身之心, 而況且矣身所蓄之物, 本非邑婢, 不載妓籍, 邸人之所不知, 本府之所不關. 矣身若不自現, 則今世, 實無知者, 而惶悚之極, 聞命卽現, 其無欺隱之情, 庶蒙日月之察矣. 上曰, 汝子不告汝, 而送汝愛物, 朝令之下, 又不卽使汝知之, 可謂不知父不知國者, 萬萬不肖矣. 宜老曰, 矣身之子, 亦同往矣. 上曰, 俄稱汝子送厥女, 今云汝子從汝往, 送厥女者, 其果誰也? 宜老曰, 老母送之矣. 上曰, 今雖準次, 更爲勸杖, 汝若初對以聖教之下, 老母逐送, 則豈不光於汝母乎? 宜老曰, 迷亂失對矣. 上曰, 雖極迷亂, 豈不知母與子乎? 此等之類, 大臣似必請討, 而尙無消息, 予當以二次刑訊, 代其請討矣. 命弘烈書之曰, 昨日予則以今日, 已命寬限, 而領相謂予曰, 臣則今夜後是逆臣云. 渠雖無狀, 以曾經薇垣長之人, 犯此罔測, 帳殿親問, 其聲四聞, 今日次對, 大臣諸臣, 其可聞也, 而果請討乎? 此學於具庠者也. 至於領相, 身帶保護之任, 其君却朝食, 灌湯劑之時, 咫尺聞聲, 其若不聞, 昨日奏予, 其果誠乎? 宜先首相, 領議政洪鳳漢, 特施罷職之典. 仍曰, 次對諸宰, 無益於國, 使之退去. 弘烈曰, 領議政命召來納矣. 上曰, 當下密匣矣. 弘烈, 又以左右相來, 納命召之意達之. 志源曰, 左右相待命之意, 金吾草記矣. 上曰, 當爲言送, 而爲此草記, 事極寒心. 命弘烈書之曰, 大臣納命召, 雖待命都事, 宜來告于政院, 若草記而書呈, 此三百年所無之事, 當該都事汰去, 宜老準二次. 上曰, 解縛. 命性源書之曰, 負國欺君罪人李宜老, 再昨光景若何? 其君昨夜徹宵若何, 而今日始爲強忍自首, 已萬萬無據, 而敢曰昨聞今來, 且曰其子十七日先送云, 設若其言,

楊州九十里，十七日渠子，其父沈溺之此物先送，則宜卽於其時，走報其父。以此見之，其雖庸馬，八日朝可到，而渠若有人心，聞此報，宜卽來自首，而何至今日？此無他，負國忘恩，不獲已自首，若見其心，今聞其母先送，宜彰其母之賢，而以已隨渠之子，掩其母之賢，此忘恩負國不孝者，豈可尋常處之？大靜縣倍道押送。

○ 閔弘烈，以義禁府言啓曰，罪人李宜老，大靜縣定配，倍道押送事。命下矣。以傳教內辭意，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卽爲倍道，押送配所之意，敢啓。傳曰，知道。

3) 『영조실록』(권 113) 1769년(영조 45) 8월 17일.

○ 命放李宜老 · 金履長. 宜老 · 履長因妓事旣被竄，領相洪鳳漢從容爲之言，上曰：“予於二人，思其祖而用之。”命特放給牒。

4) 『승정원일기』(권 1295) 1769년(영조 45) 8월 17일.

○ 上曰，宜老，誠柔善人矣。而權極則叵測矣。鳳漢曰，極之不送妓，臣亦明知矣。雖被罔赦之律，渠焉敢逃也？且本是同根生，而欲構殺李渙家，其心尤狡惡矣。大抵當守其本色而已。命書傳教曰，噫，李宜老是誰之孫？思其祖，至於陞資，其弟初入仕，亦有意思。曾經薇垣長，不卽自首，其雖嚴處，尙今思之，近者執事件記中，聞其弟之名，不無所思。今因金履長事，於此於彼，無異思其祖而用之，若混被而不赦，豈追昔之意，頃者西郊，此心已動，何待放未放？李宜老·金履長，特爲先放，仍爲給牒。

5) 『승정원일기』(권 1295) 1769년(영조 45) 8월 19일.

○ 趙■，以義禁府言啓曰，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李宜老，海南縣定配罪人金履長等放送，承傳啓下矣。放送事，分付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150. 한집(韓鑠)

- 신분: 관리(장령)
- 유배 연월: 1769년(영조 45) 9월 1일.
- 이배 연월: 1770년(영조 46) 6월 19일(영암군).
- 사유: 건의 불발(왕명 비판 상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3) 1769년(영조 45) 9월 1일.

○ 竄掌令韓鑠於絕島. 鑠上疏言: “鄉儒陳章, 宸衷激惱. 國子之長, 效執藝之義, 掌憲之臣, 陳匡救之忱, 不賜開納, 譴罰過重. 請竝收還成命.” 上降嚴旨切責, 命竄大靜縣, 倍道押付, 通清臺望, 亦令勿施.

2) 『승정원일기』(권 1296) 1769년(영조 45) 9월 1일.

○ 上御集慶堂. 吏文製述科次入侍時, 試官左議政金相福, 行吏曹判書申晦, 吏曹參判李潭, 副司直李命植, 禮曹參議李聖圭, 兵曹參知柳成模, 副司直李壽鳳, 右承旨閔弘烈, 假注書權僕, 記注官韓民教, 記事官陸善恒以次進伏訖. 上曰, 讀券考之. 范祖禹, 宋何朝臣乎? 相福曰, 哲宗時人矣. 科次訖, 命弘烈拆封訖, 仍命書傳教曰, 居首兼司書金基大, 半熟馬一匹賜給, 白文呈券人, 只推. 上曰, 諸試官先退. 試官以次先退出, 上命弘烈讀掌令韓鑠疏讀訖, 上曰, 何年通清, 而其時銓官知入. 賤臣僕趨出問之, 還奏以庚辰三月初五日政爲之, 而判書韓翼謩, 參判徐志修, 參議金尙喆矣. 上仍命書傳教曰, 噫, 太學俎豆之典, 事體何等, 先正膾食, 亦云晚矣, 國是既定, 前飭若何, 而李宜哲職何任, 而全然二字, 語涉放恣. 其飭, 焉可無也, 而投畀之人, 敢稱國子長, 李鎮復之肆稱海儒, 比諸唐介, 亦涉無嚴. 爲建德報復, 其心已綻, 其何永刊侍從案而止? 況名在璿派, 宜有其律, 而永刊之教, 其人年淺輕着, 不足道也, 故十分參酌, 則今者韓鑠, 其飭教纔下, 竝舉李宜哲水軍稱鄉儒, 若是放恣, 此不嚴懲, 何以勵羣俗? 況全然二字處分, 何止於此, 而亦謂迂闊, 雖末勘, 今者鑠, 可謂有意, 宜哲有甚於李逢源也. 其在嚴國是勵紀綱之道, 不可尋常處之, 掌令韓鑠, 爲先遞差, 此章給之, 通清勿施, 大靜縣投畀, 待城門開, 倍道押付.

○ 閔弘烈, 以義禁府言啓曰, 前掌令韓鏞大靜縣投畀, 倍道押送事, 命下矣. 投畀罪人韓鏞以傳教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倍道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06) 1770년(영조 46) 6월 19일.

○ 上曰, 前判書李潑·李最中, 前監司閔百興, 前大司憲尹東暹·俞彥民, 竝敍用. 出榻教又命書傳教曰, 草記尙今寥然, 故今於次對, 欲爲下教, 聞判金吾所奏, 不無苗脈. 李翼運, 臨鞫時雖嚴處, 旣已飭勵, 撤籬, 長城府陸配, 韓鏞, 靈巖郡陸配, 尹弘烈, 固城縣陸配, 以示予重臺請之意.

○ 徐浩修,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罪人李翼運, 撤籬, 長城府陸配, 大靜縣投畀罪人韓鏞, 靈巖陸配, 慶尙道南海縣庶民罪人尹弘烈, 固城縣陸配事, 命下矣. 右罪人等, 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151. 이익운(李翼運)

- 신분: 관리(정언)
- 유배 연월: 1770년(영조 46) 3월 29일.
- 이배 연월: 1770년(영조 46) 6월 19일(장성부).
- 사유: 건의 불발(상소, 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4) 1770년(영조 46) 3월 24일.

○ 正言李翼運上疏略曰: “親臨訊囚, 何等重大, 鄉曲儒生, 何難招致, 而半夜臨門, 輕先發捕, 許多隸卒, 肆意縱橫, 致有無辜儒生, 至被混捉, 結縛毆打, 拘留闕外, 殿座罷後, 自下放送, 景色愁慘, 道路切嗟. 臣未知其捕其放, 孰使之然哉? 竊恐殿下政令嚴急, 眩於舉行, 待士厭薄, 少不顧惜之致, 而該府該廳做錯之失, 不可不嚴處, 以杜後弊.” 疏入, 教曰: “韓鎬事, 以通文言之, 不可不問, 以大概言之, 不可不嚴處. 其中雖有混被者, 可謂薄物細故. 而爲海東侍從, 敢爲此輩, 非特無嚴, 輕重倒置. 其章給之, 翼運永刊仕版.” 先是儒生沈儀之, 以故相朴世采斥享事陳疏未徹, 鎬與儀之往來相親. 金吾郎捉鎬於儀之家, 而儀之亦被縛, 至闕外, 故臺言及之.

2) 『승정원일기』(권 1302) 1770년(영조 46) 3월 29일.

○ 李翼運事, 到今尤萬萬無狀, 李翼運大靜縣荐棘, 當日押付, 當該注書, 令該府拿鞫, 捧口招以奏.

○ 李性源, 以義禁府言啓曰, 李翼運大靜縣荐棘, 當日押付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 眼同荐棘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06) 1770년(영조 46) 6월 19일.

○ 上曰, 前判書李澂·李最中, 前監司閔百興, 前大司憲尹東暹·俞彥民, 竝敍用. 出榻教又命書傳教曰, 草記尙今寥然, 故今於次對, 欲爲下教, 聞判金吾所奏, 不無苗脈. 李翼運,

臨鞫時雖嚴處，既已飭勵，撤籬，長城府陸配，韓鍊，靈巖郡陸配，尹弘烈，固城縣陸配，以示予重臺請之意.

○ 徐浩修，以義禁府言啓曰，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罪人李翼運，撤籬，長城府陸配，大靜縣投界罪人韓鍊，靈巖陸配，慶尙道南海縣庶民罪人尹弘烈，固城縣陸配事，命下矣. 右罪人等，仍前罪目，依例發遣府羅將，仍令押送于各其配所之意，敢啓.傳曰，知道.

152. 중의(仲義)

- 신분: 노비(태복사〈太僕寺〉)
- 유배 연월: 1770년(영조 46) 9월 6일/ 1773년(영조 49) 7월 17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세손궁 유실 물건 은닉)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5) 1770년(영조 46) 9월 5일.

○ 上御延和門, 拿入太僕官金相直, 棍配機張, 命兵判棍問太僕下人仲義, 海島爲奴, 蓋陵幸回駕時, 世孫宮鐵刻達字, 中官中路見失, 仲義得之, 上以其故物, 且關係莫重, 命譏捕, 仲義掩置, 及夫懸賞求之之後, 始來納, 故有是命, 而相直則以仲義卽私賤, 而雇充太僕隸之罪也.

2) 『승정원일기』(권 1309) 1770년(영조 46) 9월 5일.

○ 李正吾, 以刑曹言啓曰, 莫重物, 既給而不告, 過幾晝夜而強自現, 仲義, 不施一律, 亦赦也. 減一律, 南海縣, 勿限年爲奴事, 命下矣. 奴仲義, 依傳教, 南海縣, 卽爲爲奴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09) 1770년(영조 46) 9월 6일.

○ 上御集慶堂. 承旨入侍時, 左副承旨任希教, 假注書金重燮, 記事官俞漢謹·吳鼎源, 以次進伏. 上曰, 噫, 此物無異標信符驗, 幾百年所傳, 則莫云不若五得之偷取, 見其物, 幾晝夜留置, 聞懸賞而雖持來, 其欺詐之言, 騎判棍問自服, 甚於偷取, 其心叵測, 十倍於五得. 予則雖赦一律, 朝鮮若有執法之臣, 其宜爭執, 而況坐直儒臣乎? 聞此含默, 此不可一體以處, 洪檢·趙昌達, 施以刊版之典, 若無金相直·仲義, 何以爲此? 以私顏, 莫重動駕, 敢差雇立, 背雨裝而隨後, 若問前後私密, 捨相直而誰? 徒年太輕, 除三字, 勿爲稽滯, 其令倍道押付, 仲義, 予則雖赦一律, 何比五得? 大靜縣爲奴, 倍三道押付, 中官洪碩海, 以下人之犯蹕軍律次, 其令待令晝停, 則其時該房承旨不稟, 已涉矇然, 雖無下教, 於渠之

道, 何敢放恣, 揚揚着戎衣, 爲前印差備來此? 旣來則身爲承言色, 有萬古所無之駭舉, 則其宜卽奏, 而敢脫衣過夜, 朝者來奏, 放恣之中, 庸暗特甚, 三陟府, 徒三年定配, 其令當日押付. 其時犯蹕下人碩哲, 南海縣, 勿限年充軍, 中官李春碩, 不過一稚騃黃口之類, 何足道也, 而若有執玉之意, 則豈有若此? 令內府, 永刊內侍案, 勿齒其類. 出傳教

○ 申景濬, 以刑曹言啓曰, 仲義雖赦一律, 何比五得? 大靜縣爲奴, 倍三道押付, 其時犯蹕下人碩哲, 南海縣, 勿限年充軍事, 命下矣. 依傳教, 南海縣爲奴發配, 罪人仲義,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 倍三道押付, 罪人碩哲, 慶尙道南海縣, 勿限年充軍, 卽爲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341) 1773년(영조 49) 7월 17일.

○ 申大升曰, 請大靜縣爲奴罪人仲義, 依律處斷. 上曰, 勿煩.

153. 최익남(崔益男)

- 신분: 관리(부사과)
- 유배 연월: 1770년(영조 46) 11월 10일.
- 나국 연월: 1770년(영조 46) 11월 26일/ 1770년(영조 46) 12월 4일(사망).
- 사유: 건의 불발(세손 사도세자 묘사 참여 상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5) 1770년(영조 46) 11월 10일.

○ 崔益男, 以前吏郎投疏, 上款以東宮曠廢省謁於思悼世子墓祠爲言, 有曰, 孝於父而後孝於祖, 誠於父而後誠於祖, 又曰, 十里中浦, 墓木已拱, 一隅東城, 祠宇孔邇, 下款極言金致仁之罪, 有曰, 協贊調劑者, 無若趙·宋·金·鄭, 而若其首尾, 專久以金爲宗, 金相之子, 繼當勾軸, 嚴斥調劑, 必欲蓋愆, 一則背公, 一則負國, 全無愛日之誠, 只有欺天之術, 又曰, 族客慆慆, 義子翱翔, 黨羽分馳, 窩藏漸深, 又有諫院公廨, 恣意廣占, 惠局官米, 盡歸私用等語, 極其臚列, 命內局入侍, 命讀益男疏, 上曰: “上件事, 今日臣子, 敢爲此言乎? 語意陰譎矣.” 命入直玉堂春坊入侍, 上曰: “首件事, 欲問之, 竝可痛陳也.” 校理朴師崙, 修撰金基大曰: “此非人臣所可筆之於書者矣.” 兼輔德沈頤之曰: “渠以廢棄之人, 焉敢容喙於國事? 此非今日臣子所可發口者也.” 輔德沈觀之曰: “殿下保導東宮, 至矣盡矣, 無間然矣, 臣何言乎?” 上曰: “渠疏列書予協贊之人, 而仍辱領相, 以反其父之意, 然此猶薄物細故. 沖子誠孝, 無間於祖, 予所知也, 戊申以後, 又聞如此之言, 豈不痛心乎?” 初命益男入侍, 上曰: “必出怪說, 惟當嚴處而已.” 教曰: “搆[捏]領相於本事, 可謂薄物細故. 嗚呼! 問答已示予意, 今日朝鮮, 何敢容喙於其間? 而渠亦有秉彝之心, 何忍爲此? 其數句語, 宜嚴問嚴處, 而其若問也, 此招亂也. 體聖人不與同中國之意, 崔益男大靜縣永爲庶民, 三倍道押付, 疏本命卽燬去, 傳示者重勘.”

2) 『승정원일기』(권 1311) 1770년(영조 46) 11월 10일.

○ 徐浩修, 以刑曹言啓曰, 因傳教, 庶民崔益男, 大靜縣定配, 倍三道押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11) 1770년(영조 46) 11월 26일.

○ 上曰, 益男, 來日則可以來乎? 致仁曰, 臣等則以爲再明當來. 相福等竝進前曰, 日日殿座, 臣等不勝悶迫矣. 上曰, 關係莫重, 不得不然耳. 命書傳教曰, 親鞫姑罷, 待拿來舉行, 時刻, 其時只入正時. 南玉·尹光賓姑爲仍囚, 以待決末.

4) 『영조실록』(권 115) 1770년(영조 46) 11월 30일.

○ 上御內司僕, 鞫益男, 究問窩主, 終無所達.

5) 『영조실록』(권 115) 1770년(영조 46) 12월 4일.

○ 罪人崔益男物故.

154. 연애(連愛)

- 신분: 가족(연좌)<여>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2월 1일.
- 해배 연월: 1774년(영조 50) 5월 30일.
- 사유: 범죄(재물 침탈, 왕손<은신군 이진李禎> 보모 황덕혜<黃德惠> 친분)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2월 1일.

○ 命拿龍銅宮任掌二人, 其中黃景龍, 卽正科人, 命金吾諸堂及時原任大臣兩司左右捕將, 竝牌招. 上仍御建明門, 親鞫景龍等, 景龍供: “臣實非欲侈衣侈食者, 而外間多有不好所聞, 故卽告于本宮, 招來五部書員, 以宮家初無所侵之意分付. 金禹象爲名人, 初不知面, 一日來言於臣曰, 自家大監, 雖欲讀書, 無人隨廳, 雖欲習字, 無人磨墨, 汝來隨廳爲好云, 故臣果往, 而實無作俑之事矣. 禹象則自臣入去之後, 不爲頻來, 蓋因自家之疎待故也. 去月臣告于自家, 以外間多言之故, 無賴下人盡逐之. 只留別陪二人, 至於廬人密封事, 臣所不知, 廬民向臣皆稱善, 則禹象所告之言, 必是誤矣.” 使與禹象面質, 禹象曰: “百姓與市井, 皆以王孫宮之故, 將不得保存云, 以汝方爲掌務, 故俄果告之, 非欲害汝而告之也.” 上更問於景龍, 景龍供: “今至死境, 當直告矣. 洪奉朝賀招臣, 使之隨行任掌, 丁亥年二月, 得差於李興祿之手, 而興祿最親於恩彥君矣.” 及其三招, 景龍皆稱誣告, 又以爲請囑於其妹之爲宮婢者? 及興祿處得差, 而各廬私自徵〔斂〕者, 錢則五六百兩, 苧綿木等爲數十疋. 宮任李再春等, 又嚴刑鞫問, 竝參酌定配, 罪人德惠·連愛, 大靜·旌義兩縣分配, 德惠·卽黃景龍之妹, 王孫之保母也, 連愛, 與德惠同心用事者也.

2) 『승정원일기』(권 1314) 1771년(영조 47) 2월 1일.

○ 上曰, 今番亂國, 專由於連愛·德惠□一也, 而德惠, 則不敢稱之名, 肆然以稱, 尤涉放恣, 以此推之, 連愛前口所稱, 必也同意, 連愛, 大靜縣爲婢, 德惠, 旌義縣爲婢, 其令該曹, 卽爲分付. 出傳教

3) 『승정원일기』(권 1314) 1771년(영조 47) 2월 2일.

○ 又以刑曹言啓曰, 連愛, 大靜縣爲婢, 德惠, 旌義縣爲婢事, 命下矣. 罪人連愛·德惠, 日前因特教, 已爲發配於慶尙道寧海·清河等地, 依傳教, 罪人連愛,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德惠旌義縣爲婢, 自各其所到處, 竝卽舉行後啓聞事, 卽爲發關分付於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351) 1774년(영조 50) 5월 30일.

○ 洪述海, 以刑曹言啓曰, 大靜連愛, 旌義德惠竝放事, 命下矣. 依傳教, 濟州牧大靜縣爲婢罪人連愛, 旌義縣爲婢罪人德惠, 竝卽放送事, 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55-156. 이인(李廐)〈은언군(恩彦君)〉, 이진(李禎)〈은신군(恩信君)〉

- 신분: 종실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2월 3일 이후.
- 사망 연월: 1771년(영조 47) 4월 12일(은신군).
- 해배 연월: 1771년(영조 47) 5월 29일(은언군).
- 사유: 범죄(종실 체통 위반, 허세/채무 과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2월 3일.

○ 命時原任大臣入侍. 上曰: “八十之君, 與沖子相依, 而在廷諸臣, 若是逡巡, 如此而國不亡乎?” 領議政金致仁曰: “臣不知今日下教, 聖意何居. 而第臣子, 豈盡如此乎?” 上曰: “予則不爲唐 文宗之事矣. 聞金禹象所奏, 王孫濫率驕從, 道路觀者, 皆目之以大將行, 然而臺臣無一人言者, 洪奉朝賀, 選內人, 而臺臣亦無一言, 王孫有放恣之稱, 而朝無敢言者, 誰恃乎?” 仍教曰: “噫! 洪鳳漢頃者所奏若何? 而黃景龍事, 其雖脫空, 德惠事, 渠以良產得入, 爲恩信阿保, 作此萬古所無之事, 豈頃者所奏之意乎? 當今世道, 不可無飭, 洪鳳漢特施不敘之典.” 掌令沈頤之申前啓, 不允. 又啓請削恩信君 廐, 恩彦君 禎職, 上命投畀稷山縣, 頤之以擬律不審引避, 許遞. 正言尹免升申前啓, 不允. 又啓廐・禎, 請湖沿定配, 上獎其得體, 命配綾州牧.

2)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4월 12일.

○ 恩信君 禎卒于濟州謫所. 上聞之 下教曰: “噫! 今者處分, 雖斷斷爲國, 於心尙今不忍. 本州啓本昨到, 而中官恐或傷心, 趑趄留置, 今日始聞, 愴心曷喻? 棺材令本牧擇給, 衣衾使本縣監, 依宗臣例看檢, 着意舉行, 爲先撤籬, 着意運柩. 廐若同故, 予心若何? 特放事, 當日內倍道分付. 禎妻令該廳, 施恤典.” 謹按 “《詩》云‘宗子維城’, 卽之屏之, 翰之謂也. 禎以今王之孫, 窮微絕海, 死非其罪, 上雖施隱卒之典, 無及也已.”

3)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4월 19일.

○ 諫院【司諫權穎.】申前啓, 不允. 又啓, 請還寢大靜縣忤棘罪人禍特放之教, 上不許. 禍等之當初所犯, 不過不能禁戢宮奴之致, 而罪名極重, 禎則年幼驚怖, 隕命於冒觸霧露之餘, 聞者悲之. 聖意之特加矜惻, 顧恤特放, 皆是大聖人慈愛之常情, 而臺臣之或疑上心之不出於真情, 有此還寢之啓, 亦可觀世道矣.

4)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5월 29일.

○ 上御朝講, 引見大臣備堂. 上曰: “禍既特放, 當上來矣. 此行何人住接, 何人衣食? 思之及此, 予心酸焉. 到城外後, 令該曹, 買給數間屋, 亦令該廳, 月給米一石, 前良娣家勿禁奴僕往來. 禎之柩來後, 亦令惠廳, 助給葬需.”

5) 『정조실록』(권 1) 정조대왕 행장(行狀)

○ 辛卯春, 宗臣禍, 禎有罪, 英宗震怒, 教曰: “此不防漸, 則國本不可安也, 竝投耽羅.” 未幾禎死于謫. 王聞之, 大傷悼, 遣人它恤, 護其柩以歸, 戚臣有以爲言, 手札答曰: “承聞弟訃於萬里海外, 烟波渺闊, 未由撫柩痛哭, 感古愴今, 摧咽難抑. 難得者兄弟, 不可廢者倫理, 聖人, 人倫之至也. 雖煩上徹, 豈無俯燭?” 壬辰, 英宗寶籌日隆, 群臣請舉揄揚之禮, 英宗謙讓不許. 王手疏懇祈, 積誠回天, 英宗教曰: “一隅青邱, 祖依孫孫依祖, 見爾章, 予安得不感?” 廼屈意從之.

157. 이극생(李克生)

- 신분: 관리(지평)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2월 9일.
- 해배 연월: 1772년(영조 48) 1월 12일.
- 사유: 건의 불발(상소, 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2월 9일.

○ 免持平李克生爲庶人, 竄大靜縣. 時上召見臺臣, 克生只申前啓, 復爲引避, 上怒曰: “汝以古師傅孫, 謂不負我, 誠無狀矣.” 克生以不知事端爲對, 上曰: “宗臣事, 汝豈不聞乎?” 遂有是命. 【史臣曰: 克生未詳事端之言, 誠有意耳. 王孫所坐則甚輕, 聖上所勘則至重, 人皆疑惑, 莫測其由. 以事端之著見者, 似不至此, 豈或別有事端乎? 克生雖不能抗言爭難, 比諸承順者, 果何如哉?】

2) 『승정원일기』(권 1314) 1771년(영조 47) 2월 9일.

○ 又以刑曹言啓曰, 李克生特爲庶民, 大靜縣倍三道, 令秋曹押付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李克生,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倍三道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25) 1772년(영조 48) 1월 12일.

○ 上曰, 濟州牧使放未放啓本, 特教中李克生, 已經年沈恒之, 此等之人, 今旣分揀, 竝特放事, 分付. 出傳教

158. 권진응(權震應)

- 신분: 관리(자의〈諮議〉)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3월 14일.
- 해배 연월: 1772년(영조 48) 1월 14일.
- 사유: 건의 불발(증조부=권상하〈權尙夏〉 옹호 상소)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3월 12일.

○ 諮議權震應上疏, 略曰: “臣曾祖臣尙夏, 服事先正臣宋時烈, 自幼視先正如父祖. 粵自甲申以來, 事端橫生, 天心激惱, 私淑於先正者, 次第勘罪, 又著書《裕昆》, 以嚴隄防, 而以老少之分, 歸咎於斯文, 臣於是惶惑抑塞, 杜門懾處者, 八年于茲矣. 嗚呼! 時烈際孝廟不世之聖, 以魚水之契, 處賓師之尊, 伸大義於天下, 而功業未成, 以明天理正人心扶正學闢邪說, 爲報聖恩之圖, 九死靡悔, 遂致仇怨溢世, 至有逢蒙之反射, 此群小之自絕於先正, 干先正甚事? 若以此爲先正之咎, 則桓魋·臧倉·邢恕·胡紘, 將爲孔·孟之累, 程·朱之咎乎? 我聖考丙申處分, 極其嚴正, 旣手書院額, 特揭華陽, 又以正士趨息邪說, 鏤板同揭, 而顧今世教日弛, 正道寢微, 正宜益加扶植, 以存一脈元氣, 奈之何摧抑斥絕莫之恤也? 若夫臣祖最被先朝禮遇, 行宮際會之曠絕, 昭垂史冊. 又殿下嗣服之初, 所以褒崇臣祖之典, 靡有餘憾, 由是朝廷士林, 殆無異同之論矣. 今茲絲綸之中, 殊有不釋然於臣祖者, 凡在聽聞, 莫不恟恟. 溫泉時事, 故判書尹鳳九, 已盡其顛末, 臣不敢更瀆, 至於《源流》, 臣祖與文敬公 鄭澥, 作爲序跋, 此是私家文字, 不干於朝廷. 湖南儒生, 首發攻斥臣祖之疏, 繼以真儒·鳳輝輩, 互相搆捏, 殆時運所關, 而非臣祖所預料. 此則竊恐罪在於攻斥者, 而不在於被攻斥者. 倘於清燕之暇, 平心靜慮, 反復乎古君子辭受之宜, 行止之道, 庶有以知臣祖而渙然水釋矣.” 教曰: “嗚呼! 《裕昆錄》, 卽予飲涕而書者, 今日海東臣子, 若思其君之心, 孰敢背斥? 此豈其人自來乎? 招來者卽銓官也, 頃者單付諮議之時, 已料其形, 今果然矣. 給此章, 許解職, 單付時銓官李最中·鄭存謙, 特命不敘.” 後最中投畀甲山府, 存謙刊版.

2)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3월 14일.

○ 命前諮議權震應 大靜縣投畀, 俞彥鎬·李秉鼎·金普淳并南海·巨濟·熊川定配, 金載人·金文淳·蔡挺夏嶺沿投畀, 以伸救震應也. 教曰: “《裕昆錄》, 命芸閣印出, 藏置五處史庫.”

3) 『승정원일기』(권 1315) 1771년(영조 47) 3월 14일.

○ 李碩載, 以義禁府言啓曰, 大靜縣投畀罪人權震應, 南海縣投畀罪人俞彥鎬, 巨濟府投畀罪人李秉鼎, 熊川縣投畀罪人金普淳, 興海郡投畀罪人金載人, 金海府投畀罪人金文淳, 機張縣投畀罪人蔡廷夏等, 依傳教, 三倍道押付日子, 令道臣狀聞事, 分付之意, 敢啓. 答曰, 知道.

4) 『영조실록』(권 118) 1772년(영조 48) 1월 14일.

○ 教曰: “相臣既奏, 且聞年過六十, 權震應特放. 昨年免爲庶人之類, 一并蕩滌.”

5) 『승정원일기』(권 1325) 1772년(영조 48) 1월 14일.

○ 上曰, 欲下教而未果, 相臣既奏, 且聞年過六十, 權震應特放事, 卽爲分付.

6) 『승정원일기』(권 1325) 1772년(영조 48) 1월 15일.

○ 沈頤之,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罪人權震應特放, 承傳啓下矣. 卽爲放送事, 分付該道道臣及該牧使之意, 敢啓. 傳曰, 知道.

7) 『영조실록』(권 125) 1775년(영조 51) 8월 30일.

○ 前諮議權震應卒. 震應字亨叔, 安東人, 先正臣尙夏之曾孫. 自少遊於徵士韓元震之門. 讀書廢科宦, 被抄選爲諮議. 因疏論《裕昆錄》, 安置濟州. 數年有還以疾卒.

159. 왕한정(王漢禎)

- 신분: 관리(별군직)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4월 3일.
- 해배 연월: 1771년(영조 47) 7월 21일.
- 사유: 범죄(중국인 사칭<왕묵석, 왕한길> 위증)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4월 3일.

○ 上御建明門, 命拿漢人子孫別軍職王漢禎, 及冒稱皇朝人王墨石·王漢吉等入, 漢禎充軍大靜縣, 漢吉汰其職放出. 初漢吉登銃科, 上以爲漢人, 命付別軍職, 漢禎以爲, 漢吉本以朝鮮人, 冒姓爲王, 而本姓則金. 請復其姓. 上謂其冒稱漢人, 拿入漢吉問之, 漢吉以年少不知爲對, 上命拿其父墨石問之, 對以臣自少至今, 茫然不知矣.” 上曰: “冒姓年久, 固宜其不知也.” 命汰漢吉軍職, 問漢禎曰: “汝輩同是山東人, 同是王姓, 則當如兄如弟, 而況渠之父子所不知者, 汝何獨知之?” 漢禎曰: “漢吉之爲金姓, 臣聞於廳中矣.” 上曰: “漢吉果是金姓, 則汝輩雖舉一廳, 齊訴可也, 而今乃以復姓爲請, 似若爲漢吉地, 然其實則漢吉爲銃及第, 特除軍職, 汝輩恥與之同列, 外托復姓, 欲使予聞之, 知其爲非漢人也. 設或收養, 豈舍漢人而取朝鮮人乎? 以王爲金, 卽汝之罪也.” 仍教: “以王漢禎飾辭造謗, 勿限年充軍. 王墨石父子, 或恐見漏於漢人, 冒稱其姓, 非渠所知, 參酌分揀.” 後因墨石故戶口稱漁父漢人, 命復其姓.

2) 『승정원일기』(권 1316) 1771년(영조 47) 4월 3일.

○ 李碩載, 以義禁府言啓曰, 王漢禎大靜縣充軍, 王守漢巨濟府充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16) 1771년(영조 47) 4월 4일.

○ 李碩載, 以義禁府言啓曰, 罪人王守漢楸子島勿限年充軍, 倍道押付, 大靜縣充軍罪人王漢禎亦爲倍道押送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卽爲倍道

押送于各其配所之意，敢啓.傳曰，知道.

4) 『승정원일기』(권 1319) 1771년(영조 47) 7월 21일.

○ 又啓曰, 濟州牧大靜縣充軍罪人王漢禎, 靈岩郡楸子島充軍罪人王守漢等, 特放承傳啓下矣.竝放送事, 分付該道道臣及該牧使之意, 敢啓.傳曰, 知道.

160. 이징서(李徵瑞)

- 신분: 유생[유학<幼學>]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4월 23일~1772년(영조 48) 11월 29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타인 가옥 강탈)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4월 23일.

○ 上御建明門, 令五部官員, 摘奸閭家奪入犯者, 分配嶺沿.

2) 『승정원일기』(권 1316) 1771년(영조 47) 4월 23일.

○ 李性源, 以漢城府言啓曰, 今日五部官員待令之命, 以黃口隣族觀之, 閭家借入必有之, 卽令搜覓知入事, 命下矣. 依傳教分付五部官員, 使之搜覓, 則中部都事趙潞鎮所報內, 幼學崔瑞根, 借入閭家. 西部都事申光洙所報內, 閭家借入處元無, 而幼學李徵瑞, 幼學李昌德, 買入閭家. 北部都事趙城鎮所報內, 幼學尹忸, 借入閭家. 東部都事李商質所報內, 元無閭家借入之類. 南部奉事申光權所報內, 出身韓鎮璋, 幼學李徵輔閭家買入之意, 敢啓. 答曰, 噫, 此弊, 在邸時熟知, 故初令也, 幾十年臨御, 皆曰此則令行, 暮年若此, 可勝寒心. 若此而若貢人五日手本, 其何循例? 以黃口隣族, 有此舉, 果有是事, 此人等, 皆該府·該曹, 押令待令門外, 而諸具置之, 今月內, 再次循例以聞. 京兆尹, 施以不敘之典, 五部首郎, 令該府以處, 其中若有今得者, 勿問, 當該洞面任, 令該曹決杖一百, 賣買文書, 亦爲取來待令.

○ 李碩載, 以刑曹言啓曰, 幼學李徵瑞, 大靜縣充軍, 李徵輔, 令該曹以冒籍律施行後草記, 韓振哲, 嚴刑一次後楸子島充軍, 李昌德, 巨濟府充軍, 崔瑞根·尹忸, 竝湖沿充軍, 當日押付事, 命下矣. 依傳教, 罪人李徵瑞, 全羅道濟州牧大靜縣充軍, 李徵輔, 以冒籍律照律, 決杖一百後寶城縣徒三年定配, 韓振哲, 嚴刑一次後靈巖郡楸子島充軍, 李昌德, 慶尙道巨濟府充軍, 崔瑞根, 全羅道海南縣充軍, 尹忸, 順天府充軍, 竝卽發配之意, 敢啓. 傳

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32) 1772년(영조 48) 11월 29일.

○ 濟州牧使放未放稟中, 點下者特放, 李徵瑞其所置稟矇然, 仍當該牧使, 從重推考.

161. 조영경(趙榮慶)

- 신분: 관리(혜릉참봉)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4월 24일.
- 해배 연월: 1771년(영조 47) 7월 6일.
- 사유: 미상(조태채〈趙泰采〉 손자, 조관빈〈趙觀彬〉 아들)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314) 1771년(영조 47) 2월 3일.

○ 有政.吏批, 判書李澱進, 參判金鍾正牌不進, 參議金致讓罷職傳旨未下, 都承旨金相翊進.以申暉爲大司憲, 李性源爲大司諫, 洪檢爲執義, 南鶴宗爲司諫, 元啓英·宋濟魯爲掌令, 金履禧·李長老爲持平, 任希曾·李春輔爲正言, 趙瑛爲獻納, 洪周萬爲兵曹佐郎, 趙榮慶爲惠陵參奉, 鄭國仁爲童蒙教官.

2) 『승정원일기』(권 1316) 1771년(영조 47) 4월 10일.

○ 尹東暹爲吏曹參判, 李晉圭爲副校理, 李顯永爲副修撰, 南柱老爲副修撰, 李命彬爲副校理, 李養遂爲司書, 洪相簡爲兼司書, 李潭爲右尹, 李在學爲說書, 俞彥脩爲禮曹佐郎, 李昌伋爲典籍, 鄭履玉爲典籍, 尹著東爲定州牧使, 南瑞五爲朔州府使, 李萱爲德川郡守, 李守彬爲鳳山郡守, 鄭光周爲英陽縣監, 趙載溥爲儀賓都事, 趙榮慶爲禁府都事, 李潭爲左尹, 趙榮順爲右尹, 尹重淵爲鐵原府使.

3) 『승정원일기』(권 1316) 1771년(영조 47) 4월 13일.

○ 具廩, 以禮曹言〈啓曰〉, 惠陵別檢權應奎以其親病, 受由下鄉, 參奉趙榮慶, 移拜他職, 時無入直之員云.參奉有關代, 卽令該曹口傳差出, 以爲入直之地,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권 1316) 1771년(영조 47) 4월 24일.

○ 李碩載, 以刑曹言啓曰, 趙榮慶, 大靜縣爲庶民, 水軍充定, 洪文漢, 旌義縣爲庶民, 水軍充定, 令刑吏, 倍道押付事, 命下矣.依傳教, 罪人趙榮慶, 全羅道濟州牧大靜縣, 洪文

漢，旌義縣，竝爲庶民，水軍充定，令刑吏，卽爲倍道之意，敢啓.傳曰，知道.

5) 『승정원일기』(권 1319) 1771년(영조 47) 7월 6일.

○ 李廷壽，以義禁府言啓曰，竄配罪人慶尙道寧海府李長老，機張縣權坪·洪彬·蔡廷夏，晉州牧林鵬翰，南海縣俞彦鎬·柳義養，巨濟府李秉鼎，熊川縣金普淳，興海郡金載人，金海府金文淳，全羅道海南縣朴奎壽，康津縣安杓，興德縣安翼濟，興陽縣成胤協，濟州牧大靜縣趙榮慶，旌義縣洪文漢，咸鏡道吉州牧朴思亨，明川府趙英鎭，甲山府丁範祖·尹錫周，三水府崔範重，北青府尹冕東，鍾城府李重海，穩城府趙鎭衡，富寧府南鶴宗，會寧府李恒祚，忠清道稷山縣金容·沈垓·任希沅，公州牧徐郁修，京畿廣州府朴載德等放送，承傳啓下矣.竝放送事，分付各該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6) 『승정원일기』(권 1352) 1774년(영조 50) 6월 20일.

○ 有政.吏批，判書李潭呈辭，參判金鍾正進，參議李在簡進，左副承旨李致中進.以趙明鼎爲弘文提學，李晉圭爲輔德，李復祥爲伊川府使，韓光載爲順興府使，金克行爲井邑縣監，金再郁爲咸鏡都事，朴長燮爲注書，李顯模爲兵曹正郎.禁府都事趙榮慶，童蒙教官李匡說相換.兼春秋單金光鉉.

162. 이불동(李弗童)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5월 6일.
- 해배 연월: 1773년(영조 49) 5월 9일.
- 사유: 범죄(풍속 문란)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5월 5일.

○ 上悶旱, 命御史姜彝福, 廉察江郊有冤者, 彝福復命, 命讀書啓, 上曰: “李弗童關係倫理, 考律勘處, 周召史 既已自斃, 今無可問, 而其夫貪利私和, 困辱其妻, 萬萬悖倫, 一體勘處, 違禁亂廛者, 亦令該曹嚴處, 以除其弊.”

2) 『승정원일기』(권 1317) 1771년(영조 47) 5월 6일.

○ 李碩載, 以刑曹言啓曰, 李弗童令該曹考律勘處, 周召史夫, 亦令該曹一體勘處, 亂廛事, 此乃都庫, 違禁放恣, 亦令該曹嚴處事, 命下矣. 李弗童·周召史夫·盧昌益, 京外鹽廛人 金道完·朴泰成·金聖瑚·尹濟殷·朴興燁·金潤重[金潤章]等, 爲先捉來嚴囚, 待無故日舉行之意, 敢啓. 傳曰, 此皆考律舉行者, 其何待無故日? 若有用杖者, 此亦憫旱之意, 特爲金贖, 盧昌益, 靜以思之, 前者私和後, 令周召史自斃, 滅倫悖義莫甚, 周召史自斃, 其雖不惜, 卽其事致此, 無異逼殺. 其在正風俗嚴倫紀之道, 不可尋常處之, 甲山府限己身爲奴, 淫風亂本弗童, 雖免一律, 亦何尋常? 亦爲大靜縣限己身爲奴.

○ 又以刑曹言啓曰, 此皆考律舉行者, 何待無故日? 若有用杖者, 特爲金贖, 盧昌益甲山府限己身爲奴, 弗童大靜縣限己身爲奴事, 命下矣. 依傳教, 京外鹽廛人等, 以都庫本律, 杖八十金贖, 罪人盧昌益咸鏡道甲山府限己身爲奴, 李弗童全羅道濟州牧大靜縣限己身爲奴, 竝卽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39) 1773년(영조 49) 5월 9일.

○ 又以刑曹言啓曰, 連考帳籍, 則京居張天壽, 以作弊閭里罪, 定配於樂安郡, 而其父今年爲八十五歲, 楊口縣居任就章, 以誣人不孝罪, 定配於井邑縣, 而其母今年爲九十一歲, 京居崔大中, 因傳教定配於康津縣薪智島, 而其祖母今年爲八十四歲, 京居李弗童, 因傳教定配於大靜縣, 而其祖母今年爲八十一歲, 京居金東郁, 因傳教定配於巨濟府, 而其母今年爲八十歲矣, 竝依傳教, 一體放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卽爲分付.

163. 허추(許礎)

- 신분: 중인(의관)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5월 25일(추정).
- 해배 연월: 1771년(영조 47) 6월 27일.
- 사유: 연좌(금서 소지, 허관(許寬)의 부친)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317) 1771년(영조 47) 5월 23일.

○ 李瀾, 以漢城府言啓曰, 因傳教, 使五部官員, 知委坊曲, 則前判尹韓光會, 故參判李彝章, 前參判安■, 前參判尹得雨, 前參議洪梓, 工曹正郎沈念祖, 前判官俞漢吉, 進士鄭得煥, 幼學姜世恭, 幼學申大昌, 醫官許寬, 前參奉李潤身, 幼學沈選之家, 綱鑑會纂, 自現來呈, 故收納政院之意, 敢啓. 答曰, 知道.

2) 『승정원일기』(권 1317) 1771년(영조 47) 5월 25일.

○ 又以刑曹言啓曰, 許寬南海縣充軍, 當日押付事, 命下矣. 罪人許寬, 依傳教, 慶尙道南海縣充軍, 卽爲押送之意, 敢啓. 答曰, 知道.

3)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6월 2일.

○ 命慶尙右兵使, 梟示許寬. 寬首醫許礎之子, 而家置朱璘《綱鑑》者. 事覺, 初命南海縣充軍, 至是有是命.

4) 『영조실록』(권 116) 1771년(영조 47) 6월 27일.

○ 藥房入診. 上命入《通文館志》覽之, 教曰: “古人云, 作法於涼, 其弊猶貪, 今番因所重, 處分不可不嚴. 而靜臥思之, 此後此輩, 孰能擔當國事乎? 取《通文館志》, 命讀寓意. 噫! 今予此舉, 憤痛而然矣. 雖然此輩何以措手足? 被罪諸譯官, 特爲赦宥, 許寬之父礎, 一體放送.” 領議政金致仁曰: “今番殿座時, 諸罪人用法, 蓋出於不勝憤痛之聖意, 而至於收孥, 尤是法外, 所關不些. 臣業欲陳達, 而嚴畏不敢矣.” 上命特寢收孥下教. 【史臣曰: 李

玄錫·徐宗璧·許寬·李羲天，以《綱鑑》事，或事在久遠，而罪及身後，或身被正法，而罰及父孥，刑章失中，冤氣傷和，而上自大臣，下至三司，無一開口。何幸天心回悟，特放許璲，而金致仁當其處分之時，終不力言其冤，納君於無過，而含默彌縫，淹過時月，因放璲之命，僅以數語，只請收孥之還收，不及李玄錫·徐宗璧之追削。蓋以李羲天·鄭得煥爲老論巨族，故乃敢請寢收孥，而李·徐追罪之冤，則置而不言，致仁胸中，都是一黨字而已矣。】

5) 『승정원일기』(권 1318) 1771년(영조 47) 6월 27일.

○ 又以義禁府言啓曰，濟州牧大靜縣定配罪人許璲，倍道分付，卽爲特放事，承傳啓下矣。卽爲放送事，倍道分付于該道道臣·該牧使之意，敢啓。傳曰，知道。

164. 윤숙(尹塾)

- 신분: 관리(부사과)
- 유배 연월: 1771년(영조 47) 8월 5일.
- 해배 연월: 1772년(영조 48) 4월 13일.
- 사유: 왕명 비판(한유<韓鎰>의 홍봉한<洪鳳漢> 비판 연루)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99) 1762년(영조 38) 윤5월 14일.

○ 左議政洪鳳漢奏曰：“翰林尹塾，昨日叱責臣等，且涕泣失措，欲定人心，不可不嚴處矣。”領議政申晩及申晦·金聖應等，皆同聲請罪，上震怒曰：“可以鞠問矣？”承旨鄭光漢請鞠，鳳漢曰：“此非可鞠之罪，過矣過矣。”上命竄尹塾于海南，林德躋于康津. 命焚舊東宮雜物於宣仁門外，多是戲嬉奇怪之物也. 上曰：“如此而國不亡乎？”

2) 『영조실록』(권 101) 1763년(영조 39) 2월 20일.

○ 上引見大臣備堂. 上謂諸臣曰：“儒賢請放以言獲罪者，而但金時粲，不可遽釋矣.” 左議政洪鳳漢曰：“只可減等耶?” 上曰：“放則放耳，何可減等?” 鳳漢曰：“以言被罪者，非止一人，放其可放者，亦爲待儒賢之道矣.” 上然之. … 且教曰：“林德躋·尹塾，雖異於以言獲罪者，并放.” 鳳漢又請內移鍾城府使趙榮順，從之，遂蕩滌削版以下諸罪名.

3) 『영조실록』(권 114) 1770년(영조 46) 3월 21일.

○ 淸州人 韓鎰，持斧伏闕，投呈一疏，其大概請斬奸臣洪鳳漢云云. 政院退却，不捧者半日. 鳳漢纔蒙敍陳筭，時在城外聞此，卽待命金吾，以鄉儒疏概，萬萬驚慘，言送政院. 上聞待命措辭之異常，始知有儒疏. 命儒生入侍，時日已向昏，鎰已去莫知所在. 初更，上出御建明門，命發捕.

4) 『영조실록』(권 117) 1771년(영조 47) 8월 5일.

○ 上引見大臣備堂. 教曰：“噫! 韓鎰涅臂，萬古所無. 噫嘻! 渠亦朝鮮臣子，豈可萌於心，

書諸文乎? 初則獻一物三字, 不忍直說, 猶對以斧子, 再問, 亦曰木器, 三問, 汎曰外方則此器謂某物云. 噫! 彼鋤既有血怨, 欲陷其人而然, 豈有惡逆之心乎? 不過不道, 故以次律正法, 問其接主人, 則儀之又豈料道燦乎? 嗚呼! 此等世道, 雖無此事, 尹塾輩若得志, 其流之弊勝言? 以聖人屏四裔, 不與同中國之意, 塾 大靜縣勿限年定配. 同時翰林林德躋, 不顧苦心, 咆哮門外, 故雖同爲處分, 其後予常矜惻此人, 予豈驅於塾之科? 而小人則小人, 義經之訓, 予豈不體? 此二人若不處分, 儀之·道燦將復生於今日, 林德躋特施永刊仕版之典.”

5) 『승정원일기』(권 1320) 1771년(영조 47) 8월 5일.

○ 李在簡, 以義禁府言啓曰, 尹塾, 大靜縣勿限年定配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羅將, 卽爲押送配所之意, 敢啓. 答曰, 知道.

6) 『승정원일기』(권 1327) 1772년(영조 48) 4월 1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李普觀·金普淳·李商建·申思運·李澤徵·崔■·李思祚·李範濟·金養心, 未及拿來罪人李範中, 門黜罪人趙明鼎·黃景源·俞彥民, 徒配罪人富平府尹煜, 定配罪人舒川郡李春輝·珍島郡金甲島尹浣·濟州牧大靜縣尹塾·三陟府鄭德弼·甲山府尹著東·博川郡李命植·長鬐縣趙貞相·南海縣邊景鎮·楊根郡李德培等, 放字書下矣. 時囚及門黜罪人等, 竝卽放送, 未及拿來及徒配·定配罪人等, 亦爲放送事, 分付各該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65. 이의관(李義寬)

- 신분: 유생
- 유배 연월: 1772년(영조 48) 1월 28일.
- 해배 연월: 1772년(영조 48) 2월 18일.
- 사유: 건의 불발(상소, 임금 심기 불편)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8) 1772년(영조 48) 1월 28일.

○ 上御延和門, 召見疏儒李義寬等五人. 上曰: “此乃所係莫重, 汝等何敢輕議乎?” 李厚幹曰: “臣名初不入疏中. 今忽聞部吏, 以陳疏事來待, 故臣莫知其由.” 三人亦以不知仰達. 上曰: “以此推之, 所謂疏下, 俱是冒錄也.” 仍命厚幹等四人退去, 義寬則以拿推例待令建明門. 命拿入李義寬, 義寬以誣罔天聽自服, 上命刑推後大靜縣勿限年定配. 義寬以覬之心, 妄請大院君追尊, 故有是命.

2) 『승정원일기』(권 1325) 1772년(영조 48) 1월 28일.

○ 安兼濟, 以義禁府言啓曰, 罪人李義寬, 大靜縣勿限年定配, 當日押付事, 命下矣. 以傳教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此非鞫囚, 王府, 若何? 亦顧其弊, 令該曹, 倍道押付.

3) 『승정원일기』(권 1326) 1772년(영조 48) 2월 18일.

○ 又以刑曹言啓曰, 諸道徒三年以下及前後儒生以特教竄配充軍者, 一竝特放事, 命下矣. 依傳教, 各道徒年定配罪人等及因特教定配儒生, 咸鏡道三水府梁鳳周, 江原道三陟府洪亮海, 全羅道左水營申大順, 右水營安景濂, 靈巖郡楸子道[楸子島]韓振喆, 海南縣崔瑞根, 順天府尹忸, 羅州牧黑山島李逢源, 靈巖郡楸子島趙象鉉, 海南縣尹相翼, 羅州牧黑山島李道燦, 濟州牧大靜縣李義寬, 慶尙道晉州牧朴柱觀, 南海縣李聖臣, 忠清道唐津縣李商美等, 竝卽放送後, 啓聞事, 發關分付于諸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66. 정윤신(丁潤愼)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772년(영조 48) 2월 6일.
- 해배 연월: 1782년(정조 6) 12월 6일.
- 사유: 범죄(상언 무고)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8) 1772년(영조 48) 2월 6일.

○ 上御延和門, 行香祇迎禮, 命讀祭報府, 以獻官之不差二品, 重推該堂. 仍幸都摠府, 講《小學》, 以潛邸時摠管除拜月卽是朔, 故興感特臨. 取閱先生案, 仍又幸議政府時, 歷臨兵曹, 書下憶昔入臨四字, 蓋以光廟曾經大司馬故矣. 御議政府, 召見大臣, 書下七言詩一句, 命諸臣賡進. 命給府內民一年復, 府隸使戶曹給賞. 還宮時, 御建明門, 使兵曹判書捕將, 嚴問犯蹕罪人丁潤愼, 仍命定配于海島. 潤愼初無抱冤之事, 而欲售陷嫡之計, 哭訴駕前, 驚動天聽. 伊後臺臣連請極律, 上終不允.

2) 『승정원일기』(권 1326) 1772년(영조 48) 2월 6일.

○ 又以刑曹言啓曰, 丁潤愼, 大靜縣島配事, 命下矣. 依傳教罪人丁潤愼, 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所, 卽爲發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522) 1782년(정조 6) 2월 3일.

○ 刑曹所管減死定配罪人原春道江陵裴水思, 淮陽李春奉, 高城石奉伊, 通川鄭江, 黃海道白翎康莫金·吳昌玉, 長湍李三雄, 豐川田興石, 谷山金耑金, 殷栗金哲夢, 平安道鐵山奴元卜, 德川朴已云, 熙川元國泰, 雲山朴東英, 陽德林儉孫, 嘉山安道南, 郭山李石東, 安州申光禧, 渭原張莫丕, 龍川李初恒, 博川金惡只, 雲山金尙雲, 陽德奴德男·李德才, 价川洪戒官, 博川金明三, 定州韓聖甫, 龜城金業同, 昌城孔元丕, 渭源金長軍, 龜城惡發, 郭山鄭福丕, 宣川金宗大, 朔州金得孫, 陽德金成重, 渭原李夢龍, 甌山申得金, 龍川卞興瑞, 孟山金太應金, 定州金得哲, 嘉山朴取成, 鐵山鄭龍伊, 龍川李萬伊, 郭山趙五贊, 德

川成龍錫, 鐵山李鶴年, 泰川崔直鉉·姜允三, 龜城房佑星, 博川孫伯孫, 成川申汗柱, 龍崗孔今得, 嘉山金成澤, 熙川朴之白, 龍川愼廷臣, 寧遠韓命周, 鐵山奴泰山, 郭山申東郁, 碧潼金啓華, 渭原朴太柱, 洪忠道文義劉厚柱, 舒川韓光輝, 扶餘金哲己, 全羅道蝟島奴太貴, 鹿島姜萬元, 呂島李萬貴, 楸子島申尙春, 防踏李根, 金甲島李重彰, 黑山島姜得龍, 康津金允丁, 興陽金順丁, 順天梁崇, 珍島金希文·黃處太, 谷城金尙益, 光陽徐海福, 羅州崔甘金, 康津奴猛才, 蔚智島金莫奉, 順天金仁昌, 金甲島朴若大, 長興崔戒男, 靈巖李海龍, 蝟島奴助弘, 順天文次山, 樂安盧太貴, 和順金夏哲, 興陽金五卜, 興德石齡金, 興陽方正規, 茂朱金世佑, 興陽柳光義, 古今島李彝永, 海南奴重根, 靈光孔德貴, 長興林卜得, 羅州車福伊, 金堤朴必貴, 古阜朴以昌, 順天式連, 樂安金萬才, 寶城金萬奉, 長興金命完, 智島尹八從, 興陽朴壽命, 珍島金處恭, 寶城尹東弼, 興陽李德澄, 海南金光贊, 蝟島崔廷喆, 興陽金蕊山, 泰仁李雲彬, 南平黃玉尙, 康津李君彬, 順天徐祖修, 咸平金尙必, 大靜丁潤愼·高益完, 濟州吳德三, 慶尙道鎮海趙碩彬, 南海奴金夢, 巨濟白莫金·韓商隣, 南海李貴三, 加德金鎮光, 晉州金守奉, 南海梁德秋, 丹城尹世贊, 安東崔太宗, 河東李龍才, 南海金必俊, 熊川李三碩, 東萊白增治, 巨濟朴益己, 機張金成協, 南海徐允京·韓奉之, 巨濟安德萬, 蔚山徐日三, 盈德郭六三, 咸昌金有福, 巨濟趙希聃, 鎮海金俊必·婢甲德, 金海奴道孫, 晉州金以三, 東萊李白同, 泗川鄭二太, 鎮海金萬采·南東英, 機張李一奉, 昆陽河必雄, 熊川張光碩, 金海尹夢元, 仁同金大中, 丹城洪寅輔, 梁山安琛, 興海柳齡先·金達天, 英陽崔旬萬, 寧海白金, 南海梁成卜, 巨濟趙順金, 河東元大哲, 機張白福尙, 晉州宋重旭, 泗川金以灝, 鎮海崔奇特·李儉忠, 泗川徐命龍, 固城金信民, 昆陽韓太友, 河東崔萬泰, 鎮海安七金, 南海黃莫介, 柒谷金萬晃, 南海朱卧達, 巨濟崔海, 盈德林太云, 鎮海李千奉, 河東魏千義, 昆陽俞夢骨·奴德金, 咸陽吳召史, 泗川金玆奉, 咸鏡道甲山朴成柱, 鏡城卞彥長, 吉州徐尙官, 茂山金宗甲, 端川李云才, 高原魯亨喆, 永興黃龍采, 吉州金太星, 慶源張厚男, 會寧金老郎, 富寧金二才, 明川車木大, 甲山尹碩柱, 洪原俞彥鳳, 鏡城金仲世, 三水朱善敏, 明川金斗桐, 永興崔占龍, 三水鄭斗白, 端川孫聖福, 洪原鄭守丁, 鏡城奴貴男, 吉州金泰寬, 三水徐得化, 明川金聖涵, 利城金七甲·金連同, 北青金日東, 高原金太述, 永興李光明, 明川鄭福才·鄭太孫·南慶老·韓宗完, 三水金德尙竝放,

4) 『승정원일기』(권 1522) 1782년(정조 6) 12월 6일.

○ 柳誼, 以刑曹言啓曰, 依傳教, 全羅道減死定配罪人蝟島奴太貴, 鹿島姜萬元, 呂島李萬貴, 楸子島申尙春, 防蹈[防踏]李根, 金甲島李重彰, 黑山島姜得龍, 康津金允丁, 興陽金順丁, 順天梁崇, 珍島金喜文·黃處太, 谷城金尙益, 光陽徐海福, 羅州崔甘金, 康津奴猛才, 薪智島金莫奉, 順天金仁昌, 金甲島朴若大, 長興崔戒男, 靈巖李海龍, 蝟島奴助弘, 順天文次山, 樂安盧太貴, 和順金夏哲, 興陽金五卜, 興德石鎰丕, 興陽方正規, 茂朱金世右, 興陽柳光義, 古今島李彝永, 海南奴重根, 靈光孔德貴, 長興林卜得, 羅州車卜伊, 金堤朴必貴, 古阜朴以昌, 順天式連, 樂安金萬才, 寶城金萬奉, 長興金命完, 智島尹八從, 興陽朴壽命, 珍島金處恭, 寶城尹東弼, 興陽李德澄, 海南金光贊, 蝟島崔廷喆, 興陽金蕊山, 泰仁李雲彬, 南平黃玉尙, 康津李君彬, 順天徐祖修, 咸平金尙必, 大靜丁潤愼·高益完, 濟州吳德三竝放.

167. 권첩(權捷)

- 신분: 관리(중부봉사<中部奉事>)
- 유배 연월: 1772년(영조 48) 7월 28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왕명 비판(임금 지시 불이행, 무당심<無黨心> 명첩 제출 지연)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19) 1772년(영조 48) 7월 26일.

○ 上還御彰義宮, 令文蔭武, 若無黨心, 各呈名帖, 以名帖之遲到, 散配京兆郎官.

○ 上御彰義宮, 命訓將入旗鼓, 拿入五部官員, 令回示三匝, 以昨日所捧名帖之少也.

2) 『영조실록』(권 119) 1772년(영조 48) 7월 28일.

○ 上御建明門, 入前排, 拿入五部官員, 嶺沿充軍. 追後學案諸臣, 以禁推例, 并命拿入, 或充軍, 或越江逐出, 或刑推.

3) 『승정원일기』(권 1329) 1772년(영조 48) 7월 28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五部都事, 嶺沿充軍, 追入二人, 大靜·旌義充軍事, 命下矣. 南部都事南顯老, 慶尙道機張縣, 奉事鄭德濟熊川縣, 西部奉事安錫佺柒原縣, 北部奉事鄭東協金海府, 東部都事林重遠固城縣, 奉事李駿祥泗川縣, 中部奉事權捷全羅道濟州牧大靜, 北部都事李齊鵬旌義縣竝充軍, 而傳教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竝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八羅將其若外方作弊, 令其道稟示, 以此嚴飭.

168. 송시연(宋時淵)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2년(영조 48) 8월 18일.
- 해배 연월: 1772년(영조 48) 11월 20일.
- 사유: 연좌(왕명 비판 부친 송명흠<宋明欽>의 아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01) 1763년(영조 39) 3월 5일.

○ 上遣史官, 敦諭勉留前贊善宋明欽. 明欽上疏, 略曰: “殿下聰明睿聖, 卓冠百王, 孝悌通于神明, 仁恩浹于海宇. 四紀勤政, 七臺典學, 凡在臣民, 孰不欽仰攢頌. 然夷考其實, 則紀綱日益解弛, 民生日益困瘁, 風俗日益壞敗, 危亡之禍, 若將迫在朝夕. 此其故何哉? 臣愚死罪以爲, 殿下立志, 不能脫然, 以唐, 虞三代爲期, 爲學不能粹然以格致誠正爲要. 而天姿既高, 見理甚易, 神機獨運, 迥出尋常, 群下惟趨走承順之不暇. 以故巍然自聖, 低視一世, 意之所欲, 便爲精義, 言之所發, 卽爲成法. 其於應事, 率多牽合穿鑿, 初未嘗虛心遜志, 精察乎義理公私之分, 徒據先入之見, 以爲之主, 朝廷之上, 無敢有異同之論. 又往往以口奏一事, 爲從違之大節, 口奏之舉, 固出於聖上羹牆之孝思, 而其禮不見於經傳. 漢時陵寢奏謁, 先儒猶譏其瀆, 況於清廟肅穆之地, 燕居應接之際, 輒行此無稽之禮, 使天下後世, 疑殿下於率情失禮之歸, 則豈不惜哉? 天下萬事之本, 在乎人主之一心, 心苟不正, 其何以爲治? 正心之道, 一言以蔽曰, 祛偏私而復天理耳. 蓋此心本自廣大無限量, 與天地同體, 一爲私意所局, 不免狹小, 苟能一朝祛其私意, 擴以充之, 則其廣大無限量之本體, 自當復全, 與天地同其功用矣. 學者存此於胸中, 自然有進益, 常人猶然, 況人君代天理物, 若或存一毫偏係之私, 以害其無限量之本體, 則生心害政, 隨處做病. 如係戀婦寺, 偏愛私藏, 則將見公家之有, 盡入私門, 而朱子所謂梁 益之半, 不足以圖吳 魏之全者也, 留情近習, 私好姻戚, 則將見命德之器, 盡歸私人, 而詩人所譏, 彼其之子, 三百赤芾, 婉兮變兮, 季女斯飢者也. 推是以往, 百事皆然. 蓋人君處崇高之位, 臨億兆之衆, 一日萬機衆慾交前, 必恢蕩其心胸, 高大其眼目, 常認取無限量之心體, 使與天地流通, 而潛心用力於敬之一字. 其未發也, 敬以存此心之體, 其已發也, 敬以察此心之用, 使我方寸之間, 常

卓然處乎光明灑落之地，而無一毫私吝偏滯之意。然後表裏洞澈，全體昭融，私慾退聽，天理流行。蕩蕩乎與天地同其大，爲堯爲舜，人孰以間然哉？伏願殿下，深留聖意，涵養本源，廓然大公，不以元氣佐喜怒，不以細務害大體，則其於頤養聖躬，懋昭晚政，豈不兩得其要乎？事係倫常，欲一陳而未及者，敢以附陳焉。夫爲人後之禮，本自嚴重，後世此路漸廣，全失禮律本意，離合隨時，父子未定，有識寒心，固已久矣。而向來沈一鎮家事，其害倫理傷風教，尤有甚焉。聖上處分，雖出睦端存亡之盛意，而獨不念其貽累聖政，大關後弊乎？臣謂宜加改正，著爲令式，其有更援此例者，屏之四裔，不齒人類，以存大防，有不可已也。”疏入上將賜批，命承旨讀之。上怒其引赤苐語，教曰：“予雖否德，豈至如曹侯乎？”召大臣承旨玉堂，命各陳所見。領議政申晩，請自上鎮之，左議政洪鳳漢曰：“此是斷章取義也，必無心而引用矣。”承旨及諸玉堂所對，皆如大臣言。上意稍解，乃賜批，而辭旨截嚴。【史臣曰：“宋明欽以先正文正公浚吉之玄孫，早襲家庭之學，讀書修身，爲士林所推。旌招屢降，守志不起，及恩禮愈隆，感激造朝。出入前席，藹然其交孚，而竟至不承權輿，陳疏徑歸，不得究其用，士論甚惜之。”】

2) 『영조실록』(권 104) 1764년(영조 40) 11월 30일.

○ 上既竄申暲，怒猶未已。又命宋明欽·金亮行·洪啓能等，免爲庶人，放歸田里。又命前知事尹鳳九，施以刊版之典。

3) 『영조실록』(권 111) 1768년(영조 44) 7월 13일.

○ 前贊善宋明欽卒。明欽字晦可號櫟泉，先正文正公浚吉玄孫也。天姿粹美，踐履純篤，少負重望，間因敦召赴都，筵對疏陳，皆人所不敢言。恩禮不終，處分轉嚴，而平日及門之徒，無一人抗言于朝。士風至此，悲夫。

4) 『영조실록』(권 119) 1772년(영조 48) 8월 18일.

○ 上御集慶堂，承旨入侍。上曰：“昨今下教後，宜有懲討之舉，而只勸建功，抑何臣分？況韓必壽旣開端，而何敢踰日？大小諸臣怯於能谄金鍾秀而然也。金鍾秀梃棘處，限己身爲庶民，其子弟皆禁錮終身。宋明欽之托晋文公，辱其君，何異於胤命？且宋明欽爲庶民，其子弟亦爲禁錮。都憲權漚聞韓必壽之言，沁沁而退，此人滿腹用謀，予已知之。關係莫

重, 先爲庶民, 鍾城府投畀.”

5) 『영조실록』(권 119) 1772년(영조 48) 9월 25일.

○ 大司憲鄭尙淳等合啓金致仁事, 改依律爲按律, 前啓宋明欽事, 改當律爲逆律.

6) 『승정원일기』(권 1332) 1772년(영조 48) 11월 20일.

○ 又以刑曹言啓曰, 非逆律而發配與配者, 勿論遠近, 直放以啓事, 命下矣. 依傳教, 韓必壽子, 慶尙道昆陽郡定配罪人公權, 泗川縣成權, 梁山郡景權, 尹勉升子, 咸鏡道穩城府定配罪人守鉉及罪人時鄉子, 全羅道珍島郡金甲島爲奴罪人堯弼及罪人明欽子, 濟州牧大靜縣爲奴罪人時淵等, 竝放送事, 發關分付于各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69. 이수봉(李壽鳳)

- 신분: 관리(대사간)
- 유배 연월: 1773년(영조 49) 5월 25일.
- 해배 연월: 1773년(영조 49) 7월 22일.
- 사유: 근무 소홀(합계〈합啓〉 처리 부실)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20) 1773년(영조 49) 5월 20일.

○ 上御建明門, 親鞫前正言黃昇源. 先此大司諫李壽鳳停趙榮順合啓, 尹坊繼壽鳳爲疏, 亦不舉論, 上命壽鳳刊版, 坊罷職, 屢下嚴教. 昇源爲正言, 違牌, 上震怒, 殿座嚴訊, 捧結案, 而以有老母, 旋令黑山島充軍, 母與弟并定配.

2) 『영조실록』(권 120) 1773년(영조 49) 5월 24일.

○ 命寢李壽鳳梲棘, 卽其地遠竄.

3) 『승정원일기』(권 1339) 1773년(영조 49) 5월 2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李壽鳳荐棘之命特寢, 只卽其島遠竄事, 命下矣. 卽爲發遣府書吏, 所到處執捉, 乃令押送于大靜縣遠竄, 而押去都事, 則還爲上來事, 發關分付之意, 敢啓. 答曰, 知道.

4) 『영조실록』(권 121) 1773년(영조 49) 7월 22일.

○ 命放李壽鳳.

5) 『승정원일기』(권 1341) 1773년(영조 49) 7월 22일.

○ 趙宗鉉,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大靜縣遠竄罪人李壽鳳, 特放承傳, 啓下矣. 放送事, 分付該牧使之意, 敢啓. 傳曰, 知道.

170. 이명하(李明夏)

- 신분: 중관(中官)
- 유배 연월: 1775년(영조 51) 1월 24일.
- 해배 연월: 1775년(영조 51) 4월 27일.
- 사유: 범죄(능묘 무단 벌목)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24) 1775년(영조 51) 1월 19일.

○ 上御延和門, 拿入皇壇守直中官棍配, 以犯斫壇樹也. 仍露地俯伏, 謝皇靈.

2) 『승정원일기』(권 1359) 1775년(영조 51) 1월 24일.

○ 洪九瑞, 以禁衛營言啓曰, 依傳教池好溟·張信奎回示三帀後, 決棍百度, 李益瑞除回示決棍六十度, 金長壽回示三帀後, 決棍六十度, 崔東植回示三帀後, 決棍三十度, 壇直鄭福伊·宋龍伊決棍三十度後, 竝出付該府該曹. 李明夏昭顯廟入直, 故發捕未及出城, 城門已閉, 未得舉行. 金致文居在楊州西山地, 未及捉來, 待捉來竝追後舉行. 盧成郁下去珍島地, 故不得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其何捉來? 珍島郡限己身水軍充定, 其子與孫, 本文書爰周, 皆逐本鄉.

○ 洪九瑞, 以禁衛營言啓曰, 西山居罪人金致文, 今已捉來, 故與李明夏, 一體依傳教, 馳詣沙場回示三帀, 各決棍六十度後, 金致文出付該府之意, 敢啓. 傳曰, 知道. 李明夏本是多謀者, 莫重昨日下午教, 視若尋常莫報, 以僣木人, 代僣木人, 隱然代直, 以今觀也, 近者中官着帽木僣者, 豈可異同? 李明夏大靜縣充軍, 付該曹.

○ 又以兵曹言啓曰, 令外兵曹巡將監軍, 各決棍五十度, 嶺沿充軍, 充軍罪人付該府, 陋矣, 皆令兵曹舉行事, 命下矣. 依傳教巡將盧載堊, 決棍五十度後, 延日縣充軍, 監軍洪思默決棍五十度後, 寧海府充軍, 僣木人李明夏大靜縣充軍, 崔孟得巨濟府充軍, 盧成郁珍島郡充軍, 金致文巨濟府充軍, 竝當日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362) 1775년(영조 51) 4월 27일.

○ 李得濟, 以兵曹言啓曰, 朝宗門儉斫⁶⁾充軍罪人, 一體特放事, 命下矣. 依傳教, 珍島郡充軍罪人中官盧成郁, 大靜縣充軍罪人中官李明夏, 巨濟府充軍罪人中官金致文, 壇直鄭福·宋龍等, 一體特放事, 分付各道道臣之意, 敢啓. 答曰, 知道.

6) 투작(儉斫): 허가 없이 산의 나무를 몰래 베어 감.

171. 윤복후(尹復厚)

- 신분: 관리(전 도사〈都事〉)
- 유배 연월: 1775년(영조 51) 7월 3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왕명 비판(황택인〈黃宅仁〉 상소 사주)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24) 1775년(영조 51) 6월 26일.

○ 持平黃宅仁, 陳疏劾吏曹判書鄭尙淳循私不公之罪, 上震怒, 命洗疏本, 宅仁永刊仕版, 放逐鄉里.

2) 『영조실록』(권 124) 1775년(영조 51) 6월 27일.

○ 上詣太僕寺, 親鞫黃宅仁. 上厲聲敎曰: “汝本寒微無識, 必有指嚙製疏者, 其亟陳之.” 刑訊三次, 竟不服, 命拔其名於榜眼, 充軍黑山島. 通清銓官, 今擬銓官, 竝施不敘之典.

3) 『영조실록』(권 124) 1775년(영조 51) 7월 1일.

○ 命捕將秋堂合坐, 問於黃宅仁爲臺時所由書吏, 陳章前一日侍從人尋訪者, 捧供以奏, 上蓋慮其出於黨論, 必欲究得指嚙者也.

4) 『승정원일기』(권 1365) 1775년(영조 51) 7월 2일.

○ 上御集慶堂. 右副承旨·捕將入侍時, 右副承旨李晉圭, 捕將張志恒, 假注書柳河源, 記事官尹宗彥·李益運, 以次進伏訖. 上曰, 憲府書寫, 其名謂何? 晉圭曰, 金兌復也. 上曰, 其士人, 誰耶? 志恒曰, 卽宅仁姪子黃瑾也. 上曰, 何以知其士人所在, 而捉來問之乎? 志恒曰, 臣廳捕校, 窺捉以來矣. 上曰, 捕校奇哉. 黃瑾周牢以問乎? 志恒曰, 然矣. 晉圭讀奏黃瑾盤問草供供辭. 有曰, 矣身之四寸妹夫, 坡州居前都事尹復厚, 袖持疏草, 傳給矣身, 故矣身傳給宅仁云云. 上曰, 尹復厚, 何許人云耶? 志恒曰, 尹鳳九之從孫云矣. 命書密旨曰, 尹復厚拿來. 上曰, 注書持此, 傳給當直都事, 分付倍三道拿來. 開門前若不拿待, 則當該都

事, 當施軍律矣. 河源承命, 傳給後入來. 志恒先退. 上命持來捕廳搜檢文書, 命晉圭披見. 晉圭曰, 只有郎階帖·習字冊·吊狀囊子而已. 上曰, 尹復厚, 誰之子也? 晉圭曰, 其供內, 謂心濬之子矣. 上曰, 尹鳳九, 尹鳳九, 怪哉怪哉. 上曰, 注書入來時, 汝其知來出去都事爲誰耶? 河源曰, 武都事朴弼紱也. 上曰, 黃哥卽武弁之孫. 尹復厚亦武都事云耶? 命書傳教曰, 今得原犯, 可見乾道昭昭. 誰從孫? 雖然, 爲今日臣子若此, 曷勝歉然? 得承款, 雖夫正典法, 予心若何, 況未聞乎? 夫承款正法然後, 當飲建功, 以武弁捉來武弁乎? 令該府更定他都事, 倍三道捉來, 命召入捉黃瑾捕校於集慶堂前階上. 上曰, 汝姓名謂何? 捕校曰, 白祥傑也. 上問捉黃哥始終. 上曰, 獲於何處? 捕校曰, 黃瑾亦有妾, 居住於廣通橋傍洞, 故捉於其處矣. 命書傳教曰, 廣通橋, 何部? 部官亦爲捉來, 其代, 口傳備擬. 上曰, 汝何許人? 捕校曰, 內醫白興全之孫也. 上曰, 然乎? 命書傳教曰, 尹復厚捉來後, 當爲親問. 黃瑾爲先南間依法囚, 尹復厚捉來, 亦爲一體囚, 待下教只入正時. 宮城扈衛安徐. 問郎, 以頃者問郎爲之. 觀今此舉, 其涉異常, 當該部將, 爲先加資, 口傳下批. 以此觀也, 捕廳二大將, 其涉駭然, 此等捕將, 將焉用哉? 竝施不敘之典. 命書傳教曰, 大臣·金吾諸堂·兩司長官·兩司, 待開門牌招. 上曰, 捕將更入侍. 志恒承命入侍. 上曰, 周牢幾次爲準乎? 志恒曰, 一番爲準一次矣. 命放送書寫. 晉圭曰, 都提調李澂等, 持湯劑來待閣外. 上曰, 今得元犯, 知之後, 當進建功, 皆速退去. 殆若尹鳳九指揮, 未回之前, 豈可寢睡乎? 仍命退出, 諸臣以次退出.

5) 『영조실록』(권 125) 1775년(영조 51) 7월 3일.

○ 命黃瑾 揪子島充軍, 尹復厚 大靜縣爲庶民. 瑾卽宅仁之堂姪, 而被捉於捕廳, 以謂其四寸妹夫尹復厚袖持疏草, 使之傳給, 故渠果傳給於宅仁云, 故有是命.

6) 『승정원일기』(권 1365) 1775년(영조 51) 7월 3일.

○ 李晉圭, 以義禁言啓曰, 罪人黃瑾, 揪子島倍三道, 永爲充軍, 勿齒士類. 罪人尹復厚, 大靜縣限己身爲庶民倍道, 當日以水口門卽爲押付事, 命下矣. 黃瑾出付兵曹, 尹復厚出付漢城府, 使之卽爲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尹冕東, 以漢城府言啓曰, 依傳教, 尹復厚大靜縣限己身爲庶民, 倍三道押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172. 김수현(金壽賢)

- 신분: 중관(中官)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4월 26일~1792년(정조 16) 1월 19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정권 변동(정조 세손 시 사도세자 동정 추동, 임금 모함 부도죄)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4월 1일.

○ 李德師, 朴相老, 趙載翰, 李一和, 崔載興, 柳翰申, 李東讓等伏誅. 初上在春邸, 載翰與一種不逞之徒, 假托壬午義理, 陰結妖宦李興祿, 金壽賢等, 轉聞于上, 興祿等因上遊後苑, 誘脅萬端, 又薦引匪類之入其黨者. 上時在沖年, 心惡之. 至是乘大喪, 載翰嗾鄉儒李一和, 投疏言壬午事, 德師之疏同日并徹, 翰申亦呈疏政院, 疏語同. 教曰: “此誣及先大王之大逆也. 雖在公除前, 當親鞫殿庭, 以告先大王之靈. 一和猶是孤雛, 德師正法然後, 先王之志可明.” 御金商門親鞫德師及李峻培, 峻培, 德師之從姪, 而寫匈疏者也. 問: “先大王梓宮在殯之時, 投呈匈疏, 欲爲眩惑, 究其設意, 已極陰慘. 事係壬午, 不但不敢言不忍言. 日記洗草之後, 先朝達權之大義, 國家哀痛之至情, 兩伸而不悖. 則雖在三月初四日之前, 今日臣子, 固不敢發諸口筆之書, 況三月初四日之後乎? 爾疏中‘明先王之本心’云者, 尤萬萬叵測. 先大王之教若曰: ‘事係壬午, 義理或有十分似是者, 卽誣予也, 非但不忠於予, 抑亦不忠於爾. 他日干犯此事者, 殯殿之庭, 必也嚴問, 雖成服前, 斷以王法.’ 爲教. 今日親問, 卽追先王之志也, 明先王之志也.” 德師供曰: “先大王以止慈止仁, 當不忍當之情境, 恐非先大王之本意, 妄爲此疏誣上是實.” 以誣上大逆不道正法, 峻培減死定配. 又御內兵曹, 親鞫李一和, 趙載翰, 載翰之子方鎮·獻鎮·純鎮, 韓光瓘, 朴相老, 李勛濟, 勛濟之子東讓, 趙雲亨, 李範濟, 載翰等供: “爛漫謀議, 嗾出一和匈疏是實.” 相老與載翰, 東讓, 會于雲亨家議疏草, 發詬天不道之說, 其說以爲 ‘勿論疏事是非, 某年事, 我殿下’ 云云, 【已忘壬午四字.】蓋詬天語也. 東讓以告, 相老語屈不敢隱, 以窮匈極惡大逆不道結案. 上曰: “予豈意今日, 聞此匈言?” 仍嗚咽流涕, 諸臣皆泣, 金吾諸堂承史問郎侍衛將士, 各執杖亂捶之. 上曰: “治逆有道, 其禁之.” 遂大會百官都民, 戮相老于市, 載

翰，翰申，一和以誣上不道正法。又設庭鞫，推鞫東讓，以知情不告正法，範濟杖斃，光瓘初以參涉德師疏被拿，減死極邊圍籬安置，雲亨，助濟減死定配，方鎮，獻鎮，純鎮，依收孥本律，干連諸人，并命酌處。任城以昔年春坊，上不忍親問，只拿囚待撤鞫遠配，俞漢敬減律定配，睦祖煥極邊安置，宋翼彥，曹晦振特放。是月又御內兵曹，親鞫金壽賢，崔載興，具庠，李守鎮，李萬軾，趙宗鉉。問壽賢以從前符同興祿，潛通朝士，譸張邪說根柢匈論之情節，又問其締結徒黨，壽賢以庠，守鎮，萬軾，宗鉉及蔡濟恭，趙潞鎮，李昌任，睦祖煥等，曾聞名於興祿納供。庠，守鎮·萬軾·宗鉉自卞不服。又問壽賢南漢，北漢，不漢黨之說。蓋英宗晚年，有分黨之漸，親於金漢耆者，謂之南漢，親於洪鳳漢者，謂之北漢，不入兩漢者，謂之不漢黨，互相標榜，興祿·壽賢以此告上故也。壽賢以宋載經，金尙默，沈履之，卽標榜中人納供，上命濟恭，載經，尙默，履之名字，拔之推案。設推鞫，更問載興，以潤色一和匈疏，知情不告結案正法。教曰：“今番諸賊窩窟，卽載興也。載興文書中庠之書札，不忍正視。所謂持斧碎首，某年義理，舅甥熟講，吾輩秉執云云，乃是叵測陰慘之說。雖游辭漫漶，焉免三尺乎？庠也本末，予所知也。初爲洪奉朝賀所援引，再爲鄭厚謙所交結，千百變化，末乃有此締結凶徒，譸張匈論之舉。庠亦人也，是可忍也？設令庠也欽慕士論，焉有士類容渠，徘徊於鄉黨州閭乎？此予所以深惡庠也，深誅庠也。然累世勳戚之家，不幸有此人，其若正法，家將亡矣。且渠參涉疏事，既無摸捉之端，庠絕島圍籬安置。”又教曰：“妖宦逆豎，何代無之，而如壽賢輩之至奸極妖窮凶絕悖，實是亘古今所未聞所未有也，予非不知登時嚴懲，以塞亂源，而壽賢之尙保首領，視息牖下者，非予緩於隄防，忽於誅討而然，特欲待其情狀之呈露，而明行誅討也。大抵宦寺之職，不越乎傳命灑掃此二事而已，渠輩之於士夫聲聞，豈或相及？又若所謂言論所謂義理云云等說，尤豈渠輩所可耳聞而口傳者哉？況所親之士夫所道之說話，卽匈言匈論也。今番獄事，情節彰著，窩窟打破，而究厥所由，卽此輩爲凶賊之根柢也。往在十餘年前，時予冲歲，壽賢以長番中官給事，興祿以慈宮中官隨行。壽賢每奏予曰：‘與興祿有同奏之事矣。’當予進詣養德堂，此輩輒來養德堂，卽慈宮所御堂也。此輩謂予冲歲，必不知渠輩情狀，迨予遊於堂後之苑，壽賢，興祿以窮凶極惡之語，誘說於予曰：‘如此方可謂孝也，不然必不得容於公論矣。’誘之脅之，無所不至，又奏：‘某某士夫，與渠輩相親，同此義理，可用於將來之人矣。’予雖冲歲，一聞已知其爲亂逆，未嘗一語發落。而尙今不忘，一欲以此起獄，或慮蔓延者多。今則凶賊，次第伏法，豈可仍置不問，以釀禍機乎？興祿已故，壽賢發捕親問之下，箇箇取服，

與予所聞記者，無一差錯。三尺至嚴，焉可追也？而興祿既以魁首已死，壽賢則屬之隨從，不至於失之太寬，壽賢 濟州牧 大靜縣爲奴，以懲爲人臣交通宦寺者之戒。”

2) 『승정원일기』(권 1380) 1776년(정조 즉위) 4월 26일.

○ 又以義禁府言啓曰，罪人金壽賢濟州牧大靜縣爲奴事，命下矣。以傳教內辭意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押送配所之意，敢啓。傳曰，知道。

○ 『승정원일기』(권 1380) 1776년(정조 즉위) 4월 26일 이하~1792년(정조 16)까지 양사의 계(啓) 계속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令王府，設鞫得情，夫正王法。答曰，不允。”

3) 『승정원일기』(권 1698) 1792년(정조 16) 1월 19일.

○ 大司諫李敬五，獻納李顯道啓曰，請爲奴罪人金壽賢·河翼龍，竝令王府，設鞫得情，夫正王法。措辭見上 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古今島爲奴罪人克泰，更令王府，嚴鞫得情，夫正王法。措辭見上 請逆賊尙魯亟施孥戮之典。措辭見上 司憲府大司憲朴祐源，以臣俄陳逆詰孥戮之請，粗效沫飲之義，而未蒙開納，至承重推，前席引避，宜卽退出，而臣旣得方寸之地，未格尺五之天，徒知不得請則不止之義，冒昧煩奏，屢犯瀆擾之罪，責教截嚴，至石更推之命，此莫非臣忱誠淺薄，不能見孚於君父之致，其何敢因仍蹲冒於臺次乎？引避而退，雖涉瀆擾，寔嚴懲討，豈可以此輕遞言官？請大司憲朴祐源出。答曰，不允。末端事，明日更爲處置。

173. 심상운(沈翔雲)

- 신분: 관리(부사직)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4월 2일.
- 나국 연월: 1776년(정조 즉위) 5월 27일/ 1776년(정조 즉위) 7월 22일(사망).
- 사유: 정권 변동(세손<정조> 대리청정 반대)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4월 2일.

○ 兩司【行大司憲朴相德·執義李會遂·正言宋煥億.】合啓: “請沈翔雲嚴鞫得情, 夫正王法.” 命姑先大靜縣荐棘.

2) 『승정원일기』(권 1379) 1776년(정조 즉위) 4월 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黑山島荐棘罪人沈翔雲, 大靜縣荐棘事, 批下矣. 沈翔雲, 以批下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自黑山島執捉, 仍令押送于全羅道濟州牧大靜縣, 荐棘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5월 27일.

○ 召見時, 原任大臣. 諸大臣以厚謙正法事, 請對力請, 不允. 筵退率百官庭請, 批曰: “臺批中不允二字, 即有不允之心也. 筵席既已詳諭, 卿等止請以待.” 翔雲拿鞫.”

4) 『승정원일기』(권 1382) 1776년(정조 즉위) 5월 27일.

○ 丙申五月二十七日未時, 上御廬次. 都承旨入侍時, 行都承旨徐浩修, 假注書徐龍輔, 記事官文采五·朴祐源, 以次進伏訖. 上曰, 改建堂上入侍. 賤臣承命而出, 與改建堂上金華鎮進伏. 上曰, 宮園儀圖式, 以木板爲之乎, 鑄字板爲之乎? 華鎮曰, 圖式則以木板爲, 書字則以鑄字爲之矣. 上曰, 好矣. 華鎮曰, 本草校正之際, 若無主掌看檢之人, 則易致錯誤, 令玉堂一員監印, 則似好矣. 上曰, 依爲之. 華鎮曰, 景慕宮守直軍, 以京軍雇立有弊, 依永禧殿例, 以鄉軍十二名分定, 而守奉官既入直, 則不可無使役之人, 書員庫直房直各一人, 亦

依永禧殿例差定,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華鎮曰, 景慕宮守僕, 若有差代之事, 則自禮曹, 擬望入啓, 六人料布, 亦依太廟守僕例, 加給,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華鎮先退, 中官進庭請啓辭, 命浩修讀之, 賜批, 命書傳教曰, 翔雲拿鞫, 既許庭批, 其令該府拿來. 勿出朝報 命退, 諸臣以次退出.

5)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7월 22일.

○ 沈翔雲伏誅. 臺啓連請拿鞫, 至是允之, 上御內兵曹親鞫. 問曰: “汝以逆孽之裔, 亂倫之徒, 蝨附匪類, 主視父事, 日夜所以經營排布者, 罔非至奸至妖, 凶國禍家之事, 而前冬凶書, 殆同急書, 精神所注, 專在於右袒徒黨, 欲試胸臆之謀, 剪除羽翼, 欲售危逼之計, 以紹述益昌挾逆宦助賊耆之餘習. 其時重臣之疏, 亶出於爲國忠赤, 則宮官之沈默與不沈默, 畏慎與不畏慎, 何預於其間? 乃敢以溫室樹等語, 肆然筆之於書, 不少觀忌, 以爲網打宮僚, 動搖貳極之計. ‘溫室樹’果指何事, 而何人指使? 設令所傳之宮僚, 親自陳疏, 爲先朝之分勞, 痛賊臣之濁亂, 是豈歸於諂佞乎? 其時國家上疏, 便同已徹, 使宮官草之, 宮官雖出而言之, 豈爲溫室樹乎? 汝之主視父事者誰也? 溫室樹之說, 聞於何處?” 供曰: “臣常時惟往來於鄭厚謙, 洪樂任家, 而溫室樹事, 言於洪樂任. 書筵酬酢等語, 聞於領府事矣.” 問曰: “洪樂任外他無相親者, 則以汝釁孽之徒, 何能如彼拔身乎? 汝豈不以厚謙爲階, 欲圖弼善, 而轉聞於國家乎? 向國家奇奇怪怪之說, 無非汝輩之做出張志恒, 金鍾秀云云之說, 亦豈非汝徒黨之言乎? 汝之逆案, 卽溫室樹語, 而汝必有聞處, 竝直告.” 供曰: “徐命善疏後, 宮官傳於重臣之委折, 果聞之厚謙, 以爲鄭民始言於徐命善云矣.” 問曰: “汝往厚謙家聞何說, 汝只知厚謙, 不知他人乎?” 供曰: “厚謙家, 尹養厚, 尹泰淵往來矣.” 問曰: “聽政何等義理, 而爲厚謙爲此上書, 寧甘得罪於國家, 則汝必有大利故也. 宮官雖或傳言於重臣, 汝豈忍謂自上使之上疏乎?” 供曰: “宮官不能慎默之失, 臣果言之矣.” 問曰: “重臣之疏, 汝輩以爲如何?” 供曰: “厚謙曰: ‘此疏必欲殺人, 人皆毋此疏死矣.’ 臣答曰: ‘一大臣則可死, 君豈必死乎?’ 厚謙曰: ‘徐命善欺我而上疏, 豈不凶乎? 吾則親洪家, 故必死矣.’” 問曰: “與厚謙酬酢之說直告.” 供曰: “臣上書後, 一本送厚謙, 厚謙曰: ‘執事則以爲忠, 而彼人則必以爲小人僥倖云矣.’ 與洪樂任, 厚謙, 又有所酬酢, 若問於樂任則可知矣.” 問曰: “厚謙危逼之言, 一一直告.” 供曰: “往洪樂任家, 則尹養厚在坐, 樂任曰: ‘大臣之言, 出於無情, 而徐命善歸之於用意, 必欲殺人而然矣.’ 尹養厚曰: ‘徐命善疏後,

闕中事實，無路知之.’云矣.”問曰：“汝之徒黨，豈不知宮中事，而謂以不知乎？其時巡邏少嚴，謂予微行，故查得則乃厚謙之人，只施爲奴之典矣。又以絕悖不道之說，眞諺爲書，潛投於宮中，且惡宮官之飛語，無所不至。至謂奪武士之髮帽，互相唱和，〔狼〕藉傳說，自捕廳捉治，其後汝所云‘溫室樹’之語竟出矣。舉世皆附於汝輩，而獨宮官不附，故必欲除去，此豈非危逼之計乎？汝之上書，專爲僥倖，死中料生，則必有裏委折之指使，其直告。”供曰：“果因厚謙矣。”問曰：“溫室樹之所以然，終不直告乎？”供曰：“臣心則以爲書筵說話，不當言於人也。”問曰：“書筵說話，何謂也？”供曰：“殿下以麟漢爲不忠而欲上疏，宮官出而言之謂也。”問曰：“汝從何聞之？”供曰：“聞於洪樂任而安大濟來見臣，亦有自上憾之之說矣。”鞠安大濟與翔雲面質，大濟語屈。問翔雲曰：“汝輩以爲重臣之疏，自上所使，而如是傳說乎？”供曰：“臣之所聞者，如是矣。”問曰：“汝之爲逆，有五條。一曰，上書中溫室樹事也。二曰，寧得罪於儲君，不敢違其指使者，專出於僥倖之心也。三曰，先上書而後翻覆之計也。四曰，符同逆類，做出奇奇怪怪之說也。五曰，設使宮官傳言，而重臣陳疏，此是宗社莫重之大計，則何敢膽諸章奏，以爲戕害宮官，危動國本之地也？今此五條，爲汝斷案，逐條遲晚。”**翔雲一一承款，又設庭鞠，以犯上不道伏法，**安大濟放逐鄉里。參鞠諸臣請洪樂任發捕。上曰：“所謂不幸近出也，予豈忍爲此？其勿更瀆。”

6) 『승정원일기』(권 1386) 1776년(정조 즉위) 7월 2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犯上不道罪人翔雲，既已承服正刑，**籍沒家產，令各該司，奉承傳舉行，何如？傳曰，允.

174-175. 박광벽(朴廣闢), 이길득(李吉得)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4월 3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박상로〈朴相老〉 아들, 이덕사〈李德師〉 차남)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4월 1일.

○ 李德師, 朴相老, 趙載翰, 李一和, 崔載興, 柳翰申, 李東讓等伏誅. 初上在春邸, 載翰與一種不逞之徒, 假托壬午義理, 陰結妖宦李興祿, 金壽賢等, 轉聞于上, 興祿等因上遊後苑, 誘脅萬端, 又薦引匪類之入其黨者. 上時在冲年, 心惡之. 至是乘大喪, 載翰嗾鄉儒李一和, 投疏言壬午事, 德師之疏同日并徹, 翰申亦呈疏政院, 疏語同. 教曰: “此誣及先大王之大逆也. 雖在公除前, 當親鞫殿庭, 以告先大王之靈. 一和猶是孤雛, 德師正法然後, 先王之志可明.” 御金商門親鞫德師及李峻培, 峻培, 德師之從姪, 而寫匈疏者也. 問: “先大王梓宮在殯之時, 投呈匈疏, 欲爲眩惑, 究其設意, 已極陰慘. 事係壬午, 不但不敢言不忍言. 日記洗草之後, 先朝達權之大義, 國家哀痛之至情, 兩伸而不悖. 則雖在三月初四日之前, 今日臣子, 固不敢發諸口筆之書, 況三月初四日之後乎? 爾疏中‘明先王之本心’云者, 尤萬萬叵測. 先大王之教若曰: ‘事係壬午, 義理或有十分似是者, 卽誣予也, 非但不忠於予, 抑亦不忠於爾. 他日干犯此事者, 殯殿之庭, 必也嚴問, 雖成服前, 斷以王法.’ 爲教. 今日親問, 卽追先王之志也, 明先王之志也.” 德師供曰: “先大王以止慈止仁, 當不忍當之情境, 恐非先大王之本意, 妄爲此疏誣上是實.” 以誣上大逆不道正法, 峻培減死定配. 又御內兵曹, 親鞫李一和, 趙載翰, 載翰之子方鎮·獻鎮·純鎮, 韓光瓘, 朴相老, 李勛濟, 勛濟之子東讓, 趙雲亨, 李範濟, 載翰等供: “爛漫謀議, 嗾出一和匈疏是實.” 相老與載翰, 東讓, 會于雲亨家議疏草, 發詬天不道之說, 其說以爲 ‘勿論疏事是非, 某年事, 我殿下’ 云云, 【已忘壬午四字.】蓋詬天語也. 東讓以告, 相老語屈不敢隱, 以窮匈極惡大逆不道結案. 上曰: “予豈意今日, 聞此匈言?” 仍嗚咽流涕, 諸臣皆泣, 金吾諸堂承史問郎侍衛將士, 各執杖亂捶之. 上曰: “治逆有道, 其禁之.” 遂大會百官都民, 戮相老于市, 載

翰，翰申，一和以誣上不道正法.

2) 『승정원일기』(권 1379) 1776년(정조 즉위) 4월 3일.

○ 又以義禁府言啓曰，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則窮凶極惡大逆不道罪人相老子芝壽·龜壽·淇壽等，卽爲發遣府都事，拿來囚後，依律文緣坐處絞，子廣闢年十五，子廣植年八，俱以年未滿，依律文免坐處絞，廣闢，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廣植，羅州牧黑山島爲奴，弟相玉，出繼免坐，弟相定，靈巖郡楸子島爲奴，孫種老味，康津縣古今島爲奴，孫種丕伊，慶尙道南海縣爲奴，妻愛下，全羅道珍島郡金甲島爲婢，女壽任，咸鏡道慶興府爲婢，女且任，慶尙道巨濟府爲婢，子婦今德，茂山府爲婢，子婦庚悅，穩城府爲婢，子婦連伊，鍾城府爲婢，而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 又以義禁府言啓曰，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則大逆不道誣上罪人德師，應坐諸人，查出以來矣.長子曰培，依律文緣坐處絞，而在於新門外月巖洞云，待城門開，發遣府都事，拿囚後舉行，次子吉得，年今十三，以年未滿，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妻喜慧，羅州牧黑山島爲婢，弟德履，珍島郡流三千里安置，子之妻慧伊，慶尙道巨濟府爲婢，姪子鵬培，咸鏡道慶興府流三千里安置，姪子馨培，茂山府流三千里安置，姪子綱培，慶尙道南海縣流三千里安置，姪子畢靈，全羅道康津縣流三千里安置，而依例發遣府羅將，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176. 필희(必喜)

- 신분: 가족(연좌)〈여〉
- 유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4월 4일.
- 해배 연월: 1776년(정조 즉위) 9월 4일.
- 사유: 연좌(사도세자 처벌 동조 김상로〈金尙魯〉 처)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3월 30일.

○ 校理李秉模上疏論金尙魯之罪, 請尙魯子姪絕島安置, 又論: “洪良漢之鄭家爪牙, 趙宗鉉之賊邊心腹, 有口皆言. 附逆亦逆, 請并荐棘.” 又請金若行疏賜批, 批曰: “尙魯子姪事, 依施. 良漢, 宗鉉事, 不允.”

2) 『승정원일기』(권 1379) 1776년(정조 즉위) 4월 4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當部成冊, 則孥籍罪人尙魯, 應坐諸人, 查出以來, 而追施逆律者, 其父與子勿施一律, 依兄弟應坐律舉行, 奉承傳施行事, 曾有受教矣. 頃因承傳, 尙魯子致讓,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安置, 子致廣, 珍島郡金甲島安置, 庶子致默, 全羅道興陽縣蛇渡安置, 而旣已發配, 依受教仍其地爲奴, 子致顯, 嚴囚本府南間, 待處分舉行, 姪致恭, 慶尙道巨濟府安置, 姪致良, 全羅道靈巖郡楸子島安置, 姪致勛, 慶尙道南海縣安置, 姪致訥, 全羅道珍島郡安置, 皆已發配, 仍其絕島, 依律文流三千里安置, 妻必喜,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婢, 妾德辰, 咸鏡道慶興府爲婢, 妾松月, 茂山府爲婢, 子之妾萬愛, 慶尙道機張縣爲婢, 子婦孝任, 長鬐縣爲婢, 子婦花愛, 東萊府定配, 庶子婦美方, 咸鏡道穩城府爲婢, 孫鍾烈, 三水府爲奴, 孫女珠玉, 慶尙道長鬐縣爲婢, 庶孫石伊, 咸鏡道穩城府爲奴, 庶孫女乙任, 全羅道興陽縣爲婢,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권 1388) 1776년(정조 즉위) 9월 4일.

○ 李義翊, 以義禁府言啓曰, 未結案而用逆律者, 身已死而追施孥籍者, 結案於次律, 而

請加極律者，一竝除之，而尙魯子侄及聖國諸子，卽其地安置，聖國母罪惡貫盈，今不可舉論，而其他諸緣坐罪人，竝放送事，舉條，啓下矣，尙魯子濟州牧旌義縣爲奴罪人致讓，羅州牧黑山島爲奴罪人致顯，珍島郡金甲島爲奴罪人致廣，庶子興陽縣蛇島爲奴罪人致默，侄巨濟府安置罪人致恭，靈岩郡楸子島安置罪人致良，南海縣安置罪人致勛，珍島郡安置罪人致訥，聖國子甲山府爲奴罪人景行，會寧府爲奴罪人景輝，長鬐縣爲奴罪人景煥，龍川府爲奴罪人景興等，仍前配所，竝爲安置，聖國母濟州牧爲婢罪人今連，依前罪目，濟州牧仍爲爲婢，而尙魯妻必喜，妾德辰·松月，子婦李女孝任，庶子婦美方，子之妾萬受，庶女美行，孫鍾烈·芑伊，庶孫石伊，孫女珠玉，庶孫女乙任，聖國妾松月女成愛·興艷，子婦楚愛·喜艷·莫珠，孫順徵·潤赫快·徵赫伊，叔弘道·繼哲等，竝卽放送事，分付各該道臣，尙魯·聖國·商輅等，籍產還給等事，令各該司舉行，何如？傳曰，允。

177. 심익운(沈翼雲)

- 신분: 관리(승지)
- 1차 유배: 1776년(영조 52) 1월 21일~1777년(정조 1) 1월 16일(북변).
- 2차 유배: 1777년(정조 1) 1월 16일~1782년(정조 6) 1월 14일(제주목).
- 유배 연월: 1782년(정조 6) 1월 15일(대정현).
- 사망 연월: 1783년(정조 7)⁷⁾
- 사유: 정권 변동(세손 대리청정 반대 심상운〈沈翔雲〉연루), 심상운 동생.
- 관련 사료

1) 『영조실록』(권 127) 1776년(영조 52) 1월 21일.

○ 王世孫坐尊賢閣, 引接大臣備堂. 大司憲朴相老所達: “沈翼雲薄有勝德之技, 同負悖倫之罪, 論其妖邪奸譎, 弟兄同一心腸. 大朝處分, 旣下難兄難弟之教, 昨日合啓, 又奏如鬼如蜮之狀矣. 如此凶邪之類, 固當屏諸四裔, 而乍配旋宥, 出入輦轂之下, 略無顧忌, 可謂失之太寬. 豈可以庶民之混釋, 遂弛隄防之至嚴乎? 請沈翼雲北邊遠竄.” 令曰: “依達.”

2) 『정조실록』(권 3) 1777년(정조 1) 1월 16일.

○ 大司諫尹弘烈上疏: 以北路凶荒, 人心易騷, 而趾海, 述海, 翼雲等諸賊, 謫在同道, 有誑惑煽動之慮, 請分配海島. 批曰: “令該府, 依特教例, 絕島舉行.” 趾海移配楸子島, 述海 黑山島荇棘, 翼雲移配濟州牧.

3) 『정조실록』(권 13) 1782년(정조 6) 1월 14일.

○ 判義禁洪樂性啓言: “濟州御史別單中, 州城距船所未滿十里, 如趙貞喆, 沈翼雲之逆孽, 締結陸商, 交通京信. 宜移配貞喆於旌義縣, 翼雲於大靜縣.” 從之.

7) 심익운의 사망 연도는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문집으로 『백일집』을 남겼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1783년(정조 7)이라 되어있다.

4) 『승정원일기』(권 1501) 1782년(정조 6) 1월 14일.

○ 行中樞府事洪樂性曰, 濟州御史朴天衡別單中, 以濟州城內, 去船所未滿十里, 且是許多陸商之所都會處也. 書信之往來, 物貨之交通, 職由於此. 如貞喆·翼雲等罪人, 此皆攀緣京洛之類, 不可置之於濟州. 以臣愚見, 貞喆·翼雲, 分配於大靜·旌義等縣, 似爲得宜, 令該府稟處爲請矣. 本州之爲許多商賈都會處, 誠如御史所陳, 則逆孽之如貞喆·翼雲輩, 締結陸商, 交通京信, 必有其弊. 罪人貞喆, 移配旌義縣, 罪人翼雲, 移配大靜縣, 嚴飭各其配所官, 另加檢束, 以爲各別防守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5) 『승정원일기』(권 1501) 1782년(정조 6) 1월 15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減死安置罪人貞喆, 移配旌義縣定配, 定配罪人翼雲, 移配大靜縣事, 舉條啓下矣. 罪人貞喆·翼雲等, 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自濟州牧執捉,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島中移配, 不必自京發差, 令該牧使別定將校, 押送各其配所, 可也.

178. 홍계능(洪啓能)

- 신분: 관리(집의)
- 유배 연월: 1777년(정조 1) 4월 8일.
- 나국 연월: 1777년(정조 1) 8월 11일 이전/ 1777년(정조 1) 8월 11일(사망).
- 사유: 정권 변동(정조 즉위 반대)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3) 1777년(정조 1) 4월 8일.

○ 安置洪啓能于大靜縣. 兩司【大司諫李義翊, 掌令金致九.】啓言: “啓能之罪, 可勝誅哉? 凶趾妖簡, 羽翼自成, 逆厚賊麟, 聲勢相須, 不逞之輩, 邪說凶言之傳會鼓倡, 脅持逼迫, 莫非啓能之所爲. 當代聽命下之日, 賊魁之內外沮遏, 升木之猱教之者誰也? 樂禍之跡, 難掩於起舞之時, 無嚴之心, 已露於醴酒之說. 此不嚴討, 亂賊無所懲畏, 請絕島安置.” 依啓. 校理趙時偉, 沈煥之啓言: “啓能罪案中大北之論, 愆憑恒, 簡, 迫崇之說, 恐動儕流, 日後國洞之世, 啓能爲右相, 金相翊爲鶴南, 相簡爲文衡之說, 狼藉世間, 流入官禁, 皆啓能罪案之極凶最大者, 而既登諫長之初啓, 反漏今日之合啓, 請入侍兩司諸臣竝推考.” 命勿推.

2) 『승정원일기』(권 1397) 1777년(정조 1) 4월 9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因臺啓, 安置罪人洪啓能, 荐棘事, 依啓矣. 洪啓能, 全羅道濟州牧大靜縣荐棘. 而以臺啓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 荐棘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정조실록』(권 3) 1777년(정조 1) 6월 5일.

○ 敎曰: “啓能之惡, 雖曰無所顧忌, 至于今無君之心, 轉益跋扈. 名以荐棘, 率入親屬, 不禁之都事, 固無可言, 啓能之罪惡, 益無所逃, 嚴加荐棘. 以此推之, 續海, 泰淵等之棘圍可知. 從當有摘奸, 亦令嚴飭該道伯, 該牧使之不能檢飭之失, 在所難免. 全羅道觀察使李普行推考, 濟州牧使黃最彦越俸五等.”

4) 『승정원일기』(권 1403) 1777년(정조 1) 8월 5일.

○ 以濟州牧使黃(最)彦, 罪人啓能·泰淵·續海等棘圍及率人不能檢飭禁斷, 惶恐待罪啓本, 傳于李亨達曰, 勿待罪回諭.

5)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8월 11일.

○ 諸賊伏誅. 自前月尊賢閣賊變之後, 屢飭譏詞, 久未斯得. 是夜景秋門守舖軍金春得, 金世徵等, 相與枕藉而臥, 有人低聲呼舖軍者再三, 世徵欲應. 春得時年十七, 亟止之曰: “呼聲可異, 姑勿應, 第觀動靜.” 有頃有人直向景秋門之北垣, 將欲潛越, 春得等蹴起隣舖軍金春三, 李福才二人, 相與追捕, 由兵曹送之捕廳, 捕廳詰其情節, 則院洞任掌田有起改名興文者也. 蓋興文與姜龍輝潛入尊賢閣雷上, 謀欲稱亂而未果, 今又再舉, 竟爲舖軍所捕也. 捕廳以聞, 初命庭鞠. … 又翼日親鞠洪相吉. 相吉卽念海之子, 而相範之四寸也. 因弼海供發捕, 至是拿鞠. … 問曰: “汝謀害聖躬, 向後事將欲何爲?” 供曰: “擇宗親中賢者也.” 問曰: “誰也.” 供曰: “三王孫有令望, 欲推戴矣.” 問曰: “推戴之謀, 誰與共之?” 供曰: “洪啓能首爲此謀, 三四月間, 啓能與其子信海及姪履海, 謂臣曰: ‘今上多失政, 不可無推戴之舉, 若仁廟反正事也.’” … 越六日親鞠洪述海, 翼月推鞠洪趾海, 述海以赴謫時藏符呪事, 及相範募刺客作變, 孝任與妖巫埋凶, 啓能推戴之凶謀, 在謫後往復指揮承款, 趾海供亦同. 翼日又鞠洪續海, 洪啓能. 續海供曰: “昨年八月在黑山島時, 臣之婢夫卜龍持衣服書札而來, 其中有相吉者, 詳報三塗作逆之謀, 臣果一一往復, 臣當結案, 然結案甚重, 臣當從頭至尾, 逐句口呼也.” 問啓能曰: “汝假托虛名, 身居近郊, 作爲凶徒窩主, 大小言議, 無不主張指揮, 而甚至於銓注用舍之際, 亦無不參涉懲慝. 恒, 簡輩大北之說, 追崇之論, 疑動一世, 至有他日國洞之世入相之言, 而國家自在銅闥之時, 一扇一魚之頒, 如或未盡, 則厚, 麟諸賊藉重汝, 恐嚇脅迫, 無所不至. 及今義理大定, 賊黨鋤治之時, 如汝之爲賊黨巨魁者, 尙追王章, 已是失刑, 則乃敢與相吉, 相格, 閔弘燮, 李澤遂等諸賊, 綢繆密室, 爲計益急, 至以太甲桐宮之說, 癸亥反正之舉, 詬天罵日, 無所不至, 乃有推戴三王孫, 及將任藩間排布等言. 則孝任之締結妖巫, 埋凶射天者, 亦由汝之推戴逆禮也; 範, 吉輩之潛引刺客, 懷刃入闕者, 亦由汝之推戴逆禮也. 諸賊之千罪萬惡, 專由推戴之密謀, 而爲其向後事也. 斯速遲晚.” 啓能供曰: “問目全不近似矣.” 問曰: “傳教問目, 汝敢以不近似之說, 勃慢爲對乎?” 供曰: “相吉昨天下鄉時, 果來見矣. 雖使優爲逆謀, 不少之人,

豈可遲晚乎?” 問曰: “汝敢終始勃慢乎?” 供曰: “何不速出斬之乎?” 問曰: “卽此一語, 乃是不道之言也.” 供曰: “太甲桐宮之說, 果因《尚書》文義言之也.” 啓能未結案而病狀危急, 三司諸臣, 請不待結案正法, 教曰: “劇賊之不得正刑, 比之低仰金石之典, 猶有輕重之別.” 不從. … 趾海, 述海, 續海, 興文, 龍輝, 相範, 相吉, 相格, 興祚, 世福以大逆不道正法, 貞伊以謀逆同參正法. 澤遂初以謀逆同參結案, 上曰: “汝母卽慈宮至親. 予不忍以謀逆連坐論.” 乃以知情不告正法, 興福 · 信德以知情不告正法, 海根, 繼昌, 啓能, 國來承款徑斃, 履海 · 信海亦徑斃, 弼海以知情不告結案後, 濟州牧圍籬安置. … 是歲逆變, 載籍所無, 而上或恐獄情之濫, 一從惟輕之典, 至九月十一日, 鞫事始撤.

179. 윤범중(尹範中)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777년(정조 1) 9월 27일~1789년(정조 13) 8월 10일(유배 중).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역적 윤태연<尹泰淵> 아들)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9월 21일.

○ 兩司【司諫李謙彬, 持平洪樂恒·鄭淵淳, 獻納洪周萬, 正言金翊休.】上疏, 請泰淵應坐諸人島配. 還寢弼海酌處之命, 依律處斷. 批曰: “泰淵應坐事依施, 末端事不允.”

2) 『승정원일기』(권 1407) 1777년(정조 1) 9월 27일.

○ 又以刑曹言啓曰, 因臺疏罪人泰淵子侄, 絕島散配事, 命下矣. 移文京兆, 考出帳籍, 知委五部, 使之修成冊以來, 而卽接南部成冊, 則罪人泰淵子範中, 查出以來, 全羅道濟州牧大靜縣定配所,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권 1662) 1789년(정조 13) 8월 10일.

○ 洪仁浩, 以刑曹言啓曰, 昨日動駕時衛外擊錚人黃州良女鄭召史, 其夫文光彩, 橫罹殺獄事也. 長淵良女金召史, 其夫片相奉, 以私掘露棺罪, 流配樂安, 全州童蒙金得福, 其父惡沙里, 詐稱官差罪, 徒配楊口, 北青幼學金有相, 其父天郁, 以私掘罪, 定配柒谷, 其兄光烈, 定配三陟, 其從兄國相, 定配龍岡, 竝請放事也. 楊州童女尹丹喜, 大靜緣坐定配罪人範中之女, 而渠之祖母, 身死已周年, 乞令通訃於其父事也. 延豐幼學權義教, 其父世復, 干連原獄, 定配北青, 請放事也. 西部良人朴明龍, 其妻·其母, 爲李姓兩班之所隱匿, 乞令推給事也. 關係四件者, 事當捧供以聞, 仰請上裁, 而近來奸民猥越之習, 誠多可駭, 至於此時瀆擾, 尤萬萬無嚴. 今番鳴錚七名中, 事屬四件者, 只原情勿施, 其外如朴明龍猥雜之事, 童女及權義教等逆孽冒濫之類, 自臣曹, 從重嚴勘, 何如? 傳曰, 允.

180. 복조(福兆)

- 신분: 가족(연좌)<여>
- 유배 연월: 1778년(정조 2) 6월 10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정조 즉위 반대 홍찬해<洪纘海> 처)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1406) 1777년(정조 1) 9월 9일.

○ 李亨達,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北部成冊, 則大逆不道罪人纘海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妻福兆平安道孟山郡爲婢, 子虎狼年二, 以年未滿, 依律免絞, 咸鏡道會寧府爲奴, 女墨三明川府爲婢, 而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2) 『정조실록』(권 5) 1778년(정조 2) 6월 10일.

○ 移配載翰緣坐罪人在六鎮者於絕島. 玉堂宋煥億, 以地近邊門, 恐易生釁, 爲請也.

3) 『승정원일기』(권 1421) 1778년(정조 2) 6월 1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平安監司洪樂純狀啓內, 逆格妻曾每, 在於陽德縣, 逆格奴汝加里, 在於德川郡, 逆禮海妻福兆, 在於孟山縣, 逆禮海子今年生, 在於寧遠郡. 今此四邑, 地界相接, 或爲半日程, 或爲一日程, 互相往來, 密通情意, 綢繆釀禍之端, 難保其必無. 逆能孫快樂, 在於朔州府, 逆能孫今年生, 在於碧潼郡, 逆能奴世福, 在於昌城府, 逆能奴齡福, 在於渭原郡, 逆能奴老味, 在於楚山府. 此等逆孽, 列置於沿江咫尺之地, 迭相往來, 亦不無做出變怪之慮. 其在慮遠之道, 不可因循置之, 曾每等九名, 卽爲散配於海島絕域事啓下矣. 陽德縣爲婢罪人格妻曾每, 全羅道濟州牧旌義縣移配. 孟山縣爲婢罪人逆禮海妻福兆, 濟州牧大靜縣移配. 竝爲婢. 寧遠郡爲奴罪人逆禮海子今年生, 靈巖郡楸子島移配爲奴. 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 而逆格奴汝加里, 逆能孫快樂今年生, 逆能奴世福·齡福·老味等, 俱非本府所管罪人, 竝令刑曹, 稟處, 何如? 傳曰, 允.

181. 이경빈(李敬彬)

- 신분: 관리(지평)
- 유배 연월: 1778년(정조 2) 10월 20일~1780년(정조 4) 4월 20일(유배 중).
- 사망 연월: 1825년(순조 25) 3월 2일 이전.
- 사유: 역모 연루(홍지해〈洪趾海〉 역모 사건)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 1776년(정조 즉위) 6월 23일.

○ 又敎曰: “敬彬不但善海之至親, 相簡之切友, 諸囚之供, 無不援引. 至于渠父, 以相簡輩窮凶之謀, 敬彬無不共知之意, 不待帳殿之親問, 先已說道於廉探人試問之時, 則敬彬之罪, 父已告之, 友且證之, 不必更問. 敬彬加刑一次, 絕島定配.” 配智島. … 又敎曰: “罪人福海之罪, 可勝誅哉? 有弟善海, 有子敬彬. 弟若子之凶謀亂言, 若是狼藉, 身爲家長, 其敢曰在家不知?…”

2) 『정조실록』(권 6) 1778년(정조 2) 10월 20일.

○ 移配薪智島定配罪人敬彬于大靜縣.

3) 『승정원일기』(권 1430) 1778년(정조 2) 10월 20일.

○ 又以義禁府言啓曰, 薪智島定配罪人敬彬, 移配濟州牧事, 下敎矣. 罪人敬彬, 全羅道濟州牧大靜縣移配, 而依例發遣府羅將, 自薪智島執捉, 仍令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권 1462) 1780년(정조 4) 4월 20일.

○ ■■■·行晉·顯模·濟萬啓曰, 請濟州牧移配罪人敬彬, 亟令王府, 更爲設鞫得情. 措辭見上 上曰, 不允.

5) 『정조실록』(권 1) 정조대왕 행장(行狀)

○ 王曰: “春秋之義, 護逆亦逆.” 遂親鞫若淵以黨逆輸款. 洪趾海父子兄弟, 尹泰淵, 閔恒烈, 李商輅, 李善海, 李敬彬等, 交結謀議, 潛圖翻覆之凶言凶書, 始皆呈露, 次第就鞫.

若淵島配道死，恒烈，善海伏誅，相簡結案徑斃，商輅亦徑斃，趾海，續海，敬彬島配。又鞠泰淵，翔雲，養厚，翔雲以受喉樂任，厚謙，納款正法，泰淵，養厚輸款徑斃。

6) 『승정원일기』(권 2189) 1825년(순조 25) 3월 2일.

○ 又以義禁府言啓曰，本府擊錚回啓內，閔弘燮·李敬彬事，下詢大臣處之，何如？判付內，依允，上言回啓內，金字鎮·張胤宗事，下詢大臣處之，何如？判付內，依允事，命下矣。謹依回啓判付，問議于大臣，則領府事金載瓚，判府事韓用龜·金思穆·南公轍·林漢浩病未獻議，判府事李書九在外，左議政李相璜以爲，閔弘燮諸條設疑，卽其鳴辨，而本案既重，亦屬久遠，非可遽議，李敬彬以父既復官，子未蒙宥，有此籲冤，而年久重案，不容輕議，金字鎮四字歸屬，證以鞠招，而積久之案，難議遽宥，張胤宗父配子繫，所坐則同，而子竟見原，則其父宜無異同，合施疏蕩，臣亦以府讞爲是，伏惟上裁云矣，大臣之議如此，上裁，何如？傳曰，竝依大臣議施行，可也。

7) 『순조실록』(권 31) 1830년(순조 30) 12월 22일.

○ 命故參判閔弘燮，故注書李敬彬，故校理李商輅，故永城尉 申光綏，故參議金字鎮，并伸冤，復其官爵，皆自正廟時，名載罪籍者也。先是，因其家鳴冤事，下金吾議于大臣，領護政南公轍以爲，“閔弘燮，李敬彬事，觀於其子之上言，則非無可據，而前此承問諸大臣，屢以年久重案，不可輕改之意，獻議矣，臣亦今豈有他見乎？申光綏則臺疏鞠招，雖曰無明證，姓名至登於丹書，滌籍復爵，在所審慎。金字鎮罪犯雖重，逮先朝在有之時，竟置傳生之科，其家之以此鳴冤，容或無怪，而本案既屬積久，亦難遽議云。”左議政李相璜以爲，“閔弘燮，李敬彬事，或設疑，而欲明其本，實或援父而竝籲，其子冤然，俱係久遠之重案，不可輕議。申光綏事，雖以臺疏論列，鞠囚援引之無甚明證爲辭，而名在丹書，案已積久，有不容遽議有除。金字鎮事，觀於爰辭，證以鞠招，非曰無所依據。而本案既重，亦難追理於年久之後云矣，請徽裁。而判付未下。至己丑九月，閔致三爲其父弘燮追奪事，李■爲其父敬彬伸冤事，金兢昌爲其祖宇鎮伸冤事，申錫洪爲其祖光綏追削事，更爲上言，本府回達內，〈閔〉致三事，被逮而白放事，發於死後，今此呼籲，非無可據，李事，其祖則復官已久，其父則罪名尙在，有此呼籲，金兢昌前後上言辭緣，容或無怪，申錫洪事，以鞠囚援引，無甚明證，有此上言云，廟堂獻議，竝已入達，未及判下，至是又命判義禁金履喬覆奏，而竝復官。政院議啓請寢，不從。

182. 노성중(盧聖中)

- 신분: 관리(헌납)
- 유배 연월: 1779년(정조 3) 6월 15일.
- 사망 연월: 1785년(정조 9) 11월 20일.
- 사유: 정권 변동(영조 때 사모 불착용)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4) 1777년(정조 1) 7월 1일.

○ 竄盧聖中于長鬐縣, 放逐徐有臣, 朴宗甲, 李義駿于鄉里. 先是上臨筵教曰: “頃以兩司承旨改望事, 有所下教. 其中罪之可恕者, 在聖世無棄物之意, 置之無妨, 至於不可不罪者, 豈可掩置乎? 徐有臣, 朴宗甲, 李義駿, 皆故家世臣之裔也, 予豈欲棄之? 而渠輩敢以此等事, 嘗試於予, 則其無所不爲, 可推而知. 然尙今掩置, 使同平人, 至入於承宣之望, 豈有如許道理乎?” 仍出示春邸時日記. 領議政金尙喆曰: “昨年入侍下教, 臣等坐處稍遠, 未得詳聞, 今見日記而後, 始知渠輩之負犯, 至於此極也. 其中盧聖中事, 尤極凶慘矣.” 上曰: “其前則無此言端, 故徐有臣爲忠清監司, 而亦置之不問也.” 右議政徐命善曰: “此事外人必無知之者.” 上曰: “此輩既不入於政望, 又不加以罪名, 則非僧非俗, 無所歸屬, 處分後當有究竟也.” 兩司【大司諫趙英鎭, 執義任觀周.】啓言: “徐有臣, 朴宗甲, 李義駿俱以傾邪之人, 乘書筵出入之時, 敢生日後媒寵之計, 以盧聖中不仕先朝之說, 肆然奏達. 其放恣無嚴, 負犯至重, 而其罪犯如此之狀, 外間不能詳知, 尙今使之假處城闔矣. 今聞日記命讀, 始知三人罪狀之叵測, 不勝憤惋. 何可一刻容貸乎? 臣等謂徐有臣, 朴宗甲, 李義駿極邊遠竄宜矣.” 批曰: “始何發啓乎?” 觀周所懷曰: “所謂徐有臣, 朴宗甲, 李義駿之所犯, 蓋由於盧聖中. 聖中於先大王朝, 不着帽十有餘年, 則此先大王之逆臣也. 渠何敢着帽事我殿下乎? 其心所在, 萬萬叵測, 臣謂盧聖中拿鞠嚴問宜矣.” 批曰: “何必拿鞠乎? 不欲聞所供也.” 尙喆曰: “亟從臺臣之請, 臣等之望也.” 上曰: “予非靳惜, 而盧聖中既請拿鞠, 則徐有臣等, 豈可只請遠竄乎?” 判義禁洪樂性, 同義禁徐浩修曰: “李義駿, 徐有臣, 朴宗甲等, 以盧聖中十三年不着帽之說, 肆然陳達於胄筵, 其心所在, 萬萬叵測. 亟允臺啓, 以嚴隄防, 是臣等之望也.” 上曰: “臺啓之靳允, 以其不請鞠而請竄也, 非欲靳惜於竄

配也.”至是兩司啓請盧聖中，徐有臣，朴宗甲，李義駿并設鞫嚴問，依律處斷，有是命。

2) 『정조실록』(권 7) 1779년(정조 3) 6월 15일.

○ 移配長髻縣遠竄罪人盧聖中于大靜縣. 御史黃昇源，以聖中在謫中，聚會學徒，接見官隸論罪，大臣請移配也。

3) 『승정원일기』(권 1442) 1779년(정조 3) 6월 15일.

○ 徐有元，以義禁府言啓曰，慶尙道長髻縣遠竄罪人聖中，全羅康津縣古今島移配事，草記批旨內，更定配所以入事，命下矣。罪人聖中，濟州牧大靜縣移配，而仍前罪目，依例發遣府羅將，自長髻縣配所，執捉押送，何如？傳曰，允。

4) 『일성록』 1779년(정조 3) 6월 15일.

○ 義禁府啓言.罪人聖中.濟州牧大靜縣移配.而自長髻縣配所.請押送.允之.

5) 『승정원일기』(권 1591) 1785년(정조 9) 11월 20일.

○ 獻納李壽咸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請爲奴罪人河翼龍，亟命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請金甲島爲奴罪人克觀，古今島爲奴罪人克泰，泗川縣定配罪人萬赫，更令王府嚴鞫得情，快正王法.請恒·善支屬，亟命散配，時謙兄弟，竝投絕島，以嚴隄防.請荇棘罪人瑩中，亟令王府設鞫嚴問，快施當律.請巨濟府絕島安置罪人朴宗集，亟令王府拿鞫得情，施以當律.請逆賊尙魯，亟施孥籍之典.請物故罪人國榮，亟施孥籍之典.請爲奴罪人夢麟，定配罪人崔鍾岳，放送罪人鄭聖休，亟令王府更爲設鞫，期於得情，各施當律.請還寢煥程發配之命，仍令王府竝囚煥程·煥九，嚴訊取服，各施當律.請特寢李魯春島配之命，仍令王府，還囚南間，設鞫嚴問，期於得情.請尹得孚，亟令王府嚴鞫得情.請李光殷，設鞫嚴問，期於得情，施以當律.請渭原郡定配罪人炯魯，亟寢發配之命，仍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措辭竝見上 大靜縣定配罪人聖中物故，停啓.答院曰，不允.第十三件事.第十四件事，亟停勿煩.

183. 송환억(宋煥億)

- 신분: 관리(우승지)
- 유배 연월: 1782년(정조 6) 12월 27일(대정현).
- 1차 유배: 1781년(정조 5) 10월 12일(추자)~1782년(정조 6) 12월 27일.
- 사망 연월: 1789년(정조 13) 1월 12일.
- 사유: 역모 연루(홍국영〈洪國榮〉 역모 관련)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12) 1781년(정조 5) 10월 12일.

○ 敎曰: “事端, 層激之後, 不鞫不竄, 殊無意義.” 仍命宋煥億 楸子島定配. 行左承旨金尙集, 左副承旨李在學啓言: “煥億之前後負犯, 覆載難容, 而況四字註釋之凶言, 既發於湖囚之招, 則不可不設鞫得情, 而今此定配之命, 遽下於獄事未究竟之前. 乞寢成命, 亟從三司之請.” 批曰: “此時設鞫, 不但行不得之事. 四字註釋, 又非委官之所可問者. 況德相發配之後, 獨於煥億, 豈可不姑施島配? 觀勢拿鞫也.”

2) 『정조실록』(권 14) 1782년(정조 6) 12월 27일.

○ 李沈, 申亨夏, 白天湜, 以大逆不道結案. 沈構泓微, 泓疏亡命, 晚始就捕. 沈, 亨夏押送全羅監營正法, 天湜押送平安監營正法, 金貞采流巨濟, 宋德相, 宋煥億逮捕. 德相病重不盤問, 煥億荐棘大靜縣. 命罷推鞫.

3) 『승정원일기』(권 1523) 1782년(정조 6) 12월 27일.

○ 上御誠正閣. 承旨入侍時, 左承旨李在學, 左副承旨金字鎮, 右副承旨徐鼎修, 記事官李祖承, 兼春秋金健修·金鳳顯, 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敎曰, 今已日暮, 亨夏如未加刑, 下本道捧結案時, 自可加刑, 勿爲加刑, 卽刻內押送, 雖已始刑, 停刑後舉行. 又命書傳敎曰, 鞫廳罪人, 次第可已收殺, 罪人德相病重, 有難盤問, 推鞫罷坐. 又命書傳敎曰, 從事官李元謙, 令該曹口傳付軍職, 仍爲假都事差下, 罪人天湜押去事, 分付. 貞采, 別定捕校, 待城門開, 出送城外押留, 待綸音頒下發配. 上曰, 此傳敎, 傳于委官, 宣傳官一人, 亦爲待令. 賤

臣承命出傳，還入進伏。又命書傳教曰，罪人煥程，自在應坐之科，付捕廳待結末舉行。又命書傳教曰，煥億配所，以濟州三邑中磨鍊，草記一邊書入，一邊發配，而仍其地荇棘，沿路嚴禁雜人事，下去都事處嚴飭，與亨夏等諸賊之下本道者，無或一時竝行事，亦爲嚴飭。宣傳官李潤集，假都事差下押送，而城外家舍，姑爲留住，待綸音頒下膽給後押去。又命書傳教曰，囹圄幾空，門外待令訓局軍兵，自今日更減十名事，分付書訖。上曰，此傳教，傳於委官，卽爲舉行。命退，承史以次退出。

4) 『승정원일기』(권 1523) 1782년(정조 6) 12월 28일.

○ 徐鼎修，以義禁府言啓曰，罪人煥億絕島定配所，以濟州三邑中磨鍊，仍其地荇棘事，命下矣。罪人煥億，全羅道濟州牧大靜縣荇棘，而以判付內辭意，具罪目，發遣假都事李潤集，押送配所，與地方官眼同荇棘之意，敢啓。傳曰，知道。

5) 『승정원일기』(권 1650) 1789년(정조 13) 1월 12일.

○ 持平金鎔等曰，煥億之罪，可勝誅哉？性既妖邪，行且陰譎，勢之所使，甘心附賊，利之所在，不憚賣叔，手勢倏忽，設施陰阿，或有議論之相通，則甘爲紹介於國榮，或有謀計之排布，則一聽國榮之指揮。當國榮沮遏大計之日，四字凶言之疏，受之於國榮者，煥億是已，傳之於德相者，煥億是已。論其負犯，實有浮於德相，而況其疏草初本下語，尤極凶慘，有倍於四字者乎？及其罪惡彰露之日，敢生漫漶彌縫之計，註釋四字，誑惑群心，勸其疏學之說，既發於湖獄諸囚之招。海西群不逞之輩，又從而響應，轉相煽動，爲其漸染，以至前日澤·白，今日仁·京之窮凶劇逆，而腸肚相連，脈絡相貫。若論其根柢窩窟，一則煥億，二則煥億。昨日嚴訊之下，抵賴不服者，究厥情狀，萬萬巧惡，不可不嚴加刑訊，一一取服，而半日平問之餘，反下酌處之命，揆以獄體，寧有是理？請亟寢煥億島配之命，仍令王府，加刑得情，夫施王章。上曰，三司合啓，既有德相之鐵案，煥億加刑，啓辭之有無，別無關緊，況所請不過加刑者乎？付之本道加刑，亦無不可，依啓。

184. 김우진(金字鎭)

- 신분: 관리(이조참의)
- 유배 연월: 1786년(정조 10) 12월 10일.
- 이배 연월: 1792년(정조 16) 2월 10일(교동부).
- 사유: 역모 연루(이담〈李湛〉 역모 관련)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22) 1786년(정조 10) 12월 10일.

○ 命金字鎭圍籬安置于濟州牧. 罷推鞠. 敎曰: “以金字鎭之罪惡, 尙可生出獄門乎? 渠以院相之子, 丙申以後, 朝家之所以剪拂而滌用之者, 果何如也? 其父則進秉勻軸, 渠則長置近密, 爵位尊且隆也, 恩寵優而渥也. 忽若喪魄, 自絕于天, 竟至於上下之所擯棄. 渠有一分彝性, 則豈無回首戀結之忱, 亦豈無滿心惶駭之色? 固當跼天蹙地, 崩隕痛迫, 泥首乞命, 求死之不暇, 而不惟反是, 乃敢翱翔朝端, 厚瞞一世, 自以爲初無干犯, 陰幸其暗中脫濕, 而朝家猶置之不屑之科. 又於宮筵, 洞諭而昭晰之, 積費許多商量, 坑坎而衽席之, 龍蛇而赤子之. 渠亦人耳, 尤宜泣血追愆, 而無奈難化者, 狠性駸駸然自歸於讎視之科, 寧不痛哉? 然猶深軫含垢之意, 薄施削版之典, 渠之負朝家至於此極, 而朝家之保渠, 可謂至矣盡矣. 今因急書之出, 而渠之名先入其中, 囊木就鞠, 情節狼籍. 以渠地, 而入此獄, 是豈意慮之所嘗及者乎? 婚事之勸與不勸, 姑無論. 既以本事, 互相酬酢, 聽之若尋常, 初不立跡作證, 又不向人自明, 渠之心腸, 路人所知. 且見捕廳文案, 近宗之服毒根因, 直接於渠之姻家, 而其生前之言以爲: ‘金家事出, 吾當死矣.’ 至曰: ‘某生則吾生, 某死則吾死.’ 宋樂休躬聞而來告, 則雖使渠無所與知, 情犯有無, 不必較論, 在渠辭死而已. 且況善復面質之招出, 而渠弟之逐日來往, 屏人喑囁, 乃在逆謀方張之時, 藉使渠, 又不聞知, 收司之典, 烏得免乎? 渠供中: ‘顧瞻他日之計’, 所謂他日, 卽群不逞得志之時云云, 在渠可謂斷案. 到此雖欲求生於罔赦, 誠末如何矣. 然而渠旣院相之子也, 苟無賊堅之躬犯, 寧忍置辟, 使渠父, 不得保性命乎? 且細閱文案, 其證則雖在於急書, 其跡則未可謂盡綻. 貸其一線之喘, 似不至失刑. 朝家於院相, 不欲直施盤劍, 已有牢定者. 罪人金字鎭, 濟州牧 大靜縣圍籬安置.” 仍命宣傳官持標信至王府, 出字鎭于獄, 押送配所. 又召諭禁府都事, 押

具以謙，囚于果川縣，以待用法.

2) 『승정원일기』(권 1615) 1786년(정조 10) 12월 10일.

○ 趙衍德，以鞠廳言啓曰，卽伏見判付下者，有罪人金字鎮大靜縣圍籬安置之命矣. 臣等相顧驚惑，誠莫曉其何故也. 字鎮之千罪萬惡，豈可至今容息於覆載之間，而就渠遲晚中論之，則欲爲掉脫於近密之列，以爲繳名於矢志不逞之徒者，三行刀割 至若善復，凶言之聽若尋常，不卽發告者，尤可見凶肚逆腸之互相關通，惟此諸條，罔非死案，有一於此，萬戮猶輕，又況一身而兼有之者乎？臣等纔入供案，方擬待批旨，更捧結案之際，忽奉此萬萬非常之教，雖以天地之德，好生之仁，姑許其戴頭，而三尺至嚴，不可撓屈，字鎮之生出獄門，萬萬無是理，臣等寧被慢命之誅？決不敢奉行，亟收成命，仍令捧結案正法，何如？答曰，酌處意在，卿等退去，原傳教頒布，然後中外可以知其罪惡，卽爲臚送政院，可也.

3) 『정조실록』(권 33) 1791년(정조 15) 12월 14일.

○ 金尙喆死. 命蕩滌其罪名，葬以大臣禮，放其子字鎮，許令歸葬. 教曰：“院相，卽摠攝國政之任也. 其體貌與禮遇果何如，而不幸間有事故者，盤劍未嘗輕加，此卽我朝敬大臣之法意也. 此人亦然，年前臺論之峻發也，只施譴罷之典者，意豈徒爾！今聞其長逝，若無拔例之舉，烏在其別視院相之意乎？前領府事金尙喆罪名蕩滌，以大臣禮葬舉行. 情固可誅，三尺有時或屈，此蓋於常法之中，參以造化之權也. 當行與不當行，何足較看？濟州牧減死荐棘罪人字鎮，特放卽許歸葬.” 政院守閣求對，上諭令頒布曰：“無論可爭不可爭，傳教中間執置，大關後弊.” 又諭曰：“以如許之干犯，有若此之處分，此豈爲其人爲其家？一則曰示朝家寬大之政，一則曰念院相體任自異也. 此箇委折，已詳言於備忘記中，若不頒布，外廷何以知處分之本意乎？” 於是，閣臣，玉堂，兩司伏閣不退. 玉堂啓言：“今此逆賊尙喆，蕩滌罪名，字鎮放還歸葬，義理由是晦塞，倫綱由是斁絕. 竊恐此教一頒，環東土數千里，其將胥淪於夷狄禽獸之域矣.” 政院，兩司又交章，請反汗，不許，竝拿問，以東所衛將李台一，差假承旨，頒布傳教，仍命處分諸臣分揀.

4) 『승정원일기』(권 1697) 1791년(정조 15) 12월 14일.

○ 校理李殷模·申馥，副校理李貞運·申獻朝，修撰李祉永，伏閣啓曰，今此逆賊尙喆罪名

蕩滌之命，逆賊宇鎮特放歸葬之教，實是意慮之所不到，伏未知殿下，何爲而有此萬萬非常之舉也？噫嘻，痛矣。喆賊父子之罪，可勝誅哉？惟彼尙喆，以妖慝之性，據勾軸之地，背却國恩，力護凶賊，耆·輝復出之說，龍妻援比之奏，情跡難掩，手脚盡露，而宇鎮之彌天罪惡，實由於其父之傳襲而然也。啓草之構成，擬帥之凶謀，卽渠父子同惡相濟之斷案，半行刀割，姻附賊復，而除助聲勢，及夫宇鎮之就拿也，與同死生之說，既已遲晚，顧瞻他日之計，明白納招，則兩賊之尙今容貸於覆載之間者，已是失刑之大者也。今此喆賊，未加天討，先及鬼誅，目下之所當先，惟有喆賊之追施當律，宇逆之嚴鞫正法，而備忘忽下，舉措非常，凶如尙喆而貸之以院相，逆如宇鎮而許之以歸葬，以至於禮葬之命，放還之教，尤其是意外，義理由是晦塞，倫綱由是斲絕，臣等竊恐此教一頒，則環東土數千里，其將胥淪於夷狄禽獸之域矣。臣等謂宜還收物故罪人尙喆罪名蕩滌及禮葬，遲晚罪人宇鎮放還歸葬之命，仍令王府，亟施尙喆，追律之典，特允宇鎮嚴鞫，正法之請。答曰，斯速退去。

5) 『정조실록』(권 34) 1792년(정조 16) 2월 10일.

○ 命移配金字鎮于喬桐府. 初，上密遣宣傳官，賚標信入濟州，出宇鎮于棘中，且允臺啓。既押至湖西界放，使歸葬大臣。三司交章爭之，皆不從，伏閣請對，亦不許引見，相持累日。至是，教曰：“島則一也。”遂有是命。

6) 『승정원일기』(권 1699) 1792년(정조 16) 2월 10일.

○ 命大謙書傳教曰，見大臣·三司，既以量處之本意，有所下教，宇鎮使之還配島中，島則一也，法可伸，遠近之間，恩亦可伸，卽令該府，押配于喬桐府。

185. 유언호(兪彦鎬)

- 신분: 관리(판중추부사)
- 유배 연월: 1788년(정조 12) 12월 5일.
- 해배 연월: 1790년(정조 14) 3월 28일.
- 사유: 왕명 비판(정조 탕평 부정)
- 관련 사료

1) 『정조실록』(권 26) 1788년(정조 12) 12월 5일.

○ 命判中樞府事兪彦鎬 大靜縣圍籬安置. 前領議政金致仁削黜, 吏曹判書宋載經施以譴削之典. 召見大臣, 卿宰, 三司諸臣. 上曰: “今日朝廷, 有君乎? 有臣乎? 有倫常乎? 有法紀乎? 國無君父, 凡今三日矣. 卿等甘爲無君父之臣, 欲立無君父之世可乎? 試看今日國事. 凡此庭之北面事予者, 自再昨之後, 安居家食, 恬若無事者, 其將曰有君乎? 有臣乎? 天尊地卑, 亘宇撐宙. 自生民而不泯不墜者, 惟君臣之分, 而惟我祖宗朝四百年扶植之義, 亦惟在於君綱臣分, 式至于今, 而今忽爲無君之世, 卿等以何顏, 復入於此庭乎? 卿等試言之.” 判中樞府事徐命善等曰: “爲今日臣子, 聞今日下教, 豈有一刻欲生之心乎? 驚剝震隕, 罔知攸對矣.” 上曰: “予受祖宗畀付之重, 處臣民君父之位, 目見群下相率入於夷狄禽獸之域, 而其可不誅其不率化者, 濟其迷不知者乎? 兪彦鎬方欲賜死, 卿等之意如何? 可生則曰生, 可殺則曰殺, 其各指陳.” 命善等, 未及仰對. 上曰: “予於今日, 忍發此言, 是予不肖無狀, 而不得不如是, 實不勝掩抑矣. 當日之事, 尙忍言哉? 丙子樂善之火, 故相元仁孫, 以春坊, 獨爲入對, 而其後又有禁井之變. 卿等豈不聞知乎? 及至庚辰正月, 魯禧等逆謀, 日急一日, 乃有趙進道事出, 而至於做出辛壬反案等說, 事有所不忍言者. 此則再昨筵中, 亦不得不略有所教. 此所以德隣事與進道事, 同道殊岐, 而今以庚辰事, 復陳予前, 復入予耳, 予豈忍復見, 予豈忍復聞? 予心驚痛, 尙復何言, 而特慮群下, 矇然靡悟, 來汝臣工, 一番布告者, 亶出於愛欲生之至意. 噫彼兪彦鎬, 忽地稱病, 偃處其家, 屢勤召命, 終不入來, 故初則意以爲未諳本事, 至使承旨, 委報以某年二字, 而猶爲頑然無動. 終至十送備郎, 屢遣史官, 召旨私札, 絡續相望, 而了不承命, 一味力拒, 未乃強到闕下, 而尙且不入, 故遂命送掖隸, 擔席以致, 而然猶堅不應, 筵席垂罷之時, 始爲入來, 而假作

(躡)[蹠] 蹠之步，佯爲呻嚙之聲，黽勉進伏，全沒驚動之色，終不出一言而止。除却許多說話，爲人臣而聞某年二字，佯若不知，必欲不入者，其罪當死乎？當生乎？今日若有君綱臣分，則俞彥鎬當生在地上乎？”命善等曰：“俞彥鎬再昨日負犯，死有餘罪，而臣等拖至今日，默無一言者，實是萬戮猶輕矣。”命宣傳官，差下假都事，馳往俞彥鎬家，諭以今將按律之意，卽爲押來，嚴囚于王府門內。上曰：“趙德隣事，予豈有愛惜之意而然哉？先大王昭釋之教，優待之典，昭載記注，而今此蕩滌之舉，卽是繼述之意，則或有妄揣過慮者，轉相浮動，至有兩一鏡之說。一鏡之外，豈復有一鏡？若謂以兩一鏡，而今予蕩滌其罪犯云，則是誠何如說也？從此而漸次緊甚，又有尹蕃東疏出矣。趙進道事，予欲說則心膽欲掉，不言則隱痛弼中。猶且初賜優批，細加商量者，卽是保世臣之意也，未又從容布諭，俾勿自罹者，亦是保世臣之意也。予於世臣，覆庇拯救者，自以爲曲盡其道，而世臣何能知予苦心乎？予之苦心，一則仰述，二則仰述。惟我先大王五十年平蕩之治，建百世而不惑，質鬼神而無疑。今予所以繼志述事，惟在於保合世臣，同做平泰。今此右相之爰立者，是豈爲右相地也？由是之後，或妄揣於義理之嚴，或過慮於用捨之際，卽昨日綸音，可以泐石而刊金。十年來治規，自謂鑑公而衡平，庶足以孚得群心，則今如是妄揣過慮者，豈不痛哉？尹蕃東無罪矣。殆同孺子入井，彼誠何罪也？”諸臣未及仰對。上曰：“俞彥鎬之罪，可以置辟乎？否乎？老昏大臣，亦已入來，而渠乃抵死抗命，終不入來者，究厥心腸，是豈可一日容貸乎？卿等試思之。君臣之分，姑無論，今使於敵以下，若遭先誣，至痛在心，思與其儕友面對商量，書邀倂速，極其懇摯，而或謂之以物來順應，或托之以有病不來，在當者之心，果何如耶？老昏大臣，予不深誅，而惟彼俞彥鎬，一日不置法，是一日無君。何至今默無一言乎？”遂下不忍聞之教曰：“卿等卽退。”大臣以下迸出，免冠席藁于閤門外。政院以啓，命退去，已而，命入侍。上曰：“前領相妄發則極矣，而與俞彥鎬有異。天君泰然之說，此豈非老昏所致耶？此大臣狃狹之性，每事不能周思，自是本來病處，而今又年過七十，其老妄之言，何足深責耶？俞彥鎬則其心所在，覆載難容，而卿等忍過三日，迄無一言，是豈臣分乎？”命善等曰：“金致仁之罪，豈可諉以老昏，而或賜曲貸乎？請與俞彥鎬，亟加邦憲。”上曰：“俞彥鎬之負犯，固當亟置于大辟，以正君綱民彝，而第念我朝仁厚立國，未嘗輕戮大臣，此固今日所當仰體者。且彥鎬，與躬犯惡逆有間，今於一律次律之間，欲與卿等，商量決定。其各陳意見。”命善等曰：“俞彥鎬既聞本事關係之重，而初不驚動，至有掖隸擔來之命，毫無憤痛之意，其心所在，極律何惜，而仁厚不殺之教，實天地好生之德，臣

等竊不勝欽仰感泣。雖不敢以法力爭，而先施絕島荊棘之典宜矣。”行司直金華鎮等曰：“此等罔赦之罪人，若以次律擬議，則其可曰國有法乎？不可以大官曲貸。請亟施一律焉。”乃教曰：“今日朝廷，無人臣之節，已有日，坐視群下相率爲夷狄禽獸，而任渠無言，其可曰有君有國乎？衣君食君，北面事予者，聞事有關於某年，而階梯機關，爲逆賊尙魯，啓禧等作逆凶謀中一事，則病不至已殊，尙有一縷之不滅，爲此事有召命，托疾頑拒者，國有三尺，能免誅殛乎？特以本事之不忍言不敢道，姑不形諸言語文字，先使僚相，承宣微通，次遣備郎者，不知爲幾次，次遣史官者，亦爲屢次，半日催促，抵死抗命，至命紫衣，擔來閤外，然猶不應。及其最晚登筵，假作蹢躅辛楚之狀，魯，禧事詢問，全沒驚痛憤惋之意，初無一言開口奏對。究厥心腸，覆載難容。然而慣知其人品，名之曰大臣，略先飭責，俾自爲所。意謂求死不得，退有別般舉措，昨日今日，偃息若常，古今天下，乃有如許變怪乎？彼雖不足惜，處分之不欲遽加，蓋有商量，到今思已熟矣。有國之倫綱，不可不顧，年與病又不至於老昏，而本事則所關之莫重莫大，尤何如？抗命之罪，猶屬薄物細故。豈可以大官，不置之王章乎？今日詢問之舉，政在於賜死當否。廷議多主常憲，而予則曰其罪無可赦。我朝立國，仁厚是尙，不殺大臣，卽相傳之懿規，此予所以重致意處。判府事俞彥鎬，絕島圍籬安置，俾中外，知有君有臣有倫綱。”三司【大司諫李洪載，執義李齊萬，司諫尹行履，應教韓用龜，掌令沈興永·朴錕，持平朴載淳·徐邁修，獻納姜垣，校理閔昌赫，副校理徐配修，正言鄭來百·尹齊東，修撰申大尹，副修撰李顯默·李益運】合啓言：“俞彥鎬之罪，可勝誅哉？爲今日臣子者，苟有一分人心，旣聞某年二字之後，固當崩心痛骨，顛倒趨召之不暇，而乃敢偃然在家，始旣稱病，及至闕外，猶復力抗，至有送掖隸之舉，而終不入來，了無驚動悚蹙之意，趑趄不言，情態可惡。論其負犯，死有餘罪。雖以我聖上好生之德，曲貸一律，姑先島棘，究厥罪狀，決不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請絕島圍籬罪人俞彥鎬，依律處斷。”批曰：“其人不足惜，其罪不可赦，律止島棘，出於仰遵懿規，不必如是爭執矣。”又啓言：“金致仁辜恩負國之罪，已著於朝象之潰裂，世道之乖亂，而日前筵席，不念我聖上震惕之懷，所奏無嚴，言笑相雜，末乃以庚丙兩年之說，肆然仰對。論其罪狀，萬萬駭痛。聖教雖付之於老昏，厥罪實不可以容貸。臣等謂前領議政金致仁，爲先削奪官爵，門外黜送宜矣。”批曰：“旣付之老昏，又付之老昏，而有國則有法綱，不可以元輔而屈之。向後寬恕，姑無論，豈可竝與目下所論而靳持？依啓。”洪載又啓言：“吏曹判書宋載經，向日下詢諸宰之日，諉以病重，終不入來。論以臣分，十分無嚴。請施譴削之典。”允之。上謂

諸臣曰：“予之知遇於俞彥鎬，眷注於俞彥鎬者，視卿等固十倍，而犯此罪負，有此處分，予心之駭痛，尤當如何？予之所期望於卿等，卿等之所裨補於予者，無他。惟是大小相孚，共貞同寅，毋或自私，乃心王室。卿等以是而克贊予治，予則以是而仰述先烈，庸躋于平泰之域，則豈但國家之幸也？是實世臣身家之福也。其各勉之。”

2) 『승정원일기』(권 1649) 1788년(정조 12) 12월 5일.

○ 趙衍德, 以義禁府言啓曰, 罪人俞彥鎬, 絶島圍籬安置事, 命下矣. 罪人俞彥鎬,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圍籬安置,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都事, 押送配所, 與地方官, 眼同圍籬安置, 何如? 傳曰, 允.

3) 『정조실록』(권 29) 1790년(정조 14) 3월 27일.

○ 敎曰: “當待諸道放未放處分, 而此事卽早欲處分者, 間因事端, 未免中止. 大抵外面看者, 豈不曰刑政之輕重倒置乎? 雖從加倍之律, 兼加大懲之義, 而名以大官, 則與庶僚自別. 屢年絶海, 亦足勘其罪, 濟州牧圍籬安置罪人俞彥鎬特放.

4) 『승정원일기』(권 1675) 1790년(정조 14) 3월 28일.

○ 洪聖淵,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圍籬安置罪人俞彥鎬放送事, 承傳啓下矣. 俞彥鎬, 卽爲撤圍籬放送事, 分付該道道臣及該牧使之意, 敢啓. 傳曰, 知道.

186. 정명련(丁命連)/정난주(丁蘭珠)

- 신분: 가족(연좌)<여>
- 유배 연월: 1801년(순조 1) 11월 7일.
- 사망 연월: 1838년(헌종 4) 2월 1일⁸⁾.
- 사유: 종교 박해(황사영백서 사건, 황사영<黃嗣永> 처, 정약현<丁若鉉> 딸)
- 관련 사료

1) 『순조실록』(권 3) 1801년(순조 1) 10월 3일.

○ 左右捕廳啓言: “捕捉邪學亡命罪人黃嗣永於忠清道 堤川地, 移送義禁府.”

2) 『순조실록』(권 3) 1801년(순조 1) 11월 5일.

○ 推鞠酌處邪學罪人. 罪人黃嗣永, 本以丁若鍾之侄婿, 惑溺邪術. 周文謨出來之後, 師事而父號, 領洗而受名. 逮捕之下, 知機亡命, 竄伏山峽, 潛圖不軌, 與黃沁, 玉千禧, 爛漫和應, 寫出帛書, 將傳洋人之堂. 書中所言, 字字凶肚, 句句逆腸, 無非向上不道之說, 與國爲讎之計, 以大逆不道結案. 罪人玉千禧, 本以宣川人, 每歲隨節使往來, 而締結黃嗣永, 黃沁, 玄啓欽之徒, 屢度傳書, 受洗受名於天主堂居接之湯姓名亞立山者, 訪見周文謨於姜完淑之家, 討書傳于洋人, 受其答, 而將欲歸傳文謨, 到灣聞邪黨就捕, 還入彼中, 備傳國事. 嗣永輩請來海舶, 廣布邪術之計, 爛漫參聞, 以知情不告結案. 罪人玄啓欽, 網繆關通於嗣永, 昌顯, 完淑等諸人, 周文謨出來之後, 受洗受號. 而當初邪黨就獄, 知機逃躲, 自知難免, 旋即自現, 以更不染汚之意, 納招蒙放. 及夫嗣永就捕, 而情節益著, 邪黨之請來洋舶, 爛漫參涉, 日夜佇企其出來矣, 聞異國船之漂舶東萊, 委往見之, 畫示十字, 乃是邪教中相探之法, 而以此辨其真贗. 至發於周漢之文蹟, 嗣永之凶書, 皆以東萊探船, 作一話本, 狼藉譸張, 轉相醞釀, 以知情不告結案, 并正法. 巨濟府定配罪人李致薰, 薪智島定配罪人丁若銓, 長鬐縣定配罪人丁若鏞, 綾州牧定配罪人李學達, 雲峯縣定配罪人申

8)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대정현 기록전시관’에 소장된 「정난주 마리아 부고 편지」(대정현 서성리 거주 김상집<金相集>이 추자도에 있는 황사영(부인 정난주)의 아들 황경한<黃景漢>에게 보낸 편지) 사본의 기록 내용을 참조함.

與權·罪人李寬基，俱發鞠招，竝更拿訊，別無情犯之有如究覈，命竝酌處，配致薰于濟州牧，若銓于羅州牧 黑山島，若鏞于康津縣，學達于金海府，與權于固城縣，寬基于長興府，仍命撤罷推鞠。三司交章請寢酌配之命，不從。

3) 『승정원일기』(권 1843) 1801년(순조 1) 11월 7일.

○ 洪羲運，以義禁府言啓曰，卽接漢城府牒報及西部成冊，則大逆不道罪人嗣永應坐諸人，查出以來矣。其母允惠慶尙道巨濟府，妻命連全羅道濟州牧大靜縣，竝緣坐爲婢，子景漢年二，以年未滿，依律文免絞，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而右罪人等今方捉囚，當部竝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何如？傳曰，允。

4) 『일성록』 1801년(순조 1) 11월 7일.

○ 義禁府啓言 卽接漢城府牒報 及西部成冊 則大逆不道罪人嗣永 應坐諸人 查出以來矣 其母允惠巨濟府 妻命連濟州牧大靜縣 竝緣坐爲婢子 景漢年未滿依律免絞靈光郡楸子島爲奴 而右罪人等 今方捉囚當部 請竝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允之

187. 이목준(李睦駿)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802년(순조 2) 1월 15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범죄(홍서/괘서 사건, 영산 이호춘<李好春>의 아들)
- 관련 사료

1) 『순조실록』(권 3) 1801년(순조 1) 12월 14일.

○ 酌處嶺南掛書罪人. 先是, 河東, 昌原, 次第有掛凶書者, 道臣以聞. 朝廷不欲張大其事, 使道臣查之, 及獄情已露, 命送按覈使韓用鐸, 與監司金履永, 眼同究覈. 罪人宜寧居田志孝者, 使其妹兄晉州人李震化掛書, 仍使震化撤來, 囑里任告官, 以爲希功之地, 又使妹兄裴縉慶書凶書, 送縉慶之弟綸慶掛之昌原, 及其究覈也, 情跡將露, 震化推諉於晉州人鄭養善. 屢被嚴訊, 有以志孝與震化謀議, 諉人之說告者, 養善始見脫於元犯之誣. 罪人李好春, 本以靈山人, 粗解卦繇, 誑說億中, 人多惑信, 思亂樂禍, 煽動妖言, 至向不敢言之地, 多發不忍聞之語, 與河東所掛之書, 一樣凶慝. 按使, 道臣啓言: “諸賊逆節, 卽前古簡牒之所罕有, 而概其源委, 由於妖讖流毒, 惑亂人心, 凶窩亂本, 不可不嚴覈. 請令王府, 設鞫得情.” 備局啓言: “今不必重煩王府. 今按覈使與道臣, 更以諸罪人取服之招, 直捧結案, 考律正法, 使遐外蚩頑之類, 知所警畏. 其餘諸囚, 分等決處, 亦自本道舉行, 實爲得宜.” 從之.

2) 『승정원일기』(책 1844) 1801년(순조 1) 12월 15일.

○ 柳勳(肅+心), 以義禁府言啓曰, 罪人李好春·田志孝等, 以大逆不道捧結案, 罪人李震化·裴縉慶·裴綸慶等, 以犯上不道捧結案, 罪人表命斗, 以知情不告捧結案, 竝正法事, 承傳啓下矣. 謹按律文, 則大明律謀叛大逆條有曰, 凡謀叛及大逆, 但共謀者不分首從, 皆凌遲處死, 大典通編推斷條有曰, 凡亂言干犯於上, 情理切害者, 斬, 籍沒家產, 大明律謀叛大逆條有曰, 凡謀叛及大逆, 知情故縱隱藏者, 斬, 同律死囚覆奏待報條有曰, 其犯十惡之罪, 應死者, 決不待時矣. 罪人好春·志孝等, 係是大逆不道, 不待時陵遲處死, 罪人震化·

縉慶·綸慶等, 係是犯上不道, 不待時斬, 籍沒家產, 罪人命斗, 係是知情不告, 不待時斬, 而右罪人等, 方囚嶺獄, 卽爲發遣府都事, 與按覈使及該道道臣, 眼同捧結案後, 依律正法, 應坐之類, 待罪人等正刑, 狀聞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책 1846) 1802년(순조 2) 1월 9일.

○ 任希存,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慶尙監司金履永牒報及成冊, 則大逆不道罪人志孝·好春應坐諸人, 查出報來, 仍以爲, 志孝子峻八, 年二十一, 本是志孝兄處孝子, 志孝未生子之前, 果爲收養, 呼父呼子, 而初未有禮斜之事云, 故招問田哥諸人及該面執綱·戶有司, 則所告雖無異同, 禮斜成出之有無, 不可所信於渠輩之所告, 考諸該曹文蹟眞僞, 可以立判, 而設或禮斜未及成出, 收養多年, 呼父呼子, 名則已定, 故鄉人莫不認以爲父子, 則不可以禮斜之未出, 換其父子之名, 傳之叔姪之義, 撤榜之初, 首先解釋, 雜出於諸囚之供, 則同參情跡, 昭不可掩, 斷當殄滅無遺, 絕其兇種, 論以名義, 參以負犯, 合置父子應坐之律云矣. 志孝父載稷年八十三, 依法典免絞, 全羅道濟州牧絕島定配, 母宜生年八十一, 依律文免坐, 妻儀永咸鏡道慶興府爲婢, 子宗郁年一, 以年未滿, 依律文免絞, 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 女守幸咸鏡道茂山府爲婢, 兄處孝全羅道羅州牧黑山島, 弟宅孝珍島郡金甲島, 竝爲奴, 姪峻豐平安道朔州府, 彩郁咸鏡道三水府, 大快平安道孟山縣, 小快全羅道靈光郡, 代快平安道寧遠郡, 命郁全羅道古阜郡, 竝流三千里安置, 好春妻岳只咸鏡道明川府爲婢, 子睦駿年十一, 烈駿年三, 俱以年未滿, 依律文免絞, 睦駿全羅道濟州牧大靜縣, 烈駿興陽縣呂島鎮, 竝爲奴, 女玉伊平安道郭山郡, 七伊咸鏡道利原縣, 竝爲婢, 兄漢春慶源府爲奴, 姪孟駿平安道碧潼郡, 流三千里安置, 而右罪人等, 今方捉囚於宜寧·靈山等縣獄, 竝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 而峻八撤榜之時, 首先解釋, 既出諸囚之招, 則究其負犯, 不但罔赦, 渠雖處孝之子, 既爲志孝之所收養, 稱父稱子, 名義已定, 則不可以禮斜之未出, 遽議傳生之典, 而事係一律, 以臣等膚淺之見, 有難臆斷, 下詢大臣處之, 何如? 傳曰, 允.

4) 『승정원일기』(책 1846) 1802년(순조 2) 1월 15일.

○ 任希存,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志孝父載稷年八十三, 依法典免絞, 全羅道濟州牧絕島定配, 母宜生年八十一, 依律文免坐. 妻儀永, 咸鏡道慶興府爲婢,

子宗郁年一，以年未滿，依律文免絞。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女守幸，咸鏡道茂山府爲婢，兄處孝，全羅道羅州牧黑山島，弟宅孝，珍島郡金甲島爲奴，姪峻豐，平安道朔州府，彩郁，咸鏡道三水府，大快，平安道孟山縣，小快，全羅道靈光郡，代快，平安道寧遠郡，命郁，全羅道古阜郡，竝流三千里安置，好春妻岳只咸鏡道明川府爲婢，子睦駿年十一，烈駿年三，俱以年未滿，依律文免絞。睦駿，全羅道濟州牧大靜縣，烈峻，興陽縣呂島鎮，竝爲奴，女玉伊，平安道郭山郡，七伊，咸鏡道利原縣，竝爲婢，兄漢春，慶源府爲奴，姪孟峻，平安道碧潼郡流三千里安置事，命下矣。上項罪人等，方囚宜寧·靈山等獄，押送各其配所事，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敢啓。傳曰，知道。

188. 이택관(李宅觀)

- 신분: 관리(대정현감)
- 유배 연월: 1806년(순조 6) 7월 4일.
- 해배 연월: 1806년(순조 6) 9월 20일.
- 사유: 근무지 이탈(병고(病故))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책 1895) 1805년(순조 5) 윤6월 26일.

○ 乙丑閏六月二十六日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 守令·邊將·察訪初仕人, 在院承旨同爲入侍時, 右承旨金宗善, 假注書韓泰登, 事變假注書朴時源, 記注官崔鳳和, 別兼春秋徐有恂, 左議政徐邁修, 刑曹判書蔡弘履, 行護軍李得濟·李仁秀·徐滢修, 左承旨尹致性, 左副承旨李文會, 右副承旨吳鼎源, 同副承旨任厚常, 記事官徐淇修, 待教朴宗薰, 會寧府使崔東岳, 江陵府使李儒慶, 康津縣監李周顯, 茂山府使李商一, 慶興府使徐翼淳, 礪山府使吳亨喆, 巨濟府使權煥, 北青府使姜文會, 長興府使趙台錫, 定平府使李碩遠, 河東府使許■■, 德川郡守金熙華, 順川郡守李閻彬, 樂安郡守李基鼎, 昆陽郡守李衡民, 靈巖郡守趙達洙, 長淵縣監具綱, 光陽縣監具達遠, 大靜縣監李宅觀,

2) 『승정원일기』(책 1913) 1806년(순조 6) 6월 3일.

○ 嚴耆,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朴宗柱狀啓內, 大靜縣監李宅觀,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李宅觀, 今方待命, 拿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

3) 『승정원일기』(책 1913) 1806년(순조 6) 6월 15일.

○ 禁府啓目, … 又啓目粘連, 向前李宅觀亦, 身爲耽羅守宰, 因公越海, 投狀徑還, 情雖緣於病故, 罪難追於擅行, 以此照律, 何如? 判付啓, 依允.

4) 『승정원일기』(책 1914) 1806년(순조 6) 7월 4일.

○ 嚴耆,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李宅觀, 告身盡行追奪, 卽其地限三年定配, 照律公

事判付內, 依允事, 命下矣. 李宅觀, 告身盡行追奪,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卽其地限三年定配. 而以議啓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5) 『승정원일기』(책 1917) 1806년(순조 6) 9월 20일.

○ 任厚常,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朴宗柱啓本, 大靜前縣監李宅觀, 卽其地限三年定配事, 判付內, 飭已施矣, 放送事, 命下矣. 李宅觀放送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89. 장의량(張宜良)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809년(순조 9) 2월 19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흥언 장몽서(張夢瑞)의 손자)
- 관련 사료

1) 『순조실록』(권 12) 1809년(순조 9) 2월 14일.

○ 刑曹判書金履度請對, 奏言: “昨日擊錚人中, 有南原 張夢瑞爲名者, 見其原狀, 都是凶言, 不勝驚惋, 而夜深今始來奏矣.” 上命入原狀. 全篇旨意, 至凶絕悖, 有曰: “繼先王未遑之志, 述先王未就之事, 上尊號於景慕宮, 祔于太廟.” 又有 ‘日瞻宮廟, 私情鬱結, 顧望左右, 虛勞精力’ 等語. 上覽訖, 教曰: “萬萬驚心矣. 其言辭極爲凶點, 而誣逼先朝, 當有臨門之舉.” 仍命遞判義禁, 以李集斗代之. 御北營, 親鞫其窮凶情節, 以其指喉之不爲直招, 命移王府鞫之.

2) 『승정원일기』(책 1963) 1809년(순조 9) 2월 18일.

○ 朴宗薰, 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夢瑞應坐罪人, 自漢城府考績籍報來矣. 孫宜良, 全羅道濟州牧大靜縣緣坐爲奴, 而方在南原地, 依例令刑曹舉行,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책 1963) 1809년(순조 9) 2월 19일.

○ 朴宗薰,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夢瑞應坐罪人, 自漢城府考籍報來矣. 孫宜良, 全羅道濟州牧大靜縣緣坐爲奴, 而方在南原地, 依例令刑曹舉行事, 命下矣. 罪人宜良, 方在南原地云, 分付該道, 卽爲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4) 『승정원일기』(책 1963) 1809년(순조 9) 2월 20일.

○ 朴宗薰, 以刑曹言啓曰, 大逆不道罪人夢瑞·孫宜良, 濟州牧大靜縣緣坐爲奴, 押送配所事, 命下矣. 既是臺啓方張之後, 則當以不得舉行之意, 措辭仰請, 而循例草記, 至承知道之命, 臣之矇不覺察, 惶恐待罪, 而罪人之押送配所, 不得依例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卿則推考.

190. 홍검승(洪儉崇)

- 신분: 가족(연좌)
- 유배 연월: 1812년(순조 12) 5월 29일.
- 해배 연월: 미상
- 사유: 연좌(민란 홍경래(洪景來)의 아들)
- 관련 사료

1) 『순조실록』(권 15) 1812년(순조 12) 4월 21일.

○ 官軍收復定州. 平安監司以今月十九日, 官軍收復定州城, 斬獲賊魁洪景來等, 馳啓. 敎曰: “官軍久爲暴露, 宵旰憧憧之心, 不勝于中, 捷音忽至, 諸軍奮勇, 大破賊兵, 斬賊魁之首, 盡擒其黨, 檻車上送, 萬萬快幸, 諸將之功勳, 極庸嘉乃. 亂平之後, 安民爲急, 民邑復舊之政, 論功行賞之舉, 十分得宜, 然後可以慰西民之心. 令廟堂, 申飭道帥臣, 次次講究舉行.”

2) 『승정원일기』(책 2015) 1812년(순조 12) 5월 29일.

○ 洪秀晚, 以義禁府言啓曰, 卽接龍岡縣監申在業牒呈及成冊, 則逆魁景來應坐支屬, 查出以來, 而其母朴女, 妻崔女, 姪蒯亡·大默, 子儉崇, 捉囚定原獄, 姪志默, 捉囚本縣, 兄命來·昌來, 弟鼎來, 姪業同·孟孫·明山·明中, 子小斤崇, 昨年十月, 隨景來出去云矣. 擧兵逆魁之兄弟妻妾, 竝坐誅, 載在大典通編, 其妻崔女, 發遣府都事, 與地方官, 眼同處斬, 子儉崇年十一, 依律文免絞,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 姪蒯亡康津縣古今島, 大默靈巖郡楸子島, 志默羅州牧黑山島, 竝流三千里安置, 而依例令刑曹押送配所, 母朴女年七十四, 依律文免坐, 命來·昌來·鼎來·業同·孟孫·明山·明中·小斤崇, 分付該道臣, 一竝跟捕, 更爲牒報後, 依律舉行, 何如? 傳曰, 允.

3) 『승정원일기』(책 2015) 1812년(순조 12) 5월 30일.

○ 洪秀晚, 以刑曹言啓曰, 義禁府啓辭內, 卽接龍岡縣監申在業牒呈及成冊, 則逆魁景來應坐支屬, 查出以來, 而其母朴女, 妻崔女, 姪蒯亡·大默, 子儉崇, 捉囚定原獄, 姪志默捉

囚本縣，兄命來·昌來，弟鼎來，姪業同·孟孫·明山·明中，子小斤崇，昨年十月，隨景來出去云矣。學兵逆魁之兄弟妻妾，竝坐誅，載在大典通編，其妻崔女，發遣府都事，與地方官，眼同處斬，子儉崇年十一，依律文免絞，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姪蒯亡康津縣古今島，大默靈巖郡楸子島，志默羅州牧黑山島，竝流三千里安置，而依例令刑曹押送配所，母朴女年七十四，依律文免坐，命來·昌來·鼎來·業同·孟孫·明山·明中·小斤崇，分付該道臣，一竝跟捕，更爲牒報後，依律舉行，何如？傳曰，允事，命下矣。罪人蒯亡·大默·儉崇，方囚定原縣獄，罪人志默，方囚龍岡縣獄，竝令本道卽爲押送于各其配所事，分付道臣，何如？傳曰，允。

191. 강선상(康善尙)

- 신분: 미상
- 유배 연월: 1835년(헌종 1) 11월.
- 해배 연월: 1838년(헌종 4) 12월 27일.
- 사유: 범죄(어사 수종 사칭)
- 관련 사료

1) 『승정원일기』(권 2362) 1838년(헌종 4) 12월 27일.

○ 朴長復, 以刑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李源達牒呈, 則大靜縣徒三年定配罪人康善尙, 今已限滿云矣. 取考曹上配案, 則善尙, 以假稱繡衣隨從, 乙未十一月定配, 限滿的實, 知委該牧, 依法典放送後, 徒流案頃下事, 分付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192. 김정희(金正喜)

- 신분: 관리(형조참판)
- 유배 연월: 1840년(헌종 6) 9월 4일.
- 해배 연월: 1848년(헌종 14) 12월 6일.
- 사유: 연좌(부친 김노경<金魯敬>의 윤상도<尹商度> 옥사 연루)
- 관련 사료

1) 『헌종실록』(권 7) 1840년(헌종 6) 9월 4일.

○ 敎曰: “纔見右相筭本, 獄事之脈絡肯綮, 甚是昭著. 固當連加訊推, 而證援已絕, 盤覈無路, 且大臣之以獄體與法理, 縷縷陳說者, 實是公平明正之論, 其在從疑之義, 合有減死之典. 鞫囚罪人正喜, 大靜縣圍籬安置.”

2) 『승정원일기』(권 2383) 1840년(헌종 6) 9월 4일.

○ 傳于吳取善曰, 纔見右相筭本, 獄事之脈絡肯綮, 甚是昭著, 固當連加訊推, 而證援已絕, 盤覈無路. 且大臣之以獄體與法理爲重, 縷縷陳說者, 實是公平明正之論, 其在從疑之義, 合有減死之典. 鞫囚罪人正喜, 大靜縣圍籬安置.

○ 吳取善, 以義禁府言啓曰, 鞫囚罪人正喜大靜縣圍籬安置事, 承傳啓下矣. 正喜大靜縣圍籬安置,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3) 『헌종실록』(권 15) 1848년(헌종 14) 12월 6일.

○ 敎曰: “李穆淵, 趙秉鉉, 金正喜, 放.”

4) 『승정원일기』(권 2480) 1848년(헌종 14) 12월 6일.

○ 左承旨李玄緒, 右承旨權用脩, 左副承旨沈熙淳, 右副承旨沈宜冕, 同副承旨趙然昌等啓曰, 臣等卽伏見傳敎下者, 有茂朱府竄配罪人李穆淵放送之命, 又伏見徒流案及放未放成冊下者, 大靜縣圍籬安置罪人正喜, 巨濟府加棘島置罪人秉鉉, 竝以放字書下矣. 噫, 諸

罪人罪名, 雖各不同, 當初負犯, 何等緊重, 伊時處分, 何等截嚴? 臺啓之尙斬俞音, 已是失刑之大者, 今忽有特宥之命, 此固出於大聖人好生之德. 而王章不可不伸, 隄防不可不嚴, 臣等相顧憂歎, 義難奉承, 茲敢相率聯籲. 伏願聖明, 亟降收還之音焉. 惶恐敢啓. 答曰, 今此處分. 深有斟量者存, 卽爲頒布.

5) 『승정원일기』(권 2480) 1848년(헌종 14) 12월 7일.

○ 以義禁府徒流案, 傳于沈宜冕曰, 金正喜放.

〈제주 유배 문화 자원 조사〉 참여 연구진

Ⅰ 연구 책임

임승희 전문연구원

Ⅰ 공동 연구진

홍기표(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김새미오(제주대학교 강사)
김진철(제주대학교 강사)
강동호(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 연구원)
김재형(전 제주4·3평화재단 학예연구사)
손기범(제주대학교 강사)
김우리(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Ⅰ 자문위원

김익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강문규(전 한라일보 논설실장)
양진건(제주대학교 교수)
김동전(제주대학교 교수)
문종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

제주역사 자료총서 17

제주 유배 문화 사료집(I) - 제주 유배사

Ⅰ 발행일 2020년 12월

Ⅰ 발행인 김 순 자

Ⅰ 기 획 임 승 희

Ⅰ 집 필 홍 기 표

Ⅰ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Tel 064-747-6137 Fax 064-747-6140

Ⅰ 인쇄처 제 주 콤

Ⅰ ISBN 979-11-995729-1-1 93910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